

국역 류성룡 시 Ⅱ

이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재, 복제, 기타 이용하려면 반드시 사단
법인 서애선생기념사업회와 역주·감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국역 서애전서
國譯西厓全書

Ⅲ - 2

국역 류성룡 시 Ⅱ

西厓 柳成龍 지음

류명희 역주·감수
안유호

사단
법인 서애선생기념사업회



우리 민족정신과 문화의 근간에는 유구한 역사 속에 매 시대마다 끊임 없이 발생하는 시련을 딛고서, 이를 계승발전 시키고자했던 위대한 선조들의 각고刻苦의 노력들이 스며있습니다. 그 중에도 선조先祖들의 정신이 담긴 각계의 수많은 유저遺著는 바로 문화의 기층基層을 헤아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누구나 부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1542~1607) 선생은 우리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임진왜란의 중심에 서서 밖으로는 보국안민輔國安民을 위해, 불철주야 군략軍略과 시정施政의 방책을 짜내기에 고심苦心하셨고, 안으로는 육친에 대한 효제孝悌 정신의 실천을 삶의 근간으로 하셨던 대유大儒이셨습니다. 이와 같이 정덕正德으로 일관했던 서애 선생의 생애는 바로 부친 입암立巖 류중영柳仲郢 선생의 유학적儒學的 경륜에 의거한 훈도訓導와 퇴계의 문하에서 심화시킨 정·주이학程朱理學의 도학道學 사상이 선생의 생애를 마름해주는 기준이 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하여서 30년간의 입조入朝에서 거의 유례없는 승진陞進을 거듭할 때마다, 한결같이 직위는 초개草芥같이 여기시나 직분職分에는 오로지 ‘충忠’으로 일관하셨던 위대한 지도자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성이 진리를 궁구窮究하시는 학자적 면모를 지니셨던 터라, 국난國難의 중심에서 겪었던 크고 작은 범국가적 고초와 개인의 애환을 문文과 시詩로 하나하나 남기시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귀감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후에도 그 음덕蔭德이 하늘에 닿습니다.

별세하신 선친先親(휘諱 찬우繼佑)께서는 1976년 12월 21에 사단법인社
團法人 ‘서애선생기념사업회西厓先生紀念事業會’를 발족시켜, 15년이 넘는
각고刻苦 끝에 1991년, 서애선생의 저술을 집대성하여 『서애전서西厓全
書』 4책冊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두 한문漢文으로 되어
있어, 본회에서는 서둘러서 국역작업을 시작했으나, 역시 『서애전서西厓全
書』 간행으로부터 다시 10년이 지난, 2001년에서야 전서全書의 일부를 간
행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선친은 이의 완성단계에서 별세하셨습니
다. 그때, 간행된 것은 ‘문부文部’를 중심으로 한 것으로, 크게 두 종류로
분류하여, 모두 7책이었습시다. 즉, 제Ⅰ부는 『서애전서西厓全書·별저편
別著篇』을 중심으로 총 5책 - 『징비록懲毖錄』·『근폭집芹曝集』·『진사록
辰巳錄Ⅰ』·『진사록辰巳錄Ⅱ』·『군문등록軍門謄錄』- 이고, 제Ⅱ부는 문
집편文集篇의 본집本集·별집別集·속집續集을 대상으로 총 2책 - 『잡저雜
著』와 『서書』- 을 국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서애전서 일부가 국역으로 간행된 지 다시 10년이 지난 지
금에 와서야 ‘시부詩部’의 국역을 착수하게 되니, 미리 번역했던 국역본 간
행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계와 사림士林의 인사들에게 죄송한 마음
그지없습시다. 역자譯者의 선정 및 기타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본의 아니
게 늦어졌으니 너그러우신 양해를 바랍니다.

이번에 출간하는 시집詩集은 앞의 Ⅰ·Ⅱ부의 후속편으로 출간하게
되는 것입니다. Ⅰ·Ⅱ부의 ‘문文’을 통해서 보았던, 정치가 혹은 군략가
軍略家로서의 서애선생의 지극한 뜻과 의지가, 이번에 제Ⅲ부의 ‘시詩’에서
는 서애선생 인생의 면면에 대한 개인적인 감회와 처세處世 및 철학과 사
상 등을 엿 볼 수 있어, 서애선생을 연구하거나 이해하고자하는 독자들에게
는 보다 직접적인 느낌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서애전서西厓全書』에 수록된 시의 총수는 총 725제題 888수首입니다. 이의 구체적인 수량을 보면, 서애전서西厓全書 권1의 본집本集 권1에 120제題 168수首 ; 서애전서西厓全書 권1의 본집本集 권2에 102제題 147수首 ; 서애전서西厓全書 권1의 별집別集 권1에 152제題 167수首 ; 서애전서西厓全書 권2의 속집續集篇에 301제題 355수首 ; 서애전서西厓全書 권3의 관화록觀化錄에 38제題 39수首 ; 기타 서간문에 포함된 시에 12제題 12수首가 실려 있습니다.

이들 시를 국역함으로써 서애선생 친필親筆의 전문집全文集의 국역이 완료되며 앞으로도 경향각지京鄕各地에 흩어져있는 선생의 옥고玉稿가 발견되는 즉시 추가하여 수록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국역된 제2권의 시집은 총 102제題 147수首입니다.

어느덧 국역본 제1권이 출간된 지 3년이 지나서야 제2권을 세상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Ⅲ부의 첫 권에 이어서 제2권을 출간하고 보니, 선친의 서애선생에 대한 숭모崇慕의 마음과 서애선생의 아름다운 뜻을 세상 사람들과 함께 누리고자 애쓰셨던 선친의 큰 뜻이 새삼 머리에 뚜렷하게 떠오릅니다.

끝으로 권2의 국역 역시 독자의 편의를 위해 특별히 주석注釋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서애 선생의 시의詩意가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는데 각별한 정성을 쏟은 역자譯者 두 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 두 분 선생께서는 본회에서 서애시집의 국역 및 감수監修의 중책을 맡았으며, 류명희 교수는 서애선생의 12대 후손으로 대학에서 한시漢詩 전공에서만 30년 경력을 지닌 분이고, 또한 류교수의 부군夫君인 안유호安維鎬 선생 역시 유년시절부터 한학漢學을 익혔고 중화민국中華民國에서 역사학을 전공한 재원으

로, 본시집의 국역과 감수에 공동으로 참여하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서애시집의 국역을 염두에 두고 번역자의 물색에서부터 본 시의 국역에 대한 제작과 실무를 모두 맡아 그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서애선생 기념사업회의 류영한柳永漢 이사에게도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2014년 8월

(사단법인) 서애선생기념사업회西厓先生紀念事業會 이사장理事長

서애西厓 13대 후손 류진柳津 삼가 씀



『국역 류성룡 시II』가 출간 된지도 어언 일 년이 넘었다. 부족한 사람은 언제나 뒤늦게 아쉬움을 느낀다. 책이 출간된 뒤에야 오류를 깨닫게 된다. 정성精誠이란 말의 사전적 의미가 ‘온갖 힘을 다하려는 참되고 성실한 마음’일진대, 서애 시를 번역함에 있어서 정성은 들였지만, 번역 후에 마음 한 구석에 늘 미진한 게 남아 있었던 까닭은 역자 내외의 식견이 부족해서이다.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이 오류를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동시에 독자 제위께 죄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다. 굳이 변명 한 마디 하자면 번역 과정에서 가끔은 자료 부족을 절감하기도 하고, 간혹은 고증할 수 없는 내용도 있어 난감함을 느꼈던 적도 여러 번 있었다.

이번에 권2의 수정본을 정리해 놓고 나서, 한편으로는 독자 제위께 정성을 들였다는 안도감도 느끼고, 한편으로는 오류도 바로 잡아 다행스럽다는 위안감도 느낀다.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번역에 임하고, 좀 더 많은 자료를 확보하여 오류가 거듭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권2의 수정본을 낼 기회를 주신 서애기념사업회 류진(柳津) 이사장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이 수정본이 나오도록 힘써 주시고 역자 내외를 격려해주신 류영한(柳永漢) 이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여러 곳에서 오류를 바로 잡도록 지적해 주신 류동주(柳東柱) 선생과 안동 지방의 역사 기록을 담은 지방지인 『영가지(永嘉誌)』의 영인본

을 구입해 주셔서 오류를 바로 잡는데 큰 도움을 주신 김교현(金敎顯) 선생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출판 과정에서 지극한 정성으로 교정을 해준 출판사 한스북스의 류한경(柳漢京) 사장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10월

서애西厓 12대 후손 류명희柳明熙

후학後學 안유호安維鎬



서애시西厓詩를 번역하면서 역자 내외는 고요한 마음의 정취를 새롭게 느껴가고 있다. 아름다운 구름을 보고도 아름답다고 느끼지 못했고, 맑은 물을 보고도 자신을 비춰 볼 줄 몰랐으며, 고요한 정서가 깃든 오솔길을 보고도 옛 추억을 더듬으며 걸어볼 생각을 못했던 우리 내외에게, 청아한 바람처럼 귓가에서 일깨워주는 영혼의 소리를 들려준 것은 서애시였다.

선생의 산수시山水詩를 번역하다가 보면 근처의 숲속에 스쳐가는 바람 소리가 사백여 년 전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고, 구비 돌며 흘러가는 강물의 물결 소리는 서애선생이 읊은 시처럼 들려서, 지금 보고 있는 눈앞의 아름다운 산수풍경이 사백여 년 전의 흔적처럼 보인다. 눈 뜨고 번역할 때는 보이지 않다가도 눈 감고 그 시를 감상하면 사백여 년 전의 서애선생의 정취가 느껴진다.

그리하여 우리도 감히 선생의 일상에 녹아드는 실재감을 향유하였다. 이를테면, 북담北潭에 비친 고즈넉한 월색의 정적靜寂, 옥연정사玉淵精舍 주변의 솔바람 소리, 간죽문看竹門 밖에서 강바람에 실리어 들려오는 빙옥같은 대숲바람소리, 완심재玩心齋에서 삼계三界를 궁구窮究하는 도학자 내면의 구도求道의 소리 등은 그대로 우리 내외의 영혼을 세척하는 세심경洗心鏡이 되어주었다. 그래서 우리는 줄곧 선생의 고답한 정취와 사상에 심취하여 시를 번역하는 동안 내내 4백 여 년 전을 넘나들며 사물事物을 사랑하는 방법도 배우게 되었다. 여러모로 부족하고 부덕한 역자 내외가 늘 그막에 선생으로 인해서 접하게 된 세심경洗心鏡은 인연에 얹힌 무거운 짐

들을 대상화시켜서 관조하도록 해주었다. 뿐만 아니라 변화무쌍한 인간사도, 철따라 꽃 피고 잎 지는 자연현상도 오직 이법理法의 표현형식이니,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도 만물의 이법이 구비되어 있다는 깨우침에 이르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새삼 더욱 깊이 서로를 존중하며 다독여주는 자세를 지니게 되었다.

서애선생은 역사적인 인물들의 치적을 읊으면서 국난극복의 결의를 다졌고, 그들의 인생사를 읊으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바른 삶을 충고했으며, 주자학朱子學과 양명학陽明學의 핵심적인 내용을 시로 읊으면서 학문적인 자세와 구도求道의 열정을 보여주었다. 또한 유儒·불佛·도道의 경지를 넘나드는 사상을 읊으며 인심人心과 도심道心の 경계를 드러내었고, 학술과 덕행을 아울러 지닌 사람을 지향하는 시적경계詩的境界도 보여주었다. 그래서 서애시에는 나라가 있고, 역사가 있고, 세상사가 있고, 인생이 있고, 생사生死가 있다. 바로 이러한 서애시의 탄생의 이면에는 언제나 객관적인 사물의 이치를 통해 주체의 지식을 확대하여 천인합일의 도학자적인 경계를 갈망하는 자세가 시심詩心の 근간이 되어 있다. 사사물물事事物物에 대한 시적내용들이 대체로 자성自省과 자경自警 내지는 도심道心の 추구로 주객간의 대립이 화해와 화목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시적가치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이 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 결과 선생의 시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한다. 가야할 길에서 길을 잃은 방향, 무능해서 겪는 고통, 무식해서 저지르는 실수, 편견에서 발생하는 불화,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 이념문제로 격해지는 대립…, 그런 오늘의 우리들에게 그래도 인생사의 도리는 반드시 지켜야할 소중한 가치이니, 부끄럽게 살지 말라고 선생은 충고하고 있다.

이번에 출간되는 『국역 류성룡 시 II』의 번역 대상 작품은 총 ‘102제

題 147수首’이다. 이번의 역시집譯詩集에서 특별히 정성을 쏟았던 부분은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다.

첫째는 주자학과 양명학의 학설인데, 그 학설의 핵심내용을 시로 읊었던 바, 이것에 대한 기초이해를 위해 특히 『대학(大學)』과 『중용(中庸)』에 대한 집중적인 공부가 필요했고, 시詩 속에 표현된 양대兩大 학설의 차이점의 시적표현에 대한 번역상의 문제점, 즉 어떻게 하면 보다 쉬운 말로 표현할 수 있는가하는 점이었다.

둘째는 도가경전인 ‘단경丹經’을 주석하는 과정에서 그 핵심내용과 더불어 도사道士들이 불로장생不老長生을 수련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주석할 때에, 하나의 문제에 봉착하였다. 그 문제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도교 단경道教丹經 모두가 비유법으로 논리를 설명하고 있는데다가, 시대가 변천하였는데도 도가의 용어는 변치 않았으니, 외단(外丹 : 단약을 먹고 불로장생을 수련하는 것)의 용어를 가지고 내단(內丹 : 인체의 어느 한 부위를 수련의 화로火爐로 삼고 이로써 체내의 정精과 기氣를 약물로 삼아서 신神을 사용하여 선도仙道를 수련하는 것)을 설명하는 용어로 쓰는 것이었다. 그래서 독해에 많은 인내심이 필요했다.

셋째는 불교관련 이해인데, 구체적인 예로, 시詩 속에 나오는 ‘불이문不二門’이라는 불교용어의 뜻을 주석하면서 불교경전과 불교학에 대한 심화와 아울러 불리佛理와 시적표현의 관계자료 등을 섭렵하는데도 내공의 집중이 필요했다.

넷째는 한국역사와 중국역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시詩 속에 언급된 혹은 함축된 역사적 인물들에 대한 기초이해 또한 내공을 요구했다. 그 외에도 역자 내외가 기본적으로 한국과 중국의 인명, 지명, 철학, 관명官名, 종교, 문학 등 각 방면 등의 관련 자료는 대체로 한국과 중국관련 사전 등에서 해결하였고, 그 외에도 사전에도 수록되어있지 않은 용어나 사적事跡들은 해당전문서적이거나 논문 등을 구해서 주석에 임했다.

다만, 독자제위께 양해를 구할 점은, 이번 시집 제2권을 번역하면서 아주 여러 단어의 주석이 상당히 길고 복잡하다는 점이다. 역자 내외가 생각하기에 일부 용어의 해설에는 무리하게 축약할 경우, 해당용어의 본뜻을 오해할 소지가 있고, 또 어떤 용어는 깊은 뜻을 내포하고 있어 부득이 장황한 주석을 하였다. 번거로우시더라도 독자제위께서 꼭 주석을 참조해주시기 바란다. 견식이 얕은 역자 내외가 최선은 다했지만 어찌 오류가 없겠는가! 오류가 보이는 즉시 독자제위의 아낌없는 질정叱正을 바란다. 그 가르침을 받아 두었다가 개정판이 출판될 기회가 온다면 바로 잡겠다.

끝으로 본 시집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풍산류씨 족보에 기록이 누락된 부분에 대한 자료와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신 화암和巖 류동주柳東柱 선생께 깊이 감사를 드린다. 또한 본 시집의 제2권에 수록된 ‘시36’의 「이순신 통제사를 애도하다哀李統制」의 시문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꺾자闕字가 있었는데 이를 수소문 하던 중, 풍산 류씨 차세대 종손 류창해柳昌海 선생이 본 시의 서애친필본이 하회에 있다는 정보를 주었고, 또한 관련 자료는 병산서원屏山書院 유사有司 류한옥柳漢郁 선생이 직접 사진으로 찍어 전송을 해주었다. 이 두 분 덕분에 본 시의 꺾자가 있는 부분을 복원하여 온전하게 본 시문을 번역해서 세상에 내놓을 수 있게 되어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이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어서 본시집의 ‘시57’의 「진사進仕 이중양李仲陽에게 서신을 보내어 흥국사 유적에 대해서 묻다(寄李進士重陽問興國寺遺跡)」를 번역하면서 진사 이중양과 각재覺齋 하항河沆에 대한 자료를 보내주신 충남 아산에 거주하는 가평이씨加平李氏 후손 이규용 선생께도 각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뿐만 아니라, 도학 혹은 도교 관련으로 크고 작게 도움을 주신 부산대 철학과의 정해왕 교수와 박정심 교수 및 제주 관광대학교 중국어과의 신영대 교수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또한 원고 정리를 하는 가운데 오자誤字를 꼼꼼하게 잡아내 준 최형록 박사에게도 고

마음을 전한다.

큰 뜻을 품고 국역완간을 기획하신 풍산회장 류진柳津 선생의 신념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한다. 동시에 언제나 여일하게 역자 내외에게 격려와 신뢰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서애선생기념사업회 류영한柳永漢 이사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교정과정에서 권1집에 이어 이번에도 여전히 세심한 배려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한스북스 사장 류한경 선생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14년 8월

서애西厓 12대 후손 류명희柳明熙 삼가 씀

후학後學 안유호安維鎬 삼가 씀



『국역 류성룡 시 II』는 하회본河回本 『서애전서西厓全書』 권1 간본편刊本篇 본집本集 권2의 시부詩部를 저본으로 한 것이다. 저자는 조선 중기 임란壬亂 시기에 영의정領議政을 지낸 문무文武를 겸비했던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1542~1607)으로, 그의 생애 66년은 ‘충효’라는 두 글자로 일관했다고 볼 수 있다. 타계하던 날(1607년 5월 6일)로부터, 약 3개월 전인 2월 12일에 자손들에게 써준 7언고시 유계遺戒(「관화록觀化錄」에 보임)의 결구結構에서, “권하노니 자손들아 반드시 삼가하여라, 충효밖에 달리 해야 할 일이 없는 것임을!(勉爾子孫須慎旃, 忠孝之外無事業)”이라는 유시遺詩를 남겼는데, 이는 선생의 평생의 뜻을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서애 선생은 임란 7년 전쟁(1592~1598) 동안 군정軍政의 최고 책임자로서 보국안민輔國安民을 위해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었다. 서애 선생은 부친인 입암立巖 류중영柳仲郢의 훈도아래, 유학의 길로 입문하여, 일찍부터 퇴계退溪의 문하에서 도학道學을 전수받았던 관계로, 성리학性理學이 선생의 정치 생애에서 사상적 기틀이 되었다. 그리하여 크고 작은 국사國事에서 언제나 내적으로는 몸가짐이나 언행을 경건히 하였고, 외적으로는 널리 사물의 이치를 파고들어 이른바 ‘주경궁리主敬窮理’하는 자세로 현실의 제반문제를 극진하게 실천하는 구도자求道者의 자세를 보여 주었다. 특히 이번 『국역 류성룡 시 II』는 만년에 속하는 시류詩類가 많아서인지 자성自省과 자술성自述性이 짙은 언정言情과 은자적 태도와 풍류 및 청빈낙도적 정감이 풍부하였고, 인심人心을 벗어나서 도심道心으로 몰입하려는 지향

志向과 구도求道와 논도論道 내지는 논학류論學類 등의 설리적說理的 언시言志가 특별히 많아서 선생의 노년에 대한 심로역정心路歷程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래에서 이번에 출간하고자 하는 『국역 류성룡 시 II』의 전모를 우선 편집체제와 사용한 시체詩體 및 그 내용으로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1. 『국역 류성룡 시 II』의 편집체제

이번에 간행하게 된 간본편 본집의 권2를 저본으로 한 『국역 류성룡 시 II』는 모두 102제題 147수首이다. 이의 편집체제는 『국역 류성룡 시 I』이 비교적 작시作詩 연대순으로 편집되어 있었던 것에 비하여, 권2는 그렇지 못하다. 왜냐하면, 작시연대가 밝혀진 작품이 적어서, 편년별 체제라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권2에 사용된 시체詩題나 소서小序 및 시의 내용으로 미루어 추정하건대, 권2의 작시作詩 시기는 대부분 서에 만년에 쓰여진 것으로 편집이 되어 있어, 권1에서 서에 선생 인생의 전반을 순차적으로 감상했던 재미와는 또 다른 시적경계를 접하게 될 것이다.

2. 『국역 류성룡 시 II』에 사용한 시체詩體

본 시집에 사용한 시체詩體의 종류를 보면, 5언절구, 5언고절古絶, 5언율시, 5언고시, 7언절구, 7언율시, 7언고시, 잡언체 고시, 두보의 특수시체詩體 및 악부시의 편명을 빌린 5언 내지는 7언 위주의 의고체擬古體 악부시와 잡언체 악부시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를 빈도수 별로 보면, 5언절구와 5언 고절古絶은 아주 빈도수가 낮게 각각 2수와 1수만 보이나, 5언율시는 총10수가 보인다. 반면에 5언고시는 총46수로 백분율로 보면,

31%를 차지한다. 「시29 감사感事」의 5언고시는 무려 90구로 이루어져 있다. 다음은 22구·20구·18구·16구·14구·12구·10구·8구·6구 등이 보인다. 그러나 7언구의 사용빈도는 5언구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7언절구의 경우 무려 50수나 보여서, 백분률로 보면 34%나 된다. 반면에 7언율시는 17수가 보인다. 그러나 장시長詩로 이루어진 7언고시 3수(26구·14구·12구), 잡언체고시 2수(30구·22구) 외에, 잡언체로 이루어진 의고악부시擬古樂府詩 7수(10구·12구·14구·17구·20구·30구)와 5언 혹은 7언만으로 일관된 의고 악부시 5수(28구·22구·20구·12구·10구) 및 두 보杜甫가 사용한 7언 5구의 특수 시체詩體 등은 모두 장언長言으로 이루어진 시체로 총 20수나 보인다. 그래서 7언구에서도 자유자재한 시체詩體의 사용 빈도가 13%나 된다. 고로 권2의 시체사용에서 5언의 경우는 율시와 절구의 시체는 5언 고시에 비해 확실하게 빈도수가 낮게 사용되었으나, 7언의 경우에는 오히려 절구와 율시가 고시나 의고 악부시의 시체보다 많이 사용되었다.

이를 시체의 음악성으로 말하자면, 5언절구나 5언율시는 3음보의 경쾌한 율조律調를 지니는 서민의 박자를 드러내므로 소박하고 경쾌한 풍격을 드러낸다. 그래서 서애는 5언의 경우에서 특히 장언長言의 5언 고시 쪽을 많이 선택하여, 평민의 숨결을 전하는 진솔한 서정성의 내용들을 전하고 있다. 반면에 4음보의 유장한 사대부적 율조를 드러내는 7언구로는 특히 절구가 두드러지고 율시도 적지 않은데, 여기에서는 서정정보다는 논학적論學的이고 구도적求道的이거나 문인門人과 교감한 내용들이 많이 다루어지고 있어, 사대부士大夫의 유장한 멋스러움이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의고擬古 혹은 잡언의 악부시체에는 대체로 시제詩題가 무겁고 자성自省과 개별성을 띄운 지향志向 및 훈도적 내용들이 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권2에서는 5언과 7언의 시체적詩體的 특성이 전하는 메시지

가 서애의 인간정신과 그의 인생내용을 전달하는데 그 시사점이 크다 할 것이다.

3. 『국역 류성룡 시 II』의 주요내용

본 국역시는 크게 보면, 언정言情으로 대표되는 서정시와 언지言志로 대표되는 설리시說理詩와 서술시敍述詩 및 묘사시描寫詩로 대별되겠는데, 독자의 편의를 위해, 이를 내용별로 유형화하여 간략하게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1) 서정시抒情詩

서애가 사물세계에 대하여 느낀 개인정감이나 정서를 주관적으로 표현한 시가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적시摘示하면, 이것은 주로 역사적 사실을 읊은 시나 아니면 타인의 시운詩韻을 빌은 차운시次韻詩 계통 혹은 망자亡者를 애도한 만시류挽詩類나 족친族親과 문인門人들의 예방을 받거나 송별할 때의 증답류 및 기타 잡시雜詩 등에 표현되어 있다. 이를 제재別題材別로 다시 나누면, 애국애민愛國愛民의 정감이나, 자기 성찰과 경계警戒 및 선현先賢에 대한 찬미 또는 유명을 달리한 육친에 대한 회고와 그리움, 벗과 문인에 대한 애뜻한 정의情意, 특히 만년에 하회河回를 떠나서 서미동西美洞으로 이사 온 이후의 감회와 와병臥病 중에 접한 경물과 사계四季의 변화에 대한 생자무상生者無常의 비애감과 허무감 등으로 개괄할 수 있겠다. 아래에서 유형별로 해당 작품을 열거해 본다.

① 보국충정과 애민愛民

본 내용은 주로 영사사詠史詩에서 많이 보이고 기타 시제詩題에도 적지 않았다. 이를테면, 남송초기의 백기伯起 이강李綱과 진희秦檜의 대금대처對

金對處를 주요내용으로 다룬 것 · 의인왕후懿仁王后[선조의 정비正妃]의 산릉山陵(국장國葬하기 전에 아직 이름을 짓지 아니한 새 능을 가리키는 것)에 갔다가 귀향길에 용궁龍宮에 들러 생질 이돈李焯과 이찬李燦 형제에게 읊어 보인 것 · 임란壬亂 이후 삭탈관직 되어 임란의 전적지戰跡地였던 충주를 거쳐 귀향하는 길에 신립申輅이 소서행장小西行長을 맞아 탄금대彈琴臺에서 분전했으나 완패한 사실을 되새기는 것 · 역사의 현장이 된 탄금대彈琴臺를 지나며 참혹했던 패전지, 임란 시 백성의 편익을 도모했던 초가집, 수많은 장병들의 희생, 불과 10일 만에 상주尙州 · 문경聞慶 · 충주忠州 세 고을을 잃어버리면서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했던 것 · 역시 임란 시 어가호종을 할 때, 목도했던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애국정감 등에서 보인다. 관련 시로는 「시17의 1 · 2수」 · 「시22」 · 「시24」 · 「시25」 · 「시29」 등이 있다.

영사시 외에도 애국정감이 보이는 시를 보면, 살상殺傷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하여, 인생의 유한성을 체감하면서 정사政事에 대해 고민하는 것 · 문인門人 이준李堧의 서신을 받고 다하지 못한 보은의 충정을 아쉬워하는 것 · 조명연합군朝明聯合軍의 울산전투 패배를 두고 명명의 주사主事 정응태丁應泰가 이를 트집 잡아 명 황실에 무주誣奏한 사건을 해명하는 진주사陳奏使에 낙점이 되어 이의 소임을 고사固辭하면서, 영의정領議政의 직위는 물론이고 11월에는 모든 관직이 삭탈되어 귀향한 이후 3년이 지난 59세 [11월]에 삭탈된 직첩을 되돌려 받았을 때, 혹은 임란 이후 조정을 떠나서도 그의 충정이 북극성에 머물고 있음을 토로한 시 등에서 보인다. 관련 시로는 「시9」 · 「시86」 · 「시98」 · 「시30의 2수」 「같은 시의 3수」 등이 있다.

이어서 단비 내려 대지를 적셔 백성들 안색이 밝아지기 바라는 시. 왕양명王陽明의 마음이 곧 이치이다[心卽理]라는 이른바, 대면하는 사태에 따라 직각적 지知와 자발적 행동[行]이 동시에 발현되는 지 · 정 · 의(知情意)가 내포된 지행합일知行合一의 포괄적인 학설로는 지금 천하가 대홍수로

산릉에까지 물이 차오른 이 상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나타낸 시 등에서 보인다. 관련 시로는 「시40」·「시44의 1수」 등이 있다.

② 자성自省·경계警戒와 자술自述·자위自慰 및 선현先賢에 대한 찬미

여기에는 주로 도학자의 풍모와 정감이 서려있는 내용이 대맥大脈을 이루고 있다.

먼저 자기성찰과 경계에는 경주 부윤府尹 이시발李時發이 보내온 주자의 ‘효제孝悌·충신忠信·예의禮義·염치廉恥’의 여덟 가지 활자를 보면서 느끼는 자성과 경계심·달 밝은 밤 대숲의 바람 소리를 들으면서 떠올리는 임란 때의 계책이나 직권남용 등·위무제魏武帝 조조曹操가 읊은 풍송·한죽風松寒竹松竹의 시가를 통한 자기 돌아보기·말[言]에는 조리를 중히 여기고, 장강·한수長江漢水도 본래 원류는 하나였으니, 큰 길로 가려면 가시밭길을 피하지 말 것·우물 안에서 세계를 보지 말 것·문인門人 홍중弘仲 노경임盧景任이 보내온 논학시論學詩에 대한 회신에서, 세심洗心の 어려움과 평소에 유의해야 할 것 등을 훈계한 것·서애의 일곱째 아들 첨檐이 『사략史略』을 읽는 것을 듣고 있다가 원고輓固가 공손홍公孫弘의 곡학아세曲學阿世를 충고하는 대목에서 양명학이 정주학程朱學을 곤혹스럽게 하는 세태를 경계警戒하는 뜻을 함축한 것·역경과 평탄이 반복되는 인생의 여로에서 자신을 되돌아보며 눈물을 흘리는 것·주희가 귀천歸天하고 ‘경원당금慶元黨禁’이 있는 이후, 세태가 완전히 뒤바뀌어, 도학을 담론하던 송학宋學은 선대의 어록이나 되뇌는 풍조를 조성하여, 시대와 사람을 구하고 잡아주는 도학의 면모를 보여주지 못하는 폐단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은 한결같이 자성自省할 때만이 가능한 것임을 시사示唆한 것·자연의 성쇠란 때를 따라 나타나는 것이나 하늘의 은혜는 그와 같지 않음을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나무 주변을 돌면서 탄식한다는 것·염계濂溪가 지닌 초고草稿는 내게도 많이 있으나, 정작 염계濂溪가 지녔던 도심道心은 없다는

것을 자성하면서 산속에서 화답해 줄 사람이 없는 시나 지어서 홀로 읊조린다는 것· 동짓달 초하룻날 밤, 우연히 단경丹經을 보다가 시를 지어 아들 진아珍兒에게 “사리를 거슬리지 말고 묵묵히 견디면서, 타인과 세상사 받아들여 미소 지으며 돈후敦厚한 사람되라(終日不違惟默默, 任他人世笑如愚)”라고 훈계한 것 등에서 보인다. 관련 시로는 「시6」·「시10」·「시34」·「시45의 1수」·「같은 시의 2수」·「시51」·「시68」·「시42」·「시44의 2수」·「시56」·「시61」·「시102」 등이 있다.

이어서, 자술自述과 자위自慰 및 선현先賢에 대한 찬미 등을 보면, 먼저 만년에 병치레하면서도 자경自警을 늦추지 않으며, 직접 땅을 일구고, 고요 속에서 삶의 득실을 깨우친다는 자기근황에 대한 정감을 자술한 것· 만추晩秋에 풍상을 견뎌내는 뜰 안의 소나무의 본성에서 자위自慰를 받는다는 것· 선현先賢 정몽주鄭夢周의 유적지에 대한 보존 여부와 선현에 대한 사모의 정을 함축시킨 것· 고려의 수행교법修行敎法과 끊어진 왕통을 회고하면서, 정몽주에 대한 그리움을 학鶴에 건주어 드러낸 것· 또한 정몽주를 5백 년 간의 천지원기를 받아 태어난 위인으로 추앙한 것· 목은牧隱 이색李穡의 문장을 동한시대 태위공太尉公에 비유하여 찬미한 것· 목은은 대숲보다 국화향기 맡기를 더 부러워한 자유로운 영혼이라는 것 등에서 보인다. 관련 시로는 「시48」·「시77」·「시57」·「시94의 1수」·「같은 시의 2수」·「시95의 1수」·「같은 시의 2수」 등이 있다.

③ 은자적 태도와 풍류, 성군현자聖君賢者에 대한 갈망과 낭만적 자비심

심신의 경계나 풍류에 나타나는 정감과 정서가 도가와 도교적 낭만, 유가적 도덕성 혹은 불가적 허무주의가 혼재되어 있다. 먼저 은자적 태도와 풍류를 보면, 개인적 낭만에 심취하는 선계仙界의 유람이 아니라 공자가 취한 만인을 위한 자기발전에 훨씬 감응이 되어, 사면팔방이 다 막혀

있는 학가산鶴駕山 아래로 되돌아와서 정신세계를 유람하겠다는 도학적 감
 응· 달이 뜬 것을 기다리며 세속을 벗어난 흥취로 시가를 읊조리며 강
 바람을 쐬다는 것· 동진東晉의 무장 은호殷浩가 관직에서 사직 이후 10년
 을 은거하다가 부귀명예에 눈이 멀어 양주자사揚州刺史의 임명을 거절하지
 못하고 환온桓溫 세력에 맞섰다가 참패당한 것을 조소한 것· 인생이란 빈
 천貧賤, 부귀, 득실 등의 대립되는 개념들이 반복되는 허망한 현장임을 깨
 단고 나서 서루西樓에 기대어 미소 짓는 것· 한가한 동안에 한산자寒山
 子· 이백李白· 도연명陶淵明 등의 시를 읽고 이에 감응하는 여유· 포의거
 사가 되어 전원으로 돌아온 이후, 청빈낙도를 실제체험으로 보이는 것·
 속세의 부귀영화에 미련을 둔 은사隱士 정자진鄭子真을 조소하면서 백구白
 鷗의 자유자재한 영혼에 감응하는 것· 9월 초, 한밤중 서쪽누각에 올라,
 시절의 변화를 느끼면서 은자적 정감을 읊은 것· 꿈처럼 덧없는 공명을
 누리다가 은거 후로는 하루에도 두세 차례 새소리 듣는다는 것· 춘삼월의
 강변을 통해, 절벽을 끼고 우거진 복사꽃을 붉은 성벽으로 상상하며 자신
 이 도화천桃花遷의 일원이 되기를 감응한 것· 북송의 대신大臣 범순인范純
 仁이 그의 편적지인 영주永州에서 손님이 예방하면 상투적인 인사말만 건
 네고 곧장 함께 잠을 자는 것으로 친교親交를 대신한 그의 처세법에 감응
 한 것· 서미동西美洞으로 이사 온 이후 집에서 바라보는 주변의 경관을 보
 다가 명년 봄에 펼쳐질 춘색을 떠올리며 본인의 은거 자세를 피력한 것·
 동구 밖을 나서면 마음이 편찮은데, 동네어귀 들어서니 기쁘기 한량없다는
 것· 산중에서 아이들과 도토리 주워 익혀 먹으면서 고관시절 미식美食했
 던 종전의 자신을 비웃는다는 것 등에서 보인다. 관련 시로는 「시20」·
 「시27」·「시37」·「시43의 1수」·「시46의 1, 2, 3수」·「시47의 3
 수」·「시49의 2수」·「시50」·「시83」·「시54의 6수」·「시74」·「시
 75」·「시90의 2수」·「시91」 등이 있다.

이어서 성군현자聖君賢者에 대한 감응과 낭만적 자비심을 드러낸 것으

로는 각각 한 수씩 보이는 데 전자는 시인이 예수셋에 소나무를 심은 뜻은 다름 아닌 난새와 봉황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한 것으로 이는 성군현자의 출현을 열망하는 내심의 정의情意를 기탁한 것이며, 후자는 칠월칠석 때 견우직녀가 은하 강변에서 이별의 눈물을 흘린 것과 당唐나라 개국공신 이위공李衛公이 용마 타고 등천해서 전에 더부살이하던 산골짜기 주민들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 호로병에 든 물을 한 방울 더 떨어뜨린 것뿐인데, 지상에서는 이로 인해 대홍수가 일어났다는 것, 시인은 이를 두고 전자는 그들이 흘린 눈물은 진심의 눈물이었다고 후자는 은혜를 갚기 위한 자비심에 기인한 것이니, 양자兩者를 모두 너그럽게 이해 해주어야 한다는 낭만적인 호방성을 드러내고 있다. 관련 시로는 「시28」과 「시5」이다.

④ 생명의 유한함과 인생의 허무함

여기에는 주로 가을 절후가 많이 등장하면서, 찬바람·찬 서리·낙엽 등의 소재素材가 적지 않게 보임에 따라, 정감과 정서가 대단히 우울하고 쓸쓸하다. 이를테면, 연못에 심었던 연꽃이 가을을 맞이하여 상한霜寒의 추위에 모두 저버린 것을 표현하여 생명의 유한성을 함축시킨 것·서애가 63세 1월 28일에 서당을 나와 주변을 두루 산책하다가, 물과 구름이 일정하게 머물 곳이 없는데도 의연한 자세를 취한다는 것과 정원의 화초는 인간사의 변화를 모르는 채 다시 연못 주위에 돌아났다는 것 등을 묘사한 것·삭막한 가을 들판을 바라보며, 손바닥 뒤집듯 변화무쌍한 세상인정을 표현한 것·서재西齋에 스며든 가을 야기夜氣와 오동잎에 맺힌 찬이슬에서 새삼 백발로 변할 시인의 모습을 생각하며 장탄식을 하는 것·능파대 앞에서 엮었던 추억을 회고하며, 지금은 「채릉가採菱歌」 노래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 그와 관련한 옛 추억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산천은 유구悠久한데 인물은 간 데 없는 것에 대한 인생의 무상無常함을 읊은 것·옛사람은 보이지 않는데 옛적의 달은 여전히 눈앞에 나타나는 것에 대한 원망과 사

후세계에 대한 의문을 읊은 것 · 시절에 따른 경물의 변화에 감응하여 정취가 우수에 젖어드는 것 · 잦은 병치레 속에서 다시 봄을 보내며 인생의 무상함을 언외言外에 함축시킨 것 · 경물景物은 그대로인데 인간사는 달라진 것에 대하여 춘풍 속에서 이를 회고하다가 눈물을 흘리는 것 등에서 보인다. 관련 시로는 「시13」 · 「시26」 · 「시47의 2수」 · 「시49의 1수」 · 「시54의 3」 · 「시57」 · 「시59의 4수」 · 「시61의 1」 · 「시69」 · 「시81의 1수」 등이 있다.

⑤ 육친에 대한 회고와 그리움 및 애도

여기에는 선친先親에 대한 그리움과 망자亡子에 대한 애도 및 역사전고속의 육친관계 등이 그려지고 있다. 이를테면, 서애가 30세 되던 해에 선친先親을 모시고 돌아다녔던 낙동강 서쪽 언덕[西厓]을 백형伯兄 겸암謙菴과 함께 다시 찾아와 보니, 산수는 그대로이나 사람은 이미 유명을 달리한 것에 대하여 눈물이 갓끈을 적신다고 읊은 것 · 서애의 제6자인 자남子男 균枸의 죽음을 애도하여, ‘썩이 다 타야 불이 꺼진다’는 통달한 자의 말을 상기하며, 너라는 썩은 아직 다 타지도 않았는데 너라는 불은 어찌 이리도 급히 꺼져버리느냐며 자식 잃은 애통함을 읊은 것 · 백형伯兄 겸암謙菴이 남긴 겸암정사謙巖精舍에서 유명을 달리한 형님에 대한 그리움을 경물의 묘사에 함축시킨 것 · 저승으로 떠난 아들 자남子男이 벽에 써놔던 글자를 발견하고 애절한 부정을 읊은 것 · 금계재사金溪齋寺를 찾을 때마다 선친이 그리워서 슬퍼지는 날이라고 읊은 것 · 위소주韋蘇州的 시 「백발을 탄식하며嘆白髮」에 차운한 시로, 가을날 서재西齋에서 바람에 형클어진 백발을 보고 응석동이 자식이 웃어대어 함께 아이처럼 웃었다는 것 · 한무제漢武帝가 강충江充의 무고巫蠱 사건에 휘말려 태자와 창칼을 대치시켜 결국 아들을 불귀의 객으로 만든 이후, 뒤늦게 아들의 무고誣告가 밝혀지자 아들이 피신했던 장소에 아들의 혼백이라도 돌아오기를 바라며 건축했다는 망사대塋

思臺를 시제詩題로 하여, 부자간의 참담했던 비극을 읊은 것 · 위魏나라 출신 세객說客인 범수范睢가 진秦으로 들어가서 진소왕의 집권 초기에 모후인 선태후宣太后의 섭정을 받던 그를 친정親政하도록 도우면서 6국을 통일하는 기초를 다지긴 했으나 오히려 이로 인해, 이들 모자간에 불화를 조장하여 육친간의 천륜을 단절시키게 한 것을 두고, 범수의 정치적 업적은 컸으나 모자간을 갈라놓은 죄과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임을 시사한 것 등에서 보인다. 관련 시로는, 「시7」 · 「시53」 · 「시54의 9」 · 「시60」 · 「시99」 · 「시32」 · 「시63」 · 「시33」 등이 있다.

⑥ 망자亡者와 생자生者에 대한 이별의 정회情懷

여기에서 전자의 경우는 애도시哀悼詩로, 유명을 달리한 서애의 문인門人 혹은 벗들 및 선현先賢이 그 대상이고, 후자는 송별시로 생질甥姪(서애 여동생의 아들)과 역시 서애의 문인과 벗들이 그 대상이다. 먼저 전자는, 서애보다 2년 위인 숙부肅夫 김동강金東岡의 별세를 애도한 것 · 서애 57세 때 삭탈관직 되어 귀향하던 시기에 이순신李舜臣이 그의 전적지戰跡地인 한산도閑山島와 고금도古今島에서 목숨을 깃털처럼 여기며 왜적을 응징했던 혁혁한 전공戰功과 그에 비해 음해와 모략으로 당시 조정의 인정을 받지 못하여 그의 죽음이 쓸쓸했던 것을 애도한 것 · 여말麗末의 요승妖僧 신돈辛旽에게 교살 당했던 선현先賢, 사암思庵 류숙柳淑의 죽음을 애도한 것 · 서애의 문인門人 강릉부사江陵府使 창원昌遠 김홍미金弘微의 부음을 받고 흥금을 털어놓을 사람을 잃은 애통함을 읊은 것 · 역시 강릉에서 세상을 떠난 김홍미의 관棺이 안동군 풍산豐山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망자와의 인연을 더듬으며 이승에 있을 때는 서신왕래로 그리움을 달랬는데 이제는 짧은 글의 영결사도 눈물이 앞을 가려 쓸 수가 없다는 것을 읊은 것 · 벗인 안음安陰 김윤명金允明의 별세를 애도하며 망자와 나누었던 추억을 회고한 것 등에서 보인다. 관련 시로는 「시31」 · 「시36」 · 「시55」 · 「시7

6」·「시78」·「시84」 등이 있다.

후자의 송별시에는 생질甥姪 이돈李焯 형제(서애 여동생의 아들)의 전송을 받으면서 느끼는 도타운 족친의 정감을 읊은 것·강릉 임소任所로 떠나는 김홍미를 옥연정사玉淵精舍에서 전송하며, 송별의 애뜻함과 불사약의 향초를 채취해 보내라는 농 섞인 정감을 읊은 것·임란壬亂 이후 조정을 떠나서도 살아지지 않는 충정忠情과 동시에 문인門人과 멀리 헤어지는 이별의 애뜻함도 함께 읊은 것·문인을 송별하는 자리에서 선조宣祖를 향한 미진한 보국충정報國忠情과 그에 대한 그리움으로 인한 눈물을 한강물[漢江]에 뿌려서 부친다는 것 등에서 보인다. 관련 시로는 「시23」·「시30의 1수」·「같은 시의 2수」·「같은 시의 3수」 등이 있다.

⑦ 벗과 문인에 대한 정감

세상을 위해 봉직하는 예순 살 노인네 안음安陰 김윤명金允明의 예방을 받고, 그의 장기長技인 장기長歌에 흥취를 떠 올리면서 술잔을 마주하고 함께 취해보고 싶은 정의情意를 읊은 것·지난 몇 년 간 내왕이 끊겼다가 다시 만난 회포를 풀려고 일정을 새로 짜서라도 봄날이 하지는 우정을 읊은 것·역시 안음 김윤명이 차운한 시를 보내와서 이에 화답하는 시로, 벗을 그리다가 봄날이 다 간다고 안타까워하는데, 간밤에 비마져 내려 야생화가 다 지겠다고 걱정하는 것·인간의 세상에는 화기和氣 띄운 얼굴이 많지 않은데, 다행히 벗이 앞마을에 살고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를 읊은 것·문인門人 정경세鄭經世에게 부친 시에서, “자네는 서부 골짜기 나는 동부 산기슭”으로 서로 각기 100리나 떨어져 살면서 그리워한다(君居西谷我東山)는 것·역시 문인門人 숙평叔平 이준李竣에게 부친 회신에서 숙평의 작시作詩가 출중함을 기리고 나서 그리워도 강산이 가로 막혀 만날 수 없음과 서애 자신의 잦은 병치레에 대한 푸념 및 아직도 여전히 보은의 충정을 다할 수 없는 어려움을 자술한 다음, 숙평이 중히 여기는 아양곡襄陽曲을 직접

강변 누각에 올라가서 거문고의 탄주로 듣고 싶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 역시 문인門人 노경임盧景任과 작별한 이후 생각나도 만날 수 없는 안타까움을 토로한 것 · 서애와 연배年輩가 근사하지만 서애에게 학문을 전수받은 경임景任 이보李輔에게 궁벽한 촌락에서 와병 중이라 더욱 그에 대한 그리움이 절실하다는 것을 전하는 것 등에서 보인다. 관련 시로는 「시66의 1」 · 「같은 시의 2수」 · 「시67의 1수」 · 「같은 시의 2수」 · 「시85」 · 「시86」 · 「시87」 · 「시101」 등이 있다.

⑧ 경물과 계절별 변화에 따른 정회情懷

여기에는 특히 경물과 절후의 변화에 감응하는 정감과 정서를 중심으로 표현한 시들이 보인다. 이를테면, 해질 무렵 추풍에 풍랑이 거세지면서 강변의 백발노인은 홀로된 느낌을 떨치지 못하고 세상과 교류를 하지 않는다는 것 · 서애가 홀로 선방禪房에 누워 밤새도록 비 내리는 소리를 듣고 아침에 일어나서 시야에 펼쳐진 대자연의 변화를 목도하는 중에, 인생도 이와 같이 무상無常한 것임을 깨우치고 우수에 젖게 되는 것을 읊은 것 · 비온 뒤 산에 올라가서 붙어난 계곡물을 보는데, 산에는 두견새 소리에 날이 저물고, 돌다리 서쪽에는 산 앵두가 피기 시작한다는 대자연의 변화에 시선을 주고 있는 것 · 낭천현감狼川縣監인 조카(겸암謙菴의 차남)에게 부친 편지에서, 꽃 피는 시절마다 꽃 피는 걸 보지 못했으니 올해도 병치레가 잦았음을 고백하면서 무정한 비바람으로 봄의 경색景色이 쉬 사라지겠다는 우려를 표현한 것 · 무더위를 피하여 중대사中臺寺[지금의 안동시 풍산읍 서미동에 소재함]에 와서 피서하는 기쁨을 읊은 것 · 문인門人 정경세鄭經世에게 부친 시에서, 자네에 대한 그리움을 떨치고자 가을비 온 뒤 요란해진 매미 소리를 따라, 홀로 계곡으로 나와서 물 흐르는 소리 듣는 것도 괜찮다는 것을 읊은 것 · 문인門人 노경임盧景任과 작별한 이후 만날 수 없는 안타까움이 큰데 더욱이 가을로 접어드는 절후라 경물의 변화가 야기하는 쓸쓸함

에 더욱 건디기 힘이 든다는 것 · 서애와 연배年輩가 근사하지만 서애에게 학문을 전수받은 경임景任 이보李輔에게 부친 시에서, 와병 중에 또 다시 국화가 핀 것을 보게 되는 감회와 구름과 수목의 거리만큼이나 멀리 떨어진 채 3년이 흘렀다는 애뜻함, 서릿바람 몰아치는 10월 초가 되니 더욱 벗이 그림다는 것 등에서 보인다. 관련 시로는 「시47의 1수」 · 「시61의 1수」 · 「시62」 · 「시69」 · 「시71」 · 「시85」 · 「시87」 · 「시101」 등이 있다.

(2) 설리시說理詩 · 서술시敘述詩 · 묘사시描寫詩

여기에는 서애 개인이 인생과 사물에 대하여 자신의 지향志向과 의념意念을 서술하거나 아니면 서애의 인생에서 만난 문인門人이나 벗들과의 관계에서 혹은 증답으로 혹은 송별送別과 유별留別의 형식을 통해, 은연중에 진리나 오도적悟道的 경계를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언지류言志類에 속하는 내용은 모두 네 가지로 유별화類別化하여 간술해 본다.

① 애국애민의 박애정신

여기에는 서애의 일반 사회풍속이나 백성에 대한 박애정신이 표현되어 있다. 이를테면, 동한東漢시대 여남군汝南郡에는 현사賢士들이 많다고 하면서, 그중에 숙도叔度 황헌黃憲과 대량戴良을 예시例示하여, 그들이야말로 말 세풍속을 바로잡을 인물이나 이미 고인이 된 사람들이니 앉아서 슬퍼만 할 수 없다는 풍속교정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인 것 · 혹서酷暑 속의 맑은 바람을 통해, 그 맑은 바람이 멀리 불어가서 폭염에 고통 받는 백성과 모든 생물이 다 평안할 수 있도록 기원한 것 · 청백리와 탐관오리 따질 것 없이 오로지 백성을 해치지 않는 관리만이 통찰성이 있는 관리라고 읊은 것 · 모래를 일어(사금채취) 먹을거리 마련하는 서민들에게는 보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생계에 도움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하여 위정자에게 경종警鐘을 주는 의도를 함축한 것 등에서 보인다. 관련 시로는 「시1」·「시4」·「시12」·「시92」 등이 있다.

② 자경自警·자술自述·자성自省·자각自覺

서정시에서도 동일 항목으로 예시例詩를 들었는데, 표현상의 차이로 인해, 여기에서도 언급한다. 이를테면, 목전의 현재만 생각하며 건식의 범위를 차단하면 자신이 천상에 가 있다고 해도 인지認知를 못할 것이니, 독서를 많이 해서 시야를 넓혀야 한다는 자기 경계警戒를 읊은 것·덩굴 풀과 맑은 강물의 물성物性を 통해, 인간사의 득실은 사전에 정해진 게 없음을 깨우치고, 부평초와 같은 인생이니 빈 배[虛舟]를 본받으며 살 것을 스스로에게 다짐을 두는 것·나이 예순셋이 되어 서미동西美洞에 집을 짓고 이사를 가서 아침에 일어나 청산을 바라보고 밤이 되면 명월을 맞이하면서, 사는 곳이 어디이든 만족할 줄 알면 편하고 즐겁게 살 수 있다는 의념意念을 나타낸 것·(아마도) 서애 57세(1598년, 선조 31년, 무술년)때 삭탈관직을 당하고 귀향하던 때에, 조정에 봉직하던 것을 회고하며, 명리와 득실에 대한 깨우침과 과거사는 끝이 났지만 미래사는 아직 때를 만날 것도 같다하여 세상을 향한 보국충정의 지향志向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에 대해 스스로가 놀라 자술自述한 것·자기가 처한 환경을 자술한 것·온 산에 눈이 쌓여 사람의 발길도 끊어진 적적한 산촌에서 병든 이후로는 늘 양생養生을 위하여 『단경丹經』만 뒤적인다고 자신의 일상을 전달한 것·서애 65세 3월 말에 서미동西美洞 동쪽 초당에 거처하면서, 병고病苦에 시달린 지 오래이나 다행히 옆에는 어부와 초부가 있어 담소로 무료하지 않았음을 기꺼워하다가 새벽이 되어 숲속에서 바람이 불자 다시 인생사와 자연현상이 모두 끝없이 기복起伏의 연속이라는 것을 깨우치게 된다는 것·연릉군延陵君 이호민李好閔이 서신을 보내와서 한가할 때 책을 써보라고 권했지만, 사실

이제는 문필을 손에서 놓은 지도 오래되었고 문인門人들도 주의력이 해이
해져 있으니, 양쪽이 모두 책 쓰기에 힘이나 느끼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
등에서 보인다. 관련 시로는 「시18」·「시19」·「시41」·「시59」의 3
수·「시72」·「시80」·「시82」·「시93」 등이 있다.

③ 인심人心에서 도심道心으로의 지향志向

여기에는 서애가 회비아락의 감정에 시달리는 인심人心의 작용을 본성
本性의 이理에 맞추어 사물과 나와 의 관계가 적절하게 조화의 상태 즉 도
심道心의 경계에 이르도록 지향하는 시들을 모아 놓았다. 이를테면, 어둠
속에 빠져 있던 서재西齋에 달빛이 비추는 순간 산수경관이 일거에 환하게
밝아진다는 묘사에서 어둠으로 상징되는 인심人心이 그 어둠을 벗고 달빛
으로 상징되는 만물을 비추는 도심道心으로 전환된 것을 함축시킨 것· 형
체도 자취도 남기지 않는 맑은 바람과 밝은 달빛이 쏟아지는 강변 누각에
서 부들방석에 앉아, 단전丹田에 진일眞一의 기운을 품고 인심의 작용을 차
단한 채 도심의 경지에서 청풍명월과 함께 노닌다는 것· 빈천, 부귀, 득실
등에 대한 상대적 개념에 울고 웃는 인생사의 반복은 모두 허망한 것이니
이러한 감정의 작용에 휘둘리는 것은 무가치한 것이라 여겨 인심人心의 작
용을 끊어 버린다는 것을 서루에 기대어 웃는 것으로 표현한 것· 서루西樓
의 좁은 공간을 지니고 한 달에 아홉 끼니 식사도 간혹 하는 가난한 주인
이지만 북창 아래쪽 침상에는 언제나 청풍이 가득하다는 것· 부귀영화나
명성은 결국 인심人心을 쫓는 것으로 허망한 것이니, 현상계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백구白鷗처럼 자유자재하게 노닐며 도심道心에 이르는 수련이나
하고 싶다는 것· 시인의 반평생을 회고하며, 달관대에 올라 하늘과 땅이
높고 낮게 나뉘는 공중에 해와 달과 별이 스스로 선회하는 광경을 묘사한
후, 눈앞에 비행하는 황새고니 한 쌍을 손짓하며 불러보지만 다가오지 않
아도 저회끼리 즐거워하는 모습을 즐겁게 바라보는 것· 절벽틈새에서 우

딱 솟은 쌍송(雙松)의 기품을 묘사하고, 그 위를 오락가락하는 구름을 첨가하여, 쌍송이 구름의 유혹을 받지 않는다는 언외(言外)의 운치를 풍겨 도심(道心)의 지향을 읊은 것· 간죽문(看竹門) 밖을 나가 길게 자란 대숲을 바라보는데 마침 강바람이 불어와 컷전을 스쳐서 그 빙옥의 울림소리 같은 대 바람 음향으로 인심(人心)의 작용을 끊고 잃어버렸던 도심(道心)으로 진입하여, 간죽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지만 이미 더 이상 감정의 작용이 일어나지 않아 주인과 손님의 구분이 없는 경계에 이르렀음을 시사(示唆)한 것· 대자연의 만물 생육은 느긋하나 서애의 삶은 이리저리 부대끼는 것으로 표현하여, 더 이상 인심의 작용이 도심의 경지에 장애를 일으키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시사한 것· 인적이 끊어진 간죽문 앞에 서서 대숲바람에 머리카락 날리는데, 산과 물과 모래톱은 유람객의 오고감에 관계없이 여전히 저 스스로 푸르고, 저 스스로 파랗고, 저 스스로 하얗다는 것을 묘사하여, 본성 자체로 존재하는 자연의 경계를 시사한 것· 이미 세사(世事)에 부대끼는 인심(人心)의 작용에서 벗어났음을 언급하면서 소년시절부터 현인(賢人)의 자경(自警)을 본받아 지금도 새벽종소리가 들려오기만 하면 천성적으로 도심(道心)에 가까운 본성이 살아난다는 것· 술바람의 상쾌한 소리, 달빛의 청명함으로 인해, 물(物)我의 양쪽 경계를 구분하고자 하는 인심(人心)의 작용이 끊어지면서, 마음속에 하나의 태극(太極)이 스며들음을 읊은 것· 시냇물에 아이들과 발 담그고 물놀이 하며 백사장을 거니는 데 인적이 없는 산중에는 패랭이꽃이 여기저기 피어있다는 것으로, 사사물(事事物物)의 공존(共存)을 관조하는 도심을 읊은 것· 병든 몸이지만 월동준비를 위해 해진 갓옷을 꿰매기도 하고 남쪽 처마 밑에서 등에 햇볕을 쬌는, 사물과의 조화를 읊은 것· 호시절에 만취함은 내 본색이 아니라서 말(馬) 가는데로 버려두고 시 읊다가 보니 동네 어귀에 들어선다는 말과 나와의 공존을 읊은 것· 의식(衣食)문제로 심란하면 서애는 선업(善業)수행에 방해가 되는데, 시냇물과 산은 자기 본성 따라 청아한 낙(樂)을 품고 있다는 것과 천하에 막힐 것이 없다는

대장부도 역시 이따금 고서古書를 대하면 얼굴이 붉어진다는 것을 들어서, 인심의 작용을 벗어나서 도심에 이르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읊은 것 등에서 보인다. 관련 시로는 「시35」·「시38」·「시43의 1수」·「같은 시의 2수」·「시49의 2수」·「시54의 2수」·「같은 시의 4수」·「같은 시의 8수」·「시59의 2수」·「시58」·「같은 시의 6수」·「시70의 1수」·「시88」·「시89」·「시90의 1수」·「시100」 등이 있다.

④ 구도求道와 논도論道, 논학論學, 논죽論粥

서애의 구도求道를 향한 성실성과 논학적論學的인 진지함이 표현된 시들을 모은 것이다. 이를테면, 열흘간 사립문의 빗장을 걸고서 단정히 앉아 도道の 실체를 배양하고자, 북창 앞에 가서 눕기도 하고, 남쪽 물가를 거닐기도 하고, 바람 불면 대숲이 서걱이는 곳을, 달이 뜨면 티끌 하나 없는 강변 쪽을 거닐면서 구도求道를 한다는 것·오월 열 하룻날 밤의 풀벌레 소리, 어느덧 더운 기운 식혀주는 강변에 뜬 구름, 은거 중에 이러한 만물의 변화를 바라보는데 늙어서인지 남은 한기寒氣마저 소중하게 느껴지니, 다시금 까닭 없는 근심이 스며들어, 안심법安心法을 배우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읊은 것·59세, 10월 29일 밤, 『대학大學』의 격물치지格物致知를 생각하다가 깨우친 바를 7언절구 10수로 읊은 논학시論學詩를 보면, 『대학』의 참된 공부는 명덕明德을 밝히고자 하는데 있고[明明德], 이 강령을 바르게 실천하기 위해서는 8개 조목인 ‘격물格物·치지致知·성의誠意·정심正心·수신修身·제가齊家·치국治國·평천하平天下’의 8단계가 필요하며, 이 역시 한마디로 말하면, 결국 ‘심성수양’으로 요약될 수 있다고 하는 것·고서古書가 독자를 오도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독자가 고서의 자구字句에 치중하다가 진의를 잃는 것인데, 그래도 자구를 통해 뜻한 바의 공부를 할 수 있다면, 자구에 치중해서 공부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는 것·학문의 틀이 갖추어지면, 수양은 본인의 정신에 달려 있는 것으

로, 이는 지·행(知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연구는 심중에 사무쳐야 그 진면목을 드러낼 수 있다는 학문하는 방법을 읊은 것·이언적 李彦迪의 도학연구에서 경문經文의 순차順次에 조리가 없으니 8조목에도 선후의 논리가 없다는 『대학』 체제에 대한 관점을 읊은 것·삶의 확대는 사물의 이치를 궁구할 때, 지력知力이 더 깊어지기 때문에, 이는 촛불 밝힌 책상 앞에서 그 보물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을 읊은 것·학문하는 자세는 처음부터 정밀한 생각과 한결같은 행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읊은 것·평소의 마음가짐을 상리常理에 맞게 하고 남을 헐치거나 속이지 말아야 자식노릇을 할 수 있다는 것·만물의 이치를 공부하는 방법은 마땅히 주자와 양명의 양대兩大學과의 내용을 다 아울러 알아야만 학문 득실의 단서를 찾을 수 있다는 것과 만물의 이치가 모두 내 마음속에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한결같은 마음을 지녀서 밖으로 치닫는 생각도 경계할 것을 언급한 것·유학의 근원은 결국 ‘마음을 통해 전해지는 열여섯 자(『서경書經·대우 모대禹謨』에, “사람의 마음은 사욕으로 흘러 오직 위태롭기만 하고, 도에 부합되는 마음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극히 알기 어려우니, 오로지 정밀하게 생각하고 오로지 마음을 한결같이 순일하게 하여, 진실로 그 중정中正의 도를 취하도록 하라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에 있는데, 인심人心, 도심道心도 모두 이 ‘심心’과 관련되나, 후학後學들은 마음공부는 하지 않고 자구字句에 치중하는 훈고학만 하여서 논학의 방법이 틀렸음을 암시한 것·하나의 탄환같이 둥근 지구의 표면을 돌아가는 일월과 지구의 표면을 밤낮으로 뜨고 지는 일월, 동시에 이 지구 안을 끊임없이 순환하는 사계절의 변화, 또한 지구 가운데의 풀무같이 텅 빈 공간에서 한결같이 생멸生滅하는 만물의 현상·득도해야만 갈 수 있는 봉래산蓬萊山과 삼천 년에 한 번씩 열매를 맺는 다는 선도仙桃가 있는 선경仙境을 선생의 농환弄丸 속에 넣어놓고 집중하는 농환놀이 또한 그 농환의 모양이 둥근 공과 같다는 생각에 무욕도심無欲道心을 깨우치는 순간, 이를 함께 즐길 자를 찾는다는 이른바 여민동락與民同

樂의 지향志向까지 시사한 유·불·도儒佛道의 철리哲理와 도교적 경계가 지 혼재한 구도적求道的 자세를 읊은 것·평정심을 가지니 이 방안이 바로 신선세계 단구丹丘라는 말과 함께 말을 몰아 천제天帝가 계신 곳에 당도하려고 단전호흡으로 정기精氣의 분산을 막고 도경道經의 예찬시문인 「보허사步虛詞」를 큰 소리로 암송하면서 이러한 도심道心에서 노니는 경계를 아무도 나와 비길 수 없을 것이라는 기쁨을 토로한 것·여전히 지구 안의 풀무 같은 공간에서 일어나는 생멸의 현상, 이를테면, 냉기를 견디면서 향기를 품는 야국夜菊과 추위를 피해 따뜻한 지역을 찾아가는 추흥秋鴻에서 상반되는 감응을 보이며 중생계의 이러한 현상은 다름 아닌 천지의 원기元氣속에서 부침하는 순리이니, 이의 물리物理를 추구하려면 참동계參同契를 공부해야겠다는 것·동쪽으로 흐르는 강물과 서쪽으로 지는 달의 동정動靜을 궁구窮究하고자 음양설의 전문가와 교류하고 싶다는 구도적 경계를 읊은 것·구름과 바위의 개별적 물성物性인 구름의 이동성移動性和 바위의 상주성常住性을 통해, 이들을 주·객의 관계로 설정하여, 만물의 특수성(개별성)을 부각시킴으로써 도심의 소재所在를 시사한 것·금계사金溪寺에서 고승高僧과 동숙同宿하는 날 밤에 불당佛堂 안의 정황을 묘사한 것으로, 가물대는 등불, 고승 손바닥 안의 염주소리, 간혹 보이는 하얀 콧김[鼻端白], 어느 사이 밝아오는 흰한 창밖과 먼 골짜기에서 불어오는 솔바람 등을 통해, 고승의 구도의 정황을 전하는 것·등잔불과 기름이라는 양자兩者の 관계, 즉 기름이 없으면 등잔불은 밝힐 수 없지만, 등잔불을 켜지 않으면 기름은 소모되지 않는다는 원리와 등잔불의 밝음을 탐내서 기름을 아끼지 않으면, 기름이 소진되어 등잔불은 다시 꺼진다는 상호의존과 상호방해의 원리로써, 만물은 이와 같이 제각기의 특성을 통해 의존과 장애관계를 지닌다는 이법理法을 제시한 것·만사萬事에 대응하려면 마음의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하지만 마음은 태양같이 밝은데도 이해할 수 없고 오묘해서 형용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라고 논한 것·만물의 세계가 마음 하나에 융합되지만 이는

기점起點도 종점終點도 없으니 이해도 형용도 불가하며, 다만 견지하고 포기함에 따라 흥성과 쇠퇴가 분리되니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곧 산에 나무를 재배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논한 것 · 『양명집陽明集』을 읽고 쓴 시에서, 서애는 양명의 ‘마음이 곧 이치이다[心卽理]’라는 것에 대한 비구체성의 허점을 주자의 사물마다 나아가서 그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여, 이로써 사물에 대한 나의 식별지識別知를 쌓아서 사물의 이치와 나의 식별지가 환하게 관통하면 이법理法[도]을 깨닫게 된다는 주자의 학설을 바탕으로 하는 이룰테면, 사람이 입이 있기 때문에 맛을 알아낼 수 있다지만, 곰발바닥과 생선의 맛은 각각 그 물성物性이 다르므로 반드시 직접 그 사물에 나아가서 이의 개별리個別理를 통해 나의 식별지를 획득해야만 비로소 양자兩者간의 차이성의 구별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부각시켜, 지금 천하는 홍수가 극심하여 산릉山陵에 까지 물이 차올랐으니 이것의 물고를 퇴출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주자학을 숙지한 자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논학論學의 종지宗旨를 부각시킨 것 · 성인聖人이 되려는 학문에는 연원이 있으니, 그 요점은 ‘정심精深한 노력을 한결같이 하라’는 것과 자사子思가 말한 ‘극치에 이르도록 추구하라’는 것에 집중해야만 인심을 지양하고 도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 · 서애가 이종질姨從姪 김부金頻와 죽鬻이 비록 훌륭한 옥식玉食은 아니나 생명을 살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음을 동한의 광무제光武帝가 등극 이전에 풍이馮異가 바친 콩죽으로 허기와 추위를 녹였다는 사례로써 죽의 가치를 부각시킨 것 · 이백의 「고숙성姑熟城 풍광을 읊은 열 수시」를 본받아 옥연정사玉淵精舍 풍광 열 수를 읊은 시 중에, 북담北潭에 비친 가을 밤 달빛, 추색서린 북담의 질푸른 빛, 자욱하게 끼인 운무, 천지가 구분이 되지 않는 공간에서 허공에 나타난 희끄무레한 달빛만 보이는 모호한 정경을 통해, 도를 닦는 사람의 마음을 한마디로 논할 수 없음을 이에 기탁하여 구도求道의 어려움을 시사한 것 · 완심재玩心齋를 구도求道의 공간으로 묘사하고자, 서애가 깔고 앉은 한 장의 부들방석을 통해, 자신은 아직 사

물의 실상과 현상계의 헛됨을 분별치 못하여, 모호한 가운데 삼계三界를 궁구窮究하다보니 어느 사이 벌써 한 해가 저문다는 구도求道の 아쉬움을 읊은 것·주자의 호흡조절에 대한 『조식잠調息箴』에 코끝을 주시하며 명상하면 흰 콧김이 보인다[鼻端白]는 호흡 조절법을 통한 심성수행법은 곧 몸으로 심성을 단련하는 것으로 이는 『이정어록二程語錄』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논도論道の 경계를 읊은 것·세상의 시간에는 과거와 미래가 있지만 달빛에는 고금古今이 없다는 것으로 도의 표현인 현상과 도의 실체인 본성을 시사하면서, 이것은 수준의 높고 낮음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설파한 것·늘어서 자연에 순응하고자 정신과 기백을 구도求道の 경지에 몰두할 뿐, 더 이상은 세속적 언론을 시로 표현하지 않는다고 읊은 것 등에서 보인다. 관련 시로는 「시2」·「시3」·「시8의 1수」·「같은 시의 2수」·「같은 시의 3수」·「같은 시의 4수」·「같은 시의 5수」·「같은 시의 6수」·「같은 시의 7수」·「같은 시의 8수」·「같은 시의 9」·「같은 시의 10수」·「시11」·「시15」·「시16의 1수」·「같은 시의 2수」·「시39」·「시59의 1수」·「시96」·「시97의 1수」·「같은 시의 2수」·「시44의 1수」·「시51」·「시52」·「시54의 1수」·「같은 시의 7수」·「시59의 5」·「시70의 2수」·「시73」 등이 있다.

이상의 간술簡述을 종합해보면, 서정시에서 드러난 유형별 분포에서는 바로 자성류自省類(16제題 19수首)와 은자적 태도의 유형(16제 18수)의 빈도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서 서애 만년의 마음의 경향성을 들여다볼 수 있는 주요한 자료가 된다 할 수 있겠다. 그 다음이 보국충정과 애민류의 순으로 이어지는데 이는 어짊[仁]의 단서인 측은지심의 발로로서, 서애의 만년에 속하는 시기이나 여전히 타자지향他者志向의 박애정신사상이 서애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다. 그리고 ⑤ ⑥ ⑦의 항목을 보면 여

기에 사용된 시는 총 22제 26수인데, 시詩 속의 대상자가 육친이 아니면 벗과 문인門人들이므로 포괄적으로 보면 이 역시 타자지향성他者志向의 육친애와 인간애를 드러낸 것으로 서애의 사회성을 파악하는데 주요한 자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유한한 생명에 대한 허무감과 경멸과 절후의 변화에 따른 감응 또한 풍부하여, 서애가 지닌 정감세계는 자기성찰을 통한 수분안거守分安居의 도학정신과 동시에 타자와의 관계지향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건강한 사회성이 깃든 인품의 소유자임을 알 수 있겠다.

또한 설리시와 서술시 계열에 나타난 유형별 분포를 보면, 여기에서는 단연 ③ ④ 항목의 인심人心에서 도심道心으로 이르는 지향志向과 구도求道와 논도論道 및 논학류論學類를 사용한 빈도가 모두 다 압도적으로 많다. 전자에서는 12제 16수가 사용되었고, 후자에서는 17제 29수가 사용되었으니, 과연 서애의 인생은 성리학적 인생을 구가한 도학군자의 삶이 중심 맥락을 이루고 있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삶의 지향이 도학을 궁구하며 도심을 구가하는 인생을 하나의 가치로 두고 있었기 때문에, 서애의 일상 생활은 하루 24시간이 자성自省과 자경自警의 생활로 일관되었음을 알 수 있겠다. 또한 위의 간술簡述에서 밝혔듯이 자성自省과 자경自警 및 훈도류의 유형 역시 언정(16제 19수)과 언지(8제 8수)류에 두루 보이고 있어, 서애야말로 온전하게 일일삼성一日三省을 몸소 실천한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성 싶다.

이에 대한 방증이 「서애연보西厓年譜」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테면, 25세 때부터 시작한 관료 생활에서 크고 작은 직위를 제수 받을 때마다 일단 그 소명召命을 사양부터 하였고, 그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다시 상소하곤 하였다. 그 일례로 서애 35세 때의 「연보」를 보면, 1월에 홍문관 교리校理에 임명되어 소명召命을 받고 부임하다가 도중에서 사양하고 돌아왔으며, 부친 상중喪中 은거 시에 구학求學과 구도求道の 도장道場인 정사精舍¹⁾를 완성했고, 4월에는 사간원헌납司諫院獻納에 임명되어 조정

에 돌아와서, 다시 의정부검상議政府檢詳에 전임되었고, 또 홍문관전한弘文館典翰에 임명되었으나 사양했고, 그러나 또다시 사헌부司憲府 장령掌令에 옮겨 임명되었다. 휴가를 얻어 안동에 계신 노모를 찾아뵈었고, 12월에는 홍문관弘文館 부응교副應教에 임명되었으나 상소하여, 충청도와 경상도 중에 조그마한 고을의 목민관이 되어 65세의 노모老母를 봉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청하였으나, 윤택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 후에도 노모를 봉양하고자 해마다 관직을 사양하였으므로 마침내 그의 나이 39세 때에 상주목사尙州牧使가 결원缺員이 되자 선조가 할 수 없이, 이조吏曹에 물어 상주가 안동까지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임을 파악하고 선생을 상주목사尙州牧使로 특명하여, 노모를 모시도록 하였다. 선조는 “그대에게 상주목사를 시킨 것은 이웃고을 관리들이 본받도록 하려고 한 것이다(以爾爲尙牧欲使隣官取法耳)”라고 하였다. 선생은 임지에서 마을마다 초학자初學者를 교육시키는 교관과 향약鄉約²⁾을 실행하는 유사有司를 선출하여 글로써 깨우쳤는데 대략 오륜五倫을 철저하게 하는 것을 먼저 할 일로 삼았다. 또한 서에는 몸소 향교의 명륜당에 나아가 그곳 서생書生들에게 글을 가르치기도 하였는데, 이때에 우복愚伏 정경세鄭經世를 만났으며, 이때의 제자들에게 의해 훗날 상주지역의 퇴계학맥과 서애학맥이 발생·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서애는 이렇게 작은 고을의 소박한 목민관으로서의 소임을 열망하였지만, 조정에서는 그를 끊임없이 밖으로 불러냈고, 마침내는 임란 7년 전쟁을 주관하는 이른바 출장입상出將入相의 대임大任을 한 몸애 안겼던 것이다. 서애는 마침내 조선의 명운命運을 구하기 위해서 온몸을 던졌으나,

1) 원지정사(遠志精舍) : 중요민속자료 85호. 이 정사(精舍)는 서애(西厓)가 32세 때(선조 6년, 1573년)에 부친상을 당하고, 낙향해서 은거할 때에 지은 건축물임. 소재지는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712-1번지임.

2) 「권1·시16」과 주석 2)의 ②번 ‘유규(遺規)’ 조항을 참조 바람.

조·명 연합군朝明聯合軍의 울산전투에서의 패배를 빌미로 명명의 주사主事 정응태丁應泰가 이를 명명 황실에 무주誣奏하는 사건이 터지면서 이의 해명을 위한 진주사陳奏使로 서애를 낙점하자, 서애는 전역戰役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탄핵을 받는 사람이 맡을 수 있는 책무가 아니라고 끝내 이를 고사固辭하여, 마침내 서애 57세(무술년戊戌年 : 1598) 11월 19일에, 모든 작위를 삭탈당하고 하회로 낙향하게 되었던 것이다. 서애는 낙향 이후, 임란 7년 전쟁을 회고하면서 이러한 치욕의 역사가 다시는 후손에게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징비록懲毖錄』을 집필하였으니, 이 역시 도학자적인 관점이 아니고는 해낼 수 없는 일이었다. 재언하면, 서애는 퇴계의 문하에서 학습한 도학의 거경궁리居敬窮理를 통한 실사구시적實事求是의 성리학 이론을 바탕으로 그의 인생과 정치생애를 언제나 이타利他와 조화의 중심으로 해결하는 도학자 자세를 지향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당시에 빈번하게 정쟁政爭의 중심에서 탄핵을 받았지만 한 번도 인심人心의 작용을 드러낸 적이 없었으며, 오히려 그때마다 사물의 입장에서 자신을 관조하는 이른바 ‘이물관물以物觀物’의 도학적 처세로 일관하였기 때문에 4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우리는 선생의 진심과 진정을 우러르며 선생의 삶을 흠모하고 추앙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2014년 8월

서애 12대 후손 류명희柳明熙

후학後學 안유호安維鎬



1. 이 책의 국역 저본은 서애선생기념사업회의 간행본인 『서애전서西厓全書』 권1 간본편刊本篇, 본집本集 권2의 시부詩部를 대상으로 하였다.
2. 본 시집에서 시의 배열은 『서애전서西厓全書』 권1 간본편刊本篇, 본집本集的 권2, 시부詩部の 목차에 준하였다. 이 목차의 순번에 따라 찾아보기 쉽게 하기 위하여, 번역시 제목 앞에는 ‘시1, 시2……’ 식으로 표기하였고, 원시 제목 앞에는 ‘詩1, 詩2……’ 식으로 번호를 덧붙여 독자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동시에 이 번호의 색깔을 열게 표기하여, 한편으로는 시제詩題의 순서를 나타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의 제목이 아님을 시각적으로 드러나게 하였다.
3. 원시 제목에서는 방점을 찍지 아니하고 띄어쓰기만 했으며, 원시의 서문에서는 방점 처리를 하였다. 동시에, 원시와 이에 부속된 서문의 한문은 모두 한글 음을 달았다.
4. 시의 목차에서 ‘번역시 제목’은 왼쪽 페이지에, ‘원시 제목’은 오른쪽 페이지에 두었으며, 동시에 양자兩者를 동일 행行에 나란히 안배하여, 역시와 원시의 시제를 대조해서 즉각 해당 시제의 쪽수를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5. 목차에서는 시제詩題를 단순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부속된 서문을 생략하였다.
6. 같은 시제 아래, 2수 이상의 작품이 있는 경우에는 원시의 목차에 준하여 [1], [2] 등으로 표기하였다.

7. 시의 1구는 1행으로 적었으며, 1구가 끝나면서 압운押韻하는 곳은 ‘ 〃 ’로, 압운하지 않는 곳은 ‘ , ’로 표기했다.
8. 연대는 공동연대Common Era로 표시하되, 필요시엔 괄호를 열어 당시 제왕의 재임연수와 서애西厓 선생의 당시 나이를 모두 표기하였다.
9. 주석注釋에서 인물과 지명에 대한 소개는 되도록 구체적으로 밝혔다. 특히 인물을 소개할 때는 원문에 기록된 성씨, 직함, 자字, 이름의 순으로 번역하고, 그 아래 ① 성명, ② 직함을 별도로 주석注釋하였다. 번역문에서는 현대식으로 자字나 직함을 앞에 쓰고, 성명을 뒤에 썼다.
10. 주석注釋에서 특히 지명地名의 경우,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를 열고 오늘날의 위치로써 간주間註하였다.
10. 인명·지명·서명書名 등 중국관련 고유명사는 중국어 발음으로 표현해야 하나, 서애 선생이 작시作詩하던 시대적 상황과 한국의 한자문화권의 정서를 고려하여, 한국어 음으로 표기하였다.
10. 또한 인명과 지명에 관해서 각종 사전을 인용한 것은 일일이 그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11. 주석달기에서 단위별 항목의 표기는 1), ①, ☆, a 등의 순서로 표기하였다.
12. 주석註釋은 가능하면 사전 없이 본시를 감상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달았으며, 매 작품의 끝에 미주로 처리하였다. 서애西厓 선생이 단 주석과 역자譯者의 주석은 “*”라는 부호로 표기하였고, 주석 속에 다시 주석이 필요한 경우는 “*”로 표기하였다.
13. 역시譯詩의 제목과 시문은 모두 고등학교 졸업 정도의 학력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한 현대어를 사용하고자 노력하였다.
14. 부호의 사용은 다음과 같이 하였다.
 - 1) () : 해당 단어에 대한 참고사항 및 연도 혹은 연도성 성격에 준하는 의미 및 시문詩文이나 소서小序의 역문譯文 등에서 생략된 의

미를 역자가 부각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 부호를 사용했다.

2) 「 」 : 작품의 편명을 표기하였다.

3) 『 』 : 책명을 표기하였다.

4) “ ” : 대화 등의 인용문을 묶었다.

5) ‘ ’ : 재인용이나 강조 부분을 묶었다.

6) [] : 같은 시제 아래 2수 이상의 작품이 있는 경우에는 원시原詩의 목차에 준하여 이 부호로써 해당 번호를 묶었다. 또한 내용설명에 대한 약식略式 표현이 필요한 경우에도 본 부호를 사용하였다.

15. 권말卷末 부록으로 색인索引과 「서애연보西厓年譜」 초록抄錄을 수록하였다.



목 차

간행사刊行辭_ 5

개정판改訂版을 내면서_ 9

역자 서설序說_ 11

해제解題_ 16

일러두기_ 41

시1. 동한東漢 여남군汝南郡에는 어진 선비가 많았다네	1
시2. 여름날 시골에 머물면서 농 삼아 쓰다	7
시3. 오월 열 하룻날 밤 풀벌레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여	9
시4. 혹서탄	11
시5. 대우행大雨行 칠석날 저녁에	15
시6. 회암晦庵 팔대자가八大字歌	25
시7. ‘낙동강 서쪽언덕[西厓]’을 거닐다가 지난날을 그리워하며 서문을 병기함	39
시8. 『대학大學』을 읽고 느낀 바 있어 지은 시 열 수	43
시9. 강변 누각에서 가을풍경을 바라보며	71
시10. 김사열金士悅 시에 차운次韻하여	73
시11. 농환가 동짓날에 짓다	76

詩1. 汝南多賢士	1
여 남 다 현 사	
詩2. 夏日 村居戲作	7
하 일 촌 거 의 작	
詩3. 五月十一日夜 始聞草蟲聲	9
오 월 십 일 일 야 시 문 초 충 성	
詩4. 酷暑歎	11
혹 서 탄	
詩5. 大雨行 七夕	15
대 우 행 칠 석	
詩6. 晦庵八大字歌	25
회 암 팔 대 자 가	
詩7. 遊西厓感舊 并序	39
유 서 애 감 구 병 서	
詩8. 讀大學有感 十首	43
독 대 학 유 감 십 수	
詩9. 江樓秋望	71
강 루 추 망	
詩10. 次金士悅韻 庚子	73
차 금 사 열 운 경 자	
詩11. 弄丸歌 冬至日作	76
농 환 가 동 지 일 작	

시12. 선현음	91
시13. 가을에 연꽃 지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104
시14. 가을날의 상념想念	107
시15. 회암晦庵의 「도서道書를 읽다」는 시에 차운한 시 두 수 ...	110
시16. ‘감흥’을 읊은 시 두 수	130
시17. 송사宋史를 읽고 느낀 바가 있어서 서문을 병기함	137
시18. 독서	148
시19. 풍산으로 가는 도중에 두보의 시를 차운하여	150
시20. 먼 곳을 유람하고 돌아오다	154
시21. 성운을 입어 직첩을 되돌려 받고서	166
시22. (경자년庚子年 : 1600년) 선달 열사홀 날 서쪽으로 (의인왕후懿仁王后의) 산릉山陵에 갔다가 용궁龍宮에 들러 생질 이돈李焄 이찬李燦 형제에게 읊어 보이다	168
시23. 생질 이돈李焄 형제가 호계현虎溪縣까지 배웅해 주며 작별하다	172
시24. (경기도) 장항獐項 협곡 입구에서 출발하여 충주忠州를 바라보며	174
시25. 탄금대彈琴臺를 지나가며 느끼는 바가 있어, 창세畎畊 박상棼祥 선생의 시에 차운하다 서문을 병기함	178
시26. 정월 스무 여드렛날 남쪽의 다리를 건너, 강변 따라 서쪽으로 가서, 북쪽 절벽에 올라갔다가, 저물녘이 되어서야 서당에 돌아왔는데, 느낀 바 있어서	187
시27. 월출을 기다리면서	189
시28. 소나무를 심으며 서문을 병기함	191

詩12.	先賢吟 선 원 음	91
詩13.	秋荷怨 추 하 원	104
詩14.	秋思 추 사	107
詩15.	次晦庵讀書韻 二首 차 회 암 독 도 서 윤 이 수	110
詩16.	感興 二首 감 흥 이 수	130
詩17.	讀宋史有感 并序 독 송 사 유 감 병 서	137
詩18.	讀書 독 서	148
詩19.	豐山途中次老杜韻 풍 산 도 중 차 노 두 윤	150
詩20.	反遠遊 반 원 유	154
詩21.	蒙恩給職牒 몽 은 금 직 첩	166
詩22.	十二月十三日 西赴山陵 到龍宮 吟示李甥煒燦 십 이 월 십 삼 일 서 부 산릉 도 용 궁 읊 시 이 생 문 찬	168
詩23.	李煒兄弟追別於虎溪 이 문 형 제 추 별 어 호 계	172
詩24.	出獐項峽口望忠州 출 장 량 협 구 망 충 주	174
詩25.	過彈琴臺有感 次朴昌世先生韻 并序 과 탄 금 대 유 감 차 박 창 세 선 생 윤 병 서	178
詩26.	正月二十八日過南橋 沿河而西 登北壁 정 월 이 십 팔 일 과 남 교 연 하 이 서 등 북 벽	
	晚到書堂有感 甲辰 만 도 서 당 유 감 갑 진	187
詩27.	待月 대 월	189
詩28.	種松 并序 종 송 병 서	191

시29. 왕사往事로 인해 상감傷感에 젖어서	197
시30. 강릉으로 가는 김창원을 전송하며 읊은 시 세 수	220
시31. 숙부肅夫 김동강金東岡의 별세를 애도하다	226
시32. 망사대	230
시33. 행로난	239
시34. 위무제魏武帝가 읊은 ‘풍風송松한寒죽竹’ 네 자의 노래	247
시35. 원지정사遠志精舍의 서재西齋에서 달을 바라보며	255
시36. 이 통제사李統制使를 애도하다	258
시37. (동진東晉의 무장) 은호殷浩를 조소하면서	267
시38. 객지에 묵으며 회포를 읊다	272
시39. 구름과 바위를 읊다	276
시40. 공거公擧 권강權扛의 시에 차운하다	278
시41. 새로 지은 소사小舍의 벽에 시 한 수 지어 붙이다	281
시42. 밤에 좌정坐定하여	284
시43. 서루西樓에서 두 수 쓰다	286
시44. 『양명집』을 읽고 느낀 바 있어 쓴 시 두 수 서문을 병기함	290
시45. 산사山寺에서 공부하는 소년들에게 시 두 수를 지어 교도教導하다	324
시46. 한가한 동안에 한산자寒山子 · 이백李白 · 도연명陶淵明의 시를 읽고 지은 시 세 수	327
시47. 두보杜甫 시 「곡강삼장曲江三章」을 차운次韻하다	336

詩29.	感事 감 사	197
詩30.	送金昌遠赴江陵 三首 송 김 창 원 부 장 송 삼 수	220
詩31.	輓金東岡肅夫 반 김 동 강 숙 부	226
詩32.	望思臺 망 사 대	230
詩33.	行路難 행 로 난	239
詩34.	魏武風松寒竹四大字歌 위 무 풍 송 한 죽 사 대 자 가	247
詩35.	精舍西齋對月 정 사 서 재 대 월	255
詩36.	哀李統制 애 이 통 제	258
詩37.	嘲殷浩 조 은 호	267
詩38.	寓懷吟 우 회 읊	272
詩39.	賦雲石 부 운 석	276
詩40.	次權公舉扛韻 차 권 공 거 강 운	278
詩41.	新成小舍題壁 신 성 소 사 제 벽	281
詩42.	夜坐 야 좌	284
詩43.	題西樓 二首 제 서 루 이 수	286
詩44.	讀陽明集有感 二首 독 양 명 집 유 감 이 수	290
詩45.	示兒輩讀書山寺 二首 시 아 배 독 서 산 사 이 수	324
詩46.	閒中讀寒山子李陶詩 三首 한 중 독 한 산 자 이 도 시 삼 수	327
詩47.	曲江三章次老杜韻 곡 강 삼 장 차 료 두 운	336

시48. 우연히 읊다	341
시49. 가을날의 감회를 읊은 시 두 수	343
시50. 구월 초 오경五更에 누각에 올라 가을을 느껴 시를 짓다	346
시51. 홍중弘仲 노경임盧景任이 학문을 논한 시를 보내와서 그 뜻에 감동하여 차운次韻하다	350
시52. 이종질姨從姪 김부金頻와 죽 이야기를 하면서 시를 지어 한바탕 웃음거리로 삼다	360
시53. 아들 자남子男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시	365
시54. 이백의 「고숙성姑熟城 풍광을 읊은 열 수의 시」를 본받아 옥연정사玉淵精舍 풍광 열 수를 읊다	369
시55. 사암思庵 유숙柳淑의 시를 차운次韻하여 짓다 서문을 병기함 ...	393
시56. 정원수가 추풍에 낙엽 지는 것을 탄식하면서	399
시57. 진사進仕 이중양李仲陽에게 서신을 보내어 홍국사興國寺 유적에 대해서 묻다 서문을 병기함	402
시58. 간죽문看竹門을 시제詩題로 하다	409
시59. 금계재사金溪齋寺에서 읊은 잡영시雜詠詩 여섯 수	410
시60. (저승에 간) 아들 자남子男이 경자년庚子年 겨울에 벽에 써왔던 (그 애의) 이름자를 보고,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다	425
시61. 비 온 뒤에 청초靑草를 시제詩題로 두 수 짓다	427
시62. 비온 뒤 산에 올라보니	431
시63. 풍송석 서문을 병기함	433
시64. 호우	436

詩48.	偶吟 우 음	341
詩49.	秋日感懷二首 추 일 감 회 이 수	343
詩50.	九月初五夜登樓感秋作 구 월 초 오 야 등 루 감 추 작	346
詩51.	盧弘仲景任寄詩論學感其意次韻 노 홍 중 경 임 기 시 논 학 감 기 의 차 운	350
詩52.	與族姪金頴論粥作詩記之資一笑 여 족 질 김 부 논 죽 작 시 기 지 자 일 소	360
詩53.	子男哀詞 자 남 애 사	365
詩54.	玉淵十詠效李白姑熟十詠 옥 연 십 영 효 이 백 고 숙 십 영	369
詩55.	次柳思庵韻并序 차 류 사 암 운 병 서	393
詩56.	庭樹爲秋風所敗歎 정 수 위 추 풍 소 패 탄	399
詩57.	寄李進士仲陽問興國寺遺跡并序 기 이 진 사 중 양 문 흥 국 사 유 적 병 서	402
詩58.	題看竹門 제 간 죽 문	409
詩59.	金溪齋寺雜詠六首 금 계 재 사 잡 영 육 수	410
詩60.	壁間見子男庚子冬題名淚下良久 벽 간 견 자 남 경 자 등 계 명 우 하 양 구	425
詩61.	賦雨後青草二首 부 우 후 정 초 이 수	427
詩62.	雨後登山 우 후 등 산	431
詩63.	風松石并序 풍 송 석 병 서	433
詩64.	大雨 대 우	436

- 시65. 동지同知 권진손權震孫과 권간손權良孫 형제가 찾아
왔는데, 두 사람 모두 백발이 성성하면서도 건강
하였다. 나는 그 사람들을 만나보고 느낀 바 있어,
이튿날 시를 지어서 그들에게 주었다 438
- 시66. 안음安陰 수우守愚 김윤명金允明이 내방來訪하였기에
시를 지어 사의謝意를 표하다 442
- 시67. 안음安陰 김윤명金允明이 차운次韻한 시를 보내 왔는데,
내가 다시 그 시를 차운하여 부치다 445
- 시68. 묘아卯兒가 『사략史略』을 읽는 것을 누워서 듣고 있다가,
원고韓圀가 공손홍公孫弘의 곡학아세曲學阿世를 충고하는
대목에서 느낀 바가 있어 우연히 한 수 짓다 449
- 시69. 재사齋舍에 머무는데 강변에 매화와 복사꽃이 다
지는 소리가 들려서, 낭천현감狼川縣監인 조카에게
지어 부치다 454
- 시70. 비 갠 후에 달빛이 무척 밝아 읊은 시 두 수 456
- 시71. 여름에 중대사中臺寺에 머물면서 460
- 시72. 내 마음을 스스로 위로하다 464
- 시73. 나는 시 짓기를 즐기지는 않지만 시상詩想이 떠오르면
임기응변하는 말로 내 감정을 풀어낸다. 손님이 내게
연습 삼아 작시作詩를 권유하기에 시속時俗에 따라
농 삼아 한 수 지어 본다 471
- 시74. (북송北宋의 대신) 충선忠宣 범순인范純仁은 영주永州에
(좌천되어) 있을 때, 문을 닫아 놓고 방문객의 면회를
사절하였다. 손님이 굳이 접견하려고 하면 상면은
했으나, 날씨가 추우니 따뜻하니 따위의 인사치레만
나누다가, 손님에게 읊拂을 하고는 맞은편에 누워서
자는데, 코고는 소리가 우레같이 요란했다. 잠을
자다가 손님은 늘 날이 저물어서야 돌아갔다고 한다 482

詩65.	權同知震孫良孫兄弟來訪 皆白首無恙 권 동 지 진 손 간 손 형 제 내 방 개 백 수 두 양 余見之有感 明日以詩寄之	438
詩66.	金安陰守愚允明來訪以詩謝	442
詩67.	安陰次韻來 又用其韻寄之	445
詩68.	臥聽卯兒讀『史略』 轅固譏公孫弘曲學阿世 와 청 묘 아 독 사 략 원 고 기 공 손 홍 곡 학 아 세 有感偶題	449
詩69.	寓齋寺 聞江上梅桃盡落 寄狼川姪	454
詩70.	雨霽後 月色甚明 二首	456
詩71.	夏日寓中臺寺	460
詩72.	自慰	464
詩73.	余不喜作詩 意到惟作打乖語以自遣 여 불 회 작 시 의 도 유 작 타 괴 어 이 자 권 客有勸我習作律 以便應俗 戲作	471
詩74.	范忠宣在永州 閉門謝客 固欲見則但問寒暄 범 충 선 재 영 주 폐 문 사 객 고 욕 견 즉 단 문 한 원 揖客對臥 鼻息如雷 睡覺 常及暮而去	482

시75. (을사년乙巳年 : 1605년) 시월에 서미동西美洞으로 이사를 했는데, 창 앞에 오래된 배나무 한 그루가 서 있어서, 내년 봄에 배꽃이 만개滿開하면 관상觀賞하기 좋겠다 싶어 시를 지어 벽에 붙이다	492
시76. (갑진년甲辰年 : 1604년) 시월 열 아흐렛날, 강릉부사 창원昌遠 김홍미金弘微의 부음訃음을 받고나서	495
시77. 창가에서 우연히 쓰다	497
시78. 강릉江陵에서 세상을 뜬 창원昌遠 김홍미金弘微의 관槨이 풍산豐山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시를 지어 조의弔儀를 표하다	499
시79. 동짓달 스무 아흐렛날에 시야에 들어온 풍광을 쓰다	502
시80. 눈이 온 뒤 창호지에 쓰다	504
시81. 냇가 바위에서 쓰다	506
시82. 초가집을 새로 짓고 나서 우연히 벽에 써서 붙이다	508
시83. 비 온 뒤 뜰 안에 온통 낙화가 깔렸음에 느낀 바 있어서	511
시84. 안음安陰 김윤명金允明의 별세別世를 애도哀悼하다	514
시85. 경임景任 정경세鄭經世에게 부치다	518
시86. 숙평叔平 이준李堧에게 부치다	521
시87. 홍중 노경임盧景任에게 부치다	525
시88. 아이 두 명과 집 앞 냇가에서 발을 담그고 놀다	527
시89. 구월 초아흐렛날 중앙절重陽節에 벽에 써 붙이다	529
시90. 초여드렛날 서미동西美洞에 돌아와서 쓴 시 세 수	532
시91. 산중에서 한가하여, 아이들과 도토리 주우며, 얼핏 떠오르는 생각을 시가로 읊어 놓으로 삼다	535

詩75.	十月 移寓西美洞 窓前有古梨樹一株 시 월 이 우 서 미 동 창 전 유 고 리 수 일 주 預念明年春花盛開可玩 故題壁 예 념 명 년 춘 화 성 개 가 완 고 제 벽	492
詩76.	十月十九日 聞金江陵昌遠訃音 십 월 십 구 일 문 김 강릉 창 원 부 음	495
詩77.	偶題窓上 우 제 창 상	497
詩78.	聞江陵櫬過豐山 以詩哭之 문 강릉 큰 과 풍 산 이 시 곡 지	499
詩79.	至月二十九日記所見 지 월 이 십 구 일 기 소 견	502
詩80.	雪後題窓紙 설 후 제 창 지	504
詩81.	題溪邊石 제 계 변 석	506
詩82.	草庵新成 偶題壁上 초 암 신 성 우 제 벽 상	508
詩83.	雨後落花滿庭有懷 우 후 낙 화 만 정 유 회	511
詩84.	輓金安陰 만 김 안 음	514
詩85.	寄鄭景任 기 정 경 임	518
詩86.	寄李叔平 기 이 숙 평	521
詩87.	寄盧弘仲 기 노 홍 중	525
詩88.	與童子二人濯足前溪 여 동 자 이 인 탁 족 전 계	527
詩89.	九日書壁 구 일 서 벽	529
詩90.	八日還西美洞 三首 팔 일 환 서 미 동 삼 수	532
詩91.	山中無事 與兒輩拾橡 偶吟爲戲 산 중 무 사 여 아 배 습 상 우 음 위 희	535

시92. 도사곡	540
시93. 연릉군延陵君 이호민李好閔이 서신을 보내와서, 한가할 때 책을 써보라고 내게 권하기에, 농 삼아 답하다	543
시94. 『포은집(圃隱集)』을 읽고 쓴 시 두 수	547
시95. 영해寧海의 유학자 경탁景卓 신정립申挺立이 와서 말하기를 차라리 목은牧隱 이색李穡 선생 제향祭享하는 곳을 서원으로 만들고 싶은데, 의견이 같은지 다른지의 여부를 내게 물었다. 나는 감히 선뜻 즉답을 하지 못했으나, 그가 간 뒤에, 목은牧隱 선생이 지향했던 것에 대해서 느낀 바가 있어, 절구시絶句詩 두 수를 읊는다. 옛적 인물을 추구하여 논하는 선비들이, 또한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네? ...	557
시96. 등잔불을 읊다	568
시97. ‘마음’을 읊은 시 두 수	570
시98. 직무를 받고 감동하여	573
시99. 위소주韋蘇州의 시 「백발을 탄식하며嘆白髮」를 차운次韻하여	575
시100. 금년의 절후가 끝나갈 무렵, 산중에서 시월 달에 마침 국화가 눈에 띄어 느끼는 바가 있어서	579
시101. 경임景任 이보李輔에게 부치다	583
시102. 동짓달 초하룻날 밤, 우연히 단경丹經을 보다가, 시를 지어 아들 진아稔兒를 훈계하면서	586

부록附錄

서애연보西厓年譜 초록抄錄 _ 591

찾아보기 _ 624

詩92.	淘沙曲	540
	도사곡	
詩93.	延陵寄書來 勸余閒中著書 戲答	543
	연릉기서대 권여한중저서 희답	
詩94.	書圃隱集 二首	547
	서포은집이수	
詩95.	寧海儒申挺立來言 寧爲牧隱外鄉 欲作書院	
	영해유갑정립내인영위묵은외향 욕작서원	
	議異同問余 余謝不敢對 去後 有感於牧老心事	
	의이동문여 여사불감대거후 유감어묵로심사	
	吟二絶 未知尙論之士 又以爲如何?	557
	옴이절 미지상론지사 우이위여하	
詩96.	詠燈火	568
	영등화	
詩97.	靈臺 二首	570
	영대이수	
詩98.	感事	573
	감사	
詩99.	次韋蘇州歎白髮	575
	차위소주탄백발	
詩100.	今年節晚 山中十月 始見菊有感	579
	금년절만 산중시월 시견국유감	
詩101.	寄李景任輔	583
	기이경임보	
詩102.	至月初一日夜 偶看丹經書示珍兒	586
	지월초일일야 우간단경서시진아	

시1. 동한^{東漢} 여남군^{汝南郡}에는 어진 선비가 많았다네

詩1. 汝南¹⁾多賢士
여 남 다 현 사



汝南多賢士,
여 남 다 현 사

(동한^{東漢}) 여남군^{汝南郡}에는 어진 선비가 많았다는데,

叔度乃其尤²⁾.
숙 도 내 기 우

숙도^{叔度} 황헌^{黃憲}은 그 중에도 뛰어났다네.

見者自心醉,
견 자 자 심 취

만나 본 사람마다 절로 그의 품행에 심취했다는데

言論聞無由³⁾.
언 론 문 무 유

세론^{世論}은 자자해도 그 이유는 알 수 없었다네.

京師衆所馳⁴⁾,
경 사 중 소 치

도성^{都城}은 백관이 말 타고 달리는 곳이라,

暫到還旋轉⁵⁾.
잠 도 환 선 주

(그 사람도) 잠시 당도하여 수레타고 도성^{都城}을 돌아다녔으리.

如彼千仞⁶⁾上,
여 피 천 인 상

만약 그가 천길 높은 산위에 있었다면,

孤鳳一來儀。
고 봉 일 래 의

거만한 봉황도 단번에 날아와 예를
표했으리.

凌風⁷⁾更遠舉,
능 풍 경 원 거

바람 타고 더욱 멀리 날아간들,

繪弋⁸⁾終何施。
증 익 종 하 시

어찌 끝내 시위를 당길 수 있으랴!

不知老牛醫,
부 지 노 우 의

소의 병을 고치는 늙은 의사를 알지
못하고서야,

那得寧馨兒⁹⁾。
나 득 념 형 아

어찌 저명한 미남을 제대로 알아 볼 수
있으랴!

紛紛夸毗子¹⁰⁾,
분 분 과 비 자

급실급실 아첨하고 영합이나 잘하는
자는,

無實¹¹⁾逞其辭。
무 실逞 기 사

아무런 실체 없이 말로만 과시한다네.

汪汪千頃陂¹²⁾,
왕 왕 천 경 피

넘실넘실 깊고도 넓은 저수지,

淺深誰得知。
천 심 수 득 지

그 깊이를 누가 알 수 있으랴!

無論戴良失¹³⁾,
무 론 대 양 실

어진 선비 대량戴良은 이 세상 떠났어도,

已作林宗師¹⁴⁾。
이 작 름 종 사

그는 벌써 유림儒林의 종사宗師가
되었다네.

九原不可作¹⁵⁾,
구 원 불 가 작

고인故人을 다시 살려낼 수 없으니,

末俗¹⁶⁾堪長悲。
말 속 감 장 비

말세 풍속 언제까지 슬퍼해야만 하느고!

1) 여남(汝南): 여남군(汝南郡). 서한(西漢) 고제 4년(高帝四年: BC 203)에 설치한 행정구역 명칭으로, 관청 소재지는 상채현(上蔡縣)으로, 지금의 하남성(河南省) 상채현 서남부에 위치하였다.

‘여남군’이란 행정구역 명칭은 통일해도 동진(東晉)과 북위(北魏) 등 왕조에 따라 관할 구역 범위가 일치하지 않는다. 본 시에서는 한(漢)나라 때 설치한 것을 가리킨다. 당(唐)나라 숙종(肅宗) 건원 원년(乾元元年: 758)에 설치한 예주(豫州)가 바로 이 지역이다.

2) 속도내기우(叔度乃其尤: 속도叔度 황헌黃憲은 그 중에도 뛰어났다네):

① 속도(叔度): 한(漢)나라 때 학덕이 높았던 선비 황헌(黃憲)의 자(字).

☆황헌(黃憲: 생몰년 미상): 동한(東漢) 여남군(汝南郡) 신양현(慎陽縣) 사람으로, 자(字)가 속도이다. 품행과 학문이 뛰어나고 도량이 원대한 사람으로 저명하였으나, 가세(家勢)가 빈천하였다. 부친이 우의(牛醫: 소의 질병을 고치는 수의사)였다. 그의 나이 14세 때, 영주(潁州) 출신으로, 학문과 덕행이 뛰어난 당시의 대학자인 순숙(荀淑: 83~149)이 그와 대화를 나눈 후, 공자의 제자인 안회(顏回: BC 521~BC 490)와 그를 비교하였다.

당시의 저명인사인 진번(陳蕃: ?~168) · 주거(周舉: ?~149) · 곽태(郭泰: 128~169) 등과 교류하였는데, 이들 모두 속도에게 탄복했다고 한다. 그는 우의의(牛醫兒: 소의 질병을 고치는 수의사 아들)로 불렸다. 『후한서(後漢書) · 황헌전(黃憲傳)』에 이르기를, “(황헌은) 가세家勢가 빈천하였으며, 부친이 소의사였다. … 같은 군(郡)에 사는 대량(戴良: 자(字)는 숙란(叔鸞)이란 사람은, 재능이 뛰어나고 오만하였는데, 황헌을 만나기만 하면, 미상(未嘗) 볼 몸가짐을 바르게 하였으며, 귀가해서도, 정신이 명해져서, 무슨 실수라도 저지른 사람 같았다(世貧賤, 父爲牛醫… 同郡戴良, 才高倨傲, 而見憲, 未嘗不正容, 及歸, 罔然, 若有失也). 그 모친이 묻기를, “너 또 소의사 아들을 쫓아다니다 왔느냐(其母問曰, ‘汝復從牛醫兒來邪?’)”라고 한 구절이 있다.

황헌은 당시 인재선발의 필수과정인 효렴(孝廉)에 추천되고, 벽공부(辟公府: 즉 제후들의 관청 또는 관저)에서도 추천하였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벼슬하기를 권하자, 그도 더 이상 거절하지 않고 잠시 도성(都城)에 가서 두루 돌아 다녔으나, 끝내 관직에 나간 곳은 없었다. 나이 48세에 사망하였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징군(徵君: 조정에서 부른 학덕 높은 선비에 대한 존칭)’이라 불렀다.

② 내(乃): 동사로서, ‘~이다. 바로 ~이다’는 뜻임.

3) 언론문무유(言論聞無由: 세론世論은 자자해도 그 이유는 알 수 없었다네):

① 언론(言論): 여론(輿論): 사회 대중의 공통된 의견.

② 문무유(聞無由): 유명해도 진상(真相)을 알 길이 없다. 저명해도 단서가 없다.

☆문(聞): 유명하다. 저명하다.

☆무유(無由): 단서(실마리, 방법)가 없다.

4) 경사중소치(京師衆所馳: 도성都城은 백관이 말 타고 달리는 곳이라):

① 경사(京師):

☆국도(國都), 도성(都城). 『시경(詩經) · 대아(大雅) · 공유(公劉)』에, “경사(京

師)로서 들관의 형세가 좋아서, 곳곳에서 백성들이 거주하며(京師之野, 于時處處)”라는 구절이 있다.

청(淸)나라 학자 마서진(馬瑞辰 : 1775~1853)은 그의 저서 『모시전전통석(毛詩傳箋通釋)』에서 ‘경(京)’이란 것은 반국(鬲國)의 지명이라고 하였다. 오두남(吳斗南)이 말하기를, ‘경(京)’은 지명이고, ‘사(師)’라는 것은 도읍지를 칭하는 것으로, 낙읍(洛邑)을 낙사(洛師)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경사(京師)’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후세에는 일반적으로 국도(國都)를 경사(京師)라고 하였다.

- ② 중(衆) : 백관(百官), 즉 군신(群臣)을 가리킨다. 『예기(禮記)·곡례하(曲禮下)』에, “천자의 오관(五官)은, 사도·사마·사공·사사·사구이니, 이 오관부(五官府)의 관원이 백관(百官)을 다스린다(天子之五官, 司徒, 司馬, 司空, 司士, 司寇, 典司五衆).”고 한 구절이 있는데, 후한(後漢)의 학자 정현(鄭玄 : 127~200)이 주석(注釋)하기를 “중(衆)은 군신(群臣)을 이르는 것이다(衆謂群臣也)”라고 하였다.

5) 환선주(還旋軸) :

- ① 환선(還旋) : 주위(둘레)를 돌다.
 ② 주(軸) : ‘사람을 태우는 수레 중앙에 다는 하나로 된 굵은 끝채(수레채)’라는 명칭이나, 본 시에서는 ‘수레’를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음.

6) 천인(千仞) : ‘천길’이라는 뜻으로, 산이나 바다가 심히 높거나 깊음을 형용한 말. 고대에는 8척(八尺)을 1인(一仞)이라 하였다.

7) 능풍(凌風) : 바람을 타다.

8) 증익(繪弋) : 익증(弋繪) : 주살(활 쏘기의 기본 자세를 연습할 때, 오너 즉 화살의 머리를 활 시위에 끼도록 예어 낸 부분에 줄을 매어 쏘는 화살임). 견직물의 충칭을 뜻하는 증(繪)은 주살을 뜻하는 증(繪)과 통용된다. 익(弋)은 ‘주살’이란 뜻이다.

9) 나득영형아(那得寧馨兒 : 어찌 저명한 미남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으랴) :

- ① 나득(那得) : 어찌 알 수 있으랴.
 ☆나(那) : 어찌 ~하랴!
 ☆득(得) : 알다.
 ② 영형아(寧馨兒) : 미남 또는 미녀를 뜻하는 말. 서진(西晉)의 왕연(王衍 : 256~311)은 안색이 맑고 아름다웠으며, 풍채도 단정했다. 그는 총각시절에 일찍이 저명한 학자이자 정치가인 산도(山濤 : 205~283)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를 본 산도가 한참동안 감탄을 하더니, 그가 떠날 때 그를 눈여겨보고 말하기를, “그 어떤 아낙네가 이러한 아이를 낳았단 말인가. 그러나 천하창생을 그르칠 자가 꼭 이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지는 못하겠다(何物老嫗, 生寧馨兒, 然誤天下蒼生者, 未必非此人也)”라고 말했다(『진서(晉書) 권(卷) 43·왕연전(王衍傳)』에 보임). 여기서 ‘영형아(寧馨兒)’라는 말이 나왔는데, 왕연이 너무나 잘생긴 미남이기 때문에 ‘영형아’는 미남(미녀)을 뜻하는 말로 사용했고, 아이를 칭찬하는 말로도 쓰였다.
 ☆왕연(王衍 : 256~311) : 서진(西晉) 낭야(琅琊) 임기(臨沂) 사람. 자는 이보(夷甫) 임왕용(王戎)의 종제(從弟)이다. 처음에 태자사인(太子舍人)이 되었다가 황문시랑(黃門侍郎)에 올랐다. 현언(玄言)을 즐겨 말했고, 노장(老莊)에 대해 논의하기를 좋아했으며, 여러 관직을 거쳤다. 의리(義理)가 일정하지 않아 상 황에 따라 잘 바뀌 사람들이 구중자황(口中雌黃)이라 불렀다. 조왕륜(趙王倫)

이 가후(賈后)를 살해하고, 그를 가후의 척당(戚黨)이라 하여 구금했다. 조왕
륜이 왕위를 찬탈할 때 거짓으로 미친 척하며 여중을 도끼로 쳐 목숨을 구했
다. 팔왕의 난[팔왕지란(八王之亂)] 때 여러 차례 현직(顯職)에 있었고, 상서령
(尚書令)과 사공(司空), 태위(太尉)까지 이르렀다. 경국(經國)에는 관심이 없었
고, 오로지 보신책에만 급급했다. 사마월(司馬越)이 태부군사(太傅軍司)로 삼
았다. 회제(懷帝) 영가(永嘉) 5년(311)에 사마월이 죽자 석륵(石勒)에게 사로잡
혔는데, 그에게 칭제(稱帝)할 것을 권하면서 목숨을 구걸하다가 살해되었다.

10) 분분과비자(紛紛夸毗子) : 굽실굽실 아첨하고 영합이나 잘 하는 자는 :

- ① 분분(紛紛) : 굽실굽실 : 본 시에서는 남의 비위를 맞추느라고 자꾸 비굴하게 행
동하는 모양의 뜻으로 쓰였음.
- ② 과비자(夸毗子) : 아첨하고 비굴하게 굴어서 남에게 영합하는 사람. 또는 그런
행동. 『시경(詩經)·대아(大雅)·판(板)』에, “하늘이 바야흐로 진노하고 계시니,
비굴하게 굴며 아첨하지 말라(天之方儻, 無爲夸毗).”라고 한 구절이 있다. 주희
(朱熹 : 1130~1200, 송나라 유학자)는 『시집전(詩集傳)』에서 말하기를, “과(夸)는
대(大 : 과장하다)의 뜻이고, 비(毗)는 부(附 : 빌붙다, 접근하다)의 뜻이다. 소인은
다른 사람에게, 큰소리치며 과장하지 아니하면, 아첨하는 말로써 빌붙으려한다
(小人之於人, 不以大言夸之, 則以諛毗之也).”고 하였다. 이때의 ‘자(子)’는 ‘사
람’의 뜻이다.

11) 무실(無實) :

- ① 실체(實體)없이.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음.
- ② 상실하지 못하게.
- ③ 식물에 열매가 없는 것을 가리킨다.

12) 왕왕천경피(王王千頃陂 : 넘실넘실 깊고도 넓은 저수지) :

이 시구는 『후한서(後漢書)·황헌전(黃憲傳)』에 나오는 말로, 숙도(叔度) 황헌(黃
憲 : 생몰년 미상)의 도량(度量)을 표현한 말이다. 기록을 보면, “숙도는 (도량이) 일
천경의 호수만큼이나 넓고 깊었으며, (인품은) 매우 밝으나 선명하게 잡히지 않았고,
매우 복합적이나 흐리지 않아서, 측량할 수 없었다(叔度王王若千頃陂, 澄之不清,
渳之不濁, 不可量也).”고 한다.

- ① 왕왕(王王) : 물이 깊고 넓은 모양.
- ② 천경(千頃) : 100묘(畝)를 1경(頃)이라고 한다. 묘는 논밭 넓이의 단위로 1묘는
30평, 약 99.174㎡에 해당한다. 천경은 지극히 광활함을 표현한 말이다.
- ③ 피(陂) :
☆저수지,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음.
☆제방.
☆‘과’로 읽으면, 산비탈의 뜻으로도 쓰이고, 치우치다(편과적偏頗의 이다)는 뜻으로
도 쓰인다.

13) 무론대량실(無論戴良失 : 어진 선비 대량戴良은 이 세상 떠났어도) :

- ① 무론(無論) :
☆~에도 불구하고(마론하고).
☆~에 관계없이.
- ② 대량(戴良 : 생몰년 미상) : 인명(人名). 동한(東漢) 여남군(汝南郡 : 지금의 하남성허

南省 상채현上蔡縣 서남부) 신양현(愼陽縣: 지금의 정양현正陽縣, 강물의 합류처) 사람. 자(字)는 숙란(叔鸞). 재능이 뛰어나고, 사물에 대한 좋고 나쁨이나 사람에 대한 시비(是非)를 두고 의견을 표현함에 있어서 기발한 것을 좋아했으며, 유유자적(悠悠自適)한 생활을 하며 벼슬을 하지 않았다. 당시 인재선발의 필수과정인 효렴(孝廉)에 추천 받았으나 관직에 나가지 않았다. 채자 사공부(司空府: 궁실宮室, 성읍城邑, 도로 등 토목공정을 담당한 관청)에서 추천하였으나 여전히 나가지 않았다. 그러자 주(州), 군(郡)에서 그를 압박하자, 그는 마침내 처자를 데리고 강하산(江夏山: 지금의 호남성湖南省 무창현武昌縣 동부에 위치함) 속으로 도피하였다. 앞의 주석2)의 ①, ‘숙도(叔度)’ 조항을 참조할 것.

14) 임종사(林宗師): 유림(儒林)의 종사(宗師).

15) 구원불가작(九原不可作: 고인故人을 다시 살려낼 수 없으니):

‘이미 죽은 사람은 재생할 수 없다’는 뜻임. ‘구원(九原)’이란, 말은 원래 춘추시대(春秋時代) 진(晉)나라 경대부(卿大夫)의 묘지였다. 또한 구원가작(九原可作)이란 말도 있다. 관련 내용은 『국어(國語)·진어(晉語) 8편(八篇)』에 보인다. 즉, “조문자가 숙향과 함께, 구원九原에서 유람하면서 말하기를: 죽은 사람이 만약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 나는 누구와 더불어 돌아갈 것 같은가(趙文子與叔向, 遊於九原曰: 死者若可作也, 吾誰與歸)?”라고 한 구절이 있다. 이 글에서 근거하여 후세에, ‘이미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상상하는 말’을 가리키는 뜻으로, ‘구원가작’이란 어휘가 생겼다. 따라서, ‘구원가작’의 부정형인 ‘구원불가작(九原不可作)’은 ‘이미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뜻을 지닌 말이 된다. 위 인용문 중의 조문자(趙文子)와 숙향(叔向)에 대한 이력은 아래와 같다.

① 조문자(趙文子: 조무趙武 즉, 조맹趙孟: ?~BC 541): 문자(文子)는 조무(趙武)의 자. 춘추시대 진(晉)나라 대부(大夫). 진(晉)나라 경공(景公)시대에 대부(大夫) 도안매(屠岸賈) 일족이 조씨를 멸족시켰다. 조문자(趙文子)의 어머니 장희(莊姬)는 경공(景公)의 누이동생이었으며, 조문자는 장희(莊姬)의 유복자(遺腹子)였기에 생존할 수 있었다. 진·평공(晉平公) 10년에 국정(國政)을 장악하였다.

② 숙향(叔向: 양설힐羊舌肸: 생졸년 미상): 성씨는 양설(羊舌), 이름은 힐(肸), 자는 숙향(叔向), 일명 숙힐(叔肸)이라고도 한다. 박학다식하며 능변가(能辯家)였다. 진평공(晉平公) 때, 태부(太傅)를 역임했고, 초(楚)나라에 사신으로 가서 초나라의 고의적인 모욕을 능하게 막았으며, 제(齊)나라에 가서는 예치(禮治)가 무너졌음을 질타하였다. 이상은 권1의 「시93」의 주석8)의 ②를 참조한 것임. 위 인용문 중의 조문자(趙文子)와 숙향(叔向)에 대한 이력은 권1의 「시93」의 주석8)의 ②를 참조 바람.

16) 말속(末俗):

① 말세(末世)의 습속(習俗), 곧 저속한 습속을 이른다.

② 세속지인(世俗之人). 일반 평범한 사람 또는 출가(出家)하지 아니한 사람을 가리키기도 한다.

시2. 여름날 시골에 머물면서 농 삼아 쓰다

詩2. 夏日村居戲作¹⁾
하 일 촌 거 희 작



人既不求²⁾我,
인 기 불 구 아

사람들은 이미 나를 찾지 아니하고,

我亦不求人。
아 역 불 구 인

나 또한 사람들을 찾지 않는다네.

出門無所適,
출 문 무 소 적

집밖을 나서면 갈 곳이 없고,

入門無與親。
입 문 무 여 친

집안에 들어와도 함께 할 벗이 없네.

十日掩柴衡,
십 일 엄 시 형

열흘간 사립문 빗장 걸고서,

端居養道眞³⁾。
단 거 양 도 진

단정히 앉아 도학道學의 실체를
배양하네.

時尋北窓臥,
시 심 북 창 와

이따금 북창 가에 가서 눕기도 하고,

或步南澗濱⁴⁾。
혹 보 남 간 빈

때로는 남쪽 물가를 거닐기도 하네.

風來竹有聲,
풍 래 죽 유 성

바람이 불어와 대숲이 서걱거리고,

月出江無塵。
월 출 강 무 진

달이 뜨면 강물에는 티끌 하나
안보이네.

逍遙更逍遙⁵⁾,
소 요 경 소 요

이리저리 거닐고 또 거닐어도,

此道無緇磷⁶⁾.
차 도 무 치 린

이 길이란 때 타서 검어지거나 닳아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네.

1) 희작(戲作) : 농 삼아(재미삼아) 시를 짓다.

2) 구(求) : 초대하다, 불러 모으다, 찾다.

3) 단거양도진(端居養道眞 : 단정히 앉아 도학道學의 실체를 배양하네) :

① 단거(端居) : 단정하게 앉아.

☆거(居) : 앉다[坐].

② 도진(道眞) : 도덕이나 학문의 참된 실체. 도의 실체.

4) 간빈(澗濱) : 산골짜기 물가.

5) 소요(逍遙) : 자유롭게 이리저리 슬슬 거닐며 돌아다님.

6) 치린(緇磷) : 때가 묻어 꺼멓게 되거나 닳아서 얇게 됨.

① 『논어(論語)·양화편(陽貨篇)』에, “단단하다고 말하지 않겠는가? 갈아도 닳아서 얇아지지 않는다(不曰堅乎? 磨而不磷). 희다고 말하지 않겠는가? 검은 물을 들여도 검어지지 않는다(不曰白乎? 涅而不緇).”고 하였다. 위(魏)나라 학자 하안(何晏 : 190~249)은 『논어집해(論語集解)』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서한(西漢)의 학자 공안국(孔安國 : 약 BC 156~BC 74)이 말하기를: ‘린(磷)은 얇아지는 것이요, ‘열(涅)’은 검게 물들일 수 있는 것이다(磷, 薄也, 涅, 可以染皁). 단단하다고 말하는 것은 갈아도 닳아서 얇아지지 않는 것이요(言至堅者, 磨之而不薄); 희다는 것은 검은 물로 물을 들여도 검어지지 않는 것이다(至白者, 染之於涅而不黑). (이 말은) 군자는 (정치와 사회가) 혼탁하고 문란해지더라도, 혼탁하고 문란한 것에 물들여지지 않음을 비유한 것이다(喻君子雖在濁亂, 濁亂不能汚).”고 하였다.

시3. 오월 열 하룻날 밤 풀벌레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여

詩3. 五月十一日夜始聞草蟲聲
오 월 십 일 일 야 시 문 초 충 성



夜窓人不寐,
야 창 인 불 메

깊은 밤 창가에서 사람은 잠 못
이루는데,

微月¹⁾照西林。
미 월 조 서 림

초승달은 서쪽 수림을 비추고 있네.

露草蟲聲起,
노 초 충 성 기

이슬 내린 풀숲에 벌레 소리 나는데,

江雲暑氣沈。
강 운 서 기 침

강변에 뜬 구름은 더운 기운 식혀주네.

幽居觀大化²⁾,
유 거 관 대 화

은거하면서 만물이 변하는 걸 보노라니,

垂老惜餘陰³⁾.
수 로 석 여 음

늙어서인지 남은 한기寒氣마저 아쉽구나.

欲學安心法⁴⁾,
욕 학 안 심 법

마음 다스리는 법을 배우려는데,

閒愁⁵⁾已復侵。
한 수 이 부 침

까닭 없는 근심이 벌써 다시 스며드네.

- 1) 미월(微月): 미월(眉月)과 같은 말로, 신월(新月)·각월(卻月)·세월(細月)·초월(初月)·현월(弦月) 등으로도 칭하며, 모두 ‘초승달’을 이르는 말임.
- 2) 유거관대화(幽居觀大化: 은거하면서 만물이 변하는 걸 보노라니):
 - ① 유거(幽居): 은거(隱居)하며 벼슬자리에 나아가지 아니함.
 - ② 대화(大化): 만물이 화육(化育: 천지자연이 만물을 만들어 자라게 함)하는 것을 이룸.
- 3) 수로석여음(垂老惜餘陰: 늙어서인지 남은 한기寒氣마저 아쉽구나):
 - ① 수로(垂老): 노년(老年)에 이르다. 늙어가다. 당(唐)나라 시인 두보(杜甫: 712~770)는 그의 시 「수로별(垂老別)」에서 “낙양(洛陽)의 사방교외가 아직 평정되지 않아서, 늙음에 이른 나이에든 편안하질 못하네(四郊未寧靜, 垂老不得安).”라고 읊었다.
 - ② 여음(餘陰):
 - ☆큰 나무나 기타 물체에 의해서 햇빛이 가려진 그늘.
 - ☆잔존(殘存)한 음기(陰氣), 즉 한기(寒氣).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음.
- 4) 안심법(安心法):
 - ① 『중용장구서(中庸章句序)』에서, 자사(子思: BC492~BC431)가 도통(道統)이 실전될 것을 우려하여, 『서경(書經)·대우모(大禹謨)』의 16자법(字法)을 근거로, 요(堯) 임금이 순(舜) 임금에게 전수해주었다는 “진실로 그 중정(中正)의 도(道)를 잡으라(允執厥中)”는 말씀과, 순임금이 여기에 새로운 세 마디, 즉 “인심은 위태롭고 도심은 은미(隱微)하기 때문에, 오로지 (인심과 도심)을 세심하게 분별하고, 오직 도심만을 한결같이 간직해야 한다(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는 말을 덧붙여서, 우(禹)임금에게 총16자(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의 심법(心法)을 전해주었다. 주희는 이 심법을 근간으로 “마음은 몸의 주체다(心者, 身之主也)”라고 했고 또한 “마음은 성(性)과 정(情)을 통솔한다(心統性情).”라는 심성론의 요체를 제시하여, 거경궁리(居敬窮理)로써 마음을 닦을 것을 주장하였다.(류명희·안유호 역 『국역 류성룡시 1』의 「시 49」의 주석6) 참조)
 - ② 근심 걱정 없이 마음을 놓음.
 - ③ 사건(邪見)과 불안을 떠나 불(佛)의 정법(正法)에 안주(安住)하는 마음 상태를 이른다. (불교에서도 이 용어가 보임)
- 5) 한수(閑愁): ‘한수(閑愁)’로도 쓴다. ‘아무런 까닭도 의미도 없이 이는 근심’을 가리킨다.

시4. 후서탄

詩4. 酷暑歎¹⁾
후 서 탄



大地困炎溽²⁾,
대 지 곤 염 욱

대지가 후덥지근 무더위에 시달려서,

斗室如甑炊³⁾.
두 실 여 증 취

협소한 방안은 시루 안에 찌는 듯하네.

積雨⁴⁾更助鬱,
적 우 경 조 울

게다가 장맛비 오래 계속되니,

堂上生菌芝⁵⁾.
당 상 생 균 지

마룻바닥에 영지버섯마저 돋겠네.

蚊蠅不可驅⁶⁾,
문 송 불 가 구

모기와 파리 떼는 암만해도 쫓아낼 수
없으니,

此物方得時⁷⁾.
차 물 방 득 시

이것들이 바야흐로 제철을 만났구나.

一窓⁸⁾臥復起,
일 창 와 부 기

즐곧 창가에서 누웠다 앉았다하니,

體倦神亦疲。
체 권 신 역 피

몸은 나른해지고 정신마저 지쳐가네.

清風颯然⁹⁾至,
청 풍 삽 연 지

한줄기 맑은 바람 쇄쇄 불어와서,

冷冷¹⁰⁾疎竹枝。
냉 령 소 죽 지

땃가지 사이로 시원시원 지나가네.

借問來何自¹¹⁾，
차 문 래 하 자

문노니 이 맑은 바람 어디서 왔는고?

如與故人¹²⁾期。
여 여 고 인 기

마치 옛 친구와 만난 듯하네.

一吹羣慍解¹³⁾，
일 취 군 은 해

한 번 불어오니 온갖 분노 사그라지고,

再吹百物¹⁴⁾滋。
재 취 백 물 자

다시 불어오니 모든 생물이 생장하네.

我願清風吹遍萬萬¹⁵⁾里，
아 원 청 풍 취 편 만 만 리

원컨대 이 맑은 바람 멀리멀리
불어가서,

坐使民物具康夷¹⁶⁾，
좌 사 민 물 구 강 이

백성이며 뭇 생물 모두 편안하게 하고,

更無酷炎燔坤維¹⁷⁾。
경 무 혹 열 번 곤 유

다시는 대지를 태우는 듯한 폭염이
없기 바란다네.

1) 흑서탄(酷暑歎) :

① 흑서(酷暑) : 몹시 심한 더위. 맹서(猛暑), 열서(烈暑), 혹열(酷熱), 염서(炎署), 융서(隆暑), 엄서(嚴暑) 등과 같은 말임.

② 탄(歎) : 악부시체(樂府詩體)의 편명(篇名)임. 느낀 바를 말로 표현하는데, 감탄 또는 탄식하는 내용으로 읊는 것을 탄(歎)이라고 함. ‘악부(樂府)’란 말은 한무제(漢武帝)가 설치한 음악관서의 명칭에서 시작된 것으로, 당초에는 이 악부에서 각 지방의 민가를 채집하였고, 또한 작곡도 하여 조정의 행사 때 노래로 부르게 하였다. 이때에 불리어진 노래의 곡조는 알 길이 없으나, 가사(歌辭)가 전해지면 서 악부라는 관서명칭이 시체(詩體)의 명칭으로 불리어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후 세 사람들은 이를 악부시(樂府詩)라고 칭한다. 악부시의 내용은 주로 인생의 애환과 풍속 등을 사실에 의거하여 읊었다. 악부시는 5언, 혹은 7언 및 기타 잡언(雜言)으로 이루어진 장단구(長短句)의 형식이나, 한 대(漢代) 후기로 오면 5언 구 중심으로 형식화 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 악부시에는 편명(篇名)이 적지 않다. 이를테면, 위의 ‘탄(歎)’ 외에도, 가(歌) · 요(謠) · 음(吟) · 곡(曲) · 행(行) 등이 있다. 주로 서사적(敘事的)인 장편의 시로 가창(歌唱)이 되는 것은 ‘가(歌)’라 하고, 겉다가 달라듯이 생기면서도 막히지 않

는 노래는 ‘행(行)’이라고 하며, 또한 가(歌)와 행(行)을 합친 것은 ‘가행(歌行)’이라고 한다. 그리고 고저장단을 따라 미세한 마음의 정을 노래한 것은 ‘곡(曲)’이라 하고, 아! 하고 탄식하고 슬픔과 걱정으로 깊이 생각하여 얻힌 것을 노래하는 것은 ‘음(吟)’이라 한다. 또 악기의 반주가 없이 노래만 하는 민가(民歌) 등은 도가(徒歌)로서, 이를 보통 ‘요(謠)’라고 한다.

2) 곤염옥(困炎燭):

- ① 곤(困): 고생하다 · 시달리다 · 곤경한 처지에 빠지다 · 지치다 · 피곤하다.
- ② 염옥(炎燭): 무덥고 습도가 높다(덥덥<후더분>하다, 눅눅<촉촉>하다). 옥열조습(郁熱潮濕)하다. 남조(南朝: 동진東晉의 멸망 후, 420~589년까지 화남華南에 한족이 세운 송宋·제齊·양梁·진陳 등 네 나라를 통틀어 이르는 말)의 양(梁)나라 문인 유효위(劉孝威: 496-549)는 그의 시 「고서(苦暑)」에서, “해 저물고도 찌는 듯한 무더위에 시달리다가, 섬돌과 행랑으로 자리를 옮겨 앉았네(暮日苦炎燭, 遷坐階廊).”라고 읊었다.

3) 두실여견취(斗室如甑炊): 협소한 방안은 시루 안에 찌는 듯하네):

- ① 두실(斗室): 말(斗)만한 방, 아주 협소한 방을 이르는 말임.
- ② 증취(甑炊): 시루에 찜. 대단히 더움을 이르는 말.

4) 적우(積雨): 오랫동안 계속해서 오는 비.

5) 균지(菌芝): 즉 영지(靈芝). 『열자(列子)·탕문편(湯問篇)』에, “씩은 흙 위에 생기는 균지菌芝란 것은, 아침에 돋아다가, 저녁에 죽는다(朽壤之上有菌芝, 生於朝, 死於晦).”고 하였다. 또한 서진(西晉)의 문인 장화(張華: 232-300)는 그의 시인 「먹을 거리를 싸들고 나가서 먹으며 성문 밖에서 즐기며 지은 시(食舉東西廂樂詩)의 제5수에서 “말라가던 굼벵이가 뚱뚱해지고, 고갈된 우물에 샘물이 넘쳐흐르네(枯蠹榮, 竭泉流). 영지버섯이 번성하고, 탱자나무 가시가 부드러워졌네(菌芝茂, 枳棘柔).”라고 읊었다.

6) 문승불가구(蚊蠅不可驅: 모기와 파리 떼는 암만해도 쫓아낼 수 없으니):

- ① 문승(蚊蠅): 모기와 파리.
- ② 구(驅): 쫓다, 몰아내다.

7) 득시(得時): 때를 만나다, 기회를 얻다, 호기를 만나다.

8) 일창(一窓): 줄곧 창가에서. 일(一)은 ‘줄곧, 시종(始終)’의 뜻임.

9) 삽연(颯然): ‘飒飒’, ‘작작’ 등 비바람 소리를 형용하는 말.

10) 냉냉(冷冷): 서늘하다. 청량(淸涼)하다. 시원하다.

11) 차문래하자(借問來何自: 묻노니 이 맑은 바람 어디서 왔는가?):

① 차문(借問):

☆문다. 문의하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음.

☆한시(漢詩)에 자주 보이는 가설성(假設性) 의문어. 일반적으로 상구의 상구(上句: 즉 출구出句)에 쓰이며, 하구(下句: 즉 대구對句)에서는 작자의 자답(自答)이 온다. 예: 동진(東晉) 도잠(陶潛)의 「사촌동생 중덕의 죽음을 슬퍼하며(悲從弟仲德)」 시(詩)에서, “문노니 누구 때문에 슬퍼하는가? 그리운 사람은 이미 저승에 있구나(借問爲誰悲? 懷人在九冥).”라고 읊었다.

☆타인에게 상황을 탐문할 때 쓰는 경어(敬語)로서,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는 뜻임.

☆참견하다 · 간섭하다 · 따져 묻다.

- ② 내자(來自) : (~에서) 오다. (~에서부터) 나오다(생겨나다). 본 시에서의 “래하자(來何自)”는 ‘하(何)’자(字)가 의문대사여서 후치사인 ‘자(自)’ 자(字) 앞으로 위치하였음.
- 12) 고인(故人) : 옛 친구, 오랜 벗(老友).
- 13) 온해(慍解) : 노여움이 사그라지다. 온(慍)은 ‘노(怒 : 노여움)’의 뜻임.
- 14) 백물(百物) : 온갖 생물. 백(百)은 비유하는 말로 쓰여, ‘수가 많은 온갖’의 뜻임.
- 15) 만만(萬萬) : 수(數)나 숫자 · 수량 · 금액 등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거나 많음. 거리가 한없이 먼 것을 표현하는 말로도 쓰임.
- 16) 좌사민물구강이(坐使民物具康夷 : 백성이며 못 생물 모두 편안하게 하고) :
- ① 좌(坐) : 부사로 쓰여, ‘점차, 장차’의 뜻임.
- ② 강이(康夷) : 편안하고 무사함. 안온(安穩)함. 강(康)은 편안하다, 이(夷)는 평온 무사의 뜻임.
- 17) 곤유(坤維) : 아래의 두 가지 뜻이 있다.
- ① 대지(大地) 또는 대지(大地)의 중앙을 가리킨다. 『수서(隋書) · 예의지(禮儀志) 일(一)』에서 이르기를, “사방의 제왕들이 각자 그들 방향의 영토를 근거로 삼았는데(四方帝王各依其方), 황제(黃帝)는 중앙에 웅거(雄居)하였다(黃帝居坤維)”고 한 것이 그 예이다. 본 시에서는 ‘대지(大地)’의 뜻으로 쓰였다.
- ② 서남방(西南方)을 가리킨다. 이때의 곤(坤)은 곤방(坤方 : 서남방)의 뜻이고, 유(維)는 각락(角落 : 모서리, 구석)의 뜻임.

시5. 대우행 大雨行 칠석날 저녁에

詩5. 大雨行¹⁾七夕
대 우 행 칠 석



大風從西來，
대 풍 종 서 래

거센 바람 서쪽에서 휘몰아쳐오는데,

勢欲掀坤軸²⁾。
세 욕 혼 곤 축

그 기세 지축을 흔드는 듯하구나.

黑雲挾³⁾日飛，
흑 운 협 일 비

먹구름 해를 힘싼 채 날아가니

四合如潑墨⁴⁾。
사 합 여 발 묵

사방이 온통 먹칠한 것 같으네.

天容忽慘慘⁵⁾，
천 용 홀 참 답

하늘빛 홀연히 어두컴컴해지더니,

物象互明滅⁶⁾。
물 상 호 명 멸

만물의 형상이 드러났다 사라졌다 하네.

深林鳥驚呼，
심 립 조 경 호

숲속 새들이 놀라서 울며 지저귀고,

廣野獸奔突。
광 야 수 분 돌

광야의 짐승들도 분주히 내달리네.

雷霆振光怪⁷⁾，
뢰 정 진 광 괴

우렛소리 요란하고 번갯불이
번쩍이는데,

雨脚隨飄拂⁸⁾。
우 각 수 표 불

빗줄기 바람 따라 거세게 흩어지네.

長空杳冥冥⁹⁾，
장 공 묘 명 명

하늘이 아득하게 침침해지더니，

百萬橫銀竹¹⁰⁾。
백 만 횡 은 죽

엄청난 소낙비가 맹렬히 퍼붓네.

如彼昆陽下¹¹⁾，
여 피 곤 양 하

(신新나라) 곤양昆陽에서의 결전決戰때도
저와 같이 폭우가 내려，

漢兵走尋邑¹²⁾。
한 병 주 심 읍

한병漢兵은 왕심王尋·왕읍王邑 병사들을
퇴각시켰다네.

虎豹亦股戰¹³⁾，
호 표 역 고 전

(왕망군王莽軍이) 범이며 표범까지
동원하여 (한병漢兵을) 진을케 했으나，

鯨鯢皆蕩析¹⁴⁾。
경 예 개 탕 석

(한병漢兵은) 고래 같은 왕망군을 모두
괴멸시켰다네.

妖祥¹⁵⁾不可問，
요 상 불 가 문

(전투에서) 길흉은 묻지 말아야 할지니，

壯觀¹⁶⁾已無敵。
장 관 이 무 적

그 웅대한 광경은 이미 겨룰만한
적수가 없었다네.

人言九天¹⁷⁾上，
인 언 구 천 상

사람들은 하늘 이야기를 하면서，

牛女¹⁸⁾惜離別。
우 녀 석 이 별

전우와 직녀가 이별한 걸 애석해 하네.

臨河數行收不得¹⁹⁾，
임 하 수 행 수 부 득

은하 강변에서 흘린 몇 줄기 눈물
거둬들일 수 없었을 뿐인데，

人間便遭懷襄厄²⁰⁾。
인 간 편 조 회 양 액

인간세상에선 그게 곧바로 대홍수의
재난이 됐다하네.

或言李衛公²¹⁾,
혹 언 이 위 공

어떤 이는 말하기를 이위공李衛公이

龍馬²²⁾飛騰多一滴。
용 마 비 등 다 일 적

용마라고 비상하다 물 한 방울 더
떨어뜨렸다네.

天瓢²³⁾旣入手,
천 표 기 입 수

천신天神의 호리병을 손에 넣은 바에야,

快意酬恩誰復惜²⁴⁾。
쾌 의 수 은 수 복 석

기꺼이 보은報恩하지 누구인들 인색하랴!

二言皆恍惚²⁵⁾,
이 언 개 황 홀

이 두 가지 설화說話 너무나 기묘하여,

吾難辨虛實。
오 난 변 허 실

나는 실로 그 허실을 분간하지
못하겠네.

獨憂茅茨捲三重²⁶⁾,
독 우 모 자 권 삼 중

이엉을 세 겹이나 덮어서 설마 했는데,

屋漏牀牀²⁷⁾無處宿。
옥 루 상 상 무 처 숙

지붕이 새서 방방이 잘 자리가 없네.

1) 대우행(大雨行): 여러 날에 걸쳐 많이 쏟아지는 비를 읊은 노래.

① 대우(大雨): 상당한 기간에 걸쳐 많이 쏟아지는 비.

② 행(行): 악부시체(樂府詩體)의 편명(篇名)의 하나임. 겹다가 달리듯이 성기면서
도 막히지 않는 노래를 행(行)이라고 함. 자세한 것은 「시4」의 주석1)의 ②, ‘탄
(歎)’ 조항을 참조 바람.

2) 혼곤축(掀坤軸):

① 혼(掀): 뒤흔들다.

② 곤축(坤軸): (옛 사람들이 상상하던) 지축(地軸). 곤(坤)은 건(乾)의 상반된 개념으
로 ‘대지(大地)’의 뜻임.

☆고대 중국인들의 지축에 대한 생각은 진(晉)나라 장화(張華)의 저서 『박물지
(博物志)·지편(地篇)』에 잘 나타나 있다. “곤륜산 북쪽 땅에서 3천6백리를
돌아내려 가면, 8곳의 깊고 어두운 곳에 지신(地神)이 다스리는 저승이 있는
데, 사망이 20만 리나 된다(崑崙山北地轉下三千六百里, 有八玄幽都, 方二十
萬里). 지하에는 네 개의 큰 기둥이 있는데, 네 기둥은 폭이 10만 리나 되며,
바닥에는 3,600개의 축이 있는데, 개의 이빨처럼 돌아나서 천정을 떠받치고
있다(地下有四柱, 四柱廣十萬里, 地有三千六百軸, 犬牙相舉).”고 하였다.

☆지축: 지구의 자전축. 북극과 남극을 연결하는 축으로, 공전 궤도면에 대하여, 66.5도 가량 기울어져 있음.

- 3) 협(挾): 거드랑이에 끼다. 전(轉)하여, 휴대하다. 본 시에서는 전(轉)하여 ‘휩싸서 덮다’는 뜻으로 쓰였음.
- 4) 사합여발묵(四合如潑墨: 사방이 온통 먹칠한 것 같으네):
 - ① 사합(四合): 사방(주위)을 둘러싸다.
 - ② 발묵(潑墨): 산수화법(山水畵法)의 하나. 붓글씨나 그림에서 진한 먹의 덩어리를 화면(畵面)에 떨어뜨려 거기에서 그 먹으로 그려 나가거나, 붓을 화면에 순서(順序) 없이 두들겨서 그려 가는 수법(手法). 임리(淋漓)한 묵흔(墨痕)에 의(依)하여 운연(雲煙)의 경치(景致)를 나타낸다.
- 5) 천용홀참담(天容忽慘慄: 하늘빛 홀연히 어두컴컴해지더니):
 - ① 천용(天容): 하늘의 빛(색, 경치).
☆용(容): 사물의 형상이나 기상(氣象)을 가리킨다.
 - ② 참담(慘慄): ‘참담(慘愴)’으로도 쓴다. 암담하다(어두컴컴하고 쓸쓸하다).
- 6) 물상호명멸(物象互明滅: 만물의 형상이 드러났다 사라졌다 하네):
 - ① 물상(物象): 만물의 형상. 사물의 현상. 자연계 사물의 형태.
 - ② 명멸(明滅):
☆또렷(선명)하다가 흐릿(침침)해지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홀연히 나타났다 사라졌다함.
☆홀연히 밝아졌다 어두워졌다함을 이른다.
- 7) 뇌징진광괴(雷霆振光怪: 우렛소리 요란하고 번갯불이 번쩍이는데):
 - ① 뇌징(雷霆): 격렬한 천둥. 우렛소리.
 - ② 광괴(光怪): 괴이한 빛, 섬광(閃光). 번갯불이 번쩍이는 것을 가리킨다.
- 8) 우각수표불(雨脚隨飄拂: 빗줄기 바람 따라 거세게 흩어지네):
 - ① 우각(雨脚): 빗발, 빗줄기.
 - ② 수표불(隨飄拂): 바람줄기 따라 거세게 흩어지네. 표(飄)는 질풍, 거센 바람. 불(拂)은 먼지 따위를 떨다. 떨치다. 추켜 올리다는 뜻임.
- 9) 장공묘명명(長空杳冥冥: 하늘이 아득하게 침침해지더니):
 - ① 장공(長空): ‘하늘’을 가리킨다. 하늘이 광활하고 무한하여 붙여진 이름.
 - ② 명명(冥冥): 어두운 모양.
- 10) 백만횡은죽(百萬橫銀竹: 엄청난 소낙비가 맹렬히 퍼붓네):
 - ① 백만(百萬): 숫자(수량, 금액) 등이 극히 많음을 형용한 말. 백(百)은 대략적인 수로서 ‘많다’는 뜻을 나타낸다.
 - ② 횡(橫): 충만하다, 광활하다, 교착(交錯) 뒤섞여 엇갈림하다. 돌연히, 의외로 맹렬하게.
 - ③ 은죽(銀竹): 은백색의 대나무. 소나기에 비유하는 말로 자주 쓴다.
- 11) 여피곤양하(如彼昆陽下: (서한西漢 말엽에 왕망(王莽: BC 45~AD 23)이 건립한 신(新)나라의) 곤양昆陽 결전決戰 때도 저와 같이 폭우가 내려):
본 시구 이하 4구는 임진왜란 이후, 다시 이어진 정유재란(丁酉再亂)의 전략적 요충지였던 경상우도(慶尙右道: 지금의 경상도 서부지역) 곤양읍성(昆陽邑城)에 주둔해 있던 왜군의 진지를 탈환하고 조선군이 올린 개가(凱歌)를 가지고, 광무제(光武帝)

유수(劉秀)가 왕망(王莽 : BC 45~AD 23)과의 일전에서 개가(凱歌)를 올린 ‘곤양대첩(昆陽大捷)’의 묘사를 통해, 비유적으로 그 의의를 함축시키고 있다.

① 곤양(昆陽): 동한(東漢) 광무제(光武帝) 유수(劉秀)가 왕망(王莽)의 신(新)을 무너뜨리고 동한을 건국하는 계기가 된 ‘곤양(昆陽)의 결전(決戰)’을 가리킨다.

☆광무제(光武帝) 유수(劉秀 : BC 6~AD 57): 후한(後漢)의 초대황제(재위 AD 25~57)로, 자는 문숙(文叔), 묘호는 세조(世祖)이며, 시호는 광무(光武)이다. 전한(前漢)의 고조(高祖) 유방(劉邦)의 9세손이며, 본명은 유수(劉秀)이다.

그는 왕망 이래의 유적(流賊)인 적미군(赤眉軍)을 진압하는 등, 각지에 활거하던 세력을 평정하여 AD 36년에 전국을 통일하였다. 또한 노비를 해방시키고 죄인을 석방하여 양민이 되게 하였으며, 조세 및 부역의 부담을 덜어주고, 수리사업도 활발히 진행하였다. 관리의 수를 줄이고 중앙의 상서(尙書)의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도위(都尉)를 폐지하여 지방의 군대를 장악하는 등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하였다. 또한 학문을 장려하고, 유교를 강조함으로써 예교주의(禮敎主義)의 꽃을 피웠다.

☆곤양 결전(昆陽決戰): 유수는 남양군(南陽郡) 채양현(蔡陽縣), 지금의 호북성(湖北省) 조양시(棗陽市) 서부 출신이다. 왕망의 신(新)나라 말기에 농민대봉기가 폭발하자 그는 이 기회를 틈타 형 유인(劉縯 : BC 16~23)과 함께 거병하여 녹림군(綠林軍)에 가담하였다. 서기 23년 녹림군이 곤양(昆陽)을 점령한 후, 왕망은 40만 대군(100만 대군이라 불렀음)을 파견하여 8~9천의 녹림군이 점령하고 있던 곤양을 포위 공격하였다.

이에, 유수는 원병이 올 때까지 사수할 것을 건의하고, 자진해서 12기의 기병을 거느리고 밤을 틈타 남쪽 성문으로 돌진하여, 포위망을 뚫고 나가 원군을 소집하였다. 그는 또 직접 3천명의 정예 병사를 거느리고 돌아와 적진을 향해 공격을 개시하였다. 적진의 허리로 돌진하여 왕읍(王邑 : ?~23)의 주력부대를 대파(大破)하고, 적장 왕尋(王尋 : ?~23)을 죽였다. 이때를 틈타 곤양성안에 있던 녹림군이 성문을 열고 뛰어나와 안팎에서 협공을 가하여 왕망의 관군을 일거에 소탕하였다. 이때, 돌연히 대풍(大風 : 강풍強風)이 불고 폭우가 쏟아져, 치수(洩水 : 하남성 노산현魯山縣에서 발원하여 동남으로 흐르는 여수汝水의 지류. 지금의 사하沙河입)가 갑자기 불어나 왕망의 군대가 일만 여명이나 치수를 건너다가 빠져죽게 되자, 치수가 이로 인해, 흐르던 물길이 막혔다고 한다. 유수(劉秀)가 이렇게 적은 병력으로 많은 적군을 물리친 이 전투를 중국 역사에서는 ‘곤양대첩(昆陽大捷)’이라 칭하고 있다. 이 대첩은 왕망 정권을 분쇄하는 결정적인 일전이 되었다. 이로 인해 유수는 자신의 명성을 천하에 크게 떨쳐, 후한(後漢)을 건국하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12) 한병주심읍(漢兵走尋邑 : 한병漢兵은 (신新나라 장수) 왕심王尋 · 왕읍王邑 병사들을 퇴각시켰다네) : 서예(西厓)는 본 시구에서, 후한의 개국황제인 유수(劉秀)의 곤양성(昆陽城) 대첩(大捷)을 정유재란(丁酉再亂) 당시, 명(明)나라 장수 동일원(董一元 : 생몰년 미상)이 이끄는 조 · 명(朝明) 연합군이 왜군이 주둔했던 경상도의 곤양읍성(昆陽邑城)을 탈환했던 것에 비유한 것으로 보인다.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壬辰倭亂)이 발발하여, 왜군이 동래(東萊)에 상륙한지 20일 만에 서울을 함락하고 1개월 만에 함경도까지 진격하여 한반도는 왜군의 수중

에 떨어졌다. 하지만 의분에 찬 의병 및 관군의 활약으로 왜군이 김해, 고성, 창원 등 경상도 남부지역에서 연패하게 되자, 그들은 경상우도(慶尙右道)의 조선군 주력 부대가 진주성(晉州城)에 주둔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전세를 만회하고자 진주성 합락계획을 세웠다. 그리하여 제1차 진주성 전투가 10월 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 계속되었다. 한편 진주성에는 김시민(金時敏: 1554~1592) 목사(牧使)의 본성 군사 3,700명과 곤양군수 이광악(李光岳: 1557~1608)의 군사 100명 등 도합 3,800명의 군사가 있었는데 이들 대부분은 정병이라기보다는 새로 모집한 장정들이었다. 그러나 김시민 장군은 진주성민들의 필사적인 단결과 광재우(郭再祐: 1552~1617)·최강(崔綱: 생몰년 미상)·이달(李達: 1561~1618) 등 각처 의병들의 열렬한 성원에 고무되어 죽기를 각오하고 진주성을 사수키로 결심한 후 화살하나 탄환 한발이라도 낭비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등 만반의 전투 준비를 갖추었다. 이런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 진주성에 3만 여명에 달하는 왜의 대군이 진주성을 포위하여 성을 공격하였지만 김시민 장군 및 이광악 곤양군수는 불과 3,800명의 병력으로 7일 간에 걸친 치열한 공방전 끝에 적을 격퇴하는 전공을 세웠다. 이 진주성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호남의 곡창지대를 지킬 수 있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1536~1598)는 호남곡창지대를 점령하여 군량미 제공의 교두보를 확보하여 장기전으로 한반도를 점령하고 나아가 명나라를 침공하려 하였던 계획을 가졌는데, 이런 도요토미의 계획이 진주성싸움에서 원천적으로 좌절되게 되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우리나라가 반대한 명·일간의 협상이 결렬되자 곧바로 정유년(丁酉年: 1597)에 채침공을 하였는데 정유재란의 첫 공략지는 진주성이었다. 특히 곤양은 해안의 전략지역임과 동시에 영남에서 호남으로 향하는 길목이었기에 임진왜란 당시 더욱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였다. 따라서 진주성 싸움에 곤양군수 및 곤양지역의 사람들이 초미의 관심을 갖고 대응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다른 지역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진주성 싸움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었다.

선조실록에 실린 곤양읍성 기록에, “서기 1597년 8월 5일 왜군의 좌군은 곤양(昆陽)을 거쳐 하동(河東)으로 진출하였다. 서기 1598년 9월 중로제독(中路提督) 동일원(董一元)이 이끄는 조명(朝明) 연합군이 왜군격퇴를 위하여 진주로 들어왔다. 왜군 10,000여 명은 시마즈[島津]의 지휘아래 곤양읍성(昆陽邑城)과 고성읍성(固城邑城)을 양 날개로 삼아 진주(晉州) 남강(南江)에서 최전선을 형성하고 있었다. 후방으로는 망진(望晉), 영춘(永春), 사천(泗川) 성채(城砦)를 통양창포(通洋倉浦) 신寨(新寨)의 전진방어기지로 삼고 있었다. 동일원군(董一元軍)이 이끄는 조·명연합군(朝明聯合軍)은 9월 20일 야간기습전투로 왜군을 공격하였고 왜군은 곤양과 사천 쪽으로 도망을 갔다. 22일에는 곤양성(昆陽城)을 탈환하였다.”라는 내용이 보인다.

- ① 한병(漢兵): 당시 왕망(王莽)의 실정(失政)에 항거했던 농민봉기군인 녹림군(綠林軍)을 가리킨다.
- ② 주심읍(走尋邑): 한병(漢兵)이 곤양성(昆陽城) 결전(決戰)에서 유수(劉秀)의 기습공격을 받아 왕심(王尋)과 왕읍(王邑)의 병졸들이 치수(泄水)를 건너 도망가려는데 갑자기 몰아닥친 강풍과 폭우로 인해, 치수(泄水)에 수장(水葬)된 상황을 표현한 것임.

☆주(走): 본 시에서는 ‘퇴각시키다’는 뜻으로 쓰였으며, 중국 역사상의 실재는

‘수물시키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을 칭한다.

a. 도망치다. 달아나다. 물러나다, 떠나다.

☆심·읍(尋邑): 왕망(王莽) 정부에서 대사도(大司徒)를 지낸 왕심(王尋)과 대사공(大司空)을 지낸 왕읍(王邑)을 칭함. 왕망은 유수(劉秀)의 봉기를 저지하려고, 이 두 인물을 기용하여, 40만 대군으로 곤양성(昆陽城: 지금의 하남성河南省 엽현葉縣)을 포위 공격하였음. 그는 이때 40만 대군을 100만 대군이라 소문을 내고, 맹수까지 동원하여 그의 세를 과시하였음.

13) 호표역고전(虎豹亦股戰): (왕망군王莽軍이) 범이며 표범까지 동원하여 한병漢兵을 전율케 했으나):

① 호표(虎豹): 범과 표범.

② 고전(股戰): 고을(股慄)과 같은 말임. 고(股)는 넓적다리(대퇴부大腿部), 전(戰)은 전동(顛動: 떨다)의 뜻으로, ‘(놀라움·충격·공포 등으로 인하여) 다리가 후들거리다’는 뜻임. 본 시에서는 왕망군(王莽軍)이 한군(漢軍)을 전율케 한 것을 과장법으로 표현한 것이다.

14) 경예개탕석(鯨鯢皆蕩析): (한병漢兵은) 고래 같은 왕망군을 모두 괴멸시켰네):

① 경예(鯨鯢):

☆‘고래’의 통칭. 수컷을 경(鯨)이라 하고 암컷을 예(鯢)라고 함.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음.

☆흉악한 적(또는 그 수괴)을 비유하여 쓰는 말. 『좌전(左傳)·선공 12년(宣公十二年)』조에, “옛적에 명철한 임금의 불경스러운 무리를 정벌하여, 흉적 수괴의 목을 취한 다음 큰 무덤을 만들고는, 대량 살육을 행했다(古者, 明王伐不敬, 取其鯨鯢而封之, 以爲大戮).”고 한 대목이 있다.

진(晉)나라의 무장(武將) 두예(杜預: 222~284)는 그의 저서 『춘추좌씨전집해(春秋左氏傳集解)』에서 이 구절에 주(注)를 달아 말하기를, “경예鯨鯢란 말은 큰 물고기 이름인데, 의롭지 못한 사람이 작은 나라를 병합해버린 것을 비유해서 쓴 것이다(鯨鯢大魚名, 以喻不義之人吞食小國).”고 하였다.

② 탕석(蕩析): 진(轉)하여 소멸된다는 뜻으로도 쓴다. 본 시에서는 격퇴하다. 괴멸하다의 뜻으로 쓰였다.

15) 요상(妖祥):

① 흉조와 길조.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음.

② 분명히 드러난 자연재해(천재지변)의 흉조를 가리킨다. 『예기(禮記)·악기(樂記)』에, “역병과 열병도 앓지 않았고(疾疢不作), 천재지변의 흉조도 없었다(而無妖祥)”고 하였다.

16) 장관(壯觀): 웅대한 광경(경치, 현상, 모습).

17) 구천(九天): 하늘의 중앙과 팔방(八方: 四正, 四隅을 이룸)을 이룸. 곧 ‘하늘’이란 뜻으로, 지극히 높은 것을 형용함.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음. 고대인은 ‘하늘’이 구중(九重: 구층)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여 ‘구천(九天)’을 ‘구중천(九重天)’이라 불렀으며, 구소(九霄)로도 쓴다.

『초사(楚辭)·이소(離騷)』에, “저 하늘을 가리켜 나를 증명해달라고 청하리니(指九天以爲正兮), 모든 것은 오로지 군왕을 위했기 때문이었네(夫唯靈脩之故也)”라고 하였다. 동한(東漢)의 학자 왕일(王逸)이 그의 『초사장구(楚辭章句)』에서 주(注)를

달기름, “구천九天은 하늘의 중앙과 8방을 이룬다(九天爲中央八方也)”고 하였다.

- 18) 우녀(牛女) : 견우직녀의 설화(牽牛織女說話) : 중국·한국 및 일본에 전해지는 설화로서, 칠월칠석(음력 7월 7일)에 견우와 직녀가 1년에 한 번 만나게 된다는 설화이다. 옛날에 목동인 견우성(牽牛星)과 옥황상제(玉皇上帝)의 손녀인 직녀성(織女星)이 혼인을 했는데, 두 별이 너무나 심히 사랑을 속삭이다가 자신들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옥황상제의 노여움을 사서 1년에 한 번만 칠석 전날 밤에 은하수(銀河水)를 건너 만나게 하였다. 그런데 은하수가 그들을 가로 막아 만날 수가 없게 되자 수많은 까마귀와 까치가 날개를 펴서(‘머리를 맞대어서’라고도 함) 다리를 놓아주어 이들 두 별이 건너도록 해주었는데, 이 다리를 오작교(烏鵲橋)라고 한다. 이날 오는 칠석우(七夕雨 : ‘칠석물’이라고도 씀)는 견우와 직녀가 상봉하여 기뻐서 흘리는 눈물이라고 한다. 칠석 때의 초저녁에는 더위도 약간 줄어들고 장마도 대개 거친 시기이다(일설의 전설에 의하면, 칠석 이전의 장마는 견우 직녀가 보고 싶어도 만날 수 없어 슬픔에 젖어 흘리는 눈물이라고도 함).

- 19) 임하수행수부득(臨河數行收不得) : 은하 강변에서 흘린 몇 줄기 눈물 거둬들일 수 없었을 뿐인데) :

- ① 임하(臨河) : 은하강변에 이른다.
- ② 수행수부득(數行收不得) : 몇 줄기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거두지 못하였을 뿐이다. 여기서 ‘수부득(收不得)’의 구조는 가능보어의 부정형의 형태임.

- 20) 인간편조회양(人間便遭懷襄) : 인간세상에선 그게 바로 대홍수의 재난이 됐다하네) :

- ① 인간(人間) : 인간세상, 인류사회.
- ② 회양(懷襄) : 회산양릉(懷山襄陵)*의 약어(略語). 홍수가 저서 큰물이 산릉에 차오름을 이룸. 『서경(書經)·요전(堯典)』에, “넘실거리는 홍수가 널리 해를 끼치나니, 광대한 큰 물의 물결이 산을 감싸고 언덕에 차올라, 가없이 넓게 불어날 물이 하늘에 닿을 듯하오(湯湯洪水方*割, 蕩蕩懷山襄陵, 浩浩滔天).”라고 한 구절이 있다.

*회산양릉(懷山襄陵) :

- a. 회산(懷山) : 산의 사방을 에워싸다. 여기서, ‘회(懷)’는 곧 ‘에워싸다’는 의미임.
- b. 양릉(襄陵) : 산언덕까지 물이 차오름을 의미함. 여기서 ‘양(襄)’은 ‘타고 올라가다’는 뜻임.

*방(方) : ‘방(旁)’과 통하며 ‘넓다’는 뜻임.

- 21) 이위 공(李衛公) : 이정(李靖 : 571~649) :

당(唐)나라 개국공신 이정(李靖)의 세칭(世稱). 중국인은 다신교를 신봉하는 동시에 조상신을 믿는다. 이 과정에서 이위 공은 훗날 신격화되고 하나의 설화에 나오는 주인공이 된다. 이것이 전설이 되어 전해졌는데, 이 전해지는 대우(大雨)와 관련된 내용 중 한 토막을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이 본 시에서 읊은 것이다.

- ① 이정(李靖 : 571~649) : 자는 약사(藥師), 웅주(雍州) 삼원현(三原縣), 지금의 섬서성(陝西省) 동북 사람. 수말(隋末) 당초(唐初)의 명장(名將)으로 당나라 조정의 문무를 겸비한 저명한 군사가임. 훗날 위국공(衛國公)에 봉해졌으며, 세칭(世稱) 이위 공(李衛公)이라 한다.

☆대우(大雨)와 관련된 이위 공(李衛公)의 전설 :

- a. 병속의 물 한 방울이 땅위에서는 한 자 높이의 강수량이 되다.

이정(李靖)이 비를 내리게 하는 방법을 묻자, 그 부인은 “단지 당신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됩니다.”고 하였다. 그리고 하인에게 청춘마를 준 비하도록 하였다. 비를 내리게 하는 도구(器具)도 가져오게 하는데 그것은 작은 병으로 말안장에 매달려 있었다.

부인은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당신이 말을 타고 갈 때 말고삐를 긴장되게 잘 조절하지 않으면 말은 저 가고 싶은 대로 갑니다. 말이 날뛰면서 큰 소리를 울부짖으면 작은 병에서 물 한 방울을 따라 말갈기에 묻히도록 하십시오. 절대 여러 방울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고 하였다.

이정은 알았다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곧 말위에 올라 공중으로 날아갔다. 말이 점점 높이 날아오르는데 그는 단지 편안하고 빠르다는 느낌이 들 뿐이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구름층 위에까지 올라갔다.

마주하여 오는 바람은 빠르고 맹렬하여 화살과 같았으며, 다리(脚) 밑 구름 아래에서 일어나는 뇌성은 도도하여 끊이지 않는다. 이정은 말이 높이 뛰어 오르며 울부짖자 병에서 물 한 방울을 따라 말갈기에 묻혔다. 이때 번개가 구름층을 베면서 번쩍 빛나는데 저 말 아래쪽으로 바로 자신이 더부살이 하고 있는 산골 마을이 내려다보였다.

이정은 마음속으로 “나는 이 산골에서 많은 신세를 지고 있다. 지금까지 줄곧 시골사람들이 나를 보살펴 주는 것이 한결같다. 바야흐로 보살핌 방법이 없어 마음이 무거웠다. 현재 하늘에서 비가 오래 내리지 않아 농작물이 이제 말라 죽으려 한다. 내려야 할 강수량이 내 수중에 있는데 어찌 인색할 필요가 있을까?”

한 방울의 물로는 땅거죽조차 적실 수 없을 것이다. 작은 병에서 물 한 방울을 뿌리고 또 한 방울을 뿌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 이십여 방울을 뿌렸다. 잠깐 만에 비 내리게 하는 일을 끝내고 말을 타고 그 부인이 있는 집으로 되돌아왔다.

b. 비를 많이 내려 부인이 처벌받다.

이정이 막 대문을 들어서는데 부인이 대청에서 울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 부인은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곤경에 빠뜨립니까? 원래 물 한 방울이면 충분하다고 말했는데 왜 사사로이 물 이십여 방울을 뿌렸습니까? 하늘에서 이 물 한 방울은 땅위에서는 한 자[一尺] 정도의 강수량이 됩니다. 이 시골에 한 밤중 강수량이 두 장(丈) 정도가 되었으니 사람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이미 곤장 80대로 처벌을 받았습니다.”라고 하였다.

그 부인이 옷을 벗고 등을 보여주는데 핏자국이 남자하다. 부인은 이어서 “현재 나의 아들들도 모두 이 사건과 연루되어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어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고 하였다. 이에 이정은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다. 무어라 대답해야 할 지 모른 채 그냥 멍하니 서 있었다.

그러나 부인은 더 이상 원망할 마음이 없는 듯 “당신은 세간(世間)의 사람입니다. 하늘에서의 비와 구름의 변화를 이해 못하는 것도 어쩌면 당연합니다. 나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겠으나 다만 용사(龍師 : 백관百官의 사장師長 :

우두머리)가 그 경위를 조사할 수도 있는데 그때 당신이 이곳에 있으면 몹시 두려울 것이므로 되도록 빨리 이곳을 떠나십시오. 단지 당신이 한 바탕 수고를 했는데 감사의 표시를 못했습니다. 이곳 산속에는 무슨 좋은 물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인 두 명을 인계하겠습니다. 둘 다 수하에 거두어 주어도 되고 한 명만 거두어도 됩니다. 당신의 뜻대로 선택하십시오"라고 하였다.(출처: <http://blog.naver.com/hana6872>)

- 22) 용마(龍馬): 고대 전설상의 용두마신(龍頭馬身: 머리는 용이고 몸통은 말인 전설상의 짐승)의 신령스러운 짐승.
- 23) 천표(天瓢): 신화 전설상의 천신(天神)이 비를 내리게 할 때 쓰던 호리병.
- 24) 쾌의수은수복석(快意酬恩誰復惜: 기꺼이 보은報恩하지 누구인들 인색하랴!):
- ① 쾌의(快意): 기꺼이.
 - ② 수은(酬恩): 은덕에 보답함을 이룸.
 - ③ 복석(復惜): 인색함으로 갚다.
- ☆복(復): 갚다. 보상하다. 상환(償還)하다.
- ☆석(惜): 인색하다.
- 25) 이언개황홀(二言皆恍惚: 이 두 가지 설화說話 너무나 기묘하여):
- ① 이언(二言): 본 시에서는 ‘두 가지의 전설’을 가리킨다. 본 시에서 언급된 전설상의 대우(大雨: 큰 비)와 관련된 두 가지 전설은 첫째, 은하수를 건너지 못해 건우와 직녀가 상봉하지 못함으로 인해, 흘린 눈물이 인간세상에서는 큰 비가 됐다는 것이고, 둘째, 신선이 된 이위 공(李衛公)이 용마 타고 천상을 날아가다가 가뭄에 타고 있던 신세진 산골마을에 비를 내려줘야겠다고 물 한 방울 더 떨어뜨린 것이 큰 비가 되었다는 전설을 가리킨다.
 - ② 황홀(恍惚): 황홀(恍惚)로도 쓴다.
☆기묘하다. 황홀하다(눈이 부시도록 화려하다, 사물에 마음이나 시선이 혹하여 달뜨다).
- 26) 독우모지권삼중(獨憂茅茨捲三重: 이영을 세 겹이나 덮어서 설마 했는데):
- ① 독(獨): 의문부사로써, ‘어찌 ~한 일이 있겠는가? 그래 ~이란 말인가? 설마 ~하겠는가?’의 뜻을 나타낸다.
 - ② 모지(茅茨): 모자(茅茨)로도 쓴다.
☆따나 이영으로 이은 지붕.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음. 모옥(茅屋: 덧집)을 가리키기도 한다.
☆누추하고 초라한 집, 또는 그러한 거실을 가리킨다. 전(轉)하여, 자기 집의 겸칭이나, 평민의 고향사람 또는 평민이 사는 골목을 뜻하기도 함.
 - ③ 권삼중(捲三重):
☆권(捲): 둘둘 감아말다. 본 시에서는 ‘덮다’의 뜻으로 쓰였음.
☆삼중(三重): 세 겹.
- 27) 상상(牀牀): 방바닥마다. 곧 ‘방바닥’이라는 뜻으로 쓰였다. 여기서의 상(牀: 침상)은 명사의 중첩으로 쓰여, ‘상상(牀牀)’은 ‘침상바닥’이라는 뜻이 된다. 다만 조선시대에는 전통한옥의 온돌방에 거주하였으므로 여기서의 ‘침상[牀]’은 마땅히 ‘방바닥마다’ 곧 ‘방바닥’이라고 번역해야 한다. 명사가 중첩되면, ‘~마다’라는 뜻을 지니는데, 이런 명사의 예로 ‘인인(人人: 사람마다), 가가(家家: 집집마다), 년년(年年: 해마다)’ 등이 있다.

시6. 회암晦庵 팔대자가八大字歌

詩6. 晦庵八大字歌¹⁾

경주 부윤府尹 이시발李時發 군이 주자朱子가 강조했던 덕목인 ‘효제孝悌·충신忠信·예의禮義·염치廉恥’의 여덟 자를 새로이 새긴 활자로 찍은 글자를 보내 왔기에, 시가를 지어서 이를 기록한다.

慶州府尹²⁾ 李君時發³⁾ 新刻朱子⁴⁾ 孝悌, 忠信, 禮義, 廉恥, 八大字印寄.
경주부윤 이군시발 신각주자 효제, 충신, 예의, 염치, 팔대자인기
作歌以記之.
작가이기지



東都大尹真好古⁵⁾,
동도대윤진호고

경주부윤慶州府尹은 참으로 옛
도덕률道德律을 좋아하나니,

購刻考亭鸞鳳字⁶⁾.
구각고정난봉자

주자가 강조한 난봉鸞鳳의 어질고
훌륭한 선비덕목 새긴 글자
구매해 보냈네.

一紙⁷⁾一字大如斗,
일지일자대여두

한 장에 한 자 써서 글자 크기가
말[斗]만 한데,

題封遠寄西厓子⁸⁾.
제봉원기서애자

봉함 표지에 ‘서애 선생께’라고 써서
부쳐왔네.

西厓老人驚且喜,
서애노인경차희

서애西厓 이 늙은이는 놀랍고도 기뻐서,

白日空齋翫心書⁹⁾。
백 일 공 제 완 심 화

대낮 텅 빈 서재에서 그 자체字體
감상하네.

顏筋柳骨不足珍¹⁰⁾，
안 근 류 골 부 족 진

안진경顏眞卿이나 유공권柳公權의
필체만큼 진귀하다 할 수 없지만,

字字龍跳又虎躍。
자 자 용 도 우 호 약

글자마다 용이 솟구치고 범이 뛰는 것
같으네.

楣間¹¹⁾高掛踞讀之，
미 간 고 께 께 독 지

액방額枋[문틀 위 가로 댄 나무]에 높이
걸어놓고 쭈어 앉아 읽자니,

墨花煌煌光滿壁¹²⁾。
묵 화 황 황 광 만 벽

묵화墨花가 빛이 나서 벽이 온통 흰하네.

當年神禹鑄鼎成¹³⁾，
당 년 신 우 주 정 성

당년에 우임금이 큰솥[구정九鼎]을
주조하고 나서,

鐵索金滕¹⁴⁾重千石。
철 삭 금 등 중 천 석

철끈으로 묶어 보존하니 무게가
천석千石이었다네.

又如秦庭見鐘簴¹⁵⁾，
우 여 진 정 견 종 거

또 예컨대 진秦나라 궁정에 종을 놓고
보건대,

列峙爭雄不相屬¹⁶⁾。
열 지 쟁 웁 불 상 속

그것들과 늘어놓고 견뎌봐도 손색이
없으리라.

壯哉開來繼往業¹⁷⁾，
장 재 개 래 계 왕 업

장하도다 전도前途를 개척하려고
선인先人の 사업을 계승함이어!

餘事¹⁸⁾多能乃如此。
여 사 다 능 내 여 자

본업 아닌 일에도 다능多能하기가 이와
같구나.

細觀不獨¹⁹⁾字畫妙，
세 관 부 독 자 화 묘

자세히 감상하면 자획이 오묘한 것뿐만

八字之中有精義。
팔 자 지 중 유 정 의

孝悌元是²⁰⁾百行原,
효 제 원 시 백 행 원

忠信亶爲一心德²¹⁾。
충 신 단 위 일 심 덕

禮義廉恥是四維²²⁾,
예 의 엄 치 시 사 유

總爲修身存大法²³⁾。
총 위 수 신 존 대 법

聖賢之學貴知要,
성 현 지 학 귀 지 요

五車漫書何用讀²⁴⁾。
오 거 만 서 하 용 독

環顧²⁵⁾吾身汗出背,
환 고 오 신 한 출 배

一字無成²⁶⁾今白髮。
일 자 무 성 금 백 발

慙慙作詩戒兒曹²⁷⁾,
은 은 작 시 계 아 조

我言非妄宜努力。
아 언 비 망 의 노 력

아니라,

그 여덟 자 속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다네.

효도[孝]와 우애[悌]는 온갖 행실의
근원이요,

충성[忠]과 신의[信]는 실로 한결 같은
마음의 미덕일세.

예절[禮] · 의리[義] · 청렴[廉] · 수치심[恥]
은 치국治國의 4대 원칙이니,

결국은 수신修身을 행하고 기본원칙을
보존함이로세.

성현의 학문은 그 요지를 아는 것이
귀중하나니,

다섯 수레인들 잡다한 책 읽어 무슨
소용 있으리!

내 자신을 되돌아보니 등에 식은땀이
흐르나니,

(그 여덟 자 중) 한 자의 의미도 실현하지
못하고 이제는 백발이 되었네.

간절한 맘으로 시를 지어 아이들을
훈계 하노니,

내 말이 망령스럽다 말고 마땅히
노력하라.

1) 회암팔대자가(晦庵八大字歌):

- ① 회암(晦庵): 주희(朱熹: 1130~1200): 회암(晦庵)은 주희의 호이다. 이외에도 그의 호는 화옹(晦翁)·자양(紫陽)·둔옹(澣翁)·운곡산인(雲谷山人) 등이 있고, 자는 원회(元晦)이며, 남송(南宋)의 유학자이다. 주요 저서로 『사서집주(四書集注)』·『근사록(近思錄)』·『주역본의(周易本義)』·『시집전(詩集傳)』·『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태극도설해(太極圖說解)』를 비롯한 수많은 저서가 있으며, 후인이 편찬한 『주문공문집(朱文公文集)』과 『주자어류(朱子語類)』 등이 있다.

주희가 집대성한 송대 유학은 ‘우주만물은 이(理)와 기(氣)의 두 요소로 이루어 졌다’고 설명하는 성리학(性理學)의 이론이다. 이는 우주(宇宙)의 생성(生成)과 구조(構造), 인간 심성(心性)의 구조, 사회에서의 인간의 자세(姿勢) 등에 관하여 깊이 사색함으로써 한당(漢唐)의 훈고학이 다루지 못하였던 형이상학적(形而上學的)·내성적(內省的)·실천철학적인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유학사상을 수립하였다. 고로 이는 태극설(太極說)·이기설(理氣說)·심성론(心性論)으로 구별할 수 있다.

☆태극설(太極說)

이것은 주돈이(周敦頤: 1017~1073)의 태극도설(太極圖說)을 계승·발전시킨 것으로 천리(天理)를 통해, 우주의 생성과 구조를 논한 이론이다.

주희가 말하는 ‘태극(太極)’이란, 천지만물의 총화이기 때문에 태극 안에는 ‘모든 이(理: 만리萬里 : 온갖 이치)’가 다 구비 되어 있다. 그래서 “태극에는 음양과 오행의 이리가 다 들어있으니, 텅 빈 것이 아니다(太極是五行陰陽之理皆有, 不是空的物事).”고 하였다. 고로, 각 사물에는 그 사물이 그러한 까닭으로서의 이(理)가 구비되어 있을 뿐 아니라, 태극의 전체도 구비되어 있다. 이로써 보면, 모든 사물은 그것 자신이 그러한 까닭으로서의 이(理) 이외에 또 태극(太極), 즉 모든 이(理)의 전체를 구비하고 있다. 그러므로 ‘태극은 모든 사물 안에 존재하지만 조각조각 분할되는 것이 아니고, 마치 달빛이 모든 강에 드리워지는 경우와 비슷하다(不是割成片去, 只如月印萬川相似).’라고 하여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기설(理氣說)

이것은 정이(程頤: 1033~1107)가 주창하였고 주희가 완성한 이론이다. 이(理)와 기(氣)에 대한 관념의 규정을 “천지 사이에는, 이(理: 이치)도 있고, 기(氣: 기운)도 있다(天地間, 有理有氣). 이치란 것은, 형이상학적 도이며, 만물이 생성하는 근본이다(理也者, 形而上之道也, 生物之本也). 기운은, 형이하학적 도 구이며, 만물을 생성하는 기구이다(氣也者, 形而下之器也, 生物之具也).”라고 하였다. 또한 이 이(理)와 기(氣)의 전개순서에 대해서도 “아직 사물이 없을 때에도, 이치는 이미 갖추어져 있었다(未有事物之時, 此理已具).”고 하여, ‘이치’가 ‘사물’에 우선함을 설파하였다. 동시에 이러한 ‘이치’와 ‘기운’의 관계에 대한 존재성에도 이 “이(理)와 기(氣)는 나누어져서 둘로 되지 않을 수 없다(不能不分爲二)”고 하였다. 운행 상에서 보면, 이기(理氣)의 관계는 불리할

수 없는 관계(畢竟理却只在這裏)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것은 마치 사람이 말을 타는 것과 비슷하다(如人跨馬相似)고 하여, ‘이치’의 ‘운행’은 반드시 ‘기운’에 의거하고 있음과 동시에 운행 중에는 서로 분리될 수 없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이기설은 원래 인간의 불변적 본질인 성(性)을 인식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개된 것이어서, 만물의 변하는 요소인 현상태를 대변하는 기(氣)와 불변하는 요소인 본질태를 대변하는 이(理)를 이원적(二元的)으로 파악한 것으로, 학계에서는 주화가 완성한 이기론을 이기이원론(理氣二元論)이라고 칭한다.

☆심성론(心性論)

이것은 심성의 관계를 다루어, 마음의 능력에 대한 이해를 밝히고 있다. 그는 마음(心) 자체는 기(氣)에 속하여 이(理: 성性)에 합치될 수도 있고, 합치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만약 마음의 활동이 이치에 합치되면, 선(善)이 되고 이치에 합치되지 않으면 악이 된다는 것이다. 인간은 마음의 작용에 따라서 이치를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있으므로, 마음의 기능은 곧 마땅히 이(理)를 지각(知覺)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아, 이를 성정함양(性情涵養)의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여기에서 인성의 두 가지 측면이 제시되면서 이에 대한 실천이론을 제기하고 있다.

a. 인성(人性)의 두 측면:

㉔ 본연지성(本然之性): 이것은 『중용(中庸)』의 “천명지위성(天命之謂性)”과 내용을 같이 하고 있는 초월적 의미의 성(性)인 것으로 구체적인 인간 이전에 이미 정해진 성(性)이며 또한 개체인 인간이 마땅히 따라야 할 인생의 목표이며, 그리고 어떤 점에서는 그 성(性)은 결코 모두 다 실현할 수 없는 의미의 성(性)인 것이다. 그러므로 주자는 이러한 성(性)을 특별히 본연지성(本然之性)이라 하여 태극(太極)과 동일시하였다.

㉕ 기질지성(氣質之性): 이는 기(氣)에서 발생함으로 ‘통합과 막힘, 치우침과 바름의 차별’이 생긴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바로 음양오행의 상호작용에서 생기는 편차이므로 여기에는 ‘본연지성’도 갖추어져 있다. 고로 ‘기질지성’에서, ‘본연지성’을 확충하여, ‘그 바르지 못함(不正)’ 혹은 ‘이치에 따르지 않는 것’을 없앤다는 ‘멸인욕(滅人欲)’을 통해, 명덕(明德)을 밝히는 소위 ‘심(心) · 성(性) · 정(情)과 덕(德)을 이루고자 본래의 양심을 잃지 않도록 착한 성품을 함양하는 길’이 제시되었으며, 이의 실천과정으로 거경(居敬) · 궁리(窮理) · 격물(格物) · 치지(致知) 등의 설법이 제기되고 있다.

☆실천이론

이것은 성인(聖人)의 경지에 이르기 위한 당위성의 문제로 제기하는 실천이론이다.

a. 거경(居敬): ‘거경(居敬)’의 ‘경’은 의지(意志)의 일면인 본디의 양심을 잃지 않도록 그 착한 성품을 함양하는 관념으로, “경(敬)자는 움직일[작용]과 고요함[본체]을 관통한다(敬字通貫動靜)”. 그러나 아직 발동되지 않았을 때, 한데 뒤섞여 있는 이것이 경(敬)의 본체이다(但未發時, 渾然是敬之體). 그 것이 아직 발동되지 않았음을 알면, 경(敬)의 의지를 함양 하라는 것이 아

나다(非是知其未發, 方下敬底工夫). 이미 발동한 뒤라면 일에 따라서 반응하고 살펴보게 되는데, 경(敬)의 작용이 거기서 행해진다(既發則隨事省察, 而敬之用行焉).”라는 것이다. 이리하여 경(敬)은 만리 밖을 관통하는 실천의 이론이 되었다. 그리하여 이는 또한 격물치지(格物致知)의 동력조건이 되기도 한다.

- b. 궁리(窮理) · 격물(格物) · 치지(致知) : “이른바 치지(致知)가 격물(格物)에 있다는 것은, 나의 앎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사물[物]에 임하여 그 이치를 캐물어 가는 데 있음을 말한다(所謂致知在格物者, 言欲致吾之知, 在即物而窮其理也).”라고 하여, 격물치지(格物致知)의 문제 상에 ‘궁리(窮理)’도 포괄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나의 앎을 넓힌다(致吾之知)’는 말로서 ‘치지(致知)’를 해석하고, 그 다음은 ‘사물에 임하여 그 이치를 캐묻는다(即物而窮其理)’는 말로서 ‘격물(格物)’을 해석하여, 치지와 격물이 궁리(窮理)와 별개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 양자(兩者)는 안과 밖이 서로 융화며, 다시 한 걸음 나아가 궁리(窮理)와 치지(致知)는 동시에 완성된다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은연중 ‘개별적인 이치(秀別之理)’에서 ‘공동적인 이치(共同之理)’에 이르는 진로를 가리키는 것으로, 격물(格物)의 뜻은 역시 궁리(窮理)를 통하여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고로 여기서, 격물궁리(格物窮理)의 목적이란, 안으로는 ‘내 마음의 본체와 큰 작용(吾心之全體大用)’의 밝음(明)을 달성하려는 데 있고, 밖으로는 ‘관통된 이치(貫通之理)’를 파악하는데 있다. 또한 내 마음의 큰 작용이 밝혀지면, 안으로 그 덕을 완성 할 수 있고, 밖으로는 문화를 이룰 수 있으니, 이른바 내성외왕(內聖外王)의 길이 이것이다. 이 가운데 수신(修身)은 또 다른 하나의 관건이 된다. (이상의 내용은 노사광勞思光 저著, 정인재鄭仁在 역譯 『중국철학사(中國哲學史)』 「송명편宋明篇」과 풍우란馮友蘭 저著 박성규朴星奎 옮김. 『중국철학사』(하)를 참조하였음) 뒤쪽의 「시44」 주석2)의 ②주자학(朱子學) 조항도 참조 바람.

- ② 팔대자가(八大字歌) : 주자(朱子)가 강조한 사람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여덟 가지 덕목(德目).

☆팔대자(八大字) : 이 8종의 효(孝) · 제(悌) · 충(忠) · 신(信) · 예(禮) · 의(義) · 염(廉) · 치(恥)의 덕목은 송대에서 일반적으로 지켜오던 도덕률이다. 이 8개 도덕률 중에, 뒤의 ‘예 · 의 · 염 · 치’의 4개 준칙은 춘추시대의 제(齊)나라의 제상이었던 관중(管仲)이 그의 저서인 『관자(管子) ·牧民편(牧民篇)』에서 제시한 것으로, 이는 국가를 확립하는 기본준칙이었다. 이를 송대에 와서는 관중이 제시한 4개 사유(四維)를 회복하고, 인(仁) 대신에 효 · 제(孝悌)를 첨가하여, 가족도덕의 수위(首位)에 둬으로써, 중국농업사회의 발전은 가정과 가족중심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 아래, 이 8개 덕목이 당시 사회의 도덕률로 자리 잡게 되었다.

- 효제(孝悌) : 부모에 대한 효도와 형제에 대한 우애.
- 충신(忠信) : 나라에 대한 충성과 친구에 대한 우의(友誼).
- 예의(禮義) : 사람이 지켜야 할 예절과 의리.
- 염치(廉恥) : 체면을 차릴 줄 알며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가(歌): 악부시체(樂府詩體)의 편명(篇名)임. 주로 서사적인 장편의 시로 가장
이 되는 것을 ‘가(歌)’라고 함. 악부시에 대해서는 「시4」 주석1)의 ‘② 탄(歎)’
조항을 참조 바람.

- 2) 부윤(府尹): 조선시대 동반(東班: 문관文官의 지방관직. 즉 외관직外官職)으로 부(府)의
수령(守令)이었다.

당시 경상도 경주(慶州)에 1명을 두었는데, 이시발(李時發)은 1602년에 경상도 관
찰사로 부임하였다. 그 감영(監營)이 경주에 있었다.

- 3) 이군시발(李君時發): 이시발(李時發) 군. 군(君)은 성씨나 이름 뒤에 쓰여 친구나
아랫사람을 친근하게 부르거나 이르는 말임.

- ① 이시발(李時發: 1569~1626): 조선중기의 문신. 본관은 경주(慶州). 자(字)는
양구(養久), 호(號)는 벽오(碧梧), 또는 후영어은(後穎漁隱). 부친은 진사 대건
(大建)이며, 이덕윤(李德胤)의 문인이다.

6세에 고아가 되었고 1589년(선조 22) 증광문과(增廣文科: 조선시대 나라에 경사
가 있을 때 보이던 임시과거제도)에 병과로 급제하여 승문원(承文院: 사대교린事大交
隣에 관한 문서를 맡아보던 관청)에 등용되었으며,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낙상지(駱
尙志)가 인솔하는 명나라 군대가 경주에 주둔해 있을 때 접반관(接伴官)으로 임
명되었고, 도체찰사(都體察使: 의정議政이 겸임하는 임시직의 하나. 특정한 지역의 군
정軍政과 민정民政을 총괄함) 류성룡(柳成龍)의 종사관(從事官: 종6품 벼슬)으로 활
약하였다.

1594년 병조좌랑에 제직 중 명나라 유격장(遊擊將) 진운홍(陳雲鴻)을 따라 적
장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의 군영을 방문하여 정담임무를 수행했고, 이듬해
병조 정랑으로 승진했다.

1596년 10월 이몽학(李夢鶴)이 홍산(鴻山: 지금의 충남 부여扶餘)에서 일으킨 반
란을 평정하는데 공을 세웠다. 1604년 형조참판을 지내고, 1613년 선조의 왕비
인 인목대비(仁穆大妃)의 폐모론(廢母論)에 반대했다가 양사(兩司: 사헌부司憲府
와 사간원司諫院: 국가 중대사에 두 기관이 양사합계兩司合啓하는 공통 기능이 있음)의
탄핵을 받아 사직했으며, 1619년 광해군의 특명으로 사면됨. 1623년 인조반정
이 일어나자 한성부판윤(漢城府判尹)에 등용되고 이어 형조판서에 올랐으며, 이
듬해(1624) 이괄(李适)의 반란 때에 체찰부사(體察府使)로서 난을 평정, 무관으
로서도 공이 컸다.

저서로 『주변록(籌邊錄)』, 『벽오유고(碧梧遺稿)』가 있음. 영의정에 추증되었으
며 시호는 충익(忠翼)임.

- 4) 주자(朱子): 송(宋)나라 유학자. 주희(朱熹: 1130~1200)를 높여 이르는 말. 자세한
것은 본 시의 주석1) ‘회암(晦庵)’ 조항을 참조 바람.

- 5) 동도대윤진고(東都大尹眞古: 경주부윤慶州府尹은 참으로 옛 도덕을 좋아하
나니):

- ① 동도(東都):

☆경주(慶州)의 대칭(代稱). 경주가 신라의 수도였고, 한양(漢陽)의 동쪽에 위치
하므로 경주를 예스럽게 표현한 말임.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음.

☆중국의 역대 왕조는 수도 이동(以東)의 도성(都城)을 동도(東都)라고 불렀음.

a. 상(商)나라 시대에 상구(商丘)를 가리켰으며, 은(殷: 즉 은허殷墟)의 동쪽에

위치하였음. 상구(商丘)는 지금의 하남성(河南省) 상구현(商丘縣)임.

- b. 서주(西周) 시대 낙읍(洛邑)을 가리켰으며, 지금의 하남성(河南省) 낙양시(洛陽市)의 서부임. 호경(鎬京)의 동쪽에 위치했기에 일컬어진 이름이다.
- c. 동한(東漢)의 낙양(洛陽)을 가리키는데, 서한(西漢)의 수도 장안(長安)의 동쪽에 위치하였기에 일컬어진 이름이다.
- d. 수·당(隋唐)시대의 낙양(洛陽)을 가리킨다. 당시 수도 장안(長安)의 동쪽에 위치하였기 때문이다.
- f. 원(元)나라 시대의 대량(大梁)을 가리킴. 대도(大都)의 동쪽에 위치했기에 일컬어진 이름이며, 대량(大梁)의 옛터는 지금의 하남성(河南省) 개봉시(開封市)이다.

② 대윤(大尹) : 관명.

☆본 시에서는 ‘관찰사(觀察使 : 종2품)’의 대칭(代稱)으로 표현한 관명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윤(大尹)’이란 관명을 쓴 예가 없고, 중국에서 ‘지방장관’으로 ‘대윤(大尹)’이란 관명이 자주 쓰였다. 관찰사는 조선시대 ‘지방장관’이었다. 원 칙적으로 각 도마다 1명씩 두었다. 이시발(李時發)은 1602년에 경상도 관찰사를 역임했다. 당시 경상도 관찰사는 경주·상주(尙州)·성주(星州)·달성(達城 : 대구)·안동(安東)에 두었다. 관찰사의 관청을 감영(監營)이라 한다.

☆춘추전국시대(春秋戰國時代)에 송(宋)나라에서 설치했으며, 경(卿 : 고대 고급관원의 명칭. 서주西周와 춘추시대의 천자天子와 제후들은 모두 경卿이 있었으며, 상·중·하上中下 3등급이었다. 진秦·한漢 시기에는 3공三公 이하에 9경九卿이 있었음)의 작위였다. 일설에는 송나라 외척이 되는 관리(外戚之官)라고도 하고, 일설에는 제왕을 측근에서 모시는 조관(朝官)으로 왕의 총애를 받는 자(近官有寵者)라고도 한다.

☆왕망(王莽 : BC 45 ~ AD 23)이 전한(前漢)의 평제(平帝)를 독살하고 제위(帝位)를 찬탈한 후 건국한 신(新)의 초기에 태수(太守)를 대윤(大尹)이라 칭했다.

☆명(明)나라 왕조에 와서 부(府)·현(縣)의 장관을 높혀 대윤(大尹)이라 불렀다.

☆명·청(明清)왕조에 와서는 지현(知縣 : 현縣의 정사政事를 관리하던 장관으로 정7품관正七品官의 별칭)으로 쓰였다.

③ 호고(好古) : 고대의 준칙이나 문헌을 애호한다는 뜻이다. 이때의 ‘고(古)’는 고대의 문물제도나 준칙 및 문헌을 가리킨다.

『논어(論語)·술이편(述而篇)』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기존학설을 전술傳述만하고 창작하지 않으며, 고대의 준칙을 신봉하고 좋아하는 것을, 남몰래 마음속으로 우리 노팽(老彭 : 상대商代의 현대부賢大夫)에게 견주노라(子曰 : 述而不作, 信而好古, 竊比於我老彭).”라고 하였다.

6) 구각고정난봉자(購刻考亭鸞鳳字 : 주자가 강조한 난봉鸞鳳의 어질고 훌륭한 선비 덕목 새긴 글자 구매해 보냈네) :

① 고정(考亭) : 장자(亭子) 이름으로, 지금의 복건성(福建省) 건양현(建陽縣) 서남부에 위치한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오대(五代 : 당唐 나라가 망한 뒤부터 송宋 나라가 건국되기 이전까지의 과도기에 중원中原에서 흥망한 다섯 왕조 곧 후량後梁·후당後唐·후진後·후한後漢·후주後周를 이룸) 시기의 남당(南唐 : 오대시기의 10국, 즉 오吳·남당南唐·오월吳越·전촉前蜀·후촉後蜀·남한南漢·북한北漢·민국·초楚·형

남(南) 중의 한 정권으로, 937년에 서지(徐知誥)가 오를 멸하고 금릉(金陵)에 도읍을 정하여 세운 나라. 975년에 북송에 멸망함)의 황자릉(黃子陵 : 남당의 시어사(侍御史)를 역임함)이 별세한 부친의 묘를 바라보기 위해서 이 정자를 지었던 까닭에 ‘망고정(望考亭)’이라 명명했다고 하며, 약칭 ‘고정(考亭)’이라고 한다.

남송(南宋 : 송나라가 1127년 금나라에 밀려 남쪽으로 내려가 임안(臨安)으로 천도한 때부터 1279년 원나라에 망할 때까지를 이르는 말)의 주희(朱熹 : 1130~1200)가 만년에 이곳에 거처하면서, 창주정사(滄州精舍)를 건축하였다. 송나라 이종(理宗 : 1205~1264 : 송·태조(宋太祖)의 10세손(十世孫, 성명은 조윤(趙昀)은 주희를 숭배하여 제사 지내기 위해서 순우 4년(淳祐四年 : 1244), 이 정자에 ‘고정서원(考亭書院)’이란 명칭을 하사했다. 이 후로 ‘고정(考亭)’은 ‘주희(朱熹)’를 칭하는 것으로 되었다.

② 난봉(鸞鳳) :

☆현준(賢俊)한 선비에 비유하는 말.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전한(前漢)의 학자인 가의(賈誼 : BC 200~BC 168)가 지은 『조사(楚辭)·석서(惜誓)』에 “어찌 난조(鸞鳥)와 봉황이 하늘 높이 나는 것은 보지 아니하고, 무리지어 광활한 벌판에 모여 있는가(獨不見夫鸞鳳之高翔兮, 乃集大皇之塹).”라고 읊은 구절이 있다. 이 글귀에 동한(東漢)의 학자인 왕일(王逸)이 주(注)를 달아 말하기를, “현자(賢者)는 또한 마땅히 산수(山水)에 묻혀 살면서, 두루 돌아다니며 관광하다가, 현명한 군왕을 만나면, 마침내 출사(出仕)한다는 뜻이다(以言賢者亦宜處山澤之中, 周流觀望, 見高明之君, 乃當仕也)”라고 하였다.

☆난조(鸞鳥)와 봉황(鳳凰).

☆군왕(君王)에 비유함.

7) 지(紙) :

① 본 시에서는 얇고 널찍한 종이나 판자 같은 것을 세는 양사(量詞)로 쓰였으며, ‘장(張)’과 같은 뜻이다. 『북제서(北齊書)·위수전(魏收傳)』에 “초경(初更 : 저녁 7시~9시 사이)에 집필을 시작하여(初夜執筆), 삼경(三更 : 밤 11시~새벽 1시 사이)에 이미 완성하였네(三更便成), 쓴 문장이 일곱 장이 넘었다(文過七紙)”고 하였다.

② 역시 양사(量詞)로서 ‘건(件 : 사물을 낱낱이 헤아리는 말로서의 ‘가지’)이란 뜻으로도 쓴다.

8) 제봉원기서애자(題封遠寄西厓子) : 봉함 표지에 ‘서애 선생께라고 써서 부쳐왔네) :

① 제봉(題封) : ‘봉함제첩(封緘題簽 : 봉투에 쓴 책이나 서류의 제목)’의 뜻. 선장본(線裝本 : 실을 가늘게 꼬아 만든 줄로 재본한 책)의 표지에 책명(冊名)을 써서 붙인 작은 종이쪽지나, 현판이나 액자 등을 쓰거나 새긴 것을 봉함한 다음 멀리 부칠 때, 봉함표지에 받을 사람의 이름을 써 붙인 작은 종이쪽지를 이른다.

② 서애자(西厓子) : 서애(西厓) 선생께. ‘자(子)’는 고대에 남자에 대한 존칭이나 귀칭(貴稱) 또는 미칭(美稱)으로 쓰였으며,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또한 옛 사람들이 스승에 대한 존칭으로도 썼다.

9) 심화(心畵) : 마음을 나타내는 그림이라는 뜻으로 문자나 필적을 이르는 말. 단 여가서의 ‘화(畵)’는 특히 좌우명(座右銘)이나 가훈(家訓)처럼 표기성(標記性)을 지닌 문자를 쓴 것을 가리킨다. 전한(前漢)의 학자 양웅(楊雄 : BC 53~AD 18)의 저

서인 『법언(法言)·문신편(問神篇)』에 “말은 마음의 소리요. 글은 마음의 문자이다. 말과 글의 형세로, 군자와 소인을 알 수 있다(言, 心聲也。書, 心畫。聲畫形, 君子小人見矣).”라고 하였다.

- 10) 안근류골부족진(顏筋柳骨不足珍: 안진경顏眞卿이나 유공권柳公權의 필체만큼 진귀하다 할 수 없지만):

① 안근유골(顏筋柳骨): 당대(唐代)의 서예가 안진경(顏眞卿: 709~784)과 유공권(柳公權: 778~865)의 서체(書體)에 필세(筆勢)가 힘이 있음을 이르는 말이다.

☆안진경(顏眞卿: 709~784): 당(唐)나라 낭야군(琅邪郡) 임기현(臨沂縣), 지금의 산둥성(山東省) 비현(費縣) 동부 임기장(臨沂莊) 출신. 자는 청신(淸臣), 아명(兒名)은 선문자(羨門子), 별호(別號)는 응방(應方)이다. 후일 이부상서(吏部尙書)와 태자태사(太子太師)를 역임했고, 노군개국공(魯郡開國公)에 봉해졌기 때문에 세칭 노국공(魯國公)이라고도 불렸다. 당나라 학자 안사교(顔師古: 581~645)의 오세종손(五世從孫)이다. 현종(玄宗) 재위시에 진사(進士)에 급제하고 여러 관직을 거쳐 평원태수(平原太守)가 되었을 때 안록산(安祿山: 703~757)의 난이 발발하자 종형(從兄)인 상산태수(常山太守) 안호경(顔昊卿)과 합세하여 저항함으로써 큰 공을 세웠다. 숙종(肅宗)이 즉위한 다음 그를 하북초토사(河北招討使)로 삼은 뒤에, 제군(諸郡)은 다시 반군에게 점령되었다. 후에 중앙에 들어가 누차 어사대부(御史大夫)에 제수(除授)되었으나, 풍의태수(馮翊太守)로 좌천되는 등 곧은 성품으로 인하여 권신(權臣)에게 잘맞아 여러 번번히 지방으로 내몰렸다.

덕종(德宗) 재위시에, 간신 노기(盧杞: ?~약 785)가 그를 증오하여 회서(淮西)의 반란군 수괴 이희열(李希烈)을 설득하는 임무로 안진경을 파견토록 조정한 결과, 그는 그곳에서 연금되었다가 액사(縊死)되었다. 시호(諡號)는 문충(文忠)이다.

서예에 있어서, 처음에는 당나라 초기의 4대 서예가(구양순歐陽詢·우세남虞世南·설적薛稷) 중의 한 사람인 저수량(褚遂良: 596~658)에게 배우고, 나중에 초서(草書)에 뛰어나 ‘초성(草聖)’이라 불리는 장욱(張旭: ?~?)에게 익힌 다음, ‘안체(顏體)’라 불리는 독창적인 서체를 창조하였다. 해서(楷書)·행서(行書)·초서(草書) 3체(三體)에 모두 독창적인 우수성을 발휘하였다.

그의 서적(書跡)으로 이른바 안진경삼고(顏眞卿三稿)인 「제절문고(祭姪文稿)」·「고백부문고(告伯父文稿)」·「쟁좌위고(爭座位稿)」가 있으며 문집을 비롯해 저서에 『운해경원(韻海鏡源)』 등이 있다.

☆근골(筋骨): 본 시에서는 서예에서 자체(字體)의 골격과 짜임새(구성, 방식)를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유공권(柳公權: 778~865): 당(唐)나라 경조군(京兆郡) 화원현(華原縣), 지금의 섬서성(陝西省) 요현(耀縣) 출신. 자는 성현(誠懸). 유공작(柳公綽: 765~832)의 동생. 헌종(憲宗) 원화년간(元和年間: 806~821)에 진사로 급제하였다. 목종(穆宗) 시서학사(侍書學士)로 재직했다가, 사봉원외랑(司封員外郎: 종6품의 이부吏部 사봉사차관司封司次官. 봉작封爵과 조회朝會 등 업무를 관장했음)으로 전직했다. 문종(文宗) 재위 시에, 중서사인(中書舍人: 중서성中書省에 소속된 관원으로 7품7品. 칙명의 초고草稿를 작성하고 반포하는 업무와 황실에 보고되는 각종 문

서의 접수 및 장주문章奏文의 접수를 관장하였음), 무종(武宗) 시기에 태자소사(太子少師 : 3품3品 벼슬로 태자를 보도輔導함)에 이르렀다.

서예에 조예가 깊었으며 특히 해서(楷書)에 명성이 높았다. 처음에는 왕희지(王羲之 : 307~365 : 진나라 서예가)의 필법을 익혔으며, 당시의 필법을 두루 배우고, 구양순(歐陽詢)과 안진경(顔眞卿)의 도움을 받았다. 필세(筆勢)가 힘차고, 자체(字體)의 짜임새가 웅건하여 자성면목(自成面目)을 보여주고 있다. 안진경과 병칭(並稱)하여 ‘안·류(顔柳)’라고 한다. 저서에 『현비탑비(玄秘塔碑)』가 있다.

- ② 부족진(不足珍) : 진귀하다 할 수는 없는데도(진귀한 것은 아닌데도).

☆부족(不足) :

a. ~할 수 없다(불가不可, 불능不能)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음.

b. ~하기에 부족하다.

☆진(珍) : 진귀하다.

- 11) 미간(楣間) : 상인방(上引枋). 즉 창이나 문틀 윗부분 벽의 하중을 받쳐주기 위해 가로로 댄 나무. 상방(上枋)이라고도 하고 액방(額枋)이라고도 한다.

- 12) 묵화황광만벽(墨花煌煌光滿壁) : 묵화墨花가 빛이 나서 벽이 온통 흰하네) :

- ① 묵화(墨花) : 본 시에서는 벽에 걸어 놓은 글씨를 꽃무늬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로 썼다.

- ② 황황(煌煌) :

☆매우 아름답다, 빛나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음.

☆밝고 빛나는 모양. 광채에 눈이 부시는 모양.

- 13) 당년신우주정성(當年神禹鑄鼎成 : 당년에 우임금이 큰술[구정九鼎]을 주조하고 나서) :

- ① 신우(神禹) : 하우(夏禹 : 하(夏) 나라 우(禹) 임금)에 대한 존칭.

『장자(莊子)·제물론(齊物論)』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있다고 하는 것은(無有爲有), 비록 명지明知의 신인 우임금이 이 세상에 있다할지라도(雖有神禹), 그 진실을 알 수 없다(且不能知). 우리들이 이것을 어찌할 것인가(吾獨且奈何哉)?”라고 한 대목이 있다.

☆우(禹) : 고대 부락연맹의 영수(領袖)임. 성(姓)은 사(姒)이고, 이름은 문명(文命)이며, 곤(鯀)의 아들임. 대우(大禹)·하우(夏禹)·용우(戎禹)라고도 함. 원래 하후씨(夏后氏 : 우(禹)가 순(舜)에게 선위禪位를 이어 받아 건립한 하(夏) 왕조 하씨夏氏라고도 칭하고 하후夏后로도 칭함) 부락의 영수였다. 그는 백성들을 영도하여 강하(江河)를 소통토록 하고 수로(水路)를 건설하여 농업을 발전시켰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그는 치수(治水)하는 13년 동안 세 번이나 자기 집 앞을 지나가면서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한다. 후에, 순(舜)임금의 계승자로 선발되어 순이 사후에 즉위하여 하(夏)조를 건립했으며, 후세에 성왕(聖王)으로 간주되었다. 상제한 그의 사적은 『서경(書經)』의 「순전(舜典)」·「대우모(大禹謨)」·「고요모(皋陶謨)」·「익직(益稷)」·「우공(禹貢)」 등 편(篇)에 보인다.

- ② 주정(鑄鼎) :

☆주정상물(鑄鼎象物)의 약어. 우(禹) 임금이 구주(九州 : 요순堯舜시대와 하(夏) 나라 때, 전국을 나눈 9개의 주州, 즉 기冀·연兗·청青·서徐·형荊·양揚·예豫·양

梁·雍雍의 철석(鐵石)을 수납하여 구정(九鼎 : 9개의 큰 솥)을 만들면서 온갖 물상(物象)을 그곳에 새겨 넣은 것을 가리킨다. 후세에 이 말을 군왕의 공덕을 칭송하는 뜻으로도 썼다.

『좌전(左傳)·선공 3년(宣公三年)』에, “옛날에 하나라 임금은 각 주(州)에 덕을 베풀었음에, 먼 곳에 위치한 주(州)에서는 그 지방의 특산물을 그림으로 그리고, 쇠붙이를 구주의 장관에게 공물로 바쳤고, 큰 솥을 만들면서 그 그림을 솥의 표면에 새겨 넣어, 온갖 사물이 그 솥에 구비되게 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악마를 알게 했었오(昔夏之方有德也, 遠方圖物, 貢金九牧, 鑄鼎象物, 百物而爲之備, 使民知神姦).”라고 한 대목이 있다.

서진(西晉)의 무장(武將)이자 학자인 두예(杜預 : 222~284)는 『춘추좌씨전집해(春秋左氏傳集解)』에서, 이 글에 주(注)를 달아 말하기를, “온갖 사물을 그림으로 그린 것을 형상화 한다는 것은(象所圖物), 솥에 그 그림을 새겨서 나타낸다는 것이다(著之于鼎).”라고 하면서, 주정상물(鑄鼎象物)이란 말을 줄여 “주정(鑄鼎)”이라고도 한다 하였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당시 우임금이 주조한 솥은 9정(九鼎 : 9개의 큰 솥)이었으며, 이 솥이 제기(祭器)로서 존중된 권위의 상징으로서 상(商)나라를 거쳐 주(周)나라에 전해진 중기(重器 : 무거운 제기)였으므로, 후세에 사람들은 이 솥을 ‘국가정권과 제위(帝位)’를 가리키는 뜻으로 사용하였다.

14) 철삭금등(鐵索金滕) :

① 철삭(鐵索) : 가는 철사를 꼬아서 만든 철끈.

② 금등(金滕) :

☆소장하려는 나무판에 새긴 글자나 갑골(甲骨) 등을 께에 넣어 철끈으로 단단히 묶어 봉한 후에 보존하는 것을 이른다.

『서경(書經)·금등(金滕)』에, “공(公 : 주공周公)이 돌아와서, 책(무왕武王의 병이 쾌차하기를 기원하며 엮은 축문을 가리킴)을 철끈으로 묶어 께 안에 보관하니…(公歸, 乃納冊于金滕之匱中…).”라고 한 문장에서 쓰인 ‘금등(金滕)’이 그 예이다.

15) 우여진정현증거(又如秦庭見鐘簴 : 또 예컨대 진(秦)나라 궁정에 종을 놓고 보건대) :

① 우여(又如) : 예를 들면, 예컨대.

② 진정(秦庭) : 진(秦)나라 조정. 진나라 궁정.

③ 증거(鐘簴) :

☆증거(鐘簴) :

a. 종(本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음) 또는 종소리를 가리킨다. 거(簴)는 순(簣)과 같은 뜻으로 ‘악기를 다는(거는) 틀’이라는 뜻이다.

b. ‘종거(鍾虡)’는 종묘(宗廟)와 사직(社稷)에 설치된 종을 매다는 틀이므로, 종묘, 사직과 운명을 함께 하며 종묘와 사직은 국가와 존망을 같이 하였으므로, 전(轉)하여 사직 혹은 왕조를 가리키기도 한다.

16) 열치쟁웅불상축(列峙爭雄不相屬 : 그것들과 늘어놓고 견주어 봐도 손색이 없으리라) :

① 열치(列峙) : 병립(竝立). 나란히 늘어놓다.

② 쟁웅(爭雄) : 견주어 보다. 경쟁하다.

③ 상촉(相屬) :

☆근사(近似)하다. 비슷하다. 관련(관계)되다. 상관있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불상촉(不相屬)은 비슷하지 않다. 곧 ‘이것이 더 낫다’, ‘순색이 없다’는 뜻으로 의역하였다.

☆서로 연결(連接)하다. 잇닿다(잇달아)

☆사람들과 시사(詩詞)를 화답(和答)하다.

17) 장재개래계왕업(壯哉開來繼往業) : 장하도다 전도前途를 개척하려고 선인의 사업을 계승함이어! :

① 개래(開來) : 전도(前途)를 개척하다.

☆개(開) : 개척하다.

☆래(來) : 동사의 앞이나 혹은 뒤에 쓰여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함을 나타냄.

② 계왕업(繼往業) : 왕년의 공훈 혹은 업적이나, 전생(前生)에 정해진 업연(業緣)을 이어나가다.

18) 여사(餘事) : 주력(主力)을 투입할 필요가 없는 일. 본업 이외의 일.

19) 부독(不獨) : 접속사로서, ‘~뿐만 아니라’의 뜻임. ‘부단(不但)’과 같은 말임.

『한비자(韓非子) · 고분(孤憤)』에, “법술(法術 :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기술)을 행하기가 어려운 것은 대국(大國) 뿐만 아니라, 소국(小國)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凡法術之難行, 不獨萬乘, 千乘亦然).”고 하였다.

20) 원시(元是) : 본래 ~이다. ‘원(元)’은 ‘본래, 원래’의 뜻이고, ‘시(是)’는 동사로서 ‘~이다’는 뜻임.

21) 충신단위일심덕(忠信壹爲一心德 : 충성[忠]과 신의[信]는 실로 한결 같은 마음의 미덕일세) :

① 단위(壹爲) : 참으로(진실로) ~이다. 단(壹)은 부사로서 ‘참으로, 진실로’의 뜻이고, 위(爲)는 동사로(서면에서만 쓰임) ‘~이다’라는 뜻임.

② 일심덕(一心德) :

☆여러 사람이 한 마음으로 일치함. 본 시에서는 ‘일심일덕(一心一德 : 한 마음 한 뜻)’의 뜻으로 쓰였음.

☆은 마음. 전심(專心). 일심일의(一心一意).

22) 사유(四維) : 나라를 다스리는 데 지켜야 할 네 가지 원칙(‘치국治國의 사강(四綱 : 요점, 법도)’으로도 표현함). 이때의 유(維)는 ‘기강, 법도’의 뜻임.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관자(管子) · 목민(牧民)』에, “나라에는 네 가지의 다스리는 원칙이 있나니, 네 가지 원칙이란 무엇인가? 첫째는 ‘예(禮 : 절도를 지킴)’이고, 둘째는 ‘의(義 : 자신을 과대 평가하지 않음)’이요, 셋째는 ‘염(廉 : 자신의 잘못을 감추지 않음)’이며, 넷째는 ‘치(恥 : 남의 악행을 따르지 않음)’이다(國有四維, 何謂四維, 一曰禮, 二曰義, 三曰廉, 四曰恥).”라고 하였다.

23) 대법(大法) : 기본 법칙. 『순자(荀子) · 유효(儒效)』에, “그 언행에 이미 기본 원칙이 있다(其言行已有大法矣)”고 하였다.

24) 오거만서하용독(五車漫書何用讀 : 다섯 수레인들 잡다한 책 읽어 무슨 소용 있으리) : 본 시구(詩句)는 『장자(莊子) · 잡편(雜篇) · 천하(天下)』에 보이는 것으로 전국시대(戰國時代) 명가(名家)의 한 사람이었던 혜시(惠施)를 폄훼한 내용이다. “혜시

의 학술은 드넓고, 그가 저술한 책은 다섯 수레나 된다. 그러나 그가 언급하는 도는 조리가 없으며, 인사는 대도(大道)에 부합되지 않는다(惠施多方, 其書五車。其道舛駁, 其言也不中).” 본 시에서는 치세(治世)의 이상상(理想像)을 실과한 것에 지나지 않는 명변학(名辯學)에 대한 서예의 비판이 내포되어 있는 듯하다.

① 만서(漫書): 마음이 가는대로 쓴 글[책]. 여기서 ‘서(書)’ 앞에 관형어로 붙인 ‘만(漫)’은 서예의 명변학에 대한 부정적인 의사가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본 시에서는 이 ‘만(漫)’자를 ‘잡다한·난잡한·산란한’ 등의 의미로 보았다.

25) 환고(環顧):

- ① 전면적으로 관찰하다.
- ② 주위를 돌아보다.

26) 일자무성(一字無成): 한 글자(본 시에서는 위의 충忠·신信·효孝·제悌·예禮·의義·렴廉·치恥 중의 하나로 보임)도 수신(修身)을 통해 달성해낸 바 없는 아주 미미한 식견의 사람됨을 표현한 말.

27) 은근작시계아조(慇懃作詩戒兒曹: 간절한 맘으로 시를 지어 아이들을 훈계 하노니):

- ① 은근(慇懃): 은근(慇懃)으로도 쓴다. 정의(情意)가 간절하다.
- ② 아조(兒曹): 아이(자식)들. 조(曹)는 접미사로 ‘... 들, ... 등’의 뜻으로 복수를 나타냄.

시7 ‘낙동강 서쪽언덕[西厓]’을 거닐다가 지난날을 그리워하며 서문을 병기함



詩7. 遊西厓感舊¹⁾并序

신미년(辛未年 : 1571년 : 서애 30세) 겨울, 나는 마침내 ‘낙동강 서쪽 언덕[西厓]’의 바위 주변에 경치 좋은 택지宅地를 얻었기에, 집을 지어서 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곳을 만들려고 하였다. 산을 파내고 기초를 다진 다음, 강변을 따라서 좁다란 길을 틈었다. (그리고는) 돌아가신 아버지(서애 부친: 입암立巖 류중영柳仲郢의 별세 시기는 계유년(癸酉年: 1573년)으로, 서애 32세 때임)을 모시고 그곳을 돌아다니며 감상했는데, 그 후에 그 터가 너무 협소하다는 생각이 들어 북쪽 강가(북담北潭)로 택지를 바꾸어 정사[遠志精舍: 이 정사의 완공 시기는 병자년(丙子年: 1576년) 정월이고, 위치는 북쪽을 향하고 있음. 즉, 북촌대北村宅 뒤편의 강 언덕에 동남향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는 화천(花川: 부용대芙蓉臺 앞의 낙동강) 건너편 부용대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음]를 짓고 왕래하였다. (그 뒤로) 다시는 이곳에 와보지 않았었다. 금년 가을(원지정사가 완공된 1576년 가을로 보임)에, 형님과 함께 와서 지난 자취를 살펴보니, 집터는 그대로 있는 듯이 보였으나, 오솔길은 잡초에 묻혀 어렵듯이 분간할 수 있을 따름이었다. 그로 인해서 비감悲感에 잠겨 읊시律詩 한 수를 짓고, ‘서애(西厓: 하회에서 보아 낙동강 서쪽 언덕을 이르는 명칭)’를 지금부터는 ‘상봉대翔鳳臺’라 부르기로 하였다.

辛未冬, 余始於江西厓石上得勝地²⁾, 欲築室爲藏修之所³⁾. 鑿山修基,

且沿江開細路. 陪先君子遊賞⁴⁾, 其後以其占地頗狹, 移就北潭⁵⁾,

作精舍往來. 不復至此處. 今秋, 與伯氏⁶⁾來尋舊迹, 見基址⁷⁾猶存,

而小逕爲雜草所埋, 略可辨也. 爲之⁸⁾悲感, 作一律⁹⁾西厓,

今改名翔鳳臺.

翔鳳¹⁰ 今名好,
상 봉 금 명 호

상봉대翔鳳臺라 이름붙인 지금의 명칭이
멋지나니,

緣崖¹¹ 舊路橫。
연 애 구 로 횡

언덕을 따라서 옛길이 가로 트였네.

藏修曾有約¹²,
장 수 증 유 약

(여기서) 학습에 전념하자고 일찍이
다짐했었는데,

山水尙含情。
산 수 상 함 정

산수도 아직 그 정취를 품고 있네.

石古孤松老,
석 고 고 송 로

오래 된 바위틈에 노송老松 한 그루
외로운데,

江空片月明。
강 공 편 월 명

인적 없는 강변엔 조각달이 밝으네.

少年陪杖屨¹³,
소 년 배 장 구

젊었을 때 선친先親을 모시고 이곳에
왔었는데,

追憶淚沾纓。
추 억 루 점 영

옛 생각에 눈물이 흘러 갓끈을 적시네.

- 1) 유서애감구(遊西厓感舊) : 낙동강 서쪽언덕을 유람했던 지난날을 그리워하면서) :

① 서애(西厓) : ‘하회에서 보아 낙동강 서쪽 언덕’이란 뜻으로,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慶北 安東市 豊川面 河回里)의 맞은편에 위치하며, 겸암정사(謙巖精舍)에서 하회마을을 향하고 있는 상태에서, 겸암정사의 우측에 위치한 언덕이다. 하회마을을 중심으로 동쪽에는 화산(花山)이 있고, 북쪽에는 부용대(芙蓉臺)가 있으며, 남쪽에는 남산이 있다. 하회마을에서 서쪽으로 강을 건너 있는 산언덕(예천군 지보면 쪽임)을 ‘서애(西厓)’라고 한다. 작자 서애 선생은 이 언덕의 명칭을 자신의 호(號)로 삼고, 그 언덕을 상봉대(翔鳳臺)라고 이름하였다.

② 감구(感舊) : 회념고구(懷念故舊), 즉 ‘지난날을 그리워하다’는 뜻임.

- 2) 승지(勝地) : 경승지(景勝地) : 경치가 좋은 곳. 같은 말로서 보승지(保勝地) · 승경지(勝景地) 등이 있으며, 비슷한 말로서 ‘명승지(名勝地)’가 있음.
- 3) 장수지소(藏修之所) : 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곳. 장수(藏修)는 ‘장수(藏脩)’로도 쓴다. 『예기(禮記) · 학기(學記)』에, “군자가 학문을 함에 대해서, 배운 것을 항상 마음

속에 간직하고, 그것을 익히고 실천하며, 쉬면서도 학예(學藝)를 익히고, 놀고 즐기면서도, 그렇게 해야한다(君子之於學也, 藏焉, 修焉, 息焉, 遊焉, 夫然).”고 하였다. 후한(後漢)의 학자 정현(鄭玄: 127~200)은 이 글에 주(注)를 달아 말하기를, “장(藏)이란 말은 ‘가슴에 뜻을 품는다’는 뜻이고, 수(脩)는 ‘익히다’는 뜻이다(藏謂懷抱之, 習也).”라고 하였다.

그 후로 장수(藏修)는 ‘학습에 전심(專心)하는 것’을 가리켰다. 따라서 위의 ‘장수지소(藏修之所)’는 ‘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곳’이란 뜻이 된다.

4) 배선군자유상(陪先君子遊賞: 선친을 모시고 그곳을 다니며 감상했는데):

① 선군자(先君子):

☆선고(先考: 별세한 아버지)와 같은 말이므로, 망부(亡父)에 대한 경칭(敬稱)이기도 함. 청(淸)나라 문학자인 방포(方苞: 1668~1749)의 산문 「좌충의공일사(左忠毅公逸事)」에,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동향선배 좌충의공(左忠毅公: 명나라 말엽에 청렴 강직한 어사御史 좌광두(左光斗: 1575~1626)의 시호)은 경도(京都) 부근에 학교를 시찰하셨다(先君子嘗言, 鄉先輩左忠毅公視學京畿).”고 한 것이 그 예임. 본 시에서의 ‘선군자(先君子)’는 이 뜻으로 쓰였으며, 작자의 부친 입암(立巖) 류중영(柳仲郢: 1515~1573)을 가리킨다.

☆자거나 타인의 이미 별세한 조부를 이르기에도 한다.

② 유상(遊賞): 유람하며 즐기다(좋아하다).

5) 북담(北潭): 풍산류씨(豐山柳氏) 후손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하회마을의 강 건너편 북쪽에 위치하는 부용대(芙蓉臺) 앞을 흐르는 낙동강은 바로 부용대 앞에서 수심이 깊어지면서 소(沼)를 형성하는데, 이곳을 하회마을 사람들은 ‘북담’ 혹은 ‘옥연소(玉淵沼)’라 칭했다고 함. 또한 하회마을 사람들은 하회마을을 굽이돌아 흐르는 낙동강을 ‘화천(花川)’으로 칭하기도 하였다.

6) 백씨(伯氏): 형님을 높여서 이르는 말. 본 시에서는 작자 자신의 형님인 겸암(謙菴) 류운룡(柳雲龍: 1539~1601)을 가리킨다.

7) 기지(基址): 기지(基趾)로도 쓰고, 기지(基趾)로도 쓴다.

① 택지(宅地).

8) 위지(爲之): 그로 인해서. ‘위(爲)’는 개사(介詞: 명사나 대명사 또는 명사성 어구의 앞에 위치하여 동사나 형용사와의 시간·방향·장소·대상·목적·방식·비교·피동·결과 등의 관계를 나타내는 품사)로서, ‘그러므로(그래서)’, 이 때문에, 그런 까닭에 등의 뜻을 나타낸다.

9) 율(律): 율시(律詩). 당(唐)나라의 근체시(近體詩)의 한 유형으로, 여덟 구로 되어 있는 한시체(漢詩體). 한 구(句)가 다섯 자로 되어 있는 것을 오언율시(五言律詩)라 하고, 일곱 자로 되어 있는 것을 칠언율시(七言律詩)라고 한다.

10) 상봉(翔鳳): 즉 상봉대(翔鳳臺)를 칭한다. 자세한 것은 본 시의 서문과 주석1)의 ①을 참조바람.

11) 연애(緣崖): 언덕을 따라서, ‘연(緣)’은 개사(介詞)로, ‘~을 따라서, ~에 연하여’의 뜻임.

12) 장수증유약(藏修曾有約: (여기서) 학습에 전념하자고 일찍이 다짐했었는데):

① 장수(藏修): 학습에 전념하다. 본 시의 주석3)를 참조 바람.

② 증(曾): 일찍부터.

13) 장구(杖履) : ‘선친(先親)’을 가리킨다.

- ① 연장자나 존숭(尊崇)하는 사람에 대한 경칭(敬稱). 당(唐)나라 시인 두보(杜甫 : 712~770)의 시 「영회(咏懷)」(제2수)에, “남쪽으로 형산(衡山)의 최고봉인 축융봉(祝融峰 : 호남성 형산의 최고봉으로, 도사들이 단약(丹藥을 만들던 곳)에 가서 머물며, 애써 연단술사(練丹術師)님들과 친해져야 할까보네(南爲祝融客, 勉強親杖履). 노인성(老人星 : 수성(壽星이라고도 함 : 옛사람이 장수의 상징이라 여기던 남극에 빛나는 별 이름)에게 장수불사를 부탁할 수 있다면, 나는 다시 (배를 타고) 남쪽으로 가서 나부산(羅浮山 : 광둥성 박라현(博羅縣)에 위치한 도교 명승지. 동진(東晉)의 도사 갈홍(葛洪)이 이 곳에서 연단(練丹)하였음)을 방문하러 노쇠한 걸음이지만 힘써 걸으려네(結託老人星, 羅浮展衰步).”라고 읊었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으며, 서애의 부친 입암(立巖) 류중영(柳仲郢:1515~1573)을 가리킨다.
- ② 지팡이와 신. 옛적 예절에 의하면, 나이 오십세 된 노인은 지팡이를 짚을 수 있었다. 또한 젊은 사람들은 방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문 밖에서 신을 벗어(은돌방이 아닌 중국의 전통가옥은 보통 신발을 신고 실내에 들어가는 구조임) 연장자(年長者)에 대한 예를 표했으며, 연장자가 먼저 입실(入室)했다.
『예기(禮記)·곡례(曲禮)상(上)』에, “군자를 모시고 앉았을 때에, 군자가 하품을 하거나 기지개를 켜며, (겉에 놓인) 지팡이나 신발에 손을 대거나, 해가 저무는 것을 보거든, 모시고 앉은 사람이 자리에서 물러날 의사를 전한다(侍坐於君子, 君子欠伸, 撰杖履, 視日蚤莫, 侍坐者請出矣).”고 하였다.(위 예문에서 ‘선撰’은 지〈持〉:만지다)의 뜻이며, ‘조모(蚤莫)’는 조모(朝暮 : 해뜰녘과 해질녘 또는 아침과 저녁)의 뜻임)
- ③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거닐다는 뜻으로도 쓴다. 당(唐)나라 시인 두보(杜甫 : 712~770)의 시 「사남석망(祠南夕望)」에 “유흥(遊興)이 일자 (나룻배에서 내려서도) 지팡이 짚고 천천히 거니는데, 상부인(湘夫人 : 전설상의 상수(湘水)의 신)의 사당은 보이지 않고 하늘가에 운사(雲沙)만 아득하네(興來猶杖履, 目斷更雲沙).”라고 읊었다.

시8. 『대학』을 읽고 느낀 바 있어 지은 시 열 수

詩8. 讀大學有感十首¹⁾

10월 29일 밤, 잠자리에 누워서, 『대학大學』의 ‘격물치지설格物致知說’을 생각하다가, 문득 좀 더 깨우친 부분이 생겨서, 아침에 일어나 절구시絶句詩 열 수를 지었다. 내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것을, 학문에 능통한 사람이 보면, 또한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겠다.

十月二十九日夜臥，思大學²⁾格物致知說³⁾，恍然似有悟處，朝起作十絕，
 십 월 이 십 구 일 야 와 사 대 학 격 물 치 지 설 황 연 사 유 오 처 조 기 작 십 절
 不知自知，學者觀之，又以爲如何也。
 부 지 자 지 학 자 관 지 우 이 위 여 하 야



其一

[1]

大學⁴⁾眞功在一明，
 대 학 진 공 재 일 명

『대학』의 참된 공부는 명덕明德의
 본체를 밝힌다는 한 마디에 있나니,

八條詳說是修爲⁵⁾。
 팔 조 상 설 시 수 위

팔조목八條目的 상세한 설명도 다
 수신修身의 내용일세.

須知格致皆心法⁶⁾，
 수 지 격 치 개 심 법

사물도리 궁구窮究하여 완전한 지식에
 이르게 함[格致]은 모두 심성수양법
 [心法]임을 필히 알아야 할지니,

莫向陳編枉索知⁷⁾。
 막 향 진 편 왕 색 지

고서古書에서 왜곡된 지식 탐구하진
 말게나.

其二

[2]

陳編不是誤了人，⁸⁾
진 편 불 시 오 료 인

고서古書가 독자를 오도誤導하는 게
아니라,

人逐陳編却失眞⁹⁾。
인 축 진 편 각 실 진

독자가 고서의 자구字句만을 추구하다가
그 진의眞意를 그르친다네.

苟辦此心能作主¹⁰⁾，
구 관 차 심 능 작 주

만약 이런 마음 지니고 뜻한 바의
공부해낼 수 있다면,

尋行數墨亦精神¹¹⁾。
심 행 수 묵 역 경 신

자구字句에 치중하며 독서함도 본인의
마음일세.

其三

[3]

切磋於物已成形¹²⁾，
절 차 어 물 이 성 형

학문을 닦아서 이미 틀이 갖춰졌다면,

磨琢¹³⁾元來只在精。
마 탁 원 래 지 제 정

수양하는 것은 원래 본인의 정신에
달렸을 뿐일세.

若道知行元不屬¹⁴⁾，
약 도 지 행 원 불 속

앎知과 행行함이 본래 연결된 것이
아니라면,

何緣知處已能行¹⁵⁾。
하 연 지 처 이 능 행

어찌 앎[知]의 경지에 이르고 나서야
행할 수 있단 말인가?

其四

[4]

學要鞭辟是嘉言¹⁶⁾，
학 요 편 벽 시 가 언

학습에 지도편달 필요하다함은 좋은

말이니,

功到心中事事¹⁷⁾眞。
공 도 심 중 사 사 진

연구는 심중에 사무쳐서 해야 매사가
성실해진다네.

若使外心資口耳¹⁸⁾，
약 사 외 심 자 구 이

딴마음 품고 공부하면서 그저 귀로
들은 걸 입으로 말하며，

高談性命亦迷人¹⁹⁾。
고 담 성 명 역 미 인

거침없이 본성과 천명을 논한다면 이
또한 사람을 미혹하는 것이 되리라.

其五

[5]

晦齋於道亦功深²⁰⁾，
회 재 이 도 역 공 심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은
도학[性理學]에도 연구가 깊었나니，

能發前人未發言²¹⁾。
능 발 전 인 미 발 언

앞사람이 언급한적 없는 논리를 능히
밝혀내었네.

只恨經文無一款²²⁾，
지 한 경 문 무 일 관

다만 거슬리는 것은 경문經文의
순차順次에 조리가 없으니，

八條先後又何論²³⁾。
팔 조 선 후 우 하 론

팔조목八條目的 선후논리는 또 어떻게
논하겠는가?

其六

[6]

知從何起起在心，
지 종 하 기 기 재 심

앎은 어디서 생겨 마음에 발동되는
것일까?

致到窮時²⁴⁾力更深。
치 도 궁 시 력 경 심

앎의 확대[致知]는 사물이치 궁구[窮理] 할

室中有寶人不識，
실 중 유 보 인 불 식

一燭明處²⁵⁾總能尋。
일 촉 명 처 총 능 심

其七

千里元從一毫差，
천 리 원 종 일 호 차

精之一之²⁶⁾不在他。
정 지 일 지 부 제 타

許下曹公眞漢賊，²⁷⁾
허 하 조 공 진 한 적

還從官渡討袁家²⁸⁾。
선 종 관 도 토 원 가

其八

母憂認賊而爲子²⁹⁾，
모 우 인 적 이 위 자

認得親時子自知。
인 득 친 시 자 자 지

때 지력^{知力}이 더 깊어진다네.

집안에 보물 있어도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하나니,

촛불 밝힌 책상 앞에서 결국은
(그 보물) 찾아낼 수 있다네.

[7]

천리길에 출발부터 조금이라도 차이
난다면,

정밀한 생각과 한결같은 행함이
그에게 없었음일세.

(1만 병력 동원한) 허하현許下縣의
조조曹操는 진정 한종실漢宗室의
역적이지만,

신속하게 관도官渡로 가서
(10만 대군의) 원소袁紹를 토벌했다네.

[8]

모친상 당해서야 불효한 걸 인정하며
자식노릇 하게 되고,

아버이를 알아볼 때 자식은 자신을
깨우친 것일세.

我有我心明似日，
아 유 아 심 명 사 일

내 마음 내게 있으니 해와 같이 밝게
하여,

不容邪妄謾侵欺³⁰⁾。
불 용 사 망 만 침 기

불합리한 것 용인 말고 자신을 해치거나
속이지 말게.

其九

[9]

格字應須兩義兼³¹⁾，
격 자 응 수 양 의 겸

(격물치지格物致知의) 격格자는 반드시 두
가지 뜻을 겸해야 하나니,

求端得失在毫釐³²⁾。
구 단 득 실 재 호 리

학문의 시비곡직是非曲直 가리는 단서는
미세한 것에 있다네.

還知萬物皆具我³³⁾，
환 지 만 물 게 구 아

만물이치가 모두 내 맘 속에 갖춰져
있음도 알아야 할지니,

一念存存戒外馳³⁴⁾。
일 념 존 존 계 외 치

한결같은 마음 보존하여 밖으로
치달는 생각 경계해야 하네.

其十

[10]

聖學淵源十六言³⁵⁾，
성 학 연 원 십 육 언

유학儒學의 근원은 ‘마음 통해 전해진
열여섯 자[十六字心傳]’에 있는데,

知人知道總關心³⁶⁾。
지 인 지 도 총 관 심

인심人心 알고 도심道心도 알라하니
모두 ‘심心’과 관련되네.

自從訓詁多名物³⁷⁾，
자 종 훈 고 다 명 물

훈고학訓詁學을 추구하면서 명저서
허다해졌으나,

虞夏門庭³⁸⁾草木深。
우 하 문 정 초 목 심

순임금과 우임금 궁궐터엔 초목만
무성하다네.

1) 독대학유감십수(讀大學有感十首): 「서애연보(西厓年譜)」에 의거하면, 본 시는 경자년(更子年: 1600년, 선조 33년, 서애 59세) 10월에 본 시를 지었음.

2) 대학(大學):

① 유교(儒敎) 경전(經典)의 하나. 공자(孔子: BC 561~BC 479)의 가르침을 정통(正統)으로 나타내는 ‘사서(四書)’의 하나.

본래 『예기(禮記)』의 제42편이었던 것을 북송(北宋)의 사마광(司馬光: 1019~1086)이 처음으로 따로 떼 내어 『대학광의(大學廣義)』를 만들었다. 그 후 남송(南宋)의 주자(朱子: 1130~1200)가 『대학장구(大學章句)』를 만들어, 경(經: 옛 성현들의 유교사상과 교리를 써 놓은 책) 1장(章), 전(傳: 경經을 설명한 것) 10장으로 구별하여 주석(註釋)을 가하고, 이를 존중하면서부터 널리 세상에 퍼졌다.

주자(朱子)는 ‘경(經)은 공자의 말을 그 제자인 증자(曾子: BC 505~BC 436)가 기술한 것이고, 전(傳)은 증자의 뜻을 그 제자가 기술한 것’이라고 단정하였다. 경(經)에 있어서는 ‘명명덕(明明德: 하늘이 사람에게 부여한 밝은 덕성, 즉 도덕성을 밝히는 일)’과 ‘친민(親民: 백성을 친애함)’, 그리고 ‘지어지선(止於至善: 지극한 선물의 경지에 머무르는 일)’을 대학의 ‘삼강령(三綱領)’이라 하고, ‘격물(格物: 실재하는 사물이 도리를 철저히 구명究明하여 궁극에 이룸) · 치지(致知: 사물의 도리를 끝까지 궁구窮究한 후에 나의 앎에 미진함이 없게 함을 이르는 말) · 성의(誠意: 정심(正心) · 수신(修身) · 제가(齊家) · 치국(治國) · 평천하(平天下)’의 팔조목(八條目)으로 정리하여 유교의 윤곽을 제시하고 있다.

실천과정으로서는 8조목에 3강령이 포함되고, 격물(格物) 즉 사물의 이치를 구명(究明)하는 것이 첫 걸음이라고 하였다. 이것이 평천하(平天下)의 궁극적 목적과 연결된다는 것이 대학의 논리이다.

② 대학(太學)에서 배우고 익히는 학문 내용이나 이념. 즉 ‘큰 사람이 되게 하는 학문(大人之學)’의 뜻임.

3) 격물치지설(格物致知說): 『대학(大學)』에서 논한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여 지식을 완전하게 한다’는 논리의 학설. 이는 중국 고대 인식론의 중요 명제(命題) 중의 하나이다. 사물 하나하나에 임하여 그것의 이치를 궁구하여(格物窮理), 이를 극한까지 추론하여, 내면의 나의 앎을 완전케 이르게 한다(致知)는 것이다.

① 격물(格物): ‘사물의 이치를 궁극적으로 깊이 탐구하다’는 뜻이다. 『예기(禮記) · 대학(大學)』의 경문(經文) 1장 4~5에, “바른 앎은 곧 사물의 도리를 터득함에 있으니(즉, 올바르게 안다는 것은 곧 사물에 내재하고 있는 깊은 도리를 바르게 파악함에 있으니), 사물의 도리를 잘 구명究明한 후에, 사물을 참되게 알 수 있다(致知在格物, 格物而后, 知至).”고 하였다.

역대로 격물(格物)에 대한 해석 중에, 후한(後漢: 동한東漢)의 학자 정현(鄭玄: 127~200)은 주(注)를 달아 말하기를, “격(格)은 이르다(도달하다)는 뜻이고, 물(物)은

사(事 : 사물)와 같다(格來也, 物有事也). 사람이 선에 대해서 얹어 깊으면, 좋은 일이 도래(到來)하고, 사람이 악에 대해서 얹어 깊으면, 나쁜 일이 도래한다(其知於善深, 則來善物, 其知於惡深, 則來惡物). 사물이 사람에 따라서 좋은 일이 도래한다는 말이다. 여기에서의 치(致 : 즉 치지致知에서의 치致를 말함)는 간혹 지(至)로도 쓴다(言事緣人所好來也. 此致或爲至).”고 하였다.

또한 주희는 『대학장구(大學章句)』에서 ‘격물’의 주석에 대하여, 그의 집주(集注)에서 말하기를, “격물(格物)은 곧 사물에 임하여, 도리를 구명(究明)함이다. 한 가지 사물에는 가장 좋은 한 가지 도리가 있다. 고로 가장 좋은 도리를 구명한 다음에, 사물을 접촉해야, 비로소 모든 일이 도리에 맞게 된다(格物窮理. 一物便有一理. 窮理到後, 遇事觸物, 皆撞著這道理).”고 하였다.

그는 또 말하기를 “격물은 하나하나의 사물의 도리를 분별해서 말한 것이고, 치지(致知)는 전체적인 인식을 말한 것이다(格物是細說, 致知是全體說).”고 하였다.

『주자문집(朱子文集)』 권51의 「답황자경(答黃子耕)」에서 말하기를, 격물은 외적 공부이고, 치지는 내적 공부이다. 여기에 대한 매우 명료한 해답은 주희가 그의 문인 황자경(黃子耕 : 생몰년 미상)의 문의에 답한 내용이다. “격물이란 단지한 개의 구체적인 사물 위에서, 그 한 가지 사물의 이치를 온전하게 탐구하는 것이다(格物只是就一物之上, 窮盡一物之理). 치지만 그렇게 구체적으로 물리(物理)를 탐구하여 얻은 후에, 나의 지식 자체를 또한 미치지 못하게 하는 곳이 없게 하려는(내면적 행위를 지칭하는 것)이니, 만약 이러한 지식을 추론해나간다면 치지(致知)에 이를 것이다(致知便知是窮得物理盡後, 我之知識無不盡處, 若推此知識而致之也). … 다만 능히 격물을 제대로 하기만 한다면, ‘알’이란 자연히 이르게 되는 것이니 스스로 완성을 향해 가는 것이니, 격물과 치지는 별개의 것이 아니다(但能格物, 則知自至, 不是別一事也). 그러므로 ‘격물’과 ‘치지’는 모두 ‘궁리(窮理)’라는 하나의 과정에 속하는 것이다(格物致知只是窮理)”고 하였다.

주희는 이처럼 격물과 치지를 인간의 외면과 내면의 과정으로 일단 분별하여 의미를 부여했다. ‘격물’이란 내가 몰랐던 것들을 새롭게 탐구하여 알아가는 과정이다. 그것은 즉물(卽物)의 궁리이므로 나의 내면적 성찰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을 ‘외면’이라고 말할 수 있다. ‘치지’란 그렇게 물사(物事)에 즉하여 얻은 지식을 이미 내가 습득하여 알고 있거나 내면의 추리로 지식과정을 완성시켜 나가는 과정이다. 따라서 ‘치지’는 나의 내면적 성찰의 과정인 것이다.

위 편지에서 가장 두드러진 논지는 바로 ‘격물’이란 구체적인 하나의 사물로부터 하나의 이치를 터득하는 특수한 사례에 속하는 탐구과정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에 비하면 ‘치지’는 특수한 사례가 아닌 일반적 추론, 그리고 나의 지식의 보편성을 획득해가는 내면적 과정이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격물’은 개별적 사물의 사례이고, ‘치지’는 일반화의 추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은 김용옥 저 『대학·학기』 한글 역주를 참고함.

- ② 치지(致知) : ‘사물의 도리를 바르게 알다’는 뜻이다. 『예기(禮記)·대학(大學)』의 경문(經文) 1장 4절에, “그 뜻을 성실하게 하고자 하는 자는 (즉, 자기의 뜻을 성실하게 하려면) 먼저 바르게 알아야 한다(즉, 먼저 모든 사물의 실재와 도리를 잘 알아야 한다). 앎은 곧 사물의 도리를 터득함에 있다(즉, 올바르게 안다는 것은 곧 사물

에 ‘내재하고 있는’ 깊은 도리를 바르게 파악함에 있다(欲誠其意者, 先致其知。致知在格物).”고 하였다.

(여기서 ‘치致’는 ‘이르다, 도달하다’, ‘지知’는 ‘바르게 앎’이니, ‘치지’는 크게는 우주 천지 자연 만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 작게는 자기가 처리하려는 사물의 도리를 바르게 앎다는 뜻임)

역대 유학자들은 이 ‘치지’에 대한 상이한 해석을 제시하였다.

후한(後漢)의 학자 정현(鄭玄 : 127~200)은 “‘치지’란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선악과 길흉의 시말(始末)을 알게 한다는 것이다(致知是使人, 知善惡吉凶之所終始).”고 하였다.

또한 『대학장구(大學章句)』에서의 ‘치지’에 대한 주희의 견해는 “치(致)는 극한까지 추론한다는 뜻이다. (즉 사물의 도리를 끝까지 구명究明한다는 뜻이고), 지(知)는 식(識)과 같은 것이다. 나의 지식을 끝까지 추구하여, (즉 사물의 도리를 끝까지 구명하여), 자기의 앎에 미진함이 없고자 함이다(致推極也, 知猶識也。推極吾之知識, 欲其所知無不盡也).”고 하였다.

이밖에도 명(明)나라 유학자 왕수인(王守仁 : 왕양명王陽明의 본명 : 1472~1528)은 “‘치지’란 곧 내 마음이 양지(良知 : 일종의 천부적 도덕의식으로, 선본성善本性임)에 이르게 함이다(致知即致吾心之良知)”고 인식하였다. 그는 양지는 곧 천리(天理 : 주자가 말하는 성性이고, 『대학』에서 말하는 명덕明德임)로서 이는 사람마다 다 가지고 태어나는데, 사람마다 모든 객관적 사물에 이 양지를 구명하여, 행위가 절로 이치에 합당하도록 해야 하는 것인즉, 이것이 바로 윤리도덕의 표준이라고 이해하였다. 이러한 “양지에 이르고자 하는 노력이, 바로 치지격물이다(致良知, 致知格物).”고 하였다. ‘격물치지(格物致知)’에 대한 자세한 것은 본 시집의 「시44」의 주석1) 양명학(陽明學) 조항과 주석2) 주자학(朱子學) 조항 및 주석3) 격물치지(格物致知)에 대한 주희와 왕수인의 견해 조항을 참조 바람. 또한 장기근(張基謹) 저 『대학장구신강(大學章句新講)』과 도올 김용옥 저 『대학, 학기 한글역주』를 참조 바람.

4) 대학진공제일명(大學眞功在一明 : 『대학』의 참된 공부 ‘선한 본성 밝히자[明]’는 한 마디에 있나니) :

****서애주석(西厓注釋) :** 서애는 본 구절에 대하여, “『대학』에서 수명덕(修明德)이라 하지 않고, 명명덕(明明德)이라고만 말하였는데, ‘명(明)’자가 인식[知]에 속하는 것인지 행위[行]에 속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식[知 : 앎]과 행위[行]에 공용(共用)해도 잘못된 없는지의 여부를 모르겠다. 마땅히 고려해 봐야지 대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大學不言修明德*, 只說明明德*, 不知明字屬知乎, 抑通*知行無欠否? 當着眼*看不可草草*).”고 하였다.

***수명덕(修明德) :**

수(修)는 동사로서 ‘수행하다’는 뜻이고, 명덕(明德)은 목적어로서 ‘천부적인 덕성, 곧 도덕성’이다. 따라서 ‘수명덕’은 ‘천부적으로 잠재된 덕성을 수행하다’는 뜻이 된다.

『대학』에서 핵심적인 내용으로 강조한 ‘명명덕(明明德)’의 ‘명(明)’은 동사로서 ‘밝히다, 발현(發現 : 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드러냄)하다’는 뜻이다. 이때의 ‘명’자가 ‘지(知 : 바르게 앎, 인식함)’에 속하는가? ‘행(行 : 행위, 실행)’에 속하는가 하는 것이

서애의 의문이다. 덕성은 마음으로 인식한다고 해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마음속에서 선본성(善本性)인 덕성을 인식하지 못하면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명’자의 의미를 지(知)와 행(行)에 공용하는 뜻으로 쓰면 안 되는가 하는 것이 서애의 생각이다.

*명명덕(明明德) :

명(明)은 동사로서 ‘밝히다, 발현하다’는 뜻이다. 『대학장구대전소주(大學章句大全疏注)』에는 명덕(明德)에 대하여, “주자가 말하기를, 하늘이 사람이나 만물에게 준 것을 명(命)이라 하고, 사람이나 만물이 하늘로부터 받은 것은 성(性)이라 한다. 몸을 주재하는 것이 마음이다. 하늘로부터 받고 광명정대한 것을 명덕이라 한다(朱子曰, 天之賦於人物謂之命, 人與物受之者謂之性. 主於一身者謂之心. 有得於天而光明正大者謂之明德).”고 하였다.

결국, 명덕은 하늘이 사람의 마음속에 심어준 본성적 도덕성이다. 주자가 여기서 말하는 성(性)은 하늘의 도리를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는 본연지성(本然之性)이다. 따라서 ‘명명덕(明明德 : 명덕을 밝게 나타냄)’은 곧 ‘선본성(善本性)을 발현하여 덕을 세우다’는 뜻이다. 천리(天理)를 따르고 실천하여 얻은 좋은 성과가 덕(德)이라는 것이다.

*억통(抑通) :

아니면, 공용하다. 즉, 억(抑)은 접속사로 쓰여, ‘아니면. 또는, 만약 ~한다면. 그 래서(제다가)’ 등의 뜻을 나타내고, 통(通)은 ‘공용(共用)하다’의 뜻으로 쓰였음.

*착안(着眼) : ☆고려하다. ☆관찰하다.

*초초(草草) : ☆대충하다. ☆초조해 하다(근심하는 모양). ☆허둥지둥하는 모양.

- 5) 팔조상설시수위(八條詳說是修爲 : 팔조목八條目的 상세한 설명도 다 수신修身의 내용일세) :

**서애주석(西厓注釋) : 서애는 본 구절에 대하여, “격물치지(格物致知 : 사물의 도리를 구명하여 바르게 파악함)가 (다음 구절의 동사) 성(誠)과 정(正) 및 수(修)에 연계될 뿐 아니라, 단지 명(明)자 한 자를 제거했던 까닭에, 정심(正心 : 마음을 바르게 잡음)과 수신(修身 : 몸을 잘 닦음) 구절을 수행하는 관문을 통과시키는 관건이기도 하다. 그 이하 글자를 살펴보면, 더구나 다른 방법은 없다(不但格致*連誠正修, 只消一明字, 故章句正心修身救病處*. 只下察字, 更無別法).”라고 하였다.

*격치(格致) :

격물치지(格物致知)의 약어. 본 시의 주석3)을 참조 바람.

*구병처(救病處) :

직역하면, ‘병을 고치는 곳’이다. 이때의 ‘구(救)’는 ‘치(致 : 고치다, 치료하다)’의 뜻이다. 마음을 바로 잡지 못하면 행동으로 육신을 수행할 수는 없다. 이것은 배우는 사람의 병이다. 마음을 바로 잡고[正心], 이어서 행(行)의 극(極)인 몸을 닦는[修身] 시발점은 심(心)의 극(極)인 격물치지(格物致知)에 있다. 환언하면, 정심(正心)과 수신(修身)의 난관을 극복하는 시발점이자 관건은 격물치지기 때문에 위와 같이 의역하였다.

- ① 팔조(八條) : ‘8조목(八條目)’을 가리킨다. (『대학』의 기본 도리는 먼저 위정자가) 자신의 밝은 덕성을 밝혀내야 하고, (다음으로 백성을) 사랑으로 교화해서 새롭게 혁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위정자와 만민이 함께) 지극한 선의 경지에 가서 머물러야

한다(明明德，親民。止於至善). 이것이 『대학』의 핵심인 삼강령(三綱領: 세 가지 일의 근본이 되는 줄거리)이다.

이 삼강령을 ‘바르게 실천하기 위한 단계를 여덟 조목으로 분류해 놓은 것’을 ‘8조목’이라 한다. 즉, 그 첫 단계로, ‘사물의 도리를 끝까지 구명(究明)해야 하고’, (그런 다음이라야) ‘사물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넓힐 수 있고’, (사물을 참되게 안 후에) ‘뜻을 진실하게 세울 수 있고’, (그런 연후에야) ‘마음을 바르게 잡을 수 있고’, (그런 연후에야) ‘몸을 잘 닦을 수 있고’, (그런 연후에야) ‘집안을 가지런하게 할 수 있고’, (그런 연후에야)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고’, (그런 연후에야), ‘천하를 평화롭게 할 수 있다’(格物，致知，誠意，正心，修身，齊家，治國，平天下)는 것이다.

간략하게 말하면, 격물(格物)·치지(致知)·성의(誠意)·정심(正心)·수신(修身)·제가(齊家)·치국(治國)·평천하(平天下)가 8조목이다. 『대학』의 사상에 따르면, 3강령 8조목 모두가 ‘수신(修身: 심신을 도야하여 덕을 함양하는 것)’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격물(格物)·치지(致知)·성의(誠意)·정심(正心)’은 ‘수신’의 방법이고, ‘명덕(明德)’의 일에 속한다. ‘제가(齊家)·치국(治國)·평천하(平天下)’는 ‘수신’의 효용[功用]이고, ‘친민(親民)’의 일에 속한다. ‘수신’의 가장 완전한 수준에 도달한 것이 곧 ‘지선(至善)’이다.

(이상은 중국의 철학자 풍우란(馮友蘭: 1895~1990) 저, 박성규(朴星奎) 역의 『중국철학사』 ③을 참조함.)

② 수위(修爲):

☆수행(修行: 행실이나 학문 또는 기예나 종교적 교리를 닦아 실행함)하다.

☆실행(하다).

☆닦다(품행이나 도덕을 바르게 다스리다. 학문을 배우고 익히다).

6) 수지격치개심법(須知格致皆心法: 사물도리 궁구窮究하여 완전한 지식에 이르게 함[格致]은 모두 심성수양법[心法]임을 필히 알아야 할지니):

① 격치(格致): 격물치지(格物致知)의 약어. 본 시의 주석3)을 참조 바람.

② 심법(心法): 참된 심성을 수양하는 방법. 뜻이 참되어야, ‘마음이 바르게 되고[正心]’, 마음이 바르게 되어야, ‘사물의 참모습에 도달하게 되고[格物]’, 그런 연후라야 ‘올바른 앞에 도달하기 때문이다[致知]’.

서애가 본 뜻에서 표현한 뜻은 결국, ‘격물치지(格物致知: 사물의 이치를 끝까지 탐구하여 올바른 앞인 궁극에 도달함)’의 목적은 바로 ‘참된 심성을 수양함[心法]’에 있다고 봐야할 것이다.

『서경(書經)·대우모(大禹謨)』에서 말하기를, “인심은 위태롭고, 도심은 은미(隱微)하기 때문에, 오로지 (인심과 도심)을 세심하게 분별하고, 오직 도심만을 한결 같이 간직해서, 사람의 마음은 사욕으로 홀려 오직 위태롭기만 하고, 도에 부합되는 마음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극히 알기 어려우니, 오로지 정밀하게 생각하고 오로지 마음을 한결같이 순일하게 하여, 진실로 그 중정(中正)의 도를 취하도록 하라(人心惟危，道心惟微，惟精惟一，允執厥中).”라고 하였다.

송나라 유학자 채침(蔡沉)은 그의 『서경집전서(書經集傳·序)』에서 말하기를, “정밀하게 생각하고 (마음을) 한결같이 순일하게 하여, 중정(中正)의 도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요·순·우로부터 전수받은 심법이다(精一執中，堯，舜，禹 相

授之心法也)。”라고 하였다. 주희는 『중용장구(中庸章句)』에서, “이 『중용장구』는 곧 공문(孔門)이 전수한 심법(心法)인데, 자사(子思)가 그것이 오래되면 차질이 생길까 두려워하여, 이를 글로 기록하여, 맹자에게 전수했다(此篇乃 孔門傳授心法, 子思恐其久而差也, 故筆之於書, 以授 孟子).”고 하였다. 이상의 예문에서 보다시피, 본 시구에 보이는 ‘심법(心法)’은 바로, 요·순·우로부터 전수된 것으로, 이후에 공문(孔門)이 또한 이를 이으면서, 자기 자신의 도덕심을 함양하는 성학(聖學)의 연원이 되었다. 성인(聖人)의 학문은 도심이 기초이기 때문에, 또한 도학(道學)이라고 일컫게 되었으며, 이에 요·순·우의 도통심법이 세상에 출현하게 되었음.

- 7) 막향진편왕색지(莫向陳編枉索知 : 고서古書에서 왜곡된 지식 탐구하진 말게나) :
****서애주석** : 서애는 ‘심법(心法)’의 핵심을 정확하게 해두지 않으면 “사람들을 상당히 놀라게 할 것 같다(似可駭)”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
 ① 향(向) : 동사로써, ‘~에 쏠리다. 접근하다’.
 ② 진편(陳編) : 고적(古籍), 고서(古書)
 ③ 왕색(枉索) : 왜곡하여 탐색하다.
- 8) 진편불시오료인(陳編不是誤了人 : 고서古書가 독자를 오도誤導하는 게 아니라) :
 ① 인(人) : 독자를 가리킨다.
- 9) 인축진편각실진(人逐陳編却失真 : 독자가 고서의 자구字句만을 추구하다가 그 진의眞意를 그르친다) :
****서애주석** : 서애는 “글이 사람에게 누를 끼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이 글의 진의(眞意)에 누를 끼친다(不是書累人, 却是人累書).”라고 하여, 독자가 책을 보면서 자기주관에 빠져 작가의 의도를 오독(誤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① 축(逐) : 추구하다.
 ② 실진(失真) :
 ☆본의(本意)나 진면목을 잃다(찾지 못하다, 그르치다).
 ☆진상(眞相)과 어긋나다.
- 10) 구판차심능작주(苟辦此心能作主 : 만약 이런 마음 지니고 뜻한 바의 공부 해낼 수 있다면) :
 ① 판(辦) :
 ☆구비하다. 지나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음.
 ☆처리하다. ~을 하다.
 ② 능작주(能作主) : 어떤 일에 완전히 책임을 지고 능히 결정을 해내다.
- 11) 심행수묵역정신(尋行數墨亦精神 : 자구字句에 치중하며 독서함도 본인의 마음일세) :
 ① 심행수묵(尋行數墨) : 독서하는데 문장의 자구에만 치중하여 문장 밖의 참뜻을 깨닫지 못함을 이르는 말이다. 심(尋)은 ‘탐구하다’, 행(行)은 ‘글의 줄, 수(數)를 세다: 수효를 헤아리거나 꼽다’, 묵(墨)은 ‘문자를 뜻한다’.
 ② 정신(精神) : 마음의 자세나 태도를 가리킨다.
- 12) 절차어물이성형(切磋於物已成形 : 학문을 닦아서 이미 틀이 갖춰졌다면) :
****서애주석** : 서애는 이 구절을 “격치(格致 : 격물치지格物致知)”라고 주석하고 있음.
 추론컨대, 서애는 본 시구(切磋於物已成形 : 옥석玉石을 자르고 갈아서 이미 형태가

이루어졌다면)에서 장인(匠人)이 옥석을 ‘절·차(切磋)’, 즉 톱으로 자르고[切] 줄로 쓸어 닦아서[磋] 옥석의 형체를 부각시키는 과정을 바로 학자(學者)가 ‘물(物)에 임하여[格] 그것의 도리를 하나하나 구명(究明)해 나감으로써, 사물의 이치를 올바르게 인식하는데 이르게 하는[致] ‘학문’과 동일시하고 있다. 말하자면, 전자에서 원석(原石)을 만인이 감상할 수 있는 예술품으로 만들자면, 반드시 장인(匠人)의 손에 의한 ‘절차(切磋)’의 과정을 거쳐야하듯이, 우리 인간도 성현(聖賢)이 되고자 한다면, 후자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외물(外物)에 나아가서 그것의 물성(物性)을 밝혀내어[格], 자신의 인식[知]이 올바르게 함으로써, 크게는 천지 자연 만물에 대하여, 작게는 자기가 처리하려는 사물에 대하여, 내면적 성찰이 깊어지도록 하는 학문을 닦아야 한다는 것이다.

① 절차(切磋) : ‘절차(切磋)’로도 쓴다.

☆이는 골각(骨角) : 뼈와 뿔을 아울러 이르는 말)을 자르고 줄로 쓸어서 닦을 말한 것으로, 학문을 하는데 각고(刻苦)의 노력을 기울이거나, 성정(性情)을 도야하는데(즉 노력수양을 하는데) 부단히 노력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로 쓴다.

『순자(荀子) · 천론(天論)』편에, “무릇 군신 사이의 의리나, 부자(父子) 사이의 친함이나, 부부 사이의 분별 같은 것은, 날마다 부단히 노력하며 멈춰서는 안 될 것들이다(若夫君臣之義, 父子之親, 夫婦之別, 則日切磋而不舍也).”고 하였다.

이때의 ‘절차(切磋)’는 ‘절차탁마(切磋琢磨)’에서 온 말로, 이 용어가 처음 보이는 자료는 『시경(詩經) · 위풍(衛風) · 기오(淇奥)』에서이다. “훌륭하신 우리 님이여, (상이象牙를) 잘라서 (줄로) 쓸어 다듬어 놓은 듯 하고, (옥석玉石을) 쪼아서 갈아 놓은 듯 하네(有匪君子, 如切如磋, 如琢如磨).”라고 읊었다. 이 글을 가지고 『대학(大學) · 전문(傳文)』에서는 “여절여탁(如切如琢)이란 말로 썼는데, 이는, 학문을 닦는다는 것이고, 여탁여마(如琢如磨)란 것은, 자신을 수양한다는 말이다(如切如琢者, 道學也, 如琢如磨者, 自修也).”고 하였다.

13) 마탁(磨琢) : 탁마(琢磨)와 같은 말이다. 바로 위의 시구인 “절차어물이성형(切磋於物已成形)”에서, 서에는 ‘절차(切磋)’를 학문하는 과정에 빗대었는데, 여기의 ‘마탁(磨琢)’은 “알고 보면 오로지 정신을 수양함에 있다(磨琢元來只在精)”라고 하여, 우리 인간이 자기 자신을 수양하는 것에 비유하고 있다.

① 이는 옥석(玉石)을 끌로 쪼고[琢] 숫돌에 갈아서[磨] 빛을 낸다는 뜻으로, 자기 자신을 수양하는데 비유한 말이다.

② 연마하다, 단련하다.

14) 약도지행원불속(若道知行元不屬 : 앎[知]과 행함[行]이 본래 연결된 것이 아니라면) :

① 도(道) :

☆말하다. 이야기하다.

☆설명하다.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말하다.

② 지행(知行) :

☆서에는 그의 『잡저(雜著)』에서 「知行說」과 「知行合一說」의 문장을 썼다. 전 자에서는 知 · 行의 개념을 별도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지(知)’에 대한 경지

가 지극해야 만이 사물의 사종(始終)과 본말(本末)을 관통 할 수 있다고 하여, ‘지(知)’의 지극함이 있고나서야 ‘행(行)’이 가능함을 펴려하고 있다. 서애의 이러한 주장은 격물궁리(格物窮理)하는 지식행위는 곧 마음의 큰 작용(內聖外王)을 밝히기 위한 공부의 단계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후자에서는 왕양명(王陽明)이 지(知)와 행(行)을 합하여 하나로 보는 견해를 당시 사람들의 외물의 추구에 대한 경계 때문인 것으로 일면 인정하나, 대체로 마음을 붙여 강구하는 것을 모두 ‘행(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끝음이 지나쳤다고 평가하고 있다. 서애의 이러한 비판의 근거는 다른 아닌 왕양명의 ‘지행합일설(知行合一說)’이 기운(氣)의 범주에 속하는 인간의 마음을 양지(良知)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물에 실현되는 방식의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 15) 하연지처이능행(何緣知處已能行 : 어찌 얹의 경지에 이르고 나서야 행할 수 있단 말인가?) :

서애는 이 구절에서, 인식[知]과 실천[行]은 엄연히 그 단계에 순차가 있어서, 얹이 지극해져야 행동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으로 결국은 주희의 ‘주객(主客)’이라는 두 개의 실재계(實在界)를 인정하는 격물치지(格物致知) 사상을 언급한 것이다. 그래서 서애는 ‘마음이 바로 이치(心卽理)이기 때문에, 사태마다 직각적 얹과 자발적 행동으로 마음의 양지(곧 이치)를 바로 사물위에 발현시킨다.’는 양명의 ‘지행합일설(知行合一說)’에는 문제가 있음을 제기한 것이다. 서애가 쓴 〈지행설(知行說)〉을 참조 바람.

- ① 하연지처(何緣知處) :

☆하연(何緣) :

- a. 어찌 무슨 까닭으로
b. 어찌(왜) ~하라(반문反問을 나타냄).

☆지처(知處) : 얹의 경지에 이른다.

- a. 처(處) : 이른다. 도달하다. 사람이나 사물을 대하다, 직면하다.

- ② 이능행(已能行) : 그러한 연후에 행할 수 있다.

☆이(已) : 접속사로서, ‘~하고나서야’라는 의미로 쓰였음.

- 16) 학요편벽시기언(學要鞭辟是嘉言 : 학습에 지도편달 필요하다함은 좋은 말이니) :

**서애주석(西厓注釋) : 정자(程子)가 언급한 이유에서 이르기를 : “학식을 해박하게 하고 의지를 확고히 하며, 절실하게 탐구하고 실체에 부합되게 생각하면, 인(仁)이 그 가운데 있다(程子語故云 : ‘博學而篤志, 切問而近思, 仁在其中’). 이렇게 하면 상하를 통달하게 된다는 말인데, 그 뜻이 지극히 분명하다(此是徹上徹下語, 義極較然).”고 하였다.

위의 ‘서애주석’에서 서애가 인용한 말은 바로 북송의 이학자(理學者)인 정이(程頤)의 말로서 『논어(論語)·자장(子張)』편 중의 한 장구(章句)이다. 즉, “학식을 해박하게 하고, … 인(仁)이 그 가운데 있다(博學, … 仁在其中矣).”를 해석한 것이다.

이 문장은 ‘인도(仁道)’를 성취하기 위한 경로를 설명한 것으로서, 그 요점은 “절실하게 탐구하고 실체에 부합되게 사고(思考)하는 것(切問而近思)”에 있다. 이른바 “근사(近思 : 실체에 부합되게 생각함)”라는 것은 정이(程頤)의 해석에 의하면, “자기가 아는 것으로써 가까운 것부터 유추해가는 것(以類而推)”이다.(주희朱熹의

『집주(集注)』 참조) 환언하면, ‘순차적이고도 점진적으로 대도(大道)를 파악해가는 것’이다. 주희(朱熹: 1130~1200)와 그의 제자 여조겸(呂祖謙: 1137~1181: 호는 동래(東萊): 남송의 유학자)이 편찬한 송대의 이학자언행록(理學者言行錄)인 책명을 『근사록(近思錄)』으로 결정하였다. 여조겸은 이 책의 제사(題詞)에서 ‘근사(近思)’에 대학 뜻을 더욱 상세하게 밝혀 설명했는데, “만약 낮고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을 싫어하여 높고 먼 곳에 있는 것만을 추구하다가, 법도를 넘어선 것을 추종한 모양이 되어서, 공허한 곳에 떠돌면서, 근거로 삼을 것이 없게 된 곳에 도달하게 된다면, 어찌 ‘근사자(近思者: 실제로 부합되게 생각하는 사람)’라고 할 수 있겠는가(若乃厭卑近而驚高遠, 蹈等凌節, 流于空虛, 迄無所依據, 則豈所謂近思者耶)?”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인(仁)이 그 가운데 있다(仁在其中)”는 과제를 성취해야 했을까? 송대 이학자 정이가 지적한 바는 “배우는 자는, 이것을 생각하여 알아야 할지니, 이것을 알고 나면, (그것이 바로) 상하를 통달하는 도(道)이다(學者, 要思得之, 了此, 便是徹上徹下之道).”라고 하였다.

- ① 편벽(鞭辟): 채찍질 하다. 지도편달하다. 격려하다. 편(鞭)은 채찍, 벽(辟)은 형벌을 가하라는 뜻이다.

17) 사사(事) : 건건(件件)이. 가지가지. 모두. 어느 것이나.

18) 약사외심자구이(若使外心資口耳: 탄마음 품고 공부하면서 그저 귀로 들은 걸 입으로 말하며) :

- ① 외심(外心) :

☆외부(마음이 아니라 사물)에 마음을 두다(쓰다). 『예기(禮記)·예기(禮器)』편에, “예물이 많은 것으로써(禮之以多), 귀하게 여기는 자는(爲貴者), 그가 외부[사물]에 마음을 쓰는 자이기 때문이다(以其外心者也)”고 하였다.

- ② 자구이(資口耳) : 재(資)는 ‘이용하다, 의지하다’는 뜻이고, 구이(口耳)는 ‘구이지학(口耳之學)’의 약어로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자구이(資口耳)’는 ‘자구이지학(資口耳之學: 그저 귀로 들은 것을 입으로 말만하는 학습을 이용하다)’의 뜻이 된다. ‘구이지학’은 ‘그저 귀로 들은 것을 입으로 말만하는 학습’이란 뜻이다. 이 말의 어원은 『순자(荀子)·권학(勸學)』편에, “소인의 학문은, 귀로 들어와서, 입으로 나간다(小人之學也, 入乎耳, 出乎口)”고 하였다. 이런 학습은 단지 귀로 들은 것을 입으로 말하는 공부를 이른다. 후에 이 말을 ‘길거리에서 주위들은 풍문의 천박한 학식’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하였다.

19) 고담성명역미인(高談性命亦迷人: 거침없이 본성과 천명을 논한다면 이 또한 사람을 미혹하는 것이 되리라) :

- ① 고담(高談) : ‘고담(高譚)’으로도 쓴다.

☆거리낌 없이 당당하게 말하다. 삼국시대 위(魏)의 학자 유소(劉劭: ?~?)는 그의 저서 『인물지(人物志)·접식(接識)』편에서, “이러한 까닭으로 적절하게 말하면서 솔직하게 처신하면, 견해가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조용히 듣기만 하고 말을 하지 않으면, 공허하다고 생각하며, 굽히지 않고 당당하게 말하면, 불손하다고 생각한다(是故多陳處直, 則以爲見美, 靜聽不言, 則以爲虛空, 抗爲高談, 則爲不遜).”고 하였다.

- ② 성명(性命) : 동양철학 범주에 속하는 말로서, 하늘이 만물에 대하여 절대적인 명령으로 부여한 것과 그 이치에 따라 부여받은 품성을 가리킨다. 『역경(易經)·건

괘(乾卦)에, “천도(天道 : 하늘의 이치)가 변화하고 작용하여, 만물의 품성을 바로 잡아 준다(乾道變化, 各正性命).”고 하였다. 당(唐)나라 학자 공영달(孔穎達 : 574~648)은 이 글에 소(疏)를 달아 말하기를, “성(性)이란 것은, 하늘로부터 타고난 성질이니, 굳센과 부드러움, 느림과 급함과 같이 구별하고, 명(命)이란 것은, 사람이 부여받은 것으로, 귀천과 천수(天壽 : 타고난 수명) 같은 것들이다(性者, 天生之質, 若剛柔遲速之別, 命者, 人所稟受, 若貴賤天壽之屬也).”고 하였다. 주희(朱熹 : 1130~1200)는 그의 『문집(文集)』에서 이 말을 풀이하기를, “사물이 (하늘로부터) 받은 것을 성(性)이라 하고, 하늘이 부여한 것을 명(命)이라 한다(物所受爲性, 天所賦爲命).”고 하였다. 여기의 성(性)은 본성을 뜻하고, 명(命)은 천명(天命 : 하늘이 절대적인 명령으로 내려준 것)을 뜻한다. 『중용(中庸)』의 첫 구절이 ‘하늘이 절대 명령으로 내려준 것이 본성이다(天命之謂性)’는 것이다. 이러한 성, 즉 본성은 만물에게 다 주어져서 만물에는 저마다의 본성의 특성이 있다. 다만 하늘은 사람에게 만든 탁월한 본성을 주었다. 그 탁월한 본성은 곧 도리를 지각(知覺)하고 또 그 도리를 따라 사는 특성이 있다. 그 도리가 곧 ‘하늘의 이치’ 즉, 천리(天理)이다. 그래서 주희는 ‘성즉리(性卽理)’라고 했다. 결국 사람만이 천리(天理)를 터득하고 실천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인간의 선본성(善本性)의 핵심은 도덕성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본성적으로 인·의·예·지(仁義禮智) 등의 윤리도덕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장기근張基謹 신역新譯의 『대학장구신강(大學章句新講)』 참조함).

20) 회재어도역공심(晦齋於道亦功深 :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은 도학[性理學]에도 연구가 깊었나니) :

① 회재(晦齋) : 이언적(李彦迪)의 호.

☆이언적(李彦迪 : 1491~1553) : 조선중기의 성리학자. 본관은 여주(驪州 : 여강驪江). 자(字)는 복고(復古). 호는 회재(晦齋), 자계옹(紫溪翁). 초기 본명은 적(迪)이었으나 중종(中宗)의 명으로 인(彦)자를 더하였다.

24세에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갔다. 이조 정랑(吏曹正郎), 밀양(密陽) 부사(副使)를 거쳐 사간(司諫)이 되었다. 이때 김안로(金安老)의 등용을 반대하다가 관직에서 쫓겨나 경주의 자옥산(紫玉山)에 들어가 성리학 연구에 전념하였다. 김안로 일당이 몰락한 뒤 이조·예조·형조 판서를 거쳐 1545년 좌찬성(左贊成)이 되었다. 1547년 윤원형(尹元衡) 일당이 조작한 양재역벽서사건(良才驛壁書事件)에 무고하게 연루되어 강계(江界)로 유배되었고 그 곳에서 많은 저술을 남겼으나 63세로 타계했다. 선조 때에 영의정(領議政)에 추증되고 1610년(광해군 2)에 옥산서원(玉山書院)에 배향되었다.

그는 조선 중기에 성리학 정립에 선구적인 인물로서 유학의 방향과 성격을 밝히는데 중요한 구실을 하였다. 27세 때 당시 영남지방의 선배학자이면서 그의 외삼촌인 손숙돈(孫叔墩)과 조한보(曹漢輔) 사이에 토론되었던 성리학의 기본쟁점인 무극대극논쟁(無極太極論爭)에 참여하여, 주희(朱熹)의 주리론적(主理論的) 견해에서 손숙돈과 조한보의 견해를 모두 비판하여 학문적 견해를 밝혔다. 이언적은 이 논쟁에서 이기론(理氣論)의 주리론적(主理論的) 견해로서 이선기후설(理先氣後說)과 이기불상잡설(理氣不相雜說)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이우위설(理優位說)은 이황(李滉)에게로 계승되는 영남학파의 성리설의 선구

가 되었다. 이황은 그를 김굉필(金宏弼), 정여창(鄭汝昌), 조광조(趙光祖) 등과 함께 동방사현(東方四賢)으로 추모하였다. 저서에 『구인록(求仁錄)』, 『대학장구보유(大學章句補遺)』, 『봉선잡의(奉先雜儀)』 등이 있다.

② 도(道): 본 시에서는 성리학에 대한 사상체계, 즉 도학(道學)을 가리킨다.

- 21) 능발전인미발언(能發前人未發言: 앞 사람이 언급한 적 없는 논리를 능히 밝혀내었네):

본 시구는 서애가 주희의 『대학장구』의 편성과 관련하여, 이언적이 앞사람이 발언한 적이 없던 견해를 그의 『대학장구보유(大學章句補遺)』에서 제시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말하자면, 이언적은 주희가 『대학장구』를 경문(經文) 1장과 전문(傳文) 10장으로 구성하여 소개하고 있는데 반해, 이언적(李彥迪)은 전문(傳文)의 제4장인 「본말장(本末章)」을 경문의 결어로 옮겨옴으로써 전문(傳文)을 하나 줄이고, 또한 전문(傳文)의 제5장 「격치장(格致章)」 중에서 주희가 망설였다고 설명한 부분을 경문(經文)의 두 구절에서 옮겨와 새로이 설정하였다. 이러한 개편에 대하여, 그는 그의 서문에서 “비록 주자가 다시 태어나더라도 이 책에서 취할 점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여, 그의 학문의 자율성을 드러내었다.

그러나 이는 후일 퇴계(退溪) 이황(李滉: 1501~1570)과 율곡(栗谷: 1536~1584) 이이(李珣)는 물론이고 서애 역시도 그의 『대학장구보유(大學章句補遺)』에서 이언적의 견해를 하나하나 적시하면서 불합리성을 피력하였다. (아래의 주석24)를 참조 바람) 그러나 조선의 성리학 체계를 세워가는 과정에서 주희의 학문을 비판하고 독자적인 견해를 세웠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 22) 지한경문무일관(只恨經文無一款: 다만 거슬리는 것은 경문經文의 순차順次에 조리가 없으니):

① 한(恨): 거스르다. 따르지 않다.

② 일관(一款): 하나의 조리(條理) 혹은 약간의 조리.

- 23) 팔조선후우허론(八條先後又何論: 팔조목八條目的 선후논리는 또 어떻게 논하겠는가?):

****서애주석:**

서애는 이언적(李彥迪)이 언급한 경문(經文) 팔조목(八條目)의 선후에 대한 언급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모든 물[物]에는 뿌리에 해당하는 근본적인 것과 지엽에 해당하는 부차적인 것이 있고, 일[事]에는 먼저 해야 할 것과 나중에 해야 할 것이 있다(物有本末*, 事有先後). 설사 이하 문장에서의 ‘여섯 개의 선(先)자’와 ‘일곱 개 후(後)자’ 및 ‘본말(本末)자’를 근거로 삼는다 할지라도(便是*下文六箇先字*, 七箇後字*及本末字*張本*), 만약 이 장구(章句)를 삭제한다면, ‘격물치지(格物致知)’의 장구(章句)를 별개의 것으로 만들게 된다(若去此, 別作格物致知章). 그러면 곧 이하 문장에서의 ‘선후(先後)’와 ‘본말(本末)’의 글자는 귀착점도 없고, 두서도 없어진다고 생각된다(便覺下文先後本末字, 無着落*, 無漸次*).”

***본말(本末):**

나무에 비유하면, ‘본(本)’은 뿌리, ‘말(末)’은 가지에 해당한다. 나무의 뿌리가 굳고 튼튼해야 가지들이 잘 뻗고 잎과 꽃이 핀다. 그와 마찬가지로 도덕정치에

있어서는 임금의 ‘하늘이 내려준 천리(天理)를 따라 실천하는 도덕성[明德]을 밝히면(明明德)’, 곧 이것이 ‘만민을 사랑하고 교화해서 그들을 혁신하여 저마다의 도덕성을 밝히는 것이 될 것이다(新民)’. 그때에 참다운 평천하(平天下 : 천하를 평화롭게 함)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물유본말(物有本末)’의 집주(集注)에 “자신의 덕을 밝히는 것[明德]은 본(本 : 뿌리, 근본적인 것)이고(明德爲本), 백성을 혁신하는 것[新民]은 말(末 : 가지, 부차적인 것)이라(新民爲末)”고 말한 것이다.

*편시(便是) :

접속사로 쓰여, 곧 ~이라 해도 설사 ~라 한다 해도‘의 뜻으로 쓰였음.

*하문육개선자(下文六箇先字) :

이하 문장에서의 6개 선(先)자(字) : 경문(經文) 1장, 3절에서 언급된 ‘물유본말(物有本末)’로 시작되는 그 다음 장구(章句)인 4절의 6개 구절에서 나오는 6개의 ‘선(先)’자를 말한다. 즉, “옛날에 밝은 덕을 천하에 밝히고자 하는 자는(古之欲明明德於天下者), 먼저 그 나라를 다스리고(欲治其國), 그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는 자는(欲治其國者), 먼저 그 집안을 가지런히(대가족제도 하에서 일가친척 모든 사람이 고르게 잘 살게 함을 뜻함) 하고(先齊其家), 그 집안을 가지런히 하고자 하는 자는(欲齊其家者), 먼저 그 몸을 수양하고(先修其身), 그 몸을 수양하고자 하는 자는(欲修其身者), 먼저 그 마음을 바르게 하고(先正其心), 그 마음을 바르게 하고자 하는 자는(欲正其心者), 먼저 그 뜻을 성실하게 하고(先誠其意), 그 뜻을 성실하게 하고자 하는 자는(欲誠其意者), 먼저 바르게 알아야 한다(先致其知). 바른 앎은 곧 사물의 도리를 터득함에 있다(致知在格物)”고 한 문장에서의 ‘6개의 선(先)자’를 말한다.

*칠개후자(七箇後字) :

『대학(大學)』의 경문(經文) 1장 5절 속의 ‘일곱 개의 후(後)자’를 가리킨다. 즉, “사물의 도리를 잘 구명(究明)한 후에 사물을 참되게(바르게) 알 수 있고(物格而后知至), 사물을 참되게 안 후에 뜻을 성실하게 세울 수 있고(知至而后意誠), 뜻을 성실하게 세운 다음에, 마음을 바르게 잡을 수 있고(意誠而后心正), 마음이 바르게 된 다음에 몸을 수양할 수 있고(心正而后身修), 몸이 잘 수양된 다음에 집안을 가지런하게 할 수 있고(身修而后家齊), 집안이 가지런하게 된 연후에 나라를 다스릴 수 있고(家齊而后國治), 나라가 잘 다스려진 다음에 비로소 천하를 평화롭게 할 수 있다(國治而后天下平)”고 문장에서의 ‘일곱 개의 후(後)자’를 말한다.

*본말자(本末字) :

『대학(大學)』의 경문(經文) 1장 6절에서 설명한 본(本)자와 7절에서 언급된 말(末)자를 가리킨다. 즉, “천자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自天子以至於庶人), 한결같이 수신을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壹是皆以修身爲本)”고 한 문장에서의 본(本)자와, “그 근본(수신修身을 뜻함)이 흐트러지고 나서(其本亂), 부차적인 것(지엽적인 것, 즉 집안을 가지런히 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화롭게 하는 것을 뜻함)이 다스려지게 할 수 있는 자는(而未治者) 없다(否矣)”고 한 문장에서의 말(末)자를 말한다.

*장본(張本) : 근거(의거 · 연유 · 유래)하다.

*착락(着落) : 귀결점. 귀착점.

*점차(漸次): 순서(차례). 두서(頭緒).

요컨대, 주희가 『대학장구』에서 보충한 ‘격물치지’의 장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격치장(格致章)’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였으며, 구체적으로 경문(經文) 가운데 ‘그칠 때를 안다(知止)’는 구절과 ‘물에 본말이 있다(物有本末)’는 구절을 이에 해당시킨 것에 대해,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 역시도 여기에 동의하여, 다만 ‘물(物)에 본말이 있다는 것’을 ‘그칠 때를 안다’는 앞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서애는 주석을 달아서 회재의 경문(經文)에 대한 이러한 견해를 적시(摘示)하여 그 불합리한 점을 피력하였다. 이유인즉, 이렇게 경문(經文)에 대한 구성에 문제가 제기되면, 당연히 팔조목(八條目)의 선후에도 그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본 시문에서 “팔조선후우하론(八條先後又何論)”이라는 시어(詩語)로써 이를 표현한 것이다.

관련 내용의 보다 전면적인 이해를 위해, 민족문화추진회편 류성룡 저 『국역 서애집 ②』 『대학장구보유(大學章句補遺)』(술, 1977년)에 실린 번역문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 나는 일찍이 경문(經文)의 어세(語勢)와 맥락을 반복해 보고, 그것이 그렇게 양음을 알았다. 저 이른바 ‘물(物)에 본말이 있고, 일에 시작과 끝남이 있어서 먼저 할 것과 뒤에 할 것을 알면 도(道)에 가깝다’고 한 것은 윗글을 마무리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아랫 글을 일으키는 장본(張本)이 되는 것이니, 이른바 ‘선(先)’이라는 것은 아래의 ‘선치기국(先治其國)’ 이하 6개의 ‘선(先)’자를 가리키는 것이요, ‘후(後)’란 것은 또한 아래의 격물이후지지(‘物格而後知至’)의 7개 ‘후(後)’자를 가리키며, 이른바 본말이라는 것도 아랫 글의 ‘천자(天子)에서부터 서인(庶人)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수신(修身)을 근본으로 삼는다’와 ‘근본이 어지러운 데 끝이 잘 다스려지는 일은 없다’는 본말이니, 이것은 그 뜻이 관통하고 수미(首尾)가 서로 접하여 한 자도 증감할 수 없다. 대의(大意)는 성현의 심신(心身)의 뚜렷한 공부를 발명하여 다른데서 구하도록 하지 않으려는 것이니 깊이 관찰하여 익히보면 무궁한 맛이 있을 것이다. 이제 만약 이 두 절을 떼어서 ‘격치(格致)’의 장(章)을 만들고, 다만 ‘옛날의 명덕(明德)을 밝히려 한다’를 지선(至善)의 뒤에 계속시킨다면, 아랫 글의 선후본말이라는 말의 뜻이 성글어서 사람들의 뜻을 깨우치도록 하기에 부족함을 곧 알게 되니, 이것은 다만 전문(傳文)의 결함을 보충하려다가 경문(經文)의 완벽한 자연스러움을 훼손시켜, 다른 모습으로 바꾸어버린 다는 것을 모르고 한 것이다.”

또 내 생각에는 ‘격치장(格致章)’은 반드시 따로 세울 필요가 없다고 늘 여겨 왔다. ‘대학(大學)의 도(道)는 명덕(明德)을 밝히는데 있다’는 데서부터 바로 ‘천하를 평정한다’는 데까지의 격치의 설[格致說]이 아닌 것이 없는 것 같다. 그것은 이른바 ‘대학의 도(道)는 명덕(明德)을 밝히는데 있으며, 백성을 새롭게(新民) 하는데 있으며, 지선(至善)에 머무르는 데 있다’는 것은 대학의 도(道)가 다른데 있지 않고 오직 이 3가지에 있음을 말한 것으로, 그 밑에 성의(誠意), 정심(正心), 수신(修身), 제가(齊家), 치국(治國), 평천하(平天下)는 곧 명덕(明德), 신민(新民)의 조목이요, 지선(至善)에 그친다는 것은 그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격치(格致)’란, 성의(誠意), 정심(正心), 수신(修身)의 그 하는 일을 구하는 데에 지나지 않으니, 이렇게 해서 성의가 되고 이렇게 해서 정심이 되며, 이렇게 해서 수신이 되고, 이렇게 해서 제가·치국·평천하가 되니, 이것이 격물치지(格物致知)의 학(學)이 되는 것이 어찌 분명하고 또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겠는가? 다만 학자는 마음을 갈아 닦혀 깊이 생각하

고 체험하여, 옛 사람이 이미 이루어 놓은 길을 따라, 힘을 들여서 실지(實地) 공부
를 하는데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것은 선유(先儒)들이 이미 정해놓은 설명이니, 후
학(後學)들이 그 만분의 일도 엿보지 못하고, 어찌 감히 그 사이에 가벼이 논할 수
있겠는가? … ”라고 하여, 이언적이 논한 ‘경문(經文)’에 대한 견식에 일침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24) 치도궁시(致到窮時) :

- ① 치(致) : 치지(致知)를 축약한 것임. 자세한 것은 본 시의 주석3)의 ② ‘치지(致
知)’ 조항을 참조 바람.
- ② 궁(窮) : 궁리(窮理)를 축약한 것임. 자세한 것은 본 시의 주석3)의 ① ‘격물(格
物)’ 조항을 참조 바람.

25) 일촉명처(一燭明處) : ‘한 자루의 촛불을 밝혀놓은 곳’이란 뜻으로, 본 시에서는 ‘서
책을 올려놓고 독서를 하는 경상(經床 : 작은 책상)’을 가리킨다. 이 말은 결국 ‘책상
앞에서 학문을 탐구하는 것’을 뜻한다.

26) 정지일지(精之一之) : ‘정일(精一)’과 같은 말임. ‘지(之)’자는 음절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뜻은 없다.

“정일(精一)”의 어원은 『서경(書經)·대우모(大禹謨)』에서, “인심은 위태롭고, 도
심은 은미하니, 오직 세심하게 분별하고 도심만을 한결같이 간직하여, 진실로 그 중
정(中正)의 도를 취하도록 하여라(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고
한 구절이 있다.

- ① 정일(精一) : 정밀하게 생각하고精] 한결같이 행함을 이룸[一].

27) 허하조공진한적(許下曹公眞漢賊) : (1만 병력 동원한) 허하현許下縣의 조조曹操는
진정 한종실漢宗室의 역적이지만 :

- ① 허하(許下) : 현명(顯名)으로, 허현(許縣)이라고도 한다. 지금의 하남성(河南省)
허창현(許昌縣)임. 후한(後漢)말엽 각지에서 농민반란이 일어나고 군벌들이 할거
하던 당시 이곳은 조조(曹操)의 근거지였다. 영제(靈帝 : 156~189)가 죽고 나서
나이 17세의 소제(少帝 : 174~190)가 즉위하였으나, 불과 6개월 만에 동탁(董卓
: ?~192)에 의해 폐위되고, 진류왕(陳留王) 유협(劉協)이 나이 9세에 옹립되었
으니 이 사람이 헌제(獻帝 : 생몰년대는 181~234, 재위기간은 189~220)이다.

환관들을 주살하고 권력을 장악한 동탁은 자신을 타도하려는 군벌이 사망에서 일
어나자 낙양(洛陽)의 황궁을 불사르고 장안(長安)으로 천도(遷都)하였다. 당시
한(漢)의 조정은 명존실망(名存實亡)의 상태였으며, 헌제는 군벌들의 수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낙양과 장안을 오가며 방황했다.

당시 상황에서 황제는 국가통일의 상징이었으며, 재임 중인 황제에 대한 태도는
신하로서의 충신과 간신, 선과 악을 시험하는 시금석이었다. 동탁은 황제에 대해
폐위의 태도를 취했고, 원소(袁紹)의 방책은 또 하나의 황제를 옹립하는 것이었
으며, 원술(袁術)은 자신이 황제가 되는 것이었다.

건안원년(建安元年 : 196), 조조가 낙양에서 헌제를 회견한 후, 헌제를 정중하게
자기의 근거지인 허하현(許下縣)으로 영접하고 그 곳으로 천도한 뒤 허도(許都)
라 불렀다. 이후 조조는 승상이 되고 위국공(魏國公)에 봉해져, 화북(華北)을 통
일했다. 당시 강남(江南)에는 손권(孫權)이, 사천(四川)에는 유비(劉備)가 세력
을 떨치고 있었다.

허하현으로 황제를 영접하고 그곳으로 도읍지를 옮긴 것은 조조에게 정치적으로 명분을 안겨줬다. 즉 천자의 명의(名義)로 천하에 명령을 내렸다. 많은 사람들은 조조가 “황제를 협박하여 제후들을 호령하려 한다(挾天子以令諸侯)”고 생각했다(조조의 정치적 지도원칙은 “천자를 받들어서 신하노릇을 하지 않는 자들에게 호령한다(奉天子以令不臣)”는 것이었음). 어쨌든 이 허하현은 조조의 아들 조비(曹丕)가 위(魏)를 건국하는 초기 도읍지의 역할을 한 곳이다.

(당시 상황의 정확한 내용은 중국, 하문대학廈門大學 교수 역중천易中天의 저서 『품삼국(品三國)』을 참조 바람.)

- ② 조공(曹公) : 조조(曹操 : 155~220)를 가리킨다. 그는 후한(後漢) 말엽, 패국(沛國)의 초현(譙縣: 지금의 안휘성安徽省 박주시亳州市) 사람으로 한족(漢族)임. 자는 맹덕(孟德), 일명 길리(吉利)라고도 하며, 아명(兒名)은 아瞞(阿瞞)이다.

중국 동한말엽의 저명한 군사 전략가이자 정치가인 동시에 문학가로, 한헌제(漢獻帝 : 181~234, 성명은 유협劉協) 때, 위왕(魏王)으로 봉해졌으며, 삼국시대(三國時代) 때 위(魏)나라 건립의 기초를 다진 주요인물이다. 그의 아들 조비(曹丕 : 187~226 : 위문제文帝)가 칭제(稱帝) 하면서, 위(魏 : 삼국시대의 위魏임) 나라를 창립하고 나서 조조를 ‘무황제(武皇帝)’라고 추존하였으며, 묘호(廟號)는 ‘태조(太祖)’이다. 사칭(史稱) 위무제(魏武帝)라고 한다. 후세의 문학저작이나 사서(史書)에서 자주 ‘위무제’의 약칭으로 ‘위무(魏武)’라고 하였다. 그의 저작으로 『조조집(曹操集)』이 전해지고 있다.

조조의 이력을 보면, 나이 20세에 효렴(孝廉)으로 천거되어 낭(郎)이 되었고, 동한의 수도 낙양(洛陽) 북부 지역의 위(尉)에 임명되었다가 둔구현(頓丘縣)의 영(丞)으로 승진했으며, 조정의 명을 받아 의랑(議郎)으로 임명되었다.

황건적(黃巾賊)이 난을 일으키자 조조는 기도위(騎都尉)에 임명되어 황건적을 토벌하였다. 이 일로 승진하여 제남국(濟南國)의 재상이 되었다.

헌제(獻帝) 초평삼년(初平三年 : 192), 조조 37세에 연주목(兗州牧)에 임명되어 항복한 황건적 100여 만 명 중에서 정예들을 선발하여, ‘청주병(青州兵)’이라 칭하는 군대를 편성하였다.

건안원년(建安元年 : 196), 조조 41세에는 허현(許縣 : 허하현許下縣: 지금의 하남성 허창현許昌縣)을 도성(都城)으로 삼고, 헌제(獻帝)를 맞아들여서 헌제의 명의(名義)로 천하에 명령을 내렸다.

그 후 전후에 걸쳐 여포(呂布 : ?~198, 자는 봉선奉先)와 원술(袁術 : ?~199, 자는 공로公路) 및 원소(袁紹 : ?~202, 자는 본초本初) 등을 격파하고 점차 북방을 통일했다.

건안 13년(208), 조조 53세에 승상에 임명된 뒤, 군대를 이끌고 남하하여, 양자강(揚子江) 남안에 위치한 적벽(赤壁)에서 손권(孫權 : 182~252. 자는 중모中謀. 오나라의 5대 황제)과 유비(劉備 : 161~223. 촉한蜀漢의 초대황제. 자는 헌덕玄德)의 연합군과 대전을 벌였으나 패하여 삼국시대가 정립되었다.

건안 21년(216), 조조 61세에는 위왕(魏王)에 봉해졌다. 그는 인재를 등용함에 있어 덕성에 앞서 재능을 중시했으며, 지방토호세력을 억제하고, 중앙집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수리(水利) 사업을 일으켜 경제발전에 힘썼다. 그는 병법에 정통하여 『손자약해(孫子略解)』와 『병서접요(兵書接要)』 등의 저서가 있고, 시문(詩

文)에도 뛰어나서 정치적 포부를 많이 토로했으며, 동한 말 백성들의 고난을 반영했는데, 그 문체(文體)에 기개가 차 있다.

조조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그다지 좋지 않았다. 그에 대해 정중하게 말해서, ‘간웅(姦雄)’이라 했고, 불손하게 말해서, ‘간신(姦臣)’이라고 했으며, 심지어 ‘간적(姦賊)’이라고도 했다. 당시의 저명한 인물 평론가 허소(許劭: 150~195, 자는 자장子將)는, 조조가 자신을 평해 달라고 위협하는 상황이기도 했지만, 조조를 평하여 말하기를, “치세의 능신이요, 난세의 간신일세(治世之能臣, 亂世之姦雄)”라고 하였다. 서진(西晉)의 사학자 진수(陳壽: 233~297)가 편찬한 정사(正史)인 『삼국지(三國志)』에서는 여기에 대한 언급이 없다. 단지 남조(南朝) 송나라 학자 배송지(裴松之: 372~451)가 동진(東晉)의 학자 손성(孫盛: 302~374)의 저서인 『이동잡어(異同雜語)』의 기록을 인용하여 주(注)를 달아 앞에서 허소(許劭)가 했던 말을 그대로 하였다. 허소는 말하는 환경이 달라서 인지는 몰라도 훗날 편찬된 『후한서(後漢書)·허소전(許都傳)』에서는 조조를 평해서 말하기를, “태평시대의 간적(姦賊)이요, 난세의 영웅이다(淸平之姦賊, 亂世之英雄).”고 하였다. 위진남북조시대(魏晉南北朝時代: 후한後漢이 멸망하고부터 수隋나라가 통일할 때까지의 시대: 220~589)의 대표적인 소설가 유의경(劉義慶: 403~444)의 저서, 『세설신어(世說新語)·식감(識鑑)』에서는 동한(東漢)의 관료 교현(橋玄: 109-183)이 조조를 평한 말을 기록하였는데, “난세의 영웅이요, 치세의 간적이로세(亂世之英雄, 治世之姦賊)”라고 하였다. 원(元)나라 말기에서 명(明)나라 초기의 소설가 나관중(羅貫中: ?~?)의 『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에서는 손성(孫盛)이 한 말로 조조를 “치세의 능신이요, 난세의 간웅이다(治世之能臣, 亂世之姦雄)”고 평하였다.

조조에 대한 역사적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친 책은 송나라 학자이자 정치가인 사마광(司馬光: 1019~1086)이 편찬한 『자치통감(資治通鑑)』과 나관중(羅貫中)의 소설인 『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였다. 『자치통감』에서는 조조에게 유리한 사료(史料)를 삭제했고, 『삼국지연의』에서는 조조를 국적(國賊)으로 간주하였다. 동진(東晉)의 사학자들은 조조를 ‘찬역(篡逆: 임금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반역함)’이란 용어를 써서 표현했고, 소동파(蘇東坡)를 필두로 하여, 송대의 사람들도 조조를 좋지 않게 보았다. 현대의 문학가이자 사상가인 노신(魯迅: 1881~1936)은 『위진(魏晉)시대 사람들의 풍도와 문장, 약 및 술과의 관계(魏晉風度及文章與藥及酒之關係)』에서 조조를 영웅이라 표현했고, 하문대학(廈門大學) 교수 역중천(易中天)은 『삼국평가(品三國)』에서, 조조를 대간웅(大姦雄)인 동시에 대영웅(大英雄)이라 평하는 등, 현대에 와서 학계 일부에서 조조에 대한 재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 ③ 한적(漢賊): 제갈량(諸葛亮)이 지은 「출사표(出師表)」에서 나온 것으로, 한(漢)은 촉한(蜀漢)의 유비(劉備)를 지칭하고, 적은 조조(曹操)를 지칭하는 것이다. 곧 종실에 역적(逆賊)을 말한다.

28) 선종관도토원가(還從官渡討袁家: 신속하게 관도官渡로 가서 (10만 대군의) 원소袁紹를 토벌했다네):

- ① 선종(還從): 신속하게 당도하다. 선(還)은 부사로서 ‘신속하게, 즉각’의 뜻이고, 종(從)은 도(到)와 같은 의미로서, ‘도달하다, 당도하다’의 뜻임.

② 관도(官渡) : 관도(官度)라고도 한다. 옛 지명이다. 지금의 하남성(河南省) 중모현(中牟縣) 동북에 위치하는데, 옛적의 하천 명칭인 관도수(官渡水)에 접해있었던 까닭에 얻어진 지역 명칭이다. 동한말엽 조조가 열세의 병력으로 원소(袁紹)의 주력군(主力軍)을 이곳에서 격파했다. 지금도 당시의 토루(土壘 : 흙으로 쌓은 성벽)가 남아있는데, 이를 중모대(中牟臺)라고도 하고, 조공대(曹公臺)라고도 한다.

☆관도지전(官渡之戰) : 서기 200년에 발발한 관도지전(官渡之戰)으로 적벽대전(赤壁大戰) 및 이릉지전(夷陵之戰)과 더불어 중국 삼국시대의 3대전역(三大戰役) 중의 하나이다. 이 전쟁은 당시 중국의 운명과 전도(前途)를 결정하는 중대한 전쟁이었다. 원소(袁紹)도 물론 필승에 뜻을 두었지만, 조조 또한 패할 수 없는 전쟁이었다. 다만, 조조는 비록 황제를 모시고 있어서 정치적 명분상에서는 유리했으나, 군사력에 있어서는 1만이 채 못 되는 병력으로 10만의 원소군과는 현저한 격차가 있었다.

한헌제(漢獻帝) 건안4년(199) 3월, 원소는 일부 책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0만 정예병력을 집결시켜 조조를 섬멸하려는 의도로 허현(許縣)을 향하여 진격을 개시했다. 12월, 조조도 즉각 응전에 임했다. 조조는 관도에 진군하여, 본진(本陣)을 이곳에 설치하였다. 그리고 백마(白馬 : 지명. 지금의 하남성河南省滑縣) 동부에 동군태수(東郡太守) 유연(劉延)을 파견하여 일부 병력을 주둔시키고, 우금(于禁 : ?~221, 자는 문척文則. 조조 수하의 명장. 익수정후益壽亭侯)에 봉해짐을 연진(延津 : 지금의 하남성 연진현延津縣 북부)에 파견하여 일부 병력을 주둔시켰다.

한헌제(漢獻帝) 건안 5년(200) 2월, 원소는 여양(黎陽 : 지금의 하남성 준현浚縣 동남부)에 본진(本陣)을 설치했다. 이어서 대장 안량(顏良)을 선봉장으로 삼아 백마(白馬) 지역을 공격하였다. 그리고 대장 문추(文醜)를 파견하여 연진(延津)을 공격하였다.

병력 3천으로 백마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유연은 원소의 대군이 공격해오자 건디지 못하고 즉각 ‘계모신(鷄毛信 : 긴급함을 전하는 서신. 닭의 깃털을 서신 귀서에 붙이거나 꽂았던 까닭에 붙여진 명칭)’을 관도(官渡)의 조조에게 발송했다. 조조는 백마 지역을 구원하려고 순유(荀攸 : 157~214, 자는 공달公達. 조조의 책사策士)가 제안한 성동격서(聲東擊西)의 계책을 채용하여, 일부병력을 먼저 연진(煙塵)으로 진군시켜 공격하는 척하면서 원소의 후방을 공격하였다. 원소는 군재를 양분하여 조조군에게 대항하였다. 조조는 원소가 계책에 말려든 것을 보고, 신속하게 공격방향을 돌려 백마지역을 포위하고 있는 안량(顏良)의 군대를 공격하였다. 당시 조조 군영에 머물고 있던 유비(劉備)의 장수 관우(關羽 : ?~219, 자는 운장雲長)가 진지(陣地)의 앞에서 안량의 목을 뱀으로써 백마지역의 포위망을 풀었다(건안 5년[200년] 5월, 조조는 관도에 도착하여, 원소와의 교전을 위한 작전을 완료해 놓은 상태에서 생각하기를, 유비의 인물됨이 영웅이라 후환이 두려워 당시 이릉夷陵에 주둔하고 있던 유비를 먼저 공격했는데, 유비는 중과부적衆寡不敵이라 조조에게 패하고, 원소에게 잡히 의탁했을. 이 전투에서 관우가 조조에게 포로로 잡혔던 것임. 조조는 관우를 회유시키기 위해서 표면적으로는 극진히 예우했고, 관우는 주군主君인 유비를 찾을 때까지 조조의 예우에 대한 보답을 한 뒤 유비의 행방을 알면 떠나겠다

는 십산으로 조조를 돕고 있었음). 이어서 조조 또한 연진현(煙塵縣)에서 잠복하고 있다가 원소의 추격병을 습격하여 원소의 대장 문추(文醜)를 베었다. 원소는 이 전투에서 연이어 두 대장을 잃어 군사 사기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후, 원소는 고로(高櫓 : 높은 언덕에 세운 목재 건축물의 망루)에서 화살을 쏘고 조조는 벽력거(霹靂車 : 먼 곳에 돌을 튀겨 내쏘는 장치를 해놓은 병거兵車)를 이용하여 원소군을 향해 돌맹이를 던지면서 대치를 하였다.

그 해 10월, 모사(謀士) 허유(許攸 : ?~?, 자는 자원子遠. 원소의 책사)가 원소에게 “조조가 전군을 동원하여 이곳 관도에서 대치하고 있어, 허도(許都 : 조조가 한현제를 자신의 근거지인 허현許縣으로 영접해온 뒤 새 도움지로 승격된 행정구획 명칭)는 공허할 것이니, 아군이 기병대를 파견하여 허도(許都)를 습격하면 필승일 것이며, 실패한다 해도 조조는 앞뒤로 적을 맞게 되어 반드시 패할 것입니다”고 진언하였지만, 원소는 이 계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유가 몹시 불쾌하게 여기고 있던 차에 허유의 집안 사람이 범법하여 나포 당하자, 허유는 격노하여, 조조에게 귀순하였다. 허유는 조조에게 “원소군의 군량미는 오소(烏巢 : 지금의 하남성 연진현의 동남부)에 저장하고 있으니, 경병(輕兵)을 파견하여 이곳의 군량미를 불살라 버린다면 3일을 버티지 못하고 원소는 반드시 패할 것입니다”고 하였다. 이 정보를 듣고 조조는 원소군과 격전을 벌이다가 야간을 틈타서 오소(烏巢)를 습격하여 군량미를 모조리 소각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원소는 대장 장합(張郃)과 고랍(高覽)으로 하여금 조조의 본영(本營 : 주장主將이 있는 군영, 본진本陣)을 맹격하였다. 그러나 이 두 대장은 오소가 이미 격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조조군에게 투항하였다. 이에 7만 여명의 원소군도 투항하였다.

원소는 관도에서의 전투 후에 병이 나서 토혈(吐血)하다가 건안 7년(202) 5월에 죽었다. 원소의 아들 원담(袁譚), 원희(袁熙), 원상(袁尚)도 전후에 걸쳐 조조에게 피살되었다. 건안 12년(207), 원소의 잔여세력이 소탕되고 북방은 조조의 수중에 들어갔다.

관도지전(官渡之戰)은 당시 중국 북방의 결정적 전투였으며, 조조는 소수 병력으로 원소의 대군을 격파하였다.

a. 적벽대전(赤壁大戰)

서기 208년에 손권과 유비의 소수 연합군이 조조의 대군을 적벽, 지금의 호북성(湖北省), 무창현(武昌縣) 서부, 적기산(赤磯山)과 사모산(紗帽山) 사이에 강을 두고 마주 대하고 있는 곳에서 크게 무찔렸다. 손권은 강남(江南)을 유비는 파촉(巴蜀) 지방을 얻어 천하가 3분되었다.

b. 이릉지전(夷陵之戰)

오(吳)의 손권이 형주(荊州)를 습격, 탈취하고 관우(關羽)를 살해한 것을 보복하기 위하여 유비가 칭제(稱帝)한 후, 서기 221년 손권을 공격하면서 이릉, 지금의 호북성, 의창현(宜昌縣) 동남에서 손권과 벌인 전쟁. 이 전쟁에서 손오(孫吳)의 대장 육손(陸遜)에게 유비가 대패하였다.

- ③ 원가(袁家) : 원씨(袁氏) 일가(一家). 여기서는 원소(袁紹)와 그의 아들 원담(袁譚 : ?~205) · 원희(袁熙 : ?~207) · 원상(袁尚 : ?~207)을 가리킨다.

☆원소(袁紹 : ?~202) : 동한(東漢) 여남군(汝南郡) 여양현(汝陽縣), 지금의 하남

성(河南省) 상수현(商水縣) 서북부 사람. 자는 본초(本初). 4대에 걸쳐 삼공(三公)의 벼슬을 한 명문집안의 출신으로, 선비들을 교제하고 양성하기를 좋아했다. 처음에는 낭(郎: 낭관郎官의 범칭으로, 군왕의 시종관侍從官임)이 되었다. 영제(靈帝) 재위시기에 시어사(侍御史: 약칭 ‘어사御史’. 공경公卿들의 상주문 수납과 문무관원들에 대한 감찰업무를 담당했음), 호분중랑장(虎賁中郎將: 군왕의 신변을 호위하는 업무를 주관하던 벼슬)을 역임하였다. 영제(靈帝) 사후에, 원소는 에게 동탁(董卓)을 불러 정치적으로 부패의 근하진(何進: ?~189. 백정출신, 영제시기에 그의 여동생이 입궁하여 귀인貴人이 되었다가 황후가 된 뒤, 그의 벼슬이 시종侍中에 이르렀고, 황건적이 반란을 일으키자 대장군이 되어 장각張角 등의 무리를 격파할 계획을 함. 영제 사후에 하황후의 아들 유변劉辯을 등극시켰으니 이 사람이 소제少帝임. 그는 태부(太傅: 군왕을 보필하는 대신) 원외袁隗와 함께 조정을 공동보좌 하였음. 소황문(小黃門: 일급 환관의 명칭)인 견석蹇碩을 주살하고, 이어서, 원소와 모의하여 나머지 환관들을 주살하려다가 오히려 중상시(中常侍: 황제를 측근에서 보좌하고 궁중제반사를 관리하여 자문에 응하던 환관벼슬 명칭)로 재직 중인 환관 장양張讓의 무리에게 피살되었음)원이 되었던 환관들을 주살하라고 권했는데, 이 사실이 누설되어 하진이 피살되자, 원소는 군대를 이끌고 입궁하여 환관들을 모조리 격살하였다. 동탁은 도성(都城)에 도착한 뒤, 소제(少帝)를 폐하고 다른 황제를 옹립하려고 함에, 원소는 기주(冀州: 관할지역은 지금의 허북성 중부와 남부, 산둥성 서부 및 허남성 북부임)로 도주하여 군대를 일으키면서 동탁을 타도하지는 기치를 내걸고, 스스로 맹주의 자리에 앉아 거기장군(車騎將軍: 군사 통솔권을 가진 장수. 작전시에 전거戰車와 가마병騎馬兵을 통솔하기에 일컬어진 명칭임)을 자칭하고, 사례교위(司隸校尉: 도성都城의 백관百官을 규찰糾察하고 도성부근의 범법자 관리를 담당하는 관청)을 통솔하며 세력을 확장하였다. 그런 다음 동탁을 장안(長安)까지 격퇴하는데 성공했다. 기주(冀州)를 비롯하여, 원소는 청주(青州: 관할구역의 개략적 위치는 지금의 산둥성 북반부北半部임)와 유주(幽州: 관할경계는 지금의 북경시, 허북성河北省 북부, 요령성遼寧省 대부분의 지역과 천진시天津市임) 및 병주(并州: 관할구역은 지금의 산서성山西省 대부분 지역과 내몽고內蒙古 및 허북성 일부 지역임) 등 4개주에 근거하면서 헌제(獻帝) 건안 2년(建安二年: 197)에는 대장군을 자칭하고 4개주를 아울러 감독하였다. 건안 5년(200) 조조와 자웅을 겨루어 관도(官渡)에서 대전을 벌였으나 패하고 발병하여 사망했다.

☆원담(袁譚: ?~205): 자는 현사(縣思). 원소의 장자(長子). 원소가 후처의 딸을 믿고, 막내아들 원상(袁尚)을 편애하여, 장자인 원담을 변방지역 관청의 수령인 청주자사(青州刺史)로 내보냈다. 관도지전(官渡之戰) 후, 원소가 병사하자, 원담은 막내동생 원상을 공격했으나 패하고 남피현(南皮縣: 지금의 허북성 남피현 동북부)으로 돌아왔다. 얼마 뒤 원상이 원담을 공격하자 원담은 조조에게 구원을 청하였다. 그 후 원담은 조조를 배신하여 패하고, 피살되었다.

☆원희(袁熙: ?~207): 자는 현웅(顯雍). 원소의 차자(次子). 유주자사(幽州刺史)를 역임하였다. 아우 원상(袁尚)이 조조에게 패하자, 원상과 함께 요동태수(遼東太守) 공손강(公孫康: 동한東漢 요동 사람. 공손도公孫度的 아들)에게 도망갔으나, 공손강에게 피살되었다. 공손강은 원희와 원상 형제의 머리를 베어 조조에게 보냈다.

☆원상(袁尙 : ?~207) : 자는 현보(顯甫). 원소의 막내이들. 기주(夔州), 청주(靑州), 유주(幽州), 병주(并州) 등 4개 주에 웅거하다가 청주주사로 부임하였다. 원소가 죽자 부장(部將)들이 그를 옹립하여 원소의 후계자로 옹립하였다. 그는 만형 원담과 서로 공격하다가 패하자 둘째형 원희에게 의탁하였음.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부장들에게 공격을 당하자 요서주(遼西州 : 지금의 요령성遼寧省 의현義縣, 대릉하大凌河 일대)에 거주하는 오환족(烏桓族 : 동호족東胡族의 한 갈래)에게 의탁하였다. 건안 12년(207), 조조에게 패하고 요동태수 공손강(公孫康)에게 피살되었다.

29) 모우인적(母憂認賊) :

① 모우(母憂) : 모친의 상사(喪事).

『후한서(後漢書)·서치전(徐穉傳)』에, “곽임종(郭林宗 : 후한 말엽의 명사名士)이 모친상을 당함에, 서치(徐穉 : 97~168. 당시 청빈하고 덕이 높았던 명사였음)가 가서 조문을 했는데, 싱싱한 꿀풀 한 묶음을 여막(廬幕) 앞에 놓고 갔다(及林宗有母憂, 穉往弔之, 置生芻一束於廬前而去)”고 하였다. (본 예문에서 ‘싱싱한 꿀풀 한 묶음(生芻一束)’을 여막 앞에 놓고 간 것’은 현자를 경계한 암시이다. 『시경(詩經)·소아(小雅)·백구(白駒)』에, 고귀한 덕성을 지닌 현자가 주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혼란스러운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피해 은둔하려고 떠나면서 흰 망아지(小白馬)에게 꿀풀을 먹이는 그 모습이 참 고아하다고 여겨, “싱싱한 꿀풀 한 묶음 먹이는데, 그 사람 모습 옥과 같이 아름답네(生芻一束, 其人如玉)”라고 읊은 대목에 그 어원이 있다. 말하자면, 문상객 서치가 조의(弔儀)로 싱싱한 꿀풀 한 묶음을 여막 앞에 놓고 간 뜻은 ‘세상이 혼란스러우니 곽임종씨여, 『시경·소아·백구』에서, 묘사된 현자처럼 은둔하라’는 의미를 암시한 것임.)

② 적(賊) : 화근(禍根). 화근을 일으키는 사람(곧 ‘골칫거리’를 이룸).

30) 불용사망만침기(不容邪妄謾侵欺 : 불합리한 것 용인 말고 자신을 해치거나 속이지 말게) :

① 사망(邪妄) : 상리(常理)에 어긋나는 말을 가리킨다.

② 만침기(謾侵欺) :

☆만(謾) :

a. 조동사로 쓰여, ‘~하지 말라’는 뜻임.

b. 거절하다. 사절하다.

☆침기(侵欺) : 빼앗거나(해치거나) 속이다.

31) 격자응수양의겸(格字應須兩義兼 : (격물치지格物致知의) ‘격格’자는 반드시 두 가지 뜻을 겸해야 하나니) :

① 격자(格字) : ‘격치(格致)’를 뜻함. 즉 사물의 이치를 추구하다는 뜻이다.

‘격물(格物)’은 사서(四書)의 하나인 『대학(大學)』에서 밝히고 있는 대학의 ‘도(道)’를 실천하는 8조목 중의 한 항목으로, ‘격물’의 ‘격’자에 대한 해석을 두고 역대에 여러 학파들이 생겼는데, 대표적인 것이 주자학과 양명학파이다. 즉, 주자학파에서는 ‘격물’의 ‘격(格)’자에 대하여 해석하기를, “격은 이르는 것이다(格至也)”라고 하여, 인식의 주체가 대상인 사물[物]에 나아감으로써 사물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때, ‘격(格)’의 대상인 사물을 『대학』 속의 용어로서 언급하면, 다음 아닌 가정[家]·국가[國]·천하(天下)가 바로 사물인 것이니, 여기에 연결되지 않는 사물은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바로 이때의 사물에는 이의 상대적인 개념인 사(事) 역시도 결국은 사물의 작용 이거나, 나아가서 사물과 사물의 작용을 칭하는 것이니, 이 역시도 넓은 의미에서 사물인 것이다. 고로 『대학』 속에 언급하고 있는 8조목의 대상은 사물 아닌 것이 없으니, 또한 ‘격’의 대상이 아닌 것이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주자학과에서는 이와 같이 인식 주체가 사물에 나아가서 이의 실리(實理)를 궁구(窮究)하여, 참된 앎을 축적해 나가면, 어느 순간에豁然貫通(豁然貫通)하여 내적으로는 개인수양(內聖)을 외적으로는 사회적 공업(功業: 外王)을 이루는 경지에 도달하게 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왕양명(王陽明)이 언급하는 ‘격물’의 ‘격’자는 “부정(不正)한 것을 바로 잡아서, 정(正)으로 돌아가게 한다(格正也, 正其不正, 以歸於正也)”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즉, ‘격’의 대상인 사사물물(事事物物)들은 내 마음의 양지(良知)의 발현으로써, 저마다 그 이치[理]를 획득하여 온전히 ‘천인합일(天人合一)’의 관계를 이루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양자(兩者)의 격물사상은 접근방법이 서로 달라서, 전자는 객관세계의 이치를 궁구하는 것으로써, ‘앎[知]’을 완성하고, 또한 완성된 ‘지(知)’로써, ‘수기치인(修己治人)’의 경계를 달성하는 이른바, 2개의 실재계(實在界)를 가지고 있는 사상이라면, 후자는 천지만물이 마음[心]안에 존재한다고 여겨, 마음안의 양지[理]를 바로 사물위에 발현시키면, 천인합일(天人合一)을 구할 수 있다는 이른바, 하나의 실재계(實在界)만을 인정하는 사상이다.

고로 위의 시구의 의미는 주자와 양명의 두 학파에서 바라보는 격물(格物) 사상을 모두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격(格)’자에 대한 자세한 뜻은 본 시의 주석3)의 ‘격물치지설(格物致知說)’ 참조 바람).

② 응수(應須):

☆마땅히(응당히)~해야 한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음.

☆수요(需要)되는 모든 것. 일체의 수요 이때의 응(應)은 ‘전부의, 일체(一切)’의 뜻임.

③ 양의(兩義): 두 가지의 뜻. 본 시에서 말하는 ‘양의’란 ‘격물(格物)’의 ‘격(格)’자에 함유된 두 가지 뜻을 가리킨다.

‘격(格)’자의 첫 번째 뜻은 주자학과에서 말하는 ‘격’이다. 이때의 ‘격’은 ‘이른다’(格至也)는 것으로 인식의 주체가 대상인 사물[物]에 나아감으로써 사물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곧 사물에 접근하여 ‘사물의 이치를 추구하다’는 뜻이다.

‘격(格)’자의 두 번째 뜻은 양명학과에서 왕양명(王陽明)이 언급한 ‘격(格)’으로, 이때의 ‘격’은 바르게 하는 것으로 부정(不正)한 것을 바르게[正]하여, 정(正)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格正也, 正其不正, 以歸於正也).

본 시에서 작자 서에는 『대학(大學)』을 공부하는 과정에 ‘격물(格物)’의 ‘격’자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배우는 사람은 어느 한 학파의 이론만을 취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두 가지 학설을 다 탐구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 학문적인 시비곡직(是非曲直)을 분명히 가려야 할 것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읊은 것으로 보인다. 다음 구에서 이어지는 말처럼 학문의 단서는 미세한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위의 ‘두 가지 뜻[兩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시의 주석31)의 ①, ‘격자(格

字)’ 조항을 참조 바람.

- 32) 구단득실재호리(求端得失在毫釐 : 학문의 시비곡직是非曲直 가리는 단서는 미세한 것에 있다네) :

- ① 구단(求端) : 『근사록(近思錄)』*에서 도체(道體)를 논한 1권을 ‘구단(求端)’이라고 칭하는데, 이의 의미는 초학자들로 하여금 태극(太極)과 도(道), 이(理)와 성(性)의 명의(名義)를 알아 학문의 강령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이 때문에 학문의 단서를 찾는다하여 구단(求端)이라 한 것으로 보인다.

*『근사록』: 주자(朱子: 주희朱熹: 1130~1200, 북송의 유학자)와 그의 제자 여조겸(呂祖謙: 1137~1181, 북송의 유학자)이 함께 편찬한 책이다. 『근사록』에 인용된 저서는 주돈이(周敦頤: 1017~1073, 북송의 유학자)의 『태극도설(太極圖說)』과 『통서(通書)』, 장재(張載: 1020~1077, 북송 유학자)의 『서명(西銘)』, 그리고 정명도(程明道: 정호程顥: 1032~1085, 북송학자)와 정이천(程伊川: 정이程頤: 1033~1107, 북송학자)의 『이정전서(二程全書)』 등이다. 이들의 저서와 어록이 너무 광범하여 초심자들이 배우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글 가운데서 대체(大體)에 관계되며 일상 수양에 긴요한 장구(章句) 622 조목을 추려서 6개의 강목으로 나누고 14부로 분류하였다.

- ② 호리(毫釐): 지극히 미세한 것을 비유하는 말로 쓴다. 리호(釐豪)라고도 쓰며, 지극히 작은 것을 형용한다.

- 33) 환지만물개구이(還知萬物皆具我: 만물이치가 모두 내 맘속에 갖춰져 있음도 알아야 할지니) :

서애는 그의 잡문 「만물개비어아(萬物皆備於我)」에서도, 만물이 나의 밖에 존재하는데도 나의 안에 구비되어 있다고 하였는데, 이의 의미는 곧 나의 마음에 존재하는 ‘이치[理]’가 외물(外物) 속에 존재하는 이치[理]와 구분이 없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 34) 일념존존계외치(一念存存戒外馳: 한결같은 마음 보존하여 밖으로 치닫는 생각 경계해야 하네) :

- ① 존존(存存):

☆이미 존재하는 것을 보존 육성함.

☆존재하다.

- ② 외치(外馳): 본 시에서는 ‘(생각이) 밖을 향해 치닫다’는 의미로, 환언하면 ‘잡념이 들다’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 35) 성학연원십육언(聖學淵源十六言: 유학儒學의 근원은 ‘마음 통해 전해진 열여섯 자[十六字心傳]’에 있는데) :

- ① 성학(聖學): 성인(聖人: 공자를 칭함)이 가르친 학문. 특히 유학을 이룸.

- ② 십육언(十六言): ‘십육자심전(十六字心傳)’을 가리킨다. 『서경(書經)·대우모(大禹謨)』 중에, “인심은 (기질과 기분에 따라 급변하고 쟁탈하며 폭발력이 있으므로) 오직 위태롭고, (우주의 이법(理法)인 절대선의 천도(天道)를 행하려는 마음인) 도심(道心)은 범인이 알기 어려워 오로지 은미(隱微)하기만 하니, 오로지 (인심과 도심을) 정밀하게 생각하고 한결같이 행하여, 진실로 만인만사에 아주 적절하게 부합되는 도리, 곧 천도(天道)인 그 중정(中正)의 도를 취하라(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고 한, 원문 ‘열여섯 자’를 가리킨다. (여기서 ‘윤允’은 부사로서

‘참되게 진실로’라는 뜻이며, ‘궐’은 대명사로서 ‘그, 그것’의 뜻임).

송(宋)나라 유학자들은 위 인용문 ‘열여섯 자’를 요·순·우(堯舜禹) 임금에 마음이 서로 통하여 전수한 도통(道統)의 진수(真髓)로서 그들 개인적 도덕수양과 국가치리(國家治理)의 원칙으로 간주하였다.

36) 지인지도총관심(知人知道總關心 : 인심人心 알고 도심道心도 알아하니 모두 ‘심心’과 관련되네) :

- ① 지인(知人) : 본 시에서는 ‘인심을 알라’는 뜻으로 쓰였다.
- ② 지도(知道) : 본 시에서는 ‘도심(道心)을 알라’는 뜻으로 쓰였다. ‘도심’은 천리(天理 : 하늘의 이치)인 절대적 선(善)의 경지이자 만인, 만사에 아주 적절하게 부합되는 도리인 ‘천도(天道)’를 행하려는 마음을 가리킨다.
- ③ 관심(關心) : 마음에 관련되다. ‘관(關)’은 ‘통제하다, 안배하다, 통과하다’ 등의 뜻이 있다.

37) 자증훈고다명물(自從訓誥多名物 : 훈고학을 추구하면서 명저서 허다해졌으나) :

- ① 종(從) : 추구하다.
- ② 훈고(訓誥) :
 - ☆경서의 고증, 주석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본 시에서는 훈고학(訓誥學)의 뜻으로 쓰였다.
 - ☆자구(字句)의 해석.
- ③ 명물(名物) : 본 시에서는 명저서(名著書)의 뜻으로 쓰였다.

38) 우하문정(虞夏門庭) :

- ① 우하(虞夏) : 유우씨(有虞氏)와 하(夏) 나라시대를 가리킨다.
 - ☆유우씨(有虞氏) : 국가 체제 성립 이전의 ‘고대부락 명칭’임. 전하는 바에 의하면, 그 수령(首領)인 순(舜)은 요(堯)에게 선양(禪讓)을 받아 ‘포관(蒲阪)’에 도읍을 정했는데, 그곳은 지금의 산서성(山西省) 영제현(永濟縣) 동남부라고 한다. 유우씨에 쓰인 ‘유(有)’자는 집두사로 의미가 없다. ‘우(虞)’자는 순(舜)에게 봉해진 국명이며, ‘씨(氏)’자는 상고시대 전설상의 인물이나 국명에 모두 씨(氏)자를 썼다.
 - ☆하(夏) : 중국 역사상 최초의 왕조로서, 전하는 바에 의하면, 우(禹)의 아들 계(啓)에 의해, 건립된 부족국가이며, 건국 도읍지는 안읍(安邑)으로, 지금의 산서성(山西省) 하현(夏縣) 북부라고 한다. ‘하(夏)’를 ‘하후씨(夏后氏)’라고도 칭하고, ‘하씨(夏氏)’라고도 칭하며, ‘하후(夏后)’라고도 칭한다.
 - ☆유우씨(有虞氏)는 순임금을 이르고, 하후씨는 우(禹)임금의 별칭으로도 쓰이기 때문에 ‘우하(虞夏)’는 전(轉)하여 ‘순임금과 우임금’을 가리키기도 한다.
- ② 문정(門庭) : 궁정(宮廷) 또는 궁궐을 의미한다.

시9. 강변 누각에서 가을풍경을 바라보며

詩9. 江樓秋望 강 투 추 망



西風扶病¹⁾强²⁾登樓,
서 풍 부 병 강 등 투

서풍 부는데 병든 몸으로 간신히
누각에 올라보니,

景物無端入望愁³⁾.
경 물 무 단 입 망 수

풍광이 까닭 없이 근심스레 보여지네.

落日亂山⁴⁾千古色,
낙 일 난 산 천 고 색

해지면서 높고 낮은 산봉우리에
고색古色이 창연한데,

長天歸鴈數聲秋⁵⁾.
장 천 귀 안 수 성 추

먼 하늘에서 돌아가는 기러기가 누차
가을을 알리네.

消磨⁶⁾歲月今餘幾,
소 마 세 월 금 여 기

누릴 수 있는 세월 이제 얼마나
남았을까,

廓落襟期⁷⁾老未休.
확 낙 금 기 로 미 휴

허무한 생각은 늙어서도 멈춰지질 않네.

倚徧闌干⁸⁾吟政苦,
의 편 난 간 음 정 고

몇 번이고 난간에 기대어 정사政事를
 읊으며 고민하자,

傍人謂我有何求。
방 인 위 아 유 하 구

곁에 있던 사람이 내게 ‘뭐 추구할 게
있느냐고 하네.

-
- 1) 부병(扶病) :
 ① 앓는 몸으로. ② 병을 무릅쓰고 ③ 병중에도 불구하고
- 2) 강(強) :
 ① 가깝스로 ② 간신히
- 3) 경물무단입망수(景物無端入望愁 : 풍광이 까닭 없이 근심스레 보여지네) :
 ① 경물(景物) : 풍물(風物). 경치.
 ② 무단(無端) : 까닭 없이.
- 4) 난산(亂山) : 여기저기 솟아있는 고저(高低)가 고르지 않는 산. ‘난봉(亂峯)’과 같은 말임.
- 5) 장천귀안수성추(長天歸雁數聲秋 : 먼 하늘에서 돌아가는 기러기가 누차 가을을 알리네) :
 ① 장천(長天) : 끝없이 잇닿은 높고도 먼 하늘.
 ② 귀안(歸雁) : 귀안(歸雁)이라고도 쓴다. 기러기는 봄이면 북으로 돌아가고 가을이면 남쪽으로 날아와서, 철을 따라 오가므로 ‘귀안(歸雁)’이라고도 한다.
- 6) 소마(消磨) : (시간 등을) 헛되이 보내다. 소모하다, 소비하다. 본 시에서는 전(轉)하여 ‘세월을’ 누리다는 뜻으로 쓰였다.
- 7) 확락금기(廓落襟期) :
 ① 확락(廓落) : 실망한 모양, 뜻을 잃은 모양. ‘확(廓)’은 ‘행하다, 넓다’의 뜻이고, ‘락(落)’은 영락(零落)의 뜻이다.
 ☆곽(廓)으로 읽으면, 외성(外城)의 뜻이다.
 ② 금기(襟期) :
 ☆흥금, 생각, 마음속에 깊이 품은 회포, 흥취, 포부, 도량.
 ☆‘심기(心期)’와 같은 뜻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상호 기대’를 가리킨다.
 ☆마음속으로 생각하거나, 생각하는 일. (가슴 속에 생각을) 품다.
- 8) 의편난간(倚偏闌干) : 난간에 기대다.
 ① 의편(倚偏) : 편倚(偏倚) : 의편(依遍) : 여러 차례 기대다.
 ☆의(依) : 기대다.
 ☆편(偏) : 횡수를 나타낸다.

시10. 김사열 金士悅 시에 차운 次韻 하여

(경자년 庚子年 : 1600년 : 선조 宣祖 33, 西厓 59세)

詩10. 次金士悅韻¹⁾ 庚子

차금사열운 경자



薄暮²⁾ 山雲起,
박 모 산 운 기

황혼이 깃들면서 산 위에 구름 일더니,

中宵水月明³⁾.
중 소 수 월 명

밤중이 되자 강물에 비친 달이 밝으네.

一軒高枕臥⁴⁾,
일 현 고 침 와

홀로 집에서 베개를 높이 하고
누웠는데,

萬竹受風清。
만 죽 수 풍 청

대숲에 스쳐가는 바람소리 청량하네.

落落⁵⁾ 悲前計,
낙 낙 비 전 계

뜨문뜨문 예전의 (실패했던) 계획을
비통해 하며,

悠悠念此生⁶⁾.
유 유 념 차 생

자꾸자꾸 (바뀌어진) 지금의 이 세상
생각하네.

非無三寸舌⁷⁾,
비 무 삼 촌 설

세 치의 혀가 없는 것도 아니었던만,

還愧事縱橫⁸⁾.
환 괴 사 종 횡

(재직 시에) 직권을 마음대로 행사한 게
아직도 부끄럽네.

1) 차김사열운(次金士悅韻 : 김사열 시에 차운하여) :

① 차운(次韻) : 화답(和答)하는 시에서 남의 시운(詩韻)에 맞추어 시를 짓는 것을 말함. 혹은 남이 지은 시의 운자(韻字)를 따서 시를 짓는 것을 말한다. 보운(步韻)이라고도 한다.

② 김사열(金士悅) : 김태(金兌) : ‘김(金)은 성씨이고, 사열(士悅)은 자이며, 태(兌)는 이름’이라는 뜻이다.

☆김태(金兌 : 1561~1609) : 안동(安東) 사람. 자는 사열(士悅), 호는 구담(九潭), 이름은 태(兌). 고려시대 태사(太師)를 역임한 선평(宣平)의 후예로서 군수(郡守) 기보(箕報)의 아들이며, 류성룡(柳成龍)의 문인(門人)이다.

어려서부터 자질이 뛰어나 학식이 높았으며 저술도 잘 하였고, 인품이 훌륭하다 하여 주변 사람들의 찬탄을 받았으나 관직에 나가지는 않았다. 임진왜란 때는 의병을 일으켜 왜적을 방어하기도 하였음. 김윤안(金允安)과 더불어 옥연서당(玉淵書堂)에서 퇴계연보(退溪年譜)를 편찬하였다.

2) 박모(薄暮) : 땅거미, 황혼.

3) 중소수월명(中宵水月明 : 밤중이 되자 강물에 비친 달이 밝으네) :

① 중소(中宵) : 한밤중. 중야(中夜). 반야(半夜). 중석(中夕). 야반(夜半). 소(宵)는 ‘밤’의 뜻임.

② 수월(水月) :

☆강물에 비친 달.

☆강물과 달.

☆물과 같이 맑고 깨끗한 달.

4) 일헌고침臥(一軒高枕臥 : 홀로 집에서 베개를 높이 하고 누웠는데) :

① 일헌(一軒) : 홀로 집에서. 여기서의 일(一)은 ‘독(獨)’과 같으며, ‘홀로’의 뜻으로 보이며, 헌(軒)은 ‘방실(房室), 방옥(房屋)’, 곧 ‘집(가옥)’이란 뜻으로 쓰였다.

② 고침(高枕) : 베개를 높이 댄다는 의미로, 이는 주로 아무런 근심과 걱정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본 시와 관련한 전고(典故)를 소개하면, 맹상군(孟嘗君 ?~BC 279?)이 그의食客인 풍환(馮諼 : 생몰년 미상)의 책략으로 생사의 교차로에서 목숨을 건진 사례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국책(戰國策)·제책4(齊策四)』에, “3개의 동굴을 이미 다 뚫으니, (오늘부터는) 주군께서 베개를 높이 베고 편안히 잠자리에 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三窟已就, 君姑高枕爲樂矣).”라고 하였다.

5) 낙낙(落落) :

① 희소(稀少) : 드물다, 성기다, 뜸하다, 드문드문하다.

6) 유유염차생(悠悠念此生 : 자꾸자꾸 (바뀌어진) 지금의 이 세상 생각하네) :

① 유유(悠悠) : 끊임없이 쭉 이어지는 모양을 형용한 말이다.

② 차생(此生) :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금생. 금세(今世). 차세(此世). 이승.

7) 삼촌설(三寸舌) : 길이가 세 치밖에 안 되는 짧은 혀라는 뜻으로,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언변을 이르는 말이다. 언변이 좋아 임기응변에 능한 것을 형용하는 말. 후세에, ‘세치의 썩지 않는 (살아 있는) 혀(三寸不爛之舌)’와 같은 뜻으로 쓰이는 말이다.

① 『사기(史記)·평원군열전(平原君列傳)』에 의하면, 전국시대(戰國時代)에 진(秦)

나라가 조(趙)나라를 공격하여 수도 한단(邯鄲 : 지금의 허북성河北省 남부에 위치한 한단시邯鄲市)을 포위하자, 평원군(平原君 : 이름은 조승趙勝 : ?~BC 251 : 조나라의 공자)의 식객(食客)인 모수(毛遂)가 평원군을 따라 초(楚)나라에 가서 세 치박에 안 되는 혀로 초나라 왕을 설득하여 구원병 20만을 파견하게 하였는데, 초나라에 돌아온 평원군이 말하기를 “모(毛) 선생의 세 치 혀는, 군사 백만 명보다 강했다(毛先生以三寸之舌, 彊於百萬之師)”고 한데서, ‘삼촌설(三寸舌)’이란 말이 유래하였다.

8) 환괴시증횡(還愧事縱橫 : (재직시에) 직권을 마음대로 행사한 게 아직도 부끄럽네) :

① 사(事) :

☆원래 뜻은 ‘관직(官職)’이나, 전(轉)하여 ‘직무, 직권, 직책’이란 뜻으로도 쓰는데, 본 시에서는 ‘직권’이란 뜻으로 쓰였다.

② 증횡(縱橫) :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마음대로 하다.



시11. 농환가 동짓날에 짓다

詩11. 弄丸歌¹⁾冬至日作
농 환 가 동 지 일 작

天包地外如彈丸²⁾,
천 포 지 외 여 탄 환

하늘이 지표면을 감싼 것이 탄환같이
등근데,

日月相環走其腹³⁾.
일 월 상 환 주 기 복

해와 달은 돌아가며 하늘 중심을
지나가네.

周流⁴⁾三萬八千里,
주 류 삼 만 팔 천 리

땅 둘레 돌아가는 거리가 3만 8천리,

浩浩上下無終極⁵⁾.
호 호 상 하 무 종 극

한없이 광활한 천지 끝이 없구나.

晝夜昇沉不暫停,
주 야 승 침 부 잠 정

(일월은) 주야로 뜨고 지고 잠시도
멈추지 않나니,

春去秋來誰爲劇⁶⁾.
춘 기 추 래 수 위 극

봄 가고 가을 오니 누가 만든 극본인가!

林林萬象⁷⁾處其間,
림 림 만 상 처 기 간

총총히 우거진 숲처럼 빼곡한 만물이
그 가운데 자리하며,

百千紛綸同起滅⁸⁾.
백 천 분 룬 동 기 멸

무수히 엮였지만 한결같이 생멸하네.

今年又聞子半⁹⁾雷,
금 년 우 문 자 반뢰

금년에 또 한밤중에 천둥소리 들렸나니,

依舊天心動坤軸¹⁰⁾。
의 구 천 심 동 곤 축

천심은 변함없는데 지축이 흔들렸네.

玄機關闔¹¹⁾妙復妙,
현 기 벽 함 묘 부 묘

오묘한 대도大道의 변화 묘하고도
묘하나니,

次第門開三十六¹²⁾。
개 삼 십 육

순차적으로 천도天道의
삼십육궁문三十六宮門이 열린다네.

虛而不詘動愈出¹³⁾,
허 이 불 굴 동 유 출

(천지 사이) 텅 비어 있어도 운행하며
만물이 생성되나니,

仔細看來眞橐籥¹⁴⁾。
자 세 간 래 진 탁 약

자세히 살펴보니 참으로 풀무 같으네.

大羹玄酒味方淡¹⁵⁾,
대 경 현 주 미 방 담

간기 없는 국물에 맹물만 먹자니
싱거워 맛없는데,

閉關息旅敦其復¹⁶⁾。
폐 관 식 여 퇴 기 복

문 닫아 왕래 않고 초막에 은거하며
꼼짝도 하지 않네.

道人空齋事燕坐¹⁷⁾,
도 인 공 재 사 연 좌

도사道士는 텅 빈 재실에서 좌선을 하는
중에,

足躡天根探月窟¹⁸⁾。
족 섭 천 근 탐 월 굴

발로는 천근天根 별자리 딛고 눈으로는
달의 귀속처 살펴보네.

四海溟溟一勺多¹⁹⁾,
사 해 명 명 일 작 다

사해四海의 바닷물 들고 들지만 한 국자
물이 많이 모인 것이요,

右拂扶桑左若木²⁰⁾。
우 불 부 상 좌 약 목

오른 손 뻗치면 해 뜨는 부상扶桑에
달고 왼 손 내밀면 해 지는 약목若木에
닿는다네.

聞道蓬萊幾清淺²¹⁾
문도봉래기청천

득도해야 가는 봉래산은 넷물이 얼마나
맑다던가,

蟠桃結子三千劫²²⁾
반도결자삼천겁

삼천 년에 한 번씩 열매 맺는
선도仙桃도 있다는데.

都入先生弄丸中²³⁾
도입선생농환중

이 모든仙境仙境을 선생의 농환弄丸
속에 넣어놓고,

放去收來不容瞥²⁴⁾
방거수래불용별

내려왔다 거둬들였다 하면서
결눈질하지 않네.

誰能玩我無孔珠²⁵⁾
수능완아무공주

누가 나와 함께 농환弄丸을 즐길 수
있을런고!

一點團團正虛白²⁶⁾
일점단단정허백

하나의 둥글둥글한 공이
무욕도심無欲道心 일깨워준다네.

- 1) 농환가(弄丸歌): 본 시에서는 등근 공, ‘농환(弄丸)’을 시제(詩題)로 하여, 서애의 ‘무욕도심(無欲道心)’을 도가적 신유(神遊)를 통해서, 비유적으로 읊은 시가이다. 「서애년보」에 의하면, 서애는 1605년(선조 33년, 64세)에 둘째 아들 여(裻: 사실상은 맏아들임. 첫째들은 서애가 44세 때 잃었음)를 잃고, 또한 그 해에, 하회에 큰물이 들어 병중의 몸이다, 조양(調養)하기에 불편하여, 학가산(鶴駕山: 경북 안동시 북후면, 예천군 보문면 소재) 기슭, 지금의 경북 안동시 풍산읍에 소재하는 서미동(西美洞)으로 이사하였다. 그 이듬해인 1606년 3월에 이곳에 초당을 짓고 이름을 ‘농환재(弄丸齋)’라 명명(命名)하였다.

서애는 일찍이 자식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이 이욕에 빠져서 염치(廉恥)를 잃어버린 것은 다 만족할 줄을 모르는 데서 나온 것이다. 이 집이 비록 꾸밈이 없고 누추하지 만, 풍우(風雨)를 가릴 수 있고 한서(寒暑)를 피할 수 있으니, 이 이상 더 무엇을 바라겠느냐? 무릇 사람이 자기가 처한 바에서 안정하고 걱정이 없다면 어느 곳인들 살지 못하겠느냐?”라고 하였다.

지금은 ‘농환재’란 현판만 남아있을 뿐이어서, 류씨(柳氏) 문중에서, 서미동 입구에 2000년 10월 15일에 ‘영의정 문충공 서애 류선생 농환재 유적비(領議政文忠公西厓柳先生弄丸齋遺蹟碑)’를 대신 세워놓았다.

- ① 농환(弄丸): 『장자(莊子)·서무귀(徐無鬼)』에서 이르기를, “시남(市南)의 의료

(宜僚)는 환령(丸鈴)을 잘 다루어, 양측의 난을 해결하였다(市南 宜僚 弄丸, 而兩家之難解)”고 하였다. 명(明)나라 학자 라면도(羅勉道 : 생몰년 미상)의 주석(註釋)에 의하면, “의료가 환령을 다룰 때는, 8개는 공중에 있고 1개는 손에 있었다. 초나라와 송나라가 전쟁을 하였는데, 의료가 군대 앞에서 환령을 가지고 재주를 부려, 양쪽의 군대가 전쟁을 멈추고 그 놀이를 구경했다(宜僚弄丸, 丸八常在空, 一在手。楚與宋戰, 宜僚弄丸軍前, 兩軍停戰觀之).”고 하였다.

위의 고사(故事)는 우연의 일종으로, 공자가 초나라를 방문했을 때, 초왕이 공자에게 교훈이 될 만한 말씀을 청하자, 서남촌의 용감한 기능인 ‘의료’는 단지 ‘농환’의 솜씨를 보여주었을 뿐인데, 양국의 분쟁을 해결해 주었다는 것에 의미를 실어 찬미함으로써, 도가의 ‘무작위지도(無作爲之道 : 천도가 자연적이고 인위적인 작위를 가함)가 없는 것처럼, 마음을 청정하게 비우고 부적절한 언행을 자제하여 자연에 귀의하라는 도가의 철학사상’이 동시에 유가의 ‘대인지성(大人之性 : 덕행이 고상하고 지향하는 바가 원대하며 인仁和 예禮를 근본으로 실천하려는 성품)’에 귀일(歸一)하는 유·도절충(儒道折衷)의 경지를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은 박일봉朴一峰 역저譯著 『장자(莊子) · (잡편)』을 참조함)

② 농환의 내용

농주(弄珠)는 말 그대로 공 또는 구슬의 둥근 물체를 가지고 노는 놀이를 뜻하는 범칭이다. 따라서 처음에는 손과 발로 공을 다루는 놀이를 모두 포괄하였다. 실제로 삼국시대에는 공을 발로 차는 축국과 두 손으로 공을 던지는 농환(弄丸)을 모두 농주(弄珠)라고 불렀다.

농주는 그 도구의 대상에 따라, 명칭이 다양하고 그 범위가 대단히 넓는데, 공(毬·球·丸), 방울(鈴), 구슬(珠), 옥(玉), 칼(劍), 창(槍), 막대기(棒) 등 재질에 따라 달랐다. 그 가운데 가장 보편적인 도구가 바로 공이나 방울을 이용하는 형태이다.

농주를 할 때에는 한 번에 여러 개의 공을 쓰는데 처음에는 3~4개로 재주를 부리다가 8~9개까지 사용한다. 공을 위로 던질 때에는 직선이 아니라 둥그런 타원을 그리며 던진 공끼리 충돌하는 것을 막는다.

농주의 방식은 한 사람이 하는 형태와 두 사람이 하는 형태로 구분된다. 보통은 땅 위에서 기예를 보여주지만, 간혹 높은 장대에 올라가 그 위에서 공 돌리기를 하는 형태도 있다.

농환의 기예는 처음에는 비교적 간단한 형태였으나 점차 왕실의 공연으로 속하면서 그 내용과 종목이 복잡해져 단순한 입담과 재미를 전달하는 소학지희(笑學之戲)와는 달리 놀라운 기예나 재주 위주의 공연문화인 시각적인 몸짓 위주의 연희인 규칙지희(規式之戲)에 속하였다.

- 2) 탄환(彈丸) : 총포로부터 발사되고, 추진장약의 폭발력으로 추진되며, 그 관통력·폭발에 의한 폭풍·파편으로 살상 및 파괴효과를 내도록 된 비상체(飛翔體)의 총칭을 ‘탄환(彈丸)’이라고 한다. 최초의 탄환은 선사시대의 투석(投石)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에서 화약이 발명된 1000년경에는 탄환 속에 화약을 충전한 파열탄, 또는 소이탄(燒夷彈)과 같은 성질의 탄환을 투석기(投石機)를 사용해서 투척할 수 있게 되었고, 1300년경부터 원통형화기가 출현하여 화기에 의해 탄환을 발사하였다. 조선시대 임진왜란(1592~1598) 때는 화포공(火砲工) 이장손(李長孫 : 생몰년 미상)이 발명한

장거리포를 사용하였다. 이 포탄은 ‘비격진천뢰(飛擊震天雷)’라 명명한 것인데, 현대의 박격포와 같은 것이다. 채부는 화약·철편(鐵片)·뇌관(雷管)을 넣고 표면은 쇠로 박과 같이 둥글게 찬 폭탄인데, 둥근 포신(砲身)을 이용하여 목적지에 떨어뜨렸다. 본 시에서 “하늘이 땅거죽을 감싼 것이 탄환같이 둥글다(天包地外如彈丸)”고 한 것도 ‘당시의 탄환이 박처럼 둥글었기 때문에’ 그렇게 묘사한 표현으로 보인다. 탄환이 죽순 모양을 이룬 것은 19세기에 들어서서 개발되기 시작했다.

- 3) 일월상환주기복(日月相環走其腹) : 해와 달은 돌아가며 하늘 중심을 지나가네) :
 - ① 상환(相環) : 서로를 연결고리로 함.
 - ② 복(腹) : 물체의 내부나 표면의 중심 부위를 비유하는 말.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4) 주류(周流) : 돌레를 돌아 흘러가다(날아가다, 지나가다). 주(周)는 ‘돌레를 돌다, 순환하다’는 뜻이다.
- 5) 호호상하무종극(浩浩上下無終極) : 한없이 광활한 천지 끝이 없구나) :
 - ① 호호(浩浩) : 광대무변(廣大無邊)한 모양. 호호(浩浩)하다.
 - ② 종극(終極) : 최후, 끝, 마지막.
- 6) 수위극(誰爲劇) : 누가 만든 극본인가!
- 7) 임림만상(林林萬象) : 우거진 숲처럼 빼곡한 만물들) :
 - ① 임림(林林) : 층층(叢叢)히; 임림층층(林林叢叢) : 많이 모여 뻘뻘하게 들어서 있는 모양. (사람이나 사물) 매우 많은 모양. 때 지어 모인 모양.
- 8) 백천분륜동기멸(百千紛綸同起滅) : 무수히 엮였지만 한결같이 생멸하네) :
 - ① 백천(百千) : 수 천 수 백. 매우 많은 것을 비유한 말.
 - ② 분륜(紛綸) : 난잡한(무질서한) 모양, 매우 많은 모양.
 - ③ 기멸(起滅) :
 - ☆불교용어로서 ‘사물이 생멸하는 것’을 말함. 즉, 인연이 화합하면 발생하고, 인연이 이산(離散)하면 소멸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시은시현(時隱時現) : 때로는 사라졌다가 때로는 나타남.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가 보일 듯 말 듯). 또는 사유시무(時有時無 : 때로는 있다가 때로는 없음.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있는 듯 없는 듯)의 뜻으로도 쓴다.
- 9) 자반(子半) : 자정(子正 : 밤 12시) 전후(前後), 즉 밤 12시 전후를 가리킨다. 본 시에서 한밤중으로 해석하였다.
 - ① 자(子) : 십이시(十二時)의 첫 번째 시(時)임. 예전에는 일주야(一晝夜)를 열 두 개의 시(時)로 나누어, 십이지지(十二地支 : 자子·축丑·인寅·묘卯·진辰·사巳·오午·미未·신申·유酉·술戌·해亥)로 표시하였다.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를 자시(子時)라 하였다.
- 10) 의구천심동곤축(依舊天心動坤軸) : 천심은 변함없는데 지축이 흔들렸네) :
 - ① 의구(依舊) : 예전대로(종전대로).
 - ② 천심(天心) : 천의(天意 : 하늘의 뜻)와 같은 말이다.
 - ③ 곤축(坤軸) : (옛 사람의 상상 중에 있던) 지축(地軸). 곤(坤)은 건(乾)의 상반된 개념으로 ‘대지(大地)’의 중심을 의미한다.
 - ☆고대 중국인들의 지축에 대한 생각은 진(晉)나라 장화(張華)의 저서 『박물지(博物志)·지(地)』에 잘 나타나 있다. “곤륜산 북쪽 땅에서 3천 6백리를 돌아

내려 가면(崑崙山北地轉下三千六百里), 8곳의 깊고 어두운 곳에 지신(地神)이 다스리는 저승이 있는데(有八玄幽都) 사망이 20만리나 된다(方二十萬里). 지하에는 네 개의 큰 기둥이 있는데(地下有四柱), 네 기둥은 폭이 10만리나 되며(四柱廣十萬里), 바닥에는 3600개의 축이 있는데(地有三千六百軸), 개의 이빨처럼 돌아나서 천정을 떠받치고 있다(犬牙相擧)”고 하였다.

11) 현기벽합(玄機關闔 : 오묘한 대도大道의 변화) :

① 현기(玄機) :

☆천의(天意 : 하늘의 뜻), 천기(天機 : 하늘의 기밀 또는 조화의 신비).

☆심오하고 미묘한 의리(심오한 이치).

② 벽합(關闔) : 개폐(開閉). 열과 닫음. 열었다 닫았다 하다. 전(轉)하여, ‘자유자재로(종횡무진으로) 변화하다’는 뜻으로 쓰임.

『주역(周易) · 계사전(繫辭傳)』(상)에, “그러므로, 문을 닫는 것을 곤(坤 : 하늘에 연계되어 만물이 태어나 자라는 현상, 땅을 상징함)이라 하고, 문을 여는 것을 건(乾 : 영원히 그침 없이 운행함. 하늘을 상징함)이라 하며, 닫았다 열었다 하는 것을 ‘변한다’고 한다(是故, 開戶謂之坤, 關戶謂之乾, 一闔一闢, 謂之變)”고 하였다. 이 문장에 당(唐)나라 학자 공영달(孔穎達 : 574~648)이 소(疏)를 달아 말하기를, “문을 닫는다는 말은 만물이 추위에 생기가 막힘이 마치 사람이 추우면 집안에 문을 닫는 것과 같음을 이르는 말이다(闔戶, 謂閉藏萬物若室之閉闔其戶)”고 하였다. 위의 글에서 보듯이, ‘벽합(關闔)’이란 말은 ‘천지만물이 변화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12) 차례문개삼십육(次第門開三十六 : 순차적으로 천도天道의 삼십육궁문三十六宮門이 열린다네) :

① 차례(次第) :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② 삼십육(三十六) : 36궁(宮)을 창하는 것이다. 이 용어는 『주역』의 전문용어로, 천지인(天地人) 삼재(三才)가 활동하는 천도(天道)의 유형적 규율을 ‘상수(象數)’로 나타낸 것이다. 아래에서 3가지 측면에서 보는 이것의 규율을 소개한다. 첫째, ‘36궁’의 연원을 상수(象數)의 자의(字意)에서 살펴보면, ‘상(象)’이란,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상이긴 한데, 고정된 형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 구체적인 사물은 고정적이지만 ‘상’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으며 일종의 유형에 해당된다. 이를테면, 이와 같은 ‘상’의 전형은 음·양의 효(爻)와 그 효로써 이루어진 팔괘(八卦)인데, 예를 들면, 건괘(乾卦 : ☰)는 천(天)을 상징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 머리[首] · 군주(君主) · 말[馬] 등 ‘천(天)’의 유형에 속하는 모든 사물을 포섭할 수 있다. 고로 주역의 64개의 패상(卦象)은 다름 아닌 64개 패상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수(數)’란, 현상계의 존재양상과 변화의 각종 요소들의 착종(錯綜) · 배합(配合)에 의해, 나타나는 변화의 원리가 수적규율(數的規律)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주역의 수리론(數理論)에 근거하고 있다. 이를테면, 하늘[선천] · 아버지[후천]를 상징하는 건(乾)은 ‘1’로 나타내고, 대응지점의 땅[선천] · 어머니[후천]를 상징하는 곤(坤)은 ‘8’로 나타내며; 연못[선천] · 막내딸[후천]을 상징하는 태(兌)는 ‘2’를 나타내고, 대응지점의 산[선천] · 막내아들[후천]을 상징하는 건(艮)은 ‘7’로 나타내며; 불[선천] · 둘째딸[후천]을 상징하는 리(離)는 ‘3’으로 나타내고, 대응지점의 물[선천] · 둘째아들[후천]을 상징하는

갑(坎)은 ‘6’으로 나타내고, 우뢰[선천]·만아들[후천]을 상징하는 진(震)은 ‘4’로 나타내고, 대응지점의 바람[선천]·만딸[후천]을 상징하는 손(巽)은 ‘5’로 나타낸다. 고로 이들 상호간에 우수(偶數)로 대응되는 하늘·아버지와 땅·어머니[乾坤 1+8]; 연못·막내딸과 산·막내아들[兌艮: 2+7]; 불·둘째딸과 물·둘째아들[離坎: 3+6]·우뢰·만아들과 바람·만딸[震巽: 4+5] 등의 4종의 대우상수(對偶象數)의 수리(數理)는 모두 ‘9’로 귀납이 된다. 그리하여, 천지의 원리[복희(伏羲)의 선천팔괘(先天八卦)]와 현상세계의 작용[문왕의 후천팔괘(後天八卦)]이 어우러지는 이른바 ‘4개 유형×9의 수리’는 이른바 ‘36개 종류의 유형’으로 주역의 상수에서는 이를 36궁(三十六宮)이라고 칭한다. 고로 이는 다름 아닌 천도(天道)가 운행되는 36종의 규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말하자면, 우리 인간은 하늘과 땅 사이에서 복잡다단한 생활을 펼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은 이 ‘36궁’이라는 조화와 화합의 상수규율(象數規律) 안에서 각자의 삶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주역(周易)』의 64괘(卦)의 수목(數目)을 가지고 말할 수도 있다. 이를테면, 『주역』의 64괘 가운데는 ‘괘’의 형상의 반쪽인 앞면만을 바라보는 형태인 8개의 부도전괘(不倒顛卦), 즉, 천(天)의 중건천괘(重乾天卦)·택(澤)의 풍택중부괘(風澤中孚卦)·화(火)의 중화리괘(重火離卦)·뢰(雷)의 산뢰이괘(山雷頤卦)·풍(風)의 태풍대과괘(澤風大過卦)·수(水)의 중수감괘(重水坎卦)·산(山)의 퇴산소과괘(雷山小過卦)·지(地)의 중지곤괘(重地坤卦)가 있다. 이는 모두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아무리 보아도 자신의 뒷모습은 보지 못하는 패상이다. 그래서 64괘에서 이 8괘를 빼면, 56괘만 남는다.

그런데 이 56괘는 또한 모두 앞의 부도전괘와는 달리, 서로 뒤집으면 대칭을 이룰 수 있는 관계로, 이는 앞에서 거울을 바라보아서 알고 있는 나와 등 뒤에서 남들이 보는 나와는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 나머지 56괘는 각각 상호 상·하의 팔괘상을 전도시켜 대칭의 괘를 만들어낸 것이므로, 사실상은 56괘가 아니라, 이의 절반인 28괘가 되는 셈이다. 이를테면, 화택궐(火澤睽: 리상離上 태하睽下: ☲☵)의 패상은 상하의 차례를 교체하고 전도시키면, 곧 풍화가인(風化家人: 손상巽上 이하離下 ☴☲)의 패상이 된다. 고로 이 64괘에서 온전한 독립패상은 부도전괘 8개와 이 28괘의 패상이 되니, 이를 합하면, 실제 패상은 64괘가 아닌 ‘36개’가 된다는 것이니, 바로 이 36개의 패상 역시 우주를 상징하고 우리 몸의 주천도수(周天度數: 하늘이 운행하는 도수: 하늘의 돌래를 나타내는 눈금)를 뜻하는 것이 된다. 즉 사람이 하늘과 땅 사이에 끼여, 이른바 천지인(天地人)의 삼재(三才)가 될 수 있는 조건으로서 인간의 육체 자체가 팔괘(八卦)와 오행(五行), 그리고 주천도수에 맞추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고로 이 역시 ‘36궁’이라고 하면, 천도(天道)가 행해지는 천·지·인의 총체를 유형화 시켜놓은 상징적인 패상(卦象)의 규율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주역(周易)』의 64괘(卦) 패상(卦象)으로써 표현한 1년 12개월의 ‘음효(陰爻)와 양효(陽爻)의 소장(消長) 규율’도 36종의 유형으로 귀납이 된다. 이를테면, 음기(陰氣)의 소멸과 양기(陽氣)의 생장으로 나타나는 6개월간의 6개 패상을 보면, 11월이 되면, 봄기운을 품은 1개 양효가 발생하기 시작하여, 1양 5음[☲☵☵☵]의 기운을 보인다. 그래서 11월을 기점으로 하여, 12월이 되면 양효가 한

개 더 생겨 2양 4음[≡≡≡]으로 양기가 확장된다. 이어서, 1월이 되면, 양효가 3개가 되면서 음효와 각각 3개씩 절반[≡≡≡]을 차지하기에 이른다, 그러다가 2월이 되면 이제는 양효가 하나 더 많아져서 4양 2음[≡≡≡]으로 확장되고, 3월이 되면, 5양 1음[≡≡≡]으로 확장이 된다. 그리하여, 4월이 되면 완전히 상하경(上下經)이 모두 6개의 양효[≡≡≡]로 가득 차게 된다.

그리하여 5월부터는 다시 음기(陰氣)의 발생으로 양기(陽氣)의 소멸이 시작되는 시점을 맞이하게 되면서, 또 다른 6개월간의 6개 패상이 펼쳐지게 된다. 이를테면, 5월부터 1개의 음효가 발생하기 시작하여, 1음 5양[≡≡≡]의 패상을 보여, 음기의 발생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어서 6월이 도래하면, 음효가 하나 더 생겨 2음 4양[≡≡≡]이 되고, 7월이 오면 음효와 양효가 각각 3개씩 절반[≡≡≡]이 된다. 그러다가 8월이 되면 이때부터는 음효가 1개 더 많아져서 4음 2양[≡≡≡]으로 되어 절후가 서늘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어서 9월이 되면 이제는 양효가 1개만 남게 되어, 5음 1양[≡≡≡]이 되며, 10월이 되면 완전히 상하경(上下經)이 음기(陰氣)로 가득 차서 6개의 음효[≡≡≡]가 되어 천지만물이 모두 생기를 잃고 마는 살상(殺傷)의 계절이 된다. 이와 같은 음양의 소장규율(消長規律)이 1년 4계절 24절후를 어김없이 반복적으로 순환하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여기서, 음기를 짝퉁워 확장시키는 5월부터 시작하여 10월에 이르르면 천지자연은 모두 음기로 가득 차다가, 다시 11월부터는 양기가 발생하여 다음해 4월에 이르르면, 역시 천지는 양기의 생동적인 가운데로 만물의 활동이 극성을 이루게 된다. 그러면 다시 5월부터는 극성의 양기를 소멸시키는 음기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음기의 소생에서 극성까지의 6개월과, 다시 양기의 소생에서 극성까지의 6개월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패상(卦象)이 모두 6개의 효[3개의 음효와 3개의 양효]를 구성인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매효(每爻)가 포섭하고 있는 사물의 작용이 음기의 6개월과 양기의 6개월로 분류하여 취합하면, ‘6개월의 패상×6개의 효’는 이 역시도 ‘36개 궁’이라는 유형화된 천도(天道)의 활동 규율을 보여주고 있다.

13) 허이불굴동유출(虛而不訕動愈出 : (천지 사이) 텅 비어 있어도 운행하며 만물이 생성되나니) :

① 허이불굴(虛而不訕) : 하늘과 땅 사이는 비록 텅 비어 있는 상태이지만, 그 ‘텅 비어 있음’의 작용은 무궁무진한 창조작용을 함유하고 있다는 뜻이다. 여기서의 ‘굴(訕)’은 ‘갈(竭)’과 같으며, ‘다하다’·‘다 써서 없애다’·‘다 없어지다’·‘소진되어 없어지다’는 뜻으로 쓰였다.

② 동유출(動愈出) : (텅 비어 있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움직임(動)’은 바로 만물을 생성하는 근원을 이룬다는 뜻임. 여기서 ‘유(愈)’는 ‘~하면 할수록 점점 더(더욱 더)’의 뜻이고, ‘출(出)’은 ‘(만물이) 만들어져 나오다’의 뜻이다. 그리하여 ‘유출(愈出)’은 끊임없이 생성됨을 이른다.

『노자(老子)』에서 “하늘과 땅 사이는, 풀무와 같은 것이 아닌가! (천지 사이는) 텅 비어 있으나 (아무리 써도) 다 함이 없고, 움직일수록 더 많은 것들(만물)이 생겨 나온다(天地之間, 其猶橐籥與! 虛而不訕, 動而愈出).”고 한 구절을 참조 바람.

14) 탁약(橐籥) : 탁약(橐籥)으로도 쓴다. 풀무(대장간에서 불을 피울 때, 바람을 일으키는 기구). 북송 학자 범응원(范應元)은 그의 『노자도덕경 고본집주(老子道德經古本集

注』에서, “풀무장치를 ‘탁(橐)’이라 하며, 대나무관을 ‘약(箛)’이라 하는데, 제련하는 곳에서, 대나무관을 써서 풀무장치가 일으키는 바람에 연결시켜 화로에 불을 붙인다”고 하였다.

원(元)의 학자 오징(吳澄 : 1249~1333)은 “탁약(橐籥)은 쇠를 주조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바람을 불어 불을 붙이는 도구이다. 함(函)을 만들어 밖을 둘러싼 것을 ‘탁(橐)’이라고 하며, 굴대를 만들어 안에 바람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을 ‘약(箛)’이라고 한다. 하늘과 땅 사이는 탁약과 같은데, ‘탁’은 마치 ‘태허(太虛)’와 같아서, 감싸고 두루 미치는 본체이고, ‘약’은 원기(元氣)와 같은 것으로, 원기가 왕성하게 흘러 다니는 작용이다”라고 하였다.

현대 중국의 중문학자, 풍달보(馮達甫 : 1937~1997)는 “탁약(橐籥)의 기능으로 자연의 기능을 비유했으니, 자연은 대대로 그치지 않는 것이다”고 하였다.

천지라는 우주 공간 속에 만물이 생성되는 모습은 흔히 ‘탁약’에 비유되거나 또는 로(鑪 : 화로)를 이용하여 금속을 주조하는 작업에 비유된다. (이상은 을유문화사 출판, 최재목 역주 『노자(老子)』를 참조하였음)

- 15) 대갱현주미방담(大羹玄酒味方淡 : 간기 없는 국물에 맹물만 먹자니 싱거워 맛없는 데) :

① 대갱(大羹) : 매운맛 · 신맛 · 짠맛 · 쓴맛 · 단맛(辛酸鹹苦甘) 등의 5가지 맛(五味)으로 조리하지 않은 육즙(肉汁)을 말함(대갱은 태고시절 제사에 쓰던 순 고깃국으로, 소·돼지·양고기 등을 삶아서 얻는데, 소금이나 양념을 전혀 섞지 않았음).

② 현주(玄酒) : 고대의 제사 때 술 대신에 쓰는 맑은 찬물임. 즉, 맹물을 의미함.

③ 미방담(味方淡) :

☆방(方) : ‘병(並)’과 같은 의미로 쓰여, ‘다같이, 나란히’의 뜻이다. 부사로서 ‘상당히, 무척’의 뜻으로도 쓴다.

☆담(淡) : (맛이) 싱겁다.

- 16) 폐관식여퇴기복(閉關息旅敦其復 : 문 닫아 왕래 않고 초막에 은거하며 꼼짝도 하지 않네) :

① 폐관(閉關) : 문을 닫고(은거하며) 왕래를 단절하다(세사世事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이룸).

② 식려(息旅) : 초가집에서 살다.

☆식(息) : 살다(생존하다). 휴식을 취하다.

☆여(旅) : ‘려(廬)’와 통용하며, ‘여사(廬舍 : 오두막집, 초막)’의 뜻임.

③ 퇴기복(敦其復) : 홀로 웅크리고 앉아 있기를 거듭하네.

☆퇴기(敦其) : 퇴기(敦其)의 ‘기(其)’는 ‘퇴(敦)’의 접미사임. 여기서 퇴기(敦其)는 ‘몸을 구부려 웅크린 모습(蜷縮成團貌)’의 뜻이다.

- 17) 도인공재사연좌(道人空齋事燕坐 : 도사道士는 텅 빈 재실에서 좌선을 하는 중에)

① 도인(道人) : 도사(道士).

② 공재(空齋) : 텅 빈 방. 재(齋)는 ‘집, 방, 연거(燕居 : 한거閑居하는 곳)’의 뜻임.

③ 연좌(燕坐) : 좌선(坐禪).

☆좌선(坐禪) : 걸가부좌結跏趺坐를 하고 앉아 정신과 생각을 집중시켜 무념무상無念無想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을 가리킨다. 북송의 문인 소식(蘇軾 : 호는 동파東坡 : 1036~1101)의 『성도대비각기(成都大悲閣記)』에, “내가 좌선을 하면서 고요히, 심

성을 집중시켜 장중한 침묵에 잠기니, (정신이) 맑고 깨끗해지는 게 명경 같아
졌다(吾燕坐寂然, 心念凝默, 湛然如大明鏡).”고 하였다.

- 18) 족섭천근탐월굴(足蹠天根探月窟) : 발로는 천근天根 별자리 딛고 눈으로는 달의
귀속처 살펴보네) : 단지 이 구절의 이면의 뜻은 ‘발에는 양기(陽氣) 뿌리[天根]
감촉하고 손에는 음기(陰氣) 싹트는 굴속[月窟]을 더듬네.’ 왜냐하면, 이 시구는
주희가 소옹(邵雍 : 1011~1077)의 「관물음(觀物吟)」시를 보고, “손으로 월굴을 더
듬고, 발은 천근을 밟았도다(手探月窟, 足蹠天根).”(『주자어류제일백(朱子語類第一
百)·소자지서(邵子之書)』 권7에 보임)라고 상찬(賞讚)을 한 대목을 서애가 단지 앞
뒤 구절을 바꾸어서 표현한 것이다. 서애는 바로 위의 시구에서 ‘도사가 텅 빈
재실에서 좌선을 하는 광경’을 제시하고 나서, 이렇게 주희의 평어(評語)를 빌어
도사의 좌선경계를 ‘소옹(邵雍)의 탈관물(脫觀物) 경계’를 빗대어 도사의 정신유
람의 경계를 읊은 것이다.

① 천근(天根) : 이는 ‘하늘 기운 즉 양기(陽氣)가 응집된 뿌리’라는 뜻으로, 이 양기
는 땅[地]이 우레[雷]를 만나는 곳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64괘에서는 ‘지뢰복(地
雷復 : 1양 5음[==≡])’이라 하니, 천도(天道)에서는 일양(一陽)이 생기기 시작하
는 겨울로서 바로 ‘11월 패상’이 이것이다.

② 월굴(月窟) : 이는 ‘음기(陰氣)가 처음으로 출현하는 장소를 ‘굴(窟)’에 빗대어서,
‘월굴(月窟)’이라는 비유어로 상징한 것이다. 64괘에서는 천풍구(天風姤 : 1음 5
양[==≡]) 를 말하니, 천도(天道)에서는 일음(一陰)이 생기기 시작하는 여름으로
바로 ‘5월의 패상(卦象)’이 이것이다.

그리하여 이 두 패상은 1년 12개월 중에 음기(陰氣)가 시작되는 5월 패상과 양
기(陽氣)가 시작되는 11월 패상이 각각 양기의 극성에서 다시 음기를 싹틔우고
반대로 음기의 극성에서 다시 양기를 싹틔우는 음양의 소장규율(消長規律)을 ‘천
근(天根)’과 ‘월굴(月窟)’이라는 형상어에 기탁하여 표현함으로써 천지인(天地人)
이 존재하는 존재규율을 암시하고 있다. 말하자면, 천지인의 삼재(三才)는 상호
음양의 감응으로 인해, 소멸→생장→소멸→생장을 거듭하는 것인 만큼 우리는 인
생의 단면을 보고 그것이 끝인 것으로 낙담해서는 안 된다는 경계(警戒)를 함축
시키고 있다.

③ 소옹(邵雍 : 1011~1077) : 송나라 범양(范陽) 사람. 나중에 하남(河南)으로 옮겼
다. 자는 요부(堯夫), 호는 안락선생(安樂先生) 또는 이천옹(伊川翁)이며, 시호
가 강절(康節)이라 소강절(邵康節)로 주로 불림. 젊어서부터 뜻을 품어 소문산
(蘇門山) 백원(百源)에서 독서했다. 북해(北海) 이지재(李之才)가 공성령(共城
令)으로 있을 때 하도낙서(河圖洛書)와 천문, 역수(易數)를 배웠다. 스스로 깨우
쳐 자득한 것이 많았고,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자급했음. 인종(仁宗) 가우(嘉祐)
와 신종(神宗) 희녕(熙寧) 중에 장작감주부(將作監主簿) 등에 임명받았지만 사
양하고, 일생을 낙양(洛陽)에 숨어 살았다.

부필(富弼)과 여공저(呂公著), 사마광(司馬光) 등 구법당(舊法黨)과 사귀면서 시
정의 학자로 평생을 마쳤음. 선천학(先天學)을 창시하고 만물은 모두 태극(太極)
에서 말미암아 변화 생성된다고 주장했다. 『황극경세서(皇極經世書)』 62편을 지
어 천지간 모든 현상의 전개를 수리로 해석하고, 그 장래를 예시했으며, 또 『관물
내외편(觀物內外編)』 2편에서 허심(虛心)과 내성(內省)의 도덕수양법을 설명했

음. 시집으로 『이천격양집(伊川擊壤集)』 20권이 있고, 『어초문답(漁樵問答)』 1권 등이 있어 후세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 밖의 저서에 『박물편(觀物篇)』과 『선천도(先天圖)』가 있다.

☆소옹의 상수(象數) : 우주만물 변화의 실상과 그 내용을 표현한 자연수 :

『황극경세(皇極經世)·관물외편(觀物外篇)』에 기록된 소옹(邵雍)의 상수(象數)에 관한 핵심은 다음과 같다.

“태극이 분화되면, 음양이 수립된다(太極既分, 兩儀立矣). ‘양’이 아래로 ‘음’에서 교합하고, ‘음’은 위로 ‘양’에서 교합하여, 사상(四象)이 생성된다(陽下交於陰, 陰上交於陽, 四象生矣). ‘양’은 ‘음’에서 교합하고, ‘음’은 ‘양’에서 교합하여, 하늘의 사상을 생성하고, ‘강’이 ‘유’와 교합하고, ‘유’가 ‘강’과 교합하여, 땅이 사상을 생성한다(陽交於陰, 陰交於陽, 而生天之四象, 剛交於柔, 而生地之四象). 그리하여 8괘가 형성된다(於是八卦成矣). 8괘가 서로 섞인 연후에, 만물이 생성된다. 그런 까닭에 1은 2로 나뉘고, 2는 4로 나뉘고, 4는 8로 나뉘고, … (八卦相錯, 然後萬物生焉. 是故一分爲二, 二分爲四, 四分爲八, …) 32는 64로 나뉜다(三十二分爲六十四)”고 하였다.

또 「관물외편 하(觀物外篇 下)」에서, 말하기를, “태극은 1이고, 본성은 움직이지 않으며, 그 (음양을 가리킴)를 낳는데, 그는 변화가 극히 오묘하다. … 그 변화가 곧 수(數 : 1, 2, 3, 4, 8 … 등의 우주만물 변화의 원리를 표현한 자연수로서, 상의 내용에 해당함)를 낳고, 수가 곧 상(象 : 우주만물 변화의 상징[실상(實象)])을 낳고, 상은 기(器 : 개개의 사물)를 낳는다(太極一也, 不動, 生二, 二則神也. … 神生數, 數生象, 象生器).”고 하면서, 도표를 그려 사물이 생장하고 진행되는 공식을 표현하였다.

참고로 소옹의 「관물음(觀物吟)」을 제시한다.

耳目聰明男子身,	귀와 눈이 총명한 남자의 몸을,
洪鈞賦與不爲貧。	조물주께서 내게 주었으니 빈약함이 없다.
須探月窟方知物,	음기가 싹트는 굴속[月窟]을 탐지한 후에야 만물이 드러나는 이치를 알 것이며,
未識天根不識人。	양기의 뿌리[天根]를 체감하지 못하고서야 어찌 인생의 작용을 알 수 있으리!
乾遇巽時觀月窟,	건괘(乾卦)가 손괘(巽卦)를 만날 때 음의 굴[月窟]을 살피고,
地逢雷處識天根。	지괘(地卦)가뢰괘(雷卦)를 만나는 곳에선 양의 뿌리[天根] 체감하네.
天根月窟閑來往,	양기의 뿌리[天根]와 음기의 굴속[月窟]을 한가로이 왕래하니,
三十六宮都是春。	36궁[천지인(天地人)의 자연계 전체]이 모두 봄날처럼 화창하도다.
淳厚之人少秀慧,	순박하고 인정이 두터운 이는 사리에 밝지 못하고,
秀慧之人少審諦。	사리에 밝은 사람은 헤아림과 명백한 앎이 부족하다.
安得淳厚又秀慧,	어떻게 하면 순후함과 슬기로움을 함께 얻을 수 있

는지,
與之共話人間事。 그것을 가지고 함께 인간사를 이야기해 보세.

이 시는 소옹의 선천역학의 충강령을 본 시 안에 함축시키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소옹이 지은 『황극경세(皇極經世)』는 대우주의 변화 규율과 인류사회 역사의 변화에 대한 구조를 역학(易學) 사상을 통해 기술한 것이다. 이 책은 모두 64편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는 관물편(觀物篇)·관물내편(觀物內篇)·관물외편(觀物外篇)의 3대 부분으로 분편이 되어 있다. 이 분편 표제(標題)에서 알 수 있듯이, 소옹역학의 핵심정신은 바로 관물(觀物)이며, 그는 그의 「관물음(觀物吟)」시 속에서 이러한 핵심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위의 시의 제1구인 “귀와 눈이 총명한 남자의 몸(耳目聰明男子身)”에서 말하는 ‘남자(男子)’란 단순히 남자를 칭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범칭한 것이다. 이는 말하자면, 오로지 너의 귀가 들을 수만 있고, 너의 눈이 밝기만한 것이라면, 이는 바로 남자이고, 대장부의 신체인 것이라는 말이다. 여기서, 사람의 이목(耳目)에 대응하는 것은 『역경(易經)』 중의 감괘(坎卦: ䷜)와 리괘(離卦: ䷝)이다. 그래서 역시 이로부터 연상하여 도가(道家)의 내단(內丹) 수련 중, “감(坎)을 취하여 리(離)를 매꾸는 조예[功夫]”를 연상해내고 있다. 이어서 제2구인 “조물주께서 내게 주었으니 빈약함이 없도다(洪鈞賦與不爲貧)”에서, ‘홍균(洪鈞)’이 가리키는 것은 대도(大道)이다. 『역경』의 설법에 의하면, 바로 태극(太極)으로, 만물을 탄생시키는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다. 이는 말하자면, 대도는 너에게 몸을 부여했고, 너에게 생명도 주었다. 그래서 인간 개개인의 생명은 모두 대단히 소중한 풍족[豐富]하다는 것이다. 결코 대부호나 귀족의 신분을 지닌 인재만이 귀하고, 가난한 사람이나 거지는 빈천하다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매 사람마다 오직 귀와 눈이 밝도록[耳聰目明] 하늘[大道]이 너에게 부여한 것은 똑같다는 것으로, 우리들이 지닌 기본자산은 똑같이 모두 대단히 풍족하다는 것이다. 이어지는 제 34구인 “음기가 짙는 굴속[月窟]을 탐색한 후에야 만물이 드러나는 이치를 알 것이며, 양기의 뿌리[天根]를 체감하지 못하고서야 어찌 인생의 작용을 알 수 있으리(須探月窟方知物, 未攝天根豈識人)!”에서는 ‘월굴(月窟)’과 ‘천근(天根)’이 주요핵심이 된다. 비록 하늘이 나에게 이렇게 소중한 생명을 주고, 우리 역시 완전하게 이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보배를 얻었다고 해도, 아직은 반드시 ‘월굴(月窟)’로 가서 탐색해봐야 만이 비로소 생명의 규율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월굴’과 ‘천근’은 무엇인가? 이어지는 뒤의 5, 6구인 “건괘(乾卦)가 손괘(巽卦)를 만날 때 음의 굴[月窟]을 살피고, 지괘(地卦)가뢰(雷卦)를 만나는 곳에선 양의 뿌리[天根] 체감하네(乾遇巽時觀月窟, 地逢雷處見天根)”에서 바로 이 두 개의 명사를 해석하고 있다. 말하자면, 건괘(乾卦)가 손괘(巽卦)를 만날 때 무엇이 되는가? 건(乾)은 하늘[天: 陽]이고, 손(巽)은 바람[風: 陰]으로, 이는 바로 천풍구괘(天風姤卦: 5월: 5양 1음〈五陽一陰: 1개의 음陰爻가 발생함〉)로, 이것이 바로 ‘월굴(月窟)’이다. 고로 ‘월굴’이란, 온통 양기(陽氣: 5양) 가운데서 음기가 처음으로 짙어지는 5월의 음기(陰氣: 1음)의 발생을 두고 칭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이하하여, 10월에 이르르면

천지의 기운은 모두 음기(陰氣)로 가득 차게 된다[6陰]. 그리하여, 다시 땅 [陰]이 우레(陽)를 만나는 지뢰복괘(地雷復卦: 11월: 5음 1양(五陰一陽: 1개의 陽爻가 발생함)의 11월이 도래하면, 비로소 '1양'이 싹터서 양기(陽氣)를 채감할 수 있는 이른바 '천근(天根: 1陽)'의 나타남을 체감할 수 있는 시절이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어지는 7, 8구인 “천근과 월궁을 한가로이 왕래하니, 36궁이 모두 봄날 같이 화창하다(天根月窟閑來往, 三十六宮都是春)”고 하여, 소옹(邵雍)이 음양(陰陽)의 소장(消長: 일월의 내왕: 4계四季 24시二十四時의 순환)이 순환하는 규율을 체감하면서, 음양(陰陽)이 소장(消長)하는 반복적 규율이 바로 만유의 존재법칙임을 깨우침으로써, 음양의 한서(寒暑)를 모두 긍정하면서 유쾌하게 살아가는 달관의 경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고로 천지간의 음양의 모든 활동, 즉 36궁의 영고성쇠(榮枯盛衰)를 모두 보편적인 규율로 수용함으로써 “36궁이 모두 봄날처럼 화창하다”는 득도의 경계를 보일 수 있게 된 것이다.

19) 사해영영일작다(四海溟溟一勻多: 사해四海의 바닷물 들고 돌지만 한 국자 물이 많이 모인 것이요):

- ① 영영(溟溟): 강 혹은 하천의 물이 들고 도는 모양.
- ② 일작다(一勻多): 『중용장구(中庸章句)』 26장(章)에, “금부수일작지다(今夫水一勻之多)”에서 인용한 것으로 보임. 위의 시구, “사해영영일작다(四海溟溟一勻多)”와 연결해서 이를 이해한다면, 곧 굽이도는 사해도 결국은 한 국자의 물이 모여서 그렇게 넓고 광대한 사해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이의 대구인 “우불부상좌약목(右拂扶桑左若木)”은 곧 한 국자의 물이라도 쌓여서 모이면 이와 같이 일출의 지점에 있는 ‘부상(扶桑)’과 일몰의 지점에 있는 약목(若木)에까지 굽이도는 드넓은 넓이를 가질 수 있게 됨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내용으로 보인다.

주희는 또한 그의 『중용집주(中庸集注)』에서 한 국자의 물이 모여서 이루어진 대해(大海) 안에는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물고기와 해초들이 생산되는데, 이는 다름 아닌 그 대해가 왕성한 생물을 생육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저마다 지니고 있는 한결같은 성(誠)을 바탕으로 쉬지 않은 까닭이라고 하여, 성인이 바로 ‘지성무식(至誠無息)’으로 만인을 교화하고 평천하(平天下) 한다는 속뜻을 비유한 것으로 보인다.(이상은 장기근(張基謹) 신역(新譯) 『중용장구신강(中庸章句新講)』-명문당 明文堂 참조함)

20) 우불부상재약목(右拂扶桑左若木: 오른 손 뻗치면 해 뜨는 부상扶桑에 닿고 왼 손 내밀면 해 지는 약목若木에 닿는다네):

- ① 부상(扶桑): 신화 속의 나무이름. 『산해경(山海經)·해외동경(海外東經)』에, “아래로는 탕곡(湯谷: 물이 끓는 계곡)이 있고, 위에는 부상(扶桑)이 있는데, 열 개의 태양이 목욕하는 곳이며, 흑치국(黑齒國: 전설상의 고대국명)의 북쪽에 있다(下有湯谷, 湯谷上有扶桑, 十日所浴, 在黑齒北)”고 하였다.
- ② 약목(若木): 해가 지는 쪽에 있었다는 신화상의 나무 이름이다. 해가 지는 쪽을 가리키기도 한다. 『산해경·대황북경(山海經大荒北經)』에 “대황(大荒: 지극히 먼 곳. 일설에는 동쪽 끝의 거친 바다라고 함) 가운데, 형석산(衡石山)·구음산(九陰山)·회야산(灰野山)이 있다(大荒之中, 有衡石山, 九陰山, 灰野之山). 산 위에

는 붉은 나무가 있어서 푸른 잎에 붉은 꽃이 피는데, 그 이름을 ‘약목(若木)’이라고 한다(上有赤樹青葉赤華, 名曰若木).”고 하였다.

21) 문도봉래기청천(聞道蓬萊幾清淺 : 득도해야 가는 봉래산은 냇물이 얼마나 맑았던가) :

① 문도(聞道) : 모종의 도리를 깨닫다. 『논어(論語) · 이인(里仁)』에, “아침에 도를 터득하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朝聞道, 夕死可矣).”고 하였다.

② 봉래(蓬萊) :

☆봉래산(蓬萊山). 고대 전설상의 신산(神山) 이름. 일반적으로仙境(仙境)을 가리키기도 함. 『산해경(山海經) · 해내북경(海內北經)』에, “봉래산은 바다 가운데 있다(蓬萊山在海中)”고 하였다.

③ 기청천(幾清淺) : 얼마나 맑은가!

☆기(幾) : 얼마나

☆청천(淸淺) : 물이 맑고 얕음을 이름. 본 시에서는 ‘물이 맑다’로 번역하였음.

22) 반도결자삼천겁(蟠桃結子三千劫 : 삼천 년에 한 번씩 열매 맺는 선도仙桃도 있는데) :

① 반도~삼천겁(蟠桃~三千劫) : 신화 속에서仙境에 있다는 복숭아.

☆『태평광기(太平廣記)』 권3에서, 『한무내전(漢武內傳)』의 기록을 인용하여 말하기를, “7월 7일에 서왕모(西王母 : 중국신화에 나오는 신녀(神女)의 이름. 불사약을 가진 신녀라고 함)가 강림하여, 선산(仙山)에서 난 복숭아 4개를 황제에게 드렸다(七月七日, 西王母降, 以仙桃四顆與帝). 황제는 그 복숭아를 먹고 나서, 즉시 씨를 받아두자, 서왕모가 황제에게 그 이유를 물으니, 황제가 대답하기를 : ‘심으려고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서왕모가 말하기를 : ‘이 복숭아는 3천 년에 한 번 열매를 맺기도 하거니와, 중국은 토질이 척박하여, 심어도 살지 못합니다.’고 하자, 황제는 마침내 복숭아 파종을 포기했다(帝食輒收其核, 王母問帝, 帝曰 : ‘欲種之.’ 王母曰 : ‘此桃三千年一生實, 中夏地薄, 種之不生’. 帝乃止).”고 하였다.

☆중국 고대 아동계몽서적에 속하는 명(明) · 정윤승(程允升), 『유학경림(幼學瓊林)』에서, “서왕모의 선도(仙桃)는, 3천 년 만에 꽃을 피우고, 3천 년 만에 열매를 맺는다(王母蟠桃, 三千年開花, 三千年結子).”고 하였다.

② 삼천겁(三千劫) : 무수히 긴 세월을 표현한 말이다. 삼천(三千)은 ‘수목(數目)이 많음’을 이르는 말이고 겁(劫 : 산스크리트어<Sanskrit語> 고대 인도 표준어)로 칼파(Kalpa)은 불교용어로서 인도의 시간적 단위 중 가장 긴 것인데 ‘무한의 시간을 하나의 단위’로 생각한 말이다.

23) 도입선생농환중(都入先生弄丸中 : 이 모든仙境仙境을 선생의 농환弄丸 속에 넣어 놓고) :

① 선생(先生) : 본 시에서는 자칭(自稱)의 뜻으로 쓰였다.

② 농환(弄丸) : 본 시의 주석1)의 ‘농환(弄丸)’ 조항을 참조 바람.

24) 방거수래불용벌(放去收來不容瞥 : 내려왔다 거뒀었다 하면서 겉눈길하지 않네) :

① 방거수래(放去收來) :

☆방(放) : 놓아두다. 포기하다.

☆수(收) : 집수하다. 거뒀이다.

☆래(來): 동사 뒤에 방향을 나타내는 보어로 쓰여, 동작이 말하는 사람에게로 향해짐을 나타낼 뿐 뜻은 없다.

- ② 불용벌(不容瞥): 겉눈질을 허용하지 않다. 즉 선정(禪定)의 경지에 들을 이른다.

☆불용(不容): a. 용납하지 않다. b. 받아들이지 않다. c. 피할 수 없다.

☆벌(瞥): a. 얼핏 보다. b. 힐끗 보다.

- 25) 무공주(無孔珠): 구멍이 없는 구슬. 즉 ‘농환(弄丸)’을 이른다.

- 26) 일점단단정허백(一點團團正虛白: 하나의 둥근 공이 무욕도심無欲道心 일깨워준 다네):

- ① 단단(團團):

☆둥근 모양. 둥글둥글하다.

☆둥근 공. 본 시에서는 농환(弄丸)을 칭한다.

- ② 허백(虛白): 허실생백(虛室生白): 이는 사람이 마음을 비우고 무욕(無欲)하면, 도심(道心)이 자생(自生)함을 이룸. 여기서 말하는 도심의 경계란, 역시 윤회도의 구별이 크게 없는 것으로 인간의 근원, 곧 생명의 근원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정신수양의 경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장자(莊子)·인간세(人間世)』: “저 비어 있는 곳을 보라(瞻彼闕者), 실내를 비워내면 일광이 빛을 발할 장소가 생기게 된다(虛室生白), 운수가 좋을 징조 역시 심신을 공허하게 하여 고요한 경지를 만들어낼 때에 머물게 된다(吉祥止止).” 고 하였다.

시12. 선현음

詩12. 先賢吟¹⁾
선현음



張生²⁾遇秋風,
장 생 우 추 풍

장생張生은 가을바람을 뵈고 나서,

忽起故園³⁾情。
홀 기 고 원 정

문득 고향 생각 간절해졌다네.

孤帆⁴⁾出東海,
고 범 출 동 해

한 척의 돛단배 타고 동해로 나가니,

一鴈正冥冥⁵⁾。
일 안 정 명 명

한 마리 기러기가 아득히 멀리서
날아가네.

鱸魚與蓴羹⁶⁾,
노 어 여 순 갡

농어회와 순채탕이,

只爲口腹營⁷⁾。
지 위 구 복 영

기껏 입맛이나 즐기고 배 채우기
위함이었겠는가!

既得眼前好⁸⁾,
기 득 안 전 호

생전에 좋다는 것은 이미 다 누렸거늘,

還有身後名⁹⁾。
환 유 신 후 명

다시 또 사후死後의 명예까지 탐내서야
되겠는가?

人生貴適意¹⁰⁾,
인 생 귀 적 의

인생은 의지에 맞춰 사는 걸 위하게

富貴如浮雲¹¹⁾。
부귀여부운

如何東方朔¹²⁾，
여하동방삭

避世金馬門¹³⁾。
피세금마문

偷桃¹⁴⁾亦微過，
투도역미과

王母有煩言¹⁵⁾。
왕모유번언

徒能解客嘲¹⁶⁾，
도능해객조

不免俳優畜¹⁷⁾。
불면배우축

古來賢達士¹⁸⁾，
고래현달사

出處非一轍¹⁹⁾。
출처배일철

何須問清濁²⁰⁾，
하수문청탁

不害爲明哲。
불해위명철

終然勝陸機²¹⁾，
종연승육기

여저야 하느니,

부귀는 뜬 구름과 같은 것일세.

동방삭東方朔은 어찌하여,

금마문金馬門에서 세상 피해 숨으려
했던고?

(선경仙境의) 복숭아 훔친 것은 사소한
허물일 뿐인데,

서왕모西王母는 분노에 찬 말을 했다네.

(양웅揚雄은) 손님 조롱에
(식견 높은 저서로) 해명했지만,

광대 대접 받는 것은 면할 수 없었거늘!

예로부터 어진 선비와 사리에 통달한
사람은,

출사出仕와 은퇴에 취향이 같았던 건
아니었네

구태여 청백리清白吏와 탐관오리 따질
필요 있겠는가,

백성 해치지 않았다면 사리 통찰한
관리였던 게지.

(나의 벼슬생애 참언으로 주살된) 육기陸機
보다는 낫다 할지라도,

- 1) 음(吟): 이는 악부(樂府)의 편명(篇名)의 하나이다. ‘악부(樂府)’란, 말은 한무제(漢武帝)가 설치한 음악관서의 명칭에서 시작된 것으로, 당조에는 이 악부에서 각 지방의 민가를 채집하였고, 또한 작곡도 하여 조정의 행사 때 노래로 부르게 하였다. 이 때에 불리어진 노래의 곡조는 알 길이 없으나, 가사(歌辭)가 전해지면서 악부라는 관서명칭이 시체(詩體)의 명칭으로 되었다. 후인들은 이를 악부시(樂府詩)라고 칭한다. 악부시의 내용은 주로 인생의 애환과 풍속 등을 사실에 의거하여 읊었다. 이는 5언, 혹은 7언 및 기타 잡언(雜言)으로 이루어진 장단구(長短句)의 형식이나, 한대(漢代) 후기로 오면, 5언구 중심으로 형식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자세한 것은 「시4」의 주석1)의 ② 탄(歎) 조항을 참조바람.
- 2) 장생(張生): 장한(張翰: 생물년 미상: 서진西晉의 문인): 여기서 “장생(張生)”의 ‘생(生)’은 독서인의 통칭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본 시구에서는 시의 서두에서 추풍과 더불어 사향(思鄉)의 의지를 실천에 옮긴 장한(張翰)의 고사로 시작하여, 본 시의 주제를 암시하고 있다.
☆장한(張翰: 생물년 미상): 서진(西晉), 오군오현(吳郡五絃: 지금의 강소성江蘇省 소주蘇州) 사람이다. 자는 계웅(季鷹)이다. 문장에 뛰어났으며 격식을 싫어하고 자유로워서 사람들이 ‘강동보병(江東步兵)’이라 불렀다. 진(晉)나라 혜제(惠帝) 때 사마경(司馬罔: ?~303: 제왕齊王. 8왕의 네 번째 인물)이 집정하자 대사마 동조연(大司馬東曹掾)에 임명되었다. 그 후 천하에 대란이 일어나자 사마경이 패할 것을 예측하고는 오(吳)로 돌아갔는데, 과연 얼마 있지 않아 사마륜(司馬倫: ?~301: 조왕趙王. 8왕의 세 번째 인물)이 피살당했다.
그가 낙양(洛陽)에 있을 때 가을바람이 불자, 고향 땅의 고채(菰菜)와 순갱(蓴羹: 순채국), 노어회(鱸魚膾)가 생각나서, “사람은 의지에 맞추어 사는 것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데, 어찌 벼슬살이로 수천 리 떨어져 살면서 명예나 작위(爵位)를 노리겠는가.(人生貴得適志 何能羈宦數千里以要名爵)”라고 하면서 그날로 말을 타고 돌아왔다는 이야기로 유명하다. 그 후 유유자적하며 인생을 즐기다 57세에 죽었다. 원래 문집 2권이 있었지만 이미 없어졌다. 「수구부(首丘賦)」 등 문장도 수십 편을 남겼지만, 이 또한 없어진 것이 많다.(임종욱 편저, 중국역대인명사전 참조)
- 3) 고원(故園): 본 시어도 역시 출구(出句)에서 제시한 ‘추풍(秋風)’이 야기한 시어(詩語)로 인해, 사향(思鄉)의 시의(詩意)가 함축되어 있다. 옛적에 살던 집의 정원. 전(轉)하여, ‘고향의 뜻으로’도 쓰인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4) 고범(孤帆): 한 장의 돛. 한 척의 (외로운) 돛 단 배를 가리키기도 함.
- 5) 명명(冥冥): 고원(高遠)한 모양.
- 6) 노어어순갱(鱸魚與蓴羹: 농어회와 순채탕이): 본 시구는 서진(西晉)의 장한(張翰)이 추풍의 감촉이 야기한 고향의 먹거리가 귀향의 동기로 부각된 고사를 사용하여, 서애자신의 귀은(歸隱)의 의도를 함축시키고 있다.

① 노어(鱸魚) : 농어(농어과에 속하는 바닷물고기). 본 시에서의 ‘노어’는 ‘노어회(鱸魚膾 : 농어회)’를 뜻한다. 몸의 길이는 50~90cm이고, 등은 검푸르고 배는 희며, 어릴 때는 등과 지느러미에 검은 갈색의 작은 점이 많다. 몸은 옆으로 납작하며 주둥이가 크고 아래턱이 위턱보다 길며, 온 몸에 잔 비늘이 많다. 가을과 겨울철에 강어귀에 산란하며 어릴 때는 민물에 살다가 첫겨울에 바다로 나간다. 한국, 일본, 중국 등지에 분포되어 있다.

② 순갱(蓴羹) : 순(蓴), 순채(蓴菜)로, 이는 쌍떡잎식물 미나리 아재비목 수련과의 여러해살이 수초. 잎은 어긋나고 타원형이며 뒷면은 자줏빛이 돌고 중앙에 잎자루가 달려있다. 잎이 자랄 때는 어린 줄기와 더불어 우무 같은 점질로 둘러싸여 있다. 이는 부규·순나물이라고도 한다. 중국이 원산지이다. 연못에서 자라지만 옛날에는 잎과 싹을 먹기 위해 논에 재배하기도 하였다. 순갱(蓴羹)은 순채로 만든 국이다.

『진서(晉書)·장한전(張翰傳)』에 보면, “한(翰)은 추풍이 불어오자(翰因見秋風起), 곧 고향인 오중(吳中)의 고채나물·순채탕과 농어회가 생각이 났다(乃思吳中菰菜, 蓴羹, 鱸魚膾)”는 기록이 보인다. 주석2)를 참조 바람.

7) 지위구복영(只爲口腹營 : 기껏 입맛이나 즐기고 배 채우기 위함이었겠는가!) :

『맹자(孟子)·고자 상(告子 上)』의 제14장에, “맹자가 말하기를: 단지 먹고 마시는 데만 신경 쓰면서 (사상 의식의 배양을 돌보지 않는) 사람인즉, 남들이 그를 경시하는데, 그런 사람은 작은 것은 보양(保養)하면서 큰 것은 상실했기 때문이다(飲食之人, 則人賤之矣, 爲其養小以失大也). 만약 먹고 마시는데 신경 쓰는 사람이 사상 의식의 배양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라면, 먹고 마시는 목적이 어찌 겨우 입맛을 즐기고 배를 채우기 위한 작은 부분을 위함이겠는가(飲食之人無有失也, 則口腹豈適爲尺寸之膚哉)?”라고 하였다.

☆구복(口腹) : 입과 배. 전(轉)하여 음식(飲食). 먹고 마시다. 본 시에서는 먹고 배를 채우다로 번역하였다.

☆영(營) : 꾀하다. 계획하다.

8) 안전(眼前) :

① 눈앞에. 면전에. 근처에.

② 지금. 현재. 본 시에는 생전의 뜻으로 쓰였다. 『경세통언(經世通言)·노문생 삼세 보은(老門生三世報恩)』편에, “세상 사람들은 단지 현재의 귀천만 알았지(世人只知眼前貴賤), 사후의 세월이 길고 짧다는 것을 어찌 알겠는가(那知去後的日長日短)!”라고 하였다.

9) 신후(身後) : 사후(死後). 당(唐)나라 시인 원진(元稹 : 779~831)이 27세의 젊은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난 부인 위충(韋叢)을 추모하여 지은 시 「세 수의 시로 슬픈 회포를 품(三遺悲懷)」 중의 두 번째 시에, “종전에는 사후(死後)의 정의(情意)를 놓고 농담했더니, 오늘은 그 모든 게 다 면전에 닥쳤네(昔日戲言身後意, 今朝都到眼前來).”라고 읊었다.

10) 적의(適意) :

① 의지에 부합되다, 마음에 들다. 흡족하다.

② 쾌적하다. 기분이 좋다.

11) 부운(浮雲) :

① 떠다니는 하늘의 구름.

② 덧없는 것에 대한 비유로 쓰는 말.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12) 동방삭(東方朔: BC 154~BC 93): 서한(西漢) 평원군(平原郡) 염차현(厭次縣: 전하는 바에 의하면, 진시황이 동방으로 유람하다가 이곳을 혐오했던 까닭에 지어진 이름이라고 함), 지금의 산둥성(山東省) 능현(陵縣) 사람. 자는 만천(曼倩)으로 풍자와 해학이 뛰어난 문인이다.

그는 무제(武帝) 때, 장안(長安)에 입성해서 자천(自薦)하여, 금마문(金馬門: 한나라 시대 궁문의 이름으로 학士들이 황제의 명령을 대기하던 곳임)에 들어가서 황제의 명을 기다리며 대기하였다. 후에 상시랑(常侍郎: 황제 좌우에서 시종侍從하며, 황제를 보좌하는 벼슬 명칭)과 태중대부(太中大夫: 직위는 대부 중의 으뜸벼슬로서, 황제 좌우에서 시종하며 황제의 고문顧問에 응하는 동시에, 의정議政에 참여하며, 출사出仕의 명을 받들었음. 대체로 충신寵臣이거나 귀척貴戚이 취임하던 자리였음)를 역임하였다.

『한서(漢書)·동방삭전(東方朔傳)』에 의하면, 그는 성격이 익살스럽고, 말을 할 때의 용어나 글 쓸 때의 구절이 매우 영민하였으며, 해학적이고 지혜로워서, 항상 무제의 면전에서 담소를 즐겼지만, “수시로 황제의 안색을 살피면서, 직언으로 극간(極諫)을 올리기도 했다(然時觀察顏色, 直言切諫)”고 하였다.

무제가 사치하기를 좋아하고, 궁궐 정원인 상림원(上林苑: 진秦나라 때의 궁원宮苑이었으나, 무제 때 대규모로 확장신축한 제왕의 정원이다. 지금의 서안시西安市 서부와 주지현周至縣 및 호현戶縣을 경계한 곳에 위치함)을 조성하려 하자, 직언으로 간하기를, “백성의 비옥한 토지를 거두어들여서, 위로는 국가재정을 결핍하게 하고, 아래로는 농업과 양잠업을 상실하게 하니, 이미 이른 업적을 폐기함이니, 곧 대사를 그르치게 됩니다(取民膏腴之地, 上乏國家之用, 下奪農桑之業, 棄成功, 就敗事).”고 하였다.

또한 일찍이 그는 정치의 득실과 부국강병책을 진언(進言)했으나, 무제는 시종 그를 관객들을 웃기는 광대 정도로 간주하며 중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자조(自嘲)하며 「답객난(答客難)」과 「비유선생론(非有先生論)」을 써서 자신이 지향하는 바와 불만을 표출하였다. 「답객난」은 주객(主客)이 문답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었는데, 한무제가 천하를 평정하고 전국을 통일한 시대를 말하면서, 이 시대에는 “현불초(賢不肖: 현명한 사람과 우매한 사람)에 아무런 구별이 없다고 하였다. 비록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재능을 발휘할 방법이 (기회가) 없으니, “등용되면 범이 되고, 등용되지 못하면 쥐가 된다(用之則爲虎, 不用則爲鼠)”고 하였다. 이렇게 통치자가 인재에 대하여 마음가는데로 혹은 억누르고 혹은 찬양하는 현실을 폭로하는 동시에, 자기 자신을 위한 불만을 표현하였다. 이 문장에 쓰인 어휘가 매우 산뜻하고 논의된 내용이 호쾌하였다. 남북조시대 양(梁)나라 문학자 유협(劉勰: 465~521)은 그의 저서 『문심조룡(文心雕龍)·잡문(雜文)』에서, “고사(古事)를 빌려와 자신을 위안하는 내용으로 된 이 작품은, 간단명료하면서도 논리적이다(託古慰志(疏而有辨).”고 하였다. 「비유선생론(非有先生論)」은 비유선생이 오(吳) 나라에서 관리생활을 하는 것을 가탁해서 쓴 작품인데, 주인공인 비유선생은 3년이나 “묵묵히 침묵하면서 말을 하지 않았다(默然無言).” 오왕(吳王)이 그에게 연유를 묻자, 그는 그 기회를 타서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간언을 올리다가 화를 당한 사례를 들면서 오왕을 계몽하고, 제왕은 마땅히 마음을 비우고 간언을 받아들여야 함을 권유하였다. 작품 속에서 몇 번이나 “말하기는 쉽지만 실행이 어찌 그리 쉽겠느냐(談何容易)”고 했는데, 그 내용

이 감개무량하고 의미심장하여, 문맥이 생동감 넘치는 필치를 표현하였다.

이밖에 소체부(騷體賦: 굴원屈原의 「이소(離騷)」를 모방하여 지은 시부(詩賦)로 지은 「칠간(七諫)」이 있으나 그다지 새로운 뜻은 없음. 그 외에도 「신이경(神異經)」과 「십주기(十洲記)」 등의 저자라고 전해지고 있으나, 모두가 진(晉)나라 시대 이후의 위작(僞作)으로 보고 있다. 속설에 서왕모(西王母)의 복숭아를 훔쳐 먹어 장수하였다고 하여, ‘삼천갑자(三千甲子: 육십갑자의 삼천 배, 곧 18만 년을 이룸) 동방삭(東方朔)’으로 일컬어지며, ‘오래 사는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그 뜻이 바뀌어 쓰이고도 있다.

- 13) 피세금마문(避世金馬門: 금마문金馬門에서 세상 피해 숨으려 했단고?): 이 구절은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골계열전(滑稽列傳)』 권126에 보인다. “동방삭이 궁전 안을 걸어가고 있을 때, 어떤 낭관(군왕을 시종하는 측근 관리)이 말하기를: “사람들이 모두 선생을 미친 사람이라고 합니다”라고 하니, 동방삭이 말하기를: “나와 같은 사람은, 이른바 조정에서 세상을 피하는 사람이네. 옛 사람은 깊은 산속에서 세상을 피하였지만 말이네(朔行殿中, 郎謂之曰: 人皆以先生為狂. 朔曰: 如朔等, 所謂避世於朝廷間者也. 古之人, 乃避世於深山中).”라고 하였다. 때로 술좌석에서 거니하게 취하면, 그가 지은 「한 지역에 근거지를 마련하고 살면서 부르는 노래(據地歌)」를 노래했다: “세속에 젖어서, 세상을 금마문에서 피하네. 궁전 안에서도 세상을 피하고 몸을 온전히 할 수 있는데, 하필이면 깊은 산속에서, 쑥으로 엮은 집에서 살겠는고(時坐席中, 酒酣, 據地歌曰: 陸沈於俗, 避世金馬門. 宮殿中可以避世全身, 何必深山之中, 蒿藜之下)!”라고 하였다.

이 시에서 동방삭이 조정에 관료로 있으면서도 고위직의 주요 세무(世務)는 기피하는 이른바 “은우조시(隱于朝市)”를 제창하여, ‘세상에 자신을 정면으로 드러내지 않고 현실에 대응하는 [의은완세(依隱玩世)]의 사상정서와 명철보신(明哲保身)의 처세철학을 표현하고 있는데, 서에는 선생의 「선현음(先賢吟)」에서, 동방삭의 이러한 처세관에 대하여 아마도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다.

- ① 금마문(金馬門): 환관을 관리하는 관서(官署)의 정문을 말한다. 문 곁에 동(銅)으로 만든 말이 세워져 있으므로, 이를 ‘금마문’이라고 한 것이다(宦者署門也, 門傍有銅馬, 故謂之曰‘金馬門’)고 하였다(『사기·골계열전』 권126에서 참조함).

- 14) 투도(偷桃): ‘선도(仙桃: 신선이 사는 곳에 있다는 복숭아)를 훔쳐 먹다’는 뜻이다. 후한(後漢)의 반고(班固)의 작품이라고 가탁한 작자미상의 중국 고대 소설인 『한무제내전(漢武帝內傳: 한무제內傳이라고도 함)』에서 표현된 말이다. 이 책의 내용은 도술에 관심이 많고 도사들을 측근에 두고 중용했다는 무제의 성격과 생활을 소설화한 것인데, 곤륜산(崑崙山)에 산다는 서왕모(西王母)가 무제를 찾아와 선도(仙桃)를 선물한 뒤, 묘사되는 상황에서 나온 말이다.

불사약을 지닌 선녀 서왕모가 한무제의 궁중으로 날아와 왕에게 복숭아 일곱 개를 바치자 무제는 이 중 두 개를 먹고 그 씨를 남겼더니, 서왕모가 말하기를, 이 복숭아는 3천년에 한 번씩 열매를 맺으며 여느 복숭아와는 다르다고 하자, 무제는 그 씨를 버렸다. 서왕모의 말을 들은 동방삭은 몰래 그 복숭아 세 개를 훔쳐 먹었다고 한다. 『한무고사(漢武故事)』에서는 천상의 서왕모가 심은 복숭아는 3천 년에 한 번씩 열매를 맺는데, 동방삭이 세 차례나 이것을 훔쳐 먹고 마침내 인간 세계로 유배되었다고 했다.

또한, 서진(西晉)의 문인이자 정치가인 장화(張華 : 232~300)가 지은 『박물지(博物志)』 권8 「사보(史補)」에도 ‘투식선도(偷食仙桃)’의 일단락이 보인다.

“한무제가 신선이 되는 도술을 애호하여, 명산대천에 제사를 지내어 신선이 되는 것을 추구했다. 당시 서왕모(西王母)는 백록(白鹿)을 탄 사자를 파견하여 무제에게 자신이 곧 올 것임을 알렸다. 이에 무제가 곧 구화전(九華殿)에 휘장을 치고 그녀의 광림을 기다렸다. 7월 7일 밤 7시에, 서왕모가 자운거(紫雲車)를 타고 구화전 서남쪽에 당도하여, 얼굴을 동쪽으로 향하고 앉아 있었는데, 오로지 머리에 옥승(玉勝)을 꽂은 장식품만 보이고, 머리숱은 구름처럼 농밀했다. 까마귀처럼 커다란 세 마리의 파랑새가, 서왕모의 양쪽 옆을 지키고 있었다. 당시 궁전 안에는 불을 붙인 9개의 희미한 등불을 배치해 놓았다.

무제는 구화전의 동쪽에서 서쪽을 향해 앉아 있었는데, 서왕모는 사자한테서 7개의 선도를 가져오게 하였는데, 모두 탄환만큼 컸다. 5개는 무제에게 주고, 왕모는 2개를 먹었다. 무제는 선도를 먹을 때마다 항상 선도의 씨앗을 무릎 앞쪽으로 밀어 넣었다. 왕모가 그 까닭을 물었다: ‘이 선도씨앗을 남겨두는 이유가 무엇이었어?’ 무제가 대답했다: ‘이 선도는 달콤하여 맛이 좋아서, 이러한 도화(桃花) 나무를 심고 싶습니다.’ 왕모는 웃으면서 말했다: ‘이러한 도화나무는 3천 년이 지나야 비로소 한번 과실이 열립니다.’ 당시에 오직 무제와 왕모만이 서로 마주 보고 앉아 있었고, 기타 시종을 드는 사람들은 모두 그 안에 들어올 수 없었다.

이때 동방삭이 몰래 구화전 남쪽의 결채에서 주조(朱鳥)가 조각된 창으로부터 서왕모를 훑쳐보고 있었다. 왕모가 고개를 돌려 그를 보고는 무제에게 말하기를: ‘창문으로 엿보고 있는 저 녀석은, 일찍이 세 차례나 나의 이 선도를 훑쳐갔어요.’ 무제는 매우 기이하게 여겼다. 이로부터 세상 사람들은 동방삭을 신선으로 여겼다(漢武帝好仙道, 祭祀名山大澤以求神仙之道。時西王母遣使乘白鹿告帝當來, 乃供帳九華殿以待之。七月七日夜漏七刻, 王母乘紫雲車而至于殿西南, 面東向, 頭上戴玉勝, 青氣鬱鬱如雲。有三青鳥, 如烏大, 使侍母旁。時設九微燈。帝東面西向, 王母索七桃, 大如彈丸, 以五枚與帝, 母食二枚。帝食桃輒以核着膝前, 母曰: ‘取此核將何爲?’ 帝曰: ‘此核甘美, 欲種之.’ 母笑曰: ‘此桃三千年一生實.’ 唯帝與母對坐, 其從者皆不得進。時東方朔窺從殿南廂朱鳥牖中窺母, 母顧之, 謂帝曰: ‘此窺牖小兒, 嘗三來盜吾此桃.’ 帝乃大怪之。由此世人謂方朔神仙也。)’라는 내용이 보인다.

- 15) 왕모유변언(王母有煩言 : 서왕모西王母는 분노에 찬 말을 했다네) : 서왕모가 화를 낸 부분과 관련되는 내용은 위의 주석14)를 참조 바람.

- ① 왕모(王母) : 서왕모(西王母) : 신화에 나오는 신녀(神女)의 이름이다. 서왕모는 선진(先秦) 이래의 비교적 광범하게 유포된 신화적 인물이다. 은허복사(殷虛卜辭 : 은허문자. 중국 하남성河南省 안양현安陽縣에서 출토된 은나라의 유적으로, 갑골문자甲骨文을 점복占卜에 주로 썼던 문자임)에서 이미 ‘서모(西母)’란 문자가 나오는데, 이것이 서왕모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 후에 서왕모에 대한 문자 기록으로는 『산해경(山海經)』에서 시작된다. 『산해경(山海經)·서차삼경(西次三經)』에서 말하기를, “서왕모는 그 생김새가 사람과 같은데, 표범의 꼬리에 호랑이 이빨을 하고 휘파람을 잘 불며, 호트러진 머리에 머리꾸미개를 꽂았으며, 하늘의 재앙과 오형(五刑)을 관장하고 있다(西王母其狀如人, 豹尾虎齒而善嘯, 蓬髮戴勝, 是司天之厲及五殘)”고 하였다. 『산해경·

대황서경(大荒西經)에서 말하기를, “머리 꾸미개를 꿸고, 호랑이 이빨에, 표범의 꼬리를 가진 사람이, 동굴에서 산다. 그 이름은 서왕모라고 한다(有人戴勝虎齒有豹尾, 穴處。名曰西王母)”고 하였다. 『산해경·해내북경(海內北經)』에서도 유사한 기재가 있다.

『산해경』에서 묘사된 서왕모는 분명히 야만시대의 씨족신(氏族神)이거나 부족신(部族神)의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짐승과 유사한 신인(神人)이다. 이외에도 선진고적(先秦古籍)에서, 이를테면, 『순자(荀子)·지형(地形)』과 『이아(爾雅: BC 2세기경 주공周公이 지었다고 하는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자서字書인 「석지釋地」)』 등 책에서는 서왕모를 국명이나 지명 또는 군주명으로 일컫기도 한다.

『이아(爾雅)·석지(釋地)』편에서, “고죽(觚竹: 북쪽 끝에 있는 나라), 북호(北戶: 북쪽에 있는 오랑캐의 나라), 서왕모, 일하(日下: 해가 뜨는 동쪽에 있는 나라)를, 사황(四荒: 사방의 황원荒遠한 곳)이라고 한다(觚竹, 北戶, 西王母, 日下, 謂之四荒)”고 하였다. 이 글에 서진(西晉) 말, 동진(東晉) 초의 학자이자 시인인 곽璞(郭璞: 276~324)이 주(注)를 달아 말하기를, “서왕모는 서쪽에 위치하며, 사방이 모두 몽매하고 황량한 나라이다(西王母在西, 皆四方昏荒之國)”고 하였다.

『회남자(淮南子)·지형(地形)』편에서는, “서왕모는 유사(流沙: 모래가 강물처럼 흘러내리는 서역지역)에 연결하는 곳에 있다(西王母, 在流沙之瀕).”고 하였다.

서왕모가 군주라는 논조는 『목천자전(穆天子傳)』에서 일종의 전기성(傳記性)을 지닌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를테면, 주목왕(周穆王)이 낙양(洛陽)을 출발하여 지금의 신강성(新疆省) 지역의 서왕모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의 여수령(女首領)인 서왕모와 접견하는 정경을 비교적 상세히 기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왕모는 주목왕과 상호 예물을 교환하고 요지(瑤池: 주목왕이 서왕모를 만났다는 전경. 곤륜산崑崙山에 있음)에서의 연회석상에서 일문일답식의 노래를 부르며 의견을 교환했다. 이 책에서 표현된 서왕모는 예의 바르고 젊었으며 주목왕에 대한 응대가 능숙한 군왕의 기상을 갖춘 부인이었다. 신격적(神格的)인 면에서 그녀는 자칭 ‘가명불천(嘉命不遷: 조정에서 내린 칙명은 번복하지 않음)’하는 ‘제녀(帝女: 하늘의 딸)’였다.

한(漢)나라 이후, 나날이 발전한 도교의 영향에 따라 서왕모의 신화가 진일보하여 도교화한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회남자(淮南子)』, 『박물지(博物志)』, 『한무제내전(漢武帝內傳)』 등 저서에서 이미 매우 선명해졌다. 『회남자』에서는 서왕모를 불로장생의 약을 가진 자라고 말하는 동시에 항아(嫦娥: 불사약을 훔쳐가지고 달로 달아났다는 예쁜 아내인 선녀)의 전설과 연계시켰다. 『한서(漢書)』 등 사서(史書)에서도 민간신앙으로서의 서왕모에 대한 활동도 반영하였다. 이 당시 서왕모의 형상은 더욱 큰 변화가 있었다. 반고(班固)가 지었다고 가탁(假託)한 『한무제내전(漢武帝內傳)』에 표현된 서왕모는 “나이 서른 살쯤 되는 보통 키에, 자질이 뛰어난 절세미인(可年三十許, 修短得中, 天姿掩護, 容顏絕世)”의 선녀였다. 그녀의 단장과 수행하는 의장(儀仗)은 인간세상의 제왕과 매우 흡사하였다. 그녀가 가지고 있는 불사약은 3000년에 한 번 열매를 맺는 선도(仙桃)였다. 이후 서왕모는 천상의 반도승회(蟠桃勝會: 반도가회蟠桃嘉會 또는 반도성회蟠桃盛會라고도 하며 약칭 반도회蟠桃會 또는 반도蟠桃라고도 함: 서왕모가 요지瑤池에서 개최한 선도仙桃를 맛보는 연회)를 주재하면서, 그 연회에 초청한 듯 선인에게 불로장

생하는 선도를 먹게 하는 신화는 광범하게 퍼졌다. 이 신화가 전파되는 과정에서 서왕모의 신성(神性)은 진일보하여 확대되어, 그녀는 선계(仙界)를 관리하는 여선(女仙)의 수령일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장수와 평화를 기원하는 대상이 되었으며, 민간신앙에서 남녀가 혼인을 하면서 부인이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기원하는 대상이 되기도 했다. 한 대(漢代) 이후, 일천 년 동안, 도교의 전파와 구이상전(口耳相傳)한 민간설화에 따라서 서왕모는 민간에서 광범위한 신앙의 대상이 되었다.

그녀는 도교의 대선(大仙)으로 간주되어, 도가의 신봉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왕모(王母), 김모(金母 : 신화 속의 여신, 속칭 서왕모), 왕모낭낭(王母娘娘), 요지아모(瑤池阿母) 등의 명칭으로 고대시거나 소설 등에 출현하였으며, 민간 설화에서 전파되어, 사람들에게 흥미진진한 이야기거리로 폭 넓은 영향을 미쳤다.

- 16) 객조(客嘲) : 양웅(揚雄 : BC 553~AD 18)이 『태현경(太玄經)』을 초안하고 나서 언행을 조심하며 무욕한 태도를 지니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그에게 ‘흑색을 의연하게 백색이라고 한다’며 조롱하자 양웅이 그것을 해명하여, 『해조(解嘲)』를 지었다. 후대에 와서는 전(轉)하여, 이를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여 관점이 전도된 것을 가리키게 되었다.

『한서(漢書)·양웅전 하(揚雄傳 下)』에, “한 애제(漢哀帝 : BC 7~BC 1)시대에, 정씨(丁氏 : 애제 외가의 성씨)와 부씨(傅氏 : 애제 친외가의 성씨) 및 동현(董賢 : 애제가 총애하는 신하) 등이 권력을 장악하면서(哀帝時, 丁, 傅, 董賢用事), 여기에 발붙은 자들이나 혹은 (이들로 인해) 가세를 일으킨 자들의 녹봉은 2천석에 이르렀다(諸附離之者或起家之二千石). 당시에, 양웅은 이제 막 『태현경(太玄經 : 주역에 비겨 우주만물의 근원을 논하고 음양 이원론 대신에 시작·중중·종종의 삼원론으로 설명하고 이것에 역법을 가미하였음)』의 초고를 작성하고 나서, 언행을 조심하여 지키며, 명리를 추구하지 않고 무욕한 태도를 지녔다(時, 雄方草 『太玄』, 有以自守, 泊如也). 어떤 사람이 양웅에게 ‘흑색을 태연하게 백색이라고 한다’며 조롱하자, 양웅이 그것을 해명하여 지은 편명이 「해조(解嘲)」라고 하였다(或嘲雄以玄尚白, 而雄解之, 號曰 『解嘲』). 그 글에서 말하였다: 객이 양웅을 조롱하여 말하기를 ‘내가 듣기로 상고시대 선비들은 일을 행함에 준칙이 있었습니다. 무슨 큰일이라도 하고 싶지 않으면 그만 두지만,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반드시 위로는 군주를 받들고, 아래로는 부모를 영예롭게 했다 하오(其辭曰 : 客嘲揚子曰 : “吾聞上世之士, 人綱人紀. 不生則已, 生則上尊人君, 下榮父母)… 눈빛은 별처럼 반짝이고, 말숨씨는 민첩하여 섬광처럼 빠르게 응대하고, 문필은 예리하게, 종횡으로 달리니, 논설자 누구도 당해낼 수 없다 하오(目如耀星, 舌如電光, 一從一衡, 論者莫當). 그럼에도 오히려 묵묵하게 5천자의 『태현경(太玄經)』을 지으셨구려(顧而作 『太玄』 五千文). … 그럼에도 벼슬의 직위가 시랑(侍郎)에 불과하며, 탈락했다는 게 겨우 급사황문(給事黃門 : 황제를 시종侍從하며 칙명을 전달하는 업무를 관장함)이구려. 어쩌면 실마 아직도 흑색을 의연히 백색이라고 하는 건 아닌가요? 어쩌하여 관운이 그리도 불우한가요(然而位不過侍郎, 擢才給事黃門. 意者玄得毋尚白乎? 何爲官之拓落也)?”라고 말하였다. 후세에 이 글로 인해 서 ‘객조(客嘲)’를 ‘타인의 조소’라는 뜻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양웅(揚雄 : BC 553~AD 18) : 서한 말(西漢末)의 학자이자 문인이다. 자는 자운(子雲). 지금의 사천성(四川省) 성도시(成都市) 사람이다.

청년시절에 동향의 선배인 사마상여(司馬相如 : BC 179~BC 117)의 작품을 통하여 배운 문장력이 인정되어 성제(成帝)때 궁정문인의 한 사람이 되었다. 성제의 여행에 수행하며 지은, 「감천부(甘泉賦)」·「하동부(河東賦)」·「우렵부(羽獵賦)」·「장양부(長楊賦)」 등은 화려한 문장이면서도 성제의 사치를 꼬집는 풍자도 잊지 않았다.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자신의 불우한 원인을 묘사한 「해조(解嘲)」와 「해난(解難)」도 독특한 여운을 주는 산문이다. 학자로서 각 지방의 언어를 집성한 「방언」과 「易經」에 기본을 둔 철학서 「태현경(太玄經)」 등을 저술하였다. 왕망(王莽 : BC 45~AD 23)이 정권을 찬탈한 후 새 정권을 찬미하는 문장을 썼고 왕망(王莽) 정권에 협조하였기 때문에, 지조가 없는 사람으로 송학(宋學) 이후에는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으나, 그의 식견은 한(漢)을 대표하였다.

17) 불면배우축(不免俳優畜 : 광대 대접 받는 것은 면할 수 없었거늘!) :

『한서·양웅전 하(漢書·揚雄傳下)』에, :“양웅은 ‘부(賦)’라는 것은 대상물을 풍자하는 것이니, 반드시 유추를 통해 언급해야 한다고 생각했다(雄以爲賦者, 將以風之也, 必推類而言). 지극히 곱고 화려한 문사(文辭)는, 문장이 웅장하고 호방하면서도 광대하여, 사람들이 더 이상 겨루어서 능가할 수 없었으며, 그리하여 마침내 대상물을 정도(正道) 속에 귀속시켰다. 그러나 읽어본 자는 다 비난하였다(極麗靡之辭, 閎侈巨衍, 競於使人不能加也, 既乃歸之於正. 然覽者已過矣). 이전에 무제는 신선을 좋아하여, 사마상여(司馬相如 : BC 179~BC 117)가 「대인부(大人賦)」를 지어서, 풍자하고자 하였지만, 무제는 오히려 표표히 구름을 타고 하늘을 오르고자하는 뜻을 버리지 않았다(往時武帝好神仙, 相如上「大人賦」, 欲以風, 帝反縹緲有陵雲之志). 이로부터 말한다면, 부는 권선징악하는 것에만 멈추지 않았음이 틀림없다. 또한 (부를 짓는 행위는) 자못 배우 순우곤(淳於髡)이나 우맹(優孟)의 무리들처럼, 법도에 의해 보호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현인군자로서 시부(詩賦)를 주제로 하는 것을, 그만 포기하고 다시는 부를 짓지 않았다(由是言之, 賦勸而不止, 明矣. 又頗似俳優淳於髡, 優孟之徒, 非法度所存, 賢人君子詩賦之正也, 於是輟不復爲).”라는 내용이 보인다.

① 배우(俳優) : 고대에 가무와 해학극(諧謔劇) 따위를 하던 직업적 예술인. ‘광대’와 같은 말이다. 본 시의 원본에 배우(俳優)를 배우(俳優)로 잘못 새겨 찍었기에 여기서 바로 잡는다.

② 축(畜) : 배양하다. 취급(하다), 대우(하다). 양육하다.

18) 고래현달사(古來賢達士 : 예로부터 어진 선비와 사리에 통달한 사람은) :

① 고래(古來) : 자고이래(自古以來 : 옛날부터 내려오면서)로. 혹은 자고(自古 : 옛날부터)로.

② 현달사(賢達士) : 현사(賢士)와 달사(達士). 전자는 지행(志行)이 고결하고 재능이 걸출한 사람. 어진선비를 칭하는 것이고, 후자는 건식이 고상하여 세속적인 사람과 다른 사람, 또는 널리 사리에 통달한 사람을 칭한다.

19) 출처비일철(出處非一轍 : 출사出仕와 은퇴에 취향이 같았던 건 아니었네) :

① 출처(出處) : 출사(出仕)와 은퇴. 진퇴(進退)와도 같은 말로 쓰였다.

② 일철(一轍) :

☆동일한 수레바퀴 자국이란 뜻으로, 먼저 있었던 경우를 똑같이 되풀이함을 이르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취향(趣向), 추세(趨勢)가 같음을 비유한 말임.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언제나 변함이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20) 청탁(淸濁) :

① (물, 소리, 음) 등의 맑고 탁함.

② 전(轉)하여, 인사(人事)의 선악, 우열, 고하, 정사(正邪), 치란(治亂) 등을 비유하는 말로도 쓰는데, 본 시에서는 청백리(淸白吏 : 청렴한 관리)와 탐관오리를 비유한 말로 쓰였다.

21) 증연승육기(終然勝陸機 : (나의 벼슬생애 참언으로 주살된) 육기陸機보다는 낫다 할지라도) :

① 증연(終然) : 설령 ~ 할지라도.

② 육기(陸機 : 261~303) : 서진(西晉)의 오군(吳郡), 오현(吳縣), 지금의 강소성(江蘇省) 소주시(蘇州市) 사람이다. 명문출신으로 조부 육손(陸遜 : 183~245)은 삼국시대 오(吳) 나라의 재상, 부친 육항(陸抗 : 226~274)은 군사령관이었다. 오나라가 망하자 고향에 퇴거하여 학문에 전념하며 『문선(文選)』에 수록된 고국(故國 : 오나라)의 흥망을 논하는 명문 「변망론(辯亡論)」 2편과 사육변려체(四六駢儷體)의 명문 「연연주(演連珠)」 50수를 지었다. 진무제(晉武帝) 태강말년(泰康末年 : 289)에 동생 육운(陸雲 : 262~303)과 함께 낙양(洛陽)으로 입성하여 두 형제는 문명(文名)을 크게 떨쳤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형제를 ‘이륙(二陸)’이라 불렀다. 당시 지식인의 중심인물이었던 장화(張華 : 232~300)에게 평가를 받았고, 가밀(賈謐 : 혜제후惠帝后 가씨賈氏의 조카)과 함께 문학집단 ‘24우(二十四友)’에 가입하여 북방문인과 함께 교유(交遊)하였다.

이 당시 서진(西晉)은 ‘팔왕의 난(八王之亂)’이 진행 중이었다. 이 난은 황족인 여덟 명의 왕이 권권쟁탈을 벌이면서 일어난 난이었다. 육기는 조왕(趙王 : 혜제惠帝의 증조부. 8왕의 3번째 인물), 사마륜(司馬倫)이 보정(輔政)하자 상국(相國 : 승상과 유사한 직위임)으로 간주되어 가밀(賈謐 : ?~300)을 주살하는데 참여하였다. 제왕(齊王 : 혜제의 사촌. 8왕의 4번째 인물)인 사마경(司馬瓘)이 정위(廷尉 : 최고위직 재판장)에게 육기의 유·무죄 여부에 대한 심사를 의뢰한 다음, 성도왕(成都王 : 혜제의 동생. 8왕의 6번째 인물)인 사마염(司馬穎)의 판단에 따라 무죄의 판결을 받았다. 그 판결에 따라, 육기는 평원내사(平原內史)가 되었고, 장사왕(長沙王 : 8왕의 5번째 인물)인 사마예(司馬乂)를 토벌하는데 중군하면서, 육기를 도독전봉제군사(都督前鋒諸軍事)로 임명했다. 『진서(晉書)·육기·육운별전(陸機·陸雲別傳)』에, “성도왕 사마염의 장사(長史 : 승상, 대장군 등 고위 관직의 측근에 배치된 고문顧問에 응하던 참모) 노지(盧志 : ?~약 312, 성동왕의 모사謀士)는 육기의 동생 육운과 출처진퇴(出處進退)가 달랐다. 또한 황문(黃門 : 환관宦官) 맹구(孟玖)가 성도왕에게 한단령(邯鄲令 : 한단현邯鄲縣 현령縣令)의 직을 청탁하자, 성도왕이 육운에게 ‘맹구를 임명하라’고 교지를 내렸는데, 당시 좌시마(左司馬 : 군정軍政을 관장하는 관리)로 있던 육운이 말하기를, ‘형벌을 받고난 사람(환관이 되기 위해 받은 궁형宮刑을 가리킴)은 백성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고 하며 거절했다. 맹구는 이 말을 듣고 육운을 원망하며 노지(盧志)와 결탁하여 참언을 날조해놓고 때를 기다렸다. 육기가 칠리간(七里澗 : 지금의 하남성 낙양현 동북부에 위치한 지명)에서 대패했을 때, 맹구가 ‘육기의 모반으로 인해 생긴 결과’라고 무고하자, 성도왕은 건수

(牽秀: 한때 가밀에게 부회附會하던 '24우友' 중의 한 사람으로 당시 관군장군冠軍將軍의 직에 있었음)에게 명하여 욕기를 참수하게 했다. … 당시 욕기는 의연했으며 군사들은 눈물을 흘리지 않은 자가 없었다.”고 하였다. 욕기의 동생 육온도 이때 함께 참언(讒言)을 받아 죽음을 당하였다. 욕기의 시는 수사에 중점을 두고 미사여구와 대구(對句)의 기교를 살려 육조(六朝)시대의 화려한 시풍(詩風)의 선구자가 되었다.

22) 독선화정학(獨羨華亭鶴: 유독 화정華亭에서 들었다는 그 학 울음소리만은 부럽네):

- ① 독(獨): ☆유독. ☆오허려, 도리어, 의외로.
- ② 선(羨): 선망(羨望)하다. 좋아서 얻고(되고) 싶다.
- ③ 화정학(華亭鶴): 화정학려(華亭鶴唳)와 같은 말이다.

☆화정(華亭): 지금의 상해시(上海市) 송강현(松江縣) 서쪽에 위치한 옛 지명. 화정곡(華亭谷)이라고도 한다. 『원화군현도지(元和郡縣圖志)』 권25 「소주화정현(蘇州華亭縣)」 조항에, “화정곡은 화정현 서쪽 35리에 위치하는데, 육손(陸遜: 183~245, 욕기陸機의 조부로서 삼국(위·촉·오)의 3대전쟁의 하나인 이릉夷陵 전쟁에서 유비의 촉을 대패시킨 오나라의 지휘관), 육항(陸抗: 226~274, 욕기의 부친)의 집이 그 부근에 있었다. 육손은 화정후(華亭侯)에 봉해졌다. 욕기가 말한 ‘화정(華亭)의 학 울음소리’를 읊은 것도 바로 이 곳이다(華亭谷在縣西三十五里, 陸遜, 陸抗宅在其側. 遜封華亭侯. 陸機曰‘華亭鶴唳’, 此地是也)”라는 기록이 있다.

☆화정학(華亭鶴): 화정학려(華亭鶴唳): 학려화정(鶴唳華亭): 본 시에서는 ‘화정(華亭)에서 들었다는 그 학 울음소리’라는 뜻으로 쓰였다. 남조(南朝: 동진東晉이 망한 후 420년에서 589년까지 화남華南에 한족이 세운 송宋·제齊·양梁·진陳의 네 나라를 칭함)의 송나라 문학가 유의경(劉義慶: 403~444)이 편찬한 『세설신어(世說新語)·우회(尤悔)』에서, “육평원(陸平原: 평원은 평원내사平原內史의 준말로 관직 명칭임. 욕기를 가리킴)은 하교(河橋: 지금의 하남성 맹현孟縣 남쪽에 있는 다리 이름. 낙양을 방어하는 요충지임)에서 패전한 뒤, 노지(盧志: 성도왕成都王의 모사謀士)에게 참소당해, 주살되었다(陸平原河橋敗, 爲盧志所讒, 被殺). 처형에 임하여 탄식하기를, ‘화정의 학 울음소리를 듣고 싶는데, 어찌 다시 들을 수 있겠는가(臨刑歎曰: ‘欲聞華亭鶴唳, 可復得乎!’라고 했다)”라고 하였다. 욕기는 오나라 멸망 후, 낙양에 들어가기 전에, 자주 동생 육운(陸雲)과 함께 화정(華亭)에 있는 농막(農幕)으로 놀러갔다. 후에, 사람들은 ‘화정학려(華亭鶴唳)’란 말을 ‘평생의 감회와 벼슬길에 나간 것을 후회하는 본보기’로 삼았다. 또한 ‘그리움과 회고’의 뜻으로도 썼다. 그리고 ‘벼슬길의 험난함을 개탄함과 인생무상(人生無常)’이란 의미로도 썼다.

서에는 욕기가 칠리간(七里澗) 전투에서 패배한 원인이 다름 아닌 욕기의 모반에 의한 결과라는 맹구(孟玖)의 무고(誣告)로 처형에 임했을 때, 욕기가 탄식어린 어조로 “화정의 학 울음소리를 듣고 싶는데, 어찌 다시 들을 수 있겠는가(欲聞華亭鶴唳, 可復得乎)”라는 말을 하고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했다는 고사(故事)를 본 시의 결어(結語)로 사용하여, 서에 역시도 자신의 험난했던 벼슬길의 생애와 인생에 대한 무상함을 함축시켜 본 시의 시제(詩題)인 「선현음

(先賢吟)」의 주제로 표현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시13. 가을에 연꽃 지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詩13. 秋荷怨¹⁾
추 하 원

種荷²⁾水中央,
종 하 수 중 앙

연못에 연꽃을 심었더니,

水深荷葉稀³⁾。
수 심 하 엽 희

물이 깊어선지 연잎이 뜨문뜨문 떠있네.

微莖苦多刺⁴⁾,
미 경 고 다 척

가는 줄기 상처 많이 입혔을까
걱정했는데,

弱根自相依⁵⁾。
약 근 자 상 의

연약한 뿌리줄기 절로 서로 기대고
있네.

中有千絲⁶⁾復萬絲,
중 유 천 사 부 만 사

물속에 있는 천 줄기 만 줄기의
연 줄기를

柔情脈脈⁷⁾無斷絕。
유 정 맥 맥 무 단 절

온유한 표정으로 묵묵히 바라보네.

殘花落盡無人採,
잔 화 낙 진 무 인 채

시든 꽃잎마저 다 저서 따갈 사람
없는데,

江風吹散⁸⁾江波闊。
강 풍 취 산 강 파 활

강바람 불어오자 물결이 퍼지네.

惟餘病葉⁹⁾着空枝¹⁰⁾, 남아있던 시든 잎만 빈 줄기에
 유 여 병 엽 착 공 지 달렸더니,

永夜霜寒鳴撼撼¹¹⁾。 긴긴밤 서리추위에 우수수 떨어지네.
 영 야 상 한 명 색 색

- 1) 원(怨): 악부시체(樂府詩體)의 일종. 악부의 편명(篇名)은 ‘사구(辭句)’에서 따낸 것, ‘뜻으로 붙인 것’, ‘악조(樂調)를 따른 것’을 비롯해서 그 종류가 다양하다. 편명으로서의 ‘원(怨)’은 ‘울분을 읊으면서도 노여워하지 않는 것을 원(怨)이라 한다(憤而不怒曰怨)’. 본 시는 가을에 연꽃과 연잎이 지는 안타까움을 노래한 것이다. 악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4」 주석1)의 ②, ‘탄(歎)’ 조항을 참조할 것.
- 2) 종하(種荷): 연꽃을 뿌리채 심는 것을 말한다. 하(荷)는 연(蓮)의 뜻이다.
- 3) 희(稀): 성글다. 성기다(물건의 사이가 뜨다. 반복되는 회수가 뜨다). 조밀하지 않다. 드물다.
- 4) 고다척(苦多刺):
 - ① 고(苦): 걱정하다.
 - ② 다척(多刺): 상처를 많이 입하다.
 ☆척(刺): 칼로 찔러 상처를 입하다. ‘자(刺)’로 읽을 때는 ‘찌르다’의 뜻이다.
- 5) 약근자상의(弱根自相依): 연약한 뿌리줄기 절로 서로 기대고 있다:
 - ① 근(根): ‘뿌리’란 뜻이나 본 시에서는 ‘연꽃의 뿌리’임으로, ‘뿌리줄기’라 번역해야 한다.
 ☆뿌리줄기: 수평으로 자라나는 땅속줄기의 한 형태임. 대부분 땅 속으로 뻗어 자라나 드물게는 지표틀 옆으로 타고 올라, 뿌리·줄기·잎을 내며 뿌리처럼 보인다. 연꽃, 동굴레, 대나무, 고사리 따위에서 볼 수 있다.
 - ② 상의(相依): 서로 기대다.
- 6) 중유천사(中有千絲):
 - ① 중(中): ‘물속’을 가리킨다.
 - ② 천사(千絲): 천사만루(千絲萬縷)의 뜻으로 쓰였다. 즉 천 갈래 만 갈래로 얽혀진 실을 한 오리 한 오리 다 셀 수 없음을 형용한 말로서, 본 시에서는 여러 줄기의 뿌리줄기가 서로 기대고 있는 모습을 형용한 말이다.
- 7) 유정맥맥(柔情脈脈):
 - ① 유정(柔情):
 ☆온유한 감정.
 ☆부드러운 인정.
 - ② 맥맥(脈脈): 맥맥(脉脉) : 맥맥(脉脉)으로도 쓰며, 맥(脉)은 맥(脈)의 속자(俗字)이다.
 ☆맥맥(脈脈)과 같은 말로서, ‘물끄러미 바라보다’는 뜻이며, 응시하는 모양을 형용한 말이다. 이 때는 우두커니 한 곳만 바라보는 모양이다.
 ☆내심(內心)의 생각이나 감정을 잔잔하고도 은근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정을 표

현하는 것을 형용한 말이다. 간단히 표현하면, ‘은근히 바라보며 정을 표시하다. 묵묵히 정을 품고 주시하다.’는 뜻이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묵묵(默默)과 같은 말이다. ‘묵묵히, 잔잔히’의 뜻이다. 이 말을 쓸 때의 상황은 은근한 정의를 표현 없이 그저 말없이 바라보는 것을 형용한 말이다.

- 8) 취산(吹散) : (바람이) 불어와서 흩어지다.
- 9) 병엽(病葉) : 시들어서 곧 떨어지려는 잎사귀.
- 10) 공지(空枝) : 꽃과 열매가 다 떨어진 가지. 본 시에서는 연잎이 다 떨어진 줄기를 가리킨다.
- 11) 색색(穢穢) : 의성어로서,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는 소리’ 또는 ‘나뭇잎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다.

시14. 가을날의 상념 想念

詩14. 秋思 추 사



蕭蕭江上雨¹⁾,
소 소 강 상 우

부슬부슬 강변에 비가 내리더니,

撼撼²⁾窓邊樹。
색 색 창 변 수

사락사락 창가 나무에도 떨어지네.

嗷嗷雲外鴻³⁾,
오 오 운 외 홍

기럭기럭 구름 위로 기러기 울며 가고

唧唧⁴⁾牀下蟲。
적 적 상 하 충

찌륵찌륵 침상 아래 풀벌레 울고 있네.

相逢一夜間,
상 봉 일 야 간

서로 함께 만났는데 하룻밤 내내,

共作不平聲⁵⁾。
공 작 불 평 성

다 같이 고르지 않는 제소리만 내고
있네.

此時堂上⁶⁾白頭翁,
차 시 당 상 백 두 웅

이 시각 사랑채의 백발 늙은이,

吟詩不寐到五更⁷⁾。
음 시 불 메 도 오 경

시 읊다가 오경五更까지 잠 못 이뤘네.

鳴聲悽切相應和⁸⁾,
명 성 처 절 상 응 화

우는 소리 처절해도 음향이 어울려서,

不分無情與有情。
불 분 무 정 여 유 정

무정인지 유정인지 구분하지 못하겠네.

天明出門一長嘯⁹⁾,
천 명 출 문 일 장 소

날이 밝자 문 밖 나서 목청 돋워 길게
외치나니,

碧空萬里秋冥冥¹⁰⁾。
백 공 만 리 추 명 명

푸른 하늘 만 리에 가을이 그윽하네.

1) 소소강상우(蕭蕭江上雨 : 부슬부슬 강변에 비가 내리더니) :

① 소소(蕭蕭) : 의태어로서 비 내리는 모양을 형용한 말이다.

☆부슬부슬, 보슬보슬, 추적추적 ….

② 강상(江上) :

☆강기슭. 강가. 강변. ‘상(上)’은 명사 뒤에 써서, ‘가장자리, 근처, 부근, 옆, 변측(邊側)’의 의미를 지니는데 본 시에서는 ‘강하(江河)의 기슭’이란 뜻을 나타냄.

☆강수면(江水面 : 강물의 윗면).

2) 색색(緋緋) : 나뭇잎에 부슬비가 떨어지는 소리 : 사락사락.

3) 오오운외홍(嗶嗶雲外鴻 : 기럭기럭 구름 위로 기러기 울며 가고) :

① 오오(嗶嗶) : 오오(磬磬)로도 쓴다.

☆기러기 우는 소리(기럭기럭).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음. 애처롭게 우는 소리(영영).

② 운외(雲外) :

☆고공(高空)을 가리킨다.

☆운표(雲表) : 구름 위, 구름 밖.

4) 즉즉(唧唧) :

① 풀벌레 같은 곤충의 울음소리(찌르륵 찌르륵 찌룩찌룩). 새소리(짹짹, 짹짹).

② 찬탄성(贊歎聲). ‘즉즉(唧唧)’과 ‘책책(嘖嘖)’은 같은 뜻이며, ‘찬탄하거나 애석한 기분을 나타내는 말의 찬탄성’으로 쓴다. 즉즉(唧唧)은 우리말로 ‘가볍게 혀를 차는 소리’인 ‘짹짹’에 해당되고, 책책(嘖嘖)은 우리말로 역시 ‘가볍게 혀를 차는 소리’인 ‘쫄쫄’에 해당된다.

③ 탄식. 탄식하는 소리를 가리키기도 한다.

④ ‘잔소리하다. 수다 떨다’와 같은 뜻으로 쓴다.

5) 불평성(不平聲) : 고르지 않는 제 각각의 소리.

① 불평(不平) : ‘불평’의 일차적인 뜻은 ‘불평하다, 불공정하다, 불화(不和)하다’ 등이지만, 본 시에서는 ‘부슬부슬 · 사락사락 · 기럭기럭 · 찌룩찌룩’ 등과 같은 ‘일치되지 않은, 고저가 다른, 각각의’ 뜻으로 쓰였다.

6) 당상(堂上) :

☆ 집 혹은 사랑채(사랑소廊으로 쓰는 집채 : 집의 안채와 떨어져 있는 바깥주인이 거처하며 손님을 접대하는 곳). 여기서는 사랑채로 쓰였다.

☆ 대청 위, 마루 위.

7) 오경(五更):

- ① 새벽 3시부터 5시 사이를 오경이라 하였으며, 잔경(殘更) 또는 심경(深更)이라고도 한다. 옛날에는 일몰부터 일출까지 하룻밤을 5등분으로 나누어 부르는 시간의 이름을 ‘경(更)’이라 하였다. 밤 7시부터 시작하여, 2시간씩을 한 단위로 묶어서, 초경(初更: 일경—更이라고도 하고 초야(初夜라고도 함), 이경(二更), 삼경(三更), 사경(四更), 오경(五更)으로 하였다. 이때의 오경(五更)을 오야(五夜)로 말하며, 초경을 갑야(甲夜), 이경을 을야(乙夜), 삼경을 병야(丙夜), 사경을 정야(丁夜), 오경을 무야(戊夜)라고도 한다.

- ② 하룻밤을 다섯으로 나눈 시각을 통틀어 이르는 말.

8) 상응화(相應和): 음향이 어울림.

- ① 상(相): 서로, 상호.
- ② 상응(相應): ☆상호 호응하다. ☆상호 기맥이 통하다.
- ③ 화(和): ☆잘 어울리다. ☆화목하다. ☆융합하다.

9) 장소(長嘯):

- ① 입을 오므려서 목청을 돋우어 길고도 높은 음의 소리를 내다. 옛 사람들은 자주 이렇게 해서 자신의 의지를 드러냈다고 한다. 본 시에서는 이 뜻이 쓰였다.
- ② 큰 소리로 외치다.

10) 명명(冥冥):

- ① 유심(幽深): 겉으로 드러남이 없이 아득하고 그윽하다. 마음에 자연히 느껴지는 모양. 조용하고 깊숙한 모양.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② 고원(高遠)한 모양.



시15. 회암晦庵의 「도서道書를 읽다」는 시에
차운한 시 두 수

詩15. 次晦庵讀道書韻¹⁾二首
차 회 암 독 도 서 운 이 수

其一
기 일

[1]

一室抱冲虛²⁾,
일 실 포 충 허

온 방안에 공허한 기운만 감도는데,

靜坐窮天遊³⁾.
정 좌 궁 천 유

마음 안정하고 조용히 앉아
천상天上에서 노닐 궁리하네.

三山⁴⁾不可問,
삼 산 불 가 문

삼신산三神山이 어디냐고 물을 필요
없나니,

卽此是丹丘⁵⁾.
즉 차 시 단 구

이 방이 바로 신선세계 단구丹丘일세.

初如墮深壑,
초 여 타 심 학

처음에는 깊은 골짜기에 떨어진 듯하여,

漠漠潛玄幽⁶⁾.
막 막 잠 현 유

적적하고 괴괴한데다 어둠 속에 잠겼네.

俄然白日出⁷⁾,
아 연 백 일 출

잠시 후 태양이 (마음속에) 떠오르자,

萬象分剛柔⁸⁾
만 상 분 강 유

만물의 음양陰陽이 뚜렷해지네.

浩浩謝拘攣⁹⁾
호 호 사 구 연

마음 비워 거리끼는 바를 지우고 나니,

無喜亦無憂。
무 희 역 무 우

기쁨도 없어지고 근심도 없어지네.

飛鞚詣帝所¹⁰⁾
비 공 예 제 소

말[馬]을 몰아 천제天帝 계신 곳에
당도하려고,

御氣窮周流¹¹⁾
어 기 궁 주 류

단전호흡 하며 정기精氣 분산을 막았네.

長歌步虛詞¹²⁾
장 가 보 허 사

(『도경道經』의 예찬 시문) 「보허사步虛詞」를
큰 소리로 암송하는데,

舉世誰能儔¹³⁾
거 세 수 능 주

천하에서 누가 능히 견줄 수가
있겠는가!

其二 기 이

[2]

至人¹⁴⁾神變化,
지 인 신 변 화

무아無我的 경지 이룬 사람은 신비롭게
변화하니,

潛躍元無方¹⁵⁾
잠 약 원 무 방

(물속의 어룡魚龍이) 수면에서 출몰하듯
원래 정해진 법이 없다네.

居塵慕赤松¹⁶⁾
거 진 모 적 송

속세에서 (세상사 등지고) 신선된
적송자赤松子는 사모하나,

可笑張子房¹⁷⁾
가 소 장 자 방

(평생부귀 다 누린 후에 도 닦은)
장자방張子房은 가소롭게 여겨지네.

辟穀¹⁸⁾自辛苦,
벽곡자신고,

오곡을 먹지 않는 수련 당연히
고통스럽지만,

呼吸汗飜漿¹⁹⁾。
호흡한번장。

단전 호흡하면 해동기에 눈이 녹듯
땀을 흘린다네.

寧知桃花源²⁰⁾,
영지도화원,

이상향理想鄉 도화원桃花源을 어찌
알겠는가.

仙路²¹⁾久已荒。
선로구이황。

신선이 되는 길 오랫동안 이미
단절되었거늘.

凌風²²⁾有妙法,
능풍유묘법

바람 타고 가는 데도 교묘한 방법
있다하나,

瀛海遠茫茫²³⁾。
영해원망망。

넓고 넓은 바다 아득하여 망망하다네.

月明過蓬萊²⁴⁾,
월명과봉래

달이 밝아 봉래산 지나가는데,

霞佩飄翱翔²⁵⁾。
하페표고상。

선녀들이 표표히 선회하며 노니는구나.

玄珠²⁶⁾不在遠,
현주부재원

흑색 야광주[도道の 실체]가 멀리 있었던
게 아니라,

湛然初非亡²⁷⁾。
담연초비망。

정신을 차려 보니 원래 잃은 게
아니었네.

歸尋伯陽子²⁸⁾,
귀심백양자

도가에 귀의하여 백양자伯陽子
[노자老子]나 찾아뵈까.

丹經言有當²⁹⁾。
단경언유당。

『단경丹經』에 이르기를 운명은 정해진
수數가 있다 했으니!

- 1) 차회암독도서운(次晦庵讀道書韻 : 회암이 쓴 「도서를 읽다」는 시에 차운하여) :
 - ① 회암(晦庵) : 주희(朱熹 : 1130~1200) : 주희의 생애와 그의 학문 및 사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6」의 주석1)의 ① 회암(晦庵) 주희(朱熹) 조항을 참조 바람.
 - ② 차운(次…韻) : 화답(和答)하는 시에서 남의 시운(詩韻)에 맞추어 시를 짓는 것을 말한다. 혹은 남이 지은 시의 운자(韻字)를 따서 시를 짓는 것을 말하기도 하며, 보운(步韻)이라고도 한다.
- 2) 일실포충허(一室抱沖虛 : 온 방 안에 공허한 기운만 감도는데) :
 - ① 일실(一室) : 온 방 안에. 일(一)은 ‘전부, 온통’의 뜻이다.
 - ② 충허(沖虛) : 충허(沖虛)로도 쓴다. 여기서는 ‘공허하다. 텅 비다.’의 뜻이다.
- 3) 정좌궁천유(靜坐窮天遊 : 마음 안정하고 조용히 앉아 천상天上에서 노닐 궁리하네) :
 - ① 정좌(靜坐) : 불교용어. 마음을 갈아 앉히고 몸을 바로 하여 조용히 앉음.
 - ② 천유(天遊) : 도교용어. 천유(天游)라고도 쓴다. 하늘에서 노나는 것을 이르는 말.
- 4) 삼산(三山) :
 - ① 삼산(三山) : 전설상의 해상(海上)에 있는 삼신산(三神山). 중국 오호십육국(五胡十六國) 시대에 후진(後晉)의 도사 왕가(王嘉 : ?~?)의 저서 『습유기(拾遺記) · 고신(高辛)』편에, “삼호(三壺)라고 하면, 해상(海上)의 삼신산(三神山)이다. 첫째가 방호(方壺)인데, 이것이 방장산(方丈山)이고, 둘째가 봉호(蓬壺)인데, 이것이 봉래산(蓬萊山)이며, 셋째는 영호(瀛壺)인데, 이것이 영주산(瀛洲山)이다(三壺, 則海中三山也。一曰方壺, 則方丈也, 二曰蓬壺, 則蓬萊也, 三曰瀛壺, 則瀛洲也).”고 하였다.
이를 본떠 우리나라에서는 금강산을 봉래산, 지리산을 방장산, 한라산을 영주산(瀛洲山)이라 이르기도 한다.
- 5) 단구(丹丘) : ‘단구(丹邱)’로도 쓴다. 밤도 낮과 같이 밝다는 전설상의 신선(神仙)이 산다는 곳. 단구(丹丘)는 신선이 사는 곳, 혹은 거기에 사는 사람으로 보아도 무관하다.
- 6) 막막잠현유(漠漠潛玄幽 : 적적하고 괴괴한데다 어둠 속에 잠겼네) :
 - ① 막막(漠漠) : ☆적적하고 괴괴하다. 정적이 감돌아 소리가 없는 모양.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음. ☆(연기 · 구름 · 안개 등이) 자욱한 모양. 또는 (사람들이) 뻘뻘하게 들어선 모양. ☆(정신이) 흐리멍(惝)한 모양. ☆광활하여 아득한 모양, 아주 넓어 끝이 없는 모양. ☆냉담하고 무관심한 모양. ☆(향기가) 짙은 모양. (사엽이) 왕성한 모양. (공덕이나 덕행이) 현저한 모양.
 - ② 현유(玄幽) : 어둠 속에 잠긴 것을 형용한 말이다.
- 7) 이연백일출(俄然白日出 : 잠시 후 태양이 (마음속에) 떠오르자) :
 - ① 이연(俄然) : 잠깐 동안, 잠시 후에.
 - ② 백일(白日) : 태양.
- 8) 만상분강유(萬象分剛柔 : 만물의 음양陰陽이 뚜렷해지네) :
 - ① 만상(萬象) : 우주 안의 모든 사물이나 경치(현상, 광경, 모습). 만물.
 - ② 강유(剛柔) : 본 시에서는 만상(萬象)의 명암이 드러나는 음양(陰陽)을 가리킨다.
- 9) 호호사구연(浩浩謝拘攣 : 마음 비워 거라끼는 바를 지우고 나니) :

- ① 호호(浩浩) :
 ☆물이 크게 불어나 큰물을 이룬 모양. 물이 광대한 모양(출렁출렁, 넘실넘실).
 ☆광대하여 끝없는 모양.
 ☆전(轉)하여, 마음에 거리낌 없이 편안한 모양. 마음을 비운 모양. 속(마음)이 탁 트인 모양.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② 사(謝) : 제거함을 의미한다.
- ③ 구련(拘攣) : 구속 받다(학설이나 관습 등의 기타 어떤 요인에 의해 행동이나 의사의 자유가 제한됨을 이룸). 구애되다(사물에 얽매임). 본 시에서는 전(轉)하여, ‘마음에 거리는 것’을 가리킨다.
- 10) 비공예제소(飛鞚詣帝所 : 말[馬]을 몰아 천제가 계신 곳에 당도하려고) :
 ① 비공(飛鞚) : 이때의 비(飛)는 ‘내던지다’는 뜻이고, 공(鞚)은 말의 입에 물리는 ‘재갈’의 뜻임. 말을 달리게 하기 위해서는 재갈을 물리지 않아야 함으로 전(轉)하여, 다음과 같은 뜻으로 쓴다.
 ☆말을 채찍질하여 질주하는 것을 이룸.
 ☆질주하는 말.
- ② 예(詣) :
 ☆알현하다, 방문하다.
 ☆도달하다, ~을 향하여 가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③ 제소(帝所) : 천제(天帝 : 천신天神)나 천자가 있는 곳.
- 11) 어기궁주류(御氣窮周流 : 단전丹田 호흡하며 정기精氣 분산을 막았네) :
 ① 어기(御氣) :
 ☆기공(氣功 : 단전호흡을 달리 이르는 말) : 도교용어.
 a. 기식(氣息)을 운용하다.
 b. 기(氣 : 기운)를 (몸의 한 부분에) 모으다.
- ② 궁(窮) : 그치다. 멈추다. 두절(杜絕)하다.
- ③ 주류(周流) : ‘일기주류(一氣周流)’를 창하는 것으로 보임. ‘일기(一氣)’란, 만물의 원기(元氣)인 태극(太極)을 말하는 것임. 고로 일기(一氣)의 운행규율은 크게는 삼라만상에, 작게는 인체(人體)에 두루 적용되지 않는 곳이 없다.
- 12) 장기보허사(長歌步虛詞 : 『도경(道經)』의 예찬 시문 「보허사步虛詞」를 큰 소리로 암송하는데) :
 ① 장기(長歌) :
 ☆방성고가(放聲高歌), 즉 큰 목소리로 노래를 부름.
 ☆편폭이 비교적 긴 시가.
- ② 보허사(步虛詞) : 도교에서 독경(讀經)을 예찬하는 시문(詩文) 또는 말로서, 도가(道家)의 악부잡곡가사(樂府雜曲歌辭)이다. 『악부시집(樂府詩集)』 78장에 보인다. 약칭 ‘보허(步虛)’라고도 한다.
 ☆보허(步虛) : 도사들이 법사(法事)에서 길게 읊는 경장(經章)소리. 또는 도사들이 경장(經章)을 암송하는 소리가 맑고 율조가 있음을 의미한다.
 『도서원신계(道書援神契)』에, “옛날에 제사 지낼 때는 약장을 노래하거나 모시(毛詩)를 노래했다. 오늘날의 법사(法事)에서 길게 읊는 보허(步虛)는 여기에 근본을 둔다.”고 하였다.

또 『오원기(吳苑記)』에, “진사막(陳思邈)이 어산(魚山)에 노니는데, 언뜻 바위 속에서 경(經)을 읊는 소리가 있어 들어보니, 맑고 울조가 있었다. 소리를 해석하는 사람을 시켜 그것을 풀어내니 신선의 소리였다. 도사는 그것을 본떠서 보허성(步虛聲)을 만들었다.”고 하였다.

☆(樂府)의 잡곡가(雜曲歌)의 명칭. 『악부시집(樂府詩集)·잡곡가사 18(雜曲歌辭十八)·보허사(步虛詞)』에 송나라 문인 곽무천(郭茂倩: 생몰년 미상: 자는 덕찬(德鑾))이 당나라 오경(吳兢)의 저서, 『악부해제(樂府解題)』를 인용하여 말하기를, “『보허사(步虛詞)』는 도가곡(道歌曲)이다. 선인(仙人)의 무리가 아득히 멀리서 하늘로 날아오르는 아름다움을 완미하게 표현하였다(『步虛詞』道家曲也。備言衆仙縹緲輕舉之美).”고 하였다.

13) 거세수능주(舉世誰能儔: 천하에서 누가 능히 견줄 수가 있겠는가):

- ① 거세(舉世): 전 세계, 온 천하.
- ② 주(儔): (서로) 비교하다, 견주다.

14) 지인(至人):

- ① 도가(道家)에서 ‘초범탈속(超凡脫俗)하여 무아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

『장자(莊子)·제물론(齊物論)』에, “지인(至人)은 신과 같은 존재이다. 큰 늪을 태울 수 있는 불로도 그를 뜨겁게 할 수 없고, 황하와 한수(漢水)로도 얼게 할 수 없으며, 성난 우레가 산을 부수고, 폭풍이 바다를 뒤집는 일이 있어도 지인을 놀라게 할 수 없다(至人神矣! 大澤焚而不能熱, 河漢沍而不能寒, 疾雷破山, 風振海而不能驚)”고 하였다.

또 『외물편(外物篇)』에서는 “오직 진인(眞人)만이 세상에 유유자적하면서도 현혹되지 않고, 인정에 순응하면서 본성을 유지한다(唯至人乃能游於世而不僻, 順人而不失矣)”고 하였다.

- ② 사상이나 도덕수양이 최고도에 이른 사람을 가리킨다. 본 시에서는 이 뜻을 비유하여 위의 주석 ①의 형식으로 표현하였다. 『순자(荀子)·천론편(天論篇)』에, “그러므로 하늘과 사람의 구별[분수(分殊)]를 분명히 이해하면, 지인(至人)이라고 할 수 있다(故明於天人之分, 則可謂至人矣).”고 한 것이다.

15) 잠약원무방(潛躍元無方: (물속에 어룡(魚龍)이) 수면에서 출몰하듯 원래 정해진 법이 없다네):

- ① 잠약(潛躍): 출몰(出沒)하다. 출사(出仕)와 은퇴(隱退)에 비유하는 말로도 많이 쓰인다.

동진(東晉)·도잠(陶潛)의 「감사불우부(感士不遇賦)」에서, “은거이든 출사이든 내 본분에 부합되지 않는 게 없으니, 항상 긍지를 가지고 땀땀이 인정(人情)을 기누하였다(靡潛躍之非分, 常傲然以稱情)”고 하였는데, 청말(清末)의 중국고문헌전문가인 녹흥림(逯欽立: 1910~1973)이 집교(輯校)한 『선진·한위진남북조시(先秦漢魏晉南北朝詩)』에서, ‘잠약(潛躍)’을 강변의 인갑류(鱗甲類: 비늘이 있는 물고기와 겹질이 견고한 갑각류의 총칭)의 출몰(出沒)로써, 사람들의 출사(出仕)와 은퇴라는 두 종류의 인사(人事)에 비유하여 주석(注釋)한 것이 보인다. 본 시에 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② 무방(無方): 정해진 법이 없음을 가리킨다.

16) 적송(赤松) :

① 적송자(赤松子) : 적송자(赤誦子) : 적송자여(赤誦子輿) :

전하는 바에 의하면, 상고시대 신선이라고 하는데, 고대학계의 각 유파에서 기록한 그의 사적에는 차이가 있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사기(史記)·유후세가(留侯世家)』에, “원컨대 세속의 일은 떨쳐버리고, 적송자를 따라 고고히 노닐고자 한다(願棄人間事, 欲從赤松子游耳).”라고 하였다. 이 문장에 대하여, 당대(唐代) 학자, 사마정(司馬貞: 생몰년 미상)은 색은(索隱)에서, 『열선전(列仙傳)』을 인용하여 말하기를, “적송자는 신농씨 시대에 우사(雨師: 비를 맡은 신)로, 불 속에 들어가 스스로를 태울 수도 있었으며, 곤륜산 산위에서 비바람을 따라 오르내렸다(赤松子, 神農時雨師也, 能入火自燒, 崑崙山上隨風雨上下也)”고 하였다.

『회남자(淮南子)·제속훈(齊俗訓)』에서는 말하기를, “지금 왕교(王喬: 초나라 무양武陽, 지금의 사천성 팽산현彭山縣 출신으로, 도가에서 말하는 천년을 장수한다는 두꺼비, 박쥐, 영귀, 제비 같은 것을 먹고 신선이 됐다는 사람)와 적송자가 도가의 호흡을 하면서, 탁한 공기를 내뿜고 맑은 공기를 들이 마신다(今夫王喬赤誦子吹嘔呼吸, 吐故納新)”고 하였다. 동한(東漢)의 학자 고유(高誘: 생몰년 미상)가 이 글에 주(注)를 달면서, “적송자는 상곡(上谷: 지금의 북경시 연경현延慶縣) 사람으로, 나병(癘病: 문둥병)에 걸려 입산했는데, 도인(導引: 불로장생을 위한 보건체조로 몸과 수족을 굴신屈伸하며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도가의 양생법), 곧 도기인체(導氣引體: 호흡과 신체활동을 결합한 체육요법)를 실행하여 기공(氣功)을 하며 경신술(輕身術)을 익혔다(赤松子上谷人也, 病厲入山, 導引輕舉).”고 하였다.

또한 『한서(漢書)·고금인표(古今人表)』에서는 “적송자는 제곡(帝嚳: 전설상의 중국제왕의 이름. 황제(黃帝)의 증손으로 호를 고신씨高辛氏라 함)의 스승이다(赤松子帝嚳師)”고 하였다.

송나라의 학자 나비(羅泌: 생몰년 미상)의 저서인 『노사(路史)·여론 2(餘論二)·적송석실(赤松石室)』편에, “적송자라는 사람은 염제(炎帝: 전설상의 황제 소전少典의 아들. 일설에는 신농씨神農氏라고도 함)의 제후인데, 연로하여, 원래 고향인 양성(襄城: 지금의 하남성河南省 양성현襄城縣)에 이주하여, 집을 석실로 정했다(赤松子者, 炎帝之諸侯也, 既耄, 移老襄城, 家于石室). … 『신선전(神仙傳)』에서 이르기를, “적송자라는 사람은 반하(半夏: 한약재 이름으로, 끼무릇[식물]이름)을 이름. 수정(水晶)의 다른 이름이기도 함)를 복용하였으며, 신농씨 시절에 우사(雨師: 비를 맡은 신)였는데, 신농씨에게 불속에 들어가는 방법을 가르쳤다(赤松子者, 服水玉, 神農時爲雨師, 教神農入火…). 그러나 『열선전(列仙傳)』에서는 말하기를, 적송자여(赤誦子輿: 적송자)라는 자는 황제(黃帝)시대에 각종 풀잎과 화목(花木)을 먹고, 곡식을 식용하지 않으면서, 요임금 시절에 이르기까지 목수로 일했던 까닭에, 전하여 이르기를, 제곡의 스승이었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요임금의 스승이었다고도 하였다(而 『列仙傳』有赤松子輿者, 在黃帝時, 啖百草華, 不穀, 至堯時爲木工, 故傳謂帝嚳師之, 又云堯師之). 그리고 도(道)에 대하여서, 또한 황제가 적송자에게 『중계(中戒)』 등의 경전을 물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는 장량(張良: ?~BC 186. 전한前漢의 공신功臣. 자는 자방子房)이 적송자를 추종하며 노닐기를 원하는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만년의 (자신의 명절보신을 위한) 술책은 아

니었으리라(而道亦有黃帝問赤松子『中戒』等經，此張良所以願從之游，非末代之數矣)”고 하였다.

- ② 전하는 바에 의하면, 진대(晉代)에 득도하여 선인이 된 황초평(皇初平 : 황초평黃初平)을 가리켜 적송자(赤松子)라고 한다.

동진(東晉)의 도사 갈홍(葛洪 : 284~364, 호는 포박자抱朴子, 유교의 윤리와 도교의 비술秘術을 결합하려 애썼음)이 찬술한 『신선전(神仙傳)』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단계(丹溪 : 지금의 사천성四川省 중경시重慶市 파남구巴南區 동북의 목동木洞에 있는 작은 하천) 사람. 황초평(皇初平)이 15세 때 집 부근에서 양을 치다가 도사에게 이끌려 금화산(金華山 : 지금의 절강성浙江省 금화시金華市 북부에 위치함) 석실(石室)에 가서, 40여 년 동안 귀가할 생각을 못했다. 그의 형 초기(初起)가 산에 올라가 동생을 여러 해 찾아다녔으나 찾아내지 못했다. 후에 그 도사가 안내하여 산중에서 동생을 만났다. 형이 양떼는 어디 있느냐고 묻자, 초평은 산상의 백석(白石)을 향해 큰 소리로 기압을 넣으니, 바위가 수 만 마리의 양떼로 변했다. 이에, 형 초기도 마침내 집을 포기하고 초평에게 도를 배웠는데, 형제는 송진과 복령(茯苓 : 버섯의 일종으로 한약재로 씀)을 함께 먹고 지내면서 나이 500세가 되자, 설 수도 없는 곳에 능히 앉을 수가 있고, 대낮에 걸어도 그림자가 없으며, 열 굴은 동안(童顏)이었다. 후에 형제가 귀향해 보니 친족들은 이미 모두 저 세상 사람이 된 후였던 터라, 두 사람은 다시 산중의 석실로 돌아갔다. 초평은 개명하여 적송자(赤松子)라 하고, 초기는 개명하여 노반(魯班)이라 하였다.

- 17) 장자방(張子房) : 장량(張良 : ?~BC 186) :

서한(西漢) 패군(沛郡) 성보현(城父縣), 지금의 안휘성(安徽省) 박주시(亳州市) 동남부 성보집진(城父集鎮) 지역 출신. 자는 자방(子房). 조부와 부친이 한(韓)나라 재상을 계승하였다. 진(秦)나라가 한(韓)나라를 멸망시키자 보복하기 위하여 박랑사(博浪沙)에서 역사(力士)를 모집하여, 첩자로 진시황(秦始皇)을 쳤으나 실패하여 변성명하고 은신하였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하비현(下邳縣 : 지금의 강소성江蘇省 수녕현睢寧縣 서북부 고비진古邳鎮)으로 도피하였는데, 우연히 은사(隱士) 황석공(黃石公)을 만나 『태공병법(太公兵法)』을 받았다고 한다. 진2세(秦二世) 원년에 군중을 취합하여 진승(陳勝)에게 호응했으며, 후에 유방(劉邦 : 한고조漢高祖)을 추종하여 주요 모사(謀士)가 되었다. 유방이 군대를 도성(都城)인 함양(咸陽)을 함락시킨 다음, 장량은 번쾌(樊噲)와 함께 궁궐 창고를 걸어 잠그고 패상(霸上 : 지금의 섬서성陝西省 동쪽 교외)으로 환군(還軍)할 것을 극력 간(諫)하여, 홍문(鴻門) 연회에서 유방에게 닥친 위기를 모면하게 하였다. 초·한전쟁(楚漢戰爭) 시기에, 6국(六國)의 후대(後代) 군주를 책정하지 않도록 하고, 영포(英布)·팽월(彭越) 등과 연합하여, 한신(韓信)을 중용하는 정책 등을 건의하였다. 또한 항우(項羽)를 추격하여 초군(楚軍)을 섬멸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유방이 모두 채택하였다. 한고조 6년에 유후(留侯)로 봉해졌다. 만년에 황로사상(黃老思想 : 도가사상)에 심취하여 벽곡지술(辟谷之術 : 도가의 불노불사하려는 수련법의 하나)을 배웠다. 시호는 문성공(文成公)이다.

- 18) 벽곡(辟穀) : 오곡을 먹지 않음을 이른다. 이것은 도가의 일종의 수련술이다. 벽곡할 때도 여전히 약물을 복용하는 동시에, 반드시 도인(導引 : 도가의 양생법. 호흡과 신체활

등을 결합한 체육요법을 실시하는 것임) 등의 노력을 하다.

- 19) 번장(翻張) : 봄이 되어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해동(解凍)이 될 때, 지표면이나 노면(路面)에 균열이 발생하면서 수분과 진흙탕물이 조금씩 흘러나오는 것을 이른다.
- 20) 도화원(桃花源) : 동진(東晉)의 시인 도잠(陶潛 : 365 혹은 376~427, 자는 연명淵明)이 지은 「도화원기(桃花源記)」에, 어떤 어부가 도화원(桃花源)에서 길을 잃고 한 산동네로 들어가게 됐는데, 그 마을에는 진(秦)나라 시대에 피난해서 온 사람들의 후예가 살고 있었다. 그곳은 “토지가 평평하게 드넓었고, 집들이 잘 정돈되어 있었다. 비옥한 경작지와 경관이 아름다운 저수지, 그리고 뽕나무와 대나무 같은 것들도 있었다. 밭두렁에는 길이 서로 통하고 있었고, 닭 울음과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그 가운데서 오가며 씨를 뿌리고 있었는데, 남녀의 의상이 모두 이방인 같았다. 노인과 어린이들도 모두 즐거워하는 모습이었다(土地平曠, 屋舍儼然。有良田, 美池, 桑竹之屬。阡陌交通, 雞犬相聞。其中往來種作, 男女衣著如外人。并怡然自樂)”고 하였다. 어부가 그 동네를 떠나서 돌아왔다가, 후에 다시 그곳을 찾아 갔으나, 해매기만 하고 끝내 그 마을을 찾을 수가 없었다.
훗날 사람들은 그런 곳을 ‘은둔하는 곳’의 의미로 여기기도 했고, ‘이상향(理想鄉)’을 가리키는 뜻으로도 사용했다.
- 21) 선로(仙路) : 신선이 되는 길.
- 22) 능풍(凌風) : 바람을 타다.
- 23) 영해원망망(瀛海遠茫茫) : 넓고 넓은 바다 아득하여 망망하다네) :
 - ① 영해(瀛海) : 큰 바다.
 - ② 원망망(遠茫茫) :
 - ☆원(遠) : 차이가 크다, 심하다. 거리가 멀다.
 - ☆망망(茫茫) :
 - a. 망망하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으며, 광대하고 아득히 멀다는 것을 형용한 말이다.
 - b. 어렵꽂하고 아득하다.
 - c. 요원하다.
- 24) 봉래(蓬萊) : 봉래산(蓬萊山). 고대 전설상의 신산(神山) 이름. 일반적으로 선경(仙境)을 가리킨다. 자세한 것은 「시11」의 주석21)을 참조 바람.
- 25) 하패표고상(霞佩飄翺翔) : 선녀들이 표표히 선화하며 노니는구나) :
 - ① 하패(霞佩) : 하패(霞珮)로도 쓴다. 선녀의 장신구(裝身具). 선녀의 장식품. 전(轉)하여 선녀를 가리킨다.
 - ② 표(飄) : 표표(飄飄)하다. 팔랑팔랑 가볍게 나부끼거나 날아오르는 모양.
 - ③ 고상(翺翔) : 선화하며 날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새가 날며 날개를 아래위로 흔드는 것을 ‘고(翺)’라 하고, 날개를 움직이지 아니하는 것을 ‘상(翺)’이라 한다.
- 26) 현주(玄珠) : ‘현주(玄珠)’라는 이 흑진주는 도가와 불교에서 도의 실체나 교리의 진체(眞諦 : 참된 실체)에 비유하는 말로 쓰인다.
- 27) 잠연초비망(湛然初非亡) : 정신을 차려 보니 원래 잃었던 게 아니었네) :
 - ① 잠연(湛然) :
 - ☆정신 차린 모양.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머릿속이 맑아진 모양.

☆하늘, 물, 눈동자, 마음 등이 맑고 깨끗한 모양.

② 초(初): 본래, 원래.

③ 망(亡): 없다, 분실하다.

28) 백양자(伯陽子): 백양(伯陽)을 가리킨다. ‘자(子)’는 고대에 ‘스승에 대한 존칭’ 또는 ‘남자에 대한 존칭이나 미칭(美稱)’으로 썼다. 본 시에서는 ‘노자(老子)’를 가리킨다.

① 노자(老子)의 자(字).

『사기(史記)·노자·한비열전(老子韓非列傳)』의 『색은(索隱)』에서 후한(後漢)의 학자인 허신(許慎: 30~124)이 말하기를, ‘백양(伯陽)’은 노자의 자(字)라고 하였다.

『문선(文選)』에, 삼국시대·위(三國時代魏) 나라 문인, 응거(應璩: 191~252)가 상관인 만공염(滿公琰)에게 보낸 서신 「여만공염서(與滿公琰書)」에 보인다. 여기에서, “서쪽에는 노자가 거처하던 집이 있고, 북쪽에는 광야가 있어 관망할 수 있다(西有白陽之館, 北有曠野之望)”고 하였다. 당(唐)나라 학자 이선(李善: 630?~690)이 이 글에 주(注)를 달아 말하기를, ‘백양(伯陽)’은 ‘노자(老子)의 자(字)’라고 하였다.

② 고대의 현인(賢人).

전하는 바에 의하면, 순(舜)임금의 칠우(七友) 중의 한 사람이라고 한다.

『묵자(墨子)·소염(所染)』편에, “순임금은 허유(許由: 전설상의 고대 현인. 요임금이 왕위를 물려주려하자 받지 않고 도리어 자기 귀가 더러워졌다고 귀를 영수(潁水) 강물에 씻고, 기산(箕山)에 은거하였다고 함)와 백양(伯陽: 고대의 현인. 사적(事蹟)은 알려져 있지 않음)에게 감동을 받았다(舜染於許由, 伯陽)”고 하였는데, 청(淸)나라 학자 손이양(孫詒讓: 1848~1908년. 자는 중용(仲容)은 그의 저서 『묵자간힐(墨子間詁)』에서, 주(注)를 달기를, “여기에서의 백양이라는 사람은 당연히 순임금 때의 현인이다(此伯陽自是舜時賢人)”고 하였다.

29) 단경언유당(丹經言有當: 『단경(丹經)』에 이르기를 운명은 정해진 수수가 있다고 했으니!):

① 단경(丹經):

도교(道敎)에서 이른바 연단술(煉丹術)을 익히고 신선이 되는 도(道)를 탐구하면서, 심신을 수련하는 것을 ‘단도(丹道)’라 하고, 그 단도(丹道)를 수련하는 내용으로 기록된 각종 경전(經典)을 ‘단경(丹經)’이라고 한다. 대표적인 단경을 보면, 송원(宋元)이전과 송원시대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그러면, 단경(丹經)을 소개하기에 앞서 먼저 도교에 대한 기초이해를 간술(簡述)하면 아래와 같다.

☆도교(道敎)

도교는 ‘도(道)’를 최고 신앙으로 하는 중국전통종교이다. 동한(東漢) 중엽에 발생했다. 중국고대신앙의 기초위에서 선도(仙道: 신선이 되려고 수련하는 도임)를 승습(承襲)하고 황로도(黃老道: 황제(黃帝)와 노자(老子)의 사상체계)의 종교적 관념과 방법을 익히면서 점차 형성되었다. 이것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일정한 수련과정을 거치면 불로장생하며 ‘신선(神仙)’이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노자의 『도덕경』을 종교화하고, 노자를 교주로 삼아 천지신명으로 받들었다. 그리하여, 『도덕경』을 주요경전으로 삼는 동시에 종교성을 띤 해석을 하였다. 도교가 창시될 당시에는 주로 민간에서 유행하여, 당시에 일어났던 농민봉기와 상

호결합하기도 했었다. 위진시대(魏晉時代) 이후, 일부 도교도(道敎徒)들은 통치자의 세력을 기반으로 삼고 그 권력을 이용하여 도교를 믿음으로써 도교를 상류층화 되도록 하였으며, 그들의 지적 성향에 따라 명교관념(名敎觀念: 명분을 분명히 하고 분수를 지키는 것을 위주로 하는 전통예교관념傳統禮敎觀念)과도 결합하였다. 그런가 하면 일부 왕조에서는 궁정정치에 도교사상을 융해하여 통치하기도 했다. 민간에서는 전통형식의 도교를 신봉하는 사이에, 일부는 비밀종교 조직으로 변하기도 하였고, 일부는 평민들이 봉기한 투쟁 중에 가담하여 교리를 군중의 조직과 연대하는 기치로 삼기도 하였다. 장기적인 발전과정 중에 도교는 대량의 경적(經籍)과 서문(書文)이 축적되어, 훗날 『도장(道藏)』에 편찬 수록 되었고, 중국의 고대철학, 문학, 예술, 의학, 화학, 천문, 지리 등 방면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일정한 공헌을 함에 중국고대문화 유산의 일부가 되었다.

a. 도교의 사상연원(思想淵源)

‘태평도(太平道)’와 ‘오두미도(五斗米道)’는 도교의 양대(兩大) 교파(敎派)이다. 이를 간술(簡述)해 보면 아래와 같다.

a) 태평도(太平道)

동한 영제(靈帝) 회평년간(熹平年間: 172~177)에 거록(鉅鹿: 지금의 하북성 평향현平鄉縣)사람 장각(張角: ?~184)이 창립한 후에, 동생 장보(張寶) 장량(張梁) 등과 함께 하북(河北)일대에서 전도하였다. 그는 전도할 때 손에 구절장(九節杖: 신선이 짚고 다닌다고 전하는 지팡이)과 화부(畫符: 부적符籙)를 들고 다니며 사람들의 병을 고쳐 준다고 선전하여 10여 년간 수십 만의 신도를 모았다. 장각은 장수들을 임명해가며 신도들을 통솔하였다. 또한 일부 환관을 매수하여, 당시 정치적, 사회적 모순의 누적으로 인한 혼란을 틈타고 난을 일으키기로 밀약하였다. 이들이 일으킨 난은 결국 실패하였지만, 태평도는 여전히 민간에서 전파되었다. 당시 난을 일으킨 태평도의 교도들은 머리에 황건(黃巾)을 두르고 있었기에, 이들이 일으킨 난을 ‘황건적(黃巾賊)의 난’이라고 한다.

b) 오두미도(五斗米道)

역시 초기의 민간도교이다. 동한 순제원년(順帝元年: 142)에 장릉(張陵: 생몰년 미상)이 지금의 사천성(四川省) 학명산(鶴鳴山)에서 창립하였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당시 사람들이 입도(入道)하려면 반드시 오두미(五斗米: 다섯 말의 쌀)를 내줘야 했기 때문에 얻어진 이름이라고 한다. 일설에 의하면, 오방(五方: 동·서·남·북과 중앙)의 별을 숭배하고 『오두경(五斗經): 오두미 도교의 경전』을 신봉해야 했기 때문에 얻어진 명칭이라고도 한다. 신도들은 장릉을 ‘천사(天師)’로 받들었기 때문에 오두미도를 ‘천사도(天師道)’라고도 한다.

오두미도는 장릉의 손자인 장로(張魯)의 시대에 이르러 한중(漢中: 지금의 섬서성陝西省 안강시安康市)에서 30년을 자리 잡고 있으면서 크게 발전하였으나 서진(西晉) 시대에 이르러 분화(分化)되었다. 원대(元代)에 이르러 ‘정일도(正一道)’로 변하였다. ‘태평도’와 ‘오두미’의 교의(敎義)는 기본적으로 일치하는데, 그 사상과 도술(道術)의 근원은 아래와

같다.

첫째, 고대 귀신 사상

중국고대사회의 사람들은 일월성신(日月星辰)과 산하(山河) 및 조상의 영혼을 신령으로 삼아 제사도 지내고 기도도 하며, 점차 천신(天神)·지신(地神)·인귀(人鬼) 등의 신령계통이 형성되었다. 도교에서 이러한 귀신사상을 승습(承襲)하면서, 끊임없이 허다한 종류의 신령이 도교에 유입되었다.

둘째, 무술(巫術 : 샤머니즘shamanism : 신령이나 초자연적인 존재와 직접적인 교류를 하며 예언이나 병 치료 따위를 하는 종교적 현상)과 신선방술(神仙方術)

고대 은주시대(殷周時代) 사람들은 점복(占卜 : 점치는 일)으로 의혹을 해결하고 길흉을 판단하며 무사(巫師 : 무당)는 귀신과 교류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점술로 복을 받고 재앙을 막는 방식이 도교에 흡수되었다. 전국시대(戰國時代) 이후, 신선방술(神仙方術 : 신선도와 방술 : 초인적 능력을 지니고 진세塵世를 초월하여 장생불사할 수 있는 방법을 수련하는 것과 점을 쳐서 길흉을 예측하거나 주문으로 병을 치료하는 등의 법술)이 점차 흥성하면서, 신선사상은 『장자(莊子)』와 『초사(楚辭)』에도 흔하게 보인다. 그 얼마 뒤에, 연(燕)과 제(齊)나라 일대에서 장생술(長生術)을 고취하며 신선술을 추구하는 방사(方士 : 신선술을 수련하는 사람)들이 출현했는데, 전국시대 제나라 사상가 추연(鄒衍 : 대략 BC 305~BC 240)의 음양오행 학설로 그들의 방술(方術 : 학설이나 기예)을 해석하였으며, 이때부터 이른바 신선가(神仙家 : 신선이 되려고 수련하는 사람), 즉 방선도(方仙道)가 형성되었다. 『사기·봉선서(史記封禪書)』에 의하면, 방선도(方仙道)를 숭상하던 연(燕)나라 방사(方士) 송무기(宋毋忌 : 생몰년 미상) 등은 신선을 동경하여 말하기를, “방선도(方仙道)를 수련하다가, 신선이 되면서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면, 모든 것은 귀신의 사리에 의거하리라(爲方僊道, 形解銷化, 依于鬼神之事).”고 하였다. 이후, 신선가들의 신선신앙과 방술은 모두 도교에 승습(承襲)되어 신선방술은 도교의 수련방술(修煉方術)로 변화되고 방술사(方術士) 역시 점차 도사(道士)로 변화하였다.

세째, 참위설(讖緯說 : 음양오행설에 의하여 인간 사회의 길흉화복을 예언하던 학설)

음양오행설은 선진(先秦)시대에 발생했다. 한대(漢代)의 유학자 동중서(董仲舒 : BC 179~BC 104)로 부터 시작하여 이 사상을 해석하면서 점차 참위학설이 형성되었다. 서한(西漢)말엽부터 동한 초기에 이 참위설이 성행하였는데, 유생(儒生)들은 방사(方士)들과 합류하여, 음양오행설에 의거하여 자연재해나 심상치 않은 자연현상을 보고 길흉의 운세를 추측하였다. 도교는 참위사상을 융합하는 동시에 그것을 방술내용으로 흡수하였다.

네째, 황로사상(黃老思想)

‘황로사상’이란, 도가(道家)가 주장하는 청정무위(淸靜無爲)의 치세(治

世) 사상이다. 여기서 말하는 ‘청정무위’란 도가의 철학사상이자 치세술이다. 도가가 생각하는 ‘천도(天道)’는 “자연 그대로의 것이면서 인위적인 작위(作爲)를 가함이 없는 것이다(自然無爲)”라고 하면서, 주장하기를, “사람도 마음을 비우고, 청정함을 견지하면서, (현실에는) 소극적이며 무위(無爲 : 인위적인 작위를 가함이 없음)로 처세하여, 자연으로 돌아가야 한다(心靈虛寂, 堅守清靜, 消極無爲, 復返自然).”고 하였다. 이것이 ‘청정무위’이다.

황로학설은 전국시대(戰國時代) 제(齊)나라 도성(都城)의 서문(西門) 부근에 위치한 학문의 전당인 ‘작하(稷下)’의 도가들로 부터 시작되었는데, 당시 학자들은 전설상의 제왕 황제(黃帝)와 춘추시대 사상가인 노자(老子)를 도가의 창시자로 받들었다. 한초(漢初)에 이르러 문제(文帝)와 무제(武帝)가 황로청정술(黃老清靜術)로 천하를 다스리자 황로학(黃老學)을 연구하던 학자들이 붐기했다. 황로사상은 많은 신비주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데다가, 황로학자들 중에는 다수의 방사(方士)들이 내포되어 있었는데, 그들은 신선술(神仙術)로 불로장생하려는 사상과 음양오행설로 방술요소에 대하여 종교성을 띤 해석을 하여 황로학과 신선술을 결합함으로써, 신선방술의 방향에 발전을 가하도록 하였다. 동한 시대에 이르러 황제(黃帝)와 노자(老子)는 신비화되었고, 황로(黃老)를 존중한 것에서 신격화된 노자를 숭배하였고, 점차 노자를 만들어 천지신명화(天地神明化)된 황로도(黃老道)를 숭배하기에 이르렀다. 동시에 방술과 선도가 합류하여 초기도교의 전신(前身)이 되었다.

이러한 조건과 인도에서 유입된 불교의 영향으로 태평도(太平道)와 오두미도(五斗米道)가 형성되는 기초가 된다. 위진(魏晉) 이후 도교는 내부 분열로 분화되었으나 수(隋)·당(唐)·북송(北宋) 시대에 적지 않은 황제들이 도교를 신봉하면서 다시 융성했다. 그러나 명대 중엽 이후 도교는 점차 쇠퇴되었고, 청대(清代)에는 숭불억도(崇佛抑道) 정책으로 도교는 더욱 쇠퇴해졌다. 당대(唐代) 이후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일본, 월남 등 각국에 전파되었다.

(a) 술사(術士)와 도사(道士)에 대한 이해

④ 방술사(方術士 : 방사方士)

점성(占星 : 별의 빛이나 위치, 운행 따위를 보고 길흉을 점침), 풍각(風角 : 사방의 바람소리를 오음五音에 입각해서 듣고 길흉을 점침), 신선술(神仙術), 방중술(房中術 : 도사나 방사들이 절육, 양생, 보기保氣 등을 하려고 행하는 법술임), 무의(巫醫 : 주술을 외우며 기도하면서 약물을 복용케 하여 병을 치료하는 것), 점복(占卜 : 점치는 일 : 고대에는 거북의 등딱지나 시초蓍草 줄기를 가지고 점쳤으나 후세에는 동전이나 아페〈牙牌 : 상아로 만든 패〉로 길흉화복을 점쳤음), 감여(堪輿 : 집터나 묘지 장소 등의 방위나 지형의 좋고 나쁨에 따라 사람의 화복이 절대적 관계를 가진다며 선택해주는 풍수風水), 참위(讖緯 : 미래의 길흉을 점치는 것), 둔갑(遁甲 : 술법을 써서 자기 몸을 감추거나 다른 것으로 바꾸는 술법), 상술(相術 :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의 운명, 성격, 수명 따위를 판단하는 방법) 등을 방술(方術)이라고 하고, 이 방면의 법술(法術)에 종사하던

사람을 방술사(方術士 : 방사方士)라고 한다.

㉞ 도사(道士)

외단(外丹)을 수련하는 도교도(道教徒)이든 내단(內丹)을 수련하는 도교도이든 도를 수련하여 불로장생의 신선이 되려고 하는 선비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 도사이다.

☆승·원이전(宋元以前)의 대표적인 도서단경(道書丹經)

먼저 송·원(宋元) 이전의 도서단경(道書丹經)을 보면, 춘추시대(春秋時代)의 사상이 노자(老子 : 생몰년 미상)의 『도덕경(道德經)』과 북위(北魏)의 사상이 구검지(寇謙之 : 363~448)의 『음부경(陰符經)』 및 후한(後漢)의 사상이 위백양(魏伯陽 : 생몰년 미상)의 『주역참동계(周易參同契)』 등이 있다.

a. 『도덕경(道德經)』

도교의 주요 경전(經典). 즉 『노자(老子)』라고도 칭하고, 『노자 오천문(老子五千文)』이라고도 칭했다. 당대(唐代)에는 그 경전을 높여서 『도덕진경(道德眞經)』이라고도 했지만, 원래는 선진시대(先秦時代) 도가(道家)의 저작이었다.

『노자』는 도가(道家)가 우주관과 사회정치사상 및 인생의 처세방법을 비롯한 수양원칙에 관한 철리(哲理)를 기록한 저작이다. 여기에서 제시한 “도(道)”는 천지만물의 본원(本源)이자 법칙의 사상이었다. 전국시대(戰國時代) 말엽의 법가(法家)인 한비(韓非 : 대략 BC 280~BC 233)로부터 시작하여 역대를 걸쳐 주석가(注釋家)들이 끊이지 않았다. 문인과 학자들은 그 책에서 “현리(玄理 : 매우 오묘하고 깊은 이치)”를 탐색했고, 제왕과 관리들은 그 책에서 “인군남면술(人君南面術 : 제왕의 통치술을 이르는 말, ‘남면’이 제왕의 존위를 상징하는 뜻에서 연유된 말임)”을 탐구하였다. 당·현종(唐玄宗 : 685~762)은 친히 『노자』를 주석(注釋)하였으며, 제경(諸經)들 가운데 으뜸이라 하여 천하에 반포하였다.

『노자』 대해서 종교성을 떼 이해와 석명(釋明)을 한 것은 하상공(河上公)의 『노자장구(老子章句)』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노자·제2장』에서, “도(道)는 만물을 생육하지만 소유하지 않는다(生而不有)”는 말을 전(轉)하여, “원기가 만물을 생육한다(元氣生萬物)”고 하면서, “기슴 속에 도심(道心)을 확고하게 지니고 있으면 오장(五臟 : 간장·심장·비장·폐장·신장 등의 다섯 가지 내장)의 영기(靈氣)를 고수(固守)할 수 있다(懷道抱一守五神)”는 수양방법을 제시하는 동시에, “사람은 도(道)를 확고하게 지닐 수 있나니, 그 도를 몸에서 떠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면, 장수할 수 있다(人能抱一, 使不離於身, 則長存)”고 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신수양을 해내면 죽지 않는다(人能養神則不死)”고 하였다. 그리하여 공언(公言)하기를, “도(道)로서 치국(治國)을 하면, 나라가 부강하고 백성이 번영하며, 몸을 다스리면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用道治國, 則國富民昌, 治身則壽命延長)”고 하였다. 이렇게 노자의 사상을 가지고 치국(治國)과 수신(修身), 도교의 수도(修道)와 더불어 연기(煉氣)하고 연단(煉丹)을 하면서 신선이 되려는 이론적 근거로 삼기에 이르렀다.

a) 노자(老子 : 생몰년 미상)

노자를 도교에서는 교주(敎主)로 신봉하면서 태상노군(太上老君)이라고도 하고 도덕천존(道德天尊)이라고도 존칭하였다. 노자는 원래 춘추시대의 사상가로서 도가파(道家派)의 창시자이다.

『사기·노자열전(史記老子列傳)』에 의하면, 노자의 성(姓)은 이씨(李氏)이고 이름은 이(耳), 자는 담(聃)이라고 하였다.(일설에는 자는 백양伯陽, 시호諡號를 담聃이라 했다고도 함). 초나라 고현(苦縣), 지금의 하남성(河南省) 녹읍(鹿邑)사람으로 주(周)나라 장서실(藏書室)을 관리하는 사관(史官)이었다. 그는 함곡관(函谷關) 영윤(令尹 : 춘추시대 초나라의 집정관) 윤희(尹喜 : 생물년 미상)의 청으로 『도덕경(道德經)』 5천자를 서술하고 떠나 아무도 그의 최후를 모른다고 하였다.

서한(西漢) 초엽에 황로술(黃老術 : 황제黃帝와 노자가 제창했다는 청정무위의 치세술)이 성행하면서, 통치계층의 인사들은 도가(道家)의 청정무위(淸靜無爲)의 책략과 형명법술(刑名法術 : 사실과 명분에 근거하여 상벌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과 기술)을 결합한 “황로정치(黃老政治)”를 실행하면서, 『한서·예문지(漢書藝文志)』에 수록된 「노자인씨경전(老子隣氏經傳)」과 서한(西漢)의 학자 유향(劉向 : 약 BC 77~BC 6)의 『설노자(說老子)』 등 『도덕경』을 해설한 서적이 분분히 출현하였다. 한의 명제(漢明帝)와 장제(章帝) 때 익주태수(益州太守) 왕부(王阜 : 생물년 미상)가 지은 「노자성모비(老子聖母碑)」에 이르기를, “노자란 사람은 도(道) 그 자체이다. 그래서 우주의 형체가 아직 없던 옛적에 태어나서, 천지가 생기기 이전에 거동하였고, 천지가벽 이전의 혼돈하던 때의 하늘에서 유동하며, 천지사방을 떠다니다가, 저승세계까지 출입하였는데, 만물과 생사가 혼합되어 아직 분별되지 않았음을 관조하였고, 청기와 탁기(淸氣與濁氣 : 음양이陰陽二氣)가 아직 분리되지 않았음을 살펴왔다(老子者道也。乃生於無形之先，起於太初之前，行於太素之元，浮遊六虛，出入幽明，觀混合之未別，窺淸濁之未分).”고 한 대목이 있다.

노자를 ‘도(道)’와 동일하다고 간주함으로써, 노자를 천지신령보다 우선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당시에 도술(道術)을 숭상하던 선비들은 더욱 더 노자를 조사(祖師)로 숭배하였다. 동한(東漢) 시대 제후국 진(陳)나라 재상 변소(邊韶 : 생물년 미상)는 연희 8년(延熹八年)에 지은 『노자명(老子銘)』에서 세상의 도(道)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거론하면서 이르기를, “노자를 천지가벽 이전의 원기(元氣)에 부합시켰다 부합시키지 않았다 하는 것은, 해와 달과 별이 떴다 졌다를 거둬하는 것처럼 끊임이 없을 것이다. … 복희씨(伏羲氏)와 신농씨(神農氏)이래로, 세상 사람들은 성자(聖者 : 노자를 가리킴)를 스승으로 삼았다(以老子離合於混沌之氣，與三光爲終始。… 自羲農以來，世爲聖者作師)”고 하였다.

장릉(張陵 : 34-156년 혹은 178년)이 저술한 『노자상이주(老子想爾註)』에는 “일(一 : 철학용어. 중국 고대사상가들은 ‘우주만물의 원시상태’라는 뜻으로 썼음)이란 것이 도(道)이다(一者道也)”, “‘우주만물의 원시상태[一]’가 시해(尸解 : 사람의 죽음을 말함)되면 기(氣)로 돌아간다(一散形爲氣)”, “우주만물 원시상태의 형태가 모아진 것이 바로 태상노군(太上老君)이다(聚形爲太上老君)”

라고 한 말들로 인해서, 더욱 노자를 신격화하여 태상노군(太上老君)으로 숭배하였다. 도교가 발전함에 따라 노자에 대한 신격화도 더욱 심해졌다. 예를 들면, 노자의 출생에 관한 신기함만 봐도 그렇다.

노자의 모친 이씨(李氏)는 노자를 잉태하고 81년 동안 뱃속에 품고 있으면서, 오얏나무 밑을 거닐던 중에 왼쪽 겨드랑이를 가르고 노자를 낳았는데, 그 갓난아이의 생김새가 몹시 신기하였으니, “키가 8척8촌(八寸八尺: 약 2m 93cm)이고, 황색의 수려한 눈썹에다, 귀가 몹시 길고 눈이 아주 컸으며, 코는 순수한 골질(骨質)로서, 콧대가 돌이였으며, 귓구멍이 셋이었다(身長八尺八寸, 黃色美眉, 長耳大目, 鼻純骨, 雙柱, 耳有三門). 걸음 걷는데 보폭이 1장(一丈: 10척+尺: 3m 33cm)이었으며, 손바닥에는 열 줄의 귀인을 상징하는 손금이 있었다(足蹈二五, 手把十文)”고 하였다. 또한 그의神通력이 대단했음을 말하면서, “허무(虛無: 도가에서 말하는 도道の 본체이자 만물의 본원임. 만물은 도에 부합되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존재하지만 없는 것과 같으며 충실하지만 공허한 것과 같은 특성이 있음)를 수련하여, 만물을 창조하였다(陶冶虛無, 造化萬有)”고 하였다. 또한 “지극히 오랜 세월이 지나도 장수하였다(歷劫運而長在)”고 하였다.

또한 『위서(魏書)·석로지(釋老志)』에서는 말하기를, “하늘에서는 천제(天帝)가 머무는 곳에 거처하면서, 호법신(護法神)의 선조가 되었고, 땅에서는 제왕의 궁전에 머물면서, 하늘을 날으는 신선의 군주가 되었다(上處玉京, 爲神王之宗, 下在紫微, 爲飛仙之主)”는 등 다양하게 신격화하는 표현을 하였다.

도교는 또한 노자와 『도덕경』을 표방하면서, 도교 자체와 유(儒)·불(佛)·도(道)의 삼교(三教)에 대항할 형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왜냐하면, 도교사상의 이론적 연원(淵源)이 번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도덕경』에서와 같은 ‘도(道)’를 가지고 도교사상을 개괄한 것이었다. 여기에도 노자는 섭생을 잘하는 자로서 세속을 떠난 숭고한 경지의 사상이 첨가되고, 전설상의 노자가 장수(長壽: 160여 세까지 살았다고도 전하고 200여 세까지 살았다고도 전하는데, 수도修道에 따라 수명이 연장됐다고 함)한 도교를 수도(修道)하면 신선이 된다고 하는 취지가 맞물려 도교 사상이 강화되었다. 게다가 진한(秦漢) 이후 노자가 성철(聖哲)로 존중된 데다가 한초(漢初)에는 노자를 황제(黃帝)와 병렬하여 합칭하여 ‘황로(黃老)’라고 하면서 노자의 지위는 극히 높아졌다. 또한 역대의 제왕들도 노자를 신격화하여 사당을 짓고 제사를 지냈다. 그 예로 당·현종(唐玄宗)은 노자를 태상현원 황제(太上玄元皇帝)로 봉하고, 송·진종(宋眞宗)은 노자를 태상노군 혼원상덕 황제(太上老君混元上德皇帝)로 만들었다.

b. 『음부경(陰符經)』

도덕경전(道德經典). 일반적으로 도교 수련 전문서적이라고 알고 있다. 정식명칭은 『황제음부경(黃帝陰符經)』이다. 작가와 책이 완성된 연대에 대해서는 논설이 분분하다. 학자들의 고증에 의하면 책은 당대(唐代) 이전에 완성되었지만, 작자는 옛 사람들이 말한 바와 같은 전설상의 제왕인 황제(黃帝)와 북위(北魏)의 도사 구겸지(寇謙之: 363~448) 혹은 당대(唐代)의 도

학자 이진(李奎: 생물년 미상) 과 같은 사람은 아니다. 현대 도학자 왕명(王明: 생물년 미상)은 그 책의 저자를 북조(北朝)의 한 은자(隱者)라고 하였다. 전해지는 경문(經文)은 병가(兵家)에 속하는 것으로 3편(三篇: 三章)으로 분류되어 있다.

상편(上篇)은 「신선포일 연도장(神仙抱一演道章)」이다. 본 편에서는 음양 오행론(陰陽五行論)으로 도를 수련하는 것을 논술한 바, “천인(天人)에 부합하는 도리를 실행하고, 무한히 변화하는 가운데서도 그 도리의 근본을 확 정했다(天人合發, 萬變定基)”고 하여, 천명에 부합할 수 있어야 비로소 장 수할 수 있고 양생수련(養生修煉)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중편(中篇)은 「부국안민 연법장(富國安民演法章)」이다. 여기에서는 음양오 행의 변화에 근거해서 천지만물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하편(下篇)은 「강병전승 연술장(強兵戰勝演術章)」이다. 여기에서는 도학(道學)과 수련하는 계율의 목록 및 수심(收心: 정신집중: 마음 안정)에 관한 내용을 천술(闡術)하면서, 사악하거나 망동(妄動)하지 않도록 했다. ‘자연의 도리를 위배하지 말 것(自然之道不可違)’을 강조하면서, 음양오행의 이치 에 맞추어 마음을 안정시키고 수련하는 지는 결코 죽지 않고 장수할 수 있 다고 하였다.

c. 『참동계(參同契)』

도교 경전이다. 작가 위백양(魏伯陽: 생물년 미상)은 동한(東漢)의 연단술사(鍊丹術士)이다.

이 책은 『주역』의 패상(卦象)의 신비한 사상을 차용하여 연단수선(煉丹修仙)의 방법을 논술했는데, 『주역』, 황로(黃老: 황제黃帝와 노자의 무위자연 사 상), 노화(爐火: 신체상 정精·기氣·신神의 수련을 비유하는 말) 등 세 가지 사 상을 종합한 것을 놓고, 수단(修丹: 기공氣功으로 정신 수련과 육신의 단련을 함)과 천지조화는 동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까닭에 역상(易象: 『주역』의 패 卦에 나타난 현상)에 기탁하여 수련방법을 논술하였다. 그러면서 만물의 생성 과 변화는, 모두 음양(陰陽)의 상교(相交)로 인한 것이므로, 이 둘은 결코 서로 분리되지 않으며, 그 음양이 정기(精氣)를 얻게 함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하였다.

장생불사(長生不死)하려고 하면 반드시 음양변화에 순종해야 하며, 건곤 64괘의 운행 규율을 파악하여 수련해야 하는데, 이것을 이른바, ‘연단(鍊丹)’이라 한다.

『참동계』는 내단(內丹)과 외단(外丹)의 주요 저작이지만, 중점을 내단(內丹)에 두었다. 주사(朱沙)를 비롯한 금속을 녹여 불사약을 제조하여 복용하 고 신선이 되려는 것을 ‘외단(外丹)’이라 하고, 입정(入靜)과 단전호흡을 통 하여 천지합일의 개념과 음양오행의 원리를 기초로 정기(精氣)를 수련하는 것을 단약(丹藥)에 비유하여, 정(精)·기(氣)·신(神)을 보강하여 불로장수 로 연결하면서 신선이 되려고 하는 순련을 ‘내단(內丹)’이라고 한다.

이 책은 도가의 수련술에 영향이 아주 커서 ‘단경지조(丹經之祖)’라 일컬어 졌으며 송대(宋代)의 이학(理學)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송·원(宋元) 시대의 대표적인 도서단경(道書丹經)

a. 『오진편(悟眞篇)』

도교논저(道敎論著)이다. 내단(內丹)에 관한 중요 저작 중의 하나이다. 북송(北宋) 신종(神宗) 화녕 8년(熙寧八年 : 1075)에 도사 장자양(張紫陽 : 984~1082, 호는 자양紫陽, 자는 평숙平叔, 이름은 백단伯端)이 저술하였다. 당시 시대적 상황에 기인한 탓이었기는 하지만, 저자 장자양(張紫陽 : 장백단張伯端)은 이 저서에 그의 내단사상(內丹思想)을 서술하면서도 여전히 외단(外丹)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순수한 내단적(內丹的)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인내심이 필요하다.

그 수련방법에 있어서 이 저서는 ‘진약(眞藥) 탐구’와 ‘정로(鼎爐)의 분별’ 및 ‘화후(火候)를 명확하게 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른 바 “진약(眞藥)”이란 외단(外丹)에서 사용되는 삼황(三黃 : 옹황雄黃, 자황紫黃, 유황硫黃)이나 사신(四神 : 단약을 제조하는 네 가지 신비한 약재란 뜻으로, 석石, 단사丹砂, 납鉛, 은銀 등을 말함) 및 기타 초목 등의 약재를 이르는 것이 아니라, 도가(道家)에서 ‘진종자(眞種子 : ‘참된 종자로 번역되는 이것은 신선이 되려고 내단 수련을 하는데 있어서의 필수적인 요소임)’로 여기는 사람의 “정(精), 기(氣), 신(神)”을 가리키며, 이 ‘진약(眞藥)’을 ‘상약삼품(上藥三品)’ 또는 ‘삼보(三寶)’라고도 부른다. 또한 “정로(鼎爐)의 분별”이란 것을 강조했다는 말에서, ‘정로(鼎爐)’란 말에서 정(鼎)이란 약을 달이는 솥이고, 로(爐)란 불을 다루는 그릇이나, 이 저서에서는 『주역』에서 따온 ‘간곤(乾坤 : 천지·음양·일월·건괘·곤괘)’의 개념을 상징하는 용어로 비유하여 표현하였다. ‘정(鼎 : 솥)’은 곤(坤 : 자연에서는 땅을 나타내고, 만물이 나타내는 형상을 나타내며, 유순함을 상징함. 음양오행설로는 음陰임)이고, ‘로(爐 : 화로)’는 건(乾 : 자연에서는 하늘을, 인체 부위로는 대뇌大腦를 나타내고, 강건함을 상징하고, 음양오행설로는 양陽임)이다. 앞서 말한 “진약(眞藥)을 탐구하여 달인다(인체人體의 정精, 기氣, 신神을 수련함을 비유하여 표현한 말)”에 있어서는 ‘정로(鼎爐 : 솥, 즉 ‘약탕관과 화로’라는 도구, 즉 사람의 인심人心을 수련하여 대상인 도심道心을 체득하는 장소에 비유하여 표현한 말)가 필수적인 바, 그 진약(眞藥)과 약 달이는 도구를 가지고 약을 잘 달이려면(즉 단련을 통하여 불로불사의 신선이 되는 내단內丹의 수련을 완성하려면), 솥[약탕관]의 약과 화로불의 강도를 잘 조절해야 하는 바(즉 천인합일天人合一과 음양의 조화에 잘 맞추어 인심人心과 도심道心을 확실하게 분별하여야 하는 바), 수련을 통하여 수련하는 인심(人心)인 영지(靈知)와 도심(道心)인 진지(眞知)를 단련하여, 중정(中正)의 단계로 나아가야함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환언하면, 노정(爐鼎)은 인간 신체의 특정부위를 비유한 말로서 정(精)·기(氣)·신(神)을 수련하는 곳인 상(上)·중(中)·하단전(下丹田)을 말하며, 진약(眞藥)을 생성하고 가공하는 장소이다.

그리고 “화후(火候)를 명확하게 할 것”을 강조했다는 말에서, ‘화후(火候)’란 ‘도교의 방사(方士)들이 연단(煉丹)하는 공후(功候)’를 가리킨다. 환언하면 ‘도사들이 단약(丹藥)을 만들 때의 알맞은 불의 정도와 시간’을 말한다. ‘화(火)는 불의 정도를 뜻하는데, 불의 정도를 잘 조절하려면 ‘공(功)’을 들여야 하듯이, ‘정(精), 기(氣), 신(神)’의 수련을 할 때도 공(功)을 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뜻에서 문자(字)는 화(火)자로 썼지만, 뜻은 ‘공(功)’을

가리키는 것이다. ‘후(候)’는 ‘차서(次序), 시절, 때’를 뜻한다. 따라서 내단(內丹)에서 의미하는 ‘화후(火候)’의 참뜻은, ‘선도(仙道)를 수련하기 위해 천지합일(天地合一)과 음양오행의 원리를 기초로, 정(精)·기(氣)·신(神)을 단련함에 있어서, 수련의 시절, 수련의 시작과 정지의 시절, 수련의 차서(次序), 수련 정도의 가감, 음기(陰氣)와 양기(陽氣)의 조절 등을 명확하게 하여 조금도 차질이 없어야 함을 뜻하는 말로 쓴 것이다.

중요한 것은 위에서 언급한 정(精)·기(氣)·신(神)의 수련은 모두 선천(先天)과 후천(後天)을 구분하여, 선천(先天)의 것을 진약(眞藥)으로 삼아야 함을 강조하였다. 화후(火候)는 한마디로 진약(眞藥)을 채취하여 가공하는 것이며, 후(候)는 결국 정(精)과 신(神)을 결합시켜 단(丹)·단약: 수련으로 축적된 체내의 정기精氣인 영적 에너지를 형성하게 하는 과정이다.

이 저서에서 강조한 진약(眞藥)의 탐구(즉 인체의 정精·기氣·신神의 수련)를 위해서는 반드시 3단계의 수련 과정을 거쳐야 ‘금단(金丹)의 도(道)’, 즉 ‘금단법(金丹法)’을 완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제1단계는, “단전호흡을 통한 체내의 정기를 단련하여 먼저 하단전(下丹田: 아랫배)에 단(丹)을 형성한 다음, 영적(靈的)에너지인 기(氣)로 변환하여 중단전(中丹田: 가슴)으로 올려 보낸다는 것이다(煉精化氣).”

제2단계에 가서는, “중단전에 응축된 이 기(氣)를 신(神: 원신元神: 영혼)과 결합하여 금단(金丹: 인심人心을 비우고 도심道心을 채움)을 연성(煉成)한 다음, 이것을 상단전(上丹田: 머리)에 올려 보낸다는 것이다(煉氣化神).”

제3단계로, “이렇게 수련된 신(神)을 단련하여 수성(修性: 일정入靜에 들어 정신수련을 행함)을 통과한 다음, 허적무위(虛寂無爲: 그 어떤 실체도 없는 상태의 자연 그대로의 무한히 심원한 우주의 실상)의 경지에 도달하여 천지합일(天地合一)의 원리를 체득하고 우주와 동체(同體)의 경계에 진입한다는 것이다(煉神返虛).”

말하자면, 제2단계까지는 명(命: 육신의 단련)을 닦는 수련이고, 제3단계는 성(性: 정신수련)을 닦는 수련이다. 내단(內丹)의 단도(丹道)는 천인합일(天人合一)과 음양오행의 원리를 기초로 한다. 그러므로 이 조화의 원리를 체득하여 이용하면 장생불사에 이를 수 있다고 한다.

조화의 원리는 무(無)에서 유(有)가 되는 순행(順行)의 과정인데, 이는 생사(生死)가 있는 것이다. 수련하여 신선이 되는 것은 이 과정을 역행(逆行)하여 유(有)에서 무(無)로 돌이키는 것이다. 이것은 삼(三)에서 일(一)이 되는 역행 과정의 논리이다.

『노자·42장』의 “만물이 화생(化生: 변화, 생성함)하는 원리인 도(道)는 하나의 기(氣)를 낳고(道生一), 여기서 생성된 기(氣)가 분화(分化)하여, 음양 2기(陰陽二氣)를 낳고(一生二), 음양 2기가 교합(交合)하여 화기(和氣: 음양 2기가 결합하여 생성된 기氣), 그것을 ‘삼(三)’으로 표현하였음을 낳고(二生三), 이 화기(和氣)가 부단히 교합하여 만물이 번성한다(三生萬物).”고 한 것이 그 논리의 근거이다. 이것을 역행(逆行)한 것이 노자가 말하는 도(道)의 구체적 운용이다. 즉, 수련을 통하여 먼저 만물의 근원인 셋(三: 음양 2기가 결합하여 생성된 기氣)을 탐구하고, 셋의 근원인 둘(二: 음양 2기)이

조화된 원리를 찾은 다음, 음양이 분리된 근원인 도(道 : 즉 일- : 하나)를 체득한 후에, 태초의 상태인 무(無)의 경지에 진입하면, 생사가 없는 신선의 경지에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을 수련하는 과정이 위의 3단계 수련이다.

금단(金丹)을 수련하는 중점은 수명(修命 : 단전호흡을 통해 육신의 단련을 위한 수련을 행함)이지만, 그 도를 터득한 다음에 수성(修性 : 입정入靜에 들어 정신수련을 행함)을 수련하지 않으면, 삼계(三界 : 중생이 왕래하고 거주하는 세 개의 세계, 즉 욕계<欲界 : 식욕·성욕·수면욕 등 욕망이 지배하는 세계>, 색계<色界 : 욕망은 끊었지만 육체는 갖고 있는 자의 세계>, 무색계<無色界 :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이며, 육체를 갖지 않은 정신적인 요소만으로 구성된 세계>를 이룸)를 초월한 세계로 회귀하지 못하고, 공적(空寂 : 실체성이 없이 헛된 것)의 본원(本源)으로 돌아간다고 저자는 생각하였다. 그래서 권말(卷末)에 시(詩), 곡(曲), 잡언(雜言) 등 32수를 덧붙이면서, 불교 선종(禪宗)의 이론을 인용하여 도교수성(道教修性)의 내용으로 삼아, 그 자신의 삼교합일(三教合一 : 유교, 불교, 도교의 세 교를 조화, 융합하고 통일하려던 사상적 태도) 사상을 반영하였다.

② 유당(有當) :

☆‘(운명에는) 정해진 수(數)가 있다’는 말과 같다. 이때의 ‘당(當)’은 ‘정해지다’는 뜻이다. 『초사(楚辭)·구가(九歌)·대사명(大司命)』에, “본래 사람의 생명[운명]에는 정해진 수(數)가 있나니, 뉘라서 만나고 헤어지는 일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겠는가(個人命兮有當, 孰離合兮可爲)?”라고 하였다.

☆적합(적당)하다. 알맞다.



시16. ‘감흥’을 읊은 시 두 수

詩16. 感興二首 감 흥 이 수

其一 기 일

[1]

天機來往浩無窮¹⁾,
천 기 래 왕 호 무窮

하늘 조화 반복이 한없이 무궁하여,

昨日西風今北風。
작 일 서 풍 금 북 풍

어제는 서풍 불더니 오늘은 북풍 부네.

耐凍抱香憐夜菊,
내 동 포 향 련 야 국

냉기 견디고 향기 품으니 밤에 핀 국화
가룩한데,

去寒依暖笑秋鴻²⁾.
기 한 의 난 소 추 홍

한대寒帶 떠나 온대溫帶에 의탁하려는
가을 기러기 가소롭구나!

孤明起滅羣昏際³⁾,
고 명 기 멸 군 혼 제

홀로 깨우친 사람도 증생계에서
생멸하고,

萬象浮沉一氣中⁴⁾.
만 상 부 침 일 기 중

만물의 현상은 천지원기天地元氣 속에
부침하네.

看取此間多事業⁵⁾,
간 취 차 간 다 사 업

세상사 보아하니 아직 할일 많은 것
같은데,

試將消息問參同⁶⁾。
시 장 소 식 문 참 동

그 시운時運의 변화 『참동계參同契』에서
알아보려네.

其二

江聲東去月西斜，
강 성 동 거 월 서 사

강물은 소리 내며 동으로 흘러가고
달은 서쪽으로 지는데,

江月相違奈爾何⁷⁾。
강 월 상 위 내 이 하

강물과 달이 서로 어긋나니 그대들을
어찌하랴.

欲知動靜⁸⁾無窮意，
욕 지 동 정 무 궁 의

저들의 동정動靜을 알고 싶은 마음 한이
없어,

須信陰陽互作家⁹⁾。
수 신 음 양 호 작 가

반드시 음양설 알고 나서 전문가와
교류해 보려하네.

默默昏昏¹⁰⁾非是隱，
묵 묵 혼 혼 비 시 은

말로 표현도 못하는 모호한 도道수련은
바른 은거 아닐지니,

茫茫杳杳不爲賒¹¹⁾。
망 망 묘 묘 불 위 사

요원한 곳에 심원한 삶을 사는 은사隱士
많지 않다네.

中宵壹氣¹²⁾消磨盡，
중 소 일 기 소 마 진

한밤중에 원기元氣가 모조리 소진됐는데,

宇宙長懷起一嗟¹³⁾。
우 주 장 회 기 일 차

멀리서 님 그리워 장탄식 거듭하네.

1) 천기래왕호무궁(天機來往浩無窮 : 하늘의 조화 거듭되며 한없이 무궁하여) :

① 천기(天機) : 하늘의 기밀 또는 조화(造化)의 신비.

② 내왕(來往) : 여러 차례 반복함을 이른다.

③ 호(浩) : 많다, ‘다(多)’와 같은 뜻이다. 무변무제(無邊無際)함.

- ④ 무궁(無窮) : 무한(無限)하다, 무진(無盡 : 다함이 없음)하다.
- 2) 거한의난소추홍(去寒依暖笑秋鴻 : 한대寒帶 떠나 온대溫帶에 의탁하려는 가을 기러기 기소롭구나!) :
- ① 한(寒) : 본 시에서는 한대(寒帶) 기후를 가리킨다.
- ② 난(暖) : 본 시에서는 온대기후를 가리킨다.
- ③ 추홍(秋鴻) : 가을 기러기 : 기러기 : 오리과에 딸린 철새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오리와 비슷하나 목이 길고 다리가 짧으며 강, 바다, 늪가에 산다. 가을에 우리나라에 와서 봄에 시베리아, 사할린, 알래스카 등지로 가는 겨울 철새이다.
- 3) 고명기멸군혼제(孤明起滅羣昏際 : 홀로 깨우친 사람도 중생계에서 생멸하고) :
- ① 고명(孤明) : 불교용어로, ‘독자성에 철저한 것’을 가리킨다. 전혀 남의 것을 빌리지 않았으므로 ‘고명(孤明)’이라고 일컫는 것이다. 즉, 홀로 밝게 깨어 있음을 가리킨다.
- ② 기멸(起滅) :
 ☆불교용어로서 ‘사물이 성(盛)하고 멸하는 것’을 가리킨다. 즉, 인연이 화합하면 생(生)하고, 인연이 이산(離散)하면 멸한다는 뜻이다.
 ☆때로는 ‘숨었다가 때로는 나타났다가’ 혹은 ‘숨었다 나타났다가’라는 뜻이다. 이와 유사한 뜻으로, ‘있다가 없어졌다가’라는 뜻으로도 쓰인다.
- ③ 군혼제(羣昏際) : 중생계(衆生界)를 가리킨다.
 ☆군혼(羣昏) : 불교용어로, 무지(無知)한 중생을 이르는 말이다.
 ☆제(際) : ‘속, 가운데, 중간’의 뜻이다.
- 4) 만상부침일기중(萬象浮沈一氣中 : 만물의 현상은 천지 원기天地元氣 속에서 부침하네) :
- ① 만상(萬象) : 불교용어로, ‘모든 형상, 우주간의 일체의 사물 혹은 경상(景象)을 가리킨다.
- ② 부침(浮沈) : 부침(浮沈)이라고도 쓴다.
 ☆세력 따위가 성하고 쇠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③ 일기(一氣) : 도교의 교의(敎義). 북송의 유학자 주돈이(周敦頤 : 1017~1073)의 「태극도설(太極圖說)」 가운데 나오는 “무극이태극(無極而太極 : 무극이면서 태극이다)”이라는 뜻이다. 여기서 ‘무극’이란, 말은 ‘무형(無形), 무상(無象)한 우주의 원시상태’를 말한다. 또, ‘태극’이란 말은 ‘최고무상(最高無上)의 본원(本源)’을 가리킨다. 현대중국철학자 풍우란(馮友蘭 : 1895~1990)은 설명하기를, “태극은 운동하여 양(陽)을 낳고, 운동이 극에 달하면, 고요에 이르고, 고요함으로써 음(陰)을 낳는다. 고요가 극에 달하면 다시 운동한다. 한 번 운동하고, 한 번 고요하니 서로 각각의 근원이 되어, 음으로 갈리고 양으로 갈리니 음양의 두 개념이 수립된다. 양과 음이 변하고 합하여 수·화·목·금·토(水火木金土)의 오행(五行)을 낳고, 이 5기(氣)가 순리롭게 펼쳐지면서 사계절이 운행된다. 오행은 하나의 음양이고 음양은 하나의 태극이며, 태극은 본래 무극이다”고 하였다.(이상의 태극설은 풍우란(馮友蘭 : 1895~1990) 저, 박성규 역의 『중국철학사』㉔를 인용 참조함).
 도(道 : 우주만물의 근본원리·근원)는 허무(虛無)가 근본이고, 일기(一氣)가 생(生 : 생김)하여, 형(形 : 형상을 갖추)이 있게 되니, ‘일기(一氣)’는 형(形)이전의 혼돈상태, 즉 천지가 분화되기 이전의 기운인 ‘원기(元氣)’를 가리킨다. 본 시에서의 ‘일

기(一氣)는 바로 이러한 ‘천지만물을 낳고 구성하는 근본원리’인 ‘원기(元氣)’를 가리킨다.

5) 간취차간다사업(看取此間多事業: 세상사 보아하니 아직 할 일 많은 것 같은데):

- ① 간취(看取): 간취(看取)에서, 간(看)은 보다, 취(取)는 결과를 나타내는 보어로 쓰여 취하게 되다는 의미이다. 고로 ‘간취(看取)’란, 보아서 내용을 알아차렸다는 의미로, ‘보자하니, 보아하니’라고 해석하면 적합할 것이다.

② 차간(此間):

☆불교용어: 이 세상, 현세(現世), 사바(娑婆: 인계<忍界: 여기, 이곳>: 이 세계의 중생을 안으로는 번뇌가 있고 밖으로는 풍우와 한서寒暑가 있어, 고뇌를 참고 견디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한 것임). 본 시에서는 전(轉)하여, ‘세상사’로 번역하였다.

☆문학용어: 여기, 이곳.

③ 사업(事業): 이루어야 할 일.

6) 시장소식문참동(試將消息問參同: 그 시운의 변화 『참동계(參同契)』에서 알아보려네):

① 소식(消息):

☆소장(消長), 증감(增感); 성쇠(盛衰).

『주역(周易)·풍괘(豐卦)』: “해가 중천에 뜨면 곧 기울어지고, 달이 차면 곧 줄어들는다. 천지가 차고 비는 것도, 때와 더불어 줄고 불어나니, 하물며 사람에게 있어서야 어찌하겠는가? 하물며 귀신에게 있어서야 어찌하겠는가(日中則昃, 月盈則食. 天地盈虛, 與時消息, 而況於人乎? 況於鬼神乎?)”라고 하였다. 현대 중국 고문자학자(古文字學者)인 고행(高亨: 1900~1986)은 주석(注釋)을 달아서 말하기를: “‘감소하고[消] 불어남[息]’은 ‘감소하고[消] 불어남[長]’과 같다(消息猶消長也)”라고 하였다.

이는 『주역·풍괘』의 단사(彖辭: 주역의 괘사卦辭 혹은 효사爻辭를 가리킴)를 해설한 것임. 『주역·풍괘』의 단사(彖辭)에 의하면, 천지의 시운(時運)은 돌고 돌아 자주 변화한다. 그리하여, 일월(日月)도 오고가며, 때의 변천이나, 수목(樹木)의 영고(榮枯) 성쇠(盛衰) 등이 모두 돌고 도는 순환의 규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② 문(問):

☆알아보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음.

☆질문하다. 문의하다.

☆고찰하다.

☆규명하다, 추궁(追窮)하다.

③ 참동(參同):

『주역참동계(周易參同契)』를 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참동계』란, 동한(東漢)의 위백양(魏伯陽)이 지은 『주역참동계(周易參同契)』를 칭하는 것으로 이는 도가(道家)의 경전으로 칭해진다. 또한 참동계에서, ‘참(參)’은 참오(參伍)의 참으로서, 섞어 짜맞추다의 뜻이며, ‘동(同)’은 합동(合同)의 동과 같고, ‘계(契)’는 상계(相契)의 계와 통하는 것으로 곧 ‘주역은 연단술(煉丹術)과 노자(老子)의 대도(大道)와 서로 섞이어 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주역』의 도(道)는 음(陰)

과 양(陽)을 벗어나지 못하고 연단(煉丹)도 음과 양을 벗어나지 못하며, 노자의 대도(大道)라는 것은 음과 양이 합치(合致)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결과라는 것임. 그러므로 ‘참동계’는 『주역』의 도와 연단의 법과 노자의 대도가 하나로 귀결되는 철리(哲理)를 밝혀 놓은 단학(丹學)의 최고 경전(經典)이라 일컫는다. 자세한 내용은 「시15」 주석(29)의 ①의 c 항목을 참조 바람.

7) 강월상위내이하(江月相逢奈爾何 : 강물과 달이 서로 어긋나니 그대들을 어찌하랴!) :

① 상위(相逢) :

☆서로 어긋나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음.

☆서로 피하다.

☆서로 위배하다.

② 내이하(奈爾何) : 너희들을 어찌하랴.

☆내하(奈何) :

a. 어찌하다. 어찌하랴.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음.

b. 어떻게, 어째서, 왜.

c. 어찌 ~할 수 있겠는가.

☆이(爾) : 인칭대명사이자 목적어로서 내(奈)와 하(何) 사이에 위치함. 대명사로 서의 ‘이(爾)’는 다음과 같은 뜻을 지닌다.

a. 너, 너희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음.

b. 이, 이것.

c. 그, 그것.

d. 이와 같다, 이러하다.

8) 동정(動靜) : 정황(情況).

9) 수신음양호작가(須信陰陽互作家 : 반드시 음양설 알고 나서 전문가와 교류해 보려하 네) :

① 수(須) : 조동사로서 ‘반드시 ~해야 한다’

② 신(信) : 알다, 알아보다.

③ 음양(陰陽) : 본 시에서는 ‘음양설(陰陽說 : 음양이원二元의 소장消長에 의해 우주 만물의 생성변화를 설명하는 설)에 관한 학문’이란 뜻으로 쓰였다.

④ 호(互) : 동사로 쓰였으며, ‘교류하다, 만나다’의 의미임.

⑤ 작가(作家) : 전문가를 가리킨다.

10) 묵묵혼혼(默默昏昏) :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오묘하여 애매모호하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 본 시에서는 도(道)를 가리키는 말로 썼음.

① 묵묵(默默) : 본 시에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 ‘침묵 속의 애매모호한 처신’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② 혼혼(昏昏) : 심오하고 오묘하여(볼 수도 들을 수도 없어) 애매모호한 것을 가리키는 말.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는 상태’의 뜻으로, 불가(佛家)나 도가(道家)에서 말하는 가장 심오하고 정심미묘(精心微妙)한 도리(道理)나 도술(道術)을 가리킨다. 『장자(莊子) · 재유편(在宥篇)』에서, 중국 전설상의 제왕인 황제(黃帝)가 전설상의 인물 광성자(廣成子)에게 ‘지도(至道 : 지극히 심오한 도)’의 오묘함을 묻자, 그 대답 중에 “지도(至道)의 정수(精髓)는, 심원하고 현묘하며, 지도(至

道)의 최고정지는, 모호하여 측량할 수 없다(至道之精, 窈窈冥冥, 至道之極, 昏昏默默)”고 한 대목이 있다. 장자는 이어서 이 낡은것에서 이르기, ‘도(道)’는 이처럼 오묘하여 보이지도 않고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것이니, 보려고도 하지 말고 들으려고도 하지 말며 오로지 정신을 청정(淸靜)히 하라는 내용으로 충고하고 있다.

서애가 본 시에서 읊은 말은 ‘도’의 실체가 그런 것인즉, 그런 것을 추구하여 얻거하는 것은 올바른 얻거가 아니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 11) 망망묘묘불위사(茫茫杳杳不爲賒 : 요원한 곳에 심원한 삶을 사는 은사 많지 않다네) :

- ① 망망묘묘(茫茫杳杳) : 본 시에서는 ‘요원한 곳에서 심원한 삶을 사는 은사(隱士)’를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망망(茫茫) :

- a. 요원하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b. 광활하다.
- c. 아득하다, 희미하다.
- d. 분잡하다, 많다.
- e. 성(盛)하다.

☆묘묘(杳杳) :

- a. ‘유원(幽遠)한 모양이란 뜻이다. ‘유원(幽遠)’에는 ‘심원(深遠)하다’는 뜻도 있고, ‘초야에 유거(幽居)’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뜻도 있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b. 혼암(昏暗 : 어두운)한 모양.
- c. 묘망(渺茫 : 아득하다)한 모양.
- d. 은은하다, 어렴풋하다, 희미하다.
- e. 모호하다, 아련하다.

- ③ 사(賒) : 많다(多).

- 12) 중소일기(中小壹氣) :

- ① 중소(中宵) : 한 밤중. 야반(夜半). 중야(中夜). 정밤중. 중석(中夕).

- ② 일기(壹氣) : 일기(一氣) : 원기(元氣 : 사람의 정신, 정기精氣). 순일부잡(純一不雜)한 기(氣). 고대철학자들은 이를 ‘전기(專氣 : 도교어로서 정기精氣를 굳게 지키다)는 뜻이다’라고도 하였다.

『초사(楚辭)·원유(遠遊)』에, “왕자 교(喬)를 만나서 그에게 공경히 대하며, 천지음양의 기(氣)가 화합 상통하는 이치를 물었네(見王子而宿之兮, 審一氣之和德)”라고 하였다. 동한(東漢)의 학자 왕일(王逸)이 주석(注釋)하기를, “천지정기의 비밀을 문의한 것이다(究問元精之秘要也)”고 하였다.

명(明)나라 학자 왕부지(王夫之 : 1619~1692)는 그의 『초사통석(楚辭通釋)』에서, “일기는 노자가 말한 바의 전기이다(壹氣, 老子所謂專氣)”고 하였다. 송(宋)나라 학자 오문영(吳文英 : 약 1200~약 1260)은 주석에서 말하기를, “일기(壹氣)는 잡된 기(氣)가 섞이지 않은 순수한 기(氣)이다(壹氣, 純一不雜之氣)”고 하였다. 본 시의 주석4)의 ③ ‘일기(一氣)’ 조항을 참조 바람.

- 13) 우주장회기일차(宇宙長懷起一嗟 : 멀리서 님 그리워 장탄식 거듭하네) : 여기서의

‘남’은 선조(宣祖)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① 장회(長懷) :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생각함.

☆아득히 멀리서 혹은 옛일을 상상하거나 사색함.

③ 일차(一嗟) : 이때의 ‘일(一)’은 부사로서 ‘심하게, 줄곧’의 뜻이다.

☆장탄식하다.

☆탄식을 거듭하다.

시17. 송사宋史를 읽고 느낀 바가 있어서

서문을 병기함

詩17. 讀宋史¹⁾有感并序

(송나라가) 남쪽으로 천도한 이후의 인재라면 마땅히 백기伯紀 이강李綱을 으뜸으로 꼽아야 하리라. 백기가 퇴출되고 나서 송나라 천하는 마침내 양분되었으니, 아 슬프다! 도성인 변경(汴京 : 지금의 하남성河南省 개봉시開封市)은 비록 함락되었으나, 금나라 사람들은 그곳을 (장방창張邦昌에게) 위탁해 놓고 돌아가 버리자, 이강李公은 장소張所와 부량傅亮 등 두 장수로 하여금 양하兩河 지역을 점거토록 하니, 중원中原은 계속 이전과 같이 진정되었다. 왕백언汪伯彦과 황잠선黃潛善은 책망할 가치도 없지만, 위국공魏國公 진희秦檜가 백기伯紀 이강李綱을 배척하는 것은 또 어찌된 일이고! 『시경』에 이르기를, “그 어떤 명철한 사람도 어리석지 않는 이가 없다”고 하였는데, 그게 어찌 또 하늘의 뜻이라 하겠는가! 나는 일찍이 위국공의 행적은 속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였는바, 그의 당료 왕백언과 황잠선 등이 백기와 이강을 배척했기 때문이다.

南渡²⁾後人才當以李伯紀³⁾爲首。伯紀去而天下遂中分，哀哉！
남도 후인재 당이 이백기 위수 백기거이 천하수중분 애재

汴京⁴⁾雖陷金人委之，而去李公使張所⁵⁾傅亮⁶⁾收兩河⁷⁾，
변경수함금인위지 이거이공사장소부량수량하

中原⁸⁾固自若也。汪黃⁹⁾不足責魏公¹⁰⁾攻¹¹⁾伯紀，亦獨¹²⁾何哉！詩云：
중원고자약아 왕황부족책위공공백기억득하재시운

“靡哲不愚¹³⁾，豈亦天¹⁴⁾耶！”余嘗以魏公功¹⁵⁾不能贖罪，以其黨汪黃，
미철불두기억천아여상이위공공불등속죄이기당왕황

攻伯紀也。
공백기아



其一

[1]

張收河北傳河東¹⁶⁾,
장수하북부하동

장소張所는 하북을 부량傳亮은
하동河東을 점거했는데,

兩地金收虜穴¹⁷⁾空。
양지금수로혈공

두 지역 전부 수복收復하고 나니
오랑캐 소굴이 공동화空洞化 됐다네.

誰遣小兒成¹⁸⁾戲劇,
수견소아성희극

누가 그 군인들 파견했는지 흡사 한
편의 희극 같았으니,

八陵回首更悲風¹⁹⁾。
팔릉회수경비풍

팔릉八陵을 돌아보며 더욱 처량한
한풍寒風 맞았겠네.

其二

[2]

誰將魏公擬長城²⁰⁾,
수장위공의장성

누군가 위국公魏國公 진회秦檜를
만리장성에 비교했는데,

壤却長城亦魏公²¹⁾
괴각장성역위공

의외로 만리장성 허문 것 또한 위국공
자신이었다네.

義士有心²²⁾空望北,
의사유심공망북

의사義士는 의협심에 불타 북쪽하늘
바라보는데,

江波無賴²³⁾自流東²⁴⁾。
강파무뢰자류동

강물은 속절없이 절로 동쪽으로
흘러간다네.

1) 송(宋): 중국 역사상 당(唐)·오대십국(五代十國)에 이어지는 왕조로서, 조광윤(趙匡胤: 927~976)이 오대(五代) 왕조 중의 하나인 후주(後周)의 공제(恭帝)로부터 선양(禪讓)을 받아서 세운 왕조이다. 처음 도읍지는 변량(汴梁: 지금의 하남성河南省 개

봉시(封市)이었다. 1126년, 여진족(女眞族)이 세운 금(金)나라가 거란족(契丹族)이 세운 요(遼)나라를 공격하여 멸망시킨 여세를 몰아 송나라의 수도 변량(汴梁)을 점령하고 휘종(徽宗: 재위 1100~1125년)과 흠종(欽宗: 재위 1125~1127)을 포로로 잡아 갔으므로 송나라의 왕통이 중단되었다. ‘정강년간(靖康年間: 1126~1127)에 일어난 변란’이란 의미에서, ‘정강지변(靖康之變: 정강지치靖康之恥)’이라고도 한다. 이 난은 정강 2년(靖康二年: 1127)에 금나라 군에 패하여 휘종(徽宗)과 흠종(欽宗) 두 황제와 황후, 태자, 종친, 신하를 비롯해 3천여 명이 인질로 금나라에 잡혀가고, 많은 국가 재산이 몰수되었던 변란이다. 이때 북송 황실은 이 난을 피해 남쪽으로 도망을 하였고, 이때, 흠종의 동생 고종(高宗: 재위 1127~1162)이 남중국의 임안(臨安: 지금의 절강성浙江省 항주시杭州市)에 도읍하였다.

변란에 도읍했던 시대의 송나라 전반기를 ‘북송(北宋)’이라 하고, 임안(臨安)으로 망명하여 남도(南渡)했던 시대의 송나라 후반기를 ‘남송(南宋)’이라 한다. 이렇게 송나라를 재건한 고종은 금(金)과 화의하고 중국의 남부지역을 영유하였으나, 1234년 몽고족이 세운 원(元)나라 군에 의해 금(金)이 멸망하고, 원(元)나라군의 압박이 점점 심해지다가 1276년 마침내 원나라 군에 의해 수도 임안이 함락되고, 1279년 원나라 군에 항거하던 전략적 최후 거점인 요충지 애산(崖山: 지금의 광둥성廣東省 신회市新會市 남단南端)의 전투에서 패하여, 남송은 9대 152년 만에 멸망하였다.

- ① 당(唐): 618년에 중국의 이연(李淵: 566~635)이 수(隋)나라 공제(恭帝)의 선양을 받아 세운 통일 왕조이다. 도읍은 장안(長安)이며, 중앙집권체제를 확립하고 문화가 크게 융성하였으나, 안사(安史: 안록산安祿山과 사사명史思明)의 난 이후, 쇠퇴하여 907년에 주전충(朱全忠: 852~912)에게 망하였다.
- ② 오대십국(五代十國): 당나라가 멸망한 뒤부터 송나라가 통일할 때까지 흥망한 왕조 또는 그 시대를 말한다. 중원(中原)을 중심으로 후량(後梁), 후당(後唐), 후진(後晉), 후한(後漢), 후주(後周)의 다섯 왕조와 중원 이외 지방의 전촉(前蜀), 오(吳), 남한(南漢), 형남(荊南), 오월(吳越), 초(楚), 민(閩), 남당(南唐), 후촉(後蜀), 북한(北漢)의 열 나라를 이른다.
- 2) 남도(南渡): 여진족(女眞族)인 완안부(完顔部)의 수령 아골타(阿骨打: 1068~1123)가 창건한 금(金)나라군의 공격을 받고 북송이 망하게 되자, 송·고종(宋高宗)이 수도 변량(汴梁)을 탈출하여, 장강(長江: 양자강)을 건너 남중국의 임안(臨安: 지금의 절강성浙江省 항주시杭州市)으로 도읍지를 옮긴 것을 이른다.
- 3) 이백기(李伯紀): 이강(李綱: 1083~1140): 송나라 무인(武人). 이름은 강(綱), 자는 백기(伯紀), 호는 양계(梁溪)임. 송·휘종(宋徽宗) 정화 2년(政和二年: 1112)에 진사(進士)에 합격. 선화년간(宣和年間: 1119~1122)에 태상소경(太常少卿)이 되었다. 선화 7년(1125)에 금(金)나라가 남침함에 휘종은 태자에게 도성을 지키게 하고 자신은 남하하여 피난하려하자, 이강은 자신의 팔을 찢러 흐른 피로 쓴 혈서의 상소를 올려 그 부당함을 말하면서, “황태자가 국정을 감독하는 것은 예(禮)의 상도(常道)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적군이 국경을 침범하여 국가 안위와 존망이 호흡 한 번 할 순간에 달렸는데, 만약 황태자의 직위와 이름을 빌려서, 폐하로 하여금 종묘를 지키시게 하고, 장병들의 마음을 얻어 목숨 바쳐 적을 막게 할 수 있다면, 천하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皇太子監國禮之常也。大敵入境安危存亡呼吸之間，若能假皇太子以位號，使爲陛下守宗廟，收將士之心以死捍敵，天下可得!)”고 하면서, 황태자

에게 황위를 선양하여 황태자로 하여금 천자의 명분을 지니고 나라를 통치하게 해야 한다는 뜻을 직간(直諫)하였다.

이렇게 하여 흥종(欽宗 : 휘종의 황태자였던 조환趙桓)이 등극하자, 이강은 병부시랑(兵部侍郎), 동경유수(東京留守), 친정행영사(親征行營使) 등을 역임하면서, 금나라에 항전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천도(遷都)를 반대하는 동시에 적극적으로 전쟁에 대비하며, 금나라군이 철군하도록 압박했다.

그러나 송나라 군이 패전을 거듭하여 정강지변(靖康之變)을 겪고, 흥종의 동생 강왕(康王 : 휘종의 9번째 아들이자 흥종의 동생. 훗날의 고종高宗인 조구趙構)이 남쪽으로 피난하여 황위를 계승하였다. 이 사람이 바로 고종(高宗)이다. 당시 주전론(主戰論)과 주화론(主和論)의 논쟁이 격렬했다. 고종은 주화론을 적극 찬성하였다. 여기에는 물론 송나라 국력이 쇠약하여 금나라에 대한 공포심도 작용했으나, 주요한 원인으로서는 첫째, 주전론자들의 ‘황궁을 탈환하고 국토를 회복한다’는 주장대로 만약 승전한다면, 인질로 잡혀있던 두 황제의 귀환과 더불어 황위에 대한 충돌이 예상되었으므로, 그 두 황제를 귀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자신이 황위를 견고하게 하기 때문이고, 둘째, 주전론자들은 모두 무인(武人)인데, 일단 승전하면 그들이 발호할 것이고, 조정의 사대부들은 시기를 받을 것이며, 무인들이 정치를 하면 변방이 쇠약해진다는 견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종은 주화론자의 대표적인 인물인 진희(秦檜 : 1090~1155, 악비(岳飛 : 1103~1142)를 비롯한 수많은 주전론자 충신들을 탄압하고 죽인 간신)과 위량신(魏良臣)을 국공(國公)에 봉하고 총애하였으며, 주전론자들을 신임하고 중용하였다. 이후 주전론은 퇴출되었다. 고종 건염 원년(建炎元年 : 1127)에 상서좌복야(尙書左僕射 : 상서성尙書省의 정무를 담당하는 종1품직) 겸 문하시랑(門下侍郎 : 문하성門下省 차관)에 임명되었다. 이강은 국토의 실지회복(失地回復)을 위해서 종택(宗澤 : 1059~1128)을 강력히 천거하였으나, 고종은 안일을 추구하였으며, 이강의 재상직도 겨우 75일 만에 파직하였다. 후에 누차 항금(抗金)하는 계책을 진언하였으나, 모두 채납(採納)되지 않았다. 시호는 충정(忠定), 저서에 『양계집(梁溪集)』이 있다.

- 4) 변경(汴京) : 오대십국(五代十國) 시대의 양(梁) · 진(晉) · 한(漢) · 주(周) 및 북송(北宋)의 도성(都城)이었다. 이 도성의 고지명(古地名)은 ‘변량(汴梁)’이었는데, 그 유래는 다음과 같다.

전국시대(戰國時代)의 위(魏)나라가 이곳을 도성으로 정하면서 대량(大梁)이라 하였고, 약칭 양(梁)이라 하였다. 수(隋)나라와 당(唐)나라는 이곳에 변주(汴州)를 설치하였으며, 약칭 ‘변(汴)’이라 하였다. 오대(五代)의 양(梁) · 진(晉) · 한(漢) · 주(周) 및 북송(北宋)이 모두 이곳을 수도로 정하였으며, 금나라와 원(元)나라 이후, 이를 합칭하여, ‘변량(汴梁)’이라 하였다.

- 5) 장소(張所 : ?~1127) : 송(宋)나라 청주(青州), 지금의 광서성(廣西省) 서남부 좌강(左江) 유역 출신이다. 휘종(徽宗) 왕조 때에 진사가 됨. 감찰어사(監察御史)를 역임하였다. 고종(高宗)이 즉위하자, 장소를 올려 하동(河東)과 하북(河北) 지방이 천하의 근본임을 역설하는 동시에, 황잠선(黃潛善)의 간사함을 논하고, 봉주단련부사(鳳州團練副使)를 직책하여 강주(江州)에 안치시켰다. 이강(李綱)이 재상으로 입조(入朝)한 뒤, 하북서로 조무사(河北西路招撫使)로 추천되었다. 당시 전공(戰功)이 혁혁했던 호걸 왕언(王彦 : 1090~1139)과 악비(岳飛 : 1103~1142) 등 무인들을 초

청하여 실지회복(失地回復)의 계책을 논의하던 중, 왕백언(汪伯彦)의 건책을 받고 제지되었다. 이강도 재상직에서 물러나게 됐고, 파직된 그는 영남(嶺南 : 오령五嶺이남의 지역을 가리킨. 즉 광둥廣東지역을 이룸)으로 가던 중 담주(潭州), 지금의 호남성(湖南省) 장사시(長沙市) 경계에서 피살되었다.

- 6) 부량(傅亮 : 생몰년 미상) : 개인 이력의 자료가 없어서, 여기에 부량 주변의 시대적 상황을 요약한다. 정강지변(靖康之變) 이후, 강왕(康王 : 조구趙構)이 송나라의 대통을 잇고 나서,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강(李綱 : 이백기李伯紀)을 우상(右相)에 봉하고 난국을 타개하려 하였다.

이강은 국방자립과 민심수습 및 군의 기강확립을 비롯한 난국타개 방안을 건의하자 고종은 쾌히 승낙하였다. 동시에 목전에 닥친 군사적 위기 국면을 타개하는 방안으로 하동(河東)과 하북(河北) 땅의 안보강화를 위한 방책을 건의하였다. 이 두 지역은 중원(中原)의 안전을 담보하는 방어선이므로 중원이 보전되어야 동남부가 안전해지기 때문이다. 양하(兩河) 일대의 민병(民兵) 중에 재능이 걸출한 인재를 수령으로 뽑아 자치(自治)토록 하는 한편, 이 두 지역의 보안을 위해 장소(張所)와 부량(傅亮) 두 장수를 천거하였다. 동시에 옛 도성의 수복을 위해 종택(宗澤 : 1059~1128)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력히 천거하였다.

이에 고종은 장소를 하북초무사(河北招撫使)로 왕섬(王燮 : 생몰년 미상)을 하동경제사(河東經制使)로 봉한 다음 부량을 부사(副使)로 봉했다. 그리고 종택을 동경유수(東京留守) 및 지개봉부(知開封府)로 봉할 것을 윤허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국방기획은 얼마 안 되어 간신들의 농간과 고종 자신의 황위 유지를 위해 복벌을 포기하면서 무력화되고 이강은 파직되었다. 이어서 장소는 죄인으로 피살되고 부량은 모친 병환을 빌미로 사직하였다. 초무사(招撫使)와 경제사(經制使)의 두 직제(職制)도 폐기되고, 양하(兩河)의 군(郡), 현(縣)도 연이어 금군(金軍)에게 함락되었다.

- 7) 수양하(收兩河) : 양하(兩河) 지역을 점거하다.

① 수(收) : 점거하다.

② 양하(兩河) :

☆전국시대(戰國時代)와 진한(秦漢) 시대의 경우.

황하(黃河)는 지금의 섬서성(陝西省)과 산서성(山西省) 사이에서는 북에서 남으로 흐르고, 하남성(河南省) 서북의 성경계선(省境界線)에 도달해서부터는 거의 직각으로 꺾어 동쪽으로 흐르다가, 산둥성(山東省) 서북 모서리에 도달해서부터는 강 흐름이 북으로 꺾여져서 동북 방향으로 흘러 발해(渤海)로 유입된다.

섬서성과 산서성 사이의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상류의 일단과 산둥성 서북 모퉁이에서 동북 방향으로 흐르는 하류의 일단이 동·서 양쪽으로 대칭하는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이 두 흐름을 합쳐 당시에는 ‘양하(兩河)’라고 했다.

☆당(唐)나라의 ‘안사(安史)의 난(亂)’ 즉 ‘755년에 일어난 안록산(安祿山 : ?~751)과 사사명(史思明 : ?~761)의 반란’ 이후, 하남도(河南道)와 하북도(河北道)의 두 도(道)를 ‘양하(兩河)’라고 했다.

☆송(宋)나라 시대에는 하북(河北)과 하동(河東) 두 지역을 ‘양하(兩河)’라고 했다. 하북은 지금의 하남성 경내에서의 황하 이북을 가리킨다. 하동은 황하가 산서성 경내에서는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까닭에, 산서성 경내에서는 황하이동

(黃河以東)의 지역을 ‘하동(河東)’이라고 했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8) 중원(中原) :

- ① 지역 명칭. 넓은 의미로는 전체의 황하 유역을 가리키고, 좁은 의미로는 하남성(河南省) 일대를 가리키는데,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② 넓은 의미로는 ‘중국’을 가리킨다.

9) 왕·황(汪黃) : 송(宋)나라 무인(武人) 왕백언(汪伯彦)과 황잠선(黃潛善)을 가리킨다.

- ① 왕백언(汪伯彦 : 1069~1141) : 송나라 휘주(徽州) 기문현(祁門縣) 사람이다. 자는 연준(延俊), 호는 신안거사(新安居士). 휘종(徽宗) 송녕 2년(崇寧二年 : 1103)에 진사가 되었다. 우도낭관(虞都郎官)을 역임하였다. 직룡도각(直龍圖閣)에 발탁되어 상주(相州 : 지금의 하남성河南省 안양현安陽縣 일대임) 지주(知州)를 역임하였으며, 재상에 임명되었다.

권력을 독점하고 오만방자 하였다. 금(金)나라가 남침하자 남쪽으로 천도(遷都)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며, 전쟁을 하지 않고 방어하는 주화론(主和論)의 정견(政見)을 고수하였다. 양주(揚州 : 지금의 안휘성安徽省 당도현當塗縣 일대)가 함락된 후 탄핵되어 실직하고 영주(永州 : 지금의 호남성湖南省 영릉현零陵縣 일대)에 거주하였다. 후에 다시 광주(廣州 : 지금의 광둥성廣東省 광주시廣州市) 지주(知州)로 기용되었다. 『중흥일력(中興日歷)』이란 저서를 헌납한 뒤 검교소부(檢校少傅)로 임명되었고 보신군절도사(保信軍節度使)를 역임하였다. 시호는 충정(忠定), 저서로 『춘추대의(春秋大義)』, 『집삼전본말(集三傳本末)』도 있다.

- ② 황잠선(黃潛善 : ?~1130) : 송나라 소무(邵武), 지금의 복건성(福建省) 소무시(邵武市) 출신이다. 자는 무화(茂和). 진사에 급제하였다. 휘종(徽宗) 선화년간(宣和年間 : 1119~1125) 초에 좌사랑(左司郎)을 역임했고, 누차 휘유각대제(徽猷閣待制 : 종4품의 시종직侍從職)와 하간부(河間府 : 지방관청명)의 지부(知府)에 발탁되었다. 고종(高宗)이 즉위하고 나서 우복야(右僕射) 겸 중서시랑(中書侍郎)에 임명되었으며, 지주밀원사(知樞密院事)인 왕백언(汪伯彦)과 함께 주화론(主和論)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주전론자(主戰論者)인 이강(李綱)과 장소(張所)를 탄핵하여 축출하자, 태학생(太學生) 진동(陳東)과 구양철(歐陽澈)을 비롯한 학생 천여 명이 상소를 올려, 그 조치가 부당함을 논하고, 이방언(李邦彥 : ?~1130), 백시중(白時中 : ?~1127), 장방창(張邦昌 : 1081~1127) 등을 탄핵하는 상소를 올리자 이들 학생 대표를 살해하였다. 그러나, 그는 좌복야(左僕射) 겸 문하시랑(門下侍郎)에 봉해졌다. 건염 2년(建炎二年 : 1128) 겨울, 금(金)나라 대군이 양주(揚州)를 압박해왔다. 잠선(潛善)은 회북(淮北 : 회수淮水 이북지역)에서 전해오는 경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 건염 3년(1129) 초, 고종이 황망하게 남도(南渡)하게 되자, 중승(中丞 : 어사중승御史中丞의 약칭) 장징(張澄 : ?~1153)의 탄핵을 받아 관문전학사(觀文殿學士)와 강녕부(江寧府)의 지부(知府) 자리를 물려나 전전하다가 영주(英州 : 지금의 광둥성廣東省 영덕시英德市)로 좌전되었다.

10) 위공(魏公) : 위국공(魏國公) 진회(秦檜 : 1090~1155)를 가리킨다.

- ① 국공(國公) : 본 시에서 쓰인 위공은 ‘위국공의 약칭’으로 쓰였다. ‘국공’은 작위의 명칭이다. 『송사(宋史) · 직관지 3(職官志 三)』에, “작위 9등급을 열거하면, 1등급이 왕(王)이고, 2등급이 군왕(郡王)이며, 3등급은 국공(國公)이고, 4등급은 군공

(郡公)이고, 5등급은 현공(縣公)이며, 6등급은 후작(侯爵)이며, 7등급은 백작(伯爵)이고, 8등급은 자작(子爵)이며, 9등급은 남작(男爵)이다(列爵九等, 曰王, 曰郡王, 曰國公, 曰郡公, 曰縣公, 曰侯, 曰伯, 曰子, 曰男).”고 하였다.

당시 송나라에 위협적 압박을 가하던 금나라와 “소흥강화조약(紹興講和條約: 중국 역사에서는 ‘소흥화의紹興和議’라고도 함. 소흥紹興은 고종 재위시의 연호임)”을 체결한 후, 진회(秦檜)를 표창하여, 송·고종이 ‘위국공’이란 작위를 내린 것이다.

- ② 진회(秦檜: 1090~1155): 송나라 강녕(江寧), 지금의 강소성(江蘇省) 남경시(南京市) 출신. 자는 회지(會之). 휘종(徽宗) 정화 5년(政和五年: 1115) 진사(進士)가 되었다. 흙종(欽宗) 때 좌사간(左司諫: 종5품의 간관諫官)과 어사중승(御史中丞)을 역임하였다. 정강 2년(靖康二年: 1127) 금나라에 장방창(張邦昌)을 황제로 등극시키는 조치를 반대한다는 서신을 올렸다는 이유로, 휘종과 흙종이 납치되어 금나라로 갈 때, 함께 북송(北送)되었다가 금나라 황족인 달라(撻懶: ?~1139)와 암암리에 밀약을 맺고 돌아왔음에도, 진회는 ‘금나라 간수와 사병을 적 살하고 배를 탈취하여 귀국했다’고 하면서 귀환하였다. 소흥원년(1131)에 고종은 그를 참지정사(參知政事)에 발탁하는 동시에 재상에 봉했다. 이듬해 탄핵을 받아 퇴직했다가, 소흥 8년(1138)에 다시 복직하여 재상이 되었다. 전후에 걸쳐 집정 19년, 그는 장준(張浚: 1094~1164)과 조정(趙鼎: 1085~1147)을 좌천시켜 축출하고, 한세충(韓世忠: 1089~1151), 악비(岳飛: 1103~1142, 자는 봉거鵬舉. 농민 출신. 금나라와의 강화를 반대함. 금과의 항전에서 가장 혁혁한 전공을 세웠음. 추증된 작위는 악왕鄂王임), 장준(張浚: 1086~1154) 등 세 대장의 병권을 박탈하는 동시에, 악비에게는 ‘옹병두류(擁兵逗留: 군대를 장악하고도 적을 향해 전진하지 않고 본진에 체류하기만 함)’ 등의 죄명을 날조하여 처형하였다. 사당(私黨)을 결성하고, 자신의 견해에 동조하지 않는 자를 배척 축출하면서, 누차 대규모 옥사(獄事)를 일으켜 일시에 당시의 충신양장(忠臣良將)을 거의 살육하였다.

고종은 황위(皇位)를 공고히 하고(인질로 금나라에 잡혀간 휘종과 흙종이 귀국하면 자신의 황제 직위가 위태해지므로), 진회는 자신의 정치적 세력을 견고히 하려는 이해가 일치되어, 고종과 진회는 금나라와의 강화조약을 한미음으로 지지하고, 복辟(復辟: 몰려났던 임금이 다시 황위에 오름)을 저지하였다.

금나라에 칭신(稱臣)하고 막대한 금품을 상납한 굴욕적인 소흥강화조약(紹興講和條約)을 체결하고 난 뒤, 고종은 진회를 몹시 총애하여 그에게 위국공이란 작위를 내렸다(그 후 진국공秦國公이란 작위도 내려주었음). ‘신왕(申王)’이라고 추증하였으며, 시호는 충헌(忠獻)이다. 영종(寧宗) 개희 2년(開禧二年: 1206)에 이르러서는 추증된 왕작(王爵)을 삭탈하고, 시호를 유추(謬醜)라고 개칭하였다.

☆소흥강화조약(紹興講和條約): 소흥화의(紹興和議):

소흥 11년(1141)에 송고종과 금·희종(金熙宗: 1119~1149, 금나라 황제. 이름은 단합, 태조 아골타<阿骨打: Akuta>의 적장손嫡長孫)이 주재한 두 왕조 사이의 불평등 강화조약의 대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송나라는 칭신(稱臣)하여, 금나라에 상주문(上奏文)을 올리고, 금나라 황제는 송나라 군주를 황제로 책봉한다. 둘째, 송나라는 매년 금은(金銀) 25만 냥과 비단 25만 필을 금나라에 조공(朝貢)으로 바친다. 셋째, 매년 금나라의 황제 생신일과 정월 초하룻날에 송나라는 사신을 보내 치하한다. 넷째, 금나라는 송·휘종(宋徽宗: 고종의 부친)의 관(棺)과

위태후(韋太后: 고종의 생모)를 귀환시킨다. 다섯째, 송과 금의 국경 경계선을 동쪽으로는 회수(淮水), 서쪽으로는 대산관(大散關: 섬서성陝西省 보계현寶雞縣 서남)을 경계로 한다(宋稱臣奉表於金, 金主冊封宋主爲皇帝. 宋歲貢金銀二十五萬兩, 絹二十五萬匹. 每年金主生辰及正旦, 宋遣使致賀. 金歸還宋徽宗梓宮與太后. 東以淮水, 西以大散關爲兩國疆界).”고 하였다.

- 11) 공(攻): 배척하다.
- 12) 독(獨): 접촉사로 ‘더구나, 게다가, 또한’의 뜻이다.
- 13) 미철불우(靡哲不愚): 그 어떤 명철한 사람도 어리석지 않는 이가 없다. 이 말은 『시경(詩經)·대아(大雅)·억(抑)』에 나오는 말로서, ‘대지약우(大智若愚: 슬기로운 사람은 자신의 슬기를 함부로 드러내지 않으므로 어리석어 보임)’와 같은 말이다. 미(靡)는 ‘없다(無), 아니다(不)’의 뜻이다.
- 14) 천(天): 천의(天意).
- 15) 공(功): 공훈, 공로, 업적.
- 16) 장수하북부하동(張收河北傳河東: 장소張所는 하북을 부랑傳亮은 하동河東을 접거했는데):
 - ① 장(張): 장소(張所: ?~1127)를 가리킨다. 본 시의 주석5) 장소(張所) 조항을 참조 바람.
 - ② 부(傳): 부랑(傳亮)을 가리킨다. 본 시의 주석6) 부랑(傳亮) 조항을 참조 바람.
 - ③ 하동(河東): 황하(黃河)가 흘러 산서성(山西省)과 섬서성(陝西省) 접경지역을 통과하면서 부터는 북에서 남으로 흘러가는 까닭에, 산서성 경내(境內)의 황하이동(黃河以東)의 지역을 ‘하동(河東)’이라고 한다.
- 17) 노혈(虜穴): 오랑개 소굴. ‘노(虜)’는 고대에 중국 북방 민족에 대한 멸칭(蔑稱)으로도 쓰이고, 중국 남방 사람들이 북방 사람들을 멸시하여 부르는 칭호이기도 함. ‘혈(穴)’은 적이나 첩자가 잠거하거나 은신하던 곳을 이른다.
- 18) 수견소아성희극(誰遣小兒成戲劇: 누가 그 군인들을 파견했는지 흡사 한 편의 희극 같았으니):
 - ① 소아(小兒): 서애주석(西厓注釋)에서는 ‘소아(小兒)’를 ‘왕백언(汪伯彦)’과 황잠선(黃潛善)을 가리킨다(指汪黃)고 하였다.
 - ② 성(成): 흡사~와 같다. ‘사(似), 상(像)’의 뜻이다.
- 19) 팔능회수경비풍(八陵回首更悲風: 팔릉八陵을 돌아보며 더욱 처량한 한풍寒風 맞았겠네):
 - ① 팔릉(八陵): 곧 북송의 칠제팔릉(七帝八陵)을 칭하는 것으로, 지금의 하남성(河南省) 공현(鞏縣) 숭산(崇山) 북쪽 기슭과 낙하(洛河) 사이의 구릉 및 평지에 위치한다. 총면적은 약 30km², 정주(鄭州)와 낙양(洛陽) 사이에 위치한 이곳은 북으로는 황하가 흐르고, 남쪽에는 숭산이 있어, 의산방수(依山傍水)의 풍경이 아름다운 곳이어서, 풍수지리학적으로 명당(明堂)이다. 북송(北宋)의 아홉 황제 중에서, 휘종(徽宗)과 흠종(欽宗)이 금(金)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막북(漠北: 몽고사막 이북의 지역)에서 사망한 것을 제외한 일곱 황제와 선조(宣祖)로 추존된 조홍은(趙弘殷: 태조 조광윤趙匡胤의 부친)을 합쳐 모두 이곳에 장례를 지냈다. 그래서 세칭(世稱), ‘7제8릉(七帝八陵: 일곱 황제를 장례지낸 여덟 기슭의 황릉皇陵)’이라고 하는 것이다.

매장한 시간적 선후에 따른 8릉(八陵)의 순차는 첫째, 송선조(宋宣祖)의 영안릉(永安陵)·둘째, 송태조(宋太祖)의 영창릉(永昌陵)·세째, 송태종(宋太宗)의 영희릉(永熙陵)·넷째, 송진종(宋眞宗)의 영정릉(永定陵)·다섯째, 송인종(宋仁宗)의 수소릉(水昭陵)·여섯째, 송영종(宋英宗)의 영후릉(永厚陵)·일곱째, 송신종(宋神宗)의 영유릉(永裕陵)·여덟째, 송철종(宋哲宗)의 영태릉(永泰陵) 등이다. 여기에 더하여 후비(后妃), 종친(宗親), 왕손(王孫) 및 공신(功臣) 등의 묘를 비롯한 근 1000여 기(基)의 묘가 선후 10 여년에 걸쳐 북송의 존망과 궤를 같이하여 조성되었다.

② 비풍(悲風) : 처량한(스산한) 한풍(寒風).

20) 의장성(擬長城) : 만리장성에 비교하다, 견주다.

① 의(擬) : 비교하다, 견주다. 여기서, ‘만리장성에 비교하다’는 말은 위국공(魏國公) 진희(秦檜)를 만리장성에 비유하여 조소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진희가 권력을 전횡하여 언론을 통제하고, 자신과 견해를 달리하는 충신을 가차 없이 주살하며, 태평세월을 유지한다는 말로 호도하면서 실지회복을 포기한 채 방대한 파당을 지어 조야(朝野)를 압박하는 그 위력이 흡사 만리장성만큼이나 대단하다는 것을 경멸조로 비유한 말이다.

② 장성(長城) : 만리장성(萬里長城) : 춘추전국시대(春秋戰國時代)부터 고대 중국의 각국이 방어용 목적으로 자국(自國)의 북방변경 요새지에 장성을 구축하였다. 전국시대(戰國時代)에 와서는 제(齊)·조(楚)·위(魏)·연(燕)·조(趙)·진(秦)·중산(中山) 등 각국이 상계(相繼)하여 건축하였다. 특히 진시황(秦始皇)이 6국을 멸하고 통일을 완성한 후에는 북방의 흉노족의 남침을 방어하기 위해서 진(秦)·조(趙)·연(燕) 3국의 북변(北邊) 장성(長城)을 보수(補修)하여 하나의 긴 성벽으로 이었다. 그래서 성(城)의 서쪽 임조(臨洮 : 지금의 감숙성甘肅省 민현縣)에서 시작하여, 지금의 내몽고 자치구(內蒙古自治區)에 위치한 음산(陰山)을 거쳐 요동에 까지 이르러 속칭 ‘만리장성’이라고 한다. 그 이후 한(漢)·북위(北魏)·북제(北齊)·북주(北周)·수(隋) 등 각국이 북방과 유목민 접경지대에 장성(長城)을 축성 보수 하였고, 그 길이가 6,700리에 이른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이 장성(長城)은 또한 ‘자질이 뛰어나고 신뢰할 만한 사람(可資倚重)’이나 역량이 ‘대단히 견고하여 무너뜨릴 수 없는 사람(堅不可摧)’을 비유하여 가리키기도 한다.

21) 괴각장성역위공(壞却長城亦魏公 : 의외로 만리장성 허문 것 또한 위국공 자신 이었다네) :

이 구절의 의미는 아래와 같다. 만리장성은 위에서 주석한 바와 같이 춘추전국시대부터 고대 중국의 각국이 방어용 목적으로 자국(自國)의 북방 변경의 요새지에 축조(修築)한 장성(長城)이다. 천년을 넘게 지켜온 튼튼한 성벽이었다. 그러나 금(金)나라가 만리장성을 넘어와 북송(北宋)의 영토를 강점(強占)하였다.

이 장성(長城)에 비유된 위국공(魏國公)은 오히려 오랑캐 금나라 사람들의 뜻을 받들어서 실지(失地) 회복을 힘 들이지 않고 금과 화의하면서 일신의 영달을 꾀하고 처자를 보전하였다. 그 과정에서 본국의 수많은 충신과 양장(良將)을 살육하였다. 천년을 넘게 여러 왕조에서 지켜왔던 그 튼튼한 성벽이 금나라를 공인해준 위국공

진회(秦檜)의 이 이적적(利敵的)인 처사로 오히려 가장 믿었던 방어성벽을 완전히 허문 결과가 되었다. 만리장성을 위국공에 비유한 것은 잘못임을 지적한 것이다. 작가 서에는 간신 위국공 진회가 자행한 반역적 처신을 비유적으로 탄식한 것이다.

22) 유심(有心): 의협심이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23) 무뢰(無賴): 의지(의탁)할 데 없다, 어찌할 도리가 없다. 속절없다.

24) 강파무뢰자유동(江波無賴自流東: 강물은 속절없이 절로 동쪽으로 흘러간다네):

****서애주석(西厓注釋):**

(동진東晉의 군벌인) 환온(桓溫)은 (낙양 근교의) 평승루(平乘樓)에 올라, 북쪽의 중원 땅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이르기를: “(서진西晉의 옛 영동인) 신주(神州)를 적에게 점령당하게 한 왕연(王衍)을 비롯한 몇 사람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하였고, (송나라 시인) 진여의(陳與義)는 시를 읊기를: “고관들은 왼쪽으로 옷섶을 여민 오랑캐로 변했지만, 장강(長江)과 한수(漢水)는 한결같이 동쪽으로만 흐르네” (桓溫*登平乘樓, 北望中原歎曰: “使神州*陸沉*王夷甫*諸人, 不得辭其責”。陳簡齋*詩: “公卿*爲左袵*, 江漢*古東流”。)라고 읊었다.

***환온(桓溫: 312~373):**

동진(東晉)의 조국(譙國) 용항(龍亢), 지금의 안휘성(安徽省) 합산현(含山縣) 서남부 출신이다. 자는 원자(元子). 명제(明帝)의 사위. 부마도위(駙馬都尉). 낭야태수(琅邪太守)에 제수(除授)되었다. 목제(穆帝) 영화년초(永和年初: 345)에 형주자사(荊州刺史)에 임명되어, 형주(荊州: 지금의 호북성湖北省 형사시荊沙市)와 사주(司州) 등 4개 주(州)의 군사를 통솔하였다. 군벌이 된 그는 영화 2년(346)에 촉(蜀: 사천성四川省)을 정벌하고, 그 이듬해에는 성한(成漢: 오호 십육국五胡十六國 가운데, 저족氏族의 추장 이웅李雄이 촉을 중심으로 세운 나라)을 멸하였다. 이어서 그는 정적(政敵)인 은호(殷浩: ?~356)를 권력투쟁을 통해 조정에서 축출하여, 서인으로 강등시키고, 조정의 권력을 장악하였다.

영화 10년(354)에 환온은 관중(關中: 지금의 섬서성陝西省 위수渭수 강 분지 일대)을 공격하였으나, 군량미가 계속 조달되지 못하여 회군했다. 그 2년(356) 후에 낙양을 수복하였다. 그는 누차 환도(還都)할 것을 요청했지만, 조정에서는 듣지 않았다. 진폐제(晉廢帝: 342~386, 동진東晉 황제. 이름은 사마혁司馬奕) 태화 4년(太和四年: 369)에 보병과 기마병을 도합해서 5만 병력을 동원하여 연(燕: 선비족鮮卑族 모용씨慕容氏가 건국한 나라)을 공격하여 초기에는 연승했으나, 방두(枋頭: 지금의 하남성 준현灌縣)에 이르렀을 때, 군량미 조달이 여의치 못해 대피했다. 환온의 두 차례 북벌에서 모두 군량미 조달이 여의치 못했던 원인으로 패하고 물러섰다. 전선(戰線)에 서는 환온이 고군분투했지만 후방의 원조는 일체 없었다. 중앙에서 그와 협조하지 않았던 이유는 만약 그가 일단 성공하기만 하면 진(晉)의 황실 운명 자체도 보장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의 패전을 갈구했던 것이다. 동시에 진(晉)의 부흥에 대한 대입도 중단됐다. 태화 6년(371)에, 황제를 폐위하여 해서공(海西公)으로 강등시키고, 간문제(簡文帝)를 등극시킨 다음, 권력을 독점하고 선양(禪讓)을 받아 황위에 오르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병사(病死)했다.

***신주(神州):** 지금의 길림성(吉林省) 백산시(白山市) 동남부와 압록강 남안(南岸). 일설에는 지금의 길림성 임강시(臨江市)라고도 한다.

***육침(陸沈):** 육침(陸沈)이라고도 씀. 국토가 적의 손에 함락되었음을 비유하는 말.

*왕이보(王夷甫) : 왕연(王衍 : 256~311, 자는 이보夷甫임) : 서진(西晉)의 낭야국(郾邪國) 임기현(臨沂縣), 지금의 산둥성(山東省) 비현(費縣) 동부 사람. 처음에는 태자사인(太子舍人)으로 시작하여, 누차에 걸쳐 관직이 올라 황문시랑(黃門侍郎)을 역임했다.

그는 사람됨이 풍채가 좋고 재기가 뛰어나서 당시 사람들의 예찬을 많이 받았다. 그러나 그는 평소에 세상사에 관한 일은 거론조차 하지 않고, 도가사상에 관한 오묘한 의미의 청담(淸談)만을 논의했다. 담론시에는 늘 자루를 옥으로 만든 연 황색 총채를 들고 있었다.

그가 담론하는 도가 사상의 내용이 노장사상의 철리에 부합되지 않아 부당하면, 그는 언제나 입에서 나오는 대로 아무 생각도 없이 말을 바꾸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그를 ‘구중자황(口中雌黃)’이라고 했다(마치 시문詩文의 잘못된 곳에 자황을 찍어 발라 지우고 다시 글을 고쳐 쓰듯이, 수시로 말을 바꾼다는 뜻임).

*진간재(陳簡齋) : 진여의(陳與義 : 1090~1138) : 송나라 낙양(洛陽) 사람이다. 자는 거비(去非), 호는 간재(簡齋). 휘종(徽宗) 정화 3년(政和三年 : 1113)에 상사갑과(上舍甲科)에 합격하였다. 누차 진급하여 태학박사(太學博士)가 되었다. 금군(金軍)이 변량(汴梁)을 점령하자 피난하여 남하하였다. 고종(高宗) 소흥원년(紹興元年 : 1127)에 남송의 임시수도인 소흥부(紹興府)에 당도하여 중서사인(中書舍人), 한림학사(翰林學士), 참지정사(參知政事) 등의 벼슬을 지냈다.

시를 공부하면서 초기에는 황정견(黃庭堅 : 1045~1105), 진사도(陳師道 : 1053~1101) 등의 시를 배우고, 후에는 두보(杜甫 : 712~770)의 시를 사사(師事)하여, 가정과 국가에 대한 정감, 시세(時世)가 불여의함으로 인한 애상, 이별에 대한 원망을 비애와 웅장함 그리고 처량함으로 표현했다.

후에 강서시파(江西詩派)의 삼종(三宗 : 황정견, 진사도, 진여의) 중의 한 사람으로 추대되었다. 그는 또한 사(詞)에도 능하였다. 저서에 『간재집(簡齋集)』 『무주사(無住詞)』 등이 있다.

*공경(公卿) : 본 시에서는 고관의 뜻으로 쓰였으며, 삼공구경(三公九卿)의 약칭이기도 하다.

*좌임(左衽) : 직역하면, ‘왼섶’이란 뜻임. 즉 옷 입는 방식이 오른쪽 섶을 왼쪽 섶 위로 여몄다는 것인데, 이는 문화수준이 낮은 중국 고대 소수민족의 복장을 가리킨다. 전(轉)하여, ‘중국의 소수민족, 즉 이민족’을 가리킨다. 환언하여, 고대 중국인이 이민족을 멸시하거나 낮잡아 ‘오랑캐’라는 의미의 말로 쓰기도 했다.

*강한(江漢) : 장강(長江)과 한수(漢水).

(본 시에서 송사宋史와 관련된 내용은 진치평陳致平이 쓴 『중화통사(中華通史)』 권6을 참조하였음)



시18. 독서

詩18. 讀書 독서

東山俯魯¹⁾小彈丸,
동 산 부 노 소 탄 환

(노국魯國의) 동산에서 내려다보면
노나라는 탄환처럼 작고,

岱²⁾上黃河一髮看。
대 상 황 하 일 발 간

태산泰山에 올라 황하를 보면 한 올의
머리카락처럼 보인다네.

但道前今殊眼界³⁾,
단 도 전 금 수 안 계

목전의 현재만 생각하며 전식의 범위
차단하면,

不知身已在雲間⁴⁾.
부 지 신 이 재 운 간

자신이 이미 천상天上에 가있다 해도
알지 못하리.

1) 동산부노(東山俯魯):

- ① 동산(東山): 노(魯)나라 도성(都城) 밖의 높은 산.

『맹자(孟子)·진심 상(盡心上)』에, “공자가 노나라 동산에 올라가 보고 노나라를 작게 여겼고, 태산에 올라가 보고 천하를 작게 여겼다(孔子登東山而小魯, 登泰山而小天下)”고 하였다. 동한(東漢)의 학자 조기(趙岐: 약 108~201)가 『맹자장구(孟子章句)』에서 주석하기를, “동산은 아마도 노성(魯城) 동쪽에 있는 높은 산일 것이다(東山, 蓋魯城東之高山)”고 하였다. 훗날 전(轉)하여, ‘동산(東山)’을 ‘노(魯)나라의 대칭(代稱)으로 쓰기도 하였다.

- ② 부(俯): 고개를 숙이다. 내려다 보다.

- ③ 노(魯): 주(周: BC 11세기에 무왕武王이 상상을 멸하고 세운 나라)나라 시대의 제후

국을 이른다. 주무왕(周武王)의 동생인周公(周公) 단(旦)이 지금의 산둥성(山東省) 곡부시(曲阜市)에 도읍하여 세운 나라.

- 2) 대(岱) : 산 이름. 태산(泰山 : 즉 태산太山)을 말한다.
『서경(書經)·우공(禹公)』에, “바다와 태산 사이가 청주이다(海岱惟青州)”고 하였다. 당(唐)나라 학자 육덕명(陸德明 : 약 550~630)은 이 문장을 해석하면서, “대(岱)의 음은 대(代)와 같고, 태산이다(岱音代, 泰山也)”고 하였다.
‘대산(岱山)’이라고 하면, ‘태산(泰山)’의 별칭으로 쓰인다.
- 3) 단도전금수안계(但道前今殊眼界 : 목전의 현재만 생각하며 견식의 범위 차단하면) :
① 단도(但道) : ~만 생각하다.
② 전금(前今) : 목전의 현재, 눈앞의 현재.
⑤ 수안계(殊眼界) :
☆수(殊) : 단절하다.
☆안계(眼界) : 시력이 미치는 범위. 전(轉)하여, ‘견식(見識)의 범위. 생각이 미치는 범위’의 뜻으로 쓴다.
- 4) 운간(雲間) : ‘천상(天上), 하늘’을 가리킨다. 본 시에서는 죽음을 비유한 말로 쓰였다.



시19. 풍산으로 가는 도중에 두보의 시를 차운하여

詩19. 豐山¹⁾途中次老杜韻²⁾
풍 산 도 중 차 노 두 운

花山³⁾東畔一回頭,
화 산 동 반 일 회 두

화산³⁾ 동쪽 기슭을 고개 돌려
바라보니,

雲日蒼茫⁴⁾樹木幽。
운 일 창 망 수 목 유

창공은 아득하고 수목은 그윽하네.

蔓草已能工結恨⁵⁾,
만 초 이 능 공 결 한

덩굴 풀은 한恨을 엮매는데 능하거늘,

澄江那得解消愁⁶⁾。
정 강 나 득 해 소 수

맑은 강물은 어찌하여 근심을 푸는데
능한고?

人間得喪⁷⁾元無定,
인 간 득 상 원 무 정

인간사에 득실이란 원래 정해진 게
없나니,

宇內形骸⁸⁾正若浮。
우 내 형 해 정 약 부

천지간에 이 한 몸도 흄사 부평초와
같다네.

千古至人留一法⁹⁾,
천 고 지 인 유 일 법

천고⁹⁾의 철인⁹⁾이 한 가지 방법
남겼으니,

只將身世倚虛舟¹⁰⁾。 이 한 몸 오로지 빈 배를 본받는
지 장 신 세 의 허 주
것이로세.

1) 풍산(豐山) : 풍산현(豐山縣) : 지금의 경상북도 안동(安東) 관내(管内)에 있던 지명이다. 본래 신라 하지현(下枝縣 : 풍악현豐岳縣)인데, 경덕왕 때 영안(永安)으로 고쳐서 예천군(醴泉郡) 영현(領縣)이 되었다. 923년(고려 태조 6)에 승격, 순주(順州)가 되었다가, 후에 건원(甄淵 : ?~936)에게 몰락했으므로 강등하여 하지현이 되었으며, 후에 풍산으로 고쳤다. 1018년(현종 9)에 안동에 속했다가, 1172년(명종 2)에 감무(監務)를 둔 후에 다시 안동에 예속하게 되었다.

2) 차노두운(次老杜韻) :

① 차운(次韻) : 화답(和答)하는 시에서 남의 시운(詩韻)에 맞추어 시를 짓는 것을 말한다. 혹은 남이 지은 시의 운자(韻字)를 따서 시를 짓는 것을 말한다. 보운(步韻)이라고도 한다.

② 노두(老杜) : 두보(杜甫 : 712~770)를 이룸. 중국 당(唐)나라 말기의 시인인 두목(杜牧 : 803~852)을 ‘소두(小杜)’라고 부르는데 상대하여, 두보(杜甫)를 이르는 말이다. 두보는 당나라가 가장 번성했던 시기의 시인으로, 자는 자미(子美), 호는 소릉(少陵)이다. 세칭(世稱), 두보(杜甫)를 시성(詩聖), 이백(李白)을 시선(詩仙)이라 칭한다. 이백(李白)과 병칭하여 이·두(李杜)라고도 일컫는다.

여기서 ‘노두(老杜)’라고 칭한 것은 중국인이 한 글자로 된 성씨 앞에 ‘소(小)’자를 써서 애칭을 나타내고 ‘노(老)’자를 써서는 존칭을 나타내는 관습으로 인해 붙여진 이름이다. 그의 본적은 호북성(湖北省) 양양현(襄陽縣)이지만, 출생지는 하남성(河南省) 공현(鞏縣)의 소호족(小豪族) 출신이다. 소년시절부터 시를 잘 지었으나 과거에는 급제하지 못하였고, 각지를 방랑하다가 장안(長安)으로 왔으나, 여전히 불우하였다.

44세 때 안록산(安祿山 : ?~757)의 난으로 적군의 포로가 되어 장안에 연금된 지 1년 만에 탈출하여 새로 즉위한 숙종(肅宗 : 711~762)의 행재소(行在所)에 달려갔으므로 그 공로로 좌승유(左拾遺)의 관직에 오르게 되었다. 그 후로도 관운이 순탄치 못하였다.

48세 때 대기근을 만나 식량을 구하려고 감숙성(甘肅省)을 거쳐 사천성(四川省) 성도(成都)에 정착하게 됐다. 그는 이곳 교외에 완화초당(浣花草堂)을 세우고, 당시 이곳의 절도사(節度使)였던 엄무(嚴武)의 막료가 되어 공부원외랑(工部員外郎)의 관직을 지냈으므로 ‘두공부(杜工部)’라고도 불렸다. 이후 귀향하려고 방랑을 계속하다가 호남성(湖南省) 동정호(洞庭湖)에서 59세를 일기로 병사하였다. 그의 시는 인간에 대한 성실(誠實)을 핵심으로 하면서, 인간의 우수(憂愁)도 깊이 표현하여, 그의 시적 제재(題材)는 시종 인간의 사실, 인간의 심리, 자연의 사실을 떠나지 않았던 관계로 지금까지 시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적경계를 열었다.

특히 장편의 고체시(古體詩)는 주로 사회성을 다룬 관계로 세상에서는 그의 시를 ‘시사(詩史)’라고 칭하기도 한다. 또한 당대(唐代)에 와서 새롭게 시의 전형

(典型)을 이룬 근체시(近體詩)는 두보에 의해 완성되었다고 해도 좋을 만큼, 그의 율시(律詩)는 규칙을 조금도 범하지 않으면서도 내용을 자유자재로 구사 하여, 그의 시에는 사상과 내용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형식과 기교에서 오는 예술성도 탁월하여, 후학들에게는 그의 율체시(律體詩)가 교과서처럼 존중받고 있다. 이처럼 그의 시는 육조시(六朝詩)와 초당시(初唐詩)에서 크게 결핍되어 있던 시적 정신도 일으켜 세웠고, 고체시에서 간과했던 형식적 측면도 강화하여 그의 시는 고체시와 근체시 모두 시의 전형(典型)을 이루었다. 대표작으로는 「북정(北征)」, 「추흥(秋興)」, 「삼리삼별(三吏三別)」, 「병거행(兵車行)」, 「려인행(麗人行)」, 「춘망(春望)」, 「월야(月夜)」, 「영회고적(詠懷古跡)」, 「등악양루(登岳陽樓)」 등이 있다.

- 3) 화산(花山): 화산은 하회마을 동쪽에 위치하는 산이다. 또한 이 화산의 동남쪽 경사 지에는 남향으로 풍악서당(豐岳書堂)의 전신인 병산서원(屏山書院)이 소재한다. 본 시의 첫 구에 “화산 동쪽 기슭을 고개 돌려 바라보니(花山東畔一回頭)”라고 함은 아마도 서애선생이 하회마을에서 풍산 쪽으로 출행하는 도중에 고개를 돌려 오른쪽을 바라본 경물(景物)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화산의 현재 주소지는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豊川面) 병산리(屏山里)이다. 화산은 또한 안동의 고지명이기도 하다. 하회마을의 현주소는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河回里)이다.

4) 운일침망(雲日蒼茫):

① 운일(雲日):

☆구름과 해.

☆전(轉)하여, 창공(蒼空), 창천(蒼天), 고공(高空)의 뜻으로 쓴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② 침망(滄茫): 넓고 멀어서 푸르고 아득한 모양.

- 5) 만초이능공결한(蔓草而能工結恨: 덩굴 풀은 한恨을 엮매는 데 능하거늘):

① 만초(蔓草): 덩굴 풀.

② 공결한(工結恨): 정교하게 한(恨)을 엮다. 공(工)은 ‘교묘하다, 정교하다’의 뜻이다.

- 6) 징강니득해소수(澄江那得解消愁: 맑은 강물은 어찌하여 근심을 푸는데 능한고?):

① 징강(澄江): 물이 맑은 강.

② 니득(那得): 어찌 ~할 수 있으랴.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③ 해소수(解消愁): 능히 근심을 풀어내다.

☆해(解): 능히 ~하다, 능히 ~할 수 있다.

☆소수(消愁): 근심을 해소하다.

- 7) 득상(得喪): ‘득실’과 같은 말이다. 명리(名利)를 얻음과 상실함을 가리킨다.

- 8) 우내형해(宇內形骸):

① 우내(宇內):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가리킨다.

☆천지 사이.

② 형해(形骸):

☆사람의 육신(肉身).

☆외모, 용모.

- 9) 천고지인유일법(千古至人留一法: 천고千古의 철인哲人이 한 가지 방법 남겼으

니):

① 천고(千古): 아주 먼 옛날. 태고(太古).

② 지인(至人): 본 시에서는 ‘사상과 도덕이 최고 경지에 이르도록 수양한 사람’의 뜻으로 쓰였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시15」의 주석14) ‘지인(至人)’ 조항을 참조 바람.

10) 지장신세의허주(只將身世倚虛舟: 이 한 몸 오로지 빈 배를 본받는 것이로세):

① 신세(身世): 일생, 종신(終身), 생명.

② 허주(虛舟):

☆노를 짓는 사람이 없는 빈 배.

『장자(莊子)·산목(山木)』편에, “두 척의 배를 나란히 묶어서 강을 건너는데, 빈 배에 사공이 탄 배가 부딪혔다면, 비록 성질이 조금한 사람일지라도 노여워하지 않을 것이요(方舟而濟於河, 有虛船來觸舟, 雖有愾心之人不怒)”라고 하였다. 본 시에서는 ‘빈 배’라는 의미에서 전(轉)하여, 잡념이나 망상 그리고 집착이나 탐욕 등의 불안요소가 없는 ‘마음을 비운 상태’를 비유하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③ 의허주(倚虛舟): 빈 배를 본받다.(빈 배처럼 마음을 비운 상태를 본받다)

☆의(倚): 본 받다. 기대다. (세력, 권세 등을) 의지하다. ~에 따라, ~에 맞추어. ~에 치우치다. 편향되다.

☆허주(虛舟): 위의 주석을 참조 바람.



시20. 먼 곳을 유람하고 돌아오다

詩20. 反遠遊¹⁾
반 원 유

登山不厭高,
등 산 불 업 고

산을 오르면 높은 것을 싫어하지
말아야 하고,

臨水不厭深²⁾.
임 수 불 업 심

물가에 가면 깊은 것을 꺼려하지
않아야 한다네.

足知童子觀³⁾,
주 지 동 자 관

소년의 관점을 지나치게 드러내면,

不稱丈夫心⁴⁾.
불 칭 장 부 심

대장부 성정性情에 어울리지 않는다네.

仲尼登岱小天下⁵⁾,
중 니 등 대 소 천 하

공자는 태산에 올라 보고 천하를 작게
여겼으며,

晚歲又欲浮于海⁶⁾.
만 세 우 욕 부 우 해

만년晩年에는 뗏목으로 바다를
항해하려고도 했다네.

我亦嘗從博望侯⁷⁾,
아 역 상 종 단 망 후

나도 일찍이 박망후博望侯 장건張騫을
따라갔다면,

一望崑崙出天外⁸⁾.
일 망 곤 룬 출 천 외

곤륜산이 하늘을 찌르듯 솟아오른 걸
봤을 터인데.

崑崙之高二千五百里, 곤륜산의 높이가 이천오백 리나 되기에,
곤 륜 지 고 이 천 오 백 리

日月蔽虧⁹⁾難爲明。
일 월 폐 휴 난 위 명

산에 해와 달이 가리어져 천지가
밝아지기 어려웠다네.

俯視黃河細如絲,
부 시 황 하 세 여 사

(거기서) 황하를 내려다보면 실처럼
가늘게 보이고,

萬國積蘇纔辨青¹⁰⁾。
만 국 적 소 재 변 청

온 천지가 들풀로 우거져야 겨우
플빛이 드러난다네.

聞道¹¹⁾羣仙處其中,
문 도 군 선 처 기 중

듣자하니 신선들이 그곳에 모여
산다는데,

霓旌羽蓋何翩翩¹²⁾。
예 정 우 개 하 편 편

깃털 꽃고 오색기 단 수레타고 얼마나
훨훨 잘 날았을꼬.

我欲從之不憚遠,
아 욕 종 지 불 탄 원

나도 먼 것을 꺼리지 않고 따라가고
싶지만,

雲梯石棧可攀緣¹³⁾。
운 제 석 잔 가 반 연

구름사다리 딛고 은하 잔교棧橋 거치면
오를 수나 있을는지?

只恨西王母¹⁴⁾,
지 한 서 왕 모

단지 한스러운 것은 서왕모西王母가

日向瑤池恣淫樂¹⁵⁾。
일 향 요 지 자 음 락

요지瑤池에 해만 지면 거침없이 속된
음악 즐긴다는 것일세.

蟲沙猿鶴¹⁶⁾不復問,
충 사 원 학 불 부 문

(자신의) 전사한 장졸 소식은 두 번 다시
묻지도 않고,

山下萬人歌黃竹¹⁷⁾。
산 하 만 인 가 황 죽

(목왕穆王은) 산 아래 만백성 향해
「황죽黃竹」시詩만 지어서 읊었다네.

東廂小兒細而黠¹⁸⁾,
동 상 소 아 세 이 혈

동쪽 결채 소년(동방삭東方朔)은 세심하고
교활하여,

偷食仙桃不行法¹⁹⁾.
투 식 선 도 불 행 법

선경仙境의 복숭아 훔쳐 먹고도 처벌
받지 않았다네.

嗚呼信美²⁰⁾非所求,
오 호 신 미 비 소 구

아, 진실로 멋지지만 (내가) 추구할 바는
아니어서,

回車日暮靡所適²¹⁾.
회 거 일 모 미 소 적

마차 돌려 귀환하려니 날 저무는데 갈
곳도 없네.

青牛道人²¹⁾去不還,
청 우 도 인 거 불 환

청우도인靑牛道人 노자老子는 떠나간
후로 돌아오지 않으니,

歎息關門紫氣歇²²⁾.
탄 식 관 문 자 기 혈

함곡관函谷關 관문 밖에 자색기운[紫氣]
사라진 걸 탄식했네.

不如還歸鶴駕下²³⁾,
불 여 환 귀 학 가 하

역시 학가산鶴駕山 아래로 돌아오는 게
나으리니,

此山雖小猶棲息²⁴⁾.
차 산 수 소 유 서 식

이 산은 비록 작아도 자리 잡고 살아갈
만하다네.

雲泉一壑可藏身²⁵⁾,
운 천 일 학 가 장 신

구름 비치는 맑은 샘이며 산골 계곡은
은거할 만하니,

不妨神遊窮八極²⁶⁾.
불 방 신 유 궁 팔 극

사면팔방이 다 외진 곳이나 정신유람에
장애되진 않는다네.

1) 반원유(反遠遊): 먼 곳을 유람하고 돌아오다. 본 시에서는 상상을 통한 정신적 유람을 가리킨다. 그것을 통해, 천하를 마음속의 정원으로 삼고 시사(詩詞)를 읊는 것은 옛것 문인들이 즐겨 쓰던 정취의 하나이다. 본 시에서의 '원유(遠遊)'는 '신유(神遊)'

를 뜻한다. 본 시의 주석(26)의 ② 신유(神遊) 조항을 참조 바람.

① 반(反): 귀환하다, 돌아오다. ‘반(返)’과 같은 뜻으로 쓰였다.

② 원유(遠遊): 원유(遠遊)로도 쓴다. 먼 곳을 유람하다.

- 2) 등산불염고, 임수불염심(登山不厭高, 臨水不厭深: 산을 오르면 높은 것을 싫어하지 말아야 하고, 물가에 가면 깊은 것을 꺼려하지 않아야 한다네):

본 시의 내용은 조조(曹操)의 「단가행(短歌行)」(1수)에 보이는 “산은 높은 것을 마다하지 않고, 물은 깊은 것을 싫어하지 않는다(山不厭高, 水不厭深)”라는 시구와 유사하다. 그의 「단가행」은 두 수로 되어있는데, 본 시와 관련된 시구는 제1수에 보인다. 사실 이 시구는 『관자(管子)·형세해(形勢解)』의, “바다는 물을 사양하지 않는다. 고로 그 큼을 이룰 수 있다; 산은 토석을 사양하지 않는다, 고로 그 높이를 이룰 수 있다(海不辭水, 故能成其大; 山不辭土石, 故能成其高)”라고 한 것에서, 연원하고 있다.

- 3) 주지동자관(足知童子觀: 소년의 관점을 지나치게 드러내면):

① 주(足): ‘넉넉하다, 만족하다’의 의미로 읽으면, ‘족’으로 발음해야 하고, ‘자나치다, 과도하다.’의 의미로 새기면, ‘주’로 발음해야 한다. 본 시에서는 후자로 독음(讀音)해야 한다.

② 지(知): 관리하다, 다스리다.

③ 동자관(童子觀): 미성년자가 지닌 가치관이나 견해.

- 4) 불칭장부심(不稱丈夫心: 대장부 성정性情에 어울리지 않는다네):

① 불칭(不稱): 어울리지 않다.

② 장부심(丈夫心): 대장부의 생각(마음).

- 5) 중니등대소천하(仲尼登岱小天下: 공자는 태산에 올라보고 천하를 작게 여겼으며): 이 시구는 『맹자(孟子)·진심 상(盡心上)』에, “공자는 노나라의 동산에 올라가서야 노나라 전체가 시야에 다 들어오는 것을 느꼈고, 태산에 올라가서야 천지가 한 눈에 다 들어옴을 알았다(孔子登東山而小魯, 登泰山而小天下)”고 한 것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표면상에서는 태산의 높이를 칭하는 것이지만, 실제상에서는 사람의 안계(眼界)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는 사람의 관점을 부단하게 그 돌파점을 찾아 나아가다 보면 마침내는 자아를 초월하게 되면서, 물외(物外)에서 노니는 심경으로 세간의 변화무쌍한 분란을 관조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示唆)하는 것으로 보인다.

① 중니(仲尼): 공자(孔子)의 자(字).

☆공자(孔子: BC 551~BC 479):

춘추시대(春秋時代) 노(魯)나라 창평향(昌平鄉) 추읍(陬邑), 지금의 산둥성(山東省) 곡부시(曲阜市) 남동부에서 태어났다. 이름은 구(丘), 자는 중니(仲尼). 그의 선세(先世)는 송(宋)나라 귀족이었으나 노나라로 망명하였다. 공자 부친의 자는 숙량(叔梁), 이름은 흘(紇)이다. 어머니는 안씨(顏氏) 집안으로 이름은 정재(徵在)이다. 공자의 부친 숙량흘은 안씨의 딸 정재와 야합(野合)하여 공자를 낳았다. ‘야합’이란, 숙량흘이 70세가 넘었는데 안정재는 16세여시 예(禮)에 맞지 않음을 뜻하는 것으로, 비정상적인 혼인관계였음을 말하는 것이다. 공자는 태어나면서부터 정수리가 우뚝하게 들어간 고로 언덕처럼 생겼다하여 이름을 ‘구(丘)’라고 지었다. 공자가 출생한 후 얼마 안 되어 부친 숙량흘이

세상을 떠나 방산(防山 : 지금의 산동성 곡부시 동쪽 20리 지점. 필가산筆架山이라고도 함)에 장사 지냈으나, 어머니 안씨가 말해주지 않아 공자는 아버지 무덤의 위치도 몰랐다. 어머니가 타계하자 거리에서 빈소를 차렸는데, 지방의 나이든 여인이 아버지의 무덤을 알려주어 어머니를 방산(防山)에 합장했다.

그는 어려서 빈천한 환경에서 자랐으며, 위리(委吏 : 창고를 관리하는 말단 관리)를 역임했고, 승전(乘田 : 목축을 주관하던 하급관리)을 역임했으며, 중도재(中都宰 : 중등 정도의 도성都城을 관리하던 행정장관)를 역임했다. 노(魯)나라 정공(定公 : ?~BC 495)에게 중용되어 벼슬이 사공(司空 : 주로 공사工事を 주관하던 벼슬)을 거쳐, 대사구(大司寇 : 6경六卿 중의 하나로서, 국정을 관리하며 주로 형벌과 규찰의 업무를 맡았음)에 이르렀다. (이때는 정공定公 14년十四年 : BC 496년. 공자 56세 때였음)

삼환(三桓 : 춘추시대春秋時代 말엽, 노魯나라 대부인 ‘계평자季平子, 맹씨孟氏, 속손씨叔孫氏’를 말함. 이 삼가三家의 귀족은 노환공魯桓의 아들임으로 삼환三桓이라 함) 중의 한 사람인 계평자(季平子 : 즉 계손여의季孫如意)가 정공 5년(BC 505)에 죽자, 그의 가신(家臣)인 양호(陽虎)가 난을 일으켜서 노나라 권력을 장악한다. 정공 8년(BC 502) 양호는 노정공(魯定公)을 겁박하여 삼환을 제거하려 했으나 실패하고 국외로 도주하자, 계평자의 아들 계손사(季孫斯 : ?~BC 492, 성은 희姬, 계씨(季氏 : 둘째 집 귀족), 손孫은 존칭, 이름은 사斯, 시호는 환桓, 사칭史稱 ‘계환자季桓子’라고 함)가 노나라 권력을 장악하였다.

계손사(季孫斯 : 즉 계환자)는 공자를 이용하여 삼환의 집권세력을 확고히 하는데 협조하도록 하여, 권력을 잡고 있는 가신(家臣)들에게 타격을 가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공자는 노나라 공실(公室 : 제후국 군주의 집안. 곧 왕실을 말함)의 통치권을 강화시키려 하였다. 그래서 공자는 노나라를 떠나 (사실은 계손사에게 떠나도록 꾀박을 받았음). 위(衛), 송(宋), 진(陳), 채(蔡), 제(齊), 초(楚) 등 나라를 주유(周游)하였지만, 한결같이 등용되지 못하였다.

그렇게 그는 14년간 문하생들을 데리고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유세(遊說)를 하며,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그는 BC 484년, 69세 때 그 실현의 불가능함을 깨닫고 고향으로 돌아와 제자들의 교육에 전념한다. 그의 제자가 3,000명이며, 그 중에 육예(六藝)에 통달한 현자(賢者)가 72명이었다고 한다. 그는 『시경(詩經)』과 『서경(書經)』등 고대문헌을 정리했고, 노사(魯史)인 『춘추(春秋)』를 수정(修訂)하여 중국 최초의 편년체 역사 저작을 완성하였다. 그는 유가학파의 창시자로서, 그의 학설은 ‘인(仁)’을 핵심으로 하며, ‘예(禮)’를 규범으로 삼았다. 한대(漢代) 이후로 유가학설은 2000여 년 동안 봉건문화의 정통이 되었다. 공자는 성인(聖人)으로 추존되었으며, 역대로 그에게 대성지성문선왕(大成至聖文宣王) · 지성선사(至聖先師) · 대성지성문선선사(大成至聖文宣先師) 등의 호를 붙여왔다.

『논어(論語)』는 공자와 그의 제자들의 언행을 적은 것으로 공자사상의 중심이 되는 효제(孝悌)와 충서(忠恕) 및 인(仁)의 도(道)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② 대(岱) : 산 이름. 즉 태산(泰山 : 태산太山)을 말함. 자세한 것은 「시18」의 주석2)를 참조 바람.

- 6) 욕부우해(欲浮于海 : 뗏목 타고 바다를 항해하려고 하다) :

- ① 이 말의 출전은 『논어(論語)·공야장(公冶長)』에, “공자가 말하기를: 천하에 도가 행해지지 않는다. 뗏목을 타고, 바다를 향해하러 하노니, 나를 따라올 자는 아마도 자로(子路: BC 542~BC 480, 성은 중仲, 이름은 유由, 자는 자로子路)일 것이다(子曰: 道不行。乘桴, 浮于海, 從我者, 其由與).”고 한 것이다.

북송(北宋)의 유학자 정이(程頤: 1033~1107. 호는 이천伊川. 형 정호(程顥: 1032~1085)와 함께 정자程子로 존칭됨)가 이 글에 주석하기를: “바다를 향해하겠다는 탄식은 천하에 어진 임금이 없음을 서글퍼한 것이다. 자로(子路)는 의로운 일에 용감한 까닭에, 그가 자신을 따라올 것이라 한 것이니, 이는 모두 가설해서 하신 말씀이다(浮海之歎, 傷天下之無賢君也。子路勇於義, 故謂其能從己, 皆假設之言耳)”고 하였다.

위의 시구는 공자가 당시 노공실(魯公室)의 권위에 도전하는 삼환(三桓)의 위세에 압박을 받게 되면서, 자신이 주장해온 예제(禮制)와 덕정(德政)의 실천이 어려워짐을 깨닫고 노나라를 떠나고자 했던 것을 시사한 것으로 서예의 시대적 상황에 대한 내심이 함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② 부(浮): (강이나 바다에서 뗏목을 띄워) 항행(航行)하다.

7) 박망후(博望侯): 장건(張騫: ?~BC 114)의 봉호(封號).

『한서(漢書)·장건전(張騫傳)』에, “장건이 교위(校尉: 진한秦漢시대에 군사를 통솔하는 무관武官)로서 대장군을 따라 흉노족을 공격할 때, 수원(水源)과 초지(草地)의 위치를 알고 있어서, 군대가 공핍함을 면할 수 있었던 까닭에 장건을 박망후에 봉했다(騫以校尉從大將軍擊匈奴, 知水草處, 軍得以不乏, 乃封騫爲博望侯)”고 하였다.

- ① 장건(張騫: ?~BC 114): 서한(西漢)의 한중군(漢中郡) 성고현(成固縣), 지금의 섬서성(陝西省) 성고현(城固縣) 동부 출신이다.

무제(武帝) 건원 2년(建元二年: BC 139), 낭관(郎官: 군왕의 시종관)으로서 월지국(月氏國: 월지족月氏族이 세운 나라로서, 서역(西域: 중앙아시아)에 건국했었음)으로 출사(出使)하는데 응모하였다.

이 당시 한(漢)나라의 목적은 대월지국과 동맹하여 흉노족을 협공하는 것이었다. 장건은 가는 도중에 흉노족에게 대략 11년간이나 억류되었다. 그는 간신히 탈출하여 대원(大宛: 지금의 우즈베크Uzbek 페르가나Fergana 분지)과 강거(康居: 지금의 카지흐스탄Kazakhstan 발하슈 호Balkhash湖와 아랄 해Aral海 사이 입)를 거쳐 월지국에 도달하였다. 원삭 3년(元朔三年: BC 126)에 귀국했는데, 전후에 걸쳐 13년간 국외에 있었다. 대중대부(大中大夫: 낭중령郎中丞의 속관)에 봉해졌다. 원삭 6년(元朔六年: BC 123) 교위(校尉)로서 대장군 위청(衛青: ?~BC 106)을 따라 흉노족을 격파하고 박망후(博望侯)에 봉해졌다. 원수 2년(元狩二年: BC 121)에 위위(衛尉: 황제가 거처하는 궁실의 금위禁衛)가 된 뒤, 이광(李廣: ?~BC 119)과 함께 우북평군(右北平郡: 지금의 요령성遼寧省 능원시凌源市 서남부)에 출병하여 흉노족을 공격하였으나, 실기(失期)하여 처형당하게 되었으나 감형을 받아 서인(庶人)이 되었다. 원수 4년(BC 119)에 다시 중랑장(中郎將: 궁궐 숙위와 황제 외출시 경호 및 낭관郎官을 선발 관리함)이 되었고, 사신(使臣)의 신분으로 오손국(烏孫國: 고대 서역의 국명)에 출사(出使)하는 동시에 지절부사(持節副使: 부절符節을 지니고 각국을 방문하는 부사副使)를 대원(大宛), 강거(康居) 등 지역에 파견하여, 외교관계를 맺고 서역제국의 사절과 대상(隊商)들을 데리고 돌아왔다. 서역과 교류가 시작되던

서 벼슬이 대행(大行: 외교 빈객에 대한 예의업무를 관장하는 장관)에 이르렀다.

- 8) 일망곤륜출천외(一望崑崙出天外: 곤륜산이 하늘을 찌르듯 솟아오른 걸 봤을 터인데):

- ① 곤륜(崑崙): 고대에는 곤륜(昆侖)으로도 썼음.

☆곤륜산(崑崙山): 신장 위구르 자치구(新疆 維吾爾 自治區)와 서장 자치구(西藏 自治區) 사이에 위치한다. 서쪽으로는 파미르 고원(Pamir 高原)에 연결하고, 동쪽으로는 청해성(青海省) 경내(境內)에 까지 이어진다. 산세(山勢)가 높고 험준하여, 설봉(雪峰)과 빙천(氷川)이 많다. 최고봉은 해발 7719m이다. 고대신화 전설에서 이르기를, 곤륜산에는 요지(瑤池), 낭원(閼苑), 증성(增城), 현포(縣圃) 등의仙境(仙境)이 있다고 하였다.

- ② 천외(天外): 하늘 밖(지극히 높고 먼 것을 이르는 말임)

- 9) 폐휴(蔽虧): ~에 차단된(가려진) 탓에(반은 보이고 반은 보이지 않거나 흐릿하게 보여) 잘 보이지 않음을 이룸.

- 10) 만국적소재변청(萬國積蘇纔辨青: 온 천자가 들뜰로 우거져야 겨우 풀빛이 드러난다네):

- ① 적소(積蘇): 축적된 땀값 풀. 우거진 야초(野草)를 가리킨다. 소(蘇)는 ‘초(樵: 땀나무. 잡목)’의 뜻이다.

- ② 변(辨):

☆분명하게 보인다.

☆명백하다.

- 11) 문도(聞道):

- ① (~라고) 들었다. 들으니(들자니)~라고 한다. 당나라 시인 두보(杜甫: 712~770)의 시, 「추흥(秋興)」[4]에, “(정국이 불안한) 장안(長安) 소식 들으니 한 판 두는 바둑 형세 같아서, 일평생 세상사 회상되어 비애를 금할 길 없네(聞道長安似弈棋, 百年世事不勝悲)”라는 시구가 보인다.

- ② 모종(某種)의 도리를 깨닫다. 『논어(論語)·이인(里仁)』편에,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朝聞道, 夕死可矣)”라고 하였음.

- 12) 예정우개하편편(霓旌羽蓋何翩翩: 깃털 꽃고 오색기 단 수레타고 얼마나 훨훨 잘 날았을꼬!)

- ① 예정(霓旌): ‘정(旌)’은 깃발로서 정(旌)과 통한다.

☆전설에 의하면, 선인(仙人)은 운하(雲霞: 구름과 노을)로써 깃발을 삼는다고 한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초사(楚辭)·구탄(九嘆)·원서(遠逝)』에, “구름과 노을을 높이 쳐들어서 태양을 가리고, 적황색의 오색 깃발을 세워 놓았네(舉霓旌之曄曄兮, 建黃纁之總旌)”라고 하였다. (위 예문에서, ‘체예曄曄’는 ‘가려 덮다’는 뜻이고, ‘황훈黃纁’은 ‘적황색’이란 뜻이며, ‘총總’은 ‘합(合: 한데 합하다)’의 뜻임)

☆오색 깃털을 모아 엮어매어서 만든 오색기로서, 고대 제왕의 의장(儀仗) 중의 하나이다. 전(轉)하여, ‘제왕’을 가리키기도 한다.

- ② 우개(羽蓋): 우개(羽蓋)라고도 쓴다. 개(蓋)는 개(蓋)의 속자(俗字)이다.

☆고대에 새의 깃털로 장식한 거개(車蓋). 거개(車蓋)는 비나 햇빛을 가리기 위해, 수레 위에 둥글게 버티던 우산 같은 모양의 휘장이다.

☆선인(仙人)의 수레를 가리킨다.

③ 편편(翩翩): 경쾌하게 나는 모양. 훨훨(훨훨, 나풀나풀) 날다.

13) 운제석잔가반연(雲梯石棧可攀緣): 구름사다리 딛고 은하 잔교棧橋 거치면 오를 수 나 있을는지?):

① 운제(雲梯): 구름사다리, 하늘 사다리.

☆전설에 선인(仙人)이 등천하는 길(선선이 승천昇天할 때 구름을 발판으로 이용하여 올라가는 까닭에 ‘운제雲梯’라고 함). 본 시에는 이 뜻으로 쓰였다.

☆높은 산의 돌계단이나 잔도(棧道)를 가리킨다. 사다리길. 몹시 험하고 가파른 산봉에 층계식 길을 냈는데, 마치 하늘에 잇닿은 듯한 사다리 같다 하여 이르
는 말이다.

② 석잔(石棧):

☆산간(山間)에서 절벽의 바위를 파내어 공간을 낸 후, 널빤지나 통나무를 걸쳐서 건너게 만든 통로.

☆벼랑에 선반처럼 붙여서 만든 다리. 돌로 가설(架設)한 잔교(棧橋).

☆원(元)나라 문인 마조상(元馬祖常: 1279~1338)의 「해자교(海子橋)」 시에서, “석잔은 은하수에 통하고, 은하의 물은 도랑에 떨어지네(石棧通星漢, 銀河落水渠)”라고 하여, ‘석잔(石棧)’을 ‘은하수로 통하는 잔교(棧橋)’의 뜻으로 읊었다. 본 시에는 이 뜻으로 쓰였다.

③ 반연(攀緣): 휘어잡고 의지하거나 기어오르다.

14) 서왕모(西王母): 고대신화에 나오는 신녀(神女)의 이름. 불사약을 가진 선녀라고 하며, 음양설에서는 일몰(日沒)의 여신이라고도 한다. 자세한 것은 「시12」의 주석15)를 참조 바람.

15) 일향요지자음악(日向瑤池恣淫樂): 요지瑤池에 해만 지면 거침없이 속된 음악 즐긴다는 것일세):

① 요지(瑤池):

☆고대 전설에서, 곤륜산(崑崙山: 곤륜산崑崙山) 산상(山上)에 있다는 지명(池名: 연못이름)으로 서왕모가 거처한다는 곳이다.

『사기(史記)·대원열전(大宛列傳)』에서, 태사공(太史公)은 「우본기(禹本記)」의 기록을 인용하여 언급하면서, “곤륜산은 그 높이가 2,500여 리이며, 해와 달이 서로 피해 숨으며 그 빛을 밝힌다. 그 위에는 예천(醴泉: 물맛이 단 샘)과 요지(瑤池: 주목왕周穆王이 서왕모와 만났다는 선경)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 나는 그 기록에 대해 감히 뭐라고 말하지 않겠다(崑崙山其高二千五百餘里, 日月所相避隱爲光明也。其上有醴泉, 瑤池…。余不敢言之也).”고 하였다.

② 음악(淫樂): 퇴폐적인(음탕한) 음악. 옛날의 정통악과 다른 속악을 가리킨다.

16) 충사원학(蟲沙猿鶴: 전사한 장졸):

당(唐)나라 서예가 구양순(歐陽詢: 557~641)이 편찬한 유서(類書) 『예문류취(藝文類聚)』 권90(卷九十)에서, 동진(東晉)의 도사 곽홍(葛洪: 284~364)의 저서 『포박자(抱朴子)』를 인용하여 말하기를, “주목왕이 남쪽 땅을 정벌하러 갔을 때, 일군(一軍: 장졸 1만 2,500명. ‘군(軍)’은 군대편성 단위임. 여기서는 1군(一軍)을 전군(全軍)의 뜻으로 쓸 수도 있음)의 장졸이 모조리 전사하여, 군자는 원숭이가 되기도 하고 학이 되기도 하였으며, 소인은 벌레가 되기도 하고 모래가 되기도 했다(周穆王南征, 一

軍盡化，君子爲猿爲鶴，小人爲蟲爲沙)”고 하였다.

그래서 후세 사람들은 ‘충사원학(蟲沙猿鶴)’이란 말을 ‘전사(戰死)한 장졸이나 전란으로 인해 죽은 백성’이란 뜻으로 썼다. 같은 뜻으로, ‘원학사충(猿鶴沙蟲)’이라고도 쓰며, 약어로서 ‘원학(猿鶴)’이라고도 쓴다.

- 17) 황죽(黃竹):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소설로 작자미상인 『목천자전(穆天子傳)』 권 5에, 주목왕(周穆王)이 평택(苹澤)지방으로 사냥을 갔다고 하면서, “그 며칠 동안 몹시 추워서, 북풍이 부는데다 비가 내렸다가 눈이 오기도 하여, 얼어 죽는 사람이 생기자, 천자가 시 3장(章)을 지어서 백성들에게 애도의 뜻을 표했다(日中大寒，北風雨雪，有凍人，天子作詩三章以哀民)”고 기록했는데, 그 시의 제1, 2구가 “아조 황죽(我徂黃竹), 폭원비한(幅員闕寒)”이다. ‘조(徂)’는 ‘가다’는 뜻이고, ‘황죽(黃竹)’은 ‘전설상의 지명(地名)’이며, 원(員)자 앞의 자는 결문(闕文: 문장 가운데서 빠진 글자나 글귀)이다. 추측해서 그 결문을 보완하면, ‘폭원비한(幅員闕寒)’이 된다. ‘폭원(幅員)’은 ‘국토, 대지’라는 뜻이고, ‘비한(闕寒)’이라는 말은 ‘한파로 인해 봉쇄되다’는 뜻이다. 이렇게 하여, 그 시 두 구절을 해석하면, “내가 황죽 지방에 갔었는데, 대지가 얼어붙어 있었네”라는 뜻이 된다. 주목왕이 지었다는 이 시에서 전설상의 지명으로 쓰인 ‘황죽(黃竹)’이란 뜻이, 시명(詩名)으로 쓰여 졌다. 그 시 역시 후세 사람이 가탁해서 지은 시이다.(이상은 정결문(鄭杰文), 『목천자전통해(穆天子傳通解)』 산둥문예출판사山東文藝出版社, 1992년에 보임)

- 18) 동상소아세이힐(東廂小兒細而詰: 동쪽 곁채 소년동방삭東方朔은 세심하고 교활하여):

서진(西晉)의 문인이자 정치가인 장화(張華: 232~300)가 지은 『박물지(博物志)』 권8 「사보(史補)」에 의하면, “이때 동방삭이 몰래 구화전 남쪽의 곁채에서 주조(朱鳥)가 조각된 창으로부터 서왕모를 훔쳐보고 있었다. 왕모가 고개를 돌려 그를 보고는 무제에게 말하기를: ‘창문으로 엿보고 있는 저 녀석은, 일찍이 세 차례나 나의 이 선도를 훔쳐갔다.’ 무제는 매우 기이하게 여겼다. 이로부터 세상 사람들은 동방삭을 신선으로 여겼다(時東方朔窺從殿南廂朱鳥牖中窺母，母顧之，謂帝曰: ‘此窺牖小兒，嘗三來盜吾此桃.’ 帝乃大怪之。由此世人謂方朔神仙也.)”라고 한다. 자세한 것은 「시12」 주석12와 14)의 ‘동방삭(東方朔)’과 ‘투도(偷桃)’ 조항을 참조 바람.

- ① 동상(東廂): 고대 묘당(廟堂)의 동쪽에 있는 곁채. 옛날에 안마당의 동서에 맞대 하여 선 집채로 동쪽에 있는 것을 동상방(東廂房)이라 하고, 서쪽에 있는 것을 서상방(西上房)이라 하였다.

- ② 소아(小兒): 본 시에서는 선경의 복숭아를 훔쳐 먹었다는 소년 동방삭(東方朔)을 가리킨다.

- ③ 세이힐(世而黠): 세심하고 교활하다. 주의 깊고 간사하다. 주도면밀하고 교활하다.

- 19) 투식선도불행법(偷食仙桃不行法: 선경仙境의 복숭아 훔쳐 먹고도 처벌받지 않았네): 「시12」의 주석12와 14)의 ‘동방삭(東方朔)’과 ‘투도(偷桃)’ 조항을 참조 바람.

- 20) 오호신미(嗚呼信美: 아, 진실로 멋지지만):

- ① 오호(嗚呼): 오호(嗚乎)라고도 쓰고, 오호(嗚摩)로도 쓴다. 이는 감탄사로서 몹시 슬프게 탄식할 때 쓰는 말이다.

② 신미(信美) : 진실로 좋은 것. 신(信)은 부사로 쓰여 ‘확실히, 진실로, 과연’의 뜻이고, 미(美)는 ‘아름다운 물건’을 가리킨다.

21) 청우도인(靑牛道人) : 본 시에서는 노자(老子)를 가리킨다.

① 노자는 춘추시대(春秋時代)의 사상가. 생몰년대 미상. 성은 이(李), 이름은 이(耳), 자는 담(聃), 백양(伯陽). 도가의 시조로서, 상식적인 인의(仁義)와 도덕에 구애되지 않고, 만물의 근원인 도를 좇아서 살 것을 역설하고, 무위자연(無爲自然)을 존중하였다.

노자가 푸른빛의 소가 끄는 수레를 타고 함곡관(函谷關)을 지나 서역(西域)으로 들어갔다는 고사(故事)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기(史記)·노자한비열전(老子韓非列傳)』에, 노자는 주(周)나라가 쇠미해지자 그곳을 떠났는데, 국경 관문인 함곡관에 이르자, “관령(關令 : 관문 수비의 책임자) 윤희(尹喜 : 생몰년 미상 : 주나라 대부大夫로서 도학파의 한 사람)가 ‘선생께서 앞으로 은거하려 하니, 수고스럽지만 저를 위해 저서를 남겨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그래서 노자는 상하편의 저서를 지어, ‘도덕(道德 : 도가학파의 술어術語. 도道는 천지만물의 근원이자 만물이 변화하는 규율이고, 덕德은 도道에 의거해서 행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임)의 의미를 5천 여자를 서술하고, 떠나버리니, 그 후로는 아무도 그의 최후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당(唐)나라의 학자, 사마정(司馬貞 : 생몰년 미상)이 『사기색은(史記索隱)』에서, 한(漢)나라 학자, 유향(劉向 : 대략 BC 77~6)의 『열전전(列仙傳)』을 인용하여 말하기를, “노자가 서역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함곡관 관령(關令) 윤희(尹喜)가 함곡관의 주변에 자기(紫氣 : 상서祥瑞로운 빛)가 서리기에 바라보고 있자니, 그것은 노자가 청우(靑牛)를 타고 지나가는 것이었다.”고 하였다. 그 후에 사람들은 ‘청우(靑牛)’를 ‘신선도사가 타는 짐승’으로 간주하였다.

22) 탄식관문자기혈(歎息關門紫氣歇) : 함곡관函谷關 관문 밖에 자색기운[紫氣] 사라진 걸 탄식했네) :

① 관문(關門) : 국경이나 요새 등을 드나들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목. 본 시에서의 관문은 ‘함곡관(函谷關)’을 가리킨다.

☆함곡관(函谷關) : 원래의 함곡관은 전국시대(戰國時代)에 진(秦)나라가 설치한 것으로, 지금의 하남성(河南省) 영보현(靈寶縣) 경계에 위치하였다. 그곳의 길 이 계곡 안에 있어서 깊고 험난하여, 그 지형이 흡사 함(函 : 상자 모양의 통)과 같았던 까닭에 붙여진 이름이다. 한(漢)나라 원정 3년(元鼎三年 : BC 114)에 지금의 하남성 신안현(新安縣) 경계로 옮겨 설치했는데, 옛 관문과의 거리가 3백 리나 떨어진 곳이다.

② 자기혈(紫氣歇) : 자기(紫氣 : 보랏빛 기운 : 상서로운 빛)가 사라지다.

☆자기(紫氣) : 자색운기(紫色雲氣 : 보라색 기운). 고대에는 이것을 상서로운 기(氣)라고 여겼으며, 제왕이나 성현(聖賢)이 출현할 징조라고 끌어 붙였다. 위의 주석21)의 ①을 참조 바람.

☆혈(歇) : 흠어지다. 소실되다.

23) 불여환귀학가하(不如還歸鶴駕下) : 역시 학가산鶴駕山 산 아래로 돌아오는 게 나으리니) :

① 불여(不如) :

☆~만 못하다.

☆~하는 편이 낫다.

- ② 학가(鶴駕) : 학가산(鶴駕山) : 경북 예천군(醴泉郡) 보문면(普門面)과 안동군의 북후면(北後面), 서후면(西後面)의 경계에 위치한 산. 표고(標高) 882m 보문산(普門山, 643m)과 함께 예천군의 동부 산지를 형성한다. 산록에는 버섯과 산나물이 많이 산출되고, 고도(高度) 400m의 산성동(山城洞)에서는 인삼이 재배되고 있다. 북부 비탈(斜面)에서 내성천(乃城川)의 작은 지류들이 발원하고 남쪽 비탈에는 광흥사(廣興寺)가 있다.
- 「서애연보」에 의하면, 을사년(乙巳年 : 1605, 서애 64세) 9월에 지금의 서미1리(西美一里)로 이사하였다. 서미동은 경북 안동시 풍산읍(豊山邑) 관내에 위치한다. 학가산의 산줄기가 서미동까지 이어지는데, 그 거리는 대략 십오리[6km]이다. 당시 하회(河回)는 홍수로 인해 수목이 없어지고 바람이 거세어서 요양하기 불편한 데다가 손님의 방문이 번거로워서 선생은 하회를 떠나 학가산 아래 지금의 서미1리로 이사했다고 하였다.
- 또 병오년(丙午年 : 1606, 서애 65세) 조항을 보면, 3월에 이곳 서미동에 초당(草堂) 3칸을 지었는데, 집이 꾸밈이 없고 누추하였으나, 선생은 거기에 거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여, ‘농환(弄丸)’으로 이름을 붙였다고 하였다.
- 24) 서식(棲息) : 서식(栖息)으로도 쓴다. ‘기거하다. 숙박하다. 자리 잡고 살아가다’를 뜻한다.
- 25) 운천일학가장신(雲泉一壑可藏身 : 구름 비치는 맑은 샘이며 산골 계곡은 은거할만 하나니) :
- ① 운천(雲泉) : 백운(白雲)과 청천(淸泉). 본 시에는 ‘구름 비친 맑은 샘’이라 번역하였다.
- ② 장신(藏身) : 안신(安身). 거처하다. 몸을 의탁하다. 몸을 편안하게 하다(쉬다). 은거하다.
- 26) 불방신유궁팔극(不妨神遊窮八極 : 사면팔방이 다 외진 곳이나 정신유람에 장애되지 않는다네) :
- ① 불방(不妨) : 장애(방해)되지 않다. 무방하다.
- ② 신유(神遊) : 신체를 통하여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동경(憧憬)하여, 친히 그 경지를 유람하는 것과 같이 느끼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 『열자(列子)·황제편(黃帝篇)』에, “낮잠을 자며 꿈을 꾸었는데, 화서씨(華胥氏 : 중국 고대 전설상의 제왕 포희씨庖犧氏, 즉 복희씨伏羲氏의 모친)의 나라를 유력(遊歷)하였다. 화서씨의 나라는 엄주(狔州 : 고대 중국의 서쪽에 있던 고을)의 서쪽, 태주(台州 : 고대 중국의 서북 쪽에 있던 고을)의 북쪽에 있어 중국에서 떨어진 거리가 몇 천만 리 인지 알 수 없다. 대개 배나 수레나 걸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정신적으로만 유람할 수 있을 따름이다(晝寢而夢, 遊於華胥氏之國. 華胥之國在狔州之書, 台州之北, 不知斯齊國幾千萬里 : 蓋非舟車足力之所及, 神遊而已).”라고 하였다.
- ③ 궁팔극(窮八極) : 이득히 먼 팔방(八方)의 극히 먼 땅.
- ☆궁(窮) : 중앙에서 멀리 떨어짐. 먼 국경지방. 황량하고 외진 궁벽한.
- ☆팔극(八極) : 팔방의 극히 먼 땅. 팔방이란, 사방(四方)과 사우(四隅). 곧 동·

서·남·북·동북·동남·서북·서남을 이름. 전(轉)하여 ‘여러 방위’란 뜻으로 쓰기도 한다.



시21. 성은을 입어 직첩을 되돌려 받고서

詩21. 蒙恩給職牒¹⁾
몽 은 급 직 첩

竹窓寒雪夜蕭蕭²⁾,
죽 창 한 설 야 소 소

죽창竹窓 밖에 찬 눈 내려 밤이
쓸쓸한데,

千里楓宸³⁾夢裏遙.
천 리 풍 신 몽 리 요

천리 길 궁궐은 꿈속에서도 요원하구나.

白首縱靄新雨露⁴⁾,
백 수 종 점 신 우 로

늙어서 설령 새로운 은택 입었다 해도

豈宜重誤聖明⁵⁾朝.
기 의 중 오 성 명 조

어찌 명철하신 주군主君의 조정 거듭
그르치랴.

1) 몽은급직첩(蒙恩給職牒): 「서애연보」 경자년(庚子年: 1600년, 선조 28년, 서애 59세) 조항을 보면, 서애는 11월에 직첩을 되돌려 받고나서, 위의 7언절구시를 지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에 앞서 서애 57세(무술년: 1598년, 선조 26년) 때에, 명(明)의 주사(主事) 정응태(丁應泰: 생몰년 미상)가 자국(自國)의 경리(經理) 양호(楊鎬: 생몰년 미상)가 울산전투에서 패배한 사실을 두고, 이를 명 황실에 사실대로 보고 하지 않았다고 트집을 잡아, 조선정부도 양호와 합작하여 이를 은폐시켰을 뿐 아니라, 왜인파도 통모(通謀)했다고 무주(誣奏)한 사안에 직면하였다. 서애는 이러한 왜곡된 사실을 해명하는 진주사(陳奏使)에 낙점이 되었는데, 당시 선생은 자신도 이와 관련하여 탄핵을 받는 입장이니 적임자가 아니라고 고사(固辭)하는 상주문을 수차례 올렸다. 그 결과, 그 해 10월 6일에 진주사(陳奏使)를 체면(遞免)받고, 9일에는 영의정(領議政)을 체면받고, 11월에 와서는 모든 관직이 삭탈되어, 낙향하게 되었다.

그러나 서애 58세(기해년: 1599년, 선조 27년), 6월에 선조가 하명하여 서애의 직첩을 되돌려주자 삼사(三司)가 논핵(論劾)하였다. 이때, 선조가 옥당(玉堂)이 올린 차자(劄子)에 비답(批答)한 기록을 보면:

“논핵한 일이 실정에 너무 지나치니, 그 사람이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곁에서 보는 사람도 역시 복종하지 않는다. ‘주화(主和)’라는 두 글자로써 탈을 잡아 심지어 진화(秦檜)와 비교하였는데, 진화는 오랑캐의 뜻을 받아들여 치자를 보전하였으며 송(宋) 나라에 잠입하여 금인(金人)을 위해 화친을 도모하여 악비(岳飛) 등을 죽인 인물이다. 지금 류성룡도 왜적의 뜻을 받아들여 남몰래 음모를 통해 그의 처자들을 보전하고 화의를 주장했다는 것인가. 이런 말로써 인심을 승복시키고 국시(國是)를 안정시킬 수 있단 말인가. … 그리고 중론을 물리치고 한밤중에 사신을 보냈다는 말은 더욱 말이 안 된다. 그때는 조정의 의논을 널리 모아서 결정했고, 그 조정의 의논은 승정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과연 중론을 물리치고 독단으로 보냈다고 할 수 있는가. 하물며 파직된 지가 벌써 세월이 경과했는데 지금 어찌 관직을 복구할 수 없단 말인가”라고 하였다. 그러나 얼마 후에는 끝내 그들의 의견을 따랐다.

다시 1년 후, 서애는 바로 위에서 언급한 서애 59세 때에 선조로부터 11월 3일에 직첩을 다시 되돌려 받았다. 위의 시는 바로 그 때의 감회를 시형식을 통해 표현한 것이다.〔시30〕의 주석10)도 참조 바람)

① 몽은(蒙恩): (임금으로부터) 성은(聖恩)을 입다. 은혜를 입다(받다).

② 직첩(職牒): 조정에서 내리는 벼슬아치의 임명장.

2) 죽창한설야소소(竹窓寒雪夜蕭蕭: 죽창竹窓 밖에 찬 눈 내려 밤이 쓸쓸한데):

① 죽창(竹窓): 대로 창살을 만든 창문.

② 소소(蕭蕭): 쓸쓸하고 한랭한 것을 형용하는 말.

3) 풍신(楓宸): 제왕의 궁전. ‘풍(楓)’은 예전에는 궁중에 단풍나무를 많이 심어서 이르는 말이고, ‘신(宸)’은 북극성이 머무는 곳, 즉 자미원(紫微垣)을 이룸. 전(轉)하여, ‘제왕이 거처하는 곳, 또는 전(轉)하여, ‘왕위 혹은 제왕’의 대칭(代稱)으로 쓰기도 한다.

4) 백수증점신우로(白首縱霽新雨露: 늙어서 설령 새로운 은택 입었다 해도):

① 백수(白首): ‘백발(白髮)’과 같은 말. 연노(年老)함을 표시함.

② 증점(縱霽): (설령)은혜를 입을지라도

☆증(縱): 설령(설사) ~라 하더라도(할지라도).

☆점(霽): 덕을 보다. 은혜를 입다.

③ 우로(雨露): 은택에 비유하는 말.

5) 성명(聲明):

① 밝은 지혜가 있어 모르는 것이 없음. 임금을 칭송하는 말로 쓴다.

② 황제의 대칭(代稱).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③ 치세(治世)와 명시(明時: 정치가 청명한 시대)를 칭송하는 말. 주로 본조(本朝)를 칭송하는 말로 쓴다.

④ 사리(事理)를 명백히 밝힘을 칭송하는 말.



시22. 선달 열사흘 날(경자년庚子年 : 1600년)
 서쪽으로 (의인왕후懿仁王后의) 산릉山陵에
 갔다가 용궁龍宮에 들러 생질 이돈李焞
 이찬李燦 형제에게 읊어 보이다

詩22. 十二月十三日 西赴山陵¹⁾ 到龍宮²⁾ 吟示李甥焞燦³⁾
 십 이 월 십 삼 일 서 부 산 릉 도 용 궁 읊 시 이 생 돈 찬

病起惓惓束曉裝⁴⁾,
 병 기 흥 흥 속 효 장

병석에서 일어나자 총총히 새벽여장
 꾸려서,

驛程千里遡靄涼⁵⁾。
 역 정 천 리 소 방 랑

천리길 여정旅程 설한풍雪寒風 무릅쓰고
 길을 나섰다.

晴沙晚石相縈帶⁶⁾,
 청 사 만 석 상 영 대

황혼 깃든 암벽이 햇볕 쬔던 백사장
 따라 이어졌는데,

落日孤雲正杳茫⁷⁾。
 낙 일 고 운 정 묘 망

석양에 물든 구름 한 조각 아득히
 멀더구나.

九死敢忘忠孝願⁸⁾,
 구 사 감 망 충 효 원

몇 번 거듭 죽은들 감히 충효의 염원
 잊겠으며,

殘年重別水雲鄉⁹⁾。
 잔 년 중 별 수 운 향

만년에 또 다시 고향산천 떠날 수
 있으랴.

喬陵松檜風霜苦¹⁰⁾,
교릉송회풍상고

높은 언덕 소나무며 편백나무 풍상에
시달리고,

半夜寒聲入夢長¹¹⁾.
반야한성입몽장

밤중에 한풍寒風 세찬데 꿈자리도
길더구나.

- 1) 산릉(山陵): 국장(國葬)하기 전에 아직 이름을 짓지 아니한 새 능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기서는 선조(宣祖)의 원비(元妃)인 의인왕후(懿仁王后: 1555~1600)의 능을 칭하는 것이다. 의인왕후는 본관이 반남(潘南)이고, 성은 박(朴)이며, 오위도총부(五衛都總府)의 주장인 도총관과 용인현령이었다가 따님이 왕비로 귀하게 되자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등을 역임하며 후일 영의정에 추증된 반성부원군(潘城府院君) 박응순(朴應順)의 딸이며, 정식 시호는 장성휘열 정헌경목 의인왕후(章聖徽烈貞憲敬穆懿仁王后)이다.

의인왕후는 후사를 두지 못했으며, 선조가 후궁인 공빈(恭嬪) 김씨(광해군光海君의 어머니)를 총애하면서 왕실로부터도 소외되었다. 선조는 공빈을 이어 인빈(仁嬪) 김씨를 총애하였으며, 당시 임진왜란으로 의주(義州)로 피난을 떠날 때에는 인빈 김씨와만 함께하였다(이때는 공빈 김씨는 이미 별세하였음).

정유재란(丁酉再亂: 1597~1598)으로 피난길에 오를 때에도 여전히 인빈 김씨와만 동행하였다. 이렇게 2차에 걸친 대란으로 더욱 소외되고 쇠약해진 의인왕후는 1600년 6월 27일 46세의 나이로 소생 없이 세상을 하직하였다.

서애는 임란(壬亂: 1592~1598)과 정유재란(丁酉再亂)이라는 전대미문의 환란시기(1592~1598)에 출장입상(出將入相)의 양면을 통해, 양란(兩亂)의 극복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나, 조·명(朝明)연합군이 왜군과의 울산전투에서의 패배로, 명군 작전 감독기관인 경략(經略: 현 보안부대 성격) 형개(邢玠) 수하의 병부주사(兵部主事) 정응태(丁應泰)가 명군(明軍) 지휘부와 조선 조정을 싸잡아 탄핵했을 뿐 아니라, 조선이 일본과 연합하여 명나라를 공격하려한다는 것 등의 20여 가지의 사건을 명 황제에게 무고(誣告)함으로써, 조선 조정은 이로 인해, 일대 파란을 겪게 되었으며, 그 중심에 서애가 있었다. 서애는 이때 이 사건의 진상을 해명하는 진주사(陳奏使)로 가지 않는다 하여, 당시 북인(北人)의 탄핵을 받아, 관직을 삭탈 당했으며(1598년 12월 6일), 1600년에 복관되었으나, 다시는 벼슬을 하지 않고 안동 하회에서 은거하였다.

서애는 낙향이후, 방문객을 사절하고 옥연서당에서 『징비록(懲毖錄)』을 집필하거나 시문(詩文)을 쓰며 은거하던 중, 1600년(서애 59세) 7월에, 의인왕후의 승하소식을 접하고, 옥연서당에 나가서 거애(擧哀: 초상이 났을 때 초혼招魂을 하고 나서 슬피 울어 초상단 것을 알리는 의식儀式)하고 나서, 개인적으로 감히 신위를 설치할 수 없어, 다만 서쪽을 바라보고 곡배(哭拜)만 하였다. 12월에는 위의 시제(詩題)에서 밝히고 있듯이 서쪽으로 산릉(山陵)에 갔으며, 21일에는 재궁(梓宮: 의인왕후의 관槨)을 동성(東城) 밖 길가에서 곡송(哭送)하고 그날로 귀향하였다.(이상은 「서애년보」 참조)

- 위의 시제(詩題)로 추측하건대, 서에는 의인왕후의 국상(國喪)을 조문하러 가는 길에, 용궁(龍宮)에 살고 있는 생질에게 들러서, 위의 시를 지은 것으로 보인다.
- 2) 용궁(龍宮) : 용궁현(龍宮縣). 지금의 경북 예천군(醴泉郡) 용궁면(龍宮面)이다. 이 곳은 바로 류성룡의 여동생 시택(總宅)의 소재지이다. 여동생은 여주(驪州) 이씨로 출가하여, 당시 용궁(龍宮)에서 살았으며, 남편 이윤수(李潤壽)의 묘지도 용궁현 읍내 청산리(靑山里)에 있다. 여동생은 남편 이윤수와 사이에서 4남 2녀를 두었는데, 위의 시제(詩題)에 보이는 돈(焄)과 찬(燦)은 각각 여동생의 첫째와 둘째 아들이니, 바로 류성룡의 생질이 되겠다(이상은 이만구李敏求가 쓴 이윤수의 묘갈명墓碣銘에 보임).
- 3) 이생돈찬(李甥焄燦) : 생질 이돈(李焄)과 이찬(李燦) 형제.
- ① 이돈(李焄 : 1572~1622) : 자는 백명(伯明), 호는 매원(梅園). 본관은 여주(驪州). 이윤수(李潤壽)의 장자이다. 서애의 생질이며, 그의 문하에서 수학(受學)하였다. 천성이 효우(孝友)하여 가정을 잘 다스렸으나 과거에 응하지 않아 곤궁하게 살다가 일생을 마쳤다.
- ② 이찬(李燦 : 1575~1654) : 조선 인조 때의 의학자. 자는 중명(仲明), 본관은 여주(驪州)이나, 그는 용궁(龍宮)에 살았다. 호는 국창(菊窓), 또는 매원(梅園)이다. 서애의 생질(甥姪)로서, 그에게서 수업하였다. 서애는 특별히 그를 소중하게 여겨 ‘천리구(千里駒 : 천리마. 뛰어나게 잘난 자제를 칭찬하는 말)’로 지목(指目)하였다. 인조 때에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 사어(司禦)에 임명되고, 잇달아 종부주부(宗簿主簿), 공조좌랑(工曹佐郎)으로 등용되고, 이어서 군위(軍威) 현감으로 내려갔다가 병으로 사임하였다. 그 뒤 다시 왕의 특명으로 내의원(內醫院)에 나가 어약(御藥)을 바치다가 공조정랑(工曹正郎)을 거쳐 금산현감(金山縣監)으로 있다가 병으로 사망하였다.(이상은 『서애전서(西厓全書)·문현록(門賢錄)』 참조)
- 4) 병기총충숙효장(病起恩恩東曉裝 : 병석에서 일어나자 총총히 새벽여장 꾸려서) :
- ① 병기(病起) : 병이 났다. 치료하다. ‘기(起)’는 ‘치유(治癒)’하다는 뜻이다.
- ② 총총(恩恩) : 총총(忽忽)과 같은 말이다. 총(恩)과 총(忽)은 동자(同字)이다.
☆창졸간에. 분주하다. 황급하다. 총망하다.
- ③ 숙효장(東曉裝) : 새벽 짐을 싸다. 속장(束裝), 여장을 꾸리다. 길 떠날 준비를 하다.
- 5) 역정천리소빙량(驛程千里遡靄涼 : 천리길 여정旅程 설한풍雪寒風 무릅쓰고 길을 나섰다) :
- ① 역정(驛程) : 역참 사이의 이정(里程).
- ☆역참(驛站)은 조선시대 국가의 명령과 공문서의 전달, 변방의 긴급한 군사 정보 및 외국 사신 왕래에 따른 영송(迎送)과 접대, 그리고 공공 물자의 운송 등을 위하여 설치한 교통 통신기관이다. 병조의 지방기관으로 관찰사의 감독을 받음. 郡 관할 지역에도 설치했음. 현대의 정보기관이라 할 수 있음.
- ☆역참(驛站)은 조선시대에 관원이 공무로 다닐 때에 숙식을 제공하고 빈객을 접대하기 위하여 각 주(州)와 현(縣)에 둔 객사(客舍)이며, 이는 대개 25리마다 일참(一站)을 두었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음.
- ② 소빙량(遡靄涼) : 눈바람 안고(맞고)라도 가다.

☆소(溯): 소(溯)와 동자(同字).

a. 향하여 가다. b. 역류하여 올라가다. c. 소급하다. d. 회상하다.

e. 하소연하다. f. 간곡히 말하다.

☆방(霧): (눈, 비, 눈물 등이) 억수로 쏟아지는 모양.

☆량(涼): (바람이) 한랭하다.

- 6) 청사만석상영대(晴沙晩石相榮帶: 황혼 깃든 암벽이 햇볕 쬔 백사장 따라 이어졌는데):

① 청사(晴沙): 햇볕 쬔 백사장.

② 만석(晩石): 황혼 깃든 암벽. 황혼녘의 바위 길.

③ 상영대(相榮帶): 서로 얹히면서 이어지다. 이는 여로(旅路)의 지형(地形)을 형용한 말이다.

- 7) 낙일고운정묘망(落日孤雲正杳茫: 석양에 물든 구름 한 조각 아득히 멀더구나):

① 낙일(落日): 석양. 혹은 석양의 햇볕을 가리키기도 함.

② 고운(孤雲): 외로이 떠 있는 구름 조각.

③ 묘망(杳茫): 아득하다. 망망하다. 막연(막막)하다.

- 8) 구사감망충효원(九死敢忘忠孝願: 몇 번 거듭 죽은들 감히 충효의 염원 잊겠으며):

① 구사(九死): ‘만사(萬死)’와 같은 말. ‘구(九)’는 수(數)의 극한을 나타냄.

② 감(敢): 어찌 감히 ~하겠는가!

- 9) 잔년중별수운향(殘年重別水雲鄉: 만년에 또 다시 고향산천 떠날 수 있으랴):

① 잔년(殘年): 잔생(殘生)과 같은 말이다.

☆일생에 얼마 남지 않은 세월. 주로 사람의 만년(晩年)을 가리킨다.

☆세모(歲暮), 즉 한 해가 끝날 무렵을 가리킨다.

② 중별(重別): 다시 이별하다.

③ 수운향(水雲鄉): 물이 맑고 아름다운 구름이 떠 있는 풍광이 수려하고 그윽한 곳. 주로 은자가 머무는 곳을 가리킨다. 본 시에서는 고향을 가리킨다.

- 10) 교릉송회풍상고(喬陵松檜風霜苦: 높은 언덕 소나무며 편백나무 풍상에 시달리고):

① 교릉(喬陵): 높은 산언덕.

☆교(喬): 높다. 높이 치솟다.

☆릉(陵): 큰 언덕. 산언덕.

② 송회(松檜): 소나무와 편백(扁柏).

③ 풍상(風霜): 바람과 서리를 아울러 이르는 말.

- 11) 반야한성입몽장(半夜寒聲入夢長: 한밤중에 한풍寒風 세찬데 꿈자리도 길더구나):

① 한성(寒聲):

☆추운 겨울에 들리는 소리: 바람소리, 새소리, 눈비 오는 소리 같은 것을 말함.

② 입몽(入夢): 꿈결에 접어들다. 잠이 드는 것을 가리킨다.



시23. 생질 이돈李焞 형제가 호계현虎溪縣까지
배웅해 주며 작별하다

詩23. 李焞兄弟¹⁾追別於虎溪²⁾
이 돈 형 제 추 별 어 호 계

二子聯鑣遠³⁾,
이 자 연 표 원

두 형제 나란히 말 타고 멀리까지
나와서,

臨溪送我行。
임 계送我행

호계현虎溪縣에 이르러 내 가는 길
전송해 주네.

那堪垂老日⁴⁾,
나 감 수로일

하물며 노년에 이른 이 시기임에랴!

重抱望鄉情⁵⁾。
중 포 망향정

다시 한 번 도타운 고향 정 느낄 수
있었네!

野樹寒風急,
야수한풍급

들판의 수림에는 찬바람이 세찬데,

關門夕照⁶⁾明。
관문석조명

관문에는 저녁노을 질게 깔렸네.

應將⁷⁾一罇酒,
응갈일준주

술잔 들어 화답코자 하는데,

春草又相迎⁸⁾。
춘초우상영

봄풀 또한 나를 반기네.

- 1) 이돈(李焯) 형제: 서애의 생질(甥姪), 이돈(李焯: 1572~1622)과 이찬(李燦: 1575~1654)을 말함. 「시22」의 주석3)을 참조 바람.
- 2) 추별어호계(追別於虎溪: 호계현까지 배웅해주며 작별하다):
 - ① 추별(追別): (누구가) 배웅하여 작별하다.
 ☆추(追): 배웅하다, 전송하다.
 ☆별(別): 작별하다.
 - ② 호계(虎溪): 호계현(虎溪縣). 지금의 경북 문경군(聞慶郡) 점촌시(店村市: 곧 문경 동남 40리 되는 지역임). 본래 신라에서는 호측현(虎側縣)이었는데 경덕왕이 호계현으로 고쳐 고령군(古寧郡)의 영현(領縣)으로 하였다. 고려 현종 때 상주(尙州)의 안내로 하였고 1416년(태종 16)에 문경현에 내속시켰다. 그 뒤 호계내면(虎溪內面)으로 되었다가 1914년 행정구역개편 때 호계면이 되었다. 1995년 문경군과 점촌시가 통합되어 문경시가 되었다. 호계현의 위치는 문경 남쪽 15km 지점에 있으며 낙동강의 지류인 영강(潁江) 중류에 자리 잡고 있다.
 본 시로 말하자면, 생질 형제가 서애를 배웅하기 위해, 용궁에서 호계까지 대략 20리(8km)를 따라 나와서 배웅을 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 3) 이자연표원(二子聯鑣遠: 두 형제가 나란히 말 타고 멀리까지 나와서):
 - ① 이자(二子): 두 형제. 서애의 생질, 이돈(李焯) 형제를 가리킨다. 이때의 ‘자(子)’는 ‘인(人: 사람)’의 뜻이다.
 - ② 연원(聯鑣遠): 나란히 말을 타고 멀리까지 오다(가다).
 ☆연(聯): 쌍, 짝의 뜻이나, 여기서는 부사로 쓰여, “짝지어, 나란히”의 뜻으로 쓰였음.
 ☆표(鑣): 말을 부리기 위해 아가리에 가로 물리는 막대, 곧 ‘재갈’임. 혹은 ‘말을 타는 것’을 가리키기도 한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4) 나감수로일(那堪垂老日: 하물며 노년에 이른 이 시기임에랴):
 - ① 나감(那堪):
 ☆하물며.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음.
 ☆어찌 견디라고(견디느냐)
 - ② 수로(垂老): 노년(老年)에 이르다. 노년을 가리킨다.
- 5) 중포망향정(重抱望鄉情: 다시 한 번 도타운 고향 정 느낄 수 있었네):
 - ① 포(抱): (생각, 의견을) 품다. 중포(重抱): 다시 (생각, 의견을) 품다.
- 6) 석조(夕照): 석양, 저녁노을. 낙조(落照).
- 7) 응장(應將): 술잔 들어 화답하다. ‘응(應)’은 받다, 접수하다. 화답하다, 응수하다. ‘장(將)’은 잡다, 취(取)하다.
- 8) 상영(相迎): 나를 맞이하다. 여기서 ‘상(相)’은 자칭(自稱: 자기 자신을 칭함)을 표현하기도 하고, 대칭(對稱: 제2인칭), 혹은 타칭(他稱: 제3인칭)을 표현하기도 함. 본 시에서는 자칭(自稱)을 표현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시24. (경기도) 장항^{獐項} 협곡 입구에서
출발하여 충주^{忠州}를 바라보며

詩24. 出獐項峽口望忠州¹⁾
출 장 항 협 구 망 충 주

野闊天回一望愁,
야 환 천 회 일 망 수

넓은 들판 하늘에 싸여서
언뜻 봐도 수심에 잠기는데,

中原歸路更悠悠²⁾.
중 원 귀 로 경 유 유

충주 거쳐 귀향하는 길이
더 아득하구나.

山從劒石來方壯,
산 종 검 석 래 방 장

산줄기 따라 늘어선 칼바위
오는 길이 장관인데,

水遶金灘³⁾去未休.
수 요 금 탄 거 미 휴

강물은 탄금대^{彈琴臺}를 감돌며
끊임없이 흘러가네.

浮世幾人青入眼⁴⁾,
부 세 기 인 청 입 안

세상에 몇 사람이나
남에게 호감 받았겠나만,

少年爲客白渾頭⁵⁾.
소 년 위 객 백 혼 두

소년시절부터 나그네였던 나
백발이 다 됐네.

惟將老淚供多感⁶⁾,
유 장 로 루 공 다 감

단지 늙은이 눈물이라 감상^{感傷}에
쉬이 젖은 게지만,

灑盡千行寄北流⁷⁾.
 세진천항기북류

흐르는 눈물 다 뿌려
 북류하는 강물에 부치려네.

1) 출장항협구 망충주(出獐項峽口望忠州 : 장항 협곡 입구에서 출발하여 충주를 바라 보며) :

① 장항협구(獐項峽口) : 장항(獐項 : 노루목)의 협구(峽口 : 협곡의 입구).

☆장항(獐項) : 충주에서 丹陽으로 가는 길에 있는 첫 峽谷으로 현재의 충주시 佳洲洞이다(李泳澤 著 『韓國의 地名』 (서울:太平洋, 1986). 충주 건국대학교 분교 앞 - 탄금대 충렬사를 지나 수안보로 가는 길(국도 3호)이 충주를 마지막으로 볼 수(相望) 있는 곳임).

② 충주(忠州) : 지금의 충북 북동부에 위치한 충주시를 가리킨다. 고구려 때의 국원성(國原城)으로, 일명 미을성(末乙城) 혹은 난장성(亂長城)이라고도 하였다. 진흥왕 때(540~575) 공략하여, 소경(小京)을 설치하고, 경덕왕 때(742~764)에 '중원경(中原京)'으로 개명하였다. 고려 태조 때(918~943)에 '충주(忠州)'라 칭하고, 목사(牧使)를 두었다가 절도사를 주재시키고, 창화군(昌化郡)이라 하고, 중원도(中原道)에 예속시켰다. 현종 때는 이것을 폐하고, 안무사(安撫使)를 두었고, 1254년(고종 41년)에는 국원경(國原京)으로 승격하였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즉 1449년(세종 31년)에 관찰사를 두어 판목사를 겸임하였고, 세조 때 진(鎭)을 설치하였다. 현대에 이르러, 충북 제일의 도시로 도청소재지가 되었으나, 1908년에 도청이 청주(淸州)로 이전되고, 1956년 7월에 시로 승격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2) 증원귀로경유유(中原歸路更悠悠 : 충주 거쳐 귀향하는 길이 더 아득하구나) :

① 증원(中原) : 충북 충주시의 신라시대 때의 지명.

② 유유(悠悠) : 끝없이 요원한 모양.

3) 수요금탄(水遶金灘) :

① 수(水) : 여기의 '수(水)'는 남한 강수(南漢江水)와 달천 강수(達川江水)가 합류하여 탄금대(彈琴臺)를 감아 돌아 흐르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남한강(南漢江)과 달천(達川) : 충주에는 오대산(五臺山)에서 발원하여, 충주시의 북부시계(北部市界)를 관통하며 흐르는 남한강과 명승고적지인 속리산(俗離山)을 분수령으로 남에서 북류하는 달천이 이 고장의 명승지인 탄금대(彈琴臺 : 金遷 : 月落灘)에서 합류하여, 그 유역일대는 광활한 평야를 이루고 있다.

② 금탄(金灘) : 탄금대(彈琴臺) .

☆충북 충주시 칠금동(漆金洞) 대문산(大門山)에 있는 전적지(戰跡地)이며, 명승지이다. 남한강과 달천의 합류점 가까이에 있는 하식애(河蝕崖 : 하천의 침식 작용으로 생긴 언덕) 구릉으로 신라 진흥왕 때 가야금의 명인 우륵(于勒)이 이곳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며 가야금을 탄주했다고 하여 탄금대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이곳은 또한 임진왜란 때 신립(申輅 : 1546~1592)이 왜군을 맞아 전사한 곳이기도 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1592년(선조 23) 4월 왜군이 양산(梁山), 밀양(密陽)을 거쳐 북상하자, 조정에서는 황급히 순변사(巡邊使) 이일(李鎰 : 1538~1601)과 도순변사(都巡邊使) 신립 등을 파견하여, 왜군의 진로를 막게 하였으나, 중과부적이었다. 신립은 조령(鳥嶺)의 지형을 이용하여, 적을 무찌르려고 하였으나, 이일이 상주(尙州)에서 패하자 충주까지 퇴각, 탄금대에서 배수진을 치고,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 : ?~1600)가 이끄는 왜군과 끝까지 맞섰으나 결국은 패하고, 같은 해 4월 26일 강물에 투신 자살하였다.

신립의 배수진에 대해서는 후일 전략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어 명장(明將) 이여송(李如松 : ?~1598)도 조령의 험한 지세를 이용하지 않고, 후퇴하여 무모한 배수진을 친 행동을 탄식했다고 한다. 신립은 선조 16년(1583) 온성부사(穩城府使 : 온성부는 지금의 함경북도 최북단에 설치한 관아였음)가 되어 북방에 근무했었다. 당시에, 변호(番胡 : 조선에 귀화한 여진족)의 수령 니탕개(尼湯介 : 생몰년 미상)가 여진족(女眞族)과 규합하여 조선국경을 침범해왔다. 신립은 북변에 침입해온 니탕개를 격퇴하고 두만강을 건너가 야인(野人)들의 소굴을 소탕하고 개설했었다. 이 사례에서 보듯이 신립은 기마전(騎馬戰)에 능한 면이 있었다.

일설에 의하면, 첫째, 북변의 경력에서 보듯이 기마전에 능했던 그가 지형지물을 이용한 험준한 지역에서의 방어전을 전개하기 보다는 평지에서 기마전으로 일거에 적군에게 타격을 가하려 하였고, 둘째, 그러한 방법으로 왜군에게 타격을 가하지 않으면 왜군은 우회하여 도성(都城)으로 진격할 것이라고 걱정하여 평지에서 배수진(背水陣)을 치고 전투에 임했던 것 같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참담한 패전의 결과는 전략전술이 전무했음을 뿐만 아니라, 적군의 전투력에 과악하지 못했고 아군의 상황도 고려하지 못했던 무능한 장수였다는 비판은 면할 수 없을 것 같다.

(이상은 「시25」의 주석6) 신립(申輅)조항과 『국역 류성룡 시 1』의 「시74」 주석1)의 금탄(金灘) 조항을 참조 바람)

☆경상좌도(특히 대구·안동)서 한양으로 가는 관리들이 주로 이용하는 수로 교통의 시발점인, 금탄과 문경(새재)을 잇는 구간은 육로로 말을 이용하거나 도보로 통행하고 충주서 한양까지는 수로를 이용하였다. 말을 타면 승마자가 배를 이용하기보다 피곤하여 이 수로를 많이 이용하였다고 한다. ‘남한강 상류의 수운의 시발점(始發點)’이다.

☆충주 서쪽 남한강변에 있던 조운(漕運 : 배로 물건을 실어 나름)의 요충지이다. 충주·단양·청풍·괴산·연풍·제천·영춘·음성 등 8개 고을의 세미(稅米)를 한양으로 조운(漕運)하던 곳으로 현재의 충주시 가금면 누암리(忠州市 可金面 樓巖里)의 다락바위를 중심으로 남한강을 따라 놓여있던 물 수변(水邊) 언덕 돌길로서 금천(金遷)이라고도 한다. 한강유역과 낙동강 유역을 연결하는 남북 교통의 요충지(要衝地)였다.

- 4) 부세기인침입안(浮世幾人靑入眼 : 세상에 몇 사람이나 남에게 호감 받았겠나만) :
 ① 부세(浮世) : 인간. 인간세상. 옛 사람들은 인간 세상이 부침(浮沈)하고, 취산(聚

散)하여 일정하지 않는 까닭에 이와 같이 칭하였다.

- ② 청입안(靑入眼) : ‘입청안(入靑眼)’의 도치된 말로, ‘남에게 호감을 받거나 신임 받는 측에 들다’는 뜻이다.

☆청안(靑眼) : 타인에 대해서 좋아하거나 중시하는 것(호감을 가지거나 신임 하는 것)을 가리킨다. 또는 이와 상반되는 개념으로 ‘남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하는 태도로 홀겨 본다’는 ‘백안(白眼)’도 있다.

- 5) 소년위객백혼두(少年爲客白渾頭 : 소년시절부터 나그네였던 나 백발이 다 됐네) :
**서애주석 : 서애는 본 구절에 대하여, “나는 여덟 살 때, 선친을 따라 이 읍에 살았었다(余八歲時, 隨先君子在此邑)”라고 하였다.

- ① 백혼두(白渾頭) : 머리 전체가 백발이 되다.

☆백(白) : 백발이 되다. 희어지다.

☆혼두(渾頭) :

a. 혼(渾) : 전체의, 완전한, 전부, 모든 등의 뜻이다.

b. 두(頭) : 머리. 두발.

- 6) 유장노루공다감(惟將老淚供多感 : 단지 늙은이 눈물이라 감상感傷에 쉬이 젖은 게 지만) :

- ① 유장(惟將) :

☆유(惟) : 부사로 ‘단지, 다만’의 뜻으로 쓰였음.

☆장(將) : 시(是) 혹은 위(爲)의 뜻에 상당하는 것으로, ‘~이다’의 뜻이다.

『여씨춘추(呂氏春秋)·성렴편(誠廉篇)』에, “내가 듣기로 서쪽 변방에 맹주(盟主 : 주문왕周文王을 가리킴)가 한 사람 있는데, 재능과 덕성을 갖춘 사람인 것 같다. 지금 우리가 왜 여기서 기다려야 하는가(吾聞西方有偏伯焉, 似將有道者. 今吾奚爲處乎此哉)?”라고 한 대목이 있다.

- ② 다감(多感) : 쉬이 상감에 젖다.

- 7) 기북류(寄北流) : 북류하는 강물에 (눈물을 뿌려) 부치다. 이 시구는 서애가 사직하고 귀향하면서 주군인 선조대왕에게 사의(謝意)를 표한 것으로, 그의 충성심을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 ① 북류(北流) : 앞의 주석3)의 ①을 참조 바람.



시25. 탄금대彈琴臺를 지나가며 느끼는 바가
있어, 창세昌世 박상朴祥 선생의 시에
차운하다 서문을 병기함

詩25. 過彈琴臺¹⁾有感 次朴昌世先生韻²⁾并序
과 탄금대 유감 차 박창세 선생 운 병서

나는 조정에서 도성都城[서울]은 남한강을 이용해서 견고하게 방비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충북 북부 가운데 위치한) 충주忠州는 (남한강의) 상류에 위치하니, 충주를 수비하지 못하면, 도성은 보전할 수 없다고 건의하였다. 이전에, 신립申瑰이 (경북 문경聞慶과 충북 괴산槐山 사이) 조령鳥嶺의 험준한 지역으로 전진해서 (방어진지를) 점거한 다음 충주를 견고하게 방어할 줄 모르고, (후퇴하여) 적을 평지로 끌어들여, 적과 (충주의 탄금대彈琴臺) 성 아래에서 격전을 치른 나머지, 처절하게 패배하여 수습할 수 없게 되었다. (불과) 열흘 사이에, (상주尙州, 문경聞慶, 충주忠州 등) 세 곳의 큰 고을을 모두 지켜내지 못했다.

지금은 조령과 (경북 풍기읍豊基邑과 충북 단양군丹陽郡 사이의) 죽령竹嶺 두 고개에 파수를 보고, 방어진지를 구축하여 대비하고 있으므로 걱정할 것 없다. 또한 탄금대彈琴臺에도 축성하여, 황해도와 생선과 소금을 배로 운반하여, 물길을 따라 상류로 가서, 산촌에 위치한 고을에 미국을 공급하도록 굳게 지키고 있으니, 이것은 백성의 편익을 위한 것이었으며, 군량미 같은 것도 점차 비축할 수 있게 되었다.

일처리를 타당하게 안배했지만, 내가 견책을 받고 조정에서 물러나면서, 그 일은 모두 중지되었고, 지금 내가 그 아래를 지나가는데, 내가 지난 날 생선과 소금을 비축했던 초가 몇 채가 남아 있을 따름이었다. 옛 사람이 이르기를, “천하에 뜻과 같지 않는 일이, 보통 열에 여덟아홉은 된다”고 하였는데, 어찌 (나의) 이 일을 두고만 이른 것이겠는가!

옛날에 박상朴祥 선생이 이곳 충주에 목사牧使로 있을 때 시를 읊었는데, 그 시에 이르기를 :

“빠어난 수림 경관 다 볼 수 없지만,
탄금대 아래 강물 쪽빛같이 푸르네.
문장이 강수熊峯는 무덤조차 남아 있잖고,
명필 김생金生은 황폐한 암자에 모셔졌네.
석양 무렵 강가에 배 두세 척 떠 있고,
바람 부는 물가에는 백로 서너 마리만 노니네.

가인佳人 불러 도곡사陶穀詞 노래 부르지 말라 하니,
태수太守가 듣고 얼굴에 부끄러운 빛 띄우네.”

라고 읊었다. 그 시의 운韻에 따라서 내 뜻을 기탁하여 여기 한 수 읊는다.

余在朝建議, 以爲都城以長江³⁾爲固⁴⁾, 而忠州居上流, 忠州不守,
여 재 초 간 의 이 위 도 성 이 장 강 위 고 이 충 주 거 상 류 충 주 불 주
 則都城不可保。往時⁵⁾ 申砬⁶⁾ 不知進據⁷⁾ 鳥嶺之險, 以固忠州,
척 도 성 불 가 보 왕 시 신 락 부 지 진 거 조 령 지 험 이 고 충 주
 而引賊入平地, 與戰於城下, 一敗塗地⁸⁾。浹旬之間, 三都皆失守⁹⁾。
이 인 적 입 평 지 여 전 여 성 하 일 패 도 지 협 준 지 간 삼 도 개 실 수
 今當¹⁰⁾ 於鳥竹¹¹⁾ 二嶺, 設險¹²⁾ 以備不虞。又築城彈琴臺,
금 당 어 조 죽 이 령 설 험 이 비 불 우 우 축 성 탄 금 대
 使可據守¹³⁾ 船運黃海道魚鹽, 溯流¹⁴⁾ 而上, 散糶¹⁵⁾ 山郡¹⁶⁾, 旣爲民利,
사 가 거 주 선 운 황 해 도 어 염 소 류 이 상 산 적 산 군 기 위 민 리
 漸可儲置¹⁷⁾ 軍糧云云¹⁸⁾。
점 가 자 치 군 령 운 문
 事幾¹⁹⁾ 就緒²⁰⁾, 而余以譴去國²¹⁾, 其事俱罷, 今過其下,
사 기 위 서 이 여 이 견 거 국 기 사 구 파 금 과 기 하
 獨前時貯魚鹽小草屋數間在耳。古人云: “天下不如意事,
독 전 시 저 어 염 소 초 옥 주 간 재 이 고 인 운 천 하 불 여 의 사
 十常八九。” 豈謂是耶!
십 상 팔 구 기 위 시 야
 昔朴先生祥²²⁾, 牧此州有詩曰:
적 박 선 생 상 목 차 주 유 시 율
 異境森羅不可探²³⁾,
이 경 삼 라 불 가 탐
 彈金臺下水如藍。
탄 금 대 하 수 여 란
 文章強首無遺墓²⁴⁾,
문 장 강 수 무 유 묘
 翰墨金生有廢庵²⁵⁾。
한 묵 금 생 유 폐 암
 落日上江船兩兩²⁶⁾,
낙 일 상 강 선 양 양
 斜風盤渚鷺三三²⁷⁾。
사 풍 반 저 토 삼 삼
 陶詞²⁸⁾ 莫遣佳人唱,
도 사 막 견 가 인 창
 太守聞來面發慚。
태 수 문 래 면 발 참
 次其韻, 以寓余意²⁹⁾ 云。
차 기 운 이 우 여 의 운

上流形勝³⁰此中探,
상류형승 차중탐

상류의 수려한 경치 이곳에서 찾았나니,

山擁金城³¹水繞藍。
산옹금성 수요람

산은 금빛 성처럼 둘러싸고 강물은
쪽빛으로 감도네.

興廢有時雙淚眼,
흥폐유시쌍루안

흥망에 때가 있다하나 눈물만 흐르는데,

關津無賴一茅庵³²。
관진무뢰일모암

나루터에 초소라곤 외로운 초가
한 채만 서있네.

還憐銳卒空輸萬³³,
환련예출공수만

아직도 애통하네 헛되이 상실한 일만
장병이며,

坐使雄都³⁴盡失三。
좌사웅도진실삼

앉아서 잃었었던 웅장한 세 고을이!

廊廟數年無寸效³⁵,
랑묘수년무촌효

조정에서 수년간 작은 공도
못 세웠으니,

倚風料理³⁶只心慚。
의풍료리지심참

바람 쐬며 위안해 봐도 마음만
참담하네.

1) 탄금대(彈琴臺): 「시24」 주석3)의 ②를 참조 바람.

2) 차박창세선생운(次朴昌世先生韻):

① 차운(次…韻): 「시15」 주석1) ②를 참조 바람.

② 박창세(朴昌世): 창세(昌世) 박상(朴祥): 박(朴)은 성씨이고 창세(昌世)는 자(字)이다. 이렇게 성씨 다음에 이름 대신 자와 호 또는 직함을 쓰는 것은 경칭(敬稱)의 한 예이다.

☆박상(朴祥: 1474~1530): 조선 초기의 문장가. 자는 창세(昌世), 호는 눌재(訥齋), 시호는 문간공(文簡公), 본관은 충주(忠州)이다. 1503년(연산군 9) 문과에 급제하여 교서관정자(校書館正字), 사간원헌납(司諫院獻納), 한산군수(韓山郡守), 담양부사(潭陽府使), 의빈도사(儀賓都事), 순천부사(順天府使), 상주목사(尙州牧使), 나주목사(羅州牧使) 등 여러 벼슬을 지냈다. 어려서는 총명 소탈하고 일을 함에는 단호하여 범치 못할 기개가 있어 누차 풍파(중종비 단경왕후 신씨端敬王后愼氏 복위復位문제 유배됨)를 겪었어도 초연히 화를 면하였다. 이

퇴계(李退溪 : 이황李滉 : 1501~1570)는 그의 고풍탁식(高風卓識)을 일컬어 하늘이 내린 완인(完人)이라 하였다. 성현(成俔 : 1439~1504, 호는 부휴자休休子), 신광한(申光漢 : 1484~1555, 자는 한지漢之), 황정욱(黃廷彜 : 1532~1607, 호는 지천芝川)과 더불어 조선 전기의 학자, 서거정(徐居正 : 1420~1488, 호는 사가정四佳亭) 이후의 사가(四家)로 칭한다.

- 3) 장강(長江) : 본 시에서는 남한강을 가리킨다.
- 4) 고(固) : 견수(堅守), 즉 ‘건고하게 수비하다’는 뜻이다.
- 5) 왕시(往時) : 종전에, 이전에.
- 6) 신립(申瑬 : 1546~1592) : 조선 선조 때의 무장(武將). 자는 입지(立之), 시호는 충장(忠壯). 본관은 평산(平山)이다.

22세에 무과에 급제, 선전관(宣傳官), 도총(都摠), 도사(都事)의 경력을 거쳐 진주판관이 되었다. 명종 때의 문인 양응정(楊應鼎 : 1519~1581)에게 사사(師事)함. 그 후 온성부사(穩城府使)가 되었다. 이 당시 귀화했던 여진족의 추장 니탕개(尼湯介)가 난을 일으켰는데, 이를 평정하고 함경북병사(咸鏡北兵使)가 됨. 선조는 후궁소생 왕자 우(瑠)를 신립의 맏딸과 결혼시켰다. 신립은 그 후 한성부판윤(漢城府判尹)을 역임하였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도순변사(都巡邊使)에 임명되어, 전략에 탁월한 무장 김여물(金汝術 : 1548~1592)을 부장(副將)으로 데리고 장병을 모집하여 충주로 갔다(당시 김여물은 의주목사로 재직 중이었으나, 서인西人인 정철(鄭澈 : 1536~1593)의 일당으로 몰려 의금부에 투옥되어 있었다. 도체찰사(都體察使)로 재직 중이던 서에 류성룡(西厓柳成龍 : 1542~1607)이 그의 무략武略이 탁월한 것을 인정하고 그를 석방시켜 막중幕中에 두려고 하였으나, 신립이 자신의 종사관으로 김여물을 데리고 간 것임)

이때 순변사(巡邊使) 이일(李鎰 : 1538~1601)이 상주(尙州)에서 패하고 쫓겨 왔다. 신립은 그를 처형하고 싶었지만, 그의 재능을 애석하게 여겨 선봉에 세워 속죄할 기회를 주었다. 김여물은 왜적의 북상로인 조령(鳥嶺)의 형세를 정찰하고 나서, 소수 병력으로 다수의 적군을 격퇴시키는 데는 먼저 지형지세를 이용하여 조령에 진지(陣地)를 구축해야 하며, 여의치 못할 때는 평지보다는 높은 언덕을 이용하여 적을 역습하는 것이 좋다고 강력히 건의하였으나, 채택되지 않았다. ‘적은 이미 조령 고개 밑에 당도하였으니, 고개에서 서로 부딪치게 되면 매우 위험하다. 더구나 아군은 아무런 훈련도 받지 못한 장병들이니, 사지(死地)에 갖다 놓지 않으면 용기를 내지 않을 것이다’는 것이 신립의 생각이었다. 그래서 신립은 충주로 후퇴하여 달천(達川)을 등 뒤에 두고 ‘배수의 진(背水之陣)’을 쳤다. 조선군은 탄금대(彈琴臺) 아래서 용전분투하며 적진을 돌파하려고 하였으나, 중과부적(衆寡不敵)인데다가 적이 우회작전으로 조선군의 우측에서 진출하여 동서 양측에서 협공함으로 인해, 조선군은 대패했다. 신립과 김여물은 강물에 투신하여 생을 마감하였다.

- 7) 진거(進據) : 진입하여 점거하다.
- 8) 일패도지(一敗塗地) : 철저히 패배하여 수습할 수 없음을 형용한 말. 『한서(漢書) · 고조본기 상(高祖本紀上)』에 “천하 각지가 바야흐로 어지러워, 영웅들이 속속 거병하고 있소. 지금 조치하는 장수가 훌륭하지 못하면, 철저히 패배하여 수습할 수 없게 될 것이요(天下方擾, 諸侯並起. 今置將不善, 一敗塗地)”라고 하였다. 당(唐)나라 학자 안사고(顏師古 : 581~645)가 이 글에 주석(注釋)하기를, “일견해서

패배했다는 것인즉, 전사한 병사들의 간과 뇌가 진흙탕 속에 나뒹군다는 말이다(一見破敗，卽肝腦塗地)”고 하였다.

- 9) 협순시간, 삼도개실수(浹旬之間，三都皆失守) : 불과 열흘 사이에, 세 곳의 큰 고을이 모조리 함락되었다 :

- ① 협순(浹旬) : 일순(一句), 즉 ‘열흘’이란 뜻이다. 고대에는 간지(干支)로 날짜를 기록했는데, ‘갑·을·병·정·무·기·경·신·임·계(甲乙丙丁戊己庚申壬癸)’의 한 바퀴를 돈 10일을 일컬어, ‘협일(浹日)’이라 하였다. 바꾸어 말하면, ‘갑(甲)’에서 ‘계(癸)’까지 한 바퀴 돈 열흘간을 ‘협순(浹旬)’이라고 하는 것이다.
- ② 삼도(三都) : 세 곳의 큰 고을. ‘도(都)’는 국도(國都), 경도(京都), 도읍(都邑) 등의 뜻이 있는데, 본문에서는 도읍(都邑 : 도회(都會))의 뜻으로 쓰여, ‘큰 고을’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상주(尙州), 문경(聞慶), 충주(忠州)를 가리킨다. 임진왜란이 발발한 해인 1592년(선조 25) 4월 14일에 부산이 함락된 이후, 4월 24일에 이일(李鎰 : 1538~1601)이 상주에서 고니시 유키나가(소서행장小西行長 : ?~1600)가 인솔하는 왜군과 싸워 대패하고, 충주로 패주(敗走)하였다. 왜군은 곧 바로 북진하여, 문경에 당도하자, 신립(申唼 : 1546~1592)은 협준한 조령(鳥嶺 : 새재)의 지세를 이용하여 전투 한 번 안 해 보고 충주로 후퇴하여, 탄금대(彈琴臺)에서 배수진(背水陣)을 치고 싸웠으나 역시 고니시 유키나가를 선두로 한 왜군에게 참패당했다. 불과 열흘이 안 되어 상주, 문경, 충주가 함락된 것이다. 자세한 것은 서예의 『징비록(懲毖錄)』 권1(이재호(李載浩 : 1920~) 번역 권1 제4장 ‘충주성忠州城의 패전과 수도首都의 위급’ 편)을 참조 바람.

- 10) 당(當) : 파수(把守)를 보다. 수비하다. 보초를 서다.

- 11) 조죽(鳥竹) : 조령(鳥嶺)과 죽령(竹嶺).

- ① 조령(鳥嶺) : 새재. 경북 문경시(聞慶市)와 충북 괴산군(槐山郡) 사이에 있는 고개. 높이는 해발 1017m.
- ② 죽령(竹嶺) : 경북 영주시(榮州市) 풍기읍(豊基邑)과 충북 단양군(丹陽郡) 대강면(大崗面) 사이에 있는 고개. 높이는 해발 689m.

- 12) 설험(設險) : 협준한 지형을 이용하여 방어진지를 구축해 놓은 것을 이르는 말.

- 13) 거수(據守) : 군세게 자리 잡고(옹거하여) 버티어 지키다.

- 14) 소류(遡流) : 물이 거슬러 흐르거나 또는 거슬러 흐르는 물.

- 15) 산적(散糶) : 미국 가격이 폭등할 때, 조정에서 미곡을 출하하여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을 이른다. 산(散)은 ‘분산하다’는 뜻이고, 적(糶)은 ‘사들인 미곡’이라는 뜻이다.

- 16) 산군(山郡) : 산읍(山邑). 산골에 있는 마을.

- 17) 저치(儲蓄) : 저축(儲蓄). 비축(備蓄).

- 18) 운운(云云) :

- ① 조사(助詞)로 문장 끝에 쓰인다. 이때의 ‘운운(云云)’은 뜻이 없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② ‘여차(如此)’와 같은 말로서, 언어나 문장을 생략할 때 많이 쓰며, ‘(이)와 같다, 여차여차하다, 이러이러하다’의 뜻이다.

- 19) 사기(事幾) :

- ① 일, 사정.
- ② 실행(행동, 처리)하는 시기.

- 20) 취서(就緒) : 그 본업에 종사함을 이룸. (타당하게 안배하여 조리가 있음을 가리키는데 쓰는 말임)
- 21) 거국(去國) : 경도(京都)나 조정(朝廷)을 떠나다.
- 22) 박선생상(朴先生祥) : 박상(朴祥) 선생. 본 시 주석2)를 참조 바람. 이렇게 성씨 다음에 존칭을 쓰고 이름을 그 뒤에 쓴 것은 『주례(周禮)』에 따른 경칭(敬稱)의 한 예(例)이다.
- 23) 이경삼라불가탐(異境森羅不可探 : 빼어난 수림 경관 다 볼 수 없지만) :
- ① 이경(異境) :
 - ☆미묘한 경계.
 - ☆이역(異域), 타향.
 - ② 삼라(森羅) :
 - ☆수목(樹木)이 무성하게 늘어서다.
 - ☆(사람들이) 줄줄이 늘어서다.
- 24) 문장강수무유묘(文章強首無遺墓 : 문장가 강수強首는 무덤조차 남아 있잖고) :
- ① 문장(文章) : 문장가를 가리킨다.
 - ② 강수(強首 : ?~692) : 신라의 유학자이자 문장가. 무열왕, 문무왕, 신무왕 3대에 걸쳐 문장으로 이름을 떨쳤으며, 특히 외교 문서에 능하여, 삼국통일에 크게 공헌하였다. 이 업적으로 문무왕 때에는 사찬(沙飡 : 신라 때에 둔 십칠 관등 가운데 여덟째 등급)의 벼슬을 받았다. 그 때 강수(強首)는 설총(薛聰)과 함께 9경으로써 제자들을 가르쳤다. 그를 강수라고 부르게 된 연유는 태종 무열왕이 처음 그를 보았을 때에 두골(頭骨)이 뒤로 툭 튀어나왔다고 해서 강수선생(強首先生)이라고 부르면서 생긴 것이다.
- 25) 한묵김생유폐암(翰墨金生有廢庵 : 명필 김생金生은 황폐한 암자에 모셔졌네) :
- ① 한묵(翰墨) : 필묵(筆墨 : 붓과 먹). 전(轉)하여, ‘문장이나 서화(書畵)’의 뜻으로 씀.
 - ② 김생(金生 : 711~791) : 신라 후기의 명필. 어려서부터 서도에 정진, 일생을 바쳐 필법을 닦아 예서(隸書), 행서(行書), 초서(草書)에서 그를 따를 사람이 없었다. 고려 사신 홍관(洪灌)이 송나라에 갈 때, 김생이 글씨를 가져다 보이자 송나라에 서는 왕우군(王右軍)에 비할 천하의 명필이라고 격찬했다. 그 후부터 중국 사신은 김생의 필적을 보배로 알고 구득(求得)하여 갔다고 하며, 해동서성(海東書聖)으로 불렸다. 그의 필적으로, 백률사석당기(栢栗寺石幢記 : 국립박물관 경주분관에 서 보관), 백월서운탑비(白月栖雲塔碑 : 현재는 경북공예 이진되어 있음), 창림비(昌林碑 : 경주 소재) 등이 전하고 있다.
- 26) 양량(兩兩) :
- ① 쌍쌍이. 쌍을 이루다.
 - ② 띄엄띄엄하다. 드문드문하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음.
- 27) 사풍반저노삼삼(斜風盤渚鷺三三 : 바람 부는 물가에는 백로 서너 마리 노니네) :
- ① 사풍(斜風) : 비껴 부는 바람. 엇비슷하게 스쳐 가는 바람.
 - ② 반저(盤渚) : 감도는 물가. 반(盤)은 ‘돌다, 선회하다’이고, 저(渚)는 ‘물가, 수에(水涯)’의 뜻이다.
 - ③ 삼삼(三三) : 본 시에서는 ‘삼삼량양(三三兩兩 : 두셋씩 함께 모임. 그 수가 많지 않음을 형용한 말)’ 또는 삼삼사사(三三四四 : 삼삼량양三三兩兩과 같은 뜻임) 또는 삼삼

오오(三三五五)와 같은 뜻으로, 숫자가 많지 않음을 형용한 말이다.

- 28) 도사(陶詞) : 도곡(陶穀 : 903~970)이 지은 곡사(曲詞)인 「풍광호(風光好)」를 가리킨다. 본 시구에서 박상(朴祥)이 태수에게 일러 가인을 불러서 도곡의 사를 노래 부르지 못하게 한 이유는 아래 주석①의 별표[☆] 「풍광호(風光好)」 조항을 참조 바람. 먼저 작가를 소개하고, 해당 곡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붙이면 다음과 같다.

- ① 도곡(陶穀 : 903~970) : 송(宋)나라 빈주(邠州) 신평현(新平縣), 지금의 섬서성(陝西省) 빈현(邠縣) 사람이다. 본성은 ‘당(唐)’씨였으나, 후진(後晉) 고조(高祖) 석경당(石敬瑭 : 892~942)의 ‘당(唐)’자와 발음이 같은 것을 기피하여 도(陶)씨로 성씨를 바꾸었다. 자는 수실(秀實)이다.

도곡의 부친 당환(唐渙)은 이주자사(夷州刺史)로 있을 때 당계(唐季)가 난을 일으키면서 빈주(邠州)의 장수 양숭본(楊崇本 : ?~911)에게 피살되었다. 그 때 도곡은 나이가 어렸으므로 모친 류씨(柳氏)가 양숭본에게 개가(改嫁)하는데 따라가서 자랐다. 도곡은 어려서부터 유가경전을 학습하여 훗날 그의 문명(文名)이 천하에 자자했으며, 후진(後晉), 후한(後漢), 후주(後周) 및 송나라에 이르기까지 벼슬을 하였다.

『송사(宋史)』 권269에 그의 전기(傳記)가 있는데, “그는 기억력이 좋고 배우기를 좋아했으며, 경사(經史)에 통달했을 뿐 아니라, 제자(諸子)와 노·불(老佛) 서적도 두루 섭렵하여 박학다식했으며, 명가(名家)의 서예문과 명화(名畵) 등을 많이 수집보관하고 있으며, 예서(隸書)를 잘 썼다. 사람됨과 판단력이 뛰어나고 포부가 컸으나 명리를 추구하는데 매진했다”고 하였다.

후진(後晉) 때는 중서사인(中書舍人)을 역임했고, 후한(後漢)때는 급사중(給事中)에 제수되었으며, 후주(後周)때는 한림학사(翰林學士)가 된 후, 이부시랑(吏部侍郎)을 역임했다. 송초(宋初)에는 예부상서(禮部尙書)를 역임했고 박학하여 당시의 문물제도를 많이 제정하였다. 재상 조보(趙普 : 922~992)의 비위를 맞추어 두의(竇儀 : 914~967)를 배척하고 이방(李昉 : 925~996)을 무고(誣告)했다. 누차 형부(刑部), 호부상서(戶部尙書)를 역임했다. 저서에 『청이록(淸異錄)』 6권이 있으며, 37편으로 분류하였다. 그 중에 ‘명친(茗荈)’편이 있는데, 후세 사람이 이 편을 일종의 차서(茶書)로 분리하여 독립 편집하였는데, 책명이 『천명록(荈茗錄)』으로, 후세 사람들에게 많이 인용되었다.

☆「풍광호(風光好)」: 이는 도곡이 지은 사패(詞牌)의 명칭이다. 오대(五代 : 당나라가 망한 뒤부터 송나라가 건국되기 이전까지의 과도기에 중원에서 흥망한 다섯 왕조인 후량(後梁)·후당(後唐)·후진(後晉)·후한(後漢)·후주(後周)를 이룸)때에, 후주의 한림학사(翰林學士)로 재직 중이던 도곡(陶穀)은 명을 받고 남당(南唐)에 사신으로 파견되었다. 당시 남당은 국력이 약하여 도곡은 본국의 국력이 강성함을 믿고 태도가 오만했으며, 남당의 군주 면전에서 언사가 불손했다. 남당의 신료들은 분기충천하여, 술책 한 가지를 마련해 놓고, 명기(名妓) 진약탄(秦弱蘭)을 역관(驛館)의 여인으로 분장시켜 그를 유혹하게 하였다. 거만스럽던 도곡은 상냥하고 아름다운 진약탄을 본 후, 반한 나머지 음침한 생각이 싹터서, 자신의 성격을 굽히고 그녀에게 부드럽게 대하여 사(詞) 한 곡까지 지어주면서 그녀의 기분을 맞추려 애쓰고, 심지어는 그녀를 후처로 맞이하려고 싶어 했다. 도곡은

「풍광호(風光好)」라는 사패(詞牌)에 자신의 내심을 전사(填詞)하여 진약란에게 주었다:

(상편) 좋은 인연인들,
나쁜 인연인들,
하늘이 어찌하겠는가!
객관에서 하룻밤 동침할 수만 있다면,
신선이 별것이겠는가!

(하편) 비파로 상사곡을 끝까지 완벽하게 타보려 해도,
이는 음률이 많지 않네.
난교(鸞膠)로 끊어진 현을 붙일 수 있는 때가,
어느 해일꼬!

(上片) 好姻緣。惡姻緣。奈何天。只得郵亭一夜眠。別神仙。
(下片) 琵琶拔盡相思調。知音少。待得鸞膠*續斷弦。是何年。

그리고 나서 하루도 안 되어, 남당(南唐)의 마지막 군주인 이욱(李煜: 937~978)은 연회를 베풀고 도곡(陶穀)을 초대하였다. 도곡은 올곧은 군자 위엄을 갖추고 참석하였다. 이욱은 진약란에게 술을 권하며 노래를 부르게 하였는데, 그 가사인 즉 도곡이 증여한 「풍광호(風光好)」였다. 도곡은 단번에 안색이 변하고 귀까지 빨갛게 달아올라서, 무안한 나머지 주는 대로 받아 마셔 만취한 나머지 주연석에 구토까지 하여 낭패한 모습을 면할 수 없게 됐다. 그 가사는 순식간에 남경성(南京城) 전체에 널리 퍼졌다. 도곡은 기가 죽어 총총 걸음으로 급히 귀국했는데, 남당의 세작(細作: 간첩)이 뿌린 전단에 의해, 후주(後周)의 도성인 변경(汴京: 지금의 하남성 개봉시開封市)에 까지 널리 퍼져 망신을 당하였다.

도곡의 인물됨이 명리를 지나치게 추구하고 성격이 오만한데다가, 그가 지은 사(詞)의 동기가 불륜의 색욕에 기인한 탓에, 군자의 풍도에 어긋남이 없었던 박상(朴祥)의 안목에서는 태수가 미인을 파견해서 도곡의 사를 노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여겨, 사를 읊어 간접적으로 저지한 것으로 보인다.

*난교(鸞膠): 서한(西漢)의 문인 동방삭(東方朔: BC 154~BC 93)의 저서인 『해내십주기(海內十洲記)·봉린주(鳳麟洲)』의 기록에, 기재되기를, “서해에 봉린주가 있는데, 그곳에는 선가(仙家)가 많이 산다. 그들이 봉(鳳: 상상의 상서로운 새. 봉황이 수컷임)의 부리와 기린의 뿔을 녹여서 만든 풀은 능히 활(弓)과 쇠뇌(弩)의 끊어진 현(弦)을 이을 수 있는데, 이것을 속현교(續弦膠)라고 하며, ‘난교(鸞膠)’라고도 한다”고 하였다. 후세 사람들은 이 풀을 ‘후처(後妻)를 받아들이는 것’에 비유하였다.

- 29) 우의(寓意): 다른 사물에 기탁하거나 그 의지(취지, 의도)를 내포(함축)한다.
- 30) 형승(形勝): 산천이 웅장하고 아름답다.
- 31) 금성(金城): 견고한 성(城)을 가리킨다. 본 시에서는 금빛을 띤운 성(城)으로 번역하였다.
- 32) 관진무뢰일모암(關津無賴一茅庵: 나룻터 초소라고 외로운 초가 한 채만 서있네):

- ① 관진(關津) : 수륙(水陸) 요충지의 초소(검문소).
- ② 무뢰(無賴) : 기낼 곳이 없다.
- ③ 모암(茅庵) : ‘모암(茆庵)’이라고도 쓰고, ‘모려(茅廬)’로도 씀. 초사(草舍). 초가집.
- 33) 환련예졸공수만(還憐銳卒空輸萬) : 아직도 애통하네 헛되이 상실한 일만 장병이며) :
- ① 예졸(銳卒) : 정예(精銳) 사졸(士卒 : 사병).
- ② 공수만(空輸萬) : 헛되이 상실한 일만 사병.
 ☆공(空) : 헛되이, 부질없이, 공연히.
 ☆수(輸) : 상실하다.
 ☆만(萬) : 일만의 사병을 가리킨다. 여기서의 수사 ‘만(萬)’은 목적어로 쓰여, ‘만명(萬名)’의 뜻으로 쓰였다.
- 34) 웅도(雄都) : 험준하고 웅장한 성읍(城邑), 곧 ‘웅장한 고을’을 이르는 말.
- 35) 낭묘수년무촌효(廊廟數年無寸效) : 조정에서 수년간 작은 공도 못 세웠으니) :
- ① 낭묘(廊廟) : 전하(殿下)가 머무는 궁전과 왕실의 종묘(宗廟). 곧 조정(朝廷)을 가리킨다.
- ② 촌효(寸效) : 미소(微小)한 효과(성과, 효능). 본 시에서는 전(轉)하여, ‘미약한 공훈’의 뜻으로 쓰였음.
- 36) 의풍요리(倚風料理) : 바람 쐬우며 위안해 봐도) :
- ① 의풍(倚風) : 바람에 기울고 흔들거림을 이룸. 본 시에서는 ‘바람을 쐬는 것’을 이른다.
- ② 요리(料理) :
 ☆심심풀이하다. 소일하다. 기분전환하다(스스로 위안하며 근심을 풀다). 본 시에서
 는 이 뜻으로 쓰였다.



시26. 정월 스무 여드렛날 남쪽의 다리를
건너, 강변 따라 서쪽으로 가서, 북쪽
절벽에 올라갔다가, 저물녘이 되어서야
서당에 돌아왔는데, 느낀 바 있어서

(갑진년甲辰年 : 1604년, 선조 37년, 서애 63세)

詩26. 正月二十八日過南橋 沿河而西 登北壁

정월이십팔일과남교연하이서등북벽

晩到書堂¹⁾有感甲辰

만도서당유감갑진

水雲無處不傷情²⁾,
수운무처불상정

물과 구름은 머물 곳 없어도 슬퍼하지
않나니,

偶向江郊盡日行³⁾.
우향강교전일행

(나도) 우연히 강변들판을 진종일
걸었네.

庭草不知人事變,
정초부지인사변

정원의 화초는 인간사 변화를 모른 채,

春來還繞⁴⁾小塘生。
춘래환요소당생

봄이 오니 여전히 연못 주변에
돈아나네.

1) 서당(書堂) : 옥연서당(玉淵書堂)을 가리킨다.

① 옥연서당(玉淵書堂) : 옥연정사(玉淵精舍)를 가리킨다. 경북 안동시 광덕동(廣德洞)에 위치한 부용대(芙蓉臺) 오른쪽(하회동河回洞)에서 부용대를 정면에서 보았을

때임)에 있는 정사(精舍)이다. 입암(立巖) 류중영(柳仲郢)의 차자(次子), 문충공(文忠公 : 서에西厓) 류성룡(柳成龍)이 후진양성과 함께 『징비록(懲毖錄)』 등 많은 역사적 저술을 한 곳이다.

2) 수운무처불상정(水雲無處不傷情 : 물과 구름은 머물 곳 없어도 슬퍼하지 않나니) :

① 무처(無處) :

☆장소가 없다. 정처(定處)가 없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무상(無常 : 일정하지 않고 늘 변함). 무위(無爲 : 인위적 작용을 가하지 않고 자연에 순응하는 것을 이룸).

② 상정(傷情) : 슬퍼하다. 비애에 잠기다. 슬픔. 비애.

3) 우향강교진일행(偶向江郊盡日行 : (나도) 우연히 강변들판을 진종일 걸었네) :

① 향(向) : 가다, 나아가다, ~을 향하여 가다.

② 강교(江郊) : 강에 임해 있는 들판.

③ 진일(盡日) : 종일, 온종일(전종일).

4) 환요(還繞) : ‘환요(環繞)’와 같은 말로서, ‘돌레를 돌다’, ‘주위를 (빙) 둘러싸다’는 뜻이다.

시27. 월출을 기다리면서

詩27. 待月¹⁾
대 월 기 하 처



待月期²⁾何處,
대 월 기 하 처

달이 뜰는 곳이 어디라고 예상하는고?

東南第二峯。
동 남 제 이 봉

동남방 두 번째 산봉우리일세.

晚雲初解駁³⁾,
만 운 초 해 박

저녁 구름 방금 흩어지는데,

飛鏡⁴⁾忽騰空。
비 경 홀 등 공

밝은 달이 홀연히 허공에 떠오르네.

歷亂⁵⁾山頭樹,
익 란 산 두 수

산정山頂에는 수목이 어지러이 늘어섰고,

微茫⁶⁾水底虹。
미 망 수 저 홍

강에는 무지개가 흐릿하게 펼쳐졌네.

幽人乘逸興⁷⁾,
유 인 승 일 흥

은자隱者는 세속을 벗어난 흥취가 일어,

長嘯⁸⁾倚江風。
장 소 의 강 풍

시가詩歌를 읊조리며 강바람 씹었네.

-
- 1) 대월(待月): 월출을 기다리다.
 - 2) 기(期): 예상하다.
 - 3) 초해박(初解駁):

- ① 초(初) : 무사로 쓰여, ‘방금, 막, 갓’의 뜻이다.
- ② 해박(解駁) : 해박(解駁)으로도 쓴다.
☆홀어져 뒤섞이다. 홀어 혼합하다(되다).
☆해명하고 논박(論駁)하다.
- 4) 비경(飛鏡) : 높이 떠있는 거울. 이때의 ‘비(飛)’는 ‘높다’는 뜻이다. 고로 이는 명월(明月)에 비유하는 말이다.
- 5) 역란(歷亂) : 꽃이나 초목이 무성한 것을 형용한 말.
- 6) 미망(微茫) : 미망(微茫)으로도 쓴다. 흐릿한 모양. 모호한 모양.
- 7) 유인승일흥(幽人乘逸興 : 은자隱者는 세속 벗어난 흥취가 일어) :
① 유인(幽人) : 유은자인(幽隱之人), 즉 은사(隱士)를 말함.
② 일흥(逸興) : 남다른 흥미 또는 세속을 벗어난 호방한 흥취.
- 8) 장소(長嘯) : 시가(詩歌) 따위를 길게 읊조림.

시28. 소나무를 심으며 서문을 병기함

(갑진년甲辰年 : 1604년, 선조 37년, 서애 63세)

詩28. 種松并序

종 송 병 서

스무 아흐렛날, 집안의 젊은 아이들과 재사齋叟의 승려 몇 사람을 시켜 능파대凌波臺 서쪽에 삼사십 그루의 소나무를 심었다. 내 일찍이 백낙천白樂天이 쓴 「소나무를 심으며(栽松)」라는 시를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시에 이르기를 :

어찌하여 내 나이 마흔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 몇 그루 어린 나무를 심게 됐고?
무성하게 자란 모습 볼 수나 있을는지?
인생 칠십은 예로부터 드물다는데

을 해 내 나이 예순 셋인데, 새삼 소나무를 심었으니, 내가 생각해
도 절로 웃음이 나와서, 떠오르는 감상을 장난삼아 몇 구절의 시로
지어본다.

二十九日, 令子弟¹⁾及齋僧數輩, 種松凌波臺²⁾西三四十株, 余嘗讀樂天

이십구일 명 자제 급 재승주배 종송 등파대 서삼사십주 여상독락천
種松詩³⁾云 :

如何年四十,

여하년사십

種此數寸枝⁴⁾。

종차수촌지

得見成陰⁵⁾否,

득견성음부

人生七十稀⁶⁾。

인생칠십희

今余年六十三, 而始種此, 可自笑, 偶作⁷⁾數句語爲戲。

금여년육십삼 이시종차 가자소 우작 수구어위희



勵土⁸⁾北山下,
족 토 북 산 하

種松西巖⁹⁾角。
종 송 서 암 각

土覆不盈贅¹⁰⁾,
토 부 불 영贅

松短不盈尺。
송 단 불 영 척

離披¹¹⁾亂石間,
리 피 란 석 간

各帶傷根色¹²⁾。
각 대 상 근 색

得地縱爽塏¹³⁾,
득 지 종 상 개

滋身¹⁴⁾少潤澤。
자 신 소 윤 텍

遲遲雨露濡¹⁵⁾,
지 지 우 로 유

颯颯¹⁶⁾霜風急。
삽 삽 상 풍 급

老夫强好事¹⁷⁾,
로 부 강 호 사

傍人笑其拙¹⁸⁾。
방 인 소 기 졸

如何老大年¹⁹⁾,
여 하 로 대 년

養此難成物。
양 차 난 성 물

북쪽 산 아래서 흙을 파와서,

서쪽 절벽 귀퉁이에 소나무를 심었네.

흙을 덮는데 그루당 한 삼태기도 들지
않았으니,

소나무 크기가 한 척도 안돼서네.

시든 묘목 여기저기 바위틈에 심었더니,

가지마다 뿌리 다친 모습 역력하네.

지대가 높아 시원하기는 하여도,

자라기에 수분은 부족할 듯하네.

지적지적하게 땅이 비에 젖어들기엔
더디고,

飒飒 부는 서릿바람은 빨리 맞겠네.

늙은이가 무리하게 일 만들기
좋아한다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 우직함을
비웃을 테지.

어찌하여 이 늙은 나이에,

자라기 어려운 소나무를 심었을꼬?

陰成²⁰⁾固不望,
음 성 고 불 망

다 자라 그늘 드리운 모습 보기는 본래
바랄 수 없지만

封植²¹⁾知誰力。
봉 식 지 수 력

흙을 복돋아 재배함에 누가 애쓰지는
알리라.

昂宵會千載²²⁾,
양 소 회 천 제

천년세월 지나서 하늘 높이 자라게
되면,

留與鸞鳳²³⁾宿。
유 여 난 봉 숙

난새鸞鳥와 봉황의 보금자리로 남겨
주려네.

- 1) 자제(子弟): 남을 높여 그의 아들을 이르는 말이거나 혹은 남을 높여 그 집안의 젊은이를 이르는 말. 여기서는 후자의 의미로 봐야 할 것이다.
- 2) 능파대(凌波臺): ‘강물이 물결쳐도 이르지 못한다’는 의미로 붙여진 옥연정사(玉淵精舍) 우측의 절벽 명칭.
- 3) 낙천종송시(樂天種松詩): 백낙천(白樂天)의 시 「소나무를 심으며[種松]」이다. 이의 원 시제(原詩題)는 「재송(栽松)」이다.

① 낙천(樂天): 백낙천(白樂天: 백거이白居易: 772~846): 당대(唐代) 시인. 자는 낙천(落薦), 호는 향산거사(香山居士), 취음선생(醉吟先生). 당나라 화주(華州) 하규(下邳), 지금의 섬서성(陝西省) 위남현(渭南縣) 사람. 조부의 본적은 태원(太原), 지금의 산서성(山西省) 태원시(太原市). 만년에 관직이 태자소부(太子少傅)를 역임했기에, 시호(諡號)를 ‘문(文)’이라 하며, 세칭 백부(伯傅) 또는 백문공(白文公)이라 함. 본 주석에서는 그의 생애에 관한 기록은 생략하고, 그의 ‘시가이론(詩歌理論)’을 정리한다.

☆백거이(白居易)의 시가이론(詩歌理論):

백거이의 사상은 유·불·도(儒佛道)의 3가(三家) 사상을 종합한다. 그는 처세함에 있어서는 유가의 “곤궁하면 그 자신의 몸을 선하게 하고 뜻을 이루었으면 천하 사람들과 함께 그 혜택을 누려야 한다(窮則獨善其身, 達則兼濟天下)”는 것이 지도이념이었다. 그의 “겸제(兼濟: 세상 사람들과 혜택을 함께 누림)”에 대한 의지는 주로 유가의 인정(仁政)을 실현하는 것이지만, 황로(黃老: 황제黃帝와 노자老子)의 무위자연(無爲自然) 사상과 관소(管蕭: 관중管仲과 소하蕭何)의 치세술(治世術), 그리고 신한(申韓: 신불해申不害와 한비韓非)의 법가사상을 포괄한 것이다. 그의 “독선(獨善: 독자적으로 선을 지킴)”하는 마음은 노장(老莊: 노자와 장자)의知足(知足: 스스로 만족할 줄 알고 과분한 추구를 하지 않음), 제물(齊物: 우주만물의 일체사물은 생사와 시비득실, 물아유무物我有無 등에 있어서 모두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는 사상), 소요관념(逍遙觀念: 일체의 사물에 구속받지 않고 유유자적함)과 불가(佛家)의 해탈 사상 등을 포괄하고 있다. 그가 황제의 신임을 받을 때는 정치적으로 직언을 함에 거침이 없었고, 시가(詩歌)로 민중의 고통을 읊었으며, 신임을 잃었을 때는 외직(外職)을 청구하여, 유유자적하며 시(詩)와 유람, 그리고 선(禪)을 병행하며 궁달(窮達)을 불문하고 개인의 감정을 빠짐없이 시가로 읊었다.

그는 일생동안 대략 3,000수의 시작(詩作)을 하는 동시에 한 편의 체계적인 시가이론(詩歌理論)도 남겼다. 그는 「여원구서(與元九書)」에서, “근정(根情), 묘언(苗言), 화성(華聲), 실의(實義)”라는 저명한 논점을 제시했다. 정(情)은 시의 내용이고, 언(言)과 성(聲)은 시의 표현형식이며, 의(義)는 시의 사회적 효과이다. 그는 『책림(策林)』 69장에서, “무릇 사람이 어떤 일에 느낌을 받으면, 반드시 정서에 감동하게 되고, 그런 연후에 감탄을 불러일으켜서, 읊조리게 되면, 시가가 형성된다(大凡人之感於事, 則必動於情, 然後興於嗟嘆, 發於吟咏, 而形於歌詩矣)”고 하였다.

또 같은 책 64장에서는 “음악이라는 것은 소리에 근본을 두는데, 소리란 것은 정감에서 발원하며, 정감이라는 것은 정치에 연계되어 있다(樂者本於聲, 聲者發於情, 情者繫於政)”고 했다. 즉 그는 생각하기를, 정감의 활동은 아무 근거 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생활상의 일[事] 속에서 기인하는 것이며, 이는 당시 시대적 상황에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시가의 창작은 현실을 이탈할 수 없으며, 반드시 그 생활이 근원이 되므로, 그 속에서 각종 사건을 취재하여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백居易는 중국 고대로부터 일관해오던 『시경(詩經)』의 ‘비유와 풍자’라는 전통 시론을 계승하면서, 시가의 현실내용과 사회적 작용을 강조했다. 그는 “문장을 쓰는 데는 시대에 부합되도록 하고, 시가를 짓는 데는 사실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文章合爲時而著, 歌詩合爲事而作)”고 하여, 비유보다는 풍자에 더 중점을 두었다. 그가 보기에, 시가창작에 있어서 『시경』에서의 창작정신과 원칙에서 보듯이 작시(作詩)의 각종 기능을 발휘하여, 권력자들의 주의를 끌고 진일 보하여, 정치와 민생을 개선할 수 있는 작용을 해야 창작의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지 않으면, “풍설을 두고 조롱하고, 화초를 가지고 농간하는 것(嘲風雪, 弄花草)”에 불과한 “실용성 없는 문장(空文)”일 뿐이라고 했다.

그래서 그는 상술한 이론을 적용하여 표현방법상 일련의 원칙을 제시했다.

첫째, 시구는 질박해야 하며, 솔직하게 표현해야 한다(辭質而徑). 둘째, 사실에 부합하여 솔직한 어휘로 사리(事理)에 절실해야 한다(言直而切). 셋째, 내용이 진실해야 하며 허황된 과장은 말아야 한다(事覈而實).

넷째, 어휘가 유창해야 하며, 암송하기에 용이하고 음악성을 띠어야 한다(體順而肆).

그는 이러한 방법으로 시작실천(詩作實踐)에 노력하였다. 당시 통치계층의 내부적 갈등이 민감하던 시기에, 현실을 직시하려고 민생의 고통에 관심을 가진 것은 의의가 크다 할 것이다.

4) 수촌지(數寸枝): 몇 그루의 어린 묘목.

- ① 수(數): 그루 수를 표현한 것이다.
- ② 촌지(寸枝): 곧 일촌지(一寸枝)이다. 즉 한 치밖에 되지 않는 어린 묘목을 칭한 것한다. 여기서 ‘지(枝)’는 나무를 세는 양사가 아니고, 묘목이라는 명사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 또는 미소(微少)한 것을 비유한 말이다.
☆지(枝): 나무를 세는 양사(量詞)로, ‘그루’의 뜻이나, 본 시에서는 전(轉)하여, 명사로 쓰여, ‘묘목’을 가리킨다.
- 5) 득견성음부(得見成陰否: 무성하게 자란 모습 볼 수나 있을는지?):
① 득견(得見): 볼 수 있다. ‘득(得)’은 조동사로 ‘동사의 내용이 가능함’을 나타냄. 즉 ‘~할 수 있다’는 뜻이다.
② 성음(成陰): 곧 성음(成陰)의 음(陰)은 ‘음(蔭)’과 동일한 글자이다. 성음(成陰)은 그늘을 이룬다. 즉 ‘다 자란 나무’라는 의미의 ‘성목(成木)’을 뜻한다.
③ 부(否): 문장 끝에 의문조사로 쓰여, 의문을 나타냄.
- 6) 인생칠십희(人生七十稀: 인생 칠십은 예로부터 드물다는데): 사람이 칠십세 고령(高齡)에 이르기까지 사는 것은 예부터 매우 드물다는 뜻으로, 오래 살기가 쉽지 않음을 이르는 말이다.
당(唐)나라 시인 두보(杜甫: 712~770)의 시인 「곡강(曲江)」의 제2수에, “술빛은 예삿일이라 가는 곳마다 있지만, 인생은 칠십까지 살기가 무척 드물다네(酒債尋常行處有, 人生七十古來稀).”라고 읊었다.
- 7) 우작(偶作): 우연한 기회에 생각나는 대로 짓는 것을 말함. 시사(詩詞)의 제목에서 많이 쓰인다.
- 8) 축토(屬土): 땅을 파다. 흙을 깎아낸다.
① 축(屬): (땅을) 파다. (흙을) 깎아낸다.
- 9) 서암각(西巖角): 서쪽 절벽 모퉁이. 여기서 ‘암(巖)’은 바위로 보지 않고, 절벽으로 해석함.
- 10) 토부불영궐(土覆不盈糞: 흙을 덮는데 그루당 한 삼태기도 들지 않았으니):
① 부(覆):
☆덮다, 덮어씌우다. 명사로써는 덮개, 부사일 경우에는 ‘다시 재차’의 뜻이다.
☆‘복’으로 읽을 경우: a. 뒤집다. b. 덮어지다, 넘어지다. c. 멸망하다.
② 궐(糞):
☆삼태기(흙이나 풀을 담아 나르는 농구).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상하다, 썩다.
- 11) 이피(離披): ‘이피(離披)’로도 쓴다. 쇠잔한 모양. 쇠퇴(부진)한 모양.
- 12) 각대상근색(各帶傷根色: 가지마다 뿌리 다친 모습 역력하네):
① 대(帶): (~한 모양을) 띠다, 가지다, 지니다.
② 상근색(傷根色): 뿌리가 상한 모습.
- 13) 득지중상개(得地縱爽塏: 지대가 높아 시원하기는 하여도):
① 득지(得地):
☆토지를 얻다(획득, 취득하다).
☆적절하게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얻다. 성장에 적합한 토양을 얻다.
② 중(縱):
☆내버려두다.

☆방치하다.

③ 상개(爽塏):

☆전망 좋게 앞이 탁 트인 고지대의 땅.

☆(택지宅地가 전망이 좋아) 기분이 상쾌하고 건조한 땅.

☆(지대址畠가) 높고 건조한 땅을 가리킨다.

14) 자신(滋身): 내 몸을 돌보다. 자(滋)는 ‘돌보다, 자애(慈愛)하다’는 뜻이다.

15) 지지우로유(遲遲雨露: 지적지적하게 땅이 비에 젖어들기엔 더디고):

① 지지(遲遲):

☆액체가 점점 젖어들어 매우 적은 모양.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점점, 점차. 느릿느릿, 천천히.

☆(시각이) 늦다. 진연(연기)하다.

② 유(濡): 젖다, 적시다. (수가<水氣: 물기>가) 스며들다.

16) 삽삽(飴飴): 의성어로서, 바람이 쇄쇄(쑹쑹) 부는 소리, 비가 콕콕 쏟아지는 소리.

17) 노부강호사(老夫强好事: 늙은이가 무리하게 일 만들기 좋아한다고):

① 노부(老夫): 늙은이.

② 강(强): 무리하게(강제로) 하다.

③ 호사(好事): 일을 좋아하다. 일을 벌이기를 좋아하다. 사단(事端)을 벌이기를 좋아하다.

18) 졸(拙): 서투르다, 우둔하다, 졸렬하다.

19) 여하로대년(如何老大年: 어찌하여 이 늙은 나이에):

① 여하(如何): 어떤가? (성질, 상황, 방식 등을 물을 때 씀)

② 노대년(老大年): 늙은 나이.

☆노대(老大): 연세가 높다. 나이가 많다.

☆년(年): 나이

20) 음성(陰成): 여기서 ‘음(陰)’은 ‘그늘 음(蔭)’ 곧 ‘나무그늘’을 뜻하며, ‘음성陰成’이라고 함은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서 그늘을 드리우는 것을 뜻한다. 성(成)은 성숙하다, 크다. 따라서 음성(陰成)은 ‘나무가 그늘이 서리도록 가꾸다’는 뜻이다.

21) 봉식(封植): 봉식(封植)으로도 쓰고, 봉식(封植)으로도 쓴다.

① 초목을 복돋우어 길러 증식함. 전(轉)하여, ‘국력을 양성하다’는 뜻으로도 쓰인다.

② 흙을 쌓아 올려서 무덤의 봉분(封墳)을 만든다. 나무를 심어 꾸미다.

22) 앙소회천재(昂霄翬千載: 천년 세월 지나서 하늘 높이 자라게 되면):

① 앙소(昂霄): ‘앙(昂)’은 ‘높이 오르다’는 뜻이고, ‘소(霄)’는 운기(雲氣)의 뜻이나, 전(轉)하여, ‘고공(高空)’, 곧 ‘하늘’을 가리킨다.

② 회(翬): 개연성의 조동사로서, ‘~일 것이다’임.

③ 천재(千載): 천년(千年). 재(載)는 ‘년(年), 세(歲)’의 뜻.

23) 난봉(鸞鳳):

① 난새(鸞鳥)와 봉황(鳳凰).

☆난(鸞): 봉황의 일종으로, 털은 오채(五彩)를 갖추었고, 소리는 오음(五音)에 맞는다고 한다. 일설에는 털에 푸른 색이 많은 봉새(봉조(鳳鳥)라고 한다.

☆봉(鳳): 봉황의 수컷. 암컷은 황(凰)이라고 한다. 봉황은 상상의 상서로운 새로 서, 성인(聖人)인 이 세상에 나오면 이에 응하여 나타난다고 한다.

시29. 왕사^{往事}로 인해 상감^{傷感}에 젖어서

詩29. 感事¹⁾
감 사



社稷昔艱危²⁾,
사 직 석 간 위

지난 날 국운이 위태로웠을 때에,

奔鯨蕩溟渤³⁾.
분 경 탕 명 발

흉포한 고래 떼가 대해^{大海}를 휘저었네.

關門失鎖鑰⁴⁾,
관 문 실 쇠 약

관문에서는 군사상 요충지를 상실했고,

列郡如破竹⁵⁾.
열 군 여 파 죽

여러 군^郡이 파죽지세^{破竹之勢}에 밀려
삼시간에 괴멸됐네.

延秋呼白鳥⁶⁾,
연 추 호 백 오

연추문^{延秋門}에서 흰 까마귀도 울었건만,

宮闕⁷⁾烟塵勃。
궁 궐 연 진 발

궁궐은 난리판에 흙먼지가 자욱했네.

玉輦累遷次⁸⁾,
옥 연 누 천 차

임금 수레는 여러 번 몽진^{蒙塵} 장소를
옮겼고,

六月巡沙磧⁹⁾.
육 월 순 사 직

유월에 (나는) 대동강 백사장을
순시^{巡視}했네.

寧知太師宅¹⁰⁾,
영 지 태 사택

어찌 알았으랴 태사^[箕子]를 모신

化作儃人窟¹¹⁾
화 작 창 인 굴

鴨水淸瀾瀾¹²⁾
압 수 청 미 미

遼山明刮日¹³⁾
요 산 명 괄 목

當時狼狽甚,
당 시 낭 패 심

事有不忍說¹⁴⁾
사 유 불 인 설

天道¹⁵⁾竟助順,
천 도 경 조 순

吾王有聖德。
오 왕 유 성 덕

民心不忘漢¹⁶⁾
민 심 불 망 한

至誠昭皇極¹⁷⁾
지 성 소 황 극

使臣哭天庭¹⁸⁾
사 신 곡 천 경

王師歲暮出¹⁹⁾
왕 사 세 모 출

白馬李將軍²⁰⁾
백 마 이 장 군

意氣吞海嶽。
의 기 탄 해 약

사당이,

왜적의 소굴로 변하게 될 줄을.

압록강 푸른 물 넘실넘실 출렁이는데,

요동 땅 산이 눈앞에 뚜렷이 드러나
놀라웠네.

당시에 당한 낭패가 실로 흑심하여,

그 때 사정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네.

하늘의 뜻이 결국 순리를 도운 데다가,

우리 국왕께서도 성덕聖德을 갖추셨네.

민심도 명나라[明]를 잊지 못해
하는지라,

지극한 정성들여 명황제明皇帝에게
명시했네.

사신이 명나라 조정에서 울면서 고하여,

천자의 군대가 선달에 출동하였네.

백마 탄 명명 장군 이여송李如松은

의기가 산과 바다를 삼킬듯 하였네.

精神動天地,
정 신 동 천 지

병사들 정신력 천지를 진동시킨 데다가,

長虹貫白日²¹⁾。
장 홍 관 백 일

흰 빛깔 무지개도 해를 꿰뚫고
펼쳐졌네.

一鼓下箕城²²⁾，
일 고 하 기 성

일차 전투에서 평양성을 탈환하고,

再進麗京²³⁾復。
재 진 리 경 복

재차 진격하여 개성을 수복했네.

長驅或不戒²⁴⁾，
장 구 혹 불 계

급속하게 진군進軍하다 간혹 경계도
소홀했고,

恃勝暫蹉跎²⁵⁾。
시 승 잠 차 질

승리를 자만하다 잠시 차질도 생겼다네.

窮獸法勿博，
궁 수 법 불 박

궁지에 몰린 짐승은 덤치지 말아야
하는 법，

少緩非計失。
소 완 비 계 실

조금 완화했다 해서 잘못된 계책은
아니로세.

衆策極²⁶⁾經營，
중 책 극 경 영

증지衆志의 모든 계책 철저히
관리되었지만，

遊說資談舌²⁷⁾。
유 세 자 담 설

유세遊說는 한 사람의 혀바닥에 의존한
셈이 됐네.

迺於四月末²⁸⁾，
내 이 사 월 말

사월 말이 되어서야 비로소，

神京歸版籍²⁹⁾。
신 경 귀 판 적

도성都城 한양漢陽이 우리 관할 영역으로
돌아왔네.

漢南道路通，
한 남 도 로 통

한강 남쪽 도로가 소통되기는 했으나，

嵩北妖氛豁³⁰⁾
승 북 요 분 활

승례문崇禮門 북쪽은 전란으로 모든 게
사라졌네.

乾坤³¹⁾再整頓,
건 곤 재 정 돈

강산江山을 다시 정돈하면,

日月重煥赫。
일 월 중 환 혁

일월도 거듭 밝게 빛나리라.

是歲月臨陽³²⁾,
시 세 월 임 양

이 해의 시월이 되어서야,

六轡回西極³³⁾。
육 비 회 서 극

임금 행차 서북쪽[義州]에서 환도還都
하였네.

都人迎翠華³⁴⁾,
도 인 영 취 화

도성都城의 백성들이 어기御駕를
영접하니,

佳氣還金闕³⁵⁾。
가 기 환 금 궤

상서로운 기운이 궁궐을 감쌌었네.

草草漢官儀³⁶⁾,
초 초 한 관 의

대충 대충 넘어가는 (명군明軍의)
명나라식 의전절차에,

故老多垂泣³⁷⁾。
고 로 다 수 읍

늙은 신하들 얼마나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던고!

兩宮寄閭閻³⁸⁾,
양 궁 기 러 엄

양궁兩宮[선조와 인빈仁嬪김씨]은 여염집에
머물고,

百僚倚牆壁³⁹⁾。
백 료 의 장 벽

백관百官은 담벼락에 기대고 섰었네.

公私一塗地⁴⁰⁾,
공 사 일 도 지

관청은 물론 민가마저 모조리 파괴되고,

九街腥風拂⁴¹⁾。
구 가 성 풍 불

도성都城은 거리마다 피비린내 진동했네.

鍾簾⁴²⁾誰復問,
종 기 수 복 문

清廟⁴³⁾生荊棘。
청 묘 생 형 극

遺民脫黥劓⁴⁴⁾,
유 민 탈 경 의

百千⁴⁵⁾纔二一。
백 천 재 이 일

饑羸⁴⁶⁾不能起,
기 리 불 능 기

指口求饘粥⁴⁷⁾。
지 구 구 전 죽

花明紫殿陰⁴⁸⁾,
화 명 자 전 음

草綠城南曲。
초 록 성 남 곡

所見無異物,
소 견 무 이 물

縱橫惟白骨。
종 횡 유 백 골

孤臣極無似⁴⁹⁾,
고 신 극 무 사

國事從⁵⁰⁾顛覆。
국 사 종 전 복

濫荷三接寵⁵¹⁾,
남 하 삼 접 종

虛叨五鼎食⁵²⁾。
허 도 오 정 식

承恩不能報,
승 은 불 능 보

종각鐘閣은 어떻게 복구하나 묻지만,

종묘宗廟 터에조차 가시나무가 돌아났네.

남아 있던 백성 중 왜적 고문 벗어난 자,

수천수백 명 중 겨우 한 둘이었네.

굶주림에 쇠약해져 일어나지도 못한 채,

입을 가리키며 죽 좀 달라 구걸하네.

궁궐 북쪽에 야생화 환하게 피었고,

성곽 남쪽 굽이마다 야생초 푸르렀네.

보이는 것은 이전과 다른 게 없지만,

이리저리 널린 것은 백골뿐이었네.

이 고루한 신하 너무나도 어리석어,

국사를 수행하며 나라를 전복시켰네.

외람되이 은혜 입어 하루에도 수차

알현하는 총애 받고도,

부질없이 오정식五鼎食을 탐냈었네.

성은聖恩을 입고도 보답할 길 없으니,

萬死有餘責。
만 사 유 여 책

만 번을 죽어도 그 책임은 남으리라.

驅馳戎馬間⁵³⁾，
구 치 용 마 간

말채찍 휘둘러 각 군 진영 시찰하며,

眤勉輸筋力⁵⁴⁾。
민 변 수 근 력

전력 다해 애썼으나 근력만 소진했네.

風餐薩水岸⁵⁵⁾，
풍 찬 살 수 안

살수薩水 강변에서 찬바람 안고
식사했고,

野宿坡州⁵⁶⁾雪。
야 숙 파 주 설

파주坡州 산릉에서는 눈을 맞아가며
야숙野宿도 했네.

釁積丘山重⁵⁷⁾，
혼 적 구 산 중

과오는 쌓여서 산악같이 무거운데,

效計絲毫蔑⁵⁸⁾。
효 계 사 호蔑

효과 있는 계책은 조금도 없었네.

治亂無定形，
치 란 무 정 형

난세를 다스림에 정해진 형식 없겠으나,

人爲可以卜⁵⁹⁾。
인 위 가 이 복

사람이 하는 일이라 예측은 할 수
있다네.

永念陰雨初⁶⁰⁾，
영 념 음 우 초

왜란 초기를 곰곰이 생각해보니,

綢繆或未密⁶¹⁾。
주 무 혹 미 밀

단속을 잘한다고 했으나 세밀하지
못했었네.

廟堂坐麟楨⁶²⁾，
묘 당 좌 린 횡

조정에는 기린 탈 쓴 나귀들만 앉아
있었고,

邊鄙多朽木⁶³⁾。
변 비 다 후 목

변방에는 썩은 나무 같은 사람이
허다했네.

人情有萬般，
인정유만반

인정人情은 각양각색이었고,

世議多翻覆。
세 의 다 번 복

세론世論은 번복되기 일쑤였네.

維綱既解紐⁽⁶⁴⁾，
유 강 기 해紐

나라의 기강이 이미 무너지고 나니,

萬計歸虛擲⁽⁶⁵⁾。
만 계 귀 허 척

만 가지 계책이 다 허사였네.

千兵非所急⁽⁶⁶⁾，
천 병 비 소 급

일천 병졸 급히 필요한 게 아니라,

一將眞難得。
일 장 진 난 득

능한 장수 한 사람 구하기가 실로
어려웠네.

畫餅⁽⁶⁷⁾不可食，
화 병 불 가 식

그림의 떡은 먹을 수가 없나니,

金甌⁽⁶⁸⁾從此缺。
금 구 종 차 결

금 항아리 같은 국토가 이 왜란으로
훼손됐네.

亡羊牢可補⁽⁶⁹⁾，
망 양 뇌 가 보

염소는 잃었어도 축사畜舍는 보수해야
하고,

失馬廐可築⁽⁷⁰⁾。
실 마 구 가 축

말을 잃고서도 마구는 고쳐야 하는
것이네.

往者雖已矣，
왕 자 수 이 의

지나간 일은 비록 이미 끝났다
치더라도,

來者猶可及⁽⁷¹⁾。
래 자 유 가 급

다가오는 일은 아직 해낼 수 있다네.

誰能陳此義，
수 능 진 차 의

누가 능히 이런 뜻을 설명하며,

1) 감사(感事) : 어떤 일로 인해 상감(傷感)에 젖다.

① 감(感) :

☆상감(傷感).

☆사물에 느낀 바 있어 마음 아파함.

② 사(事) : 본 시에서는 ‘임진왜란’을 가리킨다.

2) 사직석간위(社稷昔艱危 : 지난 날 국운이 위태로웠을 때에) :

① 사직(社稷) : 고대 제왕이나 제후가 모시던 토신(土神 : 토지신)과 곡신(穀神 : 곡식신). 옛날에 천자와 제후는 반드시 사직단(社稷壇 : 토지신과 곡식 신에게 제사 지내는 단壇. 사직단은 왕궁의 우측에 세우고 종묘宗廟는 왼쪽에 세움)을 세우고 제사를 지내며 국가와 존망을 같이 하였으므로, 전(轉)하여, ‘국가’라는 뜻으로도 쓰인다.

② 석(昔) : 지난 날. 종전. 과거.

③ 간위(艱危) : 매우 곤란하고 위급함.

3) 분경탕명발(奔鯨蕩溟渤 : 흉포한 고래 때가 대해大海를 휘저었네) :

① 분경(奔鯨) : 분주하게 (매우 급박하게) 헤엄쳐가는 고래. 의롭지 못하고 흉포한 사람을 비유함.

② 탕(蕩) : 돌격하다, 돌진하다. 요동치다. 진동(격동)하다.

③ 명발(溟渤) : 명해(溟海 : 신화전설에 나오는 끝없이 넓은 바다 이름)와 발해(渤海). 주로 ‘대해(大海)’를 가리킨다.

☆명해(溟海) : 『열자(列子) · 탕문편(湯問篇)』에, “북극의 나라에 명해(溟海)란 끝없이 넓은 바다가 있는데, 바로 천지이다(終北之北有溟海者, 天池也)”고 하였다.

4) 관문쇄약(關門失鎖鑰 : 관문에서는 군사상 요충지를 상실했고) :

① 관문(關門) :

☆국경이나 요새의 성문(城門).

☆국경이나 주요 지점의 통로에서 지나가는 사람과 물품을 조사하는 관(關)의 문.

② 쇠약(鎖鑰) : 쇠약(鑰鑰)으로도 쓴다.

☆자물쇠.

☆매우 중요하여 결정적 작용을 하는 요소에 비유하는 말. 관건(關鍵)과 같은 뜻.

☆군사상 중요 지역이나 출입하는 길목에 비유하는 말.

5) 열군여파죽(列郡如破竹 : 여러 군군이 파죽지세破竹之勢에 밀려 삼시간에 괴멸했네) :

① 열군(列郡) : 여러 개의 군(郡 : 고을).

② 파죽(破竹) :

☆대를 쪼개다. 대를 쪼개듯 한 형세를 따라서 순조롭고 거칠 것이 없음을 비유한 말. 파죽지세(破竹之勢)와 같은 말이다.

☆대를 칼로 순식간에 가르듯이 신속하게 파멸시키는 형세를 비유한 말이다.

- 6) 연추호백조(延秋呼白鳥 : 연추문延秋門에서 흰까마귀도 울었건만) :
- ① 연추(延秋) : 연추문(延秋門). 본 시에서 표층적 표현은 당(唐)나라 궁궐 어원(御苑)의 서문(西門)인 연추문이지만, 이면(裏面)의 표현은 조선의 도성(都城) 서문인 돈의문(敦義門)의 대칭(代稱)으로 쓰였다고 봐야할 것이다. 연추문은 당대(唐代)에 장안(長安)의 어원의 서문이다. 당현종(唐玄宗) 천보 14년(天寶十四年 : 755) 겨울, 안록산(安祿山 : ?~757)이 반란을 일으키자, 이듬해 6월, 당현종은 연추문으로 나와 장안을 떠나서 촉(蜀 : 사천성四川省의 약칭) 지방으로 피난하였다.
- ② 백오(白鳥) : 깃털이 흰 까마귀. 고대에는 상서로운 새라고 여겼음.
동한(東漢)의 사학자 유진(劉珍 : ?~126) 등이 편찬한 사서(史書)인 『동관한기(東觀漢記)·왕부전(王阜傳)』에, “단 이슬이 내리고, 깃털이 흰 까마귀가 보이면, 연이어 상서로운 감응이 생긴다(甘露降, 白鳥見, 連有瑞應)”고 하였다.
- 7) 궁궐(宮闕) : 바로 앞 구(句)의 ‘연추문(延秋門)’이 언급된 것으로 보아, 표층적으로는 당나라 궁궐인 ‘태극궁(太極宮)’을 가리키지만, 사실은 조선의 궁궐인 경복궁(景福宮)을 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 8) 옥연루천차(玉輦累遷次 : 임금 수레는 여러 번 몽진蒙塵 장소를 옮겼고) :
1592년(임진壬辰年 : 선조 25년 : 서에 51세) 4월 13일, 임진왜란 발발로 왜병의 도성 침입이 임박해오자, 서에는 선조를 모시고 개성(開城) → 평양(平壤) → 의주(義州)로 파천하여, 국내항전을 고수하였다.
- ① 옥련(玉輦) : 옥으로 장식한 천자가 타는 수레.
- ② 천차(遷次) : 임금이 유숙지(留宿地)를 옮기는 것을 말한다.
- 9) 유월순사적(六月巡沙磧 : 유월에 (나는) 대동강 백사장을 순시巡視했네) :
- ① 유월(六月) : 임진년(1592, 선조 25년 : 서에 51세) 5월에 왜병의 도성 침입이 임박해오자, 어가를 모시고 개성에 당도한 서에는 당시에 “조선 8도가 함락되면 명나라에 가서 도움을 받아야 한다(若八路俱陷便可赴懇王朝)”는 공론을 반대하고 “아가가 이 강산을 한 걸음이라도 벗어난다면, 조선 땅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다(大駕離東土一步地, 朝鮮非我有也)”라고 하였으며, 6월에는 서울을 함락시킨 적장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 : ?~1600)의 선봉부대가 6월11일에 평양에 무혈입성하면서, 서에는 평양고수를 주장했으나, 유희를 받지 못하고, 당시 함경도로 몽진하자는 공론을 물리치고, 명군(明軍)의 지원을 받기가 용이한 의주(義州)쪽으로 파천할 것을 주장하여, 어가를 의주로 몽진케 하였다. 이때 서에는 본 시에서 “6월에 (나는) 대동강 백사장을 순시(巡視)했네(六月巡沙磧)”라고 표현하고 있듯이, 한편으로는 대동강 백사장을 순시하면서, 왜병의 도강(渡江)을 살피고, 다른 한편으로는 왜군의 전방을 막고 후방을 차단하는 책략을 진두지휘했을 뿐 아니라, 동시에 명(明)으로부터의 청병(請兵)을 위해, 동분서주하였다. (이상은 「서예연보」 임진년 5월과 6월 조항을 참조함)
- 10) 태사택(太師宅) : 태사의 사당으로 곧 기자묘(箕子廟)를 가리킨다.
- ① 태사(太師) :
☆주(周)나라 시대의 삼공(三公 : 태사太師, 태부太傅, 태보太保) 중의 최고위직으로 국군(國君)을 보필하는 관직이다.
☆본 시에서의 태사는 기자(箕子)를 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은(殷)의 태사

를 지냈으며, 주·무왕(周武王)의 역성혁명으로, 감옥에 간했을 때, 무왕에 의해 석방되자, 고조선으로 이동하여 왔다는 설이 있음. 실제로 은·주(殷周)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조선으로 이동하여 왔는데, 기자동래설(箕子東來說)은 바로 이 같은 주민 이동과 그에 따른 고조선의 사회변동과 어떤 형태로든 관계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고려와 조선시대에서는 기자동래설을 사실로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자묘(箕子廟: 평안남도 평양시 기림리箕林里)를 세우고 국가 차원에서 숭배하였다는 점에서도 기자조선 문제는 한국 사상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본 설에 상반되는 견해도 있으나, 본 시의 구절에 나타나는 시의(詩意)는 기자동래설(箕子東來說)을 긍정하는 관점으로 파악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고려사(高麗史)·예지(禮志)·잡사조(雜祀條)』에는 1102년(숙종 7) 10월에 기자(箕子)를 기념하기 위한 신사(神祠)를 세워 제사를 올리자는 내용의 기록이 보인다. 현재 ‘기자묘’라 불리는 능은 이때에 세운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능의 존재는 그 때 건립한 기자사당(箕子祠堂) 자리를 가지고 후대에 허위 축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의 『사기(史記)·송세가(宋世家)·두예조(杜預條)』의 주에는 현재의 중국 하남성(河南省)의 양국몽현(梁國蒙縣)에 기자총(箕子塚)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 기자동래설의 허구성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이상은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참조)

② 댁(宅): 사당.

11) 화작창인굴(化作僧人窟): 왜적의 소굴로 변하게 될 줄음):

**서애주석:

“6월에 평양이 함락되어, 왜적이 들어와서 점거하였다(六月, 平壤陷, 賊入據)”라고 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1592년(선조 25, 서애 51세) 5월 서울을 함락시킨 왜적장 고니시 유키나가(소서행장小西行長: ?~1600)의 선봉부대가 6월 11일 평양에 무혈입성하자, 조선측의 요청으로 원군 3,000을 이끌고 온 명나라 부총병(副總兵) 조승훈(祖承訓: 생몰년 미상)은 7월 17일 밤 적의 계략에 빠져 평양성에 입성하였다가 매복한 적의 기습을 받고 참패하여 겨우 잔병을 수습해 퇴각하였다. 명나라 군대를 격퇴하고도 추격하지 않는 왜군의 동태를 살핀 조선측은 적의 병세(兵勢)가 떨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순안(順安)의 이원익(李元翼: 1547~1634), 강동(江東)의 이일(李鎰: 1538~1601), 강서(江西)의 김응서(金應瑞: 생몰년 미상)·박명현(朴名賢: ?~1608), 대동강 수군(水軍)의 김억추(金億秋: 생몰년 미상) 등이 평양 서윤(庶尹) 남부흥(南復興: 생몰년 미상)이 모병한 2만 군을 이끌고 8월 1일 4면에서 평양을 공격하였다. 그러나 이 싸움도 일전일퇴만 거듭하였을 뿐 평양성을 탈환하지 못하고 양측은 9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휴전하기로 합의하였다.

1592년 12월말 압록강을 건너온 명나라 제독(提督) 이여송(李如松: ?~1598)의 4만 병력과 조선측 도원수(都元帥) 김명원(金命元: 1534~1602) 휘하의 8,000 병력, 승장(僧將) 휴정(休靜: 1520~1604, 서산대사西山大師)·유정(惟政: 1544~1610, 사명당四溟堂)이 이끄는 2,200 병력은 1월 6일 총공격을 감행하였다. 싸움은 주야

3일간 혈전을 거듭하여 4일째인 1월 9일 적은 15,000의 병력 가운데 10,000명의 전사자를 버려두고 퇴각하였다. 이로써 평양성은 함락 된지 7개월 만에 재탈환되었다.

② 화작(化作): ~로 변하다.

③ 창인굴(倉人窟): ‘촌놈의 소굴’이란 뜻으로 본 시에서는 조선의 국토가 왜적의 소굴이 되었음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12) 미미(瀾瀾):

① 물이 가득찬 모양(출렁출렁, 넘실넘실).

『시경(詩經)·패풍(邶風)·신대(新臺)』에, “누각 ‘신대’는 휘황하게 아름답고, 황하강물은 끝없이 넘실거리네(新臺有洩, 河水瀾瀾)”라고 읊었다.

13) 괄목(刮目): 눈을 비비고 다시 보다. ‘놀랄 만하다’는 의미를 지님.

14) 시유불인설(事有不忍說: 그 때 사정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네): 여기서 ‘사(事)’는 서애가 왕을 모시고 개성으로 파견하는 도중, 동파역(東坡驛)에서 당시 대신들이 사태가 위급하면 국경을 넘어 명나라로 가는 것도 불사해야 한다는 것이나, 임금의 파견행차를 함경도 오지 쪽으로 옮겨야 한다는 공론 등은 물론이고, 왜병에 의해, 수도 함락, 개성, 이어서 평양성 함락 등의 크고 작은 참상을 몰고 온 사건들을 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애주석:**

“그 때에는 (장차 압록강을 건너서 조선땅을 버리고 명나라로 들어가서) 은밀하게 명나라와 내부(內附)하기 위해, 요동으로 건너가자고 청했다(時請內附渡遼)”고 하였다. 관련설명은 위의 주석9)를 참조 바람.

15) 천도(天道): 천리(天理), 천의(天意).

16) 한(漢): 중국 고대 화하족(華夏族)과 한족(漢族) 및 그들의 활동범위를 가리킨다. 다만 세월이 흐르면서, ‘한족(漢族)’이란 용어를 습관적으로 ‘중국’을 가리키는 말로 썼다. 본 시에서는 ‘한(漢)’은 ‘명왕조(明王朝)’를 가리킨다.

송(宋)나라 학자 정대창(程大昌: 1123~1195)의 저서 『고고편(考古編)·시론장(詩論章)』에, “중국에서 북적(北狄: 몽고족)을 섬긴 적이 있었다. 그런데 당시에 한인(漢人)이 이 상황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中國有事於北狄, 有漢人爲力). 그런 까닭에 중국은 이미 과거의 ‘한(漢)’이 아니며 이는 북로(北虜: 북쪽에 거주하는 흉노족)가 ‘중국’을 가리켜 ‘한(漢)’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中國已不爲漢而北虜猶指中國爲漢)”고 한 구절이 있다.

‘한(漢)’ 이외에도 ‘중국(中國)’과 함의(含意)가 기본적으로 같은 용어를 습관적으로 써 왔는데, ‘중토(中土), 중원(中原), 중하(中夏), 중화(中華)’ 등이 그 예이다.

17) 황극(皇極): 황제를 가리킨다.

18) 천정(天庭): 천정(天廷)으로도 쓴다. 제왕의 궁정. 조정(朝廷)을 칭한다.

19) 왕사세모출(王師歲暮出: 천자의 군대가 신달에 출동하였네): 명(明)나라 제독(提督) 이여송(李如松: ?~1598)이 천자의 군대 4만 명을 이끌고 임진년 12월에 조선에 들어왔다. 서애는 그와 안주(安州)에서 회견하고 평양탈환을 협의했다. (『서애연보』 참조)

① 왕사(王師): 천자(天子)의 군대.

20) 이장군(李將軍): 명(明)나라 무장(武將) 이여송(李如松)을 가리킨다.

- ① 이여송(李如松 : ?~1598, 자는 자무자茂, 호는 양성仰城) : 요동(遼東) 철영위(鐵嶺衛) 출신. 1592년 영하진(寧夏鎭 : 지금의 감숙성甘肅省 고원현固原縣)에서 몽고족(Mongol族)의 한 갈래인 타타르족(Tatar族 : 달단韃靼으로 음역함)의 후예인 발배(倭裨)의 난이 일어났을 때 제독으로서 이를 평정하였다. 같은 해, 조선에서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제2차 원군으로 4만의 군사를 이끌고 조선에 들어와, 1593년 1월 평양에서 고니시 유키나가(소서행장小西行長)의 일본군을 격파하여 전세(戰勢)를 역전시키는데 큰 공을 세웠으나, 경기도 고양군 벽제면에 위치한 벽제관(碧蹄館 : 경기도 고양시 벽제동에 있는 역관) 싸움에서 고바야카와 다카카게(소조천릉小早川隆景)에 패한 후로는 평양성을 거점으로 화의교섭(和議交涉) 위주의 소극적인 활동을 하다가 그 해 말에 철군하였다. 1597년 요동총병관(遼東總兵官)이 되었으나, 이듬해 토번(土蕃)의 침범을 받아 반격 중에 전사하였다.
- 21) 장홍관백일(長虹貫白日 : 흰 빛깔 무지개도 해를 꿰뚫고 펼쳐졌네) :

****서애주석 :**

“계사년(1593년, 선조 26년. 서애 52세로 다시 영의정에 오른던 해이며,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이 평양을 수복하던 해이다. 이 해에 벽제관碧蹄館 싸움에서 왜군에게 패함) 정월 초하룻날, 왕의 군사가 숙천현(肅川縣 : 평안남도 평원군 숙천면)에 당도했을 때, 흰 무지개가 해를 꿰뚫었다. 군대 안에서 이르기를: ‘적을 이길 징조라고 했다’(癸巳正月一日, 師次肅川, 白虹貫日*。軍中云: 勝賊之兆)’는 일화가 있다. 사실 이 여송이 임진년(1592) 12월에 4만 원병을 이끌고 조선에 들어오면서, 조·명(朝明) 연합군으로 평양성을 포위 공격하여, 소서행장 등이 평양에서 패퇴하여, 남으로 도주하고, 1월 8일에 평양성을 탈환하게 되었다.

*백홍관일(白虹貫日) : 서애 주석에서 쓴 ‘백홍관일’이란 말은 ‘색깔이 흰 무지개가 해를 꿰뚫고 걸쳐있다’란 뜻인데, 이 말은 위의 시의 ‘장홍관일(長虹貫日)’과 같은 뜻이다. 이는 아주 드물게 보이는 ‘햇무리 현상’이다. 우리나라 옛사람들은 이런 현상을 두고 ‘병란(兵亂)이 일어날 조짐’으로도 보았고, ‘지성(至誠)이면 감천(感天)을 시켜 나타나는 조짐’이라고도 하였다. 위의 서애 주석에서 보듯이 ‘길조(吉兆)’로도 보았다. 그러나 중국 사람들은 이러한 천체현상이 보이면 인간이 장차 재난을 당한다는 불길한 현상을 예시하는 천기(天氣 : 하늘에 나타나는 조짐)로 여겼다.

- ① 장홍관백일(長虹貫白日) : 즉 장홍관일(長虹貫日)과 동일함.
- 청나라 학자 왕기(王琦)가 여순(如淳 : 삼국시대 위魏나라 학자 『한서(漢書)』를 주석함)이 한 말을 주석에서 인용하여 말하기를, “『열사전(列士傳)』에서 말하기를, 형가(荊軻 : ?~BC 227 : 전국시대의 자객. 연燕나라 태자 단丹의 식객)가 (진왕秦王 : 정政, 즉 훗날의 진시황을 죽여 달라는 태자의 부탁을 받고) 출발한 후에, 태자가 몸소 천기를 살펴보니, 흰 빛깔 무지개가 해를 꿰뚫고 채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나의 일이 성공하지 못하겠구나’라고 하였다. 그 후에 형가는 피살되었고, 일은 그르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말하기를, ‘내 그렇게 될 줄 알았다’(『列士傳』曰, 荊軻發後, 太子自相氣, 見虹貫日不徹, 曰: ‘吾事不成矣’。後聞軻死, 事不立, 曰: ‘吾知其然也’)”고 했다.
- 22) 일고하기성(一鼓下箕城 : 일차 전투에서 평양성을 탈환하고) :
- ① 일고(一鼓) : 진격 신호로 울리는 한 차례의 북소리. 전(轉)하여, ‘일거(一舉 : 한

번 율직입)에, ‘일전(一戰 : 한바탕 싸움)’을 이룸. 본 시에서는 ‘일차전투’의 뜻으로 쓰였다.

② 하(下) : 탈환하다.

③ 기성(箕城) : 평안남도 평양의 옛 이름.

23) 여경(麗京) : 고려 때의 경성(京城), 곧 개성(開城)을 가리킨다.

24) 장구혹불계(長驅或不戒 : 급속하게 진군하다 간혹 경계도 소홀했고) :

① 장구(長驅) : 장구(長驅)로도 쓴다.

본 시에서는 ‘장구직입(長驅直入 : 정지하지 않고 먼 곳의 목표지점을 향해 신속히 전진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이 말은 주로 군에서 ‘진군(進軍)이 순조로움을 형용하는 말로 쓰인다. 이 말과 같은 뜻으로, ‘장구직진(長驅直進)’, ‘장구경입(長驅徑入)’ 등이 있다.

② 혹(或) : ‘간혹, 아마도’의 의미로 쓰였다.

③ 불계(不戒) : 방비하지 않다, 경계하지 않다. 주의하지 못하다.

25) 치질(蹉跌) : 실책을 범하다. 실수를 하다. 본 시에서는 명나라 원병(援兵)이 벽제관(碧蹄館 : 경기도 고양시 벽제동에 있는 역관)에서 왜적과 싸워 패전한 것을 가리킨다.

26) 극(極) : 부사로 ‘매우 세심하게, 극단적으로, 매우, 극히, 대단히, 엄청나게’ 등의 의미를 지닌다.

27) 유세자담설(遊說資談舌 : 유세遊說은 한 사람의 헛바닥에 의존한 셈이 됐네) : 여기서 쓰는 심유경(沈惟敬)의 사건을 두고 하는 말이다.

****서애주석 :**

“심유경을 보내어, 적이 성 밖으로 나오게끔 달랬다(遣沈惟敬*, 誘賊出城)”고 하였다.

*심유경(沈惟敬 : ?~1600) : 임진왜란 때, 명(明)나라에서 파견한 사신(使臣). 지금의 절강성(浙江省) 가흥현(嘉興縣) 출신. 명나라 선봉장 조승훈(祖承訓 : 생몰년 미상)이 원군(援軍)을 이끌고 조선에 올 때, 유격장군(遊擊將軍)으로 임명되어 함께 왔다.

1592년(선조 25) 심유경(沈惟敬)은 사용재(謝用梓 : 생몰년 미상)와 서일관(徐一貫 : 생몰년 미상) 등을 대동하고 왜군과 같이 일본으로 건너가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 1536~1598)의 본영에 들어가 강화(講和)를 논의했다. 2, 3년간 사신이 왕래하며 교섭했으나 화의(和議)는 결렬되었다. 이때, 도요토미는 명(明)에 대하여 7개 조항, 즉 :

첫째, 명(明)의 황녀(皇女)로 일본의 후비(後妃)로 삼을 것.

둘째, 감합인(勘合印 : 무역증인貿易證印)을 복구할 것.

셋째, 조선 8도(八道) 중 4도를 할양할 것.

넷째, 조선왕자 및 대신 12명을 인질로 삼을 것 등을 내걸었음.

심유경은 이 요구가 본국인 명나라에서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거짓으로 본국에 보고하여 도요토미를 왕에 책봉(冊封)하고 조공(朝貢)을 허락한다는 내용의 봉공안(封貢案)을 내세워 명나라의 허가를 얻었다.

이리하여 명나라는 1596년(선조 29), 이종성(李宗城 : 생몰년 미상), 양방형(楊方亨 : 생몰년 미상) 등을 일본에 파견하여 화의를 성립시키고자 하였다. 심유경은 부산에서 이종성을 위협하고 스스로 부사(副使)가 되어 일본으로 건너갔으나 화의(和

議)는 결렬되었다. 명나라에서 보낸 도요토미를 일본 국왕에 봉한다는 책서(冊書)와 금인(金印)을 받아 든 도요토미는 크게 노하여, 명(明)의 제의를 거절하고 사신을 돌려보낸 후, 조선에 대한 재침략을 준비하였다.

심유경은 귀국하여 거짓으로 화의 성립을 아뢰고 도요토미가 수봉(受封)을 인정하였다고 조정을 기만하였다. 이렇게 하여, 1597년(선조 30) 일본이 조선을 재침략(이것이 이른바 정유재란丁酉再亂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의 외교적 사기극이 탄로 났다. 심유경은 당시 명나라 병부상서(兵部尙書)로 재직 중이던 석성(石星)의 도움으로 화를 면하고 다시 조선에 들어와 화의를 교섭했으나 실패하였다. 이에 심유경은 일본에 항복할 목적으로 경상도 의령(宜寧)까지 갔으나 명나라 장수 양원(楊元)에게 체포되어 처형되었다.

“심유경의 부친이 장사하는 일로 일본에 내왕했기 때문에, 그도 일본 사정을 조금 알고 있었던 모양이다. 선조 25년(임진년: 1592), 임진왜란이 일어났다는 말을 듣고, 명나라 조정에 글을 올려, 자청하여 왜군의 진영에 들어가서 사태를 무마해서 조정하겠다고 하니, 병부상서(兵部尙書) 석성(石星: 1538-1599. 심유경의 말을 믿고,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을 일본 국왕으로 봉하여 조선의 왜란 사태를 수습하고자 극력 주장하다가 정유재란丁酉再亂으로 실패하자, 삭탈관직되어 하옥된 뒤 사망함)이 이를 허락하고, 경영첨주유격(京營添住遊擊)이란 직함으로 왜군의 정세를 살피게 하였다”고 하였다.(이상은 이재호李載浩 역, 류성룡 저, 『징비록(懲毖錄)』 권1 제6장의 「선조실록(宣祖實錄)」과 「양조평양록(兩朝平壤錄)」을 참조함).

- ① 유세(遊說): 고대에 이른 바 ‘세객(說客)’이라고 부르는 정객(政客)이 각국을 분주히 돌아다니며 구변과 식견에 의존하여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받아들여도록 군주에게 권하는 것을 이룸. 본 시에서의 세객(說客)은 자청해서 나선 명나라 사신(使臣) 심유경(沈惟敬)을 가리킨다.
- ② 재(資): ~을 바탕으로 하다. 의지(의존)하다.
- ③ 담설(談舌): 혀바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음. 전(轉)하여, ‘날카로운 언론, 언론의 기세(예봉)’의 뜻으로 쓴다.

28) 내어사월말(迺於四月末: 사월 말이 되어서야 비로소):

- ① 내(迺): 부사로 쓰여, 비로소, 이제 막. 그래서, 그리하여, 바로, 곧.
 - ② 어사월말(於四月末): 이재호 번역의 『징비록(懲毖錄)』 권2 제9장에는 유격(遊擊) 장군 심유경이 다시금 서울에 들어와서 적군을 패어 군사를 물러나게 하였다(沈遊擊惟敬, 再入京城, 誘賊退兵)는 기록이 보이고, 제10장에는 4월 20일에는 비로소 서울이 수복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음(四月二十日, 京城復).
- (이상은 임진왜란 발생 이듬해인 계사년(癸巳年: 1593년, 선조 26년)의 기록임)
또한 『징비록』 관련연표에 의거하면, 4월 8일에 심유경이 용산(龍山)에서 소서행장(小西行長)과 회담하였고, 4월 18일에는 왜군이 서울에서 나와 남쪽으로 퇴거하였다는 기록이 보인다(위의 『징비록』의 부록에 보임).

29) 신경귀판적(神京歸版籍: 도성都城 한양漢陽이 우리 관할 영역으로 돌아왔네):

- ① 신경(神京): 수도(首都) 혹은 도성(都城)을 칭한 것.
- ② 판적(版籍): ☆영토 혹은 강역(疆域)을 칭한다.
☆호구책(戶口冊): 호적. 토지 및 백성에 관한 것을 기록한 장부. 본 시에서는

전(轉)하여, ‘관찰영역’의 뜻으로 쓰였다.

30) **승복요분할**(嵩北妖氛豁) : 승례문崇禮門 북쪽은 전단으로 모든 게 사라졌네) :

① **승복**(嵩北) : 승례문(崇禮門 : 서울 남대문) 북쪽.

② **요분**(妖氛) : ‘요분(妖霧)’이라고도 쓴다.

☆상서롭지 못한 운기(雲氣). ‘흉재(凶災), 화란(禍亂 : 재앙과 참혹한 난리)’에 많이 비유된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③ **할**(豁) :

☆공허하다. 본 시에서는 난리로 인해 인명과 동물이 죽고 관청과 민가를 비롯한 모든 것들이 파괴되고 소실(燒失)되어 사라진 것을 가리킨다.

☆광활하다.

『징비록(懲毖錄)』 권2 제10장에, “성안에 남아 있던 백성들을 보니, 백 명에 한 명도 생존하지 못했고, 살아남은 사람도 모두 굶주림과 질병으로 안색이 귀신같았다. … 죽은 사람과 말의 시체가 곳곳에 그대로 드러나 있어, 썩은 냄새가 성 안에 가득 차서, 지나가는 사람은 코를 가리고 지나갔다. 관청과 민가는 모두 사라지고, 단지 승례문에서 동쪽으로, 남산아래 일대의 왜적이 거처하던 곳만 조금 남아 있을 따름이었다(見城中遺民, 百不一存, 其存者, 皆飢羸疲困, 面色如鬼. …人死及馬死者, 處處暴露, 臭穢滿城, 拾鼻方過. 公私廬舍一空, 獨自崇禮門以東, 循南山一帶, 賊所止舍處稍存).”고 하였다.

31) **건곤**(乾坤) : 국가, 강산(江山), 천하(天下).

32) **시세월임양**(是歲月臨陽) : 이 해의 시월이 되어서야) :

① **시세**(是歲) : 이 해. 즉 계사년(癸巳年 : 1593년, 선조 26)을 가리킨다. 『징비록(懲毖錄)』 권2 제11장을 참조 바람.

② **양**(陽) : 음력 10월의 별칭. 『시경(詩經) · 소아(小雅) · 체두(杕杜)』에, “세월은 이미 10월이 되었는데, 여인의 마음 간절히 낭군 그리네(日月陽止, 女心傷止)”라고 했다.(본 예문에서 ‘지止’는 어기시語氣詞임)

33) **육비회서극**(六轡回西極) : 임금 행차 서북쪽 의주義州에서 환도還都하였네) :

****서애주석 :**

“10월에 임금 행차가 경성(京城)으로 돌아왔다(十月車駕還都).”라고 하였다.

「서애년보」의 계사년(癸巳年 : 1593년, 선조 26, 서애 52세) 10월 항목과 『징비록(懲毖錄)』 제11장을 참조 바람.

① **육비**(六轡) : ‘비(轡)’는 마소의 재갈에 잡아매어 끄는 줄이다. 고대에는 한 수레 당 네 필의 말이 끄는데, 말마다 각 2줄의 말고삐가 있어 모두 8개의 고삐가 있으나, 좌우 양측의 참마(驂馬)가 끄는 고삐는 수레 앞부분의 손잡이용 횡목에 연결되어 있어서, 말을 부리는 자는 오직 6개의 고삐만 잡으므로 ‘육비(六轡)’라고 칭하고 있다. 본 시에서는 환도(還都)하는 선조의 어가(御駕)를 칭한 것이다.

② **서극**(西極) : 여기서 ‘서극(西極)’이란, ‘의주(義州)’를 칭하는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지금의 평안남북도 지점을 중(縱)으로 갈라 의주는 그 서쪽지방의 최극단에 위치함으로 ‘서극’이라 칭했던 것이나, 지금은 한반도를 남북으로 갈라서 칭함으로 본 시의 번역에서는 의주를 ‘서북쪽’으로 번역했다. 본 시에서는 선조의 ‘의주 파천(義州播遷)’에서 환도(還都)한 것을 표현한 것이다.

34) **취화**(翠華) : 천자의 의장(儀仗)에 물총새(翠鳥)의 깃으로 장식한 기치(旗幟)나 차개

(車蓋: 수레 위에 받치는 비단으로 만든 일산日傘).

35) 가기환금궐(佳氣還金闕: 상서로운 기운이 궁궐을 감쌌었네):

- ① 가기(佳氣): 아름다운 운기(雲氣). 고대에는 이것을 길상(吉祥), 홍성하는 징조라고 여겼다.
- ② 금궐(金闕): 천자가 거처하는 궁궐.

36) 초초한관의(草草漢官儀: 대충대충 넘어가는 명군明君의 명나라식 의전절차에):

- ① 초초(草草): ‘초초(艸艸)’로도 쓰며, 소홀하다, 대충대충하다, 적당히(되는 대로)하다.
- ② 한관의(漢官儀): 한관위의(漢官威儀)의 약칭. 한조(漢朝: 한족의 왕조. 여기서는 명나라 조정을 가리킴)의 관리들이 입은 복식(服飾)과 의식(儀式) 제도를 이른다. 일반적으로 중국의 예의제도 혹은 의전(儀典) 제도를 범칭(泛稱)한다. 본 시에서는 ‘명나라 군관들의 의전절차’를 의미한다.

37) 고로다수읍(故老多垂泣: 늙은 신하들은 소리 없이 눈물 흘렸네):

- ① 고로(故老): 늙은 신하를 가리킨다.
- ② 수읍(垂泣): 소리 없이 눈물 흘리다.
- ③ 다(多): 의문대사로 쓰여 ‘얼마나’의 뜻으로 쓰이고 있음.

38) 양궁기여염(兩宮寄閭閻: 양궁兩宮[선조와 인빈仁嬪김씨]은 여염집에 머물고):

- ① 양궁(兩宮): 선조와 후궁 인빈 김씨(仁嬪金氏)를 칭함. 선조는 임진왜란이 나라 피난을 떠나면서 도 왕비인 의인왕후(懿仁王后)는 남겨둔 채로 후궁인 인빈 김씨만을 데리고 의주(義州)로 피난을 하였음. 그리하여 의인왕후는 강계(江界: 평안북도 북동부에 위치함)로 혼자서 피난을 하였고, 선조가 환도(還都)한 후에도 그녀는 몇 년이 지나야 돌아올 수 있었다. 고로 본 시에서 양궁(兩宮)이라 함은 선조와 인빈 김씨를 가리키는 것으로 봐야할 것이다.

- ② 기여염(寄閭閻): 여염(閭閻: 일반 백성의 집)에 머물다. 본 시에서는 월산대군(月山大君)의 사저(私邸)를 가리킨다.

이때, 양궁(兩宮)은 세조(世祖)의 큰아들인 도원군(桃源君: 장漳)의 큰 아들 즉 세조의 큰 손자인 월산대군(月山大君: 정婷)의 사저(私邸)를 임시 거처로 하였기 때문에, 본 시에서 ‘여염(閭閻)’이라고 칭한 것이다.

이때의 행재소를 정릉동(貞陵洞) 행궁(行宮)이라 칭하였다. 당시 행궁의 경내가 협소하여 계림군(桂林君: 류璫)의 집을 포함하였으며, 궁궐 안에 있어야 할 관청들도 처음에는 궐문 밖에 두었다가 점차 면적을 넓혀 모두 궁궐 안에 들게 하였다. 또 그 옆에 있는 청양군(靑陽君) 심의겸(沈義謙)의 집을 동궁(東宮)으로, 영상(領相) 심연원(沈連源)의 집을 종묘(宗廟)로 하였다. 1597년에 담을 둘러쌓았고, 1607년 4월에는 북쪽에 별전(別殿)을 세웠다. 선조는 1593년 10월 이곳을 행궁으로 삼은 뒤 1608년 2월 죽을 때까지 이곳에서 정무(政務)를 보았으며, 광해군(光海君)도 이곳 서청(西廳)에서 즉위하였다. 광해군은 즉위한 뒤에 행궁을 넓혀 지금의 정동 1번지 일대를 대부분 궁궐의 경내로 만들고 종묘를 중건하였다. 그리고 1611년(광해군 3) 10월 창덕궁(昌德宮)을 보수하여 거처를 옮긴 뒤 행궁을 경운궁(慶運宮)으로 하였다. 1907년에는 고종이 순종에게 양위를 한 뒤 이곳에 살면서 덕수궁(德壽宮)으로 개칭하였다.

(이상은 <http://blog.naver.com/hsduke> 참조)

- 39) 백료의장벽(百僚倚牆壁) : 백관百官은 담벼락에 기대고 섰었네) :
- ① 백료(百僚) : 모든 벼슬아치 : 백관(百官)을 의미함.
 - ② 의장벽(倚牆壁) : 담벼락에 기대다(의지하다). 이렇게 백관이 모두 담벼락에 의지하거나 기댄 이유는 곧 임진왜란으로 인해, 경복궁(景福宮)과 창덕궁(昌德宮) 및 창경궁(昌慶宮) 등 세 대궐을 비롯해 모든 관사(官舍)와 민가(民家)가 소각되어 없어졌기 때문이다.
- 40) 공사일도지(公私一塗地) : 관청은 물론 민가마저 모조리 파괴되고) :
- ① 공사(公私) : 공가(公家) : 조정, 국가 혹은 관청)와 사인(私人).
 - ② 일도지(一塗地) :
 - ☆일(一) : 부사로 쓰여 ‘모두, 일괄적으로, 아주, 대단히, 시종, 일일이’ 등의 의미가 있음. 여기서는 온통, 모두 등의 의미로 쓰였다.
 - ☆도지(塗地) : 철저하게 파괴되어 수습할 수 없음을 이른다.
- 41) 구가성풍불(九街腥風拂) : 도성都城은 거리마다 피비린내 진동했네) :
- ① 구가(九街) : ‘구궐(九達)’와 같은 말로 사통오달(四通五達)하는 도성(都城)의 대도(大道)를 이른다.
 - ② 성풍(腥風) : (피)비린 냄새 풍기는 바람. 전(轉)하여, ‘흉악하고 잔인한 분위기’에 비유하는 말로 쓰기도 한다.
- 42) 중거(鍾簾) : 종거(鍾廬)로도 쓴다. 종루(鐘樓), 즉 종각(鐘閣)을 가리키며, 훗날의 보신각(普信閣)이다. 소재지는 경복궁 광화문 밖 서쪽에 있다. 세종대왕이 큰 종을 만들어 처음에는 사정전(思政殿)에 돌려하다가 후에 집[閣]을 여기에 짓고 달았다. 현재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철동 45-5번지이다.
- 이곳은 조선시대에 도성문을 여닫는 시간과 화재와 같은 위급한 상황을 알리는 종이 걸려 있던 보신각(普信閣)의 터이다. 원래는 종루(鐘樓) 혹은 종각(鐘閣)이라고 불렀는데 고종 때 다시 지으면서 이름을 보신각으로 바꾸었다. 1396년(태조 5)에 종루를 짓고 도성 문을 열고 닫는 시간을 종을 쳐서 알렸다. 아침을 알리는 파루(罷漏)에 도성 문을 열었다. 이때 종을 33번 쳤는데 이는 불교의 33천(天)을 의미한다. 저녁을 알리는 인정(人定)에 도성 문을 닫았다. 이때 종을 28번 쳤는데 이는 별자리의 28수(宿)를 의미한다.
- 이곳 종각은 종을 걸어 놓기 위해 만든 것으로 정면 5칸, 측면 4칸이다. 조선시대 한양(漢陽)에 종을 처음 건 것은 1398년(태조 7)으로, 광주(廣州)에서 주조한 종을 청운교(靑雲橋) 서쪽 종루에 걸었다. 1413년(태종 13)에 종루를 통운교(通雲橋 : 종로 네거리)로 옮기고 1458년(세조 4)에는 새로 대종(大鐘)을 주조하여 달았으나 임진왜란으로 종루는 소실되고 종도 파괴되었다. 그 후 1619년(광해군 11)에 종각을 다시 짓고 종을 걸었는데 이때 세운 종각은 임진왜란 전의 2층 종루가 아니고 1층 종각이었으며 여기에 건 종은 명례동(明禮洞 : 지금의 명동성당 인근 : 조선시대 행정구역으로는 한성부漢城府 남부 명례방明禮坊에 있던 계궐로서, 명례동계는 고종조기까지 있었으나 갑오개혁때 명동계로 바뀌었다. 현재의 행정구역으로는 을지로2가, 명동1·2가, 충무로1·2가 각 일부에 해당함) 고개에 있었던 것을 옮겨왔다고 한다.
- 이 종은 본래 원각사종으로 세조 때에 주조한 것인데 1536년(중종 31)에 남대문 안으로 옮겨놓았다가 1597년(선조 30) 명례동 고개로 옮겼던 것을 광해군 때 종각을 복구하면서 이전한 것이다. 그 후 조선 후기까지 4차례나 화재와 중건이 있다가

1895년(고종 32)에 종각에 ‘보신각’이란 현액(懸額)이 걸린 이후 종도 보신각종이라 부르게 되었다.

(이상은 고전국역총서, 『국역산증동국여지승람 1』, 서울특별시편찬, 『서울지명사전』 두산백과 ‘보신각’ 조항을 참조 인용함)

- 43) 청묘(淸廟) : 즉 태묘(太廟). ‘청묘(淸廟)’라는 의미는 ‘청명한 덕을 가진 자를 제사 지내는 궁(宮)’이란 뜻으로, 고대 제왕의 종묘(宗廟)이다. 종묘(宗廟)는 역대 임금과 왕비의 위패를 모시던 왕실의 사당(祠堂)이다. 본 시에서 의미하는 조선시대의 종묘는 세종 3년(1421)에 영녕전(永寧殿)을 세웠으나 임진왜란 때 타버리고 선조 41년(1608)에 다시 세운 것이 지금 종로 3가에 남아 있다. 1996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궁묘(宮廟), 침묘(寢廟), 대묘(大廟), 종조(宗祧)라고도 한다.

- 44) 유민탈경의(遺民脫鯨鬪) : 남아있던 백성 중 왜적의 모진 고문 벗어난 자) :

- ① 유민(遺民) : 망한 나라의 백성 또는 패전한 국가의 백성을 이른다.
- ② 탈(脫) : 도망치다. 달아나 숨다. 떠나다.
- ③ 경의(鯨鬪) :

☆고대의 형벌 명칭.

a. 경(鯨) : 묵형(墨刑) : 죄인의 얼굴에 먹물로 죄명을 문신文身하던 형벌.

b. 의(鬪) : 코를 베는 형벌.

- 45) 백천(百千) : 수효가 백(百)에 달하고 천(千)이 넘음. 곧, ‘수천수백’이란 뜻이다. 수효가 아주 많음을 비유한 말이다(현대 중국어로는 ‘成百上千’으로 이 말을 풀이함).

- 46) 기리(饑羸) : 굶주려서 쇠약해지다.

- 47) 전죽(飢粥) : 된 죽과 묽은 죽.

- 48) 자전음(紫殿陰) :

- ① 자전(紫殿) : 제왕의 궁궐.
- ② 음(陰) : 본 시에서는 북쪽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49) 고신극무사(孤臣極無似 : 이 고루한 신하 너무나도 어리석어) :

- ① 고신(孤臣) :

☆고립무원(孤立無援) : 고립되어 구원을 받을 데가 없음의 처지가 됐거나 중용(重用)되지 못한 관계 소원한 신하.

☆임금의 신임을 받지 못하는 외로운 신하(臣下).

☆고루무지(孤陋無知) : 전문이 좁아 아는 것이 적고 마음가짐에 융통성이 없음)한 신하.

- ② 무사(無似) :

☆겸사(謙辭)로서 ‘불초(不肖)’와 같은 말이다. 부모의 덕망이나 유업을 이어받지 못할 정도로 못나고 어리석은 사람이란 뜻이다.

『예기(禮記)·애공문(哀公問)』편에, “과인이 비록 못났지만, 원컨대 이 세 가지 말을 행하는 도리를 듣고 싶는데, 들을 수 있겠소(寡人雖無似也, 願聞所以行三言之道, 可得聞乎)?”라고 했다.

후한(後漢)의 학자 정현(鄭玄 : 127~200)이 주석(注釋)하기를, “무사(無似)는 불초(不肖)와 같은 말이다(無似, 猶言不肖)”라고 하였다.

- 50) 증전복(從顛覆) : 전복시키는 일에 참여하다.

- ① 증(從) : 그 일에 참여하다. 따르다. 순종하다.

② 전복(顛覆):

☆거꾸로 뒤집다(뒤바꾸다).

☆(국가가) 전복되다, 뒤집어엎다, 멸망하다.

☆(이미 결정한 계획, 결정 등을) 뒤집다. 반복하다. (국면을) 전복시키다. 궤멸(분쇄, 타파)하다.

51) 남하삼접총(濫荷三接寵: 외람되이 은혜 입어 하루에도 수차 알현하는 총애 받고 도):

① 남하(濫荷): 외람되이 은혜를 입다.

☆남(濫): 외람되다.

☆하(荷): 은혜를 입다.

② 삼접(三接): 본 시에서 ‘삼접(三接)’의 ‘삼’을 꼭 정수(整數)로 보기보다는 허수(虛數)로 보아 ‘여러 차례’ 혹은 ‘수로 가늠할 수 없는 수’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52) 허도오정식(虛叨五鼎食: 부질없이 오정식五鼎食을 탐내었네):

① 허도(虛叨): 부질없이 탐내다.

② 오정식(五鼎食): 이 용어는 『사기·평진후 주보열전(史記·平津侯主父列傳)』에 보이는 것으로, 이후, 고관귀족의 호화스러운 생활을 형용한 것에 사용되거나, 혹은 고관후록(高官厚祿)에 비유되기도 하였다.

이는 전한(前漢) 한무제(漢武帝)때의 신하(臣下), 주보언(主父偃)의 위인 됄을 알 수 있는 단서가 된다. 위의 자료에 보면, 그는 남의 비밀을 폭로하기를 좋아하여, 대신들이 그의 입이 두려워서 뇌물을 바치는 풍토를 조성하였다. 그래서 당시에 누군가 그에게 그의 횡포가 과하다고 말을 하자, 그는 오히려 대신이 되기 전에 출세를 위해 천하를 유세하며 다녔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육친과 이웃으로부터 경멸당했던 사례들을 언급하면서, 바로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던 것이다. 즉, “대장부가 살아생전에 오정(五鼎)에 (소·돼지·닭·사슴 고기와 생선 등의) 음식물을 담아놓고 먹을 수 없다면, 죽어서 오정(五鼎)에 넣어 삶아지는 형벌을 받는 것이 낫겠다(且丈夫生不五鼎食, 死即五鼎烹耳)”라고 말을 하였다.

☆주보언(主父偃: ?~BC 126): 서한(西漢) 제국(齊國) 임치(臨淄) 사람. 한무제의 신하이다. 처음에 종횡술(縱橫術)을 배우다가 나중에 『역(易)』과 『춘추(春秋)』 등 백가(百家)의 사상을 배웠다. 제후왕(諸侯王)의 세력을 꺾어 약화시키고 추은(推恩)을 명분으로 삼아 자제들에게 분봉(分封)하여 후(侯)로 삼으라고 주장했다. 또 삭방군(朔方郡)을 두어 흉노(匈奴)에 대항하라고 건의했다. 모두 무제가 받아들여 낭중(郎中)에 오르고, 한 해 동안 네 번 승진하여 중대부(中大夫)가 되었다. 원삭(元朔) 2년(기원전 128) 외직으로 나가 제왕상(齊王相)이 되었다. 나중에 제왕과 누이의 간사한 일을 알려 제왕이 자살하게 했다. 그 역시 족주(族誅)당했다. 『한서(漢書)』 예문지(藝文志) 종횡가(縱橫家)에 저서 『주보언(主父偃)』이 있었지만 이미 없어졌고, 청나라 사람이 편집한 책이 전한다(이상은 중국역대인명사전 참조).

53) 구치웅마간(驅馳戎馬間: 말 채찍 휘둘러 각 군 진영 시찰하며):

① 구치(驅馳): 말을 채찍질하여 질주하다.

② 웅마(戎馬): 군마(軍馬). 전마(戰馬). 전(轉)하여, 군대를 가리킨다.

③ 간(間): 시찰하다. 검열하다.

- 54) 민면수근력(民勉輸筋力) : 전력 다해 애썼으나 근력만 소진했네) :
- ① 민면(民勉) : 민면(民勉)으로도 쓴다. 이는 ‘노력하다, 힘쓰다, 애쓰다.’의 뜻이다.
 - ② 수(輸) : 소진하다. 훼손하다.
- 55) 풍찬살수안(風餐薩水岸) : 살수薩水강변에서 찬바람 안고 식사했고) : 임난(壬亂) 발생 이듬해, 살수 곧 청천강(淸川江) 연안에서 바람을 맞고, 눈이 내리는 파주(坡州) 별관에서 들잠을 자면서 평양탈환과 벽제관(碧蹄館) 전투 중에서 겪었던 노고를 함축시키고 있다.
- ① 풍찬(風餐) :
 - ☆바람이 부는 가운데서(바람을 안고) 식사를 하다. 여행길이거나 야외생활의 고달픈 형용한 말이다.
 - ② 살수(薩水) : 지금의 평안북도 적유령(狄踰嶺)에서 시작하여 회천(熙川)·영변(寧邊)·정주(定州)·박천(博川)·안주(安州) 등지를 거쳐 황해(黃海)로 흘러드는 청천강(淸川江)으로, 고구려 때의 이름은 살수이며, 길이 199km이다. 서에는 계사년(癸巳年 : 1593) 1월 조·명(朝明)연합군이 평양성 탈환이후, 이어 송(李如松)이 여세를 몰아 벽제관(碧蹄館)에서 왜군과 격전을 벌였으나 크게 패한 이후, 전의(戰意)를 잃고 화친하려는 이어송의 내심을 항전의 의지로 돌려보기 위해 노력하면서 살수연안과 파주(坡州) 등지에서 동분서주하였었다. (이상은 「서애년보」 계사년 항목과 『징비록(懲毖錄)』의 권2, 제8, 제9장 참조 바람).
- 56) 파주(坡州) : 경기도 북서부에 위치함. 현재의 파주군은 파평(坡平), 서원(瑞原), 양현(楊縣)을 합한 것이다. 475년(고구려 장수왕 63)에는 파주사현(坡州史縣)이라 칭하였고, 1398년(조선 태조 7)에 원평군(原平郡)이라 칭했으며, 1461년(세조 7) 파주목(坡州牧)으로 승격되었다가, 1895년 군(郡)이 되었다. 1996년 3월 행정 구역 개편 때 파주시(坡州市)로 승격되었다.
- 동부 및 북동부는 감악산(紺嶽山, 675m) 노고산(老姑山, 400.9m) 등의 산봉을 경계로 양주군(楊州郡)과 연천군(連川郡)에 접경하고, 남부는 명봉산(鳴鳳山, 245.8m) 개명산(開明山) 등의 산봉을 경계로 고양군(高陽郡)과 접하며, 북서부는 군사분계선으로 그 사이를 임진강(臨津江)이 흘러내리고 있다. 면적은 676.89km²이다.
- 57) 흔적구산중(屨積丘山重) : 파오는 쌓여서 산악같이 무거운데) :
- ① 흔(屨) : 파실, 죄과. 결함.
 - ② 구산(丘山) : 산악(山岳).
- 58) 사호멸(絲毫蔑) :
- ① 사호(絲毫) : 극히 미세하다. 사(絲)나 호(毫)는 모두 극히 적은 것을 나타낸다.
 - ② 멸(蔑) : 없다.
- 59) 인위가이복(人爲可以卜) : 사람이 하는 일이라 예측은 할 수 있다네) :
- ① 인위(人爲) :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일(人力所爲). 천연(天然)과 자연(自然)의 상대적인 말이다.
 - ② 복(卜) : 예측(豫象)하다.
- 60) 영념음우초(永念陰雨初) : 왜란 초기를 곰곰이 생각해보니) :
- ① 영념(永念) : 늘(자나 깨나) 생각하며 잊지 않다. 마음에 새겨 잊지 않다.
 - ② 음우(陰雨) : 음우회명(陰雨晦冥)의 악어로 쓰였다. 비오고 구름 끼어 날씨가 컴컴해진 모양을 난세에 비유한 말이다.

- ③ 초(初): 초기, 발단, 시작.
- 61) 주무(綱繆) : 단속을 잘한다고 했으나 세밀하지 못했었네):
- ① 주무(綱繆):
- ☆단단히(견고하게) 동여맨 모양.
- ☆빈틈없이 사전 준비가 잘 되었음을 비유하는 말.
- 62) 묘당좌린훤(廟堂坐麟植): 조정에 기린 탈 쓴 나귀들만 앉아있고):
- ① 묘당(廟堂): 조정.
- ② 인훤(麟植): 기린 훤(麒麟*植)의 약칭. 풍지(馮贄)의 『운선잡기(雲仙雜記)』 권9 「조야침재(朝野僉載)」에서 이르기를: “당나라 양형은 매번 조관을 ‘기린 훤’이라고 칭했다. 어떤 이가 이를 묻자, 답하기를: ‘요즈음 거짓으로 기린을 희롱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 외형만을 꾸미고자, 당나귀 위에 그것을 덮어씌워, 마치 다른 동물 같다. 그리하여 그 껍데기를 벗겨내면, 여전히 다시 당나귀일 뿐이다.’(唐楊炯每呼朝士爲麒麟植。或問之，曰: ‘今假弄麒麟者，必修飾其形，覆之驢上，宛然異物。及去其皮，還是驢耳。’)”라고 한데서 나온 말이다.
- 당(唐)나라 시대 사람들이 연극을 할 때, 기린(麒麟)의 껍데기를 가지고 가장한 당나귀를 ‘기린 훤(麒麟植)’이라 칭했다. 세속에서, 걸만 번지르르하고(유명무실하여) 진정한 재능이 없는 인물을 비유하는 말로 썼다.
- *기린(麒麟): 고대 전설에서 전하는 상상의 영수(靈獸: 신령스러운 짐승)이다. 성군(聖君)이 나타나서 왕도(王道)가 행해지면 나타났다고 하며, 생초(生草)를 밟지 않고 생물을 먹지 않는다고 한다. 그 형상은 사슴과 같이 생겼고, 머리에 뿔이 있으며, 전신(全身)에 비늘이 덮였으며, 이마는 이리, 꼬리는 소, 굽은 말과 같다고 한다. 고대인은 이 짐승을 서수(瑞獸: 상서로운 짐승)로 여겨, ‘상서(祥瑞: 길조吉兆)’를 상징하였다. 재능이 걸출한 인물에 비유하는 말로도 썼다.
- 63) 변비다후목(邊鄙多朽木: 변방에는 썩은 나무 같은 사람이 허다했네):
- ① 변비(邊鄙): 변강(邊疆). 변경(邊境). 나라의 경계가 되는 변두리의 먼 땅.
- ② 후목(朽木):
- ☆썩어 문드러진 나무. 부식(腐蝕)한 나무.
- ☆일하고자(배우고자)하는 의지와 기개가 없는 사람은 가르칠 수 없다(육성할 수 없다)는 것을 비유한 말로도 쓴다. 본 시에서는 이렇게 비유적으로 쓰고 있다.
- 64) 유강기해뉴(維綱既解紐: 나라의 기강이 이미 무너지고 나니):
- ① 유강(維綱): 국정(國政)을 매어 유지하는 밧줄이라는 뜻으로 강기(綱紀), 법도를 이른다.
- ② 해뉴(解紐): 국가 기강(紀綱)이 문란해지는 것을 비유한 말. ‘뉴(紐)’는 속(速: 기강으로 묶다)의 뜻이다.
- 65) 허척(虛擲): 헛되이 폐기되다. 헛되이 내놓다.
- 66) 급(急): 급히 필요하다.
- 67) 화병(畫餅): 그림의 떡. 화중지병(畫中之餅)의 약어(略語)로서, 허명만 지니고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이나 그러한 물건을 비유하는 말로 쓴다. 허사가 된 일을 비유하기도 한다. 본 시에서는 헛된 명성만 지니고 아무 쓸모가 없는 인물을 비유하는 말로 쓰였다.

68) 금구(金甌) :

- ① 금속동이. 쇠붙이로 만든 사발의 일종. 쇠그릇.
- ② 강토(疆土)의 온전함을 비유하는 말. 전(轉)하여 ‘국토’를 가리키는데 쓰기도 한다. 『남사(南史)·주이전(朱異傳)』에, “남조(南朝) 양무제(梁武帝)가 일찍 잠자리에서 일어나 무덕합(武德閣 : 궁궐 정문 옆에 있는 작은 문의 명칭) 입구에 이르러, (혼잣말로 이르기를), ‘나의 나라는 오로지 쇠그릇과 같아서, 조금도 훼손되지 않으리라’(武帝 嘗夙興至武德閣口, ‘我國家猶若金甌, 無一傷缺)’”고 하였다.

69) 망양보가보(亡羊牢可補 : 염소는 잃었어도 축사畜舍는 보수해야 하고) : 이는 망양보퇴(亡羊補牢)의 성어(成語)에서 유래한 말로, 평소에 손을 쓰지 않고 있다가 실패한 뒤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말에 쓰이는 것으로, 동의어로는 망우보퇴(亡牛補牢)가 있다.

- ① 망양(亡羊) : 이 성어(成語)의 출전인 『전국책(戰國策)·초책4(楚策四)·장신훈행신(莊辛論幸臣)』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오히려, 양을 잃고 외양간을 고쳐도 늦지 않다는 뜻으로 쓰고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전국시대 초(楚)나라에 장신(莊辛 : 생몰년 미상)이라는 대신이 하루는 초 양왕(襄王 : 경양왕頃襄王 : ?~BC 263)에게 사치하고 음탕한 신하들을 멀리하고, 왕 또한 사치한 생활을 그만두고 국사에 전념할 것을 충언하였다. 그러나 왕은 오히려 욕설을 퍼붓고 장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 장신은 결국 조(趙)나라로 갔는데, 5개월 뒤 진(秦)나라가 초나라를 침공하여 양왕은 성양(城陽)으로 망명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양왕은 그 체셔야 비로소 장신의 말이 옳았음을 깨닫고 조(趙)나라에 사람을 보내 그를 불러들였다. 양왕이 이제 어찌해야 하는지를 묻자 장신은 한 마디의 속담을 들어,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토끼를 발견하고 나서 사냥개를 불러도 늦지 않고, 양이 달아난 뒤에 축사(畜舍)를 고쳐도 늦지 않습니다(見兔而顧犬, 未爲晚也; 亡羊而補牢, 未爲遲也)”고 하였습니다. 신(臣)이 듣기에, 옛날에 탕왕(湯王)과 무왕(武王)은 백 리 땅에서 나라를 일으켰고, 겹왕(桀王)과 주왕(紂王)은 천하가 너무 넓어 끝내 멸망했습니다. 이제 초나라가 비록 작지만 긴 것을 잘라 짧은 것을 기우면 수천리나 되니, 어찌(탕왕과 무왕의) 백 리 땅과 견줄 바가 되겠습니까(臣聞昔湯武以百里昌, 桀紂以天下亡. 今楚國雖小, 絕長續短, 猶以數千里, 豈特百里哉?)”라고 하여, 이미 양을 잃은 뒤에 우리를 고쳐도 늦지 않다는 뜻으로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해 실패 또는 실수를 해도 빨리 뉘우치고 수습하면 늦지 않다는 말이다. 따라서 부정적인 뜻보다는 긍정적인 뜻이 강하다. 본 시에서도 역시 긍정적인 뜻으로 쓰고 있다.

- ② 가보(可補) : 보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 여기서 ‘가(可)’는 능원(能願) 조동사로 서, ‘~할 만하다’의 의미를 지님.

70) 가축(可築) : 즉 ‘새로 고칠만한 가치가 있다’는 의미이다. 여기의 ‘가(可)’는 앞의 출구(出句)인 “망양퇴가보(亡羊牢可補)”에서의 ‘가보(可補)’의 ‘가(可)’와 동일한 성분을 지닌다.

71) 유가급(猶可及) : 아직 해낼 수 있다. 본 시에서는 국력을 재건하고 나라를 부흥할 수 있음을 뜻하는 말로 쓰였다.

- ① 유가(猶可) : 아직 ~할 수 있다.
- ② 급(及) : 도달하다. 이르다. 제 시간에 대다. 늦지 않다.

72) 일일문창합(一一聞聞闔 : 일일이 임금께 아뢴 수 있겠는고!) :

① 일일(一一) : 하나하나, 낱낱이, 일일이.

② 문창합(聞聞闔) : 임금께 아뢰다.

☆문(聞) : 남에게 들려 알게 하다. 특히 높은 사람에게 아뢰다.

☆창합(闔闔) : 궁전을 가리킨다. 전(轉)하여, 조정(朝廷)을 가리키기도 한다. 명(明)나라 문인 진여원(陳汝元 : ?-?)의 『금련기(金蓮記) · 생리(生離)』편에, “제가 지금 바로 조정에 상소를 올려, 해직되었지만 형님을 구하러 합니다(小弟正欲上書闔闔, 解職救兄).”고 하였다.



시30 강릉으로 가는 김창원을 전송하며 읊은 시 세 수

詩30. 送金昌遠¹⁾赴江陵²⁾ 三首
송 김 창 원 부 강 릉 삼 수

其一
기 일

[1]

客路東風急³⁾,
객 로 동 풍 급

여로旅路에 봄바람이 거셴을 터인데,

離亭夕照明⁴⁾。
리 정 석 조 명

송별하는 이 정자엔 석양이 밝게
비치네그려.

留連⁵⁾一杯酒,
유 연 일 배 주

차마 헤어지기 서운하여 술잔 들어봐도,

不盡兩鄉情。
부 진 양 향 정

두 사람 동향同鄉 정의情誼 다 표현
못하겠네.

白髮來相逼⁶⁾,
백 발 래 상逼迫

백발이 성성해지며 병치레 잦아도,

丹砂⁷⁾鍊未成。
단 사 련 미 성

불사약은 아직 제조하지 못했다네.

仙山掇瑤草⁸⁾,
선 산 월 요 초

선산仙山에서 자란다는 향초[瑤草]나
채취하여,

寄我制頽齡⁹⁾。
기 아 제 퇴 령

내게 부치게나 쇠해진 노령老齡을
멈추어 보려네.

其二
기 이

[2]

七年同去國¹⁰⁾，
칠 년 동 거 국

칠년 왜란 종전 후에 조정을 떠났으니,

千里獨還京¹¹⁾。
천 리 독 환 경

천리 한양 길을 어찌 다시 돌아가리.

世事迷春夢，
세 사 미 춘 몽

세상사는 덧없는 춘몽 속에 헤매고,

人生逐¹²⁾水萍。
인 생 추 수 평

인생은 물에 뜬 부평초 같이 떠다니네.

丹心天北極¹³⁾，
단 심 천 북 극

내 충정 하늘의 북극성에 머무는데,

白首海邊城¹⁴⁾。
백 수 해 변 성

백발의 늙은 몸은 해변성海邊城 같은
마을에서 기거하네.

芳草年年綠，
방 초 년 년 록

방초는 연년이 푸른빛 드리우는데,

其如遠別情¹⁵⁾。
기 여 원 별 정

멀리 헤어지는 이별 정은 어찌할꼬?

其三
기 삼

[3]

聖主洪恩重，
성 주 홍 은 중

성군聖君의 큰 은혜 한없이 무겁거늘,

孤臣罪釁多¹⁶⁾。
고 신 죄 혼 다

미천한 이 신하는 과오만 허다하네.

一言無補效,
일 언 무 보 효

한마디로 말해서 나라에 보답하지
못하고,

萬計悉蹉跎¹⁷⁾。
만 계 실 차 타

만 가지 계책 다 어긋나고 말았네.

風樹南來晚¹⁸⁾,
풍 수 남 래 만

못 다한 효도 한탄하나 귀향은 너무
늦었고,

宮雲北望餘¹⁹⁾。
궁 운 북 망 사

궁궐 쪽에 구름 끼어 북쪽이 아득하네.

惟殘數行淚,
유 잔 수 행 루

단지 남은 몇 줄기 눈물이나마,

寄灑漢江波²⁰⁾。
기 채 한 강 파

저 한강물에 부쳐 불까하네.

1) 김창원(金昌遠) : 김홍미(金弘微) : 창원(昌遠)은 자(字)이고, 홍미(弘微)는 이름이다.

① 김홍미(金弘微 : 1557~1604) :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상주(尙州), 호는 성극당(省克堂). 조식(曹植)과 류성룡(柳成龍)의 문인이다. 김홍미는 또한 서애자신의 질서(姪婿), 즉 백씨(伯氏)인 겸암(謙菴) 류운룡(柳雲龍)의 맏사위이다.

1585년(선조 18) 문과에 급제하여 이조좌랑(吏曹佐郎)으로 정여립(鄭汝立)의 모반 사건에 관련되어 한때 파직되었다가 교리 등을 거쳐 사간(司諫), 사성(司成) 등을 역임하였다. 1597년 우부승지(右副承旨)로 있을 때, 이순신(李舜臣)을 탄핵하여 파면케 하고, 원균(元均)을 통제사로 삼게 하는데 가담하였다. 1598년 형조참의(刑曹參議)를 거쳐, 1605년 강릉부사(江陵府使)때 병고로 면직되었다.

2) 부강릉(赴江陵) : 「서애연보」에 의하면, 서애와 김창원의 송별 장소는 지금의 경북 안동시 풍천면 광덕리(廣德里)의 옥연정(玉淵亭)이었으며, 때는 갑진년(甲辰年 : 1604년 : 선조 37년. 서애 63세)이었다. 김홍미는 1604년 1월에 강릉부사(江陵府使)로 부임하여, 1605년에 병고로 면직되었으니까 햇수로는 2년을 재직했다.

3) 객로동풍급(客路東風急) : 여로旅路에 봄바람이 거셌을 터인데) :

① 객로(客路) :

☆타향의 길을 가리킨다.

☆여행(여정旅情)을 가리킨다.

② 동풍(東風) :

☆동쪽에서 부는 바람.

☆봄바람(‘갯바람’이라고도 하며, 뱃사람들의 은어로, 동풍을 뜻함).

- 4) 이정석조명(離亭夕照明 : 송별하는 이 정자엔 석양이 밝게 비치네 그려) :
- ① 이정(離亭) : 고대에는 성(城)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거리의 도로변에 정자(亭子)를 지어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휴식처로 제공하였다. 고대 사람들은 왕왕 이곳에서 송별하였다. 본 시에서는 서애의 본가와 거리가 약간 떨어진 옥연정(玉淵亭)을 가리킨다. 전(轉)하여, ‘길을 떠나는 사람을 보내는 자리’ 곧 ‘전별(錢別)의 좌석’이라는 뜻으로도 쓴다.
 - ② 석조(夕照) : 석양.
- 5) 유련(留連) : 유련(留聯)으로도 쓴다. (떠나거나 버리기) 아쉬워하다. 차마 떠나지(버리지) 못하다.
- 6) 상핍(相逼) : 상핍(相逼)으로도 씀. 서로 핍박(逼迫 : 바짝 죄어서 몹시 괴롭게 굴)하다.
- 7) 단사(丹砂) : 단사(丹沙)로도 쓴다.
- ① 주사(朱砂) : 진사(辰沙 : 辰砂)라고도 하며, 수은으로 이루어진 황하 광물이다. 육방정계(六方晶系)에 속하며, 진한 붉은 색을 띠고 다이아몬드 광택이 난다. 흔히 덩어리 모양으로 점판암(粘板巖). 혈암(頁巖), 석회암 속에서 나며 수은의 원료로 쓰는 붉은색 안료(顏料)이다.
- 고대에는 도가(道家)에서 이 단사(丹砂)를 황금이나 불로불사(不老不死)의 묘약을 만들었다는 연금술(鍊金術)의 재료를 썼고, 중의(中醫), 한방(韓方) 모두가 약용으로 썼으며, 현대에는 안료(顏料)로 가공하기도 하고, 의약, 화약, 살충제, 온도계, 기압계 따위를 만드는데 쓴다.
- 8) 요초(瑤草) :
- ① 전설상의 향초.
 - ② 진귀하고 아름다운 풀.
 - ③ 백설(白雪)에 덮힌 풀.
- 9) 퇴령(頽齡) : 퇴(頽)는 ‘쇠되하다’는 뜻이다. ‘쇠년(衰年 : 노쇠한 나이), 고령(高齡), 만년(晩年)’의 뜻이다.
- 10) 칠년동거국(七年同去國 : 칠년 왜란 종전 후에 조정을 떠났으니) : 임진왜란 7년전쟁(1592~1598) 중에, 1597년 정유재란(丁酉再亂)의 발발로, 울산전투에서 조·명(朝明) 연합군이 왜군에 패배한 사건을 두고, 당시 군문(軍門 : 총병관總兵官)인 병부상서(兵部尙書) 형개(邢玠 : 생몰년 미상)의 참모관이었던 병부주사(兵部主事) 정응태(丁應泰 : 생몰년 미상)가 경리(經理) 양호(楊鎬 : ?~1629)를 울산전투에서 패배한 사실을 은폐하고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과 조정을 속이고 일을 그르쳤다는 20가지의 죄목으로 그를 핵주(劾奏)한 일이 도화선이 되어, 선조(宣祖)가 그것이 사실과 다를 것을 밝혀주고자 하다가, 오히려, 정응태의 무주(誣奏)를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로 인해, 정응태는 조선정부도 양호와 합작하여 패배사실을 은폐했을 뿐 아니라, 왜인들과도 통보했다고 탄핵함으로써, 마침내 그의 무주(誣奏)를 해명하는 진주사(陳奏使)로 서애를 차임(差任)하였고, 서애는 자신도 이와 관련하여, 탄핵을 받는 입장이니 적임자가 아니라고 고사(固辭)하였다. 서애는 임란 7년 전쟁을 진두에서 지휘했던 대신으로서, 크고 작은 음해를 받아오다가 진주사의 고사 등을 정점으로 하여, 북인파(北人派)의 집중적인 탄핵을 받아 1598년 10월에 영의정을 파직당하고, 12월에는 모든 관직이 삭탈되었으며, 1599년(선조 32) 58세에는 향리 화회(河回)로 돌아왔다.

(이상은 『징비록(懲毖錄)』 권2 제10장, 11장 및 『서애연보(西厓年譜)』 56세-58세 조항 참조 하였음. 앞의 「시21」의 주석1)도 참조 바람)

11) 독(獨) : 어찌 ~할 수 있겠는가?

12) 축(逐) : 훔날리다, 떠돌아다니다.

13) 북극(北極) : 북극성.

『진서(晉書)·천문지(天文志) 상(上)』에, “북극성은 북쪽 하늘의 별 중에 가장 높은 별이라 … 천체의 운행이 무궁하여, 해와 달과 일반 별들은 번갈아 가며 빛을 발하지만, 북극성은 이동하지 않는다. 그런 까닭에 이르기를, ‘북극성이 머무르는 곳에서 못 별들이 함께한다고 한다(北辰最尊者也 … 天運無窮, 三光迭耀, 而極星不移, 故曰, ‘居其所而衆星共之’)”라는 대목이 있다. 후에 사람들은 이 말로 인해서 북극성을 ‘제왕’에 비유하는 말로 썼다.

14) 해변성(海邊城) : 직역하면 ‘해변에 둘러쳐진 성곽’이란 뜻이나, 본 시에서는 ‘해변에 성곽을 둘러친 듯한 촌락’이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 곧 당시 서애(西厓)가 귀향하여 은거하고 있는 ‘하회마을’을 비유하여 표현한 말이다.

‘해변성(海邊城)’의 ‘해변’이란 말에서 보듯이 서애가 바다로 본 낙동강은 넓은 강물이 동쪽에서 흘러 들어와 하회마을을 감싸고 화산(火山)과 부용대(芙蓉臺) 사이를 북으로 흐르다가 서류(西流)하고 다시 동쪽으로 흐르다가 부용대 뒤편에 가서는 또 물길을 서쪽으로 돌린다. 뿐만 아니라, 강가의 모래사장이 넓어 흡사 해변을 연상케 한다.

그런가하면, 하회마을과 강물을 중심으로 하여 주변에 동쪽에는 화산(火山), 남쪽에는 남산과 팔선대, 서쪽에는 서애(西厓 : 류성룡은 이 산의 명칭을 따와서 호號를 지었음. 이 산은 원자산遠志山에 이어짐), 북쪽에는 부용대(芙蓉臺)가 마치 성곽처럼 둘러싸고 있다. 그래서 시인은 본 시에서 하회마을을 ‘해변성’이라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

15) 기여원별정(其如遠別情 : 멀리 헤어지는 이별의 정은 어찌할꼬!) :

****서애주석 :**

“이때 김성극(金省克)을 아침에 송별하고 도성(都城)에 들어갔다(時以朝辭入都)”고 하였다.

본 시의 작시(作詩) 연대는 1604년(甲辰年) 서애 63세 때이다.

이때(3월), 김공이 강릉의 임소로 가게 되자, 선생이 옥연정사(玉淵精舍)에서 그를 송별하면서 술을 두어 잔 마신 다음 일어났다. 김공이 갑자기 개연히 탄식하여, “선생을 황야에 몰라나와 계시게 하니 시사(時事)가 말이 아닙니다”라고 하자, 선생은 깜짝 놀라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대는 어찌서 이런 말을 하는가? 늙은 내가 변변치 못하여 국사를 이 지경에 이르게 하였는데도 성은이 하늘과 같아서 내가 향촌에서 목숨을 연장하도록 해 주셨으니, 지금까지 7년 동안에 털끝만한 것도 다 하늘이 주신 것이네”라고 한 다음, 이어 오랫동안 눈물을 흘리다가 5언율시 한 수를 지어 그 뜻을 부쳤는데, 그것이 바로 본 시의 제3수의 시이다.

① 기여(其如) : 어찌하랴, 어찌할꼬!

16) 고신죄흔다(孤臣罪罽多 : 미친한 이 신하는 과오만 허다하네) :

① 고신(孤臣) : 고루(孤陋)하고 무지(無知)한 신하. 주로 자기 겸칭으로 쓴다.

② 죄흔(罪罽) :

☆과오, 허물.

☆죄행(罪行 : 범죄행위, 범법행위), ‘흔(罨)’은 ‘허물, 죄과’의 뜻.

17) 차타(蹉跎) :

- ① 실족(失足) : 발을 헛디딤. 행동을 잘못하다.
- ② 실시(失時)하다.
- ③ 실의(失意)하다.

18) 풍수(風樹) : 풍수지탄(風樹之嘆)의 약어. 이는 ‘이미 돌아가신 부모에게 효도를 다 하지 못한 한탄’의 뜻이다.

서한(西漢) 초기 연(燕) 나라 학자, 한영(韓嬰 : ?~?)이 그의 『한시외전(韓詩外傳)』 권9에서, “고어(皐魚 : 공자의 제자로 고시高柴라고도 함)가 말하기를, ‘…나무는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멎지 않고, 자식이 어버이를 봉양하고자 하나 어버이는 기다려 주지 않는다’(皐魚曰, ‘樹欲靜而風不止, 子欲養而親不待也’)”고 했다. 이 글로 인해 서 후세 사람들은 ‘풍수(風樹)’라는 말을 ‘부모가 돌아가셔서 봉양할 수 없는 전고(典故)’로 삼았다.

19) 사(賒) : 아득하다, 멀다.

20) 한강(漢江) : 본 시에서는 ‘낙동강’의 대칭(代稱)으로 쓰였다. 왜냐하면, 작자 서애가 김창원(金昌遠)을 전송하면서 본 시를 짓는 장소는 하회마을 앞 낙동 강변에 위치한 옥연정(玉淵亭)이기 때문이다. 역자는 한강을 ‘큰 강’으로 번역하였다. 그 근거로, ‘한강’의 본래 의미를 보면 아래와 같다.

『한서(漢書)』 지리지에는 대수(帶水)로 표기되어 있고, 광개토왕릉비(廣開土王陵碑)에는 아리수(阿利水)로 기록되어 있으며, 또한 『삼국사기(三國史記)』 백제건국설화에는 한수(寒水)로 되어 있다. 한강의 명칭에 ‘한(漢)’이라는 글자를 쓴 것은 중국 문화를 도입한 이후의 일이다. ‘아리’, 즉 ‘알’은 고대에 크다거나 신성하다는 의미로 쓰였으며, ‘한’도 이와 비슷한 뜻이다.



시31. 숙부肅夫 김동강金東岡의 별세를 애도하다

詩31. 輓金東岡肅夫¹⁾
만 김 동 강 숙 부

擬將糠粃鑄虞唐²⁾,
의 장 강 비 주 우 당

쪽정이 같은 사람 도와서
요순치세堯舜治世 실현코자 했으니

半世升沈³⁾一夢長。
반 세 승 침 일 몽 장

반평생 부침浮沈한 생애 한바탕
꿈이기엔 길었겠소.

直道⁴⁾已能酬聖主,
직 도 이 능 수 성 주

정도正道로서 이미 능히 주군께
보답하셨으니,

衰年不復戀金章⁵⁾.
쇠 년 불 부 연 금 장

노년에 다시 벼슬길에 연연하지
않았구려.

魂歸嶺嶠新阡遠⁶⁾,
혼 귀 영 교 신 천 원

혼백이 영남에 귀향코자 하니 새로
뉘은 유택幽宅 멀기만 하고,

路入鄉園舊業荒⁷⁾.
로 입 향 원 구 업 황

고향길목 들어서면 고택古宅이며 전원은
황폐해졌겠구려.

風度祗今那可得⁸⁾,
풍 도 지 금 나 가 득

마침 바람 불어오니 그대를 만날 수
있으려나,

獨留殘月照空梁⁹⁾
독 유 잔 월 조 공 양

지는 달만 홀로 남아 쓸쓸한 들보를
비추네 그려.

- 1) 만김동강숙부(晩金東岡肅夫 : 숙부肅夫 김동강金東岡의 별세를 애도하다) :

****서애주석 :**

“숙부 김동강은 충청도에서 떠돌며 지나다가, 청주에서 별세한 후, 성주(星州)로 운구(運柩)해 와서 장사지냈다(肅夫流落*湖西*, 歿于淸州*, 歸葬星山*)”고 하였다.

*유락(流落) : 타향에서 유랑하며, 곤궁해져 실의에 빠지다.

*호서(湖西) : 충청남도과 충청북도를 아울러 이르는 말.

*몰우청주(歿于淸州) : 청주에서 사망하다. 1599년 김동강(金東岡)은 예조참판(禮曹參判)을 사직하고 인천에서 한거(閑居)하다가, 이듬해(1600) 청주(淸州 : 충북 중앙에 위치함)로 옮겨, 충주(忠州 : 충북 북부)를 오가며 지나다가, 청주에서 사망하였다. 그 이듬해 2월에 성주(星州 : 경북 서남부) 서쪽 금파곡(金巴谷) 만리(萬里) 남향의 자리로 반장(返葬 : 객지에서 죽은 사람을 그가 살던 곳이나 고향으로 옮겨 장례를 치름) 하였으니, 선영(先塋)의 아랫자리였다.

*귀장성산(歸葬星山) : 성산(星山 : 지금의 경북 성주(星州 : 경북 서남부)의 옛이름)으로 반장(返葬)하다. 귀장(歸葬)은 반장(返葬)과 같은 말로서, ‘타향에서 죽은 사람의 시신을 고향으로 옮겨와서 장사를 지내다’는 뜻이다.

- ① 만(晩) : 사자(死者)를 애도(哀悼)하다.

- ② 김동강숙부(金東岡肅夫) : 숙부(肅夫) 김동강(金東岡).

☆김동강(金東岡) : 김우옹(金宇顙 : 1540~1603) : 조선 선조(宣祖) 때의 명신(名臣). 자는 숙부(肅夫), 호는 동강(東岡), 시호(諡號)는 문정(文貞). 본관은 의성(義城). 성주(星州) 출신이다. 처 외조부 되는 남명(南冥) 조식(曹植 : 1501~1572)의 제자이다. 1567년(명종 22)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홍문정자(弘文正字 : 궁중의 경서經書 및 사적史籍을 관리하여 문서를 처리하고 왕의 자문에 응하던 정9품직), 병조참판, 한성좌윤(漢城左尹), 대사성(大司成)을 거쳐 대사헌(大司憲)을 역임하였다. 기축옥사(己丑獄死 : 1589년(선조 22)에 정여립(鄭汝立 : ?~1589)의 모반을 계기로 일어난 옥사) 때 추방당해 회령(會寧)으로 귀양 갔었고, 임진왜란 때 석방되어 시무 7조(時務七條)와 8조 및 16조 등, 수시로 시무책(時務策)을 건의했다. 1598년 겨울에, 김동강이 한성부좌윤에 임명되었을 때,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 : 1542~1607)은 당시의 소인배들에게 모함을 받아 사태를 예측할 수 없게 되었던 까닭에 온 조정의 신료들이 혀를 깨물고 감히 말하지 못하였으나, 그가 항변의 상소를 올려 그 억울함을 호소하여 주상(主上)의 마음을 돌리는데 일조하였다. 또한 이보다 앞서 1595년(선조 28) 부제학(副提學)에 임명되었을 때, 학봉(鶴峰) 김성일(金誠一 : 1538~1593)은 충성을 다 하여 나라에 보답하다가 죽었다고 하며, 그의 가문을 보살피 주었고, 신하들에게 충의를 권장할 것을 요구하는 등 두 사람과의 관계가 돈독하였으며, 정

치적으로는 동인(東人)이었다. 이조판서(吏曹判書)로 추증되고 저서로는 『동강집(東岡集)』, 『속자치통감강목(續資治通鑑綱目)』 등이 있으며, 편서(編書)로 『경연강의(經筵講義)』가 있다.

- 2) 의장강비주우당(擬將糠粃鑄虞唐 : 쪽정이 같은 사람 도와서 요순치세堯舜治世 실현코자 했으니) :

- ① 의(擬) : ~할 생각이다. ~하려고 하다.
- ② 장(將) : 부족하다, 돕다.
- ③ 강비(糠粃) : 강비(糠粃)로도 쓴다. 겨와 쪽정이. 전(轉)하여, 조잡(저열, 조악)하여 아무 쓸모없는 사물을 비유하는 말로 쓴다. 본 시에서는 서에 자신과 학봉(鶴峰) 김성일(金誠一)을 이에 비유하였다.(위의 주석1)의 ②를 참조바람)
- ④ 주(鑄) : 주조(鑄造)하다. 본 시에서는 실현한다는 의미로 번역하였다.
- ⑤ 우당(虞唐) : 당우(唐虞) : 우순(虞舜)과 도당씨(陶唐氏)의 병칭. 즉 순(舜) 임금과 요(堯) 임금. 고대인들이 태평성세라고 여기는 요순시대로 치세(治世)의 모범을 가리킨다.

- 3) 승침(升沈) : 오름과 가라앉음, 승강(升降). 부침(浮沈), 성쇠(盛衰).
- 4) 직도(直道) : '정도(正道)'와 같은 말. 올바른 길. 정당한 도리, 준칙.
- 5) 금장(金章) : 금속으로 된 관인(官印). 일설에는 동인(銅印). 전(轉)하여, '벼슬값'을 가리키기도 한다.

- 6) 혼귀영교신천원(魂歸嶺嶠新阡遠 : 혼백이 영남에 귀향코자 하니 새로 닦은 유택幽宅 멀기만 하고) :

- ① 영교(嶺嶠) : 우리나라의 영남(嶺南)의 뜻이다. 영남은 '교남(嶠南)'이라고도 하는데, 영(嶺)이나 교(嶠)는 모두 '산봉우리'의 뜻으로, 죽령(竹嶺 : 689m)과 조령(鳥嶺 : 새재 : 548m)을 가리킨다.
영남이란 지방명은 소백산맥 중의 죽령과 조령 등 큰 재의 남쪽에 위치하였다는 데서 유래한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② 신천(新阡) : 신설(新設)한 묘도(墓道). 혹은 새로이 닦은 묘지로 가는 길.
☆천(阡) : 분묘, 묘지, 유택(幽宅), 분영(墳塋), 총묘(冢墓) 등으로 가는 길.

- 7) 로입향원구업황(路入鄉園舊業荒 : 고향길목 들어서면 고택古宅이며 전원은 황폐해졌겠구려) :

- ① 향원(鄉園) : 고향.
- ② 구업(舊業) : 고택(古宅)과 전원(田園).

- 8) 풍도지금나가득(風度祇今那可得 : 마침 바람 불어오니 그대를 만날 수 있으려나) :

- ① 풍도(風度) : 바람이 스치고 지나가다. 이때의 '도(度)'는 지나가다는 뜻이다.
- ② 지금(祇今) : 지(祇)는 지(只)와 통하여, '지금(只今)'과 동자(同字)로 이해됨. 따라서, 이는 '이제, 이 시간, 곧' 등의 의미를 지님.
- ③ 나가득(那可得) : 그것 참 잘됐는데. 그 사람이 만족하다.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다.
☆나(那) : 지시대명사로서, '그, 그 사람'의 뜻이다.
☆가득(可得) : 만날 수 있다.

- a. 득(得) : 보다. 만나다.

복송의 정치가이자 학자인 왕안석(王安石 : 1021~1086)의 시 「장명보張明甫의 별세로 내일 장례 수행을 앞두고 오늘 재숙齋宿하면서(張明甫至宿明甫)」

日遂行)』에, “내가 돌아왔지만 장공(張公)은 이미 별세했으니, 다시 만날 수 없음을 실망하여 탄식하네(我歸公既逝, 惆悵難再得)”라고 읊었다.

9) 독유잔월조공량(獨留殘月照空梁 : 지는 달만 홀로 남아 쓸쓸한 들보를 비추네그려) :

① 잔월(殘月) : 거의 다 저가는 달. 새벽녘까지 지지 아니하고 희미하게 남아 있는 달로서, 곧 그믐달을 가리킨다.

② 공량(空梁) : 쓸쓸한(공허한) 들보.



시32. 망사대

詩32. 望思臺¹⁾
망 사 대

望思臺望思臺，
망 사 대 망 사 대

망사대望思臺, 망사대로,

望思歸來胡²⁾不歸。
망 사 귀 래 호 불 귀

망사대로 돌아오라 어찌 돌아오지
않는가!

山川滿目³⁾遺恨多，
산 천 만 목 유 한 다

눈앞의 산천이 모두 생전에 못다 품
한으로 가득 차서,

樵歌⁴⁾一曲淚霑衣。
조 가 일 곡 루 점 의

나무꾼이 부르는 노래 소리에도
눈물이 옷깃 적시네.

征和天子誇雄武⁵⁾，
정 화 천 자 파 웅 무

정화년간征和年間의 천자가
응대한 원위 과시하자,

甘作江君⁶⁾掌中物。
감 작 강 군 장 중 물

(간신들은) 간절히 상군湘君의 손바닥
안의 물건이 되기를 원했네

無端讒說巧如簧⁷⁾，
무 단 참 설 교 여 황

까닭 없이 남을 헐뜯는 게 생황笙簧의
혀[簧葉]처럼 교묘했기에,

骨肉豺狼眞一瞥⁸⁾。
골 육 시 랑 진 일 별

육친 사이를 승냥이와 이리처럼

寧知父子便交鋒⁹⁾,
형 지 부 자 편 교 봉

白日城中流戰血。
백 일 성 중 류 전 혈

人生天地乃¹⁰⁾有此,
인 생 천 지 내 유 차

乃祖神靈潛掩泣¹¹⁾。
내 조 신 령 잠 엄 읊

嬰孩何辜並就夷¹²⁾,
영 해 하 고 병 취 이

壺關丈人言徒切¹³⁾。
호 관 장 인 언 도 절

高臺晚從湖上起¹⁴⁾,
고 대 만 종 호 상 기

湖水悠悠湖日薄¹⁵⁾。
호 수 유 유 호 일 박

臺邊只有長安道¹⁶⁾,
대 변 지 유 장 안 도

臺上不見甘泉宮¹⁷⁾。
대 상 불 견 감 천 궁

甘泉宮殿閉不開,
감 천 궁 전 폐 불 개

堯母之門¹⁸⁾崇復崇。
요 모 지 문 숭 부 숭

순식간에 살벌해지게 만들었네.

부자간에 곧 바로 창칼로 겨루어,

대낮에 성안에서 교전하다 유혈이
남지할 줄 어찌 알았으랴!

사람 사는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들 조상신령도 남몰래 흐느꼈으리라.

어린 황손은 또 무슨 죄로 함께
피살됐을까?

호관壺關 출신 원로가 마침내 간절하게
상소上疏했다네,

뒤늦게 (아들이) 그리워 호현湖縣 주변에
망사대望思臺 세웠는데,

호수는 아득아득 그 너머로 해가
지는구나.

망사대 주변은 오로지 장안長安으로
가는 길만 나있어,

망사대에 올랐지만 감천宮甘泉宮은
보이지 않느니라.

감천宮 궁문은 닫아걸고 열지도 않으니,

구익궁鉤弋宮의 요모문堯母門은 높고도

높구나.

- 1) 망사대(望思臺): 본 시제(詩題)는 서한(西漢)의 한무제(漢武帝: BC 156~BC 87)가 그의 아들 여태자(戾太子)를 그리워하면서 건축한 누대의 명칭이다. 이는 ‘무고의 난(巫蠱之亂)’으로 친아들 유거(劉據: BC 128~BC 91, 한무제의 장자. 여태자戾太子 또는 위태자韋太子라고도 칭함)가 자살하고 난 뒤, 자신의 아들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나서, ‘아들이 그리워 혼백이라도 돌아오기를 바라며 건축한 누대(樓臺)’로, 원래 명칭은 ‘귀래망사지대(歸來望思之臺)’이다. 역대로 이 누대의 명칭을 망사대로 약칭하였다. 당대(唐代) 시인 왕준(汪遵)의 시, 「망사대」에 의하면, 이 망사대는 9층탑으로 건축된 누대이다.

이는 호현(湖縣: 지금의 하남성 영보시 서쪽 문저진關底鎮)의 동쪽에 건축했다. 지금도 그 유적이 남아 있으며, 이 망사대(望思臺)는 사자궁(思子宮) 안에 건축된 것이다.

중국에서 후대의 문인들은 이 누대를 소재로 하여 많은 시문을 남기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여말(麗末)의 익재(益齋) 이제현(李齊賢)의 5언고시체로 된 「한무제 망사대(漢武帝望思臺)」가 보이며, 서애도 이를 시제(詩題)로 하여 무려 20구로 된 7언고시체(古詩體)의 「망사대(望思臺)」를 지어, 여기에 얹힌 애뜻한 사연을 표현하고 있다.

본 시의 이해를 돕기 위해, ‘무고의 난(巫蠱之亂)’의 발생과 경과 및 결과를 간술하고 아울러 한무제의 치적도 소개한다.

(1) 무고의 난(巫蠱之亂)

① 발생과 경과:

무고의 난(巫蠱之禍)은 서한(西漢) 정화2년(征和二年, BC 91년), 한무제(漢武帝) 66세 때에 발생한 정치적인 동란이다.

사건의 동기는 한무제가 노쇠하면서 병치레가 잦아지게 되자, 측근인사가 저지른 무고(巫蠱)의 소치(所致)로 의심을 하면서 시작되었다. 한나라 시대의 전통미신에는 무당이 해치고저 하는 상대방을 상징하는 목각인형을 만들어서 땅에 묻어 놓고 상대방에게 무술(巫術)을 걸어 저주하면 상대방이 큰 해를 입거나 죽는다고 생각했다. 이것을 ‘무고(巫蠱: 이 고蠱는 ‘남을 해치려 저주하는 곳’이란 뜻임)’라고 한다.

한무제는 만년(晩年)에 병치레가 잦았는데, 그것은 측근 인사가 저지른 무고(巫蠱)의 소치(所致)라고 의심하였다. 정화원년(征和元年: BC 92)에 승상 공손하(公孫賀: ?~BC 92)가 무술(巫術)로 저주를 하고 황제가 거동하는 길에 목각인형을 묻었다고 고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공손하 부자(父子)는 옥중에서 사망하였다. 이듬 해 한무제의 총신(寵臣) 강충(江充: ?~BC 91)이 평소와 관계가 좋지 않던 태자(유거劉據: 한무제의 장자長子)를 무고(誣告)하여, 태자가 궁중에 목각인형을 묻었다고 하자, 태자는 자신에게 화가 미칠 것을 두려워하여 강충을 나포(拿捕)하여 죽였다. 이에 한무제는 군대를 동원하여 태자를 추포하려하자, 태자도 군대를 발동하여 이에 항거하였다. 이렇게

격전이 치러진지 5일 후에, 태자는 패전하여 천구리(泉鳩里 : 지금의 하남성河南省 영보시靈寶市 서북 구수鳩水의 서쪽)로 도주하였다. 위황후(衛皇后 : 황후 위자부衛子夫 : ?~BC 91)는 즉시 자살하고, 관리들이 태자를 체포하려 하자 태자도 자진하였다. 이때 위자부의 소생인 공주 두 명도 피살되었다. 그러나 후에 유거(劉據)의 손자인 유순(劉詢)이 황위에 올라 선제(宣帝)가 되었다. 이 일단의 역사적 사건을 ‘무고의 난(巫蠱之亂 : 중국 역사서에서는 무고지화巫蠱之禍라고 씀)’이라 한다.

- ② **결과**: 당시의 명신(名臣) 전천추(田千秋 : 차천추車千秋 : ?~BC 77 : 노년에 공로를 인정받아 승상이 되면서 작은 수레를 타고 입궁하여 황제를 배알하도록 윤허 받아서 차승상車丞相이라 불렀고, 그 자손들은 성씨를 전씨田氏에서 차씨車氏로 바꾸었음)가 ‘무고의 난’이 끝난 뒤, 다시 한무제에게 상소를 올려 태자가 억울하였음을 고하면서 말하기를, “자식이 농간을 부린 일에 아버지가 병력을 발동했으면, 그 죄는 마땅히 태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천자의 아들이 과오로 살인을 했으면, 어떤 죄에 해당하겠는지요? 신은 일찍이 백발노인이 신을 교화시키는 말씀을 꿈꾸었습니다(子弄父兵, 罪當笞. 天子之子過誤殺人, 當何罪哉? 臣嘗夢一白頭翁教臣言)”라고 하였다. 이에, 한무제는 깊이 후회하고 강충일기는 멸족시키고 천구리(泉鳩里)로 태자에게 병력을 보낸 관계자는 처형하고, 소문(蘇文)은 횡교(橫橋)에서 화형(火刑)에 처하였다. 그리고 나서, 태자를 그리워하며 사자궁(思子宮)을 건축하였다. 또한 호현(湖縣)에 와서 사자궁 안에, 아들을 그리워하는 ‘망사대(望思臺)’, 즉 ‘귀래망사대(歸來望思臺)’를 건축하였다. (이상은 『한서·여태자·유거전(漢書 戾太子 劉据傳)』에 보임) 정화삼년(政和三年 : BC 90), 승상 유굴모(劉屈氂)의 부인과 이사(貳師 : 즉 이광리李廣利 : ?~BC 88)가 함께 사당에서 황제를 저주하고 창읍왕(昌邑王 : 유하劉賀 : ?~BC 59 : 한무제의 손자. 창읍왕 유박劉膊의 아들)을 황제로 추대하려 한다고 꾀양(郭穰)이 밀고 하였다. 한무제는 유굴모를 동시(東市)에서 요참형(腰斬刑 : 허리를 자르는 형벌)에 처하고 그의 처는 화양가(華陽街)에서 효수(梟首 : 죄인의 목을 베어 높은 곳에 매달아 놓던 형벌) 하였으며, 이사(貳師)의 처자(妻子)도 체포되었다.

바로 이 무고의 난은 발단에서 결말에 이르기까지, 전후 40여 년에 걸쳐 이와 같이 살상(殺傷)이 연속되었다. 그 결과, 정치와 군사상에서 인재들이 대량으로 유실되면서 서한(西漢) 정권의 쇠락을 가져오는 주요원인이 되었다.

(2) 한무제(漢武帝)의 치적 :

서한(西漢)의 제7대 황제로 BC 141~BC 87년까지 재위했다. 경제(景帝)의 둘째 아들로 성명은 유철(劉徹 : BC 156~BC 87), 시호(諡號)는 세종(世宗)이다.

① 한무제 시대의 내정(內政)

첫째, ‘황은(皇恩)을 제신(諸臣)들에게 확산시키는 명령’이란 뜻의 ‘추은령(推恩令)’을 내려, ‘각 제후왕은 그 자신들의 봉지(封地)를 자기 아들들에게 분봉(分封)하게 하고, 그 아들들을 후(侯)로 봉하게 함’으로써, 제후국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중앙집권을 강화하였다.

둘째, 당시의 재상 동중서(董仲舒 : BC 17?~BC 104)의 건의를 받아들여, 백가사상(百家思想 : 전국시대戰國時代 제자백가들이 내세운 각종 사상)을 배척하

고, 오직 유가사상만이 가장 합리적이고 정통사상이라 여겨 장려하면서, 오경 박사(五經博士: 역경易經·서경書經·시경詩經·예기禮記·춘추春秋 등 5경을 가르치는 학관學官)를 두어 치리(治理)에 맞도록 사상교육을 체계적으로 실행하였다.

셋째, 권신(權臣)들은 면직시키고 어질고 겸손한 법리(法吏)들을 등용하여 관리들의 자질을 향상시켰다.

넷째, 감찰제도를 확대하여 전국을 13주(州)로 행정구역을 나누고, 각 주(州)마다 자사(刺史)를 두어 각 군현(郡縣)에 대한 통치력을 강화했다.

다섯째, 상인들의 선박에 세금을 매기고, ‘고민령(告緡令: 재산을 허위로 신고하는 자를 엄벌하는 제도)’을 실시하는 한편 상인들의 자산에도 세금을 부과하여 부상(富商)을 통제했다.

여섯째, 정치가 상홍양(桑弘羊: BC 152~BC 80)의 건의를 받아들여 야철(冶鐵)과 제염(製鹽) 및 주전(鑄錢)을 판매하도록 했다. 동시에 평준관(平準官: 물가를 안정시키고 물류物流의 유통을 감독하는 관리)과 균수관(均輸官: 각지의 조세 수입으로 물자를 구매하여 중앙정부에 운송하는 관리)을 두어 물자의 운수(運輸)를 관영토록 했다.

일곱째, 대전법(代田法: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고랑과 두덩을 교체시켜 농작물의 연작連作을 피하던 농법)을 시행하여 수리(水利)를 일으키고, 둔전(屯田)을 실시하여 농민을 이주시켜서 농업발전을 기하였다.

여덟째, 제위기간 중에, 건원(建元)부터 후원(後元)까지 11차례나 연호를 바꾸었는데, 제왕이 연호를 가지게 된 단초(端初)를 열었다.

② 한무제 시대의 대외적인 치적

첫째, 외교가이자 탐험가인 장건(張騫: ?~BC 114)을 서역인 대월지국(大月氏國: 흉노족이 지금의 아프카니스탄에 세운 나라)에 파견하여 인도(印度)의 통로를 개척하고 서역의 정보를 가져와 동서의 교통과 문화의 길을 열었다.

둘째, 장군 위청(衛青: ?~BC 106)과 좌거병(霍去病: BC 140~BC 117) 그리고 이광(李廣: ?~BC 119) 등에게 명하여 흉노를 토벌시켜 오르도스(Ordos: 鄂爾多斯: 지금의 내몽고 자치구) 지방을 회복하여 두 군(郡)을 설치하고, BC 119년에는 무장 위청이 흉노족을 외몽고로 내몰았다. 하서(河西) 지방에 있던 흉노의 혼야왕(渾邪王: 흉노의 왕족으로 한왕조에 격파당하자 그의 부족을 이끌고 투항하였음)이 항복해왔으므로, 그 곳에 4군(四郡)을 설치하여 중앙아시아의 교통로를 확보했다.

셋째, BC 104년에는 이광리(李廣利: ?~BC 90)에게 명하여 파미르 고원 북서쪽에 위치한 대원국(大宛國: 페르가나)을 정벌하게 했다. 이렇게 하여 흉노족에 대한 방어를 하고 한인을 이주시켜 둔전(屯田)을 실시했다.

넷째, 남방으로는 지금의 복건성(福建省)에 있던 민월(閩越)과 동월(東越)의 두 왕국을 병합하고, BC 111년에는 번우(番禺: 지금의 광둥廣東지방)에 도읍하고 있던 남월(南越) 왕국을 멸망시켜 9개 군을 설치하고, 지금의 사천성(四川省)과 운남성(雲南省) 및 귀주성(貴州省) 일대에 있던 염방(冉駹), 수(犍), 작(笮), 야랑(夜郎) 등의 종족을 귀순시켜 그 곳에 6군(郡)을 설치하였다.

다섯째, 동쪽으로 고조산을 공격하여 도읍지 왕검성(王儉城)을 함락시키고, BC 108년에는 낙랑(樂郎) 등 4군을 설치하여 군현제(郡縣制)를 실시하였다.

요컨대, 이와 같이 국내외에 걸쳐 한무제의 공적이 뚜렷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무제의 호화스러운 사치(奢侈) 행각과 궁중생활 속에서의 황음(荒淫), 게다가 신선도(神仙道)를 지나치게 추구하였다. 관리들은 매관매직이 성행했고, 가혹한 세금으로 백성들의 생활은 궁핍해졌다. 여기에다가 황태자의 반란, 즉 무고(巫蠱)의 난(亂)까지 일어났다. 그래서 만년에는 외정(外政)을 중지하고 내정(內政)에 힘썼다. 무제시대 특색은 안으로는 중앙집권의 효력을 거두었다는 것이고, 밖으로는 국토영역이 확장되었는데 특히 중앙아시아를 통해 동서교섭이 왕성해졌다는 점이다.

- 2) 호(胡): 의문부사로 쓰여, ‘왜, 어찌서’의 뜻이다.
- 3) 만목(滿目): 시야(視野)에 충만하다. 눈에 가득 차다.
- 4) 초가(樵歌): 초부(樵夫: 나무꾼)가 부르는 노래.
- 5) 정화전자과웅무(征和天子誇雄武): 정화년간征和年間の 천자가 웅대한 권위 과시하자: ‘정화(征和: BC 92~BC 89)’라는 연호(年號)를 쓴 황제, 곧 한무제(漢武帝)를 가리킨다.

① 정화(征和): 한무제 재위기간에 쓴 연호 중의 하나로, BC 92~BC 89년인 4년간을 이른다. 자세한 것은 주석1)의 (2)의 ‘한무제 시대의 대내외적인 치책’ 조항을 참조바람.

② 웅무(雄武): 웅건한 권세와 무력.

- 6) 감작강군(甘作江君: 간절히 상군湘君이 되기를 원하다):

① 감작(甘作): 정원(情願):

☆간절히 바라다.

☆진심으로 원하다.

② 강군(江君): 상군(湘君)*의 별칭. 당(唐)나라 시인 이허(李賀: 790~816)의 시, 「난향신녀 사당에서(蘭香神女廟)」라는 제목의 시에, “비를 감상하다보니 무산신녀 요희도 만나게 되고(看雨逢瑤姬), 배를 타다보니 상수(湘水)*의 신녀 상군(湘君)과도 마주쳤네(乘船值江君)”라고 읊었는데, 청(淸)나라 학자이자 의사인 왕기(王琦: 1696~1774)는 이 시구를 주석(注釋)하면서, “강군(江君)은 곧 상군(湘君)이다(江君卽湘君也), 강군이 상강(湘江)의 신(神)인 까닭에 강군으로 바꾸어 부른 것이다(以其爲湘江之神, 故變稱江君)”고 하였다.

*상군(湘君):

수상(湘水: 광서성廣西省에서 발원하여 호남성湖南省으로 흘러들어가는 강)의 신(神). 역사적으로 상이한 해석이 있음.

요임금의 두 딸 아황(娥皇)과 여영(女英)을 순임금에게 비(妃)로 시집보냈는데, 『사기(史記)·진시황본기(秦始皇本記)』에서, “진시황이 박사들에게 묻기를, ‘상군은 어떤 신인가?’ 라고 하니, 박사들이 답하기를, ‘듣자오니, 요임금님의 딸이 순임금님의 처가 되었는데 죽어서 이곳에 묻혔다고 합니다(上問博士曰, ‘湘君何神?’ 博士對曰, ‘聞之, 堯女舜之妻而葬此’).”고 하였다.

서한(西漢)의 학자 유향(劉向: 약 BC 77~BC 6)이 쓴 『열여전(列女傳)·유우이

비(有虞二妃)』편에서, “순임금이 지방을 순시하다가 창오에서 죽자, 사람들은 그를 중화(重華)라고 불렀다. 두 왕비가 쫓아가서 장강(長江)과 상강(湘江) 사이에서 죽으니, 속칭 상군이라 한다(舜陟方死於蒼梧, 號曰重華. 二妃死於江湘之間, 俗謂之湘君).”고 하였다.

*상수(湘水)에 본래부터 수신(水神)이 있었는데, 이 신을 상군(湘君)이라고 한다는 설이다. 『초사(楚辭)·구가(九歌)·상군(湘君)』편에, “상군께서 오시지 않고 주저하시니, 도대체 누구를 위해 이 섬에서 머물러야 하나요(君不行兮夷猶, 蹇誰留兮中洲)?”라고 하였다.

이 문장에 대해서 동한(東漢)의 학자 왕일(王逸: ?~?)이 주석(注釋)하기를, “‘군(君)’은 상군을 이르는 것이다. … 기다리는 사람은 아마도 요임금의 두 딸일 것이다(君謂湘君…所留蓋謂此堯之二女也).”라고 하였다.

송나라 학자 홍흥조(洪興祖: 1090~1155)가 보주(補注)하기를, “왕일이 상군을 상수의 신이라 하였는데, 상군을 섬 가운데서 기다리는 사람은 두 여인[아황(娥皇)·여영(女英)]이라고 생각된다(逸以湘君爲湘水神, 而謂留湘君於中洲者二女也)”고 하였다. 이외에도 천제(天帝)의 딸이라는 설, 상수(湘水)의 남신(男神)이라는 설, 순임금의 정비(正妃) 아황(娥皇)이라는 설 등이 있다.

7) 무단참설교여황(無端譏說巧如簧: 까닭 없이 남을 헐뜯는 게 생황笙簧의 혀[簧葉]처럼 교묘했기에):

① 무단(無端): 까닭 없이. 무단히.

② 참설(譏說): 참언(讒言): 거짓으로 꾸며서 남을 헐뜯어 윗사람에게 고하여 바침. 남을 헐뜯는 말. 참소(讒訴)하는 말.

③ 여황(如簧):

☆‘생황소리와 같다’는 말로, 교묘하게 꾸며대는 말을 잘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 ‘황(簧)’은 원래 피리와 같은 목관악기의 부리에 끼워 소리를 내는 얇고 가름한 조각이다. 이것은 ‘황(簧)’ 또는 ‘황엽(簧葉)’이라고 한다.

『시경(詩經)·소아(小雅)·교언(巧言)』, “생황 소리 같은 교묘한 말은, 낮 두 끼운 자들이나 하는 짓이로세(巧言如簧, 顏之厚矣)”라고 하였다.

8) 골육시랑진일별(骨肉豺狼眞一瞥: 육친 사이를 승냥이와 이리처럼 순식간에 살벌해지게 만들었네):

① 시랑(豺狼):

☆승냥이와 이리.

☆탐욕, 잔인하고 무정한 자를 비유하는 말. 큰 해독을 끼치는 잔악한 자를 비유하는 말로도 쓴다.

② 일별(一瞥): ‘한번 흘깃 보다’는 뜻인데, 자주 ‘지극히 짧은 시간’을 비유하는 뜻으로 쓴다.

9) 영자부자면교봉(寧知父子便交鋒: 부자간에 곧 바로 창칼로 겨루어):

① 영(寧): 부사로 ‘어찌~이겠는가!’의 뜻으로, 이는 대구인 “백일성중류전혈(白日城中流戰血)”에 영향을 준다.

② 교봉(交鋒): 창칼을 서로 겨룸. ‘교전(交戰)’과 같은 말.

10) 내(乃): ‘기(豈)’와 같은 뜻으로, ‘어찌 ~하겠는가’이다.

11) 내조신영잠엄읍(乃祖神靈潛掩泣: 그들 조상신령도 남몰래 흐느꼈으리라):

- ① 내(乃) : 대명사로서, ‘그, 그의. 너, 너의. 이와 같은 것’의 뜻이 있다.
- ② 잠(潛) : 암중에, 비밀리에, 남몰래.
- ③ 엄습(掩泣) : 얼굴을 가리고 울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껴 울다.
- 12) 영해하고병취이(嬰孩何辜並就夷) : 어린 황손은 또 무슨 죄로 함께 피살됐을까? : 무고(巫鵩)의 난으로, 태자가 호현(湖縣) 천구리(泉鳩里)에서 자진하자, 위황후(衛皇后 : 곧 위자부衛子夫 : ?~BC 91)도 즉시 자살하고, 이때 황손(皇孫) 두 명도 함께 피살되었다. (주석1)의 ① ‘무고의 난’을 참조 바람)
- ① 영해(嬰孩) : 유아(幼兒). 어린아이.
- ② 취이(就夷) : 죽음을 당하다. 도살되다. 취(就)는 동사로, ‘(고난, 불운, 죽음, 손해 등을) 받다, 입다, 당하다’는 의미의 ‘수(受), 피(被)’의 뜻이고, 이(夷)는 주멸(誅滅), 도살(屠殺)의 뜻이다.
- 13) 호관장인언도절(壺關丈人言徒切) : 호관壺關 출신 원로가 마침내 간절하게 상소上疏했다네) :
- ① 호관장인(壺關丈人) : 호관로(壺關老) : 『한서(漢書) · 여태자 유거전(戾太子劉據傳)』에, “주상(主上 : 한무제漢武帝)의 노여움이 극심해지자, 군신(群臣)들이 걱정스럽고 두려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때 호관(壺關)에 사는 세 원로 노인 중 무(茂)라는 선비가 상소문을 올렸는데, … 상소문을 다 아뢰고 나자, 천자가 깨달았다(上怒甚, 羣下憂懼, 不知所出. 壺關三老上書, …書奏, 天子感寤).”라는 말을 전용(轉用)하여, ‘지방에 살면서 덕성과 명망이 높은 어른’을 가리키는 말로 썼다.
- ☆호관(壺關) : 오아육(吾我峪)이라고도 불렀다. 곧 지금의 산서성(山西省) 여성현(黎城縣) 동북부 동양관진(東陽關鎮)이다.
- ☆장인(丈人) : 옛적에 노인에 대한 존칭으로 쓰던 말이다.
- ② 도절(徒切) : 마침내 간절하고 솔직하게.
- ☆도(徒) : 부사로, ‘드디어, 마침내’의 뜻.
- ☆절(切) : 간절하고 솔직하다.
- 14) 고대만중호상기(高臺晚從湖上起) : 뒤늦게 (아들이) 그리워 호현湖縣 주변에 망사대 세웠는데) : 한 무제(漢武帝)가 그의 장자 여태자(戾太子)가 강충(江充)의 무고(巫鵩) 사건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자살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나서 관련자를 처형하고 난 다음, 그가 죽은 곳인 호현(湖縣) 인근에 아들을 그리워하는 사자궁(思子宮)을 짓고, 그 안에 망사대(望思臺)를 건축한 것을 쓴 것으로 보인다.
- ① 고대(高臺) : 망사대(望思臺)를 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 ② 만중(晚從) : 한무제(漢武帝)가 늦게나마 태자에 대한 오해를 풀고 태자를 향한 그리움을 쫓고 있음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중(從)’은 마음으로부터 순응하는 것을 뜻한다.
- ③ 호상기(湖上起) : 호현(湖縣) 부근에 사자궁(思子宮)과 망사대(望思臺)를 건축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인 것으로 보인다.
- ☆호상(湖上) : 호(湖)는 현명(縣名)이고, 상(上)은 명사 뒤에 써서, 일정한 처소나 범위를 나타냄. 즉, ‘호현(湖縣)의 관내(管內)’라는 뜻이고, ‘호현’은 지금의 하남성(河南省) 영보시(靈寶市) 서북쪽에 위치한다. 앞의 주석1)을 참조 바람.
- ☆기(起) : 건물을 세우다. 짓다.

- 15) 호수유유호일박(湖水悠悠湖日薄 : 호수는 아득하고 그 너머로 해가 지는구나) :
- ① 호수(湖水) : 본 시에서 시제(詩題)로 쓴 ‘망사대(望思臺)’의 유적지가 위치한 부근의 강 이름으로, 지금의 하남성(河南省), 영보시(靈寶市) 서쪽의 ‘양평하(陽平河)’를 말한다.
 - ② 유유(悠悠) : 끝없이 요원한 모양.
 - ③ 호일박(湖日薄) : 호수너머로 해가 얹어지다(해가 자다). 여기서 호(湖)는 양평하(陽平河)를 가리키고, 박(薄)은 접근하다. ~에 이른다. 가까이 다가서다(바짝 다가오다). 근접하다.
- 16) 대변지유장안도(臺邊只有長安道 : 망사대 주변은 오로지 장안長安으로 가는 길만 나 있어) :
- ① 장안(長安) : 중국의 옛 도성(都城) 이름. 한고조(漢高祖) 7년(BC 200)에 이곳을 도성으로 정했다.
- 17) 감천궁(甘泉宮) : 궁궐 이름. 옛 궁궐터는 지금의 섬서성(陝西省) 순화현(淳化縣) 서북 감천산(甘泉山) 기슭에 위치했으며 본래는 진(秦)나라 궁궐이었다.
한무제(漢武帝 : BC 156~BC 87) 재위 때인 BC 138년에 이 궁궐의 규모를 증축, 확장하여 제후왕(諸侯王)들과 외국 빈객들을 접대하는 곳으로 썼으며, 무제 자신이 여름에 피서하는 곳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무제는 만년에 이 궁에서 거처하였다.
- 18) 요모지문(堯母之門) : 요모문(堯母門) : 한소제(漢昭帝 : BC 94~BC 74, 성명은 유불능 劉弗陵 : 무제武帝의 막내아들)가 출생한 곳인 구익궁(鉤弋宮)의 궁문 이름이다.
『사기(史記) · 외척세가(外戚世家)』에, “구익부인(鉤弋夫人 : 한무제의 총비 조씨趙氏의 칭호)을 언급한 대목이 있는데, 당나라 학자 장수절(張守節 : ?~?)은 『사기정의(史記正義)』에서 「괄지지(括地志)」를 인용하여 말하기를, “구익궁은 장안성 성안에 있는데, 그 궁문 이름이 요모문이다(鉤弋宮在長安城中, 門名堯母門也).”라고 했다.
『한서(漢書) · 외척전상(外戚傳上) · 효무구익조첩여(孝武鉤弋趙婕妤)』편에, “소제는 임신 14개월 만에 태어났는데, 주상께서 말씀하시기를 ‘짐이 듣기로 옛적에 요 임금이 14개월 만에 출생하였다고 하였는데, 지금 구익부인도 그러하구나.’라고 하시면서 마침내 그 왕자가 태어난 문을 요모문이라고 칭하도록 명하였다(昭帝任身十四月乃生, ‘聞昔堯十四月而生, 今鉤弋亦然’, 乃命其所生門曰堯母門)”는 구절이 있다.

시33. 행로난

詩33. 行路難¹⁾ 행로난



關門日出雙扇²⁾開,
관문일출쌍선개

(함곡관函谷關) 관문에 해가 뜨자
성문을 활짝 열고,

門前搗鼓聲如雷。
문전과고성여뢰

그 문 앞에서 북을 치니 북소리 우레
같았다네.

直視關東二千里³⁾,
직시관동이천리

정면으로 바라보면 관동육국關東六國
땅이 이천 리 거리인데,

極目黃埃低草萊⁴⁾。
극목황애저초래

먼 하늘은 황사요 땅에는 잡초뿐일세

咸陽宮殿鬱嵯峨⁵⁾,
함양궁전울차아

함양궁 궁전명성 천하에 자자했을 때는,

日夕宮車朝聖母⁶⁾。
일석궁거조성모

조석으로 궁중수레 타고 선태후宣太后를
배알했다네.

大舅功高在社稷⁷⁾,
대구공고제사직

(진소왕秦昭王의) 외삼촌이 조정에 쌓은
공이 높았다고,

華陽棣萼⁸⁾相先後。
화양제약상선후

화양군華陽君 형제는 전후에 걸쳐
재상이 되었다네.

一朝大梁使節回⁹⁾，
일 조 대 량 사 절 회

어느 날 아침 대량大梁으로 갔던
사신使臣이 돌아오면서,

橐裏潛藏三寸舌¹⁰⁾。
탁 리 잠 창 삼 촌 설

전대纏帶 속에 숨겨온 것은 세 치
허였다네.

誰教化作有翼虎¹¹⁾，
수 교 화 작 유 익 호

누가 교화시켜 날개 달린 호랑이로
만들었는지,

飛入深宮¹²⁾不見跡。
비 입 심 궁 불 견 적

궁궐에 날아들어도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다네.

相逢不知道何語，
상 봉 불 지 도 하 어

상봉하여 무슨 말 나눴는지 알 수
없지만,

但見骨肉爲胡越¹³⁾。
단 견 골 육 위 호 월

육친을 봐도 상호관계가 소원해졌다네.

黃泉莫聞大隧歌¹⁴⁾，
황 천 막 문 대 수 가

저승에 가고 나면 상엿소리조차 들을
수 없는데,

更有何人論斗粟¹⁵⁾。
경 유 하 인 론 두 속

더구나 어떤 사람이 감히 육친간의
불화를 논하겠는가?

離宮咫尺隔晨昏¹⁶⁾，
리 궁 지 척 격 신 혼

행궁行宮이 지척에 있어도 조석으로
문안마저 뜸해지더니,

母子深恩中斷絕¹⁷⁾。
모 자 심 은 중 단 절

모자간의 깊은 은혜도 단절되고
말았다네.

揚揚出入永巷中¹⁸⁾，
양 양 출 입 영 향 중

(범수范睢가) 호기롭게 후궁으로 가는
긴 복도 출입했나니,

曾是梁家簾中客¹⁹⁾。
증 시 양 가 책 중 객

그는 전에 위魏나라 사람으로 대자리

말이 당했던 세객說客이었다네.

- 1) 행로난(行路難): 길을 걷는 어려움이란 뜻으로, 전(轉)하여, ‘처세(處世)가 쉽지 않음’을 또는 ‘인생길, 곧 인생살이가 고달픈 것’을 비유하기도 한다.
본 시제(詩題)는 악부구제(樂府舊題)인 잡곡가사(雜曲歌辭)의 명칭이다. 원래는 인생역정(人生歷程)의 어려움과 이별의 감정을 많이 쓴 민간가요였으나, 문인들의 모작(模作)을 통해서 악부로 채택되었다.
이 악부시제는 역대 시인들이 많이 사용하였다. 그 중, 특히 이백(李白: 701~762)이 쓴 「행로난(行路難)」 3수는 사람들 입에 회자되었다. 이백은 그의 시에서 그의 순조롭지 못한 정치생애에 대한 감개를 펼치고 있다. 시 중에 기복(起伏)이 크고 분방한 감정과 도약하는 사유(思惟) 및 높이 치솟는 기세가 독특한 예술적인 매력을 부각시켜 천고(千古)에 명편으로 칭송되고 있다.
- 2) 쌍선(雙扇): 본 시에서는 성문(城門)의 문짝을 가리킨다. 당대(唐代) 시인 조항(趙璜: 804~862)의 시 「칠석(七夕)」에서, “오작교 앞의 문짝을 열어놓으니, 해마다 한 번씩 은하수를 건너오네(烏鵲橋頭雙扇開, 年年一度過河來)”라고 읊었다.
- 3) 직시관동이천리(直視關東二千里: 정면으로 바라보면 관동육국關東六國 땅이 이 천 리 거리인데):
 - ① 직시(直視): 결눈질하지 않고 줄곧 정면을 바라봄.
 - ② 관동(關東): 함곡관(函谷關)과 동관(潼關) 이동(以東) 지역을 가리킨다. 진(秦)·한(漢)·당(唐) 등의 도읍지는 모두 지금의 섬서성(陝西省)에 근거지를 둔 왕조이기 때문에, 함곡관과 동관이동 지역을 관동이라 칭했다. 본 시에서는 전국시대(戰國時代) 진(秦)나라 관동(關東) 이동(以東) 지역의 한(韓)·위(魏)·조(趙)·燕(연)·齊(제)·초(楚) 등 진(秦)나라 이외의 각국을 말한다.
- 4) 극목황애저초래(極目黃埃低草萊: 먼 하늘은 황사요 땅에는 잡초뿐일세):
 - ① 극목(極目): 시력이 미치는 데까지 멀리 바라보다.
 - ② 황애(黃埃): 황색 먼지. 본 시에서는 황사를 가리킨다.
 - ③ 초래(草萊): 초망(草莽)과 같은 말로서, 잡생(雜生)하는 풀, 즉 잡초를 이룸.
- 5) 함양궁전울차아(咸陽宮殿鬱嵯峨: 함양궁 궁전명성 천하에 자자했을 때는):
 - ① 함양궁전(咸陽宮殿): 진효공(秦孝公: BC 381~BC 338, 전국시대 진秦나라 군주. 성명은 영거량(嬴渠梁) 때에 건축한 궁전. 신궁信宮)이라고도 칭함. 함양궁(咸陽宮)을 ‘제왕의 궁전’이란 뜻으로도 쓴다. 당나라 시인 두보(杜甫: 712~770)가 대종(代宗)이 겨울에 사냥하러 도성을 나갔다는 소식을 듣고 그 부당함을 읊은 시 「동수행(冬狩行)」에, “풀숲의 여우와 토끼 모조리 잡은득 득 될 게 뭣이겠고? 지금 천자가 궁궐에 있지 않다고 하네(草中狐兔盡何益, 天子不在咸陽宮)”라고 읊었다. 여기서의 함양은 ‘장안(長安)’의 대칭이다.
 - ② 차아(嵯峨):
 - ☆(명성, 웅지 등이) 우뚝 솟다. 본 시에서는 진소왕(秦昭王) 집권초기에 왕보다 함양궁에 거처하는 선태후(宣太后)의 명성이 더 드높았던 것을 표현한 것이다.

수재(秀才)가 선주(宣州)로 귀향하는 것을 송별하며(送潘傳秀才歸宣州)」에서, “이백(李白)은 분묘 높이가 석 자에 불과하지만(李白墳三尺), 만고에 전해질 그의 명성은 우뚝 솟아 있다네(嵯峨萬古名)”라고 읊었다.

- 6) 일석궁거조성모(日夕宮車朝聖母 : 조석으로 궁중수레 타고 선태후宣太后를 배알했다네) :

① 일석(日夕) :

☆조석(朝夕 : 아침저녁), 일야(日夜 : 낮과 밤).

- ② 궁거(宮車) : 제왕과 후비(后妃)들이 타고 다니던 수레. 전(轉)하여 제왕이나 후비를 가리키는 뜻으로도 쓴다.

- ③ 조(朝) : 고대에 사람을 만나는 것을 모두 ‘조(朝)’라고 칭하였다.

☆제후가 천자를 배알하고 봉국(封國)의 상황을 보고하던 것.

☆제후 사이에 상견(相見)하던 것.

☆신하가 군왕을 배알하는 것.

- ④ 성모(聖母) : 황태후(皇太后)에 대한 존칭. 본 시에서는 진소왕(秦昭王 : BC 324 ~ BC 251)의 모후인 선태후(宣太后 : ? ~ BC 265)를 가리킨다.

☆진소왕(秦昭王) : 진소양왕(秦昭襄王 : BC 324 ~ BC 251) : 전국시대(戰國時代) 진(秦)나라 군주. 이름은 직(稷). 진무왕(秦武王)의 이복(異腹) 동생이다. 계위(繼位) 후에 초기에는 모후인 선태후가 권력을 잡고 내란을 평정함과 동시에 왕권을 강화하였다. 친정(親政) 전후에 걸쳐 위염(魏冉)과 범수(范雎) 등을 재상으로 임명하고 사마착(司馬錯), 백기(白起) 등을 장수로 삼아 동진(東進)하여 한(韓) · 위(魏) · 조(趙) ·燕(燕) ·齊(齊) · 조(楚) 등 나라에 승전하고 주난왕(周赧王)의 항복을 받아 6국통일의 기초를 닦았다. 재위 56년.

☆선태후(宣太后 : ? ~ BC 265) : 전국시대(戰國時代) 초(楚)나라 귀족의 딸. 성은 미(芈)씨. 이름은 팔자(八子). 진혜문왕비(秦惠文王妃)이고 소양왕 어머니이다. 소양왕이 소년시절(19세 때)에 즉위하자 선태후가 섭정하면서 권력을 장악하고 그의 이복동생 위염(魏冉)을 재상으로 삼고, 동북동생인 미융(芈戎)은 화양군(華陽君)으로 삼았으며, 그녀의 두 아들은 경양군(涇陽君)과 고릉군(高陵君)에 봉하는 등 친족을 연결하여 국정을 농단하였다. 후에 소양왕이 범수(范雎)를 임용하고 나서야 위염 등을 실각시키고 선태후는 실세(失勢)하였다.

- 7) 대구공고재사직(大舅功高在社稷 : (진소왕秦昭王의) 외삼촌이 조정에 쌓은 공이 높았다고) :

① 대구(大舅) :

☆고대 중국에서 어머니의 오빠, 곧 만외삼촌을 이르는 말로도 썼다. 전(轉)하여, 본 시에서는 어머니의 동생들인 외삼촌을 가리키는 말로 썼다. 곧 선태후의 동생인 양후(穰侯)와 화양군(華陽君)을 가리킨다. 아래의 주석8)의 ‘화양제약(華陽棣萼)’ 조항을 참조 바람.

- ② 사직(社稷) : 고대에 제왕과 제후들이 제사 지내던 토신(土神)과 곡신(穀神). 옛적의 제왕과 제후는 반드시 사직단(社稷壇 : 제왕과 제후들이 단壇을 설치해놓고 토지의 신과 오곡의 신을 모시고 제사 지내던 곳)을 세우고 제사를 지내서 국가와 존망을 같이하였으므로, 전(轉)하여, ‘국가’라는 뜻으로 쓰인다.

- 8) 화양제약(華陽棣萼) : ‘화양군(華陽君) 형제’라는 뜻으로 진소왕(秦昭王)의 어머니

인 선태후(宣太后)의 동생인 양후(穰侯)와 화양군(華陽君) 형제를 가리킨다.

① 화양군(華陽君) 형제

☆양후(穰侯 : ?~?): 전국시대(戰國時代) 진(秦)나라 사람이다. 진소왕(秦昭王)의 모후 선태후의 이부제(異父弟)이다. 그의 성은 위(魏)이고 이름은 염(冉)이다. 본성(本姓)은 초나라 왕족 선조의 성씨인 미(卮)씨. 초나라 귀족의 후예이다. 진혜왕(秦惠王) 시에 이미 벼슬했고, 소왕(昭王)이 즉위하고 나서 태후가 권력을 잡으면서 장군에 임명되어 도성인 함양(咸陽)을 수비했으며, 태후의 충애를 받으면서 재상에 임명되었다. 백기(白起)를 천거하여 장군으로 삼아 관동(關東) 땅을 경영하려 힘쓰면서, 제후들을 약화시킨 공로로 양후(穰侯)에 봉해졌다. 그가 받은 봉지가 양(穰), 지금의 하남성(河南省) 등현(鄧縣)에 봉해졌기에 양후(穰侯)라고 칭하였다. 그 후 권력을 전횡하면서 정권을 위기에 몰아넣자 재상직에서 파직되고 도읍(陶邑), 지금의 산둥성(山東省) 정도현(定陶縣) 서북에 봉해졌다.

(자세한 것은 『사기(史記)·양후열전(穰侯列傳)』을 참조 바람)

☆화양군(華陽君 : ?~?): 전국시대 진(秦)나라 사람이다. 선태후(宣太后)의 이복 동생이다. 성명은 미융(卮戎), 호를 화양군이라 한다. 화양(華陽), 즉 지금의 하남성 신정현(新鄭縣) 북쪽에 봉해졌기에 화양군이라 칭하였다. 신성군(新城君)이라고도 칭한다. 진소왕(秦昭王) 시에 장군으로 임명됐다. 소왕 8년(昭王八年 : BC 298)에 초나라의 신시(新市), 지금의 호북성(湖北省) 경산현(京山縣) 동북 68리를 공략하였다. 후에 범수(范雎)의 책략을 채택하여 중앙집권제를 실시하면서 이부형(異父兄) 위염(魏冉)과 함께 관외(關外)로 축출되었다.

☆체악(槅莢) : 형제를 비유하는 말.

『시경(詩經)·소아(小雅)·상체(常棣) : 아가위 꽃』편에서, 아가위 꽃과 꽃받침이 상호 의존하는 관계를 읊으며, 형제간의 친밀한 관계를 비유하였다. 후에 사람들은 이 ‘체악(槅莢 : 槅棣는 ‘아가위 꽃’이란 뜻이고, 莢은 ‘꽃받침’이란 뜻임)이란 말은 ‘형제’에 비유하는 말로 썼다. 당(唐)나라 시인 두보(杜甫 : 712~770)의 시, 「동지(冬至)가 지나서(至後)」에, “매화가 피려 해도 의식하지 못하고 지냈는데, 형제는 한 번 이별하고 나서 두고두고 서로 바라다보네(梅花欲開不自覺, 槅莢一別永相望)”라고 읊었다.

청(淸)나라 학자 구조오(仇兆鼯 : ?~?)는 그의 저서 『두시상주(杜詩詳注)』에서 이 시를 주석하여, “‘체악(槅莢)’은 형제를 비유한 것이다(槅莢以比兄弟也)”라고 하였다.

9) 일조대량사절회(一朝大梁使節回 : 어느 날 아침 대량大梁으로 갔던 사신이 돌아오면서) :

① 일조(一朝) : 하루아침. 어떤 날 아침.

② 대량사절(大梁使節) : 대량(大梁* : 위(魏)나라 도성)으로 갔던 사신(使臣). 이 사실은 진소왕(秦昭王)이 알자(謁者 : 임금의 공문, 명령을 전달하던 업무를 담당한 관직 이름) 왕계(王稽* : ?~BC 255)를 사신으로 위(魏)나라에 파견한 것을 가리킨다. 이 때 장래 진(秦)나라의 재상이 될 현명한 인재 범수(范雎)를 만나 데리고 진(秦)나라로 돌아왔다.

*대량(大梁) : 고(古) 지명으로, 전국시대 위(魏)나라 도성이었음. 지금의 하남성

(河南省) 개봉시(開封市) 서북이다. 수·당(隋唐) 이후에는 지금의 개봉시(開封市)를 대량(大梁)으로 통칭하였다.

*왕계(王稽 : ?~BC 255) : 전국시대(戰國時代) 진(秦)나라 사람. 소왕(昭王) 제 위 시의 알자(謁者) 소왕의 명을 받들고 위(魏)나라 도성(都城)인 대량(大梁)에 갔을 때 범수(范雎)를 만나 데리고 진(秦)나라에 와서 진소왕에게 추천하였다. 범수가 진나라 재상이 되고 나서 왕계는 하동태수(河東太守)로 임명되었다. 소왕 52년(昭王五十二年 : BC 255)에 제후들과 교통하였다는 죄목으로 주살(誅殺)되었다.

- 10) 탁리잠장삼촌설(囊裏潛藏三寸舌 : 전대纏帶 속에 숨겨 온 것은 세치 혀였다네) : 이 구절은 알자(謁者) 왕계(王稽)가 진소왕(秦昭王)의 명을 받들어 위(魏)나라 도성인 대량(大梁)으로 파견되었을 때, 당시 위나라 공자이자 재상인 위제(魏齊 : ?~BC 265)의 오해를 받아 고문을 받고 생사를 예측 못할 난관에 봉착한 현능한 세객(說客) 범수(范雎)*를 마차 속에 숨겨 진(秦)나라로 돌아온 것을 대유(代喻)의 기법으로 표현한 것이다.

*범수(范雎 : ?~대략 BC 255) : 범저(范且)라고도 칭한다. 위(魏)나라 사람으로 자는 숙(叔)이었다. 변설(辯舌)에 능하였다. 당시 범수는 위나라의 중대부(中大夫) 수고(須賈 : 생물년 미상)를 섬겼었는데, 수고가 위소왕(魏昭王 : ?~BC 277)의 명을 받들어 제(齊) 나라에 사신으로 갔을 때, 범수를 동행하였다.

수고는 몇 달을 기다렸으나 제나라로부터 아무런 소식이 없다가, 제양왕(齊襄王 : ?~BC 265)이 범수가 현능하고 언변이 뛰어나다는 소식을 듣고 황금 10근과 술 및 쇠고기를 보냈다. 범수는 이것을 거절하고 받지 않았다. 수고는 ‘범수가 제나라에 기밀을 제공했기 때문에 이러한 예물을 받았으리라’고 생각하고 귀국하여 위나라 재상인 위제(魏齊)에게 보고하였다.

위제는 노하여 범수를 고문하여 갈비뼈와 이빨을 부러뜨렸다. 범수가 죽은 척하자 곧 대자리로 말아 변소에 버려두었다. 그리고는 술 취한 빈객들로 하여금 그의 몸에 소변을 보게 하였다. 범수는 간수에게 간청하여 도움을 요청했다. 간수는 범수가 죽었다고 보고하고 범수를 빼냈다. 범수는 도망하여 ‘장록(張祿)’이라 변성명하고 숨었다.

이때 진소왕의 사신인 왕계(王稽)가 위(魏)나라 대량(大梁)에 왔다. 위나라 사람 정안평(鄭安平 : ?~BC 255)이란 사람으로부터 범수를 소개받고 범수를 만나보니 과연 현능하였기에 왕계는 범수를 마차에 숨겨 진(秦)나라로 돌아왔다.

그 후 범수는 진소왕에게 수차에 걸쳐 단독 접견하여 유세한 뒤 재상이 되었다. 범수는 원교근공책(遠交近攻策)을 펴면서 영토를 확장하여 훗날 진(秦)나라의 6국통일의 기초를 닦았다. 응읍(應邑), 지금의 하남성(河南省), 노산현(魯山縣) 동쪽에 봉해졌기에 응후(應侯)라고 칭해졌다. 범수는 내치(內治)에 충실하였고, 선태후(宣太后)를 폐출시키고 양후(穰侯 : 생물년 미상)와 화양군(華陽君 : 생물년 미상), 그리고 소왕(昭王)의 이복동생인 고릉군(高陵君 : 생물년 미상) 및 경양군(滎陽君 : 생물년 미상) 등 진소왕의 근친 권력가들을 함곡관(函谷關) 밖으로 몰아냈다.

그 뒤 조(趙) 나라의 도성 한단(邯鄲)의 포위 실패로 인하여 스스로 재상직에서 물러났다. 일설에는 진소왕에게 처형되었다고도 한다. 자세한 것은 『사기(史記)·범수채택열전(范雎蔡澤列傳)』을 참조 바람.

- 11) 익호(翼虎): 날개 달린 호랑이. 방자하게 날뛰는 악인(惡人)을 비유하는 말로 자주 쓴다.
- 12) 심궁(深宮): 출입이 제한되는 궁문(宮門) 안의 제왕이 거처하는 곳. 궁궐.
- 13) 단견골육위호월(但見骨肉爲胡越): 육친을 봐도 상호관계가 소원해졌다네):
- ① 골육(骨肉):
 - ☆뼈와 살을 아울러 이르는 말. 신체를 가리킨다.
 - ☆부자(父子), 형제, 자녀, 육친(肉親)을 비유하는 말로 쓴다.
 - ② 호월(胡越): 북방, 남방의 각 민족을 범칭하는 말이다. ‘호(胡)’의 국토는 북방에 있고, 월(越)은 남쪽에 위치하므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서로 단절되어 있음을 비유하는 말로 쓴다. 본 시에서는 진소왕(秦昭王)이 범수(范雎)를 접견하여 수차 밀담을 나눈 이후, 모후(母后)인 선태후(宣太后)를 비롯하여 외삼촌인 양후(穰侯)와 화양군(華陽君), 그리고 소왕(昭王)의 이복동생인 고릉군(高陵君)과 경양군(涇陽君) 등 육친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음을 비유하였음.
- 14) 황천막문대수가(黃泉莫聞大隧歌: 저승에 가고 나면 상엿소리조차 들을 수 없는 데):
- ① 황천(黃泉): 저승. 음간(陰間). 사람이 죽어 매장되는 곳을 가리킨다.
 - ② 대수가(大隧歌): 묘도(墓道)로 가는 길에 큰 소리로 부르는 노래. 상여꾼들이 부르는 ‘상엿소리’를 가리킨다. ‘수(隧)’는 ‘묘도(墓道)’의 뜻이다. 묘도는 묘지 앞이나 묘실(墓室) 앞의 양쪽에 담을 쌓은 길이다.
- 15) 두숙(斗粟):
- ① 한 말의 조 소량의 양식을 가리킨다.
 - ② 『사기(史記)·회남형산열전(淮南衡山列傳)』에, 한문제(漢文帝: BC 202~BC 157, 성명은 유항(劉恒. 고조 유방(劉邦)의 둘째 아들)의 동생 회남려왕(淮南厲王: BC 198~BC 174, 성명은 유장(劉長. 고조 유방의 여섯째 아들)이 모반을 꾀하였다가 실패하여 왕의 칭호가 취소된 채 촉군(蜀郡) 엄도현(嚴道縣)으로 압송되던 중, 노상에서 단식하여 죽자, 민간인이 한 수의 가요를 지어 노래했는데, “한 자의 베, 오히려 옷을 꿰매 수 있고, 한 말의 곡식, 아직도 절구질 할 수 있는데. 형제 두 사람은 서로를 용납하지 못했네(一尺布, 尚可縫, 一斗粟, 尚可舂. 兄弟二人不能相容)”라고 읊었다.
- 후에 사람들은 이 가사 속의 ‘두숙(斗粟)’이란 말을 ‘형제간에 불화하거나 용납하지 못하는 것’을 풍자(比喩)하는 뜻으로 썼다.
- 16) 이궁지척격신혼(離宮咫尺隔晨昏: 행궁行宮이 지척에 있어도 조석으로 문안마저 뜸해지더니):
- ① 이궁(離宮): 정궁(正宮)이외에, 제왕이 순시(巡時)할 때나 나들이 할 때 궁궐 밖에 마련한 임시 거처하는 궁실이나 궁궐 안에 위치하면서도 제왕이 임시로 거처하는 궁실을 이궁이라고 한다. 행궁(行宮)이라고도 한다. 진소왕(秦昭王)이 범수(范雎)를 처음으로 접견하기로 약정한 곳이 궁궐 내에 위치한 이궁이었다. 진소왕이 이궁에서 범수를 접견할 때, 진송왕은 예를 갖추어 공손히 범수를 대했고, 대화가 시작되면서 잡인의 접근을 물리치고 당시 진(秦) 나라 국내의 정세를 논했다.
 - ② 신혼(晨昏): 신혼정성(晨昏定省)의 약어. 신혼정성은 혼정신성(昏定晨省)과 같

은 말로서, 조석(朝夕)으로 부모의 안부를 물어 살피는 것을 말한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선태후(宣太后)가 섭정을 할 때, 진소왕(秦昭王)은 조석으로 태후에게 문후를 여쭙고 정사(政事)를 논하였으나, 범수(范雎)를 만나 친정(親政)을 시행하면서 관계가 소원해졌다.

- 17) 모자심은중단절(母子深恩中斷絶 : 모자간의 깊은 은혜도 단절되고 말았다네.) : 이 구절은 재상이 된 범수(范雎)의 당시 진(秦) 나라에 대한 국내외 정세를 듣고 진소왕(秦昭王)이 친정(親政)을 실행하면서 모후인 선태후(宣太后)와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선태후가 실세(失勢) 했음을 읊은 것이다.

- 18) 양양출입영항중(揚揚出入永巷中 : (범수范雎가) 호기롭게 후궁으로 가는 긴 복도 출입했나니) :

- ① 양양(揚揚) : 득의한 모양. 의기양양한 모양.
② 영항(永巷) : 궁중의 긴 복도(複道).

『사기(史記)·범수채택열전(范雎蔡澤列傳)』 “이렇게 하여, 범수는 마침내 이궁에서 진소왕을 접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궁중의 통로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후궁으로 통하는 긴 복도로 들어갔다. 이때 진나라 왕이 도착하자 환관이 노하여 그를 내몰면서 말하기를, ‘대왕께서 행차하셨다!’고 말하자, 범수가 함부로 지껄이면서 말하기를, ‘진나라에 무슨 왕이 있느냐? 진나라에는 단지 태후와 양후가 있을 뿐인데!’라고 말하며, 범수는 진소왕을 진노하게 할 생각이었다(於是, 范雎乃得見於離宮。詳爲不知永巷而入其中, 王來而宦者怒, 逐之, 曰, ‘王至!’ 范雎繆爲曰, ‘秦安得王? 秦獨有太后穰侯耳’ 欲以感怒昭王).”고 한 대목이 있다.

- 19) 증시양가책중객(曾是梁家簣中客 : 그는 전에 위魏나라 사람으로 대자리 말이 당했던 세객說客이었다네) :

- ① 증(曾) : 부사로, ‘이전에, 일찍이’의 뜻으로 쓰였다.
② 양가(梁家) : 위(魏), 곧 대량(大梁) 사람이다.

☆양(梁) : 즉 위(魏). 위(魏)나라 혜왕 9년(惠王九年 : BC 361)에, 도성(都城) 안읍(安邑) 즉 지금의 산서성(山西省) 하현(夏縣) 서북 우왕성(禹王城)이 진(秦)나라 국경과 인접하여 위협을 느껴, 대량(大梁), 즉 지금의 하남성(河南省) 개봉시(開封市) 서북으로 천도(遷都)하였다. 그 후 위(魏)를 양(梁)으로 부르기도 하였다.

☆가(家) : 본 시에 쓰인 ‘가(家)’는 ‘모인(某人 : 어떤 사람)’의 뜻이며, ‘국가’를 가리키기도 함.

- ③ 책중객(簣中客) : (명석말이 당하듯) 대자리 말이 당한 세객(說客). 이 세객이 바로 범수(范雎)이다. 자세한 내용은 본 시의 주석10)의 ‘범수(范雎)’ 조항을 참조 바람.

시34 위 무제 魏武帝가 읊은 ‘풍風송松한寒죽竹’ 네 자의 노래

詩34. 魏武¹⁾風松寒竹四大字歌
위 무 풍 송 한 죽 사 대 자 가



松生太山巔²⁾,
송 생 태 산 전

태산 정상頂上에 소나무가 자라는데

烈風³⁾搖根吹不息。
열 풍 요 근 취 불 식

세찬 바람 설 새 없이 뿌리를 흔드네.

淇上有苦竹⁴⁾,
기 상 유 고틉죽

기하淇河 강변에는 고죽苦竹 숲이
있는데,

寒雪壓枝多摧折⁵⁾.
한 설 압 지 다 취 절

차가운 눈 무게에 가지가 많이도
꺾였네.

松搖不改色,
송 요 불 개 색

소나무는 흔들려도 늘 푸른 색
변함없고,

竹摧猶存節。
죽 취 유 존 절

대나무는 꺾여도 곧은 절개 보존하네.

植物有如此,
식 물 유 여 차

식물도 이런 본성 지니고 있거늘,

人生當奈何⁶⁾.
인 생 당 내 하

사람은 삶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曹瞞甲兵手⁷⁾,
조 만 갑 병 수

餘事翰墨家⁸⁾。
여 사 한 묵 가

徒⁹⁾知松竹字,
도 지 송 죽 자

不知松竹心¹⁰⁾。
부 지 송 죽 심

歲寒誰復問後凋¹¹⁾,
세 한 수 부 문 후 조

百尺高臺漳水潯¹²⁾。
백 척 고 대 장 수 심

臺中蕙帷¹³⁾空,
대 중 혜 유 공

一望西陵路¹⁴⁾。
일 망 서 룡 로

西陵碧樹春復秋¹⁵⁾,
서 룡 벽 수 춘 부 추

行人不道征西墓¹⁶⁾。
행 인 부 도 정 서 묘

飛騰跋扈能幾何¹⁷⁾,
비 등 발 호 능 기 하

紙面空留舊時跡。
지 면 공 유 구 시 적

조조曹操는 뛰어난 군략가軍略家이지만,

시문詩文에도 능해 일가一家를 이루었네.

단지 그는 송죽松竹이란 문자만 알았지,

송죽 같은 마음은 알지 못했다네.

혹한 계절에야 누가 묻겠나
어떤 수목이 늦게 시드느냐고,

(그는 이미) 백척 높은 누대樓臺를
장수漳水 강변에 세웠거늘.

누대의 실내에 혜초 휘장 틈새로는

언뜻 봐도 서릉西陵으로 가는 길이
보인다네.

서릉에는 상록수가 사계절
무성하다는데,

행인들은 서릉 가는 직로直路를
알지 못한다네.

출중하여 권세잡고 발호한들
(그 권력) 얼마나 가겠는가?

지면에 (이 시를) 공연히 남겼지
옛날 사적인데!

1) 위무(威武): 위무제(魏武帝): 조조(曹操: 155~220): 한헌제(漢獻帝) 때 위왕(魏王)에 봉해졌던 조조를 조조의 차자(次子) 조비(曹丕: 187~226: 위문제(魏文帝)가 칭제(稱帝)하면서, 무황제(武皇帝)라 추존하였으며, 사칭(史稱) 위무제(魏武帝)라고 한다. 자세한 것은 본 시집의 「시8」의 주석28)의 고공(曹公) 조항을 참조 바람.

2) 태산령(太山嶺): 태산(泰山)의 산꼭대기.

① 태산(太山): 즉 태산(泰山)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맹자(孟子)·양혜왕 상(梁惠王 上)』에, “태산(太山)을 옆에 끼고 북해(北海)를 뛰어넘는 것을 두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해낼 수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진실로 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挾太山以超北海, 語人曰, ‘我不能’, 是誠不能也).”라고 하였다.

이때의 태산(太山)은 해발 1545m의 산동성(山東省) 중부에 위치한 오악(五嶽) 중의 하나인 태산(泰山)을 가리킨다.

② 영(嶺): 산꼭대기. 산봉우리.

3) 열풍(烈風): 폭풍, 질풍(疾風).

4) 기상유고죽(淇上有苦竹: 기하淇河 강변에는 고죽苦竹 숲이 있는데):

① 기상(淇上): 기하(淇河) 강변.

☆기(淇): 강 이름. 하남성(河南省) 북부에 있음. 고대에는 황하의 지류여서, 지금의 급현(汲縣) 동북쪽에 위치한 기문진(淇門鎭)까지 남류(南流)하면서 황하에 흘러들었다.

동한 건안(建安)년간(196~219)에 조조(曹操)가 기하(淇河)의 남류하는 입구에 방죽을 쌓아서, 물길을 동북쪽으로 흐르게 하여 백구(白溝: 지금의 위하衛河)로 흘러들게 하여 수운(水運)할 수 있는 뱃길을 뚫다. 이후 기하는 위하의 지류가 되었다.

☆상(上): ‘강변’의 뜻을 나타냄. 자세한 것은 「시32」의 주석14)의 ③을 참조 바람.

② 고죽(苦竹): 산병죽(傘柄竹: 고죽의 대를 우산대로 만든다 하여 붙여진 별칭)이라고도 함. 뱃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 풀이며, 이 식물체의 대(즉, 줄기)는 산생(散生: 흩어져서 자람)하기도 하고丛生(叢生: 뭉쳐나기)하기도 하여, 소고목(小喬木)이나 관목(灌木) 형태를 이루고 있다. 대는 원통형이고, 높이는 3~5m이며, 대의 굵기는 1.5~2cm이다. 땃줄기 벽(즉, 간벽竿壁)의 두께는 대략 6mm이고, 어린 줄기는 담록색(淡綠色)으로 백분(白粉: 백색가루)이 붙어 있으며, 노후에 점차 녹황색(綠黃色)으로 변하면서 회백색(灰白色) 반점이 입한다.

고죽(苦竹)은 맛이 써서 식용은 못하고, 눈엽(嫩葉: 갓 돌아난 잎)과 눈묘(嫩苗: 새싹) 및 근경(根莖: 뿌리 줄기) 등을 모두 약용으로 쓰는데, 여름과 가을에 채집하여 생즙으로 바르거나 먹기도 하고 말렸다가 달여서 복용하기도 한다.

한약[中藥]의 명칭은 ‘고죽엽(苦竹葉: 입안이 험했을 때 잎을 달여서 양치질하고 고죽력(苦竹瀝: 생즙)을 바름)·고죽순(苦竹筍)·고죽여(苦竹茹: 고죽의 외피를 제거하고 얇게 깎아서 보드라운 채소처럼 만든 약재)·고죽력(苦竹瀝)·고죽근(苦竹根)’ 등으로 분류한다. 약효는 해열·해독·양혈(涼血)·청담(淸痰) 등의 효용이 있음. 이외에도 고죽의 줄기는 제지(製紙) 원료로 쓰거나 우산대 또는 붓대를 만드는데

쓴다.

5) 최절(摧折) : 꺾거나 꺾임.

6) 인생당奈何(人生當奈何) : 사람은 삶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① 인생(人生) : 사람의 일생.

② 당(當) : 대처하다. 관리하다, 주관하다, 감당하다, 책임지다.

② 내하(奈何) :

☆어떻게, 어찌 ~하랴. 무엇 때문에.

☆어떠하나? 별로 ~않다. 어찌하나?

☆어찌 ~할 수 있겠는가?(주로 반문으로 사용되며, 여하如何와 뜻이 유사함)

7) 조만갑병수(曹瞞甲兵手) : 조조曹操는 뛰어난 군략가軍略家이지만 :

① 조만(曹瞞) : 조조(曹操)의 아명(兒名)이 '아만(阿瞞)'이었던 까닭에 조만(曹瞞)이라 부르는 것이다. 일설에는 어릴 때의 자(字)가 아만(阿瞞)이었다고 한다.

『삼국지(三國志)·위지(魏志)·무제기(武帝記)』에, “(조조는) 한나라 재상 조참(曹參)의 후예이다(漢國相參之後)”라고 하였는데, 남조(南朝) 송나라 배송지(裴松之: 372~451)가 오(吳)나라 사람의 저서인 『조만전(曹瞞傳)』을 인용하여 주석을 달기를, “태조는 일명 ‘길리(吉利)’라고 하며, 어린 시절의 자가 아만이었다(太祖一名吉利, 小字阿瞞)”고 하였다.

자세한 것은 「시8」의 주석 28)의 ②, 조공(曹公) 조항을 참조 바람.

② 갑병수(甲兵手) : 군사 전략가, 군략가(軍略家).

☆갑병(甲兵) : 개갑(鎧甲: 갑옷)과 병계(兵械: 무기), 곧 병기(兵器)를 가리킨다.

혹은 갑옷 입은 병사, 곧 군대를 가리킨다. 혹은 전쟁·전란을 가리킨다.

☆수(手) : 접미사로 쓰여, ‘어떤 기술이나 능력이 뛰어난 모종(某種)의 지위에 오른 사람’을 가리킨다: 명사 뒤에 붙는 경우, 국수(國手: 어떤 기술이 한 나라에서 으뜸가는 사람)·형용사 뒤에 붙는 경우, 호수(好手: 어떤 기술이 뛰어난 사람)·동사 뒤에 붙는 경우, 선수(選手: 운동 경기나 기술 따위에서 기량이 뛰어나 여러 사람 가운데 대표로 뽑힌 사람) 등이 있다.

8) 한묵가(翰墨家) : 서화(書畫)나 시문(詩文)에 능하여 일가견(一家見)을 이룬 사람.

① 한묵(翰墨) : 필묵(筆墨). 혹은 문장이나 서예 등을 총칭하는 말.

② 가(家) : 접미사로 쓰여, 모종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나 모종의 전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의 뜻을 나타냄. 철학자·작가(作家).

9) 도(徒) : 부사로, ‘단자의 뜻으로 쓰였음.’

10) 부지송죽심(不知松竹心) : 송죽 같은 마음은 알지 못했다네) :

① 이 구절은 조조가 동한 말엽의 한헌제(漢獻帝: 181~234, 유협劉協) 때 위왕(魏王)에 봉해졌으나, 얼마 뒤 한(漢)은 망하고 자신은 삼국시대 때의 위(魏)나라 건립의 기초를 다졌으며, 그의 아들은 창제(稱帝)하였다. 한왕조 입장에서 보면, 그는 지조와 절개가 없는 배신자였기에, “송죽심(松竹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라고 한 것이다.

② 송죽심(松竹心) : 송죽지절(松竹之節), 곧 소나무같이 깨끗한 지조와 대나무같이 곧은 절개를 지닌 마음.

11) 세한수부문후조(歲寒誰復問後凋) : 혹한 계절에야 누가 묻겠나 어떤 수목이 늦게 시드느냐고) :

이 말은 『논어(論語)·자한(子罕)』에 나오는 “날씨가 한랭해져야, 비로소 소나무와 잣나무가 가장 늦게 조락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歲寒，然後知松柏之後凋也)”라는 구절을 변형시켜 그의 인품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① 세한(歲寒): 일 년 중 가장 추운 계절·세사(世事)의 최후를 비유하는 말·노년(老年)을 비유하는 말·곤경 또는 난세를 비유하는 말·충정불굴(忠貞不屈)의 지조나 품행을 비유하는 말.

② 후조(後凋): 송백(松柏)은 엄동설한 때에는 단지 약간만 시들다가, 봄이 되어 새 가지가 성장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묵은 잎이 떨어지므로, ‘후조(後凋)’라고 칭한다. 이 구절에 대한 역대 학자들의 주장이 다양하다.

a. 『논어(論語)·자한(子罕)』편에, “날씨가 추워진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시들음을 알 수 있다(歲寒，然後知松柏之後彫也)”고 하였다.

b. 삼국시대 위진(魏晉)의 현학(玄學)의 시조로 받아들여지는 하안(何晏: 190~249)은 그의 『논어집해(論語集解)』에서, “평범한 사람은 잘 다스려진 세상에 살면, 그 역시도 언행을 단정히 하고 근신할 수 있지만, 혼탁해진 세상에서 군자와 함께 살아본 연후에는 군자의 정도(正道)가 시비를 불문하고 이것저것 함부로 수용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喻凡人處治世，亦能自脩整，與君子同在濁世，然後知君子之正不苟容也)”고 하였다. 후에 사람들은 이 ‘후조(後凋)’라는 말을 ‘정도를 지키고 함부로 하지 않으면서 만년에 절조를 지켜야 한다.’는 말에 비유하였다.

c. 북송의 학자 범조우(范祖禹: 1041~1098)는 위의 논어 구절에 주석하기를 “소인이 잘 다스려진 세상에 살면, 간혹 군자와 다름이 없지만, 단지 이해관계에 직면하거나, 어떤 돌발적 사태에 봉착하게 된 연후에는 군자가 고수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小人之在治世，或與君子無異，惟臨利害，遇事變，然後君子之所守，可見也)”고 하였다.

d. 역시 북송의 학자 사랑좌(謝良佐: ?~?)는 그의 저서 『논어설(論語說)』에서, 이 글귀를 주석하면서, “선비는 궁해지면, 절의를 보이고, 난세가 되면, 충신을 식별할 수 있으니, 배우는 자들이 반드시 덕을 완비하고자 한 것이다(士窮，節義，見節義，世亂，識忠臣，欲學者必周于德)”고 하였다.

12) 백척고대장수심(百尺高臺漳水潯: (그는 이미) 백척 높은 누대樓臺를 장수漳水 강변에 세웠거늘):

① 백척고대(百尺高臺): 백척이나 되는 높은 누대. 누대는 먼 곳을 전망하는 평평한 건물을 말한다. 본 시에서는 삼대(三臺) 혹은 삼대 중의 어느 한 곳을 가리킨다. 삼대는 삼국시대(三國時代) 조조가 원소(袁紹)를 격파한 후에 업도(鄴都)에 건설하면서 성내(城內) 북쪽 모퉁이에 건축한 동작대(銅雀臺)*·금호대(金虎臺)*·빙정대(冰井臺)*를 말한다. 지금의 하북성(河北省) 임강현(臨漳縣) 서남 삼대촌(三臺村)에 있다.

*동작대(銅雀臺): 삼대(三臺)의 중앙에 위치하며, 『삼국지(三國志)·위지(魏志)·무제기(武帝紀)』편에, “건안 5년(210년)에, 동작대를 건축하였다(建安五年，作銅雀臺)”고 하였다. 『수경(水經)·탁장수주(濁漳水注)』편에, “동작대의 높이는 10장(丈: 한·漢나라 당시의 척도법을 현재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장丈은 2.42m이고, 1장은 10척尺임)이고, 누대(樓臺) 안에 전당(殿堂)이 100여 칸이 있다. …

그 방에는 여감(女監)과 여기(女妓)가 있다. 전당 정면에는 여상(御床: 임금의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하는 침상겸 의자)이 있고, 서촉(西蜀: 지금의 사천성四川省)과 소주(蘇州)지방의 특산물인 비단으로 만든 화려한 장막이 쳐져있으며, 방 4각에는 금용두(金龍頭)가 장식되었는데, 그 용에게 채갈을 물려 오색실로 장식한 술을 늘어뜨려 놓았으며, 뒷벽에는 병풍이 둘러쳐져 있다. 동작대 지하에 두 개의 깊은 우물을 파놓고 지하에 이 우물에서 저 우물로 옮겨갈 수 있는 지하도를 뚫어놓고 귀중품을 보관했는데, 그 지하도를 ‘명자굴(命子屈)’이라 하였다.

석호(石虎: 295~349, 후조後趙의 군주. 갈족羯族. 자는 계룡季龍. 석록石勒의 조카) 시대에 건물 높이를 2장(丈)으로 증진하였다. … 또한 옥상에 5층루(五層樓)를 건축하였으니 높이가 15장으로, 지상으로부터 총 높이가 27장에 달했다. 그리고 누각 꼭대기에 동작(銅雀)을 만들어 세워서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것 같았다”고 하였다.

조조는 생전에 이 동작대를 군사 전략기지로 썼고, 빈객들과 연회장소로 정략(政略)을 구상하던 장소로도 사용했으며, 건안문인(建安文人)들과 시부(詩賦)를 짓던 장소 등으로도 이용하였다고 한다.

삼대(三臺)가 위치했던 업성(鄴城)은 조위(曹魏: 조씨曹氏가 건국한 위나라. 척발위拓跋魏와 구별하는 말)로부터 수(隋)나라의 통일에 이르기까지, 400여 년간, 후조(後趙)·전연(前燕)·동위(東魏)·북제(北齊) 등 왕조의 도움지로서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였을 뿐 아니라, 격전을 치른 곳이었기에 파괴되고, 일부 유적은 장수(漳水)에 수몰되어, 지금은 유적으로 10여 미터 높이의 흙 언덕만 남아있다.

*금호대(金虎臺): 지금의 하북성(河北省) 임장현(臨漳縣) 서남 삼대촌(三臺村)에 위치하였다. 동한말 조조가 건축하였다. 동작대의 남쪽에 위치하였다. 『삼국지(三國志)·위지(魏志)·무제기(武帝紀)』편에, “건안18년(213년) 9월에, 금호대를 짓다(建安十八年, 作金虎臺)”고 하였다. 『수경(水經)·탁장수주(濁漳水注)』편에, “금호대는 높이가 8장(丈)이고, 방이 109칸이 있다(金虎臺八丈, 有屋百九間)”고 하였다. 지금은 흙 언덕만 남아있다.

*빙정대(冰井臺): 동한(東漢) 건안(建安) 19년(214년)에 조조가 건축하였다. 지금의 하북성(河北省) 임장현(臨漳縣) 서남 업진(鄴鎭) 북부에 위치하였다. 업도(鄴都) 삼대(三臺) 중의 하나이다. 『수경(水經)·탁장수주(濁漳水注)』편에, “금호대(金虎臺)의 북쪽에 있는 것이 빙정대(冰井臺)로서, 이 누대 역시 높이가 8장(丈)이며, 방이 145칸 있다. 위로는 빙실(氷室)이 있으며, 그 실내에는 몇 개의 우물이 있다. 그 우물의 깊이가 15장(丈)인데, 그 곳에 얼음을 비롯하여 양곡과 소금을 저장하였다”고 한다. 현재 유적은 남아있지 아니하다.

② 장수심(漳水澣): 장수(漳水)의 강변.

☆장수(漳水): 장수에는 두 갈래의 수원(水源)이 있는데, 그 하나는 청장수(淸漳水)이고, 다른 하나는 탁장수(濁漳水)이다. 이 두 지류는 모두 산서성(山西省) 동남부에서 발원하여 하북성(河北省) 남부변경에서 합류한 후 장하(漳河)라 부르는데, 그 물결에 고금의 변화가 크다. 지금의 장하(漳河)는 단지 남운하(南運河)의 한 지류에 불과하지만, 고대의 장하(漳河)는 황하의 가장 큰 지류

있었다.

☆심(潯): 물가. 강변.

13) 혜유공(蕙帷空): 혜초로 장식한 휘장의 뜰새.

① 혜유(蕙帷): 혜초로 장식한 휘장. 곧 휘장의 미칭(美稱).

혜(蕙)는 혜초(蕙草)로, 『조사(楚辭)』 중에 나오는 향초의 하나로, 이는 전주(全株)가 방향(芳香)을 지니고 있으며 능히 악취를 제거하고 몸에 지니면 향미를 발산한다. 이의 형상이 층층으로 되어있는 고층탑의 모양을 하고 있어서 “구층탑(九層塔)”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고대에는 이를 제례용(祭禮用: 불제祓除: 재앙을 물리쳐 버림)으로 쓰기도 하였다. 남송·구종석(寇宗奭)의 『본초연의(本草衍義)』에는 고대 부녀자들은 항상 구층탑의 기름성분을 가지고 모발에 윤기를 내었는데 그 향기가 더 이상 향기로울 수 없었다고 하며, 또한 본 향초를 가지고 침상갈개나 혹은 방석이나 요를 만들어 쓰기도 했다고 한다.

(이상은 반부준(潘富俊), 『조사식물도감(楚辭植物圖鑑)』 (상해上海: 상해서점출판사上海書店出版社) p.31쪽을 참조함)

본 시에서는 비록 향초인 혜초로써 장식한 휘장이긴 하나 그 분위기가 을씨년스럽다[空]라고 표현하여, 이어지는 “한눈에 보아도 서릉주변 길이라네(一望西陵路)”라는 조조(曹操)의 의총(疑冢)이 무리지어 있는 ‘서릉(西陵)’과 유수대(流水對)를 구성하여, 서애의 조조(曹操)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함축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공(空): 뜰새, 사이, 간격, 빈틈.

14) 일망서릉로(一望西陵路: 언뜻 봐도 서릉西陵으로 가는 길이 보인다네):

① 일망(一望):

☆언뜻 바라보다. 한눈에 바라보다. 잠시 조망하다.

☆한눈에 보이다. 한눈에 들어오다. (시력이 미치는 거리를 가리키며, 비교적 가까운 거리를 의미함)

② 서릉(西陵): 삼국시대 위무제(魏武帝)의 능(陵). 지금의 허북성(河北省) 임장현(臨漳縣) 서쪽 30리 지점에 있다. 명말(明末) 청초(淸初)의 학자 고조우(顧祖禹: 1624~1680)가 편찬한 역사 지리서인 『독사방여기요(讀史方輿紀要: 원명原名: 21사방여기요二十一史方輿紀要): 약칭 方輿紀要』 권49의 임장현(臨漳縣)의 강무대(講武臺: 조조가 축성築城한 강무성講武城 안에 있는 누대樓臺) 조항에, “조조 무덤에는 의총(疑塚: 남이 파헤칠 염려가 있는 무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남의 눈을 속이려고 그와 똑같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개의 무덤)이 있는데, 무릇 일흔두 곳이다(操有疑塚, 凡七十二處). 모두 장수 강변에 있으며, 강무성 성 밖에서부터 촘촘히 늘어선 무덤을 아득히 바라보면, 큰 것은 작은 동산만한데, 무덤의 분포는 곧 바로 자주(磁州)까지 가서야 멎는다(在漳水上, 自講武城外, 森然彌望, 高者如小山, 布列直至磁州而止).”고 하였다.

15) 춘부추(春復秋): 직역하면, ‘봄이 왔다가 다시 가을이 되다’는 의미이나, 본 시에서는 ‘사시(四時: 사시사철)’를 가리키는 ‘춘추(春秋)’의 뜻으로 쓰였다.

『시경(詩經)·노송(魯頌)·비궁(閼宮)』에, “사시사철 게을리 하지 않고, (때 맞춰) 제사 올림에 어김이 없었네(春秋匪解, 享祀不忒).”라고 읊었는데, 후한(後漢)의 학자 정현(鄭玄: 127~200)은 주석하기를, “여기서의 춘추(春秋)는 ‘사시(四時)’와 같

은 말이다(春秋猶言四時也).”고 하였다.

16) 행인부도정서묘(行人不道征西墓 : 행인들은 서릉 가는 직로直路를 알지 못한다네) :

① 부도(不道) :

☆‘알지 못하다(不知)’ · ‘깨닫지 못하다(不覺)’ · ‘부지불식간(不知不識間)’에의 뜻이다. 북송의 문인 소식(蘇軾 : 1036~1101)이 쓴 사(詞), 「동선가(洞仙歌)」(冰肌玉骨)에, “다만 가을바람 언제 오려나 손꼽아보는 사이, 또한 나도 몰래 어느덧 유수처럼 흐르는 세월, 말없이 살짝 바뀌어버렸네(但屈指西風幾時來, 又不道流年, 暗中偷換).”라고 읊었다.

② 정서묘(征西墓) : 서릉(徐陵)에 똑바로 가다.

☆정(征) : 가다. 정행(正行)하다.(이때의 ‘정행正行’은 곧은 길로 가다. 즉 ‘직로直路로 가다’는 뜻으로, 본 시에서는 ‘서릉西陵을 찾아가는데, 이리저리 헤매지 않고 길을 알고 곧 바로 찾아가는 것’을 가리킴) 동한(東漢)의 문인 채옹(蔡邕 : 132~192)은 그의 「상고율부(傷故栗賦)」에서, “먼 곳에서 좋은 나무 가져와 심었네, 사당 앞 정원에(樹遐方之佳木兮, 于靈宇之前庭). 대문 안의 셋문을 통해서 곧은 길로 들어가면, 섬돌 양쪽에 늘어서서 자란다네(通二門以征行兮, 夾階除而列生).”라고 읊었다.

☆서묘(西墓) : 조조의 묘. ‘서릉(西陵)’을 가리킨다. 서릉의 대칭으로 쓰인 것이다.

17) 비등발호능기하(飛騰跋扈能幾何 : 출중하여 권세잡고 발호한들 (그 권력) 얼마나 가겠는가?) :

① 비등(飛騰) : 신마(神馬)가 날아오르는 모양을 형용한 말인데, 후에 사람들은 ‘관직의 승진 속도가 무척 빠른 것’, 벼락출세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로 썼다.

② 발호(跋扈) : 권세나 세력을 제멋대로 부리며 함부로 날뛰다.

③ 능기하(能幾何) : 얼마나 견뎌낼 수 있겠는가?

☆능(能) : ‘내(耐)’와 통함, ‘견디어 내다, 참다, 이겨내다’의 뜻으로 쓰였음.

☆기하(幾何) : 약간, 다소, 얼마.

시35. 원지정사^{遠志精舍}의 서재^{西齋}에서 달을 바라보며

詩35. 精舍西齋對月¹⁾
정 사 서 재 대 월



誰將百鍊江心鏡²⁾,
수 장 백 련 강 심 경

강물에 비친 빛나는 거울
누가 들고 있나 했더니,

掛在花山第一峯³⁾.
괘 재 화 산 제 일 봉

화산^{花山} 제일봉에 걸려 있네.

影入西齋生夜白⁴⁾,
영 입 서 재 생 야 백

서재^{西齋}에 그림자 드리워지며
환한 달빛 비추니,

水光山色有無中⁵⁾.
수 광 산 색 유 무 중

달밤의 산수경관 일거에 펼쳐지네.

1) 정사서재대월(精舍西齋對月 : 원지정사^{遠志精舍} 서재^{西齋}에서 달을 바라보며) :

- ① 정사(精舍) : 원지정사(遠志精舍) : 하회(河回) 원지정사(遠志精舍)를 가리킨다.
중요 민속자료 85호 「서애연보(西厓年譜)」에 의하면, 이 정사는 서애가 32세(선조 6년, 1573년)에 부친상을 당하여 낙향해서 은거할 때에 지은 건축물이다. 소재지는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712-1번지이다. 안동 하회마을은 풍산류씨의 동족마을로 빼어난 자연경관과 민속 유교 전통을 잘 유지하고 있는 조선시대 양반촌이다. 조선 선조 6년(1573)에 지었다고 하며, 북촌(北村)의 북쪽에 강을 향해 정사와 누정(樓亭)인 연좌루(燕坐樓)가 자리 잡고 있다. 누각(樓閣)의 마루 사방에는 난간을 둘렀으며 강가의 소나무 숲과 강 건너편 부용대(芙蓉臺), 옥연정사(玉淵精舍 : 중요민속자료 제88호) 일대가 바라다 보인다.

‘원지(遠志)’라는 말은 중국 남조(南朝) 송(宋)나라 유학자인 유의경(劉義景 : 403~444)이 찬한 『세설신어(世說新語)』 하(下), 제25 배조(排調)에 나오는 말로서, “땅 속에 묻혀 있으면 원지(遠志 : 약초 이름으로 예기물의 뿌리)가 되고, 땅위로 나오면 소초(小草 : 약초 ‘원지의 싹’)가 된다(處則爲遠志, 出則爲小草)”라고 한 대목에서 따온 것인데, 이 말의 표면적인 의미는 ‘땅 속에 있는 뿌리는 원지(遠志)라 하고 땅 위로 나온 싹은 소초(小草)라고 한다’는 뜻이나, 심층적인 뜻은 원지를 ‘은거(隱居)’에 비유하고, 소초는 ‘때가 아님에도 출사(出仕)해서 평범해짐’에 비유한 것이다. 즉 은거하면 뜻이 고원(高遠)하지만, 출사하면 보잘 것 없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 ② 서재(西齋) : 서쪽 서재(書齋). 본 시에서는 원지정사(遠志精舍)의 서재(西齋)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서애가 하회 마을에서 생전에 서재(書齋)로 쓴 건물은 ‘원지정사’와 ‘옥연정사’ 두 채가 있다. 전자는 서재로 사용하기 위한 정사와 자연과 벗하기 위한 누각(연좌루)의 두 채 건물로 이루어졌는데, 두 건물은 모두 부용대를 마주 보며 북향(北向)하고 있는 ‘一’자형 건물이다. 이 정사 건물은 정면 세 칸, 측면 한 칸 반 규모로 소박하게 지은 건물이다.

‘一’자형 건물의 동쪽으로 대청 한 칸, 서쪽으로는 서재를 사용한 방 두 칸을 두고 대청과 방 앞인 북쪽으로는 반칸 뒷간을 두었다. 두 방 사이, 그리고 방과 대청 사이는 장지문을 설치하여 필요에 따라 방과 대청을 한 공간으로 쓸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옥연정사는 하회마을에서 볼 때, 낙동강 건너 부용대 동쪽 자락에 동향(東向)하여 지은 역시 ‘一’자형 건물이다. 따라서 이 옥연정사에서는 ‘서재(西齋)’가 있을 수 없다. 옥연정사는 하회의 상징으로 서애는 이곳에서 『징비록(懲毖錄)』을 서술하였다.

- ③ 대월(對月) :

☆달을 마주하다.

☆달을 바라보다.

- 2) 수장백강심경(誰將百鍊江心鏡 : 강물에 비친 빛나는 거울 누가 들고 있나 했더니) :

- ① 장(將) : 동사로 ‘가지다, 들다. 휴대하다’의 뜻으로 쓰였다.

- ② 백련(百鍊) : ‘백련(百煉)’이라고도 쓴다. 여러 차례 두드려서 단단하게 한다는 뜻이다. 혹은 오랫동안 갈고 닦는 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본 시에서는 ‘갈고 닦아 반짝반짝 빛나다’는 것을 형용하여 쓰였다.

- ③ 강심경(江心鏡) : 강 한복판에서 주조한 동경(銅鏡). 본 시에서는 강물에 비친 달에 비유하여 표현한 말이다.

당(唐)나라 학자 이조(李肇 : ?~?)의 저서인 『당국사보(唐國史補)』 권하(卷下)에 의하면, ‘강심경(江心鏡)’은 원래 당(唐)나라 때에 중국 양주(揚州 : 지금의 강소성 江蘇省 양주시)에서 조정에 진공(進貢)한 동경(銅鏡)이름이라고 하였다. 이 거울은 매년 5월 5일 단오일에 장강(長江) 중앙에서 주조하였기에 얻어진 명칭이라고 한다. 송대 한림원(翰林院)에서는 단오일(端午日)을 맞아 황제에게 지어올린 시, ‘단오첩(端午帖)’에서는 이 전고(典故)를 많이 썼다고 한다.

- 3) 패재화산제일봉(卦在花山第一峯 : 화산花山 제일봉에 걸려 있네) :

- ① 화산(花山) :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河回里) 동쪽에 위치한 산.

- ② 패재화산제일봉(卦在花山第一峯) : 본 시에서 쓰인 ‘화산 제일봉에 걸린 강심경

(江心鏡)’은 ‘달’의 대칭(代稱)으로 쓰인 것이다.

4) 영입서재생야백(影入西齋生夜白 : 서재西齋에 그림자 드리워지며 환한 달빛 비취니) :

① 영입서재(影入西齋) : 서쪽 서재(書齋)에 달그림자가 드리워지다.(달이 뜨자 정원 수의 그림자가 방문에 비치는 모양을 이룸)

☆영입(影入) : 달그림자가 드리워지다. (이 말은 곧 ‘달빛이 비취자다’는 말임) ‘영(影)’의 원뜻은 ‘그림자’이나 본 시에서는 ‘달그림자’를 가리킨다.

☆서재(西齋) : 앞의 주석1)의 ②를 참조 바람.

② 생야백(生夜白) : 밤에 광명이 살아나다. 즉, ‘어둠이 사라지다.’는 뜻이다.

☆생(生) : 생기다. 발생하다. 살아나다(살다).

☆야(夜) : 밤, 어둠. 야색(夜色), 즉 야간의 경색(景色)으로 밤경치를 말하는 것이다.

☆백(白) : 밝아지다. 광명(光明).

5) 수광산색유무중(水光山色有無中 : 달밤의 산수경관 일거에 펼쳐지네) :

① 수광산색(水光山色) : ‘산수(山水)의 경색(景色 : 경치)’을 가리킨다.

☆수광(水光) : 수면에 반사되어 반짝거리는 빛.

☆산색(山色) : 산의 경치.

② 유무중(有無中) : 직역하면, ‘없는 가운데서 생기다’는 말인데, 본 시에 쓰인 이 말의 뜻은 ‘달이 뜨기 전에는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달이 뜨자 달 밤의 산수경관이 선명하게 눈앞에 펼쳐졌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시36. 이 통제사李統制使를 애도하다

詩36. 哀李統制¹⁾
애 이 통 제

閑山島古今島²⁾,
한 산 도 고 금 도

한산도와 고금도는

大海之中數點碧³⁾.
대 해 지 중 수 점 벽

대해大海에 떠있는 몇 점의 푸른
섬일세.

當時百戰李將軍,
당 시 백 전 이 장 군

당시의 백전노장 이순신 장군은

隻手親扶天半壁⁴⁾.
척 수 친 부 천 반 벽

혼자 힘으로 하늘의 절반을 받들어
지탱했네.

鯨鯢戮盡血殷波⁵⁾,
경 에 육 진 혈 은 파

고래 같은 흉적 격살하여 거친 물결
피로 물들었고.

烈火燒竭馮夷窟⁶⁾.
열 화 소 갈 풍 이 굴

맹렬한 불길로 풍이馮夷 같은 왜적 소굴
다 태웠네.

功高不免讒妬構⁷⁾,
공 고 불 면 참 투 구

전공戰功은 컸지만 시기猜忌와 모함의 덫
피하지 못하면서도,

性命鴻毛⁸⁾安足惜.
성 명 홍 모 안 족 석

(나라 위해) 목숨은 깃털처럼 여겼으니
얼마나 애석한가.

君不見、東頭一片石⁹⁾, 그대는 못 봤는가? 현산峴山 동쪽
군 불 견 동 두 일 편 석
 기슭의 비석 앞에,

羊公¹⁰⁾去後人垂泣。 양공羊公이 타계한 후에 사람들이
양 공 거 후 인 수 읍
 흐느껴 우는 것을.

淒涼數間愍忠祠, 처량하구나 몇 칸의 민충사愍忠祠는,
치 량 수 간 민 충 사

風雨年年毀不修。 연년이 비바람에 훼손돼도 수리조차
풍 우 년 년 훼 불 수
 못했는데,

時有蜺戶吞聲哭¹¹⁾。 수시로 지네 나오는 사당에 소리
시 유 연 호 탄 성 곡
 없는 곡성 들리네.

1) 애이통제(哀李統制) : 이 통제사(統制使)를 애도하다.

****역자주석 1 :**

역자가 저본(底本)으로 사용하고 있는 하회본(河回本) 『서애전서(西厓全書)』 권1 간본편(刊本篇)·본집(本集) 권2에 수록된 본 시, 「애이통제(哀李統制)」의 목판본 원문에는 바로 결구(結句) : 時有蜺戶吞聲哭 위에 있는 시구(詩句)가 결자(闕字)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즉, “風雨年年□□□, □□□□不修”의 형태로 두 구의 사이가 무려 7자 간격에 상당하는 자간(字間)으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이를 두고 근심해오던 터에, 본 시 외에도 동일 시제(詩題)로 된 시가 세간(世間)에 더 보이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들을 하회본과 대조를 해보니 내용은 동일한 것이나 표현된 시어(詩語)는 많이 달랐다. 하여서, 이의 출처도 알아볼 겸 풍산 류씨(豊山柳氏) 종택(宗宅)에 문의를 하였다. 그 결과 뜻밖에도 세간에 보이는 「애이통제(哀李統制)」의 시문이 하회 충효당의 영모각(永慕閣) 안에 보관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는 서애가 당시에 사용하던 달력인 대통력(大統曆 : 중국력中國曆의 하나로, 명·태조 홍무洪武 17년(1384)을 역원曆元으로 한 명나라의 역법曆法임. 서애가 사용한 것은 바로 무술년 대통력戊戌年大統曆이었음)의 이면(裏面)에 친필로 기록해 둔 필본(筆本)이었다.

뿐만 아니라, 역시 풍산 류씨 종손가문적(宗孫家文籍)으로 영모각에 보관되어 있는 『갑진난고(甲辰亂稿)』라는 문적(文籍) 안에는 바로 하회본에 실려 있는 「애이통제」의 시문(詩文)도 전문(全文)이 서애의 친필로 수록되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서애 친필본을 목각판본인 하회본과 비교해 보니, 과연 결자(闕字)가 있었다. 그러나 당초에 역자가 추정했던 7자[일곱 글자]가 아니라, 오직 1자[한 자]로, 그 결자는 바로 「훼손(毀)」자였다. 이는 앞의 “풍우년년(風雨年年)”과 뒤의 “불수(不

修) 사이에 들어가는 것이었다. 즉, “風雨年年口不修”의 형태였는데, 그 끝자를 이제 보완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곧 “풍우년년 훼손수(風雨年年 毀不修)”라는 온전한 하나의 의미를 나타내는 7언 시구가 된다. 추정컨대, 아마도 당시에 목각 활자를 배열하는 과정에서 단순 실수로 자간(字間)이 밀려나가서 그렇게 된 것 같다. 그때, 또한 이 ‘훼손(毀)’자도 누락되었던 모양이다. 이번에 하회본에 누락된 이 ‘훼손(毀)’자를 보충하고 나니, “풍우년년(風雨年年)”과 “훼손수(毀不修)”가 마치 2개의 구인 것으로 오해했던 것이 자연히 해소가 되면서, 자칫 불비(不備)의 작품으로 처리될 위기에 있던 본 시문을 다시 살릴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 「애이통제」는 총 13구로 된 악부시체(樂府詩體)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하회본에 보이지 않는 별도의 자료의 출처를 찾아 나섰다가 뜻밖에도 하회본에 있는 「애이통제」의 끝자까지 바로 잡은 셈이 되었다. 이 한 자의 글자가 보충됨으로 인해, 서애의 이충무공에 대한 애뜻한 정(情意)를 제대로 부각시킬 수 있게 되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하회본 외의 「애이통제」의 출처 역시 밝힐 수 있게 되어, 일거양득의 수확을 올린 셈이 되었다.

본 역시(譯詩)에서는 하회본을 저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회본을 앞에 싣고, 친 필본으로만 보존되고 있는 후자는 하회본 뒤에 소개하기로 한다. 서애시를 세상에 처음으로 출간한 서애의 셋째 아들, 수암(修巖)이 당시에 이 두 수를 보지 못했을 리는 없고, 아마도 수암의 눈에는 하회본의 표현수법이 더 마음에 들지 않았나 싶다. 그래서 내용이 동일하니 함께 실을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전자를 목각판본에 넣었던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위에서 언급한 본 시의 필본에 관한 자료는 풍산류씨豐山柳氏 차세대 중손 류창해柳昌海 선생의 정보와 병산서원屏山書院 유사유司, 류한옥柳漢郁 선생이 제공해주신 자료에 의거해서 해결하였음을 밝힌다)

① 이통제(李統制) : 이통제사(李統制使) : 이순신(李舜臣) 통제사(統制使).

☆통제(統制) : 통제사(統制使) :

조선 시대에 경상·전라·충청 등 3도의 수군(水軍)을 통솔하던 무관직(武官職). 일명 삼도통제사(三道統制使) 또는 통곤(統閫)이라고 한다.

본래 삼남(三南) 지방의 수군제도는 충청도 보령(保寧)에 충청도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 경상도 동래(東萊)에 경상좌도 수군절도사, 경상도 거제(巨濟)에 경상우도 수군절도사, 전라도 순천(順天)에 전라좌도 수군절도사, 전라도 해남(海南)에 전라도 우도 수군절도사 등을 두어 통치권을 분할하였으나, 1593년(선조 26) 이순신이 전라우도 수군절도사로서 삼남의 수군을 통솔하게 됨을 계기로 통제사의 제도가 시작되었다. 당시의 통제영(統制營 : 통제사의 본부)은 거제의 오아포(烏兒浦)에 있었는데, 그 후 1604년(선조 37) 체찰사(體察使) 이덕형(李德馨 : 1561~1613)의 장계(狀啓)로 경상도 고성(固城) 두동포(頭龍浦)로 이전하였다.

통제사는 수군의 총사령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단히 중요한 직위였는데, 1865년(고종 2)에는 외등단(外登壇 : 외직外職)으로서 무관의 최고직에 오르는 자격을 갖게 되었다.

☆이순신(李舜臣 : 1545~1598) : 조선시대의 명장. 자 여해(汝諧), 시호 충무(忠武). 본관 덕수(德水). 서울 건천동(乾川洞 : 지금의 중구 인현동仁峴洞 일대) 출

신.

1576년(선조 9) 식년무과(式年武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하다. 함경도의 동구 비보권관(董仇非堡權管)에 보직하다. 1577년(선조 10) 발포수군만호(鉢浦水軍萬戶)를 거쳐 1583년(선조 16) 건원보권관(乾原堡權管)·훈련원참군(訓練院參軍), 1585년 사복시주부(司僕寺主簿)·조산보만호(造山堡萬戶), 1589년(선조 22) 선전관(宣傳官)·정읍현감(井邑縣監) 등 미관말직만을 지내다가, 1591년(선조 24) 당시 좌의정인 류성룡(柳成龍: 1542~1607)의 천거로 전라좌도수군절도사(全羅左道水軍節度使)에 승진, 좌수영(左水營: 여수麗水)에 부임하여 군비확충에 힘썼다.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壬辰倭亂: 1592~1598)이 일어나자 옥포(玉浦)에서 적선 30여 척을 격파하고 이어 사천(泗川)에서 거북선을 처음 사용하여, 적선 13척을 분쇄했고, 당포(唐浦)에서 20척, 당항포(唐項浦)에서 100여척을 각각 격파하여, 자헌대부(資憲大夫)에 승품(陞品)되고 7월 한산도(閑山島)에서 적선 70척을 무찔러 역사상 유명한 한산대첩(閑山大捷)의 큰 무공을 세웠다. 이어 정헌대부(正憲大夫)에 오르고, 다시 가토 요시아키(加藤嘉明: 1563~1631)의 수군을 안골포(安骨浦)에서 격파하고 9월 적군의 근거지 부산에 쳐들어가 100여 척을 부수었다. 1593년(선조 26) 다시 부산과 웅천(熊川)의 적 수군을 격파, 남해안 일대의 적 수군을 완전히 일소하고 한산도로 진을 옮겨 본영(本營)으로 삼고, 최초의 삼도수군통제사(三道水軍統制使)가 되었다. 1594년(선조 27), 명나라 수군이 내원(來援)하자 죽도(竹島)에 진을 옮기고, 장문포(長門浦)에서 왜군을 격파, 적군의 후방을 교란하고 서해안으로 진출하려는 적을 막아 왜군의 작전에 큰 타격을 가하였고 전쟁이 소강상태에 접어들자 훈련을 강화하고 군비확충·난민구제·산업장려 등에 힘썼다.

1597년(선조 30) 원균(元均: 1540~1597)의 모함으로 서울에 압송되어 사형을 받게 되었으나, 우의정 정탁(鄭琢: 1526~1605)의 변호로 권율(權慄: 1537~1599)의 막하에서 백의종군하였으며, 정유재란(丁酉再亂: 1597~1598) 때 원균이 참패하자 삼도수군통제사에 재임명되어, 12척의 함선과 빈약한 병력을 거느리고 명량(鳴梁)에서 133척의 적군과 대결, 31척을 부수었다. 1598년(선조 31), 고금도(古今島)로 진을 옮겨 철수하는 적선 500여 척이 노량(露梁)에서 집결하자 명나라 제독 진인(陳璘: 1467~1538)의 수군과 연합작전을 수행하면서, 적군을 기습하다가 혼전 중 유탄에 맞아 전사했다.

왜란 중, 투철한 조국애와 뛰어난 전략으로 민족을 왜적으로부터 방어하고 또한 격퇴함으로써 우리 민족 역사상 가장 추앙받는 인물의 한 사람이 되었으며, 글에도 능하여 『난중일기(亂中日記)』와 시조(時調)·한시(漢詩) 등 여러 편의 작품을 남겼다. 1604년 선무공신(宣武功臣) 1등이 되고 덕풍부원군(德豐府院君)에 추봉되고 좌의정에 추증, 1613년(광해군光海君 5) 영의정이 더해졌다. 장지(葬地)는 아산(牙山)의 어라산(於羅山)이다. 왕이 친히 지은 비문과 충신문(忠臣門)이 건립되었다. 충무(忠武)의 충렬사(忠烈祠), 여수(麗水)의 충민사(忠愍祠), 아산의 현충사(顯忠祠) 등에 배향되었고, 저서에 『이충무공전서(李忠武公全書)』가 있다(이상은 동아대백과 참조).

2) 한산도고금도(閑山島古今島: 한산도와 고금도는):

- ① **한산도(閑山島)** : 경상남도 통영군(統營郡)의 중부, 거제도(巨濟島)의 서남, 고성반도(固城半島)와의 사이에 산재해 있는 여러 섬 중 북단에 위치한 주도(主島). 넓이 17.2km². 옛날에는 목장(牧場)을 두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 1593년(선조 26) 7월 전라좌도 수군절도사 이순신이 본진(本鎭 : 지금의 여수에 있었음)이 벽재(僻在 : 너무 외진 곳에 위치함)해서 방어가 어렵다고 하여, 이 섬에 본진을 옮겼다. 같은 해, 8월 이순신이 충청·전라·경상 3도의 수군통제사를 겸임, 이 섬에 통영(統營 : 통제영統制營 : 통제사의 본부)을 설치하게 되자, 당시 우리나라 수군의 근거지가 되었다.

1597년(선조 30) 정유재란(丁酉再亂)이 일어나 왜군이 재 침입했을 때, 이순신은 왜의 이간책과 조신(朝臣)의 일부(서인西人과 북인北人)의 시기로 인하여, 파직되고 대신 원균이 통제사가 되었다. 원균(元均)은 도체찰사(都體察使) 이원익(李元翼 : 1547~1634)과 도원수(都元帥) 권율(權慄 : 1537~1599) 등의 명으로 왜를 격파하기 위해 절영도(絶影島)로 진격하던 중, 왜장 도도 다카도라(藤堂高虎 : 1556~1630)와 와키자카 야스하루(脇坂安治 : 1554~1626) 등의 군대와 대전했으나 거제(巨濟) 칠천도(漆川島)와 고성(固城) 추원포(秋原浦)에서 대패하여, 원균은 전사하고 조선군은 전라도로 퇴각하였다. 한산도(閑山島)를 잃었다는 소식에 조정에서는 다급하게 이순신을 재가용하였다. 이후 명군(明軍)과 연합하여 거제도와 한산도에 진을 치고 있다가, 왜란이 끝나자 철수했다.

이 섬 안에 있는 운주당(運籌堂)은 이순신이 여러 장군들과 군사(軍事)를 논의하던 곳이라 하며, 충렬사는 임진왜란 때 전몰한 장졸(將卒)을 모신 곳이다.

☆한산도대첩(閑山島大捷) :

임진왜란 때 한산도에서 이순신이 일본 해군을 크게 무찌른 전투이다. 1592년(선조 25) 5월 이후, 여러 차례 패전한 일본은 패전을 만회하기 위해 병력을 증강하여 출동했다.

와키자카(脇坂安治)가 거느린 제1진은 70여 척을 거느리고 용천(龍川) 방면에서 출동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 1536~1598)의 특명을 받은 구키 요시타카(九鬼嘉隆 : 1542~1600)가 거느린 제2진도 40여 척을 거느리고 왔으며, 제3진의 카토 요시아키라(加藤嘉明 : 1563~1631)도 많은 병선을 이끌고 합세하였다.

이순신은 이억기(李億祺 : 1561~1597)와 더불어 90척을 인솔하여 좌수영(左水營)을 출발하여, 경상우수사(慶尙右水使) 원균(元均)과 합세하여, 일본 수군이 정박한 견내량(見乃梁)에 이르렀다. 이 순신은 전략상 왜군을 한산도 앞바다로 유인하고 학익진(鶴翼陣)을 펼치고 일제히 총통(銃筒)을 발사하는 등 맹렬한 공격을 가하여 층간선(層間船)을 7척, 대선 28척, 중선 17척, 소선 7척 등을 격파하였다. 이 싸움은 왜란 때의 삼대첩(三大捷)의 하나로, 그 결과 왜군의 수군은 전멸했고 이순신은 그 공으로 정헌대부(正憲大夫)의 관계(官階)를 받았다.

- ② **고금도(古今島)** : 전라남도 완도군(莞島郡) 고금면(古今面)에 있는 섬으로, 고려 말(1384년, 우왕 10) 봉성리(鳳城里 : 독바위)에 천씨(千氏)가 최초로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그 뒤 1589년(선조 22) 덕동리(德洞里)에 고금진(古今鎭)이 설치되면서 강진군(康津郡)에 속하였고, 1896년에 완도 주변의 섬을 합하여 완도군이 설

치되었을 때, 고금도(古金島)와 약산도(藥山島)의 사이에 위치한 덕동리에 소재지를 두면서 완도군에 속하였다. 1946년 약산도의 약산면을 분할하고서 농상리(農上里: 農桑里)에 고금면 소재지를 두어 오늘에 이른다.

원래 고이도(古爾島)라고 불렸는데, 점차 변하여 고이도(古你島)가 되었다. 그 뒤 고금도(古金島)로 바뀌어 불렸다가 고금도(古金島)로 변하여 현재에 이른다. 고구마가 이곳에서 재배되고서 육지로 전래되었다고 하여, ‘고금도에서 나온 마’라는 뜻으로 ‘고구마’라고 불렀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이곳 고금도는 조선 시대 수군 전략 요충지로 충무공 이순신이 명량(鳴梁: 울돌목: 전라남도 진도와 육지 사이의 해협) 대첩(大捷), 노량(露梁) 해전을 승리로 이끌어 내기 위해 준비하던 유서 깊은 곳이다. 완도는 어느 곳 할 것 없이 역사의 숨결이 남아 있는 곳들이지만 특히 고금도는 임진왜란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임진왜란 때인 1597년 8월 18일 이순신이 다시 삼도수군통제사(三道水軍統制使)가 되어 회령포(會寧浦: 장흥長興의 회진會津)에 도착하여 10여 척 남짓 되는 전선으로 해남 이진(梨津)을 거쳐 명량에서 대승을 거두고 1598년 2월 17일 고금진(古金鎭) 묘당도(廟堂島: 원래는 관왕묘關王廟가 있던 섬이라 하여 묘당도로 부르다가 1971년 덕동리에 분구하면서 충무사忠武祠의 이름을 따서 충무리로 바뀌어 현재에 이름)로 옮긴다. 묘당도는 면적 0.11km²로 고금도 사이에 있는데 지금은 간척 사업으로 인해 육지와 잇닿아 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충무공 이순신이 본영을 둔 곳임.

이곳은 고금대교 개설로 최근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관광지이다. 정유재란의 마지막 해인 1598년(선조 31) 2월 충무공 이순신이 수군 8,000여 명을 거느리고 고하도(현 목포시 충무동)로부터 이곳에 옮겨 진을 쳤고, 그해 7월에는 명나라의 원병으로 진린(陳璘) 장군이 5,000명의 수군을 이끌고 고금도에 도착, 연합 전선을 펴 왜적의 침략을 막아 냈던 유적이다. 충무공 이순신은 노량 해전에서 왜군과 싸우다 적의 유탄에 맞아 전사했고, 그의 시신은 다시 고금도로 돌아와 83일이나 이곳 묘당도에 모셔져 있다가 장지인 충남 아산(牙山)으로 모셔 장례했다. 지금 묘당도에는 충무공 이순신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사당으로 충무사가 있다.(이상은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두산백과 등을 참조)

- 3) 벽(碧): 푸르다는 뜻에서 전하여 ‘녹수(綠水)’, 본 시에서는 ‘바다’를 가리킨다.
- 4) 척수친부천반벽(隻手親扶天半壁): 혼자 힘으로 하늘의 절반을 받들어 지탱했네):
 - ① 척수(隻手):
 - ☆한쪽 손(외손). 한쪽 팔(외팔)을 가리킨다.
 - ☆단신(單身: 홀몸). ‘독력(獨力: 혼자 힘)’을 비유하는 말로 쓴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② 천반벽(天半壁):
 - ☆천(天): 하늘. 본 시에서는 ‘영공(領空: 영토와 영해 위의 하늘)’을 가리킨다.
 - ☆반벽(半壁): 반벽강산(半壁江山)의 약칭으로 ‘반동강이 난 국토’ 침략으로 빼앗기고 남은 국토를 가리킨다.
- 5) 경예육진혈은파(鯨鯢戮盡血殷波: 고래 같은 흉적 격살하여 거친 물결 피로 물들

였고) :

① 경예(鯨鯢) :

☆고래. 수컷을 ‘경(鯨)’이라 하고, 암컷을 ‘예(鯢)’라고 한다.

☆(고래는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음으로) 전하여 ‘흉악한 적’에 비유한다.

☆전하여 ‘해도(海盜)’란 뜻으로도 쓴다. 전(轉)하여 ‘무고(無辜)하게 피살된 사람’에 비유한다.

② 은파(殷波) : 거친 물결.

☆은(殷) : 거칠다. 격렬하다.

6) 풍이(馮夷) : 중국신화에 나오는 황하(黃河)의 수신(水神)으로 하백(河伯)을 달리 이르는 말이다.

7) 공고불면참투구(功高不免讒妬構) : 전공(戰功)은 컸지만 시기(猜忌)와 모함의 덫(計) 피하지 못하면서도) :

① 공고(功高) : 공적(功績)이 크다.

☆공(功) : 공적(功績)을 칭하는 것으로, 본 시에서는 전공(戰功)을 가리킨다.

② 불면(不免) :

☆면할 수 없다.

☆피할 수 없다.

③ 참투(讒妬) : 참투(讒妒)로도 쓴다.

☆시기(猜忌 : 시샘)와 모함.

④ 구(構) : 구조, 틀이란 뜻이지만, 본 시에서는 원균(元均 : 1540~1597) 등 일부 정치인들이 이순신 장군에게 쳐놓은 정치적 모함의 ‘덫’을 가리킨다.

8) 성명홍모(性命鴻毛) :

① 성명(性命) : 목숨 · 생명, 본성.

② 홍모(鴻毛) : 기라기의 털. 전하여, ‘아주 경미하거나 언급할 만한 것이 못되는 사물’의 뜻으로 쓰인다.

9) 군불견, 동두일편석(君不見、東頭一片石 : 그대는 못 봤는가? 현산(峴山) 동쪽 기슭 비석 앞에) :

① 군불견(君不見) : 주로 악부시의 첫머리에 반문구(反問句)로 잘 쓰이는 상투어이다. 당(唐) · 이백(李白)의 『악부잡곡(樂府雜曲) · 고취곡사(鼓吹曲辭) · 장진주(將進酒)』 : “그대는 못 봤는가, 황하의 강물이 하늘에서 내려와, 분주히 동해로 흘러들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것을!(君不見, 黃河之水天上來, 奔流到海不復回)”라고 하는데서 보이고 있다.

② 동두일편석(東頭一片石) : 서진(西晉)의 무장 양호(羊祜 : 221~278)가 양양(襄陽 : 호북성 소재)으로 쳐들어온 오(吳)나라 장수 육항(陸抗)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그의 적장을 대하는 태도와 무장으로서의 대국적인 견지를 잃지 않은 덕망을 기리기 위해, 그곳의 주민들이 양호가, 양양에 주둔할 당시 휴식을 취할 때면 늘 올라가서 술을 마시고 시를 읊었던 그곳의 남부에 위치한 현수산(峴首山)의 동쪽 기슭에 비석을 세워서 그를 기렸다고 한다.

☆동두(東頭) : 지금의 중국 호북성(湖北省) 양양현(襄陽縣) 남부에 있는 현수산(峴首山) 동쪽을 말하는 것이다. 이 산은 동쪽으로는 한수(漢水)에 임하고 양양현(襄陽縣) 남부의 요새지이다. 서진(西晉)의 장수 양호(羊祜)는 양양(襄陽)

에서 진을 치고 주둔할 당시, 휴식을 취할 때면 항상 이 산에 올라가 술을 마시면서 시를 읊었다고 한다.

☆일편석(一片石) : 한 조각의 비석. ‘석(石)’은 ‘비갈(碑碣: 묘비, 비석)’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곳 남방 사람들은 서진(西晉)의 무장 양호(羊祜)의 무덕(武德)을 기리기 위해, 그가 죽은 후에도 이 비석 앞에 와서 그를 추모했다고 한다.

- 10) 양공(羊公) : 양호(羊祜 : 221~278) : 서진(西晉)의 무장. 그는 삼국시대의 위(魏)나라 말엽, 서진(西晉)초기의 태산(泰山) 남성(南城) 출신. 자(字)는 숙자(叔子)이며, 채옹(蔡邕 : 132~192)의 외손이고, 사마사(司馬師 : 208~255)의 처남(妻男)이다. 젊어서는 위(魏)나라 지방관리인 상계리(上計吏)로서, 업무보고차 중앙에 파견되었는데, 누차 중령군(中領軍)에 근무하여 고위직에 오르고 숙위(宿衛)를 관장하면서 군권(軍權)을 장악하게 되었다. 후에 진(晉)나라에 들어가 도독(都督)이 되었다. 무제(武帝) 태시 5년(太始五年 : 269)에 사마염(司馬炎 : 진무제晉武帝)의 명을 받아 양양(襄陽)으로 쳐들어온 오(吳)나라 장수 육항(陸抗 : 226~274)과 최전방에서 대치하며 군량미를 비축하고 오나라를 멸할 준비를 하였다. 이때 적장이긴 하지만, 육항과는 각자의 사명을 다 하면서도 서로의 지기(志氣)가 통하여 신뢰를 돈독히 하며 우정을 다지는 관계를 유지하였다.

양호(羊祜)는 그러면서도 대국적인 면에서 누차에 걸쳐 오나라를 멸할 대계(大計)를 올리면서 출병을 허락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무제는 윤허하지 않았다. 그의 직위는 남정대장군(南征大將軍)에 올랐으며, 남성후(南城侯)에 봉해졌다. 재직시에는 청렴하였으며, 임종시에 두예(杜預 : 222~284)를 천거하였다. 시호는 성(成)이다.

양호가 죽자 오나라를 덕으로 회유하다 죽었다 하여, 남방 사람들은 울지 않는 이가 없었다고 한다. 그를 추모하여, 사람들은 그가 생전에 휴식을 취할 때면 늘상 현산(峴山)에 올라 술을 마시며 시를 읊었던 곳에 비(碑)를 세우고 매년 제사를 지냈는데, 비석을 보는 사람마다 눈물을 흘리기에 서진(西晉)의 무장 두예(杜預 : 222~284년)가 이 비석을 ‘타루비(墮淚碑)’라 명명하였다고 한다.

- 11) 시유연호탄성곡(時有蜺戶呑聲哭 : 수시로 지네 나오는 사당에 소리 없는 곡성 들리네) :

① 시유연호(時有蜺戶 : 수시로 그리마가 나타나는 집) :

☆시(時) : 수시로, 때때로.

☆유(有) : 나타나다.

☆연(蜺) : 그리마. 절지동물 ‘그리맣과’의 동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지네와 가까운 종류로 다리가 여러 쌍이며 긴 더듬이가 있다. 어둡고 습한 곳에서 작은 벌레를 잡아먹고 산다. 여기서는 바로 이 지네 같은 그리마가 기어 다니는 집에 사는 사람들이란 뜻으로, 궁핍한 섬사람들의 주거환경을 암시하면서 하층민 혹은 소외된 계층만이 충신 무장(武將) 이통제사의 죽음을 잊지 않고 있음을 함축시키고 있다. 본 시에서는 지네로 번역하였다.

☆호(戶) : 인가(人家), 가옥(家屋), 방. 본 시에서는 사당을 가리키며, ‘민충사(愍忠祠)’의 대칭으로 쓰였다.

② 탄성곡(呑聲哭) : 이때의 ‘탄(呑)’은 ‘삼키다, 꼭 참다’는 뜻.

☆탄성(呑聲) :

a. 소리를 삼키다.

b. 울음소리를 참다.
 ☆곡(哭): 울음, 울다.

****역자주석 2 :**

아래에 소개하는 「애이통제」는 역자주석 1에서 밝혔듯이 하회본(河回本)에는 보이지 않고 ‘중손가 문적(宗孫家文籍)’ 속에만 보인다. 세간에 보이는 「애이통제」 시문을 보면, 중가문적본에 있는 것과 약간의 출입이 있다. 이를테면, 어떤 것은 문적본에 없는 시어(詩語)가 들어 있고, 어떤 것은 시문전체로 보면, 달라진 것이 없으나, 방점(傍點) 처리에 출입이 보이는 경우가 그러하다. 독자를 위해, 중가 문적본을 아래에 소개하니 참조하기 바란다.

본 시문은 중가문적 중에, 무술년(戊戌年 : 1598년, 서에 57세)의 대통력(大統曆) 이면(裏面)에 서애의 친필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당시에 사용하던 역서(曆書)인 대통력(大統曆)으로 서애는 이 통력의 이면에 서애의 주요사상 등을 해당 날짜 아래에 적어놓았는데, 이것은 역사적 자료로도 중요하지만, 또 한 관상감(觀象監)에서 발행한 오래된 역서라는 점과 인쇄에 사용한 관상감활자를 연구하는 데에도 귀중한 가치가 있다고 한다.

閑山島在何處,
한 산 도 제 화 처

大海之中一點碧。
대 해 지 중 일 점 벽

古今島在何處,
고 금 도 제 화 처

渺渺南溟橫一髮。
묘 묘 남 명 횡 일 발

當時百戰李將軍,
당 시 백 전 이 장 군

隻手扶將天半壁。
작 수 부 장 천 반 벽

鯨鯢戮盡血殷波,
경 예 죽 진 혈 은 파

烈火燒竭憑崖窟。
열 화 소 감 병 이 굴

功高不免讒妬構,
공 고 불 면 참 두 구

力戰不憚身殉國。
역 전 불 탄 신 순 국

君不見、峴山東頭一片石,
군 불 진 현 산 동 두 일 편 석

羊公去後人垂泣。
양 공 기 후 인 수 읍

獨在一間屋,
독 재 일 간 옥

時有蜃戶來尊酒。
시 유 신 호 대 권 주

한산도가 어디에 있는가?

대해大海 가운데 있는 한 점點 푸른 섬일세.

고금도는 어디에 있는고?

아득한 남해에 가로 놓인 머리칼 같은 섬

당시의 백전노장 이순신 장군은,

혼자 힘으로 하늘의 절반을 받들어 지탱했네.

고래 같은 흉적 격살하여 거친 물결 피로 물들었고,

맹렬한 불길로 풍이憑夷 같은 왜적 소굴 다 태웠네.

전공戰功 컸지만 시기猜忌와 모함의 덫

피하지 못하면서도,

기탄忌憚없이 분투하다 나라위해 몸 바쳤네.

그대는 못 봤는가?

현산峴山 동쪽 기슭 비석 앞에,

양공羊公 타계 후 사람들이 흐느껴 우는 것을!

겨우 한 칸 사당에,

수시로 조개잡이 어민들이 와서 술잔을 올리네.

시37. 은호殷浩(동진東晉의 무장)를 조소하면서

詩37. 嘲殷浩¹⁾
조 은 호



深源若不出,
심 원 약 불 출

심원深源[殷浩]은 분명 출사出仕하지
않을 듯하니,

當如蒼生何²⁾.
당 여 창 생 하

그리되면 “백성들은 어찌한단 말이오?”

深源晚一出,
심 원 만 일 출

심원이 늦게라도 일단 출사하기만
한다면,

四海轉奔波³⁾.
사 해 전 분 파

각지의 오랑캐들은 오히려 도망칠
것이라고 했다네.

不如東山子⁴⁾,
불 여 동 산 자

출정 나간 병사들은 비교가 되지
않나니,

談笑靖胡沙⁵⁾.
담 소 정 호 사

(그는) 담소하는 가운데 북방 오랑캐를
평정할 것이라 했다네.

尺鷃慕大鵬⁶⁾,
척 안 모 대 봉

작은 뱀새가 큰 봉새 흉내를 내다니,

可笑不量⁷⁾己.
가 소 불 량 기

자기 분수 모르는 게 참으로
가소롭구나.

如何⁸⁾一室中,
여 하 일 실 중

更作書空字⁹⁾.
영 작 서 공 자

어찌하여 한 칸 방안에서,

거듭 거듭 허공에다 대고 글자를 쓰고
있었던고!

1) 은호(殷浩 : 303~356) : 동진(東晉)의 무장(武將). 동진 진군(陳郡) 장평(長平), 즉 지금의 하남성(河南省) 서화현(西華縣) 동북부 사람. 자를 연원(淵源)으로 지었으나 훗날 심원(深源)으로 바꾸었다.

그는 성품이 온후하였고 박학하였으며, 약관(弱冠)에 이미 명성이 높았다. 『노자(老子)』와 『주역(周易)』을 즐겨 읽었고, 그 이론에 대한 현학(玄學)을 즐겨 토론했으며, 청담(淸談)의 기교가 숙부 은융(殷融) 보다 나아 당대(當代)의 으뜸이었다.

정서장군(征西將軍) 유량(分亮 : 289~340)이 기실참군(記室參軍 : 임금에게 올리는 상주문上奏文을 관장하던 관직명칭)으로 천거한 뒤, 누차 사도좌장사(司徒左長史 : 각 주州·군郡의 농·상·호적과 관리들의 고과考課를 관장하던 6품관직명)를 역임했다.

그 후, 사직하고 은거한 것이 근 10년이나 되었다. 그동안 누차 추천을 받았지만 관직에 나가지 않았다.

영화 2년(永和二年 : 346) 지방 반역 세력인 소준(蘇峻 : ?~328) 일당을 소탕하여 공을 세웠던 무장(武將)褚裒(褚裒 : 303~350)의 추천을 받고 건무장군(建武將軍)을 시작으로 해서, 양주자사(揚州刺史)에 임명되었다.

이듬 해, 형주자사(荊州刺史)로 서부 제주(諸州)의 군사 지휘권을 확보한 무장, 환온(桓溫 : 312~373)이 군사를 몰고 촉(蜀 : 지금의 사천성四川省 일대) 땅을 공격하여 성한(成漢 : 5호 16국五胡十六國의 하나로 저족氏族의 추장 이웅李雄이 성도成都를 도읍지로 세운 나라)을 멸망시켰다. 이 공훈을 세운 환온은 조정의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전횡하였다.

그 무렵, 회계왕(會稽王) 사마욱(司馬昱 : 320~372, 원제元帝의 차자次子, 훗날의 간문제簡文帝)이 국정(國政)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환온의 세력이 과대해지자 위기감을 느끼고 이를 견제하려는 속셈으로, 당시 명성이 자자한 은호(殷浩)를 양주자사(揚州刺史)로 임명하여, 양주 지역의 군민(軍民)을 통솔케 하고, 조정 정부에 참여케 해서, 환온의 세력에 대응하려 하였다. 이로 인해서 쌍방은 의구심이 더해졌고, 은호와 환온의 관계는 극도로 악화되었다.

5년 후, 후조(後趙 : 5호 16국 중의 하나로 319년에 갈족羯族 출신인 석륵石勒이 임장臨漳에 도읍하여 화북華北 지방에 세력을 떨치던 나라)의 군주 석호(石虎 : 295~349, 석륵의 조카)가 죽었다. 후조(後趙)는 대혼란에 빠졌다. 동진(東晉)은 이 기회를 틈타고 북벌을 개시했다. 은호는 중원(中原)을 회복하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영화 6년(永和六年 : 350) 도독(都督)에 취임하여, 양주(揚州)·예주(豫州)·서주(徐州)·연주(兗州)·청주(青州) 등 5개 주의 군사를 통솔하고 둔전(屯田)을 실시하며 군비(軍費)를 축적했다.

그러나 그는 군사경험이 없기도 했고, 환온의 방해도 있어서, 영화 8년(永和八年 :

352) 허창(許昌 : 지금의 하남성河南省 허창현許昌縣 동부)까지 진군했지만 조치가 부적절하여, 전진(前秦 : 오호 16국 중의 하나로 351년 저족氏族의 부건苻健이 화북華北을 통일하며 세운 나라)에 패하였다.

이듬해(353) 다시 대거 진군하면서, 강족(羌族)의 추장 요양(姚襄 : ?~357)을 선봉으로 세워 10월에 산상(山桑 : 지금의 안휘성安徽省 몽성현蒙城縣 북부)에 이르렀을 때, 요양이 배반해서 전방에서 매복해 있다가 은호의 부대를 습격했다. 이로 인해 군수품 운반수레에 적재한 전투용 기구·군량미와 말먹이·영장(營帳 : 막사幕舍)·군복·기타재료 등 군수품을 모조리 포기하고, 만여 명의 사상자만 낸 채, 궤멸되어, 초성(譙城 : 지금의 안휘성安徽省 호주현亳州縣)으로 퇴각하였다.

정서대장군(征西大將軍) 환온이 은호를 폐출해야 한다는 표문(表文)을 올리자, 무군대장군(撫軍大將軍) 사마욱(司馬昱)은 부득이 상주(上奏)하여, 영화(永和) 10년(354) 2월에 은호를 면직시키고 사적(士籍)에서 제명하여 서민으로 강등시켰다. 은호는 동양군(東陽郡) 신안현(信安縣, 지금의 절강성浙江省 구원(衢縣)으로 좌천되었다. 이로써 국내외의 대권은 환온에게 돌아갔다. 영화 12년(356)에 은호는 사망했다. 『진서(晉書)·은호전(殷浩傳)』 권77에 그의 약력이 보임.

- 2) 심원의불출(深源若不出), 당여창생하!(當如蒼生何!) : 심원(深源 : 은호殷浩)은 분명 출사(出仕)하지 않을듯하니, 그리되면 “백성들은 어찌한단 말이오?”

****서애주석 :**

서애는 위의 두 구를 “이 말은 당시 사람들이 한 말이다(此時人語)”라고 주석하였다.

이 말의 근거는 『통감절요(通鑑節要) 권28·진기(晉紀)』에 보이는 것으로 당시 동진(東晉) 사람들의 은호에 대한 기대감을 읽게 해주는 대목이다. “당시 사람들은 은호를 관중(管仲)과 제갈공명에게 견주었다(時人擬之管, 葛). 강하의 재상인 사상(謝尚 : 308~357)과 장산의 현령인 왕몽(王濛 : 약 309~약 347)은 항상 그의 출처를 살펴, 강좌(江東)의 흥망을 짐찼다(江夏相謝尚, 長山令王濛 常伺其出處, 以卜江左興亡). 일찍이 한번은 함께 은호를 방문하였는데, 은호에게 (은거에 대한) 확고한 뜻이 있음을 알고서, 돌아온 뒤에 서로 말하기를(嘗相與省之, 知浩有確然之志, 既返, 相謂曰) : ‘심원(深源)이 출사(出仕)하지 않으니, 이 백성들을 어찌한단 말인가?(深源不起, 當如蒼生何)’라고 하였다.”

- ① 심원(深源) : 동진(東晉)의 무장 은호의 자(字). 상세한 것은 주석1)을 참조 바람.

- ② 악불출(若不出) :

☆악(若) : 마치 ~와 같다. 만약 ~한다면.

☆불출(不出) : 출사(出仕)하지 않다. ‘출(出)’은 ‘벼슬하다. 벼슬하여 관청에 출근하다’는 뜻으로, ‘진사(進仕)’와 같은 말이다.

- ③ 당여창생하(當如蒼生何 : 그리되면 백성들은 어찌한단 말이오!) : 서애(西厓)는 주석에서, 이 말은 “당시 사람들이 한 말(此時人語)”이라 했는데, 이 말은 『세설신어(世說新語)·식감(識鑑) 18』에서도 “왕중조(王仲祖 : 왕몽(王濛 : 약 309~약 347)의 자가 중조仲祖임)와 사인조(謝仁祖 : 사상(謝尚 : 308~357)의 자가 인조仁祖임) 그리고 유진장(劉眞長 : 유담(劉惔 : ?~?)의 자가 진장眞長임)이 함께 단양(丹陽 : 지금의 안휘성安徽省 남경시南京市임)의 묘소로 가서 은양주(殷揚州 : 은호(殷浩 : 303~356)가 양주 자사를 지냈기에 양주를 호號처럼 부른 것임)를 만나 봤는데, 은양

주는 은거하려는 확고한 의향을 지니고 있었다(王仲祖·謝仁祖·劉眞長, 俱至丹陽墓所省殷揚州, 殊有確然之志). 그들은 돌아와서, 왕중조와 사인조가 상의하면서 말하기를: ‘연원이 출사하지 않으려 하니, 그리되면 백성들은 어찌한단 말 이요?’라고 하면서 깊이 근심하고 탄식하자, 유진장이 말하기를: ‘그대들은 연원이 출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근심하시오?’(既反, 王·謝相謂曰: ‘淵源不起, 當如蒼生何?’ 深爲憂嘆, 劉曰: ‘卿諸人眞憂淵源不起邪?’)라고 하였다.”라는 기록도 보인다.

위 인용문의 내용을 놓고 보면, 유담(劉惔)의 견해가 투철해 보인다. 그는 은호(殷浩)가 끝내 출사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시기를 기다리며 가장 적절한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간파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실, 은호는 유능한 인재가 아니었으며, “그리되면 백성들은 어찌하란 말이오(當如蒼生何).”란 표현은 과장된 것으로 당시 진(晉)나라 고관들이 무지(無知)하고 허명(虛名)에 미혹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은호가 실제로 출사했을 때, 사람들은 놀라게 할 수 있는 그 자신의 명성에 걸 맞는 능력과 실적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처참한 실패만 거듭했다. 은호는 나라에 큰 폐를 끼쳤으며 자신도 해쳤다. 은호의 최선의 선택은 출사하지 않는 것이었다.

3) 사해전분파(四海轉奔波: 각지의 오랑캐들은 오히려 도망칠 것이라고 했다네):

- ① 사해(四海): ‘천하(天下)’와 같은 말로서, ‘전국 각처’의 뜻이다.
- ② 전(轉): 부사로, ‘오히려, 도리어’의 뜻이다.
- ③ 분파(奔波): 세차게 몰아치는 파도 혹은 빠른 물결. (피난하기 위해) 달아나다, 도망가다. 분망하게 (빨리) 달리다. 급히 뛰어가다.

4) 불여동산재(不如東山子: 출정 나간 병사들은 비교가 되지 않나니):

- ① 불여(不如): ~만 못하다. 비교가 되지 않는다. ~하는 편이 낫다. 부합되지 않는다.
- ② 동산자(東山子): ‘동산인(東山人)’과 같은 말로서, 종군(從軍)하여 원정(遠征)나간 사람을 가리킨다.

☆동산(東山):

- a. 『진서(晉書)·사안전(謝安傳)』의 기록에 의하면, 사안(謝安: 320~385)은 나이가 아주 젊어서 관직을 사직하고 회계(會稽)의 동산(東山)에 은거했는데, 누차에 걸친 조정의 관직복귀 요청을 받고 동산(東山)에서 다시 나와, 관직이 사도(司徒) 등 요직에 등용되어 동진(東晉)의 중신(重臣)이 되었다. 임안(臨安)과 금릉(金陵)에도 동산(東山)이 있는데, 이 역시 사안(謝安)의 휴양지였다. 그래서 후세 사람들은 ‘동산(東山)’을 기준으로 삼아 두 가지 뜻으로 동산(東山)이란 말을 사용하였다. 첫째, 은거(隱居)나 휴양지라는 의미로 쓴다. 둘째, 사안(謝安)이란 성명 대신에 사안(謝安)을 일컫는 말로도 사용하고, 명성이 높은 사람이란 의미로도 썼다.
- b. 『시경(詩經)·빈풍(邶風)·동산(東山)』에 “내가 동산에 가서 전투하면서(我徂東山), 오랫동안 돌아오지 못했네(愔愔不歸)”라고 한 구절이 나오는데, 주희(朱熹)가 이 시에 주(註)를 달아 말하기를, “동산(東山)은 정복(征服)하러 간 땅이다”고 하였다. 후세 사람들은 이 글로 인해서, ‘동산(東山)’을 ‘원정(遠征)하거나 원행(遠

行)하는 지역'의 뜻으로 사용하였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5) 정호사(靖胡沙):

- ① 정(靖): 평정(平正): 반란이나 소요를 누르고 평온하게 진정함)하다. (질서를) 안정시키다. 평안하다. 안정하다.
- ② 호사(胡沙): 서방과 북방의 사막이나 풍사(風沙: 바람에 날리는 모래). 중원(中原)에 침입한 호병(胡兵)의 위세를 비유하는 말로 쓰였다.

6) 척안모대붕(尺鷃慕大鵬: 작은 뱀새가 큰 봉새 흉내를 내다니):

- ① 척안(尺鷃): 척안(斥鷃)으로도 쓰고, 척안(斥鷃)으로도 쓴다. ‘뱀새 비슷한 작은 새를 이름. 안(鷃)은 안(鵪)과 동자(同字)로 ‘세 가락 메추라기’라는 뜻이다. 이 새는 몸집이 작아서 멀리 날아갈 수 없는 철새이며, ‘소인(小人)’에 비유한다.
- ② 모(慕): 모방하다, 흉내 내다. 부러워하다. 사모하다.
- ③ 대붕(大鵬): 하루에 구만 리를 날아간다는 매우 큰 상상의 새. 북해(北海)에 살던 몸통 너비와 길이가 몸시 큰 곤(鯨)이라는 물고기가 변해서 되었다고 한다.

7) 불량(不量): 주제넘다, 스스로 분수를 모르다, 싫어하지 않다, 중시하다, 존중하다.

8) 여하(如何): 어떻게, 어찌하여, 어떻게 하면, 어떠한, 어떠한가.

9) 경작서공자(更作書空字: 거듭거듭 허공에다 대고 글자를 쓰고 있었던고!):

- ① 경작(更作): 계속하여 어떤 일을 하다.
- ② 서공자(書空字): 이는 은호(殷浩)가 북벌(北伐)에 실패하고 폐출되어 신안(信安)으로 좌천되어 빈 방에서 허공에다 대고 거듭거듭 쓴 “돌돌괴사(咄咄怪事)”란 네 글자를 말한다.
- ③ 돌돌괴사(咄咄怪事): ‘전연 뜻밖의 일이라 경악스럽다. 대단히 괴이한 일이라 놀랍다. 몹시 뜻밖의 일이다’는 뜻이다.

『세설신어(世說新語)·출면3(黜免三)』편에, “은중군(殷中軍: 殷浩: 은호가 중군 장군中軍將軍을 역임한 적이 있었기에 성씨 다음에 직함을 쓴 것임)이 (서인庶人으로) 폐출 당하고, 신안현(信安縣: 당시 동양군東陽郡에 속해 있던 현으로 지금의 절강성浙江省 구주현衢州縣)에 있을 때, 은종일 허공에다 대고 늘 무슨 글자를 썼다(殷中軍被廢, 在信安, 終日恒書空作字). 양주(揚州)의 관리와 주민들이 그의 옛 은의(恩義)를 잊지 못하여 그를 좇아 왔었는데, 그들이 몰래 훑쳐보았더니, 은중군은 오직 ‘쫄쫄! 괴이한 일이다’라는 의미의 ‘돌돌괴사(咄咄怪事)’라는 네 글자를 쓰고 있을 따름이었다(揚州吏民尋義逐之, 竊視, 唯作 ‘咄咄怪事’四字而已).”라고 하였다.

“은호(殷浩)가 양차(兩次)에 걸친 북벌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환온(桓溫)이 조야(朝野)가 원망하는 틈을 타서 은호의 죄를 열거하여, 조정이 그를 면직하여 서인(庶人)으로 삼게 하면서, 내외의 큰 권력이 모두 환온에게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러자 은호는 유배지에서 항상 허공에 ‘돌돌괴사(咄咄怪事)’라는 글자를 쓰곤 했다. 오랜 뒤에 환온이 장차 은호를 상서령(尚書令)으로 삼으려 하자, 은호가 기뻐하여 장차 답서를 보내려 할 적에 오류가 있을까 우려하여 뜯어보고 봉하기를 십 수 번 하다가 끝내 빈 봉투를 보내니, 환온이 크게 노하여 마침내 은호와 절교하였다.”고 하였다.



시38. 객지에 묵으며 회포를 읊다

詩38. 寓懷吟¹⁾
우 회 읊

我有不速客²⁾,
아 유 불 속 객

내게는 청하지 않아도 오는 손님이
있나니,

清風與明月。
청 풍 여 명 월

맑은 바람과 밝은 달빛이로세.

相隨³⁾入我室,
상 수 입 아 실

(그들은) 서로 동반하여 내 방에
들어왔건만,

兩忘⁴⁾形與跡。
양 망 형 여 적

둘 다 형체도 자취도 남기지 않네.

江樓三五夜⁵⁾,
강 루 삼 오 야

강변 누각의 보름 날 밤,

雨霽天容⁶⁾碧。
우 제 천 용 벽

비 그치더니 하늘색이 푸르러졌네.

主人坐蒲團⁷⁾,
주 인 좌 포 단

주인은 부들방석에 앉아있는데,

癯形⁸⁾如病鶴。
구 형 여 병 학

아위어진 모습이 병든 학과 같으네.

規中有真人⁹⁾,
규 중 유 진 인

단전丹田에 진일眞-[참된 도]의 기氣가
흐르고 있으면,

眼邊無俗物¹⁰⁾.
안 변 무 속 물

주변에 외부사물은 심신을 동요시킬 수
없다네.

何須怨離索¹¹⁾,
하 수 원 이 삭

쓸쓸한 걸 구태여 원망할 필요가
있겠는가?

攜此永今夕¹²⁾.
휴 차 영 금 석

오늘 이 긴 밤 청풍명월과 함께
보내려네.

1) 우회음(寓懷吟 : 객지에 묵으며 회포를 읊다.)

① 우회(寓懷) :

☆우(寓) : 머무르다. 객지에서 묵다.

☆회(懷) : 회포, 기분, 생각.

② 음(吟) : 악부시의 편명의 하나. 이때의 ‘음(吟)’은 아! 하고 탄식하고 슬픔과 격
정으로 깊이 생각하여 읊힌 것을 노래하는 것을 뜻함. 자세한 것은 「시 4」의 주
석1)의 ②를 참조바람.

2) 속객(束客) : 청객(請客). 손님을 초대하다. 속(速)은 ‘부르다, 청하다, 조치하다. (사
람을) 불러 모으다’의 뜻이다.

3) 상수(相隨) : 상수(相隨)로도 쓴다. 상호 의존함을 이룸. 또는 뒤따르다, 동행하다,
수반하다.

4) 망(忘) : 없다. ‘무(無)’와 같은 뜻.

5) 삼오야(三五夜) : ‘삼오석(三五夕)’과 같은 말로, ‘음력 보름날 밤’이란 뜻.

6) 천용(天容) : 천색(天色)과 같은 말로 ‘하늘 빛(색)’과 동일하다.

7) 포단(蒲團) : 부들방석. 부들로 짠 원형방석. 주로 승려들이 좌선할 때나 참배할 때
쓴다.

8) 구형(癯形) : ‘수척해진 육신’을 가리킨다.

① 구(癯) : 수척하다, 야위다, 마르다.

② 형(形) : 모양, 형상, 실체.

9) 규중유진인(規中有眞人 : 단전丹田에 진일眞—[참된 도의] 기氣가 흐르고 있으면) :

① 규중(規中) : 도가(道家)의 용어로, ‘둥근 그릇 속’을 뜻하는데, 이는 단전(丹田)
을 비유한 말이다. (이때의 ‘규規’자는 ‘원형을 그리는 공구工具’ 즉, ‘콤파스’란 뜻임. 단
전이 둥글게 생겼다는 뜻에서 연유된 말임). 단전(丹田)은 상단전(上丹田 : 양미간 즉
두 눈썹 사이의 위 이마의 중간 : 도가道家에서 뇌를 이룸) · 중단전(中丹田 : 가슴에 두
젖꼭지 사이의 중심부) · 하단전(下丹田 : 배꼽아래 한 치[一寸] 다섯 분[五分] 되는 곳,
즉 아랫배)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며, 이곳은 모두 내단(內丹 : 인체의 정精 · 기氣 ·
신神의 수련을 단약으로 삼아 선도仙道를 수련하는 것)을 수련함에 있어서 단약을 만
드는 곳이다. 단도(丹道)의 수련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시15」의 주석29)의 ①,

‘단경(丹經)’ 조항을 참조 바람.

‘단전(丹田)’을 비유적으로 달리 표현한 말로, ‘신실(神室)’과 ‘토부(土釜)’가 있다. ‘신실(神室)’은 ‘내단의 수련과정에서 인체의 정·기·신(精氣神)을 단련하는 방’이란 뜻이다. ‘토부(土釜)’ 뜻배기: 이 말은 인체의 정·기·신을 단련하는 그릇이라는 뜻임’는 ‘기해(氣海)’를 가리키며, 하단전(下丹田)을 비유한 말인데, ‘기해(氣海)’는 ‘우주의 대기(大氣)를 넓은 바다에 비유한 말로서, 하단전에 뭉친 기운이 우주의 대기를 다 함축한다고 해서 일컬어진 말’이다.

- ② 진인(真人): 일반적으로 ‘진인(真人)’을 ‘도교의 오의(奧義: 오묘한 이치)’를 ‘깨달은 사람’ 또는 ‘성선(成仙)한 사람’의 뜻으로 쓰이나, 본 시와 『참동계(參同契)』에서는 진인(真人)의 뜻을 은유하여, ‘진일(眞一)의 기(氣), 즉 ‘참된 도(道)의 기운’이란 뜻으로 쓰였다. 이때의 ‘일(一)’은 ‘도(道)’와 같다. 도가(道家)에서의 ‘진일(眞一)’은 신(神)에 상통하고, 선(仙)을 닦는 중요한 방법이라 생각했으며, 일(一: 도(道))을 지키고 진(眞)을 보존하면 신(神)에 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진일(眞一: 참된 도)의 기(氣):

‘진일(眞一)의 기(氣)’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자(老子)·42장』에 나오는 말을 이해해야 한다. 즉 “만물이 화생(化生: 변화하고 생성함)하는 원인인 도(道)는 하나의 기(氣)를 낳고, 여기서 생성된 기가 분화하여 음양 2기를 낳고, 음양 2기가 교합하여 화기(和氣: 음양 2기가 결합한 그 기氣를 3(삼三)으로 표현하였음)를 낳고, 이 화기가 무단히 교합하여 만물이 변성한다(道生一, 一生二, 二生三, 三生萬物).”고 한 말이다.

도가가 수련하여 신선이 되는 원리는 이 과정을 역행하여 유(有)에서 무(無)로 돌이키는 것이다. 이것은 노자가 말하는 도의 구체적 운용이며, 3[三]에서 1[一]이 되는 역행과정의 논리이다. 즉, 수련을 통하여, 먼저 만물의 근원인 셋(三: 음양 2기가 결합하여 생성된 기)을 탐구하고, 그 다음으로 셋[三]의 근원인 둘[二: 음양 2기]이 조화된 원리를 찾은 다음, 음양이 분리된 근원인 도(道: 즉 일[一: 하나]를 체득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진일(眞一)’이다. 잠허조(潛虛祖: 명대明代 도교 인사: 이름은 서성西星, 호는 장경長庚. 생졸미상)도 말했지만, 이 ‘진일(眞一)의 기(氣)’에서, 이른바 ‘일(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도(道)’이다. 이렇게 진일(眞一)의 단계에 진입한 후, 태초의 상태인 무(無)의 경지에 진입하면 생사가 없는 신선의 경지에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이다.

음양이 분리되기 이전의 상태이기 때문에, 만물이 생성되지 않아 아직 이름이 지어지지 않았으며(즉 무명無名의 상태임) 이것을 천지만물의 시작으로 삼는 것이다. 이러한 기를 체득하게 되면 정기(精氣)와 혼백(魂魄)이 일치하여 장생불사하게 된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서애주석:

“『참동계(參同契)』에서 말하기를, ‘진일(眞一)의 기(氣: 즉 지극히 참된 도의 기운)는 천심(天心)에 머무는 곳(즉 지극히 참된 선천先天의 기)에 잠겨 있다가, 순환주류하면서 단전의 기를 보존한다(參洞契眞人, 潛深淵*浮游, 守*規中*)’고 하였다.

*심연(深淵): 천심(天心)이 있는 곳을 비유한 말.

*수(守): 보존하다.

*규중(規中): 단전(丹田)을 비유한 말.

****역자주석:**

서애가 인용하여 주석한 말은 『참동계(參同契)·이기감화장(二氣感化章)』에, 나오는 말이다. 이 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만물에 있어서 음양의 기(氣)는 자연히 감화(感化)되고 상통하는 것이다. 인간의 심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논리를 서술하였다.

둘째, 연단(鍊丹)의 도는 자신의 마음에 달려 있고, 눈·귀·입은 몸을 수련하는 근본 문제임을 서술하였다. 내념(內念)이 동요하지 않고, 외물(外物)에 자극받지 않도록 근본 문제를 수련하면 진일(眞一)의 기(氣)가 단전 사이를 주류(周流)하면서 약실(藥室: 단전)을 떠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셋째, 이렇게 끊임없이 수련하면 화기(和氣)가 몸 안을 돌아 원기(元氣)가 막힘없이 흘러서 단(丹)이 응결된다는 상태를 형용하였다.

10) 안변무속물(眼邊無俗物: 주변에 외부사물은 심신을 동요시킬 수 없다네):

① 안변(眼邊): 주변, 근처, 곁, 옆

② 속물(俗物): 본 시에서 쓰인 이 말은 마음 쓰이는 갖가지 세상사,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입으로 말해야 할 온갖 종류의 인생사 등, 단좌(端坐)하고 앉아 몸과 마음을 명합(冥合)함에 있어서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총괄한 것을 이른다.

11) 하수원이삭(何須怨離索: 쓸쓸한 길 구태여 원망할 필요가 있겠는가):

① 하수(何須):

☆구태여~할 필요가 있는가? 하필 ~할 필요가 있는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할 필요가 없다.

② 이삭(離索): 이군삭거(離群索居: 무리를 떠나 홀로 쓸쓸하게 살다). 이(離)는 떠나다. 삭(索)은 ‘혼자 쓸쓸히, 홀로’의 뜻이다.

12) 휴차영금식(攜此永今夕: 오늘 이 긴긴 밤 청풍명월과 함께 보내려네):

① 휴(攜): 휴(携)로도 쓴다. 휴대하다, 손에 가지다. 손에 집어 들다.

② 휴차(攜此): 이것(들)을 가지고. 여기서의 차(此)는 지시대명사로 앞에서 언급한 ‘청풍명월(淸風明月)’을 가리킨다.

③ 영금식(永今夕): 긴긴 밤을 보내는(자내는) 것을 이른다.



시39. 구름과 바위를 읊다

詩39. 賦雲石¹⁾
부운석

雲從²⁾何處來,
운 종 하 처 래

구름은 어디에서 흘러 와,

就我西巖宿³⁾.
취 아 서 암 숙

우리 서쪽 암벽巖壁으로 다가와서 쉬고
있는가.

巖爲常住⁴⁾主,
암 위 상 주 주

바위는 변함없이 상주常住하는 주인인데,

雲作屢遷⁵⁾客。
운 작 누 천 객

구름은 언제나 이동하며 변화하는
손님일세.

相逢不解語⁶⁾,
상 봉 부 해 어

서로 만나도 말을 할 줄 모르고,

相別無戀色。
상 별 무 연 색

서로 헤어져도 형색形色에 변화가 없네.

主客兩無心,
주 객 양 무 심

주객이 모두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없으니,

不見將迎跡⁷⁾.
불 견 장 영 적

장차 서로를 맞이할 기색도 보이지
않네.

千秋與萬古⁸⁾,
천 추 어 만 고

천년만년 긴긴 세월 흘러가도,

一雲還一石⁹⁾.
일 운 환 일 석

결국 구름은 구름이고 암석은 암석일
따름일세.

-
- 1) 부운석(賦雲石): 운석(雲石)을 읊다.
① 부(賦): 시가(詩歌)를 음송(吟誦)하거나 창작하다.
2) 종(從): 개사(介詞)로서, ‘~에서. ~로부터’의 뜻이다. 이 개사는 장소, 시간, 범위 따위의 출발점을 나타낸다.
3) 취아서암숙(就我西巖宿: 우리 서쪽 암벽巖壁으로 다가와서 쉬고 있는가):
① 취(就): 동사로, ‘접근하다’ 혹은 ‘가까이 다가가다’의 뜻으로 쓴다.
② 아서암(我西巖: 우리 서쪽 암벽): 이는 경북 안동시 하회(河回) 마을, 건너편 부용대(芙蓉臺) ‘서쪽 언덕’의 암벽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서애연보」 신미년(辛未年: 1571) 조항을 보면, “낙동강 서쪽 언덕에 서당을 지으려다가, 터가 좁아서 실현하지 못했다(欲作書堂于洛水之西厓, 以地狹不果). 이런 까닭으로 서애(西厓: 서쪽 언덕)를 나의 호로 지은 연후에, 그 서쪽 언덕을 상봉대(翔鳳臺)라 명명하였다(名其厓曰翔鳳臺)”고 하였다.
☆아(我): 이는 대명사로 ‘나’라는 뜻이 아니라, 친밀함을 표시하는 말.
☆서암(西巖): 서쪽 암벽.
③ 숙(宿): 머물다.
4) 상주(常住): 불교용어. 진리 그 자체로서, 생멸(生滅)의 변화 없이 늘 그대로 있는 것을 ‘상주(常住)’라고 한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5) 누천(屢遷): 여러 차례 변화하다, 혹은 여러 차례 이사하다. 여기서는 언제나 이동하면 변화하는 것으로 번역하였다.
6) 해어(解語): 말을 할 줄 알다. 혹은 깨닫다, 이해하다, 파악하다.
7) 적(跡): 자취, 흔적. 본 시에서는 전(轉)하여, ‘적상(迹象: 기미, 기색, 징조)’의 뜻으로 쓰였다.
8) 천추어만고(千秋與萬古: 천년만년 긴긴 세월 흘러가도):
① 천추(千秋): 천 년(세월이 장구長久함을 형용하는 말임).
② 만고(萬古): 만대(萬代). 만세(萬世). 경과한 연대가 오래되었음을 형용한 말.
9) 일운환일석(一雲還一石: 결국 구름은 구름이고 암석은 암석일 따름일세):
① 일운(一雲): 결국 구름이다.
☆일(一): 어기를 강조하는 조사로 쓰였다. 본 시에서는 ‘결국’으로 번역하였다.
② 환(還): 중복을 표시하는 부사로서, ‘다시, 또, 또한’의 뜻이다.
③ 일석(一石): ‘일석(一石)’의 ‘일(一)’도 역시 어기를 강조하는 조사로 쓰였다.



시40. 공거^{公舉} 권강^{權扛}의 시에 차운하다

詩40. 次權公舉扛韻¹⁾
차 권 공 거 강 운

誦君白雲曲,
송 군 백 운 곡

굳이 지은 백운곡^{白雲曲}을 읊조리고
있자니,

心與雲俱閒。
심 여 운 구 한

마음이 구름과 더불어 한가로워지네.

雲飛²⁾在天上,
운 비 재 천 상

구름이 하늘을 날아가다 흩어지길래,

雲去或³⁾還山。
운 기 혹 환 산

흘러갔나 했더니 다시 산으로 돌아오네.

寧能注⁴⁾甘雨,
형 능 주 감 우

차라리 단비나 내려줄 수 있다면,

只解怡人顏⁵⁾。
지 해 이 인 안

그나마 백성들 안색이 밝아질 수 있을
텐데.

層霄望霑洒⁶⁾,
층 소 망 점 채

구름 물려와 대지를 적시기 바랐지만,

弱劣倦登攀⁷⁾。
약 열 권 등 반

열은 구름 동실하게 말려서 떠오르네.

南山爽氣多⁸⁾,
남 산 상 기 다

남산은 앞이 탁 트여 경관^{景觀}이 좋고,

獨愛暮禽還⁹⁾.
독 애 모 금 환

해질녘 보금자리로 돌아오는 새가 유독
사랑스럽네.

1) 차권공거강운(次權公擧杠韻 : 공거公擧 권강權杠의 시에 차운하다) :

① 권공거강(權公擧杠) : 공거(公擧) 권강(權杠). 이렇게 성씨 다음에 자(字)를 쓰고, 이름을 그 뒤에 쓴 것은 경칭(敬稱)의 한 예이다.

☆권강(權杠 : 1567~1626) : 조선중기의 학자.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공거(公擧), 호는 방담(方潭)으로 안동 진보리(眞寶里) 출신. 이상정(李象靖)과 류성룡(1542~1607)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기질이 뛰어나고 학문에 능했다. 1589년(선조 22)에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한 뒤 관계(官界)에 뜻을 두지 않고 오직 학문에만 심혈을 기울여 『희역(義易 : 복희伏羲가 팔괘八卦를 만들었다고 해서 지어진 책명으로 주역周易의 별칭임)』과 예설(禮說 : 제례의식에 관한 학설)에 조예가 깊었으며, 『맹자(孟子)』에 주력하여 호연지기(浩然之氣)를 길렀다. 김상헌(金尙憲 : 1570~1652, 조선중기의 문신)과 도의(道義)로 교우를 맺어 국사(國事)를 논했다. 학행으로 세자익위사우세마(世子翊衛司右洗馬)에 천거되었으나 부임하지 않고 방담(方潭)에서, 서숙(書塾 : 글방)을 지어 후학을 지도했다.

뒤에 학행으로 사헌부(司憲府) 소속 지평(持平 : 정5품 관직 명칭)에 추증되고 정려(旌閭 : 충신·효자·열녀 등을 그 집 앞에 세우던 붉은 문인 정문旌門을 세워 표창하는 것)가 내려졌다. 저서로 『방담문집(方潭文集)』 4권이 있다.

② 차운(次~韻) : 화답(和答)하는 시에서 남의 시운(詩韻)에 맞추어 시를 짓는 것을 말한다. 혹은 남이 지은 시의 운자(韻字)를 따서 시를 짓는 것을 말한다. 보운(步韻)이라고도 한다.

2) 비(飛) : 멀리 날다 흩어지다.

3) 혹(或) : 부사로 '다시, 또'의 뜻이다.

4) 영능주(寧能注) :

① 영(寧) : 부사로, 차라리(~하는 것이 낫다), 오히려(~할지언정), 어찌(~이겠는가).

② 능주(能注) :

☆능(能) : 기능을 나타내는 조동사.

☆주(注) : (물을) 유입하다. (물을) 끌어대다. 본 시에서는 전(轉)하여, '비를 내리게 하다'는 뜻으로 쓰였다.(주우注雨는 대우大雨 혹은 폭우의 뜻임.)

5) 지해이인안(只解怡人顏 : 그나마 백성들 안색이 밝아질 수 있을 텐데) :

① 지해(只解) : 지능(只能). 앞의 '지(只)'는 부사인 '단지·다만·오직·겨우' 등의 의미이고, 뒤의 '해(解)'는 기능의 조동사로 쓰이고 있다.

② 이이인(怡人顏) : '사람의 안색을 부드럽게 하다, 혹은 사람의 얼굴을 밝게 한다'라는 의미이다.

6) 층소망점쇄(層霄望靄洒 : 구름 몰려와 대지를 적시기 바랐지만) :

① 층소(層霄) : 운기(雲氣 : 구름이 움직이는 모양)를 가리킨다.

② 점쇄(靄洒) : '쇄(洒)'는 '쇄(灑)'의 간체자이다.

☆물방울이나 눈물이 떨어져서 무엇을 적시는 것을 이룸. 본 시에서는 비가 와서 대지를 적시는 것을 가리킨다.

7) 약열권등반(弱劣倦登攀: 얇은 구름 동실하게 말려서 떠오르네):

- ① 약열(弱劣): 연약무력하다. 본 시에서는 구름송이가 작은 것을 표현하였다.
- ② 권(倦): 권(蜷)과 통하며, (벌레가) 둥글게 웅크리다(말다), 옴프라들다는 뜻인데, 본 시에서는 구름송이가 더욱 작게 동실해진 것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 ③ 등반(登攀): 무엇을 잡고 높은 곳에 기어 올라가다. 본 시에서는 구름송이가 더 높이 떠 올라감을 가리킨다.

8) 남산상기다(南山爽氣多: 남산은 앞이 탁 트여 경관이 좋고):

- ① 남산(南山): 하회마을의 남산으로 보인다. 본 남산은 하회 16경의 하나에 속한다. 황헌만이 사진을 찍고 이상해·정승모가 쓴 『하회마을』에 보면, “가을이 되어 강산이 불타듯 붉은 빛으로 물들고 남산에 첫서리가 내린 경치는 하회 16경에, ‘수봉상풍(秀峰霜風: 첫서리 내린 남산의 단풍)’으로 묘사되었다.”
- ② 상기(爽氣): 환하게 앞이 탁 트인 자연경관, 시원하고 상쾌한 기분.
- ③ 다(多): 칭찬하다, 우수하다(~보다 낫다).

9) 독애모금환(獨愛暮禽還: 해질녘 보금자리로 돌아오는 새가 유독 사랑스럽네):

- ① 독(獨): 유독, 특별히.
- ② 모금(暮禽): 해질녘에 보금자리로 돌아오는 새. 고대의 시문(詩文)에서 옛일을 회고하거나 고향을 그리워하는 정회(情懷)를 토로할 때, 상용하는 말이다.

시41. 새로 지은 소사_{小舍}의 벽에 시 한 수 지어 붙이다

詩41. 新成_{신성}小舍_{소사}題壁_{제벽}¹⁾



行年六十三²⁾,
행년 육십삼

나이 예순 셋이 되어

始得³⁾數間屋。
시득 수간옥

마침내 몇 칸 집을 장만하게 되었네.

經營今半成,
경영금반성

(집짓기를) 경영하며 이제 절반을
완성했으나

四面無牆壁。
사면무장벽

사방에 아직 담조차 쌓지 못했네.

晨興對青山,
신흥대청산

아침 일찍 일어나 청산을 바라보고

夜臥邀明月。
야와요명월

밤이면 누워서 명월을 맞이하네.

人生苟知足,
인생구지족

사람이 살면서 만족할 줄 안다면,

着處皆安樂⁴⁾。
착처개안락

사는 곳이 어디든 편하고 즐겁다네.

永念⁵⁾古人心,
영념고인심

오래도록 옛사람 심경_{心境}을 헤아리며,

- 1) 신성소사제벽(新成小舍題壁): 본 시제(詩題)에 나오는 신축한 ‘소사(小舍)’는 제1구에서, “나이 예순 셋이 되어(行年六十三)”라는 표현을 통해 볼 때, 아마도 서미동(西美洞: 지금의 경북 안동시 풍산읍豐山邑)에 지은 초당(草堂), 곧 농환재(弄丸齋)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서애년보」에 의거하면, 서애는 64세 9월에 서미동으로 이사를 했다는 기록이 보이기 때문이다. 「연보」에는 ‘서미동에 초당을 신축한 것’과 관련한 정보는 보이지 않으나, 오히려 본 시의 시제(詩題)와 본 시의 내용에서 서미동 초당의 신축으로 예상되는 표현이 중심을 이루고 있어, 64세에 하회에서 서미동으로 이사 가기 전의 준비 상황임을 알 수 있다.

① 제벽(題壁): 시문(詩文)을 지어 벽에 붙이는 것을 이룸.

② 벽에 써 붙인 시문을 가리킨다.

- 2) 행년육십삼(行年六十三: 나이 예순 셋이 되어): 여기서 이 시구의 표현은 서애가 서미동의 초당을 신축하기 시작한 나이로 봐야할 것이다. 왜냐하면, 바로 다음 대구(對句)에서 “마침내 몇 칸 집을 장만하게 되었네(始得數間屋)”라는 표현과, 다시 다음의 출구(出句)와 대구에서 계속하여, “(집짓기를) 경영하며 이제 절반을 완성했으나, 사망에는 아직 담조차 쌓지 못했네(經營今半成, 四面無牆壁)”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애연보」에는 다음 해인 64세 9월에 하회에서 서미동으로 이사를 간 기록이 보이고 있다(부록 「서애연보」를 참조 바람).

① 행년(行年):

☆경과한 연세(年歲)로서, 세상을 살아온 햇수(먹은 나이), 곧 당시의 연령을 가리킨다.

『남제서(南齊書)·무제기(武帝紀)』에, “남제무제(南齊武帝)가 조서(詔書)를 내려 말하기를: 평생 살다가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시기는 성현도 면할 수 없지만, 내 나이 예순 살까지 살 수 있다 한들, 그 역시 얼마나 한스럽겠는가! … 이 날 무제가 봉어했다(詔曰: 始終大期, 賢聖不免, 吾行年六十, 亦復何恨! … 是日上崩, 年五十四)”라고 하였다.

- 3) 시득(始得): 마침내(비로소) (초당)을 짓게 되었다. 앞의 ‘시(始)’는 ‘비로소·마침내’라는 부사로 쓰였고, 뒤의 ‘득(得)’은 소유하게 되었다는 동사로 쓰였다.

- 4) 착처개안락(着處皆安樂: 사는 곳이 어디든 편하고 즐겁다네):

① 착처(着處):

☆착(着)은 착(著)의 속자(俗字)로서 ‘착처(著處)’와 같은 뜻으로, ‘도처에, 어디 서나’의 뜻이다.

☆정착한 곳(이때의 착着은 재在의 뜻임).

- 5) 영념(永念):

☆늘(자나깨나) 생각하며 잊지 않다.

☆마음에 새겨두고 잊지 않다.

- 6) 소요일부일(逍遙日復日: 하루하루 유유자적하며 살리라):

- ① 소요(逍遙) : 아무 구속 없이 자유자재함을 형용한 말로서, ‘유유자적함(속세를 떠나 아무 속박 없이 조용하고 편안하게 삶)’을 뜻한다.
- ② 일부일(日復日) : 일부일일(日復一日) : ‘하루가 지나가고 다시 하루가 되다. 나날을 보내다.’는 뜻으로 날씨가 오래되고 시일이 긴 것을 형용하는 말이다.



시42. 밤에 좌정^{坐定}하여

詩42. 夜坐^{야 좌}

難時云易易時難¹⁾,
난 시 운 이 이 시 난

어려운 시기에든 순탄할 때 있었고
순탄한 시기에든 어려울 때 있었나니,

難易相尋歲已闌²⁾.
난 이 상 심 세 이 란

어려움과 순탄함이 잇따르는 사이
벌써 세밀이 되었네.

風雨一窓孤燭夜,
풍 우 일 창 고 촉 야

창 밖에 비바람 몰아치는데
외로운 촛불 밝힌 밤.

數行衰淚自汎瀾³⁾.
수 행 쇠 루 자 환 란

늙은이 눈에 눈물이 주르르
몇 줄기 흐르네

1) 난시운이이시난(難時云易易時難 : 어려운 시기에든 순탄할 때 있었고 순탄한 시기에든 어려울 때 있었나니) :

① 난시(難時) : 어려운 시기.

② 운(云) : 있다. 동사로 ‘유(有)’와 같은 뜻으로 쓰였다.

③ 이시(易時) : 평탄한 시기.

2) 난이상심세이란(難易相尋歲已闌 : 어려움과 순탄함이 잇따르는 사이 벌써 세밀이 되었네) :

① 상심(相尋) : 잇따르다. 상계(相繼)하다.

② 세이란(歲已闌) :

☆세(歲) : 해. 년.

☆이(已) : 이미, 벌써.

☆란(闌) : 막바지에 이르다.

3) 수행쇠루자환란(數行衰淚自汎瀾 : 늙은이 눈에 눈물이 주르르 몇 줄기 흐르네) :

① 쇠루(衰淚) : 노루(老淚) : 늙은이의 눈물.

② 자환란(自汎瀾) :

☆자(自) : 부사로 ‘절로, 자연스레’의 뜻이다.

☆환란(汎瀾) :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모양을 형용한 의태어(擬態語)이다.



시43. 서루西樓에서 두 수 쓰다

詩43. 題西樓¹⁾ 二首
제 서 루 이 수

其一
기 일

[1]

貧賤人所厭,
빈 천 인 소 염

빈천은 사람마다 싫어하는 것이고,

富貴人所求。
부 귀 인 소 구

부귀는 사람마다 추구하는 것일세.

悲歡與得喪²⁾,
비 환 여 득 상

득실 따라 슬퍼했다 기뻐했다 하니,

擾擾不知休³⁾。
요 요 부 지 휴

얼키설키 뒤엎혀 (인생을) 알 수 없을 따름일세.

人生在世間⁴⁾,
인 생 제 세 간

사람이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

大海一浮漚⁵⁾。
대 해 일 부 구

거대한 바다에 떠가는 물거품 같다네.

百年能幾何⁶⁾,
백 년 능 기 하

기껏해야 백년 수명이니 얼마 되겠나만

萬事眞悠悠⁷⁾。
만 사 진 유 유

인생만사는 실로 유유히 이어지네.

居然了塵妄⁸⁾,
기 연 료 진 망

一笑倚西樓。
일 소 의 서 루

세상이 허망하단 걸 명백히 깨닫고는

씩 한 번 웃고 나서 서루西樓에 기대서네.

其二
기 이

[2]

西樓雖一間,
서 루 수 일 간

亦足容吾膝⁹⁾。
역 족 용 오 슬

上有一爐香¹⁰⁾,
상 유 일 노 향

殘書數三帙¹¹⁾。
잔 서 수 삼 절

平吞¹²⁾遠山影,
평 탄 원 산 영

俯挹¹³⁾澄江色。
부 읍 정 강 색

主人信貧窶¹⁴⁾,
주 인 신 빈 구

三旬九遇食¹⁵⁾。
삼 순 구 우 식

獨愛北窓下,
독 애 북 창 하

清風滿枕席。
청 풍 만 침 석

서루西樓는 비록 방 한 칸에 불과하지만,

두 무릎 들여놓기에는 충분하다네.

옆에는 향을 사르는 향로가 하나 있고,

아직 다 읽지 못한 책도 두서너 질 있네.

허리 펴면 먼 산 그림자에 삼키고,

허리 구부리면 맑은 강물 손에 달을
듯하네.

주인은 가난이라는 것을 알기에,

한 달에 아홉 끼니 식사도 간혹 한다네.

북창 아래쪽을 유난히 좋아하나니,

청풍이 침석枕席에 가득차기 때문일세.

- 1) 서루(西樓): 서쪽에 있는 누각. 본 시에서는 원지정사(遠志精舍)의 경내에 지은 연좌루(燕坐樓)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앞의 〈시35〉의 주석 1)의 ② 서재(西齋) 조항을 참조 바람.
- 2) 비환여득상(悲歡與得喪): 득실 따라 슬퍼했다 기뻐했다 하니):
 - ① 비환(悲謹): 비환(悲恨)으로도 쓴다. 애환(哀歡), 즉 ‘비애와 환락’이란 뜻이다.
 - ② 득상(得喪): 득실(得失)과 같은 말. 명리(名利)를 얻고 잃음을 가리킨다.
- 3) 요요부지휴(擾擾不知休): 일카칠키 뒤엎혀 (인생을) 알 수 없을 따름일세):
 - ① 요요(擾擾): 복잡하게 뒤엎힐 모양. 가는 것이 이리저리 뒤섞이어 얽힌 모양.
 - ② 휴(休): 문말(文末) 어기조사로, ‘~일 따름이다’는 뜻이다.
- 4) 세간(世間): 인간 세상.
- 5) 부구(浮漚): 수면에 뜬 물거품. 그 물거품은 쉽사리 생기고 쉽사리 소멸되는 까닭에 변화무쌍한 세상사와 덧없는 인생사를 비유하는데 쓰기도 한다.
- 6) 백년능기하(百年能幾何): 기껏해야 백년 수명이니 얼마 되겠나만):
 - ① 백년(百年): 백 세의 수명을 가리킨다.
 - ② 기하(幾何): 약간, 다소, 얼마, 몇.
- 7) 만사진유유(萬事眞悠悠): 인생만사는 실로 유유히 이어지네):
 - ① 만사(萬事): 일체의 일, 모든 일. 인생사를 가리킨다.
 - ② 유유(悠悠): 끊임없이 쭉 이어지는 모양을 형용한 말. 유유히.
- 8) 거연로진망(居然了塵妄): 세상이 허망하단 걸 명백히 깨닫고는):
 - ① 거연(居然): 분명하게, 확실히
 - ② 요진망(了塵妄):
 - ☆료(了): 깨닫다, 이해하다.
 - ☆진망(塵妄): 불교용어로서, 속세의 허망함을 이른다. 생사의 경계를 이르는 말로서, 진(塵)은 깨끗하지 못한 것, 망(妄)은 진실하지 못한 것을 말함.
- 9) 용오슬(容吾膝): ‘용슬(容膝)’은 무릎이나 간신히 넣는다는 뜻으로 방이나 장소가 매우 비좁음을 의미한다.
- 10) 상유일노향(上有一爐香: 옆에는 향을 사르는 향로가 하나 있고):
 - ① 상유(上有):
 - ☆상(上): 방위사로, ‘주변, 옆, 곁 등의 뜻’으로 쓰였다.
 - ② 일노향(一爐香):
 - ☆일(一): 수사(數詞).
 - ☆노(爐): 화로. 여기서는 양사(量詞)로 쓰였다.
 - ☆향(香): 향로를 칭함.
- 11) 잔서수삼질(殘書數三帙: 아직 다 읽지 못한 책도 두서너 권 있네):
 - ① 잔서(殘書): 아직 다 읽지 못한 책.
- 12) 평탄(平沓):
 - ① 평(平): 허리를 펴다, 곧 몸을 바로 세우다의 의미이다.
 - ② 탄(沓): 본 시에서는 시적화자가 그림자에 덮이는 (혹은 깔리는) 상황을 형용한 말이다.
- 13) 부읍(俯挹):

① 부(俯): 허리를 구부리다.

② 읊(挹): ☆물을 푸다. 물을 뜨다. ☆잡아당기다.

14) 신빈구(信貧婁):

① 신(信): 부사로 ‘진실로, 참으로’의 뜻이다.

② 빈구(貧婁): 빈구(貧婁)로도 쓴다. 궁핍, 가난하다는 뜻이다.

15) 삼순구우식(三旬九遇食: 한 달에 아홉 끼니 식사도 간혹 한다네): 세 열흘, 곧 한 달에 9번 식사한다는 것이니, 3일에 한 끼 먹는다는 뜻으로, 몹시 가난함을 이르는. 도잠(陶潛)의 「의고시(擬古詩)」(제5수)에, “동방에 한 선비가 있으니, 입은 옷이 항상 남루하였다. 한 달에 아홉 끼니가 고작이요, 십 년이 지나도 늘 그 한 개의 낡은 것만 쓰네(東方有一士, 被服常不。三旬九遇食, 十年著一冠).”라는 내용에 보인다.

① 삼순(三旬): 뒤의 ‘순(旬)’자는 ‘열흘 순’자이다. 고로 삼십일을 뜻하는 것이다. 이전에는 10일을 일순(一旬)으로 단위화하여, 한 달을 삼순(三旬), 즉 상순(上旬), 중순(中旬), 하순(下旬)으로 일컬었다.

② 구우식(九遇食): (한 달에) 9번씩 (이렇게) 이따금씩 식사를 했다는 뜻.

☆우(遇): 가끔, 이따금, 간혹 등의 의미로 쓰였다.



시44. 『양명집』을 읽고 느낀 바 있어 쓴 시 두 수 서문을 병기함

詩44. 讀陽明集¹⁾有感 二首
독 양 명 집 유 감 이 수

양명학과 주자학은 논지가 배치背馳되는데, 대체적인 요지는 단지 ‘치지격물致知格物’ 네 글자에서, 별도의 의견을 수립한 것에 있다. 주자는 말하기를, “사람 마음의 영명함에는 식별력[知]을 지니지 않음이 없고, 천하의 만물에는 이치[理]를 지니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사물에 나아가 그 이치를 철저하게 탐구하게 함으로써, 그 식별력을 이루도록 하였다. 왕양명은 (만사만물에 대한) 이치는 내 마음[心]에 있으므로, 외부에서 찾을 수 없다고 여겼으니, 그가 논한 학설은, 한결같이 (사려思慮를 거치지 않고 직관하는) 양지良知를 위주로 하였다.

陽明與朱子學²⁾背馳, 大要只在於致知格物³⁾四字上, 別立意見. 朱子謂, “人心之靈, 莫不有知, 天下之物莫不有理”, 使人即物窮理⁴⁾, 以致其知. 陽明則以爲理在吾心, 不可外索, 其論學, 一以良知爲主.

옛날에 맹자는 이치[理 : 公理]와 의리[義 : 正義]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논할 때에는 반드시 귀와 눈을 가지고 비유했다. 대체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그 뜻을 명확하게 한 것이다. 무릇 눈이란, 본시 천하의 색채를 보는데 충분하지만, 천하에 색채라는 것이 없다면, 눈이 어떻게 볼 수 있겠는가? 귀는 본시 천하의 소리를 듣는데 충분하지만, 소리라는 것이 없다면, 귀가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는가? 입은 본시 천하의 음식맛을 변별하는데 충분하지만, 천하에 맛이란 것이 없다면, 입이 어떻게 분별해낼 수 있겠는가? 이것은 진실로 내심[五感]과 외물外物을 합친 방법이므로, 오로지 내부에 있는 것[內心]은 옳고, 외부에 있는 것[만사만물]은 그르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昔孟子論理義之悅心⁵⁾, 必以耳目爲喻. 蓋就人之所易知者以明之也. 夫目, 固足以見天下之色, 然天下無色, 則目何有見? 耳固足以聽天下之聲, 然天下無聲, 則耳何所聽? 口固足以辨天下之味, 然天下無味, 則口何所辨? 斯固合內外之道, 不可專以在內者爲是, 而在外者爲非也.

그러나 양명학설을 공부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말을 듣게 한다면, 반드시 다음과 같이 말할 것이다 : “사람들은 오직 밝음을 눈에서 구해야 할 것이니, 눈이 밝으면 천하의 모든 색깔을 보는데 어렵지 않을 것이다. 오직 귀의 밝음은 귀에게만 책임지워야 할 것이니, 귀가 밝으면 온 천하의 소리를 듣는데 어렵지 않을 것이다. 오직 입맛을 줄어들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니, 입맛을 잃지 않으면 곧 천하의 음식 맛은, 저절로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그 눈과 귀와 입을 내버려 두고, 고생하면서 눈 밝음은 색채에서 구하고, 귀 밝음은 소리에서 구하며, 입맛의 분별은 맛에서 구한다면, 색채와 소리와 맛에 있어서, 색채 그 자체가 스스로 밝아질 수 있는 것이고, 소리 그 자체가 스스로 들릴 수 있는 것이며, 맛 그 자체가 스스로 맛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인가.”라고 할 것이다. 이런 말이 한 번 퍼져 나가면, 천하 사람들은 의기소침해져서, (소문만 듣고) 토의에 참여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다.

然使爲陽明說者^⑧聞此，必曰：“人但可求明於目，

目明則天下之色，不難見也。但可責聽於耳，耳聰則天下之聲，

不難聽也。但可使口不爽，口不爽則天下之味，自可辨也。

今捨其目與耳與口，而役⁷⁾焉求明於色，求聽於聲，

求辨於味，則色與聲與味，其能自明，自聰，自辨乎？”

斯言一出，天下靡然^⑨，莫有容喙^⑩者矣。

그러나 눈으로 비록 (사물)을 볼 수 있기는 하지만, 보통 사람의 시력은 (전설상의 인물로 눈이 아주 밝았다는) 이루離婁만 못하고, 귀로 비록 들을 수 있기는 하지만, 보통 사람의 청력은 (진짜나라의 뛰어난 악사였던) 사광師曠만 못하다. 입이 비록 음식 맛을 분별할 수 있기는 하지만, 보통 사람의 음식 맛 분별력은 (춘추시대 제齊나라 요리사였던) 이아易牙만 못하다. 이것은 곧 선각자만이 홀로 터득하고, 익혔던 것이었기에 학문이 귀한 것이 되는 이유이다. 만약 서책을 내던져 놓고, 방안에 앉아서 눈을 조용히 감고, 오직 본심[天性 곧 天理]의 양지良知 사이에서만 일을 하려고 한다면, 비록 일시적으로 응집된 역량을 조금은 발휘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른바 작은 예의범절 3천 가지에 큰 강령이 되는 예의 3백 가지라는 광대한 조목을 실행하고, 정미함까지 다 완성하는 것에는 결국 성인과 같아지지는 못할 것이다.

然目雖有見，而常人之見，不如離婁，¹⁰⁾ 耳雖有聽而常人之聽，
 不如師曠。¹¹⁾ 口雖有辨而常人之辨，不如易牙。¹²⁾ 斯乃先覺之所獨得¹³⁾，
 而學之所以爲貴也。若捐去書冊，瞑目一室，事於本心良知之間，
 則雖一時凝定¹⁴⁾ 之力稍若有得，而所謂三千三百¹⁵⁾ 致廣大，盡精微者，
 終不能如聖人矣。
 충 불 등 여 상 인 의

아! 가정년간(嘉定年間: 1208~1224) 이후, (도학道學: 이학理學을 배척한)
 비정통 학문의 폐단이 입으로 말이나 하고 귀로 듣거나 하는
 사이에 극성했으니, 왕양명 역시 그것을 바로 잡으려다가 너무
 지나쳤던 것이었던가? 그렇지 않다면, 설마 불가佛家の 탈을
 쓰고, 이른바 내용은 그대로 둔 채 겉모습만 바꾸어서, 한
 세상을 농락하려 했던 사람이었던 말인가? 두 편의 시를 각각
 뜻하는 바가 있어 읽어본다.

吁! 嘉定以後¹⁶⁾，末學之弊，¹⁷⁾ 已極於口耳出入之間，
 陽明其亦矯枉而過直者歟?¹⁸⁾ 不然，
 無乃禪家¹⁹⁾ 所謂改頭換面²⁰⁾，以籠駕²¹⁾ 一世者耶? 二篇意，
 各有所在云。
 각 유 소 재 운

其(一)²²⁾ 陽明說) [1] 양명학설을 논박하다

陽明每說心爲理²³⁾， 양명은 논설마다 “마음이 곧
 이치이다”고 하면서,

理在吾心不在書。
리 재 오 심 부 재 서

“이치는 내 마음에 있지 책에 있지
않다”고도 하였네.

人雖有口能知味²⁴⁾，
인 수 유 구 능 지 미

사람이 비록 입이 있어 맛을 알 수
있다고는 하지만,

味辨熊魚始不疎²⁵⁾。
미 변 웡 어 시 불 소

곰발바닥과 생선은 맛을 보고
구분해야 생소하지 않다네.

道有萬殊歸一法²⁶⁾，
도 유 만 수 귀 일 법

(사물의)도는 만 갈래로 다르거늘 하나의
이치로 귀결시키다니,

地分胡越儘吾廬²⁷⁾。
지 분 호 월 진 오 러

영토가 호월胡越로 (남북으로) 나뉘었어도
다 내 집이란 격일세.

如今天下懷襄²⁸⁾甚，
여 금 천 하 회 양 심

지금 천하는 홍수 극심하여
산릉山陵까지 차오르는데,

悵悵何人更鑿疏²⁹⁾。
조 창 하 인 갱 작 소

애답다 누가 다시 메인 개울바닥 파내
물길 틈을꼬!

其二(救俗學且自警)³⁰⁾ [2] 세속적 학문을 바로잡고
내 자신을 경계하다

嘉定年間末學弊³¹⁾，
가 정 년 간 말 학 폐

가정년간嘉定年間に 세속적 학문의 폐단은,

尋枝摘葉³²⁾儘無窮。
심 지 적 엽 진 무 궁

지엽적인 문제에 너무 집착했음일세.

徒聞姬轍周天下³³⁾，
도 문 회 철 주 천 하

오직 주례周禮 만이 천하를 공고히
한다면서,

不顧明堂³⁴⁾盡日空。
불 고 명 당 진 일 공

정전正殿은 돌보지 않고 진종일
비워뒀다네.

燭幽莫忘徑寸鑑,³⁵⁾
촉 유 막 망 경 촌 감

깊은 곳 비추는 것은 한 치의 거울임을
잊지 말아야 하며,

行船須倚半帆風³⁶⁾。
행 선 수 의 반 범 풍

배를 갓 띄우려 할 땐 필히 반돛 바람
받아야지.

看他擾擾昏昏地³⁷⁾，
간 타 요 요 혼 혼 지

저 시끌시끌한 세상 침침한 곳 살피려면,

一念回光便見功³⁸⁾。
일 념 회 광 편 견 공

한결같이 자성自省해야 효험을 보리라.

1) 『양명집(陽明集)』: 하회본(河回本) 『서애전서(西厓全書) 권1·본집(本集) 권18 발(跋)』에, ‘양명집 뒤에 쓰다(書陽明集後)’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기록이 보인다.
: “이 양명의 문집은 내 나이 17세 때에 아버지를 따라 의주(義州)에 갔었는데, 마침 사은사 심통원(沈通源: 1499~?)이 연경에서 귀국하던 중, 대간(臺諫)들이 그의 행위가 제멋대로 거리낌이 없었다하여 탄핵을 하여 파직 당하게 되자, 압록강가에 짐 보따리를 내려놓고 갔는데, 그 행낭 속에 이 문집이 있었다(余年十七趨庭義州, 適謝恩使沈通源, 自燕京回, 臺劾不檢罷, 棄重于鴨綠江邊而去, 行囊中有此集). 당시에는 아직 양명의 글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그것을 보고 기뻐서 곧 작고하신 아버님께 말씀드리고, 글씨 잘 쓰는 아전으로 하여금 그것을 베끼게 한 후, 상자 속에 간직한 지가 어언 35년이나 지났다(時陽明之文未及東來. 余見之而喜, 遂白諸先君, 令州吏善寫者謄出, 既而藏篋笥中, 忽忽三十有五年).

임진년[1592] 7월에, 왜구가 안동에 침입하여, 옛 집과 원지정사(遠志精舍)를 불사르니, 집에 보관해 두었던 서적은 모두 소실되어 버렸는데, 오직 이 몇 권의 서적만이 숲 속에 남아 있어서 온전하였다(壬辰秋七月, 倭寇入安東, 焚先廬及遠志精舍, 家藏文籍蕩然一空, 惟此數卷獨全於林蒲間). 내가 그것을 다시 보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면서 비통한 마음이 들어, 행장에 넣어가지고 제천에 도착하여, 그 개요를 간략하게 기록하고 아들에게 잘 보존토록 하여, 다시는 유실되지 않도록 하라고 일렀다(余得復見之不覺泫然以悲, 挾與俱行到堤川, 略記梗槩俾子弟寶蓄之, 毋更遺失云爾). 계사년(1593) 9월 중구(重九: 9월 9일) 하루 전날 이 발문을 쓰다(癸巳重九前一日跋).”라고 하였다.

이렇게 입수하여 읽고, 본 시에서 언급한 『양명집』은 ‘왕양명(王陽明)의 문집을 이르는 것으로, 『왕문성공전서(王文成公全書)』를 가리킨다.

2) 양명여주자학(陽明與朱子學): 양명학과 주자학. 이 양가(兩家)의 학문은 일괄하여

신유학(新儒學)의 범주에 속하나, 세상에서는 일반적으로 전자는 성리학(性理學), 후자는 심학(心學)이라고 일컫는다. 아래에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양명학(陽明學)

☆양명(陽明) : 왕양명(王陽明) : 왕수인(王守仁 : 1472~1528) :

명나라 중엽의 유학자로 절강성(浙江省) 여요현(餘姚縣), 지금의 절강성 여요시(餘姚市) 요강(姚江) 북안(北岸) 출신이며, 성씨는 왕(王), 이름은 수인(守仁), 자는 백안(伯安), 별호는 양명자(陽明子)이다. 그가 태어난 시기는 명 왕조가 창건된 지 대략 100년이 지난 때로서, 밖으로는 위라트(衛拉特 : 몽골 서쪽에 있던 부족으로 '오이라트' <瓦剌 : Oirat> 부족에 대한 청대의 호칭) · 타타르(韃靼 : Tatar : 말갈족靺鞨族의 또 다른 부족) · 토번(吐蕃 : 지금의 서장西藏지역 : 티베트 Tibet에 거주했던 부족명칭) · 묘족(苗族 : 지금의 귀주성貴州省을 중심으로 광범하게 분포한 부족 명칭)과 같은 변방의 외민족의 침입이 있었고, 안으로는 각지에서 도적들이 봉기했으며, 조정에서는 환관에 의한 부정부패가 횡행하던 때였다. 학문과 사상도 남송이후 지배적 위치를 차지했던 주자학(朱子學)이 훈고(訓詁)와 사장(詞章)에 빠져 공허한 지식에 머물면서, 그 근본인 자기 수양을 돌보지 않았던 시기였다.

양명은 어렸을 때 가정에서 조부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는 5세 때까지 말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11세 때 부친을 따라 북경에 갔던 무렵에 금산사(金山寺)를 지나가면서 달을 읊은 시가 있는데, 그 시는 “산은 가깝고 달은 멀어서 달이 작다 여겨지는 것인데, 편한대로 이 산이 달보다 크다 하네(山近月遠覺月小, 便道此山大於月). 만약 하늘처럼 큰 눈 가진 사람 있다면, 역시 산이 작고 달이 더 크다는 걸 볼 수 있을 터인데(若人有眼大如天, 還見山小月更闊)”라고 읊었다.

시구를 받아든 그의 부친 역시 놀랐다고 한다. 그 후 그는 주로 숙사(塾師 : 글방 스승)에게서 배웠다고 한다. 그는 소년시대부터 자기의 눈으로 사물을 보는 비판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고 한다. 그 일례로, 12세 때, 어느 날 숙사가 독서하는 목적의 첫째가 과거에 급제하는 것이라고 하자, 왕양명은 성인(聖人)이 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15세 때, 거용관(居庸關 : 지금의 북경시 창평현昌平縣 서북 30리에 위치함)과 산해관(山海關 : 지금의 허북성河北省 황도시황島市 동북 30리에 위치함) 사이의 먼 노정을 나그네로서 방문하여 명산대천의 형세를 관람했다. 그는 17세 때 부인 제씨(諸氏)를 남창(南昌)에서 맞이했는데, 결혼하던 당일 집을 나가서 우연히 근처의 산중에서 도사와 양생설(養生說)을 논하다가 귀가하는 것도 잊은 채로 밤을 새우는 등 상규(常規)를 벗어난 행동을 하였다. 다음 날 새벽에 사람들이 그를 찾아서 귀가했다. 귀향해서는 독서에 힘썼다고 한다. 변경문제가 떠들썩한 시기인지라, 26세를 전후로 해서, 그는 병법(兵法) 논하기를 좋아했으며, 활쏘기에 열중하기도 했다. 그는 한때 불교와 노장사상에 빠지기도 했으나, 28세 때 회시(會試)에 응시하여 급제하여 관리가 되었다. 홍치 12년(弘治十二年 : 1500)에 진사(進士)가 되어 형부주사(刑部主事)를 역임했다.

왕양명이 독자적인 사상을 갖기에 이른 것은 용장(龍場 : 지금의 귀주성貴州省 수문현修文縣)에 유배된 것이 그 계기가 된 것이다. 이곳에서의 귀양살이는 당시

부패정치에 대한 왕양명의 정의감을 불러일으킨 사건이었다. 그것은 왕양명이 35세 때에 새로 즉위한 무종(武宗)에 대하여 간관(諫官)인 대선(戴銑: ?~1507)과 어사(御史) 박언휘(薄彦徽: ?~?)가 표(表)를 올려, 당시 8당(八黨) 혹은 8호(八虎)라 일컬어지던 8명의 권력을 맘대로 전횡하던 환관 중의 대표적인 인물 유근(劉瑾: 1451~1510)을 경계하는 것이 좋다는 간언(諫言)을 올렸던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는 황명(皇命)을 거역했다는 죄명으로 두 사람은 하옥된다. 이러한 부당한 처사를 왕양명은 좌시할 수 없어 두 사람의 석방을 요청했다. 그러나 충직한 견해를 담은 상소문을 올렸던 양명을 비롯한 53명이 간당(奸黨)으로 간주되어 더러는 장살(杖殺)되고, 더러는 귀양갔는데, 양명은 장형(杖刑) 40대를 받고 용장(龍場)의 역승(驛丞: 지방의 부府·주州·현縣에서 우송과 상관들의 영접전송을 관장하던 역관譯官)으로 유배되었다.

그 후 약 1년간 망설이다가 용장(龍場)에 도착해서 보니 그곳은 거주환경이 극히 열악한 변방으로 거주민 거의가 만족(蠻族)이었으며, 유배되어 왔거나 도망쳐온 한족(漢族)이 대부분이었다. 역승(驛丞)이란 관직은 이름뿐, 살집도 없고 대화를 나눌 친구도 없었으며, 읽을 책도 없는 귀양살이 그 자체였다. 양명은 고독하고 고달픈 절체절명(絕體絕命)의 변두리에 부초되어 사색을 거듭한 결과 홀연히 깨달은 것은 ‘참으로 의지할 만한 것은 한 몸의 주체인 마음(心)이라는 것이었다.

『왕양명전집(王陽明全集) 권1 전습록(傳習錄)』 상(上) 3조목에 기록된 바와 같이 “마음(心)이 곧 이치(理)이다(心即理也), 이 세상에 마음 밖의 일이 있겠으며, 마음 밖의 이치가 있겠는가(天下又有心外之事, 心外之理乎)?”라고 하면서, 성인(聖人)의 도는 하늘이 부여한 본성(本性)이자 마음의 본체인 양지(良知)를 넓히는데 있지, 그 도의 이치를 옛적의 사물에서 추구하는 것은 잘못이었음을 깨달았다.

『왕양명전집(王陽明全集) 권1 전습록(傳習錄)』 중(中), 135조목에서, “주자가 말한 격물(格物)이라는 것은 ‘물(物)’에 나아가 이치를 궁구한다는 즉물궁리(即物窮理)에 있는데, ‘즉물궁리’란 만사만물을 취하여 그 이치, 이른바 ‘정해진 이치[定理]’를 구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내 마음을 가지고 만사만물 가운데에서 이치를 찾는 것이므로, 마음[心]과 이치[理]를 쪼개서 둘로 만드는 일이다(朱子所謂格物云者, 在即物而窮其理也, 即物窮理, 是就事事物物上, 求其所謂定理者。是以吾心而求理於事事物物之中, 析心與理而爲二矣).”고 하였다. 그러면서 양명은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치지격물(致知格物)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양지를 각각의 사물에 실현하는 것이다. 내 마음의 양지가 이른바 천리(天理)이다. 내 마음의 양지(良知)인 천리(天理)를 각각의 사물에 실현하면, 곧 만사만물은 모두 그 이치[理]를 획득하게 된다. 내 마음의 양지를 실현하는 것이 ‘치지(致知)’이고, 만사만물이 모두 그 이치[理]를 획득하는 것이 ‘격물(格物)’이다. 이것은 마음[心]과 이치[理]가 합하여 하나로 되는 것이다(若鄙人所謂致知格物者, 致吾心之良知於事事物物也。吾心之良知, 即所謂天理也。致吾心良知之天理於事事物物, 則事事物物皆得其理矣。致吾心之良知者, 致知也, 事事物物皆得其理者, 格物也。是合心與理而爲一者也)”고 하였다. 따라서 앎과 실천(知行)도 분리될 수 없는 것이므로, 지행합일(知行合

—)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후일 유근(劉瑾 : 1451~1510)이 주살(誅殺)되고 나서, 영전(榮轉)하여 여릉현(廬陵縣 : 지금의 강서성江西省 태화현泰和縣 서북 3리)의 지현(知縣 : 현의 장관)이 되었다.

정덕 11년(正德十一年 : 1517) 누차 우첨도어사(右僉都御史 : 황제의 이목耳目을 위한 풍기지신風紀之臣으로 정5품 또는 정4품의 관직명임)와 남공순무(南贛巡撫 : 지금의 강서성江西省 남부와 광둥성廣東省 북부, 그리고 호남성湖南省 남부와 복건성福建省 서부 접경지역의 군사업무를 제독提督하는 관리)에 발탁되었다. 그 후, 대모산(大帽山)과 이두산(浚頭山) 및 횡수애(橫水隘) 등 산채(山寨)에서 84곳의 민변(民變)이 일어난 것을 진압하고, 충의현(崇義縣)과 화평현(和平縣) 등 두 현을 설치하였다.

정덕 14년(1520)에 영왕(寧王) 주신호(朱宸濠 : ?~1521)의 난을 평정하였다. 그리하여, 세종(世宗) 때 신건백(新建伯)에 봉해졌다. 가정 6년(嘉靖六年 : 1528)에 총독양광 겸 순무(總督兩廣 巡撫 : ‘광둥성과 광서성의 총독 겸 순무’라는 뜻임)로서, 대등협(大藤峽 : 지금의 광서성 계평현桂平縣 서북에 위치하며, 지형이 험악하고 계곡의 물살이 거센 지역임)의 요민(瑶民 : 소수민족 요족瑤族)이 봉기한 민란을 진압하였다.

그는 여러 해 군사 활동을 하면서 토적이 봉기한 원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다. 그것은 시책의 실패에 있음을 알았다. 따라서 무력의 사용보다는 은혜를 베푸는 시책을 써서 드디어 그것을 진정시키고 학교를 건립하여 교화사업을 시작했다. 이렇게 그는 선후에 걸쳐 용병(用兵)하면서, 모두 신속하게 대응하여 성공리에 업무를 완수했으나, 병이 들어 사직하고 귀환하다가 남안부(南安府 : 지금의 강서성 대여현大餘縣)에 이르렀을 때 57세를 일기(一期)로 별세하였다. 그 때는 명(明)나라 세종 가정 7년(世宗嘉靖七年 : 1528)이었다. 시호는 문성(文成)이다. 임종할 때 그의 유언은 “이 마음이 광명한데, 다시 무엇을 더 말하겠는가(此心光明, 亦復何言)?”라는 여덟 글자였다.

그의 학문은 ‘치양지(致良知 : 양지 : 천부적인 본성[天命之性 : intuitive knowledge : 직관적인 인식을 넓히는 것]를 위주로 한 것이며, 이것을 공부하는 것이 ‘격물치지 : 사물의 원리를 탐구하여 바르지 못한 것을 바로 잡으며 지식을 획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만사만물의 이치[理]는 마땅히 마음[心]에서 구해야지 만사만물에서 추구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왕양명에게 있어서 마음[心]과 이치[理]의 분리는 자아와 세계의 분열을 의미했으며 이는 곧 현실의 혼란을 의미했다. 이치를 마음 밖에 설정하고 다시 그와의 합일을 도모하는 주자의 방법으로는 분열되어 가는 당시 현실을 재통합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자타(自他)로 분열되어 가는 현실을 재통합하기 위해서는 사람마다 자율적으로 지킬 수 있는 만사만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재규율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제자들이 아주 많았으며, 세칭(世稱) 요강학파(姚江學派)라고 한다. 양명동(陽明洞 : 지금의 절강성浙江省 소흥현紹興縣 동남 회계산會稽山 산중에 위치함)에 살았기에 학자들은 그를 양명선생이라 칭했다.

그는 사상과 학식이 통달한 문장을 썼는데, 초기에는 고심하여 사장(詞章)을

졌으나, 후에는 공拙(工拙)에 유의하지 않아도 그의 붓끝에서는 뛰어난 기상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저서에는 『왕문성공전서(王文成公叢書)』가 있다.

☆양명학(陽明學) 사상의 특성

도학(道學)의 근거가 되는 경전(經典)은 사서(四書: 『대학(大學)』·『중용(中庸)』·『논어(論語)』·『맹자(孟子)』)이고, 그 첫째가 『대학』이다. 왕양명(王陽明)의 강학(講學) 요지이자 학설 요지는 사서의 하나인 『대학』의 이론적 근거를 제자들과 문답형식으로 풀이한 『대학문(大學問)』이란 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의 제자 전덕홍(錢德洪: 1495~1574)에 의하면, 이것은 스승문하의 교본이었다. 바로 이 『대학문』에 담긴 양명의 사상요지는 아래와 같다.

첫째, 명명덕(明明德: 밝은 덕성을 밝힘)

대인의 학문이 어찌하여 명덕(明德)을 밝히는데 있느냐는 제자의 질문에, 양명이 답하기를, “대인은 천지만물을 한 몸으로 여기는 사람이어서, 천하를 한 집안처럼 보고, 중국을 한 사람처럼 본다. 사람의 몸뚱이를 사이에 두고 나와 나를 구분하는 자는 소인이다. 대인이 천지만물을 한 몸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의도해서가 아니고, 그 마음의 어짐[仁]이 원래 이와 같아서, 천지만물과 더불어 하나가 되는 것이다. 어찌 대인만이겠는가! 소인의 마음이라고 해도, 또한 그렇지 않음이 없지만, 그것은 자기 스스로를 좁스럽게 만들 따름이다(陽明子曰, 大人者, 以天地萬物爲一體者也, 其視天下爲一家, 中國猶一人焉。若夫間形骸而分爾我者, 小人矣。大人之能以天地萬物爲一體也, 非意之也, 其心之仁本若是, 其與天地萬物而爲一也。豈惟大人, 雖小人之心, 亦莫不然, 彼顧自小之耳)”고 하였다.

“이러한 까닭으로, 어린 아이가 우물에 빠지려는 것을 보면, 누구나 반드시 두려워하고 측은해 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이는 그의 어짐[仁]이 어린 아이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이다. 어린 아이는 그래도 (같은 사람이란 의미에서) 자기와 동류이다. 새가 슬피 울고 짐승이 죽기를 무서워하는 것을 보면, 반드시 참아내지 못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이는 그의 어짐[仁]이 새나 짐승과 더불어 한 몸이 되었기 때문이다. 새나 짐승은 그래도 지각(知覺)이 있는 동물들이다. … 또한 기와나 돌덩이가 깨어지는 것을 봐도, 누구나 반드시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는데, 이는 그의 어짐이 와석(瓦石)과 일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 몸으로 여기는 ‘어짐’은, 비록 소인의 마음일지라도, 또한 반드시 그것을 지니고 있다. 이는 바로 하늘이 명령한 본성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자연히 영명하고 밝아서, 어둡지 않는 것이니, 이러한 까닭으로 그것을 밝은 덕[明德]이라고 말한다(是故, 見孺子之入井, 而必有怵惕惻隱之心焉, 是其仁之與孺子而爲一體也。孺子猶同類者也。見鳥獸之哀鳴殫觫, 而必有不忍之心焉, 是其仁之與鳥獸而爲一體也。鳥獸猶有知覺者也。… 見瓦石之毀壞, 而必有顧惜之心焉, 是其仁之與瓦石而爲一體也。是其一體之仁也, 雖小人之心, 亦必有之。是乃根於天命之性, 而自然靈昭不昧者也。是故謂之明德)”고 하였다.

둘째, 친민(親民: 백성을 친애함)

또 제자의 ‘대인의 학문’이 어찌서 백성을 친하는데 있느냐는 질문에 답하기를, “밝은 덕을 밝힌다’는 것은 천지만물은 하나의 몸이라는 것의 본체를 확립하는 것이고, ‘백성을 친한다’는 것은 천지만물이 일체라는 것의 작용을 달성하는 것

이다. 고로 밝은 덕을 밝히는 것은 반드시 백성을 친하는데 있고, 백성을 친하는 것은 바로 저 밝은 덕을 밝히는 이유이다 … (曰 : ‘明明德者, 立其天地萬物一體之體也, 親民者, 達其天地萬物一體之用也。故明明德必在於親民, 而親民乃所以明其明德也 …’)”라고 했다. 이어서, “군신·부부·친구, 나아가 산천·귀신·금수·초목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그것들을 친애하지 않음이 없어야, 나의 한 몸으로 여기는 어짊[仁]을 달성한다. 그리고 난 연후라야 나의 밝은 덕이 비로소 밝혀지지 않음이 없게 되나니, 진정으로 천지만물과 하나의 몸으로 여길 수 있게 된다(君臣也, 婦也, 友也, 以至於山川鬼神鳥獸草木也, 莫不實有以親之, 以達吾一體之仁。然後吾之明德始無不明, 而眞能以天地萬物爲一體矣)”고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본성을 다 발휘했다(是之爲盡性)”고 하는 것이다.

셋째, 지지선(止至善 : 지극한 선에 머무름)

또 제지는 어떻게 (대인의 학문) 지극한 선[至善]에 머무는데 있느냐는 질문에, 답하기를, “지선이란 것은 ‘명덕’과 ‘친민’의 최고 준칙이다. 하늘이 부여한 ‘상’은 순수하고도 지극히 선하여, 영명(靈明)하고 밝아서 어둡지 않은 것이니, 이것은 지선이 발현한 것이다(曰 : 至善者, 明德, 親民之極則也。天命之性, 粹然至善, 其靈昭不昧者, 此其至善之發現)。 이것은 바로 명덕의 본체이며, 이른바 ‘양자’라는 것이다. 지선이 발현하면, 옳은 것은 옳다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하며, 가법고 무거움과 두텁고 얇음을, 느낌에 따라 부응하면서, 부단하게 변동하면서도, 또한 저절로 천연 그대로의 중(중용 : 미발未發의 본성)에 머물지 않음이 없다. 이것이 곧 백성이 지닌 뉘엿함과[民彝]과 사물이 지닌 법칙[物則]의 지극함으로, 그 사이에 조금이라도 의논하고 헤아리거나 덜고 보태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是乃明德之本體, 而即所謂良知者也。至善之發現, 是而是焉, 非而非焉, 輕重厚薄, 隨感隨應, 變動不居, 而亦莫不自有天然之中。是乃民彝物則之極, 而不容少有議擬增損於其間也)。 … 그러므로 지극한 선에 머물러서 백성을 친애하고 밝은 덕을 밝히는 것, 이것을 ‘대인의 학문’이라고 한다(… 故止於至善以親民, 而明其明德, 是之爲大人之學)。”라고 하였다. (이상은 정인재鄭仁在 역, 풍우란馮友蘭 저, 『중국철학사』 제26장을 참조하였음)

☆양지(良知)와 치양지(致良知)

- a. 양지(良知) : 양지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밝은 덕성으로 마음의 본체이며 인심(仁心)의 지각능력’을 말한다. 양명에 따르면, 이 마음의 본체인 양지(良知)는 순수지선(純粹至善)하지만, 그것이 발현되는 의념에는 선악과 시비가 있다. 마음이 만사만물과의 관계에서 자기 마음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내게 유익하고 내가 잘 살아야겠다는 욕심, 곧 ‘사욕(私欲)’이 개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순수지선한 마음의 본체가 다른 존재물을 느껴서 상응하는 반응을 일으킬 때, 간격이 없는 일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념에 개재되는 시비선악을 판단하고 그것을 스스로 주재할 수 있어야 한다. 양명은 하늘이 부여한 본성(天命之性)이자 내 마음의 본체는 그 자체가 항상 밝게 드러내는 명각작용(明覺作用)을 지니고 있다고 보면서 그 천성의 명각을 양지(良知)로 규정한다. 명각작용으로서의 양지는 항상 자신을 비춤으로써 의념의 시비선악을 판단한다. 환언하면, 양

지는 도덕적 자각력과 실천력을 겸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서, 양지는 일체도덕의 본원이라는 함의(含意)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즉 양지의 실행이 곧 천리(天理)의 실행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

사람들은 누구나 선천적인 양지를 한결같이 지니고 있지만, 이기심(利己心)과 물욕(物欲)이 양지의 실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사욕은 자신을 사적 존재로 간주하고 다른 존재물과 구분하는데서 비롯된다. 사회적 갈등의 요인은 바로 여기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대립이 없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욕을 제거하고 양지를 확충·회복하는 공부가 요구된다. 그것이 바로 치양지(致良知)의 공부이다.

- b. 치양지(致良知): 치양지는 양지를 확충·실행하고, 양지본체를 회복한다는 의미가 있다. 양지본체를 회복하고 실현하는 데 있어서의 치양지에는 내외합일(內外合一: 내심과 외부 만사만물 사이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일체로 인식함)과 지행합일(知行合一: 인식과 실행은 매우 밀접하여 분리할 수 없음)의 특징이 있다.

양명의 치양지법(致良知法)은 누구나 손쉽게 자기 내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양지에 따라 행하기만 하면 마음의 본체를 실현할 수 있게 한 점에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 양지의 실현을 통해서 열리는 궁극적인 이상경계는 천지만물을 일체로 파악하는 만사만물과 대립함이 없는 ‘여물무대(與物無對)’의 정신경계와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갈등이 해소되는 이른바 사상과 행동이 완전히 일치하는 ‘동심동덕(同心同德)’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대동사회(大同社會)’의 실현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바로 양명이 추구하는 성인경계(聖人境界)이자 이상사회이다. 양명은 이 치양지(致良知)를 통해, 자타가 분리되어 갈등하는 현실로부터 대립함이 없는 ‘무대(無對)’의 이상에 이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지행합일(知行合一): 지행합일(知行合一)이란 뜻은 사물의 도리를 ‘인식’하는 것과 그 일을 ‘실행’하는 것은 매우 밀접하여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양명이 말한 하늘이 부여한 본성(天命之性)이자 내 마음의 본체(吾心之本體)인 양지(良知)는 ‘마음속에 내재된 자연에 부합되는 윤리도덕의 표준’으로, 이것은 ‘인식’, 즉 ‘지(知)’이고, 그 ‘양지에 도달하는 것’, 즉 ‘치양지(致良知)’는 ‘실행’ 곧 ‘행(行)’이다. 따라서 필히 실행으로 양지를 발현(실천)해야(즉 치양지致良知 해야) 비로소 양지의 ‘지(知: 인식)’는 완성이 된다. 이것이 양명의 ‘지행합일설(知行合一說)’의 핵심이다.

『왕양명전집(王陽明全集) 권1 전습록(傳習錄) 상(上) 5조목에서, 그의 제자인 서애(徐愛: 1487~1518)가 당시 사람들의 ‘효제(孝悌)’는 지행합일과 무관한 것임을 제기하자, 양명은 이에 답하기를, “그것은 사욕으로 지(知)와 행(行)이 이미 단절되어서 지행(知行)의 본체는 아니다. 인식하고 나서 실행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 인식하고 나서 실행하지 않았다면,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을 따름이다. 성현이 사람들에게 지와 행을 가르친 것은, 바로 그 본체를 회복하려 하는 것이지, 그대들처럼 생각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先生曰: 差異被私欲隔斷, 不是知行的本體了。未有知而不行者。知而不行, 只是未知。聖賢教人知行, 正是要復那本體, 不是着你只恁的便罷)。… 일찍이 내가 말하기를,

인식은 실행의 지침이며, 실행은 인식의 노력이다. 인식은 실행의 시작이고, 실행은 인식의 완성이다. 바르게 이해할 경우, 오직 지(知:인식)만 말하더라도, 이미 행(行:실행)이 내재되어 있고, 행만을 말해도, 이미 지가 내재되어 있다(…某嘗說:‘知是行的主意, 行是知的功夫。知是行之始, 行是知之成。若會得時, 只說一個知, 已自有行在’)”라고 하였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양명의 논리는 우리 마음의 본체, 즉 양지가 사욕에 의해 한 쪽으로 치우쳐지지 않았을 때, 지행[인식과 실행]은 별개의 것이 아닌 하나의 일이다.

요컨대, 왕양명 철학의 중심사상인 ‘마음[心] 이 곧 이치[理]이다(心即理)’라는 것이다. 그래서 ‘지행합일(知行合一: 인식과 행동은 하나의 일이다)’과 ‘치양지(致良知: 천부적인 도덕의식을 실행하는 것)’의 양대(兩大) 주장을 제시한 것이다. ‘심즉리(心即理)’라고 말했던 까닭은 ‘일체 만물의 이치[理]는 마음[心]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고, 그 마음의 작동 자체가 바로 ‘인식[知]’인 것이다. 이러한 내심을 발현하여 참된 이치의 기본지식을 대표하는 것, 즉 맹자(孟子)가 말한 “측은지심(惻隱之心)” · “시비지심(是非之心)” · “수오지심(羞惡之心)” · “공경지심(恭敬之心)” 등이 바로 ‘양지(良知: 천부적인 도덕의식)’인 것이다. ‘양지(良知)’는 ‘행동[行]’으로 표현한 것이며, 이것이 바로 ‘양능(良能: 타고난 능력)’이다. 진정한 행동[行: 실행]과 인식[知]은 한 가지 일이지, 두 가지 일이 아닌 것이다. 그래서, 왕양명은 『전습록(傳習錄)』(상) 5조목에서, “앎은 행위의 주지(主旨)이고, 행위는 앎의 공부이다. 인식[知]은 행위[行: 실행]의 시작이고, 행동[行: 실행]은 인식[知]의 완성이다(知是行的主意, 行是知的功夫。知是行之始, 行是知之成)”고 하였으니, 행동[行: 실행]하지 못한 것은 바로 인식[知]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이것이 이른바 지행합일(知行合一)’이라는 것이다.

고로, 인식에서 반응까지는 한순간인 것이다. 그래서 진정한 양지(良知)는 ‘인식[知]과 행동[行]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知行合一)’. 그렇다면, 왜 우리의 양지(良知)는 훗날 복잡 모호하게 변해서, 인식하는 즉시 행동할 수 없이 ‘지행(知行: 인식과 행동)’으로 하여금 두 가지 일이 되게 했을까? 그것은 우리의 성의(誠意)가 결핍해서 이고 사욕을 부리기 때문에 양지(良知)가 가려진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크게 공들여서 ‘성의를 다하고(盡誠意), 사욕을 제거하고(祛私慾), 우리의 양지를 발굴하고, 우리의 양지를 표현해서, 양지와 양능(良能: 타고난 재능)이 다시 합일이 되도록 하는 것’이 ‘치양지(致良知)’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상은 박성규(朴星奎) 옮김, 풍우란(馮友蘭) 저작의 『중국철학사』 ㉔를 참조하였음)

② 주자학(朱子學)

☆주자(朱子): 주희(朱熹: 1130~1200):

주희의 자는 원희(元晦) · 중희(仲晦), 호는 회암(晦庵) · 회옹(晦翁) · 운곡산인(雲谷山人) · 창주병수(滄洲病叟) · 둔옹(澣翁) 등이 있다. 복건성(福建省) 우계(尤溪)에서 출생했다. 선조는 대대로 안휘성(安徽省)의 휘주무원(徽州婺源)의 호족으로 아버지 주송(朱松)은 관직에 있다가 당시의 재상(宰相) 진희(秦檜)와의 의견충돌로 퇴직하고 우계(寓居)하였다. 주희는 이곳에서

14세 때 아버지가 죽자, 그의 유언에 따라 호적계(胡籍溪)·유백수(劉白水)·유병산(劉屏山)에게 사사하면서 불교와 노자의 학문에도 흥미를 가졌었다. 그러나 주희는 24세 때 연평(延平) 이통(李侗: 1093~1163)을 만나 사숙(私淑)하면서 유학에 복귀하게 된다. 다시 1158년에 주희는 이통을 찾아갔고, 1160년에는 수개월 동안 그와 함께 지내면서 가르침을 받았다. 당시 송대의 성리학자들 가운데 불교와 도교의 철학에 대항하여 새로운 철학 이론을 제창하면서 거의 1,000년 동안 사상의 주도적 위치를 상실하였던 유학의 학문적·사상적인 위상을 회복하려는 운동이 있었는데, 주희는 이통의 영향을 받은 이후 그 방편의 일에 전념할 결심을 하게 된다.

주희의 학문 토론 친구로는 장식(張栻: 1133~1180)·여조겸(呂祖謙: 1137~1181)이 있고, 또 논적(論敵)으로는 육구연(陸九淵: 1139~1192)이 있었는데, 이들과 상호 절차탁마(切磋琢磨)하면서 학문을 비약적으로 발전 심화시켰다. 그는 19세에 진사시에 급제하여 71세에 생애를 마칠 때까지 여러 관직을 거쳤으나, 약 9년 정도만 현직에 근무하였을 뿐, 그 밖의 관직은 학자에 대한 일종의 예우로서 반드시 현지에 부임할 필요가 없는 명목상의 관직이었기 때문에 학문에 전념할 수 있었다.

1179~1181년 사이 강서성(江西省) 남강(南康)의 관리로 근무할 때 주희는 그 기회를 이용, 9세기에 건립되어 10세기에 번성했으나 그 뒤 폐허가 된 백록동서원(白鹿洞書院: 남당南唐의 이괄李渤이 그의 은거지인 여산廬山의 백록동白鹿洞에 창립한 중국 4대 서원 중의 하나임)을 재건했다. 주희에 의해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게 된 이 서원은 그 후 오랫동안 명성을 유지했다. 그런 서원들이 성리학이 발전하는 데 제도적 기반이 되었다. 1188년 주희는 황제의 도덕수양이 국가 안정의 기반이라는 주장을 담은 상소문을 올리기도 하였다.

주희는 철학뿐 아니라, 역사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 사마광(司馬光: 1019~1086)이 편찬한 역사서인 『자치통감(資治通鑑)』이 무원칙하다고 여겨 그것을 다시 재편집하여, 1172년에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을 완성하였다. 이 책은 동아시아 전역에서 널리 읽혔다. 또한 유럽에서 최초로 간행된 중국역사서인 『중국통사』(1777~85)의 토대가 되었다고 한다.

주희는 만년에 조정의 초청을 받아 고위직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다. 그러나 그는 과감하게 직언을 하고, 늘 소신 있는 의견을 펼쳤으며, 부패와 사육이 지배하는 정치판을 비타협적으로 공격하다가 파면되거나 외진 지방의 관직으로 쫓겨났다. 만년에 이르러서 정적(政敵)인 한탁주(韓侂胄: 1152~1207)가 주희의 학설과 행실에 대해 중상모략을 하여 주희의 학문은 위학(僞學)이 되어, 저서의 간행과 유포가 금지되었고 정치활동을 비롯한 모든 공적인 활동이 금지되었다. 그가 죽을 때까지도 정치적인 명에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다가 죽은 뒤에 곧 회복되었다. 1209년과 1230년에 그에게 시호가 내려졌고 1241년에는 그의 위패가 정식으로 공자사당에 모셔졌다.

주희의 성리학은 오랫동안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식인 사회를 지배해왔고, 사서(四書)에 대한 그의 주석서(注釋書)는 과거에 합격하려는 사람들의 필독서가 되었다. 왜냐하면 아예 그 책이 과거 교재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의 사상은 특히 조선의 지식인 사회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예컨대, 송시열(宋時

烈)은 “세상의 모든 이치는 주자가 이미 완벽하게 밝혀 놓았다. 우리에게 남은 일은 다만 그의 이치를 실천하는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주자의 말씀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주장을 하거나 주자와 다른 경전의 주석을 다는 자는 사문난적(斯文亂賊)일 뿐이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하였다. 또 주희의 철학은 일본의 도쿠가와 막부 시대에도 널리 받아들여져 공적인 인정을 받았다.

주요저서로는 『사서집주(四書集注)』·『근사록(近思錄)』·『주역본의(周易本義)』·『시집전(詩集傳)』·『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태극도설해(太極圖說解)』를 비롯한 수많은 저서가 있으며, 후인이 편찬한 『주문공문집(朱文公文集)』과 『주자어류(朱子語類)』 등이 있음.

☆주희 사상의 특성

a. 태극설(太極說)

이것은 주돈이(周敦頤)의 태극도설(太極圖說)을 계승발전시킨 것으로 천리(天理)를 통해, 우주의 생성과 구조를 논한 이론이다.

주희는 『주자어류(朱子語類)』 권 75에서, “태극은 이치, 곧 원리를 바탕으로 한 혼돈상태일 따름인 것으로, 그 안에 음양·강유(剛柔)·기우(奇耦: 홀수와 짝수) 등이 내재되어 있어서, 없는 것이 없다(太極只是一箇渾淪底道理, 裏面包含陰陽剛柔奇耦, 無所不有)”고 하였다. 또한 그는 같은 책 권94에서, “만사만물은 모두 그 마다 표준(極)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도리의 정점이다. … 천지만물의 이치를 총괄하는 것이 바로 태극이다(事物物皆有個極, 是道極至。… 總天地萬物之理, 便是太極)”라고 하였다. 또 무극(無極)에 대해서도 말하기를, “무극이란, 단지 정점(頂點)일 따름이며, 더 이상 나아갈 경지가 없다. 지극히 높고 지극히 오묘하며, 지극히 정교하고 지극히 신비로워서, 더 이상 올라갈 경지가 없다. 주돈이는 사람들이 ‘태극은 형체가 있는 것’이라고 말할 것을 걱정했던 까닭에, ‘무극이면서 태극’이라고 말했다. 무극에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지극한 이치가 있을 따름이다(無極只是極至, 更無去處了。至高至妙, 至精至神, 更沒去處。濂溪恐人道 ‘太極有形’, 故曰無極而太極。是無之中有箇至極之理)”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무극이면서 태극’이란 말은 ‘무극이 곧 태극’이란 말이다. 이 ‘무극’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눈에 보이는 형체가 없다. 그래서 또 말하기를, “무극이면서 태극이니, 태극은 무슨 물건이 있어서, 찬란하게 빛나며 거기 있는 것이라는 말이 아니다. 당초 그곳에는 단 하나의 사물도 없으며, 오직 이치 혹은 원리[理]만 있다는 것이다(無極而太極, 不是說有個物事, 光輝輝地在那裏。只是說這裏當初皆無一物, 只有此理而已).”고 하면서, “단지 온갖 이(理)가 있기 때문에, 온갖 사물이 있는 것이다(惟其理有許多, 故物亦有許多).”고 하였다. 고로 ‘태극은 천지 만물이치의 총화’이기 때문에, 태극 안에는 ‘모든 이치’, 즉 ‘만리(萬理)’가 다 구비되어 있다는 말이다. 여전히 같은 책 권94에서, 말하기를 “사람마다 하나의 태극이 들어있고, 사물마다 하나의 태극이 들어있다(人人有一太極, 物物有一太極)”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태극이 분열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그는 답하기를 “본래 하나의 태극만이 존재하나, 이것이 만물 각

각에 천성적으로 승수(承受: 계승함: 이어 받음) 되었으며, 또 각 만물은 모두가 그 하나의 태극을 온전히 구비하고 있다. 그것은 마치 하늘에 있는 달이 하나뿐인 것과 같을 따름이다. 달빛이 강호에 흠어들면, 가는 곳마다 보이지만 달이 분열되었다고 말할 수 없는 경우와 같다(本只是一太極, 而萬物各有稟受, 又自各全具一太極爾。如月在天, 只一而已。及散在江湖, 則隨處而見, 不可謂月已分也)”고 하였다.

이와 같이 주희가 말하는 ‘태극’ 역시 천지도 하나의 태극이요 만물 하나하나가 모두 태극이며, 이 태극에서 음양으로의 이행(移行)은 태극의 동정(動靜)에 의하는 것이며, 동정은 곧 음양의 두 기운을 내포하고 있어, 만물의 근원적인 생성(生成)이 전개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b. 이기설(理氣說)

이기설은 우주·인간의 성립·구성을 이(理)와 기(氣)의 두 원칙에서 통일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이다. 이 학설은 정이(程頤)로부터 비롯하여 주희(朱熹)에 의해 계승 발전된 이기이원(理氣二元)의 형이상학설(形而上學說)로서 우주는 형이상(形而上)의 것인 이치[理]와 형이하(形而下)의 것인 물질[氣]로 구성되어 있으며, 바로 이러한 ‘이기(理氣)’의 결합에 의해, 만물이 형성된다고 보는 학설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첫째, ‘이’는 존재만 했지 그 어떤 활동도 하지 않으며, ‘기’와의 선후관계에서 ‘이’가 우선한다는 점이다(先理後氣)。즉, “천지간에는 ‘이’와 ‘기’가 있다. ‘이’는 형이상(形而上)의 도(道)로서, 만물을 생성하는 근본이고, ‘기’는 형이하(形而下)의 기(器)로서, 만물을 생성하는 도구[具: 형질, 즉 재료]이다. 그래서 인간과 만물이 생성됨은 반드시 이 이(理)를 품수한 연후에야, 본성을 가진다. 반드시 이 기(氣)를 품수한 연후에야, 형태를 가진다(天地之間, 有理有氣。理也者, 形而上之道也, 生物之本也; 氣也者, 形而下之器也, 生物之具也。是以人, 物之生, 必稟此理, 然後有性; 必稟此氣, 然後有形)”(『문집 권58·답황도부서[文集卷五十八·答黃道夫書]』)라는 점이 그라하다.

둘째, ‘이’와 ‘기’는 분리되지도 않지만 뒤섞이지도 않는다는 점이다(不離不雜)。즉, “이른바 ‘이와 기’는 확실히 두 가지 사물이다. 그러나 사물입장에서 보면, 이 두 가지 사물은 서로 섞여 있는 상태에서 둘 다 나뉘어져 각각의 장소에 별도로 존재할 수 없다. 만약 ‘이’의 입장에서 보면, 사물이 아직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사물의 이치는 이미 존재한다. 그렇지만 그것 역시 이치만 존재할 따름이지, 아직 실제 사물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所謂理與氣, 此決是二物。但在物上看, 則二物渾淪, 不可分開各在一處, 然不害二物之各爲一物也。若在理上看, 則未有物而已有物之理。然亦但有其理而已, 未嘗實有是物也)”(『주문공문집 권46·답유숙문(1) 朱文公文集 卷四十六』 答劉叔文一)

혹은 “이 ‘기[물질]’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사물의 본성은 이미 존재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하며, ‘기’가 존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본성은 오히려 항상 존재한다. 비록 그것이 ‘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기’는 본래의 기이고, ‘상’은 본래의 ‘상’으로, 당연히 서로가 뒤섞이지도 않는다

(須知未有此氣，已有此性，氣有不存，性卻常在。雖其方在氣中，然氣自氣，性自性，亦自不相夾雜).”(같은 책 〈답유숙문 2(答劉叔文二)〉)라는 것이다.

고로, 논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치[理]는 시공을 초월하여 불변하는 것이므로, 시공 속에서 변하는 ‘극히 미세한 물질[氣]’보다 먼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가 없으면 만사만물의 발생 원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리적 관점에서는 서로 떨어질 수 없으면서도[理氣不離], 현상적 관점에서는 서로 섞일 수 없는 관계[理氣不雜]로 규정하고 있다. 고로, ‘이’가 별도의 일물(一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기’가 없으면 ‘이’도 의지할 곳이 없게 된다는 것이고, ‘이’는 사물보다 앞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가 있으면 ‘기’가 있으므로, ‘이’가 근본이 된다는 논리가 되겠다. (이상은 『주자어류 권1·이기 상(朱子語類卷一 理氣上)』 참조)

셋째, 마음은 본성과 감정을 통괄한다(心統性情). 이 학설은 주희의 중화논변(中和論辯)에서 본성[性]과 마음[心]을 “미발(未發: 마음의 본체로 회로에락의 감정이 드러나기 전의 상태)”과 “이발(已發: 마음에 흐름이 있는 상태로 회로에락의 감정으로 드러난 상태)”에 귀속시켰던 이른바 성체심용(性體心用)의 논변에서, 다시 나중에 ‘정(情)’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마음[心]의 구조를 명확하게 파악한 학설이다. 말하자면, 주희는 마음은 주체성을 지닌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마음은 모든 이치를 갖추고 있는 ‘미발의 본성’이 마음의 본체가 되며, 이 본체에 사물이 접촉해 와서 사려(思慮)가 짝튼 ‘이발의 감정’, 곧 마음의 작용이 된다는 것이다. 마음이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본성의 ‘이’가 나의 확고한 바탕이 되어서, 일상의 일[事]에 접할 경우에는 그 일을 그 일의 ‘이’에 맞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주희는 이것을 ‘이발(정: 작용: 조화[和])’이라고 말한다. 이와 같이 ‘이발’의 마음[心]은 이 이치[理: 미발: 본체: 중용(中)]에 따라 움직여야 하며, 이때의 ‘이’는 ‘미발’의 본성에 갖추어져 있는 것이다. 고로 객관적 사물의 이치는 이 마음[心]의 본체인 성(性)에 다 갖추어져 있으므로[性卽理], 마음은 곧 본성과 감성을 통괄하는 주체가 된다고 보는 것이다. 주희는 이른바 중화신설(中和新說)에서 이와 같이 마음의 기능으로 주체성을 강조하고, 마음은 의식과 육체를 포함한 몸의 운동의 주인, 즉 마음은 본성과 감성을 통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넷째, 이(理)에는 “소당연(所當然)”과 “소이연(所以然)”이 있다. 소당연이란, 우주만물이 마땅히 그래야 하고, 또 그럴 수 밖에 없는 존재론적, 윤리적 원리인 것이며, 소이연이란, 이러한 소당연의 법칙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된 근본적인 까닭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理)’에는 바로 이러한 두 가지 성격이 구비되어 있으며, 동시에 그것은 ‘기(氣)’의 내부에 항상 존재하는 것으로 보았다. 기가 형질(形質)을 지니고 운동하는 것에 대하여, 이(理)는 형질도 없고 운동도 하지 않고, 그 실체는 기를 통하여 관념적으로 파악되는 것이라 하였다. 즉, 기가 형질을 가지고자 할 때, 또는 운동을 일으키려 할 때, ‘이’가 거기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의 이러한 작용은 전혀 불가능하며, ‘기’의 존재 자체도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주희는 바로 이러한 두 가지 개념을 유학(儒學) 가운데의 존재와 가치 문제로 표현하였고, 양자(兩者)의 서로 다른 의의를 구분하였으며, 또한 양자를 완전히 통일시키기도 하였다. 이 양자(兩者)의 관계란, 기본적인 의미가 전개되는 과정 중에 실현되는 것이다. 총체론의 요소를 분석하는 것과 생명론의 유추를 종합하는 것은 주희가 ‘소이연’과 ‘소당연’을 통일시키는 중요방법이다. 말하자면, 주희는 ‘천지지심(天地之心)’과 ‘인심(人心)’에 관한 관계는 생명목적성의 관계로 보았다. ‘이’는 ‘소이연’의 ‘생활의 이치(生理)’이고, 그리고 ‘생활의 이치’ 가운데는 잠재적으로 ‘소당연’의 ‘인리(仁理)’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소이연’과 ‘소당연’은 존재와 가치를 어떻게 통일시킬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느냐를 관건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주희는 이것을 윤리에 적용시켰을 때, 이기(理·氣)에 경중(輕重)을 두면서도 기를 악(惡)으로만 단정하지 않고, 기의 청탁(淸濁)에 의한 결과에서 선악을 인정하려 하였다. 인간의 신체나 희·로·애·락(喜怒哀樂)의 정(情)은 ‘기’에서 성립되고, 그것이 도덕적으로 선(善)한 성(性)은 ‘이’가 마음에 내재화(內在化)된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심성론(心性論)

이기(理氣)에 대한 논의가 우주론적 객체에 대한 논의의 영역에 머물러 있다면, 주희가 논하는 심성론은 인간이라는 주체의 영역에 대한 논의이므로, 이것은 객체에서 주체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로 이해할 수 있다.

주희는 “하늘이 명(命)한 것을 성(性)이라고 한다”는 『중용』의 문장을 자신의 이기론(理氣論)에 포함시켜, 하늘의 명령으로 나타나는 천도(天道)의 일환인 ‘원·형·이·정(元亨利貞)’을 모든 사물과 현상의 근원이 되는 이(理)로 보아, ‘존재의 이치[所以然]’로 받아들이고, 또한 이것을 ‘성(性)’의 일환, 즉 ‘인·의·예·지(仁義禮智)’는 인륜 도덕의 근거가 되는 이(理)로 보아, ‘당위의 이치[所當然]’로 수용하였다. 그래서 “천도(天道)로 말하면, 원·형·이·정이 되고, 인도(人道)로 말하면 인·의·예·지가 된다고 하여 존재로써의 ‘이’와 당위로써의 ‘이’가 하나로 관통됨을 보여주고 있다.([『주자어류』 권6·성리3 참조) 그리하여, 존재로써의 소이연(所以然)에 해당하는 명(命)의 이(理)와 당위로써의 소당연(所當然)에 해당하는 성(性)의 이(理)가 서로 별개가 아닌, 동일한 ‘이’로 수용하여 “성즉리(性卽理)”의 이론을 제시해서, ‘성’이 곧 ‘이’이므로 ‘성’이 바로 존재와 당위를 관철하는 보편적이고 절대적이며 자연적이고 필연적인 ‘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심성(心性)’의 측면에서는, ‘심’을 주체적인 측면에 집중하는 ‘심’으로 보아, “마음은 몸을 주재하는 것이고, 뜻은 마음이 드러난 것이며, 감정은 마음이 움직인 것이다(心者, 一身之主宰, 意者, 心之所發, 情者, 心之所動)”(같은 책 권5 성리성2)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이것은 조월적 의미로서의 ‘심’이 아니라 인간의 몸이 주재하는 지각하는 이성으로서의 ‘마음[心]’으로 보았다.

또한 ‘심과 성’의 관계에서는 심 자체를 이(理)로 여겨, ‘심’을 도심(道心)과 인심(人心)으로 구분하여, 이때의 ‘도심’은 사물의 본질적인 ‘이’를 지각하는 심이고, ‘인심’은 사물의 감각적인 속성을 지각하는 심으로 보았다. 그래서 심은 형이상학적인 것과 형이하학적인 것을 모두 지각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

‘심’과 ‘이’는 하나이며, ‘심’은 모든 ‘이’를 포괄하고 모든 ‘이’는 하나의 ‘심’에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하여 인성론의 관점에서는, 종전에 불명확했던 심·성·정(心性情)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장재(張載)의 심통성정설(心統性情說)과 정이(程頤)의 성즉리설(性卽理說)을 수용하여 마음(心)에서 성(性)과 정(情)을 분리해 내었다. 또한 『주자어류(朱子語類)권5·성리2(性理二)』에서, “성·정·심은 맹자와 장재(형거橫渠)가 잘 말했다. 인(仁)은 성(性)이고 측은(惻隱)은 정(情)이니 마음에서 생기는 것일 수밖에 없다. 즉 마음은 성과 정을 통괄하는 주체이다. 본성은 단지 옹당 그와 같아야 하는 것으로서 다만 ‘이’이니 무슨 일이 있는 것은 아니다. 무슨 일이 생겼으면 이미 선하거나 혹은 악이 있을 수밖에 없으나, 아무 일도 없고 오직 ‘이’만 있다면 선하지 않음이 없다(性, 情, 心, 惟孟子橫渠說得好. 仁是性, 惻隱是情, 須從心上發出來. ‘心, 統性情者也.’ 性只是合如此底, 只是理, 非有箇物事. 若是有底物事, 則既有善, 亦必有惡. 惟其無此物, 只是理, 故無不善)”라고 하였다. 이는 곧 ‘상’은 구체적인 사물이 아니므로 선하지 않음이 없으나, ‘정’은 구체적 세계 속의 사물이므로 반드시 마음에서부터 생긴다는 것이다. ‘상’은 ‘기’ 속의 ‘이’이므로 역시 마음 안에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마음은 성과 정을 통괄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성즉리설’에 의거해서 인성(人性)을 개별적 의미의 이치와 본성의 측면에서 논하여, 사람의 본성이 같지 않은 점을 ‘기운(氣)’이 서로 같지 않기 때문으로 보아, 인간의 심성을 본연지성(本然之性)과 기질지성(氣質之性)으로 나누기도 했다. 『주자어류(朱子語類) 권4·성리1(性理一)』에서, “사람이 타고난 비는 어둡고 밝거나, 맑고 탁한 차이가 있다(然就人之所稟而言, 又有昏明清濁之異)”라는 것으로, 이는 다름 아닌, 본연지성은 ‘이(理)’여서, ‘선(善)’하지만, 기질지성(氣質之性)은 타고난 기질에 따라서 청탁(淸濁)과 정편(正偏)이 있어, 반드시 선한 것만은 아니고 때로는 악하게도 된다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이렇게 하여, 결국 주희의 심성론은 신유학의 인성론의 방향을 결정지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의 ‘인간의 성을 하늘에서 찾았다는 것’과 ‘인간이 하늘의 ‘이’를 품부(稟賦) 받았다는 것’을 통해, 긍정적인 인간관을 확립하고, 이를 통해, 도덕적 인간상을 구현하려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는 단지 주희의 공부 이론의 길만을 제공하였을 뿐 구체적 실천과정이라면, 아직 궁리거경(窮理居敬)과 치지격물(致知格物)에서 다시 보아야 한다.

☆수양론(修養論)

수양론은 심성론의 전제, 곧 인간의 마음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펼쳐지는 이른바 ‘수양공부론’이 되겠다. 위의 심성론에서 보았듯이 주희의 ‘심성론’은 모든 이치를 갖추고 있는 ‘미발(未發)의 본성’을 마음의 본체로 보아, 이때의 본성[性]은 동시에 마음의 이치이고, 회·로·애·락의 감정으로 드러난 상태인 ‘정(情)’은 마음의 움직임이므로(『주자어류』 권5), 마음은 성(性)과 정(情)을 양면으로 가지고 있다. 고로, 마음은 본성[性]의 입장에서 보면, 즉 이치를 깨닫는 능력이므로 선하지 않음이 없고, 그 발동한 곳의 구체적 활동이 바로 감정[情]이다. 그리하여, ‘정’이 이치에 맞을 수도 있고, 이치에 맞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선(善)’ 또는 ‘불선(不善)’의 문제가 생긴다. 이리 하여 학문 또는 공부하는 모두 마음이 발동한 것이 모두 이치에 합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바꿔 말해, 마음에서 말히는 공부는 또 정에서 실현이 된다. 이것은 공부론(工夫論) 중에서 심·성·정(心性情)을 논하는 주요 이론의 가닥이다. 이 뜻은 다른 단어로도 표현할 수 있다. 주희는 어떤 때는 인심(人心)과 도심(道心)으로 말했다.

마음을 텅 비우고 영특하게 작용하는 지각은 하나일 뿐이다. 그런데 인심과 도심의 차이가 있다고 여기는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은 형체와 기운의 사사로움에서 생겨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성명(性命)의 올바른 곳에서 근원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것 때문에 지각하는 것도 같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어떤 것은 위태롭고 불안하며, 또 어떤 것은 미묘하며 드러나기 어렵다. 그러나 인간은 이 형체를 가지고 있지 않음이 없다. 그러므로 아무리 현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심(人心)이 없을 수 없으며 역시 이 성(性)을 가지지 않음이 없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도심(道心)이 없을 수 없다. ... 반드시 도심으로 하여금 언제나 한 몸의 주인이 되게 하고 인심(人心)이 매번 그 명령을 듣게 한다면, 위태한 것은 안정되고 미세한 것은 드러날 것이며, 움직이고 고요하며, 말하고 행위함이 저절로 지나침도 모자람의 차이가 없을 것이다. (『주자문집(朱子文集)』 권76, 「중용장구 서(中庸章句序)」 참조)

여기서 인심이 도심의 명령을 받는다는 것은 이치로 정을 부린다는 뜻이다. 그러나 대개 인심 또는 정은 모두 없앨 수 없기 때문에 단지 그들로 하여금 이치에 따르도록 할 뿐이라고 하여, 우리 인간을 이상적인 인품과 처사에 이르도록 하자면, 반드시 격물치지(格物致知)를 즉물궁리(卽物窮理)로 해석하여, 객관적 이치를 탐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이를테면, 궁리(窮理)에 대한 수양공부를 보면, 결국 ‘격물치지(格物致知)’ 속에 포괄되는 것이다. 그는 그의 『대학장구(大學章句)』 「격물보전(格物補傳)」에서, “이른바 치지(致知)가 격물(格物)에 있다는 것은 나의 앎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물(物)에 임하여 그 이치를 캐물어가는 데 있음을 말한다. 대개 인간 마음의 영특함은 인식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음이 없으며, 천하의 만물은 이치를 가지고 있지 않음이 없다. 오직 이치에 대하여 아직 캐묻지 않음이 있으므로 그 인식능력이 모조리 다 발휘되지 않은 것이다. 이 때문에 대학의 처음 가르침은 반드시 학자로 하여금 천하의 만물에 즉하여, 이미 그가 알아낸 이치에 의거하여 그것을 더욱 캐묻게 하여 그 극치(極)에 이르도록 추구하지 않음이 없다. 이렇게 힘을 씀이 오래되어 어느 날 아침에 환하게 트여 꿰뚫어 보게 되면, 여러 물건의 겉으로 드러난 것과 속깊이 숨겨져 있는 것과 큰 테두리와 세밀한 곳에 알[知]이 이르지 않음이 없다. 그리고 내 마음의 작용이 밝게 되지 않음이 없다. 이것이 바로 물[物]이 깊이 연구되었다고 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앎의 지극함이라 하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소위 ‘성인(聖人)’은 이 기품의 치우침을 제거하여 태극의 전체를 드러내지만 우리의 성(性)이 바로 객관적 ‘이(理)’의 총화이므로, 이는 곧 다른 아닌 천지자연의 본성이 천리임으로, ‘격물치지(格物致知)’를 통해, 접근하면 ‘수양의 공

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주희의 궁리(窮理) 공부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것은 구체적인 일상의 일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그 도덕적 의미를 체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주희의 '궁리'는 앎과 실천의 일치를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다. 이치를 끝까지 파고들[窮理]이라는 말은, 그 목표에 대한 추구의 결과 나와 진리가 하나가 됨으로써 진리가 나에게 주체화 됨을 의미하는 표현이기도 하다. 주희는, '미발의 함양'과 '이발의 궁리'에 걸쳐 공통적으로 경(敬)이 온 마음의 주재임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는 본성과 정에 대한 마음의 주재(心統性情)를 확립하려 한다.

요약하면, 수양론의 윤리적 의의는 지나친 욕망을 조절하고 중용(中庸)의 상태에 이르러 인간 기질을 변화시키고 본래의 자기 모습을 회복하는 데 있는 것이다.

③ 치지격물(致知格物)에 대한 주희(朱熹)와 왕수인(王守仁)의 견해

격물치지(格物致知)는 유학의 기본 경서인 『대학(大學)』에서 언급하는 공부단계 중의 하나이다. 『대학』에서는 유학의 이념을 명명덕·친민·지어지선(明明德親民止於至善)이라는 3강령(三綱領)으로 제시하고 있고, 이를 실현하는 단계적인 방법으로써 격물(格物)·치지(致知)·성의(誠意)·정심(正心)·수신(修身)·제가(齊家)·치국(治國)·평천하(平天下)라는 8개 조목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보듯이 격물치지는 『대학』에서 말하는 유학의 근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최초 단계의 공부이며, 따라서 유학의 인식이론과 수양이론의 기초적인 문제와 관련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주는 개념이기도 하다. 그러나 격물치지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예기(禮記)』 속의 한편으로 전해 내려오던 「대학」, 즉 「고본대학(古本大學)」에서는 성의·정심·수신·제가·치국·평천하에 대한 분명한 설명 형식과는 달리 「격물」에 대한 명시적인 설명은 찾아볼 수 없고, 「치지」에 대해서도 그 설명형식을 달리하고 있어, 자의적인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주희는 「고본대학」의 본문에 소실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여 「격물치지」에 대한 그 나름의 해석 128자를 더하여 “격물치지보망장(格物致知補亡章)”을 만들어 삽입하고, 『대학장구』를 만들었다. 그러나 성리학을 대표하는 그의 이러한 해석은 그와는 학문적 입장을 달리하는 자에게는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었다. 특히 그의 격물설을 직접 실천하였다가 실패하고서 다른 방법의 독특한 체험으로 깨달음을 얻었던, 명대(明代) 심학(心學)의 대표자이자 완성자인 양명(陽明)에게서 그의 『대학장구』의 정당성은 부정당하게 되었다. 고로 여기에서 우리는 성의·정심·수신·제가·치국·평천하를 실현 가능케 하는 앎은 어떠한 성격의 앎[知]이며, 또 그러한 앎을 얻고 실천하는 학문의 방법[格物과 致知의 방법]은 어떠한 것인지, 주희와 양명의 주장을 요약해 본다.

☆주희(朱熹)의 격물치지(格物致知)

주희는 『대학장구』의 경(經) 1장에서 “치지재격물(致知在格物)”에 대하여, ‘치(致)는 미루어 극진히 함[推極]이다’라고 하고, ‘지(知)는 식(識)과 같다’고 하여, 치지(致知)를 ‘나의 지식(知識)을 미루어 극진히 하여 그 이는 바가 다하지 않음이 없고자 한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격(格)은 이르다[至]’라고 하고, ‘물(物)은 사(事)와 같다’고 하여, 격물을 ‘사물(事物)의 이치를 속속들이 알아서

그 극점에 이르지 않음이 없고자 한다”라고 하였다.

또 전(傳) 5장인 「격물보전(格物補傳)」에서는 다음과 같이 그의 입장을 서술하고 있다.

“이른바 ‘치지가 격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의 앎[知]을 다하고자 한다면, 물[物]에 나아가서 그 이치[理]를 궁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대개 사람마음의 신령스러움은 앎[知]을 지니지 않을 수 없고, 천하의 사물은 이치[理]를 가지고 있지 않음이 없다. 단지 사물의 이치에 대하여, 아직 다 궁구하지 않음이 있을 뿐이다. 고로 『대학』에서 처음 가르칠 때에, 반드시 배우는 자들로 하여금 천하의 모든 사물에 나아가서, 이미 알고 있는 이치를 바탕으로 하여 더욱 그것을 궁구해서, 그 극점에 이를 구하지 않음이 없게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힘쓰는 것을 오래하여, 어느 날 갑자기 환하게 관통하게 되면, 모든 사물의 겉과 속, 정미함(미세한 속성)과 거침(대강의 속성)에 이르지 않음이 없고, 내 마음의 전체와 큰 작용이 밝혀지지 않음이 없다. 이것을 일러 격물이라 하고, 이것을 일러 앎의 지극한 완성이라고 한다(所謂致知在格物者, 言欲致吾之知, 在即物而窮其理也。蓋人心之靈, 莫不有知, 而天下之物, 莫不有理。惟於理 有未窮, 故其知有不盡也。是以 『大學』始教, 必使學者, 即凡天下之物, 莫不因其已知之理而益窮之, 以求至乎其極。至於用力之久, 而一旦, 豁然貫通焉, 則眾物之表裏精粗無不到, 而吾心之全體大用無不明矣。此謂物格, 此謂知之至也)”

위의 견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희의 격물치지설은 사물의 ‘이(理)’를 궁구함으로써 내 마음과 우주전체를 관통하는 ‘궁극의 일리(一理)’를 밝히고자 한다는 점에서 ‘외물을 향하여 그것의 이치를 파고드는 인식이론(向外窮理的認識理論)’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위의 예문에서 보듯이 주희는 ‘격물’이란, 사물에 다가가서 이치를 궁구한다(即物窮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여기서의 물(物)은 형체를 지닌 ‘물(物)’뿐 아니라 마음[心]이나 본성[性]도 포함된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그의 ‘인식심(認識心)의 대상’이지 결코 마음[心] 그 자체는 아니다. 다시 말하면 식별하고 반성하면서 깨닫는 이른바 식별반성지(識別反省知)에 의하여 대상화된 ‘물’로서의 ‘삼과’ ‘상이지, 심과 성 그 자체는 아니다.(『주자어류(朱子語類)』 권15, 「대학이(大學二)」: “格物者, 如言性, 則當推其如何謂之性, 如言心 則當推其如何謂之心, 只此便是格物”)

그리고 그는 또 『대학장구』 「경(經) 1장」에서 주(註)를 붙이기를, “격은 이르다 이고, 물은 사[일]과 같다(格, 至也。物, 猶事也)”라고 하여, ‘물’을 ‘사’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인륜과 여러 가지 온갖 물건[庶物]을 함께 포괄하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사람의 앎[知]이 다 발휘되지 못하는 것(不盡)은 사물의 ‘이(理)’에 대하여 궁구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여, 내 마음의 전체대용(全體大用)과 만물의 표·리·정·조(表裏精粗)를 관통하는 일리(一理)를 밝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心] 밖의 사물의 이치[理]를 하나하나 궁구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고로 그의 격물치지설은 향외궁리적 인식이론(向外窮理的 認識理論)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주희의 격물치지설은 인식심(認識心)으로 사·물(事物)의 종차(種差: 공

통성과 특수성)을 식별하여 지식을 축적하고 ‘이’를 탐구하는 것이 주가 된다는 점에서 식별지(識別知) 위주의 인식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고로 일반적으로 이러한 주희의 인식방법을 인식심의 관찰과 연구활동, 혹은 주객을 구분하는 식별만성지에 의해 일사일물(一事一物)의 도리를 구명하는 주지주의적 입장, 혹은 경험인지(經驗認知)의 방법을 통해, 객관사물의 ‘소이연(所以然)의 이치’를 추구하는 방법으로 보고 있다.

주희는 『대학장구』의 「경(經) 1장」에서 “지(知)는 식(識)과 같다(知猶識也)”라고 해석하였는데, 이것은 바로 그의 격물치지설 중의 ‘지’는 식별지(識別知) 위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이미 아는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더욱 궁구해서 활연관통(豁然貫通)의 과정을 통하여 ‘만물의 표·리·정·조(表裏精粗)’와 ‘내 마음의 전체대용(全體大用)’을 밝힌다는, ‘격물보전(格物補傳)’의 이러한 과정은 인간의 기억지(記憶知)와 식별지 및 심해지(心解知 : 여기에서 논자는 심해지를 심의 대물적對物的 인식과 구별되는 대자적對自的 인식 즉 “내 마음의 전체와 대용이 밝혀지는 삶”을 표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였음) 가운데 식별지의 주된 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물의 표·리·정·조를 가려내는 식별지의 오랜 활동을 통해서, 마음에 이미 갖추어진 기억지의 불완전성을 보충하고, 그에 바탕하여 궁극적인 활연관통(豁然貫通)의 심해지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식별지의 활동이 없다면, 그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활연관통의 ‘심해지(心解知)’에는 도달할 수 없다. 따라서 주희의 격물치지설에 있어서는 식별지(識別知)가 가장 주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주희의 격물치지설은 인식주체와 대상이 대립되어 설정된 ‘주객대립의 성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위의 ‘격물보전(格物補傳)’은 시작부터 인심(人心)과 사물, 지(知)와 그 대상인 이(理)가 분명하게 상대되어 설정되어 있다. 그리고 활연관통 이후에도 ‘만물의 모든 속성을 관통하는 이(理)’를 얻는 격물과 ‘내 마음의 전체와 대용을 밝히는 치지(致知)’를 나란히 열거하여, 주체와 대상을 상대적으로 설정하고 인식의 대상에 상당한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그의 주객대립의 인식구도는 “궁리로써 치지를 가르치고자 한다면 주객의 나뉘에 있어서 편치 않은 곳이 있게 된다(『주희집(朱熹集)』 권44, 「답강덕공서(答江德功書)」: “欲訓教知以窮理, 則於主賓之分有所未安(割書[注記]: 知者吾心之知, 理者事物之理 以此知彼 自有主賓知辨, 不當以此字訓彼者也)”고 하는 그의 언급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 그는 지(知)는 내 마음의 지이며 인식의 주체임을 그리고 이(理)는 ‘사물의 이’로서 인식의 대상임을 분명하게 표시하여 이 양자가 결코 혼동되어서는 안 됨을 지적하고 있다. 고로 그의 ‘격물치지설’은 주체와 객체의 분립이 기본구도로 설정된 ‘주객대립의 인식이론’임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주희의 격물치지설은 ‘주객의 대립’을 인식의 기본구도로 설정하고서, 무수한 객체에 존재하는 ‘이’를 인식주체가 하나하나 식별해감으로써 그 공통성(公共之理)과 특수성(個別之理)을 파악해 나가는 방법이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인간의 ‘지’의 통일적인 체계의 완성을 지향해 나가고, 그 속에서 인간의 존재이유와 당위법칙을 찾아내어 실천하고자 하는 ‘식별지 위주의 향의

궁리적 인식이론'임을 알 수 있다.

☆왕수인(王守仁)의 격물치지(格物致知)

왕수인은 격(格)을 정(正)으로 물(物)을 사(事)로 해석하였다. 그리하여 격물을 주체의 의식이 지향되어 있는 사태[事]를 바로 잡는 행위 즉 정사(正事)로 해석하였다. 그는 『양명전집(陽明全集)』 권26, 「대학문(大學問)」에서 격물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물(物)은 사(事)이다. 무릇 의(意)가 표현됨에는 반드시 그 내용[事]이 있다. 의(意)가 있는 곳의 사(事)를 일러서 물(物)이라고 하는 것이다. 격(格)이라는 것은 정(正)이고, 바르지 못한 것을 바르게 하여 이를 바름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을 말한다. 바르지 못한 것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악(惡)을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바름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은 선(善)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무릇 이것을 격물이라고 말한다.(物者事也。凡意之所發，必有其事。意之所在之事謂之物。格者正也，正其不正以歸於正之謂也。正其不正，去惡之謂也。歸於正者，爲善之謂也，夫是之謂格)”

위에서 보면, 왕수인은 격물(格物)에 대해서 주희와는 달리 격(格)을 ‘바로잡는 행위’ 즉 도덕적인 실천행위로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주자의 격물이 사물에 다가가 그 이치를 탐구하는 ‘즉물궁리(即物窮理)’의 인식론적 탐구과정인데 반해서, 양명의 격물은 실천적 의식이 지향되어 있는 ‘객체적 대상과 주체의 관계’를 바로 잡는[正事] 도덕적 행위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악이라고 일컬어지는 ‘대상과 주체의 부적절한 관계’를 주체의 실천적인 교정행위를 통해 바로 잡음으로써, ‘대상과 주체의 정당한 관계’인 선(善)을 실행하는 도덕적 실천행위로써 격물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양명의 물(物)은 위에서도 보듯이 사(事)이다. ‘사’란 사물에 대한 객관적 기술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주체와 대상과의 관계맺음이 중심이 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위의 ‘물(物)은 사(事)이다’라는 그의 진술은 양명학의 이론에서 ‘물’은 주체[心]와 어떠한 형태로든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이해됨을 보여주고 있고, 또 주체의 관계맺음을 피할 수 있는 ‘물’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왕수인은 마음밖에 ‘물’은 없다고 말한다.(『왕양명전집(王陽明全集)』 권3, 「전습록 하(傳習錄 下)」, “問曰，天下無心外之物，如此花樹在深山中自開自落 於我心亦何相關，先生曰：… 便知此花不在爾的心外”) 따라서 격물의 실행범위는 인간의 마음속에 생겨나는 의념을 바로 잡는 행위에 서부터 시작하여, 실제로 사물에 작용을 가하는 행위까지 포괄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대상과 주체의 관계를 바로 잡는 행위 즉 정사(正事)는 그 자체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반드시 주체의 능동적인 도덕적 자발성에 의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주체의 ‘도덕적 자발성’의 존재가 바로 양지(良知)이다. 양지는 천리(天理)의 자연스런 밝은 깨달음(自然明覺)이 발현되는 곳일 뿐이며, 또한 ‘참되고 순수하게 남의 불행을 슬피 여기는(眞誠惻怛) 마음일 뿐이다’. ‘남의 불행을 슬피 여기는 참되고 순수한 이 마음’이 바로 양지의 본체이다(『왕양명전집(王陽明全集)』 권2 「전습록 중(傳習錄 中)」, 「답서문위서(答轟文蔚書)」, “良知只是一個天理自然明覺發見感，只是一個眞誠惻怛 便是他本體”).

이와 같이, ‘양지’는 천리(天理)의 밝은 깨달음이 발현되어 만사의 시비를 명확하게 가려내는 ‘도덕적 직관의 주체’이자, 남의 불행을 슬퍼하는 ‘도덕적 정감의 주체’이다. 인간 마음의 이러한 ‘도덕적 주체’의 발용과 확장에 의해서만 정사(正事), 즉 인간 행위의 진정한 교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양명은 치지(致知)의 ‘지’를 양지로 해석하게 된다. 그래서 왕수인은 치지를 치양지(致良知)로 해석하였는데, 여기서의 ‘치(致)’는 ‘앞으로 밀고 나아감[推致]’ 즉 확충(擴充)의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양명의 ‘치지’는 우리의 ‘도덕적 직관과 정감의 주체’인 양지를 만사(萬事)에 이르게 하고 확장해 나간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치지’ 즉 ‘치양지’를 이룬다는 것은 사실은 행위를 바르게 하고 만물을 각각의 제자리에 위치하게 하는 격물을 실행한다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격물’의 실행과정은 ‘치지’의 실현과정과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동일한 과정이다. ‘격물’이 도덕실천의 대상에 중점을 둔 실행적 측면을 나타낸 용어라면, ‘치지’는 도덕실천의 주체와 본질을 나타내는 본질적 용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격물이 ‘치지’가 실현되는 실체상의 행위 형태임을 「전습록」(하) 317조목에서, “그러나 (치지는) 또한 허공에 매달린 치지가 아니다. 치지는 반드시 실제의 일에서 (내 마음의 의념을) 바로잡는 데 있다. 만약 의념이 선을 실천하는 데 있다면, 바로 그 일에서 (악을) 행하지 않는다(然亦不是懸空的致知, 致知須在實事上格。如意在於爲善, 便就這件事上去爲)”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이 『대학』의 “致知在格物”에 대한 양명의 이해라고 하겠다. 이러한 양지의 발용과 확장에 의해서 인간행위의 바름이 이루어지게 되면, 인간이 관계하는 모든 ‘사(事)’와 ‘물(物)’은 본래의 의미를 실현하고 그 타당한 자리를 얻게 되어 공정한 법칙(天理)이 실현되게 된다. 이것을 그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전습록 중(傳習錄 中)」 135 조목에서 말하기를, (반면에) 내가 말하는 ‘치지가 격물에 있다’는 것은 내 마음의 양지를 사물 각각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다. 내 마음의 양지가 바로 천리(天理)이다. 내 마음의 양지 즉 천리를 사물 각각에 이르게 하면, 사물 각각은 모두 그 ‘이’를 얻게 된다. 내 마음의 양지를 이르게 하는 것이 ‘치지’이고, 사물 각각이 모두 그 ‘이’를 얻는 것이 ‘격물’이다. 이것이 마음[心]과 이치[理]가 병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다(「전습록 중(傳習錄 中)」 135條目, “若鄙人所謂致知在格物者, 致吾心之良知於事事物物也。吾心之良知卽所謂天理也。致吾心之良知之天理於事事物物, 則事事物物皆得其理矣。致吾心之良知者, 致知也, 事事物物皆得其理者, 格物也。是合心與理而爲一者也”)라고 하였다.

이상의 내용으로 양명의 격물치지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왕수인의 ‘격물치지설’은 ‘양지’라는 ‘선천적인 도덕적 직관력’에 바탕하여 사욕(私欲)을 제거하고 마음을 정화하며 바른 행위를 실행하는데 중점을 둔 주체중심의 도덕실천의 학문이다. 주희의 격치설(格致說)이 바깥의 공리를 통하여 안의 완성을 지향하는 객체중심의 이론이라면, 왕수인의 격치설은 안의 깨달음과 실천을 통해 밖의 사물의 완성을 이룩해 나가는 주체중심의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왕수인이 “성인(聖人)의 도는 자신의 성정(性情)만으로 충분하다. 종래 ‘이(理)’를 사물에서 구하려고 한 것은 잘못임을 비로소 알게 되

었다(『왕양명전집(王陽明全集)』 권33 「연보(年譜)」, 37세, “始知聖人之道, 吾性自足, 向之求理於事物者誤也”)라고 하였던 ‘용장(龍場)’에서의 깨달음’을 훗날 자신의 격물에 대한 체험적 이해로 서술한 데서 증명된다. : “귀주(貴州)의 용장(龍場)에서 3년을 머무는 동안, 자못 그 의미를 얻고 나서야 천하의 물(物)에는 본래 궁구할[格] 만한 것이 없으며, 격물공부는 다만 몸과 마음에서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성인은 누구나 도달할 수 있으며, 자신도 감당할 수 있다고 확고하게 생각하였다(及在夷中三年, 頗見得此意思. 乃知天下之物, 本無可格者, 其格物之功只在身心上做, 決然以聖人爲人人可到 便自有擔當了).”(『전습록 하(傳習錄 下)』 318조목)

둘째, 양명의 격물지지설은 양지라는 도덕심의 자발적인 ‘자’와 ‘행’의 발현으로 도덕적 행위를 이루려는 ‘지행합일(知行合一)’의 실천적 도덕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주희의 격치설이 인식심(認識心)의 식별지(識別知)의 발휘가 중심이 되는 선지후행(先知後行)의 주지주의적(主知主義的) 인식이론이라면, 왕수인의 격치설은 마음[心]의 선천적 도덕능력인 양지의 직각에 의해 시비가 판단되고 이와 동시에 호선오악(好善惡惡)의 행위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지행합일의 실천적 도덕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왕수인의 격치설에서 양지는 ‘자’와 ‘행’의 본체이며, 이러한 양지는 인간에게 고유한 ‘도덕적 직관력’이자 천지만물을 일체(一體)로 여기는 ‘자타통일(自他統一)’의 도덕적 충동’이라 하겠다. 이렇게 지·정·의(知情意)적 요소를 내포한 양지의 개발을 이루는 왕수인의 격치설은 주희의 주지적 격치설(主知的格致說)에 비해, 전인적 포괄성과 실천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고 하겠다.

셋째, 양명의 격물지지설은 주객대립의 인식관계가 아니라 주체와 객체가 본래 일체라는 본래적 존재관계에 기초한 도덕실천의 이론이다. 왕수인이 말하는 ‘양지’는 ‘물’과 상대 됄이 없는 ‘무대(無對)의 존재’이다(『전습록 하(傳習錄 下)』 261조목: “양지는 조화의 정령이다. 이 정령이 하늘을 낳고 땅을 낳으며 귀신을 이루고 상제를 이루니, 모든 것이 여기서부터 나온다. 참으로 이것은 ‘물’과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良知是造化的精靈. 這些精靈, 生天生地, 成鬼成帝, 皆從此出. 眞是與物無對”). 그는 이러한 양지는 곧 천리(天理)이며, 바로 우리 마음의 인(仁)이라고 말한다.(『전습록 중(傳習錄 中)』 135조목: “吾心之良知, 卽所謂天理也”)

말하자면, 대인(大人)이 천지만물을 일체로 여기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고자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인(仁)이 본래 그러하기 때문이다. 천지만물과 더불어 하나로 화(化)하는 것이 어찌 대인만이 그러하겠는가? 비록 소인의 마음도 역시 그러하지 않음이 없건만, 저들은 스스로 왜소하게 만들 뿐이다. 어린 아이가 우물에 빠지려고 하는 것을 보면 반드시 측은한 마음이 일어난다. 그것은 그 인(仁)이 어린 아이와 하나이기 때문이다. … 기와나 주춧돌이 무너져 있는 것을 보면 반드시 서글픈 마음이 생긴다. 이 또한 그 마음의 인이 기와나 돌과 하나이기 때문이다.(『왕양명전집(王陽明全集)』 권26, 「대학문(大學問)」: “大人之能以天地萬物爲一體也, 非意之也, 其心之仁本若是, 其與天地萬物而爲一也. 豈有大人, 雖小人之心亦莫不然. 彼顧自小之耳, 是故見孺子之入井, 而必有怵惕惻隱之心焉, 是其仁之與孺子而爲一體也 … 見瓦石之毀壞而必

有顧惜之心焉。是其仁之與瓦石而爲一體也”)

이상에서 개괄한 양명의 격물치지설은 선천적인 도덕적 직관과 행위의 주체인 우리 마음의 양지를 근거로 하여 모든 도덕적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객체가 아닌 주체 중심의 학문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양지는 대면하는 사태에 따라 직각적 ‘지’와 자발적 ‘행’이 동시에 발현되는 지·정·의(知情意)가 내포된 ‘지행합일’의 존재이므로 그의 학설은 실천적이면서도 포괄적인 성격을 갖는 ‘도덕실천론’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양지는 전후 내외가 없이 일체 만물을 혼연하게 하나로 포섭하는 존재이므로, 그의 학설은 주객의 분리가 지양된 ‘주객합일의 도덕이론’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은 안영석의 「朱子·陽明·象山의 格物致知說」을 참조함)

4) 즉물궁리(卽物窮理) :

정주이학(程朱理學)의 주요범주 중의 하나로, ‘이(理)’가 물(物)에 우선하는 것을 가리킨다. 사시물물(事事物物 : 만사만물)이 모두 ‘이’의 표현이므로, 구체적인 사물에 의거해서[卽物] 그 ‘이’를 궁구해야 한다[窮理]는 것이다. 말하자면, 사물에 나아가 그 ‘이’를 궁구해야 한다(卽物而窮其理)는 표현은 바로 격물에 대한 풀이에 해당된다. 주희는 한편으로 정이(程頤)를 계승하여 “격물은 단지 궁리일 뿐이다. 격물하면 곧 ‘이’가 밝혀진다”라고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궁리(窮理)’와 ‘격물(格物)’은 그 함의가 다르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했다. 주희에 따르면 사물이 있으면 반드시 그 ‘이’가 있고, 또 ‘이’는 형체가 없고 알기 어려운 반면 사물은 자취가 있고 쉽게 눈에 띄기 때문에 『대학』은 ‘궁리(窮理)’라고 말하지 않고 오직 ‘격물(格物)’이라고 하여, 우리가 하여금 사물에 나아가 이해하도록 했다는 것이다.(『어류』 15) 그러므로 격물이란 다름 아닌 사물에 나아가 그 ‘이’를 궁구하는 것을 말한다.

또 격물(格物)을 즉물궁리(卽物窮理)로 이해하는 주희의 입장은, 격물을 접물(接物)로 풀이하는 견해나 혹은 격심(格心)으로 이해하는 견해를 배격하는 뜻이 드러나 있다. 그에 따르면 격물을 접물로 풀이하면 ‘철저히 궁구(窮究)한다’는 공부의 의미가 표명되지 못한다. 즉 다만 그저 접하기만 하고 그 ‘이’를 궁구하지 않거나 궁구하더라도 철저히 궁구하지 않는다면 ‘물(物)’에 접하더라도 그 ‘이’의 존재론적인 필연에 해당하는 이른바 사물의 보편적 본질과 법칙을 창하는 소이연(所以然)과 또한 우주 만물이 마땅히 그래야 하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론적, 윤리적 원리, 이른바 주로 사회의 윤리원칙과 규범을 지칭하는 소당연(所當然)을 알 수 없게 될 수 있다. 주희는 또 격물(格物) 자체를 ‘심(心)’의 생각을 격(格)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 즉 격물을 향내적(向內的) 추구인 반성(反省)으로 귀결 짓는 견해도 반대했다. 그는 오직 자기 안에서만 추구하는(只求諸己) 당시의 지적(知的) 풍토를 비판하였다. 주희는 순전히 내심(內心) 안에서 궁구하는 태도를 비판하고, 격물의 기본 정신은 우리가 외적 대상에 대한 고찰 연구를 바탕으로 의리(義理)를 파악하려는 것임을 거듭 천명했다.

(이상은 2004,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에서 나온 주희 『대학』(해제)를 참조함)

5) 의리지열심(義理之悅心) :

공리(公理)와 정의(正義)가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다. 이 말은 『맹자·고자장구(孟子告子章句)』(상)에, “그러므로 말하기를, 입은 맛에 대해서, (그 맛과) 똑같은 기호(嗜好)가 있으며, 귀는 소리에 대해서, (그 소리와) 똑 같은 소리의 들림이 있으며,

눈은 색깔에 대해서, (그 색깔과) 똑같은 미감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이니, 마음에 이르러서만, 똑같이 옳다고 할 곳이 없겠는가? 마음에 똑같이 옳다고 여긴다는 것은, 어떤 것이겠는가? 이(理: 공리公理)와 의(義: 정의正義)를 말한다. 성인(聖人)은 아주 일찍이 우리 내심의 똑같은 이(理: 공리公理)와 의(義: 정의正義)를 아셨을 따름이다. 그러므로 이(理: 공리公理)와 의(義: 정의正義)가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흡사 소·양, 그리고 개·돼지 등의 고기가 우리 입맛을 당기게 함과 같다(故曰, 口之於味也, 有同耆焉。耳之方聲也, 有同聽焉。目之於色也, 有同美焉。至於心, 獨無所同然乎? 心之所同然者, 何也? 謂理也義也。聖人先得我心之所同然耳。理義之悅我心, 猶芻豢之悅我口。)"라는 문장 중의 한 구절을 이용한 것이다.

6) 위양명설자(爲陽明說者): 양명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① 위(爲): 연구하다, 학습하다, 공부하다.

② 양명설(陽明說): 양명의 학설을 뜻함.

7) 역역(役役): 수고(고생·노고)가 끊이지 않는 모양.

8) 미연(靡然): 의기소침한 모양, 낙심하는 모양, 위축된 모양.

9) 옹휼(容喙): 토의에 참여하다.

10) 이루(離婁):

① 전설상의 눈이 특별히 밝았던 사람.

☆이루(離婁: 생물년 미상): 청(淸)나라 학자 초순(焦贛: 1763~1820)의 『맹자정의(孟子正義)』에 의하면, "이루는 옛적에 눈이 아주 밝았던 자로서, 황제(黃帝)때 사람이다. 황제가 현주(玄珠: 검은 빛을 띤 구슬)를 잃었는데, 이주(離朱: 이루를 가리킴)로 하여금 찾게 했다. 이주는 곧 이루로서 능히 백보(百步) 밖에서도 추호(秋毫: 가을철에 가늘어진 짐승의 털)의 끝을 분간하는 시력을 가졌다"고 하였다.

『맹자·이루(孟子離婁)』에, "맹자가 말하기를, 이루(離婁)의 시력과 공수반(公輸盤: 노魯나라의 저명한 장인匠人)의 기교를 지났다 할지라도 원규(圓規: 콤파스)와 곡척(曲尺: 90도 각도의 곱자)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방형(方形: 네모반듯한 모양, 사각형)과 원형을 정확하게 그려낼 수 없다(孟子曰, 離婁之明, 公輸子*之巧, 不以規距, 不能成方圓)"고 하였다.

*공수자(公輸子: 생물년 미상): 이름은 반(般: 반반으로도 씀. 노나라 사람이라서 노반魯班이라고도 함).

고대 중국에 기술이 아주 뛰어났다고 전해지는 장인(匠人)으로서, 초혜왕(楚惠王: ?~BC 432)을 위해서, 운제(雲梯: 높은 곳에 걸쳐놓고 성벽을 공격할 때 쓰는 사다리)를 제작해놓고 송(宋)나라를 공격할 때 사용하려 하자, 묵자(墨子: 약 BC 376)가 이를 제지하였다고 한다.

그에 대한 기록은 『예기(禮記)·단궁편(檀弓篇)』과 『전국책(戰國策)』 및 『묵자(墨子)』 등 서적에서 산견(散見)된다.

11) 사광(師曠: 생물년 미상): 춘추시대 진(晉)나라 평공(平公: ?~BC 532)시대의 악사(樂師). 자는 자야(子野). 전하는 바에 의하면, 그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으며, 음률을 잘 분별하여 그 소리를 가지고서 길흉을 판단했다고 한다. 제(齊)나라가 진(晉)을 공격할 때, 새소리를 듣고서 제군(齊軍)이 이미 후퇴했음을 알았다. 평공이 큰 중을 주조하였을 때, 못 악공들은 한결같이 음률이 정확하다고 하였으나, 오직 사광

한 사람만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훗날 그 부정확했던 음률이 위(衛)나라 악공 사연(師淵)에 의해서 실증되었다. 저서로 『금경(禽經)』이 세상에 전해졌으나, 사광의 명의를 사칭한 위작(僞作)이다.

그의 사적(事績)은 『좌전(左傳)』·『국어(國語)』·『장자(莊子)』·『여씨춘추(呂氏春秋)』 등 고전에서 산견(散見)된다. 후세 사람들은 그가 초범적(超凡的)인 청각을 지녔으며, 음률을 잘 분별한 우상(偶像)으로 여겼다. 『맹자(孟子)』·이루장구(離婁章句)·상(上)』에, “사광(師曠)같은 청각을 지녔다 할지라도 육률(六律: 12률 가운데 양성(陽聲)에 속하는 6가지 소리. 즉, 황중(黃鍾)·태주(太簇)·고선(姑洗)·유빈(蕤賓)·이척(夷則)·무역(無射) 이름)을 사용하지 않으면, 오음(五音: 궁(宮)·상(商)·각(角)·치(徵)·우(羽))를 교정할 수 없다(師曠之聽, 不以六律, 不能正五音).”고 하였다.

- 12) **이아(易牙: 생물년 미상):** 인명. 일명 적아(狄牙) 또는 옹무(雍巫: 옹雍지역 사람으로 무巫임)라고도 함. 춘추시대 제환공(齊桓公: ?~BC 643)의 충신(寵臣)으로, 음식을 조리하는데 맛을 잘 내도록 함에 뛰어난 능력이 있었으며, 손님 접대를 아주 잘 했다고 한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자신의 아들을 죽여 그 인육(人肉)으로 제환공에게 바친 적이 있었다고 한다. 관중(管仲)은 환공(桓公)에게 간하여, 아아를 멀리하라고 하였으나, 환공은 듣지 않았는데, 환공이 죽고 나자 아아와 수조(豎刁: 생물년 미상), 그리고 개방(開方: 생물년 미상) 등이 제나라 국정을 어지럽혔다.

- 13) **독득(獨得):** 자기 혼자 터득하다(이해하다, 알다).

- 14) **응정(凝定):** (입장·주장·의지) 등이 확고하다. (신념·결심) 등을 굳히다.

- 15) **삼천삼백(三千三百):** 『중용(中庸)·제27장 1』에, “넘치도록 광대하도다! 큰 예의가 300여 가지, 작은 예절이 3000여 가지나 되다니. 반드시 재덕을 지닌 그런 사람이 출현한 이후에야, 비로소 실행할 수 있도다(優優大哉! 禮儀三百, 威儀三千, 待其人而後行)”라고 하여, 이는 성인(聖人)의 도(道)가 얼마나 높고 큰 것인지를 밝힌 것으로, 여기서 예의는 ‘관혼상제 등의 경례(經禮)’를 가리키고, 위의(威儀)는 ‘의식이나 행사에서 지켜야 할 자질한 여러 가지 예의범절인 곡례(曲禮)’를 칭하는 것이다.

- 16) **가정이후(嘉定以後):** 가정년간(嘉定年間: 1208~1224) 이후.

- ① **가정(嘉定):** 남송(南宋) 영종(寧宗)의 연호를 가리킨다. 본 연호를 사용한 기간 (1208~1224)은 17년간이다.

- ② **가정이후(嘉定以後):** 본 서문에서 ‘가정년간 이후’를 언급한 것은 가정년간 직전에 매듭지어진 사칭(史稱) ‘경원당금(慶元黨禁)*’이라 칭한 역사적 사건 이후의 영향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가정(嘉定)’이라는 연호를 쓰기 8년 전인 경원 6년(慶元六年: 1200)에 주희가 병졸(病卒)했다. 주희 생존시에 이학(理學)이 진화하여, ‘도학(道學)’이라 일컬어지며, 학문발전의 극치를 이루었으나, 주희가 귀천(歸天)하고 ‘경원당금’ 이후 송학(宋學)은 급격히 쇠퇴의 길을 걸었다. 그리하여 가정(嘉定) 이후에는 완전히 학자들이 자기 수양은 하지 않고, 고담(高談)이나 하면서, 선비 옷차림을 하고 활보했지만, 도리(道理)를 논하면 이는 것이 없이 배긴 선대의 어록을 되뇌일 따름이었다. 서예(西厓)가 탄식한 것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도학을 한다는 명분만 내걸고 정진하지 않았던 점이었다. ‘가정년간 이후’ 조성된 천박한 학풍의 원인인 ‘경원당금’의 대략을 보면, 다음과 같다.

****역자주석:**

*경원당금(慶元黨禁):

이는 영종 경원연간(寧宗慶元年間 : 1195~1200)에 한탁주(韓侂胄 : 1152~1207)가 정적을 탄압한 정치적 사건이다. 도학(道學: 곧 이학理學)의 사상은 사실 북송시대에 시작되었다. 이학의 사상이 도학의 논쟁으로 변질된 발단은 고종(高宗 : 1107~1187) 때였고, 효종(孝宗 : 1127~1194) 때 확대되었다.

북송 때, 정호(程顥 : 1032~1085)와 정이(程頤 : 1033~1107) 형제, 그리고 장재(張載 : 1020~1077) 등이 제창한 이학은 그 도덕과 문장으로 세상의 추앙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재상 채경(蔡京 : 1047~1126)이 왕안석(王安石 : 1021~1086)의 신법(新法)을 부활시키면서, 정치적 견해가 다른 그들 보수파를 탄압하는 동시에 그들의 학술마저 배척하였다. 고종이 남도(南渡)하고 나서, 성인(聖人)의 학문을 폐기할 수 없다하여, 다시 이학을 진흥시키려하자, 좌사간(左司諫)인 진공보(陳公輔 : 1077~1142)가 상소를 올려, ‘공맹(孔孟)의 학문을 전수 받았다고 괴변을 늘어놓으며 현인(賢人)인 척하는 그들은 자찬(自讚)하는 사람들’이라고 극렬하게 비난하며, 황제로 하여금 공맹(孔孟) 이외에는 찬양하지 못하게 결정내리도록 유도하였다. 이것이 남송 도학논쟁의 발단이었다. 효종 때에 이르도록 주회를 비롯한 수많은 학자들이 들고 일어나 도학을 비난한 반대파를 향해 격렬한 질책을 가하자, 전중시어사(殿中侍御史)인 유광조(劉光祖 : 1142~1222)도 조정에서 주도하여 사람들이 도학을 비난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간절한 상소문을 올렸다. 이는 이학을 비호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정치적 견해였다.

소희 5년(紹熙五年 : 1194)에 영종(寧宗) 조확(趙擴)이 즉위하였다. 영종은 황족 조여우(趙汝愚 : 1140~1196)와 외척 한탁주(韓侂胄 : 1152~1207)에 의해서, 황제로 옹립되었다. 그러나 조여우와 한탁주는 정치적 견해가 달라 사이가 좋지 않았다. 영종은 조여우를 재상으로 삼았다. 조여우는 명사들을 많이 초빙하여, 한판의 공작을 쌓고 싶어 했다. 조여우는 주희(朱熹 : 1130~1200)를 천거하였다. 주희는 당시 저명한 학자로서 황제에게 경서(經書)를 강론하도록 조치(招致)되었다. 주희는 정심성의(正心誠意)의 도를 지키고, 천자의 덕으로 기강을 확립하여 신하에게 권력을 넘기지 말라고 강조했다. 그 외에도 많은 이학의 명사들이 초청되자, 위기의식을 느낀 한탁주는 조여우가 기용한 명사(名士)인 경당(京鎔 : 1138~1200) · 하담(何澹 : ?~?) · 호굉(胡紘 : ?~?) 등을 배척하였다. 이리하여 도학에 관한 쟁론은 완전히 정치적 알력으로 변질되고 대립과 모순은 나날이 확대되었다.

주희가 이부시랑(吏部侍郎) 팽귀년(彭龜年 : 1142~1206)과 약속하여 함께 한탁주를 탄핵하자고 하자, 한탁주는 송영종(宋寧宗)에게 주희는 현실에 부적합한 인물이라고 말했다. 당시 영종은 한탁주를 신임하고 있던터라 주희를 파면하였다. 조여우와 중서사인(中書舍人)인 진부량(陳傅良 : 1137~1203)은 불가함을 극구 간하였다.

경원 원년(慶元元年 : 1195) 2월, 조여우가 재상에서 파직당하고, 일시 복주(福州)를 관할토록 하였다. 조여우의 파관(罷官)을 반대했던 사람들도 모조리 추방되었으며, 태학생 양광중(楊宏中 : ?~?) 등 6명을 5백 리 밖의 외편관(外編管)으로 귀양 보냈다. 당시 사람들은 이들을 ‘육군자(六君子)’라고 불렀다. 동년 11월 조여우는 영주(永州 : 지금의 호남성湖南省 영릉현零陵縣)로 추방하였다.

그리고 그 이듬해(1196) 정월에 형주(衡州: 지금의 호남성 형양현(衡陽縣))에서 급사(急死)하였다. 한탁주는 정권을 잡고 나서 그 자신과 뜻이 맞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도학(道學)’하는 사람들이라고 칭했으며, 그 뒤에는 또 도학을 ‘위학(僞學: 위도학(僞道學)의 약칭)’이라 불렀다. 그리고 또 이학가(理學家)들의 ‘어록(語錄)’을 금서(禁書)로 규정하고 그 서적들을 훼손하였다. 그리고는 과거시험에 조금이라도 의리지학(義理之學)과 관련된 것이 있으면 일률적으로 녹취(錄取)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경원 3년(1197)에는 조여우와 주희일과 및 그들을 동정하는 모든 사람들은 ‘역당(逆黨)’으로 규정하고, ‘위학역당(僞學逆黨)’의 당적(黨籍)을 열거하니 무려 59명이었다. 여기에는 주필대(周必大: 1126~1204) · 진부량(陳傅良) · 엽적(葉適: ?~?) · 팽귀년(彭龜年) · 장영(章穎: 1141~1218) · 항안세(項安世: ?~1208)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당적에 명단이 오른 사람들은 모두 정도에 따른 상이한 처벌을 받았다. 또한 이들과 관계있는 사람들 역시 관직을 맡지 못하게 하거나 과거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하였다.

가태이년(嘉泰二年: 1201) 2월부터, 이학가들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계기로 이학의 올바른 풍토가 훼손되면서, 세간에는 비정통 학문이 만연하기 시작했다.

(이상은 대북臺北: 여명문화사업공사黎明文化事業公司에서 간행한 진치평陳致平이 쓴 『中華通史 권6』을 참조함.)

- 17) 말학지폐(末學之弊): 이는 이학의 논쟁이 ‘경원당금(慶元黨禁)’이라는 역사적 사건으로 탄압을 받게 되면서, 관련학자들에게 족쇄를 채우게 되자, 세간에는 비정통과의 학문이 횡행하여, 마침내 ‘말학’의 폐단이 시대적 상황으로 나타나게 된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 ① 말학(末學): 말학이라고 하면, ‘천박하여 근본이 없는 학문’이라는 뜻으로, 본 시에서는 ‘비정통 학문’을 뜻한다.

이학(理學)은 송유(宋儒)들에게서 도학(道學)이라 칭해졌는데, 이는 송대의 이학가(理學家)들이 한·당(漢唐) 제유(諸儒)를 건너뛰어서 서책을 통해 공맹(孔孟)의 도(道)를 직접 승계했다고 자체 인식한 결과 붙여진 명칭으로 그들 송유(宋儒)가 강학(講學)한 것은 모두가 위인(爲人), 수신(修身), 제가(齊家), 치국(治國), 평천하(平天下)의 대도(大道)였던 까닭에, ‘도학’이라고 칭한 것이다.

동시에 도학으로 건립된 도통(道統)은 이 도통계열에 부합되는 학자들은 정통이 되고, 이 도통계열에 부합되지 않는 학자들은 비정통이 되었다. 『송사(宋史) · 도학전(道學傳)』에 상세한 기록이 있다.

본 시에서 서예(西厓)가 가리키는 말학(末學)은 가정년간(嘉定年間: 1208~1224) 직전에 매듭지어진 사칭(史稱) ‘경원당금’이라 칭한 역사적 사건의 영향으로 인해 송학(宋學)을 급격하게 쇠퇴하도록 한 정치세력이 주장한 학문을 가리킨다. 가정년간 이후, 학자들은 자기수양은 하지 않고 고담준론(高談峻論)이나 즐기면서 거리를 활보하고, 도리를 논하면서도 아는 것 없이 선대의 어록을 되뇌이는 정진하지 않은 학풍을 가리킨 것이다.

- 18) 양명 기역교왕 이과직지여(陽明其亦矯枉而過直者歟: 왕양명 역시 그것을 바로 잡으려다가 너무 지나쳤던 것인가?): 이는 양명의 학설에 대하여, 동의하지 못하는

서애의 관점을 시사한 말이다.

- ① 기(其): 질문(詰問)을 표시하는 부사로 쓰였음. 즉 설마~하겠는가! 그대 ~란 말인가! 혹은 어찌(어떻게) ~한 일이 있겠는가?
- ② 교왕(矯枉): 굽은 것을 바로 잡다. (사상·행동·방법 등의 단점이나 잘못을) 교정하거나 바로 잡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 ③ 과직(過直): 지나치게 곧게 하다, 과분하다, 적함(타당)하지 않다.
- ④ 여(歎): 의문이나 반문 또는 감탄을 나타내는 어기조사.
- 19) 무내선가(無乃禪家: 설마 불가佛家의 탈을 쓰고):
- ① 무내(無乃): 완곡한 추측의 어기(語氣)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이는 ‘무내(無迺)’로도 쓴다.
☆설마 ~란 말인가? 아마 ~일 것이다, 혹시 ~이 아닐까?
☆(나쁜 결과를 예상해서) 아마 ~일 것이다.
- ② 선가(禪家): 선정(禪定[dhyāna]: 차분한 마음으로 명상하는 것. 좌선해서 마음을 한 점에 한결같이 기울이는 종교적 명상)을 수행하는 사람. 일반적으로 불가를 가리키기도 함.
- 20) 개두환면(改頭換面: 내용은 그대로 둔 채 겉모습만 바꾸어서): 형식만 바꾸고 실제 내용은 불변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
- 21) 능가(籠駕): 길을 가로막고 통행을 저지함을 이룸. 영향을 주거나 방해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로 쓴다.
- 22) 벽(闕): (남의 의견·이론 등을) 논박하다, 반박하다.
- 23) 심위리(心爲理): ‘마음[心]이 곧 이치[理]이다(心卽理)’라는 뜻으로, 왕양명 학설의 주요 명제이다. 여기서 ‘위(爲)’자나 ‘즉(卽)’자는 모두 동사로, ‘~이다’의 뜻이다.
- 24) 인수유구능지미(人雖有口能知味: 사람은 입이 있어 맛을 알 수 있다고는 하지만):
- **서애주석(西厓注釋):**
“양지를 가리킨다(指良知)”고 하였다.
본 시구의 표현을 두고 서애는 “양지(良知)”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왕양명이 말하는 양지의 뜻은 ‘하늘이 부여한 본성이자 내 마음의 본체로서 스스로 영명하게 깨닫는 것’이다. 예컨대, 마음의 ‘양지로 선악을 구분하는 것’이다. 선악을 판단하는 능력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갖추고 있는 지각능력이기 때문에, 바로 양지라는 것이다. 이는 도덕의식뿐만 아니라, 미추(美醜)를 구분하는 마음에서도 동일하다. 서애는 양명의 ‘양지’에 대한 논리를 논박하기 위해서, ‘양지의 일예로 미각(味覺)을 두고 읊은 것이다.
- 25) 미변웅어시부소(味辨熊魚始不疎: 곰발바닥과 생선은 맛을 보고 구분해야 생소하지 않다네):
- **서애주석(西厓注釋):**
“즉물궁리(卽物窮理)를 가리키는 것(指卽物窮理)”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서애의 논점은 양명의 ‘양지’에 대한 논리를 주희의 ‘즉물궁리’로 논박하고 있는 것이다. 즉, 양명이 말하는 ‘양지(良知)’에 의하면, 마땅히 ‘웅어(熊魚), 즉 곰의 발바닥과 생선의 맛을 먹어보지 않고도 구별해 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서애는 이에 대하여, 어떻게 곰의 발바닥과 생선을 먹어보지 않고도 그 두 가지의 맛을 알아낼 수 있겠는가? 결국 그 두 가지를 다 먹어봐야 두 가지의 맛을 알 수 있다

는 것이다. 즉, ‘물(物)’에 의거해서 직접 그 ‘물리(物理)’를 경험해야 알 수 있다 (卽物窮理)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양지(良知)’만을 가지고 사물의 이치를 다 인식할 수 있다함은 이론적 모순이라는 점을 본 시구(詩句)를 통해 반박하고 있는 것이다.

26) 도유만수귀일법(道有萬殊歸一法 : (사물의) 도는 만 갈래로 다르거늘 하나의 이치로 귀결시키니) :

① 도유만수(道有萬殊 : 사물의 이치는 사물마다 개별성의 이치를 지니고 있다는 성리학性理學의 이론을 표명한 것임) :

☆도(道) : 본 시에서의 도는 만물의 ‘사리(事理 : 사물의 이치나 도리) 또는 규율을 가리킨다.

☆만수(萬殊) : 사물의 각종 상이한 현상을 말한다.

② 귀일법(歸一法 : 한 가지 이치로 귀결시키다) : 이는 양명학의 ‘심즉리(心卽理)’를 표명한 것이다.

☆귀(歸) : 귀결시키다.

☆일법(一法) : 여기서의 일법은 왕양명의 ‘심즉리(心卽理)’로서, 마음이 곧 이치라는 것을 가리킨다. 양명학의 이론에서 객체의 ‘물(物 : 양지良知의 밝은 깨달음 이 감응하는 대상을 칭함. 또한 양지란, 바로 천리天理로서, 내 마음의 양지 즉 천리를 사물 각각에 이르게 하면 사물 각각은 모두 그 이치를 얻게 된다는 것임)’은 주체의 ‘심(心)’과 어떠한 형태로든 관계를 맺을 수 밖에 없는 존재, 곧 객관세계의 사물은 주체의 의념이 발생할 때 비로소 존재하게 되는 대상이므로, 이 세상 어디에도 마음 밖에 ‘물(物)’이란 있을 수 없으므로 양명학에서는 마음[心]을 곧 ‘천리(天理)’로 보고 있는 것이다.

27) 지분호월진오려(地分胡越儘吾廬 : 영토가 호월胡越로 (남북으로) 나뉘었어도 내 집이란 격일세) :

① 지(地) : 영토, 국토, 대지.

② 호월(胡越) : ‘호’ 땅은 북방에 위치하고, ‘월’ 땅은 남방에 위치하는 까닭에, 소원(疏遠)하고 격절(隔絶)한 사이를 비유하는 말로 쓰나, 본 시에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서애주석(西厓注釋) :**

“사물과 나는 하나의 이치이다(物我一理)”

****역자주석 :**

서애가 한 이 말은 위의 시구, “(사물의) 도는 만갈래로 다르거늘 하나의 이치로 귀결시키다니(道有萬殊歸一法)”는 말과 그 다음 구의 “영토가 호월胡越로 (남북으로) 나뉘었어도 다 내집이란 격일세(地分胡越儘吾廬)”라고 하는 말이 뜻하는 바는, “사물과 나는 하나의 이치이다(物我一理)”라는 의미라고 주석한 것이다. 서애는 왕양명 논리의 부당성을 그와 같이 지적한 것이다. 만사만물은 각자 자기의 규율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어찌 만물은 하나의 이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영토가 남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것을 어찌 다 내 집이라고 간주할 수 있겠는가? “마음이 곧 이치이다(心卽理)”라고 했는데, 마음이 어찌 곧 이치이겠는가? 서애는 그 논리의 부당성을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 28) 회양(懷襄) : 회산양릉(懷山襄陵) : 홍수가 넘실거리며 불어나 산언덕에 출렁거림을 이르는 말.
『서경·요전(西經要典)』에, “넘실거리는 홍수가 방대하게 수해를 입히고, 출렁거리는 큰물이 산을 에워싸고 산언덕을 삼켜서 큰물이 하늘에 닿을 듯하오(湯湯洪水方割, 湯湯懷山襄陵, 浩浩洶天)”라고 하였다.
- 29) 초창하인경착소(惘悵何人更鑿疏 : 애달프다 누가 다시 메인 개울바닥 파내 물길 틈을꼬!) :
① 초창(惘悵) : 추창(惆悵)과 같은 말로서, ‘실망한 모양, 슬퍼하는 모양’이다.
② 착소(鑿疏) : 물길을 준설(浚濬) : 강이나 개울 따위의 밑바닥에 쌓인 것을 파냄)하다.
☆착(鑿) : 우물이나 강바닥 따위를 파다.
☆소(疏) : 준설하다. 개통하다.
- 30) 구속학자지경(敎俗學且自警 : 세속적 학문을 바로잡고 내 자신을 경계하다) :
① 구(敎) : (사상, 행동, 방법 등의 단점이나 잘못을) 교정하다, 바로잡다, 규정(糾正)하다.
② 속학(俗學) : 세속적인 상식 수준의 학문.
③ 지경(自警) : 스스로 자기 마음을 경계하다.
- 31) 가정년간말학폐(嘉定年間末學弊 : 가정년간嘉定年間に 세속적 학문의 폐단음) :
본 시의 주석(16)과 17)을 참조 바람. 여기서 ‘말학(末學)’이란, 주희가 귀천(歸天)하고 ‘경원당금(慶元黨禁)’ 이후 가정년간에 들어와서는 세태가 완전히 뒤바뀌어, 도학을 담론하던 송학(宋學)은 찾아볼 수 없고, 오로지 학자들이 자기 수양은 뒷전으로 돌려놓은 채, 고담(高談)이나 일삼으면서, 선대의 어록이나 되뇌이는 풍조를 조성하여, 시대와 사람을 구하고 잡아주는 실학 곧 도학의 면모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이와 같이 칭한 것이다.
- 32) 심지어업(尋枝摘葉) : ‘나무의 잔가지까지 날날이 찾아가며 하나하나 나뭇잎을 따다’는 뜻인데, ‘종속적이고 부차적인 문제에 집착하다’ 하거나, ‘지엽적인 일에 집중’하거나, ‘사소한 일에 전념하는 것’을 비유해서 쓴 말이다.
- 33) 도문희철주천하(徒聞姬轍周天下 : 오직 주례周禮만이 천하를 공고히 한다면서) :
① 도문(徒聞) : 주례(主禮)와 관련한 업무를 등한히 하여, 다만 보고만 듣고 실천에 옮기지 않음을 뜻하는 것이다.
② 희철(姬轍) : 주(周)나라의 규범.
☆희(姬) : 주나라 왕조의 대칭(代稱). 주나라 왕조가 ‘희(姬)’씨 성(姓)이기 때문에 ‘주(周)’ 대신에 ‘희(姬)’로 호칭하기도 하였다.
☆철(轍) : 법칙. 규범.
③ 주(周) : 구제(救濟)하다. 공고히 하다.
- 34) 명당(明堂) : 고대제왕이 정교(政敎 : 정치와 교육)를 선명(宣明 : 명백히 밝힘)하는 곳. 무릇 조회(朝會) · 제사(祭祀) · 경상(慶賞) · 선사(選士) · 양로(養老) · 교학(敎學) 등의 큰 의전행사를 모두 이곳에서 거행하였다. 즉, 임금이 조회를 받고, 정령(政令)을 퍼던 정전(正殿)을 가리킨다.
- 35) 축유막망경춘감(燭幽莫忘徑寸鑑 : 깊은 곳을 비추는 것은 한 치의 거울임을 잊지 말아야 하며) :
① 축유(燭幽) : 어두운 곳을 밝게 비추다. 사물의 은미(隱微 : 묻히거나 작아서 알기

어렵다: 겉으로 드러난 것이 거의 없다)한 곳을 명찰하다.

- ② 경촌감(徑寸鑑): 직역하면, ‘직경 1촌 되는 거울’의 뜻이나, 비유적으로 표현하여, ‘한마디의 교훈’, ‘모범이나 교훈이 될 만한 것’이란 뜻으로 쓰였음. 여기서 ‘경(徑)’은 직경이고, ‘촌’은 3.3cm, ‘감(鑑)’은 전(轉)하여, ‘교훈’ 혹은 ‘교훈이 되는 알’을 의미한다.

『시경(詩經)·대아(大雅)·탕(蕩)』에, “은나라가 본보기로 삼은 거울은 먼 곳에 있는 것 아니니, 바로 하후씨(순에게 선양받아 세운 왕조)의 세상이 어찌하다 망했 나를 보는 것일세(殷鑑不遠, 在夏后之世)”라고 하였다.

- 36) 행선수의반범풍(行船須依半帆風: 배를 갖 띄우려할 땐 필히 반돛 바람 받아야 지):

- ① 행선(行船): 본 시에서는 ‘행(行)은 출발하다. 즉 배를 이제 막 띄우다’의 뜻이다. 그 이유는 바로 뒤에 이어지는 ‘반범풍(半帆風: 돛을 반쯤 올려 바람을 받아야 함)’이라는 말 때문이다. (면적이 좁은 포구에서 돛을 다 올리면 위험하기 때문이다)
- ② 반범풍(半帆風): 반돛 올린 바람을 받다(본 시에서는 ‘매사에 신중해야 함을 자신에게 일깨우는 뜻’으로 쓰였음)
- ☆반범(半帆): 반돛. 즉, 반쯤 올린 돛.

- 37) 간타요요혼혼지(看他擾擾昏昏地: 저 시끄럽직한 세상 어두운 곳 살피려면):

- ① 요요(擾擾): 분란스럽다, 어수선하고 소란스럽다. 일이 마구 얹히어 정신이 어지러운 모양.
- ② 혼혼지(昏昏地): 세상의 어두운 곳. 본 시에서는 세상의 어둡고 부패한 곳을 가리킨다.

- 38) 일념회광변견공(一念回光便見功: 한결같이 자성自省해야 효험을 보리라):

- ① 일념(一念): 한결같은 마음.
- ② 회광(回光): 회광반조(回光反照): 회광반조(回光返照)

☆자아성찰(自我省察)을 이룸.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태양이 낙조(落照)할 때, 반사작용으로 인해서, 하늘이 잠시 밝아지는데, 이 현상을 가지고, ‘사람이 임종하기 전에 잠시 정신이 맑아지고 병이 조금 나아지는 것같이 보이는 것’을 뜻하는 말로 쓰기도 하고, ‘자아성찰(自我省察)을 뜻하는 말’로도 쓰며, 불가(佛家)에서는 ‘자신의 본래 모습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며 수도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로도 쓴다.

- ③ 견공(見功): 효험을 보다, 효력을 나타내다.



시45. 산사^{山寺}에서 공부하는 소년들에게
시 두 수를 지어 교도^{敎導}하다

詩45. 示兒輩¹⁾讀書山寺 二首
시 아 배 독 서 산 사 이 수

其一
기 일

[1]

理明辭達²⁾卽爲文,
리 명 사 달 즉 위 문

조리條理가 분명하게 말을 전달하면 곧
글이 되나니,

江漢初分一線源³⁾.
강 한 초 분 일 선 원

장강長江과 한수漢水도 발원지에선
한줄기 원류였다.

不向大途平着脚⁴⁾,
부 향 대 도 평 착 각

큰 길로 나가려면 태평스런 발걸음
하지 말고,

却從荊棘浪馳奔⁵⁾.
각 종 형 즉 낭 치 분

오히려 가시밭길 지나서 끊임없이
내달려라.

其二

[2]

井裏元無大樣天⁶⁾,
정 리 원 무 대 양 천

우물 안에서야 본래 넓은 하늘 볼 수
없나니,

眼中纔得小團圓⁷⁾.
안 중 재 득 소 단 원

(우물 안에서) 눈에 보이는 하늘은 겨우
작은 원형으로 이해된다.

少年脚力應强健,
소년 각 력 응 강 건

소년의 다리 힘은 당연히 강건하리니,

一上峯頭盡八埏⁸⁾.
일 상 봉 두 진 팔 연

일단 산 정상에 올라봐라 사면팔방이
한 눈에 들어오리라.

1) 시아배(示兒輩):

① 시(示): 교도(教導)하다. 보여주다. 고시(告示)하다. 고지(告知)하다.

② 아배(兒輩): 아이들. 후배.

2) 이명사달(理明辭達):

① 이명(理明): 말의 조리가 분명하다. 사리(事理)가 분명하다.

② 사달(辭達): 문사(文辭: 문장)나 연사(言辭: 말)의 표현이 유창함을 이르는 말.
언어로 의사(意思)를 표현하다.

3) 강한초분일선원(江漢初分一線源: 장강長江과 한수漢水도 발원지에선 한줄기 원
류였다):

① 강한(江漢): 장강(長江)과 한수(漢水).

☆장강(長江: 양자강): 중국 중심부를 흐르는 아시아에서 제일 긴 강. 티베트 고
원 북동부에서 발원하여, 운남(雲南)·사천(四川)·호북(湖北)·강서(江西)·
안휘(安徽)·강소(江蘇) 등 여러 성(省)을 거쳐 동중국해(東中國海)로 흘러들.
길이는 6,300km이다.

☆한수(漢水): 장강의 지류. 섬서성(陝西省) 남서쪽 진령산맥(秦嶺山脈)에서 발
원하여 한중(漢中)을 지나 호북성(湖北省) 한구(漢口)에서 장강으로 흘러들.
길이는 1,532km이다.

② 초분(初分): 발단 지역, 곧 발원지를 가리킨다.

☆초(初): 발단, 개시, 시작.

☆분(分): 지역(地域).

③ 원(源): 수원(水源). 물이 흐르는 근원.

4) 불향대도평착각(不向大途平着脚: 큰 길로 나가려면 태평스런 발걸음 하지 말고):

① 불(不): ~하지 말라.

② 향대도(不向大途): 대도(大道)를 향하여 걷다.

☆향(向): ~를 향하여 가다.

☆대도(大途): 큰 길.

③ 평착각(平着脚): 편하게 발걸음하다.

☆평착(平着): ‘편안하게’라는 상태의 지속형으로 쓰였음.

☆각(脚): a. 다리, 발. b. 걸음걸이.

5) 각종형극난치분(却從荊棘浪馳奔 : 오히려 가시밭길 지나면서 끊임없이 내달려라) :

① 중형극(從荊棘) :

☆중(從) : 지나가다, 경유(經由)하다.

☆형극(荊棘) : 가시나무. 고난. 본 시에서는 괴롭고 어려운 환경을 비유한 가시밭길을 가리킨다.

② 랑(浪) :

☆파상(波狀) :

a. 물결의 모양. 어떤 일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차례로 되풀이되는 모양.

b. 끊임없이 이어짐.

③ 치분(馳奔) : ‘분치(奔馳)’와 같은 말. 뜻은 (수레나 말 따위가) 질주하다, 폭주하다. 내달리다.

6) 정리원무대양천(井裏元無大樣天 : 우물 안에서야 본래 넓은 하늘 볼 수 없나니) :

① 정리(井裏) : 향리(鄉里), 가택(家宅). 여기서 ‘정(井)’은 전하는 바에 의하면, 고대제도에 여덟 집을 1정(井)이라 했다. 전(轉)하여, 정(井)을 ‘사람이 모여 사는 곳’, 즉 향리(鄉里)의 뜻으로 쓴다.

② 원무(元無) : 본래(원래) 없다. ‘원(元)’은 본래, 원래, 근본, 근원의 뜻이다.

③ 대양천(大樣天) : 넓은 하늘.

☆대양(大樣) : 대형(大型).

7) 안중재득수단원(眼中纔得小團圓 : (우물 안에서) 눈에 보이는 하늘은 겨우 작은 원형으로 이해된다) :

① 안중(眼中) :

☆안중(眼中)에(관심이나 의식의 범위 내에).

☆안전(眼前)에, 눈앞에.

☆생각이나 기억을 가리키기도 함.

☆내심(內心), 마음 속.

② 재(纔) : 겨우.

③ 득(得) :

☆이해되다, 알다.

☆명백하다, 분명하다.

④ 단원(團圓) : 둥근 모양, 원형.

8) 일상봉두진팔연(一上峯頭盡八埏 : 일단 산 정상에 올라봐라 사면팔방이 한눈에 들어오리라) :

① 일상(一上) : 일차(일단) 올라감을 이르는 말.

② 봉두(峯頭) : 산 정상, 산꼭대기, 산정(山頂).

③ 진팔연(盡八埏) : 설령 땅의 팔방(八方) 끝이라 할지라도.

☆진(盡) : 모두, 다.

☆팔연(八埏) : 땅의 팔방(八方 : 사방四方과 사우四隅의 여덟 방위. 즉, 동·서·남·북·동북·동남·서북·서남)의 끝.

시46. 한가한 동안에 한산자^{寒山子} · 이백^{李白} ·
도연명^{陶淵明}의 시를 읽고 지은 시 세 수

詩46. 閒中讀寒山子李陶詩¹⁾ 三首
한 중 독 한 산 자 이 도 시 삼 수



其一
기 일

[1]

吾非學禪²⁾者,
오 비 학 선 자

내가 선정^{禪定}을 닦은 사람은 아니지만,

獨愛寒山子。
독 애 한 산 자

한산자^{寒山子}는 유독 좋아한다네.

其言多脫灑³⁾,
기 언 다 탈 쇠

그의 시어^{詩語}는 초탈한 게 많았는데,

往往深造理⁴⁾。
왕 왕 심 조 리

왕왕 깊은 경지의 선리^{禪理}에 도달했네.

烟霞作襟懷⁵⁾,
연 하 작 금 회

안개와 노을은 심중의 회포로 삼고,

水月爲文字。
수 월 위 문 자

물 속에 비친 달은 시문^{詩文}으로
간주했네.

胡爲世上人,
호 위 세 상 인

어찌다가 이 세상 사람이 되었던고?

擾擾風塵裏⁶⁾。
요 요 풍 진 리

시끌시끌 괴롭고 어지러운 이 속세에!

其二
기 이

[2]

詩人亦無數，
시인역무수

시인 또한 수없이 많지만,

所愛惟李白。
소애유이백

좋아하는 사람은 이백李白 뿐일세.

比如行天馬，
비여행천마

(그의 시는) 날아가는 천마天馬와 같아서,

不受人羈繫。
불수인기집

사람들의 속박을 받지 않았네.

秋華去粉飾⁷⁾，
추화거분식

극화는 분단장 마다하기 마련이고,

至寶無雕琢⁸⁾。
지보무조탁

지극한 보배는 새기고 쪼을 필요 없네.

夜夜屋梁月⁹⁾，
야야옥양월

밤마다 지붕 위에 휘영청 밝은 달은,

精神猶可覲¹⁰⁾。
정신유가적

뜻밖에도 그의 운치를 대하는 듯하네.

其三
기 삼

[3]

陶令有好懷¹¹⁾，
도령유호회

도현령陶縣令에겐 아주 별난 흥취가
있었나니,

歸來自彭澤¹²⁾。
귀래자팽택

팽택현彭澤縣에서 전원으로 돌아온
것일세.

園林日可涉¹³⁾，
원림일가섭

원림園林을 날마다 산책했을 터이니,

獨去看松竹。
독거간송죽

홀로 거닐며 송죽松竹을 감상했겠네.

寧從田父飲¹⁴⁾,
영 종 천 부 음

차라리 농부가 원하는 술 한 잔은
마실지언정,

不食將軍肉¹⁵⁾。
불 식 장 군 육

장군이 주는 고기는 먹지 않았다 하네.

可笑陶弘景¹⁶⁾,
가 소 도 홍 경

(나는) 도홍경陶弘景을 가소롭게
여기나니,

久掩茅山¹⁷⁾扉。
구 엄 모 산 비

모산茅山 은거처 사립문 닫아 건지
오래됐단 걸.

晚得宰相名,
만 득 재 상 명

늦그막에 얻었던 재상이란 명칭이,

汚我薛羅衣¹⁸⁾。
오 아 설 라 의

내 벽라의薛蘿衣를 더럽히는구나.

1) 한산자·이·도시(寒山子李陶詩): ‘한산(寒山), 이백(李白), 도잠(陶潛)의 시’를 말함.

① 한산자(寒山子: 생물년 미상): 당대(唐代)의 승려이자 시인이다. 그의 성씨, 관직(貫籍)이 모두 미상이다. 그가 오랫동안 대주(臺州) 시풍현(始豐縣), 즉 지금의 절강성(浙江省) 천대현(天臺縣) 서쪽에 위치한 한암(寒巖: 寒山)에 은거하였던 까닭에 그를 한산 또는 한산자라고 부른다. 그는 대주에 위치한 국청사(國淸寺)의 선사(禪師)인 풍간(豐干: 생물년 미상)을 비롯해서 벗인 습득(拾得: 생물년 미상)과 절친한 사이였으며, 수시로 왕래하였다고 한다. 현대의 중문학자 여가석(余嘉錫: 생물년 미상)의 고증에 의하면, 당현종(唐玄宗) 선천년간(先天年間: 712)에 이미 한산자에 관한 행적이 보였으며, 그의 사망연도는 대략 덕종(德宗) 정원 9년(貞元九年: 793) 조금 뒤라고 하니, 그의 연령은 100세 이상이다. 구전(舊傳)에 의하면, 한산자는 습득과 절친한 벗이었다고 한다. 이들은 한산의 동굴 속에 은거하면서, 천대산(天臺山) 국청사의 선승인 풍간과도 교류하여 우의가 돈독했다고 한다. 풍간은 낮에는 버를 쪼어 정미해서 승려들에게 공양하고, 밤에는 문을 걸어 잠그고 시를 읊었다고 한다. 가끔씩 호랑이를 타고 회랑을 거닐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사람들이 물으면 단지 대답하는 말이 “언제나(隨時)”라는 한 마디뿐이었다고 한다. 그는 후에 한산에 은거했다고 한다. 한산자는 습득과 함께 종종 국청사에 드나들며 대중이 먹다 남은 밥을 얻어 뿔통에 넣어 가지고 갔다고 한다. 그의 행색은 남루하고 언행이 흡사 광인(狂人) 같았으며, 자작나무 껍질로 만든 모자를 쓰고, 나막신을 신어, 사람들이 잘 알아보

지 못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이들은 시를 잘 읊었으며 가끔씩 던지는 말은 불도의 이치에 맞았다고 한다. 당시 대주자사(臺州刺史) 여구윤(閔丘胤)이 이들을 스승으로 모시고자 했으나 한산과 습득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나가 동굴 속으로 들어가 다시는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이들 3인은 3은(三隱)이라고 불렀다 한다. 이러한 이야기는 『송·고승전(宋高僧傳)』 권19에도 나오고, 유사한 내용이 『한산자시집서(寒山子詩集序)』에도 언급되지만, ‘여구윤(閔丘胤)’이란 사람 자체가 가공 인물인 까닭에 그의 작품을 제외한 서문 내용은 신뢰할 수 없다고 『사고제요변증(四庫提要辨證)』 권20에서 말하고 있다. 이처럼 사료부재(史料不在)로 인하여, 한산자(寒山子)와 그의 벗들에 관한 이력은 신뢰할 수 없는 전설로 기록되었지만, 남겨진 작품을 통해서 그에 대한 연구는 진지하고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산의 시가는 산림 속에 의거하는 홍취를 기술한 것 이외에, 누차에 걸쳐 불가의 윤회설(輪回說)과 인과설(因果說)을 선양하기도 하고, 도가(道家)의 자복달관(雌伏達觀) : 은둔 생활을 통해 달관된 경지에 이를 수 있음을 비유한 말)의 이치와, 신선가(神仙家)의 연금술(鍊金術)에 관한 일 등을 명백히 밝히기도 했다. 이렇게 불(佛)·도(道)·신선 등의 관점이 혼합되기는 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시속(時俗)과 세태(世態)에 대한 풍자를 하고, 사회에 암담한 장면을 폭로하였으며, 세속에 대한 훈계와 격려의 일면도 있다. 표현방법은 도리를 설명하는 교도(教導) 위주이지만, 가끔씩 나오는 장어(莊語: 엄격하게 하는 바른 말)와 교언(巧言)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향리에서 쓰는 구어체로 어기(語氣)가 해학적이며 정취가 넘친다. 당시 시단(詩壇)의 전아(典雅: 시술에 맞고 우아한 것)함(시술에 맞고 우아함)과 함축된 풍조를 중시했던 까닭으로 인해서, 그의 시가 당시 사람들에게 찬양받지 못했던 것이다. 송조(宋朝) 이래로 그의 시를 약간 중시하기 시작했으나, 예를 들면 정치가이자 학자인 왕안석(王安石: 1021~1086)에게는 『한산과 습득의 시를 본떠 지은 시(의한산습득擬寒山拾得)』 19수가 있고, 남송의 유학자 주희(朱熹: 1130~1200)는 사람들에게 권하여, 『한산자시(寒山子詩)』를 교정·간행하였으며, 시인 육유(陸遊: 1125~1209)는 한산이 지은 초사체(楚辭體) 시를 흠모하였다. 명말(明末)에 와서는 풍서(馮舒: 1593~1649)도 한산체(寒山體)의 시를 좋아해서 본받았다. 5·4운동(1919년 5월 4일 중국 북경의 학생들이 일으킨 항일운동이자 반제국주의반봉건주의 혁명운동) 이래, 백화문체(白話文體: 구어체(口語體: 회화체)로 쓴 문체)가 제창되자, 한산의 시는 바야흐로 학계의 폭넓은 호응을 받았다. 이렇게 전기적(傳奇的)인 인물이 오히려 진실한 성명조차 남기지 않고 세간에 불려지는 것이라고는 단지 그의 호(號)인 ‘한산자(寒山子)’ 뿐이다.

- ② 이백(李白: 701~762): 그의 호적지는 당(唐)나라 농서군(隴西郡) 성기현(成紀縣), 즉 지금의 감숙성(甘肅省) 천수현(天水縣)이나, 출생지는 그의 선조가 수(隋) 말엽에 서역(西域)을 떠돌아다녔던 까닭에, 안서도호부(安西都護府)의 채엽성(碎葉省), 즉 지금의 중앙아시아 바이칼호(Baikal湖) 서쪽이다. 후에, 지금의 사천성(四川省)으로 이사하였다가 다시 산둥(山東)으로 이사를 하였기에, 그를 산둥인(山東人)으로도 칭한다. 그의 자는 태백(太白), 호는 청려거사(靑蓮居士)이다. 시성(詩聖) 두보(杜甫)와 함께 ‘이·두(李杜)’로 병칭되는 중국 최고의 시인이며 시선(詩仙)이라 불린다. 그는 맹호연(孟浩然), 원단구(元丹邱), 두보

(杜甫), 고적(高適) 등 많은 시인과 교류하면서, 각 지역을 유력(遊歷)했다. 43세 즈음에 현종(玄宗)의 부름으로 장안(長安)에 들어가 한림공봉(翰林供奉)이 되었던 1~2년이 관직생활의 전부였다. 그러나 결국 현종의 충신 고역사(高力士)의 미움을 받아 궁에서 쫓겨났다. 그 뒤 각 지역을 유력하다가 안록산(安祿山)의 난 때 촉(蜀) 땅으로 피난한 현종의 아들, 영왕(永王) 인(璘)의 막료가 되었으나, 역시 현종의 아들인 형(亨 : 훗날의 숙종肅宗)에게 패하여 유배가게 된다. 곽자의(郭子儀)의 도움으로 사면(赦免)되었으나, 이미 그의 나이 59세였다. 노쇠한 탓에 지금의 안휘성(安徽省) 회원현(懷遠縣)에 사는 친척, 이양빙(李陽氷)에게 의탁생활을 하던 중 병사했다. 이백의 생애는 방랑으로 일관했다. 청소년 시절에는 독서와 검술에 정진하고 유험(游俠)들과 어울리기도 하였고, 민산(岷山)에서 선술(仙術)을 닦기도 하였다. 그의 방랑은 정신적 자유를 찾는 꿈의 비상(飛翔)이었다. 그에게도 현실에 대한 관심이 컸고 인생의 우수(憂愁)와 적막에 대한 절실한 관조(觀照)가 있었으나 세상에 관심을 가지는 방식과 관조(觀照)의 양태가 두보와는 크게 달랐다. 두보가 언제나 인간중심의 고뇌를 시의 제재(題材)로 했다면, 이백은 오히려 인간을 초월하고 인간의 자유를 구가(謳歌)하였다. 인생의 고통과 비수(悲愁)까지도 혼돈화하여 그곳으로부터 비상하려 하였다. 술은 그가 그렇게 비상하는 하나의 수단이었으며, 그의 시를 지탱하고 있는 것은 협기(俠氣)와 신선(神仙)과 술이었다. 두보가 오언율시에 뛰어났다면, 이백은 악부와 칠언절구를 장기로 하였다.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시문집은 송대에 편찬된 것이며, 약 1,100여 편의 작품이 전해진다. 청대의 학자 왕기(王琦)가 편찬한 『이태백시집주(李太白詩集注)』가 있다.

- ③ 도잠(陶潛 : 365~427) : 도연명(陶淵明) : 동진(東晉)의 시인. 강서성(江西省) 구강현(九江縣) 심양(潯陽) 사람. 성씨는 도(陶), 이름은 잠(潛), 문 앞에 버드나무 다섯 그루를 심어놓고 오류선생(五柳先生)이라고 자호(自號)했다. 연명(淵明)은 그의 자(字)이다. 일설에는 이름이 연명(淵明), 자는 원량(元亮)이라고도 한다. 동진(東晉)의 주석(柱石)으로 지목되었던 명재상 도간(陶侃)의 증손으로 고을의 췌주(祭酒 : 제사를 주관하는 관리)가 되었지만, 관리의 직무를 달가워하지 않아서 사직하고 귀향하였다. 그 뒤 동진(東晉) 안제(安帝) 의희(義熙) 말년(416)에 저작좌랑(著作佐郎)을 제수 받았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후대에 와서 군벌항쟁의 세파에 밀리면서 생활을 위해 진군참군(鎭軍參軍), 건위참군(建衛參軍) 등의 관직을 지냈다.

팽택현령(彭澤縣令) 때, 감독관을 파견한다는 통지가 오자, ‘오두미(五斗米)를 위해 향리의 소인에게 허리를 굽힐 수 없다’고 하면서 의희(義熙) 2년(406) 41세에 누이의 죽음을 구실 삼아 팽택현령을 사임한 뒤, 다시는 관계에 나가지 않았다. 이때 쓴 글이 「귀거래사(歸去來辭)」이다. 그는 전원(田園)에서 농사를 지어 자급자족했고 술을 좋아했으며, 시문(詩文)을 잘 지었다.

그가 지은 문장에는 모두 연월(年月)을 달았는데, 의희(義熙 : 동진東晉 안제安帝의 연호) 이전에는 진(晉)나라 연호를 썼다가 남조(南朝) 송(宋)나라 이후에는 갑자(甲子)만 달았다. 자연을 노래한 시가 많으며, 당(唐)나라 이후 육조(六朝 : 후한後漢이 멸망한 뒤 수隋나라가 통일할 때까지 양자강 남쪽에 있었던 여섯 왕조) 최고의 시인이라 불렸다. 그의 시풍(詩風)은 후대의 많은 시인들에게 영향을 끼쳐 문학

사상 큰 업적을 남겼다. 시 외에 『오류선생전(五柳先生傳)』과 『도화원기(桃花源記)』 등 산문에도 뛰어났고, 지괴소설집(志怪小說集) 『수신후기(搜神後記)』의 작자로도 알려져 있다. 사시(私諡)는 정절(靖節)이다. 저서에 『도연명집(陶淵明集)』이 있다.

- 2) 선(禪) : 산스크리트어로 dhyāna : 명상 : 좌선坐禪 : 선정禪定) : 미혹함을 끊고, 마음을 하나의 목적물에 집중시켜서, 감정을 평정하고, 마음을 밝게 해서 진실한 이치를 체득하는 수행방법이다. 이는 마음의 통일과 안정에 관한 하나의 표현으로 쉽게 말해서 ‘정신통알’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중생을 제도하여 부처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것을 이상으로 하는 대승불교(大乘佛敎)의 실천덕목인 육바라밀(六波羅密)*의 다섯 번째이다.

*육바라밀 :

- a. 보시(布施) : 주는 것. 세 종류가 있는데, ‘법시(法施 : 진리를 가르쳐주는 것) · 재시(財施 : 남에게 재물을 베푸는 것) · 무외시(無畏施 : 공포를 없애고 안심시키는 것)’.
- b. 지계(持戒) : 계율을 지키는 것.
- c. 인욕(忍辱) : 고난을 참고 견디는 것.
- d. 정진(精進) : 진신의 도(道)를 실천하는 것.
- e. 선정(禪定) : 정신을 통일하고 안정시키는 것.
- f. 지혜(知慧) : 진실한 지혜를 얻는 것.

- 3) 탈쇄(脫灑) : 탈쇄(脫洒)로도 쓴다.

- ① 초탈(超脫)하다, 아무 구속도 받는 바가 없다.
- ② 범속(凡俗)의 기풍을 떠나서 깨끗하다.

- 4) 왕왕심조리(往往深造理 : 왕왕 깊은 경지의 선리禪理에 도달했네) :

- ① 왕왕(往往) : 시간의 간격을 두고 이따금 이어지는 모양.
- ② 심조리(深造理) :
 ☆심조(深造) : 진일보 학습해서 더욱 깊은 단계에 도달하다.
 ☆리(理) : 본시에서는 선리(禪理 : 선에서 깨닫는 이치)를 칭함.

- 5) 연하작금회(烟霞作襟懷 : 안개와 노을은 심중의 회포로 삼고) :

- ① 작(作) : ~로 간주하다.
- ② 연하(烟霞) : 연하(煙霞)로도 쓴다. 안개와 노을을 아울러 이르는 말.
- ③ 금회(襟懷) : 마음속, 가슴속, 생각, 포부, 품, 가슴.

- 6) 요요풍진리(擾擾風塵裏 : 시끌시끌 괴롭고 어지러운 이 속세에) :

- ① 요요(擾擾) : 어수선하고 소란스러운 모양. 마음이 산란스러운 모양. 복잡하고 어지러운 모양.
- ② 풍진(風塵) : 진세(塵世), 속계(俗界), 곧 이 세상. 티끌이 있는 세상으로 ‘전란’에 비유된다.

- 7) 추화거분식(秋華去粉飾 : 국화는 분단장 마다하기 마련이고) :

- ① 추화(秋花) : 가을 꽃. 여기서는 국화를 칭한다.
- ② 거분식(去粉飾) :
 ☆거(去) : 떠나다, 내몰다, 쫓아내다, 내쫓다. 제거하다, 없애다. 포기하다.
 ☆분식(粉飾) : 분을 발라 화장함. (글·문장) 등을 잘 다듬다, 찬미하다, 칭찬하다, 장려하다.

- 8) 지보무조탁(至寶無彫琢 : 지극한 보배는 새기고 쪼을 필요 없네) :
- ① 지보(至寶) : 가장 진귀한 보물. 더없이 귀중한 보배.
 - ② 무조탁(無彫琢) :
 - ☆무(無) : ‘물(毋)’과 통함. 금지형. 혹은 ~할 필요가 없다.
 - ☆조탁(彫琢) : 동사형으로 사용되었음. 옥을 새기고 조각하다. 문사(文辭)를 다듬는 것을 비유하는 말. 고심하여 문사를 아름답게 다듬다.
- 9) 야야옥양월(夜夜屋梁月 : 밤마다 지붕 위에 휘영청 밝은 달은) :
- ① 야야(夜夜) : 밤마다. 인(人) · 가(家) · 월(月) · 년(年) 등의 명사는 중첩 후 주어나 부사어로 쓰일 수 있는데 이런 명사는 중첩을 하게 되면, ‘~마다’의 뜻을 가진다.
 - ② 옥량(屋梁) : 지붕.
- 10) 정신유가적(精神猶可覲 : 그의 운치를 드러낸 듯하네) :
- ① 정신(精神) : 운치(韻致).
 - ② 유가적(猶可覲) :
 - ☆유(猶) : 마치 ~와 같다.
 - ☆가적(可覲) :
 - a. 가(可) : 강조 어기조사로 ‘뜻밖에도, 놀랍게도’ 등의 뜻으로 쓰였다.
 - b. 적(覲) : 서로 대하다, 만나다.
- 11) 도령유호회(陶令有好懷 : 도현령陶縣令에겐 아주 별난 흥취가 있었나니) :
- ① 도령(陶令) : 도현령(陶縣令) : 도잠(陶潛 : 365~427) 현령(縣令), 곧 도연명을 가리킨다. 앞의 주석1)의 ③을 참조 바람. 도연명이 405년에 팽택현(彭澤縣)의 현령(縣令)을 역임했던 까닭에 붙여진 호칭이다.
 - ② 호회(好懷) : 꽤나 재미있는 흥취, 흥미진진한 흥취. 아주 재미있는 흥취.
- 12) 귀래지팽택(歸來自彭澤 : 팽택현彭澤縣에서 전원으로 돌아온 것일세) :
- ① 귀래(歸來) : 도연명은 동진(東晉) 안제(安帝) 의희(義熙) 원년(元年 : 405) 연말에 팽택현(彭澤縣) 현령이 되었으나, 80여 일이 지난 그 이듬해(406)에 「귀거래사(歸去來辭)」를 남기고 사직했다. 그 이유는 현령 재직시에 감독관을 파견한다는 통지가 오자 ‘오두미(五斗米 : 다섯 말의 쌀이란 뜻으로 얼마 안 되는 봉급을 이름)’를 위해, 향리의 소인에게 허리를 굽힐 수 없다며 사직한 것이다. 그 뒤 의희 말년(416)에 저작좌랑(著作佐郎)을 제수 받았으나, 역시 부임하지 않았다. 그는 증조부 도간(陶侃)이 재상을 지냈는데 후대에 와서 굴신(屈身)을 하며 산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 여겼다.
 - ② 팽택(彭澤) : 팽택현(彭澤縣) 서진(西晉) 회제(懷帝) 영가(永嘉) 원년(元年 : 307)에 설치하여 십양군(尋陽郡)에 소속시켰다. 지금의 강서성(江西省) 호구현(湖口縣) 동남 30리 되는 곳이다.
- 13) 원림일가섭(園林日可涉 : 원림園林을 날마다 산책했을 터이니) :
- ① 원림(園林) : 화초와 수목을 심고 정각(亭閣)을 지어서, 사람들에게 유람하며 휴식하게 하는 장소로 제공된 곳(오늘날의 공원임).
 - ② 섭(涉) :
 - ☆산 돌고 물 건너가다. 여러 곳을 돌아다니다.
 - ☆유람하다.

14) 영종전부음(寧從田父飲 : 차라리 농부가 권하는 술 한 잔은 마실지언정) :

- ① 영(寧) : 차라리 ~할지언정 ~하지 않겠다. 이때의 ‘영(寧)’은 연사(連詞 : 접속사)로 쓰였음.
- ② 종(從) : 추구하다. 순종하다. 참가하다. 종사하다.
- ③ 전부(田父) : 농부, 농사꾼.
- ④ 음(飲) : 술. 음주(飲酒)로 환대하다. 마시다.

15) 불식장군육(不食將軍肉 : 장군이 주는 고기는 먹지 않았나 하네) :

- ① 장군(將軍) : 남조(南朝) 송(宋)의 호군장군(護軍將軍) 단도제(檀道濟 : ?~436)*를 가리킨다.

*단도제(檀道濟 : ?~436) : 남조 송의 고평군(高平郡) 금향현(金鄉縣), 지금의 산둥성(山東省) 가상현(嘉祥縣) 사람. 동진 말엽 유유(劉裕 : 363~422)가 무장으로서 내란평정에 공을 세우며 두각을 나타낼 때, 단도제는 유유의 참모로서 누차 태위참군(太尉參軍)을 지냈다. 그가 유유를 따라서 후진(後秦)을 공격하면서 선봉에 서서 낙양을 함락하였을 때, 그는 포로들을 모두 석방시켜 주었다. 그래서 중원의 호응을 얻었고 귀순자도 많았다.

유유가 자신이 웅립한 동진(東晉)의 공제(恭帝)에게 선양(禪讓)을 받아 주군(主君)의 나라를 멸하고 송(宋)을 건국한 뒤에는 송의 신하로 호군(護軍) 장군이 되어 영수현공(永修縣公)에 봉해졌다. 훗날 명예직이기는 하나 승진하여 사공(司空)이 된 뒤, 심양군(尋陽郡)을 안정시키자, 그의 위명(威名)이 널리 떨쳐졌고 인접국인 위(魏)나라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했다. 조정에서는 그가 모반을 꾀하지 않을까 의심스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여 그를 죽였다. 나포당할 때, 그가 노여움에 차서 외치기를 “내가 너희들의 만리장성을 허물어버리리라(乃壞汝萬里長城)!”고 하였다.

- ② 육(肉) : 원가 3년(元嘉三年, 426 : 도연명 62세)에, 도연명이 기근(饑饉)으로 인하여 병이 들자, 벼들과의 교류도 어려워졌다. 이 때 단도제는 강주자사(江州刺史)로 재직 중이었다. 단도제가 도연명을 방문하여 양육(梁肉 : 기장과 고기)을 선물하자, 도연명은 받기를 거절하였다고 한다.

이 고사는 남조의 양무제(梁武帝)의 태자이자 학자인 소통(蕭統 : 501~531)이 쓴 『도연명전(陶淵明傳)』과 『남사(南史) · 은일전(隱逸傳)』에 모두 기재되어 있다.

16) 가소도홍경(可笑陶弘景 : (나는) 도홍경陶弘景을 가소롭게 여기나니) :

- ① 가소(可笑) : 서애가 가소롭게 여기는 것은 ‘도연명의 진정한 은거와 도홍경(陶弘景)의 가식적인 은거를 비교해서 이른 것’이다. 도연명은 농부가 권하는 순수한 인정의 술 한 잔은 기꺼이 받아 마시지만, 이미 어떤 의도를 지닌 명리(名利)를 추구하는 것이 목적인 장군의 고기는 받아먹지 않았음을 서애는 읊었다. 그는 정말 자연을 사랑했다고 서애는 생각하였다.

그러나 도홍경은 은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사건건 국가대사의 차문(咨問)에 응하여, 실질적으로는 정사(政事)에 깊이 관여함으로써 세칭 ‘산중제상(山中宰相)’이란, 별칭까지 얻었다. 모산(茅山)의 사립문을 닫아 건지 오래됐다는 그 이름뿐인 은거를 서애는 비웃는 것이다.

- ② 도홍경(陶弘景 : 452 혹은 456~536) : 중국 남조 때의 양(梁 : 남제南齊를 멸하고 소

연蕭衍이 건국한 남조南朝의 세 번째 왕조)나라 학자로, 단양군(丹陽郡) 말동현(秣陵縣), 지금의 강소성(江蘇省) 남경시(南京市) 출신이다. 자는 통명(通明). 아버지가 첩에게 살해된 사실로 인하여 일생을 결혼하지 않고 지냈다고 한다. 독서한 것이 만 권(萬卷), 거문고를 잘 탔고, 바둑을 잘 두었으며, 의술본초(醫術本草)에 밝았다. 그리고 역산(曆算)·지리(地理)·음양오행(陰陽五行)·물산(物算) 등에 정통하였다. 소도성(蕭道成 : 남제南齊의 고제高帝)이 재상으로 있을 때, (당시 남조의 최초 군벌 왕조인 송나라 장군으로 있다가, 훗날 송순제宋順帝에게 양위 받아 건국한 제齊, 북제北齊와 구별하기 위해 남제라고 함) 제왕(諸王)들을 위하여, 시독(侍讀)했으며, 봉조청(奉朝請 : 고대 제후들이 봄에 천자를 배알하는 것을 조朝라 하고, 가을에 조견朝見하는 것을 청請이라 함. 이렇게 정기적으로 조회朝會에 참여하는 것이 봉조청인) 관직을 받았다. 그러나 제무제(齊武帝 : 소색蕭嶷 : 고제高帝의 아들) 영명 10년(永明十年 : 492)에 구용현(句容縣) 구곡산(句曲山), 지금의 강소성(江蘇省) 서남부의 모산(茅山)에 은거하였다.

그 후 양무제(梁武帝 : 소연蕭衍 : 재위 기간은 502~549)은 남제(南齊)의 종친으로서, 남제 말엽(501년)에 황실내란이 일어나자 기병起兵하여, 남제를 폐하고 자립하여 국호를 양梁이라 정했다. 남조 세 번째의 왕조임)가 예를 갖추어 초빙했으나, 그는 출사(出仕)하지 않았다. 양무제의 신임이 두터워서, 김홍이나 정토(征討) 등 국가대사에는 반드시 그에게 자문(咨問)을 구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그를 ‘산중재상(山中宰相)’이라 불렀다. 늙어서 호를 화양진일(華陽眞逸)이라 정했으며, 유·불·도(儒佛道)가 합류(合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저서에는 도교경전인 『진고(眞誥)』·『등진은결(登眞隱訣)』·『진령위업도(眞靈位業圖)』 등이 있고, 약학의 저서로 『본초경집주(本草經集注)』·『주후백일방(肘後百一方)』 등이 있다. 시호는 정백(貞白) 선생이다.

- 17) 모산(茅山) : 구곡산(句曲山) : 지금의 강소성(江蘇省) 구용현(句容縣) 동남에 위치한다. 본 시에서는 ‘도홍경(陶弘景)이 은거한 은거처’를 가리킨다. 원명(原名)은 구곡산(句曲山)이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서한(西漢)의 도사 모영(茅盈 : BC 145~?): 자는 숙신叔申 : 도교 모산파茅山派의 사조師祖)이 그의 아우 모충(茅衷)·모고(茅固)와 함께 이 구곡산(句曲山)에서 약초를 캐어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며 수도(修道)하였다고 해서, ‘모산(茅山)’으로 개명(改名)했다고 한다. 이들 삼형제를 세칭 ‘삼모군(三茅君)’이라 불렀다고 한다.

- 18) 벽리의(薛蘿衣) : 은자(隱者)의 의복을 칭한다. 벽라(薛蘿)는 벽려(薛荔) : 줄사철 나무. 노박 덩굴과에 속하는 상록만목常綠蔓木)와 여라(女蘿 : 선태식물에 속함. 이끼의 한 가지로, 송라松蘿)이다. 이 두 종류는 모두 야생 식물로, 산야(山野)의 수목이나 담장에 기어오른다.

초사(楚辭) 구가(九歌) 산귀(山鬼)에 “산언덕에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벽려를 걸치고 여라를 둘렀도다(若有人兮山之阿, 被薛荔兮帶女蘿)”라고 한 구절이 있다. 동한(東漢)의 왕일(王逸)이 『초사장구(楚辭長句)』에서 주(注)를 달아 말하기를, “여라(女蘿)는 토사(菟絲 : 세삼)이다. 산귀(山鬼 : 정령精靈)는 사람과 흡사하며, 산모퉁이에서 보이는데, 벽려를 옷으로 입고 토사를 혁대삼아 두른다.”고 하였다. 후세 사람들은 이 말을 차용하여 ‘은자(隱者) 나 ‘품행이 고상한 선비의 옷’을 가리키는 말로 썼다.



시47. 두보杜甫 시 「곡강삼장曲江三章」을
차운次韻하다

詩47. 曲江三章次老杜韻¹⁾
곡 강 삼 장 차 로 두 운

其一
기 일

[1]

曲江縈廻²⁾石壁高,
곡 강 영 회 석 벽 고,

곡강曲江은 감돌아 흐르고 석벽은
높은데,

秋風日夕多風濤³⁾.
추 풍 일 석 다 풍 도

해 질 무렵 추풍에 풍랑이 거세지네.

江邊老人垂二毛⁴⁾,
강 변 노 인 수 이 모

강변의 저 노인 반백머리 늘어뜨리고,

天地中間一身孤⁵⁾,
천 지 중 간 일 신 고

이 세상에 자기 혼자만 고독한 듯,

踽踽涼涼無與曹⁶⁾.
우 우 랑 랑 무 여 조

쓸쓸히 못사람과 어울리지 아니하네.

其二

[2]

秋來舉頭望原野⁷⁾,
추 래 거 두 망 원 야

가을이라 고개 들어 들판을 바라보니,

野色茫茫接林莽⁸⁾, 별판 풍경 아득하게 초목이 연이었네.
야 색 망 망 접 림 망
門前過客日無數。 문전 나그네 날마다 수없이 많은데,
문 전 과 객 일 무 수
人心不同眞如面, 인심은 실로 얼굴 생김새만큼 달랐으니,
인 심 부 동 진 여 면
翻手爲雲覆手雨⁹⁾。 손바닥 퍼면 구름 일고 뒤엎으면 비
번 수 위 운 복 수 우
내리듯 하네.

其三

[3]

此事何必問蒼天, 이런 일 하필 하늘에 물을 필요
차 사 하 필 문 창 천
있었겠나,
此身幸得¹⁰⁾歸園田。 이 몸은 다행히도 전원으로 돌아왔거늘!
차 신 행 득 귀 원 전
數間茅舍¹¹⁾白雲邊, 몇 칸 뗏집에는 백운白雲자락 닿아있고.
수 간 모 사 백 운 변
飢食青松渴飲泉。 허기지면 솔잎 먹고 목마르면 샘물
기 식 청 송 갈 음 천
마시나니,
前年如此復今年。 지난해 그러했고 금년에도 이러하네.
전 년 여 차 부 금 년

1) 곡강삼장차로두운(曲江三章次老杜韻 : 두보杜甫시 「곡강삼장曲江三章」을 차운次韻하다) :

① 곡강삼장(曲江三章) : 두보의 시제(詩題)임. ‘곡강(曲江)’을 시제(詩題)로 한 세 약장.

☆곡강(曲江) : 곡강지(曲江池) : 지금의 섬서성(陝西省) 서안시(西安市) 동남 약 5리 밖에 곡강향(曲江鄉) 일대의 움푹 파여진 저지대(低地帶)이다. (옛적의 인공호수임) 진(秦)나라 때까지는 이곳이 개주(陂洲)라 불리는 천연호수였으나 나중에 이춘원(宜春苑)이라 이름 하였고, 한(漢)나라 때는 낙유원(樂遊園)이라

칭했으며, 한무제(漢武帝) 때 확장공사를 한 뒤 이곳을 흐르는 강물의 흐름이 굽이쳐 흐른다고 하여 ‘곡강지(曲江池)’라 명명(命名)하였다고 한다. 수(隋)나라 초엽에 우문개(宇文愷: 555~612)가 대흥성(大興城)을 설계할 때 인공으로 꾸불꾸불한 호수를 파서 지어진 이름이기도 하다. 수문제(隋文帝: 541~604)는 ‘곡(曲: 굽다, 구부러지다)’이라 이름 붙이는 것이 ‘부정(不正: 바르지/곧지) 않음, 옳지 않음’ 하다 하여, 부용원(芙蓉園)이라고 명칭을 바꾸었으나, 당(唐)나라 때 호수를 확장 건설하고 난 뒤 다시 곡강지(曲江池)라고 불러 원래 명칭으로 회복하였다. 당(唐)나라 때는 이곳에 궁전이 잇달아 지어지고 누각이 세워졌으며, 매년 상사(上巳: 삼짇날, 3월 3일), 중원(中元: 7월 15일), 중양절(重陽節: 9월 9일)에는 황실종친과 고관귀족들이 이곳에 와서 흥겨워하며 술잔을 기울이고 생황(笙簧)을 불고 배를 타고 유람하면서 연회를 베풀었다고 한다.

또 매년 과거에 급제한 선비들이 이곳에 와서 경축연을 베풀었고, 사방의 주민들도 이곳을 관광했으며, 당황제(唐皇帝)도 비빈들을 데리고 이곳에 와서 즐겼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당대(唐代)의 시인들도 이곳에 와서 사람들 입에 적잖게 오르내리는 시를 지었는데, 두보(杜甫: 712~770)가 이곳 자연의 경관을 묘사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다. ‘안사의 난(安史之亂: 당현종唐玄宗 말엽인 755년에 안록산(安祿山: 703?~757)과 사사명(史思明: ?~761)이 일으킨 반란)’으로 이곳이 엄중하게 파괴되었다. 당소종(唐昭宗) 천우년(天祐年: 904) 이후 황거(黃巢)의 물결이 끊어지면서 이곳이 고갈되어 황폐해졌다. 현재의 곡강지(曲江池)는 움푹 파여진 저지대(低地帶)로 남아 있으며, 일부는 못자리도 하고 잡초가 무성한 들판이 되었으며 당년의 채하정(彩霞亭)과 자운루(慈雲樓)의 유적지가 남아 있다.

② 차노두운(次老杜韻): 두보(杜甫)의 시에서 차운하다.

☆노두(老杜): 두보(杜甫: 712~770)를 이름. 중국 당(唐)나라 말기의 시인인 두목(杜牧: 803~852)을 ‘소두(小杜)’라고 부르는데 상대하여, 두보(杜甫)를 이르는 말이다. 두보는 당나라가 가장 번성했던 시기의 시인으로, 자는 자미(子美), 호는 소릉(少陵)이다. 세칭(世稱) 두보(杜甫)를 시성(詩聖), 이백(李白)을 시선(詩仙)이라 칭한다. 이백(李白)과 병칭하여 이·두(李杜)라고도 일컫는다. 여기서 ‘노두(老杜)’라고 칭한 것은 중국인이 한 글자로 된 성씨 앞에 ‘소(小)’자를 써서 애칭을 나타내고 ‘노(老)’자를 써서는 존칭을 나타내는 관습으로 인해 붙여진 이름이다. 그의 본적은 호북성(湖北省) 양양현(襄陽縣)이지만, 출생지는 하남성(河南省) 공현(鞏縣)의 소호족(小豪族) 출신이다. 소년시절부터 시를 잘 지었으나 과거에는 급제하지 못하였고, 각지를 방랑하다가 장안(長安)으로 왔으나, 여전히 불우하였다. 44세 때 안록산(安祿山)의 난으로 적군의 포로가 되어 장안에 연금된지 1년 만에 탈출하여 새로 즉위한 숙종(肅宗)의 행재소(行在所)에 달려갔으므로 그 공로로 좌습유(左拾遺)의 관직에 오르게 되었다. 그 후로도 관운이 순탄지 못하였다. 48세 때 대기군을 만나 식량을 구하려고 감숙성(甘肅省)을 거쳐 사천성(四川省) 성도(成都)에 정착하게 되었다. 그는 이곳의 교외에 완화초당(浣花草堂)을 세우고, 당시 이곳의 절도사(節度使)였던 엄무(嚴武: 726~765)의 막료가 되어 공부원의랑(工部員外郎)의 관직을 지냈으므로 ‘두공부(杜工部)’라고도 불렸다. 이후 귀향하려고 방랑을 계속하

다가 호남성(湖南省) 동정호(洞庭湖)에서 59세를 일기로 병사하였다. 그의 시는 인간에 대한 성실(誠實)을 핵심으로 하면서, 인간의 우수(憂愁)도 깊이 표현하여, 그의 시적 제재(題材)는 시종 인간의 사실, 인간의 심리, 자연의 사실을 떠나지 않았던 관계로 지금까지 시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적 경계를 열었다. 특히 장편의 고체시(古體詩)는 주로 사회성을 다룬 관계로 세상에 서는 그의 시를 ‘시사(詩史)’라고 칭하기도 한다. 또한 당대(唐代)에 와서 새롭게 시의 전형을 이룬 근체시(近體詩)는 두보에 의해 완성되었다고 해도 좋을 만큼, 그의 율시(律詩)는 규칙을 조금도 범하지 않으면서도 내용을 자유자재로 구사하여, 그의 시에는 사상과 내용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형식과 기교에서 오는 예술성도 탁월하여, 후학들에게는 그의 율체시(律體詩)가 교과서처럼 존중받고 있다. 이처럼 그의 시는 육조시(六朝詩)와 초당시(初唐詩)에서 크게 결핍되어 있던 시적 정신도 일으켜 세웠고, 고체시에서 간과했던 형식적 측면도 강화하여 그의 시는 고체시와 근체시 모두 시의 전형(典型)을 이루었다. 대표작으로는 「북정(北征)」·「추흥(秋興)」·「삼리삼별(三更三別)」·「병거행(兵車行)」·「여인행(麗人行)」·「춘망(春望)」·「월야(月夜)」·「영회고적(詠懷古跡)」·「등악양루(登岳陽樓)」 등이 있다.

2) 영회(縈廻): ‘영회(縈回)’와 같은 뜻.

- ① 감돌다, 맴돌다.
- ② 둘러싸다.

3) 추풍일석다풍도(秋風日夕多風濤: 해질 무렵 추풍에 풍랑이 거세지네):

- ① 일석(日夕): 해질 무렵, 저녁 무렵.
- ② 풍도(風濤): 풍랑(風浪)과 비슷한 말로서, 바람과 물결, 혹은 바람이 불면서 물결이 일어나는 것을 뜻함.

4) 이모(二毛):

- ①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노인을 가리키는 말로 자주 쓰인다.
『좌전(左傳)·회공 22년(僖公二十二年)』 조항에, “군자는 부상당한 사람에게 다시 상처 입히지 않고, 반백(半白)이 된 노인을 사로잡지 않는다(君子不重傷, 不禽二毛)”고 하였다. 진(秦)나라 무장이자 학자인 두예(杜預: 224~284)가 『좌전집해(左傳集解)』에서 말하기를 “‘이모(二毛)’란, 머리카락이 희끗해져서 두 가지 색이 되었다는 뜻이다(二毛, 頭白有二色)”고 하였다.

5) 천지중간일신고(天地中間一身孤: 이 세상에 자기 혼자만 고독한 뜻):

- ① 천지중간(天地中間): 천지之間(天地之間): 천지간(天地間): 하늘과 땅 사이란 뜻으로, 이 세상을 이르는 말.
- ② 일신(一身): 자기 한 몸.

6) 우우양양무어조(踽踽涼涼無與曹: 쓸쓸히 못사람과 어울리지 아니하네):

- ① 우우양양(踽踽涼涼): 우우양양(踽踽涼涼):
☆외롭게 지내는 모양.
☆(성격이 도도하여)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 않다.
『맹자(孟子)·진심(盡心)(下)』에, “왜 이렇게 외롭고 쓸쓸하게 지내는고?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이 세상을 위해 일을 해야지, 세상에서 좋다 하면 되는 것이다(行何爲踽踽涼涼? 生斯世也, 爲斯世也, 善斯可矣)”고 하였다.

- ② 무여조(無與曹) : 못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다.
 ☆무여(無與) : 상관(관계)하지 않다
 ☆조(曹) : a. 무리, 또래. b. 못사람. c. 중인(衆人).
- 7) 원야(原野) : 원야(原野)로도 쓴다.
 ① 들판. ② 평원광야(平原廣野).
- 8) 야색망망접림망(野色茫茫接林莽) : 벌판 풍경 아득하게 초목이 연이었네) :
 ① 야색(野色) : 벌판이나 교외의 경치(풍경).
 ② 망망(茫茫) :
 ☆넓고 멀어 아득한 모양.
 ☆아득하다, 요원(遙遠)하다.
 ③ 임망(林莽) :
 ☆군생(群生)하는 초목. 초목이 군생(群生)하는 곳.
 ☆일반적으로, 고향(향토) 또는 농촌(시골)의 들판을 가리킨다.
- 9) 번수위운복수우(翻手爲雲覆手雨) : 손바닥 펴면 구름 일고 뒤엎으면 비 내리듯 하네) :
 위의 시구는 ‘(양손의) 손바닥을 펴면 구름이 일고, 손바닥을 뒤엎으면 비가 된다(翻手爲雲, 覆手爲雨)’는 말을 7언시(七言詩)에 맞추기 위해 ‘위(爲)’자 한 자를 뺀 것이다. 이 말은 두보(杜甫)의 시 「빈교행(貧交行)」에, “손바닥 펴면 구름 일고 뒤엎으면 비가 된 듯하니, 그 두서없이 경박함을 어이 다 셀 수 있으랴(翻手作雲覆手雨, 紛紛輕薄何須數)!”라는 데서 보인다.
- 10) 행득(幸得) : 운 좋게. 다행히. 요행으로.
- 11) 모사(茅舍) :
 ① 뗏집(따나 이엉 따위로 지붕을 인 초라한 집).
 ② 누추한 집(자기 집을 겸손하게 이르는 말).
 ③ 일반적으로 초가(草家 : 짚이나 갈대 따위로 지붕을 인 집)를 가리킨다.

시48. 우연히 읊다

詩48. 偶吟¹⁾
우 음



千莖白髮已垂肩,
천 경 백 발 이 수 견

천 가닥 백발이 이미 어깨에
늘어졌는데,

氣力今年減去年。
기 력 금 년 감 거 년

기력마저 금년 들어 작년보다 쇠해졌네.

世事浮雲流水外²⁾,
세 사 부 운 류 수 외

세상사는 뜬구름과 흐르는 물 대하듯
버려두고,

生涯茶鼎藥爐邊³⁾。
생 애 다 정 약 노 변

다정茶鼎과 약탕관 주변에서 생활하네.

新開小戶連修竹⁴⁾,
신 개 소 호 연 수 죽

새로 만든 작은 사립문에 긴 대나무
빗장 질러놓고,

晚戒癡奴事薄田⁵⁾。
만 계 치 노 사 박 전

만년에 어리석은 이 몸 경계하며
척박한 땅에서 일하네.

漸向靜中知損益⁶⁾,
점 향 정 중 지 손 익

점차 마음 고요해지며 득실을 깨달으니,

喟然時復一欣然⁷⁾。
위 연 시 부 일 혼 연

탄식이야 늘 하지만 한결같이 기뻐지네.

- 1) 우음(偶吟) : 우연히 읊다.
- 2) 세사부운유수외(世事浮雲流水外) : 세상은 뜬구름과 흐르는 물 대하듯 버려두고 :
 - ① 세사(世事) : 세상사(世上事) : 세상의 일.
 - ② 유수외(流水外) : 뜬 구름과 흐르는 물 대하듯 버려두다.
 ☆유수(流水) : a. 흐르는 물. b. 세월이 흘러가는 것이 빠르다는 것을 비유한 말.
 ☆외(外) : a. 폐기하다. b. 버려두다.
- 3) 생애차정약로변(生涯茶鼎藥爐邊) : 다정茶鼎과 약탕관 주변에서 생활하네) :
 - ① 생애(生涯) : 생활하다.
 - ② 다정(茶鼎) : 찻물을 끓이는 용기로 발이 셋 달린 다기(茶器).
 - ③ 약로(藥爐) : 약을 달이는 화로.
- 4) 신개소호연수죽(新開小戶連修竹) : 새로 만든 작은 사립문에 긴 대나무 빗장 질러 놓고) :
 - ① 신개(新開) : 새로 설치하다. 최근에 설치다. 새로 만들다.
 ☆개(開) : a. 건조하다. b. 짓다, 세우다. c. 설립하다, 설치하다.
 - ② 소호(小戶) :
 ☆소문(小門). 작은 문. 본 시에서는 사립문을 가리킨다.
 - ③ 연수죽(連修竹) : 긴 대나무로 빗장을 지르다.
 ☆연(連) : ‘연(漣)’과 통함. 빗장, 문빗장의 뜻. 본 시에서는 동사로 쓰여 ‘빗장을 지르다(걸다, 잠그다)’의 뜻으로 쓰였다.
 ☆수죽(修竹) : 긴 대나무. ‘수(修)’는, 공간의 거리가 멀거나, 시간의 유구함 또는 사물의 길이가 긴 것을 표현하는 자로서, ‘장(長)’ 또는 ‘고(高)’의 의미.
- 5) 만계치노사박전(晩戒癡奴事薄田) : 만년에 어리석은 이 몸 경계하며 척박한 땅에서 일하네) :
 - ① 치노(癡奴) : 어리석은 이 몸.
 ☆치(癡) : 어리석다.
 ☆노(奴) : 자칭(自稱)의 겸사(謙辭).
 - ② 박전(薄田) : 척박한 전지(田地).
- 6) 손익(損益) : 손해와 이익을 아울러 이르는 말, 이의 유의어는 ‘득실’이다.
- 7) 위연시부일흔연(喟然時復一欣然) : 탄식이야 늘 하지만 한결같이 기뻐지네) :
 - ① 위연(喟然) :
 ☆한숨을 쉬다.
 ☆탄식하다.
 ☆서글프게 탄식하는 모양.
 - ② 시부(時復) : 때때로 다시. 늘, 항상, 자주.
 - ③ 일(一) : 부사로 쓰여, 한차례씩. 온통. ‘모두, 매번, 한결같이, 줄곧, 시종(始終)’의 뜻으로 쓰였다.
 - ④ 흔연(欣然) :
 ☆기꺼이.
 ☆흔쾌히(기쁘고 유쾌하게).

시49. 가을날의 감회를 읊은 시 두 수

詩49. 秋日感懷¹⁾ 二首
추 일 감 회 이 수



其一

[1]

西齋秋夜清²⁾,
서 재 추 야 청

서재西齋에 가을의 밤기운 차갑더니,

寒露³⁾滴梧葉。
한 로 적 오 엽

찬이슬이 오동잎에 맺혔네.

耿耿⁴⁾不能寐,
경 경 불 능 매

근심 걱정에 잠 못 이뤄하면서,

窓間有宿客⁵⁾。
창 간 유 숙 객

창가에는 유숙留宿하는 나그네 서 있네.

明朝攬⁶⁾明鏡,
명 조 략 명 경

내일 아침 면경面鏡을 본다면

白髮如白雪。
백 발 어 백 설

백발이 아마도 백설 같겠네.

掩鏡長太息⁷⁾,
엄 경 장 태 식

면경面鏡을 덮어놓고 장탄식을 하는데,

天風吹颯颯⁸⁾。
천 풍 취 샷 샷

공중에서 바람이 쇄쇄 불고 있네.

其二

[2]

子眞耕谷口⁹⁾,
자 진 경 곡 구

은사隱士 정자진鄭子眞이 곡구谷口에서
농사짓자,

高名動京都。
고 명 동 경 도

그 고상한 명성 장안長安에 자자했다네.

藏身不藏名,
장 신 불 장 명

육신은 은신했으나 명성은 숨기지
못했으니,

此屬非吾徒。
차 속 비 오 도

이런 류의 사람은 나 같은 무리가
아니로세.

榮華與聲譽,
영 화 여 성 예

부귀영화와 명성과 명예,

等是空中雲。
등 시 공 중 운

이런 것은 다 허공에 뜬 구름이로세.

惟應白鷗鳥¹⁰⁾,
유 응 백 구 조

오직 백구白鷗에 호응하여,

可與洗心論¹¹⁾.
가 여 세 심 론

그와 더불어 마음 씻는 수련이나
해볼까.

1) 감회(感懷):

- ① 지난 일을 돌이켜 볼 때 느껴지는 회포
- ② 마음속으로 느끼고 생각하다.

2) 서재추야청(西齋秋夜清: 서재에 가을의 밤기운 차갑더니):

- ① 서재(西齋): 일반적으로 문인의 서재(書齋)를 가리키는데, 본 시에서는 하화마을에 위치한 원지정사(遠志精舍)의 서쪽 서재(書齋)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 ② 청(淸): 한랭하다, 차갑다.

3) 한로(寒露): 늦가을에서 초겨울 무렵까지의 이슬.

4) 경경(耿耿): 걱정거리가 쌓였다.

5) 창간유숙객(窓間有宿客): 창가에는 유숙留宿하는 나그네 서 있네):

- ① 창간(窓間): 창 가운데. 창가, 창 주변.

- ② 숙객(宿客):
 ☆투숙객(投宿客) 혹은 유숙(留宿)하는 나그네.
 ☆잠시 머물며 쉬는 나그네.
- 6) 람(覽): 람(覽)과 통하며, ‘보다, 관상(觀賞)하다’는 뜻.
- 7) 태식(太息): 태식(太息)으로도 쓴다.
 ① 소리 내어 장탄식(長歎息)하다.
 ② 장호흡(長呼吸): 길게 숨을 들이키고 길게 숨을 내쉬(을 일컫는 말(수련법의 하나로 단전호흡丹田呼吸의 일종임)).
- 8) 천풍취삽삽(天風吹颯颯): 공중에서 바람이 쇠와 불고 있네):
 ① 천풍(天風): 바람. 바람이 공중에서 일어나는 까닭에 일컫는 말.
 ② 삽삽(颯颯): 의성어로서 바람이 쌀쌀하게 부는 소리, 쇠와.
- 9) 자진경곡구(子眞耕谷口): 은사隱士 정자진鄭子眞이 곡구谷口에서 농사짓다):
 ① 자진(子眞): 정자진(鄭子眞): 정박(鄭樸: 생몰년 미상): 서한(西漢) 말엽의 은사(隱士)인 정박(鄭樸)의 자(字). 한중군(漢中郡) 포중현(褒中縣), 지금의 섬서성(陝西省) 한중시(漢中市) 서북 포성진(褒城鎭) 사람. 민간에 은거하여 수신자보(修身自保)하면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결코 아첨하면서 관직을 추구하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자신의 의지를 꺾지 않고 암석(巖石) 아래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 경사(京師: 도성都城: 수도首都)에 그 명성이 자자했다. 성제(成帝: BC 52~BC 7) 때 대장군 왕풍(王鳳: ?~BC 22)이 예를 갖추어 그를 초빙했으나 그는 불응하였다. 그의 집이 곡구(谷口: 지금의 섬서성 예천현禮泉縣 동북 오십리)에 있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를 ‘곡구정자진(谷口鄭子眞)’이라 불렀다. 『한서(漢書)·왕공양공포전서(王貢兩龔鮑傳序)』를 참조 바람.
 ② 곡구(谷口): 서한(西漢) 말엽의 은사(隱士) 정자진(鄭子眞: 정박鄭樸)의 집이 있던 곳. 지금의 섬서성(陝西省) 예천현(禮泉縣) 동북 오십 리의 지점이다.
- 10) 유응백구조(惟應白鷗鳥: 오직 백구白鷗에 호응하니):
 ① 응(應): 호응(呼應)하다.
 ② 백구조(白鷗鳥):
 ☆백구(白鷗: 갈매기).
 ☆‘회계 이는 물결’로서 ‘백파(白波)’를 비유한 말로도 쓴다.
 **역자주석: 이 구절은 ‘오직 회계 이는 물결만이 응답하니’라고도 번역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백구조(白鷗鳥)’를 물결의 뜻으로 해석한 경우이다.
- 11) 가여세심론(可與洗心論: 그와 더불어 마음 씻는 수련이나 해볼까):
 ① 가여(可與):
 ☆가(可): 의문을 나타내며, ‘시부(是否)’와 같은 말이다. 곧, ‘있겠는가, 하겠는가, ~인지 아닌지’의 뜻이다.
 ☆여(與): 개사로 ‘~와 더불어’라는 의미로 쓰였다.
 ② 세심론(洗心論): 마음 씻는 것을 공부하다. 앞의 ‘세심(洗心)’은 술목구조의 목격어이고, 뒤의 ‘논(論)’은 ‘공부하다, 연구하다’의 동사로 쓰였다.



시50. 구월 초 오경^{五更}에 누각에 올라
가을을 느껴 시를 짓다.

詩50. 九月初五夜¹⁾登樓感秋作
구 월 초 오 야 등 루 감 추 작

中夜²⁾登西樓,
중 야 등 서 루

涼風吹不休。
양 풍 취 불 휴

是時雨初霽³⁾,
시 시 우 초 제

天高雲氣⁴⁾收。
천 고 운 기 수

殘星⁵⁾三四點,
잔 성 삼 사 점

片月⁶⁾西南流。
편 월 서 남 류

白露⁷⁾下園草,
백 로 하 원 초

蟋蟀鳴啾啾⁸⁾。
실 술 명 추 추

感茲⁹⁾時節變,
감 자 시 절 변

밤이 이슬하여 서루西樓에 올라가니,

서늘한 바람이 끊임없이 불어오네.

이때 비가 막 멎으면서,

하늘에 끼었던 구름이 걷히네.

새벽녘 샛별 서너 개가 반짝이는데,

조각달이 서남쪽 창공에서 떠가네.

백로白露 되니 뜰 앞 풀잎에 이슬
맺히고,

귀뚜리도 찌르르 찌르르 울어대네.

이런 것들로 시절의 변화 느끼니,

永歎懷隱憂¹⁰⁾。
영 탄 회 은 우

말로 다 못 할 시름에 긴 한숨짓네.

萬事已黃髮，
만 사 이 황 발

만사 여의치 못하네 모발은 이미
누레졌으니，

殘生隨白鷗¹¹⁾。
잔 생 수 백 구

남은 생애 흰 갈매기처럼 자유롭고
싶으네.

平生杜少陵¹²⁾，
평 생 두 소 룡

이 한평생 소릉少陵 두보杜甫야 말로，

使我心悠悠¹³⁾。
사 아 심 유 유

내 마음 늘 한적閑適하게 해준다네.

1) 오야(五夜)：

① 즉 오경(五更). 하룻밤을 다섯으로 나눈 이름. 갑야(甲夜)·을야(乙夜)·병야(丙夜)·정야(丁夜)·무야(戊夜)를 이른다.

② 무야(戊夜)를 가리킨다. 즉 오경(五更：하룻밤을 다섯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의 마지막 부분으로, 새벽 세 시에서 다섯 시 사이를 말함)을 가리킨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2) 중야(中夜)：반야(半夜)：한밤중.

3) 제(霽)：(비나 눈이 온 후에) 날이 개다.

4) 운기(雲氣)：운무(雲霧：구름과 안개), 무기(霧氣：안개).

5) 잔성(殘星)：

① 새벽녘에 지지 않고 남아서 보이는 별.

② 새벽녘 동쪽하늘에 반짝이는 별로, 일반적으로 금성金星이라고 칭하는 별임).

6) 편월(片月)：

① 조각달(음력 초닷새 전후와 스무닷새 전후에 뜨는, 반달보다 더 이지러진 달), ‘현월(弦月：상현달과 하현달)’이라고도 함. 본 시에서는 작시일(作詩日)이 9월 초순이므로 ‘상현달(上弦月)’을 가리킨다. 상현달은 음력 매월 7~8일경에 나타나는 달의 형태로, 둥근 쪽이 아래로 향한다.

7) 백로(白露)：

① ‘이슬’을 아름답게 이르는 말.

② 이십사절기의 하나. 처서(處暑)와 추분(秋分) 사이에 들며, 9월 8일경이다.

8) 실슬명추추(蟋蟀鳴啾啾：귀뚜라미도 찌르르 찌르르 울어대네)：

① 실슬(蟋蟀)：귀뚜라미.

② 추추(啾啾)：의성어. 옛 문장을 보면 같은 ‘추추(啾啾)’라는 의성어를 가지고도 소리를 내는 사물에 따라 흉내 내는 소리를 다르게 표현하였다.

☆새 · 짐승 · 벌레의 울음소리를 흉내 냄.

전국시대(戰國時代) 초(楚)나라 굴원(屈原 : 약 BC 339~약 BC 278)의 『초사(楚辭) · 구가(九歌) · 산귀(山鬼)』에, “천둥소리 ‘우르릉 우르릉’ 울리고 비는 부슬부슬 내리는데, 원숭이는 ‘깹깹’거리며 밤중에도 울어댄다(雷填填兮雨冥冥, 猿啾啾兮又夜鳴)”고 하였다. 청(淸)나라 문학가 포송령(蒲松齡 : 1640~1715)이 쓴 문어체 단편소설집 『요재지이(聊齋志異) · 의서(義鼠)』에 “뱀이 나타나서, 죽은 쥐를 땅바닥에 뱉어냈다(蛇出, 吐死鼠於地上). (잡시 후) 쥐가 들어와서 뱀새를 맡고는, ‘찌찍’거리며 슬퍼하고 탄식하는 것 같더니, 죽은 쥐를 물고 가버렸다(鼠來嗅之, 啾啾如悼息, 銜之而去)”고 한 대목이 있다.

9) 자(茲) : 대명사로, 이, 이것.

10) 영탄회은우(永歎懷隱憂 : 말로는 못다 전하는 걱정애 긴 한숨 짓네) :

① 영탄(永歎) : 영탄(永嘆)으로도 쓴다.

☆장시간(오랫동안) 탄식하다. 거듭 탄식하다. 연이어 한숨 쉬다.

② 회은(懷隱) : 알면서도 말을 하지 않는 것이니, 말을 하려고 해도 마음의 뜻을(의사)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음을 이른다.

11) 만사이황발(萬事已黃髮), 잔생수백구(殘生隨白鷗) : 만사 여의치 못한테 보받은 이미 누레졌으니, 남은 생애 환갈매기 처럼 자유롭고 싶으네.

이 두 시구는 두보의 「촉 땅을 떠나면서(去蜀)」시의 “세상사 여의치 못했는데 이미 몸은 늙었으니, 여생은 백구처럼 자유롭고 싶으네(世事已黃髮, 殘生隨白鷗)”를 따온 것이다.(여기서 ‘세사世事’는 관본에 따라 ‘만사萬事’로 쓴 경우도 있음) 이 시는 두보가 대종 · 영태(代宗永泰) 원년(元年 : 765)에 쓴 것으로, 이 해 4월 두보의 벗인 검남절도사(劍南節度使) 겸 성도부윤(成都府尹)인 엄무(嚴武)가 세상을 뜨자, 촉(蜀)에 서의 의지처를 잃고 그 해 5월에 「촉땅을 떠나면서(去蜀)」라는 제목으로 이 5언을 시를 썼다. 본 시구는 제3련에 속한다. 두보의 시에서는 “세사이황발, 잔생수백구(世事已黃髮, 殘生隨白鷗)”로 되어 있으나, 서애는 앞의 ‘세사(世事)’를 ‘만사(萬事)’로 바꾸어 놓고 있는 것이 다를 뿐이다. 두보는 「촉땅을 떠나면서(去蜀)」에서, ‘안사의 난’으로 각자를 표류하던 중, 지금의 사천성(四川省) 성도(成都)에서 5년간 객거(客居)하다가, 친구 엄무의 죽음으로 다시 표류의 신세가 되어, 촉을 떠나면서, 자신의 만년의 행색과 보국충정의 정조(情操)를 이와 같이 읊은 것이다. 서애는 바로 두보의 그 때의 정황을 현재의 자신의 입장과 동일시하여, 본 시구에 함축시키고 있다. 즉, 위의 두 구절에서 전자는 서애 자신의 평생을 회고해 보면서, 무엇 하나 제대로 성취한 것이 없는데, 이미 늙은 몸이 되었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고, 후자는 이제 부터의 여생은 해변가를 표류하는 ‘백구(白鷗)’처럼 그렇게 세상사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은 내심을 드러내었다고 본다.

① 황발(黃髮) :

☆노년(老年) 또는 노인을 가리킨다.

☆누래진 노인의 머릿털.

12) 두소릉(杜少陵) : 당(唐)나라 시인 두보(杜甫 : 712~770)를 가리킨다. 자세한 것은 「시47」의 주석1)의 ②를 참조 바람.

① 두(杜) : 두릉(杜陵)을 가리키는 말이자, 두보(杜甫)를 가리키는 말이다.

② 소릉(少陵) : 두보(杜甫)의 호(號)이다. 소릉(少陵)은 원래 한선제(漢宣帝)의 비

(妃)인 허후(許后)의 능묘(陵墓) 명칭이다. 지금의 섬서성(陝西省) 장안현(長安縣) 동남 사마촌(司馬村) 동쪽에 있다. 이 능묘는 선제(宣帝)의 두릉(杜陵)* 18리 북쪽에 위치하고, 규모와 봉분이 모두 두릉(杜陵)보다 작은 까닭에 ‘소릉(少陵)’이라고 하였다. 두보(杜甫)는 자주 “두릉(杜陵)”이란 말로, 자기 선조가 원적지(原籍地)인 두릉현(杜陵縣)의 존경받는 귀족이었음을 표현하였으며, 자신도 이곳에 거주한 바 있었던 까닭에 자칭 호를 ‘소릉야로(少陵野老)’라고 지었고, 세칭(世稱) ‘두소릉(杜少陵)’이라 불렀다.

*두릉(杜陵):

두릉(杜陵)은 서한(西漢) 선제(宣帝) 유순(劉詢)의 능묘(陵墓) 명칭이다. 지금의 섬서성 장안현(長安縣) 동북 15리 감채촌(甘寨村) 북쪽에 있다. 당(唐)나라 시인 두보(杜甫)의 고택(古宅)이 그 서쪽에 있었던 까닭에, 두보가 자칭 ‘두릉포의(杜陵布衣)’라고 하였다. 이밖에도 두보를 가리키는 말로 ‘두릉결(杜陵桀)’·‘두릉유로(杜陵遺老)’·‘두릉로(杜陵老)’·‘두릉옹(杜陵翁)’ 등이 있고, 자칭 ‘두릉야객(杜陵野客)’이 있다.

13) 유유(悠悠):

☆침착하고 여유가 있는 모양(한가한 모양).

☆한적(閑適 : 한가하게 살며 마음 편히 지냄)한 모양.



시51. 홍중^{弘仲} 노경임^{盧景任}이 학문을 논한
시를 보내와서 그 뜻에 감동하여
차운^{次韻}하다

詩51. 盧弘仲景任 寄詩論學感其意次韻¹⁾
노 홍 중 경 임 기 시 논 학 감 기 의 차 운

聖學²⁾有淵源,
성 학 유 연 원

성인^{聖人}의 학문에는 연원이 있나니,

要言是精³⁾。
요 언 시 정 일

요점은 인심^{人心}과 도심^{道心}을 세심하게
분별하고 한결같이 도심을 유지하라는
것일세.

子思⁴⁾憂後學,
자 사 우 후 학

자사^{子思}는 후배 학자들을 걱정하면서,

又云當致曲⁵⁾。
우 윤 당 치 곡

또 말하기를 ‘극치^{極致}에 이르도록
추구하라[致曲]’ 하였네.

人心與道心⁶⁾,
인 심 여 도 심

사욕 지닌 인심^{人心}과 공리^{公理} 지닌
도심^{道心}은,

一闔還一闔⁷⁾。
일 합 환 일 벽

한쪽이 닫히면 도리어 다른 한쪽은
열린다네.

悟登九天⁸⁾上,
오 등 구 천 상

깨달으면 높은 하늘 위로 오른 듯

迷沈千丈⁹⁾壑。
미 침 천 장 학

收來放去間¹⁰⁾，
수 래 방 거 간

聖狂分寸臆¹¹⁾。
성 광 분 촌 억

我老未聞道¹²⁾，
아 노 미 문 도

心念日頗側¹³⁾。
심 념 일 파 측

如彼失路¹⁴⁾人，
여 피 실 노 인

佯佯¹⁵⁾無所適。
창 창 무 소 적

如君富年力¹⁶⁾，
여 군 당 년 력

篤志¹⁷⁾如金石。
독 지 여 금 석

庸言¹⁸⁾必加謹，
용 언 필 가 근

庸行¹⁹⁾必加飭。
용 행 필 가 직

志壹氣自隨，
지 일 기 자 수

夾持期無斁²⁰⁾。
협 지 기 무 억

하다가도,

미혹되면 천 길 구렁에 빠지는 듯
하다네.

호흡 한번 하는 짧은 순간에,

성인聖人과 광인狂人도 한 치 생각 차로
구별된다네.

내 늙어서도 아직 도리 깨닫지 못해,

생각은 날마다 한쪽으로 치우치네.

저 길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갈팡질팡하면서 갈 곳을 알지 못하네.

자네처럼 나이 젊고 원기 왕성할 때는,

뜻을 세운 의지가 금석같이 굳어야
하네.

평소에 쓰는 말도 반드시 삼가하고,

평상시 행동도 필히 신중히 행하게나.

의지가 한결같으면 기개는 절로
따르나니,

(그 의지) 마음속에 품고 단념하지 말기
바라네.

1) 노홍중경임 기사논학 감기의차운(盧弘仲景任寄詩論學感其意次韻 : 홍중弘仲 노경임盧景任이 학문을 논한 시를 보내와서 그 뜻에 감동하여 차운次韻하다) :

- ① 노홍중(盧弘仲) : 노경임(盧景任 : 1569~1620) :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안강(安康), 자는 홍중(弘仲), 호는 경암(敬菴). 장현광(張顯光 : 1544~1637 : 자는 덕晦德晦, 호는 여헌旅軒, 관직을 사양하고 학문에 전념함. 시에 류성룡도 그의 학식에 감복하여 아들을 그의 문하에 보내어 수학하게 함)과 서애(西厓)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1519년 별시문과(別試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 예문관검열을 거쳐 홍문관정자(弘文館正字)가 되었다. 그 후 예조좌랑, 강원도 순안어사(江原道巡按御使)가 되어 삼척부사(三陟府使) 홍인걸(洪仁傑 : 1541~1603, 자는 응시應時)의 비행을 적발해서 보고하였다. 그 뒤 다시 예조정랑(禮曹正郎)이 되었고, 체찰사(體察使) 이원익(李元翼 : 1547~1643, 자는 공려公勵, 호는 오리梧里)의 종사관이 되어 삼남지방(三南地方 : 충청도·전라도·경상도 세 지방을 통틀어 이르는 말)을 순찰하면서 임기응변으로 일을 잘 처리하여 그의 신임을 얻었으며, 1597년 이원익의 지시를 받고 올린 전쟁 상황의 상세한 보고로 선조(宣祖)의 신임을 얻어 교리(校里)로 임명되었다. 그 뒤 성주목사(星州牧使) 등을 역임하였다. 이에 앞서 스승 장현광의 심부름으로 정인홍(鄭仁弘 : 1535~1623, 자는 덕원德遠, 호는 내암來菴)을 만나보고 돌아와 대단히 간소한 인물이라고 말했던 일이 뒷날 정인홍에게 알려져서 무고한 탄핵을 받고 성주목사에서 파직되었다. 그 뒤 낙동강 강변에 은거하고 여생을 보내다가 선산(善山)에서 타계하였다. 승정원도승지에 추증되었다. 저서로 『경암집(敬菴集)』 7권이 있다.

2) 성학(聖學) : 성인(聖人)의 학문. 혹은 성인(聖人)이 되기 위한 학문, 즉 요(堯)·순(舜)·주공(周公)·공자(孔子)의 요법(要法)을 체득해서 왕도(王道)와 인정(仁政)을 실현하기 위한 학문이기도 하다.

내성외왕(內聖外王 : 안으로는 성인, 밖으로는 임금의 덕을 갖춘 사람이란 뜻으로, 학술과 덕행을 아울러 갖춘 사람을 이르는 말.) · 수기치인(修己治人 : 자기 몸과 마음을 닦은 후에 남을 다스림.) · 성기성물(成己成物 : 먼저 자기 자신을 성취해야 할 뿐 아니라, 나아가 자신의 대상이 되는 일체의 사람이나 사물까지 성취해야 함을 이룸)과 같은 말은 그러한 성학(聖學)의 목적을 나타내준다. 또 그것은 격치성정지학(格致誠正之學 : 격물치지格物致知와 성의정심誠意正心을 근간으로 하여 수신修身을 달성하려는 학문)으로 요약되었던 바와 같이 도학(道學)의 다른 표현이기도 했다. 격물(格物 : 사물에 이치를 철저히 탐구함) · 치지(致知 : 지식을 극대화함)로써 선(善)을 밝히고 성의정심(誠意正心)으로써 몸을 닦아서 안에 쌓으면 천덕(天德)이 되고 밖으로 정사(政事)에 베풀면 왕도가 되는 것이 도학이었기 때문이다. 성학, 즉 도학이 이와 같이 수기치인 · 격치성정이라는 ‘대학(大學)’의 공부 목적과 방법을 내용으로 한 점에서 그것은 군주(君主)를 포함한 치자(治者) 일반에게 공유되는 학문정치론이었다. 그러면서도 신화와 달리 절대성이 규정되는 군주를 위한 학문이라는 의미에서 성학은 군주학(君主學) · 제왕학(帝王學)이었다. 여기에서 성학은 제왕학과 사대부학(士大夫學)으로 분리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도전(鄭道傳 : 1337~1398)의 정치 · 사회론에서 인정(仁政) · 왕도정치론과 함께 수기치인(修己治人)의 기본이념이 천명된 이래, 조광조(趙光祖 : 1482~1519)의 도학(道學) · 지치주의(至治主義 : 유교로써 정치와 교화의 근본을 삼아야

한다는 사상에 입각한 왕도정치의 실현을 지향한 철학) 정치론을 거쳐 이언적(李彦迪 : 1491~1553)에 이르러 성학론이 정면으로 거론되었다. 성학을 『대학』과 관련시키면 서도 그와 구별되는 군주학·제왕학의 범주로서 정립시키게 되는 것은 주희의 문집과 어록을 통한 주자·주자학 연구가 한층 구체화되는 16세기 중엽에 이르러서였다. 이 시기의 성학론은 이황(李滉 : 1501~1570)의 『성학십도(聖學十圖)』와 이이(李珥 : 1536~1584)의 『성학집요(聖學輯要)』에 의해서 2가지 경향으로 특정 지워진다. 우선 양자가 모두 『대학』의 학문방법을 택하며 삼대지치(三代之治 : 하(夏)·殷·주(周) 삼대三代와 같은 세상을 만들 덕치德治를 근본으로 하는 통치술)를 목표로 하는 점에서는 일치했다. 그러나 전자가 주자학 전체의 체계를 모두 열거하되 오직 성학의 입도지문(入道之門)·적덕지기(積德之基 : 백성에게 덕을 많이 베푸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통치술)를 보이는 데 치중한 것에 비해, 후자는 『대학』만의 체계를 원용하면서도 학문의 태도로서 찰리지정(察理之精 : 산하의 말을 듣고 그 말이 의리에 맞는 지와 그 결과가 무엇 인지를 깊이 살핌)·천리지독(踐履之篤 : 실천하는 것이 독실하여 실수가 없게 함)을 강조하고 각 실천덕목에는 선유(先儒)의 학설을 광범위하게 인용, 상세한 예시를 보이고 있는 점에서 다른 면모를 보인다. 즉 이들은 성학 일반론에서는 일치하면서도 군주학·제왕학이라는 범주에서는 그 의미를 달리했다.

이황(李滉 : 1501~1570)이 주자학 자체를 성학(聖學)으로 보아 군주 스스로 여기에 응하도록 유도하는 입장이라면, 이이(李珥 : 1536~1584)는 실제의 각 사안(事案)에 나아가서 그 규범과 절차를 명시함으로써 군주의 의리와 행동을 직접 규제하려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황은 성학을 본래 의미의 수기치인지학(修己治人之學 : 제왕이 자기 자신을 먼저 잡고 닦은 후에 백성을 다스리는 도道を 배워야 함)으로 보고, 군주의 도리가 그러하므로 군주는 여기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이이는 현신(賢臣)이 나서서 성학의 이름으로 군주를 교도하여 그 기질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일종의 군주개조론(君主改造論)이었다. 이와 같이 볼 때 이황이 제시한 성학은 치자 일반의 규범과 절제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정도로, 정치역학의 측면에서 군주와 신하의 상호규제 관계는 보이지만 신하의 일방적인 군주제약의 의도는 보이지 않는다. 반면 이이의 경우와 같이 성학을 군주학·제왕학으로 보고 신하집단 주도의 군주교도론(君主教導論)으로 적용하게 되면, 성학은 신하 우위의 정치운영을 의도하는 군주권 제약의 장치가 된다. 후에 이이 계열의 학자관료들이 정국을 주도하면서 정치운영의 원리로 이와 같은 군주권 제약의 논리를 내세우게 되는데 송시열(宋時烈 : 1607~1689)의 경우에는 관료주도의 정치를 더욱 강조하는 세도론(世道論 : 세상을 올바르게 다스리는 도리의 논리)까지 제시했다. (이상은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서)

3) 요언시정일(要言是精一 : 요점은 인심人心과 도심道心を 세심하게 분별하고 한결같이 도심을 유지하라는 것일세) :

① 요언(要言) :

☆요점을 간추린 정확한 말.

☆요건(要緊 : 매우 중요함)한 말.

② 정일(精一) : ‘유정유일(惟精惟一)’의 약어로, 출전은 『서경(書經)·대우모(大禹謨)』에 보인다. 『중용장구서(中庸章句序)』에서, 자사(子思)가 도학(道學)이 실천될 것을 우려하여, 요(堯) 임금의 아들(舜) 임금에게 전수해주었다는 “진실로 그 중정(中正)의 도(道)를 잡으라(允執厥中)”는 말씀과, 순임금이 여기

에 새로운 세 마디, 즉 “인심은 위태롭고, 도심은 은미(隱微)하기 때문에, 오로지 (인심과 도심을) 세심하게 분별하고 오직 한결같이 도심을 유지해야 한다(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는 말을 덧붙여서, 우(禹)임금에게 충 16자(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의 심법(心法)을 전해주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바로 이 심법은 『중용(中庸)』의 정수(精髓)로서, 그 이후 성탕(成湯)과 문왕(文王)·무왕(武王) 및 주공(周公) 등이 전수받았다. 주희는 이러한 성인의 심법을 궁구하고 실천하는 학문을 도학(道學)이라 부르고 도통(道統)은 이 16자의 정신을 올바르게 전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다.

그래서, 이 16자는 유학(儒學)의 정수(精髓)가 있는 곳이며, 마음으로 유학(儒學)의 가르침을 전하는 유학전수심법(儒學傳授心法)이기도 하다. 위 예문 중의 ‘유정유일(惟精惟一)’ 즉, ‘정일(精一)’은 심법의 핵심이 되는 말이다.

4) 자사(子思 : BC 483~BC 402) : 공급(孔伋) :

그는 전국시대(戰國時代) 노(魯)나라 추읍(陬邑), 지금의 산둥성 곡부시(曲阜市) 동남 40리 출신으로, 노나라의 유학자이다. 성씨는 공(孔), 이름은 급(伋), 자는 자사(子思). 공자(孔子 : BC 551~BC 479)의 손자이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증자(曾子 : BC 505~BC 376)의 스승이었다. 성(誠)과 중용(中庸)이 그의 학설의 핵심이다. 맹자(孟子 : 약 BC 372~BC 289)가 그의 학설을 발전시켜 사맹학파(思孟學派 : 공자→증자→자사→맹자로 이어지는 학통學統)를 형성하였다. 명(明)나라 가정년간(嘉靖年間 : 1522~1566)에 ‘술성(述聖 : 자사의 봉호封號)’으로 추존(推尊)되었다. 『예기(禮記)』 중의 「중용(中庸)」과 「표기(表記)」 및 「방기(坊記 : 육례六禮의 내용을 기록한 것)」 등의 저자였다. 그 외에 『자사(子思)』가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실전(失傳)되었다.

5) 치곡(致曲) : 이 말은 『중용(中庸) · 23장』의 ‘기차치곡(其次致曲)’으로부터 시작되는 구절에서 나오는 말이다. 역대 학자들의 다양한 해석이 있으나, 송(宋)나라 유학자 주희(朱熹 : 1130~1200)의 집주(集注)로써 아래와 같이 요약한다.

① 주희(朱熹)의 ‘기차치곡(其次致曲)’에 대한 주석.

☆기차(其次) :

주희는 『중용장구(中庸章句) · 23장』에서, “‘기차(其次)라는 말은’ 대현(大賢 : 성인聖人)이라는 말과 통하며, 무릇 성실함이 지극함에 이르지 못한 자라서 이르는 말이다(其次通大賢之下, 凡誠有未至者而言也)”고 하였다. 『중용 · 21장』에서 ‘덕성(德性)에 있어 성실하지 않음이 없고, 그것을 밝힘에 맞지 않음이 없는 자’인 ‘자성명(自誠明)’의 본성을 갖춘 자를 성인(聖人)으로 보았다. 이런 사람은 그 앞 장(章)에서 언급했듯이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그 덕성이 갖춰졌고(不思而得),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함이 없는 중도(中道)를 행하는 자이며(從容中道)’ 자연스럽게 천도(天道)에 부합되는 천부적인 품성을 지닌 자이다. 『중용 · 22장』에서도 그 앞 장(章)에 이어서 성인(聖人)의 품성을 논했는데, 그 핵심 내용은 ‘지성진성(至誠盡誠)’이다. 여기서의 ‘성(誠 : 성실함)’은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 나아가서 우주만물을 생성하고 운행하게 하는 원동력’이기에, 옛 사람들은 ‘성(誠)’을 ‘천도(天道 : 하늘의 도리)’라고 하였다. ‘성(性 : 성품)’은 ‘인(仁) · 의(義) · 예(禮) · 지(智)’를 가리킨다. ‘지성진성(至誠盡誠)’은 곧 ‘무엇을 생각하든 어떻게 언행하든 간에 천부적으로 천도(天道)에 어긋남이 없고, 총체적으로 성실하여 조금도 결함이 없는 사람’을 이른다. 이런 사람이 인간

최고 경지의 본보기인 ‘성인(聖人)’인 것이다. 앞에서 말한 ‘기차(其次: 그 다음 단계)’란, 바로 이 ‘성인(聖人)’의 다음 단계인 현인(賢人)’을 이르는 말이다.

☆치곡(致曲): ‘기품(氣稟)의 편향(偏向), 즉 ‘기질의 차이’가 있지만, ‘일마다 극치(極致)에 이르기까지 성실함을 추구하다’는 뜻이다.

a. 치(致): “극치에 이르기까지 추구하다(推致也)”는 뜻으로, 심혈을 기울여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b. 곡(曲): 『주자어류(朱子語類 권64)·중용(中庸) 23장』에서, “곡(曲)은 기품의 편향(偏向: 한쪽으로 치우침)’이다(曲是氣稟之偏)”고 하였다.

예를 들면 기품이 순박한 사람은 성품이 온후하고 자상하여 ‘인(仁: 어짊)’을 행하면 천성을 다 발휘할 수 있지만, ‘의제(剛毅)’는 강하지 못하다. 의지가 강한 사람은 ‘의(義: 의리)’를 행하는데 강하다는 것이다. 효(孝)에 독실(篤實)한 사람도 있고, 제(悌: 화목함·공경함)에 남달리 성실한 사람도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타고난 품성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진 것을 ‘곡(曲)’이라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사에 극치(極致)에 이르도록 성실함(誠)을 다하는 사람이 바로 현인(賢人)인 것이다. 그렇게 해야 진성(盡誠)을 지니 총체적으로 성실하고 조금의 흠결도 없는 성인(聖人)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다.

“제자가 ‘치곡(致曲)’을 묻자, 주자(朱子)가 답하기를: 반드시 일마다 극치(極致)까지 이르러야 하나니, 예를 들면 효도·공경·인의(仁義)를 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일마다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까지 성(誠: 성실함)을 다해야, 마침내 완성된다(問致曲, 曰: 須件件致去, 如孝如悌 如仁義, 須件件致得到誠處, 始得)”고 하였다.

“제자가 또 ‘치곡(致曲)’을 묻자, 답하기를: ‘치곡(致曲)’은 일을 추구함에 있어서 힘을 다해야 하나니, 일마다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까지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問致曲, 曰: 曲是逐事上著力, 事上推致其極). 예를 들면, 임금을 섬기면 그 충성을 다해야 하고, 아버지를 모시면 그 효도를 다해야 하며, 사람들과 교제하면 그 신의를 다해야 하나니, 이 모든 일마다 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까지 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如事君則推致其忠, 事親則推致其孝, 與人交則推致其信, 皆事上推致其極)”고 하였다.

그리고 계속되는 문답에서, ‘타고난 성품의 장점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까지 도달해야 한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장점뿐만 아니라 ‘하는 일마다 극치(極致)에 이르도록 성실함(誠)을 다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곡(曲)은 전체가 아니라, 단지 한 굵이일 따름이다(曲不是全體, 只是一曲)”고 하였다.

또 제자가, ‘치곡(致曲)’이란 것이 타고난 품성상 단점이 있는 부분에만 심혈을 기울여 그것을 보완하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하면서, 인(仁)·의(義)와 효(孝)·제(悌)를 상호 보완해 가면서 부족한 곳에 정성을 들이는 공부가 치곡(致曲)이라고 하였다.

6) 인심여도심(人心與道心: 사육 지닌 인심人心과 공리公理 지닌 도심道心은)

:

인심과 도심을 분별(分辨)한 것은 주자학의 정수(精髓)이다. 주희는 인심도

심설이 요순을 비롯한 성인의 ‘상전지도(相傳之道)’라고 생각하였다. 이른바 “인심은 위태롭기만 하고(人心惟危), 도덕심은 은미하기만 하니(道心惟微), (인심과 도심을) 오직 세심하게 분별하고 오직 도심을 한결같이 유지해야(惟精惟一), 진실로 그 중정(中正)의 도를 성실히 잡을 수 있으리라(允執厥中)”고 하는 것이 요·순·우(堯舜禹)가 전해준 밀지(密旨)라는 것이다. (『주문공문집(朱文公文集)』 권36, 「담진동보(答陳同甫)」에도 보임)

주희는 인심(人心)과 도심(道心)이 구별되는 것은 대개 그것은 형기(形氣)의 사사로움(形氣之私)에서 생겨나기도 하고, 성명의 바름(性命之正)에서 근원되기도 하여 지각되는 바가 서로 같지 않기 때문에, 위태로워 불안하기도 하며, 정미(精微)하므로 살펴보기도 힘들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람은 이 형기(形氣)가 없을 수 없으므로 상지(上智)라도 인심이 없을 수 없으며, 또한 이 성(性)이 없을 수 없으므로 하우(下愚)라도 도심이 없을 수 없다(『주문공문집(朱文公文集)』 권11·무신봉사(戊申封事)에 보임)는 것이다. 여기에서, ‘성명지정(性命之正)’은 곧 ‘도심(道心)’이고, ‘형기지사(形氣之私)’는 곧 ‘인심(人心)’이라는 등식이 성립된다.

또한 주희는 마음[心]은 오직 하나이기 때문에, 지각이 이목(耳目)의 욕구를 따르게 되면 인심이고, 의리(義理)를 따르게 되면 도심이라는 것이다. (『주자어류(朱子語類)』 권78에 보임) 또한 주희는 도심은 선(善) 또는 지선(至善)이 되나, 인심은 선도 악도 될 수 있으며, 인심이 형해(形骸)를 쫓아 발출(發出)하게 되면 쉽게 악에 빠진다(같은 책 권78에 보임)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인심과 도심의 모순은 형성된다. 이와 같은 모순은 한쪽이 다른 한쪽을 이기는 형식을 통해 표출된다. 같은 책 권 120에서, “안자(顔子)도 단지 인심으로 하여금 도심의 명령을 주의 깊게 듣도록 하여[聽命] 인심이 도심을 이길 수 없게 하였을 뿐이다. 지금 반드시 항상 정일(精一)한 쪽으로 선택하여 도심으로 하여금 주인노릇을 하게하고, 인심은 단지 손님같이 하면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도심과 인심의 상호관계적 관점에서 본다면, 주희는 다시 양자(兩者)는 통일적인 것이며, 둘이 아니고 하나임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 도심은 인심지간(人心之間)에서 뒤섞여 나오기 때문에 은미하여 찾아내기 힘들므로 반드시 하나하나에 정일(精一)을 기하고 난 후에 그 중심(中庸)을 잡아야 한다(같은 책 권62에 보임)고 하였다. 말하자면, 양자는 마치 내 가운데 내가 있고, 네 가운데 내가 있다는 것과 같이 서로 점유하고 있는 상태라 하겠다.

7) 일합환일벽(一闔還一闢 : 한쪽이 닫히면 도리어 다른 한쪽은 열린다네) :

본 구절은 바로 인심(人心)과 도심(道心)의 상호배척성을 읊은 것이다. 위의 주석6)을 참조 바람.

① 환일벽(還一闢) :

☆환(還) : 도리어, 오히려, 반대로, 역으로.

8) 구천(九天) :

① 하늘의 중앙과 팔방(八方 : 四正, 四隅를 이룸)을 이룸. 곧 ‘하늘’ 이란 뜻으로, 지금 이 높은 것을 형용한다. 고대인은 ‘하늘’이 구중(九重 : 구중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여 ‘구천(九天)’을 ‘구중천(九重天)’이라 불렀으며, 구소(九霄)로도 쓴다.

『초사(楚辭)·이소(離騷)』에, “저 하늘을 가리켜 나를 증명해 달라고 청하리니(指九天以爲正兮), 모든 것은 오로지 군왕을 위했기 때문이었네(夫唯靈脩之故

也)”라고 하였다. 동한(東漢)의 학자 왕일(王逸)이 그의 『초사장구(楚辭章句)』에서 주(注)를 달기를, “구천(九天)은 하늘의 중앙과 8방을 이른다(九天爲中央八方也)”고 하였다.

9) 천장(千丈): 지극히 길거나 높거나 깊은 것을 표현한 말.

① 장(丈): 이는 길이의 단위로서, 1장(丈)은 10척(尺), 3.33미터이나, 본 시에서는 개략적인 단위로 쓰였음.

10) 수래방거간(收來放去間): 호흡 한번 하는 짧은 순간에):

① 수래방거(收來放去):

☆호흡하다, 숨을 쉬다. 도가(道家)에서, 단전호흡으로 탁기(濁氣)를 내 뱉고 청기(淸氣)를 들이키는 것을 이른다.

11) 성광분촌역(聖狂分寸臆): 성인聖인과 광인狂인도 한 치 생각차로 구별된다네):

① 성광(聖狂):

☆성인(聖人)과 광인(狂人):

‘성광(聖狂)’이란 용어는 『상서(尙書)·다방(多方)』편에 보인다. 먼저 ‘다방(多方)’ 해제(解題)를 통해서 당시 상황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갑골문(甲骨文)과 서주(西周)의 문헌에는 여러 곳에서 ‘국(國: 나라)’을 ‘방(方)’이라 칭하였으니, 여기서의 다방(多方)’은 ‘중국(衆國: 여러 나라)’이란 뜻이다. 당시 주왕조(周王朝)는 은왕조(殷王朝)를 멸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시기라, 동방의 잔여 은왕조 제후국들의 반란이 끊이지 않았다. 어린 나이에 등극한 성왕(成王)을 도와 섭정하던 주공(周公)이 동정(東征)을 마치고 귀정(歸政)한 그 이듬해 다시 회이(淮夷: 회하淮河 유역에 거주하던 부족)와 엄(奄: 지금의 산둥성 곡부성曲阜城 동쪽에 있었던 은나라 제후국)이 반란을 일으키자, 성왕이 친정(親征)하여 토벌하고 엄(奄)을 멸하였다. 성왕이 호경(鎬京: 주무왕周武王 당시에 건설되었던 도성都城. 지금의 섬서성陝西省 장안현長安縣 서남입)에 귀환하자, 각 제후국 군주들은 주성왕(周成王)을 알현하고 하례(賀禮)를 올렸다. 그 때 주공(周公)이 성왕(成王)을 대신하여 각 제후국 군주들에게 은주왕(殷紂王: ? ~?, 은나라 마지막 임금. 이름은 제신帝辛. 주색酒色과 폭정으로 민심을 잃고 주무왕周武王에게 피살됨)이 무도(無道)하여 자멸(自滅)을 초래한 것임을 설명하고, 주왕(周王)은 인정(仁政)을 실현하여 민심을 얻으면서 천의(天意)를 이어받아 은(殷)을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왕명(王命)에 불복하는 자는 천벌(天罰)을 면치 못할 것임을 경고하였다. 이것이 「다방편(多方篇)」의 경문(經文) 내용이다. 이 내용 중의 중요한 한마디는 “명철 통달한 사람이 숙고(熟考)하지 않으면 오만무지한 사람이 되고(惟 聖罔念作狂), 오만무지한 사람도 숙고하면 명철 통달한 사람이 된다(惟狂克念作聖)”고 한 말이다.

송대(宋代)의 유학자 채심(蔡沈: 1167~1230, 주희의 제자)은 그의 저서 『상서집전(尙書集傳)』에서 ‘성광(聖狂)’ 두 자에 대해 ‘성(聖)을 통명(通明: 사리 통달한 사람), ‘광(狂)’을 ‘혼우(昏愚: 명철하고 어리석은 사람)’라고 해석하였다. 그 후 청대(清代)의 유학자 손성연(孫星衍: 1753~1818)은 그의 저서 『상서금고문주소(尙書今古文註疏)』에서 동한(東漢)의 유학자 서간(徐幹: 171~217)의 저서인 『중론(中論)·법상편(法象篇)』과 정현(鄭玄: 127~200)의 『상서대전주(尙書大傳注)』를 인용하여 해석하기를, ‘생각이 통달한 것(心思通明)’을

‘성(聖)’이라 하고, ‘거만한 것(倨慢)’을 ‘광(狂)’이라고 해석하였다. 통명(通明), 즉 사리 통달하면 아무런 장애가 없다. 예를 들어 요순(堯舜) 같은 사람은 천하를 다스릴 수도 있었고, 천하를 양위(讓位)할 수도 있었다. 역으로, 사리 통달하지 못하면 잘못을 저지르고 어리석다. 어리석으면 어리석을수록 겸손하지 못하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거만하게 군다. 『상서(尚書)·서백감려(西伯戡黎)』편에서 보듯이, 은왕조(殷王朝) 말엽, 당시 제후국이던 주(周)의 서백(西伯 : 후일의 주문왕周文王의 당시 벼슬 명칭)이 은(殷)의 제후국이던 여(黎)나라와 싸워 승전하자, 은주왕(殷紂王)의 현신(賢臣)인 조이(祖伊)가 공포에 질려 다급하게 주왕(紂王)에게 달려가 “지금 우리 백성들은 대왕이 멸망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今我民, 罔弗欲喪)”라고 직언하면서, 반성을 촉구했으나, 주왕(紂王)은 “나의 생사는 하늘에 달려있지 아니한가(我生不有命在天)?”라고 하면서 주색과 폭정을 지속했다. 이것이 바로 분별없이 방자한 것이다(狂妄).

당(唐)나라 학자 공영달(孔穎達 : 574~648)은 『상서집전(尚書集傳)』에서 말하기를 “성인(聖人)의 덕성을 지닌 사람이라도 선(善)을 생각하지 않으면 광인(狂人)이 되고(惟聖人無念於善則爲狂人), 어리석음이 잠재되어 있는 사람일지라도 선(善)을 염두에 두면 성인(聖人)이 된다(惟狂人能念於善則爲聖人). 하왕조(夏王朝)의 걸왕(桀王)과 은왕조(殷王朝)의 주왕(紂王)으로 말하자면 실재로 거만하고 어리석었던 것이 아니라, 선(善)을 생각하지 않았던 까닭에, 멸망했다(言桀紂非實狂愚, 以不念善, 故滅亡)”고 하였다. 이것은 사람마다 오만무지한 미치광이도 될 수 있고 성인(聖人)도 될 수 있다는 도리를 해석한 것이다. 요순(堯舜)은 “망념(罔念 : 선을 생각하지 않음)”을 결코 하지 않았고, 걸주(桀紂)는 “극념(克念 : 나쁜 생각을 극복함)”하지 못했다. 『중용』에서 말하는 “하늘이 내려준 본성(天命之爲性)”과 『대학』에서 말하는 “밝은 덕성(明德)”은 사람마다 지니고 있다. 수양을 통해 그 도리를 행하면 성인(聖人)이 되고, 어리석음에 가려져 악을 쌓으면서도 반성하지 못하면 광인(狂人)이 되는 것이다. 『대학』에서 말하는 “사물의 이치를 철저히 탐구하는 것(格物)”도 오만과 어리석음에 가려진 덕성을 밝히기 위한 수련인 것이다. 사람마다 배움을 통해서 성인(聖人)이 될 수 있다

(이상은 대만臺灣 출신의 현대 유학자 서성민(徐醒民 : 1928~, 본명은 자명自明. 호는 자민自民) 선생의 『유학간설(儒學簡說)』을 참조함)

② 분촌역(分寸臆) :

☆분촌(分寸) : 일 분(一分) 일 촌(一寸)이란 뜻으로, 아주 적음을 비유로 이르는 말.

☆억(憶) : 생각(하다). 생각해낸다, 상기한다. 상기시킨다.

12) 문도(聞道) :

① 어떤 종류의 도리를 깨닫다.

② 모종(某種)의 도(道 : 천리天理 : 모든 사물이 당연히 따르고 지켜야 할 도리)를 터득하다.

『논어(論語)·이인편(里仁篇)』에, “아침에 도리를 깨달으면(朝聞道), 저녁에 죽어도 좋으리라(夕死可矣)”고 하였다.

- 13) 심념일파측(心念日頗側) : 생각은 날마다 한쪽으로 치우치네) :
 ① 심념(心念) : 심중(心中)의 사념(思念).
 ② 파측(頗側) : 편파적이다, 불공정하다.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치다.
- 14) 실로(失路) : 길을 잃다.
- 15) 침창(倭偃) :
 ①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는 모양.
 ② 맹인(盲人)이 길라잡이를 놓치고 길을 잃은 채 갈팡질팡하는 모양.
- 16) 부년력(富年力) : 나이 젊고 원기 왕성한 젊은이를 가리킨다.
 ① 부년(富年) : 젊고 원기왕성한 장정 시절.
 ② 력(力) : 원기.
- 17) 독지(篤志) :
 ① 전심일지(專心一志) : 전심치의(專心致意) : 전심치지(專心致志) : 전심전력으로 몰두하다 : 온 마음을 다 기울이다.
 ② 입지불변(立志不變) : 뜻을 세웠으면(포부를 가졌으면) 변하지 말고 온 힘을 다해 노력하다.
- 18) 용언(庸言) : 평상시에 쓰는 말.
 『주역(周易) · 건괘(乾卦)』의 주석(註釋) 중에, 공자(孔子)가 말하기를, “평상시의 말이 신뢰받고, 평상시의 행동이 근신한다(庸言之信, 庸行之謹)”고 하였다. 당대(唐代)의 학자 공영달(孔穎達 : 574~648)이 이 구절에 소(疏)를 달기를, “용(庸)은 중용(中庸) :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없으며 평상적이고도 불변적인 것)과 평범함을 이르는 것이다(庸謂中庸庸常也)”고 하였다. 이에, 전(轉)하여 용(庸)을 ‘평범(平凡) · 평상(平常)’의 뜻으로 쓴다.
- 19) 용행(庸行) : 평상시의 행동.
- 20) 협지기무역(夾持期無數) : (그 의지) 맘속에 품고 단념하지 말기 바라네) :
 ① 협지(夾持) : 협지(挾持) : (지향하는 바의 생각이나 의견 등을) 마음에 품다.
 ② 무역(無數) : 무진(無盡) : 다함이 없다. 끝이 없다. 본 시에서는 체념(諦念)하지 말라. 단념하지 말라는 뜻으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
 ☆역(數) : 종료하다. 종지(終止)하다.



시52. 이종질^{姨從姪} 김부^{金縵}와 죽 이야기를
하면서 시를 지어 한바탕 웃음거리로
삼다

시52. 與族姪金縵¹⁾論粥 作詩記之 資一笑
여 족질 김 부 논 죽 작 시 기 지 자 일 소

年饑²⁾食不足,
년 기 식 부 족

흉년이 들어서 먹을거리 부족하여,

性命寄³⁾饘粥。
성 명 기 진 죽

연명延命을 죽 쑤어 먹는 것에 의지하네.

金生宣城來⁴⁾,
김 생 선 성 래

김군이 예안禮安에서 왔는데,

所患亦在食。
소 환 역 재 식

걱정거리는 역시 식량에 있었네.

相與⁵⁾論粥品,
상 여 논 죽 품

죽 품질 놓고 서로 견해를 주고받다가,

色味詳推擇⁶⁾。
색 미 상 추 택

색과 맛을 들어 추천할 걸 택하자 했더니.

金生欣然⁷⁾笑,
김 생 혼 연 소

김군은 흔쾌히 웃으며 말하기를,

豆粥⁸⁾眞第一。
두 죽 진 제 일

팥죽이 진실로 제일이라 하네.

我頗慣食麥,
아 파 관 식 맥

나는 보리죽 먹기에 꽤나 익숙해졌는데,

恥麥居後列。
치 맥 거 후 열

良久各分疏⁹⁾，
양 구 각 분 소

固守終不服。
고 수 종 불 복

我言¹⁰⁾相等耳，
아 언 상 등 이

不必強優劣。
불 필 강 우 열

蕪蕪與滹沱¹¹⁾，
무 무 여 호 타

一般救文叔¹²⁾。
일 반 구 문 속

終然¹³⁾勝菜羹，
종 연 승 채 갱

足解飢腸熱¹⁴⁾。
족 해 기 장 열

傍有富家子，
방 유 부 가 자

撫掌一大噓¹⁵⁾。
무 장 일 대 각

吾家不喫粥，
오 가 불 먹 죽

玉食¹⁶⁾眞不惡。
옥 식 진 불 오

보리죽을 나중에 열거하니 달갑지 않았네.

한참 동안 각자가 죽을 평가하여
설명했지만,

자기 견해 고수하며 끝내 승복하지
않았네.

자기주장만 하는 자세 서로가 같아서,

굳이 우열까지 가릴 필요 없다 했네.

무루정蕪蕪亭의 죽과 호타하滹沱河
강변의 보리밥은,

다같이 한광무제漢光武帝 유수劉秀를
구했다네.

(이는) 결국 죽이 나물국보다 나았음이니,

(죽은) 굵주린 배 채우기에 충분하다네.

옆에 있던 부잣집 자제가,

손바닥 치며 한바탕 꺾꺾대고 나서.

“우리 집에는 죽을 먹지 않으니,

쌀밥 먹는 것도 실로 나쁘지 않소이다”
하네.

1) 족질김부(足姪金類):

① 족질(族姪): 족질이란 뜻은 ‘성과 본이 같은 사람들 가운데 유복지친(有服之親: 복제服制에 따라 상복을 입어야 하는 가까운 친척) 안에 들지 않는 조카뻘이 되는 사람’이다. 그러나 본 시에 쓰인 이 ‘족질(族姪)’이란 말은 ‘이종질(姨從姪: 이종의 아들)’의 뜻으로 쓰였다. ‘이종질’로 표기해야 할 것을 족질로 오기(誤記)한 것인 지, 아니면 당시에는 이종질도 족질로 표현할 수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② 김부(金類: 1550~1630): 자는 자양(子昂), 호는 신암(愼菴), 본관은 안동(安東)으로, 눌재(訥齋) 김생명(金生溟: 1504~1577)의 차자(次子)이다. 김부(金類)는 입암(立巖) 류중영(柳仲郢: 1515~1573: 서에 류성룡의 부친)의 처형(妻兄: 이모 상락上洛 안동 김씨)의 손자이니 서에 류성룡의 이질이 된다. 관직은 승사랑(承仕郎: 조선시대에 둔 종팔품의 품계), 건원릉(健元陵: 조선 태조의 무덤. 지금의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에 있음) 참봉(參奉: 조선시대 여러 관아에 둔 종구품 벼슬. 능, 종친부 돈녕부·내의원·군기시 따위에 두었음)이었다. 일찍이 그는 겸암(謙菴) 류운룡(柳雲龍: 1539~1601)과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 1542~1607) 형제에게 나아가 학문을 익혔다. 그는 밋들과 함께 마곡(磨谷: 지금의 경북 안동시 녹전면祿轉面 구송리九松里) 남쪽에 서원(書院)을 지었는데, 이곳에서 여러 생도들이 모여 학문을 닦았다. 그의 사후에 집안의 화재로 인해 문헌이 소실되어 상세한 이력은 알 수 없으나, 위의 기록은 그의 증손 김수함(金壽咸)이 그에 대해 쓴 행장(行狀: 죽은 사람의 평생 이력을 적은 글)을 기초로 하여 개략한 것이다.

☆김생명(金生溟: 1504~1577): 자는 사호(士浩), 호는 눌재(訥齋), 본관은 안동(安東). 서에 류성룡의 ‘논죽시(論粥詩)’를 받은 김부(金類)의 부친이다. 31세 때인 1534년(중종中宗 28)에 진사(進士)에 합격하고 성균관에 유학한 뒤 퇴계(退溪) 이황(李滉: 1501~1570) 문하에 들어갔다. 학행(學行)으로 추천되어 경산훈도(慶山訓導)와 참봉(參奉)에 제수(除授)되었다.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의 이종형이다. (본 자료는 풍산류씨豐山柳氏 종친인 화암和巖 류동주柳東柱 선생이 제공한 것임)

2) 연기(年飢): ‘연기(年飢)’로도 쓰며, ‘흉년이 들다, 기근(飢饉: 饑饉)이 들다’는 뜻이다.

3) 성명기전죽(性命寄饘粥: 연명延命을 죽 쑤어 먹는 것에 의지하네):

① 성명(性命): ‘생명, 목숨’을 달리하는 말이나, 여기서는 연명을 하더라는 동사로 번역하였음.

② 전죽(饘粥): 전죽(饘粥)이라고도 쓰며, ‘된 죽과 묶은 죽’ 또는 총괄하여 ‘죽’의 뜻으로 쓰기도 함.

☆전(饘): 된 죽. 죽을 쑤어 먹다.

☆죽(粥): 죽(粥)과 동자(同字)이며, 묶은 죽의 뜻.

4) 김생선성래(金生宣城來: 김군이 예안禮安에서 왔는데):

① 김생(金生): 김군(金君)을 가리킨다.

☆생(生): 생(甥: 생질: 누이의 아들)과 통함. 본 시에서는 이종질을 가리킨다.

② 선성(宣城): 지금의 경북 예안면(禮安面)의 옛 이름.

5) 상여(相與): 서로 주고받다.

6) 상추택(詳推擇):

- ① 상(詳) : 곰곰이 따져보다. 추론하다.
- ② 추천(推擇) : 추천하여 선택하다.
- 7) 흥연(欣然) :
- ① 기꺼이, 흔쾌히.
- ② 희열에 찬 모양, 기쁘거나 반가워서 기분이 좋은 모양.
- 8) 두죽(豆粥) :
- ① 콩죽 : 불린 콩을 갈아서 끓인 죽. 쌀이나 보리쌀에 콩을 넣어 쑨 죽을 가리키기도 함. 흥년에 서민들이 먹은 죽은 보리쌀에 콩을 넣어 쑨 죽이다.(이 때의 콩은 누린빛의 콩으로 황두黃豆 또는 대두大豆라고 하는 것임)
- ② 팔죽(小豆粥) : 팔을 꼭 삶아서 체에 으개어 발인 물에 쌀을 넣고 쑨 죽.(팔은 한자로 소두小豆, 또는 적두赤豆 · 적소두赤小豆라 함. 두죽豆粥은 소두죽(小豆粥 : 팔죽)과 분명히 구별되나, 우리나라에서는 그 두 가지 의미를 혼용해서 쓰기도 하며, 본 시에서는 의미상 ‘팔죽’의 뜻으로 쓰였다고 본다)
- 9) 분소(分疏) : 분소(分疎)라고도 쓴다.
- ① 석명(釋明) : 사실을 설명하여 내용을 밝히다, 조목조목 나누어 설명하다.
- 10) 아언(我言) : 나의 주장.
- ☆언(言) : 학설, 주장(主張)
- 11) 무루어호타(蕪蕪與滹沱 : 무루정蕪蕪亭의 죽과 호타하滹沱河 강변의 보리밥은) :
- ① 무루(蕪蕪) : 무루죽(蕪蕪粥 : 무루정蕪蕪亭에서 먹은 죽) : 『후한서 권17(後漢書卷十七) · 풍이열전(馮異傳)』에, “동한(東漢) 광무제(光武帝 : BC 6~AD 57, 유수劉秀)가 계성(薊城 : 지금의 북경성北京城 서남부)에서 출동하여 동남쪽으로 질주하다가, 초야(草野)에서 야숙(野宿)을 하며, 요양현(饒陽縣) 무루정(蕪蕪亭 : 지금의 하북성 요양현 호타하滹沱河 강변에 위치한 정자)에 당도했다(光武自薊東南馳, 晨夜草舍, 至饒陽蕪蕪亭). 당시 날씨는 몹시 추웠고, 장졸 모두가 허기와 피로에 지쳐있었는지라, 풍이(馮異 : ?~34, 동한 광무제 유수劉秀 휘하의 장수)가 콩죽을 쑤어 바쳤는데, 이튿날 아침 광무제가 여러 장수들에게 이르기를 : “어제 밤에 공손술(公孫述 : ?~AD 36, 처음에는 왕망王莽을 섬겼으나, 후에 성도成都에서 군사를 일으켜, 촉蜀을 멸하고, 25년에 천자라 칭하고 국호를 성가成家라고 하였음. 뒤에 광무제에게 멸망당했음)를 포획하느라고 콩죽을 먹었더니, 허기와 추위를 모두 녹였다(時天寒烈, 衆皆飢疲, 異上豆粥, 明日光武謂諸將曰 : ‘昨得公孫豆粥, 飢寒俱解’)고 하였다.” 후에, ‘무루정(蕪蕪亭)에서 먹었던 죽’이란 의미의 이 ‘무루죽(蕪蕪粥)’은 ‘곤궁할 때 적시에 구제하는 것’을 가리키는 뜻으로 썼다.
- ② 호타(滹沱) : 호타반(滹沱飯) : 호타맥반(滹沱麥飯) :
- 호타하(滹沱河) : 지금의 하북성 서부에 위치한 강 이름 강변에서 먹은 보리밥.
- 『후한서(後漢書) · 풍이열전(馮異傳)』의 기재에 의하면, 유수(劉秀)가 칭제(稱帝)하기 전에 계성(薊城)에서 출동하여 동남쪽으로 질주하여 요양현(饒陽縣) 무루정(蕪蕪亭)에 당도했는데, 장졸이 모두 허기와 피로에 지쳐 있었다. 그 때 장수 풍이(馮異)가 콩죽을 끓여 올렸다. 남궁정(南宮亭 : 지금의 하북성 심주시深州市 남부에 있었던 정자)에 이르렀을 때, 거센 폭우가 몰아치자, 장수 풍이(馮異)는 또 보리밥과 토견(扈肩 : 아욱죽)을 해드렸다. 이어서 호타하(滹沱河)를 건너 신도(信都 : 신궁信宮 : 단대檀臺 : 지금의 하북성 영년현永年縣에 있음)에 도착했다. 유수

(劉秀)가 칭제(稱帝) 후에 풍이(馮異)에게 보물과 의복·비단·금전 등을 하사하면서 말하기를, “창졸간에 무무정(無莫亭)에서 끓여준 보리죽, 호타하 강변에서 지어 준 보리밥, 짐에게 배운 그 두터운 인정은 두고두고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네(倉卒無莫亭豆粥, 滹沱河麥飯, 厚意久不報)”라고 하였다. 훗날 이 때 지어올린 ‘죽이나 보리밥’을 ‘호타반(滹沱飯)’ 또는 ‘호타맥반(滹沱麥飯)’이라 하였다.

12) 일반구문숙(一般救文叔 : 다 같이 한광무제漢光武帝 유수劉秀를 구했네) :

① 일반(一般) : 다같이, 똑같이.

② 문숙(文叔) : 후한(後漢) 광무제(光武帝) 유수(劉秀 : BC 6~AD 57)의 자(字).

☆한광무제(漢光武帝), 유수(劉秀) :

한고조(漢高祖) 유방(劉邦 : BC 256~BC 195)의 9세손(九世孫). 남양군(南陽郡) 채양현(蔡陽縣), 지금의 호북성(湖北省) 조양시(棗陽市) 서쪽 40리 지역의 출신이다.

13) 종연(終然) : 결국.

14) 족해기장열(足解飢腸熱 : (죽은) 굶주린 배 채우기에 충분하다네) :

① 족해(足解) : 족히 ~할 수 있다. 여기서 ‘족(足)’은 부사로 ‘족하’의 뜻이고, ‘해(解)’는 능원동사(能願動詞 : 조동사)로 ‘~할 수 있다’ 는 뜻이다.

② 기장(飢腸) : 굶주린 배.

☆장(腸) : 창자.

③ 열(熱) : ‘데우다, 덥히다, 열이 나다’의 뜻이나, 본 시에서는 ‘굶주린 배에 죽이 들어가서 배(창자)가 따뜻해지다’는 의미이므로, 전(轉)하여 ‘굶주린 배를 채우다’ 는 뜻으로 쓰였다.

15) 무장일대각(撫掌一大噓 : 손바닥 치며 한바탕 깔깔대고 나서) :

① 무장(撫掌) : 손바닥을 치다.

② 일대각(一大噓) : 한바탕 크게 웃음을 터뜨리다.

☆각(噓) : 웃다, 웃기다.

16) 옥식(玉食) : 쌀밥. 미식(美食)

시53. 아들 자남子男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시

詩53. 子男哀詞¹⁾
자 남 애 사



汝今捨我去,
여 금 사 아 거

너가 이제 나를 버리고 떠나가니,

一言與汝訣。
일 언 여 여 결

한마디 말로써 너와 영결해야 하는구나.

人生在世間²⁾,
인 생 재 세 간

사람이 태어나 이 세상에 사는 동안,

脩短固不一³⁾.
수 단 고 불 일

장수長壽와 단명短命이 실로 일정하지
않구나.

汝年纔十七,
여 년 재 십 칠

네 나이 이제 겨우 열일곱이지만,

純明有異質⁴⁾.
순 명 유 이 질

순하고 총명하며 자질도 뛰어났었다.

一疾困沈綿⁵⁾,
일 결 곤 침 변

한 번 병들더니 장시간 병석에서
꽤차치 못하고,

遷化爲異物⁶⁾.
천 화 위 이 물

숨을 거두어 저 세상 사람 되었구나

薪盡火卽滅⁷⁾,
신 진 화 즉 멸

삶이 다 타야 불이 꺼진다는

達者有是說。
달 자 유 시 설

통달한 자의 말도 있었거늘!

汝薪未應盡，
여 신 미 응 진

너라는 쉼은 아직 다 타지도 않았는데,

汝火胡遽滅。
여 화 호 거 멸

너라는 불은 어찌 이리도 급히
꺼져버리느냐!

火滅寄何處，
화 멸 기 하 처

불이 꺼졌으니 어디에 의탁할꼬!

薪沈付冥漠⁸⁾。
신 침 부 명 막

너라는 쉼을 장사지내 저승에 보낸다.

忍掘荒山土，
인 굴 황 산 토

애통함을 참으며 황량한 산의 흙을 파서,

埋此連城壁⁹⁾。
매 차 연 성 벽

여기 연성벽連城壁에 전줄만한
명당明堂에 (너를) 매장한다.

吾衰亦已甚，
오 쇠 역 이 심

이 애비도 이미 극심하게 쇠약해져,

能作幾時別¹⁰⁾。
능 작 기 시 별

멀지 않은 날에 이승을 떠날 듯 하구나.

無忘今世緣，
무 망 금 세 연

금세의 우리 인연 잊지 말고,

更結來生業¹¹⁾。
경 결 래 생 업

다시금 내생來生에서 부자 인연 맺자구나.

1) 자남애사(子男哀詞): 본 시제(詩題)는 서애가 그의 아들 자남(子男)의 죽음을 애통해하며 지은 시이다.

① 자남(子男: 1588~1604): 서애의 제5자 초(初)의 동생인 균(均)의 아명(兒名)이다. 서애의 편지인 「여러 아들 여·단·진에게 부치다(寄諸兒 枷襦珍)」에서, 본시에 거론된 아들 자남(子男)에 대한 기록에 의하면, “편지를 보고 무사한 줄 알게 되어 마음에 위안이 된다. 이곳도 또한 종전과 변함이 없으나, 다만 자남(子男)이 병들어 누워있으니, 아마도 종기(腫氣)가 나서 그렇게 된 듯한데, 매우 걱정이 된다(見書知無事, 慰慰。此處亦依前, 但子男病臥, 蓋緣其腫瘡發動而然

甚可慮也)”고 하였다.

자남의 묘소는 경북 군위군 군위를 교외의 송현(松峴)에 안장되어 있으며, 여기는 유전파(柳川派) 집안이 일부 군거(群居)하고 있다.

② 애사(哀辭) : ‘애사(哀辭)’로도 쓰며 애도사(哀悼辭)의 뜻이다 :

죽음을 슬퍼하는 뜻을 나타낸 글이나 말인데, 주로 운어(韻語 : 시가詩歌에서 시행詩行의 일정한 자리에 같은 운을 규칙적으로 다는 일)로 썼다. 또한, 고대에는 요절(夭折 : 젊은 나이에 죽음)한 자에게나 이 애사(哀詞)를 썼으나, 후세에 와서는 천수(天壽 : 천명天命 : 타고난 수명)를 누린 자에게도 애사(哀詞)를 썼다.

2) 세간(世間) : 인간세상, 이 세상.

3) 수단고불일(脩短固不一) : 장수長壽와 단명短命이 실로 일정하지 않구나) :

① 수단(脩短) : 수단(修短)으로도 쓰며, 수(脩)는 수(修 : 장 : 길다)와 통용함. 본 시에서는 사람의 수명을 가리킨다. 곧, 장수(長壽)·단명(短命)을 말함.

② 불일(不一) : 일정하지 않다, 같지 않다.

4) 순명유이질(純明有異質) : 순하고 총명하며 자질이 뛰어났었다) :

① 순명(純明) : 순하고 총명함. 순박하고 현명함.

② 이질(異質) : 뛰어난 자질. 자질이 뛰어나다.

5) 침면(沈綿) : 침면(沉綿)으로도 쓰고, 침면(沉綿)으로도 쓴다. 질병에 걸려 오랫동안 앓으면서 깨우되지 않음을 이른다. 이때의 침(沈)은 ‘오랫동안, 장시간’의 뜻이며, 면(綿)은 ‘연속되다’는 뜻으로 쓰였다.

6) 천화위이물(遷化爲異物) : 숨을 거두어 저 세상 사람이 되었구나) :

① 천화(遷化) : 사람이 사망하는 것을 가리킨다.

『한서(漢書) · 외척전상(外戚傳上) · 효무이부인(孝武李夫人)』편에, “홀연히 별세하여 되돌아올 수 없으니, 혼백은 흩어져서 날아가겠네(忽遷化而不反兮, 魂放逸以飛揚)”라고 하였다.

② 이물(異物) : 이미 죽은 사람, 곧 ‘시신(屍身), 송장’을 가리킨다.

『사기(史記) · 굴원가생열전(屈原賈生列傳)』에 “죽어서 육신이 이물질로 변한단들, 또 무엇을 애써 걱정하리(化爲異物兮, 又何足患)!”라고 하였다.

7) 신진화즉멸(薪盡火即滅) : 쉼이 다 타야 불이 꺼진다는) :

‘땃나무가 다 타서 불이 꺼졌다’는 뜻으로, 사람의 죽음이나 사물의 멸망을 비유한 말이다.

『법화경(法華經) · 서품(序品)』에, “부처님께서 이 날 밤 열반(涅槃 : 입적入寂 : 중이 죽음)에 드시니, 마치 쉼이 다하여 (땃나무가 다 타서) 불이 꺼짐과 같은 지라, 모든 사리(舍利 : 석가모니와 성자의 유골)를 나누어, 무량탑(無量塔 :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탑)을 세웠다(佛此夜滅度, 如薪盡火滅, 分布諸舍利, 而起無量塔)”라는 구절이 있다. 후세에는 그래서 이 ‘신진화즉멸(薪盡火滅)’이란 말을 ‘죽음’에 비유한 말로 썼다.

8) 신침부명막(薪沉付冥漠) : 너라는 쉼을 장사지내 저승에 보낸다) :

① 신침(薪沉) : 쉼을 매장하다. 장사를 지내다. 본래 ‘신(薪)’은 땃나무의 총칭인 ‘쉼’을 말하는 것이나, 여기서는 ‘사(死)’를 가리키는 것에 비유되었다. 위의 주석 7)의 “신진화즉멸(薪盡火即滅)” 조항을 참조 바람. 또한 ‘침(沉)’자는 중국 고대 국가의 하나인 상대(商代)에 제사지낼 때 희생(犧牲)을 사용하는 방법의 하나였

다. 이를테면, 희생을 수중(水中)에 던져 제사를 지냈던 것에서 유래한다. 그리하여 후대로 와서 ‘매장하다’는 의미로 쓰게 되었다. 여기서는 바로 ‘매장(埋葬)’의 의미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② 명막(冥漠) : ‘음계(陰界 : 저승)’를 가리킨다.

송(宋)나라 유학자 진량(陳亮 : 1143~1194)은 「김백청(金伯淸) 부친의 초상제사에 올리는 제문(祭金伯淸父文)」에서 이르기를: “저승이라는 것이 만약 있다면, 영명(英明)한 혼령께서 아직 멀리 가지 못했을까 싶어 걱정이 됩니다(謂冥漠之如在, 想英靈之未遐)”라고 한 구절이 있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음.

9) 연성벽(連城壁) : 연성옥(連城玉) :

여러 성(城)과 바꿀 만한 보배로운 옥. 즉 전국시대(戰國時代) 진소왕(秦昭王)이 자기 나라의 15개 성(城)과 조왕(趙王)이 가졌던 화씨지벽(和氏之璧)을 바꾸었다는 고사에서 유래한 말로, 후세 사람들은 이 연성벽(連城壁)이라는 말을 ‘아주 귀한 물건’을 가리키는 뜻으로 사용하였다. 서에는 그의 아들 ‘자남(子男)’을 연성벽(連城壁)의 값어치에 해당하는 명당(明堂)에 장사지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다.(『사기(史記) · 염파인상여열전(廉頗藺相如列傳)』과 『한비자(韓非子) · 화씨편(和氏篇)』에 보임.)

10) 기시별(幾時別) : 기시별(幾時別) : 잠시 동안의 이별.

☆기시(幾時) :

- a. 멀지 않은 시간, 길지 않은 시간, 잠시 동안의 시간,
- b. 언제, 어느 때.

☆별(別) : 이별.

11) 내생업(來生業) : 다음 생애의 ‘업’을 말함.

① 내생(來生) : 다음 생애. 죽은 후에 다시 태어남, 또는 그 생애.

② 업(業) : 불교용어로서 범어(梵語 : 산스크리트 어Sanskrit 語 : 고대 인도의 표준문장어) ‘까르만(Karman)’을 의역(意譯)한 것이다. 이는 본래의 뜻은 ‘행위’인데, 인과관계와 결합하여 행위가 가져오는 결과로서의 잠재적인 힘을 의미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하나의 행위는 반드시 선악(善惡)과 고락(苦樂)의 과보(果報)를 가져오며, 그런 행위의 영향력을 업으로 보기도 한다. 또한 숙업(宿業)이란, 전생에 지은 행위의 과보로서 받게 된 윤회상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착한 행위를 쌓아가면 그 영향력은 미래에까지 미쳐서 작용한다고 보고 있다. 이 업에는 3가지가 있는데, 행위로 짓는 업은 신업(身業)이고, 입으로 짓는 업은 구업(口業)이며, 생각으로 짓는 업은 의업(意業)이라고 한다. 또한 이 업은 선업(善業)과 악업(惡業), 그리고 비선비불선(非善非不善) 등 세 종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업’이라고 하면, 악업(惡業)을 가리킨다.

업(業)의 본래의 의미는 간단히 행위를 말하는데, 인과관계와 결합하여, 전부터 존속하여 작용한 일종의 힘으로 간주되었다. 즉 하나의 행위는 반드시 선악, 고락의 과보를 초래한다고 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업(業)에 의한 윤회사상이 생겨나고 업이 전생부터 이승까지 연장되기에 이른다. 즉, 업은 육도(六道 : 중생이 업에 의해 생사를 반복하는 여섯 가지의 세계) 중의 하나에 귀착되어 생사윤회(生死輪回)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서에도 사망한 이들에게 내생(來生)에서 인연을 맺자고 읊은 것이다.

시54. 이백의 「고숙성^{姑熟城} 풍광을 읊은
열 수의 시」를 본받아 옥연정사^{玉淵精舍}
풍광 열 수를 읊다

詩54. 玉淵十詠效李白姑熟十詠¹⁾
옥연십영효이백고숙십영



其一 秋月潭²⁾
기 일 추 월 담

[1] 북담北潭에 비친
가을밤 달

秋月散清輝³⁾,
추 월 산 청 휘

가을밤에 달빛이 휘영청 밝아지자,

秋潭湛凝綠⁴⁾.
추 담 잠 응 록

추색 서린 북담강물 질푸른 빛 엉기네.

夜久靜相涵⁵⁾,
야 구 정 상 함

밤 깊어져 연이어 정적이 감돌자,

氛昏亦已歇⁶⁾.
분 혼 역 이 혈

운무도 이미 자욱하게 끼고 있네.

那能辨上下⁷⁾,
나 능 변 상 하

어떻게 천지를 구분할 수 있겠는가?

只見空明色⁸⁾.
지 현 공 명 색

허공에는 희끄무레 달빛만 보일 뿐일세.

欲論道人心⁹⁾,
욕 논 도 인 심

一語眞難着¹⁰⁾。
일 어 진 난 저

도 닦는 사람의 마음 논하고 싶지만,

한마디 말로는 실로 형용하기 어렵다네.

其二 達觀臺¹¹⁾
기 이 달 관 대

[2] 달관대

我有數尺軀,
아 유 수 척 구

半生寄塵埃¹²⁾。
반 생 기 진 애

今朝挾天風¹³⁾,
금 조 협 천 풍

飛上最高臺。
비 상 최 고 대

二儀分高下¹⁴⁾,
이 의 분 고 하

三光自縈廻¹⁵⁾。
삼 광 자 영 회

招呼兩黃鵠¹⁶⁾,
초 호 양 황 곡

聊可與徘徊¹⁷⁾。
료 가 여 배 회

나는 겨우 몇 척에 불과한
단신短身이지만,

반평생을 이 세상에 의지하며 살아왔네.

오늘 아침에는 신선한 바람을 맞으면서,

나는 듯이 최고봉인 달관대達觀臺에
올랐다네.

하늘과 땅이 높고 낮게 나뉘어져 있고,

해와 달과 별이 스스로 선회하네.

황새 고니 한 쌍을 손짓하며
불러봤지만,

저들끼리 배회하며 즐겁게 노니네.

其三 凌波臺¹⁸⁾
기 삼 등 파 대

[3] 능파대

一石中突兀¹⁹⁾,
일 석 중 돌 울

바위 하나 강바닥[河床] 가장자리에서
우뚝 솟아,

長江走其下。
창 강 주 기 하

긴 강물줄기 그 아래로 흘러가네.

波平杳²⁰⁾無際,
파 평 묘 무 제

물결은 잔잔하고 끝없이 아득한데,

極目窮西瀉²¹⁾。
극 목 궁 서 사

눈앞에 가물가물 서쪽으로 도도히
흘러가네.

不聞采菱歌²²⁾,
불 문 채 등 가

(마름 열매 따는) 「채릉가採菱歌」 노래
소리 들리지 않는데,

況見生塵襪(鞞)²³⁾。
황 건 생 진 말

하물며 진흙 묻은 버선발 보일 리
있겠는가!

悵悵久延佇²⁴⁾,
조 창 구 연 저

아쉬운 마음에 우두커니 서있는데,

湖山雲日夕。
호 산 운 일 석

강산에 구름 끼고 날이 저무네.

其四 雙松屋²⁵⁾
기 사 쌍 송 애

[4] 쌍송애

亭亭²⁶⁾二株松,
청 청 이 주 송

우뚝우뚝 높이 솟은 두 그루 소나무,

對立蒼崖間。
대 립 창 애 간

푸른 절벽 틈새에서 마주 보고 서 있네.

上有彩禽棲,
상 유 채 금 서

(쌍송) 위에는 빛깔 고운 새들이 깃들고,

下有清河瀾。
하 유 청 하 란

(쌍송) 아래로는 맑은 강물이 출렁이네.

涼風半夜起，
양 풍 반 야 기

서늘한 바람이 한밤중에 불어오니,

靈籟²⁷⁾月中寒。
영 쇠 월 중 한

쇠쇠 솔바람 소리 달빛 속에 차갑구나.

山空人不到，
산 공 인 불 도

산속은 텅 빈 채 아무도 찾는 이
없는데,

秋雲空往還²⁸⁾。
추 운 공 왕 환

가을 하늘 구름만 공연히 오락가락
하네.

其五 繫船巖²⁹⁾
기 오 계 선 암

[5] 계선암

偶逐滄洲興³⁰⁾，
우 축 창 주 흥

모래톱이 좋아서 어쩌다 나가보면,

沿洞萬頃天³¹⁾。
연 동 만 경 천

마을 옆 강변은 광활한 하늘 펼쳐졌네.

江清宜弄月³²⁾，
강 청 의 농 월

강물이 맑아서 달 감상하기 제격이고,

石密可藏船³³⁾。
석 밀 가 장 선

암석이 많아서 배를 대기 적합하네.

慙慙好繫纜³⁴⁾，
은 은 호 계 략

정성스레 배를 잘 묶어둬야 하는데,

莫使風擺失³⁵⁾。
막 사 풍 과 실

바람에 배가 유실되지 않게 함일세.

下瀨多驚浪³⁶⁾，
하 회 다 경 낭

아래쪽은 여울이라 거센 물결 많아서,

舟移恐傾覆³⁷⁾。
주 이 공 경 복

배로 강 건너면서 뒤집힐까 두렵다네.

其六 桃花遷³⁸⁾
기 육 도 화 천

[6] 도화천

江上³⁹⁾春三月,
강 상 춘 삼 월

강변에 춘삼월이 되니,

桃花正冥冥⁴⁰⁾。
도 화 정 명 명

복사꽃이 바야흐로 그윽하게 피었네.

緣崖數里遷⁴¹⁾,
연 에 수 리 천

절벽을 끼고 몇 리를 따라가면서,

望之如赤城。
망 지 여 적 성

복사꽃을 보자니 마치 붉은 성벽
같다네.

無乃⁴²⁾避世人,
무 내 피 세 인

혹시 내가 속세 사람을 피해서

幽棲⁴³⁾在此中。
유 서 재 차 중

이곳에 은거하고 있는 게 아닐까?

流花亦不惡,
류 화 역 불 오

복사꽃도 (나를) 싫어하진 않는 것
같으니,

疑⁴⁴⁾有釣魚翁。
의 유 조 어 웅

아마도 낚시하는 늙은이쯤으로
여기겠지.

其七 玩心齋⁴⁵⁾
기 칠 완 심 재

[7] 완심재

虛齋嗒然處⁴⁶⁾,
허 재 답 연 처

텅 빈 재사에서 멍하니 앉은 자리에,

只有一蒲團⁴⁷⁾。
지 유 일 포 단

단지 부들방석 한 장만 깔렸구나.

未自分眞妄⁴⁸⁾,
미 자 분 진 망

내 자신 아직 진실함과 허망함을 분별
못하는데,

憑誰⁴⁹⁾說易難。
빙 수 설 이 난

무엇을 근거로 쉽고 어려운 걸
논하겠는가?

迎來纔有象⁵⁰⁾，
영 래 재 유 상

추리推理하면 겨우 징후가 잡히다가도,

忘去忽迷端⁵¹⁾。
방 거 홀 미 단

소홀하면 단서조차 흘려 흐릿해지네.

恍忽窮三界⁵²⁾，
황 홀 궁 삼 계

모호한 가운데 삼계三界를 궁구窮究하다
보니,

徘徊歲已闌⁵³⁾。
배 회 세 이 란

서성이는 사이에 벌써 한 해가 저무네.

其八 看竹門⁵⁴⁾ 기 팔 간 죽 문

[8] 간죽문

老翁罷午睡⁵⁵⁾，
노 웅 파 오 수

늙은이가 낮잠을 한잠 자고나서,

負手行庭曲⁵⁶⁾。
부 수 행 정 곡

뒷짐 지고 정원을 이리저리 거니네.

行庭意易闌⁵⁷⁾，
행 정 의 역 란

정원을 거닐다가 그 정취마저
시들해져서,

出門看脩竹⁵⁸⁾。
출 문 간 수 죽

문 밖을 나가 길게 자란 대숲을
바라보네.

適與江風會，
적 여 강 풍 회

마침 강바람 불어와 꽃전을 스쳐
가는데,

清音散冰玉⁵⁹⁾。
청 음 산 빙 옥

맑은 음향이 빙옥氷玉의 울림소리같이
흘러지네.

時有叩門人，
시 유 고 문 인

忘形誰主客⁶⁰⁾。
망 형 수 주 객

그 때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으니,

내 육신조차 잊고 있거늘 누가
주인이고 누가 손님인가?

其九 謙巖舍⁶¹⁾
기 구 겸 암 사

[9] 겸암정사

我兄遺亭館⁶²⁾，
아 형 유 정 관 관

내 형님께서 정사精舍 한 채를
남기셨는데,

謙巖有舊名⁶³⁾。
겸 암 유 구 명

(정사精舍) 겸암謙巖이란 명칭에는 전통
의미 내포됐네.

竹影淨臨階⁶⁴⁾，
죽 영 정 임 계

대 그림자 오로지 섬돌 위에서만
일렁이고,

梅花開滿庭。
매 화 개 만 정

매화는 뜰 안 가득 흐드러지게 피었네.

遊蹤芳草合⁶⁵⁾，
유 종 방 초 합

거니는 곳마다 방초가 무덕무덕 자라고,

仙路⁶⁶⁾白雲生。
선 로 백 운 생

호젓한 오솔길엔 흰 구름이 일고 있네.

悵憶⁶⁷⁾空垂淚，
창 억 공 수 루

그리움에 한스러워 괜히 눈물 흐르는데,

江流夜有聲。
강 류 야 유 성

강물도 흐르면서 밤이 되니 물소리
내는구나.

其十 砥柱巖⁶⁸⁾
기 지 주 암

[10] 지 주 암

不辭衝波激⁶⁹⁾,
불 사 충 파 격

거센 물결 들이쳐도 마다하지 않으면서,

孤堅性獨全⁷⁰⁾.
고 견 성 독 전

홀로 굳게 그 자태 의연히 보전하네.

應知巨靈意⁷¹⁾,
응 지 거 영 의

아마도 수신水神 거령巨靈의 뜻을 알고
있어선지,

欲柱半壁天⁷²⁾.
욕 주 반 벽 천

(지주암은) 반쪽만 보이는 하늘을 괴어
지탱하려 하네.

作勢排重險⁷³⁾,
작 세 배 중 험

(지주암은) 위세 부리며 험준한 지세로
늘어섰는데,

盤根到九泉⁷⁴⁾.
반 근 도 구 천

그 반석盤石의 근원은 구천九泉까지
달랐다네.

懷襄終自任⁷⁵⁾,
회 양 종 자 임

홍수져서 강물 범람하면 결국 스스로
감당해야 하지만,

䟽鑿⁷⁶⁾又何年。
소 착 우 하 년

암반 뚫어 물길 트려면 또 몇 년이나
걸릴꼬!

1) 옥연십영 효이백고숙십영(玉淵十詠效李白姑熟十詠) : 이백의 「고숙성(姑熟城) 풍광을 읊은 열 수 시」를 본받아 옥연정사(玉淵精舍) 풍광 열 수를 읊다.

① 옥연(玉淵) : 옥연정사(玉淵精舍 : 중요민속자료 제88호) : 옥연서당(玉淵書堂) : 경북 안동시 광덕동(廣德洞)에 위치한 정사(精舍)로 하회동(河回洞)에서 부용대(芙蓉臺)를 바라보았을 때, 오른 쪽에는 옥연정사가 있고, 왼쪽에는 겸암정사(謙巖精舍 : 중요민속자료 제89호)가 있다. 옥연정사는 서애(西厓)가 후진양성과 함께 『징비록(懲毖錄)』 등 많은 역사적 저술을 한 곳이며, 겸암정사는 서애의 백형(伯兄)인 겸암 류운룡(柳雲龍 : 1539~1601) 선생이 도학(道學)의 이치를 궁구하기 위해 29세 되던 해인 1567년(명종 22)에 건립했다고 한다.

하회마을에는 서애가 생전에 지은 건물이 두 채가 있는데, 하나는 마을 안에 있는 원지정사(遠志精舍)이고, 다른 하나는 낙동강 건너 부용대 동쪽(오른쪽)에 있는 옥연정사다. 옥연정사는 선생이 35세 되던 해(1576)에 짓기 시작하여, 10년이 지난 45세 되던 해(1586)에 완성했다. 선생은 이곳에 작은 집을 지어 늘도록 조용히 거처하고자 했으나, 집 지을 재력이 부족해서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었는데, 마침 탄홍(誕弘)이란 승려가 곡식과 베를 내놓고 건축을 주관하게 되어 겨우 지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지을 당시 이름은 ‘옥연서당’이었다.

서애는 그의 「옥연서당기(玉淵書堂記)」(『서애선생문집(西厓先生文集) 권17·기(記)』)에서 옥연정사의 구조를 다음과 같이 기술(記述)하고 있다:

“집 구조에 있어서, 대청[堂]으로 쓰는 마루는 두 칸의 넓이로, 감록헌(瞰綠軒: 푸른 산천을 조망하는 마루: 지금의 ‘사랑채라고 하는 곳의 대청’)이라고 불렀으니, 왕희지(王羲之)의 “고개 들어 하늘가를 우러러 보다가, 고개 숙여 파란 물굽이를 내려다 본다네”라는 말에서 취한 것이다(其制, 爲堂者二間, 名曰瞰綠, 取王羲之 “仰眺碧天際, 俯瞰綠水隈”之語也). 이 대청[堂]의 동쪽으로, 연거(燕居: 은퇴하여 한거閑居합)하는 두 칸 넓이의 방이 있는데, 이름하여 세심재(洗心齋: 마음을 씻는 집이라는 뜻으로 지금의 사랑채에 있는 방)라고 하였으니, 『주역(周易)』의 계사(繫辭) 가운데의 말을 취한 것으로, 그 의미는 누구든 여기서 일을 하는 사람이면, 만에 하나라도 그렇게 마음을 씻기를 바라서였다(堂之東, 爲燕居之室二間, 名曰洗心, 取易繫辭中語, 意或從事於斯以庶幾萬一爾). 또 북쪽에 있는 재(齋: 집)는 세 칸 넓이의 집인데, 이 곳을 지킬 승려를 위해, 선가(禪家)의 말을 취하여, 완적재(玩寂齋: 적멸寂滅 곧 열반의 경지를 관상하는 집이란 뜻으로 지금의 ‘안채라고 부르는 집’)라 이름을 지었다(又齋在北者三間, 以舍守僧取禪家說, 名曰玩寂). 또 동쪽에는 두 칸 넓이의 집인데, 벗이 방문하면 접대하는 곳으로, 원락재(遠樂齋: 지금의 ‘별당채라고 부르는 집’)라고 이름 하였으니, 『논어(論語)·학이편(學而篇)』에 나오는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니 즐겁지 아니한가(有朋自遠方來不亦樂乎!)”라는 뜻에서 취한 것이다(東爲齋二間, 以待朋友之來訪者, 名遠樂, 取自遠樂乎之語). (동쪽에 있는) 원락재에서 서쪽으로 나가면, 두 칸 넓이의 작은 툇마루가 있는데, 세심재와 나란히 있는 것으로, 애오헌(愛吾軒)이라고 이름 하였으니, 도연명(陶淵明)의 「산해경을 읽고 나서(讀山海經)」라는 시에 “나 역시 내 초가집을 사랑한다네”라는 시구詩句에서 취한 것이니, 이것들을 종합해서 ‘옥연서당’이라는 편액을 내걸었다(由齋西出, 爲小軒二間, 與洗心齋相比, 名曰愛吾, 取淵明吾亦愛吾廬之語, 合而扁之曰玉淵書堂). (역자는 ‘소헌小軒’을 세심재에 있는 툇마루로 보고 해석하였음.)

뿐만 아니라, 서애는 「옥연서당기(玉淵書堂記)」첫머리에서 서당을 지은 동기와 주변 풍광에 대해서도 기술하고 있다:

“내가 이미 원지정사(遠志精舍)를 지어 놓고도 여전히 한스러웠던 것은 촌락이 너무 가까워 그윽한 맛을 누리지 못해서였다(余既作遠志精舍, 猶恨基村墟近, 未燁幽期). 북담(北潭: 북쪽 소沼: 하회마을 북쪽에 위치한 부용대 앞의 낙동강은 못처럼 깊다하여 지어진 명칭. 옥연소玉淵沼라고도 함)을 건너서 절벽 동쪽에 특이한 터를 잡았는데, 앞에는 호수의 풍광을 지니고 뒤로는 높은 언덕을 등지고 있으며, 오른쪽에는 붉은 벼랑이 치솟아 있고, 왼쪽은 백사장이 떠를 두른 듯한 곳이다

(渡北潭於石崖，東得異處焉。前挹湖光 後負高阜，丹壁峙其右，白沙縈其左). 남쪽으로 바라보면 멀리 못 산봉우리들이 들쭉날쭉 겹겹이 둘러싸고 호위하는 듯한 모습이 마치 한 폭의 그림이요, 어촌의 집 몇 채가 안개 낀 나무 사이로 은은하게 보인다. 화산(花山)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어져 오다가, 강을 사이에 두고 옥연정사와 마주하고 있는데, 달이 동쪽 산봉우리에서 떠오를 때 마다, 청량한 산 그림자가 거꾸로 드리워져서, 북담 호수에 반쯤 잠기는데도, 잔잔한 물결 하나 일어나지 않으면서, 금빛 달과 푸른 산의 그림자가 비치는 풍경이야말로, 유달리 관상(觀賞)할만한 것이었다(南望則群峰錯立，拱揖如畫，漁村數點隱映烟樹間。花山自北而南，隔江相對，每月出東峰，寒影倒垂，半寢湖水，纖波不起，金壁相涵，殊可玩也). 그 터가 인가와 그리 멀지 않으나, 앞에는 깊은 소(沼 : 북담北潭)가 막고 있어, 사람이 오고자 해도, 배가 아니면 건널 수가 없었다. 그래서 배를 북쪽 강기슭에 매어 두면, 방문객이 와서 백사장에 앉아서, 이쪽을 향해 소리쳐 부르다가 응답이 없으면, (대개) 한참을 기다리다가 (스스로) 돌아가게 되니, 이것 또한 세상을 피해 조용하게 은둔하고 사는 일에 한 가지 도움이 된다(地去人烟不甚遠，而前阻深潭，人欲至者，非舟莫通。舟艤北岸，則客來坐沙中，招呼無應者，良久乃去，亦遁世幽棲之一助也)”고 하였다. 또한 옥연정사에는 ‘옥연암각서(玉淵巖刻書)*’가 전해지고 있다. 이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역자주석 :**

*옥연암각서(玉淵巖刻書) :

- a. 건립경위: 하회마을을 감싸고 흐르는 낙동강 강물이 이곳에 이르러, ‘옥같이 맑은 못을 이룬다’하여 새긴 글씨이다.’
- b. 위치: 경북 안동시 풍천면 광덕리 부용대(芙蓉臺) 동쪽에 자리한 하회 옥연정사에서 남쪽으로 30m 정도 떨어진 곳임. 이곳은 하회마을을 감싸고 흐르는 낙동강 가로 암각서가 새겨진 바위가 모래사장과 하회 옥연정사 사이에 있음.
- c. 형태: 자연바윗면을 가로 76cm, 세로 46cm 정도로 다듬은 뒤 ‘옥연(玉淵)’이란 글자를 가로 방향으로 새겼다. 한글자의 크기는 약 30cm이다(출처: 한국중앙연구원).

② 십영(十詠) : 옥연정사(玉淵精舍) 주변의 10가지 풍광을 읊은 시가(詩歌).

☆영(詠) : 시체명(詩體名)의 일종으로 명대 · 서사중(徐師曾 : 1517~1580)의 『시체명변(詩體明辨)』에 의하면, ‘영(詠)’은 말을 길게 늘인 것을 말하는 것(長言謂之詠)이다. 자세한 것은 「시4」의 주석1)의 ②를 참조바람.

③ 효이백고숙십영(效李白姑熟十詠) : 이백이 지은 고숙십영姑熟十詠을 모방하다.

☆효(效) : 모방하다.

☆이백(李白 : 701~762) : 당(唐)나라 시선(詩仙). 자는 태백(太白). 호는 청련(青蓮), 취선옹(醉仙翁). 두보(杜甫)와 더불어 시의 양대 산맥(山脈)을 이룬다. 그의 시는 서정성(抒情性)이 뛰어나서 논리성(論理性), 체계성(體系性)보다는 감각(感覺), 직관(直觀)에서 독보적(獨步的)이다. 술, 달을 소재(素材)로 하여 많은 시를 썼으며, 낭만적(浪漫的)이고 귀족적(貴族的)인 시풍을 지녔음. 『李太白詩集』 30권이 있음. 자세한 것은 「시46」의 주석1)의 ②를 참조 바람.

☆고숙십영(姑熟十詠): 고숙성(姑熟城) 풍광을 읊은 열 수의 시가(詩歌).

- a. 고숙(姑熟): 고숙성(姑熟城): ‘고숙(姑孰)’으로도 쓰며, 고숙성(姑熟城)을 가리킨다. 고숙성은 지금의 안휘성(安徽省) 당도현(當塗縣)에 위치하며, 삼국 시대 오(吳)나라 황무년간(黃武年間: 222~229)에 건축되었음.
- b. 「고숙십영(姑熟十詠)」의 시제(詩題)로 쓴 열 수(首)의 시제(詩題)는 아래와 같다.
 - ㉠ 고숙계(姑熟溪): 강 명칭으로 지금의 고숙하(姑熟河)로 성(城) 남쪽에 위치함.
 - ㉡ 단양호(丹陽湖): 지금의 당도현(當塗縣) 동남부에 위치한 담수호(淡水湖).
 - ㉢ 사공택(謝公宅): 남제(南齊)의 시인 사조(謝朓: 464~499)가宣城太守로 재직 시에 고숙성 8경(姑熟八景)에 속하는 곳에 지은 저택 명칭이다. 집 앞에는 못이 있고 집 주변에 수석(樹石)의 풍경이 매우 아름다운 곳이라 한다.
 - ㉣ 능고흠대(陵高欠臺): 당도현(當塗縣) 함관 5리(緘關五里) 지점의 황산(黃山)에 위치했던 대(臺)의 명칭. 지금은 유적지만 남아 있다. 송효무제(宋孝武帝) 유준(劉駿: 430~464)이 이곳에서 피서하였다고 한다.
 - ㉤ 환공진(桓公井): 우물 명칭으로 음마천(飲馬泉)이라고도 하며 당도현성(當塗縣城) 동쪽 5리 지점의 백산(白山)에 위치한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동진(東晉)의 정치가이자 무장인 환온(桓溫: 312~373)이 이곳에서 우물을 파고 말에게 물을 먹였다는 전설로 얻어진 명칭이라고 한다.
 - ㉦ 자모죽(慈姥竹): 자모산(慈姥山)에서 생산 되는 대나무로서, 마안산(馬鞍山) 시자호(市慈湖) 서북 5리 지점의 장강(長江) 동쪽 언덕의 산에서 자란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양(梁)나라 소명태자(昭明太子: 501~531)가 이곳에서 고향(苦學)을 했는데, 그 모친이 금릉(金陵: 지금의 남경)으로 돌아오라고 권했으나 태자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땅바닥에 대 젓가락을 꽂아놓고 그 젓가락에 잎이 돋고 자라면 돌아가겠다고 약속했다. 모성애가 너무나 진지하여 하늘이 감동했다. 그래서 암벽에 꽂았던 대 젓가락이 정말로 푸르게 자랐다. 후에, 사람들은 이 대 나무를 ‘자모죽(慈姥竹)’이라 이름 지었다. ‘모(姥)’자는 ‘모(姆)’자와 동자(同字)이다.
 - ㉧ 망부산(望夫山): 즉 소구화산(小九華山). 채석진(採石鑛) 서북 1리 지점의 강변에 위치함. 산정상에 망부석(望夫石)이 있는데 높이가 약 2m, 꽤나 사람같이 생겼는데 위에 ‘望夫石’ 세 글자가 새겨졌다. 『태평환우기(太平環宇記)』의 기록에 의하면, “옛날에 어떤 사람이 초(楚)나라에 갔는데, 몇 해가 지나가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 처는 산에 올라가 지아비를 기다리다가 돌로 변했다”고 하였다. 그래서 망부산(望夫山)이라 이름 지어졌다고 한다. 지금은 그곳에 사찰이 건축되었다.
 - ㉨ 우저기(牛渚磯): 채석기(採石磯)라고도 하며, 안휘성 마안산시(馬鞍山市) 서남 채석가도(採石街道) 강변에 위치한 나루터 명칭이자 지명(地名)이다. 황금소가 출현했다는 전설에서 얻어진 이름이라고 한다.

- ① 영허산(靈墟山) : 당도현(當涂縣) 동북 35리 지점에 위치한다.
- ① 천문산(天門山) : 일명 동·서양산(東西梁山)이라고도 하며, 안휘성 무호시(蕪湖市) 북쪽 장강(長江) 강변에 위치한다.
- 2) 추월담(秋月潭) : 계선암(繫船巖)에서 옥연정사로 이르는 부용대 석벽으로, 형식은 ‘담(潭 : 북담北潭)’으로 되어 있으며, 위치는 하상(河床)에 있다. 풍산류씨(豊山柳氏) 후손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하회마을 북쪽에 위치한 강 건너편의 부용대(芙蓉臺) 앞을 흐르는 낙동강은 바로 이곳에서 수심이 깊어지면서 소(沼)를 형성하여, 이전에는 이를 ‘북담(北潭)’ 혹은 ‘옥연소(玉淵沼)’라고 칭했다고 한다.
- 3) 청휘(淸輝) :
 ☆주로 일월의 광휘(光輝)를 가리킨다.
 ☆달빛이 (휘영청) 밝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음.
- 4) 잠응록(湛凝綠) :
 ① 잠(湛) :
 ☆느리고 더딘 모양(徐緩貌).
 ☆물이 깊은 모양.
 ② 응록(凝綠) : 질푸르다.
 ☆응(凝) : 본 시에서 쓰인 ‘응(凝)’은 ‘(색깔이) 질다’는 뜻으로 쓰였다. 이때의 응(凝)은 ‘성대하거나 정도가 매우 심한(깊은) 것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 예로 ‘응장(凝妝 : 화려한 옷차림이나 그런 장식)’과 ‘응한(凝寒 : 혹한, 혹독한 추위, 몹시 춥다)’ 같은 말이 있다.
- 5) 상함(相涵) : 연이어 감돌자
 ① 상(相) :
 ☆연이어, 잇따라, 선후로
 ☆차츰차츰, 순서대로.
 ② 함(涵) :
 ☆침윤(浸潤)하다, 스며(배어)들다.
 ☆젖어있다, 촉촉하다.
 ☆(물속에) 잠기다.
- 6) 분혼역이혈(氛昏亦已歇) : 운무도 이미 자욱하게 끼고 있네) :
 ① 분혼(氛昏) : ‘분혼(氛昏)’으로도 쓴다. 혼(昏)과 혼(晡)은 동자(同字)이다.
 ☆운무(雲霧 : 연기와 안개), 연애(煙靄 : 연기와 아지랑이, 아지랑이)
 ② 혈(歇) :
 ☆정지하다,
 ☆발산하다, 내뿜다.
- 7) 나능변상하(那能辨上下) : 어떻게 천지를 구분할 수 있겠는가)
 ① 나(那) : 여하(如何) : 어떻게, 어떻게 하면, 어떠한가, 어째서.
 ② 상하(上下) : 천지를 가리킨다.
- 8) 명색(明色) : ‘달빛’을 가리킨다.
 ① 명(明) : 일월(日月)이 밝게 비추는 빛을 가리킨다.
- 9) 도인심(道人心) : ‘도인자심(道人心)’의 약어(略語)로 보임. 도를 닦는 사람의 마음.
- 10) 난저(難着) :

- ① 난(難): ‘~하기 어렵다.’
 ② 저(着):
 ☆드러나다, 드러내다,
 ☆나타나다, 나타내다.
 ☆분명하다, 분명히 하다.
- 11) 달관대(達觀臺): 하회에서 부용대를 정면에 놓고 볼 때, 오른쪽 끝에는 옥연정사(玉淵精舍: 중요 민속자료 제88호)가 있고, 왼쪽 끝에는 겸암정사(謙巖精舍: 중요 민속자료 제89호)가 있다. 부용대 절벽 아래에는 옥연정사와 겸암정사를 오갈 수 있는 오솔길이 있는데, 옥연정사의 간죽문(看竹門)에서 겸암정사 쪽으로 대략 80m 지점의 층길에 있는 석벽으로 촛대바위처럼 우뚝 솟아 있는 형태임.
 ‘멀리 본다’는 뜻을 지닌 달관대는 10년 전에 태풍 때 폭우로 인해 바위가 균열되어 떨어져 나가면서 유실되었다.(본 달관대는 복원할 계획 중에 있다고 함) 여기에 쓴 달관대(達觀臺)라는 암각서체(巖刻書體)는 조선중기 명필가 원진해(元振海: 1594~1651)가 갑진년(甲辰年: 1604년: 10세)에 쓴 서체로 전해온다.
- 12) 반생기진애(半生寄塵埃: 반평생을 이 세상에 의지하며 살아왔네):
 ① 반생(半生): ‘반세(半世)’라고도 쓴다. 반평생,
 ② 진애(塵埃): ‘타끌세상, 속세. 이 세상을 이른다.
- 13) 금조협천풍(今朝挾天風: 오늘 아침에는 신선한 바람을 맞으면서):
 ① 협(挾): ‘협(挾: 순환하다, 빠짐없이 끼치다)’과도 통하고, ‘달(達: 두루 미치다)’과도 통하는 자(字)이다. 전(轉) 하여 ‘바람이 불어 몸통을 스쳐가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본다. 또한 ‘협(挾)’자는 ‘겨드랑이나 손가락에 끼다’는 뜻이 있는데, 바람은 그렇게 겨드랑이에 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스쳐가는 것’을 뜻한다. 결코 ‘겨센 바람’의 표현은 아니다.
 ② 천풍(天風): 바람. 이때의 ‘천(天: 하늘)’은 ‘바람은 공중을 지나가는 까닭에 붙여서 형성된 용어’이다.
- 14) 이의분고하(二儀分高下: 하늘과 땅이 높고 낮게 나뉘어져 있고):
 ① 이의(二儀): 천지(天地) 또는 일월(日月)을 가리킨다.
 ② 고하(高下):
 ☆상(上: 위)과 하(下: 아래), 고(高: 높음)와 저(底: 낮음).
 ☆높은 곳과 낮은 곳.
- 15) 삼광자영회(三光自榮廻: 해와 달과 별이 스스로 선화하네):
 ① 삼광(三光): 일(日) · 월(月) · 성(星: 별은 특히 북두칠성을 이룸)을 이룸.
 ② 영회(榮廻): 영회(榮回)와 같은 말.
 ☆감돌다, 맴돌다, 선화하다, 빙빙 돌다.
- 16) 초호양황곡(招呼兩黃鵠: 황색 고니 한 쌍을 손짓하며 불러 왔지만):
 ① 초호(招呼): 본 시에서는 서애가 황색고니와 함께 하고 놀고 싶어 손짓하며 부르는 것을 표현한 말이다.
 ☆말로 하거나 손짓 또는 기타 방식으로 피거나 부른다.
 ☆말을 하거나 머리를 끄덕이거나 손을 흔들어서 인사하다(예를 표하다, 이는 체하다, 안부를 묻다).
 ② 황곡(黃鵠): 시사(詩詞)와 고가(古歌)에 자주 쓰인 상상의 길조(吉鳥). 이는 고

니로, 오리과의 물새로 몸이 크고 순백색이며 눈 앞쪽은 노란 피부가 드러나 있고 다리는 검고 짧다. 물속의 풀이나 곤충 따위를 먹으며 떼 지어 산다. 북아메리카에서 번식하고 가을에 한국에 날아와 겨울을 보낸다. 천연기념물 제201호. 백조(白鳥)·백골(白鵠)·천아(天鵝) 또는 황곡(黃鵠)이라고도 한다.

☆세상을 등지고 숨어 사는 선비, 혹은 재능이 뛰어난 현사(賢士)를 비유하는 말로도 쓴다.

17) 룡가여배회(聊可與徘徊 : 저들끼리 배회하며 즐겁게 노니네) :

황색 고니 한 쌍이 아주 유유히게 오르락내리락 선회하면서 저회끼리 즐거워하는 모양을 형용한 것이다.

① 룡가(聊可) :

☆료(聊) : 의지하다. 편안하다. 즐기다.

☆가(可) : 어조사로 뜻이 없다.

② 여배회(與徘徊) :

☆여(與) : 더불어(둘 이상의 사람이 함께하다). 여기서는 황색 고니 한 쌍이 함께 어울림을 가리킨다.

☆배회(徘徊) : 이리저리 거닐다. 여기서는 고니 한 쌍이 공중을 오르락내리락 선회하는 모습을 서술한 것이다.

18) 능파대(凌波臺) : 경북 안동시(安東市) 풍천면(豐川面) 광덕리(廣德里)에 위치한 조선시대의 암각서(巖刻書)이다. 관련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건립경위 : 하회마을을 감싸고 흐르는 낙동강 강물이 범람하여 파도를 쳐도 이 바위에는 미치지 못하므로 ‘물결을 능멸한다’는 뜻에서 새긴 글씨이다.

• 위치 : 이는 풍천면 광덕리 부용대 동쪽에 자리한 하회 옥연정사에서 남쪽으로 25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 이곳은 하회마을을 감싸고 흐르는 낙동강가로 암각서가 새겨진 바위는 계선암(繫船巖)에서 옥연정사로 이르는 부용대 석벽으로 하상(河床)에 위치하고 있음.

• 형태 : 자연 바윗면을 가로 109cm, 세로 46cm 정도로 다듬은 뒤 ‘능파대’라는 글자를 가로 방향으로 새겼다. 한 글자의 크기는 약 30cm이다.(출처 : 한국중앙연구원)

19) 일석중돌을(一石中突兀 : 바위 하나 강바닥[河床] 가장자리에서 우뚝 솟아) :

① 중(中) : ☆가운데, ☆속 · 안.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음.

② 돌을(突兀) : ☆높이 솟아서 우뚝한 모양. ☆우뚝 솟고 위가 평평한 모양.

20) 묘(杳) :

① 아득히 멀다.

② 어두침침하다.

③ 깊고 넓은 모양.

④ 아련하다.

21) 극목궁서사(極目窮西瀉 : 눈앞에 가물가물 서쪽으로 도도히 흘러가네) :

① 극목(極目) :

☆시력이 닿는 한 멀리 바라보다.

☆눈에 보이는 것 모두.

② 궁(窮) : 부사로 쓰여 ‘매우, 심히, 아주, 대단히, 가장’의 뜻이다. 여기서는 ‘도도히’로 번역하였다.

③ 사(瀉): 물이 아래로 급히 흐른다.

22) 채릉가(采菱歌):

① 악부(樂府)에 속하는 청상곡명(淸商曲名)으로, 「채릉곡(採菱曲)」이라고도 칭한다. 이 가락은 음률이 빨라서 대단히 경쾌한 곡조이다. 동진(東晉)·곽박(郭璞)의 「강부(江賦)」에, “홀연히 저녁도 잊고 밤중에 돌아가는데, 「채릉가」노래하며 뱃전을 두두라네(忽忘夕而宵歸, 咏採菱以叩舷)”라고 한 것이 보인다.

☆채(采): (採: 채취하다, 캐다)와 동자(同字).

☆능(菱): 마름:

마름과의 한해살이 풀. 진흙 속에 뿌리를 박고, 줄기는 물속에서 가늘고 길게 자라 물 위로 나오며 깃털 모양의 물 속 뿌리가 있음. 잎은 줄기 꼭대기에 뭉쳐나고 삼각형이며, 잎자루에 공기가 들어있는 볼록한 부낭(浮囊)이 있어서 물 위에 뜬다. 여름에 흰 꽃이 피고 열매는 딱딱하고 도삼각형(倒三角形)이며 양 끝에 꽃받침 조각이 변한 가시가 있고 중앙부가 두드러진 핵과(核果)로 식용한다. 경상도와 강원도 및 충북의 사투리로는 ‘말밤’이라고 칭한다. 경상도에서는 이 말밤을 가지고 주로 묵을 해먹었고, 찌서 떡도 해먹었다. 어린이들은 이 말밤의 껍질을 까서 생으로 먹기도 하고, 찌서 먹기도 했다. 그러나 이 마름의 잎과 줄기는 먹지 않는다.

23) 생진말(生塵穢): 여기서는 ‘흙 묻은 버선발’로, 「채릉가」에 맞추어 흥겨워하는 상황을 함축시킨 형상어(形象語)로 봐야 할 것이다.

① 생진(生塵): 흙에 더럽혀지다.

② 말(穢): 버선. 말(穢)과 동자(同字)이다.

24) 초창구연저(惆悵久延佇: 아쉬운 마음에 우두커니 서 있는데):

① 초창(惆悵): 추창(惆悵)과 같은 말. 실망하다, 낙담하다.

② 연저(延佇): 연저(延佇)로도 쓴다. 오랫동안(한참) 서 있다. 오랫동안 머물다.

25) 쌍송애(雙松厓): 간죽문(看竹門)에서 충길로 이르기 전 석벽임.

26) 정정(亭亭): 우뚝 높이 솟은 모양.

27) 영뢰(靈籟): 신령스러운 소리, 곧 ‘와와, 썩썩’ 등의 바람 소리를 가리킨다.

28) 공왕환(空往還): 왕(往)은 왕(往)의 속자(俗字)이다.

① 공(空): 부사로 공연히, 부질없이 등의 의미이다.

② 왕환(往還): 왕복하다, 왔다 갔다 하다. 오락가락하다.

29) 계선암(繫船巖): 부용대 아래 배를 매어두는 바위로, 하상(河床)에 위치함. 강변 바위에 암각(巖刻)한 글자는 ‘계강암(繫缸巖)’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같은 뜻이다. ‘강(缸)’자는 ‘선(船)’의 속자(俗字)이다.

관련정보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건립경위: 광덕리 부용대와 하회마을 사이로 흐르는 낙동강 가운데에 큰 바위가 누운 듯이 있어서 ‘배를 매어두기 좋다’ 하여, 계강암(繫缸巖)이라 새김.
- 위치: 계강암은 풍천면(豊川面) 광덕리(廣德里) 부용대와 하회마을 사이를 흐르는 낙동강에서 부용대쪽으로 치우친 돌출된 바위에 새겨진 조선시대의 암각서(巖刻書)이다.
- 형태: 바위 면을 가로 31cm, 세로 68cm 가량으로 다듬어서, 한 글자의 크기를 가로 세로 약 20cm 크기로 쓴 해서체(楷書體)이다.(출처: 한국중앙연구원)

- 30) 우축창주흥(偶逐滄洲興 : 모래톱이 좋아서 어찌다 나와 보면) :
- ① 우축(偶逐) : 어찌다 ~를 쫓아가다.
 ☆우(偶) : 어찌다, 우연히, 때마침, 공교롭게.
 ☆축(逐) :
 a. ~로 가다. ~를 향해 가다. 나아가다.
 b. 쫓다, 쫓아가다.
 - ② 창주흥(滄洲興) :
 ☆창주(滄洲) : 물이 푸른 사주(砂洲). 사주(砂洲)는 파도나 조류의 작용으로 강이나 해안의 수면 위에 둑 모양으로 이루어진 ‘모래톱’을 말한다.
 ☆흥(興) : 좋다. 좋아하다.
- 31) 연동만경천(沿洞萬頃天 : 마을 옆 강변은 광활한 하늘 펼쳐졌네) :
- ① 연동(沿洞) : 마을 옆 혹은 마을 옆 본 시에서는 시인이 강변에 나갔기 때문에 ‘마을 옆 강변’으로 번역하였다.
 ☆연(沿) : ~의 옆 혹은 ~의 옆을 가리킨다.
 ☆동(洞) : 동네로서 하회마을을 가리킨다.
 - ② 만경(萬頃) : 100만 묘(畝). 경(頃)은 옛날 중국에서 쓰던 논밭 면적의 단위인데, 1경(頃)은 100묘(畝)로, 시대에 따라 그 면적이 달랐다. 1묘(畝)는 한국에서는 30평, 중국에서는 약 200평. 이 ‘만경(萬頃)’이란 말은 구체적인 면적 단위로 쓰기 보다는 시문(詩文)에서 주로 ‘면적이 광활함을 형용하는 말’로 상용(常用)하였다.
- 32) 농월(弄月) : 상월(賞月) : 달을 감상하다, 달을 바라보고 즐기다.
- 33) 석밀가장선(石密可藏船 : 암석이 많아서 배를 대기 적합하네) :
- ① 석밀(石密) : 암석이 많다.
 ☆밀(密) : 많다, 조밀(稠密)하다.
 - ② 가장선(可藏船) : 배를 대기 적합하다.
 ☆가장(可藏) : 단음절 동사[藏] 앞에 붙어 ~할 만하다.
- 34) 은근호계람(慇懃好繫纜 : 정성스레 배를 잘 묶어두어야 하는데) :
- ① 은근(慇懃) : 은근(慇懃)으로도 쓴다. 이는 ‘은근하다, 정성스럽다.’의 뜻이다.
 - ② 호계람(好繫纜) :
 ☆호(好) : 여기서는 ‘호호지(好好地)’의 뜻으로 쓰였음. 이는 부사어로 ‘잘 ~하다’의 뜻이다.
 ☆계람(繫纜) : 밧줄로 배를 묶다.
- 35) 풍파실(風擺失) : 바람에 흔들려 유실되다.
- ① 파(擺) : 요동시키다, 흔들리다.
- 36) 하뢰다경낭(下瀨多驚浪 : 아래쪽은 여울이라 거센 물결 많아서) :
- ① 하뢰(下瀨) : 아래쪽 여울.
 ☆뢰(瀨) : 여울 : 사석(砂石 : 자갈) 위를 흐르는 얇고 빠른 물.
 - ② 경랑(驚浪) : 경도(驚濤) : 노도(怒濤) : 무섭게 밀려오는 큰 물결.
- 37) 경복(傾覆) : 기울어져 뒤집힘, 또는 기울여 뒤집어엎음.
- 38) 도화천(桃花遷) : 간죽문(看竹門)에서 겸암정사 쪽으로 이르는 총길 10m 지점 석벽임. 전하는 바에 의하면, 이 지점은 50m 정도의 길이로 야생 복숭아나무가 자라고 있어, 붙인 이름이라 한다.

- 39) 강상(江上): 강변. 이때의 상(上)은 명사인 ‘강(江)’의 뒤에 쓰여 ‘변(邊: 옆: 겹)’의 뜻을 나타냄.
- 40) 명명(冥冥): 유심(幽深)한 모양. (산수·수림·궁실 등에) 깊고 고요한 모양.
- 41) 연애수리전(緣崖數里遷: 절벽을 끼고 몇 리를 따라가면서):
 ① 연(緣): ‘~을 따라서, ~을 끼고’의 뜻.
 ② 천(遷):
 ☆따라 가다.
 ☆이동하다.
 ☆위치를 바꾸다.
- 42) 무내(無乃): ‘무내(無酒)’로도 쓴다. ‘혹시 ~이 아닐까?’에 상당하는 말로, 완곡한 추측의 어기(語氣)를 나타낸다.
- 43) 유서(幽棲): 은거(隱居)하다.
- 44) 의(疑): 추측(추정)하다, 짐작하다.
- 45) 완심재(玩心齋): 서애가 임진왜란 후 기거한 옥연정사(건물전체를 옥연정사라고 함)는, 건물이 모두 세 채인데 서당채[사랑채]를 옥연서당(玉淵書堂), 별당채를 원락채(遠樂齋), 안채를 완심재(玩心齋)라고 하며, 각 건물의 방마다 따로 이름이 있다. 이를 테면, 서당채는 옥연서당, 세심재(洗心齋), 감록헌(瞰綠軒). 별당채는 원락채(遠樂齋), 애오헌(愛吾軒). 안채는 완심재(玩心齋)이다.
 이때의 ‘완심재(玩心齋)’는 고유명사로 쓰인 것이 아니라, ‘전심전력으로 학문에 몰두하는 재사(齋舍)’란 의미의 보통명사로 쓰였다. 따라서 이것은 ‘옥연정사(玉淵精舍)’를 지칭하는 명사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이 ‘완심재(玩心齋)’란 말을 쓴 것은 본 시에서 뿐만 아니라, 『국역류성룡시(國譯柳成龍詩)·권1(卷一)·남계정사의 12절경(南溪精舍十二絶)』에서도 이 시제(詩題)로 쓴 ‘완심재(玩心齋)’가 있다. 「남계정사의(南溪精舍)의 12절경(十二絶)」 중의 완심재(玩心齋)는 ‘남계정사의 동쪽에 지어진 학생들의 기숙사’ 명칭이다.
 ① 완심(玩心): 온 마음을 다 기울이다, 전심전력으로 몰두하다(專心致志).
 ☆완(玩): 관상(觀賞)하다, 연구 검토하다(研討).
 ② 재(齋): 재사(齋舍).
- 46) 탐연처(嗒然處):
 ① 탐연(嗒然): 아무 생각 없이 우두커니 있는 모양 혹은 멍한 모양.
 ② 처(處): 머무는 자리, 혹은 좌석.
- 47) 포단(蒲團): 부들방석(부들을 사용하여 등글게 만든 방석으로, 주로 승려가 좌선坐禪하거나 예불禮佛을 드릴 때 사용함).
- 48) 진망(眞妄): 진실과 거짓. 진실과 허망.
- 49) 빙수(憑誰): 무엇을 근거로.
 ① 빙(憑): ~을 근거로 하다, ~에 의거하다.
 ② 수(誰): ‘무엇, 어떤, 무슨’ 등의 뜻으로 의문을 나타냄.
- 50) 영래재유상(迎來纔有象: 추리推理하면 겨우 징후가 잡히다가도):
 ① 영래(迎來): 추산하다.
 ☆영(迎): 추산하다, 헤아리다.
 ☆래(來): 이때의 래(來)는 ‘동사의 뒤에 보어로 쓰여, 동작이 말하는 사람에게로

향함'을 나타냄.

② 유(有) : 생기다, 나타나다.

③ 상(象) : 징조, 징후.

51) 망거홀미단(忘去忽迷端 : 소홀하면 단서조차 홀연 흐릿해지네) :

① 망거(忘去) : 소홀히 하다.

☆망(忘) : 소홀히 하다.

☆거(去) : 이때의 거(去)는 동사의 뒤에 보어로 쓰여, 동작이 화자(話者)로부터 멀어짐을 나타냄.

② 단(端) : 단서 혹은 실마리.

52) 황홀궁삼계(恍忽窮三界 : 모호한 가운데 삼계三界를 궁구하다보니) :

① 황홀(恍忽) : 황홀(恍惚)로도 쓴다. 모호하다, 몽롱하다.

② 궁(窮) : 깊이 연구하다, 끝까지 추구하다.

③ 삼계(三界) : 불교용어로서 중생(衆生)이 태어나서 죽어 윤회(輪回)하는 영역으로서의 세 개의 색계, 곧 욕계(欲界) · 색계(色界) · 무색계(無色界)의 세 가지를 이룸.

☆욕계(欲界) : 가장 밑바닥에 있는 세계이며, 음욕(淫慾)과 식욕(食慾), 수면욕(睡眠欲) 등 세 개의 욕심을 갖는 생물이 사는 장소이다. 위로는 육욕천(六欲天)이 있고 중간에는 인간계인 사대주(四大洲)가 있으며, 그 아래는 8대 지옥(八大地獄)이 있다.

☆색계(色界) : 욕계(欲界) 위에 있는 천계(天界)로 욕계의 더러움을 여의고 물질적인 것이 모두 청정한 세계이다. 이 계(界)의 중생은 남녀 구별 없이 광명을 식(食)으로 하고 언어로 쓴다.

☆무색계(無色界) : 물질을 초월한 세계로서, 순수하게 정신적인 영역이며, 육체를 갖지 않고 정신적인 요소들로만 형성된 세계이다. 무색계(물질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에는 네 가지 영역이 있는데, 첫째, 공무변처(空無邊處 : 물질적 존재가 절대적으로 없는 공간의 무한성에 대한 삼매三昧의 경지). 둘째, 식무변처(識無邊處 : 인식작용의 무한성에 대한 삼매三昧의 경지). 셋째, 무소유처(無所有處 :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경지). 넷째, 비상비비상처(非想非非想處 :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경지. 무색계 중의 제4천第四天의 선정禪定으로 제천諸天의 가장 좋은 곳임)가 있다.

53) 세이란(歲已闌) :

① 세(歲) : 한 해를 가리킨다.

② 난(闌) :

☆늦다. 거의 다 소진되다.

☆쇠되하다, 쇠락하다, 의기나 기세 따위가 사그라지고 갈아지다.

54) 간죽문(看竹門) : 옥연정사(玉淵精舍)의 서쪽 측면에 있는 협문(夾門)으로 겸암정사로 갈 수 있는 충길로 이르는 입구이다. 또한, 하회마을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강을 건너 다음, 돌계단을 올라 이 간죽문을 통해서 옥연정사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기도 하다. 이 간죽문은 옥연정사의 서쪽 정문이며, 이 문 밖을 나서서 서쪽으로 난 오솔길을 통해, 겸암정사로 갈 수 있다. 간죽문 밖에는 대나무 숲이 있다.

또한 간죽문을 나서면 남쪽으로 멀지 않은 곳에 '삼인석(三人石)'이라는 바위가 있

는데, 이곳은 400여 년 전에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 1542~1607), 약포(藥圃) 정탁(鄭琢: 1526~1605), 소재(蘇齋) 노수신(盧守愼: 1515~1590: 선부군先父君 입암 공立巖公과 동갑이며 고향이 상주尙州 화령化寧이어서 친하게 지냈음. 경상도에서 살아서 영상領相을 지낸 분으로 서애 공이 더욱 존경하였음. 입암공의 신도비神道碑를 찬했음) 등 3인의 영의정을 지낸 분들이 만나서 바둑도 뜨고 약주도 들며 시문도 지은 곳이다.

55) 파오수(罷午睡): 낮잠을 한 잠 자고나서.

- ① 파(罷): 끝나다, 마치다.
- ② 오수(午睡): 낮잠.

56) 부수행정곡(負手行庭曲: 뒷짐 지고 정원을 이리저리 거니네):

- ① 부수(負手): 뒷짐: 두 손을 등 뒤로 걸쳐 마주 잡는 것.
- ② 정곡(庭曲): 정원의 여기 저기.

☆곡(曲): 주변, 다방면. 꼬불꼬불한 곳.

57) 의역란(意易闌):

- ① 의(意): 정취.
- ② 역란(易闌): 또한 다하다. 혹은 쉽게 다하다.
☆역(易): 부사로, ‘같은 것’을 나타내며, ‘역(亦)’의 뜻.
☆란(闌): 다하다, 시들해지다. 쇠퇴(쇠락)하다.

58) 수죽(脩竹): 수죽(修竹)으로도 쓴다. 긴 대나무. 본 시에서는 ‘대숲’을 가리킨다.

- ① 수(修): ‘장(長)’의 뜻.

59) 빙옥(氷玉):

☆얼음과 옥을 아울러 이르는 말. 본 시에서는 얼음과 옥처럼 맑고 깨끗한 바람소리를 나타낸 말.
☆얼음과 옥은 고상하고 청결한 사람의 인품이나 기타 정갈한(깨끗한) 사물을 비유하는 말로 상용(常用)함.

60) 망형수주객(忘形誰主客: 내 육신조차 잊고 있거늘 누가 주인이고 누가 손님인가?):

- ① 망형(忘形):

☆속세에 구속되지 않고 초연하여, 자기의 형체(形體: 육신: 신체)마저 잊고 있음을 이룸.

『장자(莊子)·양왕(讓王)』 편에, “그러한 까닭은, 심지(心志)를 수양하는 사람은 자기의 육신(肉身)을 잊고, 자신의 육체를 보양(保養)하는 사람은 이득(利祿: 이득과 녹봉)을 잊으며, 수도(修道)하는 사람은 심지(心智)를 잊기 때문이다(故養志者忘形, 養形者忘利, 致道者忘心矣)”고 하였다.

- ② 주객(主客): 주인과 빈객.

61) 겸암사(謙巖舍): 겸암정사(謙巖精舍): 중요민속자료 제89호. 안동시 풍천면 광덕리 소재. 영조 33년(1757) 7월 16일 한산(韓山) 이象靖(李象靖)이 쓴 「겸암정사기(謙巖精舍記)」가 있다.

- ① 겸암정사(謙巖精舍: 겸암정사謙巖精舍): 겸암정사는 서애의 백형인 겸암(謙菴) 류운룡(柳雲龍: 1539~1601)이 도학을 연구하고 후학을 양성하며 정신을 수양하던 서재(書齋)이다. 이 정사(精舍)는 겸암이 29세 때(명종 22) 건립하였다. 이 정사는 부용대 서쪽 끝 강물이 크게 감돌아 굽이치는 절벽 위에 동남향으로 터를 잡고 있다. 정사가 자리 잡은 절벽 아래로는 화천(花川)이 깊은 소(沼)를 이

투머 굽이 돌아 흘러나가고, 뒤로는 술술이 있다. 조용하고 그윽한 정취가 감도는 곳이다.

정사 건물은 중층누각식(重層樓閣式)의 네 귀에 모두 추녀를 달아 지은 팔작집[八作家]으로 되어 있다. 안채와 사랑채로 구성되어 있고, 마당은 없지만 멀리 바라 보이는 풍경을 안마당으로 끌어들이 더없이 넓고 시원한 느낌을 갖게 한다. 정사가 있는 앞쪽을 제외한 모든 방향이 흙담으로 나지막하게 반달모양으로 둘러쳐져 있다. 안채는 전체적으로 ㄱ자형 평면으로 되어 있다. 또한 정사 안채 전경을 보면, 안채는 살림채 구실을 하는 건물로 바깥채인 정사의 뒤쪽에 위치해 있다. 겸암정의 현판은 퇴계선생(退溪先生)이 썼으며, 후면의 겸암정사는 조선 중기의 명필이었던 원진해(元振海: 1594~1651)의 글씨라고 한다. 겸암은 그의 스승인 퇴계선생이 손수 쓴 현판이름을 ‘호(號)’로 쓴 것이라고 한다.

(이상은 사진 황현만 글 이상해·정승모 『하회마을』 참조)

62) 정관(亭館):

- ① 사람들에게 놀이와 휴식 및 숙박을 제공하기 위해서 건축한 정대누각(亭臺樓閣: 휴식과 경관 감상을 위해 원림 정원에 지은 건축물)이다.
- ② 본 시에서는 겸암정사(謙巖精舍)를 지칭하는 말로 쓰였다.

63) 겸암유구명(謙巖有舊名: (정사精舍) 겸암이라는 명칭에는 전통 의미 내포됐네):

- ① 겸암(謙巖): 본 시에서는 겸암정사(謙巖精舍: 겸암정사謙巖精舍)를 가리킨다.
- ② 겸암(謙菴):

☆풍산류씨(豐山柳氏) 13세손(十三世孫) 류운룡(柳雲龍)은 퇴계선생이 손수 쓴 현판이름을 자신의 ‘호(號)’로 쓴 것이라고 한다.

☆류운룡(柳雲龍: 1539~1601):

조선 중기의 문신(文臣). 본관은 풍산(豐山), 자(字)는 응현(應見), 호는 겸암(謙菴). 부친은 중영(仲郢), 모친은 안동 김씨(安東金氏)로 진사(進士) 광수(光粹: 1468~1563)의 딸이다. 성룡(成龍: 1542~1607)의 백형으로 퇴계(退溪) 이황(李滉: 1501~1570)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어릴 때부터 총명하여 모든 경사(經史) 서적을 통독함으로써 사문(師門)의 촉망을 받았다. 1572년 친명(親命: 부모의 명령)으로 음사(蔭仕)를 받아 전함사 별좌(典艦司別坐)*가 된 뒤, 이듬해 의금부 도사(義禁府都事)*로 추배되었으나 사퇴하였다. 다시 사포서 별제(司圃署別提)*가 된 뒤 풍저창 직장(豐儲倉直長)*등을 역임하면서 청렴하고 철저한 임무 수행 능력을 인정받아 내자시 주부(內資寺主簿)*로 승진하여 진보현감(眞寶縣監) 등을 지냈다. 그러나 어머니의 신병 때문에 사퇴하였다가 다시 인동현감(仁東縣監)으로 추배되었다. 길재(吉再: 1353~1419: 고려 말 조선전기의 성리학자)의 묘역을 정화하고 사우(祠宇)와 서원을 지어 유학(儒學)의 진흥책을 도모하여 그를 칭송하는 송덕비가 세워지기도 하였다. 광흥창 주부(廣興倉主簿)*, 한성부 판관(漢城府判官)*, 평시서 서령(平市署書令)*, 사복시 첨정(司僕寺僉正)* 등을 두루 역임하였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동생인 영의정 성룡이 선조에게 그를 해직시켜 모친을 구출하도록 읍소(泣訴)하니, 이 건의가 받아들여져 그는 모친을 비롯한 온 가족이 모두 무사하도록 하여 모두가 그의 효심을 칭찬하였다. 그 해 풍기가군수(豊基假郡守)가 되었으며, 전란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조공을 평시와 같이 함으로써 얼마 뒤 다시

정군수(正郡守)가 되어 왜적들의 위협을 받고 있는 백성들의 생업을 보호하는데 힘썼다. 그 뒤 원주목사(原州牧使)로 승진되었으나 아버지의 노쇠함을 핑계하여 사퇴하였다. 후에 이조판서(吏曹判書)에 추증되었고, 문경(文敬)의 시호를 받았으며, 화천서원(花川書院)에 주벽(主壁)으로 모셔졌다. 군국기무(軍國機務)에 관한 소(疏: 임금에게 올린 글)를 올려 선조(宣祖)로부터 인정을 받아 조의(朝議)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학문에 있어서는 이기설(理氣說)이나 사칠논변(四七論辨)은 이황의 이기이원론(理氣二元論)에 근거를 두고 변증을 시도하려 하였다. 저서로는 『겸암집(謙菴集)』이 있다.

***전함사 별좌(典艦司別坐)**: 전함사는 선박을 만들거나 관리하고 물자를 수송하던 일을 맡아 보던 관아의 5품 벼슬이다.

***의금부 도사(義禁府都事)**: 임금의 명을 받들어 중죄인을 심문하던 일을 맡아하던 사법기관에 소속된 종육품의 벼슬이다.

***풍저창 직장(豐儲倉直長)**: 궁궐에서 소요되는 쌀, 콩, 종이류 등을 담당하는 관청인 풍저창의 종7품 벼슬이다.

***사포서 별제(司圃署別提)**: 궁중의 원포(園圃)에서 채소 따위의 일을 맡아보던 6품의 벼슬이다.

***내자시 주부(內資寺主簿)**: 호조(戶曹)에 속하여 대궐에 쓰는 여러 가지 식품·직조(織造)·내연(內宴)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의 종6품 벼슬이다.

***광흥창 주부(廣興倉主簿)**: 광흥창은 조선시대 백관의 녹봉을 관장하던 관서 및 그 관할하의 창고에서 아문(衙門)의 문서와 부적(符籍)을 주관하던 종6품의 벼슬이다.

***한성부 판관(漢城府判官)**: 조선시대 서울의 행정·사법을 맡아보던 관아에 소속된 정5품의 벼슬이다.

***평시서 서령(平市署書令)**: 조선시대 시전(市廛: 시장의 가게)에서 자·말·저울 따위의 물건 값을 검사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아에서 문부(文簿)를 맡아보던 벼슬이다.

***사복시 첨정(司僕寺僉正)**: 사복시는 조선시대에 궁중의 가마나 말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에서 낭청(郎廳)에서 실무를 맡아보던 당하관 벼슬이다.

☆**겸(謙)**: 겸괘(謙卦):

64괘(六十四卦) 중의 하나로서, 간괘(艮卦: 산을 상징하며, 괘형卦形은 ‘==’임)가 아래, 곤괘(坤卦: 땅을 상징하며, 괘형卦形은 ‘==’임)가 위에 있는 것이며, 괘형(卦形)은 ‘===’임. 『주역(周易)·겸괘(謙卦)』에서 이르기를: “‘겸(謙)’괘는 겸허함을 상징한다(謙). 겸허하면亨통(亨通)한다(亨), 군자는 끝까지 겸허함을 견지한다(君子有終)”고 하였다. “이것을 해석한 「상사象辭」에서는 말하기를: 평지에 산이 있는 것은 겸허함을 상징한다. 군자는 그러므로 과다한 것을 덜어내어 부족한 곳에 보충하여야 하며, 각종 사물을 기금하여 공평하게 베풀어야 한다(象曰): 地中有山, 謙。君子以裒多益過, 稱物平施)”고 하였다. 『집해(集解)』에서는 후한(後漢)의 학자 정현(鄭玄: 127~200)의 말을 인용하여 말하기를: “간(艮)은 산이고, 곤(坤)은 땅이다. 산의 형체는 높지만, 이제 땅이란 낮은 곳에 있다. 이러한 현상을 인도(人道: 사람의 도리)에 비유하여, 높은 곳에서 아래로 베풀어야 하는데, 이것이 겸(謙)의 상징이다(集解引鄭玄曰: 艮

爲山，坤爲地。山體高，今在地下。其於人道，高能下下，謙之象。”고 하였다.

☆암(巖) : 산이나 고지대의 가파른 낭떠러지(즉, 애안(崖岸))를 말한다.

☆본 시에서 “겸암(謙巖)”이란 명칭에는 전통적 의미가 있다네(謙巖有舊名)”라고 읊은 근거는 위에서 설명한 『주역(周易)·겸괘(謙卦)』의 논리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류운룡의 ‘겸암’이라는 호도 바로 퇴계가 지어준 이 ‘현관명’에 근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② 구명(舊名) :

☆전통적 개념 혹은 원래의 명칭.

☆옛적부터 있던 명칭.

『순자(荀子)·정명편(正名篇)』에 “만약 어떤 왕이 될 사람이 흥기(興起)한다면 반드시 전통적 개념〈옛적부터 있던 명칭〉에 따라서, 새로운 명칭을 제정할 것이다(若有王者起，必將有循於舊名，有作於新名).”고 하였다.

64) 정임계(淨臨階) :

☆정(淨) : 단지, 온통. 전적으로, 완전히.

☆임계(臨階) :

a. 섬돌에 임하다.

b. 섬돌을 비추다. 본 시에서는 섬돌위에서 그림자가 일렁이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번역하였다.

65) 유증방초합(遊蹤芳草合) : 거니는 곳마다 방초가 무덕무덕 자라고 :

① 유증(遊蹤) : 유종(遊踪)으로도 쓴다.

☆외출해서 이리저리 거닐은 행방(행적·소재). 본 시에서는 겸암정사(謙巖精舍) 정원의 여기저기를 거닐은 발자취를 가리킨다.

② 방초(芳草) : 향기롭고 꽃다운 풀.

③ 합(合) : 집합하다, 한데 모이다. ☆어우러지다(여럿이 조화를 이루거나 섞이다). 본 시에서는 뜰 안에 방초가 무더기지어서 자라고 있는 것을 형용한 말이다.

66) 선로(仙路) :

① 본 시에서는 옥연정사(玉淵精舍)에서 겸암정사(謙巖精舍)로 가는 부용대(芙蓉臺)의 강변 오솔길을 가리킨다. 이 길은 서애가 그의 백씨(伯氏) 류운룡(柳雲龍)과 함께 거닐기도 했고 자주 서로가 오가던 길이었다.

67) 창억(悵憶) :

① 창(悵) : 슬퍼하다, 마음 아파하다.

② 억(憶) : 생각하다, 추억하다.

68) 지주암(砥柱巖) : 본 시는 부용대 절벽 아래, 곧 옥연정사 밑의 하상(河床)에 우뚝 서 있는 갈모바위(馬巖：馬巖怒濤)를 칭하는 것임.

서애의 장순자인 줄재(拙齋)는 그의 문집에서 「겸암옥연 이정사 심육경기(謙菴玉淵二精舍十六景記)」라는 제목하에 이 갈모바위를 제2경으로 소개하고 있다. 서애(1542~1607)는 일찍이 그의 백형인 겸암 류운룡(1539~1601)이 인동(仁同) 현감으로 부임하여[1585년: 선조 18] 야은(冶隱) 길재(吉再) 선생을 배향한 오산서원(吳山書院：경북 구미시 소재. 1609년〈광해군〉에 ‘오산吳山’이라고 사액되었으나, 그 뒤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철회되어 유지遺址만 남아있음)을 건립하였을 때, 백형의 명으로 길재 선생의 충절을 기리는 비문[지주중류비(砥柱中流碑)]을 지은 적이 있다. 아마도 이로 인

해 위의 갈모바위에 대한 특별한 애착을 가졌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졸재의 기문(記文)에는 곧 부용대 앞쪽으로 “강물이 크게 굽이치는 곳의 전방에 20여장(餘丈)이나 되는 거석이 강의 중앙에 버티고 있어서 성난 파도의 충격을 막아주는 힘이 바로 그 수중(水中)에서 솟구쳐 나온다(江水大曲之處, 前有巨石高可二十餘丈在江中, 當怒濤衝激之勢, 其足自水中出).”라고 표현하였다. 본시에서 시제(詩題)를 지주(砥柱)라는 수식어를 붙여 「지주암(砥柱巖)」이라고 칭한 의미는 서애선생의 「지주중류비(砥柱中流碑)」(하회본 『西厓全集』1책·刊本篇·本集·碑碣·砥柱中流碑권19)를 참조바람. 또한 민족문화추진회(民族文化推進會), 『國譯西厓集①·碑碣』(술: 1997년)을 참조바람.

① 지주(砥柱) : 이는 황허강 중류에 있는 산 이름이다. 《수경주(水經注)》에 따르면, 우(禹) 임금이 치수(治水)를 할 때 산언덕이 물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산의 좌우를 파냈다. 이렇게 해서 강물은 산의 양쪽으로 갈려 흘러가게 되었는데, 그 산의 모습이 물속에 가동처럼 솟아 있었으므로 ‘지주’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두산백과 참조)

69) 불사충파격(不辭衝波激) : 거센 물결 들이쳐도 마다하지 않으면서) :

① 불사(不辭) : 여기서 ‘사(辭)’는 ‘사(辭)’와 동자(同字)이다.
☆사양하지 않다, 마다하지 않다, 불사(不辭)하다.

② 충파격(衝波激) :
☆충(衝) : 솟구치다. 물결이 부딪치다.
☆파격(波激) : 격랑, 거센 파도, 센 물결.

70) 성독전(性獨全) : 그 자태 의연히 보전하네.

① 성(性) : ☆자태. ☆본성. ☆본질.
② 독(獨) : 부사로 쓰여 ☆의연히. ☆여전히. ☆혼자서.
③ 전(全) : 보전하다.

71) 응지거령의(應知巨靈意) : 아마도 수신수神 거령巨靈의 뜻을 알고 있어선지) :

① 응(應) :
☆부사로 쓰였으며, ‘아마도 ~일 것이다’ 는 뜻이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역시 부사로 쓰여, ‘대체로, 대략’의 뜻으로도 쓰인다.

② 거령(巨靈) : 중국의 신화 전설상에서 화산(華山)을 갈라놓았다는 하신(河神)을 가리킨다.

『문선(文選)·장형(張衡 : 78~139, 후한의 문인·학자) 서경부西京賦』에, “태화산(太華山)과 소화산(小華山)의 두 화산(華山)이 연이어져 있어서, (황하黃河의 흐름을 가로막고 있었던 까닭에) 하신(河神 : 하백河伯 : 황하를 맡아 다스린다는 수신수神)인 거령(巨靈)이 양팔에 힘을 불끈 써서, 높은 곳인 산줄기는 손바닥으로 찢어 두 쪽으로 갈라버리고 멀찍하게 발로 산기슭을 건어차서, 강물을 그 사이로 굽이쳐 흘러가게 하였다(綴以二華, 巨靈翬鳳, 高掌遠蹻, 以流河曲). 그 때 생긴 장인(掌印 : 손자국)과 족적(足跡 : 발자취)이 지금도 선명하게 남아있다(蹻跡猶存)”고 한 대목이 있다.

삼국시대 오(吳)나라의 문인 설중(薛綜 : ?~243)이 주석(注釋)하기를, “거령(巨靈)은 하신(河神)이다. ... 옛 말에 이르기를: ‘이 화산(華山)은 본래 하나의 산으

로 강(滄河)을 가로 막고 있어서, 강물이 그 산을 굽이굽이 돌아서 흘러가게 되
자, 강물의 신이 팔을 뻗어 산줄기의 윗부분을 찢어놓고, 발로 산의 아랫부분을
건어차서, 산줄기의 중간을 양분(兩分)하여, 강물의 흐름을 소동시켰다. 그 때 생
긴 수족(手足)의 흔적이, 지금도 선명하게 남아있다고 한다(巨靈河神也。… 古
語云：此本一山當河，水過之而曲行，河之神以手擘開其上，足蹋離其下，中分
爲二，以通河流。手足之跡，于今尚在)”고 하였다.

72) 욕주반벽천(欲柱半壁天 : (지주암은) 반쪽만 보이는 하늘을 괴어 지탱하려 하네) :

① 주(柱) :

☆버티다, 지탱하다.

☆괴다(기울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아래를 받쳐 안정시키다).

② 반벽(半壁) :

☆반 동강, 반 쪽, 한 쪽.

☆반벽강산(半壁江山 : 반벽산하半壁山河 : 반벽하산半壁河山)의 약어(略語)로서, ‘절
반의 국토, 반 동강이 난 국토, 침략으로 적에게 빼앗기고 남은 국토, 절벽에
둘러싸인 산수(山水)’의 뜻으로 쓰였다.

73) 작세배중험(作勢排重險 : (지주암은) 위세 부리며 험준한 지세로 늘어섰는데) :

① 작세(作勢) : 자세를 취하다, 위세를 부리다.

② 중험(重險) : 겹겹이(층층이 쌓인 채) 험준한 지세(地勢).

74) 반근도구천(盤根到九泉 : 그 반석盤石의 근원은 구천九泉까지 닿았다네) :

① 반근(盤根) :

☆‘반(盤)’은 ‘반(磐 : 넓고 큰 바위나 층층이 둘러싸인 산석山石)’과 통합. 이 뜻으로
쓰인 경우의 ‘반근(盤根)’은 ‘지하에 묻힌 큰 암석, 즉 땅속의 반석(磐石)’의 의
미이며,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② 구천(九泉) :

☆황천(黃泉)과 같은 말. 사람이 죽은 후에 매장되는 곳을 가리킨다.

☆지하의 아주 깊은 밑바닥을 가리킨다.

75) 회양종자임(懷襄終自任 : 홍수 저서 강물 범람하면 결국 스스로 감당해야 하지만) :

① 회양(懷襄) : 회산양릉(懷山襄陵) : 홍수가 나서 범람한 물이 산을 에워싸고 구릉
까지 물에 잠기게 됨을 이룸. 회(懷)는 ‘(홍수가 산을) 에워싸다’, 양(襄)은 ‘(물에)
잠기다, 함몰(陷沒)하다’는 뜻으로 쓰였다.

『서경(書經) · 요전(堯典)』에 “출렁출렁 홍수가 도처에 수해를 입히고, 넘실넘실
산을 에워싸고 구릉까지 물에 잠기에 되니, 끝없이 광대한 홍수가 하늘에 충만할
것 같다(湯湯洪水方割，蕩蕩懷山襄陵，浩浩滔天)”고 하였다.

② 자임(自任) : 스스로 감당하다, 스스로 책임지다, 자신의 직책(職責)으로 간주하
다, 어떤 일에 대하여 자기가 책임이라고 자부하다.

76) 소척(疏鑿) : 소착(疎鑿)으로도 쓰고 소착(疏鑿)으로도 쓴다.

☆(운하, 터널 등을) 파다, 굴착하다.

☆땅을 뚫어 막힌 물을 통하게 한다.

시55. 사암思庵 유숙柳淑의 시를 차운次韻하여 짓다 서문을 병기함

詩55. 次柳思庵韻¹⁾ 并序

차 류 사 암 윤 병 서

사암思庵 유숙柳淑의 시(*역자 주석 : 시제詩題 : 「가을비 속에서 느낌이
있어(秋日雨中有感)」에서 이르기를 :

타향살이 하면서 백발이 다 된 터라,
도처에서 사람 만나도 잘 알아보지 못하네.
고요한 밤 이숙하여 창가에 달빛만 가득한데,
비파의 선율 타고 「정과정」곡이 들려오네.

라고 읊었다. 훗날 도은陶隱 이승인李崇仁이 그 시에 이어서 읊기를 :

비파의 선율 타고 「정과정」곡이 들려오는데,
그 여운 처량하여 차마 듣지 못하겠네.
고금을 통틀어 숙고해도 너무나 한스러운데,
내린 주렴 전면全面에 성근 비 뿌리는 데 「이소離騷」를 읽노라.

나는 이 시를 읽고 감동하여 시 한 수를 지어서, 사암思庵 유숙柳淑
선생에게 조의弔意를 표한다..

柳思庵淑詩²⁾ :

류 사 암 숙 시

他鄉作客頭渾白³⁾,

타 향 작 객 두 혼 백

到處逢人眼不靑⁴⁾。

도 처 봉 인 안 불 청

清夜沈沈滿窓月⁵⁾,

청 야 침 침 만 창 월

琵琶一曲鄭瓜亭⁶⁾。

비 파 일 곡 정 과 정

後陶隱⁷⁾ 繼之云 :

후 도 은 계 지 윤

琵琶一曲鄭瓜亭,

비 파 일 곡 정 과 정



遺響悽然不忍聽⁸⁾。
유향 차연 불인청

俯仰古今多少恨⁹⁾，
부양고금다소한

滿簾疎雨讀騷經¹⁰⁾。
만림소우독소경

余讀而感之，作一詩，以弔思庵。
여독이감지작일시이조사암

思庵冤結¹¹⁾千年後， 사암思庵 선생 맺힌 한恨 천 년 후에도
사암원결 천년후 이어진 듯，

江上¹²⁾秋峯數點青。 강변의 가을 산봉우리 여기저기 푸르네.
강상 추봉수점청

欲把琵琶彈夜月， 비파로 밤 밝히는 달을 탄주코자 하니，
욕파비파탄야월

曲中疑¹³⁾有鄭瓜亭¹⁴⁾。 아마도 그런 곡 중에는
곡중의 유정과정 「정과정鄭瓜亭」이 제격일 듯하네.

1) 차유사암운(次柳思庵韻) : 사암思庵 유숙柳淑의 시를 차운次韻하여 짓다) :

① 차운(次韻) : 화답(和答)하는 시에서 남의 시운(詩韻)에 맞추어 시를 짓는 것을 말한다. 혹은 남이 지은 시의 운자(韻字)를 따서 시를 짓는 것을 말한다. 보운(步韻)이라고도 한다.

② 유사암(柳思庵) : 사암(思庵) 유숙(柳淑)을 가리킨다. 사암(思庵)은 유숙의 호 ☆유숙(柳淑 : 1324~1368) : 고려 공민왕(恭愍王 : 1330~1374, 고려 제31대 왕. 성명은 왕전王顥) 때의 현신(賢臣). 본관은 서산(瑞山), 자는 순부(純夫), 호는 사암(思庵)이다. 1340년(충혜왕 복위 1년) 과거에 급제하여 안동사록(安東司祿)이 되었으며, 이어 강릉대군(江陵大君 : 공민왕)을 시종하여 4년간 원(元)나라에 있었으며, 공민왕이 즉위하자 본국으로 돌아와 좌사의대부(左司議大夫)에 승진하여 기무(機務)에 참여하였으나 소명이 없이는 칼내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 일로 후에 조일신(趙日新 : ?~1352)의 무고로 시골로 돌아갔다가 일신(日新)이 죽은 뒤에 관전교(判典校)에 보직되어 왕의 자문에 참여했으나 함부로 왕에게 접근하지 않고 자주 왕의 소명에 불응하였으므로 드디어 성난 왕은

그를 순군(巡軍)에 가두기도 했다. 홍건적(紅巾賊)이 침입했을 때 왕에게 권하여 남행케 하였으며 난이 평정된 후 원수 안우(安祐 : ?~1362 : 공민왕 때의 무장武將) 등이 자기를 살해하려는 기미를 알고 동경유수(東京留守)로 나갔다가, 이어 소명을 받고 돌아와 첨의평리(僉議評理)에 승진하였으나 이미 늙었다는 핑계로 사직하였으며, 서령군(瑞寧君)에 봉해졌다. 1363년 공민왕의 측근 신하인 김용(金鑄 : ?~1363 : 고려 말기의 무관武官)이 친원파(親元派)인 최유(崔濡 : ?~1364)와 결탁하여 왕이 개경(開京 : 개성開城)의 흥왕사(興王寺)에 행차한 것을 기회로 시해(弑害)하려고 했을 때, 그는 마침 몸을 피하여 화를 면했다. 이때 정승·환관 등은 많이 살해되었다. 이때 최영(崔瑩 : 1316~1388 : 고려 말 명장) 등과 함께 공을 세워 정당문학 겸 감찰대부(政堂文學兼監察大夫)가 되어 1등 공신에 책록되었으며, 첨의찬성사 상의회의도감사 예문관대제학 지춘추관사(僉議贊成事商議會議都監事藝文館大提學知春秋館事)에 올랐다. 1365년 그의 충직을 두려워하던 신돈(辛旽 : ?~1371 : 고려 말기의 중)의 모함으로 시골에 돌아가 있다가 영광(靈光)에서 신돈이 밀파한 자에게 교살 당하였다. 후에 왕은 숙(淑)의 무죄함을 알고 깨달은 다음, 그의 원을 씻어주고 예를 갖추 장사(葬事)케 하는 한편, 귀양 보냈던 그의 아들 실(實)과 후(厚)를 소환하였다. 우왕(禑王 : 1365~1389) 때 공민왕의 사당에 함께 배향되었으며, 시호는 문희(文僖)이다.

- 2) 유사암숙시(柳思庵淑詩) : 사암(思庵) 유숙(柳淑)의 시 :
본 시의 서문에서 서에는 사암(思庵) 유숙(柳淑)의 시(詩)인 「가을비 속에서 느끼
이 있어(秋日雨中有感)」를 예시(例詩)로 들어서 밝히고 있다.
- 3) 타향작객두혼백(他鄉作客頭渾白) : 타향살이 하면서 백발이 다 된 터라) :
① 작객(作客) : 객지에 머물다, 객지에서 기거하다.
② 두혼백(頭渾白) : 두발이 완전히 하얗게 세어진 것을 말함.
☆두(頭) : 두발(頭髮 : 머리털)을 가리킨다.
☆혼백(渾白) : ‘혼(渾)’은 부사로 쓰여, ‘전부, 모두, 완전히’의 뜻이고, ‘백(白)’은
동사로 쓰여 ‘하얀 색으로 변하다, 하얗게 세다’의 뜻이다,
- 4) 안불청(眼不靑) :
① 봐도 선명하게 보이지 않다. 전(轉)하여, ‘~을 잘 알아보지 못하다’는 뜻으로 쓰
였다.
☆안(眼) : 눈으로 보다, 보이는 것.
☆청(靑) : 청(淸)과 통하며, ‘맑다, 청결하다, 분명하다’ 뜻으로 쓰인다.
- 5) 청야침침만창월(淸夜沈沈滿窓月 : 고요한 밤 이슬하여 창가에 달빛만 가득한데) :
① 청야(淸夜) :
☆청정(淸靜)한 밤.
☆조용한 밤.
☆고요한 밤.
② 침침(沈沈) : 침침(沉沉)으로도 쓴다. (밤이 혹은 황혼이 혹은 정도가) 깊어 감을 형
용한 말.
- 6) 정과정곡(鄭瓜亭) : 정과정곡(鄭瓜亭曲) : 고려 의종(毅宗) 때 문인(文人)인 과정(瓜
亭) 정서(鄭敍 : 생몰년 미상)가 지은 가요(歌謠). 「삼진작(三眞作)」이라고도 한다. 이

는 조선시대에 와서 『악학궤범(樂學軌範)』에 그 곡조가 「삼진작」이라는 이름으로 수록된 데서 연유하며, 후에 사람들이 그의 호를 따서 「정과정(鄭瓜亭)」 혹은 「정과정곡(鄭瓜亭曲)」이라고 일컫게 되었다.

작자의 벼슬은 후에 내시랑중(內侍郎中)에까지 이르렀으나, 그에 앞서 1151년(의종 5) 참소를 받고 동래(東萊)로 귀향을 갔는데, 왕으로부터 곧 부르겠다는 약속을 받고 20년을 기다렸다. 그러나 소식이 없는 채 1170년(명종 즉위) 정중부(鄭仲夫 : 1106~1179 : 무신武臣을 확대하는 데에 불만을 품고 정변을 일으켜, 임금을 폐하고 정권을 잡은 후 무단정치武斷政治를 행하다가 경대승(慶大升 : 1154~1183) 등에 의하여 평정된)의 난(亂)으로 의종이 축출된 후에야 재기용되었는데, 이 작품은 당시의 동래 유배 시절에 십구체(十句體) 향가(鄕歌) 형식으로 지은 충신연군(忠信戀君)의 노래이다. 이 시가(詩歌)를 그 형성과 내용에서 보아 광의(廣義)의 향가로 처리하는 학자도 있어 향가의 시대적 하한선(下限線)이 12세기까지도 내려 올 수 있다는 문제와 관련하여 논란되는 작품이다. 『고려사(高麗史)·악지(樂志)』에 이제현(李齊賢 : 1287~1367, 고려 말기의 문신학자)의 한역시(漢譯詩)가 실려 전한다. 『악학궤범』에 실린 한글 가사의 첫머리는 다음과 같다. “내님들 그리스와 우니다나, 산(山)점동새 난이 솟호요이다. 아니시며 거르르신들 아으, 잔월효성(殘月曉星)이 아르시리이다 ….”

7) 도은(陶隱) : 고려 후기의 학자 이승인(李崇仁)의 호.

① 이승인(李崇仁 : 1347~1392) : 고려 후기의 학자이며 고려 삼은(三隱)의 한 사람. 자는 자안(子安), 호는 도은(陶隱)이다. 공민왕 때 문과에 급제, 숙용부승(肅雍府丞)이 되고, 그 뒤 장흥고사 겸 진덕박사(長興庫使兼進德博士)가 되었다. 문사(文士)를 뽑아 명(明)나라에 보낼 때, 수석으로 뽑혔으나 25세가 못되었으므로 보내지 않았다. 예의산랑(禮儀散郎), 문하사인(門下舍人)을 지내고, 우왕(禡王) 때 전리총랑(典理摠郎)이 되어 김구용(金九容 : 1338~1384), 정도전(鄭道傳 : 1337~1398) 등과 함께 원(元)의 사신을 돌려보낼 것을 청하다가 귀양을 가기도 했다. 다시 돌아와서 우사의대부(右司議大夫)로 전임하며 동료와 함께 소(疏)를 올려 국가의 시급한 대책을 논하였다. 그 뒤 밀직제학(密直提學)이 되어 정당문학(政堂文學) 정몽주(鄭夢周 : 1337~1392)와 더불어 실록을 편수하고 동지사사(同知司事)로 전임하였다. 첨서밀직사사(簽書密直司事)가 되어서는 원(元)나라 서울에 가서 신정(新正)을 축하하고 돌아와 예문관제학이 되었다.

창왕(昌王 : 1380~1389 : 고려 제33대 왕) 때 박천상(朴天祥 : 생몰년 미상), 하륜(河崐 : 1347~1416) 등과 더불어 무릉도(武陵島)에 유배되었다가 실종된 후, 일본에 가서 찾아온 기억력을 거의 상실한 영흥군(永興君) 왕환(王環 : 생몰년 미상)의 진위를 변론하다가 무고에 연좌되어 헌사(憲司)가 극형에 처하기를 청하였으므로 피하여 다니다가 시중(侍中) 이성계(李成桂 : 1335~1408 : 조선 태조)의 도움으로 다시 서연(書筵)에 시강(侍講)하게 되었다. (영흥군은 이승인의 동생 이승문(李崇文)의 장인이며, 공양왕恭讓王의 종숙從叔임). 그러나 간관(諫官) 구성우(具成祐 : 생몰년 미상), 오시충(吳思忠 : 1327~1406), 남재(南在 : 1351~1419), 심인봉(沈仁鳳 : 생몰년 미상), 이당(李堂 : 생몰년 미상) 등이 상소, 탄핵하여 경산부(京山府)로 유배당하였다. 이때 첨서밀직사사(簽書密直司事) 권근(權近 : 1352~1409)이 그를 구출하기 위하여 무죄를 상소하였으나 간관(諫官)이 도리어 권근(權近)의 상소가 거짓을 꾸민 것이라 상소하여 창왕은 그를 우봉현(牛峯顯)에 유배하였다.

공양왕(恭讓王 : 1345~1394 : 고려 제 34대 마지막 왕) 때 간관이 그를 다시 논죄하여 타군(他郡)에 옮겨 유배하였고, 뒤에 청주옥(淸州獄)에 수감되었으나 수재(水災)로 말미암아 사면되었다. 얼마 뒤 소환되어 지밀직사(知密直事), 동지춘추관사(同知春秋館事)가 되었으나, 정몽주의 당이라 하여 또 사직당하고 멀리 유배되었다. 조선조(朝鮮朝)의 개국에 이르러 자기와 함께 처세하지 않은 데 앙심을 품고, 정도전이 보낸 심복 황거정(黃居正 : 생물년 미상)에 의하여 유배소에서 장살(杖殺) 되었다. 그는 친부적으로 자질이 영민하고 문사(文辭)가 우아하여 이색(李穡 : 1328~1396)이 극찬하였고 명태조(明太祖)도 일찍이 그가 찬한 표문(表文)을 보고 가상히 여겼다고 한다. 저서로 『도은시집(陶隱詩集)』 5권이 있는데, 그 서문에 의하면 그의 생존시에 저서로 『관광집(觀光集)』 『봉사록(奉使錄)』 『도은재음고(陶隱齋吟藁)』 등도 지었다고 하였으나 지금은 전하지 않고 있다.

8) 유향천연불인청(遺響悽然不忍聽 : 그 여운 처량하여 차마 듣지 못하겠네) :

- ① 유향(遺響) : 여음(餘音)과 같은 말.
- ② 천연(悽然) : ☆처량한 모양. ☆쓸쓸한(비참한) 모양.
- ③ 불인(不忍) : 차마 ~할 수 없다.

9) 부앙고금다소한(俯仰古今多少恨 : 고금을 통틀어 숙고해도 너무나 한스러운데) :

- ① 부앙(俯仰) : 깊이 묵상(默想)하는 것을 형용한 말. 숙고(熟考)하는 것을 형용한 말. 심사숙고하는 것을 형용한 말.
『북사(北史)·이밀전(李密傳)』에 “수(隋)나라 무신(武臣) 우문화급(宇文化及 : ? ~619)은 입을 다물더니, 한참동안 숙고하고 나서, 마침내 눈을 부릅뜨고 큰소리로 말하기를 : ‘그대와 함께 서로 죽이는 일을 논하려하면서, 무엇 때문에 반드시 문서를 작성하여 우아한 말로 전해야 하겠는가(宇文化及默然, 俯仰良久, 乃瞋目大言曰 : 共你論相殺事, 何須作書傳雅語)’ ”라고 한 대목이 있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10) 만림소우독소경(滿簾疎雨讀騷經 : 내린 주름 전면全面에 성근 비 뿌리는데 「이소(離騷)」를 읽노라) :

- ① 만림소우(滿簾疎雨) :
☆만림(滿簾) : 여기서 ‘만(滿)’은 본래, ‘넘치다, 가득하다’는 의미인데, ‘만림(滿簾)’이라고 할 때의 이 ‘만(滿)’은, 내린 주름[簾]의 전체를 가리킨다.
☆소우(疎雨) : 여기서, ‘소(疎)’자는 ‘소(疏)’와 동자(同字)로서, ‘성글다, 드물다, 성기다’ 등의 의미로, ‘소우(疎雨)’라고 하면, 성글게 비가 내린다는 뜻이다.
- ② 소경(騷經) : 「이소(離騷)」를 가리킨다.
☆「이소(離騷)」: 초(楚)나라의 굴원(屈原 : 약 BC 339~약 BC 278)이 지은 부(賦)로서, 서정적 장편 서사시이다. 조정에서 쫓겨난 후의 시름을 노래 한 것으로 『초사(楚辭)』 가운데서 으뜸으로 꼽힌다. ‘이소(離騷)’란 조우(遭遇), 즉 ‘근심을 만난다’는 뜻이며, 초나라의 회왕(懷王)과 충돌하여 물러나야 했던 실랑과 우국(憂國)의 정을 노래한 것이다. 그의 충정과 비탄, 애국과 원망, 참회와 절망, 나중에는 절명(絕命)의 심정까지 묘사하고 있다. 굴원은 이 작품에서 자서전식의 이야기에서 시작하여, 가계(家系)의 고귀함과 재능의 우수함을 말하고, 이어서 역사상의 인물·신화·전설·초목과 조수(鳥獸) 등을 비유로 들어 자신의 결백함을 노래하며, ‘세속은 틀리고 내가 옳다’고 주장한다. 후반은 천

계편력(天界遍歷)으로 도가적(道家的) 색채가 짙은 미사여구가 이어지며 낭만적이다. 이러한 정열적인 자기주장과 낭만성은 북방문학인 『시경(詩經)』에는 없고, 남방문학인 『초사(楚辭)』의 이 시편에서 처음으로 나타난다. 전국시대(戰國時代)의 설득문학의 대표작이며, 한대(漢代) 이후의 시부(詩賦)를 짓는 문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

11) 원결(冤結) :

- ① 분하고 억울한 마음이 가슴에 맺히다. 혹은 원통한 생각이 가슴에 엉키다, 한(恨)이 맺히다.
- ② ‘원굴(冤屈)’, 즉 원통, 원한, 누명(억울한 죄) 등과 같은 말.
- ③ 원한을 맺다.

12) 강상(江上) :

- ① 강변, 강기슭.
- ② 강수면(江水面), 강의 수면(水面). 「시54」 주석39)를 참조 바람.

13) 의(疑) :

- ① 마치 ~와 같다, 비슷하다.
- ② 의심하다.

14) 정과정(鄭瓜亭) :

****사애주석(西厓註釋) :**

“고려시대, 정서(鄭敘 : 생몰년 미상)는 동래(東萊)로 유배 갔다. 시가(詩歌)를 지어 임금을 사모하는 뜻을 기탁하였다. 지금 전해지는 악부(樂府)에 정과정곡(鄭瓜亭曲)이 있다(高麗時, 鄭敘謫東萊. 作歌以寓戀君之意. 至今樂府有鄭瓜亭曲)”고 하였다.

시56. 정원수가 추풍에 낙엽 지는 것을 탄식하면서

詩56. 庭樹爲秋風所敗歎¹⁾
정 수 위 추 풍 소 패 탄



昨夜秋風何處來， 작 야 추 풍 하 처 래	지난 밤 가을바람 어디서 불어왔는지,
吹我庭前碧桃樹 ²⁾ 。 취 아 정 전 벽 도 수	우리 뜰 앞 벽도수碧桃樹에 불어댔네.
但聞淒淒復騷騷 ³⁾ ， 단 문 처 처 부 소 소	들리는 것이라곤 씹씹하다 쇠쇠하는 소리뿐,
葉聲如怨而如訴。 엽 성 여 원 이 여 소	낙엽 지는 소리가 원망하듯 호소하듯 했네.
朝起視之但空枝， 조 기 시 지 단 공 지	아침에 나가보니 빈 가지만 앙상한데,
葉落四散無蹤跡。 엽 락 사 산 무 종 적	낙엽은 사방에 흩날려 종적이 묘연하네.
曾不道、春華爛熳開滿樹 ⁴⁾ ， 증 불 도 춘 화 난 만 개 만 수	말하지 않았던가! 봄꽃이 가지마다 흐드러지게 필 때는,
絕艷粲粲驚人目 ⁵⁾ 。 절 엄 찬 찬 경 인 목	아리따운 꽃송이 너무 고와 눈이 부시었다고.

由來盛衰自有時⁶⁾,
유 래 성 쇠 자 유 시

원래 성쇠란 자연히 때가 있는
법이거니.

不是天公恩厚薄。
불 시 천 공 은 후 박

하늘의 은혜 후했다 박했다 하는 게
아니로세.

老夫愚癡不解事⁷⁾,
노 부 우 치 불 해 사

늙은이가 어리석어 사리분별
못해서인지,

繞樹行吟空歎惜⁸⁾.
요 수 행 음 공 탄 석

나무 주변 맴돌며 시 읊고 괜히
탄식하네.

1) 정수위추풍소패탄(庭樹爲秋風所敗歎 : 정원수가 추풍에 낙엽지는 것을 탄식하면 서) :

- ① 위(爲) ~ 소(所) ~ : 피동을 나타내는 형식. ‘~에 의해서 ~당하다’로 해석되며, 주로 서면어에 사용된다.
- ② 패(敗) : 쇠퇴하다, (초목 등이) 시들다, (잎이나 꽃 등이) 지다.
- ③ 탄(歎) : 악부명칭의 하나. 여기서 ‘탄(歎)’은 느끼어 말로 드러냄을 ‘탄(歎)’이라고 한다. 자세한 것은 「시4」 주석1)의 ② ‘탄(歎)’ 조항을 참조 바람.

2) 벽도수(碧桃樹) :

- ① 복숭아나무의 일종으로, 천엽(千葉)의 회고 아름다운 꽃이 피며 열매는 매우 작고 먹지는 못함. 관상용으로 심는다.

명말(明末)의 박물학자(博物學者) 이시진(李時珍 : 1518~1593)의 『본초강목(本草綱目)·과일(果一)·복숭아(桃)』 조항에 의하면, “복숭아 열매에 홍도(紅桃 : 홍색 복숭아), 비도(緋桃 : 적색 복숭아), 벽도(碧桃 : 청록색 복숭아), 상도(緗桃 : 담황색 복숭아), 백도(白桃 : 백색 복숭아), 오도(烏桃 : 검은색 복숭아), 금도(金桃 : 황금색 복숭아), 은도(銀桃 : 은색 복숭아), 연지도(臙脂桃 : 입술에 바르는 연지색 복숭아) 등, 모두가 열매 색깔에 따라 지어진 복숭아 명칭이다(其實有紅桃, 緋桃, 碧桃, 緗桃, 白桃, 烏桃, 金桃, 銀桃, 臙脂桃, 皆以色名者也)”고 하였다.

- ② 옛날의 시문(詩文)에서는 주로 전설상의 인물인 서왕모(西王母)가 한무제(漢武帝)에게 준 선도(仙桃)를 가리키는 뜻으로 사용하였다.

3) 단문처처부소소(但聞淒淒復騷騷 : 들리는 것이라곤 썩썩하다 썩썩하는 소리뿐) :

- ① 처처(淒淒) : 의성어(擬聲語).
☆차가운 바람이 날에게 스쳐가는 소리를 형용하는 것으로, 썩썩에 상당함.
- ② 소소(騷騷) : 의성어(擬聲語).
☆바람 부는 소리(솔솔).

☆나뭇가지 사이로 바람이 새어 나가는 소리(삭삭, 쉼쉼, 쉼쉼).

- 4) 증부도, 춘화난만개만수(曾不道、春華爛熳開滿樹 : 말하지 않았던가! 봄꽃이 가지마다 흐드러지게 필 때는) :

① 증부도(曾不道) : 말하지 않았던가!

② 춘화(春華) : 봄날의 꽃, 혹은 봄에 꽃이 필름 이름.

③ 난만(爛熳) : 난만(爛漫)으로도 쓰고, 난만(爛漫)으로도 쓴다.

☆눈부시거나 빛이 찬란한 것을 형용한 말.

- 5) 절염찬찬경인목(絶艷粲粲驚人目 : 아리따운 꽃송이 너무 고와 눈이 부시었다고) :

① 절염(絶艷) : 비할 데 없이 아리따움. 전(轉)하여 비할 데 없이 아리따운 미인이거나 꽃송이를 가리키기도 한다.

② 찬찬(粲粲) : 선명한 모양, 눈부시게 빛나는 모양.

- 6) 유래성쇠자유시(由來盛衰自有時 : 원래 성쇠란 자연히 때가 있는 법이거니) :

① 유래(由來) : 원래부터, 전부터, 예로부터.

② 성쇠(盛衰) : 흥성하고 쇠퇴함.

③ 자유(自有) : 자연히 ~이 있다.

- 7) 노부우치불해사(老夫愚癡不解事 : 늙은이가 어리석어 사리분별 못해서인지) :

① 우치(愚癡) : 어리석고(우매하고) 멍청함.

② 해사(解事) : 사리(事理)를 알다. 여러 가지 일을 이해하다.

- 8) 요수행음공탄석(繞樹行吟空歎惜 : 나무 주변 맴돌며 시 읊고 괜히 탄식하네) :

① 행음(行吟) : 행음(行吟)으로도 쓴다. 거닐면서 음영(吟咏 : 시를 읊음)함을 이른다.

② 탄석(歎惜) :

☆탄식하며 애석해하다.

☆매우 아쉬워하다.



시57. 진사^{進仕} 이증양^{李仲陽}에게 서신을
보내어 흥국사^{興國寺} 유적에 대해서
문다 서문을 병기함

詩57. 寄李進士仲陽 問興國寺遺跡¹⁾ 并序

용궁현^{龍宮縣} 대죽리^{大竹里} 건너편에 오래된 절이 한 채 있었는데, 그곳 향촌백성들은 저마다 그 절을 흥곡사^{欣谷寺}라고 했다. 나는 우연히 정몽주^{鄭夢周} 선생의 『포은집^{圃隱集}』을 보게 되었는데, 문집 속에 「안동으로 부임하는 이취^{李就} 서기를 전송하면서^{送安東李就書記}」라는 시가 수록되어 있었다. 그 시에서 읊기를 :

龍宮大竹里²⁾ 越邊有古寺³⁾, 村氓⁴⁾ 每稱欣谷寺⁵⁾. 余偶見鄭圃隱集⁶⁾, 有「送安東李就書記」⁷⁾. 詩云 :

그 옛날 흥국사에서 공부할 적에는,
종종 밤이면 꿈속에서도 청산에 올랐다네.
옛 친구 생각 간절하니 주지스님일세,
날 위해 틈을 내서 한번 다녀가시구려.
昔日讀書興國寺,
時時⁸⁾ 夜夢到青山⁹⁾.
舊交最憶堂頭老⁹⁾,
爲我乘閒一往還¹⁰⁾.

라고 한 구절이 있다. 아마도 ‘흥곡欣谷’과 ‘흥국興國’은 소리가 비슷했던 까닭에, 잘못 말하여 사람들이 분별할 수 없었던 것 같다. 나는 그 선현^{先賢} 유적이 백년이나 묻혀 있었다는 사실이 슬펐다. 이증양^{李仲陽} 진사^{進士}가 기거하는 강변의 집과는 맞은편에 위치하기에, 시를 지어서 그 유적에 대해서 물었다.

蓋欣谷與興國聲相近¹¹⁾, 故誤稱而人不能辨也. 余傷¹²⁾ 其先賢 遺跡, 湮沒¹³⁾ 於百年. 李進士仲陽江舍, 與相對, 故以詩問之.

聞道高居對興國¹⁴⁾ , 듣자하니 위덕 맞은편이 흥국사라던데,
문 도 고 거 대 흥 국

昔賢遺蹟¹⁵⁾問如何。 옛 선현의 유적상황 여쭙건대 어떠하오?
석 현 유蹟 문 여 하

梅花折得無人寄¹⁶⁾ , 매화가 지어 버린 사람도
매 화 절 득 무 인 기 없는데,

十里春江漲綠波¹⁷⁾ 。 십리에 걸친 춘강春江에 푸른 물결
십 리 춘 강 창 록 파 거세졌겠구려.

-
- 1) 기이진사중앙 문흥국사유적(寄李進士仲陽問興國寺遺跡 : 진사 이중앙李仲陽에게 서신을 부쳐 흥국사興國寺 유적에 대해서 묻다) :
- ① 이진사 중앙(李進士仲陽) : 진사(進士) 이중앙(李仲陽). 이렇게 성씨 다음에 직함이나 자(字) 또는 호(號)를 먼저 쓰고 이름을 그 뒤에 쓰는 것은 경칭(敬稱)의 한 예이다.
- ☆이중앙李仲陽 : 1534~1610) : 자는 명지(明之), 호는 곡강(曲江). 가평 이씨(加平李氏) 36세손(三十六世孫). 용궁현(龍宮縣 : 경북 예천군醴泉郡 용궁면龍宮面 일대의 옛 행정구역. 옛 지명은 축산竺山 · 원산園山 · 용주龍州임) 출생. 담(聃)의 셋째 아들. 1567년(명종 22)에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하여 진사(進士)가 되었으나, 대과(大科 : 과거科擧에서 문과文科와 무과武科를 소과小科에 상대하여 이르던 말. 소과小科는 생원生員과 진사進士를 뽑던 과거임)에 응시하지 않고, 낙동강 상류 경치 좋은 강변에 ‘곡강정(曲江亭)’이라는 정자를 지어놓고 학문에 정진하였다고 한다. 많은 선비들이 곡강정을 지나면서 이 진사에게 문기를 어찌 이 강가에서 아무 이득도 없이 세월을 보내느냐, 버릴 듯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 진사가 대답하기를, ‘나는 신성포(申城浦 : 지금의 경북 예천군醴泉郡 용궁면龍宮面 나루터)의 수군만호(水軍萬戶 : 조선시대 각 도의 수군절도사영水軍節度使營에 소속된 종4품의 무관직)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였다. 조신(朝臣 : 당시 용궁현에 파견된 조정의 신하를 가리킴 : 대표적 관리는 유영경(柳永慶 : 1550~1680)이었음)들이 조정에 돌아가서 하는 말을 서애(西厓)가 듣고 웃으면서 하는 말이 ‘그는 나의 이웃 향촌에 사는 이중앙(李仲陽)이라 하는 선비다. 그는 진실로 신성포 나루터를 아끼고 사랑하며 그 정자에서 조용히 자내기를 바라는 사람이다. 무엇이 되겠다는 그 말은 농담이지 진실이 아니다.’고 하였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이 진사는 성품이 강직하여 도학자(道學者)를 자처하며 학문에 만 전념한 풍류 선비로 일생을 보냈다고 한다.
- ② 흥국사(興國寺) : 경북 안동시(安東市) 서후면(西後面) 태장리(台庄里)에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曹溪宗) 제16구 본사(本寺)로서, 고운사(孤雲寺)의 말사(末寺)

이다. 『영가지지(永嘉誌 : 1608년에 편찬된 경상도 안동부(지금의 안동시)의 읍지邑誌)』에 의하면, 이 홍국사를 개목사(開目寺)라고 절 이름을 바꾸었는데, 그 유래에는 두 가지 전설이 있다고 한다. 그 하나는, 당시 안동 지역에는 앓을 못 보는 맹인(盲人)이 많았는데, 절을 건립한 후, 비보사찰(裨補寺刹)로 지정되면서 맹인들이 없어졌다 하여 개목사(開目寺)로 이름을 바꾸었다고 한다. 비보사찰(裨補寺刹)이란, 통일신라 말엽의 승려로 풍수지리설의 대가인 도선(道詵 : 827~898)의 비보사찰설(裨補寺刹說)에 의해 지정되거나 건립된 사원을 말한다. 즉 지기(地氣)는 왕성하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하는데, 쇠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산천의 역치(逆處)나 배처(背處)에 인위적으로 사탑(寺塔)을 건립해서 지기(地氣)를 보완해야 한다는 설이다. 또 하나는, 조선 초기의 재상인 맹사성(孟思誠 : 1360~1438)이 안동부사로 부임해 와서 보니 경북 안동의 지세(地勢)가 눈병 환자가 많을 형상이어서 개목사(開目寺)로 명칭을 변경시켰더니 눈병 환자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이 절은 신라 문무왕(文武王 : ?~681) 때 능인대사(能仁大師 : 661~681)가 개목사 뒤에 있는 천등굴(天燈窟)에서 수도하던 중 천녀(天女)의 도움으로 도를 깨우치고 건립하였다고 한다. 창건 당시에는 큰 규모의 사찰이었으나 점차 쇠락해졌으며, 개목사 창건 이후의 연혁은 전하는 것이 없다. 고려 말엽 충신인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 : 1337~1392)가 한 때 개목사에서 10년간 수학했다고 하며, 훗날 정몽주가 개목사(당시 명칭은 홍국사)를 추억하며 지은 시 「안동서기로 부임하는 이취 수재를 전송하면서(送李秀才就赴安東書記)」가 그의 문집인 『포은집(圃隱集)』에 수록되었다. 본 시에서 인용된 네 구(句)는 그 시 중의 일부인 것이다.

- 2) 용궁 대죽리(龍宮大竹里) : 용궁현(龍宮縣) 산상면(申上面) 대죽리(大竹里) : 지금의 경북 예천군(醴泉郡) 용궁면(龍宮面) 대죽리(大竹里)이다.
- 3) 고사(古寺) : 고찰(古刹) : 역사가 오래된 절.
- 4) 촌氓(村氓) : 일반적으로 향민(鄉民 : 촌백성 : 시골에 사는 백성)을 가리킨다. ‘농민’이라는 말과 같다.
- 5) 흔곡사(欣谷寺) : 본 시의 서문에서 보듯이 당시 용궁현 향리의 사람들이 말하는 흔곡사는 대죽리에 위치했었고 서애(西厓)가 『포은집(圃隱集)』의 시에서 본 홍국사는 지금의 경북 안동시 서후면 태장리에 위치한다. 본 시의 작자인 서애는 입으로 전해들은 ‘흔곡사’라는 사찰 명칭과 본인이 기록에서 본 ‘홍국사’라는 명칭을 두고 ‘홍국사’를 ‘흔곡사’라고 향민들이 잘못 발음한 것이 아닌가 하고 혼동했었으나, 실제 그 두 사찰은 완전히 별개의 사찰이다. 서애는 선현(先賢)인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의 유적마저 사라질 것을 걱정했던 것이다. 본 시의 서문을 통해서 볼 때, ‘흔곡사’는 이미 당시에 훼손되었고 지금은 기록도 없다. 『영가지지(永嘉誌)』에서 보듯이 ‘홍국사’는 사찰 건립 경위와 개명(改名)한 사유 및 정몽주가 10년간 그곳에서 수학(修學)했다는 전설도 기록하고 있다. 본 시의 주석1)의 ② ‘홍국사(興國寺)’ 조항을 참조 바람.
- 6) 정포은집(鄭圃隱集) : 『포은선생문집(圃隱先生文集)』.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 선생의 문집(文集)을 말한다.
 - ① 정몽주(鄭夢周 : 1337~1392) : 초명(初名)은 몽란(夢蘭), 몽룡(夢龍). 자는 달가(達可), 호는 포은(圃隱). 시호(諡號)는 문충(文忠). 본관은 영일(迎日 : 지금의 경

북 포항시 영일읍)이다. 영일 정씨의 시조는 정종은(鄭宗殷)인데 그는 신라시대의 간관(諫官)이었다가 인사(言事)로 쫓겨났고, 그 후손인 정의경(鄭宜卿)이 영일로 옮겨와서 호장(戶長)이 되면서 그곳에 정착하였다. 이후 영일 정씨는 정승명(鄭襲明) 때부터 중앙 관료로 진출하였는데, 그는 의종 즉위년(1146) 추밀원지주사(樞密院知奏事)까지 올랐다. 정몽주의 증조부인 정인수(鄭仁壽)는 검교군기감(檢校軍器監)을 지냈고, 조부 정유(鄭裕)는 직장동정(直長同正)이었으며, 아버지 정운관(鄭云權)도 성균관 복응재생(服膺齋生)이었다. 선조 3세가 모두 검교직과 동정직을 받았을 뿐 현직은 갖지 못한 지방의 한미한 사족(士族)이었다.

1357년 감시(監試)에 합격한 뒤 1360년 문과에 장원, 예문검열(藝文檢閱), 위위시승(衛尉寺丞)을 역임한 후 1363년 동북면도지휘사(東北面都指揮使) 한방신(韓邦信: 생물면 미상)의 종사관(從事官)으로 여진족(女眞族) 토벌에 참가하고, 1364년 전보도감판관(典寶都監判官)이 되었다. 이어 전농시승(典農寺丞), 예조정랑 겸 성균관박사(禮曹正郎兼成均館博士), 성균사에(成均司藝) 등을 역임하고 1371년 성균사성(成均司成)에 올랐으며, 이듬해 정사(正使) 홍사범(洪師範: ?~1373)의 서장관(書狀官)으로 명(明)나라에 다녀왔다. 1376년(우왕 2) 성균대사성(成均大司成)으로 이인임(李仁任: ?~1388) 등이 주장하는 배명친원(排明親元)의 외교 방침을 반대하다 언양(彦陽)에 유배, 이듬해 풀려나와 사신으로 일본 규슈(九州)의 지방장관 이마가와 료중(今川了俊)에게 왜구의 단속을 청하여 응낙을 얻고 왜구에게 잡혀간 고려 백성 수백 명을 귀국시켰다. 1379년 전공판서(典工判書), 예의판서(禮儀判書), 전법판서(典法判書) 등을 역임하고, 이듬해 조전원수(助戰元帥)가 되어 이성계(李成桂: 1335~1408) 휘하에서 왜구 토벌에 참가하였다. 1383년 동북면 조전원수(東北面助戰元帥)로서 함경도에 쳐들어온 왜구를 토벌, 다음해 정당문학(政堂文學)에 올라 성절사(聖節使)로 명나라에 가서 긴장상태에 있던 대명국교(對明國交)를 회복하는데 큰 공을 세웠으며, 1386년 동지공거(同知貢舉)가 되고, 이듬해 다시 명나라에 다녀온 후 수원군(水原君)에 봉해졌다. 1389년 예문관대제학, 문하찬성사가 되어 이성계와 함께 공양왕(恭讓王: 1345~1394, 고려 제34대 마지막 왕)을 옹립(擁立), 1390년 벽상삼한(壁上三韓) 삼중대광(壁上三韓三重大匡), 수문하시중(守門下侍中), 판도평의사사 병조상서시사(判都評議使司兵曹尙瑞寺事), 영경영전사(領景靈殿事), 우문관 대제학(右文館大提學), 익양군 충의백(益陽郡忠義伯)이 되었다. 1392년 명나라에서 돌아오는 세자를 마중 나갔던 이성계가 사냥하다가 말에서 떨어져 황주(黃州)에 드러눕게 되자 그 기회에 이성계 일파를 제거하려 했으나, 이를 눈치 챈 방원(芳遠: 1367~1432, 조선 제 3대 왕 태종太宗)의 기지로 실패, 이어 정세를 엿보려고 이성계를 찾아보고 귀가 도중 선죽교(善竹橋)에서 방원의 부하 조영귀(趙英珪: ?~1395) 등에게 격살되었다.

의창(義倉)을 세워 빈민을 구제하고 유학(儒學)을 보급하였으며, 성리학(性理學)에 밝았다. 『주자가례(朱子家禮)』를 따라 사회윤리와 도덕의 합리화를 기하며 개성에 5부 학당(學堂)과 지방에 향교를 세워 교육진흥을 꾀하는 한편 『대명률(大明律)』을 참작, 『신율(新律)』을 간행하여 법질서의 확립을 기하고, 외교와 군사 면에서도 깊이 관여하여 국운을 바로잡으려 했으나, 신홍제력인 이성계 일파의 손에 최후를 맞이하였다. 시문(詩文)에도 뛰어나 시조 「단심가(丹心歌)」 이외

에 많은 한시(漢詩)가 전해지며 서화(書畵)에도 뛰어났다. 고려 삼은(三隱)의 한 사람으로 1401년(태종 1)에 영의정에 추증되고 익양부원군(益陽府院君)에 추봉되었다. 중종 때에 문묘(文廟)와 개성(開成) 송양서원(松陽書院) 등 11개 서원에 제향(祭享)되었다. 저서에 『포은집(圃隱集)』이 있다.

- 7) 「송안동이취서기(送安東李就書記: 안동으로 부임하는 이취 서기를 전송하면서)」: 『포은집(圃隱集)』에 수록된 정몽주가 쓴 시의 시제(詩題)이다. 이 시는 이십 구(句)로 된 칠언배율(七言排律)의 시이며, 이 중의 네 구(句)가 본 시의 서문에서 인용되었다. 원제목은 「안동서기로 부임하는 이취 수재를 전송하면서(送李秀才就赴安東書記)」인데, 본 시의 작자 서애(西厓)는 원 제목을 좀 더 간략하게 표현한 것이다.

- ① 이취(李就: 생몰년 미상): 이영기(李英琦)의 아들로, 승보시(陞補試: 고려 때 생원(生員)을 뽑던 시험)에 합격했다가 우왕 2년(1376) 5월 지공거(知貢舉: 고려시대에 과거를 관장하던 주 시험관 '동지공거'의 상관임)인 홍중선(洪仲宣: ?~1376)과 동지공거(同知貢舉: 고려시대에 과거의 고시관(考試官). 지공거와 함께 시험을 관장하였음)인 한수(韓脩: 1333~1384)가 주관한 과거에 정충(鄭攄: 1358~1397), 양수생(楊首生: 생몰년 미상) 등과 함께 급제한 이후 후덕부 부승(厚德府副丞)을 역임한 문신관료이다.

(박용운 저 『고려시대의 음서제(蔭敍制)와 과거제 연구』, 일지사, 1990, 511~512쪽 참조).

- ② 수재(秀才): 보통 사람보다 뛰어난 재능, 또는 그러한 재능을 가진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수재(秀才)'라는 말은 『관자(管子)』에서 처음 사용한 말인데, 한(漢)나라 때는 과거(科擧)의 과목이 되었다. 그 후 광무제(光武帝) 때는 그의 휘(諱)가 '수(秀)'였으므로 이를 피하여 무재(茂才)라 하였다. 당대(唐代)에는 명경과(明經科), 진사과(進士科)와 나란히 수재과(秀才科)를 두었으며, 송대(宋代)에는 과거에 응시하는 선비를 모두 수재(秀才)라 칭하였고, 명, 청조(淸朝)에 이르러서는 현학(縣學)에 입학하는 생원(生員)까지도 '수재'라 칭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학문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수재(秀才)라 불렀고, 관리를 채용할 때 시험 과목도 수재(秀才)라는 과목이 있었다. 그런가 하면 미혼(未婚)의 남자를 높여 수재(秀才)라 부르기도 했다.

- 8) 시시(時時): 때때로.

- 9) 구교최억당노두(舊交最憶堂老頭: 옛 친구 생각 간절하니 주지스님일세):

- ① 구교(舊交): 오랜 친구. 옛 친구.

- ② 당두노(堂頭老): 법당의 원로, 즉 주지스님을 가리킨다.

☆당(堂): 대청(大廳)이란 뜻이나 본 시에서는 전(轉)하여 법당(法堂)을 가리킨다.

☆두노(頭老): 원로(元老)를 칭함. 여기서는 주지스님을 가리킨다.

- 10) 위이승한일왕환(爲我乘閒一往還: 날 위해 틈을 내서 한 번 다녀가시구려):

- ① 위(爲): 개사(介詞)로서, '~을 위하여'의 뜻이다.

- ② 승한(乘閒): 틈을 내다(타다), 기회를 만들다(이용하다).

- ③ 왕환(往還):

☆왕래하다, 오가다, 왕복하다.

☆교제하다.

- 11) 상근(相近): 비슷하다, 근사(近似)하다, 서로 근접하다.

- 12) 상(傷) : 슬프다, 슬퍼하다.
- 13) 인물(湮沒) : 인멸(湮滅)로도 씀. 자취도 없이 모두 없어짐.
 ① 매몰(埋沒)되다.
 ② 파묻다(파묻히다)는 것을 비유한 말.
- 14) 문도고거대흥국(聞道高居對興國) : 듣자하니 귀택 맞은편이 흥국사라던데 :
 ① 문도(聞道) : ~라고 들었다. 듣자니 ~라고 한다.
 ② 고거(高居) : 고지대에 거주하다. 전(轉)하여, 고위급(高位級)에 있는 것 또는 고위급 인사를 가리키기도 함. 곧 ‘귀택(貴宅)’에 상당하는 말로서,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음.
- 15) 유탁(遺蹟) :
 ☆유적(遺跡)과 같은 말.
 ☆남아 있는 자취. 건축물이나 싸움터 또는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졌던 곳이나 패총, 고분 따위를 이룸.
- 16) 무인기(無人寄) : 여기서 시의 본의(本意)는 ‘부칠 곳에 받을 사람이 없다.’ 는 뜻이므로, ‘인(人)’은 받을 사람이고, ‘기(寄)’는 부치는 곳을 의미한다.
- 17) 십리춘강창록파(十里春江漲綠波) : 십리에 걸친 춘강에 푸른 물결 거세졌겠구려) :
 ① 창(漲) : ‘감정이 격동하다’는 뜻이나, 본 시에서는 물결이 거세지는 것[漲綠波]을 표현 것이다.

****역자주석(譯者註釋) :**

가평 이씨(可平李氏)의 문집(文集)에 의하면, 각재(覺齋) 하항(河沆* : 1538~1590)이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이 쓴 위의 시를 보고, 느끼는 바가 있어 아래의 시를 지었다고 한다.

하각재가 시에서 읊기를:

정승은 뵈지 못하고,
 먼저 이 진사를 찾았네.
 류정승이 지조와 절개를 흠모한다는 것을,
 이 시에서 알 수 있겠네.

라고 하였다.

覺齋詩曰 :

不見柳政丞,
 先尋李進士。
 其志節欽仰,
 於此詩可見。

*하항(河沆 : 1538~1590) : 자는 호원(浩源) 호는 각재(覺齋), 본관은 진양(晉陽). 남명(南冥) 조식(曹植 : 1501~1572)의 문하에서 공부하였음. 1567년 사마시(司馬試 : 소과小科 : 생원과 진사를 뽑던 과거)에 장원(壯元)으로 입격(入格)하여, 참봉에 임명되었으나, 사양하고 받지 않았다. 평소 효심이 지극하여 매일 새벽에 일어나 세수하고 머리를 깨끗이 빗질한 후 어머니 침실로 찾아들어

문안을 드리니, 여러 문인들이 말하기를, 『소학』의 가르침을 실제로 보여준다고 칭송하였다.

말년에 진주 수곡면 대각촌(大覺村)에 은거하면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살았다. 진주(晋州)의 대각서원(大覺書院)에 배향(配享) 되었다. 그의 문장은 고답적이어서 사우들이 ‘설중매(雪中梅)’라 일컬었으며, 시문도 소박하고 박진력이 있었다. 『각재집(覺齋集)』 2권이 전해진다.

(‘진사(進仕) 이충양(李仲陽)’에 관한 자료와 본 시의 주석17) ‘각재(覺齋) 하항(河抗)’에 관한 자료는 충남 아산시에 거주하는 가평이씨 후손인 이규용 선생이 제공해준 것임)

시58. 간죽문看竹門을 시제詩題로 하다

詩58. 題看竹門¹⁾ 제 간 죽 문



看竹門前獨立久,
간 죽 문 전 독 립 구

간죽문看竹門 앞에서 홀로 한참
섰노라면,

竹風蕭蕭吹短髮²⁾.
죽 풍 소 소 취 단 발

대숲바람 쇄쇄 성근 머리카락을 날리네.

落盡梅花不見人,
낙 진 매 화 불 견 인

매화는 저버리고 오가는 사람도
보이지 않는데

山靑水綠沙如雪。
산 청 수 록 사 여 설

산은 푸르고 강물은 파랗고 모래톱은
백설같이 희구나

1) 간죽문(看竹門): 하회마을에서 옥연정사로 들어가는 서쪽 정문이다. 자세한 것은 「시54: 옥연십영(玉淵十詠)」의 주석54) 간죽문(看竹門) 조항을 참조 바람.

2) 죽풍소소취단발(竹風蕭蕭吹短髮: 대숲바람 쇄쇄 성근 머리카락을 날리네):

① 소소(蕭蕭): 의성어로서, 말울음 소리, 비바람 소리, 물 흐르는 소리, 초목이 흔들리고 잎이 떨어지는 소리, 악기 소리 등을 표현할 때 쓴다.

② 단발(短髮): 머리숱이 듕성듬성 나 있는 머리를 의미함. 고로, 여기서의 ‘단(短)’은 ‘적다, 부족하다’의 의미로, 바로 머리카락이 빠져서 숱이 성글어진 상태를 표현한 말이다.



시59. 금계재사^{金溪齋寺}에서 읊은 잡영시^{雜詠詩}
여섯 수

詩59. 金溪齋寺¹⁾ 雜詠²⁾ 六首
금 계 재 사 잡 영 육 수

其一
기 일

[1]

永夜³⁾客無眠,
영 야 객 무 면

긴긴 밤 나그네가 잠 못 이워할 까봐,

高僧來伴宿⁴⁾。
고 승 래 반 숙

고승^{高僧} 한 분이 오셔서 동숙^{同宿}
해주었네.

殘燈在佛榻⁵⁾,
잔 등 재 불榻

가물대는 등불 하나 불당^{佛堂} 탁자
위에서

時時自明滅。
시 시 자 명 멸

이따금 절로 깜빡깜빡 거리네.

惟聞掌上珠,
유 문 장 상 주

오직 들리는 것은 손바닥 안의
염주소리요,

或見鼻端白⁶⁾。
혹 견 비 단 백

간혹 보이는 것은 하얀 콧김뿐일세.

不覺窓全曙,
불 각 창 전 서

어느 사이 창밖이 흰하게 트이면서,

松風生遠壑⁷⁾。
송 풍 생 원 학

솔바람이 먼 골짜기에서 솔솔 불어오네.

其二
기 이

[2]

大化良悠悠⁸⁾，
대 화 양 유 유

대자연의 만물 생육은 실로 유유했고
한가한데，

吾生空役役⁹⁾。
오 생 공 역 역

내 삶은 부질없이 고생고생 골몰하네.

求真¹⁰⁾或自迷，
구 진 혹 자 미

진리를 탐구해도 간혹 자기 미혹에
빠지는데，

逐物¹¹⁾還成惑。
축 물 환 성 혹

물욕을 쫓으면 더욱 자기 현혹에
갇힌다네.

萬法固多門¹²⁾，
만 법 고 다 문

만사만물은 원래 그 종류 다양하나，

一言眞妙訣¹³⁾。
일 언 진 묘 결

한마디 말로도 신묘한 비결 말할 수
있다네.

無人會¹⁴⁾此意，
무 인 회 차 의

이 뜻을 이해할 사람 없을 듯하여，

題詩¹⁵⁾遍窓壁。
제 시 편 창 벽

시를 지어 창가 벽에 여기저기 써
붙이네.

其三
기 삼

[3]

此事不可忘¹⁶⁾,
차 사 불 가 망

이 사건은 결코 잊을 수가 없나니,

此日足可惜¹⁷⁾。
차 일 족 가 석

이 날은 몹시도 애석한 날이었네.

回看百年內¹⁸⁾,
회 간 백 년 내

한평생 몸담았던 조정을 회고하니,

得失秋毫末¹⁹⁾。
득 실 추 호 말

명리名利的 득실은 극히 하잘 것 없는 것이었네.

去者雖已矣²⁰⁾,
기 자 수 이 의

과거사는 비록 이미 끝났다 할지라도,

來者猶可及²¹⁾。
래 자 유 가 급

미래사는 아직 해낼 수 있다네.

終朝語心口²²⁾,
종 조 어 심 구

새벽부터 속마음 꺼내보이다니,

相期²³⁾在不息。
상 기 재 불 식

아직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있었던가!

其四
기 사

[4]

散步盤石²⁴⁾上,
산 보 반 석 상

넓찍한 바위 주변에서 산보하고
있노라니,

松風滿巖谷²⁵⁾。
송 풍 만 암 곡

솔바람이 산골짜기 가득히 불어오네.

不見古時人,
불 견 고 시 인

옛날 사람은 보이지 않지만,

惟見古時月²⁶⁾。
유 견 고 시 월

옛적의 그 달만은 눈에 들어오는 구나.

月既不解愁，
월 기 불 해 수

달은 사람의 근심 풀어주지도 못하면서,

夜夜來如約。
야 야 래 여 약

밤마다 약속이나 한 듯이 떠오르네.

人去²⁷⁾在何處，
인 거 재 하 처

사람은 죽으면 어디에 가서 머무를까?

雲天自寥廓²⁸⁾。
운 천 자 요廓

구름 낀 하늘이 내 마음 쓸쓸하게 하네.

其五 기 오

[5]

晦翁調息箴²⁹⁾，
회옹 조 식箴

회옹晦翁 선생의 호흡 조절에 대한
잠언[調息箴]에서,

引說鼻端白³⁰⁾。
인 설 비 단 백

‘코끝 주시하며 명상하면 흰 콧김
보인다[鼻端白]’는 수행법 즐겨 행하네.

達人固了了³¹⁾，
달인 고 료 료

통달한 사람이야 당연히 명백히
알겠지만,

愚人多認錯³²⁾。
우인 다 인 착

우매한 사람은 대체로 잘 알고 있지
못하리라.

魚須在深淵，
어 수 재 심 연

물고기는 반드시 깊은 못에 살고
있거늘,

惑者還緣木³³⁾。
혹자 환 연 목

미혹된 사람은 여전히 (물고기 잡으러)

解道程門語³⁴⁾,
해 도 정 문 어

心要在軀殼³⁵⁾。
심 요 재 구 각

其六
기 육

吾心久無事³⁶⁾,
오 심 구 무 사

不與春華競³⁷⁾。
불 여 춘 화 경

寧將一微塵³⁸⁾,
녕 장 일 미 진

翳此百鍊鏡³⁹⁾。
예 차 백 련 경

偷閒⁴⁰⁾自少年,
투 한 자 소 년

昔賢⁴¹⁾猶自警。
석 현 유 자 경

獨⁴²⁾有晨鐘響,
독 유 신 종 향

時時發深省。
시 시 발 심 성

나무에 올라가네.

이정어록二程語錄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심성心性の 요체를 실천하는데 두어야
하네

[6]

내 마음 오랫동안 세사世事에 관여치
않다 보니,

봄꽃과 더불어 화려함을 시샘하지 않네.

차라리 곧 바로 천한 사람이 될지언정,

여기에 (부귀한 사람이 쓰는) 동경銅鏡은
치워야겠네.

소년시절부터 여가 시간 짜내가면서,

옛 현인賢人이 스스로를 경계했듯이
수신修身했네.

유독 새벽 종소리가 들려오기만 하면,

그때마다 자신을 성찰하는 마음
솟구치네.

1) 금계재사(金溪齋寺): ‘재사(齋寺)’란, 처음에는 능침(陵寢)을 수호하기 위한 곳으로 서의 기능을 위해 능(陵) 주변에 세운 원당(願堂: 죽은 사람의 명복을 빌던 법당)을 재사(齋寺)라고 하였다. 조선 후기에 오면서 재사(齋寺)가 재사(齋舍: 서재로도 쓰이고 학사學舍나 향교의 기숙사로도 쓰이던 곳)로 바뀌면서 재사(齋寺)는 능 주변에서 탈피하여 원지(遠地: 전국의 명산대찰名山大刹)에까지 이르렀다.

① 금계재사(金溪齋寺): 본 명칭은 이전까지는 ‘숭실재(崇室齋)’라고 칭했으나, 경상북도 문화재과에서 2011년 11월 16일자로 다시 ‘안동 풍산류씨(安東豊山柳氏) 금계재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곳은 풍산부원군(豊山府院君) 류중영(柳仲郢: 1515~1573) 선생의 묘제(墓祭)를 위한 재사(齋舍)로 몸체인 숭실재(崇室齋)는 영모루(永慕樓)와 부속사로 연이어져 장방형의 ‘ㄷ’자형 집을 이루고 있다. 몸체는 1987년 보수 때 발견된 영조(英祖) 12년(1736)의 상량문(上樑文)에 의하면, 본래 능효사(陵孝寺)의 한 전각(殿閣)이었는데, 풍산(豊山) 류씨의 재사(齋舍)로 인수하여 명종(明宗) 13년(1558)에 중수(重修)하고, 광해군(光海君) 14년(1622)에 보수(補修)하였다고 한다. 몸체의 건축양식은 전면에서는 내외일출목(内外一出目)의 양설(仰舌)로 된 이익공식(二翼工式)이고 후면에는 초익공식(初翼工式)인데, 그 양식이 고격(古格)을 가지고 있어 주목된다. (1994년과 1995년에 보수했음.)

이는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46호로 소유자는 풍산 류씨 문중이고, 소재지는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 886이다.

(이상은 안동시 문화예술과에서 확인하고 인터넷상의 ‘서후면 문화재 소개’ 코너에서 참조하였음)

2) 잡영(雜詠): 잡영(雜咏)이라고도 쓴다.

- ① 특정한 형식에 치중하지 않고, 어떤 사물을 보고 즉흥적으로 지어낸 시를 의미함.
- ② 여러 가지 사물을 읊은 시가(詩歌).
- ③ 시제(詩題)로 상용(常用)함.

3) 영야(永夜): 긴긴 밤,

4) 고승래반숙(高僧來伴宿: 고승高僧 한 분이 오셔서 동숙同宿해주었네):

① 고승(高僧):

☆덕행이 높은 중.

☆계위(階位)가 높은 중.

☆출가한 사람을 높여 이르는 말.

② 반숙(伴宿):

☆손님이 불편한 점이 발생하거나 적절할까 하여 수행하며 동숙(同宿)하는 것.

☆출상(出喪)하기 전날 밤 친족이 밤을 세워가며 고인(故人)의 영혼을 지키는 것도 반숙(伴宿)이라 함.

5) 잔등재불탑(殘燈在佛榻: 기물대는 등불 하나 불당佛堂 탁자 위에서):

① 잔등(殘燈):

☆곧 꺼질 듯한 등불.

☆깊은 밤의 꺼질락 말락 하는 희미한 등불.

② 불탑(佛榻): 불당(佛堂) 안의 탁자.

- 6) 비단백(鼻端白) : 이 용어는 정좌(靜坐)한 자세로 마음을 갈아 앉히고 코끝을 주시 하면서 장시간 명상하며 호흡조절을 하면, 코 끝에 흰 콧김이 보인다는 뜻이다. 이것은 불교에서 법성(法性)을 깨닫기 위해 명상을 통해 호흡조절을 하는 수행법이기도 하고, 도교에서 불로장생하는 수행법의 일환으로 심신을 단련하기 위해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고 탁한 공기를 내뿜는 호흡조절의 수행법이기도 하다. 송나라 유학자 주희도 불교와 도교의 영향을 받아 심성수련(心性修練)을 위해 이 호흡조절의 수행법을 수련하였다. 아래에서 이 세 가지의 호흡조절에 관한 수행법을 간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불교의 호흡조절을 통한 수행법: 비단백(鼻端白) :

본 시에 인용된 ‘비단백(鼻端白)’이란 말은 『능엄경(楞嚴經)』에 나오는 말로서, “코끝을 집요하게 체관(諦觀 : 주시注視하다는 뜻임)하면서, 명상하면 장시간이 지난 뒤에 코끝에 흰 콧김이 나오는 것이 보인다”는 뜻이다.

『능엄경(楞嚴經) · 권5(卷五)』에 “손타라난다(孫陀羅難陀 : Sundarananda : 부처님의 제자)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정례(頂禮 : 최고의 경례로 높은 사람에게 엎드려 머리를 땅에 붙이고, 발밑을 바라보면서 하는 절)를 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孫陀羅難陀, 卽從座起, 頂禮佛足, 而白佛言). “저는 처음 출가하여, 부처님을 따라 수행에 들어가서, 비록 계율을 갖추었으나 삼마지(三摩地 : samadhi : 정신 통일. 즉 삼매三昧)에는, 마음이 항상 산만하게 흔들려서 번뇌가 사라지는 경지를 얻지 못했습니다(我初出家, 從佛入道, 雖具戒律, 於三摩提, 心常散動, 未獲無漏). 그러다가 세존께서 저와 구치라(拘絺羅 : kauṣṭhila : 구변이 좋아 부처님 제자 가운데 문답제 일이라 불리는 사람)를 지도하시기를, 저 자신의 코끝을 보아 하얗게 보이는 지점을 주시하라 하셨습니다(世尊教我及拘絺羅, 觀鼻端白). 저는 처음부터 코끝을 집요하게 주시(注視 : 즉, 체관諦觀)하기를, 21일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콧구멍으로 출입하는 콧김이 하얀 연기와 같아짐을 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몸과 마음이 홀연히 밝아져서,十方世界 : 동·서·남·북·동북·동남·서남·서북·상·하에 있는 무수한 세계가 뚜렷이 열리면서, 두루 청정해진 것이, 마치 투명한 유리 같았나이다(我初諦觀, 經三七日. 見鼻中氣出入如煙. 身心內明, 圓洞世界, 遍成虛淨, 猶如琉璃). 그러다가 연기가 점점 사라지고, 콧김이 희어졌습니다.(煙相漸消, 鼻息成白). 그러더니 홀연히 마음이 열리고 번뇌를 끝까지 소멸해 버렸습니다(心開漏盡). 이렇게 되면서 호흡하는 숨결이, 광명으로 변하고,十方세계를 두루 비추면서, 아라한(阿羅漢 : arhan : 수행을 완성한 사람. 존경받을 만한 수행자)이 되었습니다(諸出入息, 化爲光明, 照十方界, 得阿羅漢).”고 하였다.

둘째, 도교의 호흡조절을 통한 수행법: 복기(服氣 : 태식胎息) :

도교에서는 이러한 조식(調息 : 호흡을 조절하는 도인법(導引法 : 선인이 되기 위한 양생법))을, 복기(服氣)* 혹은 태식(胎息)*이라고도 한다. 이들의 수행법은 정신을 평안하게 하는 일종의 호흡법인데, 이것은 천지간에 널리 퍼져있는 원기를 흡입한 다음 체내에 저장하여 인간의 신체에 불사(不死)를 가져오게 하는 수행법이라고 한다. 차례로 간술하면 아래와 같다.

***복기조식(服氣調息) :**

이는 신선가(神仙家)에서 기[元氣]를 신체[形]의 근본으로 삼기 때문에 복기(服氣)를 수양의 요법(要法)으로 삼는 것을 이른다. 이 조식법은 묵은 것을 토해내

고 새것을 들이 마시는 방법이다. 동진(東晉)의 도사 갈홍(葛洪: 284~364)이 지은 『포락자(抱朴子)』에, “선인은 육기(六氣)를 뱉아 내고 들이킨다[吐納: 服]”고 하였다. 도가에서 말하는 육기(六氣)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천지자연의 여섯 가지의 기운으로서, 조하(朝霞: 새벽에 동이 틀 때: 평단平旦이라고도 함) · 정양(正陽: 한낮: 일중日中이라고도 함) · 비천(飛泉: 저녁: 일입日入: 일몰日沒) · 항해(沆瀣: 밤중: 야반夜半이라고도 함) · 천현(天玄: 하늘에서 하강하는 기氣) · 지황(地黃: 땅에서 솟는 기氣)을 말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사람 몸에서 내 보내는 여섯 가지의 기(氣)’를 말하는데, 즉 허(嘘: ‘허’소리를 내는 듯한 자세로 천천히 내 뿜) · 가(呵: 더운 김을 내 뿜) · 호(呼: 입으로 숨을 내뿜) · 희(呿: 입으로 숨을 내쉬며 해열함) · 취(吹: 입을 오므리고 힘껏 기운을 내보냄) · 희(嘻: 웃듯이 입을 벌리고 입김을 내보냄) 등 여섯 가지가 있으며, 이는 육부(六腑: 배속에 있는 여섯 가지의 기관: 위 · 대장 · 소장 · 쓸개 · 방광 · 삼초三焦)에서 발(發)하는 기(氣)라고 한다. 이렇게 볼 때, 도가의 조식법은 천지자연의 맑은 기를 들이키고, 육신의 탁한 기를 내뱉는 것을 이르는 것이다.

*태식조식(胎息調息):

이는 태아가 모태 내에서 입과 코가 아닌 뱃줄을 통하여 원기(元氣)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뱃줄을 통하여 원기(元氣)를 받아들이듯이 무념(無念)하면서, 호흡조절을 하여, 코와 입으로 호흡하는 정도를 줄여 일시 정지하듯 하는 수행 방법이다. 도교에서는 수명을 연장하기 위하여 유연체조의 일종인 도인(導引: 선인이 되기 위한 양생법)을 비롯하여 식이요법 등 수많은 수련법을 행하여왔는데 호흡법도 이런 맥락에서 개발된 것이다. ‘태식’은 태아가 네 손가락으로 엄지손가락을 받치고 있는 악고(握固)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는 수일(守一)하기 위함이다. ‘수일’이라는 개념에서 ‘일(一)’이라는 뜻은 몸 안의 원기 혹은 신(神)을 말하는 것으로 주로 세 개의 단전(丹田)에 머무르고 있다고 한다. 상단(上丹)은 니환(泥丸)이라 하여 눈썹 위 3촌(寸)에 위치하며, 중단(中丹)은 강궁금궤(絳宮金關)이라 하여 명치에, 하단(下丹)은 흔히 말하는 단전으로서 배꼽 밑 2촌 4푼의 위치에 있다. ‘수일법’은 몸 안의 단전에 있는 제신(諸神)을 보는 내관법(內觀法)과 통하는데, 이 법은 몸 안에 존재하는 신(神)을, 정신을 통일하여 내시(內視)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도교의 장생수련법이 널리 행해지지는 않았으나, 유자(儒者)를 중심으로 한 지식층들 사이에서는 바로 위의 복기(服氣) 조식과 태식 조식이 건강관리법의 하나로 보급되었다.

이를 테면, 조선조의 매월당(梅月堂) 김시습(金時習: 1435~1493)의 「신선복기법(神仙服氣法)」도 그 중 한 예(例)로 볼 수 있다. 그가 말하는 복기(服氣)는 외부의 인연을 끊고 모든 세속의 인연을 물리치고 오직 오신(五神: 오장五臟)의 영기(靈氣)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정(四正) 곧 말[言], 행동[行], 앉음[坐], 섰[立]의 자세를 바르게 취하는 것을 이른다. 그렇게 하면, ‘내시법(內視法)’ 즉, 마음을 눈으로 삼아 주관적인 상상을 통해 오장(五臟)을 관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사정(四正)을 통해, 심안(心眼)으로 체내(體內)의 기(氣)를 살핀 연후에, 청명한 공기를 들이마셔 니환궁(泥丸宮: 머리: 상단전上丹田)에 들어가서, 아래로 용천혈(湧泉穴: 발바닥의 가운데 부분)에 닿게 한다. 아침마다 이와 같이 청명한 원기를 들이마시면 서, 항상 코로 공기를 들이 쉬고 입으로 조금씩 내뱉는데 입을 열지는 않는다. 이런

게 내쉬는 숨은 짧게 하고 들이쉬는 숨은 길게 하여 기(氣)가 배안에 차있게 하였다.

셋째, 주희의 호흡조절을 통한 수행법: 조식잠(調息箴)

남송(南宋)의 주희는 공맹(孔孟) 이후의 가장 걸출한 유학자로서 세상에 미친 영향이 아주 컸다고 할 수 있다. 그는 박학다식하여, 초사(楚辭), 시(詩), 병법(兵法) 등 안 배운 학문이 없었다. 비록 30세 전후에 사상적 전환으로 노불(老佛: 도교와 불교)을 배척하기 시작했지만, 실제로 그의 생각 속에는 도교와 불교에 대한 영향이 여전히 존재했으며, 도교의 양생(養生)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영향이 더욱 컸다.

청년시절의 주희는 허다한 도사와 밀접한 교류를 유지했으며, 장생비승지술(長生飛升之術)에 대한 동경심도 강했다. 당시의 유명한 도사 허곡자(虛谷子: 생몰년 미상)에게 연단법(煉丹法)을 배우고자 청했으며, 시를 지어 자신의 도가선단(道家仙丹)에 대한 열정을 읊어 보내기도 하였다. 그는 도가생활을 동경하고 비승(飛升)을 추구하는 시가(詩歌)를 많이 남기기도 했으니, 예를 들면, 「하일(夏日)」의 제2수에서:

산을 바라보면서는 승려를 동경하다가,

세수하고 나서는 선경(仙經)을 열독하네.

望山懷釋侶,

盥手閱仙經。

라고 읊은 구절이 그 방증이 되겠다.

주희는 만년에 병이 들어 임종에 임박해서는 도가의 저서 『주역참동계(周易參同契)』와 『음부경(陰符經)』 2권을 주석(注釋)하면서 깊이 연구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젊어서부터 도교와 불교에 심취했던 주희는 역자가 아래에 해석하려고 하는 기(氣)와 호흡론에 관한 한수의 시 「조식잠(調息箴)」을 짓기도 하였다. 그가 지은 「조식잠」은 당시 상당히 유명했으며 길지 않은 시구로서도 뜻 깊은 수련의 도를 강술(講述)하였다. 이른바 “조식(調息)”이란, 바로 ‘호흡을 조절한다’는 뜻이다. 주희가 보기에 이 호흡조절은 ‘양심(養心: 마음을 수양함)’에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왜냐하면, 사람의 내심이 안정되어 있지 않으면 호흡기간(呼吸之間)의 율동(律動) 또한 비교적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일정한 방법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 호흡이 가다듬어지면 내심도 안정된다. 「조식잠」은 도가의 기식론(氣息論)으로 충만해 있으며, ‘눈을 내리깔아 코끝을 주시하면서 정신을 집중하고(眼觀鼻), 호흡하는 횟수를 고르게 하여 마음의 안정을 취하는 방법(鼻觀心)’으로 호흡을 조절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망상을 멀게 한다. 이 「조식잠」은 『주자전집(朱子全集)』 권85에 수록되어 있다.

내가 ‘호흡을 조절하는 것에 대한 잠언(箴言)’을 지은 것은(予作調息箴), 역시 마음을 수양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에서이다(亦是養心一法). 대개 사람의 마음이 안정되지 않는 것은(蓋人心不定者), 코로 내쉬는 숨은 보통 길고(其鼻嚥氣常長), 들이쉬는 숨은 보통 짧은 까닭에(吸氣常短), 필히 호흡을 조절해야 한다(故須有以調之). 호흡하는 횟수가 고르면(鼻數停勻), 마음 또한 점차 안정된다(則心亦漸定). 말한 바와 같이 그러한 심지(心志)를 견지하려면(所謂持其志), 그 사람의 호흡을 거절하지 말아야 한다(無暴其氣也). 훈계하는 말로서 이르기를(箴言曰):

(마음 가라 앉히고 수련하며) 코끝을 주시하면 흰 콧김이 나오는 게 보이구나,

나는 그 흰 콧감을 주시한다네.

鼻端有白，我其觀之。

언제 어디서나 (당상 지우고 수련할 수 있다면),
(입정入靜후에는) 현묘한 도의 경지가 깊어진다네.

隨時隨處，容與猗移。

안정됨이 극에 달했을 때 내쉬는 숨은,
마치 봄날 연못속의 물고기가 물거품을 내뿜는 것과 같다네.

靜極而噓，如春沼魚。

동작의 빈번함이 끝난 다음에 수렴하는 모습은,
온갖 곤충이 겨울잠을 자는 것과 같으네.

動極而翕，如百蟲蟄。

태초에 혼돈·미분(未分)의 기(氣)의 운동 상태는,
그 이치가 오묘하고도 무궁하여,

(그것은 참된 이치에 있는 것이지) 주재자의 움직임에 달린 것이 아니로세.

氤氲開闢，其妙無窮，不宰之功。

(설령 수련으로 내 몸에 신기神氣가 통해서) 구름 위에 누워 하늘을 날아갈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감히 논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로세.

雲臥天行，非予敢議。

수련 한 가지에 전념하여 중화(中和) 속에 머무를 수만 있다면,

이것이 (바로) 일천 이백세까지 장수하는 비결이로세.

守一處和，千二百歲。

7) 송풍생원학(松風生遠壑 : 솔바람이 먼 골짜기에서 솔솔 불어오네) :

****서애주석(西厓註釋) :**

“산에 은거하는 승려 사경(思瓊)은 연세가 80인데, 광흥사(廣興寺)에서 내방(來訪)하여, 동숙(同宿)하는 날 밤에, 날이 밝을 때까지 잠은 자지 않고, 간혹 염주알 한 알씩 굴리는 소리만 내었다(山人*思瓊*年八十，自廣興*浮屠*來訪，因同宿，達曉不寐，惟時聞念珠聲).”고 하여, 본 시구에서의 화자와 청자의 분위기를 전해주고 있다.

*산인(山人) : 선가(仙家), 도사 같은 사람을 가리킨다.

*사경(思瓊) : 본 시에서 보듯이 서애(西厓)와 동숙(同宿)한 고승(高僧)의 호(號)이거나 자(字)이다.

*광흥(廣興) : 사찰명(寺刹名)이나 사적에 기록된 것을 역자가 찾을 수 없었음.

*부도(浮屠) :

- a. 부도(浮圖)로도 쓰며, 불교용어이다. 범어(梵語)로 ‘부다(Buddha : 불타佛陀)’의 음역(音譯)이다. ‘각자(覺者 : 부처님 : 진리를 체득한 사람)’로 번역되며, ‘불(佛)’이라 약칭(略稱)한다. ‘미망(迷妄)을 여의고 스스로 모든 법(法)의 진리를 깨닫고, 또 다른 중생을 교도하여 깨닫게 하는 자각(自覺)과 타각(他覺)의 두 가지 실행을 완성한 사람’을 말한다. 이 말을 처음에는 보리수(菩提樹 : bodhi-druma) 나무 아래서 성도(成道)한 석존(釋尊 : 석가모니 세존의 약칭)에 대한 칭호로 쓴 것이다. 불타(佛陀)는 석존(釋尊) 뿐이었으나, 뒤에 불

교의 교리가 발달함에 따라 과거·현재·미래의 모든 부처님이 있게 되고
 十方(十方: 열 가지 방향)의 모든 부처님으로 발전하여 드디어 그 수가 한량
 없게 되었다. 이것이 처음에는 역사적 인물이었던 것이 점점 이상화(理想化)
 되어, 유형무형의 온갖 방법으로도 원만한 인격적 존재가 되었다.

b. 승려(중)를 가리킨다.

8) 대화양유유(大化良悠悠: 대자연의 만물 생육은 실로 유유하고 한가한데):

① 대화(大化): 만물을 화육(化育: 천지자연의 이치로 만물을 만들어 가름)함을 이룸.

② 양유유(良悠悠):

☆양(良): 여기서는 부사로 ‘진실로, 정말로’ 등의 의미로 쓰였음.

☆유유(悠悠): 침착하고 여유가 있는 모양(한가한 모양).

9) 공역역(空役役):

① 공(空): 부질없이, 공연히.

② 역역(役役):

☆수고(고생, 노고)를 끊임없이 하는 모양.

☆심력(心力)을 수고로이 하는 모양.

☆일에 골몰한 모양, 고생하며 애쓰는 모양.

10) 구진(求真): 참된 것을 탐구(探究)하다. 진여(眞如), 즉 우주만물의 실체로서, 현실
 적이며 평등무차별한 절대의 진리와 진성(眞性)을 찾다.

11) 축물(逐物): 육신 밖의 사물(대체로 공명功名이나 물욕物欲을 가리킴)을 추구하다.

12) 만법고다문(萬法固多門: 만사만물은 원래 그 종류 다양하나):

① 만법(萬法): 제법(諸法)이라고도 함. 우주에 있는 유형무형의 모든 사물을 가리킨.

☆불교어(佛敎語)로서, 범어(梵語) ‘달마(dharma: 達磨: 법法)’를 의역(意譯)한
 것이며, 사물 및 그 현상을 가리킨다. 또한 이성(理性)을 가리키며, 불법(佛法)
 을 가리킨다. ‘만법(萬法)’은 곧 ‘모든 사물, 모든 존재, 모든 법, 만유일체(萬有
 一體: 우주의 온갖 법칙은 한 몸에 구비되어 있다는 뜻)’를 가리킨다.

② 다문(多門): 문(門): 각 분야의 종류를 가리킨다.

13) 묘결(妙訣):

① 교묘한 수단. 비결.

② 신령하고 기묘한 방법(요령).

14) 회(會): 이해하다, 깨닫다.

15) 제시(題詩): 한 가지 일이나 사물, 혹은 한 폭의 글이나 그림을 취하여, 그 감상을
 토로하면서 시를 짓는 것을 이룸. 대체로 기둥이나 벽·서화(書畵)·기혈(器血: 그
 릇, 도자기) 등에 많이 쓴다.

16) 차사불가망(此事不可忘: 이 사건은 일은 결코 잊을 수가 없나니):

① 차사(此事): ‘이 사건’이란 뜻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598년 명나라 경략(經略: 경략사(經略使): 변방 중요지역에 설치한 군사기구의 장수
 로, 각 지방의 군사업무를 관장하였음) 정응태(丁應泰: 생몰년 미상)가 조선이 일본과
 연합하여 명나라를 공격하러 한다고 본국에 무고하자, 이 사건의 진상을 변명하
 러 가지 않는다는 북인(北人: 이발李潑: 1544~1589·이산해李山海: 1539~1609·이
 이첨李爾瞻: 1560~1623 등을 중심으로 한 당파)의 탄핵으로 서애가 관작(官爵)을 삭
 탈당한 것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후에(1600년 경자년庚子年: 서애 59세) 복관되

었으나 다시 벼슬하지 않고 은거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서애연보」 1598년 서애 57세 조항을 참조바람)

② 불가(不可) : 조동사로서 ~할 수가 없다. ~해서는 안 된다.

17) 차일족가석(此日足可惜 : 이 날은 몹시도 애석한 날이었네) :

① 차일(此日) : ‘이 날’이란 뜻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서애가 삭탈관직 당하던 날(1598년 11월19일 : 무술년戊戌年 동짓달 경자일 庚子日 : 서애 57세)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위의 주석16)의 ① ‘차사(此事)’ 조항을 참조.

② 가석(可惜) : 애석해하다, 안타까워하다, 아쉬워하다.

18) 백년내(百年內) : 한평생 몸담았던 조정.

① 백년(百年) :

☆사람의 수명이 백세가 한도임을 가리키는 말.

☆일생, 종신(終身).

② 내(內) : 본 시에서는 ‘조정(朝廷)’의 뜻으로 쓰였음.

『사기(史記)·급정열전(汲鄭列傳)』에, 급암(汲黯 : ?~BC 112, 서한西漢 무제武帝 당시에 성정이 엄격하고 직간直諫을 잘하여 ‘사직지신社稷之臣’이란 칭호를 받은 신하)은, “여러 차례 절실한 직간(直諫)을 하여, 조정에서 오래 버티지 못하고, 동해군(東海郡 : 지금의 산둥성 담성현鄆城縣 서북 3리)의 태수로 전출되었다(以數切諫, 不得久留內, 遷爲東海太守).”고 한 구절이 있다.

19) 득실추호말(得失秋毫末 : 명리名利의 득실은 극히 하잘 것 없는 것이었네) :

① 득실(得失) : 명리(名利)를 얻음과 잃음을 가리키는 말로 쓴다.

② 추호말(秋毫末) : 추호지말(秋毫之末)의 약어. 금수(禽獸)에게 가을에 새로 자라 나는 털의 끝을 이르는 것으로, 아주 미세한 것을 비유한 말.

20) 거자수이(去者雖已矣 : 과거사는 비록 이미 끝났다할지라도) :

① 거자(去者) : 과거사(過去事). 지나간 일.

② 이(已) : 끝나다, 종료하다.

21) 래자유가급(來者猶可及 : 미래사는 아직 해낼 수 있다네) :

****역주자석** : 본 시의 ‘래자유가급(來者猶可及)’이란, 이 시구(詩句)를 「시29」에서도 읊었다. 다만 작가가 의도하는 바에 있어서 같은 미래사를 의미하면서 읊은 시구인 데도, 「시29」에서는 ‘국사(國事)’를 가리켜서, 아직 성취시킬 수 있음을 뜻했고, 본 시에서는 ‘개인 인생사’를 가리켜서 아직 실현시킬 수 있음을 뜻하는 말로 쓰였다고 본다.

① 내자(來者) : 미래사(未來事). 다가오는 일.

② 급(及) : 도달하다, 제 시간에 대다, 늦지 않다.

22) 종조어심구(終朝語心口 : 새벽부터 속마음 꺼내보이다니) :

① 종조(終朝) : 이른 아침, 새벽

② 심구(心口) : 마음(속).

23) 상기(相期) : 앞의 ‘상(相)’은 부사로, 자칭(自稱)의 의미를 띄우며, 뒤의 ‘기(期)’는 동사로 ‘기대하다, 희망하다’의 뜻으로 파악한다.

24) 반석(盤石) : 반석(磐石)으로도 씀. 넓고 평평한 큰 바위를 가리킨다.

25) 암곡(巖谷) : 암곡(岾谷)으로도 씀. 산곡(山谷 : 산골짜기)과 같은 말이다.

- 26) 불견고시인, 유견고시월(不見古時人, 惟見古時月 : 옛날 사람은 보이지 않지만, 옛적의 그 달만은 눈에 들어오는 구나) :
서예의 이 두 시구는 이백(李白)의 〈술잔을 들어 달에게 묻는다(把酒問月)〉에서, “옛사람은 지금의 달을 볼 수 없지만(古人不見今時月), 지금의 달은 옛사람을 비쳤었다네(今月曾經照古人)”의 취지를 따온 시구로 파악됨. 이백은 여기서 ‘옛사람은 지금의 달을 보지 못하나, 지금의 달은 일찍이 옛사람을 비추었다’라는 이른바, 인생의 유한함과 자연의 영원함을 대비시켜 우리인생의 총총함을 함축시키고 있다. 서예는 바로 이백의 이러한 관점을 통해, 본 시구에서 유한한 인생행로에서의 처세관을 함축시키고 있다.
- 27) 거(去) : 죽다, 사망하다.
- 28) 요곽(寥廓) : 쓸쓸(쓸렁, 적막, 적적)하다.
- 29) 회옹조식잠(晦翁調息箴) : 회옹晦翁 선생의 호흡조절에 대한 잠언[調息箴]에서) : 회옹의 조식잠(調息箴)은 호흡조절을 통한 심성수행법을 말하는 것이다. 자세한 것은 본 시의 주석6)을 참조 바람.
- 30) 인열비단백(引說鼻端白) : ‘코끝 주시하며 명상하면 흰 콧김 보인다[鼻端白]’는 수행법 즐겨 행하네) :
① 인열(引說) : 심취하여 즐기다. 즐겨 실행하다.
☆인(引) : 사용하다, 취(取)하다, 실행하다.
☆열(說) : 열(悅)과 같은 뜻으로 ‘즐기다’로 번역하였다.
② 비단백(鼻端白) : 호흡조절을 통한 심성수행을 말하는 것으로, 자세한 것은 본 시의 주석6)을 참조 바람.
- 31) 달인고료료(達人固了了) : 통달한 사람이야 당연히 명백히 알겠지만) :
① 달인(達人) : 사리(事理)에 통달한 사람.
② 요료(了了) :
☆사리(事理)에 통달하다. 총명하다, 지혜롭다.
☆명백하다, 분명하다.
- 32) 인착(認錯) : 잘못 인식하다(알다, 보다).
- 33) 연목(緣木) : 연목구어(緣木求魚)의 약어(略語).
① 나무에 기어오르다. 이때의 ‘연(緣)’은 ‘반연(攀緣 : ~을 잡고 기어오르다)’의 뜻이다.
② 연목구어(緣木求魚) :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잡으려한다는 뜻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굳이 하려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맹자(孟子) · 양혜왕(梁惠王) · 상(上)』에 “대왕(여기서의 대왕은 제선왕齊宣王을 가리킴)의 이러한 욕망을 만족시키려 한다면, (그것은) 흡사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求若所欲, 猶緣木而求魚也). … 비록 물고기는 잡지 못하더라도, 뒤탈(후한)은 없지만, 이러한 방법으로, 이러한 욕망을 만족시키려 한다면, 심신(心身)의 힘을 다 기울여도, 반드시 뒤탈이 있을 것입니다(…雖不得魚, 無後災, 以若所爲, 求若所欲, 盡心力而爲之, 後必有災)”고 하였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34) 해도정문어(解道程門語) : 『이정어록(二程語錄)』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
① 해도(解道) : 이해하다. 터득하다.

② 정문어(程門語): 본 시에서 표현된 이 말은, ‘정씨학과(鄭氏學派)의 어록(語錄)’이란 뜻으로 『이정어록(二程語錄)』을 가리킨다. 북송(北宋) 이학가(理學家)인 정호(程顥: 1032~1085, 호는 명도(明道))와 정이(程頤: 1033~1107, 호는 이천(伊川))를 세칭(世稱), 이정(二程)이라고 한다.

그들의 저술에 『이정유서(二程遺書)』·『이정외서(二程外書)』·『명도선생문집(明道先生文集)』·『이천선생문집(伊川先生文集)』·『주역전(周易傳): 역정전(易程傳)』·『정씨경설(程氏經說)』 및 『이정수언(二程粹言)』 등이 있는데, 이것들을 모두 합해서 『이정전서(二程全書)』라고 한다.

『이정유서(二程遺書)』 25권, 『외서(外書)』 12권, 『수언(粹言)』 2권은 모두 이정(二程)의 어록(語錄)이다. 유서(遺書)와 외서(外書)는 이정(二程)의 문인이 기록한 것이나, 그것을 편집하고 책으로 만든 사람은 남송(南宋) 주희(朱熹: 1130~1200: 호는 회암(晦庵))이다.

외서(外書)는 유서(遺書)에서 빠진 것을 보태어 채운 것으로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이정수언(二程粹言)』은 이정(二程)의 대제자 양시(楊時: 1053~1135, 호는 구산(龜山))가 당시의 소견에 의거해서, 이정(二程)의 문인들이 기술한 이정(二程)의 어록인데, 편집한 것이 2권 10편으로, 그 내용이 유서(遺書)에서도 많이 보이지만, 구어(口語)를 문언(文言)으로 바꾸어 놓았다. 따라서 이정(二程)의 주요 견해는 모두 이정(二程)의 유서(遺書) 중에 있다.

『이정유서(二程遺書)』는 모두 25권인데, 이는 이정(二程)의 문인 이유(李籲: 생몰년대 미상. 자는 단백(端伯))와 여대임(呂大臨: 1040~1092: 자는 여숙(與叔))이 여러 책에서 자료를 모아 기록하였다. 이 책 이전 10권의 원표제(原標題)는 이선생어(二先生語)라고 했는데, 그 중의 소수(小數)는 명백히 명도어(明道語)와 이천어(伊川語)를 밝혔지만, 대다수는 주석에서 누구의 말인지를 명백히 밝히지 않았다. 그래서 후세 학자들이 연구하는데 상당히 곤란하였으니, 어느 것이 ‘명도어’이고 어느 것이 ‘이천어’인지 알 수가 없다. 근대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선생어(二先生語)』 이전의 10권은 대체로 명도어인 것으로 보인다. 유서(遺書) 권11에서 권14까지는 ‘명도어’임을 표지하였고 권15에서 끝까지의 ‘이천어’라고 표명하였다.

이정(二程)은 형제로 모두 송대(宋代) 이학(理學)의 거두(巨頭)였으나, 두 사람은 성격이 다르고 학문적 견해에도 차이가 있다. 『이정어록(二程語錄)』에서의 표현을 보면, 명도(明道)의 성격은 활발하고, 학문적으로는 원숙 통달하여 학문적 식견을 빠짐없이 원만하게 갖추고 일시에 깨닫게 하는 표현을 즐겨 썼다. 그는 어구의 표현이 간략하여 심원한 느낌을 준다. 반면에 이천(伊川)은 비교적 실질적으로 보이며, 그의 학문은 분석을 즐겨 표현하여 절실한 공부를 요한다.

35) 심요재구각(心要在軀殼: 심성(心性)의 요체를 실천하는데 두어야 하네.):

① 심요(心要):

☆불교용어로, 가르침의 심수(心髓), 정요(精要)를 뜻함.

☆불교용어로, 심성(心性)에 기초한 정요(精要)의 법의(法義: 가르침의 도리, 불법의 가르침과 그 의의)를 가리킨다. 본 시에서는 심성의 요체(要諦)로 번역하였다.

② 재(在): ~에 있다. ~에 두다.

③ 구각(軀殼): 신체, 몸, 체구(體軀).

- 36) 무사(無事) : 세사(世事)에 관여치 않는다는 뜻.
- 37) 불여춘화경(不與春華競 : 봄꽃과 더불어 화려함을 시샘하지 않네) :
 ① 불여(不與) : 여기서 ‘불(不)’은 하반부의 ‘경(競: 다투다)’이라는 동사를 부정하며, ‘여(與)’는 개사(介詞)로서 역시 하반부의 ‘춘화(春華)’를 목적어로 하는 개사이다.
 ② 춘화경(春華競) :
 ☆춘화(春華) : 춘화(春花)와 동일 의미이다.
 ☆경(競) : 다투다. 시샘하다.
- 38) 영장일미진(寧將一微塵 : 차라리 곧 바로 천한 사람 될지언정) :
 ① 영(寧) : 오히려(∼할지언정).
 ② 미진(微塵) : 말할 수 없이 신분이 비천한 자를 비유하는 말. 겸사(謙詞)로 상용하는 말.
- 39) 예치백련경(翳此百鍊鏡 : 여기에 (부귀한 사람이 쓰는) 동경은 치워야겠네)) :
 ① 예(翳) : (덮어) 가리다, 숨기다, 치워버리다.
 ② 백련경(百鍊鏡) :
 ☆동경(銅鏡) : 오호십육국(五胡十六國) 시대 후진(後晉)의 은사(隱士) 왕가(王嘉 : 생몰년 미상)의 저서로, 전설을 모아 놓은 지괴서(志怪書)인 『습유기(拾遺記) · 방장산(方丈山)』권에, “사방 백라나 되는 못이 있는데, 수심이 깊어서 건널 수가 있으며, 바닥의 진흙 색깔이 황금색이고 물맛은 맵다(有池方百里, 水淺可涉, 泥色若金而味辛). … 그 진흙은 여러 차례 단련하면 금속이 되며, 청색인데, 도깨비와 두역시니(야차夜叉 : 모질고 사나운 귀신의 하나)를 비추면 석경(石鏡 : 유리로 만든 거울)으로 비추는 것과 같아서, 산의 요괴와 도깨비들이 형체를 숨길 수가 없다(百鍊可爲金, 色青, 照鬼魅猶如石鏡, 魑魅不能藏形矣).”고 하였다. 후세 사람들은 그래서 ‘충분히 단련한 동경(銅鏡)’을 일컬어 ‘백련경(百鍊鏡)’이라 하였다.
- 40) 투한(偷閑) : 투한(偷閑)으로도 쓴다.
 ① 여가 시간을 짜낸다. 이때의 투(偷)는 ‘(시간, 틈)을 내다’는 뜻이다.
- 41) 석현(昔賢) : 지난날에 살았던 덕행이 뛰어나고 어진 사람. 고현(古賢), 선철(先哲), 전현(前賢)과 비슷한 말.
- 42) 독(獨) : 부사로 ‘유독, 단지, 오직’의 의미로 쓰였음.

시60. (저승에 간) 아들 자남子男이 경자년庚子年
 겨울에 벽에 써놔던 (그 애의) 이름자를
 보고,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다

詩60. 壁間見子男庚子冬題名¹⁾ 淚下良久
 벽 간 견 자 남 경 자 동 제 명 루 하 양 구



汝逝²⁾已半歲,
 여 서 이 반 세

네가 저승에 간지도 반년이나 지났는데,

形容漸難記³⁾.
 형 용 점 난 기

네 얼굴이 떠오를수록 기억하고 있기
 힘들구나

寧⁴⁾知塵壁裏,
 영 지 진 벽 리

어찌 알았겠나 이 먼지 얹은 벽에,

尙有當時字。
 상 유 당 시 자

아직도 당시에 쓴 글자가 남아 있을
 줄이야!

嚴霜凋蕙草⁵⁾,
 엄 상 조 혜 초

된서리 내리면 혜초蕙草가 시들기
 마련이고,

烈火燒崑玉⁶⁾.
 열 화 소 곤 옥

맹렬한 불길은 곤륜산의 옥돌도 태운단다.

物理未應然⁷⁾,
 물 리 미 응 연

사물의 이치가 마땅히 그렇지 않을진대,

天心誰復測。
 천 심 수 부 측

하늘의 뜻을 무엇으로 다시 예측하라!

無端數行淚,
무 단 수 행 루

무단히 몇 줄기 눈물 흘렸던 것은,

爲汝一靄臆。
위 여 일 점 억

너를 향한 생각에 잠시 젖어서였다.

-
- 1) 벽간견자남 경자동제명(壁間見子男庚子冬題名 : (저승에 간) 아들 자남子男이 경자년庚子年 겨울에 벽에 써났던 (그 예의) 이름자를 보고,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다):
 - ① 벽간(壁間): 벽면. 여기서 '간(間)'은 막연한 장소를 나타냄.
 - ② 자남(子男: 1588~1604): 서애의 제5자(子)인 균(均)의 아명(兒名)이다. 자세한 것은 「시53」 주석1)을 참조 바람.
 - ③ 경자(庚子): 경자년(庚子年: 1600). 서애(西厓) 59세 때이다.
 - 2) 서(逝): 죽다.
 - 3) 형용점난기(形容漸難記: 네 얼굴 떠오를수록 기억하고 있기 힘들구나):
 - ① 형용(形容): 얼굴이 떠오르다.
 - ② 난기(難記): 기억하고 있기 힘들다.
 - 4) 영(寧): 어찌(~이겠는가?)
 - 5) 엄상조혜초(嚴霜凋蕙草: 윈서리 내리면 혜초蕙草가 시들기 마련이고):
 - ① 엄상(嚴霜): 윈서리.
 - ② 조(凋): (잎이나 꽃 등에) 시들다, 지다.
 - ③ 혜초(蕙草): 향조명(香草名)으로, 훈초(薰草): 영릉향(零陵香): 속명(俗名)으로 패란(佩蘭: 향등골나물):
콩과의 두 해 살이 풀. 줄기는 높이가 70cm 정도이며, 잎은 어긋나와서 작은 나비 모양의 꽃이 피며 약재로 씀. 그루터기 전체가 방향(芳香)을 지니고 있으며 능히 악취를 제거하고 몸에 지니고 있으면 향기가 발산함. 그 형상이 층층으로 되어 있는 고층탑 모양을 하고 있어서 '구층탑(九層塔)'이라 칭하기도 했음. 고대에는 이를 제례용(祭禮用: 재액災厄을 떨어 버리기 위해 지내는 제사 '발제被除'에서 사용함)으로 쓰기도 했으며, 침상 깔개나 방석 등을 만들 때 쓰기도 했다.
 - 6) 곤옥(崑玉): 곤륜산(崑崙山)의 미옥(美玉). 의취(意趣)가 고결하거나, 문장이 아름답거나, 인재(人才)가 걸출한 것 등을 비유할 때 많이 쓰는 말이다.
 - 7) 미응연(未應然): 마땅히 그렇지 않다.
 - ① 미응(未應):
 - ☆~로 간주하지 않다, ~로 인정하지 않다.
 - ☆~할 필요가 없다.
 - ☆아직 ~않다. 일찍이 ~않다.
 - ☆마땅히 ~하지 않다.
 - ② 연(然): 그러하다, 그와 같다.

시61. 비 온 뒤에 청초靑草를 시제詩題로 두 수 짓다

詩61. 賦¹⁾雨後靑草二首
부 우 후 청 초 이 수



其一
기 일

[1]

獨向禪堂²⁾臥,
독 향 선 당 와

홀로 선방禪房에 들어가서 누웠는데,

終宵³⁾聞雨聲。
종 소 문 우 성

밤새도록 비오는 소리 들렸네.

朝起望遠野,
조 기 망 원 야

아침에 일어나서 먼 들판 바라보니,

草色何靑靑⁴⁾。
초 색 하 청 청

풀빛이 얼마나 푸릇푸릇 하던지!

宿雲⁵⁾離復合,
숙 운 리 부 합

밤새껏 구름은 흩어졌다
모였다를 반복하고,

山日翳還明⁶⁾。
산 일 예 환 명

서산으로 졌던 해도 다시 밝아오네.

感茲時物變⁷⁾,
감 자 시 물 변

이 시절과 경물의 변화를 느끼다보니,

悠悠傷我情⁸⁾。
유 유 상 아 정

내 마음 끝없이 상감傷感에 젖어드네.

其二
기 이

[2]

我有濂溪草⁹⁾,
아 유 립 계 초

내게 엄계濂溪 선생이 썼듯이 쓴
초고草稿는 있지만,

而無濂溪心¹⁰⁾.
이 무 립 계 심

정작 엄계濂溪가 지녔던 도심道心은
없다네.

閒庭¹¹⁾經夜雨,
한 정 경 야 우

고요하던 뜰에 밤사이 비가 지나가더니,

翠色一寸深¹²⁾.
취 색 일 촌 심

풀잎의 비취색이 좀 더 짙어졌네.

門閉無來客,
문 폐 무 래 객

대문은 닫혀 있고 오는 손님 없는데,

山高易夕陰¹³⁾.
산 고 이 석 음

산이 높아서 땅거미는 쉽사리 스며드네

詩成誰與和,
시 성 수 여 화

시를 다 지었으나 누구와 더불어
화답할꼬?

聊復一沈吟¹⁴⁾.
료 부 일 침 음

잠시 소리 낮춰 한차례 읊조려 볼
따름일세.

1) 부(賦): 시를 짓다(읊다).

2) 독향선당臥(獨向禪堂臥: 홀로 선방에 들어가서 누웠는데):

① 독향(獨向): 홀로 ~에 가다.

☆독(獨): 혼자, 홀로.

☆향(向): 동사로 ‘~에 이르다. 가다.’의 뜻으로 쓰였음.

② 선당(禪堂): ‘선방(禪房: 참선하는 방), 선실(禪室), 승당(僧堂)과 같은 말.

3) 종소(終宵): 종야(終夜) · 종석(終夕) · 철야(徹夜): 밤새껏, 밤이 지나는 동안 꼬박, 하룻밤 동안.

4) 청청(靑靑):

☆푸릇푸릇하다.

☆맑고 푸르다.

☆싱싱하게 푸르다.

5) 숙운(宿雲):

☆야간(夜間)의 구름.

☆밤사이의 구름.

6) 산일예환명(山日翳還明: 서산으로 졌던 해도 다시 밝아오네):

① 산일(山日): 산 너머로 진 해(여기서의 ‘산山’은 ‘서산西山’을 가리킴).

② 예환명(翳還明):

☆예(翳): 숨다. 자취를 감추다.

☆환명(還明): 다시 밝아오다.

7) 감자시물변(感茲時物變: 이 시절과 경물의 변화를 느끼다 보니):

① 감자(感茲):

☆감(感): 느끼다, 감상하다.

☆자(茲): a. 이, 이것.

b. 이제, 지금. 여기에.

② 시물(時物): 시절과 경물(景物).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경치.

8) 유유상아정(悠悠傷我情: 내 마음 끝없이 상감傷感에 젖어드네):

① 유유(悠悠): 끝없이 쭉 이어지는 모양을 형용한 말.

② 상아정(傷我情): 내 정취를 상감(傷感: 쓸쓸하고 슬퍼져서 마음이 상함)에 젖어들게 한다.

☆상(傷): 우수(憂愁)에 젖다, 근심하고 걱정하다.

☆정(情): 정취(情趣). 마음.

9) 아유염계초(我有濂溪草: 내게 염계濂溪 선생이 썼듯이 쓴 초고草稿는 있지만):

① 염계(濂溪):

☆북송의 유학자 주돈이(周敦頤)의 호.

☆‘넷가’라는 뜻도 지닌 쌍관어(雙關語)로 사용되었음.

② 초(草):

☆원고(原稿)의 초고(草稿)를 칭하는 것이다.

☆본 시에서 쓰인 이 ‘초(草)’란 시어(詩語)는 주돈이(周敦頤)가 살았던 염계(濂溪) 넷가에서 자라는 ‘풀’이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역자주석:**

주석9)의 ‘아유염계초(我有濂溪草)’ 시구는 “내게는 염계 넷가에서 자라는 풀들은 많지만, 정작 염계선생이 지녔던 도심(道心)은 없네(我有濂溪草, 而無濂溪心)”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

10) 염계심(濂溪心): 염계(濂溪)가 지녔던 도심(道心). 여기서, ‘심(心)’은 도심을 가리킴.

① 염계(濂溪): 본시에서는 북송의 유학자 주돈이(周敦頤)의 호로 쓰였다. 염계(濂溪)는 원래 중국 호남성(湖南省) 도현(道縣)에 있는 시냇물 명칭인데, 송(宋)의 유학자인 주돈이(周敦頤: 1017~1073)가 대대로 이 넷가에서 살았다. 주돈이는 만년(晩年)에 강서성(江西省) 북부에 위치한 여산(廬山)의 연화봉(蓮花峰) 아래로 이주(移住)하였는데, 그 연화봉 앞에도 한줄기 시냇물이 흐르고 있었다. 주돈이는 시냇물의 명칭을 옛날에 살던 곳의 넷물 ‘염계(濂溪)’라는 이름을 따서 그대로 부르는 동시에, 이 넷물 명칭을 자신의 호(號)로 삼았기에, 그를 세칭(世稱)

염계 선생(濂溪先生)이라 불렀다.

☆주돈이(周敦頤: 1017~1073): 중국 북송의 유학자. 자는 무숙(茂叔), 호는 염계(濂溪). 도주(道州: 호남성湖南省 도영현道營縣) 출생. 지방관으로서 각지에서 공적을 세운 후 만년에는 여산(廬山) 기슭의 염계서당(濂溪書堂)에 은퇴하였기 때문에 문인들이 염계 선생이라 불렀다. 북송의 사마광(司馬光: 1019~1086)·왕안석(王安石: 1021~1086)과 동시대의 인물이다. 그는 도가사상(道家思想)의 영향을 받고 새로운 유교이론을 창시하였다. 즉, 우주의 근원인 태극(太極: 무극無極)으로부터 만물이 생성하는 과정을 도해(圖解)하여 ‘태극도(太極圖)’를 그리고, 태극이 운동하여 음양(陰陽)의 이기(二氣)를 낳고, 음양이 기가 변하고 합하여, 금(金)·목(木)·수(水)·화(火)·토(土)의 오행(五行)을 낳고, 이 오기(五氣)가 순리롭게 펼쳐지면서, 사계절이 운행되고, 이에 만물이 생성한다는 순서로 세계가 구성되었다고 논하고 있다. 다만 이렇게 생성된 만물 중에 인간만이 가장 우수한 존재이기 때문에, 중정(中正)과 인의(仁義)의 도를 지키고 마음을 성실하게 하여 성인(聖人)이 되어야 한다는 도덕과 윤리를 강조하여, 우주생성의 원리와 인간의 도덕원리는 본래 하나라는 이론을 제시하였다.

저서에 『태극도설(太極圖說)』·『통서(通書)』 등이 있는데, 이 책은 남송의 주희(朱熹: 1130~1200)에 의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남송의 주희는 염계(濂溪)가 정호(程顥: 1032~1085)·정이(程頤: 1033~1107) 형제를 가르쳤다고 하여, 도학(道學: 송대의 신유교新儒敎)의 개조(開祖)라고 칭하였다.

황정견(黃庭堅)은 『예장집(豫章集)·염계시서(濂溪詩序)』에서, 주돈이의 인품을 평하여 말하기를: “용릉(舂陵)의 주무숙(周茂叔)은, 사람됨이 매우 고결하고, 기슭속이 맑고 깨끗하기가, 눈비 갠 뒤의 맑은 바람이나 맑은 달과 같다네(舂陵周茂叔, 人品甚高, 胸懷灑落, 如光風霽月)”라고 하였다.

- 11) 한정(閒庭): 한정(閑庭)으로도 쓴다. 적막감이 감도는 정원. 고요한(적막한) 정원.
- 12) 취색일촌심(翠色一寸深: 풀잎의 비취색이 좀 더 짙어졌네):
 - ① 취색(翠色): 비취색. 청록색.
 - ② 일촌(一寸): 열푼(十分)이 한 치(一寸)이다. 이는 한 자(尺)의 10분의 1로서 전(轉)하여 미소(微少: 매우 적음: 조금)함을 뜻한다.
- 13) 석음(夕陰): 땅거미(해가 진 뒤 어스레한 동안). 해질 무렵 어둠이 깔리는 시간.
- 14) 요부일침음(聊復一沈吟: 잠시 소리 낮춰 한차례 읊조려 볼 따름일세):
 - ① 요부(聊復): 잠시, 잠깐, 우선.
 - ☆요(聊): 잠시.
 - ☆부(復): 재차.
 ‘요부(聊復)’는 ‘요부이이(聊復爾耳: 잠시 이와 같이 할 따름이다)’의 약어(略語)처럼 쓰였다. ‘이(爾)’는 ‘여차(如此: 이와(그와, 저와)같다)’의 뜻이다. ‘이(耳)’는 종결어기사로 ‘제한’을 나타내며 ‘이이(爾耳: ~일 따름이다)’와 같은 뜻이다.
 - ② 일침음(一沈吟): 한번 낮은 목소리로 읊조리다.
 - ☆침음(沈吟): 목소리를 낮추어(낮은 목소리로) 읊미(吟味)하다.

시62. 비온 뒤 산에 올라보니

詩62. 雨後登山
우 후 등 산



尋山¹⁾不厭路高低, 산을 오르면서 길이 오르락내리락 해도
심 산 불 열 로 고 저 싫지 않은데,

野雨新晴²⁾水滿溪。 저 들판에는 비 방금 갠 건만 (산에는)
야 우 신 청 수 만 계 계곡물이 벌써 불어났네

杜宇³⁾一聲山日暮, 두견새 한 마리가 우는데 산에는
두 우 일 성 산 일 모 (이미) 날 저물고,

棠花⁴⁾初發石橋西。 돌다리 서쪽에는 산앵두 꽃이 피기
당 화 초 발 석 교 서 시작했네.

1) 심산(尋山): 산을 찾아 오르다. 등산(登山)과 같은 의미로 쓰였음.

2) 신청(新晴):

① 방금(이제 막) 날이 개다, 방금 갠 날씨.

☆신(新): 부사로서, ‘방금, 갓, 최근에’의 뜻이다.

3) 두우(杜宇):

① 두견새(杜鵑鳥): 두혼(杜魂): 망제(望帝): 불어귀(不如歸): 사귀조(思歸鳥): 자규(子規): 시조(時鳥): 주각제금(住刻啼禽): 주연(周燕): 촉백(蜀魄): 촉조(蜀鳥): 촉혼(蜀魂): 촉혼조(蜀魂鳥) 등은 모두 두견이 라고 칭한다.

『성도기(成都記)』의 기록에 의하면, 두우(杜宇)는 두주(杜主)라고도 칭하는데, 하늘에서 하강한 사람으로 망제(望帝)라 칭했으며, 농사짓기를 좋아하면서 비성

(鄆城: 지금의 사천성 비현鄆縣)을 다스렸다고 한다. 훗날, 망제(望帝)가 죽은 후에, 그 혼이 새가 되어 ‘두견(杜鵑)’이라 불렸다고 하였다.

☆두견새: 날개의 길이는 15~17cm, 꽁지는 12~15cm, 부리는 2cm 정도이다. 등은 회갈색이고 배는 어두운 푸른빛이 나는 흰색에 검은 가로줄 무늬가 있다. 여름새로 스스로 집을 짓지 않고 휘파람새의 둥지에 알을 낳아 휘파람새가 새끼를 키우게 한다.

4) 당화(棠花): 산앵두나무 꽃.

① 산 앵두나무: 팽 나무: 당채(棠棣): 산 앵두: 산이스랏 나무: 차하리(車下梨): 천금등(千金藤):

철쭉과의 낙엽 활엽 관목. 높이는 1m 정도이며, 잎은 어긋나고 달걀 모양으로 가장 자리에 톱니가 있다. 4~5월에 연붉은색 또는 흰색의 꽃이 거드랑이에 피고 열매는 식용하고 씨는 약용하며 관상용으로 재배한다. 산기슭 숲속에서 자라는데 한국·일본에 분포한다.

시63. 풍송석 서문을 병기함

詩63. 風松石并序

재사齋寺 동쪽에 큰 바위가 있는데, (그 곳에는) 십여 명이 앉을 수 있다. 내가 계유년癸酉年(1573. 서애 32세)에, 형님과 함께 선친 상중喪中에, 그 바위 옆에서 움막을 지어놓고 시묘待墓를 하였다. 그 바위 아래쪽에는 큰 소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그 가지와 줄기가 기이하고 예스러워서, 나도 옛사람을 따라서 '풍송風松'이란 큰 글자 두 자를 그 바위에 새겼음으로, 그 일을 여기에 기록한다.

齋寺¹⁾東有大石, 可坐十餘人。余於癸酉²⁾, 與兄居先考³⁾憂,
재사 동유대석 가좌십여인 여어계유 여형거선고우

廬⁴⁾其側。其下大松, 枝幹奇古⁵⁾, 余取⁶⁾古人, 風松二大字鐫其面,
노기측 기하대송 지간기고 여취 고인 풍송이대자천기면

因記其事。
인기기사

盤陀⁷⁾一片石,
반타 일편석

울퉁불퉁하고 평퍼짐한 바위 하나,

長⁸⁾在青山麓。
장재청산록

언제나 청산 기슭에 그대로 있구나.

傍有百丈⁹⁾松,
방유백장송

곁에는 높직한 소나무가 서 있어서,

風來自蕭瑟¹⁰⁾。
풍래자소슬

바람만 불어오면 절로 싸싸 소리 나네.

每當獨來時¹¹⁾,
매당독래시

번번이 나 홀로 여기 올 때마다,

遠憶銜哀日¹²⁾。
원억함애일

먼 곳의 선친 그리워 슬픔 품는 날이 되네.



荊萱盡凋謝¹³⁾,
형 윌 진 조 사

자형수紫荊樹며 망우초忘憂草 잎 시들고
꽃 졌으니,

歲月如箭疾。
세 윌 여 전 질

세월은 참으로 쏜살같이 빠르구나.

刮苔鐫大字,
칼 태 전 대 자

이끼를 긁어내고 큰 글자 새기면서,

題作¹⁴⁾風松石。
제 작 풍 송 석

바위를 풍송석風松石이라 이름 붙였네.

應有¹⁵⁾繼來者,
응 유 계 래 자

당연히 이곳을 찾는 후손들 있을지니,

爲余長歎息¹⁶⁾.
위 여 장 탄 식

나의 뜻에 크게 감탄하리라.

- 1) 재사(齋寺): ‘재사(齋寺)’란, 처음에는 능침(陵寢)을 수호하기 위한 곳으로서의 기능을 위해 능(陵) 주변에 세운 원당(願堂: 죽은 사람의 명복을 빌던 법당)을 재사(齋寺)라고 하였음. 조선 후기에 오면서 재사(齋寺)가 재사(齋舍: 서재로도 쓰이고 학사學舍나 향교의 기숙사로도 쓰이던 곳)로 바뀌면서 재사(齋寺)는 능 주변에서 탈피하여 원지(遠地: 전국의 명산대찰名山大刹)에까지 이르렀다.
여기의 재사는 금계재사(金溪齋寺)로 서애의 선친인 풍산부원군(豐山府院君) 류중영(柳仲郢: 1515~1573) 선생의 묘제(墓祭)를 위한 재사(齋舍)로서 몸체인 숭실재(崇室齋)는 영모루(永慕樓)와 부속사로 연이어져 장방형의 ‘ㄷ’자형 집을 이루고 있음. 자세한 것은 「시59」의 주석1)을 참조 바람.
- 2) 계유(癸酉): 「서애년보」에 의하면, 서애의 선친 류중영(柳仲郢: 1515~1573)은 계유년(癸酉年: 1573년, 서애 32세) 7월에 타계하였음.
- 3) 거선고우(居先考憂):
 - ① 거우(居憂): 상제(喪制)로 있는 동안. 상중(喪中)에 있다.
 - ② 선고(先考): 돌아가신 아버지.
『예기(禮記)·곡례(曲禮)·하(下)』에, “생존하고 있으면 부(父)라 하고, 모(母)라고 하며, 처(妻)라고 한다(生日父, 日母, 日妻). 사망하면 고(考)라 하고, 비(妣)라 하며, 빈(嬪)이라 한다(死日考, 日妣, 日嬪)”고 하였다. 그래서 ‘선고(先考)’를 ‘망부(亡父: 돌아가신 아버지)’라고 한 것이다.
- 4) 려(廬): 고대 사람들이 시묘(侍墓)하기 위해서 묘 옆에 지어 놓은 ‘움막’을 가리킨다.
- 5) 기고(奇古):
 - ① 기묘하고 고박(古樸: 예스럽고 절박함)하다.
 - ② 기이하고 예스럽다.

- 6) 취(取): (남의 말을, ~의 풍도風度를) 따르다, 순종하다.
- 7) 반타(盤陀): 반타(盤陀)로도 쓴다.
① 바위가 평평하지 아니한 모양. 울퉁불퉁하다.
- 8) 장(長): 항상, 언제나, 늘.
- 9) 백장(百丈): 극히 높거나, 심히 깊거나, 아주 먼 것을 이르는 말. (장丈은 원래 길이의 단위로, 열 자+尺: 3.03m임)
- 10) 소슬(蕭瑟): 수목(樹木)에 바람이 부는 것을 형용한 소리(썩썩, 휘휘 등).
- 11) 당~시(當~時): 이때의 ‘당(當)’은 개사(介詞)로써, 사건 발생의 시간을 나타냄.
- 12) 원억함애일(遠憶銜哀日): 먼 곳에 선친 그리워 슬픔 품는 날이 되네):
① 원억(遠憶): 먼 곳에 있我有濂溪草는 사람을 그리워함을 이룸. 여기서는 서에의 선친을 가리킨다.
② 함애(銜哀): 마음에 애통함을 품다.
☆함(銜): 마음에 품다.
- 13) 형원진조사(荊萱盡凋謝): 자형수紫荊樹며 망우초忘憂草 잎 시들고 꽃 졌으니):
① 형원(荊萱): 자형(紫荊: 박태기나무)과 망우초(忘憂草).
☆형(荊): 낙엽관목으로, 그 종류가 대단히 많다. 예를 들면, 자형(紫荊: 박태기나무), 모형(牡荊: 갈잎 뽕나무) 등이 있다. 본시에서는 자형(紫荊)으로 번역하였다.
☆원(萱):
a. 원초(萱草): 망우초(忘憂草): 원추리: 의남초(宜南草): 녹총(鹿葱): 백합과의 여러해살이 풀. 잎은 뿌리에서 모여 나고 좁고 길다. 여름에 잎 사이에 서 나온, 1m 정도의 긴 꽃줄기의 끝에 백합 비슷한 등황색 꽃이 핀다. 어린 잎과 꽃은 식용하고 뿌리는 약용한다.
b. 옛날에 어머니는 북당(北堂)에 거처하는데 그 딸에 근심을 잊도록 원추리를 심었다.
- ② 진조사(盡凋謝):
☆진(盡): 모두, 전부.
☆조사(凋謝):
a. (초목의 잎이나 꽃이) 시들어 떨어지다.
b. (노인이) 죽다.
- 14) 제작(題作): 명칭을 ~으로 하다.
- 15) 응유(應有): 형용사로 쓰여, ‘응당 있어야 할, 혹은 상응하는, 합당한, 당연한’ 등의 의미를 지님.
- 16) 장탄식(長歎息): 크게 감탄하다.
① 장탄식(長歎息):
☆장(長): 길게, 크게.
☆탄탄하다. 찬미하다.



시64. 호우

詩64. 大雨¹⁾
대 우

黑雲驅雨²⁾過山前,
흑운구우과산전

먹구름이 소낙비 몰고 와서 산 앞을
지나가며,

銀竹橫斜忽滿川³⁾.
은죽횡사홀만천

은빛 장대비 퍼붓더니 홀연 냇물이
가득 찼네.

霽後天容還一碧⁴⁾,
제후천용환일벽

비 갠 후 하늘빛은 여전히 푸르네,

江南江北草如烟。
강남강북초여연

강 남북에는 푸른 풀이 운무雲霧 만큼
갈렸네.

1) 대우(大雨): 큰비: 호우(豪雨): 강우(強雨).

2) 구우(驅雨): 사선(斜線)

① 비를 몰고 오다.

☆구(驅): 몰아내다, 쫓아내다.

3) 은죽횡사홀만천(銀竹橫斜忽滿川: 은빛 장대비 퍼붓더니 홀연 냇물이 가득 찼네):

① 은죽(銀竹): 은백색 대나무 줄기라는 뜻으로, 대우(大雨: 몹시 퍼붓는 소나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② 횡사(橫斜): 가로 비끼거나 모로 기울어지다는 뜻으로, 본시에서는 소나기가 비스듬히[斜線] 쏟아지는 모양을 형용한 말이다.

4) 제후천용환일벽(霽後天容還一碧: 비 갠 후 하늘빛은 여전히 푸르네):

① 천용(天容): 하늘의 광경(경치·모습·현상). 하늘빛(색).

② 환일벽(還一碧):

☆환(還): 부사로, ‘아직도, 여전히’의 뜻이다.

☆일벽(一碧): 여기서 ‘일(一)’은 ‘온통, 모두, 전부’의 뜻이고, ‘벽(碧)’은 명사로 ‘새파란 색, 혹은 푸른 색’을 뜻함.



시65. 동지^{同知} 권진손^{權震孫}과 권간손^{權艮孫}
형제가 찾아왔는데, 두 사람 모두
백발이 성성하면서도 건강하였다. 나는
그 사람들을 만나보고 느낀 바 있어,
이튿날 시를 지어서 그들에게 주었다

詩65. 權^권同^동知^지震^진孫^손艮^간孫^손兄弟來訪¹⁾ 皆白首無恙²⁾
형제내방 개백수무양
余見之有感 明日以詩寄之
여견지유감 명일이시기지

荊樹花殘³⁾不復春,
형수화잔 불부춘

자형수紫荊樹 꽃 시들었으니 더는 봄이
머물 리 없고,

衰年孤露自傷神⁴⁾。
쇠년고로자상신

노쇠한데 의지할 곳 없으니 절로
마음이 상하는 구려.

世間誰似君兄弟,
세간수사군형제

세상에 누가 그대 형제 같은 사람
있겠소!

白首相隨老一隣⁵⁾。
백수상수노일인

백발에도 서로 의지하며 늘 이웃에
산다니.

1) 권동지진손·간손형제래방(權同知震孫艮孫兄弟來訪) : 동지(同知) 권진손(權震孫)
과 권간손(權艮孫) 형제.

- ① 동지(同知) : 이는 조선시대에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 종이품從二品), 동지사(同知事 : 종이품), 직함이 없는 노인에 대한 경칭(敬稱) 등 3가지 뜻이 있는데, 본지에서는 직함이 없는 노인에 대한 경칭으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
- ② 권진손(權震孫) : 생몰년과 이력 미상. 1589년 『풍산현 향록(豊山縣鄉錄)』에 의하면, 권칭(權稱)과 의성김씨(義城金氏) 9세손 김한동(金漢叢)의 딸 사이에서 난 아들이며, 충순위(忠順衛)를 지냈다고 한다.
- ③ 권간손(權良孫) : 생몰년과 이력 미상. 권진손(權震孫)의 동생. 충순위(忠順衛)를 지낸 것으로 전해진다.

☆충순위(忠順衛) : 조선시대의 중앙군사조직인 오위(五衛)의 하나인 충무위(忠武衛)에 딸렸던 군대를 말하는 것으로, 세조 3년에 개편을 시작하여 문종 때에 완성하였다. 이 충순위는 임금의 이성시마(異性總麻), 즉 임금의 처가나 외가 등 성씨가 다르면서도 존수가 가까워 상사(喪事)때 석 달 동안 상복을 입는 사람과 외육촌(外六寸) 이내의 겨레붙이, 왕비(王妃), 선왕(先王), 선후(先后)의 시마(總麻)와 외오촌(外五寸) 이내의 겨레붙이, 그리고, 문관 6품 이상, 무관 4품 이상으로 이전에 현관(顯官 : 높은 벼슬)을 지낸 사람, 그리고 문무과(文武科)에 출시(出試)했거나 생원(生員), 진사(進士), 유음자제(有蔭子弟 : 선조先祖의 덕으로 음관蔭官을 지낸 자제) 등으로 조직되었다. 성종관(成衆官 : 고려·조선시대에 궁궐의 숙위나 임금의 시종을 맡아보던 벼슬아치)의 하나이다.

- ④ 내방(來訪) : 만나기 위하여 찾아옴.

2) 개백수무양(皆白首無恙) : 두 사람 모두 백발이 성성하면서도 건강하였다 :

- ① 백수(白首) : 백발(白髮)과 같은 말. 연로(年老) 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
- ② 무양(無恙) : 질병이 없음, 근심이 없음. 주로 안부를 물을 때(문안할 때) 쓰는 말이다. 여기서 ‘양(恙)’은 질병, 근심, 우려, 재난, 전설상의 독충 등의 뜻인데, ‘양(恙)’에 대한 원래의 뜻은 『옥편(玉篇)·심부(心部)』에서 “양(恙)은 서충(噬蟲 : 사람을 깨우는 벌레)인데(恙噬蟲), 사람의 가슴을 잘 깨문다(善食人心).”고 하였듯이 ‘사람을 무는 독충’이었다.

『사기(史記)·자객열전(刺客列傳)·섭정전(聶政傳)』에, “그러나 지난 날 섭정이 오욕을 뒤집어쓰고 스스로 시정(市井) 바닥에 몸을 던진 것은, 노모가 건재하지 않고, 나도 아직 시집을 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然政所以蒙汚辱自棄於市販之間者, 爲老母幸無恙, 妾未嫁也)”고 한 구절이 있다. 당나라 학자 사마정(司馬貞 : 생몰년 미상)은 『사기색은(史記索隱)』에서 『역전(易傳) : 『역경(易經)』을 주석한 책』을 인용하여 말하기를, “상고시대, 초야(草野)에서 노숙하였다. 양(恙)은 설충(齧蟲)인데, 이 벌레는 사람의 가슴을 잘 물어서, 사람들은 모두 그 해독을 걱정하였던 까닭에, 서로가 근심스러워 하면서 묻기를 ‘벌레에게 물리지 않았느냐?’(上古之時, 草居露宿. 恙齧蟲也, 善食人心, 俗悉患之, 故相勞云 ‘無恙?’)”고 한 것이다. 태고시대 사람들은 처한 환경이 벌레에게 많이 물릴 수밖에 없었고, 그 독을 많이 입어 모두들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만나면 인사가 ‘벌레에게 물리지 않았느냐(無恙)?’고 하였던 것이다. 후세에 이 말을 전(轉)하여, ‘병이나 근심’ 등의 뜻으로 썼고, 안부를 물으면서 ‘몸에 병이나 벌타이 없습니까(無恙)?’라는 의미로 썼다.

3) 형수화잔불부춘(荊樹花殘不復春 : 자형수紫荊樹 꽃 시들었으니 더는 봄이 머물 리
없고) :

- ① 형수(荊樹) : 자형수(紫荊樹) : 박태기나무. 박태기나무는 줄기에 꽃이 핀 모습이
밤알 붉은 주걱처럼 보인다 하여 밤풀대기나무, 즉 박태기나무가 되었다고 한다.
이는 자형목(紫荊木), 자형(紫荊), 자주(紫珠), 형수(荊樹), 박태나무 등으로 불
린다. 박태기나무는 겨울에 잎이 지는 떨기나무다. 키는 3~5m쯤 되며 밑 부분
에서 줄기가 여러 갈래로 갈라져서 포기를 이룬다. 이른 봄, 잎이 돌아나기 전에
작고 붉은 꽃이 가지마다 수북하게 달린다. 4월 하순경 잎이 나기 전에 오래된
줄기와 가지에서 진한 자주색 꽃이 다닥다닥 붙어서 피는데 하나의 꽃눈에서
7~30개 정도 모여서 핀다. 박태기 나뭇잎은 털이 없고 윤기가 나며 가장자리가
살짝 안으로 말려 있다. 잎 모양은 심장모양처럼 둥그스레하며 잎이 나올 때는
청록색을 띠지만 곧 밝은 녹색으로 변하고 가을에는 노란색으로 변한다. 박태기
나무 열매는 아주 납작한 반면 꼬투리 안에 콩이 들어 있고 콩이 들어 있는 부분
은 울룩불룩 솟아있다. 꼬투리는 8~9월에 갈색으로 익으며 속에는 작은 황록색
의 씨앗이 7~8개 정도 들어있다.

☆형수(荊樹)에 관한 전설

중국 남조(南朝) 시대 송(宋)나라 문인 양오균(梁吳均 : 469~520)의 『속제
기(續齊諧記)·자형수(紫荊樹)』편에 전하기를, 전진(田眞)이란 사람 삼형제가
분가하면서 재산을 나누기로 했는데, 뜰에 심겨진 자형수(紫荊樹 : 박태기나무)
한 그루도 셋이서 나누기로 하고 나가보니, 나무가 홀연히 말라 죽어 있었다.
그래서 전진(田眞)이 동생들에게 말하기를, “나무의 밀동은 한 그루인데, 분배
해서 베어낸다는 소리를 듣고, 시들어 말라버린 것이니, 이는 사람이면서 나무
보다도 못하다(樹本同株, 聞將分斫, 所以憔悴, 是人不如木也)”고 하면서, 비
통함을 견디지 못해 하니, 동생들도 공감하고 재산을 분배하지 않기로 합의하
자, 나무도 다시 활기를 되찾고 무성해졌다고 하였다. 훗날 사람들은 ‘자형(紫
荊)’이란 말을 ‘형제와 관계되는 전고(典故)’로 삼는 뜻으로 썼다.

- ② 화잔(花殘) : 꽃잎이 시들어 떨어지다.
③ 불부춘(不復春) : 더는 봄이 계속되지 않는다.

☆불부(不復) :

- a. 더는 ~ 않다.
b. 다시 ~ 않다.

4) 쇠년고로자상신(衰年孤露自傷神 : 노쇠한데 의지할 곳 없으니 절로 마음이 상하는
구려) :

- ① 쇠년(衰年) : 노쇠한 연세, 늙어서 쇠약해지는 나이.
② 고로(孤露) : 외롭고 비호(庇護) 받을 곳이 없는 사람, 곧 부모 중 어느 한쪽을
여의었거나 양친 모두 여윈 사람을 가리킨다.
③ 상신(傷神) :
☆신경을 쓰다.
☆상심(傷心)하다.
☆슬픔이나 걱정 따위로 속을 썩이다.

5) 백수상수노일린(白首相隨老一隣 : 백발에도 서로 의지하며 늘 이웃에 산다니) :

- ① 상수(相隨) : 상수(相隨)로도 쓴다.
 ☆서로 의존함을 이룸.
- ② 노일인(老一隣) : 늘 한 이웃이다.
 ☆노(老) : 부사로 ‘늘, 항상, 언제나’의 뜻이다.



시66. 안음^{安陰} 수우^{守愚} 김윤명^{金允明}이 내방^{來訪}
하였기에 시를 지어 사의^{謝意}를 표하다

詩66. 金安陰守愚允明¹⁾來訪以詩謝
김 안 음 수 우 윤 명 내 방 이 시 사

其一
기 일

[1]

共作人間²⁾六十翁,
공 작 인 간 육 십 웅

세상 위해 봉직하는 예순 살 노인네,

偷閒³⁾難與少年同。
투 한 난 여 소 년 동

틈내기 어려웠을 텐데 젊은이와 같구려.

知君尙有長歌興⁴⁾,
지 군 상 유 장 가 흥

그대 아직 장가^{長歌}에 흥취 있는 걸로
아는데,

欲對芳樽更一中⁵⁾。
욕 대 방 준 갱 일 중

술잔 마주하고 다시 한 번 취해보고
싶네.

其二
기 이

[2]

離索⁶⁾年來絕往還,
이 색 연 래 절 왕 환

지난 몇 년 헤어져 살며 내왕이 없다가,

見君聊復一開顏⁷⁾。
견 군 료 복 일 개 안

그대 만나니 일시에 얼굴이 활짝

퍼지네 그려.

從今更結尋春約⁸⁾,
종 금 경 결 심 춘 약

지금부터 일정 바꿔 봄놀이나 해보세,

花滿前溪月滿山。
화 만 전 계 월 만 산

앞개울에 꽃이 만발하고 달빛은
온 산에 가득하니.

1) 김안음 수우 윤명(金安陰守愚允明): 안음(安陰) 수우(守愚) 김윤명(金允明): 이렇게 생씨 다음에, 호(號)나 자(字) 또는 호화 자 또는 직함을 먼저 쓰고, 이름을 뒤에 쓰는 것은 경칭(敬稱)의 한 예이다.

① 안음(安陰): 김윤명의(金允明) 호. 그의 호는 이밖에도 정양당(靜養堂), 역낙당(亦樂堂: 「시67」의 주석1)을 참조 바람)이 있음.

② 수우(守愚): 김윤명의 자.

③ 김윤명(金允明: 1541~1604): 조선 중기의 문신, 학자이다. 본관은 금녕(金寧). (자와 호는 위의 주석 ① ②를 참조 바람) 부친은 예조참판 세균(世균)이며, 모친은 진주 강씨(晉州姜氏)로 판서 강이행(姜利行)의 딸이다. 1572년(선조 5) 진사시에 합격하여 성균관에 들어갔으며, 1578년 우정언(右正言), 1580년 청공도 관찰사(淸公道 觀察使: 청공도는 ‘충청도’의 옛 지명임)를 거쳐 그 뒤 전라도 관찰사, 병조참판, 대사간, 대사헌 등을 지낸 뒤, 1582년 호조참판, 의금부도사, 오위도총부 부총관 등이 되었다. 1584년 벼슬을 사직하고 귀향하여 역동서원(易東書院) 등에서 후진 양성에 힘썼다. 성리학에 대하여 깊이 연구하였다. 저서로는 『정양당집(靜養堂集)』 5권이 있다.

2) 공작인간옹(共作人間: 세상 위해 봉사하다):

① 공작(共作): 공(共)은 공(供)과 통용함.

☆봉직(奉職)하다. 본시에서는 후진을 양성하다는 뜻으로 쓰였다. 서애를 방문한 김윤명은 일찍이 1584년에 벼슬을 사직하고 귀향하여, 향리에서 후진 양성을 위해 애썼다. 위의 주석1)을 참조 바람.

② 인간(人間): 인간사회, 사람. 본시의 내용상, 본 김윤명이 가르치는 제자들을 가리킨다.

3) 투한(偷閑): 투한(偷閑)과 같은 말. 틈을 내다.

① 투(偷): 틈(시간을) 내다.

4) 장가흥(長歌興): 쌍관어(雙關語: 한 단어가 두 가지 뜻을 가짐)이다. 표면적으로는 ‘장가(長歌: 곡조가 긴 노래)의 흥취’를 뜻하지만, 이면적으로는 ‘장가옹(長歌翁: 김윤명의 호) 특유의 흥취’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서애주석:

“수우 김윤명은 ‘장가옹’을 자기의 칭호로 하였다(守愚自號長歌翁)”고 하였다.

5) 욕대빙준갱일중(欲對芳樽更一中: 술잔 마주하고 다시 한 번 취해보고 싶네):

① 빙준(芳樽): 방준(芳尊)으로도 쓰고 방준(芳樽)으로도 쓴다.

☆정교한(멋진) 주기(酒器). 전(轉)하여 미주(美酒)를 가리킨다.

② 갱일중(更一中): 다시 한 번 취하도록 마신다는 뜻으로 쓰였음.

☆중(中): ‘중주(中酒: 술에 취하다)’라고 할 때의 ‘중(中)’의 뜻으로 ‘취음(醉吟: 술에 취하다)’의 뜻이다. (‘중독(中毒)’이라고 할 때의 ‘중(中)’은 ‘상해(傷害)를 입다’는 뜻으로, ‘술에 취하다’는 뜻의 ‘중(中)’과는 구별됨)

『삼국지(三國志)·위지(魏志)·서막전(徐邈傳)』에, 당시 금주령이 시행되고 있었으나, 서막(徐邈: 172~249: 조조 수하의 명관(名官))은 사사로이 술을 마시다가 결국 만취함에 이르렀다(時科禁酒, 而邈私飲至於沈醉). 교사(校事: 백관(百官)을 감찰하면서, 조조(曹操)에게 직속되어, 권위가 몹시 높았던 관료 명칭) 조달(趙達: 생물년 미상)이 그의 직무에 관해 묻자, 서막이 답하기를 ‘성인(聖人)에 상당하는 사람입니다’(‘술에 취한 사람입니다’라는 뜻의 은어임)라고 하였다. 조달이 이 말을 태조(太祖: 조조(曹操: 155~220)의 묘호(廟號))에게 아뢰자, 조조는 매우 노하였다(校事趙達問以曹事, 邈曰: 中聖人, 達白之太祖, 太祖甚怒). 요동(遼東)에 건너갔던 장수 선우보(鮮於輔)가 아뢰었다. ‘평소 취객들이 이르기를 청주(淸酒)를 마신 자를 성인(聖人)이라 하고, 탁주(濁酒)를 마신 자를 현인이라고 합니다. 서막(徐邈)의 성품은 수양을 쌓고 신중한 자인데, 어찌다가 취해서 한 말일 따름입니다(度遼將軍鮮於輔進曰: 平日醉客謂酒淸者爲聖人, 濁者爲賢人. 邈性修慎, 偶醉言耳)’고 하였다. 이후 서막은 형벌을 면했고, 전쟁으로 황폐해진 양주(涼州: 지금의 감숙성의 황하(黃河) 지역)를 재건하였다.

6) 이색(離索):

① ‘이군색거(離群索居: 무리를 떠나 홀로 쓸쓸히 살다)’의 약어(略語).

☆색(索): 이산(離散)하다.

7) 견군요부일개안(見君聊復一開顏: 그대 만나니 일시에 얼굴이 활짝 펴지네그러):

① 요부(聊復): ‘잠시, 잠깐, 우산’ 이와 같을 따름이다’는 뜻이며, 자세한 것은 「시 61」 주석14) 요부(聊復) 조항을 참조 바람.

② 개안(開顏): 파안(破顏)과 같은 뜻으로, 얼굴에 매우 즐거운 표정으로 웃는 모습.

8) 종금경결심춘약(從今更結尋春約: 지금부터 일정 바뀐 봄놀이나 해보세):

① 종금(從今): 지금부터, 이진부터.

② 경결(更結): 모임 일정을 변경하다.

③ 심춘약(尋春約): 봄놀이가 약속하다.

☆심춘(尋春): 봄 경치를 감상하다.

시67. 안음^{安陰} 김윤명^{金允明}이 차운^{次韻}한 시를
보내 왔는데, 내가 다시 그 시를
차운하여 부치다

詩67. 安陰次韻¹⁾來 又用其韻寄之
안 음 차 운 래 우 용 기 운 기 지



其一
기 일

[1]

堪笑窮村兩禿翁²⁾,
감 소 궁 촌 양 독 용

실소失笑도 전더내는 궁벽한 촌락의
두 늙은이,

三春行樂與誰同³⁾.
삼 춘 행 락 여 수 동

봄철 석 달의 행락을 뉘와 함께 즐길꼬!

相思斗覺年華晚⁴⁾,
상 사 두 각 년 화 만

그리워하다 홀연 깨달았으나 절후가
이미 늦었나니,

落盡山花夜雨中。
낙 진 산 화 야 우 중

산에 핀 꽃은 다 저버리고 밤비가
내리는 증일세.

倦飛孤鳥自知還⁵⁾,
권 비 고 조 자 지 환

날다 지쳐 외따로 떨어진 새도 전부터
사귀던 새떼한테 돌아오는데,

浮世逢人少好顏⁶⁾.
부 세 봉 인 소 호 안

덧없는 은거처에는 사람 만나도
반가워하는 안색 적었네.

賴有前村亦樂子⁷⁾,
뢰 유 전 촌 역 락 자

다행히 앞마을에 ‘역락자亦樂子’가 살고
있어,

一盃相屬對青山⁸⁾.
일 배 상 속 대 청 산

한 잔의 술 서로 권하며 청산을
바라보네.

1) 안음차운(安陰次韻):

① 안음(安陰): 김윤명(金允明: 1541~1604)의 호

**서애주석:

“안음은 또한 호를 ‘역락당’이라고도 한다(安陰又號亦樂堂)”고 하였다. 이는 본
시의 끝에 서애가 달아놓은 주석이다. 「시66」의 주석1)을 참조 바람.

② 차운(次韻): 화답(和答)하는 시에서 남의 시운(詩韻)에 맞추어 시를 짓는 것을
말한다. 혹은 남이 지은 시의 운자(韻字)를 따서 시를 짓는 것을 말하기도 하며,
보운(步韻)이라고도 한다.

2) 감소궁촌양독옹(堪笑窮村兩禿翁: 실소失笑도 견뎌내는 궁벽한 촌락의 두 늙은
이):

① 감소(堪笑):

☆감(堪): 참다, 견디다.

☆소(笑): 실소(失笑)하다, 가소(可笑)롭다.

② 궁촌(窮村):

☆가난하여 살기 어려운 마을.

☆외따로 떨어진 구석진 마을.

③ 독옹(禿翁): 연로(年老)해지고 관직도 세력도 없는 사람의 신세를 낮추어 이르
는 말. 자조(自嘲)하면서 쓰는 말이기도 하다.

3) 삼춘행락여수동(三春行樂與誰同: 봄철 석 달의 행락을 누와 함께 즐길꼬):

① 삼춘(三春):

☆춘계(春季) 3개월을 이름. 즉, 음력 정월을 맹춘(孟春: 초봄)이라 하고, 2월을

중춘(仲春 : 봄이 한 창인 때)이라고 하며, 3월을 계춘(季春 : 늦봄)이라고 함.

☆춘계(春季)의 세 번째 달(음력 3월)로, 모춘(暮春 : 늦봄)을 가리킨다.

② 행락(行樂) : 재미있게 놀고 즐겁게 자냄.

4) 상사두각연화만(相思斗覺年華晚 : 그리워하다 홀연 깨달았으나 절후가 이미 늦었나니.) :

① 두각(斗覺) : 갑자기(돌연히) 깨닫다(느끼다, 자각하다).

☆두(斗) : 갑자기, 뜻밖에, 두연(斗然), 돌연(突然)의 뜻이다.

② 연화만(年華晚) : 시절이 너무 늦다. 춘광이 막바지에 이른다.

☆연화(年華) :

a. 춘광(春光 : 봄철의 경치, 봄철의 풍경)을 이룸.

b. 세월, 시절, 시간, 시기.

☆만(晚) : (시각이) 늦다. 때 늦다.

5) 권비고조자지환(倦飛孤鳥自知還 : 날다 지쳐 외파로 떨어진 새도 전부터 사귀던 새때한테 돌아오는데)

① 권비고조(倦飛孤鳥) : 날다가 지쳐서 외파로 떨어진 새 .

☆권비(倦飛) : 날다가 지치다.

☆고조(孤鳥) : 외파로 떨어진 새.

② 자지환(自知還) : 전부터 사귀던 새때한테 돌아오다.

☆자지(自知) : 전부터 사귀다.

a. 자(自) : 전부터, 원래부터.

b. 지(知) : 사귀다, 교류하다, 친하다, 서로 알다.

『좌전(左傳) · 소공4년(昭公四年)』 조항에, “제(齊)나라에 있을 때, 공손명(公孫明 : 생몰년 미상)과 화숙(和叔), 손표(孫豹 : 叔孫豹 : ?~538 : 노魯나라 대부는 지기(知己)였다(公孫明知叔孫於齊).”고 한 구절이 있는데, 서진(西晉)의 무장(武將) 두예(杜預 : 222~284)는 그의 『좌전집해(左傳集解)』에서, 이 문장을 주석하기를, “공손명은 제나라 대부 자명(子明)을 말하는데(公孫明, 齊大夫子明也), 숙손과 서로 친하게 지내며 아는 사이였다(與叔孫相親知).”고 하였다.

☆환(還) : (새때한테) 돌아오다.

6) 부세봉인소호인(浮世逢人少好顔 : 덧없는 은거처에는 사람 만나도 반가워하는 안색 적었네) :

① 부세봉인(浮世逢人) :

☆부세(浮世) :

a. 덧없는 세상, 인간세상, 인간 등의 뜻을 가졌으나, 본 시에서는 덧없는 은거처를 가리키는 것으로 번역하였음.

☆봉인(逢人) : 사람을 만난다.

② 호인(好顔) : 호경(好臉)과 같은 말. ‘화기에애(和氣靄靄 : 온화하고 화목함)한 안색, 상냥스럽게 웃는 얼굴, 반가운 빛을 띤 얼굴’을 가리킨다.

7) 뢰유전촌역락자(賴有前村亦樂子 : 다행히 앞마을에 ‘역락자亦樂子’가 살고 있어) :

① 뢰(賴) : 운 좋게, 다행히, 요행으로.

② 역락자(亦樂子): 이는 ‘역락당(亦樂堂)’ 김윤명(金允明)을 가리킨다. 주석1)을
참조 바람.

8) 상촉(相屬): 서로 권하다.



시68. 묘아¹⁾卯兒가 『사략²⁾史略』을 읽는 것을
누워서 듣고 있다가, 원고³⁾韓固가
공손홍⁴⁾公孫弘의 곡학아세⁵⁾曲學阿世를
충고하는 대목에서 느낀 바가 있어
우연히 한 수 짓다

詩68. 臥聽卯兒¹⁾讀『史略』²⁾ 韓固³⁾譏公孫弘⁴⁾曲學阿世⁵⁾
와 청묘아 독 사략 원 고 기 공 손 홍 곡 학 아 세
有感偶題⁶⁾
유 감 우 제

韓生九十尙精神⁵⁾, 원고³⁾韓固 선생은 나이 아흔에도 유학⁶⁾儒學
정신 중시하여,
원 생 구 십 상 정 신

曲學深排仄目臣⁶⁾。(도가에) 결눈질하는 관료 공손홍⁴⁾公孫弘을
크게 꾸짖었네
곡 학 심 배 측 목 신

名利前頭多陷溺⁷⁾, 명리 앞세우면 대체로 곤경에 빠지나니,
명 리 전 두 다 함 닻

世間還有美新人⁸⁾。세간에는 그래도 신흥조[⁹⁾儒學]를
찬미하는 자가 있거늘!
세 간 환 유 미 신 인

1) 묘아(卯兒) : 묘년(卯年), 즉 신묘년(辛卯年 : 1591)에 태어난 아이를 애칭으로 부른 말. 본시에서는 서에 류성룡(柳成龍 : 1542~1607)의 일곱째 아들 첨(檐)을 가리킨다.

① 류첨(柳檐 : 1591~1650) : 초(初)의 동생으로 호는 겸근재(謙謹齋)이다. 종사랑

(從仕郎: 조선시대 문음관文蔭官의 정9품正九品벼슬)을 역임하였다. 2남을 두었으며, 류습지(柳習之), 류휘지(柳徽之)이다. 묘지는 지금의 안동시(安東市) 풍산면(豐山面) 학가산(鶴駕山) 서쪽의 죽전동(竹田洞)의 남동쪽에 위치하고, 경성북도 문경(慶興) 호계면(虎溪面) 경현사(景賢祠)에 배향(配享)되었다.

2) 『사략(史略)』: 『십팔사략(十八史略)』의 약칭.

① 『십팔사략(十八史略)』: 중국 남송(南宋) 말에서 원 초에 걸쳐 활약했던 증선지(曾先之: 생물년미상)가 편찬한 중국의 역사서. 원명은 『고금역대 십팔사략(古今歷代十八史略)』이다. 『사기(史記)』와 『한서(漢書)』에서 시작하여, 『신오대사(新五代史)』에 이르는 17종의 정사(正史), 송대(宋代)의 『속송편년자치통감(續宋編年資治通鑑)』 등 사료(史料)를 첨가한 십팔사(十八史)의 자료 중에서, 태고 때부터 송말까지의 사실(史實)을 발서(拔書)하여 초학자를 위한 초보적인 역사교과서로 편찬하였다. 원서(原書)는 2권이었으나 명(明)나라 초기에 진은(陳殷: 생물년 미상)이 음과 해석을 달아서 7권으로 하고, 유염(劉堧: 생물년 미상)이 보주(補注)를 가하여 간행에 놓은 것이 현행본이다. 사실(史實)의 취사선택이 부정확하였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평판이 별로 좋지 않았고, 사료적 가치가 없는 통속본이지만, 중국왕조흥망의 대체를 알 수 있고, 많은 인물의 약전(略傳)·고사(故事)·금언(金言) 등이 포함되어 매우 흥미 있는 책이다.

3) 원고기공손홍곡학아세(韞固譏公孫弘曲學阿世: 원고韞固가 공손홍公孫弘의 곡학아세曲學阿世를 충고하다):

① 원고(韞固: 생물년도 미상): 원고생(韞固生)이라고도 한다. 성은 원(韞), 이름은 고(固), 생(生)은 존칭이다. 서한(西漢)의 제(齊) 땅, 곧 전국시대 제(齊)나라 땅(지금의 산둥성 이북 황하 유역과 산둥반도 지역) 출신이다. 한 초(漢初)에 금문(今文)으로 된 『시경(詩經)』을 전한 사람으로 후세에서는 그가 전한 『시경(詩經)』을 제시(齊詩)라고 칭한다. 그를 제시학(齊詩學)의 창시자라고 한다.

한 초(漢初)에 표면적인 행정으로는 황로술(黃老術: 도가道家의 시조인 황제皇帝와 노자老子的 사상을 이어받아 실현하려는 청정무위淸靜無爲의 처세술)이 건지되었다. 즉, 천도(天道)는 자연(自然)에서 나오는 까닭에, 마음을 청정(淸靜)하게 하고 자연에 순응하면서, 인위적 강제력을 최소화하여 통치하려는 방법이 유지되었다. 그러나 이 정책은 표면적인 것이었고, 실제로는 유가사상(儒家思想)이 대두(抬頭)되고 있었다. 고조(高祖: 유방<劉邦: BC256 혹은 BC 247~BC 195>) 시대에 숙손통(叔孫通: 생물년 미상)과 문제(文帝: 유항<劉恒: BC 202~BC 157>) 시대에 가의(賈誼: BC 200~BC 168)가 중용된 것도 모두 유생(儒生)이었다. 또 한 문제(文帝)와 경제(景帝: 유계<劉啓: BC188~BC141>) 시대에는 이미 『서경(書經)』 『시경(詩經)』 『춘추(春秋)』 등 3가(三家)의 박사(博士)가 나왔다.

이 3가(三家) 중에 『시경(詩經)』 박사로 노(魯) 땅(전국시대 노나라 지역) 출신인 신배공(申培公: 성은 신申, 이름은 배培, 공公은 존칭임. 『시경(詩經)』에 대한 학파인 노시학魯詩學의 창시자임)과 제(齊) 땅 출신인 원고(韞固) 그리고 연(燕) 출신 한영(韓嬰: 성은 한韓, 이름은 영嬰, 『시경(詩經)』에 대한 학파인 한시학韓詩學의 창시자임) 등 세 사람의 『시경(詩經)』을 세칭 ‘삼가지시(三家之詩)’라고 하였다.

『사기(史記)·유림열전(儒林列傳)·원전(韞傳)』에, “두태후(竇太后)는 서책(書冊) 『노자(老子)』를 좋아하여, 원고생을 불러 『노자(老子)』 책에 대하여 질문

을 하였다(竇太后好『老子』書, 召轅固生問『老子』書). 원고생이 대답하기를: ‘이것은 평민(가인家人: 하인)의 언론일 따름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태후가 노하여 말하기를: ‘어찌 옥리(獄吏: 사공司空: 감옥에서 죄수를 감시하던 벼슬아치)가 지닌 형서(刑書: 형벌 규정을 적어 놓은 책: 성단서城旦書)만 못하다 하는가?’ 라고 하면서, 마침내 원고생으로 하여금 돼지우리에 들어가 돼지를 찢러 죽이게 하였다. 경제(景帝)는 태후의 화풀이와 원고생의 직언이 (모두) 무죄임을 알고, 원고생에게 예리한 병장기를 건네주어, 돼지우리에 들어가 돼지를 찢르게 하였는데, 그는 정확하게 돼지의 심장을 겨누고, 단번에 찢러, 뜻대로 돼지를 넘어뜨렸다. 태후는 아무 말도 못하고, 다시 죄를 물을 수 없게 되자, 그만두었다(固曰: ‘此是家人言耳’. 太后怒曰: ‘安得司空城旦書乎?’ 乃使固人圈擊豕. 景帝知太后怒而固直言無罪, 乃假固利兵, 下圈刺豕, 正中其心, 一刺, 豕應手而倒. 太后默然, 無以復罪, 罷之). 얼마 안 되어, 경제(景帝)는 원고생을 청렴하고 정직하다고 여겨, 청하왕(清河王: 경제景帝의 아들 유승劉乘을 말함)의 태부(太傅: 제후, 즉 왕을 보좌하는 측근 신하)로 임명하였다. 그리고 한참 지나서, 그는 병으로 사직하였다(居頃社, 景帝以固廉直, 拜爲清河王太傅. 久之, 病免).

무제(武帝)가 갓 즉위하면서, 다시 현량(賢良: 고대에 인재를 선발하던 과목중의 하나로서, 현량문학賢良文學의 약칭임. 각종 사안에 서면으로 대책을 수립하거나 자문에 응하였음)으로 원고생을 불러들였다. 여러 아첨꾼 유생(儒生)들이 원고생을 미워하여 헐뜯으면서, 말하기를: ‘원고생은 늙었습니다’고 하여, 그를 돌려보내고 말았다. (今上初即位, 復以賢良徵固. 諸諂儒多疾毀固, 曰: ‘固老’ 罷歸之). 그 때 원고생은 이미 90여 세였다. 원고생이 초빙될 때에, 설읍(薛邑: 지금의 산둥성 등주시滕州市 남쪽에 있었음) 사람 공손홍(公孫弘)도 초빙되었는데, 그는 결눈질로 힐끔힐끔 원고생을 쳐다보았다(時固已九十餘矣. 固之徵也, 薛人公孫弘亦徵, 側目而視固). 이에 원고생이 말하기를: ‘공손선생, 정도(正道)의 학설(유학儒學을 가리킴)로 말하도록 힘써야지, 왜곡된 학설(도가道家的 학설을 가리킴)로 세속(世俗)에 영합하지 마시오(固曰: 公孫子, 務正學以言, 無曲學以阿世)!’라고 하였다.

- ② 기(讖): 간(諫)하다. 전(轉)하여 충고하다,
- ③ 공손홍(公孫弘: BC 200~BC 121): 서한(西漢) 치천국(菑川國) 설읍(薛邑), 지금의 산둥성 등주시(滕州市) 남쪽 출신이다. 자는 계(季), 또 하나의 자는 차경(次卿)이다. 청년시절 옥리(獄吏)를 지냈으며, 죄를 지었으나 면죄되었다. 집이 가난하여 바닷가에서 양돈(養豚: 돼지치기)을 하였다. 40여세가 되어서 『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 제齊나라의 공양고公羊高가 쓴 『춘추(春秋)』의 주석서. 『춘추』를 역사 철학적 관점에서 해석하였으며, 『좌씨전(左氏傳)』·『곡량전(穀梁傳)』과 더불어 ‘춘추삼전(春秋三傳)’이라고 함)』을 공부하기 시작하였다. 무제(武帝: 유철劉徹: BC 156~BC 87) 초엽에 현량(賢良)으로 초빙되어 박사가 되었으나, 흉노(匈奴)가, 무제의 의향(意向)에 부합되지 않는 쪽으로 움직이도록 대책을 제시하였다 하여, 면직되어 귀향하였다.

원광 5년(元光五年: BC 130), 다시 현량(賢良)으로 초빙되어 대책을 제시함이 가장 탁월하다고 발탁되어 박사에 임명되었다. 그 후 내사(內史: 왕명 출납을 관장하고, 왕의 자문에 응하며, 왕이 파견하는 사자使者가 되어 나가기도 했음)를 수년 지내

다가 어사대부(御史大夫: 승상 다음의 직위로서 천하의 정무政務를 처리하고, 법 집행을 관장하는 최고 감찰관이었음)로 승진하였다.

그는 조정에서 직간(直諫)하고 이치를 따져 논쟁하려고 하지 않고, 정무(政務)를 논함에 늘 무제(武帝)의 의향에 순종하였으며, 문자화된 법조문을 숙지하여 관리들을 다스리는 한편, 언행을 유술(儒術)로 장식하여 무제의 신임을 얻었다. 원삭 5년(元朔五年: BC 124)에 승상으로 발탁되어 평진후(平津侯)에 봉해졌다. 한대(漢代)에 평민으로서 승상에 봉직된 것은 공손홍이 처음이었다. 그는 평소 근검 절약했으며 축재(蓄財)하지 않았다. 성격은 외관내기(外寬內忌: 표면적으로는 도량이 넓어 보이나 내심으로는 질투심이 강하고 야박함)하였으며, 감정적으로 사이가 벌어진 자에게 겉으로는 잘 대해주는 척하면서 암암리에 보복하였다. 나이 80세에 승상 직에서 물러났다.

- ④ 곡학아세(曲學阿世): 본 시제에서의 곡학(曲學: 왜곡된 학설)은 ‘도가(道家)의 학설’을 가리킨다. 자세한 것은 위의 주석3)의 ①의 하단부를 참조 바람.
 ☆곡학(曲學): (자기의) 학술을 왜곡(歪曲)하다.
 ☆아세(阿世): 세속(世俗)에 영합(迎合)하다.
- 4) 우제(偶題): 우연히 (시를) 쓰다(작다). 옛 시제(詩題)에 자주 보인다.
- 5) 원생구십상정신(輟生九十尙精神: 원고輟固 선생은 나이 아흔에도 유학儒學정신 중시하여):
 - ① 원생(輟生): ‘원고(輟固) 선생’의 뜻이다. 이 때 ‘생(生)’은 존칭이다. 위의 주석 3)의 ①을 참조 바람.
- 6) 곡학심배촉목신(曲學深排仄目臣: (도가에) 결눈질하는 관료 공손홍公孫弘을 크게 꾸짖었네): 이는 무제(武帝)가 즉위하면서, 인재선발의 일종인 현량(賢良)을 실시했을 때, 아흔이 된 원고생(輟固生)이 초빙되었다. 이때, 주위의 아첨꾼[儒生]들에 의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발탁되지 못하였다. 그때, 공손홍(公孫弘)도 이에 초빙되었는데, 원고생은 결눈질로 자신을 힐끔거리는 공손홍에게 “곡학아세(曲學阿世)”하지 말할 것을 당부하였다. 앞의 주석3)의 ①의 하단부를 참조 바람.
 - ① 심배(深排): 호되게 질책하다. 꾸짖다.
 - ② 촉목신(仄目臣):
 - ☆촉목(仄目): 결눈질(얼굴을 돌리지 않고 눈알만 옆으로 굴러서 보는 눈짓)하다. 두려워서 삼가고 조심하거나 미워하는 것을 표시할 때 많이 쓰는 말.
 - ☆신(臣): 군주제(君主制) 시대의 관리(官吏). 여기서는 공손홍(公孫弘)을 가리킴.
- 7) 명리전두다함닉(名利前頭多陷溺:名利 앞세우면 대체로 곤경에 빠지나니):
 - ① 명리(名利): 명예와 이익.
 - ② 전두(前頭):
 - ☆전(前): 전면(前面), 앞, 먼저.
 - ☆두(頭): 방위를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방위사(方位詞)를 만들.
 - ③ 함닉(陷溺): 사람을 도탄(塗炭: 진구렁에 빠지고 숯불에 타는 뜻으로, 몹시 곤궁하여 고통스러운 지경을 이룸)에 빠지게 하여 해를 입히는 것을 이룸. 함정에 빠뜨리다 (어려운 지경에 놓이게 하다).
- 8) 미신인(美新人): 신펡조 즉 유학을 찬미하는 사람, 혹은 새로운 도덕관(유학)을 지닌 사람을 찬미하다.

본시에서는 한 초(漢初)에 풍미하던 황로사상, 즉 도가사상에서 새롭게 대두된 유가 사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시69. 재사齋舍에 머무는데 강변에 매화와
복사꽃이 다 지는 소리가 들려서,
낭천현감狼川縣監인 조카에게 지어 부치다

詩69. 寓齋寺 聞江上梅桃盡落 寄狼川姪¹⁾
우재사 문강상매도진낙 기낭천질

每到花時不見花,
매도화시불견화

꽃 피는 시절마다 꽃 피는 걸 못
봤으니,

今年病似去年多。
금년병사거년다

올해도 병치레 작년보다 잦았던 듯하다.

梅花落盡桃花晚,
매화낙진도화만

매화지고 나서 복사꽃은 나중에 피는데,

風雨無情送歲華²⁾。
풍우무정송세화

비바람은 무정하게도 봄 풍경을
내쫓는구나.

1) 우재사 문강상매도진락 기낭천질(寓齋舍, 聞江上梅桃盡落, 寄狼川姪):

**서애주석:

“지난 해 봄에, 역시 병으로 강변의 서재(書齋: 옥연정사玉淵精舍로 보임)에 나가지 못했다(前年春, 亦以病不出江齋)”고 하였다.

① 재사(齋寺): 「시59」의 주석1)을 참조 바람.

② 기낭천질(寄狼川姪): 낭천현감(狼川縣監)인 조카 류기(柳倚)에게 부치다.

☆낭천(狼川): 강원도 중서부에 위치한 화천군(華川郡) 화천읍(華川邑)의 옛 지명. 지금의 군청 소재지이며 면적은 273km². 본시에서는 ‘낭천현감(狼川縣監)’의 뜻으로 쓰였다.

☆질(姪) : 조카 류기(柳綺)를 가리킨다.

a. 류기(柳綺 : 1561~1613) :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의 백씨(伯氏) 류운용(柳雲龍 : 1539~1601)의 차남이다. 자는 여장(汝章). 호는 부휴산인(浮休散人)이다.

음보(蔭補 : 조상의 덕으로 벼슬을 얻음)로 익위사(翊衛司 :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 : 왕세자의 시위侍衛를 맡아보던 관아)의 주부(主簿 : 정6품의 낭관郎官))로 있다가 광국호성 원종공신(光國扈聖原從功臣 : 퇴직 후 공신 직함의 하나)에 채용되어 승의랑(承議郎 : 조선 시대 문관 <동반東班>의 벼슬 등급의 하나로, 초기에는 정6품의 문관에게만 주었으나 말기에는 종친이나 의빈(儀賓 : 왕족이 아니면서 왕족과 통혼한 사람)도 이 관계官階를 사용했음)으로 낭천현감(狼川縣監)을 역임하였다.

(서애 류성룡이 쓴 『서(書)』에, 낭천현감인 조카 기(綺) 등 몇 장의 문답 서신이 보임)

2) 송세화(送歲華) :

① 송(送) : 송별하다, 쫓아낸다.

② 세화(歲華) : 춘광(春光 : 봄 경치, 봄 풍경)을 이름.



시70. 비 갠 후에 달빛이 무척 밝아 읊은 시 두 수

詩70. 雨霽¹⁾後 月色甚明 二首
우 제 후 월 색 심 명 이 수

其一
기 일

[1]

臥聞松風長,
와 문 송 풍 장

누워서 들으니 솔바람이 계속 불 길래,

起看山月出。
기 간 산 월 출

일어나 바라보니 산위에 달이 뜨네.

風清可人耳²⁾,
풍 청 가 인 이

바람소리 상쾌하니 귓가에 듣기 좋고

月白宜人目³⁾。
월 백 의 인 목

달빛이 밝으니 관망하기 적절하네.

但得清明象⁴⁾,
단 득 청 명 상

침명한 달빛 모습 볼 수는 있지만,

莫着⁵⁾清明跡。
막 착 청 명 적

침명한 달빛 자취 지닐 수는 없다네.

物我相忘處⁶⁾,
물 아 상 망 처

(그러나) 물아物我를 다 함께 잊는 순간,

中涵一太極⁷⁾。
중 함 일 태 극

마음속에 하나의 태극太極[道]이
스며드네.

其二
기 이

[2]

我讀古人書,
아 독 고 인 서

나도 옛사람의 글을 읽고 나면,

欲見⁸⁾古人心。
욕 견 고 인 심

옛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다네.

古人隔千載,⁹⁾
고 인 격 천 제

옛사람과는 천년 세월의 간격이 있으니,

杳然¹⁰⁾不可尋。
묘 연 불 가 심

그 마음 묘연하여 헤아리기 힘이 드네.

時世¹¹⁾有前後,
시 세 유 전 후

세상의 시간에는 과거와 미래가 있으나,

此物¹²⁾無古今。
차 물 무 고 금

이 달빛에는 고금¹²⁾이 따로 없네.

由來眞面目¹³⁾,
유 래 진 면 목

본래부터 사물의 내력에는 실상¹³⁾實相이 있나니,

都不在高深。
도 부 채 고 심

다 수준 높고 정도 깊은데 있는 것은 아니라네.

1) 제(霽): 바나 눈이 그치다. 구름이나 안개가 걷히다.

2) 풍청가인이(風淸可人耳: 바람소리 상쾌하니 귓가에 듣기 좋고):

① 풍청(風淸): 바람이 상쾌하고 선선하다(부드럽다, 유연하다, 시원하다).

☆풍(風): 풍성(風聲), 곧 바람소리이다.

② 가인이(可人耳): 귓가에 듣기 좋다. 사람의 귓전에 감미롭다.

☆가(可): ~하기에 좋다, 적합하다.

☆인이(人耳): 인이(人耳)는 '사람의 귀'라는 명사형이나, 앞에 '가(可)'와 어울리면서 명사 서술어로 전환되었음. 고로 '사람들의 귀에 감미롭다' 혹은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다(적합하다)'로 번역된다.

3) 월백의인목(月白宜人目: 달빛이 밝으니 관망하기 적절하네):

① 월백(月白): 월색(月色: 달빛)이 밝고 맑다.

② 의인목(宜人目): 관망(觀望)하기 적절하다. 위의 '가인이(可人耳)'와 동일어법구조를 띄운다.

☆의(宜): 적절(적당, 적합)하다. 여기서의 ‘宜’는 위의 ‘가인이(可人耳)’에서의 ‘가(可)’의 용도와 동일하다.

☆인목(人目): 사람의 눈. 사람이 관망하다. 이때의 ‘목(目)’은 ‘보다, 관찰하다, 주시하다’의 뜻이다.

4) 단득청명상(但得清明象: 청명한 달빛 모습 볼 수는 있지만):

① 득(得): 보다, 보이다.

② 상(象): 형상, 모양, 형태, 모습, 현상.

5) 착(着): ① 지니고 있다. ② 접촉하다.

6) 물아상망처(物我相忘處: 물아物我를 다 함께 잊어버리는 순간에): 본 시구는 시적 화자인 서애(西厓)가 명상(혹은 선禪)을 통해서, 물아를 동시에 잊는 이른바 자연물과 자아가 하나가 되는 물아일체(物我一體)의 시적경계(詩的境界)를 읊은 것이다.

① 물아(物我): 외물(外物)과 자아(自我)를 칭하는 말.

② 상망처(相忘處): 동시에 잊어버릴 때.

☆상(相): 부사로 쓰여, ‘함께, 동시에’ 등의 의미를 나타냄.

☆망(忘): 있다.

☆처(處): 동사 뒤에 쓰여서, ‘~할 때라는 뜻을 나타냄.

7) 중함일태극(中涵一太極: 마음속에는 하나의 태극이 스며드네):

본 시구는 바로 위의 시구의 “물아를 다 함께 잊어버리는 순간(物我相忘處)”에 포착된 시적경계를 읊은 것으로, 시적화자인 서애 자신이 바로 ‘하나의 태극’ 속으로 몰입된 경계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① 중(中): 마음 속.

② 일태극(一太極): 여기서 ‘하나의 태극’이란 중국고대철학자들이 상용하는 용어이다. 먼저 ‘하나’라는 ‘일(一)’의 개념을 보면, 다름 아닌 만물이 변화·생성하는 원인인 ‘도(道)’를 지칭한 것이다. 『노자(老子)·42장』에 보면, “만물이 화생(化生: 변화, 생성함)하는 원인인 도(道)는 하나의 원리[혼돈의 기(氣)]를 낳는다(道生一)”고 하여, ‘일(一)’이라는 숫자가 바로 ‘도’ 혹은 ‘태극’을 상징하는 상수(象數)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도, 혹은 태극의 이해는 송대(宋代)로 오면, 송대의 이학가(理學家)들에 의해 곧 ‘이(理)’라고 하는 보다 구체적인 이론으로 적립이 된다. 『주자어류(朱子語類)』 권75에서, “태극은 단지 하나의 천지 개벽초에 우주만물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의 도리(道理)로서, 그 속에는 음양(陰陽: 음기와 양기)·강유(剛柔: 강함과 유연함)·기우(奇耦: 홀수[陽數]와 짝수[陰數]) 등을 포함하여 없는 게 없다(太極只是一箇渾沌底道理, 里面包含陰陽‘剛柔’奇耦, 无所不有).”고 하였다.

이상의 자료에 의하면, ‘일(一)’이나 ‘태극(太極)’은 모두 음양의 이기(二氣)가 생성되기 이전의 본체로서, 가장 원시적인 혼돈의 기(氣)이다. 고로 이 ‘기(氣)’는 물아(物我)의 구분이 없는 하나의 원인인 관계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곧 ‘도(道)’이기도 하고, ‘태극(太極)’이기도 한 것이다. 고로, 시적화자인 서애는 ‘물아(物我)’라는 양자(兩者)의 현상에서 나타나는 각종 상대적 가치를 떠날 때만이 태극의 품안으로 귀의하여 불상쟁(不相爭)의 평화를 획득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자세한 것은 「시15」의 주석29)의 ① 단경(丹經) 조항과 「시44」 주석2)의 ② 주자학(朱子學)의 태극설(太極說) 조항을 참조 바람.

- 8) 욕견(欲見) :
 ① 알고 싶다.
 ☆견(見) : 관찰하다, 알다, 이해하다.
- 9) 격천재(隔千載) : 천년이란 세월의 간격이 있다.
 ① 격(隔) :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사이를 두다. 간격(거리)를 두다. 막다(막하다), 사이에 두다.
 ② 천재(天載) : 천년, 세월이 장구(長久)함을 형용한 말.
- 10) 묘연(杳然) : 까마득히 오래 되어 아득하고 요원한 모양. 오래되어 기억이 흐리다(까마득하다).
- 11) 시세(時世) : 시대(時代).
- 12) 치물(此物) : 이 사물. 본시에서는 달빛을 가리킨다.
- 13) 유래진면목(由來眞面目) : 본래부터 사물의 내력에는 실상實相이 있나니 :
 ① 유래(由來) :
 ☆원래부터, 본디, 처음부터.
 ☆예로부터, 여태까지, 역대로.
- ② 진면목(眞面目) :
 ☆본래의 면모(面貌) : 상태, 양상, 상황, 용모). ‘실상(實相), 진상(眞相)’과 같은 말이다.
 ☆본디부터 지니고 있는 그대로의 상태.



시71. 여름에 중대사中臺寺에 머물면서

詩71. 夏日寓中臺寺¹⁾
하 일 우 중 대 사

寺倚千尋壁²⁾,
사 의 천 심 벽

사찰이 천길 절벽 중턱에 위치하여,

窓迎萬里風³⁾。
창 영 만 리 풍

창안으로 만 리 밖의 바람이 불어오네.

川原看浩渺⁴⁾,
천 원 간 호 묘

강과 들판 바라보니 드넓어 아득하고,

碧樹俯玲瓏⁵⁾。
벽 수 부 영 룡

푸른 수목 굽어보니 맑고도 깨끗하네.

大暑何曾逼⁶⁾,
대 서 하 증逼迫

무더위가 어찌나 사람을 핍박하는지!

仙區若可通⁷⁾。
선 구 약 가 통

신선 사는 곳에 오니 숨통이 트여지는
것 같으네.

便堪逃火宅⁸⁾,
편 감 도 화택

흠사 불타는 듯한 집에서 피하고 보니,

憂思暫時空⁹⁾。
우 사 잠 시 공

근심걱정 잠시라도 사라지는구나.

1) 하일우중대사(夏日寓中臺寺 : 여름에 중대사에서 臺寺에 머물면서) :

① 우(寓) : 거주하다, 머물다, 살다.

② 중대사(中臺寺) : 지금의 경북 안동시 풍산읍(豐山邑) 서미동(西美洞) 남쪽 오적산(五赤山) 기슭에 위치했던 옛 사찰의 명칭이다. 현재, 절은 없어지고 절터[寺址]만 남아 있다. 『영가지(永嘉誌)권6·불우(佛宇)』편에 의하면, “중대사는 풍산현 북쪽 15리 되는 곳의 오적산 남쪽에 위치하는데(在豐山縣 北十五里五赤山南), 옛날에는 상대사·중대사·하대사 등 삼대사가 있었으나(古有上, 中, 下三臺), 지금은 단지 중대사만 남아있다(今只有中臺寺).”고 하였다.

『영가지(永嘉誌)권2·산천(山川)』편에 보면, “오적산은 풍산현 북쪽 17리 되는 곳에 있는 서미동의 서북쪽에 위치한다(在豐山縣北十七里西美洞之西北).”고 하였다.

☆『영가지(永嘉誌)』 : 이 지방지는 누차 향시(鄉試)에 합격한 향도의 선비 용만(龍巒) 권기(權紀 : 1546~1624년)가 안동지방의 역사와 문화를 기록하여 엮은 ‘안동의 향토지’이다. 저자 권기는 당시의 학자인 송암(松巖) 권호문(權好文 : 1532~1587년)의 문인이며, 재상인 서애 류성룡(柳成龍 : 1542~1607년)에게 사사(師事)했다. 이 책의 서문에서도 밝혔듯이, 권기는 서애의 권고로 이 지방지를 집필하였다.

이 책의 주요목록은 연혁, 진관(鎭管), 관원(官員), 풍속, 호구(戶口), 산천토산품, 관우(館宇), 성곽, 누정(樓亭), 향교, 서당, 군기(軍器), 진도(津渡), 지당(池塘), 서원, 교량, 고적(古跡), 불우(佛宇), 성씨(姓氏), 인물, 효자, 열부(烈婦) 등 안동지방의 유래와 내력을 자세히 수록하고 있어 지방사료로서의 가치가 높은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역자가 이 『영가지』를 접하기 전에는 ‘중대사(中臺寺)’를 지금의 경북 봉화군(奉化郡) 봉성면(鳳城面) 우곡리(鰲谷里)의 문수산(文殊山) 중대골[中臺谷]에 위치했던 ‘중대사’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였고, 본 시에 쓰인 중대사는 ‘서미동(西美洞)’의 중대사를 가리킨다. 그 근거로는 첫째, 『서애연보(西厓年譜)』에 의하면, 만력33년(萬曆三十三年 : 1605년 : 서애64세) 조항을 보면, “9월에 서미동으로 이사를 했다(九月移寓西美洞).”고 하였다. 이사한 이유는 당시 하회동에 홍수가 났을 뿐 아니라 방문객이 많아 요양하기가 불편했으므로 학가산(鶴駕山) 아래 위치한 산속 마을로 이사했던 것이다. 병치레가 잦은 연세 높은 노인이 마을 앞 남산 중턱에 피서를 가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이다. 둘째, 『서애전서(西厓全書)권2·속집(續集)·서(書)·기답아배(寄答我輩)』에서 말하기를, “처음에는 군위현(軍威縣 : 지금의 경상북도 군위군)으로 가려고 했으나, 이곳 역시 아주 흡족한 곳이 아니라서, 이제는 학가산 기슭에 위치한 중대사가 있는 곳이나 이 중대사의 언덕 양지 바른 곳에…; 초가 서너 칸을 지어 놓고, 사립문은 늘상 닫아둔 채, 병이 나서 치료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지만, 단지 어느 곳이 적합할지 알 수가 없구나(初欲往軍威, 亦非十分地, 茲欲於鶴駕山麓中臺茲坡等向陽處…; 作數三間屋, 柴門盡掩, 養病計甚切, 第未知何處洽當). 서미동에서 임

시 거주지로 선택한 집 북쪽 석벽 아래, 감천이 있는데, 중대사의 노승이 나를 위하여 이곳에 집을 지어주겠다고 이미 언약을 했었지만, 너희들 생각은 어떠하나(西美洞權卜家北石壁下,有甘泉,中臺老僧,欲爲我結屋者,已約之,於汝輩意如何)?”라고 하였다.

2) 사의천심벽(寺倚千尋壁 : 사찰이 천길 절벽 중턱에 위치하여) :

① 의(倚) :

☆근접하며,
☆곁에,
☆옆에.

② 천심벽(千尋壁) : 본의(本意)는 ‘천길 절벽’이란 뜻이나, 본시의 사찰이 위치했던 자리는 수목이 잘 어우러진 가파른 산이다.

☆천심(千尋) : 고대에는 길이의 단위로 8척(八尺 : 여덟 자)을 1심(一尋 : 한 심)이라고 하였다. ‘천심(千尋)’은 곧 매우 높거나 매우 긴 것을 형용하는 말이다.
☆벽(壁) : 절벽.

3) 만리풍(萬里風) : 아주 멀리서 불어 온 바람을 비유한 말.

4) 천원간호묘(川原看浩渺 : 강과 들관 바라보니 드넓어 아득하고) :

① 천원(川原) : 하류(河流)와 원야(原野).

② 호묘(浩渺) : 넓고 아득하다, 드넓다.

5) 벽수부영롱(碧樹俯玲瓏 : 푸른 수목 굽어보니 맑고도 깨끗하네) :

① 벽수(碧樹) : 푸른 나무, 녹수(綠樹). 녹색의 수목

② 영롱(玲瓏) : 맑고 깨끗하다.

6) 대서하증핍(大暑何曾逼 : 무더위가 어찌나 사람을 핍박하는지!) :

① 대서(大暑) :

☆몹시 심한 더위, 대단한 더위.

☆이십사절기(二十四節氣)의 열두 번째로, 소서(小暑)와 입추(立秋) 사이에 들며, 태양의 황경(黃經 : 황도 좌표의 경도經度. 춘분을 기점으로 하여 황도를 따라서 동쪽으로 돌아서 0도에서 360도까지 잴)이 120도에 이른 때로서, 일 년 중 가장 무더운 시기이다. 양력 7월 24일경이다.

② 하증(何曾) : 어찌나 ~하는지!

7) 선구역가통(仙區若可通 : 신선 사는 곳에 오니 숨통이 트여지는 것 같으네) :

① 선구(仙區) : 신선이 사는 지역.

② 약가통(若可通) :

☆약(若) : ~할 것 같다.

☆가통(可通) : 숨통을 틔울 만하다.

a. 가(可) : 단음절 동사 앞에서 접두사로 쓰여, ‘~해 볼만 하다’의 의미를 지님.

b. 통(通) : (숨통을) 틔우다. 통하다.

8) 편감도화택(便堪逃火宅 : 흡사 불타는 듯한 집에서 피하고 보니) :

① 편감(便堪) : 곧 바로~할 수 있다. 편하게 견디다.

☆편(便) : 부사, ‘꼭, 틀림없이’의 뜻인데, 본 시에서는 ‘흡사’로 의역하였음.

☆감(堪) : 동사로 ~할 수 있다. ~할 만하다는 뜻.

② 화택(火宅) : 불교용어.

☆‘불타고 있는 집’이란 뜻으로, 번뇌와 고통이 충만한 진세(塵世)를 비유한 말로 많이 쓴다. 본시에서는 ‘불타는 듯한 집’이란 뜻으로 쓰였다.

『법화경(法華經)·비유품(譬喻品)』에, “비유해서 말하건대, 옛날에 대부호(大富豪)에게 큰 저택이 한 채 있었는데, 그 집이 너무 오래되어, 그만 무너질 지경이 되었다(譬如, 長者有一大宅, 其宅久故, 而復頓弊). …… 그 집 뒤에서, 홀연히 불이 나서, 사방에서 일시에, 화염이 솟구치며 타올랐다(於後宅舍, 忽然火起, 四面一時, 其燄俱熾). …… 삼계(三界 : 불교의 세계관으로 중생이 생사 왕래하는 세 가지의 세계, 즉 색계色界·욕계欲界·무색계無色界를 이룸)가 편치 않음이, 마치 불타는 집과 같으며, 갖가지 괴로움이 충만하니, 심히 겁나고 두렵다. 게다가 항상 생로병사와 우환이 있다(三界無安, 猶如火宅, 衆苦充滿, 甚可怖畏. 常有生老病死憂患). …… 중생이 많은 고통으로 불타고 있거늘, 내가 다 구제하리라(衆苦所燒, 我皆拔濟)”고 하였다. 이것은 번뇌와 괴로움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불에 타고 있는 집에 비유한 말이다. 위에서 예를 든 『법화경·비유품』에서는, 사람들이 갖가지 혼돈과 고뇌로 번뇌하고 있는 것, 또 괴로워하면서도 괴로워한다는 그 자체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불에 타고 있는 집에 비유하고, 또 방황하는 사람들을 불타고 있는 집안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운명마저 모르는 채 즐겁게 놀기만 하는 아이들에 비유하였다.

9) 우사잠시공(憂思暫時空 : 근심걱정 잠시라도 사라지는구나) :

- ① 우사(憂思) : 근심 걱정.
- ② 공(空) : 사라지다. 없애지다.



시72. 내 마음을 스스로 위로하다

詩72. 自慰
자 위

滿山松葉可療飢¹⁾,
만 산 송엽 가 료 기

온 산의 솔잎은 허기를 채울 수 있고,

一掬清泉聊解渴²⁾.
일 국 청천 료 해 갈

맑은 샘물 한 모금이면 잠시 갈증도
푹다네.

芙蓉薜荔可爲衣³⁾,
부 용 벽 려 가 위 의

연잎과 벽려 잎은 옷을 지어 입을 수
있고,

綠蓑備雨仍青蕩⁴⁾.
녹 사 비 우 잉 청 약

녹색도롱이로 비 가리고 푸른 부들
삿갓도 있네.

資身卽此兩無憂⁵⁾,
자 신 즉 차 양 무 우

몸 보호엔 바로 이런 것들인데 둘 다
있어 걱정할 게 없고,

到處隨緣⁶⁾無不足。
도 처 수 연 무 부 족

(나머지는) 가는 곳마다 인연 따라
이루어지니 부족할 게 없네.

菴裘⁷⁾舊在江上村,
토 구 구 재 강 상 촌

내 살던 곳이 이전에는 강변
마을이었는데,

數椽茅屋依脩竹⁸⁾.
축 연 모 옥 의 수 죽

초가집에 촘촘히 걸친 서까래로는 진

대나무를 썼네.

萬鐘⁹⁾於我何加焉,
만 종 어 아 하 가 언

높은 관직이 내게 무슨 보탬이
되겠는가?

往往高明鬼瞰室¹⁰⁾。
왕 왕 고 명 귀 감 실

왕왕 부귀한 집에는 귀신이 엿본다는데.

人間何事勝無事¹¹⁾,
인 간 하 사 승 무 사

세상에 무슨 일이 무사한 것보다
낮겠는가?

一曲滄波弄明月¹²⁾。
일 곡 창 파 농 명 월

굽이도는 강물에 일렁이는 밝은 달을
감상하네.

- 1) 만산송엽가요기(滿山松葉可療飢 : 온 산의 솔잎은 허기를 채울 수 있고) :

① 만산(滿山) : 온 산에 가득함. 또는 그런 산

② 요기(療飢) : 요기(療饑)로도 쓴다. 요기(療飢)하다. 허기(虛飢)를 채우다. 배고
픔을 면하다. 공복(空腹)을 채우다.

- 2) 일국청천료해갈(一掬清泉聊解渴 : 맑은 샘물 한 모금이면 잠시 갈증도 풀다네) :

① 일국(一掬) : 한 움큼. 본 시에서는 의미상 ‘한 모금’으로 해석한다.

☆국(掬) : 양사(量詞)로 쓰였으며, ‘양손으로 한 번 떠낼 수 있는 양’을 가리킨다.
그러나 고대(古代)에는 일국(一掬)의 양을 ‘일승(一升 : 한 되) 또는 반승(半升
: 반 되)’의 뜻으로도 썼다.

② 요해갈(聊解渴) : 이는 요이해갈(聊以解渴)의 줄임말. 즉 잠시 갈증에서 벗어난
다. 혹은 일시적으로 갈증에서 벗어난다. 등으로 해석한다.

☆요(聊) : 부사어. ‘일시적으로, 임시로, 잠시, 잠깐’ 등으로 해석한다.

- 3) 부옹벽려가위의(芙蓉薜荔可爲衣 : 연잎과 벽려 잎은 옷 지어 입을 수 있고) :

① 부옹(芙蓉) : 연꽃의 별명. 본 시에서는 연잎을 칭함.

② 벽려(薜荔) : 줄사철나무. 담쟁이. 노박덩굴과의 상록활엽 덩굴나무. 높이는 10미
터 정도이며, 잎은 마주나고 긴 타원형이다. 꽃은 아주 작고 꽃 턱 안에 가려져
있다. 5-6월에 녹색 꽃이 취산(聚繖 : 먼저 꽃대 끝에 한 개의 꽃이 피고 그 주위의 가
지 끝에 다시 꽃이 거기서 다시 가지가 갈라져 꽃이 피는 모양)꽃이 차례로 피고 열매는
삭과(朔果)로 10월에 익는다. 열매는 교즙(膠汁 : 끈적끈적한즙)이 많아 냉채를
만들어 먹으면 해서작용(解暑作用)을 한다. 관상용이며 한국, 일본, 중국 등지에
분포하다.

*벽려의(薜荔衣) : 벽려의 잎으로 만든 옷. 곧 은자(隱者)의 옷을 가리킨다.

a. 벽려(薜荔) : 벽려의 꽃은 팽창된 꽃받침에 싸여있어서 밖에서 보면 꽃이 피

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 고로 “은두화서(隱頭花序)”라고 칭한다. 열매를 맺은 이후에는 “은두과(隱頭果)”라고 칭한다. 그 형상은 연봉(蓮蓬: 연밥이 들어있는 송이)과 같음. 고로 “목련(木蓮)”이라고도 칭한다.

벽려의 잎은 두텁고 실박하며, 덩굴모양으로 총생(叢生)하여, 항상 수목 위를 덮는다. 『초사楚辭·구가九歌·상부인湘夫人』에서는 “벽려를 엮어서 휘장으로 한다(罔薜荔兮爲帷)”라는 구절이 있다. 벽려는 한지(旱地)에 살기 때문에, “물속에서 벽려를 캐고(采薜荔兮水中)”라고 표현하여 상군을 만날 가능성이 없음을 비유하기도 하였다.

벽려(薜荔)는 사철나무이며, 고래로부터 집 담장이나 담장의 모퉁이 돌계단에 심어서 녹화식물(綠化植物)로 상용했고, 아울러 역대시인의 음송(吟誦)의 대상이 되어 왔다.

[반부준(潘富俊), 『초사식물도감(楚辭植物圖鑑)』(중국: 上海書店出版社, 2003.) 참조]

b. 원래는 도개비나 요괴, 신선 등의 인형에 입히는 옷을 가리켰으나, 후세에 이를 전(轉)하여 ‘은사(隱士)의 복장’을 가리키는 뜻으로 썼다.

4) 녹사비우잉청약(綠蓑備雨仍靑蓑: 녹색 도룡이로 비 가리고 푸른 부들 삿갓도 있네):

① 녹사(綠蓑): 녹색 도룡이

② 비우(備雨): 비를 가리다, 비를 막다. 비에 대비하다.

③ 잉청약(仍靑蓑):

☆잉(仍): 아직도, 여전히. 누차, 거듭.

☆청약(靑蓑): 푸른 부들로 만든 삿갓[靑蓑笠]을 가리킨다.

5) 자신즉차양무우(資身卽此兩無憂: 몸 보호엔 바로 이것이니 둘 다 있어 걱정할게 없고):

① 자신(資身): 자신의 몸을 보호하다.

☆자(資): 자양(資養), 공양(供養). 고로 ‘자신(資身)’은 자기 몸을 보호하되 해석됨.

② 즉차(卽此): 바로(단지) 이것이다.

☆즉(卽): ‘칙(則)’과 동일하며, ‘그것은 바로 ~이다’라는 의미로 쓰였음.

☆차(此): 녹색 도룡이[綠蓑]와 푸른 부들 삿갓[靑蓑]을 칭함.

6) 수연(隨緣): 불교용어. ‘인연의 도리에 따르는 것. 불연(佛緣)에 은혜를 입는 것. 연기(緣起)의 도리에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연(緣): 곧 인연(因緣: 사람들 사이에 맺어지는 관계, 혹은 어떤 사물과 관계되는 연줄)을 뜻한다.

☆연기(緣起)의 도리에 따르는 것. 즉, 연기론(緣起論: 연기를 중심으로 하는 불교 교리 체계)을 따르는 것이다. 모든 현상이 생기(生起)하고 소멸하는 법칙이 연기(緣起)이다. 이에 따르면 모든 현상은 원인인 ‘인(因)’과 조건인 ‘연(緣)’이 상호관계하여 성립하므로, 인연이 없으면 결과도 없다. 불교에서는 연기(緣起)하고 있는 사실 외에 고정적인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7) 토구(菟裘): 토구지(菟裘之地)의 약어. 토구(菟裘)는 춘추시대 노(魯) 나라의 땅으로 지금의 산둥성 신태시(新泰市) 서쪽 누덕진(樓德鎭)에 위치했다. 본시에서는

노령으로 퇴직한 후의 거처지(居處地), 곧 ‘은퇴 후의 거처’란 뜻으로 쓰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이 지역은 춘추시대 노(魯)나라 은공(隱公)이 바로 이 토구(莒裘)의 땅에 은거한 것에서 나온 말이다.

『사기(史記)·노주공세가(魯周公世家)』에 보면, “11년 겨울, 공자 휘(揮: 자는 우보 羽父, 노나라의 대신)가 은공에게 아첨하기를(十一年冬, 公子揮諂謂隱公曰): ‘백성들이 임금을 옹호하였기에, 임금께서 마침내 왕위에 오르셨사옵나니. 저는 임금을 위하여 자윤(子允)을 살해하고자 하옵나니. 임금께서 저를 재상으로 삼아주십시오(百姓便君, 君其遂立. 吾請爲君殺子允, 君以我爲相)’라고 하였다. 은공이 대답하기를(隱公曰): ‘선군의 명령이 있었느니라. 윤이 어렸기 때문에 나는 그를 대신하였던 것이다. 이제 윤이 성장하였으니, 나는 바야흐로 토구(莒裘)의 땅에 집을 짓고 노년을 준비할 것이며, 윤에게 정권을 줄 것이다(隱公曰: 有先君命. 吾爲允少, 故攝代. 今允長矣, 吾方營莒裘之地而老焉, 以授子允政)’고 하였다.

8) 수죽(脩竹): 수죽(脩竹)이라고도 쓴다.

☆긴 대나무

☆수(脩): 수(修)와 통하며, ‘장(長: 길다)’의 뜻이다. 이때의 ‘길다(長)’는 표현에서 는, ‘공간적인 거리가 멀다, 시간적으로 오래 되다, 길이가 길다’는 세 가지의 뜻이 있다.

9) 만종(萬鍾):

① 후한 녹봉(綠俸). 많은 녹봉. 중국 고대에는 이 ‘종(鍾)’을 용량(容量)을 나타내는 단위로 하였음.

『맹자(孟子)·고자장구(告子章句)·상(上)』에, “(그러나 어떤 사람은) 후한 녹봉은 예의 여부에 상관없이 흔쾌히 받는데, 후한 녹봉이 내게 이로울 게 무엇인가(萬鍾則不辨禮義而受之, 萬鍾於我何加焉)?”라고 하였다.

☆종(鍾): 고대(古代)의 용량단위(容量單位). 이 단위는 춘추시대(春秋時代) 제(齊)나라 공실(公室: 제후의 집안)의 공식적 용량 단위인데, ‘1종(一鍾)’은 6곡 4두(六斛四斗)’였다. 그 후에는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1종(一鍾)’이 8곡(八斛)’이란 시대도 있었고, ‘10곡(十斛)’이란 시대도 있었다. 여기서, 곡(斛)이란, 주로 양식을 담아 분량을 재량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고대에는 ‘1곡(一斛)’을 10두(十斗: 열 말)라고 하였으나, 남송(南宋) 말엽에는 5두(五斗: 다섯 말)로 개정하였다.

② 불교용어로 ‘높은 관직’의 뜻함. 이 말은 일본의 승려 홍법대사(弘法大師: 774~835: 진언종眞言宗의 시조. 이름은 공해空海, 속성은 좌백직左伯直, 아명兒名은 진어眞語)가 저술한 『삼교지귀(三教旨歸)』 341쪽에 나오는 말이다. 이 책은 허망은사(虛妄隱士), 가명갈아(假名乞兒) 등 세 사람의 가상적 인물을 내세워 유(儒)·불(佛)·도(道)의 취지를 설명하고, 불도(佛道)에 귀의하도록 암시하였음.

☆‘종(鍾)’은 ‘종(鍾)’으로도 쓴다. 따라서 만종(萬鍾)을 만종(萬鍾)으로 써도 된다. 다만, 만종(萬鍾)으로 쓸 경우, 이는 불교용어이며 뜻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 역자는 이 두 가지 용어를 모두 정리해둔다.

10) 왕왕고명귀감실(往往高明鬼瞰室: 왕왕 부귀한 집에는 귀신이 엿본다는데):

① 왕왕(往往): 이따금, 때때로.

② 고명(高明): 지위가 높고 귀하다, 부귀하다, 또는 그런 사람.

③ 귀감실(鬼瞰室) : 귀감기실(鬼瞰其室) :

귀신이 입신출세하여 부귀한 사람의 집을 엿보면서, 해를 미치게 하려는 의지가 충만해 있음을 이른다.

『문선(文選)·양웅(揚雄 : BC 53~AD 18 : 서한西漢의 학자, 문인)·해조(海潮 : 타인의 조소에 변명하다)』에, “부귀한 사람의 집에는, 귀신이 그 집을 잘 엿본다(高明之家, 鬼瞰其室)”고 하였다. 이 글에 대해서 당나라 학자 이선(李善 : 630?~690)은 이기(李奇)의 말을 인용해서 주석(註釋)하기를, “귀신은 과분한 사람은 해치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복을 준다(鬼神害盈而福謙)”고 하였다. 당나라 학자 유량(劉良)은 주석하기를, “이 집이 고귀하고 부유한 사람의 집이라는 것을 알면, 귀신이 그 집을 엿보고 있다가, 장차 그 (고귀하고 부유한) 사람들의 과분한 의지를 해치려 한다(是知高明富貴之家, 鬼神窺望其家, 將害其滿盈之志矣). 그러므로 하늘의 도리는 과분한 것을 싫어하고, 귀신은 과분한 것을 해친다(故知天道要盈, 鬼神害盈)”고 하였다.

☆귀(鬼) : 귀신.

☆감(瞰) : 엿보다.

11) 인간하사승무사(人間何事勝無事 : 세상에 무슨 일이 무사한 것보다 낫겠는가) :

① 인간(人間) :

☆사람

☆세상, 속세(俗世).

② 승무사(勝無事) : 변고(變故)없는 것보다 낫다. 무사한 것보다 낫다.

☆승(勝) : ~보다 낫다. 우월하다.

☆무사(無事) : 변고(變故)가 없다. (주로 난리나 재난이 없는 것을 가리킴) 아무 탈 없이 편안함. 아무런 일이 없다.

**서애주석 :

박소고 선생이 시에서 이르기를 :

어떤 일이 무사한 것보다 낫겠는가?
 뭉게구름이 계곡 가운데 두둥실 떠 있네.
 세속사의 흔적을 다급하게 거둬들이고,
 귀환하여 마주 향한 것은 고향의 산 모습일세.

나는 일찍부터 이 말을 좋아했던 고로, 여기에 사용한다.”고 하였다.

朴嘯臯*先生詩云 :

何事勝無事,
 晴雲*在谷中。
 急收塵土*跡*,
 歸對*故山*容。

余嘗愛其語, 故用之。

*박소고(朴嘯皐) : 박승임(朴承任 : 1517~1586) :

조선 중기의 문신(文臣). 본관은 나주(羅州), 자는 중보(重甫), 호는 소고(嘯皐), 경상도 영주(榮州) 출신. 퇴계(退溪) 이황(李滉 : 1501~1570)의 문하에서 수학하였음. 어려서부터 재주가 뛰어나 사람들로부터 크게 촉망받았으며, 1540년 24세의 나이로 식년문과(式年文科 : 자子, 묘卯, 오午, 유酉 따위의 간지干支가 들어 있는 해에 보이던 과거를 통틀어 이르는 말)에 병과(丙科)로 급제, 승문원·예문관·승정원·홍문관 등에서 청환직(淸宦職 : 학식과 문벌이 높은 사람에게 규장각, 홍문관 따위의 벼슬. 봉록은 높지 않으나 뒷날에 높이 될 자리였음)을 역임하고, 정자(正字 : 홍문관·승문관·교서관에 속한 정9품 벼슬)로 사가독서(賜暇讀書 : 유능한 문신들을 뽑아 휴가를 주어 독서당에서 공부하게 하던 일)하였다. 옥당(玉堂 : 홍문관)에 있을 때는 왕의 신임이 두터웠으며, 군학(君學)과 시무(時務)에 대한 충언을 담은 1만여 자나 되는 상소를 올리는 등 정책 결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이어 수찬(修撰)에 승진되고 이조좌랑을 거쳐 정언(正言 : 사간원司諫院에 속한 정6품 벼슬)이 되었다. 그 뒤 소윤(小尹 : 조선 인종의 이복동생 경원대군의 외숙인 윤원로(尹元老 : ?~1547)와 윤원형(尹元衡 : ?~1565) 일파. 인종의 외숙이자 대윤대尹의 거두인 윤임(尹任 : 1487~1545) 일파와 세력다툼을 벌여 을사사화乙巳士禍가 일어남)의 횡포가 날로 심해지자 사직하고 귀향했다.

1547년 예조정랑에 다시 임명되고, 그 이듬해 모친상을 당하여 귀향, 복(服)을 벗은 뒤 현풍현감이 되어 굶주린 백성을 구휼하는데 힘썼다. 1557년 직강(直講)을 거쳐 사예(司藝)가 되었으나 윤원형의 세도가 더욱 심해져 벼슬에서 은퇴, 두문불출하며 독서에 힘썼다. 1565년 병조참의로 승진하였으며, 그 이듬해 동부승지로 전직되었다가 얼마 뒤 진주목사로 나갔다.

1569년 동지부사로 명나라에 다녀왔으며, 1571년 황해도 관찰사로 나갔다가 이듬해 좌승지에 임명되고 1576년 다시 도승지에 임명되고 강화부유수, 여주목사를 거쳐 1581년 춘천부사로 나갔다가 병으로 사직하고 귀향하였다. 1583년 공조참의를 거쳐 대사간이 되었으나 언사(言事)에 연루, 왕의 뜻을 거슬러 창원부사로 좌천된 뒤, 얼마 뒤 중앙에 소환되었다가 병사하였다.

그는 풍모가 준결하고 평소 말이 없어 과묵하였으며, 항상 자신을 드러내기를 꺼려하였다. 일찍이 읽지 않는 책이 없을 정도로 많은 서적을 읽었으며, 특히 『논어』와 『주자서(朱子書)』를 탐독,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기록해두었다가 스승인 퇴계 이황에게 질문하였다. 시문(詩文)에 능하여 한 때 많은 시작(詩作) 활동이 있었으나, 중년 이후로는 사람을 부박(浮薄)하게 만든다는 이유로 이를 중지하고 심학(心學)에 주력하여 실천적 수행에 힘썼다. 또한 성리학을 깊이 연구하는 한편 이에 관한 여러 선현들의 설을 모아 책으로 엮어내는 등 저술에도 힘을 기울였다.

그의 성리학적 견해는 주로 스승의 학설에 따라 주리론(主理論)의 경향을 보였다. 경북 영주의 구산정사(龜山精舍)에 제향(祭享)되었다. 저서로는 『성리유선(性理類選)』·『공문심법유취(孔門心法類聚)』·『강목심법(綱目心法)』 등과 문집인 『소고문집(嘯皐文集)』이 있다.

*청운(晴雲) : 날이 갠 후의 적운(積雲 : 뭉개구름 : 산봉우리구름)이다. 적운(積雲)은 수직운(垂直雲)의 하나로, 뭉개뭉개 피어올라 윤곽이 확실하게 나타나는

구름으로, 밑은 평평하고 꼭대기는 솜을 쌓아 놓은 것처럼 몽실몽실한 모양이며, 햇빛을 받으면 하얗게 빛난다.

*진토(塵土) : 진속지사(塵俗之事 : 지저분하고 어지러운 속세의 일) : 세속사.

*적(跡) : 행적, 자취, 흔적.

*대(對) : 원래 ‘마주 향하다’는 뜻의 동사이나, 본시에서는 명사형으로 쓰여, ‘마주 향한 것’이란 뜻으로 쓰였음.

*고산(故山) : ‘구산(舊山)’과 같은 말로써, ‘고향’을 비유한 말.

12) 일곡창파농명월(一曲滄波弄明月 : 굽이도는 강물에 일렁이는 밝은 달을 감상하네) :

① 일곡(一曲) : 물이 굽이도는 곳.

☆한 물굽이

☆한 모퉁이

② 농명월(弄明月) : 밝은 달을 감상하다

☆농(弄) : 감상하다, 보고 즐기다.



시73. 나는 시 짓기를 즐기지는 않지만
 시상詩想이 떠오르면 임기응변하는 말로
 내 감정을 풀어낸다. 손님이 내게 연습
 삼아 작시作詩를 권유하기에 시속時俗에
 따라 농 삼아 한 수 지어본다

詩73. 余不喜作詩 意到惟作打乖語以自遣¹⁾
 여 불 희 작 시 의 도 유 작 타 괴 어 이 자 건
 客有勸我習作律²⁾ 以便應俗³⁾ 戲作
 유 유 권 아 습 작 륜 이 편 응 속 희 작

吾年已老從天放⁴⁾,
 오 년 이 로 좇 천 방

내 나이 이미 늙어 자연에 순응해야
 하는데,

精魄惟尋不二門⁵⁾.
 정 백 유 심 불 이 문

정신은 깨달음의 경지에 진입하는
 도리만 찾고 있네.

縱有詩情消未盡⁶⁾,
 종 유 시 정 소 미 건

설령 시적 정취 아직은 다 소진되지
 않았다 해도,

不應重作世間言⁷⁾.
 불 응 중 작 세 간 언

세속적 언론을 거듭 시로 지어
 호응하진 않는다네.

1) 의도유작타괴어자건(意到惟作打乖語以自遣 : 시상이 떠오르면 임기응변하는 말로 내 감정을 풀어낸다) :

- ① 의도(意到) : 생각이 나는 대로 시상이 떠오르면.
 ② 타괴어(打乖語) : 임가응변으로 하는 말.
 ☆타괴(打乖) : 임가응변하다.
 ③ 자견(自遣) : 자기의 감정을 풀어내다.
- 2) 작율(作律) : 시를 짓다.
- 3) 이편응속(以便應俗) :
 ① 이편(以便) :
 ☆~(하기에 편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② 응속(應俗) :
 ☆세속(世俗)의 일을 처리하다.
 ☆풍속을 따라하다.
- 4) 천방(天放) : 만사를 자연에 순응하다.
- 5) 정백유심불이문(精魄惟尋不二門) : 정신은 깨달음의 경지에 진입하는 도리만 찾고 있네) :
 ① 정백(精魄) : 정신과 혼백. 정신과 기백.
 ② 불이문(不二門) : 불이법문(不二法門) : 입불이법문(入不以法門) :
 ‘평등하고 차별이 없는 깊고 오묘한 도리’를 이르기도 하고, ‘유일무이(唯一無二) 한 통로이자 방법’이란 뜻도 지닌다. 또한 ‘깨달음의 경지에 진입하는 도리’라는 의미로도 쓴다. 이 말은 『유마경(維摩經)·입불이법문품(入不二法門品)』의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깨달음의 경지에 진입하는 도리’라는 의미를 중심으로 정리한다.
 ☆입불이법문(入不二法門)의 개요
 사람이 품을 수 있는 마음과, 그 마음으로 구성된 세계를 대략 두 종류의 세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것은 본체계(本體系)와 현상계(現象系)이다. 이 말은 절대계(絕對系)와 상대계(相對系)로 표현할 수도 있고, 실상계(實相系)와 환상계(幻相系)로도 칭할 수 있다. 이 두 세계 중 하나는 성현(聖賢)이 체증(體證)한 세계이고, 하나는 범부(凡夫)가 활동하는 영역이다. 이 두 세계를 불교 용어로 표현하면 윤회(輪廻) : 생명이 있는 사람이 생사의 세계를 반복하는 것)와 열반(涅槃 : 모든 번뇌의 얽매임에서 벗어나고, 진리를 깨달아 불생불멸의 법을 체득한 경지), 번뇌와 보리(菩提 : 깨달음 : 불교 최고의 이상인 불타(佛陀 : 부처)의 정각(正覺 : 부처의 깨달음)), 속박과 해탈(解脫 : 번뇌의 얽매임에서 풀리고 미혹의 괴로움에서 벗어나. 본디 열반과 함께 불교의 궁극적인 실천 목적임) 등이다.
 『입불이법문품(入不二法門品)』에서는 ‘현실세계’를 칭하여 ‘이(二)’ 혹은 ‘이법(二法)’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분열, 대립, 비교,쟁집(爭執), 불평형(不平衡), 불화해(不和諧) 등등 이러한 고뇌가 수반되는 각종 부차적 작용의 상태를 표시한다. 요컨대 ‘이법(二法 : 대립되는 한 쌍의 개념. 예를 들면, 미혹과 깨달음, 대소, 선악 등임)’은 상대세계(相對世界)와 윤회, 번뇌 세계의 묘사(描寫)이다.
 ‘이상세계(理想世界)’를 본품(本品 : 본장本章 : 불교에서는 책 속의 절편·편篇·장章을 품품으로 표현함)에서는 ‘불이(不二 : 깨달은 경지)’라고 칭했는데, 그것은 화해, 안녕, 자재(自在 : 속박이나 장애가 없이 마음대로 임), 무압력(無壓力 : 압력을

반응이 없음, 긴장·불안이 없음), 이완(弛緩: 긴장이 풀려 늦추어짐), 무괘애(無罣礙: 거리낌이나 장애가 없음), 무충동(無衝動), 무촉박감(無趨迫感), 안정부동(安定不動: 안정되어 동요함이 없음), 광명, 희락(喜樂), 무부담(無負擔)의 특질이 있으며, 이것으로부터 수반되는 정신이 원만해지는 상태를 표시한다. 요컨대 ‘불이(不二)’는 절대세계(絶對世界)나 열반해탈세계(涅槃解脫世界)의 묘사(描寫)이다.

불법(佛法)의 총체적 목표는 사람들로 하여금 현상계(現象系)를 떠나서, 본체계(本體界)에 진입시켰다는 것이다. 그때 사용하는 방법은 ‘심식(心識: 인식하고 식별하는 마음의 작용)의 변화’이며, 『유마경(維摩經)·불도품(佛道品)』에서 말하는 이른 바 “마음이 청정하면 불국토(佛國土: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세계)도 청정해진다(心淨則佛土淨)”는 것이다. ‘원래 번뇌와 고통을 조성했던 심식(心識)을, 즐겁기만 하고 고통스럽지 않는 심리적 구조로 바꾸는 것’이다. 「입불이법문품(入不二法門品)」에서 말하는 ‘입(入)’이란 바로 이것을 뜻하는 것이다. 본품(本品)에서 언급된 33명의 보살들은 본체계(本體界)에 진입한 원로들이다. 이들이 본체계에 진입한 기량과 요령은 각자 다르지만, 진입한 후의 세계는 동일하다. 이러한 본체계에 진입한 경로의 다양성이 본품(本品)에서 말하는 법문(法門: 깨달음에 이르는 문)의 차이이다. 그 보살들이 현상계(現象界)에서 본체계(本體界)에 진입한 요령을 대중에게 공개하고, 우리들로 하여금 그것을 참고하도록 하여, 중생도 불이(不二: 깨달음의 경지)의 세계에 진입을 가능하게 하고, 그 세계에 진입하여 절대적인 기쁨을 누리도록 하려는 것이 본품(本品)의 요지이다.

심식(心識)을 변화시키는 것은 지극히 어렵고, 장시간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일단 그 마음과 인식을 개조(改造)하고 나면, 그 편안함은 무궁하다는 것이다. 『유마경(維摩經)·입불이법문품(入不二法門品)』에서는, 어떻게 심식(心識)을 개조하여 절대세계에 진입할 수 있는가를 교도(教導)한다. 아래에서 역대 주석가(註釋家)들의 학설을 근거로 ‘이(二)’, ‘불이(不二)’, ‘입(入)’, ‘법문(法門)’, ‘입불이법문(入不二法門品)’의 뜻을 명확히 구별하여, 그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자 한다.

☆입불이법문품(入不二法門品)의 기본개념:

- a. 이(二): ‘이(二)’는 현상계(現象界)의 대칭(對稱: 별칭別稱)으로, 현상계 중의 사람의 심식(心識: 인식하고 식별하는 마음의 작용)과 그에 대립하는 세계의 표현인 바, 당나라의 승려 규기(窺基: 632~682: 법상종法相宗의 시조)의 저서 『설무구칭경소(說無垢稱經疏)』 권10에서 말한 “분별의식에 의한 집착심이 이(二)이다(分別執爲二)”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현상계에 사는 사람의 심식(心識)을 말하는 것으로서, 차별성을 지닌 주관적 측면의 심(心: 마음)으로 사물을 분별(分別)한 다음에 조성된 집착심이다. 송(宋)나라 승려 지원(智圓: 976~1022)은 『유마경약소수유기(維摩經略疏垂裕記)』 권10에서 말하기를 “‘이(二)’는 곧 서로 대립하는 두 가지 입장이다(二則二邊)”고 하였다. 이것은 평범한 사람의 심식(心識)에 대한 인식활동(認識活動)이다. 즉, 평범한 사람은 아집(我執)을 가졌기 때문에 외재세계(外在世界)에 대해서 개념을 분별하게 되어, 대소(大小), 호오(好惡), 미추(美醜), 선

악(善惡), 시비(是非), 길흉(吉凶), 궁달(窮達), 수요(壽夭), 빈부(貧富), 귀천(貴賤) 등의 분별의식(分別意識)이 생기는데, 이 분별의식으로 인해서 호호(好惡: 좋아하고 싫어함)와 취사(取捨: 마음에 들면 쓰고 마음에 안 들면 버림)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고탐(苦樂)과 번뇌가 생긴다. 게다가 이러한 이집(我執), 분별(分別), 비교, 취사(取捨)가 매우 강렬하고 견고하여, 집착심(執着心)이 조성되면서 마음이 느슨해질 수 없게 되고, 그래서 고민을 하지만 해소할 수 없게 되는데, 인류의 고통의 근원은 바로 여기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대립, 분별, 취사(取捨)가 바로 이곳에서 말하는 바의 ‘이(二)’이다.

이러한 ‘이(二)’라는 의미의 분별, 취사(取捨)는, 명목(名目)은 ‘이(二)’이지만, 이물(二物: 두 가지 사물이나 상황 또는 사람) 사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두 사람 사이에서 분별취사(分別取捨)가 형성되기도 하고, 3인(三人) 이상에서도 애증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지어 자기가 자신을 괴롭히기도 하는데, 이러한 불화(不和)가 바로 ‘이(二)’이다. 사람 사이가 이와 같고, 세상사도 이와 같다. 분별하고 취사(取捨)하고 집착하기만 하면 바로 ‘이(二)’라고 칭한다.

당나라 승려 규기(窺基: 632~682)는 『유마경(維摩經)』에 등장하는 보살을 열거하면서, 어떤 보살은 일(一)을 ‘이(二)’라고 하였고, 어떤 보살은 이(二)를 ‘이(二)’라고 하였으며, 어떤 보살은 삼(三), 사(四), 오(五)를 ‘이(二)’라고 하였으니, 그 어떠한 대상의 사물을 인식하더라도 차별의 의미(差別之義)가 있지만 하면 바로 ‘이(二)’이다. 이러한 현상을 제거하려면, 진정한 ‘일(一: 사물을 인식하고 식별하는 마음의 작용, 즉 심식心識을 변화시켜 어떤 사물을 인식하더라도 분별하고 취사取捨하고 집착하는 상태를 벗어난 경지를 가리킴)’로 돌아가야만, 비로소 생명이 원만해지는데, 이러한 원만한 상태를 벗어나면 바로 ‘이(二)’라는 것이다. 16국시대(十六國時代)에 후진(後秦)의 승려 승조(僧肇: 384~414)도 『주유마힐경(注維摩詰經)』 권8에서 “진여(眞如: 대승불교의 이상개념의 하나로, 우주만물에 보편한 상주 불변하는 본체)를 떠나면 모든 명목(名目)이 다 ‘이(二)’이다(離眞皆名二)”고 하였다. 일단 현상세계의 분별심 속에 떨어져서 집착하는 가운데 있게 되면 바로 ‘이(二)’라고 칭하는 것이다. 불이(不二)의 경지는 바로 이러한 문제를 철저하게 해결한 것인바, 후진(後秦)의 승려 승조(僧肇)가 “이법(二法: 차별성을 지닌 주관적 판단으로 사물을 분별하여 생긴 대립한 한 쌍의 개념. 대소大小, 선악, 시비) 등을 폐기하면(二法既廢), 심오한 경지에 진입한다(則入於玄境)”라고 말하였듯이, 상대세계(相對世界)의 이법(二法)을 벗어나면, 사람으로 하여금 고통스런 감정에서 떠나 가장 편안한 심리적 안정감이 드는 환경(玄境: 오묘한 경지)에 진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b. 불이(不二): 현실세계는 ‘이(二)’이고, 이상세계(理想世界)는 ‘불이(不二)’이다. 불이(不二)와 이(二)는 표면상으로는 상반(相反)되지만, 사실상 결코 상반된 게 아니다. 만약 상반된다면, 그 불이(不二)는 별개의 이(二)이다. 불이(不二)는 이(二)의 해소(解消)이거나 초월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것은 이(二)와 대조(對照)가 되지 않는다. 불이(不二)는 별도의 생활방식이기에

이(二)는 현상 상대(現象相對)의 세계에 있고, 불이(不二)는 절대 본체(絕對本體)의 세계에 있어서, 대립하는 것이 없으며, 요컨대 원만한 세계이다. 불이(不二)의 생활방식은 아집(我執)이 없으며, 분별(分別)과 취사(取舍)와 집착(執着)이 없다. 당나라 승려 규기(窺基)가 『설무구칭경소(說無垢稱經疏)』 권10에서 말하기를, “마음속에 분별심과 실천함에 차별심을 제거한다는 것을, 일컬어서 불이(不二)라고 하는 이유이다(除分別及事差別, 名不二故)”라고 하였다. 주체(主體: 실재하는 객관에 대립하는, 의식하는 주관)로는 분별심을 제거하고, 객체(客體: 작용의 대상이 되는 쪽. 곧, 현상계를 이룸)로는 대상(對象)에 대한 차별인 집착을 퇴치하여, 주(主)·객체(客體) 모두에 분별심과 취사선택하는 심리가 없는 상태가 바로 본체 실상(本體實相: 제법(諸法: 존재하는 모든 사물)의 근본 자체, 혹은 여러 부처가 깨달은 진실한 이치의 실상)의 경계(境界)이다. 그래서 수(隋)나라 승려 혜원(慧遠: 523~592)은 『유마의기(維摩義記)』 권6에서 “불이(不二: 깨달은 경지)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말과 다름이 없나니(不二者, 無異之謂); 그것은 곧 불경 속에 있는 하나의 진실이란 의미이다. 진실의 이치는, 최상으로 마음을 편안하게 한 상태에서 색상(色相: 물질의 특질, 밖으로 드러나 볼 수 있는 색신(色身): 육체, 사물의 모습)의 모습에서 벗어나, 실제 참모습만으로 일체의 차별심을 없애고, 피차들 구분을 함이 없기 때문에, 불이(不二)라고 하는 것이다(即是經中一實義也. 實之理, 妙寂離相, 如如平等, 亡於彼此, 故云不二)”라고 하였다. 간단하게 말해서, 이(二)와 불이(不二)의 구별은, 바로 현상계(現象界)와 본체계(本體界)의 상이(相異)함이며, 방황(迷)과 깨달음(悟)의 차이인 것이다. 이곳에서 말하는 불이(不二: 깨달은 경지: 이상계)는 일(一)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불이(不二)는, 중복하여 현상계(現象界)를 통과한 이(二)로서, 본체(本體: 현상現象. 모든 것의 근본 자체, 본질, 본성)를 역으로 나타낸 것이 불이(不二)이다. 먼저 마주 대하고 있는 이(二: 방황하는 단계: 현상계)와 불이(不二: 깨달은 경지: 이상계)의 두 개념을 경유(經由)한 다음, 재차 이 이(二)라는 것의 분별(分別)하는 마음이 없어진 깨달음 경지를 설명한 것으로, 모두 본체(本體)의 전개(展開)이다. 당나라 승려 규기(窺基)가 『설무구칭경소(說無垢稱經疏)』 권10에서 “그 진성(眞性: 모든 인간이 지니는 진실한 본성)을 말하건대, 이(二: 방황하는 단계)도 아니고 불이(不二: 깨달은 경지)도 아니다. 무릇 그릇된 이법(二法: 대립한 한 쌍의 개념. 선악, 시비, 빈부 등으로 분별하고 차별하는 마음)에 차단된 까닭에, 불이법(不二法: 불이법문不二法門: 일체의 차별심을 초월하여 사물의 참모습만으로 상대하는 절대평등의 깨달은 경지)을 말하는 것이다(談其眞性, 非二非不二. 今遮妄二法, 故言不二法)”라고 하였다. 이러한 까닭으로, 입불이품(入不二品)에서는 모든 보살들이 먼저 이(二: 방황하는 단계)를 말하고, 그런 후에 다시 깨달은 단계를 경유해서, 이런 이(二)로 하여금 불이(不二)가 되게 하는데, 줄줄이 절대세계(絕對世界: 그 어떠한 조건이나 제한도 받지 않는 깨달음의 경지)에 진입해서 이(二)라는 존재를 없앤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만약 일(一)이라고만 말한다면, 본체(本體: 본질: 모든 사물의 근본 자체)의 묘사는 말할 수 있지만, 입불이품(入不二品)의 특색이 있는 것은 아니다. 본품(本品)에서는 이(二)를 경유해서 불이

(不二)에 진입한 다음, 다시 원래의 이(二)를 설명하는데, 이때 모든 것이 불이(不二)에 용해되는 까닭에, 비록 외상(外相: 바깥으로 드러난 모습)은 이(二)이지만, 진실한 것은 모두 이미 ‘이(二: 겉모습은 방황하는 단계)이면서 불이(不二: 내면은 깨달은 경지)인 것(二而不二)’으로, 일체의 현상(現象: 본질이 나 객체의 외면에 나타난 상)이 모두 일(一)의 본체(本體: 본질: 모든 사물의 근본 자체)에 흡수된 것이다.

- c. 입(入): ‘입(入)’은 평범한 사람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우리가 현상계(現象界)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들어간다’는 뜻의 ‘입(入)’은, ‘현상계(現象界)를 떠나서 본체계(本體界)에 들어가 깨닫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수(隋)나라 승려 혜원(慧遠)이 말하기를, “사물 형상에 대한 집착[相執]을 떠나서[捨離] 깨닫는 것[證會]을, 일컬어 입(入)이라 한다(捨相證會, 名之爲入)”고 하였다. 상대세계(相對世界)에서 비로소 상(相: 사물의 모습, 사물의 본체)이 있고, 상(相)이 있으면 집착이 있어서 현상계(現象界)에 떨어진 것인 바, 이 상집(相執: 사물 형상에 대한 집착)을 떠나야 만이 마음을 본체(本體: 모든 사물의 근본자체)에 연결하여 도(道)의 경지에 진입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대세계(相對世界)에서 본체세계(本體世界)로 진입하는 과정을 일컬어 ‘입(入)’이라고 한다.

입(入)이 있으면 어김없이 출(出)도 있는 법이다. ‘입(入)’은 ‘본체계(本體界)에 진입하여 깨닫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출(出)’은 두 가지 뜻으로 규정할 수 있는데, 그 하나는 본체계(本體界)에서 현상계(現象界)로 되돌아가는 것으로, 이것은 추락하여 진전(進展)하지 못한 까닭에 깨닫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나머지 하나는 노력을 한 의미로서의 출(出)인데, 이때의 출(出)은 본체와 작용해서 이(二: 방황하는 단계: 현상계)에서 불이(不二: 깨달은 경지: 본체계)로 진입한 후에, 이어서 불이(不二)의 세계에서 이(二)의 세계로 나오는 신통한 작용이다. 이 때 본체와 작용은 한결같이 현상계에 살면서도[二] 깨달음의 경지에 진입했으며[不二], 깨달음의 경지에 진입했으면서도[不二] 현상계에 살고 있는 상태[二]인 것이다(二而不二, 不二而二). 당나라 승려 잠연(潛然: 711~782)이 『유마경약소(維摩經略疏)』 권9에서 “이제(二諦: 진제眞諦와 속제俗諦), 즉 진제(眞諦: 최상의 진리, 궁극적인 진리)와 속제(俗諦: 세속의 입장에서의 진리) 양쪽을 다 자세히 살펴서 (양쪽을 완전히 깨달아 융합하면, 그것을 이름 하여 ‘이(二)’라고 한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적멸(寂滅: 궁극적인 깨달음)의 경지에 들어가 양쪽을 다 자세히 살펴서 알면, 그 또한 이름 하여 ‘출(出)’이라고 한다. 이것이 곧 이(二: 방황하는 단계: 현상계)이면서도 불이(不二: 깨달은 경지: 본체계)이며, 입(入: 본체계本體界에 진입하여 깨달음)은 출(出: 불이不二的 경지), 즉 깨달은 경지로 진입한 후에, 이(二), 즉 현상계로 나오는 것과 더불어, 모두 깨달음의 경지를 논한 것이다(雙照二諦, 名之爲二. 即是寂而雙照, 亦名爲出. 是則不二, 入之與出, 皆就悟論).”라고 말하였다. 심식 작용(心識作用: 인식하고 식별하는 마음의 작용)으로, 불이(不二: 깨달음의 경지: 본체계)의 경지로 진입한 후에, 사물에 대한 분별심(分別心)을 초월한 심식(心識)을 가지고, 이 사회의 각기 마음을 둔 곳에 거처하며, 자기의 생명을 원만하게 영위해 간다. 이

때 처신하는 것이 표면상으로는 이전과 다름이 없지만, 그의 심식(心識)은 이미 전환되어 일을 처리하는 심경과 수단은 달라졌는데 이것을 출(出)이라고 한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말하는 ‘입(入)’은 반야(般若: 마음의 참다운 실상을 깨닫고 불법을 꿰뚫은 지혜. 온갖 분별과 망상에서 벗어나 존재의 참모습을 앎으로써 성불成佛에 이르게 되는 마음의 작용을 이름)의 경지에 이르러, 공혜(空慧: 독립된 진정한 자아自我가 없고, 실체實體가 없다는 공의 도리를 관조한 지혜)를 지닌 것을 이르며, ‘출(出)’은 이 공혜(空慧)의 경지에서 방편(方便: 훌륭한 교화 방법. 중생을 구제하고 깨달음으로 이끌기 위한 일시적인 수단으로서 설명된 가르침)을 통해 이 사회로 나오는 것으로 입(入)과 출(出)이 융합된 반야(般若)가 곧 방편(方便)인 것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광의(廣義)의 입(入)은 출(出)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 d. 법문(法門): ‘법(法)’의 광의(廣義)는 ‘우주 공간에 있는 일체의 존재’를 가리키고, 협의(狹義)로는 ‘가장 궁극적인 성불(成佛: 깨달음의 경지를 실현하는 것)의 도리’를 가리킨다. 본품(本品)에서의 법(法)은 ‘불이(不二: 깨달음의 경지. 본체계)’의 본체상태(本體狀態)를 가리키는 것으로, 당나라 승려 규기(窺基)가 『설무구칭경소(說無垢稱經疏)』 권 10에서 말했듯이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는 이치로서, 법식(法式)이 있고 탐구해야 하는 까닭에, 이름 하여 법(法)이라고 한다(不二之理, 可軌可摸, 故名爲法)”는 것이다. ‘문(門)’은 원래 ‘출입구’를 가리키고, ‘각종 유형무형의 처소에 진출하는 경로’도 가리켜 모두 ‘문(門)’이라고 하는데, 본품(本品)에서는 전적으로 협의의 뜻만을 취하여 ‘불이(不二: 깨달음의 경지) 본체의 입구’를 가리킨다. 당나라 승려 규기(窺基)는 『설무구칭경소(說無垢稱經疏)』 권 10에서 “생사의 번뇌가 사라진 경지의 지혜에 통달하여, 깨달음의 입구에 서 있음을 이르는 것이다(能通生死無漏智解, 立以門名).”고 하였다. 진정 생사를 초월한 경지에 도달해서, 번뇌가 사라진 경지의 지혜를 터득하는 입구에 서야 만이, 이것을 일컬어 ‘문(門)’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당나라 승려 잠연(潛然: 711~782)이 『유마경약소(維摩經略疏)』 권9에서 “법(法)과 문(門)은, 역시 한 가지 의미인데, 약칭한 곳에서 명칭을 달리한 것일 따름이다(法與門, 還是一法, 約用處名異).”고 말하였다.

간단히 말해서, 이곳에서의 법문(法門)은, 보살들이 어떻게 해서 현상계(現象界)의 이(二: 방황하는 단계)에서 본체계(本體界)의 불이(不二: 깨달음의 경지)의 경로로 들어가는가를 설명하는 것으로, 그것은 흡사 하나의 출입구이고,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이 출입구는 우리로 하여금 분별(分別)하고 집착하고 번뇌하는 상대세계(相對世界)에서, 분별(分別)함이 없고 취사(取捨)함이 없는 절대세계(絕對世界)로 진입하게 하는 이것이 바로 법문(法門)이다. 불이(不二)의 통로에 진입하는 길은 아주 다양하다.

- e. 입불이법문(入不二法門): 본체세계(本體世界)는 불이(不二: 깨달음의 경지)의 세계로서, 일체의 대립을 해소하고, 인간사회의 중생을 이롭게 할 수 있으며, 세속적인 상대성(相對性)을 떠난 것이지만, 이 세계를 떠난 것은 아니다. 깨달음의 경지에 진입한 사람은, 세속적인 고뇌는 없지만, 인간적인 도업(道業: 직업, 영생營生, 불도교화사업佛道教化事業)은 가지고 있다. 이러한

깨달음으로 현상계에 살면서도[二] 깨달음의 경지에 진입했으며[不二], 깨달음의 경지에 진입했으면서도[不二] 현상계에 살고 있는 상태[二]인 것이다(入不二法門, 二而不二, 不二而二). 잠연(潛然)이 『유마경약소(維摩經略疏)』 권9에서 말했듯이, “생사를 거둬하는 윤회하는 단계를 멈추지는 못했지만, 열반(涅槃: 번뇌의 얽매임에서 벗어나 진리를 깨달음)의 경지에 오른 현상계의 사람은, 또한 생사를 거둬하는(윤회하는) 단계를 떠나지는 못했으면서도, 열반(涅槃)한 깨달음의 경지에 진입한 사람이다(不住生死, 涅槃之二, 亦不離生死, 涅槃之二). 이 두 마디 말은 방황하는 단계의 영역(서로 대립하는 두 가지 입장)을 초월했다는 것이고, 깨달음의 경지[不二의 경지]에 진입했다는 것이며, 중도(中道: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중정(中正)의 도로, 서로 대립하지 않음)에 도달했다는 것으로, 이것을 일컬어 ‘입불이법문(入不二法門)’이라고 한다(雙捨二邊, 及不二邊, 通至中道, 稱爲入不二法門)”고 하였다.

이러한 행복한 세계를, 주·객관으로 분류하여 말한다면, 아래와 같다. 먼저 주관적 입장에서 ‘입불이법문(入不二法門)’을 논한 것으로, 수나라 승려 길장(吉藏: 549~623)은 그의 저서 『정명현론(淨名玄論)』 권2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어떤 종파(宗派)의 사람은 말하기를, ‘불이법문(不二法門)’이란 진제(眞諦: 진리, 진실)의 도리이다(有人言, 不二法門則眞諦理也)”라고 한다.

둘째, 어떤 종파의 사람은 말하기를, 불이법문은 실상반야(實相般若)이다(有人言, 不二法門謂實相般若)’라고 한다. 이 실상반야란 곧 반야(般若: Prajñā: 모든 실상을 깨닫고 불법을 꿰뚫은 최상의 지혜)의 이치를 표현한 경전, 즉 문자반야(文字般若)를 비롯하여, 물질이나 정신 등 모든 것(즉 모든 법), 형태나 모습이 없는 것[無相]까지도 모두 반야에 의하여 관조되는 경계로써 반야 그 자체는 아니지만 반야의 지혜를 내는 것이므로 반야로 증득할 수 있는 이치 그 자체를 말한다.

셋째, 어떤 종파의 사람은 말하기를, ‘불이법문(不二法門)’은 성정열반(性淨涅槃: 일체의 모든 사물과 현상[法]의 본성에 감추어진 진여(眞如: 우주 만유에 보편한 상주 불변하는 본체의 이치 그 자체)의 아리야식(阿梨耶識: ālaya-vijñāna: 마음의 존재 또는 그 구조 가장 보편적인 식識의 작용. 잠재의식)이다(有人言, 不二法門則性淨涅槃阿梨耶識)’고 한다.

넷째, 어떤 종파의 사람은 말하기를, ‘불이법문(不二法門)’은 아마라식(阿摩羅識: anala-vijñāna: 미혹을 버리고 깨달음의 모습으로 전환한 청정한 위치에 이른 것)의 자성청정심(自性清淨心: 사람이 본래부터 갖추고 있는 추악한 마음을 여린 천부적인 맑은 마음)이다(有人言, 不二法門謂阿摩羅識自性清淨心)’고 하였다.

이상의 불이법문(不二法門)에 관한 4종(四宗: 북제北齊의 대연사大衍寺에서 인도의 승려 담은曇隱이 석가일대의 불교 종파를 네 가지로 분류한 것으로, 인연종因緣宗, 가명종假名宗, 부진종不眞宗, 진종眞宗을 말함)의 주관적 견해 중에, 앞의 두 가지는 개략적인 경계(境界)로 개념을 정리한 것이고, 뒤의 두 가지는 마음을 근거로 하여

개념을 정리한 것이다(四宗之中, 初二約經, 後兩據心).”

불이법문(不二法門)을 객관적인 면에서 보면, ‘불이(不二: 깨달음에 진입한 경지)’는 우주 안의 절대적 진리로, 불교의 최종적이며 가장 높은 목적의 (긍정적인) 실상(實相)이다. 주체적인 면에서 말한다면, ‘불이(不二)’는 심식(心識)이 완전히 정화(淨化)된 상태이다. 이러한 주·객관적인 측면에 모두 원만하게 도달하는 것이, 바로 ‘불이(不二)’ 본체의 이상경계(理想境界)이다.

(위의 ‘불이문不二門’에 관한 주석은 대만臺灣 화범대학교華梵大學校 중문학과 허중흥許宗興 교수의 논문 「유마힐경維摩詰經·입불이법문품入不二法門品 논석論釋」 중에, ‘2. 입불이법문의 초보적 해석(二, 入不二法門 初釋)’편을 축약하여 본 주석에 임했음을 밝힌다.)

*유마(維摩: 생물된 미상): 이는 석가모니(釋迦牟尼: Śākya-muni)의 속제자(俗弟子: 재가제자가在家弟子)인 비말라 카르티(Vimala Kirti)의 음역(音譯)이다. 비마라힐(毘摩羅詰)이라고도 하고 유마힐(維摩詰)이라고도 하며, 줄여서 유마(維摩)라고도 한다. 산스크리트어(Sanskrit語: 범어梵語: 고대 인도의 표준 문장어)로 비마라힐(Vimalakirti)의 뜻은 정명(淨命: 깨끗한 이름 또는 무구칭(無垢稱: 때 묻지 않는 이름))이라 번역된다. 이 사람은 고대 중인도(中印度)의 상업도시 비야리국(Vaiśālī: 毘耶離國: 비사리국毘舍離國이라고도 함)의 장자(長者: 대부호大富豪)로서 속가(俗家)에 있으면서 보살 행업을 닦은 사람이며, 그 수행(修行)이 높아서 불제자(佛弟子)로도 미칠 수 없었다고 한다.

*『유마경(維摩經)』 3권: 406년 (후진後秦 홍시弘始 8년八年)에 장안대사(長安大寺)에서 번역 출간되었는데, 구마라습(鳩摩羅什: Kumārajira: 343~413: 인도의 승려)이 번역했다고 한다. 정식 책명은 『유마힐소설경(維摩詰所說經)』이라고 하며, 『불가사의해탈경(不可思議解脫經)』 또는 『정명경(淨命經)』이라고도 한다.

이 경전은 『반야경(般若經)』에서 말하는 ‘공(空)’사상에 기초한 윤회(輪回)와 열반(涅槃: 모든 번뇌의 얽매임에 벗어나고, 진리를 깨달아 불생불멸의 법을 체득한 경지), 번뇌와 보리(菩提: 깨달음: 불교 최고의 이상인 불타(佛陀: 부처) 정각(正覺: 부처의 깨달음)의 지혜), 예토(穢土: 부정不淨한 땅이라는 뜻으로 ‘이승’을 이룸)와 정토(淨土: 부처나 보살이 사는 번뇌의 굴레를 벗어난 아주 깨끗한 세상) 등의 구별을 떠나, 일상생활 속에서 해탈의 경지를 체득하여야 함을 유마힐(維摩詰)이란 주인공을 내세워 설화식으로 설법(說法)한 책이다.

(앞에서 말한 ‘공공’사상에는 인공人空과 법공法空 두 가지로 나눈다. ‘나’라고 하는 것은 오온(五蘊: 다섯 가지의 구성 요소: 다섯 가지의 집합체)이 화합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 참으로 ‘나’라고 할 만한 실체는 없음을 이르는 말이다. 여기서 말하는 오온五蘊은 중생의 심신을 다섯 가지로 분류한 것인데, 그것은 색온(色蘊: 신체), 수온(受蘊: 감각, 감각을 받아들이는 정신 작용), 상온(想蘊: 어떤 일이나 사물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상상하여 보는 여러 가지의 감정과 생각), 행온(行蘊: 의지적 행위의 집합, 잠재적 형성력의 집합, 충동적 욕구에 해당될 마음의 작용), 식온(識蘊: 인식 작용, 식별 작용) 등의 다섯 가지를 말한다. 사람의 개인 존재는 물질적인 것은 ‘색色’ 한 가지와 정신적인 것, 즉 나머지 네 가지인 ‘수受, 상想, 행行, 식識’의 집합체로 된 것 이외에 독립된 진정한 자아自我는 없다는 뜻이다. 그래서 인공人空, 또는 아공我空, 생공(生空: ‘중생의 공공’을 줄인 말)이라고 하는 것이다. 법공法空은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인연因緣에 의해 생기기 때문에,

실제로의 자아는 없다. 즉 모든 현상은 고정적인 실체가 없다는 뜻에서 ‘공(空: 결여되어 있음, 존재하지 않음)’이라고 하는 것이다)

유마힐(維摩詰)이 병중에 있을 때 문수보살(文殊菩薩: Manjusri: 석가모니여래의 왼쪽에 있는 보살이 제불諸佛의 지혜를 맡은 보살로, 오른쪽에 있는 보현보살(普賢菩薩: 불교의 진리와 수행의 덕을 맡았음)과 함께 삼존불三尊佛을 이룸) 이 여러 성문(聲聞: 가르침을 듣는 수행승)과 보살들을 데리고 문병하러 왔다. 그때 유마힐은 여러 가지神通(神通: 훌륭한 지혜)을 보여 불가사의한 해탈상을 나타내고, 서로 문답하여, 일체제법(一切諸法: 일체 모든 사물)은 모두 인연(因緣)에 의하여 생기며, 실체(實體)가 없고 일법(一法: 한 가지의 일, 한 가지의 사물)으로 머무는 일이 없으며, 머무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체(體: 그 사물 자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머무는 곳이 없다는 무주(無住)의 근본으로부터 일체법(一切法: 일체의 현상적 존재: 일체의 사물: 모든 현상)이 성립되는 것과 삼라만상을 들어 모두 불이(不二)의 일법(一法) 중에 돌려보내는 법문(法問: 진리의 가르침)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유마힐은 입을 다물고 잠자코 있으면서 말없는 것으로써 ‘불가언불가설(不可言不可說)의 뜻’을 표현하여 문수보살을 감탄케 하였다.

『유미경』은 산스크리트어(Sanskrit 語: 고대 인도의 표준 문장어)로 된 원전(原典)은 전해지지 않고, 티베트어(Tibet 語) 번역본과 한역본(漢譯本) 몇 권이 전해진다. 현존하는 한역본으로는 한(漢)나라 때 고승(高僧) 지겸(支謙: 자는 공명恭明, 월지국月氏國 사람으로 헌제獻帝의 난(190~220)을 피해 오호나라로 가서 손권孫權의 박사가 됨)이 번역한 『불설유마힐경(佛說維摩詰經)』 2권과 인도의 승려 구마라습(鳩摩羅什: Kumārajira: 343~413)이 401년 장안(長安)으로 들어와 번역한 『유마힐소설경(維摩詰所說經)』 3권, 그리고 당나라 승려 현장(玄奘: 602~664)이 번역한 『설무구칭경(說無垢稱經)』 6권이 있다. 이 중에서 티베트어 번역본이 원전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장(玄奘) 번역본이 이와 일치하는 점이 가장 많지만, 전통적으로 구마라습 번역본이 가장 많이 읽히고 있다.

*『유미경(維摩經)·입불이법문품(入不二法門品)』: “이와 같이 여러 보살이, 각자의 견해를 밝히고 나니, 유마힐이 문수보살에게 묻기를, ‘어떤 것이, 보살의 깨달음의 경지로 진입하는 도리입니까(如是諸菩薩, 各各說已, 問文殊師利: 何等是菩薩, 入不二法門)?’라고 하니, 문수보살이 대답하기를, ‘저의 생각으로는, 모든 현상적 존재에 대해서, 말로는 설명할 수 없고 보여줘서 인식시킬 수도 없으며, 문답을 통해 분석할 수도 없는 것이 깨달음의 경지로 진입하는 도리입니다(文殊師利言: 如我意者, 於一切法, 無言無說, 無示無識, 離諸問答, 是爲入不二法門)’라고 하였다. 그래서 문수보살이, 유마힐에게 묻기를, ‘우리는 각자의 견해를 이미 말씀드렸거니와 당신께서는 어떤 것이, 보살의 깨달음의 경지로 진입하는 도리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於是, 文殊師利, 問維摩詰: 我等, 各自說已, 仁者, 當說何等, 是菩薩, 入不二法門)?’라고 하니, 이 때, 유마힐은 묵묵히 아무 말이 없거늘, 문수보살이 탄식하면서 말하기를,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심지어, 문자나 언어로 조차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의 경지로 진입하는 도리입니다(時, 維摩詰, 默然無言, 文殊師利, 歎曰: 善哉善哉! 乃至, 無有文字言語, 是真入不二法門)’”라고 하였다. 이 『입불이법문품(入不二法門品)』을 강설(講說)할 때, 이 대중 가운데 5천 명의 보살이, 모두

깨달음의 경지로 진입하여, 일체의 존재 사물이 불생불멸(不生不滅 : 생겨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아 항상 변하지 않는다[常住]는 깨달음의 경지를 형용한 말)한다는 이치를 체득(體得 : 몸소 체험하여 알게 됨)하였다(說是入不二法門品時, 於此衆中五天菩薩, 皆入不二法門, 得無生法忍)”고 한 대목이 있다.

(『유마경(維摩經) · 입불이범문품(入不二法門品)』을 번역함.)

- 6) 증유시정소미진(縱有詩情道未盡 : 설령 시적 정취 아직은 다 소진되지 않았다 해도) :
 - ① 증(縱) : 접속사, 설령 ~일지라도.
 - ② 시정(詩情) : 시적 정취.
 - ③ 소미진(消未盡) : 아직 다 사라지지는 않았다.
- 7) 불응중작세간어(不應重作世間語 : 세속적 언론을 거듭 시로 지어 호응하진 않는다네) :
 - ① 불응(不應) : 호응하지 않는다.
 - ② 중작(重作) : 거듭해서 ~을 짓다.
 - ③ 세간언(世間言) : 세속적인 언론 혹은 세간의 언어(말).



시74. (북송北宋의 대신)충선忠宣 범순인范純仁은
영주永州에 (좌천되어) 있을 때, 문을 닫아
놓고 방문객의 면회를 사절하였다.
손님이 굳이 접견하려고 하면 상면은
했으나, 날씨가 추우니 따듯하니
따위의 인사치레만 나누다가, 손님에게
음揖을 하고는 맞은편에 누워서 자는데,
코고는 소리가 우레같이 요란했다.
잠을 자다가 손님은 늘 날이
저물어서야 돌아갔다고 한다

詩74. 范忠宣在永州 閉門謝客¹⁾ 固欲見則但問寒暄²⁾
범 충 선 재 영 주 폐 문 사 객 고 욕 견 즉 단 문 한 환
揖客³⁾ 對臥 鼻息如雷 睡覺⁴⁾ 常及暮而去
읍 객 대 와 비 식 여 퇴 수 각 상 급 모 이 거

堯夫⁵⁾在永州,
요 부 재 영 주

요부堯夫 범순인范純仁은 영주永州에
(좌천되어) 있을 때,

閉門不見人。
폐 문 불 견 인

문을 닫아 놓고 방문객을 접견하지
않았다네.

客到常對睡⁶⁾,
객 도 상 대 수

방문객이 오면 늘 함께 잠을 자다가

日西始欠伸⁷⁾。
일 서 시 흠 신

해질 무렵에야 하품하며 기지개를
폈다네.

從知睡鄉樂⁸⁾，
종 지 수 향 락

잠에 빠져드는 즐거움을 제대로
터득하고부터,

有勝平生親⁹⁾。
유 승 평 생 친

(잠자는 것이) 평소에 벗과 친교親交하는
것보다 낫다했다네.

此意已云苦¹⁰⁾，
차 의 이 운 고후

이러한 태도는 괴롭다는 말을
안하려함이니,

此事不足嗔¹¹⁾。
차 사 불 족 진

이러한 처사 비난할 일만은 아니로세.

睡罷兩無語¹²⁾，
수 파 양 무 어

잠에서 깨어나도 두 사람은 할 말이
없었으니,

忘形誰主賓¹³⁾？
망 형 수 주 빈

자기마저 잊었는데 누가 주인이고 누가
객인가?

搔首各分散¹⁴⁾，
소 수 각 분 산

머리를 긁적이며 각기 헤어지는데,

倒着白綸巾¹⁵⁾。
도 착 백 룬 건

흰 두건을 앞뒤 방향 돌려 거꾸로
썼다네.

兒童撫掌笑¹⁶⁾，
아 동 무 장 소

아이들은 손바닥을 치면서 웃어댔고,

識者爲酸辛¹⁷⁾。
식 자 위 산 신

사정을 아는 식자識者들은 쓴웃음
지었다네.

送客不出門，
송 객 불 출 문

손님을 보내면서 문 밖에 나가지도
않았는데,

滿園桃李春。
만 원 도 리 춘

뜰에는 온통 도리화가 만개하는
봄이었다네.

還尋一榻¹⁸⁾臥，
환 심 일 탐 와

또 다시 긴 평상으로 다가가 누우면서,

不復戀芳辰¹⁹⁾。
불 부 연 방 진

다시는 좋은 시절에 연연해하지
않았다네.

- 1) 범충선 재영주 폐문사객(范忠宣在永州 閉門謝客 : 충선忠宣 범순인范純仁은 영주永州에 <좌천되어> 있을 때, 문을 닫아놓고 방문객의 면회를 사절하였다) :

① 범충선(范忠宣) : 범순인(范純仁).

☆범순인(范純仁 : 1027~1101) : 북송(北宋)의 대신(大臣)으로, 자는 요부(堯叟), 시호(諡號)는 충선(忠宣)이며, 소주(蘇州) 오현(吳縣), 지금의 강소성(江蘇省) 소주현(蘇州縣) 사람이다. 당시 사람들은 그를 ‘포의재상(布衣宰相 : 평민이 입을 옷을 걸치고 생활한 재상이란 뜻으로, 그는 일상생활에서 근검절약하였으며 아주 서민적 이어서 비유적으로 얻어진 별칭임)’이라고 불렀으며, 정치가이자 학자인 범중엄(范仲淹 : 989~1052)의 차자(次子)이다.

일찍이 그는 세칭(世稱) 안정 선생(安定先生)이라 불리던 학자 호원(胡瑗 : 993~1059)과 태산 선생(泰山先生)이라 불리던 손복(孫復 : 992~1057)에게 수학하였다. 인종(仁宗) 황우원년(皇祐元年 : 1049)에 진사에 급제하였으며, 부친의 타계(他界)후 탈상을 하고 나서 벼슬길에 나아가기 시작했다.

그는 양성현(襄城縣 : 지금의 하남성河南省 양성현襄城縣)의 지현(知縣 : 현縣의 장관)으로 시작하여, 상서병부원의랑(尙書兵部員外郎 : 상서성<尙書省 : 중앙집행정부의 총괄기구>과 병부兵部속의 원외랑<員外郎 : 장관인 시랑侍郎을 보좌하는 차관>겸 기거사인<起居舍人 : 황제를 시종하면서 그 언행을 기록하는 관리>을 거쳐, 시어사<侍御史 : 문무관원들의 기강확립과 감찰, 율령律令 감독, 어가御駕 호위, 관원의 비행非行에 대한 탄핵 등의 업무를 수행함>을 역임하였으며, 동지간원<同知諫院 : 간의기구諫議機構로서 황제를 대상으로 간언諫言을 직무로 하는 기관인 간원諫院의 차관>에 임명되었다.

당시의 정치적 상황은, 왕안석(王安石 : 1021~1086)의 신법(新法)이 제정되던 때였다. 신종(神宗 : 1048~1085)이 처음에 왕안석(王安石 : 1021~1086)을 재상으로 삼으려고 하자, 조정 대신(大臣) 한기(韓琦 : 1008~1075)와 여회(呂誨 : 1014~1071)등은 모두 반대하였다. 그들은 모두 왕안석이 현실을 너무 모르는 논의를 하고 있어서 재상에 취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의 평가는 결국 같은 과거리 싸고돌면서 다른 파를 배척하는 형국이 되었다. 왕안석은 그래서 신진세력을 규합하여 신법(新法 : 법규와 제도를 바꾼다는 뜻에서 변법變法이라고도 함)을 강행하였다. 이에 적극 협조한 사람은 여혜경(呂惠卿 : 1032~

1112)과 증포(曾布: 1036~1107) 그리고 장돈(章惇: 1035~1106)과 한강(韓絳: 1012~1088) 등이었다. 이들은 학식이나 능력 면에서 부족한 점이 없었으나 품행과 지조 면에서는 부족하였다. 여혜경 같은 사람은 꽤 변덕스러웠고, 증포 같은 사람은 자기과파 아니면 극구 배척하였다.

신법(新法)을 반대한 사람들은 부필(富弼: 1004~1083) · 한기(韓琦: 1008~1075) · 문언박(文彦博: 1006~1097) · 구양수(歐陽脩: 1007~1072) · 정호(程顥: 1032~1085) · 여공저(呂公著: 1018~1089) · 유지(劉摯: 1030~1097) · 소식(蘇軾: 1037~1101) · 범순인(范純仁: 1027~1101) 등이었는데, 이들은 모두 좌천 배척되었다. 여회(呂誨: 1014~1071)와 사마광(司馬光: 1019~1086)은 스스로 물러났다. 이들은 달가워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기회만 오면 신당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여회와 사마광 두 사람은 신법의 전부를 반대했고, 기타 사람들 대부분은 신법 중 일부분을 반대했다. 이는 지역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었다. 구당(舊黨) 대신들은 대부분 북방사람들이었고, 신당(新黨) 대부분은 남방 사람이었다. 당시 송나라 경제 · 문화 등의 조건 역시 남방이 북방보다 월등하게 앞섰고, 남방의 정치인도 많이 배출되었다. 지리적 환경이 다른데다가 사회적 풍습마저 달라 융합하기 어려웠다. 남방의 지식인들은 급진적이었고 북방의 지식인들은 보수적 태도를 견지했다. 당시 국난을 극복하기 위한 왕안석의 신법의 의도는 좋았지만, 지나치게 이상(理想)에 치우쳐 현실을 간과했고, 전통적 유가사상(儒家思想)이 강한 보수적 인사들과 타협하지 못하고 인화(人和)하지 못했다. 게다가 신법을 시행하는 관리들의 비협조로 백성들을 불편하게 하는 곳이 발생함을 면할 수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북방의 요(遼)나라와 서방의 하(夏)나라 간의 외교적 실패는 구당(舊黨)의 신당에 대한 공격 구실이 되었다. 그래서 왕안석의 신법은 길게 유지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었다.

범순인은 왕안석의 신법 전부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면역법(免役法) 같은 것은 마땅히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사마광에 의해 거절되었다. 그러나 신종(神宗) 희녕 2년(熙寧二年: 1069)에 신법은 시행되었고, 범순인은 왕안석(王安石: 1021~1086)의 신법(新法)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격하게 비판하다가 하중부(河中府: 지금의 산서성山西省 영제시永濟市 서남 24리 포주진蒲州鎭)의 지주(知州: 지방행정기구 주州的 장관)로 쫓겨났다. 그 후 성도로 전운사(成都路 轉運使: 지금의 사천성四川省 성도현成都縣과 화양현華陽縣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소금 · 철 · 양곡 등 각종 물자 운송 업무를 수행하던 관리)로 좌천되었다.

그 후 부하 관리들에 대한 감찰을 못했다는 이유로 다시 화주(和州: 지금의 안휘성安徽省 화현和縣) 지주(知州)로 좌천된 뒤, 경주(慶州: 지금의 감숙성甘肅省 경양현慶陽縣) 지주(知州)를 거쳐 신양군(信陽軍: 지금의 하남성河南省 신양현信陽縣 남쪽 40리)의 지주로 전근되었다. 그 후 관구 서경유사 어사대(管勾西京留司御史臺: 북송 당시에 설치된 삼경유사 어사대三京留司御史臺 중의 하나로 지금의 하남성 낙양시洛陽市에 설치된 관서官署 명칭이다. 비리에 연관된 문무관을 탄핵하는 업무를 관장하였음)로 전직되었다가 다시 하중부(河中府) 지주(知州)와 경주(慶州) 지주(知州)로 좌천되었다.

원풍 8년(元豐八年: 1085) 신종(神宗)이 타계하고 그 이듬해, 나이 겨우 10세였던 태자가 등극하였으니 철종(哲宗: 재위기간 1086~1100)이었다. 철종의 재

위 기간은 겨우 15년, 그동안의 전반기 8년은 신종(神宗)의 모친인 태황태후(太皇太后: 철종의 조모) 고씨(高氏)가 수렴청정(垂簾聽政)을 하였고, 연호(年號)를 원우(元祐)라고 하였다. 원우년간(元祐年間: 1086~1093)에 구신(舊臣: 보수파 신료)들이 등용되면서 왕안석의 신법이 반복 변경되었는데, 중국 역사에서는 이것을 ‘원우경화(元祐更化)’라고 한다. 이것이 ‘원우년간’의 전반기의 일 단락이다. 원우원년(元祐元年: 1086)에 사마광이 재상이 되고, 왕안석은 타계하였다. 또한 이 해에 사마광도 타계한다. ‘원우년간’의 후반기 7년은 철종의 친정기간(親政其間)으로, 연호(年號)를 소성(紹聖: 1094~1097)과 원부(元符: 1095~1100)로 정했는데, 이 기간에 왕안석의 신법(新法)을 폐기시켰던 구법(舊法)을 반복 폐기하고, 신종(神宗)의 신정(新政)을 계승하였는데, 이것을 사칭(史稱) ‘소성소술(紹聖紹述: 소성년간紹聖年間에 신종神宗의 신정新政을 계승한다는 뜻임)’이라고 한다. 이것이 철종 재위 기간 동안의 개략이다.

원풍 8년(元豐八年: 1085) 3월에 신종(神宗)이 타계하고 태자 조후(趙煦: 1077~1100)가 즉위하니 이 사람이 철종(哲宗)이다. 나이 10세에 불과한 철종이 즉위하고 태황태후(철종의 조모) 고씨(高氏)가 수렴 청정하는 상황이 되었다. 사마광(司馬光: 1019~1086)과 왕안석(王安石)은 정적(政敵)이자, 관념이 달라 사이가 안 좋았다. 태황태후는 사마광과 정치적 이념이 부합했다. 그래서 집권하자마자 왕안석일파를 대거 숙청했다.

이 와중에서 범순인(范純仁)도 마침내 소환되어 급사중(給事中: 정4품직. 황제 좌우에서 고문顧問에 응대함)에 제수(除授)된 후, 이부상서(吏部尙書)로 승진되고, 원우원년(元祐元年: 1086)에 동지추밀원사(同知樞密院事: 추밀원樞密院의 부장관으로 2품 벼슬임. 황제의 병정兵政에 관한 업무 보좌, 기밀 업무 처리 등 업무를 함)에 임명되었다가, 원우 8년(元祐八年: 1093)에 재상이 되었다.

원우 8년(元祐八年: 1093) 태황태후(太皇太后) 고씨(高氏)가 병몰(病沒)했다. 철종(哲宗)의 친정(親政)이 시작되었다. 태황태후의 섭정 당시 황제는 매사에 주도권이 없어, 어린 나이지만 은연중에 불만과 반감(反感)이 쌓여있었다. 이러한 황제의 심리를 간파한 야심가들은 황제의 심리를 이용하여 세력을 확고히 하려 하였다. 그 대표적 인물이 예부시랑(禮部侍郎)으로 있던 양외(楊畏: 1044~1112)였다. 그는 원래 재상 여대방(如大防: 1027~1097)을 보좌하던 사람이었으나, 태후가 죽고 여대방이 산릉사(山陵使: 제후帝后의 능침陵寢에 관한 업무를 관장함)로 출궁(出宮)한 사이에, 철종을 부추겨 구법(舊法)을 폐기하고 다시 왕안석의 신법(新法)을 계승하도록 조처하였다. 동시에 소식(蘇軾: 1036~1101)과 범조우(范祖禹: 1041~1098) 등 구법(舊法) 지지자들을 줄줄이 숙청하였다. 왕안석의 신법(新法)은 원래 국가를 위한 개혁 법안이었지만, 당파싸움이 극렬해지면서 법안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정치적 이념에 따라 시비를 가렸다.

이 부패한 당쟁이 격화된 와중에서 소성원년(紹聖元年: 1094) 장돈(章惇)은 재상이 되고 범순인(范純仁)은 다시 영창부(潁昌府: 지금의 하남성河南省 허창시許昌市)와 하남부(河南府: 지금의 하남성河南省 낙양시洛陽市) 지현(知縣)으로 좌천되었다가, 진주(陳州: 지금의 하남성河南省 회양현淮陽縣)로 전근되었다. 그 이듬해인 소성 2년(紹聖二年: 1095) 여대방(呂大防)을 영남(嶺南: 오령五嶺 이남

지역을 가리킴)으로 추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상소를 올렸다는 이유로 낙직(落職)되었다가 감면되어 수주(隨州: 지금의 호북성湖北省 수주시隨州市)에 지현(知縣)으로 좌천된 후, 소성 4년(紹聖四年: 1097)에 영남(嶺南)으로 추방, 지금의 호남성(湖南省) 장사시(長沙市)의 절도부사(節度副使)로 좌천되었다가, 영주(永州: 지금의 호남성湖南省 영주시永州市)로 좌천되었다. 영주(永州)에서 3년을 거주하였는데, 이 때 안질(眼疾)이 악화되어 두 눈이 실명(失明)되었으나 그는 태연하게 업무에 대처했다.

휘종(徽宗: 1082~1135: 철종哲宗의 동생. 성명은 조길趙佶)이 즉위하고, 채경(蔡京: 1047~1126)이 국사를 주재했다. 휘종은 철종 재위 시 사마광(司馬光)과 소식(蘇軾) 등 원우년간(元祐年間)의 제신(諸臣) 100여 명을 간당(奸黨)이라 간주하고 모두 숙청했다.

범순인(范純仁)은 관문전대학사(觀文殿大學士: 인종仁宗 재위 시에 총애하던 전직 재상을 우대하여 주던 직함이었음. 신종神宗 시에는 종2품직으로 황제를 시종侍從하면서 서자문諮問에 응하도록 한 명예직이었음)에 귀임(歸任)하라고 명받았으나, 실명(失明)으로 귀향할 것을 간청하자, 중태일궁사(中太一宮使: 신종神宗 희녕 4년(熙寧四年: 1071년)에 경성京城에 중태일궁中太一宮이란 사원寺院을 지어놓고 전직 재상들을 관리하였음. 맡은 직무는 없어도 봉록을 받던 이러한 관명官名을 사록지관祠祿之官이라 하였음)에 충당(充當)됐다. 건중정국원년(建中靖國元年: 1101)에 타계하니 향년 75세였다. 저서에 『범충선공집(范忠宣公集)』이 있다.

범순인의 성격은 온화하고 겸손했으며, 사람을 대할 때 견해 차이로 인해 감정에 자극을 받아 안색을 바꾸거나 목성을 높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정의(正義)의 사실에 입각한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벼슬을 하지 못했을 때의 선비시절부터 재상이 된 후까지 그는 시종여일하게 청렴(淸廉)하고 절검(節儉)했다.

그는 일찍이 말하기를, “내가 일평생 배운 것은, 오직 ‘충(忠: 충성)과 서(恕: 용서)’ 두 글자를 (행동으로) 완성하는 것이었는데, 일생동안 다행히도 그것을 다 실행하지 못했다.(吾平生所學, 得之忠恕二字, 一生用不盡). 조정에서 군주를 모시면서나 동료나 벗들을 접대하면서, 그리고 친척, 종친들과 화목함에 이르기까지, 잠시도 이 두 글자를 떠나본 적이 없다(以至立朝事君, 接待僚友, 親睦宗族, 未嘗須臾離此也)”고 하였다.

그리고 “자제들에게 매 번 경계해서 이르기를: 사람은 비록 지극히 어리석지만, 남을 꾸짖고 나무랄 때는 명석하고 비록 총명하다 해도 자기를 너그럽지 못하면 용서할 때는 명청해진다(每戒子弟曰: 人雖至愚, 責人則明, 雖有聰明, 恕己則昏). 진실로, 남을 꾸짖고 나무라는 마음으로 자기를 꾸짖고 나무랄 수 있으며, 자기를 너그럽지 못하면 용서하는 마음으로 남을 너그럽지 못하면 용서할 수 있다면, 성현(聖賢)의 경지에 이르지 못할 것을 근심할 것이 없다(苟能以責人之心責己, 以恕己之心恕人, 不忠不至聖賢地位也)”고 하였다.

그리고 또 훈계하기를, “육경(六經: 『시경(詩經)』·『서경(書經)』·『예기(禮記)』·『악기(樂記)』·『역경(易經)』·『춘추(春秋)』)은 성인의 전고(典故: 전례典例와 고사故事)이다(六經, 聖人之事也). 한 자를 알면 한 자를 행하는 것이니, ‘창졸간에 곤궁해져 좌절감에 부닥치는 그 순간에도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즉 이른바 ‘장래성이 있는 자도 역시 이와 같은 것’일 따름이다(知一字則行一字, ‘要須造次顛沛必於是’, 則所謂‘有爲者亦若是’爾). (성인聖人의 경지가) 어찌 사람에게 달려 있지 않겠는가(豈不在人邪)?”라고 하였다.

범순인의 사람됨은 정도(正道)를 걷는 사람으로, 그의 정치적 견해는 사마광과 같은 보수파에 속한다. 희녕 2년(熙寧二年: 1069) 7~8월경에, 범순인은 황제에게 상소를 올려, 공개적으로 왕안석을 “세금을 가혹하게 거둬들여 무리하게 백성의 재물을 빼앗는 사람(掊克財利)”이라고 질책하면서, 왕안석의 신법(新法: 변법變法)을 반대했던 까닭에 좌천되어 변방으로 추방되었다. 그 뒤 사마광이 재상 직에 복직되고 나서 완강하게 “청묘법(靑苗法: 봄, 가을에 관공에서 백성에게 돈과 곡식을 싼 이자로 꾸어주던 제도. 대지주의 고리채高利債로 인한 농민의 몰락을 방지하고 조정의 세입 증가를 도모한 정책임)”과 “면역법(免役法)”마저 일괄적으로 폐지하라고 하자, 이에 대해서 범순인은 그로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종래의 이 면역법은 다음과 같은 폐단이 극심했기 때문이다.

면역법은 옛적의 차역제도(差役制度)를 모역제도(募役制度)로 바꾼 것이기에, 모역법(募役法)이라고도 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나라 초기의 제도는 민가를 빈부에 따라 9등급으로 나누어, 무보수로 나라를 위해 일정 기간의 무적 부역을 했는데, 이 중에 명관(命官: 임명된 관리)이나 장리(將吏: 군관(軍官) 그리고 승도(僧道: 승려와 도사) 등은 면세였다. 부역자 중에 아전(衙前)과 이정(理正) 곧 이장(里長) 및 호장(戶長) 곧 납세를 독촉하는 향관(鄉官)의 부담은 엄중했다. 이들은 창고를 관리하거나 관용 물자를 운송하거나 세금 부과 및 수납 등을 관리했는데, 임무수행 중에 결손 되거나 분실되는 경우 모두 변상해야 했다. 그래서 이들은 부역에 종사하거나 종종 파산했고, 관역(官役)을 피하려고 자살도 했으며 분가(分家)하여 재산을 매각해버리는 비참한 현상이 왕왕 발생했다. 더구나 교활한 사람들은 도첩(度牒: 출가 증명서)을 발급받아 현실을 도피하기도 하였다. 송나라 초기의 역법(役法)은 일종의 학정(虐政)이었다. 그래서 왕안석은 이 면역법을 개혁하였던 것이다. 왕안석은 부귀를 표준으로 백성을 5등급으로 분류한 다음, 면역전(免役錢: 부역 대신에 납부하던 세금)을 등급에 따라 납부하도록 했다. 본래 차역(差役: 부역)의 의무가 없던 단정(單丁: 형제가 없는 성인 남자), 여호(女戶: 부녀자가 호주로 되어 있는 민가), 관호(官戶: 관원의 가족), 승도(僧道), 호신(豪紳: 횡포한 지방 유력자) 등에게 조역전(助役錢: 면역하는 대신에 부역에 협조하는 의미로 내던 세금)을 납부하게 하여, 조정에서는 이 돈으로 실업자를 싼 임금으로 모역(募役: 부역자를 모집함)하면서, 백성을 부역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면역법을 일괄하여 전면폐지하라고 하자, 범순인은 사마광에게 말하기를, “그 신법(新法)의 부작용이 심한 것만을 폐기하면 됩니다. 면역법(免役法) 같은 사안(事案)은, 더구나 마땅히 줄곧 토론하면서 조금 연기해서 시행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백성에게 고난이 발생합니다(去其泰甚者可也. 差役一事, 尤當熟講而緩行, 不然, 滋爲民病). 원컨대 공(公)께서는 마음을 비우시고 중론(衆論)에 부처 결정하시기를 바라며, 자기파, 즉 구파(舊派)를 위해서 「신법(新法)」을 폐기하려고 하지는 마십시오(願公虛心以延衆論, 不必謀自己出). 자기파를 위해서 「신법(新法)」을 폐기하려 하면, 아첨하는 무리들이 이 틈을 타고

영합(迎合)하려고 합니다(謀自己出, 則諂諛乘間迎合矣!)”고 하였다. 범순인은 이처럼 사마광과는 동지이지만 공무(公務)를 임함에 있어서 충고하여 바로잡으려고 하였다.

정치적 견해가 다른 왕안석이 주장한 신법(新法)이지만, 수용할 만한 정책은 최대한 수용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마광은 결연(決然)히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노하여 말하기를 “자침(子瞻: 소식蘇軾의 자)과 요부(堯夫: 범순인范純仁의 자)의 논리에, 이 사마광은 감히 맞장구를 칠 수가 없습니다(子瞻, 堯夫之論, 光不敢苟同). 모역법(募役法: 부역 대신에 면역전免役錢과 조역전助役錢을 거두어, 그 돈으로 정부가 실업자를 쉰 임금으로 고용하려던 신법)은 백성을 고통스럽게 하고 국익을 해치며, 백해무익합니다(募役病民害國, 百害而無一利). 백성들이 모두 혐오하면서 그들을 책망할 것인데, 자침과 요부는 어찌 감정에 휩쓸려 깨닫지 못한단 말입니까(民皆厭而訟之, 何其子瞻, 堯夫鍾情而不悟!)”라고 하면서, 범순인의 견해를 꺾기에 스쳐가는 바람쯤으로 여겼다. 사마광이 신법(新法)을 모조리 폐지한 것은 자기 개인의 정서적 영향이 아니라고 할 수 없었다. 소동파(蘇東坡: 소식蘇軾)와 범순인 등은 매우 실망하면서 탄식하기를 “어찌 이번에도 또 고집 센 재상을 만났단 말인가(奈何又拗一位相公!)”라고 하였다.

② 영주(永州): 지금의 호남성(湖南省) 영주시(永州市)이다. 원우 8년(元祐八年: 1093) 송철종(宋哲宗)의 태황태후(太皇太后) 고씨(高氏)가 병몰하고 나서 철종의 친정(親政)이 시작됐다. 동시에 철종의 태황태후가 섭정할 당시의 집권 당파인 구파(舊派)가 숙청되고, 신파(新派)가 집권하였다. 소성원년(紹聖元年: 1094), 장돈(章惇: 1035~1106)이 재상이 되면서, 범순인은 영창부(潁昌府: 지금의 하남성河南省 허창시許昌市)로 귀양을 가게 된다. 그 이듬해(1095년)에 범순인은 여대방(呂大防: 1027~1097)을 영남(嶺南)으로 귀양 보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상소를 올렸다는 이유로 수주(隨州: 지금의 호북성湖北省 수주시隨州市)로 좌천되었다가, 소성4년(紹聖四年: 1097)에 무안군(武安郡: 지금의 호남성湖南省 장사시長沙市)으로 좌천된 후, 다시 옮겨진 귀양지가 영주(永州)이다. 그는 이곳에서 3년을 거주하는 동안 안질(眼疾)이 생겨 두 눈의 시력을 상실했다.

③ 사객(謝客): 면회를 사절하다. 이때의 ‘사(謝)’는 ‘거절하다’는 뜻으로 쓰였다.
2) 한훤(寒暄): 만났을 때 ‘날씨가 추우냐 따뜻하냐’는 따위의 대화를 나누는 접대용어(인사치레로 함)이다.

- 3) 읍객(揖客):
① 손님에게 읍(揖)을 하고 절을 하지 않다.
☆읍(揖): 인사하는 예(禮)의 하나로, 왼 손을 오른 손 위에 놓고 두 손을 포개어 얼굴 앞으로 들어 올리고 허리를 앞으로 공손히 구부렸다가 몸을 펴면서 손을 내리는 동작.
4) 비식여레수각(鼻息如雷睡覺): 코 고는 소리가 우레같이 요란했다):
① 비식여레(鼻息如雷): ‘코고는 소리가 우레같이 요란하다’는 뜻으로, 잘 때 코고는 소리가 벌나게 큰 것을 형용한 말이다.
② 수각(睡覺): 잠을 자다.
5) 요부(堯夫): 북송(北宋)의 정치가 범순인(范純仁: 1027~1101)의 자. 시호(諡號)는 충선(忠宣). 자세한 것은 ‘본 시의 주석1) 범충선(范忠宣)’ 조항을 참조 바람.

- 6) 대수(對睡) : 함께 자다. 앞의 ‘대(對)’는 부사로 ‘공(共 : 같이)’, ‘동(同 : 함께)’, ‘함(合 : 똑같이)’와 같은 뜻으로 쓰였음. 본시에서는 한 방안에서 맞은편에 누워 함께 잠을 자는 것을 의미한다.
- 7) 흠신(欠伸) : 기지개를 켜며 하품을 하다.
- 8) 종지수향락(從知睡鄉樂 : 잠에 빠져드는 즐거움을 제대로 터득하고부터) :
 ① 종지(從知) : 제대로 터득하고부터,
 ☆증(從) : 개사로 쓰여, ‘~로 부터’
 ☆지(知) : 알다, 터득하다.
 ② 수향(睡鄉) : 수면상태. 잠에 빠져드는 상태.
- 9) 유승평생친(有勝平生親 : (잠자는 것이) 평소에 벗과 친교親交하는 것보다 낫다 했 다네) :
 ① 승(勝) : (~보다) 낫다, 우월하다.
 ② 평생(平生) : 평소, 평소에.
 ③ 친(親) : 친교(親交)를 맺다, 교제하다, 친구가 되다.
- 10) 차의이운고(此意已云苦 : 이러한 태도는 괴롭다는 말을 안하려함이니) :
 ① 차의(此意) : 이러한 태도.
 ② 이운고(已云苦) :
 ☆이(已) :
 a. 정지하다.
 b. 끝나다.
 c. 따지지 않다.
 ② 운고(云苦) : 괴로움을 말하다.
- 11) 부족진(不足嗔) :
 ① 부족(不足) : ~하기에 부족하다. ~할 필요가 없다.
 ② 진(嗔) : 비난하다, 책망하다.
- 12) 파(罷) : 끝나다, 마치다.
- 13) 망형(忘形) : 세속(世俗)을 초탈(超脫)하여(세속에 초연超然하여) 자신의 형체(形體)마저 잊어버리는 경지를 가리킨다.
- 14) 소수(搔首) : 머리를 긁적거리다. 초조하거나 무엇을 생각할 때 자주 보이는 자세.
- 15) 도착백륜건(倒着白綸巾 : 흰 두건을 앞뒤 방향 돌려 거꾸로 썼다네) :
 ① 도착(倒着) : 도착(倒箸)으로도 쓴다. 옷을 입을 때나 모자를 쓸 때 방향을 돌려 거꾸로 착용하는 것을 이른다.
 ☆도(倒) : 거꾸로 하다, 반대로 하다.
 ☆착(着) : 착용하다, (옷을) 입다, (모자를) 쓰다.
 ② 백륜건(白綸巾) : 관명(官名)으로, 백두건(白頭巾)을 말한다. 머리에 쓰는 염색 하지 않은 베로 만든 두건을 말하는데, 옛날 은자(隱者)나 풍류인들이 이 두건을 썼다고 한다. 동진(東晉)의 시인 도연명(陶淵明 : 365~427)도 백륜건을 쓰고 지 냈다고 한다. 조선 전기의 학자 김시습(金時習 : 1435~1493)의 시 「훼예(毀譽 : 비난과 칭찬)」에, “아침나절 채소밭에 물 줄 때는 푸른 대삿갓 쓰고, 저물녘 꽃 핀 길 거닐 적에는 흰 두건 쓴다네(朝灌蔬園青箬笠, 晚遊花逕白綸巾)”라고 읊은 구절이 있다.

16) 무장(撫掌):

- ① (웃겨서 웃으면서) 손바닥을 치다.
- ② (기뻐서) 손뼉을 치다, 박수를 치다.

17) 산신(酸辛):

- ① 힘들고 고생스러운 세상살이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② 슬프고 괴롭다, 비참하다, 고달프다.

18) 탁(榻):

- ① 긴 의자(긴 걸상). 좁고 길며 낮은 의자 겸 침대 용구(用具)이다. 의자 모양이나 좌우로 길이가 길어서 서너 명이 함께 앉을 수도 있고, 한 사람이 누워 잘 수도 있음. 뒤로는 등받이가 있고 좌우로 팔걸이가 있다. 본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음.
- ② 궤안(几案: 책상): 탁상(卓牀). 『삼국지(三國志)·오지(吳志)·노숙전(魯肅傳)』에, “빈객들이 모두 물러날 때, 노숙(魯肅: 172~217)도 인사하고 나가려고 하였는데, 손권(孫權: 182~252)은 유독 노숙만을 데리고 돌아와서, ‘탁상(卓牀)을 붙여놓고’ 마주 앉아 술을 마셨다(衆賓罷退, 肅亦辭出, 乃獨引肅還, ‘合榻’對飲)”고 하였다.

현대 중국의 저명한 장서가(藏書家)이자 학자인 노궈(盧弼: 1876~1967)은 송(宋)나라의 사학자(史學者) 호삼성(胡三省: 1230~1302)의 말을 인용하여 말하기를 “탁(榻)’이란 것은 상(牀: 평상)인데, 좌탁(坐榻: 앉을 수 있는 평상)도 있고 와탁(臥榻: 누울 수 있는 평상)도 있다(榻牀也, 有坐榻臥榻). 현대 강남(江南: 양자강 이남)에서는 또한 궤안(几案: 책상)에 속하는 것들을 탁상(卓牀: 책상)이라고 칭한다(今江南又呼几案之屬爲卓牀). 탁(卓: 탁자)은 높은 것으로서(卓高也), 그 높이가 좌탁(坐榻)이나 와탁(臥榻)보다 높다(其比坐榻臥榻爲高也). ‘합탁(合榻: 탁상(卓牀)을 붙여놓고)’이란 말은 ‘합탁(合卓: 탁자를 붙여놓고)’이란 말과 같다(合榻猶言合卓也)”고 하였다.

19) 방진(芳辰): 좋은 시절. 대체로 춘계(春季)를 비유함. 본시에서는 범순인(范純仁)의 호시절(好時節)을 함축하고 있다.



시75. (을사년乙巳年 : 1605년) 시월에 서미동西美洞
으로 이사를 했는데, 창 앞에 오래된
배나무 한 그루가 서 있어서, 내년
봄에 배꽃이 만개滿開하면 관상觀賞하기
좋겠다 싶어 시를 지어 벽에 붙이다

詩75. 十月 移寓西美洞¹⁾ 窓前有古梨樹一株
시 월 이 우 서 미 동 창 전 유 고 리 수 일 주
預念²⁾明年春花盛開可玩³⁾ 故題壁⁴⁾
예 념 명 년 춘 화 성 개 가 완 고 제 벽

黔峯一點望中青⁵⁾,
검 봉 일 점 망 중 청

거룩한 산봉우리 한 점으로 푸르게
보이는데,

淨嶽連衡若弟兄⁶⁾。
정 약 연 횡 약 제 형

산들이 나란히 늘어서서 마치 형제
같구나.

深鎖洞門山隱隱⁷⁾,
심 쇠 동 문 산 은 은

산골 집 사립문 잠겼는데 먼 산이
은은하게 보이고,

平臨浦口樹冥冥⁸⁾。
평 림 포 구 수 명 명

들판에 인접한 포구에는 수목이
그윽하네.

梨花滿院春如海⁹⁾,
리 화 만 원 춘 여 해

뜰에 배꽃이 만발하면 봄기운이
바다처럼 깊어지고,

石澗循除夜有聲¹⁰⁾。 개울가 섬돌주변에 밤이면 벌레소리
석 간 순 제 야 유 성 요란하리라.

高臥百年無事客¹¹⁾， 백년을 은거해도 자연에 순응하며
고 와 백 년 무 사 객 살아갈 나그네,

世間榮利一毫輕¹²⁾。 세간의 부귀공명 터럭같이 가벼이
세 간 영 리 일 호 경 여긴다네.

1) 이우서미동(移寓西美洞 : 서미동으로 이사를 하다) :

- ① 이우(移寓) : 이사(移徙)하다, 거주지를 옮기다. 천거(薦居)하다, 거처를 옮기다.
- ② 서미동(西美洞) : 지금의 경북 안동시(安東市) 풍산읍(豊山邑) 서미동(西美洞)이다. 「서애연보(西厓年譜)」에 의하면, 1605년(선조 38년, 을사년乙巳年, 서애 64세) 9월에 서미동으로 이사했다고 되어 있다. 당시 하회(河回)는 홍수가 나서 수목(樹木)이 없어지고 바람이 거세어 요양하기에 불편하며, 손님의 방문도 번거로워서 이곳 학가산(鶴駕山) 산 속에 위치한 서미동으로 이사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2) 예념(預念) : 예상하다.

3) 가완(可玩) : 관상(觀賞)하기 좋다(할 수 있다). 완상(玩賞)할 수 있다(하기 좋다). 보고 즐길 수 있다.

4) 제벽(題壁) : 시문(詩文)을 지어 벽에 붙이다.

5) 검봉일점망중청(黔峯一點望中靑 : 거뭇한 산봉우리 한 점으로 푸르게 보이는데) :

① 검봉(黔峯) : 검은 산봉우리.

☆검(黔) : 검다.

② 일점(一點) : 아주 적거나 일정하지 않은 양을 나타낼 때, ‘조금’이란 말로 표현하는 말.

③ 망중(望中) : 시야(視野)에 들어오다.

6) 정악연횡악제형(淨嶽連衡若弟兄 : 산들이 나란히 늘어서서 마치 형제 같구나) :

① 정악(淨嶽) : 모든 큰 산들.

☆정(淨) : 형용사나 부사로 쓰여, ‘전부, 모두, 모든’의 뜻을 나타냄.

☆악(嶽) : 큰 산. 악(岳)과 동자(同字).

② 연횡(連衡) : 어깨를 나란히 하다. 어울리다. 균형을 이루다.

7) 심쇄동문산은은(深鎖洞門山隱隱 : 산골 집 사립문 잠겼는데 먼 산이 어렴풋이 보이고) :

① 동문(洞門) : 본시에서는 서미동으로 이사 간 집의 사립문을 가리킨다.

② 은은(隱隱) : 희미하여(어렴풋하여) 분명하지 않는 모양.

8) 명명(冥冥) : ① 보이거나 들리는 것이 아주 희미하고 먼 모양. ② 아득하고 그윽한

모양.

9) 춘여해(春如海) : 봄기운이 바다같이 깊다.

10) 석간순제야유성(石澗循除夜有聲) : 개울가 섬돌주변에 밤이면 벌레소리 요란하리라) :

① 석간(石澗) :

☆돌이 많은 골짜기로 흐르는 시내.

☆산 속의 개울, 산구(山溝).

② 순제(循除) : 섬돌, 돌층계. 본시에서는 ‘섬돌 주변’을 가리킨다.

③ 야유성(夜有聲) : 밤에 벌레 소리가 요란하다. 이때의 ‘성(聲 : 소리)’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본시에서는 ‘벌레 소리’를 가리킨다.

11) 고외백년무사객(高臥百年無事客) : 백년을 은거해도 자연에 순응하며 살아갈 나그네) :

① 고외(高臥) :

☆벼슬하지 않고 은거(隱居)하는 것을 가리킨다.

☆세속(世俗)의 누(累)를 벗어나서 마음 내키는 대로 삶.

② 백년(百年) :

☆한평생.

☆오랜 세월.

☆백년.

③ 무사(無事) :

☆무위(無爲)를 가리킨다. 도가(道家)가 주장하는 것으로 자연에 순응하면서 인위적(人爲的) 작위(作爲)를 가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본시에서는 명리를 추구하는 어떤 일도 도모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④ 객(客) : 사람. 인사(人士).

12) 세간영리일호경(世間榮利一毫輕) : 세간의 부귀공명 터럭같이 가벼이 여긴다네) :

① 세간(世間) : 이 세상. 인세(人世).

② 영리(榮利) :

☆공명(功名)과 이록(利錄 : 이득과 녹봉).

☆영화(榮華)와 복리.

③ 일호(一毫) : 추호(秋毫) :

☆가을철에 털갈이하어 새로 돌아난 짐승의 가는 털을 칭하는 것이다.

☆매우 적거나 아주 작은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시76. (갑진년甲辰年 : 1604년) 시월 열 아흐렛날,
강릉부사 창원昌遠 김홍미金弘微의
부음訃音을 받고나서

詩76. 十月十九日 聞金江陵昌遠訃音¹⁾
십 월 십 구 일 문 김 강릉 창원 부음



朔風號怒動西林²⁾, 북풍이 노호怒號하며 서쪽 숲을
삭 풍 호 노 동 서 립 흔들더니,
千里書來報惡音³⁾. 천리 밖의 서신 와서 슬픈 소식 전하네.
천 리 서 래 보 악 음
白首人間惟我在⁴⁾, 백발의 늙은이 나 홀로 남게 되었으니,
백 수 인 간 유 아 재
不知誰與更論心⁵⁾. 누구와 다시 흥금을 토로해야 할지
부 지 수 여 갱 논 심 모르겠네.

1) 문김강릉창원부음(聞金江陵昌遠訃音 : 강릉부사 창원昌遠 김홍미金弘微의 부음訃音을 받다) :

① 문(聞) : 접수(接受)하다. 받다.

② 김강릉창원(金江陵昌遠) : 강릉부사(江陵府使) 창원(昌遠) 김홍미(金弘微).

☆김홍미(金弘微 : 1577~1604) :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상주(尙州).

호는 성극당(省克堂). 조식(曹植)과 류성룡(柳成龍)의 문인이다. 그의 빙부(聘父)는 서애의 백형인 겸암(謙菴) 류운룡(柳雲龍 : 1539~1601)이다. 1585년(선조 18) 문과에 급제하여 이조좌랑(吏曹佐郎)으로 정여립(鄭汝立)의 모반 사건에 관련되어 한때 파직되었다가 교리 등을 거쳐 사간(司諫), 사성(司成) 등을

역임하였다. 1597년 우부승지(右副承旨)로 있을 때, 이순신(李舜臣 : 1545~1598)을 탄핵하여 파면케 하고, 원균(元均 : 1540~1597)을 통제사로 삼게 하는데 가담하였다. 1598년 형조참의(刑曹參議)를 거쳐 1605년 강릉부사(江陵府使) 때, 큰 비가 내려 백성이 많은 재난을 당하였다. 이에 수재로 죽은 자의 조문과 굶주린 자의 진휼(賑恤)에 힘쓰다가 병고로 면직되었다. 경상북도 상주(尙州) 봉산서원(鳳山書院)에 배향되었고, 문집 5권이 전한다.

- ③ 부음(訃音) :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알리는 말이나 글.
 ☆부고(訃告).
- 2) 삭풍호노동서림(朔風號怒動西林 : 북풍이 노호호號하며 서쪽 숲을 흔들더니) :
 ① 삭풍(朔風) : 북풍, 한풍(寒風).
 ② 호노(號怒) :
 ☆노호(怒號)하다. 성내어 소리를 지르거나 그런 소리. 바람이나 파도가 세찬 소리를 냄. 또는 그런 소리.
- 3) 악음(惡音) : 나쁜 소식(슬픈 소식). 본시에서는 슬픈 소식을 가리킨다.
- 4) 백수인간유아재(白首人間惟我在 : 백발의 늙은이 나 홀로 남게 되었으니) :
 ① 백수(白首) : 백발(白髮)과 같은 말. 나이가 많음을 표현하는 말.
 ② 인간(人間) : 사람.
 ③ 유아재(惟我在) : 오로지 나 혼자 남게 되다.
 ☆유(惟) : a. 아직도 b. 오직, 단지.
 ☆재(在) : a. ~에 남겨두다. ~에 남게 되다. b. 재세(在世)하다, 살아있다.
- 5) 갱논심(更論心) : 다시 흥금을 터놓고 이야기하다.
 ① 갱(更) :
 ☆부사. ‘다시, 또, 되풀이 하여’의 뜻으로 쓴다.
 ② 논심(論心) :
 ☆담심(談心) : 흥금을 터놓고 이야기하다. 속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하다.

시77. 창가에서 우연히 쓰다

詩77. 偶題窓上¹⁾
우 제 창 상



客去衡門掩²⁾,
객 거 형 문 업

손님은 돌아가고 허술한 대문 닫혔는데,

山空落葉深³⁾.
산 공 낙엽 심

산에는 인적 없고 낙엽만 쌓여가네.

庭松生晚⁴⁾碧,
정 송 생 만 벽

뜰 안의 소나무 만추晩秋에도 여전히
푸르르니,

聊慰歲寒心⁵⁾.
료 위 세 한 심

풍상風霜을 견뎌내는 그 본성에 잠시
위안이 되네.

1) 우제창상(偶題窓上):

① 우제(偶題): 우음(偶吟: 우연히 지은 시가詩歌)과 같은 말. 얼핏 떠오르는 생각(즉,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시상詩想)을 쓰다. 옛 시제(詩題)에 많이 보이는 용어이다.

② 창상(窓上): 창 옆, 창가.

☆상(上): 명사 뒤에 써서, 강이나 하천의 ‘가장자리(옆 근처, 변두리)’라는 뜻을 나타냄. 예를 들면, ‘천상(川上: 냇가), 강상(江上: 강변)’과 같은 것이 있음. 본 시에서도 같은 용법으로 쓰였다.

2) 형문엄(衡門掩): 초라한 집 대문 닫아놓다.

① 형문(衡門):

☆두 기둥에다 한 개의 가로 막대를 질러 만든 허술한 대문. 초라한(누추한, 빈곤한) 집을 가리키는 말로 쓴다.

☆은자(隱者)가 사는 곳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② 엄(掩): 닫다.
- 3) 심(深): 많다. 두텁다.
- 4) 생만벽(生晩碧):
- ① 생(生): 동사, (빛 혹은 색을) 띠다. 생기다. 여기서는 뜰 안의 소나무가 푸른빛을 띠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 ② 만벽(晩碧):
- ☆만(晩): 추계(秋季), 곧 여기서는 ‘만추(晩秋)’를 의미함.
- ☆벽(碧): 뜰 안의 소나무[庭松]가 푸른색을 잃지 않고 있는 것을 묘사한 것이다.
- 5) 요위세한심(聊慰歲寒心: 풍상風霜을 견뎌내는 그 본성에 잠시 위안이 되네):
- ① 요위(聊慰): 잠시 위안하다.
- ☆요(聊):
- a. 잠시, 우선, 잠깐, 간신히.
- b. 조금, 약간, 대강, 추후도, 조금도.
- ② 세한심(歲寒心):
- ☆내한(耐寒)의 본성. 모진 추위를 견뎌내는 본성을 가리킨다. 본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a. 세한(歲寒): 일 년 중 혹한의 계절을 뜻함.
- 이의 어원은 『논어(論語)·자한(子罕)』편에, “공자가 말하기를: 날씨가 추워진 후에야, 비로소 소나무와 잣나무가 가장 나중에 잎이 떨어진다(子曰: 歲寒, 然後知松柏之後凋也)”라는 데서 나왔다.
- b. 심(心): 본시에서 ‘세한심(歲寒心)’의 ‘심(心)’은 본성을 가리킨다.
- 당나라 시인 장구령(張九齡: 673 혹은 678~740)의 시, 「감우(感遇)」에서, “강남에는 붉은 귤[丹橘]나무가 자라는데, 겨우 내내 의연히 푸르네(江南有丹橘, 經冬猶綠林). 설마 이곳의 기후가 따뜻해서만은 아니겠지? 이는 자연 풍상(風霜)을 견디는 송백의 본성 탓이라.
- ☆세한지조가 굳어 절대로 굽힘이 없는 것을 비유한 말, 즉 견정불굴(堅貞不屈)의 절조를 비유한 말.
- a. 세한(歲寒): 충정불굴(忠貞不屈)의 절조를 비유한 말이다.
- b. 심(心): 마음, 사상.
- 남송(南宋)의 정치가이자 시인인 문천상(文天祥: 1236~1282)의 시, 「양주에 도달해서(至揚州)」제9수에, “평소의 태도를 바꾸어 지금부터는 국사(國士: 가장 용감하고 역량 있는 사람)와 교류해서(折節從今交國士), 죽든 살든 한마음 견정불굴의 절조 지키리라(生死一片歲寒心).”고 읊었다.



시78. 강릉江陵에서 세상을 떠난 창원昌遠
 김홍미金弘微의 관棺이 풍산豐山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시를 지어
 조의吊儀를 표하다

詩78. 聞江陵櫬過豐山¹⁾ 以詩哭²⁾之
 문 강릉 춘 과 풍 산 이 시 곡 지

陵波臺上屬離觴³⁾,
 문 과 대 상 속 리 상

능파대凌波臺에서 이별의 술잔 서로
 권했는데,

往事如今已渺茫⁴⁾.
 왕 사 여 금 이 묘 망

지난 일이 지금은 이미 아득하네.

人世獨留傷⁵⁾白首,
 인 세 독 유 상 백 수

세상에 홀로 남아 슬퍼하는 이 늙은이,

襟期相托自青陽⁶⁾.
 금 기 상 탁 자 청 양

홍금 터놓고 서로 의지한 게 짧은
 시절부터였네.

天涯簡札猶堪記⁷⁾,
 천 에 간 찰 유 감 기

하늘가에 있다 해도 서신은 쓸 수
 있었건만,

夢裏形容未可詳⁸⁾.
 몽 리 형 용 미 가 상

(지금은) 꿈속에서 형용하는 듯해 자세히
 쓸 수 없네.

欲草短詞當永訣⁹⁾,
 욕 초 단 사 당 영 결

짧은 글이라도 써서 영결사로 삼고

싶지만,

淚交殘墨不成章¹⁰⁾
루 교 잔 묵 불 성 장

눈물이 글자에 번져 더 쓸 수가 없네
그려.

- 1) 문강릉춘과풍산(聞江陵機過豊山) : 강릉부사 김홍미의 관이 풍산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다.

① 문강릉(聞江陵) :

☆문(聞) : 듣다. 접하다.

☆강릉(江陵) : 강릉부사(江陵府使) 김홍미(金弘微 : 1577~1604)를 가리키며, 이 사람은 바로 서애(西厓)의 백씨(伯氏)인 류운룡(柳雲龍)의 사위이며, 서애의 문인(門人)이기도 함. 자세한 것은 「시76」 주석1) 김홍미(金弘微) 조항을 참조 바람.

② 촌(櫬) :

☆고대에는, 시체를 담은 관(棺 : 널)을 이중으로 하였는데, 바깥쪽의 관을 외관(外棺 : 외곽<外槨>)이라 하고, 안쪽의 관을 내관(內棺)이라 하였다. 이 당시에는 내관(內棺), 곧 ‘안쪽 널’을 ‘촌(櫬)’이라 하였다. 그러나 후세에 와서 관(棺)을 하나만 써서 시신(屍身)을 담아 장례를 치르게 되면서 외관(外棺)의 의미로 쓰던 ‘촌(櫬)’이란 말을 보통 ‘관재(棺材 : 관棺)’를 가리키는 말로 썼다. 본사에서 ‘관(棺)’을 가리키는 말로 쓴 것이다.

- ③ 과풍산(過豊山) : 김홍미(金弘微)는 강릉부사(江陵府使)로 재직하고 있을 때, 세상을 떠났으므로, 그의 운구(運柩)가 그의 본관인 상주(尙州)로 이송(移送)할 때, 상주로 가는 길목에 있는 풍산(豊山 : 지금의 경북 안동시 풍산읍)을 경유한 것으로 보인다. 서애는 그의 운구가 풍산을 지날 때, 하회에서 그의 죽음을 애도하여 본사를 쓴 것이다. 김홍미(金弘微)는 경상북도 상주(尙州)에 소재한 봉산서원(鳳山書院)에 배향되었다.

- 2) 곡(哭) : 조의를 표하다. 조문(吊問)하다, 조언(吊言)하다.

- 3) 능파대상촉리상(凌波臺上屬離觴 : 능파대凌波臺에서 이별의 술잔 서로 권했는데) :

① 능파대(凌波臺) : 경북 안동시(安東市) 광덕동(廣德洞) 남단(南端), 즉 하회리(河回里)의 강 건너편 부용대(芙蓉臺)에 위치하며 ‘강물이 물결쳐도 이르지 못한다’는 의미로 붙여진 옥연정사(玉淵精舍) 우측의 절벽 명칭이다. 「시54」의 주석 18)을 참조 바람.

② 상(上) : 명사 뒤에 써서, 일정한 처소(장소)나 범위를 나타냄.

③ 속(屬) : (술을) 술잔에 따워 권하다.

④ 이상(離觴) : 이배(離杯) : 이배(離盃) : 전별(餞別)의 술잔 : 이별의 술잔.

☆상(觴) :

a. 술잔.

b. 술잔에 술을 가득 따르다.

- c. 술을 남에게 권하거나 자작(自酌)하다.
- 4) 왕사여금이묘망(往事如今已渺茫 : 지난 일이 지금은 이미 아득하네)
- ① 여금(如今) : (비교적 먼 과거에 대비하여) 지금, 이제, 오늘날.
 - ② 묘망(渺茫) : 아득히 먼 모양, 아득하다, 까마득하다, 감감하다, 희미하다.
- 5) 상(傷) :
- ① 슬퍼하다, 비탄해하다.
 - ② 상례(喪禮)를 치르다. 문상(問喪)하다.
 - ③ 애도하다, 가엾게 여기다.
- 6) 금기상탁자청양(襟期相托自靑陽 : 흥금 터놓고 서로 의지한 게 젊은 시절부터였네) :
- ① 금기(襟期) : 금회(襟懷) : 흥금, 생각, 포부, 회포.
 - ② 상탁(相托) : 서로 의지하다.
 - ③ 청양(靑陽) : 청춘시절의 용모를 가리킨다.
- 7) 천애간찰유감기(天涯簡札猶堪記 : 하늘가에 있다 해도 서신은 쓸 수 있었건만) :
- ① 천애(天涯) : 천변(天邊)과 같은 말. 하늘가, 지극히 먼 곳을 가리킨다.
 - ② 간찰(簡札) : 문서나 서신을 가리킨다.
 - ③ 유(猶) : 부사로 쓰여 ‘여전히, 아직도,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뜻이다.
 - ④ 감(堪) : 조동사. ‘~할 수 있다’는 뜻이다.
- 8) 몽리형용미가상(夢裏形容未可詳 : (지금은) 꿈속에서 형용하는 듯해 자세히 쓸 수 없네) :
- ① 몽리(夢裏) : 꿈속.
 - ② 형용(形容) : 묘사하다, 기술(서술)하다. 형용하다.
 - ③ 미가상(未可詳) : 자세한 사정은 쓸 수 없다.
☆미가(未可) : ~할 수가 없다.
☆상(詳) : 상술(詳述)하다.
- 9) 욕초단사당영결(欲草短詞當永訣 : 짧은 글이라도 써서 영결사로 삼고 싶지만) :
- ① 초단사(草短詞) :
☆초(草) : 글을 짓다(쓰다), 저작하다.
☆단사(短詞) : 길이가 짧은 글.
- 10) 루교잔묵불성장(淚交殘墨不成章 : 눈물이 글자에 번져 더 쓸 수가 없네그러) :
- ① 루교잔묵(淚交殘墨) :
☆교(交) : 착잡(錯雜)하다, 뒤섞이다의 뜻이나 전(轉)하여 본시에서는 ‘번지다, 흐르다, 떨어지다’는 뜻으로 쓰였음.
☆잔묵(殘墨) :
a. ‘먹물이 번져 글자를 망가뜨린다’는 뜻이다.
b. 잔(殘) : 해치다, 손상시키다.
c. 묵(墨) : 시문(詩文)이나 서화(書畵)를 가리킨다.
 - ② 장(章) : 글. 문장.



시79. 동짓달 스무 아흐렛날에 시야에 들어온 풍광을 쓰다

詩79. 至月二十九日記所見¹⁾
지 월 이 십 구 일 기 소 견

今朝苒苒²⁾雲歸北,
금 조 염 염 운 귀 북

오늘 아침 점점 구름이 북쪽으로
몰리더니,

日到午時來大雪³⁾.
일 도 우 시 래 대 설

오시午時가 되자 대설大雪이 내렸네.

雪霽⁴⁾林端已夕陽,
운 제 립 단 이 석 양

눈이 몇자 수림 꼭대기엔 이미 석양이
깔리는데,

餘雲尙在前山麓。
여 운 상 재 전 산 록

남은 구름은 아직 앞산 기슭에 떠있네.

1) 지월이십구일기소견(至月二十九日記所見 : 동짓달 스무 아흐렛날에 시야에 들어
온 풍광을 쓰다):

① 지월(至月): 본시에서는 ‘동짓달’의 뜻으로 쓰였다. 고대에는 동지(冬至)와 하지
(夏至)를 ‘이지(二至)’라고 하였으며, 통칭(統稱) ‘지(至)’라고도 하였다.

『좌전(左傳)·회공 5년(僖公五年)』 조항에, “무릇 춘분(春分)·추분(秋分), 동
지(冬至)·하지(夏至), 입춘(立春)·입하(立夏), 입추(立秋)·입동(立冬)에는 반
드시 구름의 기운을 기록해야 하는 법인데, 그 예법(禮法)에 대비하기 위해서 기
록한 것이다(凡分至啓閉, 必書雲物, 爲備故也)”고 하였다. 서진(西晉)의 무장
(武將)이자 학자인 두예(杜預: 222~284)는 주석하기를, “분(分)은 춘분과 추분
이고, 지(至)는 동지와 하지이며, 개(啓)는 입춘과 입하이며, 폐(閉)는 입추와 입

둥이다(分, 春秋分也, 至, 冬夏至也, 啓, 立春立夏, 立秋立冬)”고 하였다.

- ② 소견(所見): ‘보이는 것, 본 것’이란 뜻이나, 본시에서는 ‘눈에 보인 풍광, 시야에 들어온 풍광’을 가리킨다.

☆소(所): 본시에서는 ‘소(所)+동사(動詞)’의 형태로써 명사를 대신하는 말로 쓰였으며, ‘~하는 것’으로 해석함.

- 2) 염염(冉冉): 점점(漸漸)과 같은 뜻으로, 수량의 점차적 증감을 나타내거나, 시간이 흘러가는 모양을 표현한 말이다.

- 3) 일도오시래대설(日到午時來大雪: 오시午時가 되자 대설大雪이 내렸네):

- ① 일도(日到): ~ 시각이(때가) 되자.

☆일(日): 광음(光陰), 시간. 본시에서는 ‘시각’이라는 뜻으로 쓰였음.

☆도(到): 이르다, 도달하다.

- ② 오시(午時): 십이지(十二支)의 일곱째 시(時)로서, 오전 11시~오후 1시까지이다.

- 4) 설제(雪霽): 내리던 눈이 멎다.

- ① 제(霽): 비나 눈이 그침. 안개나 구름이 사라짐.



시80. 눈이 온 뒤 창호지에 쓰다

詩80. 雪後題窓紙¹⁾

설 후 제 창 지

小窓孤臥一羸形²⁾,
소 창 고 와 일 리 형

병들어서 작은 창 아래 홀로 누워있는
처지라,

窓外柴扉盡日扃³⁾.
창 외 시 비 진 일 경

창밖의 사립문은 진종일 닫아놔네

積雪滿山人不到,
적 설 만 산 인 불 도

온 산엔 눈이 쌓여 사람이 오를 수도
없거니와,

病餘時復玩丹經⁴⁾.
병 여 시 부 완 단 경

병든 이후로는 늘 단경(丹經)만 뒤적이네.

1) 창지(窓紙): 창호지, 문종이.

2) 이형(羸形):

① 육신이(형체가) 여위고 허약하다(쇠약하고 병들다).

② 여위고 허약한 (쇠약하고 병든) 육신(형체).

3) 창외시비진일경(窓外柴扉盡日扃): 창밖의 사립문은 진종일 닫아놔네)

① 시비(柴扉): 사립문, 곤궁한 집이나 그런 집의 뜰을 가리키기도 함.

② 경(扃): 문을 닫다. 혹은 닫혀있다.

4) 병여시부완단경(病餘時復玩丹經): 병든 이후로는 늘 단경(丹經)만 뒤적이네)

① 병여(病餘): 병든 후에.

② 시부(時復): 늘, 항상, 자주.

③ 완(玩): 검토하다, 반복하여 체득(體得)하다.

④ 단경(丹經): 도교(道教)에서 이른바 연단술(煉丹術)을 익히고 신선이 되는 도

(道)를 탐구하면서, 심신을 수련하는 것을 ‘단도(丹道)’라 하고, 그 단도(丹道)를 수련하는 내용으로 기록된 각종 경전(經典)을 ‘단경(丹經)’이라고 한다. 대표적인 단경(丹經)으로는 춘추시대(春秋時代)의 사상가 노자(老子: 생몰년 미상)의 『도덕경(道德經)』과 북위(北魏)의 사상가 구겸지(寇謙之: 363~448)의 『음부경(陰符經)』, 그리고 후한(後漢)의 사상가 위백양(魏伯陽: 생몰년 미상)의 『주역참동계(周易參同契)』 및 북송(北宋)의 도사 장자양(張紫陽: 984~1082, 호는 자양紫陽, 자는 평숙平叔, 이름은 백단伯端)이 저술한 『오진편(悟真篇)』 등이 있다. 수련방법 및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시15」의 주석29)의 ① 단경(丹經) 조항을 참조 바람.



시81. 냇가 바위에서 쓰다

詩81. 題溪邊¹⁾石

제 계 변 석

辛夷初發小溪濱²⁾,
신 이 초 발 소 계 빈

자목련이 막 피기 시작한 개울가에는,

細草微生綠未勻³⁾.
세 초 미 생 녹 미 균

어린 풀 미미하게 자라 녹색이 아직
고르지 못하네.

景物不殊人事異⁴⁾,
경 물 불 수 인 사 이

경치는 달라지는 게 없으나 인간사는
달라지나니,

東風回首獨靄巾⁵⁾.
동 풍 회 수 독 점 건

춘풍 속에 회고하다 홀로 눈물 흘려
수건 적시네.

1) 계변(溪邊) : 간변(澗邊) : 계수변(溪水邊) : 소계빈(小溪濱) : 시냇가.

2) 신이초발소계빈(辛夷初發小溪濱) : 자목련이 막 피기 시작한 개울가에는 :

① 신이(辛夷) : 자목련(紫木蓮) : 자목란(紫木蘭) : 자옥련(紫玉蓮) : 신치(辛雉) :
목필(木筆) : 여랑화(女郎花) :

이렇게 별칭이 많은 이것은 목련과의 낙엽 활엽 교목으로, 높이는 3m정도이며,
앞은 마주나고 거꾸로 된 달걀 모양이다. 3~4월에 종 모양의 자주색 또는 백색
꽃이 잎보다 먼저 피고 향기가 있으며, 열매는 골돌과로 갈색 털이 나며 가을에
익는다. 관상용이고 중국이 원산지이다.

이전에는 신이(辛夷)라고 했으나, 지금의 명칭은 자옥란(紫玉蘭) 혹은 자목련이
라고도 칭한다. 즉 이는 한국에서 초봄에 볼 수 있는 목련(木蓮)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음력 2월에 개화(開花)를 함으로 중국의 남방인은 이를 “영춘화(迎春

花)”라고 칭했으며, 당나라 사람들은 이것을 여랑화(女郎花)라고도 했다. 처음에 읊이 틀 때에 그 모양이 “빨기[夷]”와 같이 끝이 뾰족하고 털이 보송보송한 모양이 붓과도 같다고 해서, 북방인은 속칭 목필(木筆)이라고도 칭한다. 이는 맛이 맵고, 이(夷)자와 치(雉)자는 통하는 글자이기에, 신이(辛夷)를 신치(辛雉)라고도 한다.

- ② 소계빈(小溪濱) : 시냇가.
- 3) 세초미생녹미균(細草微生綠未勻) : 어린 풀 미미하게 자라 녹색이 아직 고르지 못하네) :
 - ① 세초(細草) : 초본식물(草本植物)로 아직 다 자라지 못해 소약(小弱)한 풀을 통칭(統稱)하는 말. 잔풀, 어린 풀, 작은 풀.
 - ② 미생(微生) : 미미하게 자라다(아직 다 자라지 못해 잔풀 상태임을 표현한 말임).
- 4) 경물불수인사이(景物不殊人事異) : 경치는 달라지는 게 없으나 인간사는 달라지나니) :
 - ① 경물(景物) :
 - ☆경치사물(景致事物).
 -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경치 혹은 풍경.
 - ② 인사(人事) :
 -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나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
 - ☆인정(人情)과 사리(事理)
 - ☆인간사(人間事).
- 5) 동풍회수독점건(東風回首獨霑巾) : 춘풍 속에 회고하다 홀로 눈물 흘려 수건 적시네) :
 - ① 동풍(東風) :
 -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 ☆봄바람, 춘풍(春風).
 - ② 회수(回首) :
 - ☆회고하다, 회상하다, 돌이켜 보다.
 - ③ 독점건(獨霑巾) : 홀로 눈물 흘려 수건 적시다.



시82. 초가집을 새로 짓고 나서 우연히 벽에 써서 붙이다

詩82. 草庵新成 偶題壁上¹⁾
초 암 신 성 우 제 벽 상

西美洞中三月末²⁾,
서 미 동 중 삼 월 말

삼월 말 서미동西美洞에 초가 짓고
이사 와서,

東庵六十五年翁。
동 암 육 십 오 년 웅

예순 다섯 된 늙은이 동쪽 초당에
거처하네.

任他憂病侵凌久³⁾,
임 타 우 병 침 룡 구

그는 병고로 근심하며 시달린 지
오래이나,

賴有漁樵笑語同⁴⁾。
뢰 유 어 조 소 어 동

다행히 어부와 초부가 있어 함께
담소한다네.

江雨乍晴千里草⁵⁾,
강 우 사 청 천 리 초

강변에선 언뜻 비 개이면 푸른 풀
천리에 이어졌는데,

林花全落五更⁶⁾風。
림 화 전 낙 오 경 풍

숲속에선 꽃잎이 다 지고, 새벽되니
바람이 부네.

幽懷獨去還悵悵⁷⁾,
유 회 독 기 환 조 창

깊은 생각 근근이 지웠는데 또 다시
서글퍼지니,

人事天時兩不窮⁸⁾
인사천시양불궁

인생사와 계절 변화 두 가지는 끝이
없네.

- 1) 초암신성우제벽상(草庵新成偶題壁上 : 초가집을 새로 짓고 나서 우연히 벽에 써서 붙이다) :

- ① 초암(草庵) : 초암(草庵)으로도 쓴다.

☆초가(草家) · 초사(草舍) · 초방(草房) · 초당(草堂) : 「서애연보(西厓年譜)」에 의하면 병오년(丙午年 : 1606 : 서애 65세) 3월에 초가삼간을 지었다고 하였다. 여기서 이 초암은 서미동의 농환재(弄丸齋)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서애(西厓)는 1605년(선조 33, 64세)에, 둘째 아들 여(裻 : 사실상은 만아들임. 첫아들은 서애가 44세 때에 잃었음)를 잃고, 또한 그해 하회에 큰물이 들어 병중의 몸이라, 조양(調養)하기에 불편하여, 학가산(鶴駕山 : 경북 안동시 북후면, 예천군 보문면 소재) 기슭, 즉 행정구역으로는 경북 안동시 풍산읍에 소재하는 서미동(西美洞)으로 이사하였다. 그 이듬해인 1606년 3월에는 이곳에 초당을 짓고 이름을 ‘농환재라 명명(命名)하였다. 지금은 ‘농환재(弄丸齋)’란 현판만 남아있을 뿐 이어서, 류씨(柳氏) 문중에서 서미동 입구에 ‘영의정 문충공 서애 류선생 농환재 유적비(領議政文忠公西厓柳先生弄丸齋遺蹟碑)’를 대신 세워놓았다.

- ② 우제(偶題) : 우연히 쓰다. 자세한 것은 「시77」의 주석1) 우제(偶題) 조항을 참조 바람.

- 2) 서미동중(西美洞中 : 삼월 말 서미동西美洞에 초가 짓고 이사 와서) :

- ① 서미동(西美洞) : 주석1) 참조 바람.

- ② 중(中) : 동사로 쓰여 ‘획득하다’

- 3) 임타우병침릉구(任他憂病侵凌久 : 그는 병고로 근심하며 시달린 지 오래이나) :

- ① 임(任) : 접속사로, ‘설령~라 하더라도 혹은 가령~이라 해도’의 뜻이다.

- ② 우병(憂病) : 병들어 괴로워하다.

- ③ 침릉(侵凌) : 침릉(侵凌)으로도 쓰고, 침릉(侵陵)으로도 쓴다.

☆시달리다.

- 4) 퇴유어초소어동(賴有漁樵笑語同 : 다행히 어부와 초부가 있어 함께 담소한다네) :

- ① 퇴(賴) : 다행히도, 운 좋게, 요행으로

- ② 어초(漁樵) :

☆어부와 나무꾼.

☆은거(隱居)를 가리킨다.

- ③ 소어동(笑語同) :

☆소어(笑語) :

a. 담소(談笑)하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음.

b. 농담하는 말.

☆동(同) :

a. 참여하다.

b. 함께하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음.

- 5) 강우사청천리초(江雨乍晴千里草 : 강변에선 언뜻 비 개이면 푸른 풀 천리에 이어
졌는데) :

- ① 강우(江雨) : 강변에 비가 내리다.
- ② 사청(乍晴) : 홀연(언뜻, 갑자기) 날씨가 개다.
- ② 천리초(千里草) : 푸른 풀이 끝없이 이어지다.

- 6) 오경풍(五更) :

- ① 오경(五更) :

☆옛날에, 황혼이 지면서부터 날이 밝기까지의 일야간(一夜間)을 일(一) · 이(二) · 삼(三) · 사(四) · 오(五)로 표현하여 다섯 부분으로 나누기도 하고, 갑(甲) · 을(乙) · 병(丙) · 정(丁) · 무(戊)로 표현하여 다섯 단락으로 나누기도 한 것을 ‘오경(五更)’이라고 한다. 이것을 ‘오고(五鼓)’라고도 칭하고 ‘오야(五夜)’로도 칭한다. 즉, 하룻밤을 다섯 부분으로 나눈 시각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특별히 제5경(五更)인 시각을 가리키기도 한다. 즉 하룻밤을 다섯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의 마지막 부분, 곧 새벽 세 시에서 다섯 시 사이를 가리켜 오경(五更)이라고도 한다. 본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7) 유희독거환초창(幽懷獨去還悵 : 깊은 생각 근근이 지웠는데 또 다시 서글퍼지나) :

- ① 유희(幽懷) :

☆내심(內心)에 담아 둔 정감(情感).
☆가슴 속 깊이 품은 생각.
☆남모르는 깊은 생각.

- ② 독거(獨去) :

☆독(獨) : 부사로 쓰여, 근근이.
☆거(去) : 제거하다.

- ③ 초창(悵) : 추창(惆悵)과 같은 말이다.

☆실망하다, 실의에 차다, 낙담하다.
☆슬퍼하다, 서글퍼하다.

- 8) 인사천시양불궁(人事天時兩不窮 : 인생사와 계절 변화 두 가지는 끝이 없네) :

- ① 인사(人事) :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 인생사. 인간사.

- ② 천시(天時) : 때를 따라 돌아가는 자연현상, 곧 천도운행(天道運行 : 자연계 변화)의 법칙.

☆천도운행(天道運行 : 자연계의 변화)의 규률, 시서(時序 : 순환하는 계절의 순서)를 가리키기도 함. 곧 주야, 계절 등.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음.

☆어떤 일을 하는데 적당한 자연기후조건.

『맹자(孟子)·공손축(公孫丑) 하(下)』에, “천시(天時 : 자연기후조건)는 지리(地理 : 높은 성벽과 산천의 협준함 같은 지리적 잇점)만 못하고, 지리는 인화(人和 : 인심의 형배에 따른 내부단결)만 못하다(天時不如地理, 地理不如人和).”고 하였다.

☆천명(天命 : 타고난 운명, 하늘의 명령).

☆기후.

☆때, 시기, 시각.

시83. 비 온 뒤 뜰 안에 온통 낙화가 깔렸음에 느낀 바 있어서

詩83. 雨後落花滿庭有懷¹⁾
우 후 낙 화 만 정 유 회



風光苒苒青春暮²⁾,
풍 광 염 염 청 춘 모

산천 풍경 푸릇푸릇 해지더니
봄 시절 끝나 가고,

世故茫茫白髮明³⁾.
세 고 망 망 백 발 명

세상사정 막막한데 백발은 성성해지네.

一夢邯鄲高枕後⁴⁾,
일 몽 한 단 고 침 후

꿈처럼 덧없는 공명功名 누리다가
은거한 후에는,

隔林啼鳥兩三聲⁵⁾.
격 립 제 조 양 삼 성

숲 건너 새 우는 소리 (하루에도)
두세 차례 듣는다네.

1) 유회(有懷) : 유감(有感) :

① 느낀 바 있다.

② 감동(감명)하다.

2) 풍광염염청춘모(風光苒苒青春暮) : 산천 풍경 푸릇푸릇 해지더니 봄 시절 끝나가고 :

① 풍광(風光) : 풍경, 경치, 경색(景色).

② 염염(苒苒) :

☆풀이(화초가) 무성한 모양.

☆초목이 무성한 모양.

- ③ 청춘(靑春): 봄을 가리킨다. 봄에 초목이 무성하고 그 색이 청록색인 까닭에 일컬어진 말이다.
- ④ 모(暮): 시간이 뒤로 돌려 끝나가다.
- 3) 세고망백발명(世故茫茫白髮明: 세상사정 막막한데 백발은 성성해지네):
- ① 세고(世故): 세상사정.
- ② 망망(茫茫): 막연하다, 모호하여 분명하지 않다, 까마득하다, 막막하다.
- ③ 명(明):
☆왕성하다.
☆선명하다.
- 4) 일몽한단고침후(一夢邯鄲高枕後: 꿈처럼 덧없는 공명功名 누리다가 은거한 후에는):
- ① 일몽한단(一夢邯鄲): 한단일몽(邯鄲一夢): 한단몽(邯鄲夢):
당(唐)나라의 사관(史官)이자 전기작가(傳奇作家)인 심기제(沈既濟: 750?~800?)가 쓴 『침중기(枕中記)』에 보이는 내용이다. 이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서기 731년에, ‘노생(盧生)이 한단(邯鄲: 전국시대戰國時代 조趙나라의 수도였던 곳. 지금의 허북성河北省 한단시邯鄲市)의 한 여인숙에서 우연히 도사(道士) 여옹(呂翁)을 만났는데, 그가 빌려준 자기(瓷器)로 만든 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는데, 꿈에 노생은 수십 년 동안 부귀영화를 누렸다고 한다. 꿈속에서 깨어보니, 자신이 자리에 누울 때 여인숙 주인이 짓기 시작하던 메조 밥이 아직 다 익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후세 사람들은 이 꿈을 “한단몽(邯鄲夢)”이라고 하며, 이를 ‘허황된 일’이나 ‘꿈처럼 덧없는 부귀공명’ 또는 ‘인생과 영화의 덧없음’에 비유하였다. 이 ‘한단몽(邯鄲夢)’과 같은 뜻으로 쓰이는 말로, 황량미몽(黃梁美夢), 일침황량(一枕黃粱), 한단지침(邯鄲之枕), 노생지몽(盧生之夢) 등이 있다.
- ② 고침(高枕):
☆베개를 높이 베다(하다).
a. 우려하는 바가 없음을 이르는 말.
b. 안심하고 편안하게(태평스럽게) 지내는 것을 이르는 말.
- ☆고와(高臥: 편안하게(한가롭게) 누워 있음)와 같은 말로서, 관직에서 물러나 집에서 거주함(은거함)을 이르는 말로, 본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으며, 여기에는 사안(謝安: 320~385: 동진東晉 중기의 재상)의 전고(典故)가 전해진다.
- 남조(南朝) 송(宋)의 유의경(劉義慶: 403~444)이 편집한 『세설신어(世說新語)·배조(排調)』에, “사공(謝公: 사안謝安)이 동산(東山: 지금의 절강성浙江省 상우현上虞縣 남서쪽 45리에 있는 산. 사안이 일찍이 여기서 은거했음)에 있을 때, (출사하라는) 조정의 명이 누차 내려졌으나, (사공은) 움직이지 않았다. 나중에 환선무(桓宣武: 312~373: 환온桓溫의 시호諡號)의 사마(司馬)가 되어 장차 신정(新亭: 지금의 강소성江蘇省 강영현江寧縣 남쪽에 있던 정자. 동진 때 조정의 관로나 명사들이 연회나 전별연을 자주 열던 장소임)을 출발할 때, 조정의 관리들이 모두 나와서 (그를) 전송했다. 당시 어사중승(御史中丞)으로 있던 고령(高靈: 생몰년 미상: 고송高崧의 자字)도 전송하러 갔는데, 그 전에 얼마간의 술을 마셨기 때문에 술기운을 빌어 조롱하기를: “그대는 누차 조정의 뜻을 어긴 채 고고하게 동산에 누워있었기에, 사람들이 매번 말하기를: ‘안석(安石: 사안謝安)이 (동산에서)

나오려 하지 않으니 장차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라고 했는데, 이제는 또한 백성들이 ‘장차 그대를 어떻게 해야 하오?’라고 하자, 사공은 웃기만 하고 대답하지 못했다(謝公在東山，朝命屢降而不動。後出爲桓宣武司馬，將發新亭，朝士咸出瞻送。高靈是爲中丞，亦往相祖，先時多少飲酒，因倚如醉，戲曰：“卿屢違朝旨，高臥東山，諸人每相與言：‘安石不肯出，將如蒼生何?’ 今亦蒼生‘將如卿何?’謝笑而不答)”라고 하였다.

5) 양삼성(兩三聲) : 두세 번.

- ① 양삼(兩三) : 두세, 두셋. 개략수사(概略數詞)로서 몇 개, 몇 번 또는 소량을 나타내는 말이다.
- ② 성(聲) : 양사(量詞)로 쓰였으며, 발성(發聲)하는 차수(次數)를 나타낸다.



시84. 안음^{安陰} 김윤명^{金允明}의 별세^{別世}를
애도^{哀悼}하다

詩84. 輓¹⁾金安陰^{안음}
만 김 안 음

憶曾蕭寺逢君處²⁾,
억 증 소 사 봉 군 처

일찍이 절에서 그대 만났던 때를
회고하니,

握手相看雙鬢絲³⁾.
악 수 상 간 쌍 빈 사

손 맞잡고 서로의 귀밑머리 바라봤었소.

薤露獨傷今日意⁴⁾,
혜 로 독 상 금 일 의

만가輓歌 지으며 오늘의 이 마음 각별히
애통한데,

山花自⁵⁾發去年枝。
산 화 자 발 거 년 지

산에 핀 꽃은 지난 해 그 가지에서
여전히 피었구려.

棲遲薄宦風塵晚⁶⁾,
서 지 박 환 풍 진 만

은퇴한 박관^{薄官}은 세상에 늙어
가는데,

隱約窮村歲月移⁷⁾.
은 약 궁 촌 세 월 이

빈궁한 벽촌에는 세월만 흘러가고 있소.

淚眼更尋塵壁裏⁸⁾,
루 안 경 심 진 벽 리

눈물 어린 눈으로 다시 먼지 낀 벽장을
살폈지만,

不堪重檢舊題詩⁹⁾.
불 감 중 검 구 제 시

차마 이전에 써둔 시 다시 점검하진
못하겠구려.

- 1) 만김안음(輓金安陰: 안음安陰 김윤명金允明의 별세를 애도하다):

① 만(輓): 사자(死者)를 애도하다.

② 김안음(金安陰): 안음(安陰) 김윤명(金允明: 1541~1604). 안음(安陰)은 김윤명의 호 자세한 것은 「시66」 주석1)을 참조 바람.

- 2) 억증소사봉군처(憶曾蕭寺逢君處: 일찍이 절에서 그대 만났던 때를 회고하니):

① 억(憶):

☆회고(회상)하다, 돌이켜보다.

☆기억하다.

② 증(曾): 부사로 쓰여 ‘일찍이, 이미, 이전에’ 등의 의미.

③ 소사(蕭寺): 불사(佛寺), 절.

당대(唐代)의 문학가 이조(李肇: 대략 813년 전후에 생존하였음)의 저서 『당국사보(唐國史補)』에서 “양무제(梁武帝: 464~549)가 사찰을 건축해 놓고, 소자운(蕭子雲: 487~549: 남조南朝 양나라의 대신)에게 명하여 비백서(飛白書: 한자 서체書體의 하나로, 북송의 서예가 황백사(黃伯思: 1079~1118)가 이 서체를 ‘산발한 실을 묶어 쓴 듯한 필적에 흰 선이 드러나므로 백(白)이라 하고, 그 필세가 날아 움직이는 듯하다 하여, 비(飛)라고 함으로써, 이 명칭이 전해오게 되었음)로 ‘소(蕭)’자를 큰 글자로 써서 걸어 놓게 했는데, 지금까지 그 ‘소(蕭)’자 한 자가 남아있다(梁武帝造寺, 令蕭子雲飛白大書‘蕭’字, 至今一‘蕭’字存焉)”고 한 구절이 있다. 그 후에 사람들은 ‘불사(佛寺: 절)’를 ‘소사(蕭寺)’라고 하였다.

④ 처(處): 때, 혹은 시(時)를 의미함.

- 3) 악수상간쌍빈사(握手相看雙鬢絲: 손 맞잡고 서로의 귀밑머리 바라봤었소):

① 상간(相看): 서로 함께 주시하다(바라보다).

② 쌍빈사(雙鬢絲):

☆쌍(雙): 양쪽 귀밑털을 가리키는 수사(數詞).

☆빈사(鬢絲): 빈사(鬢絲)로도 쓰고, 빈사(髻絲)로도 쓴다. 이는 귀밑털, 즉 관자놀이와 귀 사이에 난 머리털을 말함. 귀밑머리와 비슷한 말이다.

- 4) 해로독상금일의(薤露獨傷今日意: 만가輓歌 지으며 오늘의 이 마음 각별히 애통한 데):

① 해로(薤露): 이 시어(詩語)의 본뜻은 ‘부추에 맺힌 이슬’이란 의미이나, 한대(漢代)의 악부(樂府)에서는 「상화곡(相和曲)」의 곡명(曲名)으로 쓰이고 있다.

이것은 고대의 만가(挽歌: 만가輓歌: 상엿소리 또는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노래나 시)이다. 서진(西晉)의 문인이자 태부복(太傅僕: 태부太傅의 보좌관. 태부는 태제太宰, 태보太保와 함께 삼공三公의 하나로 황제를 훈도하는 업무를 맡았음)을 역임한 최표(崔豹: 생몰년 미상. 자는 정태正態, 연국燕國 출신임)는 그의 저서 『고금주(古今注)』에서 말하기를, “「해로(薤露)」와 「호리(蒿里)」는 모두 상엿소리이다(薤露蒿里並喪

家也). 전횡(田橫: ?~BC 202. 진秦나라 말엽 북방의 적狄 땅 출신으로, 진秦에 반기를 들고 기병起兵한 후, 자립하여 왕이 되었으나 유방(劉邦: BC 256 혹은 BC 247~BC 195)의 한군漢軍에게 패하여 자살하였음)의 문인(門人: 권세가 있는 집에 드나드는 사람)으로 있던 사람들은, 전횡이 자살하자, 문인들은 그것을 슬퍼하였으며, 그를 위하여 비가(悲歌)를 지었는데, 사람의 목숨이 마치 부추에 맺힌 이슬과 같아서, 쉽사리 말라 없어진다고 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사람이 죽으면, 혼백은 호리(蒿里: 태산泰山 남쪽에 있는 산 이름. 사람이 죽으면 혼백이 이곳에 와서 머문다는 곳. 轉하여 묘지의 뜻으로도 쓰고 만가挽歌의 뜻으로도 씀)에 돌아간다고도 하였다……진효무제(晉孝武帝: 362~396: 사마요司馬曜: 동진東晉 황제) 때에 와서, 이연년(李延年: ?~BC 87: 당시의 악공樂工)이 마침내 이 두 곡의 만가(挽歌)를 분류하여, 「해로(薤露)」는 왕공귀인(王公貴人)들을 보낼 때 쓰고, 「호리(蒿里)」는 사대부(士大夫)와 서인(庶人)들을 보낼 때 쓰도록 하여, 상여꾼들이 상여(喪輿)를 끌고 갈 때 그 노래를 부르도록 하였기로, 세상 사람들이 이 노래를 만가(挽歌)라 부른다(出田橫門人, 橫自殺, 門人傷之, 爲之悲歌, 言人命如薤上之露, 易晞滅也, 亦謂人死, 魂魄歸乎蒿里). …… . 至孝武時, 李延年乃分爲二曲, 薤露送王公貴人, 蒿里送士大夫庶人, 使挽柩者歌之, 世呼爲挽歌.”고 하였다.

- ② 독상(獨傷): 두드러지게(특별히) 슬프다.
- 5) 자(自): 여전히, 이전과 다름없이.
- 6) 서지박환풍진만(棲遲薄宦風塵晚: 은퇴한 박관薄官은 세상사에 늦어 가는데):
 - ① 서지(棲遲): 서지(栖遲) 혹은 서지(棲遲) 혹은 서지(棲遲)로도 쓴다.
☆유식(遊食: 놀며 지냄). 은퇴하여 삶.
 - ② 박환(薄宦): 박관(薄官)과 같은 말.
☆미친한 관직. 때로는 이 말을 겸사(謙辭)로도 쓴다.
 - ③ 풍진(風塵):
☆세상사(世上事).
☆평범한 세속사.
☆일상적인 일.
- 7) 은약궁촌세월이(隱約窮村歲月移: 빈궁한 벽촌에는 세월만 흘러가고 있소)
 - ① 은약(隱約): 곤궁, 재난, 고통, 곤란하다, 궁하다, 고난스럽다.
 - ② 궁촌(窮村): 외지고 요원한 향촌(鄉村). 벽촌(僻村).
 - ③ 세월이(歲月移): 세월이 이동하다. 세월이 흐르다. 시간이 흘러가다.
a. 세월(歲月): 세월, 시간, 년월.
b. 이(移): 변동하다, 이동하다, 개변(改變)하다, 바뀌다.
- 8) 루안경심진벽리(淚眼更尋塵壁裏: 눈물 어린 눈으로 다시 먼지 낀 벽장을 살폈지만):
 - ① 루안(淚眼): 루안(泪眼)이라고도 쓴다.
☆눈물 머금은 눈.
 - ② 진벽리(塵壁裏): 먼지 낀 벽장.
☆벽리(壁裏): 벽장(壁藏)을 가리킨다. 벽에 만들어 물건을 넣어 두는 곳이다.
- 9) 불가중검구제시(不堪重檢舊題詩: 차마 이전에 써 둔 시 다시 점검하진 못하겠거려):

- ① 불가(不堪) : 차마 ~할 수 없다.
- ② 중검(重檢) : 다시 점검하다.
 - a. 중(重) : 부사로 ‘또, 다시, 중복하여’의 뜻이다.
 - b. 검(檢) : 훑어보다. 열람하다. 점검하다.
- ③ 구제시(舊題詩) : 옛날에 지은 시. 이전에 써 둔 시.



시85. 경임 景任 정경세 鄭經世에게 부치다

詩85. 寄鄭景任¹⁾
기 정 경 임

君居西谷我東山²⁾,
군 거 서 곡 아 동 산

자네는 서부 골짜기 나는 동부 산기슭,

兩地相思百里間³⁾.
양 지 상 사 백 리 간

두 곳에서 서로 그리워하지만 백리나
떨어졌네.

高樹亂蟬秋雨後⁴⁾,
고 수 난 선 추 우 후

가을비 온 뒤 거목巨木에서 매미소리
요란하길래,

獨來溪曲聽潺湲⁵⁾.
독 래 계 곡 청 잔 원

홀로 계곡 굽이에 왔더니 졸졸 냇물
소리도 들리네.

1) 정경임(鄭景任) : 경임(景任) 정경세(鄭經世). 이렇게 성씨 다음에 이름 대신 자(字)를 쓴 것은 경칭(敬稱)의 한 예이다.

① 경임(景任) : 정경세(鄭經世)의 자(字).

② 정경세(鄭經世 : 1563~1633) : 조선 중기의 문신(文臣). 학자. 자는 경임(景任), 이름은 경세(經世), 호(號)는 우복(愚伏), 일묵(一默) 외 여러 개. 본관은 진주(晉州). 상주(尙州) 출신으로 서애의 문인이다. 1582년 진사를 거쳐 1586년 알성문과(謁聖文科)에 급제한 뒤 봉교(奉敎)를 거쳐 1589년 사가독서(賜暇讀書)를 하였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일으켜 공을 세워 1598년 경상도 관찰사가 되었고, 1623년 인조반정으로 부제학에 발탁되고 대사헌을 거쳐 이조판서 겸 대제학에 이르렀다. 성리학(性理學)에 밝았고 이기설(理氣說)에 있어서 이황(李滉)의 학설에 반대, 이이(李珣)에 동조하였으며, 예론(禮論)에 밝아서

김장생(金長生)과 함께 예학파(禮學派)로 불렸다. 시문과 서예에도 뛰어났다. 상주(尙州)의 도남서원(道南書院)과 대구(大邱)의 연경서원(硯經書院) 등에 제향되었다. 저서에 『우복집(愚伏集)』과 『주문작해(朱文酌解)』 등이 있다.

2) 군거서곡이동산(君居西谷我東山 : 자네는 서부 골짜기 나는 동부 산기슭) :

① 군(君) : 친구나 손아랫사람을 친근하게 부를 때에 그 성이나 이름 아래에 붙여 쓰는 말. 본시에서는 서애(西厓) 자신의 문하생인 정경세(鄭經世)를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② 서곡(西谷) : ‘서부 골짜기’란 뜻이나, 본시에서는 상주(尙州), 지금의 경북 상주시(尙州市) 외서면(外西面) 우산리(愚山里)를 가리킨다. 당시 정경세(鄭經世)의 저택이 위치한 곳으로, 경북 안동(安東) 하회(河回)의 서쪽에 위치하므로, 정경세의 향리를 시적(詩的)으로 표현한 말이다.

☆정경세는 1600년 영해부사(寧海府使)가 되었는데, 이 고을 풍습이 싸움을 잘 하고, 남을 모략하는 투서가 심했는데 이를 근절시켜 민풍(民風)을 일신(日新)시켰다. 그 해 겨울에 관직을 그만두고 귀향하였다. 당시는 봉당정치로 인한 풍랑이 일어 정계(政界)가 자못 시끄러웠다. 정경세는 이때를 기하여 관직을 사양하고 고향에 돌아와 학문연구에 전념하였으며, 마을에 존애원(存愛院)을 설치하여 사람들의 병을 무료로 진료하였다.

③ 동산(東山) : ‘동부 산기슭’이란 뜻이나 본시에서는 서애(西厓) 자신의 향리인 지금의 경북 안동시(安東市) 하회리(河回里)를 가리킨다. 자신이 거처하는 마을이 문하생 정경세가 사는 상주의 동쪽에 위치하므로 하회를 시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서애(西厓)는 임진왜란(壬辰倭亂 : 선조 25년(1592)부터 31년(1598)까지 이어진 전쟁)과 정유재란(丁酉再亂 : 임진왜란 휴전 교섭이 결렬된 뒤, 선조 30년(1597)에 왜장倭將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 등이 14만 대군을 이끌고 다시 쳐들어와 일으킨 전쟁)이라는 전대미문의 환란시기에 양란(兩亂)의 극복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나, 조·명(朝·明)연합군이 왜군과의 울산전투에서의 패배로, 명군 작전 감독기관인 경략(經略 : 현 보안부대 성격) 수장(首將) 형개(邢玘 : 생몰년 미상) 수하의 병부주사(兵部主事) 정응태(丁應泰 : 생몰년 미상)가 명군(明軍) 지휘부와 조선 조정을 싸잡아 탄핵했을 뿐 아니라, 조선이 일본과 연합하여 명나라를 공격하려한다는 것 등 20여 가지의 사건을 명 황제에게 무고(誣告)함으로써, 조선 조정은 일대 파란을 겪게 되었으며, 그 중심에 당시 영의정(領議政)이었던 서애가 있었다. 서애는 이때 이 사건의 진상을 해명하는 진주사(陳奏使 : 주청사(奏請使 : 조선 시대에 동지사冬至使 이외에 중국에 주청할 일이 있을 때 보내던 사절使節)로 가지 않는다 하여, 당시 북인(北人 : 조선시대에 사색당과四色黨派 가운데 이발李潑, 이산해李山海를 중심으로 한 당파. 우성전禹性傳과 류성룡柳成龍 등을 중심으로 한 남인南人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임)의 탄핵을 받아, 관직을 삭탈 당했으며(1598년 12월6일), 1600년에 복관되었으나, 다시는 벼슬을 하지 않고 안동 하회에서 은거하였다.

당시 정응태가 무주(誣奏)한 내용을 조선 중기의 문신인 이정구(李廷龜 : 1564~1635 : 자 성징聖徵, 호 월사月沙, 시호 문충文忠)가 지은 『월사집(月沙集) 권2 1·정주사 응태 참론本國변무주(丁主事應泰參論本國辨誣奏 : 간칭 : 무술변무록戊戌辨誣錄)』에 상세한 해명이 보인다.

3) 백리간(百里間) :

- ① 백 리의 거리. 백 리나 떨어져 있다.

☆백 리(百里) : 안동에서 상주까지의 거리를 말하며, 약 40km, 곧 백 리이다.

☆간(間) : 거리. 떨어진 정도 일정한 공간이나 동안(시간)을 가리킨다.

4) 고수난선추우후(高樹亂蟬秋雨後) : 가을비 온 뒤 거목巨木에서 매미소리 요란하길래) :

- ① 고수(高樹) : 거목(巨木) : 굵고 큰 나무.

- ② 난선(亂蟬) :

☆여기저기서 요란하게 우는 매미소리.

☆매미소리가 요란하다.

5) 독래계곡청잔원(獨來溪曲聽潺湲) : 홀로 계곡 굽이에 왔더니 졸졸 냇물 소리도 들리네) :

- ① 독래(獨來) : 홀로 오다.

- ② 계곡(溪曲) : 계곡의 굽이. 계곡의 굽이굽이.

☆곡(曲) : 굽이, 휘어져 구부러진 곳.

- ③ 잔원(潺湲) :

☆물이 졸졸 흐르는 모양.

☆물이 졸졸 흐르는 소리.

시86. 속평^{叔平} 이준^{李俊}에게 부치다

詩86. 寄李叔平¹⁾
기 이 속 평



久愛詩聲落地金²⁾,
구 애 시 성 낙 지 금

땅에 떨어지면 풍경소리 날 듯한
자네의 시 오랜 세월 좋아했는데,

書來聊復慰幽襟³⁾.
서 래 료 부 위 유 금

서신까지 받고 보니 잠시 마음속 깊이
위로됐네.

相思苦⁴⁾被山河隔,
상 사 고 피 산 하 격

서로 그리워 시름 쌓여도
강산이 가로 막혀 있고,

多病空驚歲月侵⁵⁾.
다 병 공 경 세 월 침

병치레로 하는 일 없다보니
세월만 잠식하여 마음이 편치 못하네.

萬事自憐垂老日⁶⁾,
만 사 자 련 수 로 일

만사를 자신만 돌보는 노년이 되고
보니,

百年難了報恩心。
백 년 난 료 보 은 심

영원히 보은^{報恩}의 충정 다하기 어려울
듯하네.

知君獨抱峩洋曲⁷⁾,
지 군 독 포 아 양 곡

자네는 유독 아양곡^{峩洋曲}을
중히 여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欲向江樓聽玉琴⁸⁾。
 욕향강루청옥금

강변 누각에 올라가 거문고로
 그 음를 듣고 싶으이.

1) 이숙평(李叔平): 숙평(叔平) 이준(李俊): 이렇게 성씨 다음에 이름 대신 자(字)를 쓴 것은 경칭(敬稱)의 한 예이다.

① 이준(李俊: 1560~1635): 조선 중기의 문신(文臣)이며, 자(字)는 숙평(叔平), 이름은 준(俊), 호는 창석(蒼石)이며, 류성룡(柳成龍: 1542~1607)의 문인. 그는 1591년 별시문과(別試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한 뒤, 정경세(鄭經世: 1563~1633)와 함께 의병을 모집하여 항전했으나 패하였다. 1604년 주청사(奏請使)의 서장관으로 명(明)나라에 다녀왔으며, 정묘호란(丁卯胡亂) 때에 다시 의병을 모집하여, 수십만 섬의 군량미를 모아 국가재정에 일조하였다.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가 되었다. 경북 상주(尙州)에 위치한 옥성서원(玉城書院)에 배향되고, 저서에 『창석문집(蒼石文集)』이 있다.

2) 구애시성낙지금(久愛詩聲落地金: 땅에 떨어지면 풍경소리 날 듯한 자네의 시 오랜 세월 좋아했는데):

① 구애(久愛): 두고두고 오랫동안 좋아하다.

② 시성(詩聲): 고대(古代) 시가(詩歌)의 곡조를 가리킨다.

③ 낙지금(落地金): 척지금성(擲地金聲):

‘땅에 던지면 쇠로 만든 악기 소리가 난다’라는 뜻으로, 아름다운 문장을 비유하는 고사성어이다.

중국 남북조시대 동진(東晉)의 시인 손작(孫綽: 생졸년 미상)의 고사(故事)에서 유래되었다. 척지부성(擲地賦聲) · 척지작금석성(擲地作金石聲) · 척지유성(擲地有聲)이라고도 한다. ‘금(金)’은 종경(鐘磬: 종과 경쇠 또는 풍경) 류의 악기를 가리킨다. 진나라 때의 손작은 어려서부터 글 솜씨가 뛰어나 명성이 높았다. 한번은 「천대부(天臺賦)」를 지은 뒤에 친구인 범영기(范榮期: 생졸년 미상)에게 읽어 보라고 주면서 “시험 삼아 땅에 던져 보게나, 금석으로 만든 악기 소리가 날걸세(卿試擲地, 當作金石聲也)”라고 말하였다. 범영기는 “그대가 말한 금석의 소리라는 것은 아마도 악기에서 나는 5음 중의 소리는 아닐 테지(恐此金石非中宮商)!”라고 되받았다. 그러나 범영기가 손작의 작품을 읽어보니 구절마다 아름다운 표현인지라 문득 “글을 지으려면 이렇게 지어야 해(應該是我輩語)”라고 말하며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고 한다.

(『진서 권56(晉書卷五十六) · 열전 제26 · 손초 · 손통 · 손작(列傳第二十六 · 孫楚 · 孫統 · 孫綽)』 참조함)

3) 서래로부위유금(書來聊復慰幽襟: 서신까지 받고 보니 잠시 마음속 깊이 위로됐네):

① 서(書): 서신을 가리킨다.

② 요부(聊復): 잠시, 또

③ 위유금(慰幽襟): 마음속 깊이 위로하다.

☆위(慰) : a. 위로하다. b. 위안하다. c. 안심하다.

☆유금(幽襟) : 내심에 묻어둔 정감(情感).

- 4) 상사고(相思苦) : 서로 그리워 시름이 쌓이다.

① 상사(相思) : 서로 그리워하다.

② 고(苦) : 근심으로 괴로워하다.

- 5) 다병공경세월침(多病空驚歲月侵) : 병치레로 하는 일 없다보니 세월만 잠식하여 마음이 불안하네) :

① 다병공(多病空) :

☆다병(多病) : 병이 잦다.

☆공(空) : 실속 있게 하는 일이 없음을 가리킨다.

② 경세월침(驚歲月侵) : 세월 잠식하는 것을 놀라워하다.

☆경(驚) : 마음이 편치 못하다, 마음이 불안하다. 놀라워하다. 놀래다.

☆침(侵) : 침식하다. 잠식(蠶食)하다.

- 6) 수로일(垂老日) : 노년이 된 시기.

① 수로일(垂老日) :

☆수로(垂老) : 거의 노년이 된 시기. 곧 노년이 되는 때.

a. 수(垂) : 거의 ~에 가깝다.

b. 로(老) : 노년.

☆일(日) : 광음(光陰), 세월, 시기, 시간, 날.

- 7) 지군독포아양곡(知君獨抱絃洋曲) : 자네는 유독 아양곡絃洋曲을 중히 여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

① 독포(獨抱) : 유독~만 소중히 여기다.

☆독(獨) : 부사로 쓰여, ‘여전히 특별히, 독특하게’의 뜻.

☆포(抱) : 지니다. 보존하다. 소중히 하다.

② 아양곡(絃洋曲) : 춘추시대(春秋時代)에 백아(伯牙 : 생몰년 미상)가 탔다고 하는 금(琴 : 거문고와 비슷한 현악기絃樂器의 일종)의 악곡(樂曲)이다.

『열자(列子) · 탕문편(湯問篇)』에 이르기를 : “백아(伯牙)는 거문고[琴]를 아주 잘 탔고, 종자기(鍾子期)는 그 소리를 경청하는데 능숙하였다. 백아가 거문고를 연주함에, 뜻이 높은 산에 오르는데 있으면, 종자가 말하기를 : “절묘하네, 높고 웅대한 것이 태산과 같구나!”라고 하고, 생각이 흐르는 물에 있으면, 종자가 말하기를 : “절묘하네, 성대하게 도도히 흐르는 모양이 장강과 황하와 같으네!”라고 하여, 백아의 생각하는 바를 종자가 반드시 알아냈다(伯牙善鼓琴, 鍾子期善聽. 伯牙鼓琴, 志在登高山, 鍾子期曰 : “善哉, 峩峩兮若泰山!” 志在流水, 鍾子期曰 : “善哉, 洋洋兮若江河!” 伯牙所念, 鍾子期必得之).

백아가 태산 북쪽에 유람을 갔다가, 갑자기 소나기를 만나, 바위 아래 머물게 되었다(伯牙游於泰山之陰, 卒逢暴雨, 止於巖下). 마음속에 서글픈 생각이 들어서, 거문고를 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장맛비[霖雨]」의 곡조를 타고, 그 다음에는 「붕괴되는 산[崩山]」의 곡조를 탔다. 곡조를 연주할 때마다, 종자기는 번번이 거문고 곡조의 정취를 알아냈다. 백아는 마침내 거문고를 내려놓고 탄식하여 말하기를 : “훌륭하네, 훌륭하네! 그대는 내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상상하는 것도 내 마음과 같으네. 내가 어떻게 탄들 거문고 음곡이 그대의 청력(聽力)

을 벗어날 수 있겠는가(心悲, 乃援琴而鼓之。初爲霖雨之操, 更造崩山之音, 曲每奏, 鍾子期輒窮其趣。伯牙乃舍琴而嘆曰: “善哉, 善哉, 子之聽夫志, 想象猶吾心也。吾於何逃聲哉?”)라고 하였다.

『여씨춘추(呂氏春秋)·본미편(本味篇)』에서도, 백이는 거문고를 잘 탔고, 종자기는 그 음곡(音曲)을 듣고 백아의 심중을 잘 알았음을 기록한 다음에 이르기를, “종자기가 죽자, 백이는 거문고를 파기(破棄)하고 그 현(絃: 현악기의 줄)을 끊어 버리고 나서, 종신토록 두 번 다시 거문고를 타지 않았으니, 세상에 다시는 지음(知音: 거문고 소리를 알: 전(轉)하여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는 친한 벗)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서였다(鍾子期死, 伯牙破琴絕絃, 終身不復鼓琴, 以爲世無足復爲鼓琴者).”고 하였다.

☆백아(伯牙: 생몰년 미상) 춘추시대(春秋時代) 초(楚)나라 사람. 동한(東漢)의 학자 고유(高誘: 생몰년 미상)의 『여씨춘추주(呂氏春秋注)』에 의하면, “백(伯)은 성씨이고 ‘아(牙)’는 이름인데 ‘아(雅)’로도 쓴다(伯姓, 牙名, 或作雅)”고 하였다. 동한(東漢)의 문인이자 서예가인 채옹(蔡邕: 133~192)의 저서 『금조(琴操)·수선조편(水仙操篇)』과 『태평어람(太平御覽)』 권578, 「악(樂)·금편(琴篇)」에 의하면, 그는 거문고 타는 법을 저명한 거문고 스승인 성련(成連: 생몰년 미상)에게 3년 동안 배웠으나, 성공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래서 성련은 백아를 데리고 동해 봉래산(蓬萊山)에 가서, 그를 열흘 동안 혼자 머물게 하였다고 한다. 백아의 귀에 들리는 것이라고는 파도소리와 새들이 슬프게 지저귀는 소리 뿐이었다. 스승 성련은 그 정취를 백아의 심중에 전이(轉移)하도록 했고, 백아는 전념하여 그 정취를 체득하려 애썼다고 한다. 이에 백아는 마음에 느낀 바가 깊어 거문고 타는 솜씨가 크게 진보하였다고 한다. 백아는 마침내 천하제일의 거문고 명인(名人)이 되었다고 하였다. 종자기와는 교분이 두터웠으며, 백아의 의취(意趣)를 잘 알았다고 한다. 훗날 종자기가 죽자 세상에 지음(知音)하는 사람이 없음을 통탄하면서 다시는 거문고를 타지 않았다고 한다. 『악부해제(樂府解題)』에도 그에 관한 기록이 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수선조(水仙操)」와 「고사유수(高山流水)」는 그의 작품이라고 한다.

☆종자기(鍾子期: 생몰년 미상) 춘추시대(春秋時代) 초(楚)나라 사람이다. 음률을 잘 분별하였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백아(伯牙)가 거문고를 타고 자기(子期)는 들었는데, 백아가 거문고 탈 때의 뜻이 고산(高山)에 있는가 유수(流水)에 있는가를 알 수 있었다고 한다. 무릇 백아가 거문고를 타면서 생각하는 바를 자기(子期)는 정확하게 알았다고 한다. 백아에게 지음(知音)한다고 여겨졌기에, 자기(子期)가 죽자, 백아는 거문고를 파기하고 그 현(絃)을 끊어 종신토록 다시는 거문고를 타지 않았다고 하다.

이에 대한 기록은 『열자(列子)·탕문편(湯問篇)』 외에도, 『여씨춘추(呂氏春秋)·본미편(本味篇)』·정통편(精通篇)』에도 그에 관한 기록이 있다.

8) 옥금(玉琴): 옥으로 장식을 한 거문고. 거문고의 미칭으로 쓰기도 한다.

시87. 홍중 노경임 盧景任에게 부치다

詩87. 寄盧弘仲¹⁾
기 노 홍 중



衰病侵尋雪滿頭，
쇠 병 침尋 설 만 두

노병老病이 깊어지고 머리는 온통
백발이 됐는데,

思君不見意悠悠²⁾。
사 군 불 견 의 유 유

자네 생각나도 만날 수 없어 마음이
답답하네.

那堪別後年華晚³⁾，
나 감 별 후 년 화 만

게다가 작별한 후 봄 풍경은
사그라지고,

碧樹蟬聲已近秋。
벽 수 선 성 이 근 추

푸른 수목에 매미소리 벌써 가을이
다가온 듯하네.

1) 노홍중(盧弘仲) : 홍중(弘仲) 노경임(盧景任 : 1569~1620) :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안강(安康), 자는 홍중(弘仲), 호는 경암(敬菴).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 : 1542~1607)의 문인. 자세한 것은 「시51」의 주석1) ‘노홍중(盧弘仲)’ 조항을 참조 바람.

2) 의유유(意悠悠) : 마음이 궁궁하고 답답하다.

① 의(意) : 마음, 정의(情意), 정서(情緒), 감정(感情) 등.

② 유유(悠悠) :

☆그리워하는 모양으로, 이는 궁궁하고 답답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음.

☆그리워서 (시름, 걱정)하는 모양.

- 『시경(詩經)·패풍(邶風)·종풍(終風)』에,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지만, 먼
먼히 나는 늘 그를 그리워하네(莫往莫來, 悠悠我思).”라고 읊은 구절이 있다.
- 3) 나감별후년화만(那堪別後年華晚 : 게다가 작별한 후 봄 풍경은 사그라지고) :
- ① 나감(那堪) : 하물며. 더군다나. 겸하여.
 - ② 연화만(年華晚) : 봄 풍경이 끝나다. 봄철의 시기가 끝나다.
☆연화(年華) : 봄 경치. 봄 풍경. 봄빛.
☆만(晚) : 끝나(가)다.

시88. 아이 두 명과 집 앞 냇가에서 발을 담그고 놀다

詩88. 與童子二人濯足前溪¹⁾
여 동 자 이 인 탁 족 전 계



濯足清溪弄溪水,
탁 족 청 계 놀 게 수

맑은 시냇물에 발 담그고 물놀이
하다가,

因攜童子步溪沙²⁾.
인 휴 동 자 보 게 사

아이들 손잡고 시냇가 백사장을
거닐었네.

山深樹密無人見,
산 심 수 밀 무 인 견

산 깊고 수목 울창해 보는 사람 없는데,

處處新開石竹花³⁾.
처 처 신 개 석 족 화

여기저기 패랭이꽃 산뜻하게 피었네.

1) 여동자이인탁족전계(與童子二人濯足前溪 : 아이 두 명과 집 앞 냇가에서 발을 담
그고 놀다) :

① 동자(童子) : 동자, 아동, 소년, 사내아이.

② 탁족(濯足) : 발을 씻다. 발을 물에 담그다. 본시에서는 ‘발을 물에 담그고 놀다’
로 번역하였다.

‘탁족(濯足)’이란 말의 어원(語源)은, 『맹자(孟子) · 이루장구(離婁章句)상(上)』
에, “어떤 소년이 노래하기를 : 창랑(滄浪)의 물이 맑으면, 내 모자의 끈을 빨 것
이요. 창랑의 물이 흐리면, 내 발을 씻을 것이네(有孺子歌曰 : 滄浪之水清兮, 可
以濯我纓。滄浪之水濁兮, 可以濯我足)”라고 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위 인용
문에서 보듯이, 원래 ‘탁족(濯足)’이란 말은 ‘발에 묻은 때를 씻다’는 뜻이지만,

훗날 사람들은 이 ‘탁족(濯足)’이란 말을 ‘세속(世俗)의 일을 말끔히 떨쳐버리고
고결함을 보유함’에 비유하는 말로 썼다.

2) 인휴동자(因攜童子):

① 인(因): 접속사로 ‘그 다음에, 혹은 이리하여’ 등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② 휴(攜): 데리고 가다. 휴(携)의 본자(本字).

☆(손을) 잡다(잡다).

☆(사람을) 데리고 가다.

☆(물건을) 휴대하다.

- 3) 석죽화(石竹花): 패랭이꽃. 석죽과(石竹科)의 여러해살이 꽃으로, 높이는 30cm 정도이며, 잎은 마주나고 선 모양이다. 6~8월에 진분홍색 꽃이 가지 끝에 하나씩 피고 열매는 삭과(蒴果: 익으면 과피果皮가 쪼개지면서 씨를 퍼뜨리는 여러 개의 씨방으로 된 열매)를 맺는다. 관상용이고 꽃은 전초(全草: 잎·줄기·꽃·뿌리 따위를 가진 옹근 풀포기)와 함께 약용한다. 석죽(石竹)이라고도 하고 천국(天菊)이라고도 한다.

시89. 구월 초아흐렛날 증양절 重陽節에 벽에 써 붙이다

詩89. 九日書壁¹⁾
구 일 서 벽



病脚羸疲不下堂²⁾,
벽 각 리 피 불 하 당

병든 다리 무력해져 집 밖도
못나가면서,

敝裘穿結³⁾悵新霜。
폐 구 천 결 겁 신 상

해진 갓옷 꿰맨 것은 첫서리
두려워서일세.

人間萬事都無興,
인 간 만 사 도 무 흥

인간만사 모든 것이 다 흥미 없지만,

曝背陽簷一味長⁴⁾。
복 배 양 첨 일 미 장

남쪽 처마 아래서 등에 햇볕 쬘
그 맛은 으뜸일세.

1) 구일서벽(九日書壁):

① 구일(九日): 이는 음력 9월 9일의 '9일'을 칭하는 것이다.

☆음력 9월 9일은 중국 전통 풍속의 하나로 이 날을 중양절(重陽節)라고 함. 이는 『주역(周易)』에 보면, '육(六)'은 음수(陰數)로 '구(九)'는 양수(陽數)로 정하고 있다. 고로 구월구일(九月九日)은 달[月]과 날[日]이 모두 양(陽)에 속하여, 두 개의 '구(九)'가 겹쳐서, '중양(重陽)'이라고 칭한 것이다.

즉, 양수가 겹쳐지는 '9월 9일'의 중양절(重陽節)에는 시절음식과 풍속들이 행해진다. 또한 이 날은 봄에 떠나갔던 기러기는 북에서 돌아오고, 제비는 강남(江南)으로 간다고 전해진다. 중국인들은 이 날에는 집밖을 나가서 경물(景物)

을 감상하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국화주를 마시고, 부녀자들은 수유(茱萸: 쉬 나무의 열매, 자주색으로 기를 짜서 머릿기름으로 씌)를 넣은 주머니를 지니거나 머리에 수유를 꽂아서, 재앙을 없애는 풍속이 있다. 이 풍속의 기원은 남조(南朝)의 양(梁)나라의 학자 오균(吳均: 469~520)의 『속제해기(續齊諧記)』에 보인다. 여남(汝南)의 환경(桓景: 생몰년 미상)이라는 사람이 기인(奇人) 비장방(費長房: 생몰년 미상)을 스승으로 모셨는데, 하루는 그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다. 9월 9일에 집안에 큰 재앙이 닥쳐올 터이니 붉은 주머니에 수유를 가득 채워 팔에 걸고 높은 산에 올라가 국화주를 마시면 재앙을 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이었다. 그는 이대로 시행하였다. 저녁에 집에 와보니 가족들이 모두 죽어 있었다. 장방이 그 말을 듣고, “아들이 대신하였다(此可代也)”라고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신라(新羅) 이래로 이 날을 명절로 정하고 조정에서는 잔치를 베풀고 군신들이 즐거움을 함께 했다고 한다. 또한 민간에서는 국화꽃잎을 따서 찹쌀가루와 반죽하여 단자(團子: 단자團糰: 밤틀만한 크기로 동글동글하게 빚어 끓는 물에 삶아 낸 후, 그 위에 고물이나 옛물을 바른 떡 즉 경단인) 모양의 찹쌀떡을 만들어 먹는데, 이를 국화전(菊花煎)이라 하고, 서울에서는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남산이나 북악산 등에 올라가 시절음식[時食]을 배불리 먹고 하루를 흥겹게 지냈는데, 이를 단풍놀이이라고 한다. 특히 시인 묵객들은 술과 음식을 마련해 국화꽃잎을 술잔에 띄워 마시며 풍류를 즐기면서 가을을 만끽하여, 말하자면, 소풍이나 단풍놀이로 개승되어 왔다.

- ② 서벽(書壁): 벽에 써 붙이다. 벽에 쓰다.
- 2) 병각리피불하당(病脚羸疲不下堂: 병든 다리 무력해져 집밖도 못나가면서):
 - ① 병각(病脚):
 - ☆다리에 병이 생기다.
 - ☆병든 다리.
 - ② 이피(羸疲):
 - ☆쇠약해지다.
 - ☆허약하여 무력해지다.
 - a. 리(羸): 쇠약해진 병, 허약하다, 여위고 약하다.
 - ③ 하당(下堂):
 - ☆전당(殿堂) 밖이나 집(방) 밖으로 나감(떠남)을 이른다.
 - a. 하(下): 떠나다, 나가다(出), 출발(출동)하다(發), 가다(去, 到).
 - b. 당(堂): 넓고 큰 방(당옥堂屋). 관아, 사원 등의 높고 큰 집(전당殿堂). 사람들이 거주하는 집.
- 3) 폐구천결(敝裘穿結):
 - ① 폐구(敝裘):
 - ☆해진 갓옷(짐승의 털가죽으로 안을 댄 옷).
 - ☆낡고 오래된 가죽옷(피의皮衣).
 - a. 폐(敝): 낡다, 해어지다.
 - b. 구(裘): 갓옷, 모의(毛衣), 모피(毛皮)로 만든 옷.
 - ② 천결(穿結): 헤어진 옷을 꿰매다. 의복에 구멍이 나고 꿰매를 이른다.
 - ☆천(穿): 구멍이 나다.

☆결(結): 꿰매다.

- 4) 폭배양침일미장(曝背陽簷一味長: 남쪽 처마 아래서 등에 햇볕 쬐는 그 맛은 일품 일세):

① 폭배(曝背): 등에 햇볕을 쬐다.

② 양침(陽簷): ‘햇볕 드는 (남쪽) 처마 아래’를 가리킨다.

☆양(陽): 햇볕이 드는. 따뜻한, 온화한. 산의 남쪽, 물의 남쪽.

☆침(簷): 처마.

- ③ 일미장(一味長): 남쪽 처마 아래서 햇볕 쬐는 ‘그 (한 가지) 맛이 으뜸이다’라는 것이다.

☆일미(一味): 독특한 한 가지의 맛, 일종의 맛, 첫째가는 좋은 맛.

☆장(長): 으뜸이다, 제일이다.

북위(北魏: 386~533: 남북조 시대 선비족鮮卑族의 탁발규拓跋珪가 세운 북조北朝 최초의 왕조)의 저명한 문인 양현지(楊衒之: 생몰년 미상. 성씨를 양陽으로도 씀)의 저서 『낙양가람기(洛陽伽藍記)·정각사편(正覺寺篇)』에, “양(羊)은 육산물(陸產物)의 최고요, 물고기는 수중(水中) 생물중의 으뜸이다(羊者是陸產之最, 魚者乃水族之長).”라고 한 구절이 있다.



시90. 초여드렛날 서미동¹⁾西美洞에 돌아와서
쓴 시 세 수

詩90. 八日還西美洞¹⁾三首
팔 일 환 서 미 동 삼 수

其一
기 일

[1]

紅葉滿山秋色老²⁾,
홍엽만산추색로

온 산에 단풍 들어 추색秋色이
짙어지고,

碧天如水鴈聲哀。
백천여수안성애

물빛 같이 푸른 하늘에 기러기 소리
애달프네.

佳辰酩酊非吾事³⁾,
가친명정비오사

호시절에 만취함은 내 본색이 아니라서,

信馬行吟入洞來⁴⁾。
신마행음입동래

말 가는 대로 버려두고 시 읊다 보니
동네 어귀 들어섰네.

其二
기 이

[2]

出洞意不適⁵⁾,
출동의부적

동구 밖을 나서면 마음이 편찮은데,

入洞良足樂⁶⁾.
입 동 양 족 락

동네 어귀 들어서니 기쁘기 한량없네.

獨來不逢人,
독 래 불 봉 인

홀로 돌아오며 마주치는 사람도 없는데,

秋風動林壑⁷⁾.
추 풍 동 립 학

추풍만 수림 우거진 산골짜기를 뒤흔드네.

其三 기 삼

[3]

古道⁸⁾生秋草,
고 도 생 추 초

옛 길에는 가을풀이 자라고 있는데,

空山已夕暉⁹⁾.
공 산 이 석 휘

인적 없는 산에 벌써 석양이 깃드네.

小菴依舊在¹⁰⁾,
소 암 의 구 제

조그마한 암자 옛날 그대로 있는데,

聊可掩柴扉¹¹⁾.
료 가 업 시 비

아니, 어찌 사립문이 닫혀있는고?

-
- 1) 서미동(西美洞) : 지금의 경북 안동시(安東市) 풍산읍(豐山邑) 서미동(西美洞). 자세한 것은 「시75」 주석1)을 참조 바람.
- 2) 홍엽만산추색로(紅葉滿山秋色老) : 온 산에 단풍 들어 추색秋色이 짙어지고:
① 홍엽(紅葉) : 붉게 물든 단풍잎.
② 추색로(秋色老) :
☆추색(秋色) : 가을철의 경색(景色 : 경치)이나 분위기 또는 기상(氣象).
☆로(老) : 질다. 진하다. 완연하다.
- 3) 가진명정비오사(佳辰醕酎非吾事 : 호시절에 만취함은 내 본색이 아니라서) :
① 가신(佳辰) : 양신(良辰), 길일(吉日). 좋은 날, 좋은(아름다운) 시절.
☆가(佳) : 아름답다, 좋다.
☆신(辰) : 일자(日字 : 날짜), 시간, 시기, 계절, 세월, 시간.
② 명정(醕酎) : 술에 몹시 취한 모양, 대취한 모양. 대취하다, 만취하다.
- 4) 신마행음입동래(信馬行吟入洞來 : 말 가는 대로 버려두고 시 읊다 보니 동네어귀 들어섰네) :
① 신마(信馬) : 늘 타던 말. 말[馬] 가는 대로 가다. 말 가는 대로 맡겨 두다. 말이

가는 대로 내버려두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빨리 가라 천천히 가라고 제약을 가하지 않음.

② 행음(行吟) : 한편으로 거닐면서 한편으로는 시사(詩詞)를 읊조리다.

5) 부적(不適) : 몸이 불편하다, 편안하지 않다.

6) 양족락(良足樂) : 참으로 대단히 기쁘다.

① 양족(良足) : 두 글자가 모두 부사로 쓰인다. 앞의 ‘양(良)’은 ‘무척, 아주, 썬, 몹시, 참으로, 매우, 대단히, 확실히, 과연’ 등의 뜻이고, 뒤의 ‘족(足)’은 ‘족히, 충분히, 많이, 매우, 무척’ 등의 뜻이다.

② 락(樂) : 형용사로 쓰여, ‘좋다. 즐겁다. 기쁘다.’의 뜻이다.

7) 임학(林壑) :

① 수림 우거진 산골짜기.

② 은거처(隱居處)를 가리키기도 한다.

8)古道(古道) : 옛길. 옛날에 다니던 길.

9) 공산이석휘(空山已夕暉) : 인적 없는 산에 벌써 석양이 깃드네) :

① 공산(空山) : 인적 없는 산중.

② 석휘(夕暉) : 저녁때의 햇빛 또는 저녁때의 저무는 해.

10) 소암의구재(小菴依舊在 : 조그마한 암자 옛날 그대로 있는데) :

① 소암(小菴) : 소암(小庵)으로도 쓴다. 암(菴)은 암(庵)과 동자(同字)이다. 조그마한 암자.

② 의구(依舊) :

☆옛날 그대로 변함이 없다.

☆본래대로(예전대로, 종전대로) 따르다(하다).

11) 룡가엄사비(聊可掩柴扉 : 아니, 어찌 사립문이 닫혀 있는고?) :

① 룡(聊) :

☆놀리는 모양을 표현한 말로, ‘아니’ ‘어허’ 등의 표현으로 번역할 수 있음.

☆잠시. 잠시라도.

② 가(可) : 반문을 나타내며 ‘어찌~한 일이 있겠는가? 어찌 ~인가? 어찌 ~이란 말인가?’ 등의 뜻으로 쓰였음.

③ 엄사비(掩柴扉) : 사립문이 닫혀 있다.

☆엄(掩) : (문을) 닫다.

☆사비(柴扉) : 사립문(사립작(나뭇가지를 엮어서 만든 문짝)을 달아서 만든 문).

시91. 산중에서 한가하여, 아이들과 도토리
주우며, 얼핏 떠오르는 생각을 시가로
 읊어 농으로 삼다

詩91. 山中無事 與兒輩拾橡 偶吟爲戲¹⁾
 산 중 무 사 여 아 배 습 상 우 음 위 희



朝出拾橡東山巔²⁾,
 조 출 습 상 동 산 전

아침녘엔 동산東山 마루에 가서
도토리 줍고,

暮出拾橡東山足³⁾.
 모 출 습 상 동 산 족

저물녘에는 동산 기슭에 가서
도토리 주웠네.

朝朝暮暮⁴⁾拾橡去,
 조 조 모 모 습 상 거

아침저녁마다 도토리 주우러 다니느라,

衣裳穿結脚不韞⁵⁾.
 의 상 천 결 각 불 발

옷은 해져 꿰매 입었지만
버선은 신지도 알았네.

今年橡林多結子⁶⁾,
 금 년 상 립 다 결 자

올해는 상수리나무 열매가 많이도 열려,

風飄滿地⁷⁾落。
 풍 표 만 지 낙

바람 불면 온 땅에 금빛 열매 떨어지네.

老夫衰病⁸⁾不出門,
 노 부 쇠 병 불 출 문

이 늙은이 노병老病으로
외출을 못하다가,

尙爲資生謀口業⁹⁾。
상 위 자 생 모 구 업

그래도 살아보려고 생업을 도모하네.

辛勤日日不知疲¹⁰⁾ :
신 근 일 일 부 지 피

날마다 고되게 일해도
피곤한 줄 모르면서,

坐對筠籠時一噓¹¹⁾。
좌 대筠籠 시 일 각

대바구니 앞에 놓고
이따금 꺄꺄 웃었네.

呼童束薪西澗底¹²⁾,
호 동 속 신 서 간 저

애들 불러 서쪽 계곡 아래서
떨감나무 해오게 하여,

石鑪¹³⁾煮熟甘如蜜。
석 당 자 숙 감 여 밀

뚜배기에 삶아 익히니
꿀맛같이 달콤하네.

食飽負手¹⁴⁾下庭行,
식 포 부 수 하 정 행

배불리 먹고 뒷짐 진 채 뜰에 나가
걸으면서,

自笑前時五鼎食¹⁵⁾。
자 소 전 시 오 정 식

고관시절 미식美食했던 종전의 나를
조소嘲笑하네.

-
- 1) 산중무사 여아배습상 우음위희(山中無事 與兒輩拾橡 偶吟爲戲 : 산중에서 한가하여, 아이들과 도토리 주우며, 얼핏 떠오르는 생각을 시가로 읊어 농으로 삼다) :

① 무사(無事) :

☆하는 일이 없음(無所事事).

☆한가함. 본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음. 자세한 것은 「시75」 주석11)의 ③ ‘무사(無事)’ 조항을 참조 바람.

② 아배(兒輩) : 아이들.

③ 상(橡) : 상수리 : 도토리(방언으로는 꿀밤) 또는 그 나무.

④ 우음(偶吟) : 얼핏 떠오르는 생각을 시가로 읊음.

- 2) 동산령(東山巔) : 동산(東山) 마루.

① 령(巔) :

☆산마루(산등성이의 가장 높은 곳 : 산의 등줄기).

☆산마루턱 · 산등성마루 · 산등성이.

- 3) 동산족(東山足) : 동산 산기슭.

① 산족(山足) : 산기슭.

- 4) 조조모모(朝朝暮暮) : 모모조조(暮暮朝朝) : 아침저녁마다.
 ☆조조(朝朝) : 아침마다.
 ☆모모(暮暮) : 저물녘(해질 무렵)마다.
- 5) 의상천결각불말(衣裳穿結脚不羈) : 옷은 해져 꿰매 입었지만 버선은 신지도 않았네) :
 ① 의상(衣裳) :
 ☆고대에 의(衣)는 ‘상의(上衣)’를 가리켰고, 상(裳)은 ‘바지 또는 치마’를 가리켰으나, 후세에 와서는 의상(衣裳)을 일반적으로 ‘의복’을 가리키는 뜻으로 썼다.
 ② 천결(穿結) : 해어진 옷을 꿰매다.
 a. 천(穿) : (옷에) 구멍이 나다.
 b. 결(結) : 꿰매다.
 ③ 각(脚) : 발의 별칭.
- 6) 결자(結子) : 열매를 맺다.
 ① 결(結) : (열매를) 맺다.
 ② 자(子) : 씨앗, 종자, 열매.
- 7) 금환(金丸) : 금색 열매. 여기서는 도토리 열매를 가리킨다.
 ① 환(丸) : 작고 둥근 물체를 가리킴.
- 8) 노부쇠병(老夫衰病) :
 ① 노부(老夫) :
 ☆늙은 남자.
 ☆늙은 남자의 자칭(自稱). 본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음.
 ② 쇠병(衰病) : 육신이 노쇠하여 나는 병. 노쇠한 병.
- 9) 상위자생모구업(尙爲資生謀口業 : 그래도 살아보려고 생업을 도모하네) :
 ① 상위자생(尙爲資生) :
 ☆상(尙) : 부사로 쓰여 ‘아직, 그래도, 오히려’ 등의 뜻으로 쓰인다.
 ☆위(爲) : 개사(介詞)로 쓰여 ‘~을 위하여, ~때문에’의 뜻으로 쓰인다.
 ☆자생(資生) :
 a. 어떤 직업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함.
 b. 어떤 사물에 의하여 성장하거나 생활함.
 ② 구업(口業) :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일(밥벌이). 생업(生業 : 살아가기 위하여 하는 일)을 구실로 하는 산업(産業).
- 10) 신근일일(辛勤日日 : 날마다 고되게 일하다) :
 ① 신근(辛勤) : 고된 일을 부지런히 함.
 ② 일일(日日) : 나날이, 날마다, 매일.
- 11) 좌대균롱시일각(坐對筠籠時一嘆 : 대바구니 앞에 놓고 이따금 곁곁 웃었네) :
 ① 좌대균롱(坐對筠籠) :
 ☆좌대(坐對) : 마주 앉다.
 ☆균롱(筠籠) : 대광주리. 대바구니.
 ② 시일각(時一嘆) :
 ☆시(時) : 때때로. 이따금.
 ☆일각(一嘆) : 한차례(한바탕) 곁곁대다.

12) 호동숙신서간저(呼童束薪西澗底: 애들 불러 서쪽 계곡 아래서 땀감나무 해오게 하여):

① 호동숙신(呼童束薪): 아이를 불러 땀감나무를 해오게 하다.

☆호동(呼童): 아이를 부른다.

☆숙신(束薪): 땀감나무를 묶다. 혹은 한단의 땀감나무.

② 서간저(西澗底): 서쪽 계곡 밑자락.

☆간저(澗底): 계곡 밑자락.

13) 석당(石鐺):

① 도제(陶製): 흙을 구워서 만든 도자기 따위의 제품)의 차를 끓이는 도구. 곧 질그릇 제품의 차관(茶罐: 다관茶罐: 찻물을 끓이는 그릇)을 이름.

② 돌로 만든 술. 본사에서는 ‘뚝배기(찌개 따위를 끓이거나 설령탕 따위를 담는 것)’같은 오지그릇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14) 부수(負手): 뒷집 지다.

15) 자소전시오정식(自笑前時五鼎食: 고관시절 미식美食했던 종전에 나를 조소하네):

① 자소(自笑): 자신을 비웃다.

② 오정식(五鼎食): 옛날 대부(大夫)의 제사에는 다섯 술의 고기를 바쳤으므로 관직의 승진을 뜻하는 말로 쓰인다.

‘오정식(五鼎食)’이란 말은 『사기(史記)·평진후주보열전(平津侯主父列傳)』에 보이는데, 그 뜻은 다음과 같다. 고대 제후들이 연회를 열 때, ‘다섯 개의 술(五鼎)’ 안에 고기로 요리한 것을 담아놓고 먹었는데, 각 술 안에 쇠고기[牛肉]·양고기[羊肉]·돼지고기[豬肉]·생선고기[魚肉]·사슴고기[鹿肉]를 나누어 담았다(『한서(漢書)』 권64 ‘주보열전(主父僊*傳)’에 주를 단 당나라의 학자인 안사고(顏師古: 581~645)는 사슴고기[鹿] 대신에 ‘고라니고기[麋]’라고 기록하였음). 후세에는 이 오정식(五鼎食)을 전(轉)하여 사치스런 생활과 현귀(顯貴)한 지위 또는 미식(美食)을 가리키는 뜻으로 썼다.

☆정(鼎): 술. 고대에는 불을 지펴 밥을 하거나 국을 끓이는 취사도구로 썼을 뿐 아니라, 예기(禮器: 제기祭器)로도 썼다. 도제(陶製)도 있었고 동제(銅製)도 있었으며 철제(鐵製)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 술(鼎)은 형구(形具)로도 사용되었다. 즉 ‘죄인을 삶아 죽이는酷형(酷刑)의 도구’로 쓰였는데, 이것을 ‘오정팽(五鼎烹: 시신屍身을 다섯 등분하여 다섯 개의 술에 나누어 삶는酷형)’이라고 한다. 『사기(史記)·평진후 주보열전(平津侯主父列傳)』에 “위왕후(衛皇后: ?~BC 91: 한무제漢武帝의 황후인 위자부衛子父를 가리킴)를 존립(尊立)한 일과, 연왕(燕王) 유정국(劉定國)의 각종 범죄 음행을 적발하는데, 주보연(主父僊)의 공이 있었다(尊立衛皇后, 及發燕王定國陰事, 蓋僊有功焉).(유정국은 선대의 작위를 이어 연왕이 된 사람으로 세 딸과 간통을 하고, 또 제수弟嫂를 빼앗아 아내로 삼는 등, 만행을 저질러 고발당하자 고발인을 죽여 입을 막았다. 그러나 후에 재차 고발되어 무제武帝가 사죄死罪로 논죄하니 자결하였음). 여러 대신들이 주보연의 입을 두려워하여, 보낸 뇌물의 누계(累計)가 천금 남짓 했다(大臣皆畏其口, 賂遺累千金). 어떤 사람이 주보연에게 말하기를, ‘횡포가 너무 지나칩니다(人或說僊曰, 太橫矣)’라고 하니, 주보연이 말하기를 ‘나는 젊어서부터 40여 년 동안이나 유세하며 여기저기를 돌아다녔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主父曰: 臣結髮遊學四十餘年,

身不得遂). 부모는 자식으로 여기지 않았고, 형제는 거두어주지 않았으며, 친 구들은 나를 포기해버렸으니, 나는 몹시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보낸 지 오래됐 습니다(親不以爲子, 昆弟不收, 賓客棄我, 我阨日久矣). 한마디 덧붙이거나 와, 사내대장부가 살아생전에 오정식(五鼎食)을 먹지 못한다면, 죽어서 오정갱 (五鼎烹: 시신屍身을 다섯 등분하여 다섯 개의 솥에 나누어 삶는 혹독한 형벌)의 형벌 을 당하면 그뿐입니다(且丈夫生不五鼎食, 死即五鼎烹耳). 날은 저물고 갈 길 은 멍니다. 때문에 순서를 뒤바꾸어 서두르는 것입니다(吾日暮途遠, 故倒行暴 施之)”라고 하였다.

*주보언(主父偃: ?~BC 126): 서한(西漢)의 제국(齊國) 임치(臨菑), 지금의 산 동성(山東省) 치막시(淄博市) 동북 임치(臨菑) 북부 사람이다. 한무제(漢武帝 : BC 156~BC 87)의 신하. 처음에는 종횡술(縱橫術)을 배우다가 나중에 『역경 (易經)』과 『춘추(春秋)』 등 백가(百家)사상을 익혔다. 그는 제후왕(諸侯王) 들의 세력을 깎아 약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추은(推恩: 제왕이 신하들에 게 작위를 내리고 은전恩典을 베풀)을 명분으로 삼아 제후들에게 명하여 자제들 에게 분봉(分封)하여 후(侯)를 삼으라고 주청(奏請)했다. 또 북쪽에 행정구역 식방군(朔方郡)을 설치하여 흉노(匈奴)에 대항하라고 건의했다. 이런 건의를 무제(武帝)가 다 받아들여 주보언은 낭중(郎中: 안으로는 시위侍衛를 관장하고 밖으로는 작전에도 참여했음. 녹봉 300석의 높지 않은 작위지만 권한은 막중하였음)에 오르고, 한 해 동안 네 번 승진하여 중대부(中大夫: 황제 좌우에서 보좌하는 시 중관원侍從官員으로 녹봉은 2000석. 국정 논의를 관장했음)가 되었다.

원삭 2년(元朔二年: BC 128) 외직으로 나가 제왕(齊王)의 재상이 되었 다. 훗날, 제왕과 제왕 누이 사이의 간통 사실을 알려 제왕을 자살하게 하였고, 그 자신 역시 멸족(滅族) 당했다. 『한서(漢書)·예문지(藝文志)』에서 종횡가(縱橫家)의 저서로 『주보언전(主父偃傳)』이 있다고 했지만, 지금은 전 해지지 않고, 청나라 사람이 편집한 그에 대한 책이 전한다.



시92. 도사곡

詩92. 淘沙曲¹⁾
도 사 곡

淘沙淘沙復淘沙,
도 사 도 사 부 도 사

모래 일이네 모래 일이네 다시 또 모래
일이네,

日日淘沙大江曲²⁾。
일 일 도 사 대 강 곡

날이면 날마다 넓은 강 물굽이에서
모래 일이네.

淘沙雖苦不知疲,
도 사 수 고 부 지 피

모래 일이는 일이 고되지만 피곤한
줄도 모르나니,

只爲謀生資口食³⁾。
지 위 모 생 자 구 식

오로지 생계 위해 먹을거리 마련하려
함일세.

撇取零星盡黑鐵⁴⁾，
별 취 영 정 진 흑 철

부스러기에서 가려내니 모두가
사철沙鐵뿐!

一點眞金那易得⁵⁾。
일 점 진 금 나 이 득

한 알의 순금인들 어찌 쉬이 얻으랴!

野人⁶⁾重利不重寶，
야 인 중 리 불 중 보

서민은 이익을 중시하지 보배라고
중시하진 않나니,

何暇更分金與鐵⁷⁾。
하 가 경 분 금 여 철

무슨 여가 있어 사금沙金과 사철沙鐵을

다시 가려내리!

終歲淘來問何用⁸⁾,
종 세 도 래 문 하 용

일 년 내내 모래 일여서 뿔에 쓰냐고
물으니,

畢竟纔堪鑄一錯⁹⁾.
벌 경 재 감 주 일 착

결국은 기껏 한데 섞어 기물器物
주조鑄造 할 따름이라네.

1) 도사곡(淘沙曲): 모래를 일 때 부르던 악곡.

① 도사(淘沙): (모래를) 일다. 곡식이나 사금(沙金) 따위를 그릇에 담아 물을 붓고
이리저리 흔들어서 쓸 것과 못 쓸 것을 가려내다.

② 곡(曲): 악부시의 편명의 하나. 이때의 ‘곡(曲)’이라는 의미는 고저장단을 따라
미세한 마음의 정(情)을 노래한 것이다. 자세한 것은 「시4」의 주석1)의 ② 탄
(歎) 조항을 참조 바람.

2) 대강곡(大江曲): 넓은 강 물굽이가 도는 곳.

① 대강(大江): 넓은 강.

② 곡(曲): 물굽이가 도는 곳.

3) 지위모생자구식(只爲謀生資口食: 오로지 생계 위해 먹을거리 마련하러 함일세):

① 모생(謀生):

☆생계를 도모하다.

☆살 궁리를 하다.

☆살 길을 찾다.

② 자구식(資口食): 양식을 제공하다.

☆자(資): 제공하다, 비축(축적)하다. 구비(具備)하다.

☆구식(口食): 식물(食物), 음식물, 식량(食糧).

4) 별취영성진흑철(撇取零星盡黑鐵: 부스러기에서 가려내니 모두가 사철沙鐵 뿐
!):

① 별취(撇取): 분별하여 취하다. 혹은 가려내다.

② 영성(零星): 소량이다, 자질구레하다(자잘하다), 보잘것없다.

③ 흑철(黑鐵): 본시에서는 사철(沙鐵: 모래 모양으로 강이나 바닥에 퇴적된 철광석)을
가리킨다.

5) 일점진금나이득(一點眞金那易得: 한 알의 순금인들 어찌 쉬이 얻으랴!):

① 진금(眞金): 순금.

② 나이득(那易得): 어찌 얻기 쉬우랴! 어찌 쉬이 얻으랴!

☆나(那): ‘나(哪)’와 통용되며, 본시에서는 의문부사로 반어문(反語文)에 쓰여
‘어찌(어떻게) ~ 하겠는가?’의 뜻으로 쓰였다.

6) 야인(野人): 서민, 평민.

7) 금여철(金與鐵): 본시에서는 ‘사금(沙金)과 사철(沙鐵)’을 가리킨다.

- ① 금(金): 사금(沙金): 물가나 물 밑의 모래 또는 자갈 속에 섞인 금.
 ② 철(鐵): 사철(沙鐵): 모래 모양으로 강이나 바다 밑에 퇴적된 철광석.
- 8) 종세도래문하용(終歲淘來問何用: 일 년 내내 모래 일어서 뒷에 쓰냐고 물으니):
 ① 종세(終歲): 일 년 간, 일 년 내내.
 ② 하용(何用): 어디에 쓰느냐. 무엇에 쓰느냐.
- 9) 필경재감주일착(畢竟纔堪鑄一錯: 결국은 기껏 한데 섞어 기물器物 주조할 따름이라네):
 ① 필경(畢竟): 필경, 결국, 마침내.
 ② 재감(纔堪): 기껏 ~할 수 있다.
 ☆재(纔): 기껏, 겨우.
 ☆감(堪): ~할 수 있다. ~하기 족하다.
 ③ 주일착(鑄一錯): 한데 섞어 기물을 주조하다.
 ☆주(鑄): 주조(鑄造)하다.
 ☆착(錯): 뒤섞(이)다.

시93. 연릉군^{延陵君} 이호민^{李好閔}이 서신을
보내와서, 한가할 때 책을 써보라고
내게 권하기에, 농 삼아 답하다

詩93. 延陵¹⁾寄書來 勸余閒中著書 戲答
연릉 기서래 권여한중저서희답



著書亦不惡,
저서역불오

책을 쓰는 것 또한 싫지는 않으나,

著書良費力²⁾.
저서양비력

책을 쓰는 게 실은 상당히
힘들어졌다네.

朋徒已怠散³⁾,
붕도이태산

문인門人들 이미 주의력 해이해져 있고,

筆硯久寥落⁴⁾.
필연구요락

(나 자신도) 필묵을 손에서 놓은 지
오래되었다네.

譬如寒灰中⁵⁾,
비여한회중

이렇게하면 이미 사그라진 재속에서,

宿火寧用撥⁶⁾.
숙화영용발

어찌 꺼지지 않는 불씨를 꺼내 쓸 수
있겠는가!

獨有兩地心⁷⁾,
독유양지심

오로지 양쪽에서 책 쓸 마음만 지니고
있다면,

相期永無斁⁸⁾。
상 기 영 무 역

언제나 저서에 관한 혐오감이나 생기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네.

1) 연릉(延陵) : 연릉군(延陵君) : 1604년(선조 37)에 호성공신(扈聖功臣) 2등으로 이호민(李好閔 : 1553~1634)에게 봉해진 칭호이다. 서애의 진외당숙(陳外堂叔 : 선천先親, 입암공立巖公의 외사촌 아우)임. 본시에서 작가가 ‘이호민’이란 성명 대신에 이 훈명(勳名)을 쓴 것은 존칭의 의미가 있다.

① 호성공신(扈聖功臣) : 임진왜란 때 선조를 모시고 의주(義州)까지 호위하며 파랏던 공으로, 이항복(李恒福 : 1556~1618) 등 여든여섯 사람에게 내린 훈호(勳號)이다.

② 이호민(李好閔 : 1553~1634) :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효언(孝彦), 호는 오봉(五峯), 남곽(南郭), 수와(睡窩) 등이다. 1579년에 진사(進士)가 되고, 1584년 별시문과(別試文科 : 조선시대에 천간干으로 ‘병丙’자가 든 해 또는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보던 임시 문과 과거시험)에 을과(乙科 : 과거시험에 합격자를 성적에 따라 나누던 세 등급 가운데 둘째 등급. 정원은 일곱 명으로 정팔품의 품계를 받았음)로 급제하였다. 1585년에 사관(史官)으로 발탁되고 계속해서 응교(應敎 : 홍문관弘文館에 속하며 학문 연구와 교명敎命 제찬制撰에 관한 일을 맡아 보던 정사품 벼슬), 전한(典翰 : 홍문관에 속한 종삼품 벼슬. 유학의 경전을 관리하고 글을 다루며 임금의 자문諮問에 응하였음)을 역임하였으며, 후에 집의(執義 : 사헌부司憲府의 종삼품 관직. 백관百官의 탄핵 감찰권과 일반 범죄에 대한 검찰권 및 서경권<署經權> : 임금이 새 관원을 임명한 뒤에 그 성명, 이력 따위를 써서 대간臺諫에게 그 가부를 묻던 일)을 행사함)와 응교를 겸하였다. 1592년 이조좌랑(吏曹佐郎)으로 임진왜란을 만나 의주까지 왕을 호종(扈從 : 임금이 탄 수레를 호위하여 따르던 일)하여 요양(遼陽 : 지금의 요령성遼寧省 요중현遼中縣 동북)으로 가서 명(明)나라에 지원을 요청, 이여송(李如松 : ?~1598)이 이끄는 명나라 군대를 끌어 들이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상호군(上護軍 : 오위五衛의 정3품 무관직), 행사직(行司直 : 조선조 때 오위五衛에 속한 정5품 군직軍職. 부호군副護軍 다음이며, 부사직副司直위로 실무는 없었음)을 거쳐 1595년 부제학(副提學 : 홍문관의 정삼품 당상관)으로 명나라와의 외교문서를 전담하여 초안하였다. 1596년 참찬관(參贊官)을 거쳐 1599년 동지총주부사(同知中樞府使 : 중추부에 속한 종2품 벼슬)가 되어 사은사(謝恩使)로서 명나라에 다녀왔다. 1601년 예조판서(禮曹判書)로 인성왕후(仁聖王后 : 인종의 비 : 성은 박씨, 본관은 나주羅州)의 지문(誌文 : 죽은 사람의 이름과 생몰년 및 행적과 무덤의 위치와 좌향坐向 따위를 적은 글)을 다시 썼고, 대제학(大提學 : 홍문관과 예문관의 으뜸 벼슬. 정2품)과 좌찬성(左贊成 : 의정부議政府에 속하며 백관百官을 통솔하고 일반 정치政事의 처리, 국토 계획, 외교 따위를 맡아보던 종일품 벼슬)을 지냈다.

1604년 호성공신(扈聖功臣) 2등으로 연릉군(延陵君)에 봉해졌다. 그 뒤 대광보국승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 정1품의 종친·의빈<儀賓> : 왕족이 아니면서 왕족과 통혼한 사람)과 문무관에게 주던 으뜸 품계)가 되고, 부원군(府院君 : 왕비의 친아버지나 정일품 공신에게 주던 작호)에 진봉되었다.

1608년 선조가 죽자 영창대군(永昌大君: 1606~1614: 이름은 의궤, 정비正妃인 인목왕후仁穆王后의 소생이었으나 이이첨(李爾瞻: 1560~1623) 등의 무고로 강화에 유배되어 죽음을 당했음)의 즉위를 반대하고 ‘적서(嫡庶)의 구별 없이, 장자를 옹립하여야 된다’는 입장론(立長論)을 주장하였다. 광해군(光海君: 1575~1641: 이름은 혼휘: 서적 편찬, 사교정리 등 양단兩端 정책으로 난국에 대처함. 당쟁에 휩쓸려 임해군(臨海君: 선조의 맏아들, 이름은 진립)과 영창대군을 죽이고 인목대비를 유폐했으며, 뒤에 인조반정仁祖反正으로 폐위 됨)이 즉위하자, 고부청시승습사(告訃請謚承襲使: 국왕의 서거를 명나라에 알리고 세자가 왕호王號를 이어 받도록 승인해 달라는 외교적 임무를 띠고 명나라로 간 사신使臣)로 명나라에 가서 입장론(立長論)을 내세웠다. 공을 세운 데 대하여 포상하려 하자 고부시공로사차(告訃時功勞辭劄: 명나라에 국왕의 부고訃告를 알리려고 갔을 때의 공로로 포상하려는 것을 사양하면서 올리는 차자(劄子: 신하가 임금에게 올리는 간단한 상소문))를 올려 이를 사양하였다. 1612년 김직재(金直哉: ?~1612)의 옥사(獄事)에 연루되었고, 1614년 정온(鄭蘊: 1569~1641) 등이 영창대군 살해에 대한 항의를 하다가 귀양 가게 되자 환수정은보외차(請還收鄭蘊輔外筭: 정온鄭蘊을 소환하여 외지外地로 보직할 것을 청하면서 올리는 차자)를 올려 이들의 방면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1615년 정인홍(鄭仁弘: 1535~1623) 등의 원찬론(遠竄論: 가까운 곳에 부처(付處: 유배 보냄)하지 말고, 원배(遠配: 도성에서 아주 먼 변방으로 유배 보냄)해야 한다는 주장)에 봉착, 7년간 교외에서 대죄(待罪)하였다. 인조반정 후 구신(舊臣)으로 우대를 받았고 죽은 뒤 청백리(淸白吏: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고 곧고 깨끗한 관리)에 올랐다.

문장에 뛰어나 임진왜란 때 왕명으로 각종 글을 많이 작성하였으며, 그가 지은 교서(敎書)의 내용이 간절하여 보는 이의 감동을 자아냈다고 한다. 그러나 문장 보다는 시에 뛰어나다는 평을 들었다. 의주에 있을 때 적의 수중에 있는 서울을 삼도(三道: 충남·경상도·전라도)의 군사가 공격한다는 소식을 듣고 지은 시 「국왕께서 국경 강가 행재소(行在所)에 머무는데, 삼도(三道)의 병사가 점령당한 한양성을 공격하다(龍灣行在下三道兵進攻漢城)」라는 시는 절창으로 널리 애송되었다. 지례(知禮: 지금의 경북 금릉군金陵郡 지례면知禮面)의 도동향사(道東鄉祠)에 제향되었다. 저서로는 『오봉집(五峯集)』 16권이 있다. 시호는 문희(文僖)이다.

2) 양비력(良費力): 매우 힘들다.

① 양(良): 부사로 쓰여, ‘매우, 대단히’의 뜻으로 쓰인다.

② 비력(費力):

☆애쓰다, 정력(힘)을 소모하다.

☆일이 까다롭다. 힘들다.

3) 붕도이태산(朋徒已怠散: 문인들 이미 주의력 해이해져 있고):

① 붕도(朋徒): 제자, 문인(門人),

② 태산(怠散): (주의력이) 산만하다. (일하는 것이) 해이하다, 느슨하다.

4) 필연구요락(筆硯久寥落: (나 자신도) 필묵을 손에서 놓은 지 오래되었다네):

① 필연(筆硯): 필연(筆硯)으로도 쓴다.

☆붓과 벼루. 일반적으로 문구(文具)를 가리킨다.

☆문장을 쓰는 (글을 짓는) 일을 가리킨다.

② 요락(寥落): 드물다, 희소(稀少)하다.

5) 비여한회중(譬如寒灰中 : 이렇다면 이미 사그라진 재속에서) :

① 비여(譬如) : 예를 들면, 예컨대, 가령, 만약.

② 한회(寒灰) : 사그라진 재. 불기가 없는 재.

6) 속화영용발(宿火寧用撥 : 어찌 꺼지지 않는 불씨를 꺼내 쓸 수 있겠는가!) :

① 속화(宿火) :

☆하룻밤이 지나도 꺼지지 않은 화로 속의 불씨. 사전에(미리) 남겨놓은 불씨.

☆재에 파묻어 놓은 불씨. 5세기 전반에 중국에 와서 활약했던 인도의 승려 상가세나(Sanghasena : 僧伽斯那 : 생물년 미상)가 저술하고, 그의 제자 구나비지(Gunaviddhi : 求那毘地 : ?~502)가 한역(漢譯)했다고 알려진 『백유경(百喻經)·수화유(水火喻)』편에 이르기를, “옛적에 어떤 사람이, 불씨를 언제나 쓰도록 반드시 남기고, 냉수도 항상 준비하도록 하는 일을 맡고 있었다(惜有一人, 事須火用, 及以冷水). 그는 즉각 하룻밤 지나도 꺼지지 않는 불씨를 갖춰 놓고, 양푼을<대야를> 씻어서 물을 채운 다음, 그 솥불 위에 얹어놓았다(即便宿火, 以澡盥盛水, 置於火上). 그 후에 불씨를 꺼내서 쓰려고 했지만, 그 불씨는 모두 꺼져 있었다(後欲取火, 而火都滅). 냉수도 쓰려고 했지만, 그 물 역시 이미 데워져 있었다. 불씨와 냉수 두 가지를 모두 잃었다(欲取冷水, 而水復熱. 火及冷水二事俱失)”고 하였다. 위 『백유경(百喻經)』은 구십 여덟 가지의 우화를 일관 민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하여, 적절한 교훈으로 화유하려는 의도를 지녔다는 특징이 있다.

② 영(寧) : 어찌 ~이겠는가?

7) 독유양지심(獨有兩地心 : 오로지 양쪽에서 책 쓸 마음만 지니고 있다면) :

① 독유(獨有) : 오직 ~만 있다.

② 양지심(兩地心) : ‘두 지역에서 오직 우리의 저서에 관한 마음’을 가리킨다.

☆양지(兩地) : 본시에서는 연릉군(延陵君) 이호민(李好閔)이 있는 곳과 작가인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이 있는 두 곳을 가리키나, 전(轉)하여 ‘두 사람’의 뜻으로 쓰였다.

☆심(心) : 본시에서의 ‘심(心 : 마음)’은 ‘저서를 권하는 이호민의 마음’과 속도가 부진하지만 ‘저서를 하려는 류성룡의 마음’을 가리킨다.

8) 상기영무역(相期永無數 : 언제나 저서에 관한 혐오감이나 생기지 않기를 기대해 본 다네) :

① 상기(相期) : 기대하다.

② 영(永) : 언제나, 늘.

③ 무역(無數) : 싫어하지 않다. 혹은 혐오하지 않다.

시94. 『포은집(圃隱集)』을 읽고 쓴 시 두 수

詩94. 書圃隱集¹⁾二首
서 포 은 집 이 수



其一
기 일

[1]

當年橫豎無傳久²⁾,
당 년 횡 수 무 전 구

왕년의 자력과 타력의 수행 교법
실전失傳된 지 오래됐고,

墜緒茫茫不可尋³⁾.
추 서 망 망 불 가 심

끊어진 왕통王統은 아득하여 찾을 길이
없네.

獨鶴未廻仍歲暮⁴⁾,
독 학 미 회 잉 세 모

다시 세밀이 되어도 외따로 떨어진 학
한 마리는 돌아오지 않았는데,

昏鴉落日滿寒林⁵⁾.
혼 아 낙 일 만 한 림

해질 무렵 한림寒林으로
까마귀만 떼 지어 모여 드네.

其二
기 이

[2]

泰山零落一毫芒⁶⁾,
태 산 영 락 일 호 망

태산도 흩어지면 한 가닥 터럭이 되고,

尺錦猶能辨七襄⁷⁾.
척 금 유 능 변 칠 양

자투리 비단도 정미精美한 채색비단은

역시 드러나네.

五百年中遺間氣⁸⁾,
오 백 년 중 유 간 기

오백 년 동안의 천지 원기를 받아
태어난 위인,

高名留與日爭光⁹⁾.
고 명 유 여 일 쟁 광

훌륭한 명성 전해져 햇빛과 광명을
겨루네.

1) 포은집(圃隱集): 고려 말의 충신이자 문인인 정몽주(鄭夢周)의 문집이다. 조선 세종 21년(1439)에 그의 아들 종성(宗誠)이 편집하였고, 후대 여러 사람에 의하여 중간(重刊)되었다. 7권 4책이다.

① 정몽주(鄭夢周: 1337~1392): 고려 말기의 충신. 초명(初名)은 몽란(夢蘭)이라 하였다. 이 이름은 모친 이씨(李氏)가 임신하였을 때 난초 화분을 품에 안고 있다가 땅에 떨어뜨리는 꿈을 꾸고 놀라 깨어나 낳았기에 지은 이름이다. 후에 몽룡(夢龍)으로 개명(改名)하고 성인이 된 후 다시 몽주로 바꾸었다. 자는 달가(達可), 호는 포은(圃隱), 본관은 영일(迎日)이다. 1360년(공민왕 9) 삼장(三場: 초시(初試), 복시(覆試), 전시(殿試)를 이룸)에 연달아 장원 급제하였다. 예문관검열(藝文館檢閱)을 거쳐, 1364(공민왕 13) 병마사(兵馬使) 이성계(李成桂: 1335~1408: 조선의 제1대왕, 태조의 종사관(從事官)으로 여진(女眞)의 삼선(三善)과 삼개(三介)를 화주(和州)에서 격퇴하였다. 전농시승(典農寺丞), 예조정랑(禮曹正郎), 사성(司成)을 거쳐 1372년 서장관(書狀官)으로 명나라에 다녀오던 중, 풍랑으로 파선을 당하여 일행 12명이 익사하고 정몽주는 13일 동안 사경을 헤매다가 명나라 구조선에 구출되어 이듬해 귀국하였다.

1375년(우왕 1) 우사의대부(右司議大夫)를 거쳐 대사성(大司成)으로 배명친원(排明親元)의 외교 방침을 반대하다가 권신(權臣) 이인임(李仁任: ?~1388)과 지윤(池筠: ?~1377) 등에 의해 언양(彦陽)으로 귀양 갔으나 그 이듬해에 돌아왔다. 외교적 노선이 다르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은 권신(權臣)들이 정몽주를 천거하여 구주(九州) 지방의 패가대(霸家臺)에 가서 왜구의 단속을 요청하게 하였다. 사람들이 모두 이를 위태롭게 여겼으나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건너가 교린(交隣)의 이해를 개진하여 사명을 다하고 돌아왔을 뿐 아니라, 왜구에게 잡혀있던 수백 명을 귀국시켰다. 1380년(우왕 6)에 이성계를 따라 운봉(雲峯)에서 해구(海寇)를 친 공으로 밀직제학(密直提學)이 되고, 1384년 정당문학(政堂文學)으로 명(明)나라에 가서 국교를 다지고 돌아왔다. 이때 그는 긴장상태의 대명국교(對明國交)를 회복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

1386년에 또 명에 들어가서 세공(歲貢)을 면제할 것을 청하고 돌아와 영원군(永原君)에 봉해졌다. 후에 삼사좌사(三司左使)를 거쳐 1389년 대제학(大提學)이 되었다. 이성계와 같이 공양왕(恭讓王: 1345~1394: 성명은 왕요王瑤, 이성계 일파에 의해 왕위에 올랐으나 실권을 빼앗겼고, 정몽주가 살해된 뒤에 폐위되고 살해됨)을 세

우고 문하찬성(文下贊成) 등 여러 벼슬을 받고 익양군충의군(益陽郡忠義君)에 봉해졌으며, 좌명공신(佐命功臣)의 호를 받았다.

고려 말 때 정승의 자리에 오른 그는 아무리 큰일이나 큰 의혹이라도 조용히 사리에 맞게 처결하였다. 당시 풍속이 모든 상제(喪祭)에 불교의식을 숭상하였는데, 그는 사서(士庶)로 하여금 『가례(家禮)』에 의하여 사당을 세우고 신주를 만들어 제사를 받들도록 하여 예속(禮俗)이 다시 일어났다. 또, 지방수령을 청렴하고 물망이 있는 사람으로 뽑아 임명하고, 감사를 엄격하게 하였으며, 금전과 곡식의 출납을 기록하게 하였다. 서울에는 오부학당(五部學堂)을 세우고, 지방에는 향교를 두어 교육의 진흥을 꾀하는 한편, 의창(義倉)을 세워 궁핍한 사람을 구하고, 수참(水站)을 설치하여 조운(漕運)을 편리하게 하는 등 기울어져가는 국운을 바로잡고자 노력하였다. 1391년 인물추변도감제조관(人物推辨都監提調官)이 되고, 안사공신(安社功臣)의 호를 더하였으며, 이듬해 『대명률(大明律)』과 『지정조격(至正條格)』 및 본국의 법령을 참작, 산정하여 신율(新律)을 만들어 법질서를 확립하려고 힘썼다.

당시 이성계의 위망(威望)이 날로 높아지자 조준(趙浚 : 1346~1405) · 남은(南溫 : 1354~1398) · 정도전(鄭道傳 : 1337~1398) 등이 그를 추대하려는 책모가 있음을 알고 기회를 보아 이들을 제거하려 하던 중, 명나라에서 돌아오는 세자 석(奭)을 미중 나갔던 이성계가 황주(黃州 : 지금의 황해도 황주군黃州郡에 있는 읍, 군청소재지)에서 사냥하다가 낙마하여 벽란도(碧瀾渡 : 황해도 예성강禮成江 하류에 있는 고려 시대의 중요한 나루. 고려의 서울인 개경(開京 : 개성開城의 옛 이름) 가까이에 있던 국제 무역항. 사신을 영송迎送하기 위하여 안산岸山에 세운 벽란정碧瀾亭에서 유래한 이름)에서 드러눕게 되자, 그 기회에 먼저 이성계의 우익(羽翼)인 조준 등을 제거하려고 하였다. 이를 눈치 챈 이방원(李芳遠 : 1367~1432 : 조선 제3대 왕 태종太宗)이 부친 이성계에게 위급함을 고하여 그날 밤으로 병을 무릅쓰고 개성으로 돌아오게 하는 한편, 정몽주를 제거할 계획을 꾸몄다. 정몽주도 이를 알고 정세를 엿보려 이성계를 문병하고 귀가하던 도중 선죽교(善竹橋)에서 이방원의 문객(門客) 조영규(趙英珪 : ?~1395) 등에게 격살되었다.

그는 성격이 호탕하고 인품이 뛰어났으며, 충효를 겸하였다.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하여 게을리 하지 않았고, 성리학(性理學)에 조예가 깊었다. 그의 시문은 호방하고 준절하였으며, 이방원의 「하여가(何如歌)」에 답하여 지은 그의 시조 「단심가(丹心歌)」는 그의 충절을 대변하는 작품으로 후세에까지 많이 회자(膾炙)되고 있다.

이방원(李芳遠),

「하여가(何如歌)」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萬壽山) 드령침이,
엷어진들 그 어떠리.
우리도 이같이 엷어져,
백년까지 누리리라.

此亦何如,
彼亦何如.
城墮堂後垣,
頽落亦何如.
我輩若此爲,
不死亦何如.

(위 시조의 한역漢譯은 『해동악부(海東樂府)』와 『포은집(圃隱集)』에 수록 되어 있음)

정몽주(鄭夢周), 「단심가(丹心歌)」

이 몸이 죽고 죽어	此身死了死了,
일백 번 고쳐죽어,	一百番更死了。
백골이 진토 되어	白骨爲塵土,
넋이야 있고 없고,	魂魄有也無。
임 향한 일편단심이야	向主一片丹心,
가실 줄이 있으랴!	寧有改理也。

문집으로 『포은집(圃隱集)』이 전하고 있다. 1405년(조선 태종 5) 권근(權近 : 1352~1409)의 요청에 의하여 대광보국승록대부 영의정부사 수문전대제학 감예 문춘추관사 익양부원군(大匡輔國崇祿大夫 領議政府事 修文殿大提學 監藝文春秋館事 益陽府院君)을 추증하였다. 1517년(중종 12) 태학생(太學生) 등의 상서(上書)에 의하여 문묘에 배향하고, 또 묘에 비석을 세웠는데, 고려의 벼슬만을 쓰고 시호(諡號)를 적지 않아 그가 두 왕조를 섬기지 않은 뜻을 분명히 하였다. 또, 개성의 송양서원(松陽書院) 등 13개의 서원에 배향되었고, 영천의 임고서원(臨臯書院) 등 몇 곳의 서원에는 그의 초상을 봉안하고 있다.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2) 당년횡수무전구(當年橫豎無傳久 : 왕년의 자력과 타력의 수행 교범 실전〈失傳〉된 지 오래됐고) :

- ① 당년(當年) : 왕년(往年 : 지나간 해), 석년(昔年 : 여러 해 전).
- ② 횡수(橫豎) : 횡수(橫豎)로도 쓴다.

☆불교용어로서, ‘자력(自力) 또는 타력(他力)으로 성불(成佛 : 깨달음을 얻)하려고 수행(修行)하는 가르침’을 가리킨다. 자력 및 타력의 수행 교범(敎法). 본 시에 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a. 횡(橫) : ‘횡(橫)’은 ‘가로’의 뜻이다. ‘가로’는 ‘횡적 방향’을 의미한다. ‘횡적 방향’을 불교에서는 ‘공간’으로 보고, ‘동시(同時)’라고 생각하여 ‘전(前) · 후(後)’의 시간적 차례가 없다고 인식한다. 또한 ‘횡(橫)’에는 ‘횡포(橫포)하다, 도리를 벗어나다’는 뜻이 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횡(橫)’을 ‘타력(他力 : 자신의 힘으로서가 아니라 불 · 보살의 힘에 의해 깨달음에 인도 되는 것)의 취지(趣旨)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 까닭은 다음과 같다.

‘단혹증리(斷惑證理 : 스스로 번뇌를 끊고 열반의 진리를 깨닫는 것)’의 도리를 취하지 않는 이치이므로 ‘횡(橫)’이라고 이름 붙여진 것이다. 이 ‘단혹증리’는 통불교(通佛敎 : 어느 한 종파에 치우치지 않고 불교 전반에 공통적으로 널리 퍼져있는 교리)의 도리인데, 그 ‘도리를 벗어나’ 본원타력(本願他力 : 아미타불의 본원本願, 즉 아미타불이 부처가 되기 위해 수행하던 기간에 세운 맹세)으로 성불(成佛 : 깨달음을 얻는 것)을 돕는 것이기 때문에 ‘타력(他力)’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이다. 이처럼 ‘타력으로 중생을 구제하는 가르침, 즉 부처님의 본원(本願)에 의해 극락에 태어나 부처가 된다고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을 설교하는 가르침'이기에 이 '횡(橫)'을 '타력교(他力敎)'라고도 하고, 이것은 '누구라도 쉽게 수행할 수 있는 가르침'이라고 하여 '이행교(易行敎)'라고도 하며, '아미타불의 본원(本願)을 믿고, 그에 의지하여 극락정토에서 태어나 깨달음을 얻으려는 법문(法門 : 진리의 가르침)'이라고 하여 '정토문(淨土門)'이라고도 한다.

- b. 수(豎) : 횡(橫)과 상반되는 개념인 '중(縱 : 세로)', 즉 수직(垂直)을 가리키는 뜻인데, 불교에서는 이 '수(豎 : 세로)'를 '시간적 개념으로 보아 전(前) · 후(後)'의 차례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불교에서는 '세로로 걸쳐진 시간적 간격이 삼세(三世 : 과거 · 현재 · 미래)에 걸쳐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불교에서는 '횡(橫)과 상반되는 개념의 논리에 의거하여, 이 '수(豎)'를 '자신의 님은 선(善), 자신의 힘으로 수행하는 가르침'이라 하여 '자력교(自力敎)'라 하는데, 이것은 '수행하기가 극히 어렵다'는 뜻에서 '난행교(難行敎)'라고도 하며, '스스로의 능력에 의지하여 수행해서 이 세상에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실천'이라서 '성자(聖者)의 도(道)'라고 생각한 까닭에 '성도문(聖道門)'이라고도 한다.(정토종淨土宗에서는 이것을 범부凡夫에게는 맞지 않는 자력문自力門이라고 하여 멀리함)
- c. '횡수(橫豎)'의 논리는 일본의 승려 친란(親鸞 : Sinran : 1173~1262 : 진종眞宗의 개조開祖)의 교판(敎判 : 석존의 교설을 각 종파의 입장에서 분류 해석한 것)인 바, '이쌍사중(二雙四重 : 두 쌍의 네 종류)'의 설명을 통하여 '횡수(橫豎)'의 뜻을 파악하려 한다.

d. 이쌍사중(二雙四重 : 두 쌍의 네 종류) :

불도(佛道)를 깨닫는데 있어서 '스스로의 능력에 의지하여 수행(修行)해서 이 세상에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실천'을 '성도문(聖道門)'이라 한다. 이것은 범부(凡夫)에게는 맞지 않는 자력문(自力門)인데, 이 '자력(自力 : 스스로의 능력)으로 깨달음을 얻으려고 수행하는 것'을 '수(豎)'라고 한다.

또한 '아미타불(阿彌陀佛 : 부처님)의 본원(本願 : 일체 중생을 구제하려고 하여 발한 서원(誓願 : 맹세))을 믿고, 그에 의지하여 극락정토(極樂淨土 : 극락)에 태어나서 깨달음을 얻으려는 가르침과 실천'을 '정토문(淨土門)'이라 하는데 이 '타력(他力 : 타인의 능력)에 의지하여 깨달음을 얻으려고 수행하는 것'을 '횡(橫)'이라고 한다.

수(豎)는 다시 출(出)과 초(超)로 분류하고, 횡(橫)도 역시 출(出)과 초(超)로 분류한다. '출(出)'은 '순차적인 단계를 거쳐 올라가는 점진적 수행법'을 말하고, '초(超)'는 '한 걸음에 날아 깨달음에 이르는 돈오(頓悟)의 수행법'을 말한다.

따라서 '자력으로 깨달음을 얻으려고 수행하되, 순차적인 단계를 거쳐 올라가는 점진적 수행법'을 '수출(豎出)'이라 하고, '자력으로 깨달음을 얻으려고 수행하되, 한 걸음에 깨달음에 날아 이르는 돈오(頓悟)의 수행법'을 '수초(豎超)'라 한다.

'수출(豎出)'은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고 결과가 있으면 반드시 원인이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선악의 행위에는 반드시 그 과보(果報)가 있다고 하는 인과(因果)의 도리를 보고 수양을 시작하여, 발심(發心 : 불도佛

道에 들어가 깨달음의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의지를 일으킴)하고, 수행하여, 보리(菩提: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하고 열반(涅槃: 모든 번뇌의 얽매임에서 벗어나고 진리를 깨달아 불생불멸의 법을 체득한 상태)의 경지에 드는 것'을 말한다.

‘수초(竖超)’는 선종(禪宗: 참선을 통하여 인간의 마음을 바르게 관조하고 불성佛性を 돈오(頓悟: 수행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장 깨달음)하려는 종파)의 ‘견성성불(見性成佛: 세속의 일체 잡념을 버리고 잡념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본성(本性: 불성佛性)을 철저하게 깨달음: 중국 선종에서 말하는 명심견성明心見性과 같은 뜻임)’과 같은 뜻이며, 밀종(密宗: 밀교密敎)의 ‘즉신성불(卽身成佛: 범부凡夫라 할지라도 현세現世에 깨달음을 열어 각자(覺者: 붓다: Budda: 불타佛陀: 존재의 양상과 그 본질을 여실히 깨달아 인격을 완성한 사람)가 될 수 있다는 것)’과도 같다. 또한 ‘타력(他力)에 의해 정토(淨土)에 왕생(往生)하려고 수행하되, 수행하려는 중생(衆生)을 삼배구품(三輩九品: 사람의 소질 및 수행 여하에 따라 ‘세 가지 부류三輩’와 ‘아홉 가지 종류九品’로 나눈 단계)으로 분류하여 순차적인 단계를 거쳐 올라가는 점진적 수행법’을 ‘횡출(橫出)’이라 하고, ‘타력에 의해 정토에 왕생하려고 수행하되, 본원력(本願力: 수행의 결과를 얻은 공덕)에 의해 곧바로 본토(本土: 부처님의 정토淨土의 하나. 아미타불이 본원本願의 성취에 의해 세운 정토)에 들어갈 수 있는 수행법’을 ‘횡초(橫超)’라고 한다.

‘횡출(橫出)’은 ‘요문(要門: 정토淨土에 태어나기 위한 긴요한 도도로서, 염불 외에 제행諸行에 의해 왕생하려고 하는 것)’의 ‘열아홉 번째 소원(第十九願)’인 ‘여러 가지 공덕을 닦는 것을 맹세한 소원’을 수행하는 것과 ‘진문(眞門: 진종眞宗에서 『아미타경』에 설해해진 자력 염불의 가르침)’의 ‘스무 번째 소원(第二十願)’인 ‘정토를 생각하여 여러 가지 선근(善根)을 심어 진심으로 회향(回向)하면, 그 소망을 다 이루어 반드시 정토에 왕생하도록 맹세한 것’을 수행하는 것이다.

‘횡초(橫超)’는 ‘홍원문(弘願門: 타력신심他力信心을 염불하는 삼문三門 중의 일문一門)’의 ‘열여덟 번째 소원(第十八願)’인 ‘염불왕생(念佛往生)의 염원’을 수행하여 ‘진종(眞宗)’에 도달하는 것이다. 진종(眞宗)은 곧 ‘타력신심(他力信心)의 정토진종(淨土眞宗)의 가르침(橫超直道)’인 바, 여래(如來)의 본원력(本願力: 정토에 태어난 부처님이나 보살이 혼탁한 이 세상에 돌아와 중생을 구제하겠다고 그 옛날에 세웠던 서원[맹세]에 의하여 미타보토(彌陀報土: 아미타불의 정토淨土)에 직입(直入)함으로써, 본원일승(本願一乘: 부처님이나 보살이 옛날에 세웠던 서원으로써, 일체 중생을 모두 성불成佛케 하는 것)을 실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범부(凡夫)도 성불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불타(佛陀: 석가모니) 일대의 ‘진실교(眞實敎)’인 것이다. 따라서 위의 논리를 요약하면, 이쌍(二雙: 두 쌍)은: 성도문(聖道門)의 한 쌍(수출豎出·수초豎超)과 이행도(易行道)의 한 쌍(횡출橫出·횡초橫超)을 가리키고, 사중(四重: 네 종류)은 성도문(聖道門)과 이행도(易行道: 정토문淨土門)라는 두 쌍(수출豎出·수초豎超·횡출橫出·횡초橫超)을 합칭(合稱)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횡수(橫豎)’의 논리를 발전시킨 사람은 일본불교 정토진종(淨土眞宗)의 창시자인 친란(親鸞)이다.

- e. 친란(親鸞: Sinran: 1173~1262): 일본 불교 정토진종(淨土眞宗)의 창시자.

속성(俗姓)은 등원(藤原), 아명(兒名)은 송악마(松若麿), 승명(僧名)은 범연(範宴), 작공(綽空), 선신(善信) 등이다. 경도(京都)사람. 어려서 부모를 잃고 백부 범강(範綱)에게 양육되었음. 9세 때 청련원(靑蓮院) 지원(慈圓)에게 출가하여 천태종(天台宗)의 교의(敎義)를 공부하였음. 후에 나량(奈良)에 가서 '삼론(三論: 인도 대승불교의 한 종파인 중관계中觀系에서 시작하여 중국에서 크게 번성한 불교 종파 삼론종三論宗이 종지宗旨로 하는 주요 경전 세 가지 「중관론(中觀論)」·「십이문론(十二門論)」·「백론(百論)」을 말함」의 법상(法相: 진리의 특질)을 깊이 연구하였다.

1201년 정법사(頂法寺) 육각당(六角堂)에 백일 동안 은거하다가, 도우(道友) 성각(聖覺)에게 인도되어, 경도(京都) 길수(吉水: 지금의 대곡大谷)에 가서, 정토종(淨土宗)의 교조(敎祖) 원공(源空)을 만난 다음, 염불로 정토(淨土)에 왕생(往生)할 수 있는 정토법문(淨土法門)을 중심으로 신봉하게 되었다. 1203년 등원겸실(藤原兼實)의 딸 옥일(玉日)을 처로 맞이하여, 일본 승려가 공개적으로 득처(得妻)한 시초가 되었다. 후에 정토종의 교조 원공(源空)의 문하에서 관의 허락을 받지 않고 궁녀를 출가시켜 사발토록 한 사건에 연루된 죄를 짓고, 월후국(越後國: 지금의 신석현新潟縣)으로 유배를 가게 되자, 자칭 '명정한 가까중머리 친란(愚禿親鸞)'이라고 하였다. 사면된 후에 상륙국(常陸國: 지금의 자성현茨城縣)에 갔다가, 그 후에 도전(稻田)으로 이주하면서, 전후에 걸쳐 10여년 불법(佛法)을 전하는 활동을 하였다. 1224년 도전(稻田)의 승사(僧舍)에서 『교행신증문류(敎行信證文類)』 6권을 저술하면서, 이것으로 중생을 교도(敎導)하는 종교 경전으로 삼고, 정식으로 정토진종(淨土眞宗)을 창립하였다. 이 당시에 부인 옥일(玉日)이 사망하자, 삼선위교(三善爲敎)의 딸을 재취(再娶)로 맞이하였으니, 이 사람이 혜신니(慧信尼)이다.

그의 주장은 정토종(淨土宗) 및 기타 종파와 달랐다. 그는 입으로 부처님의 명호(名號)를 외며, 그 부처님을 염두에 두고 하는 염불을 수행하는 것을 그다지 중시하지 않았다. 그가 강조한 것은 확고한 신앙, 즉 '신심(信心)'이었으며, '악인정기(惡人正機: 악인이지만 무량수불(無量壽佛: 부처님, 아미타불)의 원력으로 구제될 자격이 있다는 것)'의 설을 제시하면서, 악인이야말로 바로 아미타불이 구제할 대상이며, 원력으로 정토(淨土)에 왕생하도록 성불(成佛: 올바른 깨달음을 얻음)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동시에 승속(僧俗)이 동일하다고 제창(提唱)하면서, 계율(戒律)없이 종규(宗規)를 제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승려도 육식(肉食)할 수 있고, 취처(娶妻)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가 입적(入寂)한 후에, 제자들은 그를 경도(京都) 대곡(大谷)에서 장례를 치르고 사당도 건립하였다. 귀산천왕(龜山天王)은 조서(詔書)를 내려 그 사당의 묘호(廟號)를 '구원실성 아미타불 본원사(久遠實成阿彌陀佛本願寺)'라고 정하였다. 1876년 명치천왕(明治天王)은 조서를 내려 그의 시호를 '견진대사(見眞大師)'라고 하였다. 저서로 『정토문류취초(淨土文類聚鈔)』·『우독초(愚禿鈔)』·『정토화찬(淨土和讃)』·『입출이문계송(入出二門偈頌)』·『유신초문의(唯信鈔文意)』·『일념다념문의(一念多念文意)』·

『친란성인전집(親鸞聖人全集)』으로 전해지고 있다.

3) 추서망망불가심(墜緒茫茫不可尋 : 끊어진 왕통王統은 아득하여 찾을 길이 없네) :

① 추서(墜緒) : 본 시에서는 ‘끊어진 왕통(王統)’을 가리킨다.

☆추(墜) :

- a. 분실하다, 상실(喪失)하다.
- b. (풍속·관습·명예 등을) 손상시키다.

☆서(緒) :

- a. 업적, 공업(功業 : 공훈과 업적).
- b. 선대로부터 이어온(조상이 물려준) 업적을 가리킨다.

유업(遺業). 『서경(書經)·오자지가(五子之歌)』에, “네 번째 노래 가사에 이르기를: …… (이제는) 조상의 업적을 폐기 상실하고, 종족(宗族 : 겨레붙이)은 몰락하여 제사를 단절하게 되었네(其四曰 : 荒墜厥緒, 覆宗絕祀).” 라고 한 구절이 있다.

당나라의 학자 공영달(孔穎達 : 574~648)은 『상서정의(尙書正義)』에서, 위의 구절에 대하여 말하기를 : “태강(太康 : 하夏の나라의 제 2대 왕 계략의 아들)은 본업인 정치에 힘쓰지 않다가 망했다(太康失其業以取亡)”고 하였다. 후에 사람들은 이 ‘추서(墜緒)’란 말을, ‘장차 곧 단절되려 하는 황통(황통)’을 가리키는 말로 썼다.

(위 예문에서의 태강太康은 왕위를 계승하고서도 정사政事는 돌보지 않고, 사냥만 즐기며 민생을 돌보지 않다가, 결국 유궁씨有窮氏 부락의 수령 예羿에게 축출되어 나라를 잃었다. 위 예문의 가사는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민심이 이반離反 되어가는 상황을 걱정하며 태강의 동생 다섯이 각자 읊은 노래 중의 일부임)

② 망망(茫茫) :

☆요원(遙遠)하다.

☆아득하다, 까마득하다. 감감하다. 희미하다. 모호하여 분명하지 않다.

4) 독학미회잉세모(獨鶴未迴仍歲暮 : 다시 세밀이 되어도 외파로 떨어진 학 한 마리 돌아오지 않았는데) :

① 독학(獨鶴) : 고학(孤鶴). 때를 잃은 한 마리의 외로운 학(두루미).

② 잉(仍) :

☆거듭, 다시, 또

☆아직도, 여전히.

③ 세모(歲暮) :

☆선달그믐께, 한 해가 끝날 무렵. 세밀.

☆사람의 만년(晩年)에 비유하는 말.

5) 혼아낙일만한림(昏鴉落日滿寒林 : 해질 무렵 한림寒林으로 까마귀만 떼 지어 모여 드네) :

① 혼아(昏鴉) :

☆황혼이 깃들 때 우는 까마귀.

☆해질 무렵에 울거나 날아다니는 까마귀

② 낙일(落日) :

☆지는 해.

☆석양.

③ 한림(寒林): 가을 또는 겨울의 수림(樹林)을 일컫는 말.

6) 태산영락일호망(泰山零落一毫芒: 태산도 흩어지면 한 가닥 터럭이 되고):

① 태산(泰山): 산 이름이다.

☆이 산은 중국 산둥성(山東省) 중부에 있다. 고대에는 동악(東岳)이라 칭하였으며, 오악(五岳: 오악五嶽)중의 하나이다. 태산을 대종(岱宗), 대산(岱山), 대악(岱岳), 태대(泰岱)로도 칭한다. 주봉 옥황정(玉皇頂)은 산둥성 태안시(泰安市) 북쪽에 위치한다. 고대 제왕들은 자주 이 태산에서 봉선대전(封禪大典: 천지天地에 제사지내던 의식)을 거행하였다.

위에서 말한 오악(五岳)은 중국 5대 명산의 총칭으로, 고서(古書)의 기술(記述)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동악(東岳)은 태산(泰山), 남악(南岳)은 형산(衡山), 서악(西岳)은 화산(華山), 북악(北岳)은 항산(恒山), 중악(中岳)은 숭산(崇山)으로 칭한다.

② 영락(零落):

☆쇠퇴하다.

☆산란(散亂)하다, 흩어지다. 산실(散失)하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③ 일호망(一毫芒): 한 가닥 가는 털과 까끄라기.

☆호망(毫芒): 가는 털과 까끄라기. 전(轉)하여 아주 작거나 적은 것(근소하거나 약간)을 비유하는 말로 쓴다.

7) 척금유능변칠양(尺錦猶能辨七襄: 자투리 비단도 정미精美한 채색 비단은 역시 드러나네):

① 척금(尺錦): 한 자되는 자투리 비단.

② 유(猶): 부사로서, ‘또한, 역시, 여전하’의 뜻으로 쓰였다.

③ 변칠양(辨七襄): 섬세하고 아름다운(정미精美한) 채색비단은 드러나다(분별되다).

☆변(辨): 구별되다, 분별되다. 본 시에서는 ‘드러나다’는 뜻으로 쓰였다

☆칠양(七襄):

a. ‘섬세하고 아름다운(정미精美한) 채색 비단’을 가리킨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명말(明末)의 극작가 왕연눌(汪延訥: 생몰년 미상)의 잡극 『광릉목(廣陵目)』 제4회에, “관리(官吏) 나리, 이 이대인(李大人)이 말씀드린 것이 결단코 허위가 아니란 것은 아니지만, 정말로 숙련공입니다. 그러기에 정교하고도 아름다운 채색 비단을 제작했지요(相公, 這李大人所言非非虛謬, 眞當行. 怪不得製作精工絢七襄).”라고 한 대목이 있다.

b. 직녀성(織女星)이 낮에 7차 위치를 이동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때의 ‘양(襄)’은 이동하다는 뜻이다.

옛날에는 일주야(一晝夜: 만 하루)를 12시진(十二時辰)으로 나누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의 일곱 시진(時辰: 시간의 단위)은 바로 묘시(卯時: 오전 다섯 시부터 일곱 시까지)부터 유시(酉時: 오후 다섯 시부터 일곱 시까지)이다. 직녀성이 매 시진마다 일차 위치를 이동한다고 생각했던 바, 낮 동안인 이 일곱 시진 동안 7차 이동한다고 여겨 ‘칠양(七襄: 7차 이동함)’이라고 한 것이다.

(후한後漢의 학자 정현(鄭玄: 127~200)의 『시전(詩箋)』에서 말했듯이, 항성恒星,

즉 경성(經星)은 일주야(晝夜)에 왼쪽으로 돌아 일주(一周: 한 바퀴 돌)하니, 하루 사이에 묘방(卯方)으로부터 유방(酉方)에 이르기까지면 일곱 위치(位次)를 지나게 된다는 말임)

『시경(詩經)·소아(小雅)·대동(大同)』에, “삼각(三角)으로 배열된 저 직녀성은, 종일 동안 일곱 번이나 방위를 이동하네(跂*彼織女, 終日七襄). 비록 일곱 번이나 자리를 이동했다고 하지만, 무늬 고운 비단 조금도 짜내지 못했네(雖則七襄, 不成報章*).”라고 하였다.

c. 직녀성을 가리킨다.

당나라 시인 두심언(杜審言: 대략 646~708: 자는 필간(必簡)의 시 「칠석(七夕)」에, “천궁(天宮) 밖의 낮은 거리 직녀가 전전하며, 잔도(棧道)에서 견우(牽牛) 만나 함께 거닐었네(天街七襄轉, 客道二神過)”라고 읊은 구절이 있다.

8) 오백년중유간기(五百年中遺間氣: 오백년 동안의 천지 원기를 받아 태어난 위인):

① 오백년중(五百年中):

오백년 동안: 918년 왕건(王建: 877~943)이 건국하여 1392년 이성계(李成桂: 1335~1408)에 의해서 망하기까지 존속한 고려 왕조의 대략 500년간을 말한다.

② 간기(間氣): 천지의 원기를 품고 간혹 태어나는 위인을 가리킨다. 옛날에, 영웅과 위인이라고 일컬어진 인물들은 먼저 성상(星象: 성체星體, 즉 천체天體의 명암이나 위치 등 현상)에 감응하고, 다음으로 천지의 특수한 원기를 품어서 간세(間世: 여러 세대를 걸쳐 간혹만에 태어난다고 생각하였던 까닭에 칭해진 말이다.

☆간(間): (공간 또는 시간의) 간격을 두다. 가로막혀 격리되다.

☆기(氣): 천지의 원기, 기운. 천기(天氣)와 지기(地氣).

9) 고명유여일쟁광(高名留與日爭光: 훌륭한 명성 전해져 햇빛과 광명을 겨루네):

① 고명(高名):

☆훌륭한 명성(名聲).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음.

☆명성이 높다. 명성을 떨치다. 높이 알려진 이름이나 높은 명예를 칭한다.

② 쟁광(爭光):

☆~와 광휘를(광명을) 겨루다.

『회남자(淮南子)·설산훈편(說山訓篇)』에, “해가 뜨면 별이 보이지 않는 것은, 햇빛과 광명을 겨룰 수 없어서이다(日出星不見, 不能與之爭光也).”라고 하였다.

『사기(史記)·굴원가생열전(屈原賈生列傳)』에, “이러한 지조를 추측해 보건대, 설령 일월(日月)이라 할지라도 그것과 광명을 겨룰 수 있는 사람이라 하겠다(推此志, 雖與日月爭光可也).”고 한 대목이 있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광명(光明: 밝은 빛)을 받으려고 다투다(애쓰다).



시95. 영해寧海의 유학자 경탁景卓 신정립申挺立이
와서 말하기를 차라리 목은牧隱 이색李穡
선생 제향祭享하는 곳을 서원으로 만들고
싶은데, 의견이 같은지 다른지의 여부를
내게 물었다. 나는 감히 선뜻 즉답을 하
지 못했으나, 그가 간 뒤에, 목은牧隱 선
생이 지향했던 것에 대해서 느낀 바가
있어, 절구시絶句詩 두 수를 읊는다. 옛적
인물을 추구하여 논하는 선비들이, 또한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네?

詩95. 寧海儒申挺立來言¹⁾ 寧爲牧隱外鄉²⁾ 欲作書院
영 해 유 감 정 립 내 언 영 위 목 은 외 향 욕 작 서 원
議異同³⁾ 問余 余謝⁴⁾ 不敢對 去後 有感於牧老心事⁵⁾
의 이 동 문 여 여 사 불 감 대 거 후 유 감 어 목 로 심 사
吟二絶⁶⁾ 未知尙論⁷⁾ 之士 又以爲如何?
음 이 절 미 지 상 론 지 사 우 이 위 여 하

其一
기 일

[1]

牧老文章大鳴東,⁸⁾
목 로 문 장 대 명 동

목은 선생 문장은 고려조에서 명성
자자했고,

行身只在濁清中⁹⁾.
행 신 지 재 탁 청 중

처신 역시 난세임에도 오로지 청아하고

온화했네.

衰年哭子空山裏,¹⁰⁾
쇠 년 곡 자 공 산 리

노년에 인적 없는 산중에서 통곡하던
선생,

絶似東京太尉公¹¹⁾。
절 사 동 경 태 위 공

동한東漢시대 충신이던 태위공太尉公과
매우 흡사하구려.

其二 기 이

[2]

眞黃花對僞淵明¹²⁾,
진 황 화 대 위 연 명

‘진짜 국화가 가짜 도연명을 마주하고
있다’ 했는데,

此語深悲此老情。
차 어 심 비 차 로 정

이 말이 이 늙은이 가슴을 너무 슬프게
하네.

驪江一曲栽幽竹¹³⁾,
려 강 일 곡 재 유 죽

여주 땅 한 구석엔 그윽한 대숲도
조성됐건만,

卻羨東籬嗅落英¹⁴⁾。
각 선 동 리 후 낙 영

오히려 동쪽 울 밑에 갓 핀 국화향기
맡는 게 부러웠다네.

1) 영해유신정립(寧海儒申挺立) : 영해寧海의 유학자 경탁景卓 신정립申挺立) :

- ① 영해(寧海) : 지금의 경북 영덕군(盈德郡) 영해면(寧海面)을 가리키며, 유학자 신정립(申挺立)이 살았던 곳이다.
- ② 신정립(申挺立) : 신활(申活).

☆신활(申活 : 1576~1643) : 조선 중기의 학자. 본관은 평산(平山), 자는 경탁(景卓 : 경탁景濯으로도 씀), 호는 죽로(竹老). 초명(初名)은 정립(挺立), 준민(俊民)의 아들이다. 임진왜란이 끝난 뒤 단산서원(丹山書院)*을 세워 학문을 장려하였으며, 1608년(광해군 즉위년) 선조의 장례시에 차비관(差備官 : 특별한 사무를 맡기려고 임시로 임명하던 벼슬)으로 수행한 공이 있어, 가자(加資 : 조선시대에 품계品階를 승격시키는 제도, 혹은 승격된 품계)되었다. 저서로는 『죽로집(竹老集)』이

있다.

*단산서원(丹山書院) :

지금의 경북 영덕군(盈德郡) 창수면(蒼水面) 인량리(仁良里)에 있었던 서원이다. 1608년 도내 유림(儒林)의 공의(共議)로 고려 충선왕 때의 학자 우탁(禹倬 : 1263~1343)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하여 위패를 모셨다. 1631년 이색(李穡 : 1328~1396)을 모셨으며, 1667년 봉황산(鳳凰山) 근처의 가사리(지금의 경북 포항시浦項市 북구 죽장면竹長面 가사리佳士里)로 이건(移建)함과 동시에 역시 고려 말기의 학자 이곡(李穀 : 1298~1351)을 추가 배향(配享) 하였다. 1868년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 : 이하응李昰應 : 1820~1898, 조선 고종의 부친)의 서원 철폐령으로 훼손(毀撤)된 뒤 복원되지 못했다.

- 2) 영위목은외향(寧爲牧隱外鄉 : 차라리 목은牧隱 이색李穡선생의 제향祭享으로 삼다) :

① 영(寧) : 차라리 (~하는 것이 낫다).

② 목은(牧隱) : 고려 말기의 문신 이색(李穡)의 호(號)이다.

☆이색(李穡 : 1328~1396) : 고려 후기의 문신·학자. 본관은 한산(韓山), 자는 영숙(穎叔), 호는 목은(牧隱).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 : 1337~1392), 아은(治隱) 길재(吉再 : 1353~1419)와 함께 삼은(三隱)의 한 사람이다. 찬성사(贊成事 : 문하부門下府의 정이품 관직) 이곡(李穀 : 1298~1351)의 아들로 이제원(李齊賢 : 1287~1367)의 문인이다. 1341년에 진사(進士)가 되고, 1348년 원(元)나라에 가서 국자감(國子監 : 유학을 가르치던 고려 최고의 국립교육기관)의 생원(生員)이 되어 성리학(性理學)을 연구하였다. 1351년 부친 상(喪)을 당해 귀국하였다. 1352년 전제(田制)의 개혁, 국방계획, 교육의 진흥, 불교의 억제 등 당면한 여러 정책의 시정개혁에 관한 건의문을 올렸다. 이듬해 향시(鄉試)와 정동행성(征東行省 : 고려 충렬왕 때, 원나라가 고려의 개성開城에 둔 관아)의 향시에 1등으로 합격해 서장관(書狀官 : 외국에 보내는 사신 가운데 기록을 맡아보던 임시 벼슬)이 되어, 원나라에 가서 1354년 제과(制科 : 중국에서 천자天子가 친히 참관하던 과거의 하나)에 회시(會試 : 매 3년 관리에 추천되거나 등용시험에 응하려던 각 성省의 거인舉人들이 경성京城에 모여 치르던 시험)에 1등, 진시(殿試 : 과거 시험 중 최고급 시험. 황제가 친히 전정殿廷에 나와서 신하나 시험생들에게 견해를 물으며 진행하던 과거)에 2등으로 합격해, 원나라에서 응봉 한림문자 승사랑 동지제교 겸 국사원판수관(應奉 翰林文字 承事郎 同知制誥 兼 國史院編修官)을 지냈다. 귀국해서 전리정랑 겸 사관판수관 지제교 겸 예문응교(典理正郎 兼 史館編修官 知製敎 兼 藝文應敎)·중서사인(中書舍人 : 문하성에서 간쟁諫諍을 맡아보던 종사품 벼슬) 등을 역임하였다. 이듬해 원나라에 가서 한림원(翰林院)에 등용되었으며, 다음 해에 귀국하여 이부시랑 한림직학사 겸 사관 판수관 지제교 겸 병부낭중(吏部侍郎 翰林直學士 兼 史館編修官 知製敎 兼 兵部郎中)이 되어 인사행정을 주관하고 개혁을 건의해 정방(政房 : 고려시대에 집권자 최우(崔瑀 : ?~1249)가 자기 집에 설치하였던 사설 정치 기관)을 폐지하게 하였다. 1357년 우간의대부(右諫議大夫)가 되어 유학(儒學)에 의거한 삼년상제도를 건의하여 시행하도록 했다. 이어 추밀원 우부승선(樞密院 右副承宣), 지예부사(知禮部事) 등을 지내고, 1361년 홍건적의 침입으로 왕이 남행할 때

호종(扈從 : 임금의 탄 수레를 호위하여 따름)하여 1등 공신이 되었다. 그 뒤 좌승선(左承宣), 동지춘추관사(同知春秋館事), 대제학(大提學) 및 판개성부사(判開城府事) 등 여러 관직을 역임했다. 1367년 대사성(大司成 : 성균관의 으뜸 벼슬로 정3삼품위)이 되어 국학(國學 : 중앙의 교육 기관)을 성균관(成均館)으로 개칭(改稱)하여 운영하면서 성균관의 학칙을 새로 제정하고, 김구용(金九容 : 1338~1384), 정몽주(鄭夢周 : 1337~1392), 이승인(李崇仁 : 1349~1392) 등을 학관(學官 : 교육을 맡아 보던 벼슬아치)으로 채용하여 신유학(新儒學 : 성리학, 정주학, 주자학의 이칭)의 보급과 성리학의 발전에 공헌하였다. 1373년 한산군(韓山君)에 봉해지고, 1377년에 추충보절 동덕찬화 공신(推忠保節同德贊化功臣)에 칭호를 받고 우왕(禑王 : 고려 제32대왕 : 1365~1389)의 사부가 되었다. 1388년 철령위문제(鐵嶺衛門問題 : 고려와 명나라 사이에 벌어진 국경에 관한 분쟁. 명나라가 철령 이북의 땅에 철령위(鐵嶺衛 : 명나라가 설치하려고 하던 70개소의 병참군영)를 설치하려고 하자, 고려는 이에 맞서 요동정벌을 꾀했는데, 위화도 회군(威化島回軍)으로 요동 정벌은 실패하였으나, 철령위는 명나라에 귀속되지 않았음)가 일어나자 화평(和平)을 주장하였다. 1389년 위화도 회군(威化島回軍 : 고려 우왕14년(1388년), 명나라의 요동遼東을 공략하기 위하여 출정했던 이성계李成桂 등이 위화도에서 회군하여 왕을 내쫓고 최영崔瑬을 유배한 뒤 정권을 장악한 사건. 조선 왕조 창건의 기반이 되었음)으로 우왕이 강화(江華)로 쫓겨나자 조민수(曹敏修 : ?~1390)와 함께 창왕(昌王 : 우왕의 아들, 고려 제33대 왕 : 1380~1389)을 옹립, 즉위하게 하고, 판문하부사(判門下府事)가 되어 명나라에 사신으로 가서 창왕의 입조(入朝)와 명나라의 고려에 대한 감국(監國)을 주청해 이성계 일파의 세력을 억제하려 하였다. 이 해에 이성계 일파가 세력을 잡게 되자 오사충(吳思忠 : 1327~1406)의 상소로 장단(長湍 : 지금의 경기도 서북부)에 유배되었다가, 이듬해 함창(咸昌 : 지금의 경북 상주시 북부)으로 이배(移配)되었다가 ‘이초(彝初)의 옥사(獄事)(즉 고려 공양왕 2년(1390)에 윤이尹彝와 이초李初가 명나라에 있으면서 명나라의 힘을 빌려 당시의 권신權臣 이성계 일파를 타도하려 하였으나 실패하여 강소성江蘇省에 유배된 사건. 공양왕과 이성계가 군사를 일으켜 명나라를 치려한다고 무고하였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공양왕 즉위 이후 이성계 일파의 우세로 굳어졌던 정치 세력 간의 역학관계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음)’에 연루되어 청주(淸州 : 지금의 충북 충주)의 옥에 갇혔으나, 수재(水災)로 함창에 안치되었다. 1391년에 석방되어 한산부원군(韓山府院君)에 봉하여졌으나 1392년 정몽주가 피살되자 이에 관련하여 금주(衿州 : 지금의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의 옛 지명)로 추방되었다가 여흥(驪興 : 지금의 경기도 여주군의 옛 지명), 장흥(長興 : 지금의 전남 남부 장흥군) 등지로 유배된 뒤 석방되었다. 1395년에 한산백(韓山伯)에 봉해지고 이성계의 출사(出仕) 중용이 있었으나 끝내 고사(固辭)하고, 이듬해 여강(驪江 : 지금의 경기도 여주驪州의 옛 지명)으로 가던 도중에 타계하였다. 저서에 『목은문고(牧隱文藁)』와 『목은시고(牧隱詩藁)』 등이 있다. 시호는 문정(文靖)이다.

③ 외향(外鄕) : 본적지나 고향 이외의 곳, 본 시에서는 사후에 고향 이외의 곳에서 제향(祭享)하는 곳을 가리킨다.

3) 의이동(議異同) :

① 의(議) : 의견. 언론.

- ② 이동(異同): 다른 것과 같은 것. 반대의견, 이의(異議).
- 4) 사(謝): 피하다. 회피하다. 사양하다, 겸손하게 거절하다.
- 5) 목로심사(牧老心事):
- ① 목로(牧老): 목은(牧隱)에 대한 존칭으로 ‘목은(牧隱) 선생, 목은(牧隱) 어른, 목은(牧隱) 선배’ 등의 뜻이다.
 ☆목(牧): 목은(牧隱) 이색(李穡)을 가리킨다.
 ☆노(老): 경사(敬詞): 공경을 표시하는 말. 존칭이다. ‘선생, 선배, 어른’ 등의 의미이다. ‘향로(鄉老: 향리의 선배, 시골의 노인), 장로(長老: 나이가 많고 덕이 높은 사람)’ 등이 그 예이다.
- ② 심사(心事):
 ☆마음속으로 바라는 일, 염원.
 ☆포부, 장래의 의향. 지향(志向), 흥취.
 ☆심정, 심지(心地), 흉금(胸襟).
- 6) 이절(二絶): 본 시에서는 7언 절구시(絶句詩) 두 수를 가리킨다.
- ① 절(絶): 절구(絶句): 절구시(絶句詩): 한시(漢詩)의 근체시(近體詩) 형식의 하나. 기(起)·승(承)·전(轉)·결(結)의 네 구(句)로 이루어졌는데, 한 구(句)가 다섯 자로 된 것을 오언 절구(五言絶句), 일곱 자로 된 것을 칠언 절구(七言絶句)라고 함.
- 7) 상론(尙論):
- ① 고대(古代)로 거슬러 올라가 고인(古人)의 일을(언행을) 평론하다.
- ②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 고대의 인물을 추론(追論: 추구하여 논의함)하다.
 ☆상(尙): ‘상(上)’과 같음. 상(上): 시간상 ‘이전(以前)’, 순서상 ‘앞’을 가리키는 ‘전(前)’의 뜻이다.
 『맹자(孟子)·만장장구(萬章章句)하(下)』에, “천하의 덕 있는 선비들과 벼하는 것으로 만족스럽지 못하게 여겨지면, 곧바로 다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 고대의 인물들을 추론(追論)한다(以友天下之善士爲未足, 又尙論古之人)”고 한 대목이 있다.
- 8) 대명동(大鳴東): 고려조에 명성을 크게 떨치다.
- ① 명(鳴): 이름나다. 유명하다. 명성을 떨치다(언다). 명성이 자자하다.
- ② 동(東): 본 시에서 가리키는 것은 ‘발해(渤海)의 동쪽’이라는 뜻을 지니는 ‘해동(海東)’의 의미이다. 또는 ‘중국의 동쪽에 있는 나라’라는 의미로 ‘동방(東邦)’의 뜻을 지닌다. 고로 모두 ‘우리나라’를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목은(牧隱)이 고려 말기의 사람이므로, 본 시에서는 ‘고려조(高麗朝: 고려 왕조)’라고 번역하였다.
- 9) 행신지재탁청중(行身只在濁淸中: 처신 역시 난세임에도 오로지 청아하고 온화했네):
- ① 행신(行身):
 ☆처신(處身): 세상을 살아가는 데 가져야 할 몸가짐이나 행동.
- ② 지재(只在):
 ☆오로지 ~을 보존하다.
 ☆아직도(여전히) ~하고 있다. 오로지(단지) ~중이다.
- ③ 탁청중(濁淸中):

☆탁(濁): 난세(亂世).

☆청중(淸中):

a. 청신(淸新)하고 온건함.

b. 참신하고 온화함.

10) 쇠년곡자공산리(衰年哭子空山裏: 노년에 인적 없는 산중에서 통곡하던 선생):

① 쇠년(衰年): 노년(老年) 혹은 노쇠한 나이.

② 곡자(哭子): 통곡하는 사람. 여기서, ‘자(子)’는 집미사로서, 경칭(敬稱)으로서의 제2인칭을 나타낸다. ‘당신, 선생님’에 해당하는 말로서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음.

11) 절사동경태위공(絶似東京太衛公: 동한東漢시대 충신이던 태위공太尉公과 매우 흡사하구려):

본 구절은 목은 이색의 고려말기에서의 처지를 동한말기의 태위(太衛)의 처지에 견주어 표현한 것이다.

첫째, 열 살 전후의 어린 왕(창왕昌王)이 즉위한 상황 아래서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문신(文臣)이라는 점에서, 동한(東漢) 말기의 태위(太衛)나 고려 말기의 이색(李穡)은 그 처지가 흡사하였다.

둘째, 왕권(王權)은 완전히 상실되고 외척 아니면 환관이 권력을 장악하고 전횡하면서 그 폐단이 심각했던 정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했던 동한 말기의 태위나, 왕은 유명무실해진 존재에 불과한 상황에서 무신(武臣)이 권력을 장악하고 심각한 혼란을 거듭했던 고려 말기의 정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했던 이색의 입장이 흡사하였다.

셋째, 존왕주의적(尊王主義的) 유교역사관을 지니고 국정의 난관을 극복하려고 애썼다는 점에서 동한 말기의 태위나 고려 말기의 이색은 흡사하였다.

아래에 ‘동한(東漢) 말기의 정치적 몰락 상황’과 ‘고려 말기의 정치적 몰락 상황’을 간술하면 다음과 같다.

(1) 동한(東漢) 말기의 정치적 몰락 상황(외척과 환관의 투쟁과, 태위太衛를 중심으로 한 사대부들의 처신):

동한(東漢) 중엽의 화제(和帝: 79~105: 10세에 즉위)부터 환제(桓帝: 132~167: 15세에 즉위)에 이르기까지 8대의 황위(皇位)가 이어지는 80여 년 동안의 정국(政局)은 공식화된 것처럼 반복된 정치적 악순환을 거듭했다.

그것은 바로, 나이 어린 황제가 즉위하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모후(母后)가 섭정하면서 외척이 정권을 잡게 되고, 이들이 권력을 독단하면서 나이가 어려 대신들과 정사(政事)를 논할 수 없었던 황제가 유일하게 상대하는 신변의 사람이라고는 환관뿐이었으니 황제가 성장하면서 외척을 배척하려고 환관들과 모의하여 외척을 주살(誅殺)하고, 황제가 결혼한 뒤에는 가장 신임하는 처족(妻族)을 중용하니 또 다른 외척이 등장하게 되고, 그 결과 외척과 환관들의 심각한 권력 투쟁이 전개되는 외중에서 황제가 단명(短命)하거나 후사(後嗣)가 없어 또 다시 나이 어린 황제가 즉위하게 되는 상황이 전개됐다.

이렇게 황제가 유약 무능한 결과 표면상으로는 대권을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치는 공허한 상태로 전락하여 반환관(反宦官)과 반외척(反外戚)의 대립

과 투쟁이 반복되는 상태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국정을 바로 잡으려고 일어난 세력이 일부 청렴한 조야(朝野)의 명사(名士)들과 태학생(太學生)들이었다. 이들은 의기로운 집단을 형성하고 환관들과 대치하다가 투쟁이 전개된 결과가 ‘당고지화(黨錮之禍)’였다. 여기서의 ‘당(黨)’은 ‘봉당(朋黨 : 사대부를 중심으로 한 관료집단)’이고 ‘고(錮)’는 ‘종신토록 금고(禁錮)의 형에 처하여 관직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한 형벌’을 말한다.

연희 7년(延熹7年 : 164) 양병(楊秉 : 92~165)이 황경(黃瓊 : 86~164)을 이어 태위(太衛)가 되어 환관을 단핵할 것을 극력 주장하여 환제(桓帝)는 부득이 몇몇 환관들을 면직하였다.

이듬해 진번(陳蕃 : ?~168)이 태위가 되고 이응(李應 : 110~169)이 사례교위(司隸校尉 : 경도京都의 백관百官을 규찰糾察하고 도성都城부근의 범법자를 잡는 관청의 수장首長)가 되었다. 당시 관료들 사이에는 유교사상이 성행하여 환관들의 전횡을 증오하고 있었다.

이 때 환관 장양(張讓)의 동생 장삭(張朔)이 지방 현령으로 재직 중에 범법을 하고 장양의 집에 숨어 있다가 이응에게 잡혀 법대로 처벌을 받았다. 이에 궁중의 일반 환관들은 이응이 무서워 궁 밖 출입을 함부로 못했다. 이어서 황하(黃河) 북쪽에 사는 장성(張成)이란 사람의 아들을 살인죄로 잡아 처형하자, 이에 양심을 품은 장성은 평소 알고 지내던 환관과 결탁하여 이응을 무고(誣告)하였다. 166년 환제는 국정을 문란케 한다는 이유로 도리어 이응을 비롯하여 관료 200여 명을 체포하고 종신 금고형(終身禁錮刑)에 처하였다.

환제가 죽고 외척 두무(竇武 : ?~168)가 12세의 영제(靈帝 : 156~189)를 옹립하여 세력을 잡자, 진번과 이응 등은 168년 환관 세력을 제거하려고 태학생과 연합하여 환관들을 주살(誅殺)하려 했으나, 일이 사전에 발각되어 환관들이 선제 공격하면서 궁중에서 정변을 일으켜, 진번은 나포되어 옥사(獄死)하고 두무는 자살하였다. 환관들은 기업을 토하면서 재차 관료들에 대한 탄압을 자행하여 이응과 두밀(杜密 : ?~169) 등 100여 명이 체포되어 살해되고 600여 명의 관료와 당인(黨人)들이 금고형에 처해졌다.

이 ‘금고(禁錮)의 옥(獄)’은 환제 9년(166)부터 시작하여 영제 원년(184)까지 전후 약 20년에 걸쳐 반복되어 일어나 인제는 고갈되고 국고는 탕진되었으며 백성들의 의기는 소침해져서 국가의 정기(精氣)에 큰 타격을 입혔다.

여기에도 지금의 감숙성(甘肅省), 청해성(青海省), 사천성(四川省)에 근거했던 이민족인 강족(羌族)의 끊임없는 침입으로, 결국 백성들은 민생고를 해결하지 못하고 황巾賊(黃巾賊)이 봉기하고, 동탁(東卓 : ?~192)의 난이 일어나고, 조조(曹操 : 155~220) · 유비(劉備 : 161~223) · 손건(孫堅 : 156~192) 등 군웅들이 쟁기하면서 동한의 사직(社稷)은 마침내 멸망한다.

(2) 고려 말기의 정치적 몰락 상황:

고려 제20대 신종(神宗 : 1144~1204)은 나이 50이 넘어 무신 최충헌(崔忠獻 : 1149~1219)에 의해 옹립되었다. 최충헌 일당은 왕의 측근을 몰아낸 후, 60년 장기집권의 무단정치(武斷政治)의 기반을 닦았다. 조정 대소사의 결정권은 최충헌과 그 측근들이 다 틀어쥐고 전횡하면서, 왕은 완전히 유명무실한 존재에 불과해졌다.

제24대 원종(元宗: 1219~1274)은 몽고에 항복한 뒤 삼별초(三別抄: 3개 조직의 용사로 구성된 선발군)의 해산을 명하자, 이들이 반발하여 난을 일으켰다. 삼별초는 최씨 정권하의 치안 유지를 위한 사병(私兵)으로, 야별초(夜別抄: 최우(崔瑀: ?~1249)가 설치한 사병私兵)가 확대되어 좌·우별초(左·右別抄)가 되었고, 여기에 몽고에서 도망 온 신의군(神義軍: 몽고에 잡혀 갔다가 도망 온 사람들로 조직한 군대)을 중심으로 '삼별초'가 조직되었으며, 이들은 몽고에 항복이라는 굴욕에 접하여 배중손(裴仲孫: ?~1271)을 우두머리로 왕족인 승화후(承化侯) 온(溫)을 왕으로 추대하고 반란 정부를 세웠다. 그러나 이들은 러·몽 연합군에 쫓겨 진도(珍島)와 탐라(耽羅: 지금의 제주도)로 밀려났다가 패망하고 만다. 이후, 고려왕은 무신정권(武臣政權)에게 잃었던 왕권은 회복했지만, 고려는 급속도로 원(元)의 속국으로 전락했고, 조신(朝臣)들의 힘도 미약해져 고려는 점차 자생력을 잃어갔다.

제28대 충혜왕(忠惠王: 1315~1344)은 16세에 즉위하여 서모(庶母)인 수비(壽妃) 권씨(權氏)까지 강간하는 등 귀천을 불문하고 수많은 여인을 강간한 희대의 패륜이었다. 결국 원나라로 압송되어 계양현(揭陽縣: 지금의 광둥성廣東省 계양시揭陽市)으로 귀양 가던 중 30세를 일기로 객사하고 만다.

제31대 공민왕(恭愍王: 1330~1374)이 즉위한 뒤, 원나라를 배척하면서 친원과(親元派)로서 황포가 심해 민폐가 많았던 기철(奇徹: ?~1356: 원나라 순제順帝의 둘째 황후의 오라버니)을 제거하고, 쌍성총관부(雙城總管府: 1258년 원나라 화주(和州: 지금의 함경남도 영흥군永興郡) 이북을 통치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아)를 폐지하는 등 국위를 떨쳤으나, 1365년 만삭의 몸이던 원나라 종실(宗室)의 노국공주(魯國公主)가 산고(産苦) 끝에 사망하자, 왕은 정사(政事)를 왕사(王師)인 신돈(辛旽: ?~137)에게 내맡기고 공주의 명복을 빌기 위해 불사(佛事)에 전념하였다. 그러나 신돈은 권신들의 반대로 개혁정책에 실패하고 처형된다. 공민왕은 정신병적 증세를 드러냈고 변태적 성생활을 자주 했다. 결국은 내시 최만생(崔萬生)과 공민왕 자신의 명에 의해 불륜의 도구로 쓰였던 자제위(子弟衛: 왕권 강화와 실리 회복을 위해 궁중에 설치했던 인재양성 기관) 소속의 홍륜(洪倫) 등 몇몇 젊은이들에게 피살된다.

제32대 우왕(禑王: 1365~1389)은, 공민왕이 살해되자 홍건적(紅巾賊)을 격퇴한 공로로 정권을 장악한 이인임(李仁任: ?~1388)에 의해서 10세의 어린 나이에 왕으로 옹립되었다. 한편, 명(明)나라의 개국(開國)으로 고려는 원(元)과 명(明)사이에서 외교적 난관에 부딪혀 명나라와는 신경전을 벌이는 처지가 되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왜구의 노략질로 민심은 동요하여 민간 경제가 극도로 파탄해지고 고려 사회를 혼란시켜 마침내 고려 멸망의 촉진제가 되었다.

1388년(우왕 14) 명나라는 사신으로 고려에 보냈던 채빈(蔡斌: ?~?)이 고려 땅에서 김의(金義: ?~?: 고려에 귀화한 만주 사람)에게 피살된 것을 구실로 철령 이북의 땅을 자신들의 요동부(遼東府)에 귀속시키겠다고 통보해왔다. 고려 조정은 최영(崔瑩: 1316~1388)의 건의를 받아들여 요동정벌을 결정한다.

그러나 이성계(李成桂: 1335~1408: 훗날의 조선 제1대 왕. 묘호廟號는 태조太祖)는 「사대불가론(四大不可論)」을 들어 요동정벌의 무모함을 역설하며 우왕을 설득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색李穡은 이 때 화평을 주장하였다)

‘사대불가론’의 내용은 “첫째,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맞아 싸워야 한다는 점이다(以小逆大), 둘째, 여름에 군대를 출동시킨다는 점이다(夏月發兵), 셋째, 거국적으로 먼 곳에 정벌하러 나가면(擧國遠征) 왜구가 그 허점을 노린다는 점이다(倭乘其虛), 넷째, 지금 계절이 바야흐로 무더위에 폭우가 내리는 여름이라(時方署雨), 궁체(弓體 : 활의 본체)에 붙여 놓은 아교가 떨어진다는 점이다(弩弓解膠), 넷째, 수많은 장병들에게 돌림병이 만연한다는 점이다(大軍疾疫).”

친명(親明), 친원파(親元派)의 대립적 요인도 있었지만 이성계의 현실을 직시한 이성적 판단은, 최영의 정치적 명분을 앞세운 이상론을 이기지 못한 채 출범했다가, 위화도에서 더 이상 진군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여 혁명적 결단을 내리고 회군(回軍)한다. 이로써 최영을 중심으로 하는 친원파는 몰락하고 이성계를 중심으로 하는 친명파는 실권을 장악한다.

이후 최영과 그의 측근들은 귀양을 가고, 우왕은 강화도로 유배되었다가 강릉으로 이배(移配)된 후, 1389년 나이 25세에 피살된다.

이색과 조민수(曹敏修: ?~1390) 등은 제33대 왕으로 창왕(昌王: 1380~1389)을 옹립하니, 나이 겨우 아홉 살이었다. 당시 김저(金佇: ?~1389)와 정득후(鄭得厚: ?~1389) 등이 이성계를 죽이고 우왕을 복위시키려다가 곽충보(郭忠輔: ?~1403)가 이성계에게 밀고하는 바람에 김저는 나포되고 정득후는 자살했다. 1389년, 이 사건 이후 반 이성계파가 대거 축출되고 창왕도 폐위되어 강화도로 유배되었다가 나이 불과 열 살에 죽음을 맞이한다.

제34대 공양왕(廣讓王: 1345~1394)이 즉위하자 이성계 일파가 정권을 장악하였다. 이 때 이색이 판문하부사(判文化附使)에 임명되어 정계에 복귀했으나 창왕의 즉위를 도왔다는 사유로 탄핵받아 복귀 한 달 만에 파직되어 아들 이종학(李鍾學: 1361~1392)과 함께 유배되었다. 왕은 실권을 빼앗겼고 정몽주(鄭夢周: 1337~1392)가 살해된 뒤에 폐위 당하고 살해된다.

1392년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다.

① 절사(絶似): 몹시~와 같다.

② 동경(東京): 고도(古都)의 명칭으로 낙양(洛陽)을 칭함. 이는 지금의 하남성(河南省) 낙양시(洛陽市)로서, 동한시대의 고도(古都)이다.

③ 태위공(太尉公):

☆태위(太尉): 관명(官命), 진(秦)나라에서 서한(西漢)에 이르기까지 설치되었으며, 전국의 군사 업무와 행정의 수뇌(首腦)였으며, 승상(丞相), 어사대부(御史大夫)와 병칭(并稱)하여 삼공(三公)이라고 하였다. 한무제(漢武帝) 때 개칭(改稱)하여 대사마(大司馬)라고 불렀다. 동한(東漢) 시대에는 태위(太尉)와 사도(司徒), 사공(司空)을 병칭(并稱)하여 삼공(三公)이라고 하였다. 역대에 걸쳐 많이 변형되어 설치되었지만, 점차 승진되어 나중에는 실권이 없는 명예직으로 변했다.

☆공(公): 고대 관리의 최고 등급으로, 삼공(三公)을 이른다.

- 12) 진황화대위연명(眞黃花對僞淵明: ‘진짜 국화가 가짜 도연명을 마주하고 있다’ 했는데): 이 구절은 『목은집(牧隱集)』에 수록된 목은(牧隱) 이색(李穡: 1328~1396)의 시 「국화를 마주하니 느낌이 있어(對菊有感)」중 제4구이다:

인정이란 그제 흡사 물건 같아 무정하니니,

人情那似物無情,

만나는 사람마다 몇 년 사이 불평이 늘어났네.
우연히 동쪽 울 바라보다 만면에 부끄러운 기색 띠었나니,
진짜 국화가 가짜 도연명을 마주하고 있어설세.

觸境年來漸不平。
偶向東籬羞滿面，
眞黃花對僞淵明。

목은의 이 시는 고려 말에 우왕(禔王)이 폐위되어 강화(江華)에 안치되어 있을 때, 목은이 미복(微服)으로 가서 뵈는 적이 있는데, 그 때 국화를 보고 이 시를 지었다고 한다. 국화꽃을 보면 만면(滿面)에 부끄러움이 가득했던 까닭도, 자신을 가짜 도연명(陶淵明)이라고 자조(自嘲)한 까닭도 모두 망국(亡國)의 사대부(士大夫)로서의 자괴감(自愧感)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① 황화(黃花) : 황국화(菊花)를 가리킴.

② 연명(淵明) : 도연명(陶淵明) : 도잠(陶潛 : 365~427)의 자(字). 동진(東晉)의 시인. 자세한 것은 「시46」의 주석1)의 ③조항을 참조 바람.

13) 여강일곡재유죽(驪江一曲栽幽竹 : 여주 땅 한 구석엔 그윽한 대숲도 조성됐건만) :

① 여강(驪江) : 지금의 경기도 여주(驪州)의 옛 지명이다.

목은은 1390년 장단(長湍 : 지금의 경기도 서북부)에 유배된 이후, 금주(衿州 : 지금의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 여흥(驪興 : 지금의 경기도 여주군) · 장흥(長興 : 지금의 전남 장흥군) 등 여러 지역으로 귀양지를 옮겨 전전하다가 태조(太祖) 이성계(李成桂 : 1335~1408)의 출사(出仕) 종용을 끝내 고사(固辭)하고 조선 태조 5년(1396)에 여강(驪江)으로 가던 중 타계하였다. 자세한 것은 본 시의 주석2) 목은(牧隱) 이색(李穡)조항을 참조 바람.

② 일곡(一曲) : 궁벽한 곳, 구석진 곳.

③ 유죽(幽竹) : 그윽한 대나무 숲. 본 시에서의 이 ‘대나무 숲’은 목은(牧隱) 이색(李穡)의 고려에 대한 ‘충절’을 작가가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14) 각선동리후낙영(卻羨東籬嗅落英 : 오히려 동쪽 울 밑에 갓 핀 국화향기 맡는 게 부러웠다네) :

본 시의 제2수 첫 구절에서도 인용하여 읊었거니와, 목은(牧隱)이 읊은 시 「국화를 마주하니 느낌이 있어(對菊有感)」는 우왕(禔王)이 폐위되어 강화(江華)에 유배(流配)되어 있을 때 미복(微服)차림으로 가서 뵈고 난후에 동쪽 울타리 아래 국화를 보고 읊은 것이라고 한다.

① 동리(東籬) : 동쪽 울타리, 국화 밭.

동진(東晉)의 시인 도잠(陶潛 : 365~427년 : 도연명陶淵明)의 시 「음주(飲酒) · 5 (五)」에서 “동쪽 울타리 밑에 서 국화를 따노라니, 한적하게 남산이 시야에 들어 오네(採菊東籬下，悠然見南山).”라고 읊은 구절이 있다. 그래서 후에 사람들은 ‘동리(東籬)’를 ‘국화를 심은 곳’이란 뜻으로 쓰기도 하였다. 본 시에서는 우왕(禔王)이 유배(流配)된 곳의 ‘동쪽 울타리’인 바, 유배지(流配地)를 대칭(代稱)하여 쓰인 것으로 보인다.

② 후낙영(嗅落英) : 갓 핀 꽃의 향기를 맡다.

☆후(嗅) : 냄새를 맡다.

☆낙영(落英) : 『사해(辭海)』 사전에는 이 ‘낙영(落英)’이란 용어에 대해서 두 가지 상반(相反)되는 뜻을 수록하고 있다. 그 하나는 ‘낙화(落花 : 떨어진 꽃 또는 꽃이 떨어짐)’의 뜻으로 해석하는 경우이고, 나머지 하나는 ‘개화(開花) · 갓 피

어난 꽃 또는 막 피기 시작한 꽃'의 뜻으로 해석한 경우이다. 그 실례는 아래와 같다.

‘낙화(落花)’를 가리킨 경우:

서진(西晉)의 시인 좌사(左思: 대략 250~305년: 자는 태충太冲)의 「촉도부(觸都賦)」에, “산뜻한 꽃송이 활짝 피어 드리워지더니, 지는 꽃잎 바람 따라 어지러이 흩날리네(敷蕊葳蕤, 落英飄飆).”라고 읊은 구절이 있다.

‘개화(開花)’를 가리킨 경우:

전국시대(戰國時代) 초(楚)나라 정치가이자 시인인 굴원(屈原: 약 BC 339~약 BC 278)의 『초사(楚辭)·이소(離騷)』에는 ‘동틀 무렵엔 목란 앞에서 떨어지는 이슬 마시고, 해질 무렵에는 갓 피어난 가을 국화 꽃잎 따서 먹네(朝飲木蘭之墜露兮, 夕餐秋菊之落英).”라고 읊은 구절이 보인다.



시96. 등잔불을 읊다

詩96. 詠燈火¹⁾
영 등 화

非膏火不明²⁾,
비 고 화 불 명

기름이 없으면 등잔불은 밝힐 수
 없지만,

非火膏不竭。
비 화 고 불 갈

등잔불을 켜지 않으면 기름은 소모되지
 않네.

貪明不愛³⁾膏,
탐 명 불 애 고

등잔불의 밝음을 탐내면서 기름을
 아끼지 않으면,

膏盡明仍⁴⁾熄。
고 진 명 내 식

기름이 소진되어 등잔불은 다시 꺼지네.

相資又相賊⁵⁾,
상 자 우 상 적

(이처럼) 상호의존도 하지만 상호 방해도
 하나니,

此理誰能詰⁶⁾。
차 리 수 능 헐

이러한 이치를 누가 따질 수 있으리!

若論究竟法⁷⁾,
약 론 구 경 법

게다가 궁극적인 진리를 논하고자 해도,

玄天本幽默⁸⁾。
현 천 본 유 묵

하늘은 본래부터 아무런 말이 없다네.

1) 등화(燈火): 등불, 등잔불:

동물성 또는 식물성 기름을 연료로 등잔(燈臺)에 켜 붙을 말한다. 등잔은 그 재료에 따라 목제·토제·와기·대리석·백자·사기·놋·철제 등잔이 있는데, 여기에 한 지·숨·노끈 따위로 세발 삼지 등을 만들어 기름이 배어들게 하여 불을 켜게 되어 있다.

1876년경이 되어서야 일본으로부터 석유와 함께 심지꽃이가 따로 붙은 등잔이 들어왔다. 이때부터 등잔불의 연료로 석유가 쓰여 지기 시작했다. 등불을 밝게 하려면 심지 두 개를 사용하기도 했는데 그것을 쌍심지라고 한다. 등잔은 보통 등잔걸이나 등잔대(燈臺臺) 또는 제등(提燈: 자루가 있어 들고 다닐 수 있는 등)·좌등(坐燈: 나무로 뼈대를 만들고 종이나 천 따위를 발라 만든 등) 등에 올려놓고 사용하나 제 몸에 등대가 붙은 것도 있다.

2) 비고화불명(非膏火不明: 기름이 없으면 등잔불은 밝힐 수 없지만):

① 비(非):

☆뒤에 오는 '불(不)'과 결합하여, ~이 없으면~할 수 없다. 이때의 비(非)는 '무(無: 없다)'와 같은 뜻이다.

☆~하지 않으면 ~하지 않다.

② 고(膏): 특별히 '등유(燈油)'를 가리킨다. 당시 등잔불에 사용하던 연료는 동물성 기름이나 식물성 기름이었다. 석유는 1876년 이후부터 사용되었다.

3) 애(愛): 아끼다, 혹은 소중히 여기다.

4) 잉(仍): 따라서, 그리하여.

5) 상자우상적(相資又相賊: 상호의존도 하지만 상호방해도 하나니):

① 상자(相資):

☆상호 의지하다.

☆물질적으로 상호 보조하다.

② 상적(相賊): 상호 방해(침범)하다.

6) 수능힐(誰能詰): 따져 묻다, 힐문(詰問)하다.

7) 악론구경법(若論究竟法: 게다가 궁극적인 진리를 논하고자 해도):

① 악(若): 접속사(連詞)로서, '게다가, 또한, ~뿐만 아니라' 등의 뜻이다.

② 구경법(究竟法): 불교용어로서, 궁극적인 진리(진실, 사리事理, 이법理法, 본질) 또는 열반(涅槃: 진리를 깨달아 번뇌의 불을 끈 상태)에 이르는 법.

8) 현천본유묵(玄天本幽默: 하늘은 본래부터 아무런 말이 없다네):

① 현천(玄天): 하늘.

② 유묵(幽默): 아무런 소리가 없다.



시97. ‘마음’을 읊은 시 두 수

詩97. 靈臺¹⁾二首
영대 이 수

其一
기 일

[1]

一片靈臺日鏡²⁾明,
일 편 영대 일 경 명

한 조각 마음은 태양같이 밝은데도,

絕無思議妙難名³⁾。
절 무 사 의 묘 난 명

결코 이해할 수 없고 오묘해서
형용하기도 어렵네.

若將酬應分疆界⁴⁾,
약 장 수 응 분 강 계

만사에 대응하려면 마음의 경계境界
분명히 해야 하나,

何異空中索臭聲。
하 이 공 중 색 취 성

허공에서 냄새나 소리를 찾는 것과
무엇이 다른고?

其二
기 이

[2]

萬界都成一混融⁵⁾,
만 계 도 성 일 혼 융

만물의 세계가 모두 마음 하나에
융합되나니,

前瞻無始後無終。
전 침 무 시 후 무 종

(마음이란) 앞으로 보면 기점起點이 없고

뒤로는 종점도 없다네

只緣操捨分消長⁶⁾,
지緣조사분소장

다만 견지하고 포기함에 따라 흥성과
쇠퇴로 분리되나니,

山木人心理⁷⁾亦同.
산목인심리역동

산에 나무나 인심이나 다스리는 이치는
역시 동일하다네.

1) 영대(靈臺):

① 영지(靈智): 신령스럽고 기묘한 지혜): ‘정신이 있는 곳’이란 뜻으로, ‘마음(心)’을 이르는 말로서,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장자(莊子)·경상초편(庚桑楚篇)』에, “그것은 모두 하늘의 뜻으로, 인위적으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까닭에, 이미 양성해놓은 덕성(德性)을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마음에 담아둬서도 안 된다(皆天意也, 而非人也, 不足以滑成, 不可內於靈臺).”고 한 구절이 있다.

서진(西晉)의 학자 곽상(郭象: 대략 252~312)은 『장자주(莊子注)』에서, “영대(靈臺)라는 것은, 마음이다(靈臺者, 心也).”라고 하였다.

2) 일경(日鏡): ‘태양’을 가리킨다.

『위서(魏書), 팽성왕 협전(彭城王勰傳)』에, 북위(北魏) 효문제(孝文帝)가 심하게 질책하자, “팽성왕 협(勰: 473~508: 효문제의 이복동생: 선비족鮮卑族으로 원래 성명은 탁발협拓跋勰, 한족화漢族化한 성명은 원협元勰)이 울면서 말하기를: 신(臣)이 영화(榮華)를 혐오하고 권세를 방치해서가 아니고, 노고를 회피하거나 안일을 추구해서도 아니오니, 진실로 바라옵건대 폐하께서 태양 같은 광명이 되어, 우둔한 신이 터무니 없이 퇴출되는 재앙을 가련하게 여겨주십시오(勰泣曰: 臣非所以惡華損勢, 非所以辭勤請逸, 正希仰成陛下日鏡之明, 下念愚臣忘退之禍).”라고 하였다.

3) 절무사의묘난명(絶無思議妙難名: 결코 이해할 수 없고 오묘해서 형용하기도 어렵네):

① 사의(思議): 이해하다, 상상하다.

② 난명(難名): 말로 형용(거론, 표현)하기 어렵다.

4) 악장수응분강계(若將酬應分疆界: 만사에 대응하려면 마음의 경계境界 분명히 해야 하나):

① 수응(酬應): 대응하다.

② 분(分): 분명히 하다.

③ 강계(疆界):

☆경계(境界).

☆일반적으로 한계(限界)나 범위를 가리킨다.

5) 만계도성일혼융(萬界都城一混融: 만물의 세계가 모두 마음 하나에 융합되나니):

① 만계(萬界): 만사만물의 세계. 온갖 개념(범주). 이때의 계(界)자는 세계, 범주,

범위 등을 가리킨다.

- ② 일혼융(一混融): 섞이어 하나로 융화(융합)됨.
- 6) 지연조사분소장(只緣操捨分消長: 다만 견지하고 포기함에 따라 흥성과 쇠퇴로 분리되나니):
 - ① 연(緣): ~에 따라 혹은 ~ 때문에.
 - ② 조사(操捨): 조사(操捨)와 같은 말로서, 여기에서는 마음을 견지하거나, 포기하는 것을 가리킨다.
 - ③ 소장(消長): 흥성과 쇠퇴.
- 7) 이(理): 여기서 ‘이(理)’란, ‘치리(治理)’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곧 이치로써 사물이나 마음을 다스린다는 의미이다.

시98. 직무를 받고 감동하여

詩98. 感事¹⁾
감사



老去猶存報國心²⁾, 늙어가면서도 보국심報國心은 여전하여,
노 거 유 존 보 국 심

空山歲暮一悲吟³⁾. 세밑에 인적 드문 산속에서 줄곧 슬피
공 산 세 모 일 비 읊음 시가를 읊네.

衰年觸事多成感⁴⁾, 노쇠한 나이에 복직이 되어 얼마나
쇠 년 촉 사 다 성 감 감동했는지,

危涕無端忽滿襟⁵⁾. 무단히 흘린 눈물 홀연 옷깃을 흠뻑
위 체 무 단 홀 만 금 적시네.

1) 감사(感事):

- ① 사정(事情), 사무(事務), 세사(世事), 어떤 물체나 현상 등에 자극을 받다.
- ② 어떤 일로 감흥(感興)을 받다(느끼다). 본 시에서는 ‘직무를 받고 감동하다’는 뜻으로 쓰였음.

2) 노거유존보국심(老去猶存報國心 : 늙어가면서도 보국심報國心은 여전하여):

- ① 노거(老去): 사람이 점차 노쇠해감을 이룸.
- ② 유존(猶存): 아직 여전히 보존하고 있다. 앞의 ‘유(猶)’는 부사로 쓰여 ‘아직, 여전히’의 뜻이다.
- ③ 보국심(報國心): 나라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마음.

3) 공산세모일비음(空山歲暮一悲吟 : 세밑에 인적 드문 산속에서 줄곧 슬피 시가를 읊네):

- ① 공산(空山) : 유심(幽深 : 깊고 고요함)하여 인적이 드문 산골짜기.
 ② 세모(歲暮) : 세밑, 선달그믐께, 한 해가 끝날 무렵.
 ③ 일비음(一悲吟) : 줄곧 슬피 시가를 읊다.
 ☆일(一) : 부사로 쓰여, ‘줄곧, 시종(始終)’의 뜻으로 쓰였다.
 ☆비음(悲吟) : 슬피 시가를 읊다. 슬픈 시가.
- 4) 쇠년촉사다성감(衰年觸事多成感 : 노쇠한 나이에 복직이 되어 얼마나 감동했는지) :
 ① 쇠년(衰年) :
 ☆늙어서 쇠약할 때.
 ☆노년(老年).
 ② 촉사(觸事) : 어떤 직무를 담임함을 이룸.
 본 시에서는 ‘복직되다’는 뜻으로 쓰였음. 「서애연보(西厓年譜)」의 갑진년(甲辰年 : 1604) 조항을 보면, “3월에 복직되고, 부원군(府院君 : 왕비의 부친이나 정일품 공신에게 주던 작호)에 임명되자, 상소를 올려 사직하고, 이어 관직을 거두어 주실 것을 요청하였다(三月復職, 拜府院君, 上疏辭, 仍乞致仕).”는 대목이 있다. 본 시에서는 이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 5) 위체무단홀만금(危涕無端忽滿襟 : 무단히 흘린 눈물 홀연 옷깃을 흠뻑 적시네) :
 ① 위체(危涕) :
 ☆본 시에서는 ‘감동하여 흘린 눈물’의 뜻으로 쓰였음.
 ☆가슴 아파하며 눈물을 흘림. 슬퍼서 흐느껴 우는 것을 이룸.
 ② 무단(無端) :
 ☆두서(頭緒)가 없음.
 ☆시작과 끝이 없음.
 ☆아무 이유가(까닭이) 없음.

시99. 위소주韋蘇州의 시「백발을 탄식하며 嘆白髮」를 차운次韻하여

詩99. 次韋蘇州歎白髮¹⁾
차 위 소 주 탄 백 발



寒衾²⁾厭久臥,
한 금 엽 구 와

차가워진 방바닥에 이불 덮고 오래
누웠기 싫어서,

獨起秋齋³⁾曉。
독 기 추 재 효

가을서재에서 이른 아침부터 홀로
일어나 앉았네.

短髮不堪梳⁴⁾,
단 발 불 감 소

머리술이 성글어져 빗을 수도 없는데,

霜蓬颯相繞⁵⁾。
상 봉 삽 상 요

서리 맞은 싹 같은 백발 바람 불자
헝클어지네.

嬌兒⁶⁾指一笑,
교 아 지 일 소

응석동이 자식이 손가락질 하며
웃어대니,

今朝黑轉少。
금 조 흑 전 소

오늘 아침은 흑발 되어 젊어진
듯하구나.

1) 차위소주탄백발(次韋蘇州歎白髮 : 위소주韋蘇州의 시「백발을 탄식하며歎白髮」를 차운次韻하여) :

① 차(次): 차운(次韻): 보운(步韻): 남이 지은 시의 운자(韻字)를 따서 시를 짓는 것을 말한다. 혹은 화답(和答)하는 시에서 상대방의 시운(詩韻)에 맞추어 시를 짓는 것을 말한다.

② 위소주(韋蘇州): 위응물(韋應物): 위강주(韋江州): 위좌사(韋左司): ‘위응물(韋應物)’은 당대(唐代) 시인으로 ‘실제 성명’이고, 위소주(韋蘇州)를 비롯한 그 나머지는 성씨인 ‘위(韋)’자 뒤에 관명(官名) 또는 약칭(略稱)으로 쓰인 지명(地名)을 붙여 당시 세상 사람들이 ‘위응물’의 별호처럼 일컬은 세칭(世稱)이다.

☆위응물(韋應物: 737~792 혹은 793): 당대(唐代)의 시인. 경조부(京兆府) 만년현(萬年縣), 지금의 섬서성(陝西省) 서안시(西安市) 사람이다. 천보10년(天寶十年: 751)부터 천보 말년(755)까지 삼위랑(三衛郎: 황제 시위侍衛의 책임자로서 종4품입)으로 현종(玄宗)의 신변에서 경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늘 궁궐을 출입했으며, 황제를 수행하여 자주 궁 밖으로 유람을 하기도하였다. 안사의 난(安史亂: 당 현종 말엽인 755년에 안록산安祿山과 사사명史思明이 일으킨 반란)이 일어나고, 현종이 촉(蜀: 지금의 사천성四川省 성도成都 일대) 지방으로 도망을 치자, 그는 불운하게도 황제와 동행하지 못하고 실직하였다. 그 때부터 그는 뜻을 세우고 학문에 정진하였다.

광덕2년(廣德二年: 764) 전후에 낙양승(洛陽丞: 낙양현승洛陽縣丞: 낙양현령의 보좌관)을 역임했다. 후에 불법적으로 군리(軍吏)를 징계하였다 하여 관아(官衙)에 소송(訴訟)을 당하자 분김에 사직하고, 동성(東城) 동덕현(同德縣), 지금의 청해성(青海省) 마심현(瑪心縣) 동북에 위치한 정사(精舍)에서 한거(閑居)하였다.

대력10년(大曆十年: 775)에 경조부(京兆府: 지금의 섬서성陝西省 서안시西安市의 최고 관청)의 공조참군(功曹參軍: 공조功曹의 장長: 고과高課·제사·예악·학교·녹식祿食·의약·점술·상례喪禮 등 업무를 주관하는 정7품직임)을 역임했다. 대력13년(778)에 악현(鄂縣: 지금의 호북성湖北省 악주시鄂州市 서남)의 현령(縣令)을 역임했다.

건중2년(建中二年: 781)에 비부(比部: 상서성尙書省 소속의 업무기관 중의 하나)의 원외랑(員外郎: 호부戶部·예부禮部·병부兵部·형부刑部·공부工部 등 6부 기관에 각기 설치된 차관. 정무직(政務職) 아래 실무직의 책임 관료임. 장관인 시랑侍郎의 업무를 보좌함. 종6품상)에 발탁되어 장안(長安: 지금의 섬서성陝西省 서안시西安市)에서 유태진(劉太真: 생몰년 미상), 이담(李儋: 생졸년 미상), 길중부(吉中孚: 생몰년 미상), 창당(暢當: 생몰년 미상) 등 벗들과 교류하였다. 이듬해에 저주자사(滁州刺史: 저주滁州의 장관. 저주滁州은 지금의 안휘성安徽省 저주시滁州市임)가 되어 나갔다.

흥원 원년(興元 元年: 784) 겨울에 파직되고 빈곤함으로 인하여 장안(長安)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잠시 저주(滁州)의 서간(西間: 일명 상마하上馬河. 지금의 안휘성 저주시滁州市 서부)에서 거주하였다.

정원 원년(貞元 元年: 785) 강주자사(江州刺史: 강주江州의 장관. 강주江州은 지금의 강서성江西省, 구강시九江市, 덕안현德安縣, 팽택彭澤縣, 호구현湖口縣, 도창현都昌縣을 포괄한 지역을 이룸)을 역임했다. 정원 년(787) 조정(朝廷)에 들어와 좌사

낭중(左司郎中 : 상서좌승尙書左丞의 보좌관으로 상서도성尙書都省의 사무를 보조, 관장하는 정5품 상하 벼슬로, 정원은 1명. 이부吏部, 호부戶部, 예부禮部의 정무政務를 감독, 관리함)을 역임했다.

이듬해 소주자사(蘇州刺史 : 소주蘇州의 장관. 소주蘇州는 지금의 강소성江蘇省 소주시蘇州市)로 나가서, 고향(顧況 : 생몰년 미상), 진계(秦系 : 생몰년 미상), 맹교(孟郊 : 751~814), 구단(丘丹 : 생몰년 미상), 호연(皓然 : 생몰년 미상) 등 벗들과 시사(詩詞)를 화답(和答)하면서 왕래하였다. 정원 7년(貞元七年 : 791)에 퇴직하고 소주(蘇州)에 있는 영정사(永定寺)에 기거하였다.

위응물(韋應物)을 세칭(世稱) ‘위강주(韋江州)’라고도 하고, ‘위좌사(韋左司)’라고도 하며 ‘위소주(韋蘇州)’라고도 하였다.

위응물의 시 중에서 가장 사람들에게 많이 전승(傳誦)된 것은, 그의 산수전원시(山水田園詩)였다. 훗날 사람들은 그의 시가 전원산림(田園山林)의 고요한 정취를 소재로 한 작품이 많다 하여, 그를 동진(東晉)의 시인 도연명(陶淵明 : 365~427)과 병칭(并稱)하여 ‘도·위(陶韋)’라고도 하고, 당나라의 자연파 시인의 대표적 인물인 왕유(王維 : 701~761), 맹호연(孟浩然 : 689년 혹은 691~대략 740), 류종원(柳宗元 : 773~819) 등과 병칭하여 ‘왕·맹·위·류(王孟韋柳)’라고도 하여 그를 산수전원시파(山水田園詩派)로 분류하였다.

위응물의 시는 각종 시체(詩體)에서 모두 능했지만, 그의 시에서 성취도가 가장 높았던 것은 오언고시(五言古詩)였으니, 용어가 간결 소박하고, 풍격(風格)이 고요하고 의연하였다. 백거이(白居易 : 772~846)가 「원구(元九) : 779~831 : 원진원眞의 별칭)에게 보내는 글(與元九書)」에서 이르기를, “그의 오언시는 고상하고 속되지 않아서, 스스로 일가를 이룰 만한 체제(體裁)이다(其五言詩, 又高雅閑談, 自成一家之體).”고 하였다.

현재 전하는 그의 시집으로 『사부총간(四部叢刊)』에 사진판으로 보관된 것이 명(明)나라 때 출간된 『위강주(韋江州集)』와 청(淸)나라 때 출간된 『위소주시집(韋蘇州詩集)』, 그리고 중화민국 시대 때 사진본인 『위소주집(韋蘇州集)』 등이 있다.

- ③ 탄백발(歎白髮) : 탄백발(嘆白髮)로도 쓴다. 이것은 『위소주시집(韋蘇州詩集)』에 수록된 위응물(韋應物)이 지은 시의 시제(詩題)이다.
- 2) 한금(寒衾) : 차가운 이불. 본 시에서는 새벽녘이 되어서 온돌방이 식으면서 이불이 차가워진 상태를 표현한 말이다.
- 3) 추재(秋齋) : 가을날의 서재.
- 4) 단발불감소(短髮不堪梳 : 머리숱이 성글어져 빗을 수도 없는데) :
 - ① 단발(短髮) : 머리숱이 빠져서 성글어진 상태를 표현한 말.
☆단(短) : ‘짧다’는 의미에서 파생되어 ‘부족하다, 혹은 결핍되다’로 사용되었음.
 - ② 불감소(不堪梳) : 머리숱이 성글어져서 빗질하기가 어려움을 나타낸 말.
☆불감(不堪) : ~할 수 없다.
☆소(梳) : 빗질을 하다.
- 5) 상봉삽상요(霜蓬颯相繞 : 서리 맞은 쭉 같은 백발 바람 불자 형글어지네) :
 - ① 상봉(霜蓬) :
☆서리를 맞아 생기를 잃은 쭉.

☆흩어진 백발(白髮)을 비유한 말.

☆서리같이 센 백발을 이르는 말.

② 샓(颯) :

☆의성어로서 쇠췌, 쇠췌(바람이나 빗소리) 불어오는 바람소리.

☆바람이 불다.

③ 상요(相繞) : 머리카락이 향클어지다.

6) 교아(嬌兒) :

① 애자(愛子). 사랑하는 자식 딸에 대한 애칭으로 쓰기도 함.

② 응석둥이, 응석받이.

시100. 금년의 절후가 끝나갈 무렵, 산중에서
시월 달에 마침 국화가 눈에 띄어
느낀 바가 있어서

詩100. 今年節晚¹⁾ 山中十月 始²⁾見菊有感
금 년 절 만 산 중 시 월 시 전 국 유 감



十月天時已向闌³⁾,
십 월 천 시 이 향 란

시월의 절후도 이미 끝나가는 무렵
되자,

數叢殘菊不勝寒⁴⁾。
수 종 잔 국 불 승 한

몇 떨기 남은 국화마저 한기寒氣를
감당하지 못하네.

高風淅淅凋黃葉⁵⁾,
고 풍 절 절 조 황 엽

추풍 불자 점점 누렇게 시든 잎도
지는데,

落日微微下翠巒⁶⁾。
낙 일 미 미 하 취 란

석양도 뉘엿뉘엿 푸른 산등성 아래로
넘어가네.

衣食亂心妨靜業⁷⁾,
의 식 난 심 방 정 업

의식衣食 문제로 심란하면 선업善業
수행에 방해 되는데,

溪山隨分占清懽⁸⁾。
계 산 수 분 점 청 환

시냇물과 산은 자기 본성 따라
청아淸雅한 낙을 품고 있네.

男兒宇宙無窮事⁹⁾,
남 아 우 주 무 궁 사

대장부라면 천하에 막힐 일이 없다지만,

時對陳編獨赧顏¹⁰⁾。
시 대 진 편 독 란 안

이따금 고서古書 대하면 여전히 얼굴이
붉어지네.

1) 금녀절만 산중시월(今年節晩 山中十月 : 금년의 절후가 끝나갈 무렵, 산중에서 시월달에) :

- ① 절(節) : 여기서 ‘절(節)’은 절후(節候) 혹은 절기(節氣)를 가리키는 것이다. 음력에서는 한 해를 스물넷으로 나누어, 계절의 표준으로 삼고 있다. 24절기의 내용을 보면, 겨울절기는 음력 10월·11월·12월 석 달을 칭하며, 시제(詩題)에서 ‘산중시월(山中十月)’이라는 표현으로 미루어 보아, 본 시제에서 말하는 절기는 음력 10월 22일에서 23일에 안배되어 있는 ‘소설(小雪)’을 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 ② 만(晩) : 소설(小雪)이 음력 10.22~10.23일 경에 있으므로, ‘만(晩)’을 쓴 것으로 보인다.

2) 시(始) : 무사로 쓰여, ‘마침’이라는 뜻이다.

3) 시월천시이향란(十月天時已向闌 : 시월의 절후도 이미 끝나가는 무렵 되자) :

- ① 시월천시(十月天時) : 시월 절후, 곧 음력 10월 달의 절기를 칭하는 것이다. 음력 10월 달은 24개의 절후 중, 10.7~10.8의 입동(立冬) 절기와 10.22~10.23의 소설(小雪) 절기, 2개가 들어 있다.
- ☆천시(天時) : 절기(節氣) 곧 24절기(二十四節氣)를 의미한다. 위의 주석1)을 참조 바람.
- ☆향란(向闌) : 곧 다 끝나가다.

4) 수충잔국불승환(數叢殘菊不勝寒 : 몇 떨기 남은 국화마저 한기寒氣를 감당하지 못하네) :

- ① 충(叢) : ☆떨기(더부룩하게 난 풀이나 뽕뽕하게 선 나무). ☆(사람이나 물건의) 무리, 떼, 무더기.
- ② 잔국(殘菊) : ☆늦가을까지 피어남아 있는 국화. ☆서리를 맞아 상한 국화.
- ③ 불승(不勝) : ~을 참을 수 없다. 견디지 못하다.

5) 고풍절절조황엽(高風淅淅凋黃葉 : 추풍 불자 점점 누렇게 시든 잎도 지는데) :

- ① 고풍(高風) : 추풍(秋風) 또는 세찬 바람을 가리킨다.
- ② 절절(淅淅) : 점차, 점점, 차츰차츰, 차차.

**서애주석(西厓注釋) :

서애는 “절절(淅淅)은 점점(漸漸)으로도 쓴다(淅淅一作漸漸*).”라고 하였다. 『집운(集韻 : 송대의 음운서宋代音韻書)』에 의하면, “절(淅)은 점(漸)으로도 쓴다(淅, 或作漸)”고 하였다. 또 『수경(水經 : 북위北魏의 역도원(酈都元 : 대략 470~527년)이 지은 중국 지리책)』에서는, “점강(漸江)은 곧 절강(浙江)이다(漸江, 卽浙江也)”고 하였다. 『강희자전(康熙字典)』에서는 “점(漸)의 음은 ‘절(折)’로도

쓰고 ‘절(浙)’과 같다”고 하였다.

③ 황엽(黃葉): 초목이 말라서(시들어서) 누렇게 된 나뭇잎.

6) 낙일미미하취만(落日微微下翠巒): 석양도 뉘엿뉘엿 푸른 산등성 아래로 넘어가네):

① 낙일(落日): 석양, 지는 해, 낙조(落照: 저녁에 지는 햇빛).

② 미미(微微): 경미(輕微)하다. 조금, 약간, 다소, 좀. 본 시에서는 ‘지는 해가 산 너머로’ 조금씩 넘어가는 모양의 ‘뉘엿뉘엿’의 뜻으로 쓰였음.

③ 취만(翠巒): 푸른 산봉우리, 파란 산언덕, 푸른 산등성.

☆취(翠): 푸르다, 비취색.

☆만(巒): 산등성이. 빙 둘러싼 산, 낮은 산언덕.

7) 의식난심방정업(衣食亂心妨靜業: 의식衣食문제로 심란하면 선업善業수행에 방해 되는데):

① 의식(衣食): 의복과 음식, 인간생활을 위한 기본 요소를 이르는 말. 생계(생활)문제를 이르는 말로도 쓴다.

② 난심(亂心):

☆심사(心思)가 편치 못함을 이룸.

☆마음이 혼란스러움을 말하는 것으로, 곧 심란(心亂)함을 이르는 것이다.

③ 정업(靜業): 청정(淸淨)한 선업(善業). 정토(淨土: 번뇌를 지우고 깨달음의 경지에 든 부처나 보살이 사는 청정한 세계)에 왕생(往生: 다시 태어남)할 수 있는 업인(業因: 고락의 보답을 받는 원인이 되는 선악의 행위)을 이르는 말이다. 깨끗한 행동, 선한 행동. 염불(念佛: 부처님의 공덕이나 상(相)을 마음에 떠올림)을 이르는 말로 선(善)의 뜻이다.

☆정(靜): 선(善)의 뜻.

☆업(業): 인간이 하는 행동. 입(口), 몸(身), 뜻(意)의 세 가지, 즉 삼업(三業)으로 이루어지는 일체의 행동과 생각을 이른다.

8) 계산수분점청환(溪山隨分占淸懽: 시냇물과 산은 자기 본성 따라 청아淸雅한 낙을 품고 있네)

① 수분(隨分): 본성에 의거하여, 본분에 따라서.

② 점청환(占淸懽):

☆점(占): (어떤 위치, 상황에)처하다, 차지하다.

☆청환(淸懽): 청환(淸歡): 청아(淸雅)하고 염정(恬靜: 평온하고 조용함)한 낙(樂). 맑고 평온한 기쁨.

9) 남아우주무궁사(男兒宇宙無窮事: 대장부라면 천하에 막힐 일이 없다지만):

① 우주(宇宙): 천지 혹은 천하.

② 궁사(窮事): 부득의(不得意: 뜻을 이루지 못함. 마음대로 되지 않음)한 일.

☆궁(窮): 부득지(不得志: 뜻을 이루지 못한. 마음대로 되지 않음)함을 가리킨다.

10) 시대진편독난안(時對陳編獨難顏: 이따금 고서古書 대하면 여전히 얼굴이 붉어지네):

① 시(時): 이따금, 자주.

② 진편(陳編): 고적(古籍)이나 고서(古書)를 가리킨다.

당대(唐代)의 문인, 한유(韓愈)의 해문(解文)인 「진학해(進學解)」에서, “평범한 박사의 직무[常途]를 실천하는데도 힘에 겨워서 찢절매며[役役], 옛 책[陳編]이

나 뒤적여 보고 남의 글을 훔쳐내어 내 것인 양 할 뿐이다[盜竊](踵常途之役
役. 窺陳編以盜竊).”라고 하였다.

☆진(陳): ‘구(舊: 옛것. 오래 된 것)’의 뜻.

☆편(編): ‘서적’을 나타냄.

③ 독(獨): 부사로 쓰여, ‘유독(唯獨), 단지, 여전히’의 뜻이다.

④ 난안(赧顏):

☆부끄러워하여 얼굴을 붉히다. 부끄러워서 얼굴이 홍조가 되다.

☆부끄럽다. 송구스럽다.

시101. 경임_{景任} 이보_{李輔}에게 부치다

詩101. 寄李景任輔¹⁾
기 이 경 임 보



又見黃花²⁾發,
우 견 황 화 발

또다시 국화꽃 핀 모습이 보이는데,

窮村臥病餘³⁾。
궁 촌 와 병 여

궁벽한 촌락에서 와병臥病한 지
오래됐네.

翁年近七十,
옹 년 근 칠 십

이 늙은이 나이가 근 일흔 살이라,

世事飽乘除⁴⁾。
세 사 포 승 제

세상사의 흥망성쇠 충분히 겪었네.

雲樹三年隔⁵⁾,
운 수 삼 년 격

구름과 수목의 거리만큼 멀리 떨어진
채 삼년이 흘러,

風霜⁶⁾十月初。
풍 상 십 월 초

서리바람 몰아치는 시월 초가 되었네.

相思⁷⁾不相見,
상 사 불 상 견

서로 그리면서도 만나지 못하여,

南望涕漣如⁸⁾。
남 망 체 연 여

남쪽을 바라보다 눈물 흘리면서 울었네.

1) 이경임보(李景任輔): 경임(景任) 이보(李輔): 이렇게 성씨 다음에 자(字)나 호(號)

또는 직함을 쓰고, 본명을 뒤로 쓰거나 아예 쓰지 않는 것은 경칭(敬稱)의 한 예이다.

- ① 이보(李輔: 1545~1608): 성리학자 진(軫)의 아우. 군위(軍威: 지금의 경북 군위군 軍威郡)에 살면서 서에(西厓) 류성룡(柳成龍: 1542~1607)으로부터 학문을 전수 받아 경전(經典)과 성리(性理)에 밝았다.

1580년 사마시(司馬試: 소과小科: 생원生員과 진사進士를 뽑던 과거科擧)에 합격하였고,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장 김해(金垓: 1555~1593)의 종사관(從事官)으로 크게 활약하였다.

전란으로 피폐해진 인동(仁洞: 지금의 경북 구미시龜尾市 인동동仁洞洞)을 임시로 맡아 다스리면서 모곡관(募粟官)을 겸하여 군량미 조달에 공이 많았다. 뒤에 김응남(金應南: 1546~1598)과 정곤수(鄭崑壽: 1538~1602) 등의 천거로 당진 현감(唐津縣監: 당진唐津은 지금 충남 당진군)에 임명되었으나, 인동 주민들의 요청에 의하여 인동현감(仁洞縣監)으로 부임하였으며, 선정(善政)을 베풀어 크게 명망이 있었다. 체찰사(體察使: 조선 시대에 지방에 군란軍亂이 있을 때, 임금을 대신하여 그 곳에 가서 일반 군무를 맡아 보던 임시 벼슬. 보통 재상이 겸임하였음) 이원익(李元翼: 1547~1634)이 천생산성(天生山城: 천연 암벽의 사이를 할석割石으로 이어 쌓은 성곽임. 소재지는 경북 구미시 장천면 신장리 산 42-2, 경북 기념물 제12호이며, 둘레가 1km이상으로 면적은 61,874㎡)을 쌓을 때, 그 역사(役事)를 책임 맡아 수개월 만에 준공을 보았으며, 1604년 거창현감(居昌縣監: 거창居昌은 지금의 경남 거창군)으로 전직되었으나 노쇠하여 관직에서 물러났다.

- 2) 황화(黃花): 황화(黃華)로도 쓴다. 여기서는 국화를 가리킨다.
- 3) 궁촌외병여(窮村臥病餘: 궁벽한 촌락에서 외병臥病한지 오래 됐네):
 - ① 궁촌(窮村): 가난한(궁벽한) 촌락, 벽촌(僻村).
 - ② 외병여(臥病餘): 병으로 앓아누운 지 오래되다. 외병한 지 오래되다.
☆외병(臥病): 병으로 자리에 눕다. 앓아눕다. 병을 앓고 있다.
☆여(餘): 장구(長久)하다. 오래 되다.
- 4) 세사포승제(世事飽乘除: 세상사에 흥망성쇠 충분히 겪었네):
 - ① 세사(世事): 시사(時事) 또는 세상사(世上事)를 가리킨다.
 - ② 포(飽): 충족하다, 충분하다.
 - ③ 승제(乘除): 인간사(人間事)의 흥망성쇠를 비유한 말.
- 5) 운수삼년격(雲樹三年隔: 구름과 수목의 거리만큼 멀리 떨어진 채 삼년이 흘러):
 - ① 운수(雲樹):
☆구름과 수목(樹木).
☆벗이 오랫동안 이별한 채 (구름과 수목의 거리만큼이나) 멀리 떨어져있음을 비유한 말이다.
당나라 시인 백거이(白居易: 772~846)의 시 「초봄에 서호에서 노닐다가 서글픈 생각이 들어 미지(微之) 원진(元稹: 779~831)에게 부치면서(早春西湖閑遊悵然興懷寄微之)」에서, “오랫동안 이별한 채 세 역참(驛站)이나 떨어져 있는데, 연무끼니 언덕에 가로막힌 것 같으니(雲樹分三驛, 煙波限一津). 건너뛰면 한 걸음에 불과한 거리인데, 서신으로 장황하게 쓰자니 번거롭네(翻嗟寸步隔, 卻厭尺書頻).”라고 읊었다.
 - ② 격(隔):

☆이별하다. 간격을 두다.

☆시간상으로나 공간적으로 사이가 틈을 이르는 말.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음.

6) 풍상(風霜) :

① 바람과 서리.

② 모진 시련과 어려움, 고난, 고초를 비유한 말.

③ 변천하는 세월을 비유한 말.

7) 상사(相思) : 서로 그리워하다. 사모하다.

8) 체연여(涕漣如) : 연여(漣洳)로도 쓴다. 눈물을 흘리며 울다.

① 체(涕) : 울다. 눈물.

② 연여(漣如) : 눈물을 흘리는 모양.



시102. 동짓달 초하룻날 밤, 우연히 단경^{丹經}을
보다가, 시를 지어 아들 진아^{珍兒}를
훈계하면서

詩102. 至月¹⁾初一日夜 偶看丹經²⁾書示珍兒³⁾
지 월 초 일 일 야 우 간 단 경 서 시 진 아

千端萬緒終歸一,⁴⁾
천 단 만 서 종 귀 일

만사만물 번잡해도 결국은 이치로
귀결되나니,

說到窮時一亦無⁵⁾。
설 도 궁 시 일 역 무

경우에 맞지 않는 헛말 할 때는
그 이치 또한 없어진다.

終日不違惟默默⁶⁾，
종 일 불 위 유 묵 묵

하루라도 사리 거스르지 말고 묵묵히
견디면서,

任他人世笑如愚⁷⁾。
임 타 인 세 소 여 우

타인과 세상사 받아들여 미소 지으며
둔후^{敦厚}한 사람 되라.

1) 지월(至月): 음력으로 열한 번 째 달을 칭한 것이다. 또는 ‘동짓달이나 하짓날[至日]을 두루 이르는 말이 들어있는 달’이라 해서 일컬어진 말이기도 하다.

중국에서는 음력을 쓸 때는 하력(夏曆: 하대夏代에 창시된 역법曆法이라고 해서 일컬어진 이름. 음력陰曆을 이름)으로 매월의 별칭을 쓰는데, 음력 11월을 통상적으로 ‘고월(辜月)·동월(冬月)·중동(仲冬)·중동(中冬)·창월(暢月)·가월(葭月)·용잠월(龍潛月)’ 등으로 쓴다.

『이아(爾雅: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자전字典), 석천편(釋天篇)』에서, “11월을 고(辜)라

고 한다(十一月爲辜)”라고 하였다. 이렇게 월명(月名)을 고월(辜月)이라고 호칭하는 것은 ‘묵은 것은 버리고 새 것을 창조하다(革故取新)’의 뜻이며, ‘낡고 좋지 않은 것을 버리고 새롭고 좋은 것을 받아들인다(吐故納新)’는 뜻이다. 겨울이 시작되는 달이라서 ‘동월(冬月)’이라 하였는데, 이 동월(冬月)에도 갈대는 꽃이 피어 있다 하여 ‘가월(葭月)’이라고도 하였다. ‘창월(暢月)’을 11월로 명칭한 근거는 『예기(禮記)·월령편(月令篇)·11월조항(仲冬之月)』의 주석(注釋)에 있다. ‘창(暢)’은 ‘충(充: 충실하다)’는 뜻으로, 이 달이 되면 만물은 그 내면에 충실함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일컬어진 말이라고 한다.

- 2) 단경(丹經): 도교(道敎)에서 이른바 연단술(煉丹術)을 익히고 신선이 되는 도(道)를 탐구하면서, 심신을 수련하는 것을 ‘단도(丹道)’라 하고, 그 단도(丹道)를 수련하는 내용으로 기록된 각종 경전(經典)을 ‘단경(丹經)’이라고 한다. 대표적인 단경(丹經)으로 춘추시대(春秋時代)의 사상가 노자(老子: 생몰년 미상)의 『도덕경(道德經)』과 북위(北魏)의 사상가 구겸지(寇謙之: 363~448)의 『음부경(陰符經)』, 그리고 후한(後漢)의 사상가 위백양(魏伯陽: 생몰년 미상)의 『주역참동계(周易參同契)』 및 북송(北宋)의 도사 장자양(張紫陽: 984~1082, 호는 자양紫陽, 자는 평숙平叔, 이름은 백단伯端)이 저술한 『오진편(悟真篇)』 등이 있다.

수련방법 및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시15」의 주석29)를 참조 바람.

- 3) 서시진아(書示診兒): 시를 지어 훈계하다.

- ① 서시(書示): 시를 지어 훈계하다.

☆서(書): 기록하다. 문건(文件), 서신 등의 뜻이나, 전(轉)하여 본 시에서는 ‘시를 짓다’는 뜻으로 쓰였음.

☆시(示): 훈계하다. 교도(敎導)하다.

- ② 진아(診兒): 류진(柳珍):

☆류진(柳珍: 1582~1635):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풍산(豐山), 자는 계화(季華), 호는 수암(修巖),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의 셋째 아들. 임진왜란 뒤 아버지에게서 글을 배우고 1610년 사마시(司馬試: 소과(小科: 생원生員과 진사進士를 뽑던 과거)에 합격했으나, 1612년, 해서 지방(海西地方: 황해도 지방)에서 김직재(金直哉: ?~1612)의 무옥(誣獄)이 일어났을 때에 무고(誣告)를 당하여 5개월간 옥고(獄苦)를 치렀다. 1616년에 유일(遺逸: 초야에 묻혀있는 선비로서 학식과 인품을 갖추고 있으면서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경우, 이들을 과거시험 없이 발탁하는 인재등용 방법임)로 천거되어 세자의위사 세마(世子翊衛司洗馬: 조선시대 왕세자 호위 임무를 맡아보던 서반西班의 관청에서 근무하던 정9품 관직)에 제수(除授)되었으나 사양하였다. 1623년 인조반정(仁祖反正: 광해군光海君 15년 인 1623년에 이귀(李貴: 1557~1632), 김류(金鑣: 1571~1648) 등 서인西人 일파가 광해군 및 집권파인 대북파大北派를 몰아내고 능양군綾陽君인 인조를 즉위시킨 정변) 뒤, 다시 학행(學行: 학문과 덕행)으로 천거되어 봉화현감(奉化縣監)이 되었다. 수령으로 있으면서 전묘(田畝: 밭의 면적)와 부세(賦稅: 부과되는 세금)를 바로잡았다. 이듬해 형조정랑(刑曹正郎: 형조의 정5품 관직. 중견 실무책임자임)이 되었는데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원옥(冤獄)을 해결하여 판서(判書) 이서(李曙: 1580~1637)의 경탄을 샀다.

1627년 청도 군수(淸道郡守)가 되었다가 이듬해 수포장인(收布匠人: 조선시대

에 양민良民으로부터 군역軍役을 면제해주는 대가로 거두어들인 보포保布나, 신역身役 대신에 바치던 무명이나 배라는 의미의 신포身布의 업무 담당자)에 대한 보고에 허위가 있다하여 파직 당하였다.

1634년 지평(持平 : 사헌부司憲府의 정5품 관직)으로 있을 때 장령(掌令 : 사헌부의 정4품 관직) 강학년(姜鶴年 : 1585~1647)이 당시 서인정권(西人政權 : 심의겸〈沈義謙 : 1535~1587〉을 중심으로 한 당파로서, 김효원〈金孝元 : 1532~1590〉과 류성룡〈柳成龍 : 1542~1607〉을 중심으로 한 동인東人에 대립한 당파)의 정책을 크게 비판하여 심한 논란이 일어났는데, 이 때 그를 두둔하여 대간(臺諫 : 감찰의 임무를 맡은 대관臺官과 국왕에 대한 간쟁諫爭의 임무를 맡은 간관諫官의 합칭)들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고관대작을 역임하지는 않았지만 세신(世臣 : 대대로 나라로부터 녹봉을 받는 신하)의 후예답게 깨끗하고 성실하게 생애를 보냈다. 이조참판(吏曹參判 : 이조의 종2품 관직, 판서判書의 차위직)에 추증되었으며 안동(安東) 병산서원(屏山書院)에 제향(祭享)되었다. 저서로는 『수암집(修巖集)』이 전한다.

4) 천단만서종귀일(千端萬緒終歸一 : 만사만물 번잡해도 결국은 이치로 귀결되나니) :

① 천단만서(千端萬緒) : 천서만단(千緒萬端) :

☆사물이 번잡하고 사정이 복잡하다.

☆수없이 많은 일의 갈피.

② 종귀일(終歸一) : 결국은 도(道 : 이치)에 귀결된다.

☆종(終) : 부사로서, ‘결국, 끝내, 마침내.’ 뜻이다.

☆귀일(歸一) : 이치로 귀결되다.

a. 귀(歸) : 귀결되다.

b. 일(一) : 여기서의 ‘일(一)’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성리학적 측면〉

성리학에서 말하는 ‘이일분수(理一分殊)’적 사유형식으로 말하면, 여기서 ‘이일(理一)’에서의 ‘이(理)’란 만물의 본체인 태극(太極)을 의미하고, ‘분수(分殊)’의 ‘이(理)’는 만물의 개별체가 구비하고 있는 이치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성리학에서는 바로 만물의 본체인 이 태극이 혼연(渾然)한 본체인 까닭에 그 가운데 만 가지 이치(萬理)가 구비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만물의 개별적인 이[分殊의 理]는 ‘만물의 본체가 되는 태극의 이치가 현상화한 이(理)라는 것이다. 여기서 형이상(形而上)의 차원인 만물의 본체로서의 ‘이일(理一)’을 천도(天道)의 입장에서 만물을 생육(生育)하게 하는 원·형·이·정(元亨利貞)의 사덕(四德)을 지니고 있고, 이것이 사람에게서는 사람을 낳는 인·의·예·지(仁義禮智)의 사덕(四德)이 내포되어 있어서, 만물의 본체가 되는 이(理)는 순선무악(純善無惡)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비록 개별리(個別理)인 분수(分殊)의 이(理)는 만물의 수효만큼 많아서 복잡다단하지만, 결국은 그 안에 이러한 순선(純善)한 본체[이(理)]를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모두 순수한 본연의 모습인 ‘이일(理一)’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의 시는 이와 같이 성선(性善)의 입장에서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파악한다.

〈도가적 측면〉

중국고대 사상가들이 우주만물의 원시상태를 찾는 것으로, ‘도(道)’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도(道)에서 하나의 기[一氣]가 생성되는데, 그 ‘일기(一氣)’는 이름도 모양도 없는 만물이 생성되기 이전의 ‘이치[理]’이므로 역자는 본 시의 내용에 따라 ‘일(一)’을 ‘이치’로 번역한다

『노자(老子) · 42장(四十二章)』에, “만물이 화생(化生 : 변화, 생성함)하는 원리인 도는 하나의 기(氣)를 낳고, 여기서 생성된 기가 분화해서 음양2기(陰陽二氣)를 낳고, 음양2기가 교합(交合)하여 화기(和氣 : 음양2기가 결합하여 생성된 기. 그것을 ‘삼기’으로 표현하였음)를 낳고, 이 화기가 부단히 교합하여 만물이 번성한다(道生一, 一生二, 二生三, 三生萬物)”고 하였다.

또한 『장자(莊子) · 천지편(天地篇)』에, “모든 만물의 최초[즉, 도(道)]는 오로지 무(無)이다. 그것은 존재하지 않음으로 어떤 것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도 없는데, 그것에서 하나의 시초[즉, 이치(理)]가 시작된다. 그 하나의 시초는 아직 어떠한 형체[形]를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사물은 시초가 있어야 생성되는데, 그 하나의 시초를 ‘덕(德)’이라고 한다(太初有無. 無有無名, 一之所起. 有一而未形, 物得以生, 謂之德).”고 하였다.

5) 설도궁시일역무(說到窮時一亦無) :

- ① 설도(說到) : 여기서 ‘설도(說到)’의 ‘도(到)’는 ‘설(說)’의 결과가 어떤 목적의 달성이나 어떤 지점에서의 도달을 나타내는 보충어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a. 언급하다, 말하다.

② 궁시(窮時) :

☆궁(窮) : 사리에 닿지 않아서 공허하거나 헛된 것을 가리킨다.

『장자(莊子) · 외편(外篇) · 지북유편(知北遊篇)』에, “도(道)란 물을 수도 없는 것이며, 대답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물을 수 없는 것을 묻는 것은 헛된 물음입니다(道無問, 問無應. 無問問之, 是問窮也)”라고 하였다.

이 문장에 서진(西晉)의 학자 곽상(郭象 : 약 252~312)이 주석하기를, “헛된 말을 질책한 것이다(所謂責空)”고 하였다.

여기에 당나라 도사 성현영(成玄英 : 생몰년 미상)이 소(疏 : 더 상세한 주해注解)를 달아 말하기를, “궁(窮)의 뜻은 ‘헛된 것[空]’이란 뜻이다. 이치상 묻지 않아야 할 것을 굳이 묻은 사람을 상대하여, 헛된 말을 질책한 것이다(窮, 空也. 理無可問而強問之, 是責空也)”고 하였다.

③ 설도궁시일역무(說到窮時一亦無) :

본 구절을 성리학의 입장에서 보면, 말하는 것이 사리(事理)가 막힐 때는 말하는 사람의 순선무악(純善無惡)한 본성이 인욕(人欲)에 장애를 받아 도심(道心)이 사라지기 때문임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6) 종일불위유묵묵(終日不違惟默默 : 하루라도 사리 거스르지 말고 묵묵히 건디면서) :

① 종일불위(終日不違) :

☆종일(終日) :

a. 하루라도(하루 동안)

b. 한참동안, 오랫동안, 얼마동안.

☆불위(不違) :

a. (사리를) 거스르지 않다.

② 묵묵(默默) :

☆함구(緘口)하고 말하지 않다.

☆묵묵하게 건디다, 침묵하다.

7) 임타인세소여우(任他人世笑如愚 : 타인과 세상사 받아들여 미소 지으며 돈후敦厚한 사람 되라) :

① 임타인세(任他人世) :

☆임(任) :

a. 받아들이다.

b. 감내하다.

c. 수용하다.

☆타인세(他人世) : 타인과 세상사.

② 소여우(笑如愚) : 미소 지으며 돈후(敦厚 : 인정이 두텁고 후함)하다.

☆소(笑) : 웃다.

☆여(如) : 승접(承接) 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로서, ‘~면서[而]’의 뜻으로 쓰였다. 『시경(詩經)·소아(小雅)·거공(車攻)』에, “말을 달리는데 규칙을 어기지 않으면서, 화살을 쏘면 바로 짐승에게 적중한다(不失其馳, 舍矢如破)”고 하였다.

☆우(愚) : 돈후(敦厚)하다(돈후하게 행동하다), 우직(愚直)하다, 고지식하다.



「서애연보西厓年譜」 초록抄錄

[하회본河回本 『서애전서西厓全書』 간본편刊本篇 본집本集 권1·2에서

작시연도作詩年度가 명기明記된 작품은 병기併記함]

1542(중종中宗 37. 임인壬寅)년

10월 1일 경상도 의성현義城縣 사촌리沙村里 외가에서 황해도관찰사黃海道觀察使 류중영柳仲郢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다.

1554(명종明宗 9. 갑인甲寅)년 13세

동학東學¹⁾에서 『중용中庸』·『대학大學』을 강독하다.

강관講官은 크게 칭찬하면서, “반드시 큰 학자가 될 것이다(必成大儒)”라고 하다.

1557(명종明宗 12. 정사丁巳)년 16세

향시鄉試에 합격하다.

1558(명종明宗 13. 무오戊午)년 17세

광평대군(廣平大君 : 세종대왕 아들) 5세손 이경李珣의 딸과 결혼하다.

1560(명종明宗 15. 경신庚申)년 19세

부친의 사택私宅에서 부친 관찰공을 모시고 있다가 가을에 서울로 돌아오다.
여러 친우들과 남계南溪에 놀러 가서 수석水石을 둘러보고, 시를 읊고 탄식하다.
“내가 성인聖人の 문하門下에서 놀게 되었다면(使我得遊聖門), 단목씨(역자주 : 단목씨段木氏 공자 제자인 자공子貢의 성씨)만큼은 배울 수 있었을 것이다(端木氏

1) 사학(四學) 중의 하나이다. 조선 중종 때 서울의 동서남북에 학교를 세워 사대부의 자제를 교육시키던 학교이다.

之徒可學而至)”라고 하였다.

10월, 관악산에 들어가서 『맹자孟子』를 읽다.

1561(명종明宗 16. 신유辛酉)년 20세

고향에 돌아와서 『춘추春秋』를 읽다.

1562(명종明宗 17. 임술壬戌)년 21세

안동安東 도산陶山에서 퇴계退溪 선생으로부터 『근사록近思錄』을 배움. 퇴계는 “이 젊은이는 하늘이 내린 사람이다(此人天所生也)”라고 하여 선생이 장차 대성할 인물임을 예언하다.

7월 기망(既望 : 음력 매달 16일)에 부친 관찰공이 소동파蘇東坡의 적벽강赤壁江 놀이를 주제로 시를 짓게 하자 선생은 즉시 근체시近體詩로 “달 밝고 바람 맑은 창공은 옛날부터 있어왔건만(月白風淸空萬古), 이름만 남겨 두고 사람이 떠나간 지 몇 천 년이나 되었는가(名留人去幾千年).”라고 짓다.

9월 도산陶山에 가서 퇴계선생을 뵙고, 수개월을 머물면서 『근사록近思錄』 등을 수업하다.

이때부터 성리학性理學에 전념하며 실천적인 것을 강구하여 성현으로 지표를 삼아, 퇴계의 칭찬을 받다.

금계金溪에 있는 학봉鶴峯 김성일金誠一을 찾아가다. 학봉은 선생에게, “우리 들은 퇴계 선생을 모신 지 오래되었으나, 한 말씀도 칭찬받은 일이 없었는데 공은 선생을 한 번 뵈었는데도 선생이 바로 ‘이 사람은 하늘이 낸 사람으로, 훗날 반드시 큰일을 할 것이다’라고 하셨으니, 공은 어떻게 스승에게서 이러한 칭찬을 받게 되었소?”라고 하다.

1563(명종明宗 18. 계해癸亥)년 22세

생원 生員 진사 동당초시東堂初試에 합격하다.

1564(명종明宗 19. 갑자甲子)년 23세

생원生員 회시會試²⁾에 1등, 진사進士에 3등을 하다.

2) 초시에 급제한 자가 서울에 모여 다시 보는 시험이다.

퇴계선생이 남에게 준 편지에, “이현(而見 : 류성룡의 자字)은 빨리 달리는 수레로 앞에서 길을 인도하여 나가는 듯하니(而見逸駕啓途), 그 사람 형제의 지향志向하는 바가 매우 가상하다(其人兄弟趣向甚嘉).”라고 하다.
황해도에 있는 부친(관찰공)을 가서 뵈다.

1565(명종明宗 20. 을축乙丑)년 24세

태학太學에 들어가다. 문정왕후文定王后(중조中宗의 비妃)가 불심佛心이 깊어 보우普雨가 왕비를 위해 무차회無遮會³⁾를 한 달이 넘도록 열었는데, 왕후가 곧 죽게 되자 세간에서는 보우가 무리하게 여러 날 재齋를 올리길 요구한 때문에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다고 분개하다. 이때, 태학생들도 이에 공감하고 보우를 죽이지는 상소문을 올렸는데 선생의 손에서 나온 것이 많았다. 그러나 태학생들의 주소奏疏가 수용되지 않자, 그들은 “감히 학관에 먼저 들어가는지는 당적아세黨賊阿世⁴⁾하는 놈으로 지목한다.”고 약속하였는데 선생은 “우리가 임금에게 간하다가 받아 주지 않기 때문에 물러서는 건데, 다른 이름을 붙일 게 없어서 굳이 ‘당적아세’라고 하는가?”라고 하며 반대하다. 선생은 태학생들의 반발에도 굽히지 않고, 이를 ‘점신오명玷身汚名⁵⁾’이란 낙자로 바꾸다.

1566(명종明宗 21. 병인丙寅)년 25세

문과에 응시, 병과丙科⁶⁾에 합격. 승문원承文院 권지부정자權知副正字로 임명되다.

봄에 정주定州 목사牧使로 부임하는 부친 관찰공觀察公을 모시고 갔다가 여름에 귀가하다.

-
- 3) 무차대회(無遮大會)라고도 한다. 이의 뜻은 성범(聖凡) · 도속(道俗) · 귀천 · 상하의 구별 없이 일체 평등으로 재시(財施)와 법시(法施)를 행하는 대법회를 말하는 것이다.
 - 4) 당적아세(黨賊阿世) : ‘적의 편이 되고 세태에 아부하다’는 뜻이다.
 - 5) 점신오명(玷身汚名) : ‘몸에 흠집을 내고 이름을 더럽히다’는 뜻이다.
 - 6) 병과(丙科) : 조선 시대에, 과거 합격자를 성적에 따라 나누던 세 등급 가운데 셋째 등급. 문과(文科)에서는 23명, 무과(武科)에서는 20명을 뽑아 정9품의 품계를 주었으며, 성균관 · 승문원 · 교서관의 임시직인 권지(權知)에 임명하였다.
고려 숙종 이후에 제술과(製述科)에 합격한 사람을 성적에 따라 나눈 등급의 둘째. 모두 7명을 뽑았다.

오는 길에 황강黃岡을 지나던 중, 그날 밤 꿈에 백씨伯氏 겸암公謙菴公이 병들어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잠을 이루지 못하다. 이때 사실 겸암공이 병이 들어 고향에 머물러 있었다.

서에는 평소 관직에 뜻이 없었으나, 부친과 형님의 명으로 과거를 보아 급제를 하다. 그러나 관직을 맡기 전까지는 공부만 하고자 하다. 퇴계 선생이 그런 말을 듣고 겸암공에게 “그대의 아우는 처음으로 과거에 합격했건만(更憐賢季初攀桂), 얼마이게 될 세상일에서 벗어나려는 뜻이 더욱 가상하다네(萬事將纏欲脫纏)”라는 시를 보내오다.

이 시기에 5언고사古詩와 7언절구絶句의 시詩가 보임.⁷⁾

1567(명종明宗 22. 정묘丁卯 : 선조宣祖 즉위 해임)년 26세

봄에 정자正字로 승진되고, 휴가를 얻어 정주에 가서 부친 류중영柳仲郢 관찰공을 문안하다.

4월, 예문관藝文館 검열檢閱 겸 춘추관春秋館 기사관記事官을 임명받고 조정에 돌아오다.

6월, 명종 서거.

8월, 고향에 가는 퇴계 선생을 전송하기 위해 광진廣津까지 가서 송별시를 짓다. 자문점마(咨文點馬)⁸⁾로 의주에 가던 중에 정주定州에 들러 관찰공을 문안하다.

10월, 조정에 돌아오다.

1568(선조宣祖 1. 무진戊辰)년 27세

2월, 휴가를 얻어 정주定州에 가서 관찰공을 뵈다.

이때 정관재靜觀齋에서 7언절구絶句의 설리시說理詩 한 수를 지음.⁹⁾

가을에 왕명을 받아 성주星州로 가서 포사(曝史 : 사책史冊을 벌에 쬔고 바람을

7) 간본편(刊本篇) 본집(本集) 권1(卷一)의 「시1」과 「시2」임. 이하에서는 ‘간본편(刊本篇) 본집(本集) 권1(卷一)’의 표기를 「권1 · 시1」과 「권1 · 시2」식으로 약기(略記)한다.

8) 자문점마(咨文點馬) : 자문이 왕래할 때 사용하는 말을 점검하는 책임자.

9) 설리시(說理詩)란, 사물의 규율이나 이치를 추구하거나 중시하여 읊은 시를 말하는 것이다. 「권1 · 시4」를 참조 바람.

쏘이는 일하다. 이때, 성주로 가는 길에 고향에 들러 하외(河隈 : 지금의 명칭은 하회河回임)에 있는 겸암공謙菴公을 찾아보다.

1569(선조宣祖 2. 기사己巳)년 28세

10월, 사헌부司憲府 감찰이 되어 성절사聖節使의 서장관(書狀官 : 정사正使는 이 후백李後白)으로서 명나라 연경燕京에 가다. 이때에 명의 태학생 수 백 명이 왕양명王陽明과 진백사陳白沙의 학문을 주장한데 대하여, 선생은 설문청薛文淸 설이 정통유학의 종주宗主임을 주장하여 감탄과 존경을 받다. 또한 궁중서열에서 유생儒生을 도사道士와 승도僧徒의 뒤통수에 세우는 잘못을 지적하여 즉석에서 시정正하게 함으로써, 명나라 조정을 놀라게 하다.

선생의 이러한 발언과 풍모에 감동한 신안新安 출신 관료, 오중주吳仲周가 옥하관玉河館으로 선생을 찾아와서 호의를 표하자, 선생은 퇴계 선생의 『성학십도聖學十圖』를 보여 준다. 선생이 돌아올 때 오공吳公이 서序를 곁들인 송별시送別詩를 지어준다.¹⁰⁾

또한 부채에다 두 사람이 헤어지는 그림을 그리고 팔분서체八分書體¹¹⁾로 ‘관산별의關山別意’란 네 글자를 써서 주자, 선생은 그 운韻을 달아서 화답하다.¹²⁾

1570(선조宣祖 3. 경오庚午)년 29세

3월, 연경燕京에서 돌아온 후, 병조좌랑兵曹佐郎 겸 홍문관弘文館 수찬修撰에 임명되다. 봉당의 징후를 아뢴 전영의정前領議政 이준경李淩慶의 유차遺劄¹³⁾를 문제 삼아, 그의 관작官爵을 추탈追奪하지는 공론이 크게 일어났으나, 선생이 그 부당함을 주장하여 이를 저지하다.

1571(선조宣祖 4. 신미辛未)년 30세

3월, 예안禮安에 가서 퇴계 선생 장례식에 참석하다.

10) 「권1·시11」, 부록으로 첨부한 「중주원운仲周元韻」을 참조 바람.

11) 팔분서체(八分書體) : 예서(禮書)와 전자(篆字)를 절충하여 만들어진 서체의 하나.

12) 「권1·시11」의 2수와 「권1·시99」를 참조 바람.

13) 유차(遺劄) : 임종 직전 준경이 부르고 아들이 받아 적어, 선조에게 올린 네 가지 조목의 유차(遺劄)이다.

조정에 돌아와 병조좌랑兵曹佐郎에 임명되다.

가을에 휴가를 얻어 안동에 계신 모친을 가서 뵙다.

낙동강洛東江 서쪽 언덕, 서애西厓에 서당을 지으려 하다가 터가 좁아서 결정하지 못하고, 이로써 스스로 '서애'로 호를 삼다.

가을, 5언고시古詩, 「기몽記夢」¹⁴⁾을 짓다.

1573(선조宣祖 6. 계유癸酉)년 32세

4월, 아들 위樟가 태어나다.

7월, 부친 류중영柳仲郢[황해도 관찰사]의 상을 당하다.

11월, 천등산天燈山 금계金溪에 장사 지내고, 하외河隈¹⁵⁾로 와서 반곡返哭하다.
상례는 모두 주자朱子の 『가례家禮』를 따른다. 겸암공과 빈갈아 산소 옆을 지키고, 아침·저녁으로 성묘하였으며, 초하루·보름 때면 반드시 돌아와서 영좌靈座에 전奠을 올렸음.

1575(선조宣祖 8. 기해己亥)년 34세

상복을 벗다.

홍문관弘文館 부교리副校理에 임명되었으나 사양하고 부임하지 않다.

겨울에 이조정랑吏曹正郎에 임명되었으나 또다시 사양하고 부임하지 않다.

1576(선조宣祖 9. 병자丙子)년 35세

1월, 홍문관 교리校理에 임명되어 소명召命을 받고 부임하다가 도중에 사양하고 돌아오다.

원지정사遠志精舍¹⁶⁾가 완성되다. 정사精舍는 마을 북쪽 강 언덕 위에 있으며 다섯 칸이며, 기문記文이 있다.

4월, 사간원헌납司諫院獻納에 임명되어 조정에 돌아오다. 의정부검상議政府檢詳에 전임되었고, 또 홍문관전한弘文館典翰에 임명되었으나 사양했지만, 사헌부司

14) 「권1·시7」을 참조 바람.

15) 하외(河隈) : 지금은 하회(河回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로 칭하고 있음.

16) 원지정사(遠志精舍) : 중요민속자료85호. 이 정사(精舍)는 서애(西厓)가 32세 때(선조 6년, 1573년)에 부친상을 당하고, 낙향해서, 은거할 때에 지은 건축물. 소재지는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712-1번지이다.

憲府 장령掌令에 옮겨 임명되다. 휴가를 얻어 안동에 계신 어머니를 찾아뵙다.
12월, 홍문관弘文館 부응교副應敎에 임명되었으나 상소하여, 충청도와 경상도
중에 조그마한 고을의 목민관이 되어 65세의 노모老母를 봉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청하였으나, 윤허 받지 못하다.

1577(선조宣祖 10. 정축丁丑)년 36세

1월, 의정부議政府 감상檢詳에 임명되다. 휴가를 얻어 안동에 계신 모친을 가
서 뵙다.
2월, 군위軍威의 선산先山을 찾아가 성묘하다.
여름에 사인舍人으로 승진하였으나 사양하고 부임하지 않다. 상소上疏로 노모
의 봉양을 주청하였으나 윤허 받지 못하다.
여강서원廬江書院의 퇴계 선생 봉안문奉安文을 짓다.
구도求道에 대한 향심向心을 표현한 시가 보임.¹⁷⁾

1578(선조宣祖 11. 무인戊寅)년 37세

봄에 휴가를 얻어 안동의 노모를 뵙고 조정으로 돌아오다.
4월, 「원지정사기遠志精舍記」를 쓰다.
7월, 아들 여씨가 태어나다.
8월, 휴가를 얻어 안동에 계신 모친을 가서 뵙다. 또한 같은 달, 남행하는 길
에 동호東湖에 위치한 몽퇴정夢賔亭에서 지인知人들과 하룻밤을 묵고 길을 나
설 때 5언율시로, 유별시留別詩를 지어준다.¹⁸⁾
다시 조정으로 돌아와서 홍문관弘文館 응교應敎에 임명되다.
선생이 옥당玉堂에 있을 때,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을 불러 하외河隈의 산수도
를 그려 그것으로 아버이 생각과 고향 생각하는 뜻을 붙이다.

1579(선조宣祖 12. 기묘己卯)년 38세

봄에 홍문관 직제학直提學에 임명되다.
4월, 통정대부通政大夫, 승정원承政院 동부승지同副承旨 지제교知製敎 겸 경연經

17) 「권1 · 시14」를 참조 바람.

18) 「권1 · 시15」를 참조 바람.

筵 참찬관參贊官 춘추관春秋館 수찬관修撰官에 임명되다. 과거에는 승정원에서 쓰는 종이가 넓고 두꺼워서 비용이 많이 들었으나, 선생이 건의하여, 한 달분의 양을 규정하여 남용하지 못하게 하고, 종이의 품질을 두껍지도 넓지도 않게 하자, 백성들이 그것을 편하게 여긴다.

7월, 홍문관 부제학副提學에 임명되다. 휴가를 얻어 안동에 계신 노모를 가서 뵈다.

왕께서 본도本道에 음식물을 대접하라고 명하시다. 이번 길에 평중宏仲 이덕홍李德弘과 함께 배를 타고 「논학유감論學有感」이란 7언절구의 시 두 편을 짓다.¹⁹⁾

겨울에 다시 승지承旨에 임명되다. 상소하여 노모의 봉양을 주청하였으나, 윤희 받지 못하다.

1580(선조宣祖 13. 경진庚辰)년 39세

선생은 노모를 봉양하고자 해마다 관직을 사양하였으므로, 선조宣祖는 이때에 마침 상주목사尙州牧使가 결원缺員이 되자 이조吏曹에 물어 상주에서 안동까지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임을 파악하고 선생을 상주목사尙州牧使로 특명하여, 노모를 모시도록 하다. 선조는 “그대에게 상주목사를 시킨 것은 이웃고를 관리들이 본받도록 하려고 한 것이다(以爾爲尙牧欲使隣官取法耳)”라고 하다.

19) 「논학유감(論學有感)」: 하회본 『서애전서(西厓全書)』 시부(詩部) 에는 보이지 않고 「서애연보(西厓年譜)」에만 보인다.

제1수 : 수많은 성인(聖人)이 전한 심법(心法)이니 탐구할만한 도이건만,

십 년이나 벼슬길에서 벗어나기 못했네

늦가을 강변에서 상봉하고 한없이 감탄했나니,

그대 따라 노를 저어 원류를 찾아 가고 싶네.

千聖傳心道可求，十年塵路未回頭。

相逢絕歎秋江晚，理棹從君欲溯流。

제2수 : 대도(大道)는 본래 유일무이한 길이건만,

애닭도다 후학(後學)들은 공론(空論)만 일삼네.

참된 실체를 명백히 드러내야 할지니,

물고기가 물에 놀고 술개가 하늘 날음은 모두 이치란 것을!

大道由來不二門，堪憐未學逞空言。

居然漏泄眞消息，魚躍鸞飛摠一源!

선생은 임지에서 마을마다 초학자初學者를 교육시키는 교관과 향약鄉約²⁰⁾을 실행하는 유사有司를 선출하여 글로써 깨우쳤는데 대략 오륜五倫을 철저하게 하는 것을 먼저 할 일로 삼다. 선생은 또한 몸소 향교의 명륜당에 나아가 그곳 서생書生들에게 글을 가르치기도 하였는데, 우복愚伏을 위시한 여러 제자들에게 의해 훗날 상주지역의 퇴계학맥과 서애학맥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임離任할 때는 이 고을 사람들이 비석을 세워서 선생의 공덕을 칭송하고 또한 생사당生祠堂을 세우려하자, 선생은 친한 이에게 글을 보내어 이를 저지시키다.

10월, 아들 단襴이 태어나다.

1581(선조宣祖 14. 신사辛巳)년 40세

다시 홍문관弘文館 부제학副提學에 임명되어 조정으로 돌아오다. 상소하여 벼슬을 그만두고 노모의 봉양을 주청하였으나, 윤허를 받지 못하다. 휴가를 얻어 안동에 계신 노모를 뵙고 가을에 조정으로 돌아오다.

고향에 있을 당시 마침 정사精舍에 매화가 피기 시작하여 그 주변을 거닐며 시를 읊는데 승려가 시 한 수를 요구함에 지어준다.²¹⁾

선생은 고향에 다닐 때마다 반드시 민폐를 널리 조사하여, 조정에 돌아오면 언제나 이를 보고하다.

무빙차자無氷笥子 10조목을 올리다. 왕명으로 『대학연의大學衍義』를 지어 올리다.

1582(선조宣祖 15. 임오壬午)년 41세

봄, 사간원司諫院 대사간大司諫에 임명되다. 이때 휴가를 얻어 고향에 있던 중에 소환을 받고 조정으로 돌아오다. 당시 대사간으로 소환되어 가는 길에 문경聞慶에 숙박하면서 7언율시 한 수를 짓다.²²⁾

7월, 아들 진軫이 태어나다.

20) 「권1·시16」, 주석2)의 ②번 ‘유규(遺規)’ 조항을 참조 바람.

21) 「권1·시17」을 참조 바람.

22) 「권1·시18」을 참조 바람.

겨울에는 우부승지右副承旨에서 도승지都承旨로 특진되다. 명나라 사신에 대한 합리적이고도 예외와 법도에 준하는 처사로, 선조와 명의의 사신 양쪽에 모두 찬사를 받다. 사신이 떠난 후, 선생은 가선대부嘉善大夫 사헌부司憲府 대사헌大司憲에 승진되다.

왕명으로 『황화집皇華集』 서문을 짓다.

1583(선조宣祖 16. 계미癸未)년 42세

1월 홍문관 부제학에 임명되다.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의 『구경연의九經衍義』의 발문跋文을 짓다.

5월, 당론黨論이 격화되어 귀향하다.

가을, 정사精舍에서 번잡한 세상사를 우려하며 7언절구 한 수를 짓다.²³⁾

10월, 경상도 관찰사에 임명되다. 다시 상소로 사양했으나, 윤택 받지 못하다.

1584(선조宣祖 17. 갑신甲申)년 43세

8월, 왕명으로 『문산집文山集』²⁴⁾ 서문을 짓다. 승진하여, 자헌대부資憲大夫에 조판서禮曹判書 겸 동지경연춘추관사同知經筵春秋館事, 홍문관제학弘文館提學에 임명되다. 각처에 향약鄉約²⁵⁾을 반포하여, 효제孝悌와 예양禮讓을 돈독히 하는 것으로 백성을 교화시키고 풍속을 바로잡는 기본으로 삼다.

성리학性理學의 ‘이설理說’을 세워 퇴계선생의 사상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던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의 고택故宅을 바라보면서 그를 애도하는 7언절구絶句를 짓다.²⁶⁾

1585(선조宣祖 18. 을유乙酉)년 44세

3월, 왕명으로 『정충록精忠錄』 발문을 짓다.

4월, 맏아들 위緯가 죽다.

23) 「권1·시22」를 참조 바람.

24) 송(宋)의 충신 문천상(文天祥)의 문집(文集).

25) 권선징악을 위주로 한 향촌의 자치 규약으로서, 본디 중국 송(宋) 나라 때의 남전 여씨(藍田呂氏 여대균呂大鈞)의 향약을 본뜬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중종 14년에 실시되었다.

26) 「권1·시23」을 참조 바람.

의주목사義州牧使 서익徐益이 “정여립鄭汝立²⁷⁾이 이이李珣에게 보낸 글에서 류성룡을 들어서 크게 간악한 자”²⁸⁾라는 지적을 하자, 선생은 스스로 자신을 탄핵하는 ‘물러나야할 5가지’이유를 써서 주청하였으나, 윤휴 받지 못하다. 휴가를 얻어 안동에 계신 노모를 가서 뵙다.

20년 전(24세), 선생이 태학생太學生이었을 당시에 보우普雨승려가 개최한 무차대회無遮大會가 문정왕후文定王后의 죽음을 초래했다는 성균관 유생들의 상소가 선조에게 받아드려지지 않아서 야기됐던 파문을 상기想起하며 7언절구를 짓다.²⁹⁾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 선생의 문집을 교정校正하고 그 발문跋文을 짓다.

1586(선조宣祖 19. 병술丙戌)년 45세

봄에 예조판서를 사임하고 귀향 중 문경聞慶에서 숙박을 한 후, 현감 허행원許行遠의 전송을 받으면서 7언율시로 작별을 하다.³⁰⁾

3월, 휴가를 얻어 고향에 돌아와서 직명職名 취소를 주청奏請하다.

군위軍威의 선영 남쪽에 위치한 남계서당南溪書堂이 완성되다.³¹⁾

남계에서 인동仁同으로 가서 노모를 뵙다. 이때 겸암공이 임지在地인 인동에

27) 조선 중기의 역신(逆臣)(1546~1589). 자는 인백(仁伯). 수찬(修撰)을 지냈다. 정권을 잡으려는 야심으로 대동계(大同契)를 조직하고 도참설을 퍼뜨려 모반을 꾀하려다 탄로 나와 도주하여 자살하였음.

28) 선생의 자기탄핵 상소에 의하면, 10년 전, 반란자 정여립(鄭汝立)이 자신의 견해(사마광司馬光의 사관史觀인 “천하는 공물公物이니 일정한 주인이 있을 수 없다”)를 주자의 성리학보다 낫다고 하여 좋게 보지 않았는데, 당시 그의 명망이 높아 모두들 그를 요직에 발탁하려하는데, 이경중(李敬中)만이 적극적으로 배척했음. 결과 외부의 의논이 ‘이경중이 훌륭한 사람을 질투한다.’고 떠들어서 이경중을 이조에서 추방하였음. 그러나 선생은 전일의 견해로 정여립의 사람됨을 좋게 여기지 않았고, 선생의 동료들도 이경중의 말을 긍정하여, 이에 정여립이 호남에 있을 때 서울 사람에게 보낸 글에서, 서애를 지적하여 ‘큰 간악[巨奸]’이라 함이, 서익(徐益)의 상소에 거론되었음.

29) 「권1·시25」를 참조 바람.

30) 「권1·시28」을 참조 바람.

31) 남계의 12 절경을 5언절구로 읊음. 이 시는 소서(小序)가 없어 작시(作詩) 년대는 알 수 없으나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본 시집에 관련시가 있음을 알림. 즉 「권1·시52」를 참조 바람. 또한 이 해에 남계정사 학생들에게 시 한 수 지어 부침. 「권1·시29」를 참조 바람.

서 대부인(大夫人)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선생은 하회에서 인동까지는 거리가 조금 먼 관계로 이와 가까운 남계(南溪)에 거처하면서, 날마다 시종들을 시켜서 문안을 드리게 하고, 자신은 10일마다 한 차례씩 문안을 드리다.

옥연서당(玉淵書堂)이 완성되다. 선생이 원지정사(遠志精舍)를 지은 뒤에 오히려 마을과 너무 가까운 것을 한탄하여 북담(北潭)에다 자그마한 집을 지어 거기에 서 늙을 계획을 하다. 마침 탄홍(誕弘)이란 승려가 그 일을 담당하겠다고 자청하여, 곡식과 비단(帛)을 투자함. 그런 뒤 10년이 지나서 완성되었는데, 이름은 ‘옥연(玉淵)’이라 하다. 정사잡영(精舍雜詠)과 기문(記文)이 있다.

야은(治隱) 길재(吉再) 선생 ‘지주 중류비(砥柱中流碑)’의 음기(陰記³²⁾)를 지음.

구백담(具栢潭)의 부고를 받다.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7언율시(七言律詩)의 애도시(哀悼詩)가 있음.³³⁾ 제문과 만사(挽詞)도 있음.

1587(선조宣祖 20. 정해丁亥)년 46세

3월, 입결하라는 소환을 받고 가다가, 도중에서 사양하고 돌아오다. 또다시 수차 소환하였으나 부임하지 않다. 이때 7언절구로 「재거독역(齋居讀易)」을 짓다.³⁴⁾

입결하라는 명을 받고 용추(龍湫) 폭포에 이르러 5언절구를 짓다.³⁵⁾

퇴계 선생의 문집을 편차(編次)하다.

1588(선조宣祖 21. 무자戊子)년 47세

동경연(同經筵)으로 부름을 받고 가다가 도중에서 사양하고 돌아오다. 여러 번

32) 음기(陰記) : 비갈(碑碣)의 등 뒤에 새긴 글.

33) 「권1·시34」를 참조 바람.

34) 「재거독역(齋居讀易)」 : 하회본 『서애전서(西厓全書)』 시부(詩部)에는 보이지 않고, 「서애연보(西厓年譜)」에만 보인다.

초라한 서재에서 『주역』을 읽다가 나의 어리석음 탄식하며,

새벽에 일어나 공부하다보면 어느덧 서쪽으로 해가 지네.

복희와 문왕 소식이 멀다 하지 말라,

창밖에 봄새가 여기저기서 지저귀거늘.

窮簷讀易歎吾迷, 晨起研劘至日西。

莫道羲文消息遠, 隔窓春鳥數聲啼。

35) 「권1·시35」를 참조 바람.

소환하였으나 부임하지 않다.

5언절구시 「연좌루 추사燕坐樓秋思」를 짓다.³⁶⁾

선생이 하회河回에 있을 때, 학기學己가 찾아오다. 때마침 정사(玉淵精舍)에 국화가 활짝 피어 있어, 국화시를 지어서 그에게 보이다.³⁷⁾

10월, 형조판서刑曹判書 겸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을 겸하다. 선조를 인견하고 학문을 토론하는데, 선조가 왕양명王陽明의 ‘치양지致良知’와 ‘심즉리心卽理’의 학설을 질문하면서 크게 잘못되지 않은 것같이 여기다. 이에, 선생이 상세하게 설명하니, 선조는 “학문은 마땅히 정자程子나 주자朱子를 종사宗師로 삼아야지 다른 데서 구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하다.

홍문관弘文館 대제학大提學, 지경연知經筵 춘추관春秋館 · 성균관사成均館事를 겸하게 하여, 다시 사양의 상소를 올렸으나 윤험을 받지 못하다.

1589(선조宣祖 22. 기축己丑)년 48세

봄, 사헌부司憲府 대사헌大司憲에 병조판서兵曹判書 겸무의 임명을 받다.

6월, 왕명으로 『효경대의孝經大義』의 발문을 짓다.

휴가를 얻어 안동에 계신 노모를 가서 뵈다.

7월, 부인 이 씨가 세상을 뜨다.

9월, 안동으로 가는 부인의 상여를 전송하다. 이때 선생은 일본 사신使臣이 도성都城 아래에 와서 있었던 관계로, 통신사通信使를 물색하느라고 신천新川까지 상여만 전송하고 돌아오다.

또 예조판서에 임명되다.

10월, 정여립鄭汝立의 역모 옥사가 일어나다. 이로 인해, 여러 번 사직 상소를 올렸으나 윤험을 받지 못하다.³⁸⁾

36) 「권1·시33」을 참조 바람.

37) 「권1·시92」의 소서(小序)에 보인다.

38) 1. 연루된 이유 : 선생이 고향에 있으면서 여러 번 부름을 받고도 부임하지 않자, 백유양白惟讓이 조정에 나오도록 권하라는 뜻으로, 정여립에게 편지를 썼는데, 마침 이때, 정여립의 옥사가 일어나면서, 그 글이 조정에 입수되어 백유양의 진술에서 선생의 성명이 나옴. 이 때문에 선생은 체임(遞任)시켜 주기를 여러 번 청했으나 윤험 받지 못함. ‘44세의 연보’도 참조 바람.

2. 선생이 스스로 죄인임을 탄핵한 상소 요점 :

이때 위관委官이었던 정철鄭澈이 옥사를 공평하게 다스리지 못하여 선비들이 많이 연루되었는데, 선생의 상소로 오히려, 이경중의 관작은 올려 주었고 무고를 당한 명사名士들은 차츰 풀려나게 되다.

28세 때 성절사聖節使 일행에서 서장관書狀官의 임무를 띠고 북경에 갔을 때, 교우交友하게 된 신안현新安縣 출신 오중주吳仲周라는 관료를 지금껏 20년이 지나도록 소식을 듣지 못하여, 당시의 추억을 떠올려 시를 짓다.³⁹⁾

1590(선조宣祖 23. 경인庚寅)년 49세

3월, 황운길黃允吉, 김성일金誠一 등을 통신사通信使로 보내어 왜국倭國의 정세를 살펴 오게 하다.

4월, 휴가를 얻어 노모를 가서 뵈다. 선조는 서애의 노모에게 내전(內殿 : 왕비)의 옷을 내리고, 또한 노모를 서울로 모셔와 봉양토록 하다.

5월, 우의정右議政에 임명되고 이조판서를 겸하다. 명나라에 오기誤記된 조선 왕조 종계宗系를 바로 잡은 공로로 광국공신光國功臣,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으로 서훈敍勳되다.

첫째, 10년 전, 반란자 정여립이 자신의 견해(사마광司馬光의 사관史觀인 “천하는 공물(公物)이니 일정한 주인이 있을 수 없다”)를 주자의 성리학보다 낫다고 하여 좋게 보지 않았다. 당시 그는 명망이 높아 모두들 그를 요직에 발탁하려하였지만, 이경중(李敬中)만은 이를 적극적으로 배척했다. 결과 ‘이경중이 훌륭한 사람을 질투한다’는 소문이 돌자, 이경중은 이조에서 추방되었다. 그러나 선생은 전일(前日)의 견해로 정여립의 사람됨을 좋게 보지 않았고, 선생의 동료들도 이경중의 말을 긍정하여, 이에 정여립이 호남에 있을 때 서울 사람에게 보낸 글에서, 서애를 지적하여 ‘큰 간악[巨奸]’이라 함이, 서익(徐益)의 상소에 거론되기에 이르렀다.

둘째, 이를 계기로 서애는 농촌에 물러나 있게 되었다. 이제 보면 정여립의 간악한 죄상(대동계大同契를 조직해서, 매달 사회射會를 열어 세력을 확장한 관계로, 1587년〈선조 20〉 왜선이 전라도 손죽도損竹島를 침범했을 때, 전주부윤 남언경南彦經의 요청으로 대동계를 동원해서 왜구를 격퇴하였음. 이후 대동계 조직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마침내, 신립申昞과 병조판서 살해로 병권장악에 이르게 됨. 정철鄭澈을 위관委官으로 이 사건을 조사처리하게 되자, 기축옥사己丑獄死로 이어졌음)을 미리 안 사람은 이경중(李敬中) 한 사람뿐이었다는 것. 선생은 그의 기미를 엿보면서도 간악한 진상을 드러내지 못했으니, 귀양 가게 되더라도 달게 받았고, 만약 농촌으로 물러나 앉아 죄과를 반성하게 해주면 다행으로 여기겠다는 것이다.

39) 「권1·시99」를 참조 바람.

1591(선조宣祖 24. 신묘辛卯)년 50세

2월, 좌의정佐議政에 오르고, 여전히 이조판서를 겸무하다. 선생은 조정의 많은 반대를 물리치고 왜국의 침공侵攻 조짐을 명나라에 통고하도록 하다.

7월, 왜란倭亂에 대비해서 장수가 될 만한 인재를 천거하여 정읍현감井邑縣監 이순신李舜臣을 전라도 좌수사左水使로, 형조정랑刑曹正郎 권율權慄을 의주목사義州牧使로 임명토록 하다.

그 전부터 써오던 진관제鎭管制⁴⁰⁾를 다시 설치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반대론에 부딪쳐 실현시키지 못하다.

1592(선조宣祖 25. 임진壬辰)년 51세

3월, 『증손전수방략增損戰守方略』이란 병서兵書를 저술하여 이순신에게 보내어, 실전實戰에 활용토록 하다.

4월 13일, 임진왜란 발발. 좌의정佐議政으로서 특명으로 병조판서兵曹判書 겸인. 도체찰사都體察使로 임명되다. 광해군光海君을 왕세자로 책봉冊封하도록 계청啓請 하다. 「근왕애통교서勤王哀痛教書」를 널리 반포하고, 왕자들을 각도各道에 파견하여 근왕병勤王兵을 소집하도록 주청하다. 경상慶尙 우병사右兵使 김성일金誠一을 사면할 것을 주청하여 윤허를 받다.

5월, 왜병의 도성都城 침입이 임박하여, 왕을 모시고 개성開城에 이르자, 영의정領議政으로 임명되었으나, 개성 주민들의 항의(영의정을 파직하면서 함께 있던 좌의정[서애]를 문책하지 않음은 잘못이라고 자청하여 파직된 것임)로 자청하여 그날(5월 2일)로 파직되다.⁴¹⁾

동파역東坡驛에서 “만약 조선 8도가 모두 함락되면 명나라에 가서 하소연해야 한다(若八路俱陷便可赴懇王朝)”는 공론에 “선생은 안 된다고 하면서(公曰不可)”, “여기가 만약 이 강산을 한 걸음이라도 벗어난다면(大駕離東土一步地), 조선 땅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다(朝鮮非我有也)”라고 극력 반대하여, 국내 향전 태세

40) 자신의 지역은 자신이 책임지는 군대 철칙. 이전의 방위체제는 각 지역에 전략적 중요도에 따라 크고 작은 진을 설치해 지역단위로 방어하는 진관제(鎭管制)였다.

41) “신은 이산해와 더불어 정승 자리에 있으면서 국사를 이 지경까지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산해는 이미 파직되었는데 신만이 어찌 감히 스스로 무죄라고 해서 정승으로 있겠습니까?” 하며, 대죄를 청함.

를 굳히다.

6월, 풍원 부원군豐原府院君으로 다시 서용敍用되다. 평양을 고수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윤휘를 얻지 못하다. 함경도로 거동하지는 공론公論을 극력 반대하여, 의주義州로 파천播遷토록 하다. 평양까지 침공한 왜군의 전방前方을 막고 후방을 차단하여, 포위하는 유격전遊擊戰을 지령하다.

9월, 군수물자의 보급과 명나라 장관將官들의 접대임무를 맡다. 건주위建州衛(청 태조 누루하치)가 구원병을 보내주겠다는 제의提議를 거절하도록 주청하다.

12월, 평안도平安道 도체찰사都體察使로 임명되다. 왜군의 간첩인 김순량金順良 등을 잡아 처단하여 군기누설을 예방하다. 명명의 제독提督 이여송李如松과 안주安州에서 회견할 때, 선생은 소매에서 평양지도를 꺼내어 형세와 군사들의 진입로를 지시하자, 제독이 붉은붓으로 표시하며, “적이 내 눈에 환하게 보인다”라고 말함에, 평양탈환을 협의하다. 선생이 물러간 후 제독은 부채에다 7언을 써서 보내오다.⁴²⁾

1593(선조宣祖 26. 계사癸巳)년 52세

1월, 명군明軍과 협력하여 평양성을 탈환하다. 호남에서 운송되어 온 곡식으로 기민飢民을 구제해줄 것을 주청하여 시행토록 하다.

3월, 임진강臨津江에 첩으로 다리浮橋를 놓아 대군大軍을 건너게 하다. 충청·

42) 이여송(李如松 : ?~1598)의 시. 「서애연보」에 보인다.

군사를 이끌고 밤사이 압록강 건너 것은,
조선이 불안하다고 알려왔기 때문이네.
명철한 황제께서 날마다 승첩보 기다리시니,
미천한 신하는 밤마다 즐기던 술도 끊어버렸네.
봄인데도 살기가 돌지만 마음은 되레 장쾌하니,
이번 길에 요귀들 아주 뻗속까지 서늘하게 해주리라.
웃으며 장담하노니 감히 승산 없다 하겠는가,
꿈에서도 언제나 출정만을 생각하네.
提兵星夜渡江干，爲說三韓國未安。
明主日懸旌節報，微臣夜釋酒杯歡。
春來殺氣心猶壯，此去妖氛骨已寒。
談笑敢言非勝算，夢中常憶跨征鞍。

*석(釋) : 패기하다. 방치하다.

전라·경상 삼도三道 도체찰사都體察使로 임명되다.

4월, 선생은 이여송의 대왜對倭 강화講和 교섭에 항의했으나 명군明軍이 일방적으로 정전停戰하여, 왜군이 철수하자 명군과 함께 서울을 수복하다.

선생은 이여송의 의중을 파악한터라, “명나라를 믿을 수 없으니 자주적自主的으로 국방력을 강화하자”고 건의하여, 훈련도감訓練都監을 설치하고 장정壯丁을 모집했으며, 조총鳥銃과 대포 등의 화기火器도 증강增強하다.

6월, 왕명을 받고 영남에 내려가다가 안동에 계신 노모를 문안하다.⁴³⁾ 문안을 드리고 죽령竹嶺의 신림원新林院에 도달했을 때, 본도本道(역자주 : 원래 근무하던 도(道)란 뜻으로, 여기서는 ‘충청도’를 가리킴)에 체류하라는 명을 받고 여러 장수들을 단속해 놓은 다음, 신림원新林院에서 청풍현淸風縣으로 돌아온 후, 한벽루寒碧樓에서 업무로 인한 느낌을 7언율시로 표현하다⁴⁴⁾.

7월, 『기효신서紀效新書』를 본 뜬 군병 훈련을 실시하도록 건의하다.

8월, 압록강 연안沿岸의 중강中江에서 우리나라의 소금·철·은·면포綿布·동銅 등과 중국의 양곡糧穀을 교역하도록 해서 식량을 확보하도록 하다.

9월, 왕명으로 다시 행재소行在所로 돌아오다.

10월, 선조를 모시고 환도還都하여, 훈련도감訓練都監의 설치를 주청하다. 훈련도감訓練都監 도제조都提調를 겸무하다. 계사啓辭를 올려, 변응성邊應星을 경기좌방어사京畿左防禦使로 임명하여 용진에 주둔시키기를 청하다.

다시 영의정에 임명되다.

윤월 11월, 조선을 더 이상 구원할 뜻이 없는 명명은 사신으로 사헌司憲을 파견하여 우리의 국정國情을 살피고, 명이 왜군을 물리쳐 줄 것만을 바라는 선조를 퇴위시켜, 직접 통치를 강요하는 국서國書를 보내 왔으나, 선생이 이를 극력 반대하여 물리치다. 선생의 충성심과 지략智略에 감탄한 사헌司憲은 선생이 “나라를 다시 일으킨 공(山河再造之功)이 있다”고 선조에게 극구 찬양하며 선생으로 하여금 국사國事를 전관專管토록 하라는 말까지 하다. 결과 선조

43) 처음에 겸암공(謙菴公)이 대부인을 모시고 난을 피하여 관동으로부터 전전하다 태백산 아래 이르렀는데, 이때 와서 처음으로 인편과 같이 통하여 선생이 찾아가 문안을 드림.

44) 「권1·시65」를 참조 바람.

양위讓位 사건이 무마되다.

1594(선조宣祖 27. 갑오甲午)년 53세

3월, 진관법鑑管法을 다시 쓰기로 하여 국민군國民軍 제도를 확립시키다. 공물貢物을 미곡米穀으로 대신하여 바치도록 하고, 소금을 증산增産해서 이를 전매제專賣制로 하여 군량미를 확보토록 하다. 민심의 안정이 난국을 수습하는 기본임을 역설하여, 민생民生을 돌보는 안집도감安集都監을 설치하고 도제조都提調로 임명되다.

4월, 폐병을 앓아서 일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마침 석상서石尙書⁴⁵⁾가 참장參將 호택湖澤을 보내어 차부箭付로 본국의 대신大臣을 유시諭示하자⁴⁶⁾,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선생은 병중病中에 차자箭刺를 올려 재상宰相을 보내 왜적의 정세를 진주陳奏할 것을 청하다.

5월, 지방관의 근무 실태를 조사하여 해이해진 관官의 기강을 쇠신하도록 건의하다.

6월, 대신을 명나라로 보내어 왜군의 동정動靜을 알리고 대책을 협의하도록 하다. 「군국기무집조軍國機務十條」를 올리다.

7월, 연병사무鍊兵事務를 병조兵曹에서 전담토록 하다. 문벌門閥·신분身分·출신지出身地의 차별 없이 총포銃砲·도검刀劍·기기器械·수학數學·광업鑛業·주철鑄鐵·화약火藥·제염製鹽 등에 유능한 인재를 널리 등용하도록 건의하다.

선생은 당시의 다사다난했던 시국時局의 구심점에서 시정가施政家로서 혹은 군략가軍略家로서 쉽지 않았던 자신의 처세를 잡언체의 시로 농 삼아 전하는 것이 보인다.⁴⁷⁾

45) 석상서(石尙書) : 명나라 만력(萬曆) 연간에 병부 상서(兵部尙書)를 지낸 석성(石星)을 말함. 동명(東明) 태생으로 자는 공신(拱宸)이며,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 조정에 구원을 요청한 조선 정부를 적극 지원하였으나, 뒤에 황제의 노여움을 사서 하옥되어 죽었음.

46) 이때에 중국 조정은 왜적이 오래도록 물러가지 않는다고 천하의 병력을 다 동원할 수 없으니, 왜적의 요청에 따라 조공을 허락하고 군사를 해체할 것을 요청함. 석상서(石尙書)가 이 논의를 주장했으나 과도관(科道官)이 이를 공박하여 송경략(宋經略)은 이로 인하여 파직되어 돌아갔고, 시랑 고양겸(顧養謙)이 대신 왔었음.

1595(선조宣祖 28. 을미乙未)년 54세

1월, 한강 유역에 둔보(屯堡⁴⁸)를 구축하고, 둔전병(屯田兵) 제도를 설치할 것을 건의하다.

소(疏)를 올려 기축년(己丑年(1589) 정여립(鄭汝立)의 옥사(獄事)에 억울하게 죽은 이의 오명을 씻어줄 것을 건의하다.

10월, 휴가를 얻어 귀향하려고 여주(驪州)에 이르렀다가 소명을 받고 조정으로 돌아오면서, 노모가 계신 남쪽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다.

경기·황해·평안·함경 사도(四道) 도체찰사(都體察使)로 임명되다. 사도순찰사(四道巡察使)에게 군병(軍兵)의 교련을 유시(諭示)하다.

11월, 관영(官營)의 제철장(製鐵場)을 설치하여 대포와 조총을 제조하도록 하다. 남한산성(南漢山城)을 순시하고 승장(僧將) 사명대사(四溟大師(惟政))에게 성(城)을 쌓고 창고(倉庫)를 설치할 것을 지시하다.

과사성(婆娑城)에서 승병장(僧兵將) 의엄(義嚴) 장로(長老)에게 7언(言)시를 써 주다.⁴⁹⁾

1596(선조宣祖 29. 병신丙申)년 55세

1월, 군사를 훈련시키는 규칙을 제정하여 사도(四道)에 반포하다.

2월, 건주위(建州衛⁵⁰⁾)의 침입에 대비하여 북변(北邊)의 방위를 강화할 것을 평안·함경 양도(兩道) 순변사(巡邊使)에게 지령하다.

3월, 청명(淸明)에 금계(金溪)의 선영(先靈)을 참배하다.

5월, 조완도(趙完堵)라는 자가 상소하여, “선생이 그의 아버지 조헌(趙憲)이 당연하게 얻을 군공을 업페했다.”고 하자, 선생은 “신이 대신의 지위에 있으면서 남에게 모욕을 당하게 되어, 직접 이름을 들어 배척받았습니다. 이는 반드시 신이 평소에도 남에게 가볍게 보인 소치이니, 외람되나 신의 관직을 체면(體面)免

47) 「권1·시66」을 참조 바람.

48) 둔보(屯堡) : 군대의 기능과 일반생활을 동시에 수행하는 마을.

49) 「권1·시68」을 참조 바람.

50) 건주위(建州衛) : 중국 명나라 성조(成祖)인 영락제(永樂帝) 때에, 남만주(南滿洲)의 건주(建州) 지역에 사는 여진족(女眞族)을 다스리기 위하여 설치한 군영. 이후 여진족의 부족장에게 지휘권을 넘겨주었으며, 건주좌위(建州左衛)와 건주우위(建州右衛)가 새로 생겨남에 따라 건주 삼위(三衛)가 되었음.

해 주소서.”라고 사직辭職을 주청했으나, 윤희 받지 못하다.

윤궐 8월, 선조가 대신에게 명하여 동궁東宮에게 청정聽政하게 하자 선생이 백관을 거느리고 대궐문 앞에서 한 달 남짓 복합(伏閑⁵¹)하여, 윤희를 받아 내다.

9월, 이순신李舜臣에게 죄를 주자는 의견에 반대하여 사직상소辭職上疏를 올리다.

11월, 청야策淸野策⁵²을 채용하여 왜적의 재침再侵에 대비하도록 하다.

전란 후 지방방어 상황순시를 위해 남행南行길에 오른 좌랑佐郎 정경임鄭景任에게 선생이 파사성婆娑城에서 5율로 된 시를 지어 주며, 내심(內心)을 보이다.⁵³

선생이 명나라 장수를 따라 남정南征할 때, 잠시 하회河回에 들렀는데, 학기學己가 시집詩集을 들고 찾아와서 화운和韻을 요구하여, 그 시집에 수록된 시운詩韻에 차운次韻해서 주다.⁵⁴

1597(선조宣祖 30. 정유丁酉)년 56세

3월, 이순신이 무함誣陷으로 파면될 때, 그 부당함을 극력 진언했으나, 윤희를 받지 못하자, 그를 천거한 책임을 지고 5차례나 사직상소를 올린다.

8월, 왕명을 받고 경기京畿를 순찰하다. 이때, 적이 재차 준동하여 전라도와 충청도 지방이 모두 봉쇄되자, 선생이 왕명을 받아 곧바로 한강漢江에 나가 순찰하면서, 경기 우방어사右防禦使 유림柳濂에게는 무한산성無限山城을, 별장別將 조발趙撥에게는 독성雉城을, 좌방어사左防禦使 변응성邊應星에게는 파사성婆娑城을 각각 지키게 하고, 이로 인해, 강 연안 일대를 따라 왕래하면서 물살이 세고 얕은 곳을 잘 경비하도록 하다.

경기京畿를 순찰하고 조정으로 돌아오다. 이때 시국時局의 안정에 역량이 따라주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5언율시로 표현한 시가 보인다.⁵⁵

51) 복합(伏閑) :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에 조신(朝臣) 또는 유생(儒生)이 대궐문(大闕) 밖에 이르러 상소(上疏)하고 엎디어 청하던 일.

52) 들판을 완전히 비우고 성에 들어가 방어하는 책략.

53) 「권1·시72」를 참조 바람.

54) 「권1·시92」의 소서(小序) 안에 보인다.

9월, 어가를 호종하고 강가를 나가 순찰하다. 왕명을 받고 나가 경기와 충청도를 순찰하다. 왜적이 물러간 뒤 선조는 여러 대신을 각도에 보내어 그곳의 백성들을 위무하게 하다.

10월, 왕명으로 경기·충청 지방을 순시하여 민심을 안정시키고, 제장諸將들의 공과功過를 살피다.

11월, 왕명을 받고 남쪽에 내려가다. 이때 양경리楊經理·마도독麻都督이 곧 남쪽에 내려가게 되자, 선조는 선생에게 먼저 가서 군량을 조치하라고 명함.

12월, 봉화에 가서 노모를 찾아뵈다. 이때 대부인이 난을 피해 봉화에 있었다. 경리經理에게 선생을 혈뜰는 자가 있어, 경리는 그 말을 믿고, “유모柳某는 군문軍門 형개邢介에게 죄를 짓고 이쪽으로 도망 와서 군량을 운반하는 일 등을 전적으로 윤승훈尹承勳에게 맡겼다.”라고 하자, 선생은 장계를 올려 상황을 말하고 직명을 삭제해줄길 청했으나, 윤허 받지 못하다.

1598(선조宣祖 31. 무술戊戌)년 57세

여러 번 사직상소를 올렸으나 윤허 받지 못하다.

1월, 왕의 소환을 받다. 다시 봉화로 가서 노모에게서 수일간 머물다.

2월, 조정에 돌아오다. 이때 운암雲巖을 지나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조신曹伸이 거쳐하던 조그마한 정자를 임금이 하사한 호피虎皮로 구입하여 머물러 쉬 뜻을 가졌으나, 관직에 얽매어 뜻을 이루지 못하다. 이때, 종사관 윤경립尹敬立과 더불어 노닐면서, 운암골짜기 바위 위에 5언을시를 남김.⁵⁶⁾ 선생을 공박하는 자가 이를 두고, “전원이 온 나라 안에 두루 펼쳐져 있다(田園遍一國)”라고 하다. 이에, 다시 사퇴서를 올렸으나 윤허 받지 못하다.

3월, 사직서를 올렸으나, 선조는 “국가가 위태롭고 급박하니 대신으로서 사퇴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하며 윤허하지 않다.

4월, 어가를 호종하고 서강西江에 가서 진법陳法을 연습하다.

7월, 왕명으로 벽제碧蹄에서 군문軍門 형개邢介를 맞이하다.

9월, 명명의 주사主事, 정응태丁應泰는 경리經理 양호楊鎬가 울산전투에서 패배

55) 「권1·시82」를 참조 바람.

56) 「권1·시84」를 참조 바람.

하고도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았고, 본국[조선 조정]도 양호와 합작하여 은폐했으며, 왜인과도 통모한다고 탄핵하다. 이에 선조가 분개하여 동궁東宮에게 결재를 받게 하고 정사政事를 돌보지 않다. 서에는 정2품 이상의 관리를 인솔하여 복합伏閣하다.

이때, 형군문邢軍門의 차인差人이 과도관科道官을 보내와서 군량미 운반을 청했는데, 선조가 답을 하지 않다. 마침 이때 선생은 대궐 뜰에서 선조가 정사政事 보기를 주청奏請하고 있었는데, 이조 판서 홍진洪進이 관안官案을 가지고 선생 앞에 다가와서 차출하여 보낼만한 자를 묻자, 황급한 터라, 전한典翰 김신국金愼國 · 집의執義 황정철黃廷詰 · 병조정랑兵曹正郎 윤홍尹弘 · 지평持平 이이첨李爾瞻 등 네 사람을 낙점하고 서류를 갖추어 아뢰다. 이때 이이첨이 격노하여 혼자 계궐를 올려 선생이 자청해서 가지 않은 것을 탄핵하였고, 이에 윤홍의 소疏가 이어지자, 선조는 이이첨 대신 송석경宋錫慶으로 대신하다.

선생이 탄핵을 받았으나, 국사가 시급해서 회피할 수 없어, 한편으로는 선조가 정사政事 보기를 계청啓請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서과도徐科道에게 위의 사실에 대해 해명하는 글을 올리다. 선조는 여전히 정사政事を 보지 않았고, 선생을 미워하는 자들은 별때같이 공박과 배척의 상소를 올리다. 이에, 자신을 탄핵하는 차자箴刺를 올리고 사직을 주청하였으나 윤희 받지 못하다.

27일, 명나라 정응태丁應泰의 무주誣奏 사건에 대한 진주사陳奏使를 고사固辭하다.⁵⁷⁾

-
- 57) 명나라 정응태(丁應泰)의 무주(誣奏)한 사건에 대한 진주사(陳奏使)를 고사(固辭)한 내용 :

“신이 이미 중한 탄핵을 받았으므로 마땅히 물러가 엎드려 죄를 기다려야 하고 결코 조정에 얼굴을 내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시기가 위급함으로 말미암아 어제 공의(公議)에 거슬림을 무릅쓰고 재차 대궐에 나가 공무를 수행하며 공사(公事)를 아뢰었고, 또 신의 봉사(역자주 : 진주사陳奏使를 봉행하는 것) 등의 일을 아뢰었습니다. 그런데 승문원(承文院) 정자(正字) 유숙(柳瀟)이 또 소(疏)를 올려 신의 죄악을 극도로 열거했습니다. 소(疏)는 벌써 이전에 들어갔는데도, 신은 전연 내막을 알지 못하고 태연스럽게 공사(公事)를 아뢰었습니다. 신의 물골이 외롭고 위태로운 것은 이 만해도 알 것입니다. 신이 이 지경이 되도록 논핵(論劾)을 당하였으니, 대신 자리에 함부로 있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진주사(陳奏使)의 봉행 문제는 곧 온 국가의 막대한 일입니다. 생각건대, 죄악이 많아 나라 안에서 가장 버림받은 자를 선

그러나 선조는 여전히 이를 윤허하지 않아, 29일 동성東城 밖에 나가 왕명을 기다리다. 사직서를 올렸으나 윤허하지 않다. 당시 사면초가에 처해 있던 선생을 회지希之 김대현金大賢이 그의 선친의 시집을 들고 찾아와서 보여줌에 7언율시로써 그간의 심경과 우의를 표현하다.⁵⁸⁾

10월 6일, 마침내 진주사陳奏使를 체면遞免하다. 9일, 영의정領議政을 체면하다. 22일, 통제사 이순신李舜臣은 고금도古今島에서 선생이 논핵論劾되었다는 말을 듣고 크게 탄식하다.

11월, 19일에 파직되자, 바로 20일에 남쪽으로 하행下行하다. 22일에 용진龍津을 건너 양근楊根 대탄大灘에서 유숙하다. 이날 선생의 행차가 관직에서 파직되어 전원으로 돌아갈 때, 도미천渡迷遷에 이르러, 삼각산三角山이 보이자, 말에서 내려 네 번 절을 하고 이곳을 떠날 때의 감회를 7언절구絶句로 읊다.⁵⁹⁾

28일, 양근陽根에 사는 인척과 상사上舍 김언수金彦瑋가 각각 쌀 몇 말씩을 내서 노자로 주어, 길은 떠나게 되었으나, 가족家屬들은 다 도보로 따르다. 30일, 충주 금탄金灘에서 유숙하다. 12월1일, 덕산촌德山村에서 유숙하다. 산골길이 좁고 험한데 큰 눈이 몰아치고 날은 또 칙흑처럼 어두워서 지척을 분별할 수가 없었다. 선생은 하인에게 명하여 부싯돌을 쳐서 불을 붙이게 하여, 험한 길을 간신히 지나 덕산촌에 당도하자 밤이 벌써 깊었다.⁶⁰⁾

12월 5일, 태백산 아래 있는 도심촌道心村에 가서 노모를 찾아뵈다. 6일에는 모든 관작官爵이 삭탈되다.

발하여 보내면 무엇으로 황제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으며, 신은 또한 무슨 면목으로 중국 조정의 사대부들을 만나 시비곡직을 변론할 수 있겠습니까. 신이 지금 이 말을 하면 신을 죄주려는 자들은 또 반드시 사행(使行)을 회피한다는 죄목으로 돌릴 것입니다. 사리가 이와 같으니, 사생(死生)과 영육을 구차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58) 「권1·시86」을 참조 바람.

59) 「권1·시87」을 참조 바람. 공교롭게도 선생이 파직된 이 날은 이순신이 명(明)나라 제독 진린(陳璘)과 연합하여 노량(露梁) 해전에서 대승을 거두고 나서, 도주하던 적선을 추격하다가 적의 유탄에 맞아 전사한 날이기도 함. 서에는 이순신의 전사를 애도한 시작(詩作)을 남기고 있다. 「권2·시36」을 참조 바람.

60) 삭탈관직 된 이후, 귀향길에서 지은 시로 보임 : 「권2·시24」 「권2·시25」

1599(선조宣祖 32. 기해己亥)년 58세⁶¹⁾

3월, 옥연서당玉淵書堂에 나가 있으면서 찾아오는 손님을 사절하다. 그들은 선생을 위해 소疏를 올려 억울함을 호소하려 하였으나, 선생은 급히 친한 사람에게 글을 보내 힘써 말리다. 이때 정사精舍에 복숭아꽃이 만발하여, 갑자기 ‘이 물건이 대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此物關我何事), 심체心體는 맑고 뚜렷해야하니 한쪽으로 치우쳐 집착해서는 안 되겠다(心體澄虛不可有偏著)’라고 생각하고, 이어서 시 한 수를 짓다⁶²⁾.

4월, 노모가 도심촌道心村에서 돌아옴에, 노모를 위해 송정松亭에서 조출한 잔치를 베풀다. 대부인은 선생이 관직이 삭탈되었는데도 화염火焰이 여전하다는 말을 듣고 밤마다 첫닭이 울면 반드시 일어나서 의복을 정제한 다음 정화수를 떠 놓고 하늘에 빌었다.⁶³⁾

6월 28일, 직첩職牒을 돌려주었다가 얼마 안 되어 직첩을 도로 회수해 가다.⁶⁴⁾

61) 「권1·시91」과 「권1·시94」의 작시(作詩) 배경 : 선생의 시작(詩作)에 작시(作詩) 년대가 기해(己亥)년으로 명기된 작품 1제(題 : 「권1·시91」)와 기해년으로 추정되는 1제(題 : 「권1·시94」)가 있다. 기해년이니 모두 서애가 58세 때의 작품으로, 이미 이때는 관직에서 파직된 이후의 시기에 속한다. 고로 마땅히 시의 배경이 ‘하회’가 되어야 할 것인데, 모두 태백산과 관련되어 있다. 전자인 「권1·시91」은 태백산 아래에 있는 ‘도심촌(道心村)’이란 민가(民家)이고, 후자인 「권1·시94」는 태백산을 마주하는 ‘서재(書齋)’이다. 「연보(年譜)」에 의거하면, 서애는 이미 지난 해(무술년戊戌年 : 1598), 11월에 관직에서 파직되어 가솔을 데리고 귀향길에 올랐고, 12월에 노모가 계시는 피난지인 ‘도심촌’에 들렀다. 그리고 금년(1599) 2월, 금계金溪에 가서 성묘하고 하회로 돌아왔다는 기록이 보인다.

다시 연보를 보면, 서애는 (1599년) 3월부터 하회에서의 정착을 시작하였으며, 금년 4월에 노모가 도심촌에서 돌아왔고, 선생은 이를 축하드리는 조출한 잔치를 열었다고 되어있다. 그렇다면 최소한 지난 해(1598) 12월에서 금년(1599) 4월 이전까지는 노모의 거처지가 하회가 아닌 태백산 아래의 ‘도심촌’이 되겠다. 아마도 효성이 지극했던 선생은 당시 가솔들은 먼저 하회로 이동시키고 노모는 추운 겨울을 피해 금년 일기 화순한 4월에 하회로 모셔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자니 선생은 노모가 계시는 도심촌에 임시거처를 정해놓고 그곳에서 주로 겨울철을 머물렀던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위의 두 시작(詩作)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두 편의 시작(詩作)을 참조 바람.

62) 「연보年譜」에 이렇게만 기재되어 있어서 시의 실재는 알 수 없음.

63) “내 이들은 집에서는 효자였고 나라에서는 충신이었습니다(吾子在家爲孝子, 在國爲忠臣)”라고 하는 기원을 수십 일동안 기구(祈求)하였음.

9월, 겸암공과 함께 배를 타고 옥연소玉淵沼에서 놀다.

10월, 노모에게 헌수獻壽하다.

성극省克 김홍미金弘微에게 글을 주어 학문을 논하다.⁶⁵⁾

하회에서 선달 그믐날 밤을 보내면서, 지난 해 그믐날 밤엔 태백산 아래 작은 불사佛寺에서 그믐밤을 보내던 정정을 떠올려, 다시明年的 선달 그믐날 밤은 어디에서 보낼 것인가를 생각하는 내용의 시가 보인다.⁶⁶⁾

1600(선조宣祖 33. 경자庚子)년 59세⁶⁷⁾

1월, 옥연정사玉淵精舍에 나가 보허대步虛臺에 소나무를 삼다.

2월에 봄을 맞이하면서 노경老境의 정취를 읊은 시 한 수가 보인다.⁶⁸⁾

3월, 노모를 모시고 옥연정사에 가서 꽃을 구경하다.

64) 선조가 하명하여 직첩(職牒)을 돌려주자 삼사(三司)가 그를 논핵하였음. 선조가 옥당(玉堂)이 올린 차자에 비답(批答)한 것을 보면 : “논핵한 일이 실정에 너무 지나치니, 그 사람이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곁에서 보는 사람도 역시 복종하지 않는다. ‘주화(主和)’ 두 글자로써 탈을 잡아 심지어 진희(秦檜)와 비교하였는데, 진희는 오랑캐의 뜻을 받아들여 처자를 보전하였으며 송(宋) 나라에 잠입하여 금인(金人)을 위해 화친을 도모하여 악비(岳飛) 등을 죽인 인물이다. 지금 류성룡도 왜적의 뜻을 받아들여 남몰래 음모를 통해 그의 처자들을 보전하고 화의를 주장했다는 것인가. 이런 말로써 인심을 승복시키고 국시(國是)를 안정시킬 수 있단 말인가. …… 그리고 중론을 물리치고 한밤중에 사신을 보냈다는 말은 더욱이 말이 안 된다. 그때는 조정의 의논을 널리 모아서 결정했고, 그 조정의 의논은 승정원에서 살피볼 수 있다. 과연 중론을 물리치고 독단으로 보냈다고 할 수 있는가. 하물며 파직된 자가 벌써 세월이 경과했는데 지금 어찌 관직을 복구할 수 있단 말인가.”

65) “지금 사람들은 옛사람이 학문을 논하던 경로에 대해, 견해도 없고 근거도 없으면서 거만하고 자신만만하게 정·주(程朱)를 알잡아 보는데, 나는 일찍이 그러한 것에 대해 탄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누구에게 말해 줄 사람도 없었지만, 말해 주더라도 받아들여서 생각하여 살피려고 하지 않는 데야 어찌겠는가.

도리만 환하게 눈앞에 있을 뿐이니, 아무리 상산(象山)이나 양명(陽明)이 지금 세상에 태어나더라도 내 또한 갑자기 항복을 하라는 깃발을 세우지는 못할 터이니, 하물며 지금 세상에 이른바 술지게미를 먹고 맑은 술을 마시는(餽糟啜醢) 자들이야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그대가 보는 바와 같은 것은 다행히 사리에 어긋나거나 모나지 않으니, 천만번 더욱 힘써서 이설(異說)에 동요되지 않는다면 어찌 교유만이 다행스러울 뿐이겠는가.”

66) 「권1·시110」을 참조 바람.

67) 작시(作詩) 연도(庚子年 : 1600년 : 59세)만 기재된 「권2·시10」의 시가 보인다.

68) 「권1·시112」를 참조 바람.

퇴계선생 연보退溪先生年譜를 편찬하다. 퇴계선생 연보를 편찬 중에 선생이 병중이라, 본 작업에 참여한 김이정金而靜·김사열金士悅을 만나지 못하게 되자, 월색이 아름다운 밤에 7언절구시 4수를 써서 그들에게 보내다.⁶⁹⁾

5월, 옥연서당에 나가 보허대步虛臺에 대나무를 심다.

8월 14일, 겸암謙菴과 함께 금계金溪에 가서 성묘하다. 18일, 보허대를 증축하고 이름을 달관대達觀臺로 고치다.

10월 29일, 『대학大學』을 읽고 느낀 점이 있어 7언절구 10수 「독대학유감 십수讀大學有感十首」를 쓰다.⁷⁰⁾

11월, 직접職牒을 되돌려 받고 7언절구시를 남기다.⁷¹⁾

12월, 13일 서쪽으로 산릉山陵에 가다. 21일 의인왕후 관棺을 동성東城 밖 길가에서 곡송哭送하고 그 날로 돌아오다.⁷²⁾

1601(선조宣祖 34. 신축辛丑)년 60세

3월에는 겸암공이 별세하고, 8월에는 대부인이 별세하다.

69) 「권1·시115」을 참조 바람.

70) 「권2·시8(총 10수)」을 참조 바람.

또한 성극(省克) 김홍미(金弘微)에게 준 글에도 관련내용이 보인다 : “지난 겨울에 『대학(大學)』의 격물설(格物說)을 생각하다가 보다 깊은 깨달음의 경계가 있는 것 같아서, 뜻하지 않게 7언절구 10수를 썼으니 바로잡아 주기를 바라며 지금 그대에게 보낸다. 그 말편(末篇)에, ‘인심(人心)과 도심(道心)이 진실로 다 마음인데, 그것이 인심인 줄 알고 그것이 도심인 줄 아는 그것이 어떤 물건인가? 이 물건이 어둡지 않으면 간명하게 마음을 하나로 집중시키는 공부가 곧 여기에 있다’ 하였는데, 요사이 내가 이 뜻을 생각하여 분명하게 알았다.”

선생은 또 일찍이 말하기를 : “『대학』 한 책에서 요점은 ‘지(止)’ 자 하나에 있다. 뜻은 마땅히 성(誠)에서 멈추어야 하고, 마음은 마땅히 정(正)에서 멈추어야 하며, 몸은 마땅히 수(修)에서 멈추어서, 가정·국가·천하에 이르기까지 만사와 만물이 마땅히 멈추어야 할 곳에서 멈추어야 하는 것이다. 이른바 격물치지(格物致知)도 다만 멈추어야 할 곳을 알아서 (거기에서) 멈추려고 할 뿐이다”라고 하였다.

또 일찍이 ‘논설(論說)’을 지어, 회재 선생(晦齋先生)의 『대학장구보유(大學章句補遺)』에서 경문(經文)의 오류를 검토해 고쳐야함을 언급했다.

71) 「권2·시21」과 「권2·시98」를 참조 바람.

72) 의인왕후(懿仁王后)의 산릉(山陵)에 갔다가 용궁에 들러 생질 이돈(李焞)·이찬(李燦) 형제에게 읊어 보인 시로 「권2·시22」가 있다. 역시 같은 시기의 작품으로 보이는 「권2·시23」도 있다.

12월, 서용敍用의 명이 내리다.

선생이 관직에서 축출되어 3년째 되는 해에 학기學己 승려가 찾아와서 시집 한 권을 보여주자, 불문佛門에 대해 부러워하는 마음이 생겨 장단구長短句 시를 지어 그 시집 후면에 써 주다.⁷³⁾

1602(선조宣祖 35. 임인壬寅)년 61세

4월, 청백리淸白吏로 뽑혀 『염근청백록廉謹淸白錄』에 이름이 오르다.

『영모록永慕錄』을 찬술하다. 서序와 발跋이 있다. 겨울에는 『상례고증喪禮考證』을 수찬하다.

1603(선조宣祖 36. 계묘癸卯)년 62세

10월 삼년상을 마치다. 이때 선생의 나이는 육순이 넘었는데도 상을 당하여서 초상 때부터 장례葬禮와 제사祭祀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일을 막론하고 모두 몸소 처리하고 일찍이 자제에게 대행시키지 않았다.

1604(선조宣祖 37. 갑진甲辰)년 63세⁷⁴⁾

3월, 옥연정사玉淵精舍에서 김성극金省克을 송별하다. 이때 김공이 강릉의 임소로 가게 되자, 선생이 옥연정사에서 그를 송별하면서 술을 두어 잔 마신 다음 일어났다. 김공이 갑자기 개연히 탄식하여,

“선생을 황야에 몰려 나와 계시게 하니 시사時事가 말이 아닙니다.”라고 하자, 선생은 깜짝 놀라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대는 어째서 이런 말을 하는가? 늙은 내가 변변치 못하여 국사를 이 지경에 이르게 하였는데도 성은이 하늘과 같아서 내가 향촌에서 목숨을 연장하도록 해 주셨으니, 지금까지 7년 동안에 털끝만한 것도 다 하늘이 주신

73) 「권1·시92」의 소서(小序)에 있는 2수의 시운(詩韻)에 다시 차운(次韻)하여 지은 것이다.

74) 갑진년(甲辰年 : 1604년 : 63세) 때의 시작(詩作)으로 보이는 것들 : 1월28일에 지은 「권2·시26」, 일자만 29일로 명기된 「권2·시28」, 시문에 직접 63세라고 밝힌 「권2·시41」, 아들 자남(子男)의 요절을 애도한 「권2·시53」, 역시 자남을 회고한 시로 시문에는 죽은 지 반년이나 지났다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보아 거의 비슷한 시기로 보아지는 「권2·시60」 등이 보인다.

것이네.”

이어 오랫동안 눈물을 흘리다가 5언율시 한 수를 지어 뜻을 붙이다.⁷⁵⁾

6월, 옥연정사玉淵精舍를 나간다.

7월, 『징비록懲毖錄』의 저술을 마친다. 다시 부원군府院君으로 서용敍用되고 호성공신扈聖功臣으로 서훈敍勳되다.

9월, 충훈부忠勳府에서 공신功臣인 선생의 초상화肖像畵를 그릴 화가를 보냈으나 나라에 공이 없다고 사양하여 그대로 돌려보내다.

『양명집陽明集』을 읽고 서序와 7언율시詩 2수를 짓다.⁷⁶⁾

-
- 75) 서애가 63세 되던 해에 성극당(省克堂) 김홍미(金弘微 : 1557~1605, 류성룡의 문인)가 옥연정사를 방문했을 때, 선조(宣祖)를 생각하며 읊은 시 : 「권2·시30의 제3수」에 보인다. (본 시는 총 3수임)
- 성군(聖君)의 큰 은혜 한없이 중하거늘,
미천한 이 신하는 과오만 허다하네.
한 마디도 나라에 보답하지 못하고,
만 가지 계책이 모두 어긋나고 말았네.
못 다한 효도 한탄하나 귀향은 너무 늦었고,
궁궐 쪽에 구름 끼어 북쪽이 아득하네.
단지 남은 몇 줄기 눈물이나마,
저 한강물에 부쳐 불까하네.
- 聖主洪恩重, 微臣罪釁多。
一言無報效, 萬計悉蹉跎。
風樹南來晚, 宮雲北望除。
惟殘數行淚, 寄灑漢江波。

- 76) 「권2·시44(총2수)」를 참조 바람.

서(序)의 요약 : “양명과 주자의 학문이 다른 큰 요점은 다만 치지(致知)와 격물(格物) 네 글자에 대해 의견을 별도로 세우는 데에 있다. 주자는 ‘사람 마음의 신령함은 모르는 것이 없고, 천하의 사물은 이치가 없는 것이 없다.’고 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사물에 나아가 이치를 궁구해서 그 앎을 극진히 하게 하였다. 양명은 ‘이치는 내 마음에 있으니 밖에서 찾을 수 없다.’고 하니, 그의 학문을 논하는 것은 한결같이 양지(良知)를 위주로 한다.

「연보」상에 보면, 어떤 사람이 “양명의 본심설(本心說)이 가정(嘉定) 무렵 문의(文義)의 폐단을 구제할 수 있었습니까?”라고 묻자, 선생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옛 사람이, 불에 피로워하는 자를 보고 문득 그로 하여금 물에 뛰어들게 하였는데, 물과 불이 비록 다르긴 하지만 사람을 죽이기는 마찬가지이다. 양명이 송(宋) 나라 말엽 문의의 폐단을 바로잡으려고 오로지 본심설을 주장하였으나, 그 유편이 도리어 문의의 폐단보다 더 심한 점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다.”라는 대목이 보인다. 서애

1605(선조宣祖 38. 을사乙巳)년 64세

1월, 「지행설知行說」을 짓다.⁷⁷⁾ 「지행합일설知行合一說」을 짓다.

가 『양명집』을 읽고 느낀 바가 가 있어서 쓴 두 수의 시를 옮기면 다음과 같다 :

제1수(양명학설을 논박하다) :

양명은 논설마다 “마음이 곧 이치이다”고 하면서,
“이치는 내 마음에 있지 책에 있지 않다”고도 하였네.
사람이 비록 입이 있어 맛을 알 수 있다고는 하지만,
곰발바닥과 생선 맛을 보고 구분해야 생소하지 않다네.
(사물의) 도는 만 갈래로 다르거늘 하나의 이치로 귀결시키다니,
영토가 호월(胡越)로 (남북으로) 나뉘었어도 다 내 집이란 격일세.
지금 천하는 홍수가 극심하여 산릉(山陵)까지 차 오르는데,
애닭다 누가 다시 메인 개울바닥 파내 물길 띄울꼬
陽明每說心爲理，理在吾心不在書。
人雖有口能知味，味辨熊魚始不疎。
道有萬殊歸一法，地分胡越儘吾廬。
如今天下懷襄甚，惆悵何人更鑿疏。

제2수(세속적 학문을 바로 잡고 내 자신을 경계하다) :

가정년간(嘉定年間)에 세속적 학문의 폐단은,
지엽적인 문제에 너무 집착했음일세.
오직 주례(周禮)만이 천하를 공고히 한다면서,
정전(正殿)은 돌보지 않고 진종일 비워뒀다네.
깊은 곳 비추는 것은 한 치의 거울임을 잊지 말아야하며,
배를 갓 띄우려 할 땐 필히 반듯 바람 받아야지.
저 시골벽적인 세상 어두운 데를 살피려면,
한결같이 자성(自省)해야 효험을 보리라.
嘉定年間末學弊，尋枝摘葉儘無窮。
徒聞姬轍周天下，不顧明堂盡日空。
燭幽莫忘徑寸鑑，行船須倚半帆風。
看他擾擾昏昏地，一念回光便見功。

77) 서애가 쓴 「지행설(知行說)」의 내용 :

“성현의 학문이 비록 실행에 중점을 두지만 아는 것을 더욱 귀하게 여기는 것은 아무리 독실하게 행한다 하더라도 아는 것이 지극함에 이르지 못하면, 습득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행실이 주도면밀하지 못하면 끝내는 정미한 곳을 통하여 극치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른바, 옛사람이 안다는 것은 참으로 아는 것이기 때문에 ‘아침에 도를 터득하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하였다. 그런데 오늘날은 언어 문자의 말단에서 주위 모은 것으로 성리(性理)를 논하고도 스스로 안다고 여겨, 조금도 심신(心身)과 연관을 시키지 않는 자들은 다 덕(德)을 포기한 사람이다. 그런 데 이것을 안다고 하니, 차이가 어찌 천리뿐이겠는가.”

왕양명王陽明이 ‘지·행知行을 합해서 하나’라 하여, 주지朱子의 학설을 극력 반박하였는데, 선생이 이 설을 지어서 해명하다.

3월, 봉조하奉朝賀⁷⁸⁾의 녹봉을 사양하는 소疏를 올렸으나 윤허되지 않다.

4월 24일, 큰아들 여櫛가 죽다. 제문祭文과 행장行狀이 있다.

9월, 서미동西美洞(지금의 경북 안동시 풍산읍豐山邑 소재)으로 이사하다.

이때 하회마을이 홍수가 나서 수목樹木이 없어지고 바람이 거세어 요양하기에 불편하고 또한 손님의 방문도 번거로워서 선생은 하회를 떠나 이곳 학가산鶴駕山 산속에 위치한 서미동으로 이사를 하다.⁷⁹⁾

김성극金省克의 부음을 듣고 곡하다. 김공이 문학에 조예가 있으므로 선생의 사랑을 받았다. 이때 강릉 입소에서 죽자, 그를 애도하며 7언절구 한 수를 짓다.⁸⁰⁾

『제왕기년록帝王紀年錄』을 짓다.

1606(선조宣祖 39. 병오丙午)년 65세

3월, 서미동西美洞에 초당草堂을 짓다. 초당은 겨우 3칸으로 구조도 매우 꾸밈이 없고 누추하였으나, 선생은 거기에 거처한 것을 기쁘게 생각하여 ‘농환弄丸’으로 이름을 붙인다.⁸¹⁾

78) 봉조하(奉朝賀) : 전직 관원을 대우하여 중2품 이상의 관원에게 사임한 뒤에 특별히 준 벼슬. 실제 사무는 보지 않으며, 다만 의식이 있을 때에만 관청에 나가서 참여하고 종신토록 녹봉을 받음.

79) 『권2 시집』에는 하회에서 서미동(西美洞)으로 이사를 한 이후의 시가 적지 않게 보인다. 이를 테면 「권2 · 시75」, 「권2 · 시79」, 「권2 · 시80」, 「권2 · 시82」, 「권2 · 90」, 「권2 · 시91」, 「권2 · 시101」 등이 있음.

80) 「권2 · 시76」 : 이외에도 「권2 · 시78」도 참조 바람.

북풍이 노호(怒號)하며 서쪽 숲을 흔들더니,
천 리 밖의 서신 와서 슬픈 소식 전하네.
백발의 늙은이 나 홀로 남게 되었으니,
누구와 다시 흥금을 토로해야 할지 모르겠네.

朔風號怒動西林，千里書來報惡音。

白首人間惟我在，不知誰與更論心。

81) 서미동(西美洞)에 초당을 짓고 나서 자제를 훈계한 내용 :

일찍이 자제에게 이르기를 : “사람이 이익에 빠져서 염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까닭은 다 자족함을 알지 못한 데에서 나온다. 이 집이 비록 협소하지만, 그래도 비바람을

선생의 차자次子인 단褌이 『심경心經』⁸²⁾을 배우기를 요청하자 선생이 기쁘게 생각해서 「조명설鈞名說」⁸³⁾을 짓다.

『성유록聖諭錄』 후면에 발문을 쓰다. 선생이 차례로 받은 비답批答과 교지敎旨를 한데 모아 한 책으로 만들어 ‘성유록’이라 이름하고, 그 뒷면에 발문을 짓다.⁸⁴⁾

12월 11일, 병을 무릅쓰고 망매亡妹 숙인淑人의 여친旅櫬(객지에 있는 관棺)을 신양리新陽里에 곡송哭送하고 돌아온 후 병이 악화되다. 그러나 오히려 새벽부터 일어나 관대冠帶를 하고 외당外堂에 나가 자제들과 함께 『퇴도선생문집退陶先生文集』을 교정하며 의리를 강론하다가 간혹 한밤중이 되기도 하다. 또는 문집의 편질이 방대하여 강구講究하기가 어려울까 하여 『주자서절요朱子書節要』의 예례를 모방하여 약간 절목節目을 덜어 별도로 한 질을 만들어 후학들이 읽기에 편리하도록 하려고 했으나, 병으로 이루지 못하다.

『퇴계선생문집退溪先生文集』을 교정하고 의리를 강론하다.

가리고 추위와 더위를 넘기며 이곳에서 지낼 수 있으니, 이 이상 더 무엇을 바라겠느냐. 무릇 사람이 자기가 처한 곳에서 걱정하거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어느 곳인들 살지 못하겠느냐.”

82) 『심경(心經)』: 중국 송대 진덕수(眞德秀)가 경전(經典)과 송대 도학자들의 저술에서 심성수양에 관한 격언을 모아 편집한 책으로 총 4권 중 권1, 2이다. 내용은 『서경』 1장, 『시경』 2장, 『역경』 5장, 『논어』 2장, 『중용』 2장, 『대학』 2장, 『예기·악기』 3장, 『맹자』 12장으로 총 29장과 송대 도학자들의 글인 주돈이(周敦頤)의 「양심설(養心說)」과 「통서(通書)」, 「성가학장(聖可學章)」, 「정의」 등 7편이 실려 있다. 진덕수는 이 명문들에 송대 유학자들의 논의들을 주석으로 삼았으며, 자신의 「심경찬(心經贊)」 1편을 덧붙였다.

83) 선조가 즉위하면서 유술(儒術)을 높이고 장려하여 『심경(心經)』·『근사록(近思錄)』 등이 유행했는데 발탁된 기로(耆老: 60세 이상의 노인)들이 죽자 그런 풍조가 변하면서 『심경(心經)』과 『근사록(近思錄)』이 명예를 낚는 미끼라고 불리게 된 세태에 대하여, 느낀 바가 있어 정리한 논설이다.

84) 『성유록(聖諭錄)』의 발문(跋文):

“소신이 변변치 못함에도 성상의 끝없는 은혜만 입고 한 가지도 보답하지 못한 채, 끝에 와서 많은 죄과만 저질러 이토록 낭패하였는데도, 오히려 목숨을 보전하여 시골에서 생활하는 것은 성상의 넓고 큰 은혜가 아님이 없습니다. 그러나 소신의 개미 같이 미약한 정성을 끝내 바칠 날이 없기 때문에, 삼가 평일에 받았던 교지를 수록하여 한 책을 만들어 아침저녁으로 공경히 절하고 읽기를 바라니, 슬프고 또 감격해서 스스로 멈출 수가 없습니다.”

1607(선조宣祖 40. 정미丁未)년 66세

1월 29일, 허노재許魯齋 형衡의 시를 써서 자제들에게 보여 주며 종신토록 마음에 새기도록 당부하다.⁸⁵⁾

2월 12일 시 한 수를 지어서 자제들에게 보여 주다.⁸⁶⁾

3월, 선생의 병보病報에 접한 선조宣祖는 내의內醫를 보내어 병환을 살피게 하다. 하루는 아들 진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다.

“죽고 사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내가 어찌 죽음을 서러워하여 마음이 동요되는 사람이겠느냐. 오직 나라를 향한 일념만이 죽을 때까지 잊기 어려울 뿐이다.”

형묘의 아들 의綺에게 명하여 유계遺戒를 쓰게 하다.⁸⁷⁾

병중에 지은 시를 엮어 『관화록觀化錄』이라 명명命名하다.

5월 6일, 향리鄕里 농환재弄丸齋 초당에서 운명殞命하다.

-
- 85) 서애가 훈계할 때 인용한 이 시구는 원(元)나라 주자학의 대가(大家) 허형(許衡 : 1209~1281 : 자字는 노재魯齋)의 시로 다음과 같음 :

만 가지로 보양하는 것은 다 허위이고,

조심하는 것만이 중요한 법이다.

萬般補養皆爲僞，只有操心是要觀。

- 86) 서애가 자제들을 훈계한 시 : 『서애전서(西厓全書) 권3』 『관화록(觀化錄)』에 보인다.

숲 속에 새 한 마리 쉬지 않고 우는데,

문밖에는 짹짹 장작 패는 소리 들리네.

만물의 원기(元氣) 모였다 흩어지는 것도 공교로우나,

단지 한스러운 것은 평생 부끄러운 일 많이 한 것일세.

권하노니 자손들이 꼭 삼가 하여라,

충효 밖에 달리 해야 할 일이 없는 것임을!

林間一鳥啼不息，門外丁丁聞伐木。

一氣聚散亦偶然，只恨平生多愧怍。

勉爾子孫須慎旃，忠孝之外無事業!

- 87) 서애의 유계(遺戒) : “너희들이 착한 일을 힘써 생각하고 힘써 행한다면 가세(家世)를 대체로 보전할 수 있다. 나는 세상에 공덕이 없었으니 죽으면 마땅히 검소하게 장사 지내라. 남에게 청해서 비명(碑銘)을 짓지 말고 만장(輓章)도 스스로 만들어서 보내 준 것만 쓰도록 하라. 또한 가업을 지키는 데는 스스로 체통(體統)이 있어야 하니 문란하게 하지 마라. 효성(孝誠)과 화목은 곧 가업을 지켜 나가는 도리이고, 상례(喪禮)와 제례(祭禮)는 오직 정성과 공경에 있으니 풍성하게 장만하는 것에 힘쓰지 말라.”

부음이 서울에 전해지자 항곡巷哭이 일어났으며 1,000여 백성이 선생의 옛 집터에 모여 통곡하고 조정에서는 3일 동안 공휴公休를 선포하고 상민들은 자진하여 4일 동안 철시撤市하였다. 풍산현豐山縣 수동壽洞에 예장禮葬하다. 선조가 예조좌랑禮曹佐郎 구혜具惠에게 치제致祭토록 하다.

선생은 일찍이 말하였다.

“내가 평생에 세 가지 한이 있다. 군친君親의 은혜를 보답하지 못한 것이 한 가지 한이고, 작위爵位가 너무 분에 넘치는 데도 일찍 물러서지 못한 것이 두 가지 한이며, 망령妄靈되게도 도道を 배울 뜻이 있으면서도 이루지 못한 것이 세 가지 한이다.” 라고

1610(광해군光海君 2, 경술庚戌)년 :

조선 선조 재위시의 명재상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 : 1542~1607)의 사후, 1610년에 이 풍악서원豐嶽書院의 서당을 바탕으로 하여 서원을 건립하고 류성룡 선생을 향사享祀한 것이 지금의 병산서원屏山書院이다.

1614(광해군光海君 6, 갑인甲寅)년 :

병산서원屏山書院에 위판位版⁸⁸⁾을 봉안하였으며, 그 뒤에 남계서원南溪書院, 여강서원廬江書院, 삼강서원三江書院, 도남서원道南書院, 빙산서원氷山書院 등에 도 위판이 봉안되다.

1627(인조仁祖 5, 정묘丁卯)년 :

문충공文忠公의 시호諡號가 하사下賜되다.

위의 「서애연보西厓年譜」초록은 하회본 『서애전서西厓全書』 간본刊本篇 본집本集 권1卷一을 저본底本으로 하였으며, 아래의 자료를 참조하였음.

1. 류성룡 저, 민족문화추진회 편, 『국역 서애집 II』, 솔 출판사, 1977년.

88) 위판(位版)또는 위패(位牌)는 자식이나 후손들이 많을 때 목판에 관직성명을 써 놓고 집에서 받드는 것이다.



찾아보기

가(可)	534	강(强)	72
가(家)	246, 250	강계(疆界)	571
가(歌)	31	강교(江郊)	188
가기(佳氣)	212	강군(江君)	235
가소(可笑)	334	강릉(江陵)	500
가신(佳辰)	533	강비(糠枇)	228
가여(可與)	345	강상(江上)	108, 385, 398
가완(可玩)	493	강수(强首)	183
가인이(可人耳)	457	강심경(江心鏡)	256
가장(可藏)	384	강우(江雨)	510
가적(可覲)	333	강유(剛柔)	113
가정(嘉定)	317	강이(康夷)	14
가정이후(嘉定以後)	317	강한(江漢)	147, 325
각(脚)	325	개(開)	342
간(間)	215, 520	개두환면(改頭換面)	320
간기(間氣)	556	개래(開來)	37
간변(澗邊)	506	개안(開顔)	444
간빈(澗濱)	8	객(客)	494
간위(艱危)	204	객로(客路)	222
간저(澗底)	538	객조(客嘲)	99
간죽문(看竹門)	386, 409	갱(更)	496
간찰(簡札)	501	갱논심(更論心)	496
간취(看取)	133	갱일중(更一中)	444
감(感)	429	거경(居敬)	29
감구(感舊)	40	거국(去國)	183
감사(感事)	204, 573	거령(巨靈)	391
감소(堪笑)	446	거분식(去粉飾)	332
감작강군(甘作江君)	235	거세(舉世)	115
감찬궁(甘泉宮)	238	거수(據守)	182
감회(感懷)	344	거연(居然)	288
갑병(甲兵)	250	거우(居憂)	434
갑병수(甲兵手)	250	거자(去者)	421

간곤(乾坤)	211	고담(高談)	56
검(黔)	493	고대(高臺)	237
검봉(黔峯)	493	고도(古道)	534
격(隔)	584	고려 말기의 정치적 몰락 상황	563
격물(格物)	48	고로(孤露)	440
격물치지설(格物致知說)	48	고로(故老)	212
격자(格字)	67	고립무원(孤立無援)	214
격치(格致)	51	고명(孤明)	132
건공(見功)	323	고명(高名)	556
결자(結子)	537	고명(高明)	467
겸(謙)	389, 390	고범(孤帆)	93
겸괘(謙卦)	389	고사(古寺)	404
겸암(謙巖)	388	고상(翱翔)	118
겸암(謙菴)	388	고수(高樹)	520
겸암사(謙巖舍)	387	고숙(姑熟)	379
겸암정사(謙巖精舍)	387	고숙계(姑熟溪)	379
경(局)	504	고숙십영(姑熟十詠)	379
경결(更結)	444	고신(孤臣)	214, 224
경경(耿耿)	344	고와(高臥)	494, 512
경도(驚濤)	384	고인(故人)	14
경랑(驚浪)	384	고전(股戰)	21
경복(傾覆)	384	고정(考亭)	32
경사(京師)	3	고조(孤鳥)	447
경세월침(驚歲月侵)	523	고죽(苦竹)	249
경예(鯨鯢)	21, 264	고침(高枕)	74, 512
경의(鯨鯢)	214	고풍(高風)	580
경자(庚子)	426	고하(高下)	381
경작(更作)	271	곡(曲)	355, 387, 541
경촌간(徑寸鑑)	322	곡강(曲江)	337
계곡(溪曲)	520	곡강삼장(曲江三章)	337
계랍(繫纜)	384	곡구(谷口)	345
계변(溪邊)	506	곡자(哭子)	562
계선암(繫船巖)	383	곡학(曲學)	452
계수변(溪水邊)	506	곡학아세(曲學阿世)	452
계유(癸酉)	434	곤(困)	13
고(膏)	569	곤륜(崑崙)	160
고거(高居)	407	곤륜산(崑崙山)	160
고금도(古今島)	262	곤양 결전(昆陽決戰)	19

곤옥(崑玉)	426	구복(口腹)	94
곤유(坤維)	14	구산(丘山)	216
곤축(坤軸)	17, 80	구애(久愛)	522
공(公)	565	구업(口業)	537
공(空)	253, 383, 420	구업(舊業)	228
공결한(工結恨)	152	구우(驅雨)	436
공경(公卿)	147	구우식(九遇食)	289
공량(空梁)	229	구일(九日)	529
공산(空山)	534, 574	구제시(舊題詩)	517
공손홍(公孫弘)	451	구진(求真)	420
공수만(空輸萬)	186	구천(九天)	21, 356
공자(孔子)	157	구천(九泉)	392
공작(共作)	443	구치(驅馳)	215
과비자(夸毗子)	5	구형(癯形)	273
과직(過直)	320	국공(國公)	142
관도(官渡)	64	군(君)	519
관도지전(官渡之戰)	64	군불견(君不見)	264
관동(關東)	241	군혼제(羣昏際)	132
관문(關門)	163, 204	궁(窮)	61, 114, 164, 382, 581, 589
관심(關心)	70	궁거(宮車)	242
관진(關津)	186	궁리(窮理)	30
괄목(刮目)	207	궁사(窮事)	581
광괴(光怪)	18	궁시(窮時)	589
광무제(光武帝) 유수(劉秀)	19	궁촌(窮村)	446, 516
광흥창 주부(廣興倉注簿)	389	권(倦)	280
교릉(喬陵)	171	권간손(權良孫)	439
교봉(交鋒)	236	권강(權扛)	279
교아(嬌兒)	578	권비(倦飛)	447
교왕(嬌枉)	320	권비고조(倦飛孤鳥)	447
구(構)	264	권진손(權震孫)	439
구(求)	8	궤(賁)	195
구(驅)	13	궤안(几案)	491
구가(九街)	213	귀(歸)	321, 588
구각(軀殼)	423	귀감실(鬼瞰室)	468
구경법(究竟法)	569	귀래(歸來)	333
구교(舊交)	406	귀안(歸鴈)	72
구련(拘攣)	114	귀일(歸一)	588
구병처(救病處)	51	귀일법(歸一法)	321

규중(規中)	273, 275	김윤명(金允明)	443, 446
균룡(筠籠)	537	김창원(金昌遠)	222
균지(菌芝)	13	김홍미(金弘微)	495
극(極)	209	김홍미(金弘微)-	222, 223
극목(極目)	241, 382	괘 나무	432
근골(筋骨)	34		
금계재사(金溪齋寺)	415	나(那)	380
금구(金甌)	218	나가득(那可得)	228
금궐(金闕)	212	나감(那堪)	526
금기(襟期)	72, 501	나득(那得)	4, 152
금등(金滕)	36	나이득(那易得)	541
금마문(金馬門)	96	낙낙(落落)	74
금성(金城)	185	낙영(落英)	566
금장(金章)	228	낙일(落日)	554, 581
금탄(金灘)	175	낙지금(落地金)	522
금호대(金虎臺)	252	낙천(樂天)	193
금환(金丸)	537	난(關)	386
금회(襟懷)	332	난(鸞)	196
기(其)	320	난교(鸞膠)	185
기(譏)	451	난기(難記)	426
기고(奇古)	434	난만(爛熳)	401
기리(饑羸)	214	난명(難名)	571
기린(麒麟)	217	난봉(鸞鳳)	33
기멸(起滅)	80, 132	난산(亂山)	72
기북류(寄北流)	177	난천(亂蟬)	520
기상(淇上)	249	난시(難時)	284
기시(幾時)	368	난심(亂心)	581
기여연(寄閭閻)	212	난안(板顔)	582
기장(飢腸)	364	난저(難着)	380
기지(基址)	41	남도(南渡)	139
기차(其次)	354	남산(南山)	280
기하(幾何)	254	남하(濫荷)	215
금동강(金東岡)	227	남한강(南漢江)과 달천(達川)	175
금부(金類)	362	낭묘(廊廟)	186
김사열(金士悅)	74	낭천(狼川)	454
김생(金生)	183	내(乃)	3, 236, 237
김생명(金生溟)	362	내(內)	421
김안음(金安陰)	515	내(酒)	210

내생(來生)	368	다정(茶鼎)	342
내이하(奈爾何)	134	단거(端居)	8
내자시 주부(內資寺主簿)	389	단경(丹經)	119, 504, 587
내하(奈何)	250	단구(丹丘)	113
냉냉(冷冷)	13	단단(團團)	90
노(奴)	342	단도(但道)	149
노(老)	441	단도제(檀道濟)	334
노(魯)	148	단발(短髮)	409, 577
노거(老去)	573	단사(丹砂)	223
노대년(老大年)	196	단사(短詞)	501
노도(怒濤)	384	단산서원(丹山書院)	559
노두(老杜)	151, 338	단양호(丹陽湖)	379
노루(老淚)	285	단위(宣爲)	37
노부(老夫)	196, 537	달관대(達觀臺)	381
노어(鱸魚)	94	달인(達人)	422
노일인(老一隣)	441	담(潭)	380
노자(老子)	123	담설(談舌)	210
노자(老子)의 자(字)	119	담심(談心)	496
노혈(虜穴)	144	당(唐)	139
노홍중(盧弘仲)	352, 525	당(堂)	406
녹사(綠蓑)	466	당(當)	250
녹충(鹿葱)	435	당년(當年)	550
논심(論心)	496	당두노(堂頭老)	406
농가(籠駕)	320	당상(堂上)	108
농월(弄月)	384	당채(棠棣)	432
농환가(弄丸歌)	78	당화(棠花)	432
농환의 내용	79	당~시(當~時)	435
누천(屢遷)	277	대(岱)	149, 158
능(菱)	383	대강(大江)	541
능고흠대(陵高欠臺)	379	대강곡(大江曲)	541
능기하(能幾何)	254	대갱(大羹)	84
능주(能注)	279	대구(大舅)	242
능파대(凌波臺)	193, 382, 500	대도(大途)	325
능풍(凌風)	4, 118	대량(大梁)	243, 244
다(多)	280	대량(戴良)	5
다문(多門)	420	대량사절(大梁使節)	243
다병궁(多病空)	523	대명동(大鳴東)	561
		대법(大法)	37

대붕(大鵬)	271	도착(倒着)	490
대서(大暑)	462	도현령(陶縣令)	333
대수(對睡)	490	도홍경(陶弘景)	334
대수가(大隧歌)	245	도화원(桃花源)	118
대양천(大樣天)	326	도화천(桃花遷)	385
대우(大雨)	17, 436	독(獨)	24
대우(大雨)와 관련된 이위공(李衛公)의 전설	22	독거(獨去)	510
대우행(大雨行)	17	독득(獨得)	317
대월(對月)	256	독상(獨傷)	516
대월(待月)	189	독옹(禿翁)	446
대윤(大尹)	32	독유(獨有)	546
대학(大學)	48	독점간(獨霽巾)	507
대화(大化)	10, 420	독지(篤志)	359
택(宅)	206	독포(獨抱)	523
도(倒)	490	독향(獨向)	428
도(徒)	250	돌돌괴사(咄咄怪事)	271
도(道)	54, 58, 321	돌올(突兀)	382
도곡(陶穀)	184	동(同)	509
도교(道教)	119	동(東)	561
도교의 사상연원(思想淵源)	120	동경(東京)	565
도교의 호흡조절을 통한 수행법	416	동경(銅鏡)	424
도교의 호흡조절을 통한 수행법: 복기(服氣: 태식<胎息>)	416	동도(東都)	31
도덕경(道德經)	123	동두일편석(東頭一片石)	264
도령(陶令)	333	동리(東籬)	566
도문(徒聞)	322	동문(洞門)	493
도사(陶沙)	541	동방삭(東方朔)	95
도사(道士)	123	동산(東山)	148, 270, 519
도사(陶詞)	184	동산령(東山巔)	536
도서단경(道書丹經)	123, 126	동산자(東山子)	270
도연명(陶淵明)	331, 566	동산죽(東山足)	536
도유만수(道有萬殊)	321	동상(東廂)	162
도은(陶隱)	396	동유출(動愈出)	83
도잠(陶潛)	333, 566	동자(童子)	527
도잠(陶潛) 도연명(陶淵明)	331	동자관(童子觀)	157
도절(徒切)	237	동작대(銅雀臺)	251
도진(道眞)	8	동정(動靜)	134
		동지(同知)	439
		동풍(東風)	222

동한(東漢) 말기의 정치적 몰락 상황	562
두(斗)	447
두(杜)	348
두각(斗覺)	447
두견새	432
두견새(杜鵑鳥)	431
두노(頭老)	406
두릉(杜陵)	349
두숙(斗粟)	245
두실(斗室)	13
두우(杜宇)	431
두죽(豆粥)	363
득견(得見)	195
득상(得喪)	152, 288
득시(得時)	13
득실(得失)	421
등반(登攀)	280
등화(燈火)	569
락(樂)	534
란(關)	285, 387
람(攬)	345
래왕(來往)	131
래자(來者)	421
래자(來自)	14
려(廬)	434
력(力)	359
로(老)	533
뢰(賴)	447, 509
뢰정(雷霆)	18
료(了)	288
료(聊)	534
료가(聊可)	382
루교잔묵(淚交殘墨)	501
루안(淚眼)	516
류공권(柳公權)	34
류기(柳椅)	455
류운룡(柳雲龍)	41, 388

류진(柳珍)	587
류침(柳檐)	449
리(理)	332, 572
리(贏)	530
마름	383
마탁(磨琢)	54
막막(漠漠)	113
만(晩)	447, 526, 580
만(輓)	227, 515
만경(萬頃)	384
만계(萬界)	571
만림(滿簾)	397
만리장성(萬里長城)	145
만리풍(萬里風)	462
만만(萬萬)	14
만목(滿目)	235
만법(萬法)	420
만벽(晩碧)	498
만사이황발(萬事已黃髮)	348
만산(滿山)	465
만상(萬象)	113, 132
만서(漫書)	38
만석(晩石)	171
만수(萬殊)	321
만종(晩從)	237
만종(萬鐘)	467
만초(蔓草)	152
만침기(謾侵欺)	67
말(襪)	383
말학(末學)	319
말학지폐(末學之弊)	319
망(亡)	119
망(忘)	273
망거(忘去)	386
망망(茫茫)	135, 340, 512, 554
망부산(望夫山)	379
망사대(望思臺)	232

망양(亡羊)	218	무내(無乃)	320, 385
망우초(忘憂草)	435	무단(無端)	72, 574
망중(望中)	493	무론(無論)	5
망형(忘形)	387, 490	무뢰(無賴)	146, 186
맥맥(脈脈)	105	무루(蕪蓼)	363
명(明)	512	무루죽(蕪蓼粥)	363
명(鳴)	561	무사(無事)	536
명막(冥漠)	368	무사(無似)	214
명명(冥冥)	18, 93, 109, 385, 493	무색계(無色界)	386
명물(名物)	70	무술(巫術)	121
명발(溟渤)	204	무실(無實)	5
명색(明色)	380	무양(無恙)	439
명정(醞酐)	533	무여(無與)	340
모(暮)	512	무여조(無與曹)	340
모금(暮禽)	280	무역(無戮)	359, 546
모모(暮暮)	537	무유(無由)	3
모모조조(暮暮朝朝)	537	무장(撫掌)	364, 491
모사(茅舍)	340	무조탁(無彫琢)	333
모산(茅山)	335	무처(無處)	188
모생(謀生)	541	묵묵(默默)	134, 590
모암(茅庵)	186	묵화(墨花)	35
모우(母憂)	67	문(聞)	3, 219, 495, 500
모우인적(母憂認賊)	67	문도(聞道)	89, 160, 358, 407
모자(茅茨)	24	문무유(聞無由)	3
목로(牧老)	561	문숙(文叔)	364
목은(牧隱)	559	문숭(蚊蟲)	13
목필(木筆)	506	문정(門庭)	70
몽은(蒙恩)	167	물아(物我)	458
묘(杳)	382	미간(楣間)	35
묘결(妙訣)	420	미망(微茫)	190
묘당(廟堂)	217	미미(微微)	581
묘망(杳茫)	171	미미(瀾瀾)	207
묘망(渺茫)	501	미방담(味方淡)	84
묘묘(杳杳)	135	미생(微生)	507
묘아(卯兒)	449	미신인(美新人)	452
묘연(杳然)	459	미연(靡然)	316
무고의 난(巫蟲之亂)	232	미월(微月)	10
무공주(無孔珠)	90	미응(未應)	426

미응연(未應然)	426	백료(百僚)	213
미진(微塵)	424	백륜건(白綸巾)	490
미철불우(靡哲不愚)	144	백리간(百里間)	520
민면(鰓勉)	216	백만(百萬)	18
박 망후(博望侯)	159	백물(百物)	14
박모(薄暮)	74	백수(白首)	167, 439
박상(朴祥)	180	백씨(伯氏)	41
박선생상(朴先生祥)	183	백아(伯牙)	524
박승임(朴承任)	469	백오(白鳥)	205
박전(薄田)	342	백일(白日)	113
박창세(朴昌世)	180	백장(百丈)	435
박환(薄宦)	516	백척고대(百尺高臺)	251
반근(盤根)	392	백천(百千)	80, 214
반도~삼천겁(蟠桃~三千劫)	89	백혼두(白渾頭)	177
반벽(半壁)	392	백홍관일(白虹貫日)	208
반생(半生)	381	번장(翻漿)	118
반석(盤石)	421	범수(范睢)	244
반숙(伴宿)	415	범순인(范純仁)	484
반야(半夜)	347	범충선(范忠宣)	484
반야한성입몽장(半夜寒聲入夢長)	171	법문(法門)	477
반연(攀緣)	161	벽(闢)	320
반원유(反遠遊)	156	벽간(壁間)	426
반저(盤渚)	183	벽곡(辟穀)	117
반타(盤陀)	435	벽도수(碧桃樹)	400
방거수래(放去收來)	89	벽라의(薛蘿衣)	335
방술사(方術士)	122	벽려(薛荔)	465
방준(芳樽)	443	벽려의(薛荔衣)	465
방진(芳辰)	491	벽리(壁裏)	516
배우(俳優)	100	벽수(碧樹)	462
배회(徘徊)	382	벽합(闢闔)	81
백거이(白居易)	193	변경(汴京)	140
백구조(白鷗鳥)	345	변비(邊鄙)	217
백낙천(白樂天)	193	별(別)	368
백년(百年)	421	별좌(典艦司別坐)	389
백련(百鍊)	256	별취(撇取)	541
백련경(百鍊鏡)	424	병각(病脚)	530
백로(白露)	347	병여(病餘)	504
		병엽(病葉)	106

보운(步韻)	576	분분(紛紛)	5
보허사(步虛詞)	114	분소(分疏)	363
복(腹)	80	분촌(分寸)	358
복기(服氣)	416	분파(奔波)	270
복기조식(服氣調息)	416	분혼(氛昏)	380
복석(復惜)	24	불감(不堪)	517, 577
본말자(本末字)	59	불계(不戒)	209
봉(鳳)	196	불교의 호흡조절을 통한 수행법	416
봉두(峯頭)	326	불량(不量)	271
봉래(蓬萊)	89, 118	불방(不妨)	164
봉식(封植)	196	불부춘(不復春)	440
봉인(逢人)	447	불승(不勝)	580
부(否)	195	불여(不如)	270
부(覆)	195	불위(不違)	589
부(賦)	277, 428	불이(不二)	474
부구(浮漚)	288	불이문(不二門)	472
부년(當年)	359	불이법문(不二法門)	472
부도(浮屠)	419	불인(不忍)	397
부도(不道)	254	불일(不一)	367
부독(不獨)	37	불칭(不稱)	157
부량(傅亮)	141, 144	불답(佛榻)	415
부병(扶病)	72	불평(不平)	108
부상(扶桑)	88	불평성(不平聲)	108
부세(浮世)	176, 447	붕도(朋徒)	545
부수(負手)	387, 538	붕도이태산(朋徒已怠散)	545
부양(俯仰)	397	비(非)	569
부용(芙蓉)	465	비(飛)	279
부운석(賦雲石)	277	비경(飛鏡)	190
부윤(府尹)	31	비궁(飛鞚)	114
부음(訃音)	496	비단백(鼻端白)	416, 422
부읍(俯挹)	288	비력(費力)	545
부적(不適)	534	비식여뢰(鼻息如雷)	489
부침(浮沉)	132	비우(備雨)	466
북극(北極)	224	비풍(悲風)	145
북담(北潭)	41, 380	비환(悲譴)	288
북류(北流)	177	빈구(貧窶)	289
분경(奔鯨)	204	빈사(鬢絲)	515
분륜(紛綸)	80	빙수(憑誰)	385

빙옥(氷玉)	387
빙정대(氷井臺)	252
뿌리줄기	105
사(事)	75
사(瀉)	383
사(謝)	114, 561
사(賒)	135, 225
사객(謝客)	489
사공택(謝公宅)	379
사광(師曠)	316
사기(事幾)	182
사달(辭達)	325
사략(史略)	450
사망(邪妄)	67
사복시 첨정(司僕寺僉正)	389
사사(事事)	56
사유(四維)	37
사의(思議)	571
사직(社稷)	204, 242
사청(乍晴)	510
사포서 별제(司圖署別提)	389
사풍(斜風)	183
사합(四合)	18
사해(四海)	270
사호(絲毫)	216
삭풍(朔風)	496
산 앵두	432
산 앵두나무	432
산군(山郡)	182
산신(酸辛)	491
산이스랏 나무	432
산인(山人)	419
산일(山日)	429
산적(散翟)	182
산족(山足)	536
살수(薩水)	216
삼계(三界)	386

삼광(三光)	381
삼도(三都)	182
삼산(三山)	113
삼삼(三三)	183
삼순(三旬)	289
삼십육(三十六)	81
삼오야(三五夜)	273
삼접(三接)	215
삼천겁(三千劫)	89
삼천삼백(三千三百)	317
삼촌설(三寸舌)	74
삼춘(三春)	446
삼(颯)	578
삼삼(颯颯)	345
삼연(颯然)	13
상(上)	497, 500
상(傷)	429, 501
상(橡)	536
상(相)	380
상(觴)	500
상(象)	386
상간(相看)	515
상개(爽塏)	196
상근(相近)	406
상근색(傷根色)	195
상기(爽氣)	280
상기(相期)	421, 546
상론(尙論)	561
상망처(相忘處)	458
상봉(翔鳳)	41
상봉(霜蓬)	577
상사(相思)	523, 585
상상(牀牀)	24
상수(相隨)	273, 441
상신(傷神)	440
상심(相尋)	284
상여(相與)	362
상영대(相縈帶)	171

상요(相繞)	578	석당(石鐘)	538
상위(相違)	134	석명(釋明)	363
상응화(相應和)	109	석밀(石密)	384
상의(相依)	105	석음(夕陰)	430
상자(相資)	569	석잔(石棧)	161
상적(相賊)	569	석죽화(石竹花)	528
상주(常住)	277	석현(昔賢)	424
상촉(相屬)	37, 448	석휘(夕暉)	534
상탁(相托)	501	선(禪)	332
상핍(相逼)	223	선가(禪家)	320
상하(上下)	380	선고(先考)	434
상함(相涵)	380	선구(仙區)	462
상환(相環)	80	선군자(先君子)	41
색계(色界)	386	선당(禪堂)	428
색색(臧臧)	106, 108	선로(仙路)	118, 390
생애(生涯)	342	선종(還從)	63
생야백(生夜白)	257	선태후(宣太后)	242
생진(生塵)	383	설도(說到)	588
서(書)	522	설제(雪霽)	503
서(逝)	426	설험(設險)	182
서곡(西谷)	519	섭(涉)	333
서공자(書空字)	271	성(聲)	513
서극(西極)	211	성왕(聖狂)	357
서당(書堂)	187	성명(性命)	56, 264, 362
서루(西樓)	288	성명(聲明)	167
서릉(西陵)	253	성모(聖母)	242
서묘(西墓)	254	성쇠(盛衰)	401
서미동(西美洞)	493, 509, 533	성음(成陰)	195
서벽(書壁)	530	성즉리(性卽理)	57
서시(書示)	587	성풍(腥風)	213
서식(棲息)	164	성학(聖學)	352
서암각(西巖角)	195	세(歲)	284, 386
서애(西厓)	40	세간(世間)	367
서애자(西厓子)	33	세간언(世間言)	481
서왕모(西王母)	97	세고(世故)	512
서재(西齋)	256, 344	세모(歲暮)	574
서지(棲遲)	516	세사(世事)	342, 584
석간(石澗)	494	세심론(洗心論)	345

세월이(歲月移)	516	손익(損益)	342
세이힐(世而黠)	162	송(宋)	138
세초(細草)	507	송(送)	455
세한(歲寒)	251	송죽심(松竹心)	250
세한심(歲寒心)	498	송회(松檜)	171
세화(歲華)	455	쇄악(鎖鑰)	204
소(疎)	397	쇄악(鎖鑰)으로도	204
소경(騷經)	397	쇠년(衰年)	440, 562, 574
소계빈(小溪濱)	506, 507	쇠루(衰淚)	285
소류(遡流)	182	쇠병(衰病)	537
소릉(少陵)	348	수(修)	387
소마(消磨)	72	수(守)	274
소미진(消未盡)	481	수(手)	250
소방량(遡靄涼)	170	수(豎)	551
소사(蕭寺)	515	수(輸)	216
소소(蕭蕭)	108, 167, 409	수각(睡覺)	489
소소(騷騷)	400	수광산색(水光山色)	257
소수(搔首)	490	수단(脩短)	367
소수(消愁)	152	수래방거(收來放去)	357
소슬(蕭瑟)	435	수로(垂老)	10
소식(消息)	133	수로일(垂老日)	523
소아(小兒)	144, 162	수분(隨分)	581
소암(小菴)	534	수연(隨緣)	466
소어(笑語)	509	수우(守愚)	443
소여우(笑如愚)	590	수운향(水雲鄉)	171
소옹(邵雍)	85	수월(水月)	74
소옹의 상수(象數)	86	수위(修爲)	52
소요(逍遙)	8, 283	수은(酬恩)	24
소우(疎雨)	397	수읍(垂泣)	212
소장(消長)	572	수응(酬應)	571
소작(疏鑿)	392	수재(秀才)	406
소흥강화조약(紹興講和條約)	143	수죽(脩竹)	387, 467
소흥화의(紹興和議)	143	수지격치개심법(須知格致皆心法)	52
속객(束客)	273	수표불(隨飄拂)	18
속물(俗物)	275	수향(睡鄉)	490
속신(束薪)	538	숙(宿)	277
속학(俗學)	322	숙도(叔度)	3
속효장(束曉裝)	170	숙운(宿雲)	429

숙향(叔向)	6	신주(神州)	146
숙화(宿火)	546	신천(新阡)	228
순경(尊羹)	94	신청(新晴)	431
순명(純明)	367	신치(辛雉)	506
순제(循除)	494	신침(薪沉)	367
술사(術士)와 도사(道士)에 대한 이해	122	신혼(晨昏)	245
송북(嵩北)	211	신활(申活)	558
승(勝)	490	신후(身後)	94
승제(乘除)	584	실로(失路)	359
승지(勝地)	40	실슬(蟋蟀)	347
승침(升沈)	228	실천이론	29
승한(乘閒)	406	심(心)	498
시(時)	537, 581	심(深)	498
시(示)	325	심·읍(尋邑)	21
시득(始得)	282	심구(心口)	421
시랑(豺狼)	236	심궁(深宮)	245
시물(時物)	429	심념(心念)	359
시부(時復)	342, 504	심배(深排)	452
시비(柴扉)	504	심사(心事)	561
시성(詩聲)	522	심연(深淵)	274
시세(時世)	459	심요(心要)	423
시시(時時)	406	심위리(心爲理)	320
시월천시(十月天時)	580	심조(深造)	332
시유연호((時有蜃戶)	265	심지적엽(尋枝摘葉)	322
식려(息旅)	84	심춘약(尋春約)	444
신(信)	134, 289	심항수묵(尋行數墨)	53
신개(新開)	342	심화(心畵)	33
신경(神京)	210	십영(十詠)	378
신근(辛勤)	537	십팔사략(十八史略)	450
신립(申砮)	181	쌍(雙)	515
신마(信馬)	533	쌍빈사(雙鬢絲)	515
신미(信美)	163	쌍선(雙扇)	241
신선방술(神仙方術)	121	쌍송애(雙松厓)	383
신세(身世)	153		
신우(神禹)	35	아배(兒輩)	325, 536
신유(神遊)	164	아서암(我西巖)	277
신이(辛夷)	506	아세(阿世)	452
신정립(申挺立)	558	아양곡(戕洋曲)	523

아언(我言)	363	양지(良知)	299
아연(俄然)	113	양지(良知)와 치양지(致良知)	299
아조(兒曹)	38	양지심(兩地心)	546
악음(惡音)	496	양침(陽簷)	531
안근류골(顔筋柳骨)	34	양하(兩河)	141
안변(眼邊)	275	양호(羊祐)	265
안심법(安心法)	10	양후(穰侯)	243
안음(安陰)	443, 446	어기(御氣)	114
안중(眼中)	326	어초(漁樵)	509
암곡(巖谷)	422	억(憶)	358, 515
양소(昂宵)	196	언론(言論)	3
애(愛)	569	엄(掩)	498
애사(哀詞)	367	엄상(嚴霜)	426
애이통제(哀李統制)	259	엄음(掩泣)	237
야색(野色)	340	업(業)	368
야야(夜夜)	333	여(如)	590
야유성(夜有聲)	494	여(歟)	320
야인(野人)	541	여(與)	382
약로(藥爐)	342	여(餘)	584
약목(若木)	88	여강(驪江)	566
약열(弱劣)	280	여경(麗京)	209
양(陽)	211	여금(如今)	501
양(梁)	246	여남(汝南)	3
양(良)	420, 545	여랑화(女郎花)	506
양가(梁家)	246	여사(餘事)	37
양공(羊公)	265	여염(閭閻)	212
양궁(兩宮)	212	여음(餘陰)	10
양능(襄陵)	22	여하(如何)	271
양량(兩兩)	183	여황(如簧)	236
양명집(陽明集)	294	역(易)	387
양명학(陽明學)	295	역락자(亦樂子)	448
양명학(陽明學) 사상의 특성	298	역란(歷亂)	190
양비력(良費力)	545	역역(役役)	316, 420
양삼성(兩三聲)	513	역정(驛程)	170
양설힐(羊舌膺)	6	연(然)	426
양양(揚揚)	246	연(緣)	385, 572
양웅(揚雄)	99	연(蜃)	265
양족(良足)	534	연(連)	342

연기(年饑)	362
연동(沿洞)	384
연릉(延陵)	544
연명(淵明)	566
연목(緣木)	422
연목구어(緣木求魚)	422
연성벽(連城壁)	368
연성옥(連城玉)	368
연애(緣崖)	41
연여(漣如)	585
연저(延佇)	383
연좌(燕坐) 좌선(坐禪)	84
연추(延秋)	205
연추문(延秋門)	205
연하(烟霞)	332
연화(年華)	447, 526
연화만(年華晚)	526
연횡(連衡)	493
열군(列郡)	204
열치(列峙)	36
열풍(烈風)	249
염계(濂溪)	429
염계심(濂溪心)	429
염염(荏苒)	503, 511
염욕(炎燄)	13
영(永)	546
영(詠)	378
영(寧)	236, 279, 426, 546, 559
영(嶺)	249
영가지(永嘉誌)	461
영교(嶺嶠)	228
영금식(永今夕)	275
영념(永念)	216, 282
영대(靈臺)	571
영락(零落)	555
영래(迎來)	386
영롱(玲瓏)	462
영뢰(靈籟)	383

영성(零星)	541
영야(永夜)	415
영영(熒熒)	88
영입서재(影入西齋)	257
영주(永州)	489
영지(靈智)	571
영탄(永歎)	348
영항(永巷)	246
영해(嬰孩)	237
영해(瀛海)	118
영해(寧海)	558
영허산(靈墟山)	380
영형아(寧馨兒)	4
영화(榮廻)	339, 381
예(翳)	424, 429
예(詣)	114
예념(預念)	493
예정(霓旌)	160
예졸(銳卒)	186
오경(五更)	109, 510
오대십국(五代十國)	139
오두미도(五斗米道)	120
오백년중(五百年中)	556
오시(午時)	503
오야(五夜)	347
오오(嗷嗷)	108
오정식(五鼎食)	215, 538
오진편(悟眞篇)	126
옥금(玉琴)	524
옥량(屋梁)	333
옥련(玉輦)	205
옥식(玉食)	364
옥연(玉淵)	376
옥연서당(玉淵書堂)	187, 376
옥연암각서(玉淵巖刻書)	378
옥연정사(玉淵精舍)	376
온해(溫解)	14
와병여(臥病餘)	584

완(玩)	504	용언(庸言)	359
완심(玩心)	385	용행(庸行)	359
완심재(玩心齋)	385	우(寓)	461
왕·황(汪黃)	142	우(愚)	590
왕계(王稽)	244	우(禹)	35
왕백언(汪伯彦)	142	우각(雨脚)	18
왕사(王師)	207	우개(羽盖)	160
왕색(枉索)	53	우내(宇內)	152
왕수인(王守仁)	295	우녀(牛女)	22
왕수인(王守仁)의 격물치지(格物致知)	312	우당(虞唐)	228
왕양명(王陽明)	295	우로(雨露)	167
왕연(王衍)	4	우병(憂病)	509
왕왕(汪汪)	5	우사(憂思)	463
왕이보(王夷甫)	147	우우양량(踽踽涼涼)	339
왕한(往還)	406	우음(偶吟)	342, 497, 536
왕환(往還)	383	우의(寓意)	185
외(外)	342	우작(偶作)	195
외심(外心)	56	우저기(牛渚磯)	379
외치(外馳)	69	우제(偶題)	452, 497, 509
외향(外鄉)	560	우축(偶逐)	384
요곽(寥廓)	422	우치(愚癡)	401
요기(療飢)	465	우하(虞夏)	70
요락(寥落)	545	우회(寓懷)	273
요료(了了)	422	우회음(寓懷吟)	273
요모문(堯母門)	238	운(云)	284
요모지문(堯母之門)	238	운간(雲間)	149
요부(堯夫)	489	운고(云苦)	490
요부(聊復)	430, 444, 522	운기(雲氣)	347
요분(妖氛)	211	운수(雲樹)	584
요언(要言)	353	운외(雲外)	108
요요(擾擾)	288, 323, 332	운일(雲日)	152
요지(瑤池)	161	운계(雲梯)	161
요초(瑤草)	223	운천(雲泉)	164
요해갈(聊解渴)	465	웅도(雄都)	186
욕계(欲界)	386	웅무(雄武)	235
욕부우해(欲浮于海)	158	원(怨)	105
용궁(龍宮)	170	원가(袁家)	65
용마(龍馬)	24	원결(冤結)	398

원고(賴固)	450	유사암(柳思庵)	394
원담(袁譚)	66	유상(遊賞)	41
원림(園林)	333	유서(幽棲)	385
원망망(遠茫茫)	118	유세(遊說)	210
원무(元無)	326	유수(劉秀)	364
원상(袁尙)	67	유숙(柳淑)	394
원생(賴生)	452	유식(遊食)	516
원소(袁紹)	65	유심(幽深)	109
원야(原野)	340	유심(有心)	146
원억(遠憶)	435	유우씨(有虞氏)	70
원지정사(遠志精舍)	255	유월(六月)	205
원추리	435	유유(悠悠)	74, 175, 238, 288, 349, 420, 429, 525
원희(袁熙)	66	유인(幽人)	190
월굴(月窟)	85	유장(惟將)	177
월백(月白)	457	유정(柔情)	105
위(爲) ~ 소(所) ~	400	유존(猶存)	573
위강주(韋江州)	576	유종(遊蹤)	390
위공(魏公)	142	유죽(幽竹)	566
위무(威武)	249	유탍(遺蹟)	407
위무제(魏武帝)	249	유향(遺響)	397
위소주(韋蘇州)	576	유회(幽懷)	510
위연(喟然)	342	유회(有懷)	511
위유금(慰幽襟)	522	육(肉)	334
위응물(韋應物)	576	육기(陸機)	101
위좌사(韋左司)	576	육바라밀	332
위지(爲之)	41	육비(六轡)	211
위체(危涕)	574	육침(陸沉)	147
유(濡)	196	율(律)	41
유가적(猶可觀)	333	육마(戎馬)	215
유강(維綱)	217	은근(慇懃)	38
유거(幽居)	10	은약(隱約)	516
유금(幽襟)	523	은은(隱隱)	493
유래(由來)	401	은죽(銀竹)	18, 436
유련(留連)	223	은파(殷波)	264
유마(維摩)	479	은호(殷浩)	268
유마경(維摩經)	479, 480	음(吟)	93, 273
유무중(有無中)	257	음부경(陰符經)	125
유묵(幽默)	569		

음성(陰成)	196	이백기(李伯紀) 이강(李綱)	139
음악(淫樂)	161	이보(李輔)	584
음양(陰陽)	134	이상(離觴)	500
음우(陰雨)	216	이색(李穡)	559
음객(揖客)	489	이색(離索)	275, 444
응(應)	345	이소(離騷)	397
응록(凝綠)	380	이숙평(李叔平)	522
응속(應俗)	472	이순신(李舜臣) 통제사(統制使)	260
응정(凝定)	317	이승인(李崇仁)	396
의(意)	525	이시(易時)	284
의(擬)	145	이시발(李時發)	31
의(疑)	385, 398	이쌍사중(二雙四重)	551
의구(依舊)	534	이언(二言)	24
의금부 도사(義禁府都事)	389	이언적(李彦迪)	57
의남초(宜南草)	435	이여송(李如松)	208
의도(意到)	472	이우(移寓)	493
의리지열심(義理之悅心)	315	이위공(李衛公) 이정(李靖)	22
의유유(意悠悠)	525	이의(二儀)	381
의안목(宜人目)	457	이이안(怡人顔)	279
의장벽(倚牆壁)	213	이절(二絶)	561
의편(倚偏)	72	이정(李靖)	22
의풍(倚風)	186	이정(離亭)	223
이(二)	473	이준(李俊)	522
이(爾)	134	이중양(李仲陽)	403
이경(異境)	183	이진사 중양(李進士仲陽)	403
이경임보(李景任輔)	583	이질(異質)	367
이군색거(離群索居)	275, 444	이찬(李燦)	170
이궁(離宮)	245	이취(李就)	406
이기설(理氣說)	28	이통제(李統制)	260
이돈(李惇)	170	이통제사(李統制使)	260
이동(異同)	561	이편(以便)	472
이릉지전(夷陵之戰)	65	이피(羸疲)	530
이명(理明)	325	이피(離披)	195
이모(二毛)	339	이형(羸形)	504
이물(異物)	367	이호민(李好閔)	544
이배(離杯)	500	익증(弋矰)	4
이배(離盃)	500	익호(翼虎)	245
이백(李白)	330, 378	인(因)	528

인간(人間)	22, 443
인목(人目)	458
인몰(湮沒)	407
인사(人事)	510
인생칠십희(人生七十稀)	195
인성(人性)의 두 측면	29
인심여도심(人心與道心)	355
인열(引說)	422
인이(人耳)	457
인착(認錯)	422
인원(麟植)	217
일(一)	277, 342, 588
일각(一噓)	537
일경(日鏡)	571
일고(一鼓)	208
일곡(一曲)	566
일관(一款)	58
일국(一掬)	465
일기(一氣)	132
일기(壹氣)	135
일념(一念)	323
일노향(一爐香)	288
일대각(一大噓)	364
일도(日到)	503
일도지(一塗地)	213
일몽환단(一夢邯鄲)	512
일미(一味)	531
일미장(一味長)	531
일법(一法)	321
일벽(一碧)	437
일별(一瞥)	236
일부일(日復日)	283
일상(一上)	326
일석(一石)	277
일석(日夕)	339
일실(一室)	113
일심덕(一心德)	37
일운(一雲)	277

일일(日日)	537
일자무성(一字無成)	38
일작다(一勺多)	88
일차(一嗟)	136
일창(一窓)	13
일철(一轍)	100
일촉명처(一燭明處)	61
일촌(一寸)	430
일태극(一太極)	458
일패도지(一敗塗地)	181
일편석(一片石)	265
일합환일벽(一闔還一闔)	356
일현(一軒)	74
일호(一毫)	494
일호망(一毫芒)	555
일혼융(一混融)	572
일흥(逸興)	190
임(任)	509, 590
임망(林莽)	340
임술지맹(壬戌之盟)	143
임림(林林)	80
임종사(林宗師)	6
임타인세(任他人世)	590
임학(林壑)	534
입(入)	476
입불이법문(入不二法門)	472, 477
입불이법문(入不以法門)	472
입불이법문품(入不二法門品)	473, 480
입지불변(立志不變)	359
잉(仍)	466, 569
자(子)	80
자(茲)	348, 429
자(資)	210, 466
자견(自遣)	472
자경(自警)	322
자구식(資口食)	541
자구이(資口耳)	56

자기혈(紫氣歇)	163	장가흥(長歌興)	443
자남(子男)	366, 426	장강(長江)	181, 325
자모죽(慈姥竹)	379	장견(張鵞)	159
자목란(紫木蘭)	506	장공(長空)	18
자목련(紫木蓮)	506	장관(壯觀)	21
자반(子半)	80	장구(杖屨)	42
자사(子思)	354	장구(長驅)	209
자생(資生)	537	장군(將軍)	334
자소(自笑)	538	장량(張良)	117
자신(滋身)	196	장부심(丈夫心)	157
자신(資身)	466	장생(張生)	93
자옥련(紫玉蓮)	506	장성(長城)	145
자유(自有)	401	장소(張所)	140, 144
자임(自任)	392	장소(長嘯)	109, 190
자제(子弟)	193	장수심(漳水潯)	252
자기(自知)	447	장수지소(藏修之所)	40
자진(子眞)	345	장신(藏身)	164
작가(作家)	134	장안(長安)	238
작객(作客)	395	장인(丈人)	237
작율(作律)	472	장자방(張子房) 장량(張良)	117
잔국(殘菊)	580	장천(長天)	72
잔년(殘年)	171	장탄식(長歎息)	435
잔등(殘燈)	415	장한(張翰)	93
잔묵(殘墨)	501	장항(筭項)	175
잔생수백구(殘生隨白鷗)	348	장항협구(筭項峽口)	175
잔서(殘暑)	288	장홍관백일(長虹貫白日)	208
잔성(殘星)	347	장회(長懷)	136
잔원(潺湲)	520	재(纔)	326
잔월(殘月)	229	재(齋)	385
잠(湛)	380	재감(纔堪)	542
잠(潛)	237	재사(齋寺)	434, 454
잠약(潛躍)	115	쟁광(爭光)	556
잠연(湛然)	118	저치(儲置)	182
잡영(雜詠)	415	적벽대전(赤壁大戰)	65
장(丈)	357	적소(積蘇)	160
장(將)	256	적송(赤松)	116
장(長)	435, 531	적우(積雨)	13
장가(長歌)	114	적의(適意)	94

전(轉)	270	정좌(靜坐)	113
전(饅)	362	정지일지(精之一之)	61
전금(前今)	149	정포은집(鄭圃隱集)	404
전복(顛覆)	215	정호사(靖胡沙)	271
전부(田父)	334	정화(征和)	235
전죽(饅粥)	214, 362	제(霽)	347, 457
절(節)	580	제벽(題壁)	282, 493
절(絶)	561	제봉(題封)	33
절사(絶似)	565	제소(帝所)	114
절엄(絶艶)	401	제시(題詩)	420
절절(浙浙)	580	제작(題作)	435
절차(切差)	54	조(凋)	426
점쇄(霑洒)	279	조(曹)	340
점정환(占淸懽)	581	조공(曹公)	62
정(征)	254	조령(鳥嶺)	182
정(情)	429	조민(曹瞋)	250
정(淨)	390, 493	조문자(趙文子)	6
정(靖)	271	조사(凋謝)	435
정(鼎)	538	조사(操捨)	572
정경세(鄭經世)	518	조식감(調息箴)	418
정경임(鄭景任)	518	조조(曹操)	249
정곡(庭曲)	387	조조(朝朝)	537
정과정(鄭瓜亭)	395, 398	조조모모(朝朝暮暮)	537
정과정곡(鄭瓜亭曲)	395	조죽(鳥竹)	182
정관(亭館)	388	족질(族姪)	362
정리(井裏)	326	족해(足解)	364
정몽주(鄭夢周)	404, 548	존존(存存)	69
정문어(程門語)	423	종(從)	214, 277, 326
정박(鄭樸)	345	종(終)	588
정백(精魄)	472	종거(鍾簾)	213
정사(精舍)	255	종거(鐘簾)	36
정서묘(征西墓)	254	종귀일(終歸一)	588
정신(精神)	53, 333	종극(終極)	80
정악(淨嶽)	493	종금(從今)	444
정업(靜業)	581	종세(終歲)	542
정일(精一)	353	종소(終宵)	428
정자진(鄭子眞)	345	종연(終然)	101, 364
정정(亭亭)	383	종일(終日)	589

종일불위(終日不違)	589	중소(中宵)	74, 135
종자기(鍾子期)	524	중야(中夜)	347
종점(縱靄)	167	중원(中原)	142, 175
종조(終朝)	421	중작(重作)	481
종지(從知)	490	즉물궁리(卽物窮理)	315
종하(種荷)	105	즉즉(唧唧)	108
종횡(縱橫)	75	즉차(卽此)	466
좌(坐)	14	증부도(曾不道)	401
좌대(坐對)	537	증익(繒弋)	4
좌임(左衽)	147	증취(甑炊)	13
좌흔(罪黻)	224	지금(祗今)	228
주(儔)	115	지도(知道)	70
주(軸)	4	지보(至寶)	333
주(鑄)	228	지월(至月)	502, 586
주돈이(周敦頤)	430	지인(知人)	70
주류(周流)	80, 114	지인(至人)	115, 153
주부(綢繆)	217	지재(只在)	561
주보언(主父偃)	215, 539	지주(砥柱)	391
주사(朱砂)	223	지주암(砥柱巖)	390
주일작(鑄一錯)	542	지지(遲遲)	196
주자(朱子)	31, 301	지해(只解)	279
주자학(朱子學)	301	지행(知行)	54
주정(鑄鼎)	35	지행합일(知行合一)	300
주정상물(鑄鼎象物)	35	직도(直道)	228
주희 사상의 특성	303, 306, 307	직시(直視)	241
주희(朱熹)	113, 301	직첩(職牒)	167
주희(朱熹)의 기차치곡(其次致曲)	354	진(眞)	490
주희(朱熹)의 격물치지(格物致知)	309	진(盡)	435
주희의 호흡조절을 통한 수행법	418	진거(進據)	181
죽(粥)	362	진금(眞金)	541
죽령(竹嶺)	182	진망(塵妄)	288
죽창(竹窓)	167	진망(眞妄)	385
중(中)	444, 458, 509	진면목(眞面目)	459
중(衆)	4	진소양왕(秦昭襄王)	242
중검(重檢)	517	진소왕(秦昭王)	242
중니(仲尼)	157	진애(塵埃)	381
중대사(中臺寺)	461	진여의(陳興義)	147
중별(重別)	171	진여의(陳興義)	147

진인(眞人)	274
진일(盡日)	188
진일(眞一)	274
진정(秦庭)	36
진팔연(盡八埏)	326
진편(陳編)	53, 581
진회(秦檜)	143
질(姪)	455
정강(澄江)	152
차(次)	576
차간(此間)	133
차문(借問)	13
차생(此生)	74
차아(嗟峨)	241
차운(次…韻)	113
차운(次韻)	74, 151, 394, 446, 576
차운(次~韻)	279
차의(此意)	490
차질(蹉跎)	209
차타(蹉跎)	225
차하리(車下梨)	432
착(着)	490
착소(鑿疏)	322
착처(着處)	282
찬찬(粲粲)	401
찬탄성(贊歎聲)	108
참담(慘憺)	18
참동(參同)	133
참동계(參同契)	126
참설(讖說)	236
참위설(讖緯說)	121, 647
창(漲)	407
창간(窓間)	344
창망(滄茫)	152
창상(窓上)	497
창인굴(僧人窟)	207
창주(滄洲)	384

창지(窓紙)	504
창창(悵悵)	359
창합(閭闔)	219
채(采)	383
채롱가(采菱歌)	383
책중객(簣中客)	246
처(處)	385
처신(處身)	561
처처(淒淒)	400
척금(尺錦)	555
척수(隻手)	263
척안(尺鷃)	271
척지금성(擲地金聲)	522
천(遷)	385
천결(穿結)	530, 537
천경(千頃)	5
천고(千古)	153
천근(天根)	85
천금등(千金藤)	432
천기(天機)	131
천단만서(千端萬緒)	588
천도(天道)	207
천리초(千里草)	510
천문산(天門山)	380
천방(天放)	472
천사(千絲)	105
천서만단(千緒萬端)	588
천시(天時)	510, 580
천심(天心)	80
천심벽(千尋壁)	462
천애(天涯)	501
천외(天外)	160
천용(天容)	18, 273, 436
천원(川原)	462
천유(天遊)	113
천장(千丈)	357
천재(千載)	196
천재(天載)	459

천정(天庭)	207	초암(草庵)	509
천지중간(天地中間)	339	초암(草菴)	509
천차(遷次)	205	초창(悵悵)	322, 383, 510
천표(天瓢)	24	초초(草草)	212
천풍(天風)	345, 381	초호(招呼)	381
천화(遷化)	367	촉(屬)	500
철(轍)	322	촉사(觸事)	574
철삭(鐵索)	36	촉유(燭幽)	322
철삭금등(鐵索金滕)	36	촉토(屬土)	195
청(淸)	344	촌지(寸枝)	195
청(靑)	395	촌효(寸效)	186
청묘(淸廟)	214	충(叢)	580
청사(淸沙)	171	최질(摧折)	250
청야(淸夜)	395	추서(墜緒)	554
청약(靑莢)	466	추월담(秋月潭)	380
청양(靑陽)	501	추재(秋齋)	577
청우도인(靑牛道人)	163	추추(啾啾)	347
청운(淸雲)	469, 470	추택(推擇)	363
청입안(靑入眼)	177	추호말(秋毫末)	421
청중(淸中)	562	추홍(秋鴻)	132
청청(靑靑)	428	추화(秋花)	332
청춘(靑春)	512	축물(逐物)	420
청탁(淸濁)	101	춘부추(春復秋)	253
청환(淸權)	581	춘화(春華)	401
청환(淸歡)	581	춘화경(春華競)	424
청휘(淸輝)	380	충사원학(蟲沙猿鶴)	161
체악(棣萼)	243	충순위(忠順衛)	439
체연여(涕漣如)	585	충주(忠州)	175
초(初)	119, 190	충허(沖虛)	113
초(草)	501	취(取)	435
초가(樵歌)	235	취(就)	277
초가(草家)	509	취산(吹散)	106
초단사(草短詞)	501	취색(翠色)	430
초당(草堂)	509	취서(就緒)	183
초래(草萊)	241	취이(就夷)	237
초방(草房)	509	취화(翠華)	211
초분(初分)	325	촉목(仄目)	452
초사(草舍)	509	촌(櫬)	500

층소(層霄)	279
치(致)	61, 355
치곡(致曲)	354, 355
치노(癡奴)	342
치도궁시(致到窮時)	61
치린(縑磷)	8
치분(馳奔)	326
치양지(致良知)	300
치지(致知)	49
치지격물(致知格物)에 대한 주희(朱熹)와 왕수인(王守仁)의 견해	309
친(親)	490
친란(親鸞)	552
칠개후자(七箇後字)	59
칠년동거국(七年同去國)	223
침릉(侵凌)	509
침면(沈綿)	367
침음(沈吟)	430
침침(沈沈)	395
궁 죽	363
쾌의(快意)	24
타 괴어(打乖語)	472
타인세(他人世)	590
탁(濁)	562
타리잠장삼촌설(橐裏潛藏三寸舌)	244
탁악(橐籥)	83
탁족(濯足)	527
탄(歎)	12, 400
탄금대(彈琴臺)	175, 180
탄백발(歎白髮)	577
탄석(歎惜)	401
탄성곡(吞聲哭)	265
탄환(彈丸)	79
탈쇄(脫灑)	332
탐(榻)	491
탐연(嗒然)	385

탕(蕩)	204
탕석(蕩析)	21
태극설(太極說)	28, 303, 304
태사(太師)	205
태산(太山)	249
태산(怠散)	545
태산(泰山)	555
태산령(太山嶺)	249
태식(太息)	345
태식〈胎息〉	416
태식조식(胎息調息)	417
태위(太尉)	565
태위공(太尉公)	565
태평도(太平道)	120
토구(菟裘)	466
통제(統制)	260
통제사(統制使)	260
퇴기복(敦其復)	84
퇴령(頽齡)	223
투도(偷桃)	96
투식선도불행법(偷食仙桃不行法)	162
투한(偷閑)	424, 443
파 상(波狀)	326
파주(坡州)	216
파죽(破竹)	204
파측(頗側)	359
판적(版籍)	210
팔극(八極)	164
팔대자가(八大字歌)	30
팔릉(八陵)	144
팔연(八埏)	326
팔조(八條)	51
팥죽(小豆粥)	363
팽택(彭澤)	333
편감(便堪)	462
편벽(鞭辟)	56
편월(片月)	347

편편(翩翩)	161
평생(平生)	490
평시서 서령(平市署書令)	389
평작(平着)	325
폐구(敝裘)	530
폐휴(蔽虧)	160
포단(蒲團)	273, 385
포은집(圃隱集)	548
폭배(曝背)	531
표(飄)	118
풍광(風光)	511
풍도(風度)	228
풍도(風濤)	339
풍산(豐山)	151
풍산현(豐山縣)	151
풍상(風霜)	171, 585
풍수(風樹)	225
풍신(風宸)	167
풍이(馮夷)	264
풍저장 직장(豐儲倉直長)	389
풍진(風塵)	332, 516
풍찬(風餐)	216
풍청(風淸)	457
피(陂)	5
필경(畢竟)	542
필연(筆硯)	545
하(夏)	70
하동(河東)	144
하뢰(下瀾)	384
하수(何須)	275
하용(何用)	542
하중(何曾)	462
하패(霞佩)	118
하항(河沆)	407
학가(鶴駕)	164
학가산(鶴駕山)	164
학려화정(鶴唳華亭)	102

한(漢)	207
한강(漢江)	225
한관의(漢官儀)	212
한광무제(漢光武帝)	364
한금(寒飡)	577
한단몽(邯鄲夢)	512
한단일몽(邯鄲一夢)	512
한로(寒露)	344
한무제(漢武帝)의 치적	233
한묵(翰墨)	183, 250
한묵가(翰墨家)	250
한병(漢兵)	20
한산도(閑山島)	262
한산도대첩(閑山島大捷)	262
한산자(寒山子)	329
한성(寒聲)	171
한성부 판관(漢城府判官)	389
한수(漢水)	325
한수(間愁)	10
한적(漢賊)	63
한정(間庭)	430
한회(寒灰)	546
한훤(寒暄)	489
함(涵)	380
함곡관(函谷關)	163
함늑(陷溺)	452
함애(銜哀)	435
함양궁전(咸陽宮殿)	241
합(合)	390
해(解)	152
해뉴(解紐)	217
해도(解道)	423
해로(薤露)	515
해박(解駁)	190
해사(解事)	401
해어(解語)	277
행(行)	17
행년(行年)	282

행득(幸得)	340	호고(好古)	32
행락(行樂)	447	호관(壺關)	237
행로난(行路難)	241	호관로(壺關老)	237
행선(行船)	323	호관장인(壺關丈人)	237
행신(行身)	561	호노(號怒)	496
행음(行吟)	401, 534	호동(呼童)	538
향(向)	53	호망(毫芒)	555
향관(向關)	580	호묘(浩渺)	462
향원(鄉園)	228	호사(胡沙)	271
허도(虛叨)	215	호상(湖上)	237
허백(虛白)	90	호상기(湖上起)	237
허실생백(虛室生白)	90	호성공신(扈聖功臣)	544
허이불굴(虛而不詘)	83	호수(湖水)	238
허주(虛舟)	153	호안(好顔)	447
허적(虛擲)	217	호월(胡越)	245
허하(許下)	61	호일박(湖日薄)	238
헐(歇)	380	호타(滹沱)	363
현기(玄機)	81	호타맥반(滹沱麥飯)	363
현달사(賢達士)	100	호타반(滹沱飯)	363
현유(玄幽)	113	호호(浩浩)	80, 114
현주(玄珠)	118	호회(好懷)	333
현주(玄酒)	84	혹(或)	279
현천(玄天)	569	혹서(酷暑)	12
협(挾)	18, 381	혼두(渾頭)	177
협순(浹旬)	182	혼백(渾白)	395
협지(夾持)	359	혼아(昏鴉)	554
형(荊)	435	혼혼(昏昏)	134
형극(荊棘)	326	혼혼지(昏昏地)	323
형문(衡門)	497	홍모(鴻毛)	264
형수(荊樹)	440	홍엽(紅葉)	533
형수(荊樹)에 관한 전설	440	화병(畫餅)	217
형승(形勝)	185	화산(花山)	152, 256
형용(形容)	426	화양군(華陽君)	243
형해(形骸)	152	화양군(華陽君) 형제	243
형원(荊萱)	435	화작(化作)	207
혜유(蕙帷)	253	화잔(花殘)	440
혜초(蕙草)	426	화정학(華亭鶴)	102
호(胡)	235	화정학려(華亭鶴唳)	102

화택(火宅)	462	회암(晦庵) 주희(朱熹)	28
화락(廓落)	72	회암팔대자가(晦庵八大字歌)	28
환(還)	437, 447	회양(懷襄)	22, 321, 392
환고(環顧)	38	회옹조식잡(晦翁調息箴)	422
환공정(桓公井)	379	회은(懷隱)	348
환란(洩瀾)	285	회재(晦齋)	57
환명(還明)	429	횡(橫)	18, 19, 550
환선(還旋)	4	횡사(橫斜)	436
환요(還繞)	188	횡수(橫豎)	550
환일벽(還一闕)	356	효(效)	378
활(豁)	211	후(嗅)	566
황곡(黃鵠)	381	후낙영(嗅落英)	566
황극(皇極)	207	후목(朽木)	217
황로사상(黃老思想)	121	후조(後凋)	251
황애(黃埃)	241	훈고(訓詁)	70
황엽(黃葉)	581	훤(萱)	435
황잠선(黃潛善)	142	휴(休)	288
황죽(黃竹)	162	휴(攜)	275, 528
황천(黃泉)	245	휴차(攜此)	275
황헌(黃憲)	3	흑철(黑鐵)	541
황홀(恍惚)	24	흔(掀)	17
황화(黃花)	566, 584	흔(釁)	216
황황(煌煌)	35	흔곡사(欣谷寺)	404
회광(回光)	323	흔연(欣然)	342, 363
회광반조(回光反照)	323	흠신(欠伸)	490
회산(懷山)	22	흥국사(興國寺)	403
회산양릉(懷山襄陵)	22, 392	희(姬)	322
회수(回首)	507	희작(戲作)	8
회암(晦庵)	113	희철(姬轍)	322



국역 및 감수



류명희(柳明熙)

本貫 豊山
臺灣 國立政治大 문학박사
부산대학교 명예교수

주요논저

李清照詩詞箋釋
蘇東坡詞所表現的
心路歷程研究
敦煌歌辭의 意境研究(1, 2) 외 다수

안유호(安維鎬)

本貫 順興
臺灣 國立師範大學 역사과 졸업
(前) 충북 충현고교 교사(한문·중국어)
학원강사(한문·중국어)

국역 서애전서 III-II

국역 류성룡 시 II

2014년 8월 30일 초판 발행

2015년 10월 20일 개정판 발행

발 행 인 류 진(柳 津)

발 행 처 사단법인(社團法人)

서애선생기념사업회(西厓先生紀念事業會)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3(풍산빌딩 16층)

전화 : 02)3406-5862, 5670

제작·공급처 한스북스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1-33 예장빌딩 301호

전화 : 02)3273-1247

등록번호 제301-2011-205(2011. 11. 15)

비매품

ISBN 978-89-967692-6-2 04810

ISBN 978-89-967692-0-0 (세트)

